

ETHER LIBRARY

0006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애덤 스미스

Adam Smith · 1776

경제 · 사회 · 정치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애덤 스미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일러두기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를 한국어로 완역한 것이다. 요약하거나 간추리지 않았다. 원문 한 문단이 번역문 한 문단이며, 서른세 부분의 문단 수가 원문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본문 2,193문단, 원문 379,794단어다.

같은 저자의 《도덕감정론》이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먼저 나와 있다. 스미스가 평생 고쳐 쓴 두 권이고, 「공평한 관찰자」와 「보이지 않는 손」이 한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국어로 나란히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이어서 옮겼다.

*stock*은 주식이 아니다 — 이 책 최대의 함정

stock 628회, *capital* 770회. **1776년의 stock은 주식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 둔 밑천 전체**다. 스미스는 2편 1장에서 이것을 둘로 쪼갠다. 당장 쓰려고 남겨 둔 몫과, 수입을 낳도록 굴리는 몫이다. 뒤엣것이 *capital*이고, 그것이 다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갈린다.

원어	이 책의 역어
stock	**자산**
capital · *capital stock*	**자본**
fixed capital / *circulating capital*	고정 자본 / 유동 자본
stock reserved for immediate consumption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
joint stock company	**합본 회사**(「주식회사」로 옮기지 않았다. 현행 상법의 「합자회사」와도 다른 형태다)

「주식」이라는 낱말은 본문에 0회다.

*corn*은 옥수수가 아니라 곡물이다

18세기 영국 영어에서 corn은 곡물 일반, 특히 밀이다. 아메리카의 maize를 뜻하는 현대 미국 용법이 아니다. 전권 457회가 걸려 있어 한 번 잘못 잡으면 책이 무너진다. 「**옥수수**」**도 본문에 0회다.** 진짜 마이즈를 가리키는 몇 자리는 **강냉이**로 갈라 적고 각주에 밝혔다.

세 갈래 소득

스미스는 상품 가격이 **임금·이윤·지대** 셋으로 갈라진다고 본다. 이 셋을 섞으면 책의 뼈대가 사라진다. *wages* 임금 · *profit* 이윤 · *rent* 지대 · *labour* 노동. *rent*를 「임대료」로 옮기면 토지에서 나오는 몫이라는 뜻이 없어지므로, 집세를 말하는 자리(*house-rent*)만 **집세**로 갈라 썼다.

18세기 경제 용어

undertaker **사업가**(장의사가 아니다) · *manufacturer* **제조업자**(직접 만드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쓴다) · *corporation* **동업조합**(길드다) · *police* **행정** ·

bounty **장려금** · *drawback* **관세 환급** ·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 *sovereign* **주권자** · *fossil* **땅에서 캐내는 것**(화석이 아니다).

특히 *subsidy*는 **보조세**로 옮겼다.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여서, 「보조금」으로 옮기면 *bounty*(장려금)와 뜻이 정반대가 된다.

《도덕감정론》에서 잡아 둔 18세기 가짜 친구(*sensible·indifferent·interested· generous·temper·want of*)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잠근 낱말을 문맥이 이기는 자리

역어를 고정하는 것은 기본값이지 규칙이 아니다. 문맥이 다른 것을 가리키면 갈라 썼고, 그럴 때마다 각주에 밝혔다. 이 책에서 실제로 갈라 쓴 자리들이다.

- ***master*** — 맞세우는 상대가 정한다. 직인·일꾼이면 **고용주**, 하인·노예면 **주인**, 물건의 임자면 **임자**, 선원이면 **선장**, 학생이면 **스승**. - ***undertaker*** — 2편 1장에 딱 한 곳, 장례 도구를 빌려주는 진짜 장의사가 나온다. - ***corporation*** — 3편 3장에서는 길드가 아니라 **도시가 법인으로 선 것**이다. - ***university*** — 1편에서는 라틴어 universitas(단체)라서 **우니베르시타스**로 음차했고, 5편 1장에서는 오늘날의 **대학**이다. 그 겹침이 스미스 논증의 일부다. - ***settlement*** — 구빈법 대목에서는 **정주 자격**, 동인도 대목에서는 **거류지**. - ***bounty*** — 봉건 영주가 가신에게 베푸는 자리에서는 장려금이 아니라 **베풂**이다.

화폐와 도량형을 환산하지 않았다

*£ s d*는 파운드·실링·펜스 그대로 두었다.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환산은 기준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지고,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quarter*는 「4분의 1」로 읽히지 않도록 **쿼터**로 음차하고

각주를 달았다. 화폐 파운드와 무게 파운드가 한 문단에 같이 나오는 자리는 「**파운드(무게)**」로 갈랐다.

곡물 가격표를 그대로 살렸다

1편 11장에 밀 가격표 둘, 4편 부록에 청어잡이 통계표 하나가 들어 있다. 저본의 줄 정렬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숫자와 열 맞춤을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고** 옮겼다. 바꾼 것은 표 머리와 표 제목뿐이고, 한글이 영문보다 넓으므로 글자 수를 맞춰 열이 틀어지지 않게 했다.

스미스 자신의 주를 제자리에 두었다

이 저본에는 번호 붙은 원저 각주가 없는 대신, 스미스의 주가 **중괄호로 본문에 끼워져 67군데** 있다. 대부분 출처 표시이고 더러 긴 설명이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각주로 빼내면 문단 수가 틀어지고, 스미스가 그 자리에 넣은 까닭도 사라진다.

저본의 오식은 고치되 밝혔다

18세기 인쇄본을 옮긴 전자 텍스트라 활자 오식이 적지 않다. *mines*가 *mints* 자리에, *exportation*이 *importation* 자리에, *colony trade*가 *corn trade*로 찍혀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곳은 **뜻이 통하는 쪽으로 옮기고, 저본이 무엇이라 찍혀 있었는지를 각주에 적었다.** 역자가 조용히 고치면 독자는 자기가 무엇을 읽는지 알 수 없고, 그대로 두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다.

스미스 자신의 착오로 보이는 자리는 **본문을 고치지 않고** 각주에 사실만 적었다. 4편에 카르피니를 프랑스 국왕의 사절이라 적은 대목이 그런 예다.

영국 법령은 「**엘리자베스 치세 13년의 법 제8장**」 꼴로 통일했다. 치세 연차로 법을 가리키는 당대 관행이라, 각 편 첫 출현에 그것이 무엇인지 한 줄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

이 표현은 **379,794단어 가운데 4편 2장에 딱 한 번** 나온다. 스미스는 그것을 지나가듯 쓴다. 앞뒤를 부풀리지 않고 그가 쓴 만큼만 옮겼고, 각주에는 두 가지 사실만 적었다. 이 책에서 한 번뿐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감정론》에도 한 번 나온다는 것이다. **그 구절이 뒤에 어떻게 읽혔는지는 적지 않았다.** 판단은 읽는 이의 몫이다.

순화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군주·법관·성직자·배우를 **비생산적 노동**에 넣는 대목, 대학 제도를 신랄하게 꾸짖는 대목, 식민지와 노예 노동을 다루는 대목, 여러 종파를 두고 하는 말을 **누그러뜨리지도 날카롭게 만들지도 않았다.** 오늘날 통용되지 않는 당대 표현은 각주로 당시 무엇을 가리켰는지만 적었고, **각주에서 스미스를 꾸짖지 않았다.**

문체

18세기 산문이라 한 문장이 대여섯 줄을 간다. **토막내지 않았다.** 80자 이상 문장이 서른세 부분에서 31%에서 59%까지 나온다. 줄표(—)는 쓰지 않았고, 삽입구는 괄호나 문장 분리로 옮겼다. 스미스가 든 구체 — 핀 공장, 양모, 청어잡이, 식민지 무역 — 는 예시가 아니라 논증 자체이므로 추상어로 요약하지 않았다.

각주

옮긴이 주 **470개**다. 모두 「**옮긴이** —」로 시작하고 한 부분에 15개를 넘기지 않았다. 다는 자리는 정해 두었다. 18세기 영국 제도, 당대 화폐·도량형, 처음 나오는 인물의 생몰년 한 줄, 오늘날 사라진 관행, 저본 오식이다.

권리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원저는 퍼블릭 도메인이다. 영어가 원문이므로 중간 역자가 없고, 따라서 중역이 아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CC BY-NC 4.0**으로 공개한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이 나누어 쓸 수 있다.

차례

머리말 — 머리말과 이 책의 구상 12

1편 — 노동의 생산력이 나아지는 원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생산물이 백성의 여러 계층 사이에 자연히 나뉘는 순서에 대하여 15

1장 — 분업에 대하여 15

2장 —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하여 24

3장 — 분업은 시장의 넓이에 한정된다는 것 29

4장 — 화폐의 기원과 쓰임에 대하여 33

5장 —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 곧 노동으로 헤아린 가격과 화폐로 헤아린 가격에 대하여 43

6장 —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 61

7장 —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하여 71

8장 —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82

9장 — 자산의 이윤에 대하여 109

10장 —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 따른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121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177

2편 — 자산의 성질과 축적과 쓰임에 대하여 314

머리말 314

1장 — 자산의 분류에 대하여 316

2장 — 사회의 일반 자산의 한 갈래로 본 화폐, 곧 국민 자본을 지키는 비용에 대하여 325

3장 — 자본의 축적, 곧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381

4장 —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산에 대하여 404
5장 — 자본의 여러 쓰임에 대하여 415

3편 — 나라마다 풍요가 나아가는 길이 다른 것에 대하여 433
1장 — 풍요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433
2장 —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의 옛 상태에서 농업이 눌린 사정에 대하여 440
3장 —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도시가 일어나 뻗어 나간 과정에 대하여 453
4장 — 도시의 교역이 시골 개량에 이바지한 과정에 대하여 468

4편 —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에 대하여 482
1장 — 상업 체계 곧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에 대하여 483
2장 —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묶는 것에 대하여 511
3장 —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가한 특별한 제한 536
4장 — 관세 환급에 대하여 567
5장 — 장려금에 대하여 573
6장 — 통상 조약에 대하여 618
7장 — 식민지에 대하여 634
8장 — 중상주의 체계의 결론 739
9장 — 농업 체계, 곧 토지 생산물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으로 보는 여러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하여 764

4편 부록 794

5편 — 주권자 곧 국가의 세입에 대하여 797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797
2장 —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944

3장 — 공채에 대하여 1057

머리말 — 머리말과 이 책의 구상

머리말과 이 책의 구상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한 해 노동은 그 나라가 한 해 동안 써서 없애는 생활의 온갖 필수품과 편의품을 본래 공급해 주는 기금이며, 그 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그 노동이 곧바로 낸 생산물이거나 그 생산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이 생산물, 또는 그것으로 사들인 것이 그것을 써서 없앨 사람의 수에 대하여 더 큰 비율을 이루는가 더 작은 비율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 나라는 저마다 필요한 온갖 필수품과 편의품을 더 넉넉히 공급받거나 더 모자라게 공급받는다.

그러나 이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첫째는 그 나라의 노동이 대체로 어느 만큼의 솜씨와 손재주와 판단력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 사이의 비율이다. 어떤 나라의 흙이 어떠하든, 기후가 어떠하든, 땅의 넓이가 어떠하든, 그 나라가 한 해에 얻는 공급이 넉넉한가 모자라는가는 그 특정한 처지에서 저 두 가지 사정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공급이 넉넉한가 모자라는가도 저 두 가지 사정 가운데 뒤의 것보다는 앞의 것에 더 많이 달려 있는 듯하다. 사냥과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미개한 민족 사이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얼마쯤은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며,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이나 부족

가운데 너무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병약하여 사냥과 고기잡이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생활의 필수품과 편의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마련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런 민족은 비참할 만큼 가난하여, 순전히 모자람 탓에 저희 어린아이와 노인과 오래 끄는 병에 걸린 이들을 때로는 곧바로 없애고 때로는 그대로 버려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먹히도록 내맡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자주 몰리며, 적어도 스스로 그런 지경에 몰렸다고 여긴다. 이와 달리 문명을 이루고 번영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이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다수가 일하는 사람 대부분보다 열 배, 흔히는 백 배나 많은 노동의 생산물을 써서 없애는데도, 사회 전체의 노동이 내는 생산물이 너무나 커서 모두가 넉넉히 공급받는 일이 흔하며,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계층의 일꾼이라도 아끼고 부지런히 일한다면 어떤 미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몫의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누릴 수 있다.

노동의 생산력이 이렇게 나아지는 원인들, 그리고 그 생산물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여러 처지의 사람들 사이에 자연히 나뉘는 순서가 이 연구의 1편이 다루는 주제를 이룬다.

어떤 나라에서 노동이 쓰이는 솜씨와 손재주와 판단력의 실제 상태가 어떠하든,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나라가 한 해에 얻는 공급이 넉넉한가 모자라는가는 해마다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유용하고 생산적인 노동자의 수는, 뒤에 드러나겠지만, 어디서나 그들을 일에 붙여 놓는 데 쓰이는 자본[1]의 양에, 그리고 그 자본이 쓰이는 특정한 길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2편은 자본의 성질, 자본이 차츰 쌓이는 과정, 그리고 자본이 쓰이는 여러 길에 따라 자본이 움직여 내는 노동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다룬다.

노동을 쓰는 솜씨와 손재주와 판단력에서 어지간히 앞서 나간 나라들도 노동을 두루 이끌고 부리는 방침에서는 서로 아주 다른 계획을 따라 왔고, 그 계획들이 노동의 생산물을 크게 만드는 데 다 같이 이로웠던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의 정책은 시골의 산업을 남달리 북돋웠고 다른 나라의 정책은 도시의 산업을 북돋웠다. 온갖 종류의 산업을 고르고 치우침 없이 대한 나라는 거의 없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로 유럽의 정책은 농업, 곧 시골의 산업보다 기예와 제조업과 상업, 곧 도시의 산업에 더 이로웠다. 이 정책을 끌어들이고 굳혀 놓은 듯이 보이는 사정들은 3편에서 밝힌다.

이 서로 다른 계획들이 어쩌면 처음에는 특정한 계층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해와 편견에서 끌려 나왔고,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 복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랑곳하지도 미리 내다보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다른 여러 정치경제학 이론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어떤 것은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본다. 그 이론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만이 아니라 군주와 주권 국가들의 공적 행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4편에서 그 서로 다른 이론들과, 그것들이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에서 낳은 주요한 결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또렷하게 밝히려고 애썼다.

백성 대다수의 수입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또는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한 해 소비를 뒷받침해 온 기금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앞의 네 편이 노리는 바다. 다섯째이자 마지막 편은 주권자, 곧 국가의 세입을 다룬다. 이 편에서 나는 첫째로 주권자 곧 국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무엇인가, 그 비용 가운데 어느 것을 사회 전체의 일반적 부담으로 물어야 하고 어느 것을 사회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구성원만의 부담으로 물어야 하는가,

둘째로 사회 전체에 걸린 비용을 치르는 데 사회 전체가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여러 방도가 무엇이며 그 방도마다 주된 이점과 불편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근대 정부가 이 세입의 일부를 담보로 잡히거나 빚을 지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그 빚이 사회의 실질적 부, 곧 그 땅과 노동이 한 해에 내는 생산물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를 보이려고 애썼다.

1편 — 노동의 생산력이 나아지는 원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생산물이 백성의 여러 계층 사이에 자연히 나뉘는 순서에 대하여

1장 — 분업에 대하여

노동의 생산력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발전, 그리고 노동이 어디서든 이끌리고 쓰일 때 함께 따르는 솜씨와 손재주와 판단력의 대부분은 분업이 낸 결과인 듯하다. 사회의 일 전체에서 분업이 내는 결과는 몇몇 특정한 제조업에서 분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분업은 아주 시시한 제조업 몇 가지에서 가장 멀리까지 밀고 나간 것으로 흔히 여겨진다. 어쩌면 더 중요한 다른 제조업보다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분업이 더 멀리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자잘한 수요를 채우도록 마련된 그 시시한 제조업에서는 일꾼의 수가 모두 합쳐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일의 서로 다른 갈래마다 붙은 사람들을 흔히 한 작업장에 모아 보는 이의 눈앞에 한꺼번에 놓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백성 대다수의 큰 수요를 채우도록 마련된 큰 제조업에서는 일의 갈래마다 너무나 많은 일꾼을 쓰는 탓에 그들을 모두 한 작업장에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갈래에 붙은 사람들보다 많은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그런 제조업에서는 일이 실제로 시시한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부분으로 갈라져 있을 수 있는데도, 그 갈림이 그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훨씬 덜 눈에 띄어 왔다.

그러므로 아주 시시하지만 분업이 매우 자주 눈에 띄어 온 제조업 하나, 곧 핀 만드는 일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일에 익히지 못한 일꾼(분업이 이 일을 독립된 직업으로 만들었다)이, 거기 쓰이는 기계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그 기계를 만들어 낼 계기도 아마 같은 분업이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한다 해도 하루에 핀 한 개를 만들기가 어쩌면 어려울 것이고 20개는 분명히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면, 일 전체가 독립된 직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그 갈래 대부분이 또한 독립된 직업이다. 한 사람은 철사를 뽑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바로잡고, 셋째 사람은 자르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갈고, 다섯째 사람은 머리를 붙일 수 있게 위쪽을 문질러 다듬는다. 머리를 만드는 데에는 별개의 공정 두세 가지가 들고, 그것을 붙이는 일이 또 독립된 일이며, 핀을 하얗게 만드는 일이 또 하나이고, 종이에 꽂아 넣는 일까지도 그 자체로 하나의 직업이다. 핀 하나를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이 이런 모양으로 18가지쯤의 별개 공정으로 갈라지며, 어떤 공장에서는 그 모두를 서로 다른 손이 맡고 어떤 공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두세 가지를 맡기도 한다. 나는 이런 종류의 작은 공장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열 사람만 일하였고 따라서 그 가운데 몇몇은 별개 공정 두세 가지를 맡았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였고 그런 만큼 필요한

기계도 어지간히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나, 힘을 내어 일하면 열 사람이 함께 하루에 핀 12파운드(무게)[2]쯤을 만들 수 있었다. 중간 크기 핀이라면 1파운드에 4,000개가 넘게 든다. 그러므로 그 열 사람은 함께 하루에 4만 8,000개가 넘는 핀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한 사람이 4만 8,000개의 10분의 1을 만든 셈이니 하루에 4,800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따로따로, 서로 얽히지 않고, 아무도 이 특정한 일을 익히지 않은 채 일했다면 저마다 하루에 20개는 분명히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한 개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곧 서로 다른 공정을 알맞게 갈라 짜 맞춘 덕분에 그들이 지금 해낼 수 있는 양의 240분의 1도, 어쩌면 4,800분의 1도 분명히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모든 기예와 제조업에서도 분업이 내는 결과는 이 아주 시시한 제조업에서와 비슷하다. 다만 그 가운데 많은 것에서는 노동을 그만큼 잘게 쪼갤 수도 없고 공정을 그만큼 단순하게 줄일 수도 없다. 그러나 분업은 끌어들일 수 있는 한 어느 기예에서나 노동의 생산력을 그에 비례하여 키운다. 서로 다른 직업과 생업이 서로에게서 갈라져 나온 것도 이 이점 때문에 일어난 듯하다. 이 갈라짐도 근면과 발전이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른 나라에서 대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며, 사회가 거친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발전한 상태에서는 대개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 된다. 발전한 사회에서는 농부는 대개 농부일 뿐이고 제조업자는 제조업자일 뿐이다. 또한 어떤 완성된 제조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도 거의 언제나 아주 많은 손으로 나뉘어 있다. 아마와 양모를 기르는 사람에서 아마포를 바래고 다듬는 사람, 또는 모직물을 물들이고 마무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마포와 모직물 제조업의 갈래마다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직업이 들어가 있는가! 농업의 성질은 과연 제조업만큼 노동을 잘게 쪼개는 것도, 한 일을 다른 일에서 그만큼 온전히 갈라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목자의 일을 곡물 농부의

일에서 갈라내는 것은 목수의 일을 대장장이의 일에서 흔히 갈라내는 것처럼 온전히 될 수 없다. 실 잣는 사람은 거의 언제나 베 짜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지만, 쟁기질하는 사람과 써레질하는 사람과 씨 뿌리는 사람과 곡물 거두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일이 흔하다. 그런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 필요해지는 때가 한 해의 철마다 돌아오므로,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늘 붙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업에 쓰이는 노동의 여러 갈래를 그토록 온전하고 빈틈없이 갈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정이, 어쩌면 이 기예에서 노동의 생산력이 나아지는 걸음이 제조업에서 나아지는 걸음을 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과연 가장 넉넉한 나라들은 제조업에서만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대개 이웃 나라들보다 낫다. 그러나 그들이 더 두드러지게 앞서는 쪽은 흔히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 그들의 땅은 대체로 더 잘 갈리고,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을 들이는 만큼 땅의 넓이와 타고난 비옥함에 비하여 더 많이 낸다. 그러나 이 생산물의 우위가 노동과 비용의 우위에 비례하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는 일은 드물다. 농업에서는 부유한 나라의 노동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보다 언제나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은 아니며, 적어도 제조업에서 흔히 그러한 만큼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부유한 나라의 곡물이 같은 정도로 좋은 것이라 해도 가난한 나라의 곡물보다 늘 더 싸게 시장에 나오지는 않는다. 폴란드의 곡물은 같은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프랑스의 곡물만큼 싸며, 프랑스가 더 넉넉하고 더 발전했음에도 그렇다. 프랑스의 곡물은 곡물 산지에서는 영국의 곡물에 아주 못하지 않게 좋고 값도 대부분의 해에 거의 같은데, 넉넉함과 발전에서는 프랑스가 어쩌면 영국에 못 미친다. 그러나 영국의 곡물 밭은 프랑스의 곡물 밭보다 더 잘 갈려 있고, 프랑스의 곡물 밭은 폴란드의 곡물 밭보다 훨씬 더 잘 갈려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갈이가 못한데도 곡물의 값싸기와 좋기에서는 부유한 나라와

얼마쯤 겨룰 수 있다 하더라도, 제조품에서는 그런 겨룸을 바랄 수 없다. 적어도 그 제조업이 부유한 나라의 흙과 기후와 처지에 맞는 것이라면 그렇다. 프랑스의 비단이 영국의 비단보다 좋고 값도 싼 것은, 적어도 생사를 들여오는 데 지금처럼 높은 관세가 붙어 있는 한 비단 제조업이 프랑스의 기후만큼 영국의 기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철물과 거친 모직물은 프랑스의 것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같은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값도 훨씬 싸다. 폴란드에는 어떤 나라도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친 가내 제조품 몇 가지를 빼면 어떤 종류의 제조업도 거의 없다고 한다.

분업 덕분에 같은 수의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이토록 크게 늘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는 일꾼 하나하나의 손재주가 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 종류의 일에서 다른 종류의 일로 넘어갈 때 흔히 잃는 시간을 아끼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을 쉽고 짧게 해 주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드는 기계를 수없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첫째, 일꾼의 손재주가 나아지면 그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반드시 늘어난다. 그리고 분업은 사람마다의 일을 어느 한 가지 단순한 공정으로 줄이고 그 공정을 그의 한평생 유일한 생업으로 만들어, 일꾼의 손재주를 반드시 아주 크게 키운다. 망치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나 못을 만드는 일은 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대장장이가 어떤 특별한 일로 못 만들기를 해 보아야 한다면, 내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200개나 300개를 넘겨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아주 나쁜 것일 터이다. 못 만들기에 익숙하되 그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생업은 아니었던 대장장이는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해도 하루에 800개나 1,000개를 넘겨 만드는 일이 드물다. 나는 못 만들기 말고 다른 어떤 직업도 해 본 적이 없는 스무 살 아래의 소년 여럿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일하면 저마다 하루에 2,300개가 넘는 못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못을 만드는 일은 결코 가장 단순한 공정에 드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 풀무를 불고, 필요에 따라 불을 쑤시거나 돋우고, 쇠를 달구고, 못의 부분마다를 두들겨 낸다. 게다가 머리를 두들길 때는 도구를 바꾸어야 한다. 핀이나 쇠단추를 만드는 일이 갈라지는 공정들은 그 모두가 훨씬 더 단순하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한평생 유일한 생업이었던 사람의 손재주는 흔히 훨씬 더 크다. 그런 제조업의 공정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빠르기는,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손이 익힐 수 있으리라고 짐작조차 못 할 정도를 넘어선다.

둘째, 한 종류의 일에서 다른 종류의 일로 넘어갈 때 흔히 잃는 시간을 아껴 얻는 이점은 우리가 처음 볼 때 짐작하기 쉬운 것보다 훨씬 크다. 다른 곳에서 아주 다른 도구로 하는 일로 아주 빠르게 옮겨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은 농장을 부치는 시골 베 짜는 사람은 베틀에서 밭으로, 밭에서 베틀로 옮겨 가는 데 적잖은 시간을 잃을 수밖에 없다. 두 직업을 같은 작업장에서 할 수 있을 때에는 잃는 시간이 분명히 훨씬 적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것은 여전히 매우 크다. 사람은 손을 한 종류의 생업에서 다른 종류의 생업으로 돌릴 때 흔히 조금씩 어정거린다. 새 일을 막 시작할 때 그가 아주 열심이고 신이 난 경우는 드물다. 흔히 말하듯 마음이 일에 붙지 않아, 한동안은 제대로 힘을 들이기보다 오히려 빈둥거린다. 30분마다 일과 도구를 바꾸어야 하고 한평생 거의 날마다 손을 스무 가지 다른 데로 놀려야 하는 시골 일꾼이면 누구나 자연히,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어정거리는 버릇과 게으르고 데면데면하게 일하는 버릇은, 그를 거의 언제나 굼뜨고 게으르게 만들어 가장 다급한 때에도 힘차게 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손재주가 모자란다는 점과는 따로, 이 원인 하나만으로도 그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은 반드시 적잖게 줄어든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알맞은 기계를 쓰면 노동이 얼마나 쉽고 짧아지는지는 누구나 느낄 것이다.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노동을 그토록 쉽고 짧게 해 주는 그 모든 기계를 만들어 낸 일도 본래 분업에 힘입은 듯하다는 것만 말해 두겠다. 사람은 마음의 온 주의가 어느 한 가지 대상으로 쏠려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여러 가지 것으로 흩어져 있을 때보다 어떤 목적에 이르는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분업 덕분에 사람마다의 주의는 모두 자연히 아주 단순한 어느 한 대상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의 갈래마다 붙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일의 성질이 그런 나아짐을 허락하는 한 자기가 맡은 특정한 일을 해내는 더 쉽고 빠른 길을 이내 찾아내리라고 자연히 기대할 만하다. 노동이 가장 잘게 쪼개진 제조업에서 쓰이는 기계 가운데 큰 몫은 본래 평범한 일꾼들이 만들어 낸 것이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아주 단순한 공정 하나에 붙어 있었으므로 자연히 그것을 해내는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아내는 데로 생각을 돌렸다. 그런 제조업을 자주 찾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맡은 특정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하려고 그런 일꾼들이 만들어 낸 아주 예쁜 기계를 여러 번 구경했을 것이다. 초기의 화력 기관[3]에서는 피스톤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보일러와 실린더 사이의 통로를 번갈아 열고 닫는 일에 소년 하나가 늘 붙어 있었다. 동무들과 놀기를 좋아하던 그 소년들 가운데 하나가, 이 통로를 여는 판의 손잡이에서 기계의 다른 부분으로 끈을 매어 두면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도 판이 열리고 닫혀 놀이 동무들과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기계가 처음 만들어진 뒤로 거기에 가해진 가장 큰 개량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제 노동을 덜려 한 소년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기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개량이 그 기계를 쓸 일이 있던 사람들의 발명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기계를 만드는 일이 독립된 직업이 된 뒤로는 많은 개량이 기계 만드는 사람들의 재간에서 나왔고, 어떤 것은 이른바 철학자 또는 사변하는 사람[4]의 재간에서 나왔다. 그들의 직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이며, 그런 까닭에 그들은 가장 멀고 서로 가장 닮지 않은 대상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나아감에 따라 철학 또는 사변도 다른 모든 생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계층 시민들의 주된, 또는 유일한 직업과 생업이 된다. 그것도 다른 모든 생업처럼 아주 많은 갈래로 쪼개지며, 그 갈래마다 특정한 무리 또는 계층의 철학자들에게 일거리를 준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업이 쪼개지면 손재주가 늘고 시간이 아껴진다.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특정한 갈래에서 더 능숙해지고, 전체로 보아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며, 그로써 학문의 양이 적잖게 늘어난다.

잘 다스려지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두루 퍼진 넉넉함을 일으키는 것은 분업 덕분에 온갖 기예의 생산물이 크게 불어나는 일이다. 일꾼마다 자기가 쓸 데 있는 것을 넘어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일의 생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일꾼마다 똑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그는 자기 물건을 많이 내어 남의 물건을 많이, 또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남의 물건 많은 양의 값어치를 바꾸어 얻을 수 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쓸 데 있는 것을 넉넉히 공급하고 그들은 그에게 그가 쓸 데 있는 것을 그만큼 넉넉히 마련해 주며, 두루 넘치는 풍족함이 사회의 온갖 계층으로 퍼져 나간다.

문명을 이루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가장 흔한 수공업자나 날품팔이가 누리는 살림살이를 살펴보라. 그러면 그에게 이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는 데 자기 근면의 일부를, 아주 작은 일부일지라도 들인 사람의 수가 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날품팔이를 덮고 있는 모직 상의는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 보이더라도 아주 많은 일꾼이 힘을 합친 노동의 생산물이다. 양치기, 양모를 가리는 사람, 양모를 빗거나 타는 사람, 물들이는 사람, 양모를 애벌로 긁어 고르는 사람, 실 잣는 사람, 베 짜는 사람, 천을 축융하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람이 이 소박한 생산물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도 저마다의 기예를 모두 합쳐야 한다. 게다가 그 재료를 어느 일꾼에게서 흔히 나라의 아주 먼 곳에 사는 다른 일꾼에게로 옮기는 데 얼마나 많은 상인과 운반꾼이 들어갔어야 하겠는가? 특히 물들이는 사람이 쓰는 여러 약재는 흔히 세상의 가장 먼 구석에서 오는데, 그것들을 한데 모으는 데 얼마나 많은 상업과 항해가, 얼마나 많은 배 만드는 사람과 뱃사람과 돛 만드는 사람과 줄 만드는 사람이 들어갔어야 하겠는가? 또한 그 일꾼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이의 도구를 만드는 데에도 얼마나 갖가지 노동이 필요한가! 뱃사람의 배, 축융하는 사람의 물방아, 또는 베 짜는 사람의 베틀 같은 복잡한 기계는 말할 것도 없이, 양치기가 양털을 깎는 가위라는 아주 단순한 기계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얼마나 갖가지 노동이 드는지만 헤아려 보자. 광부, 광석을 녹이는 화덕을 짓는 사람, 나무를 베는 사람, 제련장에서 쓸 숯을 굽는 사람, 벽돌 만드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화덕을 돌보는 일꾼들, 물방아 짜는 사람, 쇠를 두들기는 사람, 대장장이가 그것을 만들어 내려면 저마다의 기예를 모두 합쳐야 한다. 그의 옷과 집안 살림살이의 온갖 부분을 같은 모양으로 살펴본다면, 곧 살에 닿게 입는 거친 아마포 셔츠, 발을 덮는 신, 그가 눕는 침상과 그것을 이루는 온갖 부분, 그가 먹을 것을 마련하는 부엌 화격자, 그러려고 쓰는 석탄, 땅속에서 캐내어 어쩌면 먼 뱃길과 먼 땅길로 그에게 실려 온 그 석탄, 그 밖의 온갖 부엌 그릇, 상에 놓인 온갖 도구, 칼과 포크, 먹을 것을 담아 내고 나누는 흙

접시나 백랍 접시, 그의 빵과 맥주를 마련하는 데 들어간 여러 손, 열과 빛을 들이고 바람과 비를 막는 유리창, 그리고 그 아름답고 고마운 발명품을 만드는 데 드는 온갖 지식과 기예, 그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 북쪽 지방이 매우 편안한 거처가 되기 어려웠을 그 발명품, 여기에 그런 여러 편의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온갖 일꾼의 도구까지 살펴본다면, 곧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갖가지 노동이 들어가는지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수천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없이는 문명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조차 흔히 누리는 그 살림살이를, 우리가 아주 잘못 짐작하여 쉽고 단순하다고 여기는 그 정도로조차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연 지체 높은 이들의 더 방자한 사치에 견주면 그의 살림살이는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해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유럽 군주의 살림살이가 부지런하고 아낄 줄 아는 농민의 살림살이를 넘어서는 정도는, 그 농민의 살림살이가 벌거벗은 미개인 만 명의 목숨과 자유를 마음대로 쥔 많은 아프리카 왕의 살림살이를 넘어서는 정도만큼 늘 크지는 않다는 것이 어쩌면 참일지도 모른다.

2장 —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이점이 흘러나오는 분업은 본래 어떤 인간의 지혜가 낸 결과가 아니다. 그 지혜가 분업이 일으키는 저 두루 퍼진 넉넉함을 미리 내다보고 뜻했던 것이 아니다. 분업은 그렇게 널리 미치는 쓸모를 조금도 내다보지 않는 인간 본성의 어떤 성향, 곧 한 물건을 다른 물건과 주고받고 바꾸고 맞바꾸려는 성향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그러나 아주 느리고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 성향이 더 캐어 밝힐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본래 원리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더 그럴듯해 보이는 대로 이성과 말의 능력에서 반드시 따라 나온 결과인지를 캐묻는 일은 지금 우리의 주제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있으며, 이런 계약도 다른 어떤 종류의 계약도 알지 못하는 듯한 다른 어떤 짐승의 종족에서도 볼 수 없다. 사냥개 두 마리가 같은 산토끼를 쫓아 달릴 때는 더러 어떤 짜임새를 갖추어 움직이는 듯이 보인다. 저마다 토끼를 동무 쪽으로 몰거나, 동무가 토끼를 자기 쪽으로 몰 때는 그것을 가로막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계약이 낸 결과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두 짐승의 정념이 같은 대상으로 우연히 모인 결과다. 개가 다른 개와 뼈 하나를 다른 뼈와 공정하게 헤아려 맞바꾸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짐승이 몸짓과 타고난 울음소리로 다른 짐승에게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네 것이니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겠다고 알리는 것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짐승이 사람에게서든 다른 짐승에게서든 무엇을 얻으려 할 때, 그에게는 자기가 바라는 도움을 줄 상대의 마음에 드는 것 말고는 달랠 방도가 없다. 강아지는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스패니얼은 밥을 얻어먹고 싶을 때 밥상에 앉은 주인의 눈길을 끌려고 천 가지 재주를 부린다. 사람도 더러 형제들에게 같은 재주를 쓰며, 자기 마음에 맞게 그들을 움직일 다른 방도가 없을 때는 온갖 비굴하고 아첨하는 살핌으로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매번 그럴 겨를이 없다. 문명 사회에서 그는 언제나 아주 많은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데, 그의 한평생을 다 바쳐도 몇 사람의 우정을 얻기에 넉넉하지 않다. 거의 다른 모든 짐승의 종족에서는 낱낱의 짐승이 다 자라면 온전히 홀로 서며, 타고난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살아 있는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형제들의 도움이 거의 언제나 필요하고, 그것을 그들의 자애로움에만 기대는 것은 헛되다. 그가 뜻을

이루기 쉬운 길은 그들의 자기 사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가 바라는 일을 그를 위하여 해 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누구든 남에게 어떤 거래를 내놓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하려 든다. 내가 바라는 저것을 나에게 주면 네가 바라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 이것이 그런 모든 제안의 뜻이며, 우리가 필요한 도움 가운데 훨씬 큰 몫을 서로에게서 얻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저녁거리를 바랄 때 기대는 것은 고기 파는 사람이나 술 빚는 사람이나 빵 굽는 사람의 자애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에 말을 걸지 않고 그들의 자기 사랑에 말을 걸며,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이야기한다. 같은 시민들의 자애로움에 주로 매달려 살기로 하는 사람은 거지밖에 없다. 거지조차 그것에 온전히 매달리지는 않는다. 과연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자선이 그의 생계를 이루는 기금 전부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이 원리가 끝내 그가 쓸 데 있는 생활 필수품을 다 마련해 주기는 하여도, 그가 쓸 데 있는 그때그때에 맞추어 마련해 주지는 못하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가 그때그때 바라는 것의 큰 몫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속과 맞바꿈과 사들임으로 채워진다. 그는 어떤 사람이 주는 돈으로 먹을 것을 산다.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헌 옷은 자기에게 더 맞는 다른 옷이나 잠자리나 먹을 것과 바꾸고, 또는 돈과 바꾸어 그 돈으로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이나 옷이나 잠자리를 산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필요한 도움의 큰 몫을 얻는 길이 약속과 맞바꿈과 사들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 분업을 일으키는 것도 주고받으려는 이 기질이다. 사냥꾼이나 목자의 부족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빠르고 솜씨 좋게 활과 화살을 만든다고 하자. 그는 그것을 동무들과 자주 소나 사슴고기와 바꾸며, 마침내 이런 길로 자기가 직접 들에 나가

잡을 때보다 더 많은 소와 사슴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활과 화살 만들기가 그의 주된 일이 되고, 그는 일종의 무기장이가 된다.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의 작은 움막이나 옮겨 다니는 집의 뼈대와 덮개를 만드는 데 남보다 뛰어나다. 그는 이런 길로 이웃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익숙해지고, 이웃은 그와 마찬가지로 소와 사슴고기로 그에게 갚으며, 마침내 그는 이 생업에 온전히 자신을 바쳐 일종의 집 짓는 목수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셋째 사람은 대장장이나 놋일하는 사람이 되고, 넷째 사람은 미개인의 옷을 이루는 주된 재료인 가죽을 무르게 하거나 다루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기 노동의 생산물 가운데 자기 소비를 넘어서는 남은 몫 전부를, 자기가 쓸 데 있는 남의 노동 생산물의 몫과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함이 사람마다 어느 특정한 일에 자신을 붙이도록, 그리고 그 특정한 종류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지닌 재주나 재능을 갈고 다듬어 완전함에 이르도록 북돋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타고난 재주의 차이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다 자란 뒤에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을 갈라 놓는 듯이 보이는 그 아주 다른 재능은 많은 경우 분업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결과다. 서로 가장 닮지 않은 됨됨이 사이의 차이, 예컨대 철학자와 흔한 거리 짐꾼 사이의 차이도 타고난 바탕에서 오기보다 버릇과 관습과 교육에서 오는 듯하다.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뒤 여섯 해나 여덟 해 동안 그들은 어쩌면 서로 매우 비슷하였고, 그들의 부모도 놀이 동무도 이렇다 할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이나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아주 다른 일에 붙게 된다. 그때부터 재주의 차이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차츰 벌어져, 마침내 철학자의 허영은 닮은 점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여기려 든다. 그러나 주고받고 바꾸고 맞바꾸려는 기질이 없었다면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는 생활의 필수품과 편의품을 스스로 다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구실을 해내야 하고 같은 일을 해야 했을 터이니, 재주에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생업의 차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토록 두드러지는 저 재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도 이 같은 기질이다. 다 같은 종에 든다고 인정되는 여러 짐승 무리는, 관습과 교육에 앞서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재능의 차이를 자연에서 받는다. 타고난 바탕으로 보면 철학자와 거리 짐꾼의 재능과 기질 차이는 마스티프와 사냥개, 사냥개와 스패니얼, 또는 스패니얼과 양치기 개 사이의 차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짐승 무리는 다 같은 종에 들면서도 서로에게 거의 아무 쓸모가 없다. 마스티프의 힘은 사냥개의 빠름이나 스패니얼의 영리함이나 양치기 개의 순함에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 서로 다른 재능과 재주가 내는 결과는, 맞바꾸고 주고받을 힘이나 기질이 없는 탓에 공동의 자산으로 모아질 수 없고 그 종이 더 잘 살고 더 편해지는 데 조금도 이바지하지 못한다. 짐승마다 여전히 따로따로 홀로 제 몸을 먹이고 지켜야 하며, 자연이 제 동족들에게 갈라 준 그 갖가지 재주에서 어떤 이로움도 얻지 못한다. 이와 달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가장 닮지 않은 재능이 서로에게 쓸모 있다. 저마다의 재주가 내는 서로 다른 생산물이 주고받고 바꾸고 맞바꾸려는 두루 퍼진 기질에 힘입어 이를테면 공동의 자산으로 모아지며, 거기서 사람마다 남의 재주가 낸 생산물 가운데 자기가 쓸 데 있는 몫은 무엇이든 사들일 수 있다.

3장 — 분업은 시장의 넓이에 한정된다는 것

맞바꾸는 힘이 분업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이 미치는 범위도 언제나 그 힘이 미치는 범위, 다시 말하면 시장의 넓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아주 작을 때에는 누구도 어느 한 생업에 온전히 자신을 바칠 마음이 나지 않는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 가운데 자기 소비를 넘어서는 남은 몫 전부를 자기가 쓸 데 있는 남의 노동 생산물의 몫과 바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종류에조차 큰 도시가 아니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더러 있다. 예컨대 짐꾼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와 생계를 찾을 수 없다. 그에게 마을은 훨씬 너무 좁은 자리이고, 보통의 장이 서는 읍조차 그에게 끊임없는 일거리를 줄 만큼 크지 않다. 스코틀랜드 고지처럼 인적 드문 고을에 흩어져 있는 외딴집과 아주 작은 마을에서는 농부마다 자기 식구를 위하여 고기 파는 사람도 되고 빵 굽는 사람도 되고 술 빚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그런 곳에서는 대장장이나 목수나 석공조차 같은 직업의 다른 사람과 20마일 안쪽에 있는 것을 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와도 8마일이나 10마일 떨어져 사는 흩어진 집안들은, 사람이 더 많은 고을이라면 그런 일꾼들의 도움을 청하였을 자잘한 일을 수없이 스스로 해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시골 일꾼은 거의 어디서나 같은 종류의 재료를 다루는 만큼 서로 가까운 산업의 갈래라면 그 모두에 자신을 붙여야 한다. 시골 목수는 나무로 만드는 온갖 일을 다루고 시골 대장장이는 쇠로 만드는 온갖 일을 다룬다. 앞의 사람은 목수일 뿐 아니라 가구 짜는 사람이고 장 만드는 사람이며 나무에 새기는 사람이기까지 하고, 또한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 쟁기 만드는 사람, 짐수레와 마차 만드는 사람이다. 뒤의 사람의 생업은 더욱 갖가지다. 스코틀랜드 고지의 멀고 깊은 안쪽

지방에서는 못장이 같은 직업조차 있을 수 없다. 그런 일꾼이 하루에 못 1,000개를 만든다면 한 해에 일하는 날 300일로 한 해에 30만 개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1,000개, 곧 한 해 가운데 하루치 일감을 처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터이다. 물길로 실어 나름으로써 온갖 산업에 땅길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넓은 시장이 열리므로, 온갖 종류의 산업이 자연히 잘게 갈라지고 나아지기 시작하는 곳은 바닷가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의 언덕이며, 그 나아짐이 고을의 안쪽 지방으로 퍼지는 것은 흔히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다. 폭이 넓은 바퀴를 단 짐수레 하나는 두 사람이 딸리고 말 여덟 마리가 끌어 런던과 에든버러 사이를 6주쯤에 4톤에 가까운 무게의 물건을 실어 갔다가 실어 온다. 거의 같은 동안에 여섯이나 여덟 사람이 부리며 런던과 리스[5] 두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 한 척은 200톤 무게의 물건을 실어 갔다가 실어 오는 일이 흔하다. 그러므로 여섯이나 여덟 사람은 물길로 실어 나름의 도움을 받아, 사람 백 명이 딸리고 말 400마리가 끄는 폭 넓은 바퀴의 짐수레 50대와 같은 양의 물건을 같은 동안에 런던과 에든버러 사이로 실어 갔다가 실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값싼 땅길로 런던에서 에든버러로 실어 가는 물건 200톤에는 백 사람을 3주 동안 먹이는 비용과, 말 400마리와 큰 짐수레 50대를 먹이는 비용 및 그에 거의 맞먹는 닳고 부서지는 값을 물려야 한다. 반면에 같은 양의 물건을 물길로 실어 갈 때에는 여섯이나 여덟 사람을 먹이는 비용과 200톤을 싣는 배 한 척이 닳고 부서지는 값, 그리고 더 큰 위험의 값어치, 곧 땅길과 물길 사이의 보험료 차이만 물리면 된다. 그러므로 두 곳 사이에 땅길로 실어 나름 말고는 다른 오고 감이 없다면, 무게에 견주어 값이 아주 큰 물건 말고는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을 터이므로, 두 곳은 지금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업의 작은 몫밖에 해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서로의 산업에 지금 서로 주는 북돋움의 작은 몫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멀리 떨어진 곳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업도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이다. 런던과 콜카타 사이의 땅길 비용을 무슨 물건이 견딜 수 있겠는가? 또는 이 비용을 버틸 만큼 값진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토록 많은 야만한 나라의 땅을 지나 그것을 어떤 안전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두 도시는 지금 서로 매우 큰 상업을 하며, 서로에게 시장을 마련해 주어 서로의 산업에 적잖은 북돋움을 준다.

그러므로 물길로 실어 나름의 이점이 이러하므로, 기예와 산업의 첫 나아짐이 이 편리함이 온갖 종류의 노동 생산물에게 온 세상을 시장으로 열어 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을의 안쪽 지방으로 퍼지는 것은 언제나 훨씬 늦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을의 안쪽 지방은 그 물건 대부분에 대하여, 자기들을 둘러싸고 바닷가와 배가 다니는 큰 강에서 갈라놓는 고을 말고는 오랫동안 다른 시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의 넓이는 오랫동안 그 고을의 부와 사람 많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들의 나아짐은 언제나 그 고을의 나아짐보다 뒤일 수밖에 없다.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농장이 늘 바닷가나 배가 다니는 강의 언덕을 따라 들어섰고, 그 둘 어느 쪽에서든 이렇다 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뻗어 나간 데는 거의 없다.

가장 잘 입증된 역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문명을 이룬 듯이 보이는 민족은 지중해 바닷가를 둘러 살던 이들이었다. 이 바다는 세상에 알려진 것 가운데 단연 가장 큰 내해로서 밀물과 썰물이 없고 따라서 바람만으로 일어나는 것 말고는 물결도 없으니, 그 물낯이 잔잔한 데다 섬이 많고 이웃한 뭍이 가까운 까닭에 세상의 갓 태어난 항해에 지극히 이로웠다. 그때는 나침반을 몰라 사람들이 뭍을 눈에서 놓치기를 두려워하였고, 배 만드는 기예가 온전하지 못하여 큰 바다의 거센 물결에 몸을 내맡기기를 두려워하였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나가는

일, 곧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가 항해하는 일은 옛 세상에서 오랫동안 가장 놀랍고 위험한 항해의 업으로 여겨졌다. 그 옛 시절에 가장 솜씨 좋은 항해자이자 배 만드는 사람이었던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조차 그것을 해 보기까지는 늦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해 본 유일한 민족이었다.

지중해 바닷가의 모든 고을 가운데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이렇다 할 정도로 갈고 다듬어 나아진 첫째 고을은 이집트였던 듯하다. 상이집트는 어디서도 나일강에서 몇 마일 넘게 뻗어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이집트에서는 그 큰 강이 여러 갈래 물길로 갈라져, 얼마간의 기예를 보태면 큰 도시들 사이만이 아니라 이렇다 할 만한 마을 모두 사이, 나아가 시골의 많은 농가에까지 물길로 오고 감을 마련해 준 듯하니, 오늘날 네덜란드에서 라인강과 뫼즈강이 하는 것과 거의 같다. 이 안쪽 물길의 넓이와 편함이 아마 이집트가 일찍 나아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농업과 제조업의 나아짐도 동인도의 벵골 여러 지방과 중국의 동쪽 몇몇 지방에서 매우 오래된 일이었던 듯하나, 그 오램이 얼마나 먼 것인지는 우리가 세상의 이쪽에서 그 권위를 잘 믿을 만한 어떤 역사로도 입증되지 않는다. 벵골에서는 갠지스강과 그 밖의 여러 큰 강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하는 것과 같이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수없이 이룬다. 중국의 동쪽 지방에서도 여러 큰 강이 그 갈래들로 수많은 물길을 이루고 서로 통하여, 나일강이나 갠지스강 어느 쪽보다도, 어쩌면 그 둘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넓은 안쪽 물길을 마련해 준다. 옛 이집트인도 인도인도 중국인도 바깥과의 상업을 북돋우지 않았고 그 큰 넉넉함을 모두 이 안쪽 물길에서 끌어낸 듯이 보이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프리카의 모든 안쪽 지방,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해에서 북쪽으로 이렇다 할 만큼 떨어진 아시아의 모든 지역, 곧 옛 스키티아이자 오늘날의 타타르 지방과 시베리아는 세상의 모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야만하고 문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듯하다. 타타르의 바다는 항해를 허락하지 않는 얼어붙은 바다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강 몇 개가 그 고을을 지나 흐르기는 하나,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땅 대부분으로 상업과 오고 감을 실어 가지 못한다. 아프리카에는 유럽의 발트해와 아드리아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 걸친 지중해와 흑해, 아시아의 아라비아만과 페르시아만과 인도만과 벵골만과 시암만 같은 큰 내해가 하나도 없어 그 큰 대륙의 안쪽으로 바닷길 상업을 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큰 강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다 할 만한 안쪽 물길을 일으키지 못한다. 게다가 어떤 나라가 여러 갈래나 물길로 갈라지지 않고 바다에 이르기 전에 다른 나라의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상업은 결코 클 수 없다. 그 다른 땅을 가진 민족이 윗고을과 바다 사이의 오고 감을 막을 힘을 늘 쥐고 있기 때문이다. 도나우강의 항해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여러 나라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흑해로 떨어지기까지 그 온 흐름을 차지했을 경우에 비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4장 — 화폐의 기원과 쓰임에 대하여

분업이 한번 온전히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바라는 것 가운데 자기 노동의 생산물로 채울 수 있는 몫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 훨씬 큰 몫을, 자기 노동의 생산물 가운데 자기 소비를 넘어서는 남은 몫을 자기가 쓸 데 있는 남의 노동 생산물의 몫과 바꾸어 채운다.

이렇게 사람마다 바꿈으로 살아가고 얼마쯤은 상인이 되며, 사회 자체가 제대로 말하여 상업 사회로 자라난다.

그러나 분업이 처음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 바꾸는 힘이 움직이는 데 자주 크게 막히고 걸렸을 것이 분명하다.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을 자기가 쓸 데 있는 것보다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은 적게 가졌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사람은 이 남는 몫의 일부를 내놓고 싶고 뒤의 사람은 그것을 사들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사람이 앞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둘 사이에 바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기 파는 사람은 가게에 자기가 먹어 없앨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고기를 가지고 있고, 술 빚는 사람과 빵 굽는 사람은 저마다 그 일부를 사들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직업이 내는 서로 다른 생산물 말고는 바꾸어 내놓을 것이 없고, 고기 파는 사람은 당장 쓸 데 있는 빵과 맥주를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들 사이에는 어떤 바꿈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는 그들의 상인이 될 수 없고 그들은 그의 손님이 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서로에게 덜 쓸모 있는 사이가 된다. 그런 처지의 불편을 피하려고, 분업이 처음 자리를 잡은 뒤로 어느 시대의 사회에서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히 자기 일을 이렇게 꾸리려고 애썼을 것이다. 곧 자기 근면이 내는 고유한 생산물 말고도, 저마다의 근면이 낸 생산물과 바꾸자 할 때 이것이라면 마다할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품을 얼마쯤 언제나 곁에 두려 했을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상품이 차례로 이 목적을 위하여 생각되고 또 쓰였을 것이다. 사회가 거칠던 시대에는 소가 상업의 흔한 도구였다고 하며, 소는 지극히 불편한 도구였을 것이 분명하나 옛 시절에 물건의 값어치를 그것과 바꾸어 준 소의 마릿수로 매기는 일이 흔했음을 우리는 본다. 호메로스는 디오메데스의 갑옷이 소 아홉 마리밖에 들지 않았으나 글라우코스의 갑옷은 소 백 마리가

들었다고 말한다[6]. 소금이 아비시니아[7]에서 상업과 바꿈의 흔한 도구라 하고, 인도 바닷가 몇 곳에서는 조개의 한 종류가, 뉴펀들랜드에서는 말린 대구가, 버지니아에서는 담배가, 우리 서인도 식민지 몇 곳에서는 설탕이, 다른 몇몇 고을에서는 생가죽이나 다룬 가죽이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스코틀랜드에는 일꾼이 돈 대신 못을 들고 빵집이나 술집에 가는 일이 드물지 않은 마을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이유로 이 쓰임새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금속을 앞세우기로 정한 듯하다. 금속은 거의 어떤 것도 그만큼 덜 썩지 않으니 다른 어떤 상품에 못지않게 잃는 것 없이 갈무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아무 잃음 없이 몇 조각으로든 가를 수 있고 녹여서 그 조각들을 쉽게 다시 하나로 붙일 수도 있다. 이 성질은 그만큼 오래가는 다른 어떤 상품도 지니지 못한 것이며, 다른 어떤 성질보다도 금속을 상업과 돌림의 도구로 알맞게 만든다. 예컨대 소금을 사려 하는데 바꾸어 줄 것이 소밖에 없는 사람은 한 번에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 값어치의 소금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보다 적게 사는 일은 드물었을 터이니, 그 값으로 내줄 것을 잃음 없이 가를 수 있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사고 싶었다면 같은 이유로 두 곱이나 세 곱의 양, 곧 소 두세 마리나 양 두세 마리의 값어치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양이나 소가 아니라 금속을 바꾸어 줄 것으로 가졌다면, 그는 당장 쓸 데 있는 상품의 딱 그만한 양에 금속의 양을 쉽게 맞출 수 있었다.

이 쓰임새를 위하여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금속을 써 왔다. 쇠는 옛 스파르타인 사이에서 상업의 흔한 도구였고, 구리는 옛 로마인 사이에서, 금과 은은 부유하고 상업이 활발한 모든 나라에서 그러하였다.

그 금속들은 본래 도장이나 주조 없이 거친 덩이 그대로 이 쓰임새로 쓰인 듯하다. 그래서 플리니우스[8]는 옛 역사가 티마이오스의 권위를 빌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까지 로마인에게는 주조한 돈이 없어 도장 없는 구리 덩이를 써서 쓸 데 있는 것을 무엇이든 사들였다고 우리에게 일러 준다(《박물지》 33권 3장). 그러므로 이 거친 덩이가 그때에는 돈의 구실을 하였다.

금속을 이렇게 거친 상태로 쓰는 데에는 매우 큰 불편이 두 가지 따랐다. 첫째는 무게를 다는 수고이고 둘째는 순도를 살피는 수고다. 귀금속에서는 양의 작은 차이가 값어치의 큰 차이를 만들므로, 무게를 알맞게 정확히 다는 일조차 적어도 아주 정밀한 저울과 분동이 필요하다. 특히 금의 무게를 다는 것은 얼마쯤 섬세함이 드는 일이다. 과연 작은 어긋남이 별 대수롭지 않은 거친 금속에서는 정확함이 덜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1파딩[9]어치 물건을 사거나 팔 때마다 그 파딩의 무게를 달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나칠 만큼 수고롭다고 여길 것이다. 순도를 살피는 일은 더욱 어렵고 더욱 지루하며, 금속의 일부를 알맞은 녹임약과 함께 도가니에 제대로 녹여 보지 않는 한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결론도 지극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주조한 돈의 제도가 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나 가장 심한 속임과 사기에 걸릴 수밖에 없었으니, 순은이나 순동 1파운드(무게) 대신에 겉모양만은 그 금속을 닮게 만든, 가장 거칠고 값싼 재료를 섞은 것을 물건 값으로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폐단을 막고 바꿈을 쉽게 하여 온갖 산업과 상업을 북돋우려면, 발전을 향하여 이렇다 할 만큼 나아간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데 흔히 쓰이던 특정한 금속의 일정한 양에 공적인 도장을 찍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주조한 돈과 조폐국이라 불리는 공적 기관이 비롯되었으니, 이는 모직물과

아마포의 검척관과 검인관의 기관과 성질이 똑같은 제도다'[10]. 그 모두가 똑같이, 서로 다른 상품이 시장에 나올 때 그 양과 고른 품질을 공적인 도장으로 확실히 밝히려는 것이다.

통용되는 금속에 찍은 이 종류의 첫 공적 도장은, 많은 경우 확실히 밝히기가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것, 곧 금속의 품질 또는 순도를 확실히 밝히려는 뜻이었던 듯하고, 오늘날 은그릇과 은덩이에 찍는 스털링 표나 때로 금덩이에 찍는 스페인 표와 비슷하였던 듯하다. 이 표들은 조각의 한쪽 면에만 찍혀 온 표면을 덮지 않으므로 금속의 순도는 확실히 밝히지만 무게는 밝히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값으로 치르기로 한 은 400세겔의 무게를 에프론에게 달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돈이라 하는데도, 오늘날 금덩이와 은덩이가 그러하듯이 낱낱을 세어서가 아니라 무게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의 옛 색슨 왕들의 세입은 돈이 아니라 현물로, 곧 온갖 종류의 먹을 것과 물자로 치러졌다고 한다. 정복왕 윌리엄[11]이 그것을 돈으로 치르는 관습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 돈도 오랫동안 재무부에서 낱낱을 세어서가 아니라 무게로 받아들여졌다.

그 금속의 무게를 정확히 다는 일의 불편과 어려움이 주화의 제도를 일으켰으니, 조각의 두 면을 온전히 덮고 때로는 가장자리까지 덮는 그 도장이 금속의 순도만이 아니라 무게까지 확실히 밝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런 주화는 오늘날처럼 무게를 다는 수고 없이 낱낱을 세어 받아들여졌다.

그 주화의 이름은 본래 거기 든 금속의 무게나 양을 나타냈던 듯하다. 로마에서 처음 돈을 주조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에 로마의 아스 또는 폰도는 좋은 구리 1로마파운드를 담았다. 그것은 우리 트루아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12온스로 갈렸고 그 온스마다 좋은 구리 실제 1온스를 담았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에드워드 1세 때에 알려진 순도의 은을

런던탑 무게로 1파운드 담았다. 런던탑 파운드는 로마 파운드보다 얼마쯤 무겁고 트루아 파운드보다 얼마쯤 가벼웠던 듯하다. 이 마지막 것은 헨리 8세 치세 18년에 이르러서야 영국 조폐국에 들어왔다[12]. 프랑스의 리브르는 샤를마뉴 때에 알려진 순도의 은을 트루아 무게로 1파운드 담았다. 샹파뉴 트루아의 장은 그때 유럽의 모든 나라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므로, 그토록 이름난 장의 무게와 자는 널리 알려지고 높이 여겨졌다. 스코틀랜드의 화폐 파운드는 알렉산더 1세 때부터 로버트 브루스 때까지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과 같은 무게, 같은 순도의 은 1파운드를 담았다. 영국과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페니도 본래 그 모두가 온스의 20분의 1이자 파운드의 240분의 1인 실제 1페니웨이트의 은을 담았다. 실링도 본래 어떤 무게의 이름이었던 듯하다. 헨리 3세 때의 옛 법령은 "밀값이 1쿼터'[13]에 12실링일 때에는 1파딩짜리 웨이스텔 빵'[14]의 무게가 11실링 4펜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링과 한쪽의 페니 또는 다른 쪽의 파운드 사이의 비율은 페니와 파운드 사이의 비율만큼 한결같고 고르지 않았던 듯하다. 프랑스 왕들의 첫 왕조 동안에 프랑스의 수 또는 실링은 여러 경우에 페니 5개, 12개, 20개, 40개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옛 색슨인 사이에서 실링은 한때 페니 5개밖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들 사이에서도 이웃한 옛 프랑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들쭉날쭉했을 법하다.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 때부터, 영국에서는 정복왕 윌리엄 때부터 파운드와 실링과 페니 사이의 비율이 오늘날과 한결같이 같았던 듯하나 그 하나하나의 값어치는 매우 달라졌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나 군주와 주권 국가들이 그 백성의 믿음을 저버리며 저희 주화에 본래 들어 있던 금속의 실제 양을 차츰 줄여 왔다고 나는 믿는다. 로마의 아스는 공화국 말기에 본래 값어치의 24분의 1로 줄어, 1파운드 무게가 아니라 반 온스밖에 되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파운드와 페니는 오늘날 본래 값어치의 3분의

1쯤밖에 담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파운드와 페니는 36분의 1쯤, 프랑스의 파운드와 페니는 66분의 1쯤밖에 담지 않는다. 이런 조작으로 그것을 행한 군주와 주권 국가들은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들었을 것보다 적은 양의 은으로 저희 빚을 갚고 저희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과연 그것은 겉으로만 그러하였으니, 그들의 채권자는 실제로 받을 것의 일부를 속아 잃었다. 그 나라의 다른 모든 채무자에게도 같은 특권이 허락되어, 헌 돈으로 빌린 것을 새로 낮춘 주화의 같은 명목 액수로 갚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런 조작은 언제나 채무자에게 이롭고 채권자에게 파멸이었으며, 때로는 아주 큰 공적 재난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널리 퍼진 사사로운 이들의 재산 뒤바뀜을 낳았다.

모든 문명한 나라에서 돈이 이렇게 상업의 두루 쓰이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을 끼고 온갖 종류의 물건이 사고 팔리며 서로 맞바뀐다.

사람들이 물건을 돈과 바꾸거나 서로 바꿀 때 자연히 지키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살펴 나가겠다. 이 규칙들이 물건의 상대적 가치 또는 교환 가치라 부를 만한 것을 정한다.

「가치」라는 낱말에 서로 다른 두 뜻이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때에는 어떤 특정한 물건의 쓸모를 나타내고, 어떤 때에는 그 물건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 앞의 것은 「사용 가치」라 부를 수 있고 뒤의 것은 「교환 가치」라 부를 수 있다. 사용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교환 가치는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일이 흔하고, 거꾸로 교환 가치가 가장 큰 것이 사용 가치는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일이 흔하다. 물보다 쓸모 있는 것은 없으나 물로는 무엇을 사기가 어려우니, 그것과 바꾸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와 달리 금강석은 사용 가치가 거의 없으나 그것과 바꾸어 다른 물건을 아주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이 흔하다.

상품의 교환 가치를 정하는 원리를 캐어 보려고 나는 다음을 보이려 애쓰겠다.

첫째, 이 교환 가치의 실질적 척도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실질 가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이 실질 가격이 어떤 부분들로 짜이거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의 서로 다른 부분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스럽거나 보통의 비율 위로 더러 올리고 더러 그 아래로 내리는 사정들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시장 가격, 곧 상품의 실제 가격이 그 자연 가격이라 부를 만한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 못하게 더러 막는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어지는 세 장에서 그 세 가지 주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또렷하게 밝히려고 애쓰겠으며, 그러기 위하여 독자의 참을성과 주의를 아주 간절히 청하지 않을 수 없다. 참을성을 청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곳에서는 쓸데없이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주의를 청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설명을 다한 뒤에도 어쩌면 여전히 얼마쯤 흐릿해 보일지 모르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말이 환히 통하는지를 확실히 하려고 지루해질 위험을 얼마쯤 무릅쓰기를 언제나 마다하지 않으며, 환히 통하게 하려고 내가 들일 수 있는 온 힘을 들인 뒤에도 그 본성이 지극히 추상적인 주제에는 얼마쯤 흐릿함이 여전히 남아 보일 수 있다.

---

1. 옮긴이 — 원문은 capital stock. 이 책에서 stock은 사람이 쌓아 둔 밑천 전체를 뜻하므로 「자산」으로, 그 가운데 수입을 낳도록 굴리는 부분인 capital은 「자본」으로 갈라 옮긴다. 1776년의 stock에는 오늘날 증권 시장에서 쓰는 뜻이 들어 있지 않다.

2. 옮긴이 — 무게 단위 파운드로 약 454그램이다. 이 책에는 화폐 단위 파운드도 나오므로, 한 문단에 둘이 함께 나올 때는 무게 쪽을 「파운드(무게)」로 적어 갈라

둔다.

3. 옮긴이 — 원문 fire engine. 18세기에는 증기 기관을 이렇게 불렀다. 저본에도 이 자리에 «당시 증기 기관을 이렇게 불렀다»는 편집자의 괄호 주석이 붙어 있다.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광산의 물을 퍼내는 데 쓰인 뉴커먼식 기관이다.

4. 옮긴이 — 원문 philosophers, men of speculation. 18세기에 philosopher는 오늘날의 철학자보다 넓어, 자연을 살피는 학자와 사색으로 먹고사는 사람 일반을 가리켰다. 뒤이어 스미스가 그들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이라 적은 것도 이 넓은 뜻에서다.

5. 옮긴이 — 에든버러에서 북쪽으로 3킬로미터쯤 떨어진 포스만의 항구로, 당시 에든버러의 바깥 항구 구실을 하였다. 그러므로 런던과 리스 사이의 뱃길은 런던과 에든버러 사이의 땅길과 견주어지는 같은 구간이다.

6. 옮긴이 — 《 일리아스 》 6권에서 그리스 편의 디오메데스와 트로이 편의 글라우코스가 싸움터에서 조상의 인연을 알아보고 갑옷을 맞바꾸는 대목이다. 호메로스는 두 갑옷의 값을 소 아홉 마리와 소 백 마리로 적었다.

7. 옮긴이 —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일컫던 옛 이름이다. 소금을 막대 모양으로 굳힌 「아모레」가 20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서 실제로 돈처럼 오갔다.

8. 옮긴이 — 대플리니우스(23-79). 로마의 문인이자 관리로, 여기 인용된 《박물지》는 당대의 온갖 지식을 모은 37권의 백과사전이다.

9. 옮긴이 — 파딩은 1페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주화다. 이 책에 나오는 영국 화폐는 1파운드 = 20실링, 1실링 = 12펜스, 곧 1파운드 = 240펜스로 셈한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당대의 금액을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10. 옮긴이 — 원문 aulnagers, stamp-masters. 검척관은 모직물의 길이와 폭을 자로 재어 공인 도장을 찍던 관리이고 검인관은 그 도장을 맡은 관리다. 사는 사람이 일일이 재어 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나라가 품질과 수량을 보증한 제도로, 오늘날에는 남아 있지 않다.

11. 옮긴이 — 정복왕 윌리엄(1028-1087).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만 왕조의 첫 왕이다.

12.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왕의 치세 몇 년째인가로 연도를 적는 관행이 있었다. 헨리 8세 치세 18년은 1526년에서 1527년에 걸치며, 트루아 파운드를 조폐국의 기준 무게로 받아들인 것이 이때의 법령이다.

13. 옮긴이 —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는 약 8부셸에 해당한다. 「 4분의 1 」 을 뜻하는 낱말과 같은 꼴이지만 여기서는 분수가 아니라 단위

이름이므로 음차한다.

14. 옮긴이 — 웨이스텔은 고운 흰 가루로 구운 질 좋은 빵이다. 인용된 법령은 밀값에 따라 빵 한 덩이의 무게를 정해 두던 당대의 빵값 규제이며, 빵의 무게를 실링과 펜스라는 화폐 이름으로 적은 것은 실링과 페니가 본래 무게의 이름이었음을 스미스가 여기서 보이려는 바다.

5장 —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 곧 노동으로 헤아린 가격과 화폐로 헤아린 가격에 대하여

5장 —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 곧 노동으로 헤아린 가격과 화폐로 헤아린 가격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인간 생활의 필수품과 편의품과 즐길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누릴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부유하거나 가난하다. 그러나 분업이 일단 널리 자리를 잡은 뒤에는 그 가운데 자기 노동으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몫은 아주 작은 부분에 그친다. 그보다 훨씬 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얻어 와야 하며,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곧 사서 쓸 여유가 있는 노동의 양에 따라 부유하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쓰거나 소비할 뜻이 없고 다른 상품과 바꾸려 할 때, 그 상품이 그에게 지니는 가치는 그것으로 그가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재는 실질 척도다.

모든 것의 실질 가격, 곧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로 치르게 하는 값은 그것을 얻는 데 드는 수고와 노고다. 이미 그것을 얻어서 이제 그것을 처분하거나 다른 것과 바꾸려는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로 지니는 값어치는, 그것이 그 자신에게서 덜어 주고 남에게 대신 떠맡길 수 있는 수고와 노고다. 화폐로 사는 것이든 재화로 사는 것이든,

그것은 우리 몸을 수고롭게 하여 얻는 것과 똑같이 노동으로 사는 것이다. 다만 그 화폐나 그 재화가 우리에게서 이 수고를 덜어 준다. 그것들은 일정한 양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그때 같은 양의 노동 가치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과 바꾼다. 노동이야말로 최초의 가격, 곧 모든 것에 치러진 본래의 구매 대금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처음에 사들인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노동이었고, 그 부를 가진 사람들, 그것을 새로운 생산물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의 가치는 그것으로 그들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과 정확히 같다.

홉스 씨의 말대로 부는 힘이다.[1] 그러나 큰 재산을 얻거나 물려받은 사람이 반드시 어떤 정치적 권력, 곧 민사상의 권력이나 군사상의 권력을 얻거나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재산이 어쩌면 그 둘을 얻을 수단을 그에게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재산을 그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이 그에게 반드시 건네지지는 않는다. 그 소유가 곧바로 직접 그에게 건네주는 힘은, 그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노동, 또는 노동의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력을 사들이는 힘이다. 그의 재산이 크거나 작은 것은 바로 이 힘의 크기, 곧 그 재산으로 그가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남의 노동의 양, 또는 같은 말이지만 남의 노동이 낳은 생산물의 양에 정확히 비례한다. 무엇이든 그 교환 가치는 그것이 그 임자에게 건네주는 이 힘의 크기와 언제나 정확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재는 실질 척도이기는 하되, 상품의 가치를 흔히 가늠하는 잣대는 노동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노동량 사이의 비율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많다. 두 가지 다른 일에 들인 시간만으로 이 비율이 언제나 정해지지는 않는다. 견뎌 낸 고됨의 정도와 부려 쓴 재주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셈에 넣어야 한다. 한 시간의

힘든 일에 두 시간의 수월한 일보다 더 많은 노동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배우는 데 10년의 노동이 든 업종에 한 시간 매달리는 쪽이 여느 뻔한 일자리에서 한 달 부지런히 일하는 쪽보다 더 많은 노동일 수 있다. 그러나 고됨이든 재주든 그것을 정확히 재는 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 낳은 서로 다른 생산물을 맞바꿀 때에는 흔히 그 둘을 얼마쯤 감안해 준다. 그러나 그것을 맞추는 것은 어떤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 시장의 흥정과 값 다툼이며, 정확하지는 않아도 여느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에는 넉넉한 그 어림잡은 균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게다가 어떤 상품이든 노동과 바뀌는 일보다 다른 상품과 바뀌고 그리하여 다른 상품과 견주어지는 일이 더 잦다. 그러므로 그 교환 가치를 그것이 낳을 수 있는 노동[2]의 양으로 가늠하기보다 다른 어떤 상품의 양으로 가늠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또 사람들 대부분은 노동의 양이라는 말보다 어떤 특정 상품의 양이라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다. 한쪽은 눈에 뚜렷이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이고, 다른 쪽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낼 수야 있으나 그만큼 자연스럽고 뻔하지는 않은 추상 관념이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그치고 화폐가 상업의 공통 수단이 되고 나면, 어떤 상품이든 다른 어떤 상품보다 화폐와 바뀌는 일이 더 잦아진다. 정육점 주인은 자기 소고기나 양고기를 빵집이나 술도가로 지고 가서 빵이나 맥주와 바꾸는 일이 드물고, 그것을 시장으로 가져가 화폐와 바꾼 다음 그 화폐를 빵과 맥주와 바꾼다. 그가 고기 값으로 받는 화폐의 양이 그 뒤에 그가 살 수 있는 빵과 맥주의 양까지 정한다. 그러므로 그로서는 자기 고기를 곧바로 바꾸어 주는 상품인 화폐의 양으로 그 값을 가늠하는 편이, 다른 상품을 한 번 거쳐야만 바꿀 수 있는 상품인 빵과 맥주의 양으로 가늠하는 편보다 더 자연스럽고 뻔하며, 자기

고기가 빵 3~4파운드(무게)의 값어치가 있다거나 약한 맥주 3~4쿼트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하기보다 1파운드(무게)에 3펜스나 4펜스[3]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하는 편이 그에게 더 낫다. 이리하여 어떤 상품이든 그 교환 가치를 노동의 양으로도, 그것과 바꾸어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상품의 양으로도 가늠하기보다 화폐의 양으로 가늠하는 일이 더 잦아진다.

그런데 금과 은도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변하여, 어떤 때는 더 싸고 어떤 때는 더 비싸며, 어떤 때는 사기가 더 쉽고 어떤 때는 더 어렵다. 금과 은 얼마가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 곧 그것과 바뀔 재화의 양은 그런 교환이 이루어질 무렵에 마침 알려져 있는 광산이 기름진지 메말랐는지에 언제나 달려 있다. 아메리카의 넉넉한 광산이 발견되면서 16세기 유럽에서 금과 은의 가치는 그 전의 3분의 1쯤으로 떨어졌다. 그 금속을 광산에서 시장까지 실어 오는 데 노동이 덜 들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시장에 이르렀을 때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도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의 격변은 어쩌면 가장 큰 격변이었겠으나 역사가 얼마쯤 전하는 유일한 격변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의 발 길이나 두 팔 너비나 한 줌처럼 저 자신의 양이 끊임없이 변하는 양의 척도는 다른 것의 양을 재는 정확한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듯이, 저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상품은 다른 상품의 가치를 재는 정확한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 같은 양의 노동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노동하는 사람에게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건강과 체력과 기력이 여느 상태에 있고 솜씨와 손재주가 여느 정도에 있는 한, 그는 언제나 자기의 편안함과 자유와 행복에서 같은 몫을 내놓아야 한다. 그가 치르는 값은, 그 대가로 받는 재화의 양이 얼마이든 언제나 같다. 물론 그 값으로 어떤 때는 더 많은 양을 사고 어떤 때는 더 적은 양을 살 수도 있으나, 변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치이고 그것을

사들이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다가가기 어렵거나 얻는 데 많은 노동이 드는 것이 비싼 것이고, 쉽게 또는 아주 적은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싼 것이다. 그러므로 저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는 노동만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상품의 가치를 가늠하고 견줄 수 있는 궁극의 실질 기준이다. 노동이 상품의 실질 가격이고, 화폐는 상품의 명목 가격일 뿐이다.

그러나 같은 양의 노동이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해도, 그를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더 큰 가치로, 어떤 때는 더 작은 가치로 보인다. 그는 어떤 때는 더 많은 양의 재화로, 어떤 때는 더 적은 양의 재화로 노동을 사들이며, 그에게는 노동의 가격도 다른 모든 것의 가격처럼 변하는 듯이 보인다. 그에게는 한쪽 경우에 노동이 비싸 보이고 다른 쪽 경우에는 싸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쪽 경우에 재화가 싸고 다른 쪽 경우에 재화가 비싼 것이다.

그러므로 이 통속적인 뜻으로는 노동에도 상품처럼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의 실질 가격은 그 대가로 주어지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에 있고, 노동의 명목 가격은 화폐의 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하는 사람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 넉넉한 보수를 받거나 궁한 보수를 받는 것은 자기 노동의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에 비례한다.

상품과 노동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을 갈라 보는 것은 한갓 사변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실제로 적잖은 쓰임새가 있다. 같은 실질 가격은 언제나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금과 은의 가치가 변하는 탓에 같은 명목 가격은 어떤 때는 아주 다른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토지를 팔면서 영구 지대를 남겨 둘 때, 이 지대가 언제나 같은 가치를 지니게 하려면, 그것이 특정한 화폐 액수로 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지대를 받게 될 집안에 중요하다. 그 가치는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가지 변동에

놓이게 된다. 첫째는 같은 이름을 가진 주화에 때에 따라 서로 다른 양의 금과 은이 들어 있음에서 생기는 변동이고, 둘째는 같은 양의 금과 은이 때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님에서 생기는 변동이다.

군주와 주권 국가는 자기 주화에 든 순수한 금속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한때 이롭다고 여긴 일이 잦았으나, 그것을 늘리는 것이 이롭다고 여긴 일은 드물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의 주화에 든 금속의 양은, 내가 믿기로는, 거의 끊임없이 줄어들었을 뿐 늘어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변동은 거의 언제나 화폐 지대의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아메리카 광산의 발견은 유럽에서 금과 은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 하락은, 내가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나, 아직도 차츰 이어지며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법하다고 흔히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서면, 그런 변동은 화폐 지대의 가치를 늘리기보다 줄일 쪽이 더 크다. 이는 그 지대를 이러저러한 이름의 주화 얼마로, 예컨대 몇 파운드 스털링으로 치르기로 하지 않고, 순은 몇 온스 또는 일정한 법정 품위의 은 몇 온스로 치르기로 정해 두었을 때조차 그렇다.

곡물로 남겨 둔 지대는 주화의 이름이 바뀌지 않은 곳에서조차 화폐로 남겨 둔 지대보다 그 가치를 훨씬 잘 지켜 냈다. 엘리자베스 치세 18년의 법으로[4] 모든 대학 차지의 지대 가운데 3분의 1을 곡물로 남겨 두어, 현물로 치르거나 가장 가까운 공설 시장의 그때 시세에 따라 치르도록 정해졌다. 이 곡물 지대에서 나오는 돈은 처음에는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으나, 블랙스톤 박사[5]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흔히 나머지 3분의 2에서 나오는 돈의 두 배에 가깝다. 이 셈에 따르면 대학의 옛 화폐 지대는 그 옛 가치의 4분의 1쯤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며, 곧 전에 값하던 곡물의 4분의 1보다 조금 더 값할 뿐이다. 그런데 펠리페와 메리의 치세 이래로 잉글랜드 주화의 이름은 거의 또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같은

수의 파운드와 실링과 펜스에는 거의 같은 양의 순은이 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화폐 지대가 이렇게 그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온전히 은 값이 떨어진 데서 왔다.

은 가치의 하락이 같은 이름의 주화에 든 은의 양이 줄어드는 일과 겹치면, 손실은 흔히 더 커진다. 주화의 이름이 잉글랜드에서보다 훨씬 크게 바뀐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보다 더 크게 바뀐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적잖은 가치를 지녔던 옛 지대 가운데 몇몇은 이렇게 하여 거의 아무것도 아닌 데까지 줄어들었다.

먼 시대를 견주면 같은 양의 노동은 같은 양의 금과 은으로, 또 어쩌면 다른 어떤 상품으로 사들일 때보다, 노동하는 사람의 생계인 같은 양의 곡물로 사들일 때 더 가깝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먼 시대를 견주면 같은 양의 곡물은 실질 가치가 더 가깝게 같으며, 그 임자가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남의 노동의 양도 더 가깝게 같다. 다른 거의 모든 상품의 같은 양보다 곡물이 더 가깝게 그리한다는 말이며, 같은 양의 곡물조차 그것을 꼭 들어맞게 해내지는 못한다. 노동하는 사람의 생계, 곧 노동의 실질 가격은 뒤에 밝히려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아주 다르다.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사회에서는 멈춰 서 있는 사회에서보다 더 넉넉하고, 멈춰 서 있는 사회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사회에서보다 더 넉넉하다. 그러나 다른 어떤 상품이든 특정한 때에 사들일 수 있는 노동의 양은 그때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생계의 양에 비례하여 많거나 적다. 그러므로 곡물로 남겨 둔 지대는 일정한 양의 곡물이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변하는 것에만 놓인다. 그러나 다른 어떤 상품으로 남겨 둔 지대는 일정한 양의 곡물이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변하는 것에만 놓이지 않고, 그 상품 얼마로 살 수 있는 곡물의 양이 변하는 것에도 놓인다.

그러나 곡물 지대의 실질 가치는 화폐 지대의 실질 가치보다 백 년 단위로 보면 훨씬 덜 변하되 해마다로 보면 훨씬 더 변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노동의 화폐 가격은 뒤에 밝히려 하겠으나 곡물의 화폐 가격에 따라 해마다 출렁이지 않고, 그 생활 필수품의 한때의 값이나 어쩌다 나오는 값이 아니라 평균값 또는 여느 값에 어디서나 맞추어지는 듯하다. 곡물의 평균값 또는 여느 값은 다시, 이 또한 뒤에 밝히려 하겠으나, 은의 가치로, 곧 그 금속을 시장에 내놓는 광산이 기름진지 메말랐는지로, 또는 은 얼마를 광산에서 시장까지 가져오는 데 들여야 하는 노동의 양과 그리하여 소비되어야 하는 곡물의 양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은의 가치는 백 년 단위로는 때로 크게 변하지만 해마다 크게 변하는 일은 드물고, 반세기나 백 년을 잇대어 같거나 거의 같은 채로 있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곡물의 여느 화폐 가격 또는 평균 화폐 가격도 그만큼 긴 기간에 걸쳐 같거나 거의 같은 채로 있을 수 있고, 적어도 사회가 다른 점에서 같거나 거의 같은 형편에 있는 한 노동의 화폐 가격도 그와 함께 그럴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곡물의 한때 값과 어쩌다 나오는 값은 한 해에 그 앞 해의 두 배가 되는 일이 잦고, 예컨대 1쿼터[6]에 25실링에서 50실링까지 출렁이기도 한다. 그러나 곡물이 뒤의 값에 있을 때에는 곡물 지대의 명목 가치뿐 아니라 실질 가치도 앞의 값에 있을 때의 두 배가 되어, 노동의 양이든 다른 대부분 상품의 양이든 두 배를 부릴 수 있다. 이 모든 출렁임 동안에도 노동의 화폐 가격은,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대부분 것의 화폐 가격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만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치를 재는 유일하게 두루 통하는 척도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척도, 곧 서로 다른 상품의 가치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임이 뚜렷해 보인다. 서로 다른 상품의 실질 가치를 백 년 단위로 견주는 일을 그 대가로 주어진 은의 양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된 바다. 그것을 해마다 견주는 일도 곡물의 양으로는

할 수 없다. 노동의 양으로는 백 년 단위로도 해마다도 가장 정확하게 견줄 수 있다. 백 년 단위로 보면 곡물이 은보다 나은 척도다. 백 년 단위로 보면 같은 양의 곡물이 같은 양의 은보다 같은 양의 노동을 더 가깝게 부리기 때문이다. 반면 해마다로 보면 은이 곡물보다 나은 척도다. 같은 양의 은이 같은 양의 노동을 더 가깝게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구 지대를 정할 때나 아주 긴 차지를 놓을 때에는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을 갈라 보는 것이 쓸 데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살이에서 더 흔하고 더 예사로운 거래인 사고팔기에서는 아무 쓸 데가 없다.

같은 때 같은 곳에서는 모든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이 서로 정확히 비례한다. 예컨대 런던 시장에서 어떤 상품으로 화폐를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을수록, 그때 그곳에서 그것으로 살 수 있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도 더 많거나 더 적다. 그러므로 같은 때 같은 곳에서는 화폐가 모든 상품의 실질 교환 가치를 정확히 재는 척도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것은 같은 때 같은 곳에서일 뿐이다.

먼 곳끼리는 상품의 실질 가격과 화폐 가격 사이에 일정한 비례가 없으나, 재화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인이 헤아릴 것은 화폐 가격, 곧 그것을 사들일 때 치르는 은의 양과 팔 때 받을 만한 은의 양의 차이밖에 없다. 중국 광저우에서 은 반 온스는 런던에서 은 1온스보다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부릴 수 있다. 그러므로 광저우에서 은 반 온스에 팔리는 상품은, 그곳에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런던에서 은 1온스에 팔리는 상품이 런던에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것보다 실제로 더 비싸고 실질에서 더 중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런던의 상인이 광저우에서 은 반 온스로 어떤 상품을 사서 뒤에 런던에서 은 1온스에 팔 수 있다면, 그는 그 거래로 100퍼센트를 번다. 은 1온스가 런던에서 광저우와 꼭 같은 가치를 지녔을 때에 버는 것과

똑같이 번다. 광저우에서 은 반 온스가 런던에서 은 1온스가 부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부리게 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런던에서 1온스는 거기서 반 온스가 부릴 수 있었을 것의 두 배를 언제나 그에게 부리게 해 줄 터이고, 그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고팔기가 슬기로운지 미욱한지를 끝내 정하고 그리하여 값이 걸린 여느 살림살이의 거의 모든 일을 조절하는 것은 재화의 명목 가격, 곧 화폐 가격이니, 그것이 실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눈길을 받아 온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술에서는 어떤 상품의 실질 가치가 때와 곳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곧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우에 따라 남의 노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힘을 주었는지를 견주어 보는 것이 때로 쓸데가 있다. 이 경우 우리가 견주어야 할 것은 그것이 흔히 팔린 은의 양이라기보다, 그 서로 다른 은의 양으로 살 수 있었을 노동의 양이다. 그러나 먼 시대와 먼 곳의 그때 노동 가격은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곡물의 그때 가격은 꾸준히 기록된 곳이 몇 되지 않으나 대체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역사가와 다른 저술가들이 더 자주 적어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때 노동 가격과 언제나 정확히 같은 비례에 있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그 비례에 흔히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어림이라고 보아서 그렇다. 나는 뒤에 이런 종류의 견주기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산업이 나아가는 가운데 상업하는 나라들은 여러 다른 금속을 화폐로 주조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 지불에는 금, 웬만한 값의 구매에는 은, 그보다 더 작은 거래에는 구리나 그 밖의 거친 금속을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 세 금속 가운데 하나를 다른 둘보다 특히 가치의 척도로 여겼고, 이 치우침은 대체로 그들이 상업의 수단으로

처음 쓰게 된 금속에 주어진 듯하다. 다른 화폐가 없었을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인데, 한번 그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쓰기 시작한 뒤에는 그래야 할 까닭이 같지 않게 된 뒤에도 대체로 그대로 이어 갔다.

로마인은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기 다섯 해 전까지 구리 화폐밖에 가지지 않았다고 하며(플리니우스[7] 33권 3장), 그때 처음 은을 주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구리가 그 공화국에서 언제나 가치의 척도로 이어진 듯하다. 로마에서는 모든 회계가 아스나 세스테르티우스로 적히고 모든 재산의 가치가 그것으로 셈된 듯하다. 아스는 언제나 구리 주화의 이름이었다. 세스테르티우스라는 말은 두 아스와 반 아스를 뜻한다. 그러므로 세스테르티우스가 본래 은 주화였다 해도 그 가치는 구리로 가늠되었다. 로마에서는 빚이 많은 사람을 남의 구리를 많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 자리를 잡은 북방 민족들은 정착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은화를 가졌고, 그 뒤 여러 세대에 걸쳐 금화도 구리화도 알지 못한 듯하다. 색슨족 시절 잉글랜드에는 은화가 있었으나, 에드워드 3세 때까지 주조된 금은 적었고 영국의 제임스 1세 때까지 구리는 하나도 주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에서는, 그리고 같은 까닭으로 내가 믿기로는 유럽의 다른 모든 근대 나라에서도, 모든 회계가 은으로 적히고 모든 재화와 모든 재산의 가치가 대체로 은으로 셈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말할 때 우리는 기니[8]가 몇 개인지 말하는 일이 드물고 그 값으로 주어질 만한 파운드 스털링이 몇인지를 말한다.

본래 모든 나라에서, 내가 믿기로는, 법으로 인정되는 지불은 특히 기준 또는 가치의 척도로 여겨진 금속의 주화로만 할 수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금은 화폐로 주조된 뒤로도 오랫동안 법정 지불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금화와 은화의 가치 사이의 비율은 어떤 공법이나

포고로 정해지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맡겨져 있었다. 채무자가 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그 지불을 아예 물리치거나, 자기와 채무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금 값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구리는 오늘날 더 작은 은화를 거슬러 주는 데 말고는 법정 지불 수단이 아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기준인 금속과 기준이 아닌 금속을 갈라 보는 것이 이름만의 구별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무언가 더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주화에 쓰인 여러 금속을 차츰 더 익숙하게 다루게 되고 그리하여 각각의 가치 사이의 비율을 더 잘 알게 되면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내가 믿기로는, 이 비율을 확정하여 공법으로 선포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컨대 이러저러한 무게와 품위의 기니 하나가 21실링과 바뀌어야 한다거나 그만한 액수의 빚에 법정 지불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고 이런 종류의 규정된 비율 하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기준인 금속과 기준이 아닌 금속을 갈라 보는 것이 이름만의 구별보다 조금 더한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 규정된 비율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이 구별은 이름만의 것보다 무언가 더한 것이 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되는 듯이 보인다. 예컨대 기니의 규정된 가치가 20실링으로 내려가거나 22실링으로 올라간다면, 모든 회계가 은화로 적히고 빚에 대한 거의 모든 채무가 은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불의 대부분은 어느 경우에든 전과 같은 양의 은화로 할 수 있겠으나 금화로는 아주 다른 양이 들 터이니, 한쪽 경우에는 더 많이 들고 다른 쪽 경우에는 더 적게 들 것이다. 은이 금보다 그 가치가 덜 변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은이 금의 가치를 재는 듯이 보이고 금이 은의 가치를 재는 듯이 보이지 않으리라. 금의 가치는 그것과 바뀔 은의 양에 달려 있는 듯이 보이고, 은의 가치는 그것과 바뀔 금의 양에 달려 있는 듯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온전히

회계를 적는 관행,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액수를 금화보다 은화로 나타내는 관행에서 오는 것이다. 드러먼드 씨[9]의 25기니나 50기니짜리 어음은 이런 종류의 변경이 있은 뒤에도 전과 똑같이 25기니나 50기니로 지불되리라. 그런 변경이 있은 뒤에도 그것은 전과 같은 양의 금으로 지불되겠으나 은으로는 아주 다른 양이 들 것이다. 그런 어음의 지불에서는 금이 은보다 그 가치가 덜 변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금이 은의 가치를 재는 듯이 보이고 은이 금의 가치를 재는 듯이 보이지 않으리라. 회계를 적고 약속어음과 그 밖의 금전 채무를 이렇게 나타내는 관행이 언젠가 두루 퍼진다면, 은이 아니라 금이 특히 기준 또는 가치의 척도인 금속으로 여겨질 것이다.

실제로 주화에 쓰인 여러 금속의 가치 사이에 규정된 비율 하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가장 값진 금속의 가치가 주화 전체의 가치를 정한다. 구리 페니 12개에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없는 품질의 구리가 상형 반 파운드(무게)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주조되기 전에는 은으로 7펜스 값이 되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규정으로 그런 페니 12개가 1실링과 바뀌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시장에서 그것은 1실링 값으로 여겨지고 언제든 그것으로 1실링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요즈음 금화 개주[10] 전에도 금화는, 적어도 런던과 그 근처에서 돌던 부분은 대체로 은화의 대부분보다 법정 무게 아래로 덜 깎여 있었다. 그러나 닳고 찌그러진 실링 21개가 기니 하나와 맞먹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기니도 어쩌면 닳고 찌그러져 있었겠으나 그만큼 심한 일은 드물었다. 요즈음의 규정은 금화를 어느 나라의 통용 주화든 데려갈 수 있는 만큼 법정 무게에 가깝게 데려다 놓았고, 공공 관청에서 금을 무게로만 받으라는 명령은 그 명령이 지켜지는 한 금화를 그대로 지켜 낼 듯하다. 은화는 금화 개주 전과 똑같이 닳고 떨어진 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은화 21실링이 여전히 이 훌륭한 금화 1기니 값으로 여겨진다.

금화 개주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은화의 가치를 뚜렷이 올렸다.

잉글랜드 조폐국에서는 금 1파운드(무게)가 44기니 반으로 주조되며, 이는 1기니를 21실링으로 셈하면 46파운드 14실링 6펜스와 같다. 그러므로 그런 금화 1온스는 은으로 3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의 값어치가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주조에 아무 세나 주조 수수료를 물리지 않으므로, 법정 품위의 금 지금 1파운드(무게)나 1온스를 조폐국에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 떼임 없이 금화 1파운드(무게)나 1온스를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1온스에 3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이 잉글랜드에서 금의 조폐국 가격, 곧 조폐국이 법정 품위의 금 지금에 내주는 금화의 양이라고 한다.

금화 개주 전에는 법정 품위의 금 지금의 시장 가격이 여러 해 동안 1온스에 3파운드 18실링을 웃돌았고, 때로는 3파운드 19실링이었으며, 아주 흔히 4파운드였다. 닳고 떨어진 금화로 그만한 액수에는 법정 품위의 금이 1온스를 넘게 들어 있는 일이 드물었을 것이다. 금화 개주 뒤로는 법정 품위의 금 지금의 시장 가격이 1온스에 3파운드 17실링 7펜스를 넘는 일이 드물다. 금화 개주 전에는 시장 가격이 언제나 조폐국 가격보다 다소 높았다. 그 개주 뒤로는 시장 가격이 줄곧 조폐국 가격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그 시장 가격은 금화로 치르든 은화로 치르든 같다. 그러므로 요즈음의 금화 개주는 금화의 가치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은화의 가치도 금 지금에 대한 비례에서, 그리고 어쩌면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한 비례에서도 올렸다. 다만 다른 상품 대부분의 가격은 그 밖의 수많은 원인에 흔들리므로, 그것에 대한 금화나 은화의 가치가 오른 것은 그만큼 또렷하고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잉글랜드 조폐국에서는 법정 품위의 은 지금 1파운드(무게)가 62실링으로 주조되며, 그 62실링에는 마찬가지로 법정 품위의 은 1파운드(무게)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1온스에 5실링 2펜스가 잉글랜드에서 은의 조폐국 가격, 곧 조폐국이 법정 품위의 은 지금에 내주는 은화의 양이라고 한다. 금화 개주 전에는 법정 품위의 은 지금의 시장 가격이 경우에 따라 1온스에 5실링 4펜스, 5실링 5펜스, 5실링 6펜스, 5실링 7펜스였고, 아주 흔히 5실링 8펜스였다. 그러나 5실링 7펜스가 가장 흔한 값이었던 듯하다. 금화 개주 뒤로는 법정 품위의 은 지금의 시장 가격이 이따금 1온스에 5실링 3펜스, 5실링 4펜스, 5실링 5펜스까지 떨어졌고, 마지막 값을 넘은 일은 거의 없다. 은 지금의 시장 가격은 금화 개주 뒤로 적잖이 떨어졌으나 조폐국 가격만큼 낮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잉글랜드 주화에서 여러 금속 사이의 비율을 보면, 구리는 그 실질 가치보다 훨씬 높게 값이 매겨져 있고 은은 얼마쯤 낮게 매겨져 있다. 유럽 시장에서, 또 프랑스 주화와 네덜란드 주화에서 순금 1온스는 순은 14온스쯤과 바뀐다. 잉글랜드 주화에서는 15온스쯤과 바뀌니, 유럽의 흔한 셈에 따르면 그 값어치보다 더 많은 은과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조차 잉글랜드 주화 속 구리의 높은 값 때문에 막대 구리의 값이 올라가지 않듯이, 잉글랜드 주화 속 은의 낮은 값 때문에 은 지금의 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 막대 구리가 은에 대한 제 비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은 지금도 금에 대한 제 비례를 그대로 지킨다.

윌리엄 3세 치세에 은화를 개주한 뒤에도 은 지금의 값은 여전히 조폐국 가격보다 얼마쯤 높은 채로 이어졌다. 로크 씨[11]는 이 높은 값을 은 지금의 수출이 허용되고 은화의 수출이 금지된 데 돌렸다. 그는 이 수출 허용이 은화에 대한 수요보다 은 지금에 대한 수요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 사고파는 여느 용도에 은화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수출하려는 용도로든 다른 어떤 용도로든 은 지금을 원하는 사람의 수보다 확실히 훨씬 많다. 오늘날에도 금 지금의 수출이 그와 같이 허용되고 금화의 수출이 그와 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금 지금의 값은 조폐국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잉글랜드 주화에서 은은 그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비례에서 낮게 매겨져 있었고, 금화는 그때 또한 아무 개주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는데도 그때나 오늘날이나 주화 전체의 실질 가치를 정했다. 그때 은화 개주가 은 지금의 값을 조폐국 가격까지 끌어내리지 못했으니, 그와 같은 개주가 이제 그리하리라고 보기는 그리 그럴 법하지 않다.

은화를 금화만큼 법정 무게에 가깝게 되돌려 놓는다면, 기니 하나는 오늘날의 비례에 따라 지금으로 살 수 있는 은보다 더 많은 은을 주화로 받아 낼 법하다. 은화가 법정 무게를 온전히 담고 있으면 이 경우 그것을 녹여, 먼저 그 지금을 금화에 팔고 뒤에 그 금화를 은화와 바꾸어 다시 그와 같이 녹이는 데 이윤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의 비례를 얼마쯤 바꾸는 것만이 이 불편을 막는 길인 듯하다.

주화에서 은이 금에 대한 제 비례보다 오늘날 낮게 매겨져 있는 만큼 높게 매겨진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구리가 1실링을 거슬러 주는 것 이상으로는 법정 지불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도 1기니를 거슬러 주는 것 이상으로는 법정 지불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정해 둔다면, 그 불편은 어쩌면 덜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채권자도 주화에서 은을 높게 매긴 탓에 속임을 당할 수 없으니, 오늘날 어떤 채권자도 구리를 높게 매긴 탓에 속임을 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규정으로 손해를 볼 사람은 은행가뿐일 것이다. 예금 인출이 밀려들면 그들은 때로 6펜스 은화로 지불하여 시간을 벌려 하는데, 이 규정은 그들이 당장의 지불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미루는 길을 막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금고에 오늘날보다 더 많은 현금을 두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적잖은 불편이 될 것은 틀림없으나 그와 함께 그들의 채권자에게는 적잖은 담보가 될 것이다.

금의 조폐국 가격인 3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에는 오늘날의 훌륭한 금화로도 법정 품위의 금이 1온스를 넘게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법정 품위의 지금을 그보다 더 많이 사서는 안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주화로 된 금은 지금으로 된 금보다 편하며, 잉글랜드에서는 주조가 무료이기는 하나 지금으로 조폐국에 가져간 금이 몇 주가 지나서야 주화로 임자에게 돌아오는 일이 잦다. 요즈음처럼 조폐국이 바쁠 때에는 몇 달이 지나서야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지체는 작은 세나 마찬가지여서, 주화로 된 금을 같은 양의 지금으로 된 금보다 얼마쯤 값지게 만든다. 잉글랜드 주화에서 은이 금에 대한 제 비례에 맞게 매겨진다면, 은화를 개주하지 않고도 은 지금의 값이 조폐국 가격 아래로 떨어질 법하다. 오늘날 닳고 찌그러진 은화조차 그 가치가 그것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금화의 가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과 은 둘 다 주조에 작은 주조 수수료[12]나 세를 물린다면, 주화로 된 그 금속이 같은 양의 지금보다 나은 점이 아마 더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주조는 이 작은 세의 크기에 비례하여 주조된 금속의 가치를 늘릴 터인데, 세공이 그 세공 값에 비례하여 은그릇의 가치를 늘리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주화가 지금보다 나은 점은 주화를 녹이는 일을 막고 그 수출을 꺼리게 하리라. 나라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 주화를 수출해야 하게 된다면, 그 대부분은 머지않아 저절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라 밖에서는 그것이 지금으로서의 무게만큼만 팔릴 수 있다. 나라 안에서는 그 무게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집으로 들여오는 데 이윤이 생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주조에 8퍼센트쯤의 주조

수수료를 물리는데, 프랑스 주화는 수출되어도 저절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금 지금과 은 지금의 시장 가격에 어쩌다 일어나는 출렁임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값에 일어나는 그런 출렁임과 같은 원인에서 온다. 바다와 땅에서 온갖 사고로 그 금속을 자주 잃는 일, 도금과 은도금에, 레이스와 자수에, 주화의 닳음과 은그릇의 닳음에 그것이 끊임없이 닳아 없어지는 일 때문에, 자기 광산을 가지지 못한 모든 나라에서는 이 손실과 이 닳음을 메우려고 끊임없이 수입해야 한다. 수입하는 상인들도 다른 모든 상인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수입을 당장의 수요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것에 되도록 맞추려 애쓴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써도 그들은 때로 지나치게 하고 때로 모자라게 한다. 필요한 것보다 많은 지금을 수입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수출하는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기보다 그 일부를 여느 값이나 평균값보다 얼마쯤 싸게 팔 뜻이 있을 때가 있다. 반대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수입했을 때에는 이 값보다 얼마쯤 더 받는다. 그러나 그런 그때그때의 출렁임 속에서도 금 지금이나 은 지금의 시장 가격이 여러 해를 잇대어 꾸준히 그리고 줄곧 조폐국 가격보다 다소 높거나 다소 낮은 채로 이어진다면, 이 꾸준하고 줄기찬 값의 높음이나 낮음은 주화의 형편에 있는 무언가가 그때 주화 얼마를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지금의 정확한 양보다 더 값지거나 덜 값지게 만드는 데서 온 결과라고 보아도 좋다. 결과가 줄기차고 꾸준하다는 것은 원인에도 그에 비례하는 줄기참과 꾸준함이 있음을 뜻한다.

어떤 나라의 화폐든 어떤 특정한 때와 곳에서 가치를 재는 척도로서 더 정확하거나 덜 정확한 것은, 그때 통용되는 주화가 그 법정 기준에 더 꼭 맞거나 덜 맞는지, 곧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순금이나 순은의 정확한 양을 더 꼭 담고 있거나 덜 담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예컨대

잉글랜드에서 44기니 반에 법정 품위의 금 1파운드(무게), 곧 순금 11온스와 합금 1온스가 꼭 들어 있다면, 잉글랜드의 금화는 어떤 특정한 때와 곳에서 재화의 실제 가치를 사물의 본성이 허락하는 만큼 정확하게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지르고 닳아서 44기니 반에 법정 품위의 금 1파운드(무게)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이 예사가 되고, 그 줄어든 정도가 어떤 조각에서는 다른 조각에서보다 더 크다면, 가치의 척도도 다른 모든 저울과 자가 흔히 놓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불확실함에 놓이게 된다. 그것들이 법정 기준에 꼭 맞는 일이 드물므로, 상인은 자기 재화의 값을 그 저울과 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맞추지 않고 평균으로 볼 때 실제로 어떠한지를 경험으로 알아내어 되도록 그것에 맞춘다. 주화에 그와 같은 어지러움이 있으면, 재화의 값도 마찬가지로 주화가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할 순금이나 순은의 양에 맞추어지지 않고 평균으로 볼 때 실제로 담고 있다고 경험으로 알아낸 양에 맞추어진다.

재화의 화폐 가격이라고 할 때 내가 늘 뜻하는 것은 주화의 이름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재화가 팔린 순금이나 순은의 양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예컨대 에드워드 1세 때의 6실링 8펜스를 나는 오늘날의 1파운드 스털링과 같은 화폐 가격으로 본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그 안에 같은 양의 순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6장 —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

자산이 쌓이는 일과 토지를 제 것으로 차지하는 일이 둘 다 있기 전의 저 이르고 거친 사회 형편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을 얻는 데 드는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바꾸는 데 어떤 규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정인 듯하다. 예컨대 사냥하는 민족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 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의 두 배 노동이 흔히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자연히 사슴 두 마리와 바뀌거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한다. 이틀이나 두 시간 노동의 생산물이 흔히 하루나 한 시간 노동의 생산물의 두 배 값어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쪽 노동이 다른 쪽보다 더 고되다면, 이 더한 고됨을 자연히 얼마쯤 감안해 줄 터이고, 한쪽에서 한 시간 노동의 생산물이 다른 쪽에서 두 시간 노동의 생산물과 바뀌는 일도 잦을 것이다.

또 한쪽 노동이 남다른 정도의 손재주와 재간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재능에 두는 존중이 자연히 그 생산물에 거기 들인 시간에 마땅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줄 것이다. 그런 재능은 오래 매달린 끝에 얻는 것 말고는 얻어지는 일이 드물며, 그 생산물의 더 높은 가치는 그것을 얻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온당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으리라. 나아간 사회 형편에서는 더한 고됨과 더한 솜씨에 대한 이런 종류의 감안이 흔히 노동의 임금에서 이루어지며, 그와 같은 것이 사회의 가장 이르고 가장 거친 시기에도 아마 얼마쯤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는 노동의 생산물 전체가 노동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며, 어떤 상품을 얻거나 만드는 데 흔히 들이는 노동의 양이 그 상품이 흔히 사거나 부리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할 노동의 양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정으로 남는다.

자산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쌓이자마자, 그들 가운데 몇몇은 자연히 그것을 부지런한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데 쓰면서 그들에게 재료와 생계를 대어 주고, 그 일의 판매로, 곧 그들의 노동이 재료의 가치에 더해 주는 것으로 이윤을 얻으려 할 것이다. 완성된 제조품을 화폐로든 노동으로든 다른 재화로든 바꿀 때, 재료의 값과 일꾼의 임금을 치르기에 넉넉한 것을 넘어, 이 일에 자기 자산을 걸고 나선 사업가의 이윤을 위해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꾼이 재료에 더해

주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치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미리 내놓은 재료와 임금 전체의 자산에 대한 그 고용주의 이윤을 치른다. 그가 그들의 일을 팔아 자기 자산을 되메우기에 넉넉한 것보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마음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이윤이 자기 자산의 크기에 얼마쯤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산보다 큰 자산을 쓸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자산의 이윤은 어쩌면 특정한 종류의 노동, 곧 감독하고 지휘하는 노동의 임금을 달리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둘은 아주 다르며, 서로 딴 원리로 정해지고, 이 감독하고 지휘하는 노동이라는 것의 양이나 고됨이나 재간에 조금도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히 쓰인 자산의 가치로 정해지며, 이 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다. 예컨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제조 자산의 여느 연간 이윤이 10퍼센트라 하고, 그곳에 서로 다른 두 제조업이 있어 각각 일꾼 스무 명을 한 사람에 한 해 15파운드로, 곧 한 공장에서 한 해 300파운드를 들여 쓴다고 해 보자. 또 한쪽에서 한 해에 써 들이는 거친 재료는 700파운드밖에 들지 않는데 다른 쪽의 고운 재료는 7,000파운드가 든다고 해 보자. 이 경우 한쪽에서 한 해에 쓰이는 자본은 1,000파운드에 그치겠으나 다른 쪽에서 쓰이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10퍼센트로 셈하면 한쪽의 사업가는 한 해 이윤을 100파운드쯤만 바라겠으나 다른 쪽의 사업가는 730파운드쯤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그렇게 크게 다르되 감독하고 지휘하는 노동은 아예 같거나 거의 같을 수 있다. 큰 일터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노동이 거의 모두 어느 수석 서기에게 맡겨진다. 그의 임금이 이 감독하고 지휘하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낸다. 그의 임금을 정할 때 흔히 그의 노동과 솜씨뿐 아니라 그에게 맡긴 신임까지 얼마쯤 헤아리기는 하나, 그의 임금은 그가 관리를

살피는 자본에 결코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자본의 임자는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기 이윤이 자기 자본에 일정하게 비례해야 한다고 여전히 바란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격에서 자산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 아주 다르고 서로 딴 원리로 정해지는 구성 부분을 이룬다.

이런 형편에서는 노동의 생산물 전체가 언제나 노동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는 대부분 경우에 자기를 고용하는 자산의 임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또 어떤 상품을 얻거나 만드는 데 흔히 들이는 노동의 양이 그 상품이 흔히 사거나 부리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할 양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정도 아니다. 그 노동의 임금을 미리 내놓고 재료를 마련해 준 자산의 이윤을 위하여 얼마가 더 돌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 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좋아하여, 토지의 자연 생산물에까지 지대를 요구한다. 숲의 나무, 들의 풀, 땅의 모든 자연 열매는 토지가 공유였을 때에는 노동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거두는 수고밖에 들지 않았으나, 이제 그에게까지 값이 더 붙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그것을 거둘 허락에 값을 치러야 하고, 자기 노동이 모으거나 만들어 내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일부,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일부의 값이 토지의 지대를 이루며, 대부분 상품의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부분이 된다.

가격의 서로 다른 모든 구성 부분의 실질 가치는 그 각각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으로 재어진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노동은 가격 가운데 노동으로 갈라지는 부분의 가치만 재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 갈라지는 부분의 가치와 이윤으로 갈라지는 부분의 가치도 잰다.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상품의 가격은 끝내 그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로, 또는 그 셋 모두로 갈라진다. 그리고 발전한 사회에서는 그 셋이 모두 구성 부분으로서 훨씬 대부분 상품의 가격에 다소간 들어간다.

예컨대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치르고, 다른 부분은 그것을 길러 내는 데 쓰인 노동자와 일하는 가축의 임금이나 부양을 치르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치른다. 이 세 부분이 곧바로든 끝내든 곡물의 값 전체를 이루는 듯하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산을 되메우거나 일하는 가축과 그 밖의 농기구의 닳음을 메우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말 같은 농기구의 값 자체가 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곧 그 말을 기른 토지의 지대, 그것을 돌보고 기른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을 둘 다 미리 내놓은 농부의 이윤이다. 그러므로 곡물의 값이 말의 부양뿐 아니라 말의 값까지 치를 수 있다 해도, 그 값 전체는 곧바로든 끝내든 여전히 지대와 노동과 이윤이라는 같은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

밀가루나 거친 가루의 값에는 곡물의 값에 방앗간 주인의 이윤과 그 일꾼들의 임금을 더해야 하고, 빵의 값에는 빵 굽는 사람의 이윤과 그 일꾼들의 임금을 더해야 하며, 둘 다에는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방앗간 주인의 집으로, 방앗간 주인의 집에서 빵 굽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미리 내놓는 사람들의 이윤을 더해야 한다.

아마의 값도 곡물의 값과 같은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 아마포의 값에는 이 값에 아마 다듬는 사람과 실 잣는 사람과 베 짜는 사람과 바래는 사람 등의 임금, 그리고 그들 각각의 고용주의 이윤을 더해야 한다.

어떤 상품이 더 많이 손질을 거칠수록, 가격 가운데 임금과 이윤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지대로 갈라지는 부분에 비하여 커진다. 제조가

나아가는 가운데 이윤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이윤이 저마다 앞선 이윤보다 크다. 그것이 나오는 자본이 언제나 더 커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베 짜는 사람을 쓰는 자본은 실 잣는 사람을 쓰는 자본보다 커야 한다. 그 자본은 뒤의 자본을 그 이윤과 함께 되메울 뿐 아니라 그 밖에 베 짜는 사람의 임금까지 치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윤은 언제나 자본에 얼마쯤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발전한 사회에서도 가격이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이라는 두 부분으로만 갈라지는 상품이 늘 몇 가지 있고, 온전히 노동의 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품은 그보다 더 적게 있다. 예컨대 바닷물고기의 값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치르고 다른 부분은 그 어장에 쓰인 자본의 이윤을 치른다. 지대가 그 값의 어떤 부분을 이루는 일은 아주 드물되, 뒤에 밝히려 하겠으나 때로는 그러기도 한다. 적어도 유럽의 대부분에서 강 어장은 사정이 다르다. 연어 어장은 지대를 치르며, 그 지대를 토지의 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되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값의 한 부분을 이룬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 몇이 바닷가를 따라 흔히 스코틀랜드 조약돌[13]이라 부르는 그 얼룩진 작은 돌을 주워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다. 돌 깎는 사람이 그들에게 치르는 값은 온전히 그들 노동의 임금이며, 지대도 이윤도 그 값의 어떤 부분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든 그 값 전체는 여전히 끝내 그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로, 또는 그 셋 모두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길러 내고 만들고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쓰인 노동 전체의 값을 치른 뒤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든 누군가의 이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품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볼 때 그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그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로, 또는 그 셋 모두로 갈라지듯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이루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뭉쳐 놓고 볼 때 같은 세 부분으로 갈라져, 그 나라의 서로 다른 주민들에게 그들 노동의 임금으로든, 그들 자산의 이윤으로든, 그들 토지의 지대로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한 해에 모아지거나 만들어지는 것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 전체는 이렇게 하여 처음에 그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 몇에게 나뉜다. 임금과 이윤과 지대는 모든 교환 가치의 세 본래 원천이면서 모든 수입의 세 본래 원천이다. 다른 모든 수입은 끝내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나온다.

제 것인 기금에서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기 노동에서든 자기 자산에서든 자기 토지에서든 끌어내야 한다.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을 임금이라 하고, 자산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쓰는 사람이 얻는 수입을 이윤이라 하며, 자산을 제가 쓰지 않고 남에게 빌려 주는 사람이 그것에서 얻는 수입을 이자 또는 화폐 사용료라 한다. 그것은 빌리는 사람이 그 화폐를 써서 얻을 기회가 있는 이윤에 대하여 빌려 주는 사람에게 치르는 보상이다. 그 이윤의 일부는 위험을 지고 그것을 쓰는 수고를 하는 빌리는 사람에게 자연히 돌아가고,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주는 빌려 주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화폐의 이자는 언제나 파생된 수입이니, 그 화폐를 써서 얻은 이윤에서 치러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수입 원천에서 치러져야 한다. 다만 빌리는 사람이 첫 빚의 이자를 치르려고 둘째 빚을 지는 낭비꾼이라면 어쩌면 이야기가 다를지도 모른다. 온전히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지대라 하며, 그것은 지주에게 돌아간다. 농부의 수입은 얼마쯤은 자기 노동에서 나오고 얼마쯤은 자기 자산에서 나온다. 그에게 토지는 이 노동의 임금을 벌고 이 자산의 이윤을 얻게 해 주는 수단일 뿐이다. 모든 세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세입, 온갖 종류의 모든 봉급과 연금과 연부금은 끝내 이 세

본래 수입 원천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나오며, 노동의 임금에서든 자산의 이윤에서든 토지의 지대에서든 곧바로 또는 건너서 치러진다.

그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입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에는 쉽게 갈라 보지만,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때에는 적어도 여느 말씨에서 서로 뒤섞이는 일이 있다.

제 땅의 일부를 스스로 부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치른 뒤에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둘 다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얻은 것 전체를 이윤이라 부르기 쉬우니, 이렇게 하여 적어도 여느 말씨에서 지대를 이윤과 뒤섞는다.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의 농장주 대부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제 땅을 스스로 부치며, 그러므로 우리는 농장의 지대에 대하여 듣는 일이 드물고 그 이윤에 대하여 듣는 일이 잦다.

여느 농부들은 농장의 전반 운영을 지휘할 감독을 두는 일이 드물다. 또 그들은 대체로 쟁기잡이로든 써레질꾼으로든 제 손으로 꽤 많이 일한다. 그러므로 지대를 치른 뒤에 남는 수확은 경작에 쓴 그들의 자산을 그 여느 이윤과 함께 되메워 줄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도 감독으로서도 그들에게 마땅한 임금까지 치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대를 치르고 자산을 그대로 지킨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 부른다. 그런데 임금이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 농부는 이 임금을 아낌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얻는다. 그러므로 임금이 이 경우 이윤과 뒤섞인다.

재료를 사들이고 제 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부양할 만큼 자산을 갖춘 독립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인[14]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인의 일을 팔아 얻는 이윤을 둘 다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 전체는 흔히 이윤이라 부르며, 이 경우에도 임금이 이윤과 뒤섞인다.

제 손으로 제 밭을 일구는 정원사는 지주와 농부와 노동자라는 서로 다른 세 인물을 한 몸에 아우른다. 그러므로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첫째의 지대와 둘째의 이윤과 셋째의 임금을 치러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체는 흔히 그의 노동이 벌어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이 둘 다 임금과 뒤섞인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나오는 상품이 몇 가지밖에 없고 훨씬 대부분 상품의 교환 가치에는 지대와 이윤이 크게 보태지므로, 그 나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은 그 생산물을 길러 내고 손질하여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쓰인 노동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언제나 사거나 부릴 수 있다. 사회가 한 해에 사들일 수 있는 노동을 한 해에 모두 쓴다면, 노동의 양이 해마다 크게 늘어날 터이므로 뒤따르는 해의 생산물은 앞선 해의 생산물보다 아주 크게 값질 것이다. 그러나 연간 생산물 전체를 부지런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쓰는 나라는 없다. 놀고 지내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그 가운데 큰 부분을 소비하며, 그것이 해마다 그 서로 다른 두 부류 사람들에게 나뉘는 비율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여느 가치 또는 평균 가치가 해마다 늘거나 줄거나, 아니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1. 옮긴이 — 토머스 홉스(1588-1679). 영국의 정치철학자. 《리바이어던》을 썼다.

2.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그것이 낳을 수 있는 노동」(the labour which it can produce)으로 적는다. 다른 판본은 마지막 낱말을 purchase 로 읽어 「그것이 사들일 수 있는 노동」이 된다.

3.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반페니는 하프페니라 부른다. 무게 단위 파운드는 화폐 단위 파운드와 다르므로, 이 번역에서는 두 단위가 함께 나오는 자리에서 「파운드(무게)」로 갈라 적는다. 구리처럼 여느 물건을 다는 상형(常衡) 파운드는 16온스로 약 453그램이고, 금과 은의 무게에는 이보다 가벼운 12온스의 금형(金衡) 파운드를 썼다.

4. 옮긴이 — 1576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18년 법 6장이다. 대학과 학교가 놓는 차지의 지대 가운데 3분의 1을 곡물로, 또는 그때 시세에 따라 받도록 정했다.

5. 옮긴이 — 윌리엄 블랙스톤(1723–1780). 《잉글랜드법 주해》를 쓴 잉글랜드 법학자.

6.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는 약 8부셸에 해당한다. 「4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다.

7. 옮긴이 — 대(大) 플리니우스(23–79). 《박물지》를 남긴 로마의 저술가. 1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었다.

8. 옮긴이 — 기니는 1663년부터 주조된 잉글랜드 금화로, 1717년 이후 21실링으로 셈되었다. 이름은 금을 실어 온 아프리카의 기니 해안에서 왔다.

9. 옮긴이 — 드러먼드 은행은 1717년 런던 채링 크로스에 문을 연 개인 은행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음은 그 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10. 옮긴이 — 영국은 1774년에 닳은 금화를 거두어 다시 주조했다. 스미스가 「요즈음의 금화 개주」라 부르는 일이 그것이다.

11. 옮긴이 — 존 로크(1632–1704). 1695년에 낸 화폐론에서 은화 개주와 은의 값을 논했다.

12. 옮긴이 — 원문의 seignorage는 주권자가 주조를 해 주는 대가로 떼는 몫이다. 잉글랜드는 이를 물리지 않았고 프랑스는 물렸다.

13. 옮긴이 —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주운 마노와 벽옥 조각을 갈아 브로치나 반지에 박았다. 18세기에 성했던 일이다.

14. 옮긴이 — 직인은 도제살이를 마치고 하루나 한 해 단위로 삯을 받으며 주인의 일터에서 일하는 기능공이다. 동업조합의 규약이 도제와 직인과 주인의 단계를 정해 두었다.

7장 —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하여

7장 —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하여

어느 사회에나 어느 고을에나 노동과 자산이 쓰이는 갈래마다 임금과 이윤에는 통상적인 율 또는 평균적인 율이 있다. 이 율은 내가 뒤에서 밝히려는 대로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사정, 곧 그 사회가 부유한가 가난한가와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가 멈춘 상태에 있는가 물러나는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갈래가 지닌 고유한 성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어느 사회에나 어느 고을에나 지대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율 또는 평균적인 율이 있으며, 이 율 또한 내가 뒤에서 밝히려는 대로 한편으로는 그 토지가 놓인 사회나 고을의 일반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토지가 본래 지닌 비옥함이나 개량으로 얻은 비옥함에 따라 정해진다.

이 통상적인 율 또는 평균적인 율은 그것이 널리 통하는 때와 곳에서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자연율이라고 불러도 좋다.

어떤 상품의 값이, 그것을 길러 내고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쓰인 토지의 지대와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을 각각의 자연율에 따라 치르기에 넉넉한 만큼과 꼭 같아서 더도 덜도 아니라면, 그 상품은 그 자연 가격이라 부를 만한 값에 팔린 것이다.

그럴 때 그 상품은 그것이 지닌 값어치대로, 곧 그것을 시장에 내온 사람에게 실제로 든 비용대로 정확히 팔린 것이다. 흔히 쓰는 말로 어떤 상품의 원가라 하는 것에는 그것을 되팔 사람의 이윤이 들어 있지 않지만, 그가 자기 고을의 통상적인 이윤율을 남기지 못하는 값에 그것을 판다면 그는 그 거래에서 분명히 손해를 본다. 자기 자산을 다른 데에 썼더라면 그 이윤을 얻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이윤은 그의 수입이며 그의 생계가 나오는 본래의 재원이다. 그는 물건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동안 일꾼들에게 그들의 임금, 곧 그들의 생계를 미리 치러 주는데,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생계를 미리 치러 주며, 그 생계는 대개 그가 물건을 팔아 얻으리라고 무리 없이 바랄 만한 이윤에 어울리는 크기다. 그러므로 물건이 그에게 이 이윤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그것이 그에게 실제로 들게 한 비용이라고 아주 온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만큼을 그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이 이윤을 남겨 주는 값이 상인이 때때로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물건을 팔아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다. 적어도 완전한 자유가 있어서 그가 마음대로 자기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다.

어떤 상품이 흔히 팔리는 실제의 값을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며 자연 가격과 꼭 같을 수도 있다.

어느 개별 상품이든 그 시장 가격은 실제로 시장에 나온 수량과, 그 상품의 자연 가격 곧 그것을 그곳까지 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지대와 노동과 이윤의 값어치 전부를 치를 뜻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 사이의 비례로 정해진다. 그런 사람들을 유효 수요자라 부르고 그들의 수요를 유효 수요라 불러도 좋다. 그 수요는 상품을 시장에 내오는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에 넉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적 수요와는

다르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어떤 뜻에서는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수요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요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 그 수요를 채우려고 그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결코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이 시장에 나온 수량이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그곳까지 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지대와 임금과 이윤의 값어치 전부를 치를 뜻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수량을 공급받을 수는 없다. 아예 갖지 못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얼마는 더 많이 내려 할 것이다. 곧바로 그들 사이에 경쟁이 시작되고, 모자라는 정도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 또는 경쟁하는 자들의 부와 제멋대로 부리는 사치가 경쟁의 열기를 얼마나 돋우는가에 따라,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오른다. 부와 사치가 같은 수준인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정도로 모자랄 때에도 그 상품을 손에 넣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경쟁이 더 뜨거워지거나 덜 뜨거워진다. 도시가 봉쇄되었을 때나 흉년이 들었을 때 생활 필수품의 값이 터무니없이 치솟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시장에 나온 수량이 유효 수요를 넘어서면, 그것을 그곳까지 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지대와 임금과 이윤의 값어치 전부를 치를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팔 수는 없다. 얼마쯤은 더 적게 내려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고, 그들이 내는 낮은 값이 전체의 값을 끌어내린다. 남는 정도가 큰 것이 파는 이들의 경쟁을 얼마나 키우는가에 따라, 또는 그 상품을 당장 털어 버리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떨어진다. 썩는 물건을 들여올 때 같은 정도로 남으면 오래 가는 물건을 들여올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경쟁이 인다. 이를테면 오렌지를 들여올 때가 헌 철을 들여올 때보다 그렇다.

시장에 나온 수량이 유효 수요를 채우기에 딱 넉넉하고 그보다 많지 않으면,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자연 가격과 꼭 같아지거나 헤아릴 수 있는 한 그것에 가장 가까워진다. 손에 있는 수량 전부를 이 값에 넘길 수 있고 이보다 높은 값으로는 넘길 수 없다. 여러 상인들 사이의 경쟁이 그들 모두에게 이 값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만 이보다 낮은 값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수량은 저마다 자연스럽게 유효 수요에 스스로 맞춰 간다. 어떤 상품이든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데 자기 토지와 노동과 자산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수량이 유효 수요를 결코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이익이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수량이 그 수요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 이익이다.

어느 때든 그 수량이 유효 수요를 넘어서면 그 값을 이루는 부분 가운데 얼마는 자연율보다 낮게 치러져야 한다. 그것이 지대라면 지주들의 이익이 곧바로 그들을 부추겨 자기 토지의 일부를 거두어들이게 할 것이고, 그것이 임금이거나 이윤이라면 앞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이익이, 뒤의 경우에는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의 이익이 그들을 부추겨 자기 노동이나 자산의 일부를 이 일에서 빼내게 할 것이다. 시장에 나오는 수량은 곧 유효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한 만큼에 그치게 된다. 그 값을 이루는 여러 부분은 모두 자연율까지 오르고 값 전체는 자연 가격까지 오른다.

거꾸로 어느 때든 시장에 나오는 수량이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그 값을 이루는 부분 가운데 얼마는 자연율보다 높이 올라야 한다. 그것이 지대라면 다른 모든 지주들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부추겨 이 상품을 길러 내려고 더 많은 토지를 손질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임금이거나 이윤이라면 다른 모든 노동자와 상인의 이익이 곧 그들을 부추겨 그것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더 많은 노동과 자산을 쓰게

할 것이다. 그곳에 나오는 수량은 곧 유효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해진다. 그 값을 이루는 여러 부분은 모두 곧 자연율까지 내려가고 값 전체는 자연 가격까지 내려간다.

그러므로 자연 가격은 이를테면 중심이 되는 값이며, 모든 상품의 값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끌려간다. 여러 우연한 사정이 때로는 그 값들을 그보다 훨씬 높은 데에 매달아 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얼마쯤 낮은 데까지 억지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값들이 이 고요와 지속의 중심에 내려앉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무엇이든, 그 값들은 늘 그쪽을 향하고 있다.

어떤 상품을 시장에 내오려고 한 해 동안 쓰이는 산업의 총량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효 수요에 스스로 맞춰 간다. 그 총량은 자연스럽게 늘 그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하고 채우는 데서 그치는 바로 그만한 수량을 그곳에 내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는 같은 양의 산업이 해마다 아주 다른 수량의 상품을 낳고, 다른 일에서는 늘 같은 수량이나 거의 같은 수량을 낳는다. 농사에 쓰이는 같은 수의 노동자는 해마다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홉 따위를 아주 다른 수량으로 거둔다. 그러나 같은 수의 실 잣는 사람이나 베 짜는 사람은 해마다 아마포와 모직물을 같은 수량이나 거의 같은 수량으로 낳는다. 앞의 갈래에서는 오직 평균 생산량만이 어떤 점에서든 유효 수요에 맞춰질 수 있는데, 실제 생산량이 평균 생산량보다 훨씬 많거나 훨씬 적은 일이 잦으므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수량은 때로는 유효 수요를 크게 넘어서고 때로는 크게 모자란다. 그러므로 그 수요가 늘 같은 채로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 가격은 크게 오르내리기 쉬워서 때로는 자연 가격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고 때로는 훨씬 높이 오른다. 뒤의 갈래에서는 같은 양의 노동이 낳는 생산물이 늘 같거나 거의 같으므로 유효 수요에 더 정확히 맞춰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수요가 같은

채로 있는 동안에는 그 상품의 시장 가격도 같은 채로 있어서 자연 가격과 아주 똑같거나 헤아릴 수 있는 한 그것에 가장 가깝기 쉽다. 아마포와 모직물의 값이 곡물 값처럼 자주도 크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 경험으로 안다. 아마포와 모직물의 값은 오직 수요가 변하는 데 따라서만 변하고, 곡물의 값은 수요가 변하는 데 따라서만이 아니라 그 수요를 채우려고 시장에 나오는 수량이 훨씬 크고 훨씬 자주 변하는 데 따라서도 변한다.

어떤 상품이든 그 시장 가격이 때때로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주로 그 값에서 임금과 이윤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떨어진다. 지대로 갈라지는 부분은 그것에 덜 영향을 받는다. 화폐로 정해 놓은 지대는 그 율에서든 그 값어치에서든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땅에서 나는 원생산물의 일정한 비율이나 일정한 수량으로 이루어진 지대는 그 원생산물의 시장 가격이 때때로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한 해의 값어치가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 해의 율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일은 드물다. 임대 조건을 정할 때 지주와 농부는 저마다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한 그 율을 일시적이고 때때로 나타나는 값이 아니라 그 생산물의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값에 맞추려고 애쓴다.

그렇게 오르내리는 것은 시장에 상품이 넘치는가 모자라는가, 노동이 넘치는가 모자라는가, 이미 해 놓은 일이 넘치는가 모자라는가, 해야 할 일이 넘치는가 모자라는가에 따라 임금이나 이윤의 값어치와 율에 다 영향을 준다. 온 나라가 상복을 입는 국상은 검은 천의 값을 올리고(그런 때에는 시장에 검은 천이 거의 언제나 모자란다) 그것을 적잖이 가진 상인들의 이윤을 늘린다. 그러나 그것은 베 짜는 사람들의 임금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시장에 모자란 것은 상품이지 노동이 아니며, 이미 해 놓은 일이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상은 직인 재봉사들의 임금을 올린다. 여기서는 시장에 노동이 모자란다.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 더 많이 해야 할 일에 유효 수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상은 물들인 비단과 천의 값을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그것을 적잖이 손에 쥔 상인들의 이윤을 줄인다. 그런 상품을 손질하는 데 쓰이는 일꾼들의 임금도 떨어뜨리는데,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여섯 달, 어쩌면 열두 달 동안 아주 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장에 상품도 노동도 다 넘친다.

그러나 개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써도 좋다면, 자연 가격 쪽으로 끌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떤 우연한 사정이, 때로는 자연적인 원인이, 때로는 정책상의 어떤 규제가 많은 상품에서 시장 가격을 오래도록 자연 가격보다 훨씬 높은 데에 붙들어 둘 수 있다.

유효 수요가 늘어나서 어떤 개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훨씬 높이 오르게 되면, 그 시장에 물건을 대는 데 자기 자산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이 변화를 감추려고 조심한다. 그것이 널리 알려지면 그들이 얻는 큰 이윤이 수많은 새 경쟁자를 꾀어 같은 데에 자기 자산을 쓰게 만들 것이고, 그리하여 유효 수요가 넉넉히 채워져 시장 가격은 곧 자연 가격까지 내려가고 어쩌면 얼마 동안은 그보다 더 낮은 데까지 내려갈 것이다. 시장이 물건을 대는 사람들의 거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들은 때로 여러 해에 걸쳐 그 비밀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새 경쟁자 없이 남다른 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비밀이 오래 지켜지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남다른 이윤은 그 비밀이 지켜지는 기간보다 아주 조금밖에 더 오래 가지 못한다.

제조업의 비밀은 거래의 비밀보다 더 오래 지켜질 수 있다. 흔히 쓰이는 재료의 절반 값밖에 들지 않는 재료로 어떤 빛깔을 내는 길을 찾아낸 염색업자는 일을 잘 꾸려 가기만 하면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발견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다. 그가 얻는 남다른 이득은 그의 남모르는 노동에 치러지는 높은 값에서 나온다. 그 이득은 본래 그 노동의 높은 임금에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이 그의 자산 어느 부분에서나 되풀이되어 생기고, 그리하여 그 총액이 그 자산에 일정한 비례를 이루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자산의 남다른 이윤이라고 여긴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개별적인 우연한 사정이 낳은 결과이지만, 그 작용은 때로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자연 생산물은 흙과 자리가 유별나야 하므로, 큰 나라의 토지 가운데 그것을 길러 내기에 알맞은 땅을 다 모아도 유효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나온 수량 전부가, 그것을 길러 낸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쓰인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을 각각의 자연율에 따라 치르기에 넉넉한 값보다 더 많이 내려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상품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이 높은 값에 계속 팔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값에서 토지의 지대로 갈라지는 부분이 대개 자연율보다 높게 치러지는 부분이다. 흙과 자리가 유별나게 좋은 프랑스의 몇몇 포도밭 지대처럼 그토록 유별나고 값비싸게 여겨지는 생산물을 내주는 토지의 지대는, 그 이웃에 있으면서 똑같이 비옥하고 똑같이 잘 갈린 다른 토지의 지대와 일정한 비례를 이루지 않는다. 그와 달리 그런 상품을 시장에 내오는 데 쓰이는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은, 그 이웃에서 노동과 자산이 쓰이는 다른 갈래의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비례를 벗어나는 일이 드물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자연적인 원인이 낳은 결과이며, 그 원인은 유효 수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일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 있으므로 영원히 작용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주어졌든 무역 회사에 주어졌든 독점은 거래나 제조업의 비밀과 같은 결과를 낸다. 독점을 쥔 자들은 유효 수요를 넉넉히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장을 늘 모자란 상태에 두고, 그리하여 자기 상품을 자연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팔며, 임금이든 이윤이든 자기가 받는 보수를 자연율보다 크게 끌어올린다.

독점 가격은 어느 경우에나 받아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다. 그와 달리 자연 가격 곧 자유로운 경쟁의 값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인데, 어느 경우에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다. 앞의 것은 어느 경우에나 사는 사람에게서 짜낼 수 있는, 또는 그들이 내는 데 응하리라고 여겨지는 가장 높은 값이고, 뒤의 것은 파는 사람이 자기 일을 이어 가면서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다.

동업조합의 배타적인 특권[1]과 도제법[2], 그리고 개별 일자리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일에 들어왔을 수보다 적은 수로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법은, 정도는 덜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들은 한 가지 넓혀진 독점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또 온 갈래의 일자리에서 개별 상품의 시장 가격을 자연 가격보다 높은 데에 붙들어 두고, 그것에 쓰인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을 다 자연율보다 얼마쯤 높은 데에 붙들어 두는 일이 잦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그것을 낳는 정책상의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개별 상품이든 그 시장 가격은 오래도록 자연 가격보다 높은 채로 있을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그보다 낮은 채로 있는 일은 드물다. 그 값의 어느 부분이 자연율보다 낮게 치러지든, 그 일로 이익이 상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그 손실을 느끼고서, 시장에 나오는 수량이 곧 유효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한 만큼에 그치게 될 만큼의 토지나 노동이나 자산을 곧바로 그 일에서 빼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장 가격은 곧 자연

가격까지 오를 것이다. 적어도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제조업이 잘될 때 일꾼이 자기 임금을 자연율보다 훨씬 높이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바로 그 도제법과 그 밖의 동업조합 규약이, 제조업이 기울 때에는 때때로 그 임금을 자연율보다 훨씬 낮게 내려놓도록 그를 몰아붙인다. 앞의 경우에 그 규약이 많은 사람을 그의 일자리에서 내쫓는다면, 뒤의 경우에는 그를 많은 일자리에서 내쫓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제가 일꾼의 임금을 자연율보다 낮게 떨어뜨리는 데에서는 그것을 자연율보다 높게 올리는 데에서만큼 오래 힘을 쓰지 못한다. 그 작용은 한쪽 방향으로는 여러 세기에 걸쳐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쪽 방향으로는 그 업종이 잘되던 때에 그 일을 배운 일꾼들 가운데 몇몇이 살아 있는 동안밖에 이어지지 못한다. 그들이 사라지면 그 뒤에 그 업종을 배우는 사람의 수가 자연스럽게 유효 수요에 스스로 맞춰 갈 것이다. 어느 개별 일자리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노동의 임금이나 자산의 이윤을 자연율보다 낮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힌두스탄이나 옛 이집트의 정책만큼 난폭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누구나 종교의 원칙에 얽매여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야 했고 그것을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가장 끔찍한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졌다.

상품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든 늘 이어지는 것이든, 지금 여기서 살펴 둘 필요가 있다고 내가 여기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자연 가격 자체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인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자연율이 변하는 데 따라 변하며, 어느 사회에서나 이 율은 그 사회의 사정에 따라, 곧 그 사회가 부유한가 가난한가와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가 멈춘 상태에 있는가 물러나는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변한다.

나는 이어지는 네 장에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변하는 원인을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고 또렷하게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임금률을 자연스럽게 정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정이 사회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따라, 또 사회가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가 멈춘 상태에 있는가 물러나는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밝혀 보겠다.

둘째로, 이윤율을 자연스럽게 정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정 또한 사회 상태가 그와 같이 변하는 데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이려고 한다.

화폐로 받는 임금과 이윤은 노동과 자산이 쓰이는 갈래마다 아주 다르지만, 노동이 쓰이는 모든 갈래에서 화폐로 받는 임금들 사이에는, 또 자산이 쓰이는 모든 갈래에서 화폐로 얻는 이윤들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가 흔히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 비례는 뒤에 드러나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일자리의 성질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여러 법과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비례는 여러 점에서 법과 정책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 사회가 부유한가 가난한가와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가 멈춘 상태에 있는가 물러나는 상태에 있는가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서로 다른 상태에서 모두 같은 채로 또는 거의 같은 채로 남아 있는 듯하다. 나는 세 번째로 이 비례를 정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밝히려고 한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대를 정하고 토지가 낳는 온갖 물건의 실질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사정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한다.

8장 —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의 생산물은 노동의 자연스러운 보수 곧 임금을 이룬다. 토지를 제 것으로 삼는 일과 자산을 쌓는 일이 둘 다 아직 없었던 처음의 사물 상태에서는 노동의 생산물 전부가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그에게는 그것을 나눠 가질 지주도 고용주도 없다.

이 상태가 이어졌더라면 노동의 임금은 분업이 낳는 노동 생산력의 모든 개량과 더불어 늘어났을 것이다. 온갖 것이 차츰 더 싸졌을 것이다. 그것들은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되었을 것이고, 이런 사물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교환될 터이므로, 그것들은 더 적은 양의 노동이 낳은 생산물로 사들여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갖 것이 실제로는 더 싸졌을 텐데도 겉보기로는 많은 것이 전보다 더 비싸졌거나 다른 물건의 더 많은 수량과 교환되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일자리의 대부분에서 노동의 생산력이 열 배로 좋아져서 하루 노동이 처음에 해내던 일의 열 배를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한 일자리에서는 그것이 두 배로만 좋아져서 하루 노동이 전에 해내던 일의 두 배밖에 해낼 수 없다고 해 보자. 일자리의 대부분에서 나온 하루 노동의 생산물을 이 한 일자리에서 나온 하루 노동의 생산물과 교환할 때, 앞의 일자리들에서 처음에 해낸 일의 열 배가 뒤의 일자리에서 처음에 해낸 일의 두 배밖에 사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뒤의 일자리에서 나온 어떤 일정한 수량, 이를테면 1파운드(무게)는 전보다 다섯 배 더 비싸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두 배로 싸졌다. 그것을 사들이는 데 다른 물건이 다섯 배로 더 많이 들었다고는 해도, 그것을 사들이든 생산하든 노동은 절반밖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손에 넣기는 전보다 두 배로 쉬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생산물 전부를 누렸던 이 처음의 사물 상태는 토지를 제 것으로 삼는 일과 자산을 쌓는 일이 처음 들어선 뒤로는 이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상태는 노동의 생산력에 가장 크게 볼 만한 개량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끝났으며, 그것이 노동의 보수 곧 임금에 어떤 결과를 미쳤을지를 더 따라가 보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토지가 사유 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는 노동자가 그 토지에서 길러 내거나 거둘 수 있는 생산물 거의 전부에서 한 몫을 요구한다. 그의 지대가 토지에 쓰이는 노동의 생산물에서 떼어 가는 첫 번째 몫이다.

땅을 가는 사람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릴 것을 갖고 있는 일은 드물다. 그가 먹고살 것은 대개 그를 고용한 농부인 고용주의 자산에서 미리 그에게 치러지는데, 그 고용주는 그의 노동의 생산물을 나눠 갖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산이 이윤과 함께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를 고용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 이윤이 토지에 쓰이는 노동의 생산물에서 떼어 가는 두 번째 몫이다.

그 밖의 거의 모든 노동의 생산물도 이와 같이 이윤을 떼이게 되어 있다. 온갖 기술과 제조업에서 일꾼의 대부분은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 일의 재료와 자기 임금과 먹고살 것을 미리 내어 줄 고용주가 필요하다. 그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의 생산물을, 다시 말해 그 노동이 그것이 들어간 재료에 더해 주는 값어치를 나눠 가지며, 그의 이윤은 이 몫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홀로 일하는 독립한 일꾼이 자기 일의 재료를 사들이고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자산을 다 갖추고 있는 일도 때때로 있다. 그는 고용주이면서 일꾼이며, 자기 노동의 생산물 전부, 다시 말해 그 노동이 그것이 들어간 재료에 더해 주는 값어치 전부를

누린다. 그 전부에는 보통은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두 가지 수입, 곧 자산의 이윤과 노동의 임금이 다 들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다지 잦지 않으며, 유럽의 어디서나 독립한 일꾼 한 사람에 스무 사람이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 그리고 노동의 임금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노동하는 사람이 한쪽이고 그를 고용하는 자산의 임자가 다른 한쪽일 때 그 임금이 보통 어떠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의 통상적인 임금이 얼마인가는 어디서나 이해가 결코 같지 않은 그 두 편 사이에 보통 맺어지는 약정에 달려 있다. 일꾼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려 하고 고용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려 한다. 앞의 편은 노동의 임금을 올리려고 단합하는 쪽으로 기울고 뒤의 편은 그것을 내리려고 단합하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 그 두 편 가운데 어느 쪽이 이 다툼에서 유리하여 다른 쪽을 자기 조건에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내다보기는 어렵지 않다. 고용주는 수가 더 적으므로 훨씬 쉽게 단합할 수 있다. 게다가 법은 그들의 단합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금하지 않으면서 일꾼들의 단합은 금한다. 일값을 내리려는 단합을 막는 의회 법률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올리려는 단합을 막는 법률은 많다. 그런 다툼에서는 어느 것이든 고용주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다. 지주든 농부든 제조업 고용주든 상인이든, 일꾼을 한 사람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손에 넣은 자산으로 대개 한두 해는 살 수 있다. 일꾼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일자리 없이 한 주를 견딜 수 없고,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적으며, 한 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길게 보면 일꾼이 고용주에게 필요한 만큼 고용주도 일꾼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필요가 그만큼 당장 닥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단합은 좀처럼 들리지 않으나 일꾼의 단합은 자주 들린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용주가 좀처럼 단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 일도 이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다. 고용주는 노동의 임금을 지금의 율보다 올리지 않으려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 없는, 그러나 한결같고 고른 단합을 이루고 있다. 이 단합을 깨뜨리는 것은 어디서나 가장 인기 없는 짓이며, 이웃과 동료 사이에서 고용주에게 한 가지 치욕이 된다. 우리가 이 단합에 대해 좀처럼 듣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늘 있는 일이자,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물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또 때때로 노동의 임금을 이 율보다도 더 낮게 떨어뜨리려고 따로 단합을 맺는다. 이런 단합은 늘 실행하는 순간까지 철저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일꾼들이 때때로 그러듯 저항 없이 굽히고 들면, 그들이 뼈저리게 느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단합에는 일꾼들이 맞서 지키려는 단합으로 맞서는 일이 잦고, 그들은 때로 이런 자극이 없어도 제 노동의 값을 올리려고 스스로 단합한다. 그럴 때 그들이 흔히 내세우는 구실은 때로는 식료품의 높은 값이고 때로는 고용주가 자기들 일로 얻는 큰 이윤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합은 공격하는 것이든 지키는 것이든 늘 넉넉히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 그들은 문제를 빨리 판가름 내려고 늘 가장 요란한 아우성에, 때로는 가장 놀라운 폭력과 난동에 의지한다. 그들은 절박하며, 굶어 죽든가 고용주를 겁주어 당장 자기 요구에 따르게 하든가 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보이는 어리석음과 지나침으로 움직인다. 그럴 때 고용주는 다른 편에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하인과 노동자와 직인의 단합을 막으려고 그토록 매섭게 만들어진 법을 엄히 집행하라고, 또 행정관이 도와 달라고 그치지 않고 크게 외친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렇게 떠들썩한 단합의 폭력에서 무슨 이로움을 얻는 일은 아주

드물며, 그런 단합은 한편으로는 행정관이 끼어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더 굳게 버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꾼의 대부분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우두머리들이 벌을 받거나 망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난다.

그러나 일꾼과의 다툼에서 고용주가 대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가장 낮은 갈래의 노동에서마저 그 통상적인 임금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아래로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율이 있다.

사람은 늘 자기 일로 먹고살아야 하며,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그보다 얼마쯤 많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가 식구를 길러 낼 수 없어서 그런 일꾼의 씨가 첫 세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캉티용 씨[3]는 이 때문에 가장 낮은 갈래의 보통 노동자가 어디서나 적어도 자기를 먹여 살릴 것의 두 배를 벌어야 하며 그래야 이럭저럭 아이 둘을 길러 낼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아내의 노동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매여 있어야 하므로 제 몸을 먹여 살리기에 넉넉할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절반은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헤아려진다. 그러므로 이 셈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노동자도 둘이 그 나이까지 살아남을 기회를 똑같이 누리게 하려면 이럭저럭 적어도 아이 넷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아이 넷을 먹여 기르는 데 반드시 드는 비용은 어른 한 사람을 먹여 기르는 비용과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같은 지은이는 몸이 튼튼한 노예의 노동이 그를 먹여 기르는 비용의 두 배 값어치가 있다고 헤아려진다는 말을 덧붙이며, 가장 하찮은 노동자의 노동도 몸이 튼튼한 노예의 노동보다 값어치가 적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분명해 보인다. 곧 식구를 길러 내려면 가장 낮은 갈래의 보통 노동에서마저 남편과 아내의 노동을 합쳐 그들 자신을 먹여 기르는 데 꼭 필요한 것보다 얼마쯤 더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비례인지, 위에서 말한 비례인지 다른 어떤 비례인지는 내가 나서서 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때때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이 자기 임금을 이 율보다 크게 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사정들이 있다. 이 율은 보통의 인간애와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율임이 분명하다.

어느 나라에서든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노동자와 직인과 온갖 하인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날 때, 해마다 지난해에 일하던 수보다 더 많은 수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때, 일꾼들은 자기 임금을 올리려고 단합할 필요가 없다. 일손이 모자라면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일꾼을 얻으려고 서로 값을 올려 부르고, 그리하여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고용주들의 자연스러운 단합을 스스로 깨뜨린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임금을 치르는 데 쓰이도록 정해진 재원이 늘어나는 비례로만 늘어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재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고용주들이 먹고사는 데 반드시 드는 것을 넘고도 남는 수입이고, 둘째는 그들이 자기 일을 벌이는 데 반드시 드는 것을 넘고도 남는 자산이다.

지주나 연금 생활자나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그는 그 나머지의 전부나 일부를 집안 하인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두는 데 쓴다. 이 나머지가 늘어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하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베 짜는 사람이나 구두 만드는 사람처럼 독립한 일꾼이 자기 일의 재료를 사들이고 그것을 넘길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로 직인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써서 그들의 일로 이윤을 얻으려 한다. 이 나머지가 늘어나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직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수입과 자산이 늘어나는 데 따라 반드시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도무지 늘어날 수 없다. 수입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곧 국민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부가 늘어나는 데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도무지 늘어날 수 없다.

노동의 임금을 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부가 실제로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창하는 나라, 다시 말해 가장 빠르게 부유해져 가는 나라다. 영국은 지금으로서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부유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은 영국의 어느 곳보다도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높다. 뉴욕 주에서 1773년, 곧 요즘의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노동자는 하루에 식민지 통화로 3실링 6펜스, 스털링으로는 2실링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4] 배 만드는 목수는 식민지 통화로 10실링 6펜스에 스털링 6펜스 값어치의 럼 1파인트를 더 받아 모두 스털링 6실링 6펜스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고, 집 짓는 목수와 벽돌 쌓는 일꾼은 식민지 통화로 8실링, 스털링으로는 4실링 6펜스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으며, 직인 재봉사는 식민지 통화로 5실링, 스털링으로는 2실링 10펜스쯤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 이 값은 모두 런던의 값보다 높으며, 다른 식민지에서도 임금이 뉴욕만큼 높다고 한다. 식료품의 값은 북아메리카의 어디서나 영국보다 훨씬 낮다. 그곳에서는 식량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가장 나쁜 철에도 그들은 내보낼 몫은 줄었을지언정 자기들이 먹을 것은 늘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의 화폐 가격이 본국의 어느 곳보다 높다면, 그 실질 가격 곧 그것이 노동자에게 가져다주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에 대한 실제의 지배력은 그보다 더 큰 비례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아메리카는 아직 영국만큼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번창하고 있고, 부를 더 얻는 쪽으로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그 번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표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영국과 유럽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주민이 500년 안에 두 배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주민이 20년이나 25년에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주로 새 주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크게 번식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늙도록 사는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손을 50명에서 100명까지, 때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보는 일이 잦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노동에 보수가 넉넉히 주어지므로 아이가 많은 것이 부모에게 짐이 되는 대신 부유함과 번영의 원천이 된다. 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하는 노동은 부모에게 순전한 이득으로 100파운드 값어치가 있다고 헤아려진다. 어린 아이 넷이나 다섯을 둔 젊은 과부는 유럽의 중간 계층이나 그 아래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두 번째 남편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겠지만, 그곳에서는 일종의 재산인 듯이 구애를 받는 일이 잦다. 아이의 값어치는 혼인을 북돋우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북아메리카인들이 대개 아주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일찍 혼인하여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북아메리카에서는 일손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이 그들이 쓸 노동자를 찾아낼 수 있는 속도보다 아직도 더 빠르게 늘어나는 듯하다.

어느 나라의 부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멈춘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노동의 임금이 아주 높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임금을 치르도록 정해진 재원, 곧 그 주민의 수입과 자산은 아주 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세기에 걸쳐 같은 크기나 거의 같은

크기로 이어져 왔다면, 해마다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이듬해에 필요한 수를 쉽게 채우고 남기기까지 할 것이다. 일손이 모자라는 일이 좀처럼 없을 터이고, 고용주가 일손을 얻으려고 서로 값을 올려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일손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보다 많아진다. 일자리가 늘 모자랄 터이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서로 값을 내려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 노동의 임금이 노동자를 먹여 살리고 그가 식구를 길러 낼 수 있게 하기에 넉넉한 것보다 많았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고용주들의 이익이 곧 그것을 보통의 인간애와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율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다시 말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잘 갈리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하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멈춘 상태에 있었던 듯하다. 500년도 더 전에 그곳을 찾아간 마르코 폴로[5]는 그 땅의 갈이와 부지런함과 인구가 많음을 요즘 여행자들이 적는 것과 거의 같은 말로 적고 있다. 어쩌면 중국은 그의 시대보다도 훨씬 전에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부의 한도를 다 채웠을지도 모른다. 여러 여행자의 기록은 다른 많은 점에서 서로 어긋나면서도 중국에서 노동의 임금이 낮다는 것과 노동자가 식구를 길러 내기 어렵다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하루를 온통 땅을 파서 저녁에 쌀 얼마를 살 수 있는 것을 얻으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수공업자의 처지는 그럴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나쁘다. 그들은 유럽에서처럼 손님이 부르기를 제 작업장에서 한가로이 기다리는 대신, 저마다 자기 업종의 연장을 들고 끊임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기 솜씨를 내놓고, 이를테면 일자리를 비는 것이다. 중국의 아래 계층 사람들이 겪는 가난은 유럽에서 가장 헐벗은 나라의 가난을 훨씬 넘어선다. 광저우 근처에서는 수백, 흔히 하는 말로는 수천 가구가 땅에 살 곳이 없어 강과 운하 위의 작은

고기잡이배에서 늘 살아간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얻는 생계가 너무나 빈약하여 그들은 유럽 배에서 던져 버린 가장 더러운 쓰레기라도 건져 올리려고 애쓴다. 죽은 개나 고양이의 주검처럼 반쯤 썩어 냄새가 나는 고기라도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그렇듯이 반갑다. 중국에서 혼인을 북돋우는 것은 아이가 이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없앨 수 있는 자유다. 큰 도시라면 어디서나 밤마다 여러 아이가 거리에 내버려지거나 강아지처럼 물에 던져진다. 이 끔찍한 일을 해 주는 것으로 생계를 버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이 드러내 놓고 하는 일이라고까지 한다.

그러나 중국은 어쩌면 제자리에 멈춰 있을지언정 뒤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도시는 어디서도 주민이 떠나 비어 있지 않다. 한때 갈리던 땅은 어디서도 버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마다 같은 노동이나 거의 같은 노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은 생계가 빈약하기는 해도 어떻게든 그럭저럭 자기 씨를 이어 가서 여느 때의 수를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해마다 하인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온갖 갈래의 일자리에서 지난해보다 적어질 것이다. 더 높은 계층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이 자기 본래의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가장 낮은 계층에서라도 기꺼이 그것을 찾아 나선다. 가장 낮은 계층은 자기 일꾼들로도 넘치는데 거기에 다른 모든 계층에서 흘러넘친 사람들까지 더해지므로, 그 계층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경쟁이 너무나 심해져서 노동의 임금이 노동자의 가장 딱하고 빈약한 생계에 이를 만큼 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진 조건으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굶어 죽든가, 빌어서 또는 어쩌면 가장 큰 죄악을 저질러서 생계를 찾아

나서든가 할 것이다. 궁핍과 굶주림과 죽음이 곧 그 계층에 만연하고, 거기서 다시 그 위의 모든 계층으로 퍼져 나가, 마침내 그 나라 주민의 수가 나머지를 앗아 간 압제나 재앙을 벗어나 남아 있는 수입과 자산으로 쉽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벵골과 동인도에 있는 영국인의 다른 몇몇 정착지의 지금 상태에 가까울 것이다.[6] 전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서 따라서 생계를 얻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비옥한 나라에서, 그런데도 한 해에 30만이나 40만 명이 굶어 죽는다면, 우리는 노동하는 빈민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틀림없다고 여길 수 있다. 북아메리카를 지키고 다스리는 영국 헌정의 정신과 동인도에서 짓누르고 억누르는 무역 회사의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는, 어쩌면 그 두 곳의 서로 다른 상태로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에 넉넉히 주어지는 보수는 국민의 부가 늘어나는 데 따라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이면서 또 그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이와 달리 노동하는 빈민이 빈약하게 먹고사는 것은 일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며, 그들이 굶주리는 처지에 있는 것은 일이 빠르게 뒤로 가고 있다는 증상이다.

영국에서 노동의 임금은 지금으로서는 노동자가 식구를 길러 낼 수 있게 하기에 꼭 필요한 것보다 분명히 많은 듯하다. 이 점을 우리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 그 일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루하고 미심쩍게 셈해 볼 필요는 없다. 이 나라에서 노동의 임금이 보통의 인간애와 어울릴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율로 정해지는 곳이 아무 데도 없음을 보여 주는 뻔한 증상이 여럿 있다.

첫째로, 영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는 가장 낮은 갈래의 노동에서마저 여름 임금과 겨울 임금이 갈린다. 여름 임금이 늘 더 높다. 그러나 땔감에 드는 남다른 비용 때문에 한 식구를 먹여 살리는 데는 겨울에

가장 많은 돈이 든다. 그러므로 이 비용이 가장 적을 때 임금이 가장 높으니, 임금이 이 비용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양과 그것이 지닌다고 여겨지는 값어치로 정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노동자는 겨울 비용을 치르려고 여름 임금의 일부를 저축해야 하며, 한 해를 통틀어 보면 그 임금이 한 해 동안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예나 당장의 생계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매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하루 생계는 그의 하루 필요에 맞춰질 것이다.

둘째로, 영국에서 노동의 임금은 식료품의 값과 함께 오르내리지 않는다. 식료품 값은 어디서나 해마다, 흔히는 달마다 변한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노동의 화폐 가격은 때로 반세기에 걸쳐 한결같이 같은 채로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노동하는 빈민이 값비싼 해에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웬만큼 넉넉한 때에는 편안할 터이고 남달리 값이 쌀 때에는 풍족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식료품 값이 높았지만 이 왕국의 많은 곳에서 그와 더불어 노동의 화폐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일은 없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올랐는데, 아마도 식료품 값이 오른 것보다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서 온 것이다.

셋째로, 식료품 값이 노동의 임금보다 해마다 더 많이 변하는 것과 달리, 노동의 임금은 곳에 따라 식료품 값보다 더 많이 변한다. 빵과 푸주간 고기의 값은 이 연합 왕국의 대부분에서 같거나 거의 같다. 이런 것과 소매로 팔리는 대부분의 다른 물건은, 노동하는 빈민이 온갖 것을 사는 길이 바로 소매인데, 큰 도시에서 시골의 더 먼 곳보다 대체로 꼭 그만큼 싸거나 더 싸며, 그 까닭은 내가 뒤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도시와 그 근처에서 노동의 임금은 몇 마일 떨어진 곳보다 4분의 1이나 5분의 1, 곧 20 또는 25퍼센트 높은 일이 잦다. 하루 18펜스를 런던과 그 근처에서 노동의 통상적인 값으로 셈해도 좋다. 몇

마일 떨어지면 그것이 14펜스와 15펜스로 떨어진다. 10펜스를 에든버러와 그 근처의 값으로 셈해도 좋다. 몇 마일 떨어지면 그것이 8펜스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스코틀랜드 저지대 대부분에서 보통 노동의 여느 값이며 그곳에서는 이 값이 잉글랜드보다 훨씬 덜 변한다. 이만한 값 차이는 사람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옮기기에 늘 넉넉하지는 않은 듯하지만[7], 가장 부피가 큰 상품이라면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만이 아니라 왕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거의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그토록 많이 실려 가서 값이 곧 더 고르게 될 만한 차이다. 사람의 본성이 가볍고 변덕스럽다는 온갖 말이 있었지만, 온갖 짐 가운데 사람이 가장 옮기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이 경험으로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빈민이 노동의 값이 가장 낮은 왕국의 그런 곳에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값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풍족할 수밖에 없다.

넷째로, 노동의 값이 변하는 것은 곳으로 보나 때로 보나 식료품 값이 변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아주 반대다.

보통 사람들의 먹을거리인 곡물은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비싸며, 스코틀랜드는 거의 해마다 잉글랜드에서 아주 많은 양을 들여온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곡물은 그것이 실려 가는 나라인 스코틀랜드에서 그것이 나온 나라인 잉글랜드보다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고, 그 품질에 비례해서는 같은 시장에 나와 그것과 겨루는 스코틀랜드 곡물보다 비싸게 팔릴 수 없다. 곡물의 품질은 주로 물방아에서 얻어지는 밀가루나 곡식가루의 양에 달려 있는데, 이 점에서 잉글랜드 곡물이 스코틀랜드 곡물보다 훨씬 나아서, 겉보기로는 다시 말해 부피로 재는 데 비례해서는 더 비쌀 때가 잦아도 실제로는 다시 말해 품질에 비례해서는, 나아가 무게로 재는 데 비례해서까지도 대체로 더 싸다. 그와 달리 노동의 값은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에서 더

비싸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빈민이 이 연합 왕국의 한쪽에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풍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스코틀랜드에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의 가장 큰 몫이자 가장 나은 몫을 대 주는 것은 오트밀이며, 그 먹을거리는 대체로 잉글랜드의 같은 계층에 있는 이웃들의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계를 꾸리는 모양이 다른 것은 임금이 다른 데서 온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닌데도, 나는 그것이 이상하게 잘못 이해되어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자주 들었다. 한 사람은 마차를 두고 그 이웃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한쪽이 부유하고 다른 쪽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한쪽은 부유하기 때문에 마차를 두고 다른 쪽은 가난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는 이럭저럭 한 해를 다른 해와 견주어 보면 이 연합 왕국의 두 곳에서 다 곡물이 이번 세기보다 비쌌다. 이것은 이제 웬만한 의심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실이며, 그 증거는 잉글랜드에 대해서보다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더 뚜렷하다. 스코틀랜드에서 그것을 받쳐 주는 것은 공정 곡가의 기록인데, 이는 시장의 실제 형편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주마다 온갖 종류의 곡물 값을 선서를 하고 해마다 매기는 평가다.[8] 이런 직접 증거에 그것을 굳혀 줄 옆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나는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유럽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도 사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들겠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연합 왕국의 두 곳에서 곡물이 지난 세기에 이번 세기보다 얼마쯤 비쌌던 것이 분명한 만큼, 노동이 훨씬 쌌던 것도 똑같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빈민이 그때 자기 식구를 길러 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편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에 스코틀랜드 대부분에서 보통 노동의 하루 임금으로 가장 흔했던 것은 여름에 6펜스, 겨울에 5펜스였다. 주당 3실링이라는 같은 값이 하일랜드와 서쪽 섬들의 몇몇 곳에서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치러지고

있다. 저지대 대부분에서 보통 노동의 가장 흔한 임금은 이제 하루 8펜스이며, 에든버러 근처와 잉글랜드에 맞닿은 여러 주에서는, 아마도 그 이웃 때문에, 또 최근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웬만큼 오른 글래스고와 캐런과 에어셔 같은 몇몇 곳에서는 10펜스, 때로는 1실링이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업과 제조업과 상업의 개량이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노동에 대한 수요, 따라서 그 값이 그런 개량과 더불어 늘어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도 이번 세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임금은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에서 높았다. 그 뒤로 그것 또한 웬만큼 올랐으나, 그곳에서는 곳에 따라 치러지는 임금이 더 여러 가지여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헤아리기가 더 어렵다. 1614년에 보병의 급료는 지금과 같이 하루 8펜스였다. 그것이 처음 정해졌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보통 노동자, 곧 보병을 흔히 뽑아 오는 계층 사람들의 여느 임금에 맞춰 정해졌을 것이다. 찰스 2세 때에 글을 쓴 수석 재판관 헤일스 경[9]은 아버지와 어머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이 둘과 할 수 없는 아이 둘, 이렇게 여섯 사람으로 이루어진 노동자 한 식구가 반드시 써야 할 비용을 주당 10실링, 곧 연 26파운드로 셈한다. 그들이 자기 노동으로 이만큼을 벌 수 없다면 빌거나 훔쳐서 채워야 한다고 그는 본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캐어 본 듯하다.(빈민 부양을 위해 그가 내놓은 구상은 번의 《구빈법의 역사》에 실려 있다.[10]) 1688년에 대버넌트 박사가 그 정치 산술의 솜씨를 몹시 추어올린 그레고리 킹 씨[11]는 노동자와 밖에서 일하는 하인의 통상적인 소득을 한 식구에 연 15파운드로 셈했는데, 그는 한 식구가 이럭저럭 세 사람 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셈은 겉보기로는 다르지만 밑바탕에서는 헤일스 판사의 셈과 아주 가깝게 맞아떨어진다. 둘 다 그런 식구가 한 주에 쓰는 비용을 한 사람에 20펜스쯤으로 본다. 그런 식구가 화폐로 얻는 소득과 화폐로 쓰는 비용은 그때 뒤로 이 왕국의

대부분에서, 어떤 곳에서는 더 많이 어떤 곳에서는 더 적게, 웬만큼 늘어났으나, 요즘 노동의 임금을 두고 부풀려진 몇몇 기록이 근래에 사람들에게 알린 만큼 늘어난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노동의 값은 어디서나 아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살펴 두어야 한다. 같은 곳에서 같은 종류의 노동에 서로 다른 값이 치러지는 일이 잦은데, 이는 일꾼의 능력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만이 아니라 고용주가 무르냐 모질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임금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장 흔한 임금이 얼마인가뿐이며, 법은 임금을 제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 주는 듯한데도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세운 일은 잦았다.

노동의 실질 보수, 곧 그것이 노동자에게 얻어 줄 수 있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실제 수량은 이번 세기 동안 그 화폐 가격보다 어쩌면 더 큰 비례로 늘어났다. 곡물이 얼마쯤 싸진 것만이 아니라, 부지런한 빈민이 거기서 기분 좋고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얻는 다른 많은 것이 훨씬 싸졌다. 이를테면 감자는 이제 이 왕국의 대부분에서 30년이나 40년 전에 들던 값의 절반도 들지 않는다. 순무와 당근과 양배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전에는 삽으로만 길렀으나 이제는 흔히 쟁기로 기른다. 온갖 남새도 싸졌다. 영국에서 먹는 사과의 대부분과 양파의 대부분까지도 지난 세기에는 플란데런에서 들여왔다. 아마포와 모직물 가운데 거친 것을 짜는 제조업이 크게 개량되어 노동자에게 더 싸고 더 좋은 옷을 대 주고, 거친 쇠붙이를 다루는 제조업이 개량되어 더 싸고 더 좋은 일 연장과 함께 기분 좋고 편리한 살림살이도 많이 대 준다. 비누와 소금과 양초와 가죽과 발효한 술은 물론 꽤 비싸졌는데, 주로 거기에 얹힌 세금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하는 빈민이 반드시 써야 하는 이런 것의 양은 아주 적어서, 그 값이 오른 것이 그토록 많은 다른 것의 값이 내린 것을 메우지 못한다. 사치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고 노동하는 빈민이 이제는 전에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과 같은 먹을거리와 옷과 거처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는 흔한 하소연은, 늘어난 것이 노동의 화폐 가격만이 아니라 그 실질 보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킬 만하다.

아래 계층 사람들의 처지가 이렇게 나아진 것을 사회에 이로운 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사회에 거북한 일로 보아야 할까? 그 답은 첫눈에 아주 뻔해 보인다. 하인과 노동자와 여러 종류의 일꾼은 어느 큰 정치 사회에서나 훨씬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훨씬 큰 몫의 처지를 나아지게 하는 것을 전체에 거북한 일로 볼 수는 결코 없다. 구성원의 훨씬 큰 몫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할 수는 분명히 없다. 게다가 온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에서 자기들도 웬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거처할 만한 몫을 받는 것이 공평하기만 하다.

가난은 혼인을 말리기는 하겠으나 늘 막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는 데는 유리해 보이기까지 한다. 반쯤 굶은 하일랜드 여자는 아이를 스무 명 넘게 낳는 일이 잦은데, 곱게 자란 귀부인은 흔히 하나도 낳지 못하고 대개 둘이나 셋으로 기력이 다한다. 상류층 여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잦은 아이 못 낳는 일은 낮은 처지의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드물다. 여자에게 사치는 즐김을 바라는 마음을 어쩌면 부추기면서도 아이를 낳는 힘은 늘 약하게 하고 흔히 아주 없애 버리는 듯하다.

그러나 가난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길러 내는 데는 몹시 불리하다. 연한 싹은 돋아나지만 그토록 차가운 흙과 그토록 모진 날씨에서 곧 시들어 죽는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서는 아이를 스무 명 낳은 어머니가 둘도 살려 두지 못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나는 여러 번 들었다. 경험이 아주 많은 장교 여럿이 나에게 이르기를, 자기

연대에서 태어난 병사의 아이를 모두 모아도 연대를 채우기는커녕 북과 피리를 맡을 아이조차 대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병영 근처만큼 튼튼한 아이가 많이 보이는 곳은 어디에도 드물다. 그 가운데 열세 살이나 열네 살에 이르는 아이는 아주 적은 듯하다. 어떤 곳에서는 아이의 절반이 네 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많은 곳에서는 일곱 살이 되기 전에 죽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는 아홉 살이나 열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죽는 일은 어디서나 주로 보통 사람들의 아이에게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이를 정성껏 돌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인이 대체로 상류층 사람들의 혼인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데도 그 아이 가운데 다 자란 나이에 이르는 몫은 더 적다. 버려진 아이를 받아 기르는 병원에서, 또 교구의 구제로 길러지는 아이들 사이에서 죽는 일은 보통 사람들의 아이들 사이에서보다 더 많다.

어떤 동물이든 자연스럽게 그 생계 수단에 비례하여 번식하며, 어떤 종도 그것을 넘어서 번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명 사회에서 생계가 빈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종이 더 번식하는 데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래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뿐이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다산한 혼인이 낳은 아이의 큰 몫을 죽이는 것 말고는 없다.

노동에 넉넉히 주어지는 보수는 그들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따라서 더 많이 길러 낼 수 있게 하므로 자연스럽게 그 한계를 넓히고 늘리는 쪽으로 기운다. 또한 그것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요구하는 비례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점도 살펴 둘 만하다. 이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노동의 보수는 반드시 노동자의 혼인과 번식을 북돋우어, 그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구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 수요를 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어느 때든 그 보수가 이 일에 필요한 것보다 적다면 일손이 모자라서 곧 그것을 올릴 터이고,

어느 때든 그것이 더 많다면 그들이 지나치게 번식하여 곧 그것을 이 필요한 율까지 내릴 것이다. 앞의 경우에는 시장에 노동이 그만큼 모자라고 뒤의 경우에는 그만큼 넘쳐서, 곧 그 값을 사회의 사정이 요구하는 그 알맞은 율로 되밀어 놓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수요가 다른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산을 반드시 조절하여, 그것이 너무 느리게 나아갈 때는 다그치고 너무 빠르게 나아갈 때는 멈추게 하는 것은 이런 길을 거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번식 상태를 조절하고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요이며, 그것이 북아메리카에서는 번식을 빠르게 나아가게 하고 유럽에서는 느리고 더디게 하며 중국에서는 아주 멈추게 한다.

노예가 닳아 없어지는 것은 그 주인의 비용으로 메워지지만 자유로운 하인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메워진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뒤의 사람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앞의 사람이 닳아 없어지는 것만큼이나 그 고용주의 비용으로 메워진다. 온갖 종류의 직인과 하인에게 치러지는 임금은, 사회의 수요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멈춰 있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그들이 이럭저럭 직인과 하인의 씨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만큼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하인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똑같이 그 고용주의 비용으로 메워진다고는 해도, 그것은 대개 노예가 닳아 없어지는 것보다 그에게 훨씬 적게 든다. 노예가 닳아 없어진 것을 메우거나 고치도록,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정해진 재원은 흔히 소홀한 주인이나 무심한 감독이 다룬다. 자유인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정해진 재원은 그 자유인 자신이 다룬다. 부자의 살림에 대개 만연한 어지러움이 자연스럽게 앞의 것을 다루는 데로 들어오고, 빈민의 빠듯한 검약과 아끼는 마음이 그만큼 자연스럽게 뒤의 것을 다루는 데 자리 잡는다. 그렇게 다루는 것이 다르니 같은 일을 해내는 데 아주 다른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험에서나, 자유인이 한 일이 끝에 가서는 노예가 한 일보다 싸게 드는 것으로 드러난다. 보통 노동의 임금이 그토록 높은 보스턴과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까지도 그러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러므로 노동에 넉넉히 주어지는 보수는 부가 늘어나는 데서 온 결과이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그것을 두고 하소연하는 것은 가장 큰 공공의 번영이 반드시 낳는 원인과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다.

어쩌면 살펴 둘 만한 것은, 노동하는 빈민 곧 백성의 큰 몸통의 처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해 보이는 때가 사회가 부를 다 채운 뒤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더 얻으려고 나아가는 진보의 상태에 있는 동안이라는 점이다. 멈춘 상태에서 그 처지는 고되고 물러나는 상태에서는 비참하다. 진보의 상태는 사실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즐겁고 씩씩한 상태이며, 멈춘 상태는 답답하고 물러나는 상태는 구슬프다.

노동에 넉넉히 주어지는 보수는 번식을 북돋우듯이 보통 사람들의 근면도 키운다. 노동의 임금은 근면을 북돋우는 것이며, 근면은 사람의 다른 모든 성질과 마찬가지로 받는 북돋움에 비례하여 자란다. 넉넉한 생계는 노동자의 몸의 힘을 키우고, 자기 처지를 낫게 하여 어쩌면 편안하고 넉넉하게 생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아늑한 바람은 그가 그 힘을 끝까지 떨치도록 기운을 돋운다. 그래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에서보다 일꾼들이 늘 더 활기차고 부지런하고 빠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에서, 또 먼 시골보다 큰 도시 근처에서 그렇다. 물론 어떤 일꾼은 나흘에 한 주를 먹여 살릴 것을 벌 수 있으면 나머지 사흘을 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꾼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꾼은 삯을 낱개로 넉넉히 받으면 자기 몸을 지나치게 부려서 몇 해 만에 자기 몸과 체질을 망치기 쉽다. 런던과 몇몇 다른 곳에서 목수는 가장 기운찬 채로 여덟 해를 넘기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삯을 낱개로 받는 다른 많은 업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조업에서는 대개 그렇게 삯을 주고 시골 노동에서도 임금이 여느 때보다 높은 곳이면 그렇게 준다. 거의 모든 갈래의 수공업자는 저마다 자기 일에 지나치게 매달려 생기는 어떤 고유한 병을 앓게 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이름난 의사 라마치니는 그런 병을 다룬 책을 따로 썼다.[12] 우리는 병사를 우리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로 셈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병사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일에 쓰여 삯을 낱개로 넉넉히 받았을 때, 그 장교들이 사업가와 약정을 맺어 그들이 정해진 삯에 따라 하루에 일정한 금액 넘게 벌지 못하게 해야 했던 일이 잦았다. 이 약정을 맺기 전까지는 서로 겨루는 마음과 더 벌고 싶은 욕심이 그들을 부추겨 제 몸을 지나치게 부리게 하고 지나친 노동으로 제 건강을 해치게 하는 일이 잦았다. 한 주에 나흘을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나머지 사흘을 놀게 하는 참된 원인인 일이 잦은데, 그 사흘을 두고 사람들이 그토록 크게 하소연하는 것이다. 마음이든 몸이든 여러 날 잇대어 크게 힘을 쓰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쉬고 싶은 큰 마음이 따라오며, 그것은 힘으로 억누르거나 어떤 굳센 필요가 억누르지 않으면 거의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이 부르는 소리여서 얼마간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 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저 쉬게만 해 주면 되지만 때로는 흥청거리며 노는 것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것에 따라 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을 앗아 가며, 늦든 이르든 거의 언제나 그 업종의 고유한 병을 불러온다. 고용주가 늘 이성과 인간애가 이르는 바를 듣는다면, 그들은 자기 일꾼 가운데 많은 이가 일에 매달리는 것을 돋우기보다 오히려 다잡아야 할 일이 잦다. 어느 업종에서나, 늘 일할 수 있을 만큼 알맞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가장 오래 지킬 뿐 아니라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일을 해낸다는 것이 내가 믿기로는 드러날 것이다.

값싼 해에는 일꾼들이 대개 더 게으르고 값비싼 때에는 여느 때보다 더 부지런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넉넉한 생계는 그들의 근면을 늘어지게 하고 빈약한 생계는 그것을 다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넉넉한 것이 어떤 일꾼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잘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일꾼에게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이 대체로 잘 먹을 때보다 못 먹을 때, 기운이 좋을 때보다 맥이 빠질 때, 대체로 건강할 때보다 자주 앓을 때 더 잘 일한다는 것은 그리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흉년은 보통 사람들에게 대개 병과 죽음의 해이며, 그것이 그들의 근면이 낳는 생산물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살펴 두어야 한다.

넉넉한 해에는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떠나 제 근면으로 벌 수 있는 것에 자기 생계를 맡기는 일이 잦다. 그러나 식료품이 그렇게 싼 것은 하인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을 늘려서, 고용주 특히 농부가 더 많은 수를 쓰도록 북돋운다. 그럴 때 농부는 자기 곡물을 시장에서 낮은 값에 파는 것보다 일하는 하인을 몇 사람 더 먹여 살리는 데 쓰는 것에서 더 많은 이윤을 바란다. 하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 수요를 채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노동의 값은 값싼 해에 오르는 일이 잦다.

흉년에는 생계가 어렵고 아슬아슬하여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인 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식료품 값이 높은 것은 하인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재원을 줄여서, 고용주가 이미 두고 있는 하인의 수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도록 마음을 기울이게 한다. 값비싼 해에는 또 가난한 독립 일꾼이 자기 일의 재료를 갖추는 데 쓰던 적은 자산을 써 버려서 생계를 얻으려고 직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잦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쉽게 얻는 사람보다 많고, 많은 사람이 여느

때보다 낮은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며, 그리하여 하인과 직인의 임금이 다 값비싼 해에 떨어지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고용주는 값싼 해보다 값비싼 해에 자기 하인과 더 좋은 흥정을 맺는 일이 잦고, 앞의 해보다 뒤의 해에 그들이 더 고분고분하고 더 매달린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값비싼 해를 근면에 더 이롭다고 추어올린다. 게다가 지주와 농부는 가장 큰 고용주 계층의 둘인데, 값비싼 해를 기뻐할 다른 이유도 가지고 있다. 앞의 사람의 지대와 뒤의 사람의 이윤이 식료품 값에 아주 많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대체로 남을 위해 일할 때보다 자기를 위해 일할 때 덜 일한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다. 가난한 독립 일꾼은 대개 삯을 낱개로 받고 일하는 직인보다도 더 부지런할 것이다. 앞의 사람은 자기 근면의 생산물 전부를 누리고 뒤의 사람은 그것을 자기 고용주와 나눈다. 앞의 사람은 따로 떨어져 독립한 처지에 있으므로 나쁜 무리의 꾐에 덜 넘어가는데, 그 꾐은 큰 제조 공장에서 뒤의 사람의 품성을 그토록 흔히 망쳐 놓는다. 달로 또는 해로 고용되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임금과 먹고살 것이 같은 하인들에 비하면 독립한 일꾼이 나은 정도는 더욱 클 것이다. 값싼 해는 온갖 종류의 직인과 하인에 대한 독립 일꾼의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고 값비싼 해는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아는 것이 많고 재주가 뛰어난 프랑스 저자로 생테티엔 징세구의 수납관인 메상스 씨[13]는, 값싼 해와 값비싼 해에 세 가지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수량과 값어치를 견주어 빈민이 값비싼 해보다 값싼 해에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 셋은 엘뵈프에서 이루어지는 거친 모직물 제조업 하나와, 루앙 총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아마포 제조업 하나와 비단 제조업 하나다. 관청의 대장에서 베낀 그의 기록으로 보면, 그 세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수량과 값어치는

대체로 값비싼 해보다 값싼 해에 더 컸고, 값이 가장 쌌던 해에 언제나 가장 컸으며 값이 가장 비쌌던 해에 가장 작았다. 그 셋은 모두 멈춘 제조업, 다시 말해 그 생산물이 해마다 얼마쯤 변할 수는 있어도 통틀어 보면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않는 제조업인 듯하다.

스코틀랜드의 아마포 제조업과 요크셔 웨스트라이딩의 거친 모직물 제조업은 자라나는 제조업이며, 그 생산물은 얼마쯤 오르내리기는 해도 수량과 값어치가 다 대체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한 해 생산물을 두고 나온 기록을 살펴보아도 나는 그 오르내림이 철이 값비쌌는가 값쌌는가와 눈에 띄게 이어져 있음을 알아볼 수 없었다. 크게 흉년이었던 1740년에는 두 제조업이 다 꽤 크게 기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크게 흉년이었던 175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제조업이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나아갔다. 요크셔의 제조업은 물론 기울어서, 그 생산물이 1755년에 이르렀던 수준으로 오른 것은 아메리카 인지세법이 철폐된 뒤인 1766년에 와서였다.[14] 그해와 그 이듬해에 그 생산물은 전에 이른 적이 있는 어떤 수준보다도 크게 넘어섰고, 그 뒤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 팔려고 하는 모든 큰 제조업의 생산물은 그 제조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철이 값비쌌는가 값쌌는가보다 오히려 그 물건이 쓰이는 나라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사정, 곧 평화냐 전쟁이냐, 그와 겨루는 다른 제조업이 번창하느냐 기우느냐, 주된 손님들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반드시 달려 있다. 게다가 값싼 해에 아마도 해내는 남다른 일의 큰 몫은 제조업의 관청 대장에 아예 오르지 않는다. 주인을 떠난 남자 하인은 독립한 노동자가 된다. 여자들은 부모에게 돌아가서 흔히 실을 자아 제 옷과 식구의 옷을 만든다. 독립한 일꾼조차 늘 널리 팔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그 집에서 쓸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이 낳은 생산물은 그런 관청 대장에 아무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잦은데, 그 대장의 기록은 때로 그토록 거창하게 발표되며,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가 거기에 기대어 가장 큰 제국들이 번창한다거나 기운다고 알리려 드는 일이 잦아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

노동의 값이 변하는 것이 식료품 값이 변하는 것과 늘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아주 반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식료품 값이 노동의 값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노동의 화폐 가격은 두 가지 사정, 곧 노동에 대한 수요와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값으로 반드시 정해진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것이 늘어나는가 멈춰 있는가 줄어드는가에 따라, 다시 말해 그것이 늘어나는 인구를 요구하는가 멈춘 인구를 요구하는가 줄어드는 인구를 요구하는가에 따라 노동자에게 주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수량을 정하고, 노동의 화폐 가격은 이 수량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노동의 화폐 가격이 식료품 값이 낮은 곳에서 때때로 높다고 해도, 수요가 같은 채로 있다면 식료품 값이 높을 때 그것은 더욱 높을 것이다.

---

1. 옮긴이 — 동업조합(corporation)은 도시의 업종별 길드다. 조합에 들지 않은 사람이 그 도시에서 그 업종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배타적 특권을 지녔다.

2. 옮긴이 — 도제법은 1563년의 직인법을 말한다. 잉글랜드에서 어떤 수공업에 종사하려면 7년의 도제살이를 마쳐야 한다고 정했고, 1814년에 폐지되었다.

3. 옮긴이 — 리샤르 캉티용(1680년대~1734)은 아일랜드 태생의 은행가이자 경제 저술가로, 《상업 일반의 성질에 관한 시론》을 남겼다.

4.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식민지 통화는 북아메리카의 각 식민지가 발행한 돈으로 본국 화폐인 스털링보다 값이 낮았으며, 스미스는 그래서 둘을 나누어 적고 있다.

5. 옮긴이 — 마르코 폴로(1254~1324)는 베네치아의 상인으로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6. 옮긴이 — 벵골은 1757년 플라시 전투 뒤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1769년부터 1770년까지 큰 기근을 겪었다. 스미스가 말하는 무역 회사는 이 동인도회사다.

7. 옮긴이 — 교구는 구빈 행정의 단위였다. 1662년의 정주법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교구를 태어난 곳이나 정해진 기간 머문 곳으로 묶어, 빈민이 다른 교구로 옮겨 가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했다.

8. 옮긴이 — 공정 곡가는 스코틀랜드에서 주마다 해마다 곡물의 평균 시장 가격을 선서 아래 공식으로 매긴 것으로, 지대와 성직자 급여를 곡물로 셈할 때 기준이 되었다.

9. 옮긴이 — 매슈 헤일 경(1609~1676)을 말한다. 찰스 2세 때 왕좌부 수석 재판관을 지냈다. 저본에는 이름이 Hales로 적혀 있다.

10. 옮긴이 — 구빈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래 교구마다 구빈세를 걷어 그 교구의 빈민을 부양하도록 한 법 체계다. 리처드 번의 《구빈법의 역사》는 1764년에 나왔다.

11. 옮긴이 — 그레고리 킹(1648~1712)은 잉글랜드의 인구와 소득을 셈한 통계가이고, 찰스 대버넌트(1656~1714)는 그 셈을 널리 알린 경제 저술가다. 정치산술은 인구와 부를 수치로 다루던 당대의 학문이다.

12. 옮긴이 —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1633~1714)는 파도바의 의사로, 1700년에 직업병을 다룬 《 수공업자의 질병에 관하여 》 를 냈다. 저본에는 이름이 Ramuzzini로 적혀 있다.

13. 옮긴이 — 루이 메상스는 프랑스의 인구 통계 저술가다. 징세구는 프랑스 구체제에서 타유세를 걷던 행정 구역이고, 총관구는 그 위의 더 큰 구역이다.

14. 옮긴이 — 아메리카 인지세법은 1765년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인쇄물에 인지세를 물린 법으로, 식민지의 거센 반발을 불러 1766년에 철폐되었다.

8장 —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이어서)

노동의 화폐 가격이 어떤 해에는 오르고 어떤 해에는 내리는 것은, 갑작스럽고 유별난 풍년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갑작스럽고 유별난 흉년에는 그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고 유별난 풍년에는 근면을 부리는 많은 이들의 손에, 지난해에 일 시켰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부지런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부리기에 넉넉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수의 사람을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더 쓰려는 주인들은 그들을 얻으려고 서로 값을 올려 부르게 되고, 그 바람에 노동의 실질 가격과 화폐 가격이 함께 오르는 일이 더러 생긴다.

갑작스럽고 유별난 흉년에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 근면을 부리는 데 쓰이도록 정해져 있던 자금이 지난해보다 적어진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로 값을 낮추어 부르는 바람에 노동의 실질 가격과 화폐 가격이 함께 내려가는 일이 더러 생긴다. 유별난 흉년이었던 1740년에는 많은 사람이 겨우 목숨을 이을 만큼만 받고도 일하려 했다. 그 뒤에 이어진 풍년에는 일꾼과 하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다. 값비싼 해의 모자람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그 가격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식료품의 높은 값이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과 맞선다. 거꾸로 값싼 해의 넉넉함은 수요를 늘림으로써 노동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식료품이 헐한 것이 그 가격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과 맞선다. 식료품 값이 예사롭게 오르내리는 범위 안에서는 이 서로 반대되는 두 원인이 서로를 맞비기는 듯하며, 노동의 임금이 어디서나 식료품 값보다 훨씬 더 고르고 한결같은 까닭도 아마 얼마쯤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노동의 임금이 오르면 여러 상품의 값 가운데 임금으로 갈라지는 몫이 커지므로 그 값이 반드시 오르고, 그만큼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상품이 덜 쓰이게 되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바로 그 원인, 곧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의 생산력을 키워서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내게 만드는 쪽으로도 작용한다. 많은 수의 노동자를 부리는 자산의 주인은 제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일을 알맞게 갈라 나누어 맡기려고 반드시 애를 쓴다. 같은 까닭으로 그는 자기든 그들이든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계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쓴다. 어느 한 작업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같은 까닭으로 큰 사회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그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저절로 서로 다른 부류와 더 잘게 갈라진 일자리로 나뉘어 간다. 저마다의 일을 해내기에 가장 알맞은 기계를 생각해 내는 일에 더 많은 머리가 쓰이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기계가 생겨날 가망도 더 커진다. 그러므로 이런 개량이 쌓인 끝에 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노동 가격이 오른 것을 그 양이 줄어든 것으로 넉넉히 메우고도 남는 상품이 많이 생긴다.

9장 — 자산의 이윤에 대하여

자산의 이윤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노동의 임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은 원인, 곧 사회의 부가 늘어 가는 상태인지 줄어 가는 상태인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이 둘에 아주 다르게 미친다.

임금을 끌어올리는 자산의 증가는 이윤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여러 부유한 상인의 자산이 같은 거래로 돌려지면 그들이 서로 겨루는 바람에 그 거래의 이윤은 저절로 내려가는 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같은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거래에서 자산이 다 같이 늘어나면, 같은 겨룸이 그 모든 거래에서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어느 한 곳 어느 한 때의 노동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가장 흔한 임금이 얼마인지 그 정도다. 그런데 자산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좀처럼 해내기 어렵다. 이윤은 워낙 흔들리는 것이어서, 어떤 거래를 하는 당사자조차 자기 한 해 이윤의 평균이 얼마인지 언제나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윤은 그가 다루는 상품 값이 오르내리는 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와 손님 양쪽의 운수가 좋은지 나쁜지에도 흔들리며, 바다로든 땅으로든 실려 다닐 때, 나아가 창고에 쌓여 있을 때조차 물건이 맞닥뜨리기 쉬운 천 가지 우연에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이윤은 해마다 다를 뿐 아니라 날마다, 거의 시간마다 다르다. 큰 왕국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거래의 평균 이윤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옛날에, 또는 아주 먼 시대에 얼마였을지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가늠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든 옛날이든 자산의 평균 이윤이 얼마인지, 또 얼마였는지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화폐의 이자를 보면 그것에 대하여 얼마간의 짐작은 세울 수 있다. 화폐를 써서 많이 벌 수 있는 곳에서는 대개 그 화폐를 쓰는 값으로 많이 내주고, 그것으로 조금밖에 벌 수 없는 곳에서는 대개 더 적게 내준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 둘 만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이자의 예사로운 시장 이율이 달라지는 대로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도 그와 함께 달라진다는 것, 이율이 내려가면 이윤도 내려가고 이율이 올라가면 이윤도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도 좋다. 그러므로 이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면 이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짐작을 세울 수 있다.

헨리 8세 치세 37년의 법으로[1] 10퍼센트를 넘는 이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선언되었다. 그전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은 일도 더러 있었던 듯하다. 에드워드 6세 치세에는 종교적 열의가 이자를 아예 금하였다. 그러나 이 금령은 같은 종류의 다른 모든 금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고 하며, 아마도 고리대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웠을 것이다. 헨리 8세의 법령은 엘리자베스 치세 13년의 법 제8장으로 되살아나, 이자의 법정 이율은 제임스 1세 치세 21년에 8퍼센트로 묶이기까지 줄곧 10퍼센트였다. 그것은 왕정복고[2] 뒤 얼마 지나지 않아 6퍼센트로 내려갔고, 앤 여왕 치세 12년의 법으로 다시 5퍼센트까지 내려갔다. 이 여러 법령의 규정은 모두 아주 알맞게 마련된 듯하다. 그것들은 시장의 이자 이율, 곧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예사로 돈을 빌리던 이율을 앞질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간 듯하다. 앤 여왕 때부터는 5퍼센트가 시장 이율보다 낮기보다 오히려 높았던 듯하다. 지난 전쟁[3] 전에 정부는 3퍼센트로 돈을 빌렸고, 수도와 왕국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3.5퍼센트, 4퍼센트, 4.5퍼센트로 빌렸다.

헨리 8세 때부터 이 나라의 부와 수입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며, 나아가는 동안 그 걸음은 차츰 늦추어지기보다 오히려 차츰 빨라진 듯하다. 그것들은 그저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나아간 듯하다. 같은 기간에 노동의 임금은 끊임없이 올랐고, 거래와 제조업의 갈래 대부분에서 자산의 이윤은 줄어들었다.

어떤 종류의 거래든 시골 마을에서보다 큰 도시에서 벌이려면 대개 더 많은 자산이 든다. 거래의 갈래마다 부려지는 큰 자산과 많은 수의 부유한 경쟁자 때문에, 앞의 곳의 이윤율은 뒤의 곳의 이윤율보다 대개 낮아진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은 시골 마을에서보다 큰 도시에서 대개 더 높다. 번창하는 도시에서는 부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수만큼 일꾼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잦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으려고 서로 값을 올려 부르며, 그것이 노동의 임금을 올리고 자산의 이윤을 내린다. 시골의 먼 곳에서는 사람을 다 부릴 만한 자산이 없는 일이 잦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로 값을 낮추어 부르며, 그것이 노동의 임금을 내리고 자산의 이윤을 올린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자의 법정 이율이 잉글랜드와 같으면서도 시장 이율은 오히려 더 높다. 그곳에서 신용이 가장 좋은 사람들도 5퍼센트 아래로는 좀처럼 빌리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개인 은행가들까지 자기들이 낸 약속 어음에 4퍼센트를 얹어 주는데, 그 어음은 전부든 일부든 언제든 마음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런던의 개인 은행가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돈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적은 자산으로 벌일 수 없는 거래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예사로운 이윤율은 얼마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노동의 임금은 이미 살펴본 대로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낮다. 이 나라는 훨씬 더 가난할 뿐 아니라,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가고는 있으나 그 걸음이 훨씬 느리고 더딘 듯하다. 프랑스에서 이자의 법정 이율은 금세기 동안 늘 시장 이율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드니자르, 「이자율」 항목, 제3권 13쪽을 보라). 1720년에 이자는 스무째 펜스에서 쉰째 펜스로, 곧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내려갔다. 1724년에는 서른째 펜스로, 곧 3과 3분의 1퍼센트로 올라갔다. 1725년에는 다시 스무째 펜스로, 곧 5퍼센트로

올라갔다. 1766년 라베르디 씨가 정사를 맡고 있을 때는 스물다섯째 펜스로, 곧 4퍼센트로 내려갔다. 그 뒤 테레 신부가 그것을 다시 옛 이율인 5퍼센트로 올렸다. 이자를 이렇게 거칠게 여러 번 끌어내린 것은 공채의 이자를 내릴 길을 닦으려는 뜻이었다고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진 적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오늘날 어쩌면 잉글랜드만큼 부유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자의 법정 이율이 잉글랜드보다 낮았던 적이 잦았음에도 시장 이율은 대개 더 높았는데,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법을 피해 갈 아주 안전하고 손쉬운 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다 거래를 해 본 영국 상인들이 나에게 확실히 말해 준 바로는, 거래의 이윤은 잉글랜드보다 프랑스에서 더 높다. 영국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거래가 높이 받들리는 나라보다 거래가 천대받는 나라에 자기 자본을 굴리기를 택하는 까닭도 틀림없이 여기에 있다. 노동의 임금은 잉글랜드보다 프랑스에서 더 낮다.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건너가면 두 나라 보통 사람들의 옷차림과 얼굴빛에서 알아볼 수 있는 차이가 그들 형편의 차이를 넉넉히 보여 준다.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 그 대비는 한결 더 크다. 프랑스는 틀림없이 스코틀랜드보다 부유한 나라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프랑스가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흔한, 나아가 널리 퍼진 의견이다. 나는 이 의견이 프랑스에 대해서조차 근거가 얕다고 여기는데, 스코틀랜드를 지금 보고 또 이삼십 년 전에도 본 사람이라면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결코 품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 주는 그 땅의 넓이와 사람의 수에 견주어 보면 잉글랜드보다 부유한 나라다. 그곳에서 정부는 2퍼센트로 돈을 빌리고 신용이 좋은 개인은 3퍼센트로 빌린다. 노동의 임금은 잉글랜드보다 네덜란드에서 더 높다고 하며, 네덜란드 사람들이 유럽의 어느 국민보다

낮은 이윤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네덜란드의 거래가 기울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몇몇 갈래가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전체가 기울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 주는 듯하다. 이윤이 줄어들면 상인들은 거래가 기운다고 하소연하기 쉬우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거래가 번창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거나 전보다 더 많은 자산이 그 거래에 부려지고 있는 결과다. 지난 전쟁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은 프랑스의 운송 거래를 모두 차지하였고 지금도 그 가운데 아주 큰 몫을 쥐고 있다. 그들이 프랑스와 영국의 공채를 두고 가진 큰 재산은 영국 공채에서만 4000만 파운드쯤[4]이라고 하는데(다만 여기에는 적잖은 과장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재산과, 자기 나라보다 이자 이율이 높은 나라의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큰 금액은 그들의 자산이 남아돈다는 것, 곧 그 자산이 자기 나라의 제 일에 웬만한 이윤을 내며 부릴 수 있는 정도를 넘도록 늘어났다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의 자본이 특정한 거래로 모아졌으면서도 그 거래에 부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까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거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큰 나라의 자본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식민지에서는 노동의 임금뿐 아니라 화폐의 이자, 따라서 자산의 이윤도 잉글랜드보다 높다. 여러 식민지에서 이자의 법정 이율과 시장 이율은 다 6퍼센트에서 8퍼센트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높은 노동 임금과 높은 자산 이윤은 어쩌면 새 식민지의 독특한 형편 말고는 좀처럼 나란히 가지 않는 것들이다. 새 식민지는 얼마 동안 반드시, 다른 나라 대부분보다 땅의 넓이에 견주어 자산이 더 모자라고 자산의 크기에 견주어 사람이 더 모자란다. 그들에게는 갈아 먹일 자산보다 땅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자산은 가장 기름지고 자리가 가장 좋은 땅, 곧 바닷가에 가깝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줄기를 따라 놓인 땅을 가는 데만 쓰인다. 그런 땅도 그 자연 생산물의 값어치보다 낮은 값으로 사들이는 일이 잦다. 그런 땅을 사들이고 개량하는 데 부려진 자산은 아주 큰 이윤을 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주 높은 이자도 물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벌이가 좋은 데에 자산이 빠르게 쌓이므로 농장주는 새 정착지에서 일손을 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손의 수를 늘리려 한다. 그러므로 그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넉넉한 보수를 받는다. 식민지가 커 가면서 자산의 이윤은 차츰 줄어든다. 가장 기름지고 자리가 가장 좋은 땅이 모두 차지된 뒤에는 흙과 자리가 그보다 못한 땅을 가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적어지고, 거기에 부려진 자산에 물어 줄 수 있는 이자도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 식민지 대부분에서 이자의 법정 이율과 시장 이율은 금세기 동안 크게 내려갔다. 부와 개량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는 떨어졌다. 노동의 임금은 자산의 이윤과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윤이 어떻든 자산이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며, 이윤이 줄어든 뒤에도 자산은 그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부를 쌓아 가며 나아가는 부지런한 나라의 일은 부지런한 개인의 일과 같다. 큰 자산은 이윤이 적어도 대개 이윤이 큰 작은 자산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돈이 돈을 번다고 속담은 말한다. 조금 모아 두면 더 모으기가 흔히 쉬워진다. 어려운 것은 그 조금을 모으는 일이다. 자산의 증가와 근면의 증가, 곧 쓸모 있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이미 얼마쯤 밝혔거니와, 뒤에 자산의 축적을 다룰 때 더 온전히 밝히겠다.

새 땅을 얻거나 거래의 새 갈래를 얻으면, 부를 쌓으며 빠르게 나아가는 나라에서조차 자산의 이윤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화폐의 이자가 올라가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런 획득이 여러 사람에게 갈라 안겨

주는 일거리 전체를 감당하기에 그 나라의 자산은 넉넉하지 못하므로, 자산은 가장 큰 이윤을 안겨 주는 몇몇 갈래에만 쓰인다. 전에 다른 거래에 부려지고 있던 몫의 얼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새롭고 더 벌이가 좋은 거래로 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묵은 거래에서 겨룸은 전보다 덜해진다. 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물건이 전만큼 넉넉히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 값은 얼마간 오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다루는 이들에게 더 큰 이윤을 안겨 주며,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난 전쟁이 끝난 뒤 한동안 신용이 가장 좋은 개인들뿐 아니라 런던의 가장 큰 회사 몇몇까지 예사로 5퍼센트로 돈을 빌렸는데, 그전에 그들은 4퍼센트와 4.5퍼센트를 넘겨 물어 본 적이 없었다.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 우리가 얻은 것으로 땅과 거래가 크게 불어난 사정만으로 이것은 넉넉히 설명되며, 사회의 자본이 줄어들었다고 볼 필요가 없다. 묵은 자산으로 벌여야 할 새 일거리가 그처럼 크게 불어났으니, 여러 갈래에 부려지던 자산의 양은 반드시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런 갈래에서는 겨룸이 덜해져 이윤이 더 컸을 것이다. 지난 전쟁의 엄청난 비용에도 영국의 자본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내가 믿는 까닭은 뒤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자본, 곧 근면을 지탱하도록 정해진 자금이 줄어들면, 그것이 노동의 임금을 내리는 만큼 자산의 이윤을, 따라서 화폐의 이자를 올린다. 노동의 임금이 내려가면 사회에 남아 있는 자산의 주인들은 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기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시장에 물건을 대는 데 부려지는 자산이 전보다 적으므로 그것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들의 물건은 더 싸게 들고 그 대가로 더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윤은 양쪽 끝에서 다 불어나므로 높은 이자를 넉넉히 물어 줄 수 있다. 벵골과 동인도의 다른 영국 정착지에서 그처럼 갑작스럽고 그처럼 손쉽게 모인 큰 재산은, 그 망가진

나라들에서 노동의 임금이 아주 낮은 만큼 자산의 이윤은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줄 것이다. 화폐의 이자도 그에 걸맞게 높다. 벵골에서는 화폐가 농부들에게 40, 50, 60퍼센트로 빌려지는 일이 잦고, 그 갚음을 위하여 다음 수확이 잡히곤 한다. 그런 이자를 물어 줄 수 있는 이윤은 지주의 지대를 거의 다 먹어 치울 수밖에 없듯이, 그처럼 엄청난 고리대는 다시 그 이윤의 대부분을 먹어 치울 수밖에 없다. 로마 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에도 총독들의 망국적인 통치 아래 속주에서 같은 종류의 고리대가 흔했던 듯하다. 덕이 높던 브루투스가 키프로스에서 48퍼센트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키케로[5]의 편지에서 알게 된다.

흙과 기후의 성질,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견준 자리가 허락하는 만큼의 부를 다 얻어서 더는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나 뒤로 물러가고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는,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이 아마 둘 다 아주 낮을 것이다. 제 땅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 또는 제 자산이 부릴 수 있는 만큼 사람이 가득 찬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겨룸이 반드시 너무 심해져서 노동의 임금은 노동자의 수를 그대로 지탱하기에 겨우 넉넉한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며, 그 나라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 수는 결코 더 늘어날 수 없다. 치러야 할 일거리 전체에 견주어 자산이 가득 찬 나라에서는, 그 거래의 성질과 크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이 갈래마다 다 부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겨룸은 어디서나 그만큼 심해지고, 따라서 예사로운 이윤도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어느 나라도 아직 이만한 넉넉함에 이른 적은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 멈추어 서 있었던 듯하며, 아마 오래전에 그 법과 제도의 성질이 허락하는 만큼의 부를 다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이란, 법과 제도가 달랐다면 흙과 기후와 자리의 성질이

허락하였을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일 수 있다. 바깥 나라와의 거래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고 바깥 나라의 배를 한두 항구에만 들이는 나라는, 법과 제도가 달랐다면 치를 수 있었을 만큼의 일거리를 치를 수 없다. 또 부유한 사람, 곧 큰 자본의 주인은 상당한 안전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사람, 곧 작은 자본의 주인은 안전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하급 관리들에게 정의를 앞세운 빌미로 언제든 털리고 빼앗길 처지에 놓인 나라에서는, 그 안에서 치러지는 온갖 갈래의 일거리에 부려지는 자산의 양이 그 일거리의 성질과 크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결코 미칠 수 없다. 갈래마다 가난한 이들을 짓누르는 것은 부유한 이들의 독점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거래를 모두 제 손에 움켜쥐어 아주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화폐의 예사로운 이자는 12퍼센트라고 하니,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은 이 큰 이자를 물어 줄 만큼 넉넉해야 한다.

법이 모자란 탓에 이자 이율이 그 나라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요구할 정도보다 훨씬 높아지는 일이 더러 있다. 법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면, 그 법은 모든 빌리는 이를 더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파산자나 신용이 의심스러운 이와 거의 같은 자리에 놓는다. 자기 돈을 되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빌려주는 이는 파산자에게 예사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고리대 이자를 받아 낸다. 로마 제국의 서쪽 속주를 휩쓴 야만족들 사이에서는 여러 세기 동안 계약의 이행이 계약 당사자들의 신의에 맡겨졌다. 그들의 왕이 세운 법정은 그 일에 좀처럼 끼어들지 않았다. 그 옛 시절에 이자 이율이 높았던 것도 어쩌면 얼마쯤은 이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이자를 아예 금할 때, 그 금령이 이자를 막지는 못한다. 많은 사람이 빌려야 하는데, 자기 돈을 쓰는 값으로 그 돈으로 벌 수 있는 것에 걸맞을 뿐 아니라 법을 피해 가는 어려움과 위험에도 걸맞은

대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의 모든 나라에서 이자 이율이 높은 것을 몽테스키외[6] 선생은 그들의 가난함에서가 아니라 얼마쯤은 이 사정에서, 얼마쯤은 돈을 되받기 어려운 사정에서 설명한다.

가장 낮은 예사 이윤율은 늘 자산을 부리는 데 늘 따르는 이따금의 손실을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보다 얼마간 더 높아야 한다. 이 남는 몫만이 순이윤이다. 총이윤이라 불리는 것에는 이 남는 몫뿐 아니라 그런 뜻밖의 손실을 메우려고 떼어 두는 몫까지 흔히 들어 있다. 빌리는 이가 물어 줄 수 있는 이자는 순이윤에만 걸맞다. 가장 낮은 예사 이자 이율도 같은 이치로, 웬만큼 조심해서 빌려주더라도 따르는 이따금의 손실을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보다 얼마간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선이나 우정 말고는 빌려주는 동기가 있을 수 없다.

부를 다 얻은 나라, 곧 일거리의 갈래마다 거기에 부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사로운 순이윤율이 아주 작을 것이므로, 그 이윤에서 물어 줄 수 있는 예사로운 시장 이자 이율도 아주 낮아서 가장 넉넉한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자기 돈의 이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작거나 어중간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자기 자산을 부리는 일을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되거나 어떤 종류의 거래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주가 이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그곳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유행에 어긋난다. 필요가 거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관습은 어디서나 유행을 다스린다. 옷을 갖추어 입지 않는 것이 우스운 일이듯, 남들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얼마쯤 우스운 일이다. 민간 직업에 있는 사람이 군영이나 수비대에서 어색해 보이고 거기서 업신여김을 받을 위험까지 있는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

가장 높은 예사 이윤율은, 상품 대부분의 값에서 토지의 지대로 가야 할 몫을 모두 먹어 치우고, 그 상품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놓는 노동에 노동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율, 곧 노동자가 겨우 목숨을 이을 정도만 남겨 놓는 수준일 수 있다. 일꾼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든 먹여졌을 것이나 지주는 늘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동인도회사[7]의 고용인들이 벵골에서 벌이는 거래의 이윤은 어쩌면 이 이율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예사로운 시장 이자 이율이 예사로운 순이윤율에 대하여 지녀야 할 비율은 이윤이 오르고 내리는 대로 반드시 달라진다. 영국에서 상인들이 좋고 알맞고 온당한 이윤이라 부르는 것은 이자의 두 배로 셈해지는데, 내가 보기에 그 말은 흔하고 예사로운 이윤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예사로운 순이윤율이 8퍼센트나 10퍼센트인 나라에서는, 빌린 돈으로 사업을 벌이는 곳이면 그 절반이 이자로 가는 것이 온당할 수 있다. 자산은 빌리는 이의 위험 아래 놓이고 그가 이를테면 빌려주는 이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는 셈이므로, 4퍼센트나 5퍼센트면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 보증의 위험에 대한 넉넉한 이윤이자 자산을 부리는 수고에 대한 넉넉한 보수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사 이윤율이 훨씬 더 낮거나 훨씬 더 높은 나라에서는 이자와 순이윤 사이의 비율이 같지 않을 수 있다. 훨씬 더 낮다면 어쩌면 그 절반도 이자로 내줄 수 없을 것이고, 훨씬 더 높다면 그보다 더 내줄 수 있을 것이다.

부를 향하여 빠르게 나아가는 나라에서는 낮은 이윤율이 여러 상품의 값에서 높은 노동 임금을 메워 주어, 노동의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는 덜 번창한 이웃 나라만큼 싸게 팔 수 있게 해 준다.

사실 높은 이윤은 높은 임금보다 일의 값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아마포 제조업에서 아마를 다듬는 사람, 실을 잣는 사람, 베를 짜는 사람 등 여러 일꾼의 임금이 모두 하루에

2펜스[8]씩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아마포 한 필의 값은 그 일에 매달렸던 사람의 수에 그들이 그 일에 매달린 날수를 곱한 수만큼의 2펜스만 올리면 된다. 그 상품 값 가운데 임금으로 갈라지는 몫은 제조의 여러 단계를 다 지나면서도 이 임금 상승에 산술적 비례로만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일꾼들을 부리는 여러 고용주의 이윤이 모두 5퍼센트씩 올랐다고 하면, 그 상품 값 가운데 이윤으로 갈라지는 몫은 제조의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이 이윤 상승에 기하급수적 비례로 오르게 된다. 아마를 다듬는 이들의 고용주는 자기 아마를 팔 때, 자기가 일꾼들에게 미리 내준 재료값과 임금 전체의 값어치에 5퍼센트를 더 붙여 달라고 할 것이다. 실을 잣는 이들의 고용주는 오른 아마 값과 실 잣는 이들의 임금 양쪽에 다시 5퍼센트를 더 붙여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베 짜는 이들의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오른 아마 실 값과 베 짜는 이들의 임금 양쪽에 5퍼센트를 더 붙여 달라고 할 것이다. 상품 값을 올리는 데서 임금 상승은 빚이 쌓일 때의 단리처럼 작용한다. 이윤 상승은 복리처럼 작용한다. 우리 상인과 제조업 주인들은 높은 임금이 값을 올려 안팎에서 자기 물건이 덜 팔리게 만드는 나쁜 결과를 크게 하소연한다. 높은 이윤의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기 벌이가 낳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남의 벌이가 낳는 것만 하소연한다.

10장 —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 따른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노동과 자산을 여러 가지로 쓸 때 거기에 딸린 이로움과 불리함 전체는, 같은 이웃 안에서라면 완전히 같거나 끊임없이 같아지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같은 이웃 안에 다른 쓰임새보다 분명히 더 이롭거나 덜 이로운 쓰임새가 있다면, 앞의 경우에는 그리로 사람이 몰려들고 뒤의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이로움이 이내 다른 쓰임새와 같은 높이로 돌아올 것이다. 적어도 일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회, 완전한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알맞다고 여기는 직업을 고르고 알맞다고 여길 때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온전히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그럴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이익이 그를 밀어 이로운 쓰임새를 찾고 불리한 쓰임새를 피하게 할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 돈으로 받는 임금과 이윤은 노동과 자산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어디서나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얼마쯤은 그 쓰임새 자체에 딸린 몇몇 사정에서 나온다. 그 사정이 실제로든 적어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든 어떤 쓰임새에서는 돈벌이가 적은 것을 메워 주고 다른 쓰임새에서는 돈벌이가 큰 것을 맞비겨 놓는다. 그리고 얼마쯤은 유럽의 정책에서 나오는데, 그 정책은 어디서도 일을 완전한 자유에 내맡기지 않는다.

그 사정과 그 정책을 따로 살피는 일이 이 장을 두 절로 가른다.

1절 — 일자리 자체의 성질에서 오는 불평등

내가 살펴볼 수 있었던 한에서, 어떤 일자리에서는 돈벌이가 적은 것을 메워 주고 다른 일자리에서는 돈벌이가 큰 것을 맞비겨 놓는 주된 사정은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그 일자리 자체가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둘째, 그것을 익히기가 쉽고 값싼가 어렵고 비싼가. 셋째, 그 일자리에서 일이 꾸준한가 꾸준하지 않은가. 넷째, 그 일을 하는 이에게 맡겨야 하는 믿음이 작은가 큰가. 다섯째, 그 일에서 성공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첫째로, 노동의 임금은 그 일자리가 편한가 고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명예로운가 명예롭지 않은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대개의 곳에서 한 해를 통틀어 보면 재봉 직인은 베 짜는 직인보다 덜 번다. 그

일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베 짜는 직인은 대장 직인보다 덜 번다. 그 일이 늘 더 편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깨끗하기 때문이다. 대장장이 직인은 수공업자이면서도 열두 시간 일해서 한낱 노동자인 석탄 광부가 여덟 시간 일해서 버는 만큼을 좀처럼 벌지 못한다. 그의 일은 그만큼 더럽지 않고 덜 위험하며 땅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명예는 명예로운 직업이라면 어디서나 그 보수의 큰 몫을 이룬다. 돈벌이라는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따져 볼 때 그런 직업은 대개 제값을 못 받는데, 이는 곧 밝혀 보이려 한다. 불명예는 반대로 작용한다. 푸줏간 일은 거칠고 미움받는 일이지만 대개의 곳에서 흔한 일 대부분보다 벌이가 좋다. 모든 일자리 가운데 가장 꺼려지는 일, 곧 공개 처형을 맡은 이의 일은 해낸 일의 양에 견주어 보면 어떤 흔한 일보다도 보수가 낫다.

사냥과 낚시는 사회가 거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나,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놀이가 되어, 한때 필요에 밀려 하던 것을 이제는 즐거움을 위하여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간 사회에서는 남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은 모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다. 어부는 테오크리토스[9] 때부터 그래 왔다(제21목가를 보라). 영국에서 밀렵꾼은 어디서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다. 법이 엄하여 밀렵꾼이 버티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허가받은 사냥꾼의 형편이 그보다 훨씬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을 좋아하는 타고난 마음이 그 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 일로 끌어들이며, 그들의 노동이 낸 생산물은 그 양에 견주어 늘 너무 싸게 시장에 나오므로 노동자에게 가장 빈약한 생계 말고는 아무것도 안겨 주지 못한다.

즐겁지 않음과 불명예는 노동의 임금에 미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이윤에도 미친다. 여관이나 술집을 치는 이는 제집의 주인이 되어 본 적이 없고 술 취한 자마다의 거친 행패에 맡겨져 있으니, 아주 즐거운

일도 아주 낯이 서는 일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흔한 일 가운데 작은 자산이 그처럼 큰 이윤을 내는 것은 좀처럼 없다.

둘째로, 노동의 임금은 그 일을 익히기가 쉽고 값싼가, 어렵고 비싼가에 따라 다르다.

비싼 기계를 세워 놓았을 때, 그 기계가 닳아 없어지기까지 해낼 남다른 일이 거기에 들인 자본을 적어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남다른 손재주와 솜씨가 필요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많은 노동과 시간을 들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런 비싼 기계에 견줄 수 있다. 그가 익힌 일은 흔한 노동의 예사로운 임금을 넘어서 그가 배움에 들인 비용 전체를, 적어도 그만한 값어치의 자본이 낼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계의 수명이 그만큼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갈지가 아주 불확실하다는 점을 헤아려, 그 되돌려 줌은 웬만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솜씨 있는 노동의 임금과 흔한 노동의 임금 사이의 차이는 이 원리에 바탕을 둔다.

유럽의 정책은 모든 기계공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노동을 솜씨 있는 노동으로, 모든 시골 노동자의 노동을 흔한 노동으로 여긴다. 앞의 노동이 뒤의 노동보다 더 섬세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 듯하다.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그렇지 않은데, 이는 곧 밝혀 보이려 한다. 그래서 유럽의 법과 관습은 누구든 앞의 종류의 노동을 하려면 도제살이[10]를 거치도록 요구하는데, 그 엄함의 정도는 곳에 따라 다르다. 뒤의 종류는 누구에게나 열린 채로 내버려 둔다. 도제살이가 이어지는 동안 도제의 노동은 모두 그 주인에게 속한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경우에 부모나 친척에게 먹여 살려져야 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에게 옷을 얻어

입어야 한다. 또 그 일을 가르쳐 준 값으로 주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는 것이 예사다. 돈을 낼 수 없는 이들은 시간을 내놓아 예사로운 햇수보다 더 오래 매이기로 한다. 이렇게 매이는 것은 도제가 으레 게으르므로 주인에게 늘 이롭지는 않으나 도제에게는 늘 불리하다. 반면에 시골 노동에서는 노동자가 쉬운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일의 더 어려운 부분을 익히고, 일자리의 여러 단계를 다 지나는 동안 자기 노동으로 자기를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기계공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임금이 흔한 노동자의 임금보다 얼마간 더 높은 것은 온당하다. 실제로 그러하며, 벌이가 나은 덕에 그들은 대개의 곳에서 한 등 높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높음은 대개 아주 작다. 무늬 없는 아마포나 모직물처럼 더 흔한 종류의 제조품을 만드는 직인들의 하루 벌이나 한 주 벌이를 평균으로 셈해 보면, 대개의 곳에서 흔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보다 아주 조금 많을 뿐이다. 물론 그들의 일자리는 더 꾸준하고 고르므로 한 해를 통틀어 보면 벌이의 차이가 얼마간 더 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들이 배움에 더 들인 비용을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재주를 다루는 기예와 자유로운 직업에서 배움은 한결 더 오래 걸리고 비싸다. 그러므로 화가와 조각가, 법률가와 의사가 돈으로 받는 보수는 훨씬 더 넉넉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하다.

자산의 이윤은 그 자산이 부려지는 거래를 익히기가 쉬운가 어려운가에 아주 조금밖에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큰 도시에서 자산을 부리는 여러 가지 길은 실제로 익히기가 거의 다 같이 쉽고 같이 어려운 듯하다. 바깥 거래든 안 거래든 어느 한 갈래가 다른 갈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일 수는 없다.

셋째로, 여러 직업에서 노동의 임금은 그 일자리에서 일이 꾸준한가 꾸준하지 않은가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생업에서는 일이 다른 생업에서보다 훨씬 꾸준하다. 제조업 대부분에서 직인은 일할 수 있는 몸이면 한 해의 거의 모든 날에 일거리가 있다고 꽤 믿어도 좋다. 그러나 석공이나 벽돌공은 매운 서리가 내릴 때도 날이 궂을 때도 일할 수 없고, 그 밖의 때에도 그의 일거리는 손님이 이따금 불러 주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일거리가 아예 없는 때가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가 일하는 동안 버는 것은 놀고 있는 동안 그를 먹여 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처럼 위태로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더러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맥 빠진 시간에 대해서도 얼마간 그를 메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제조업자 대부분의 셈해진 벌이가 흔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거의 같은 높이인 곳에서도 석공과 벽돌공의 벌이는 대개 그 임금의 1.5배에서 2배에 이른다. 흔한 노동자가 한 주에 4실링이나 5실링을 벌면 석공과 벽돌공은 7실링이나 8실링을 버는 일이 잦고, 앞의 사람이 6실링을 벌면 뒤의 사람은 흔히 9실링이나 10실링을 벌며, 런던처럼 앞의 사람이 9실링이나 10실링을 버는 곳에서는 뒤의 사람이 예사로 15실링이나 18실링을 번다. 그러나 솜씨 있는 노동 가운데 석공과 벽돌공의 일보다 익히기 쉬워 보이는 것은 없는 듯하다. 런던의 가마꾼들이 여름철에는 더러 벽돌공으로 부려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일꾼들의 높은 임금은 솜씨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메움이다.

집 목수는 석공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재주가 드는 일을 하는 듯하다. 그런데도 대개의 곳에서, 어디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하루 임금은 얼마간 더 낮다. 그의 일자리는 손님이 이따금 불러 주는 데 많이 달려 있기는 하나 그만큼 온전히 거기에만 달려 있지는 않으며, 날씨 때문에 끊기지도 않는다.

대개 꾸준한 일거리를 주는 생업이 어느 한 곳에서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일꾼들의 임금이 흔한 노동의 임금에 대한 예사로운 비율보다 늘

훨씬 높이 올라간다. 런던에서는 거의 모든 수공업 직인이 다른 곳의 날일꾼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날마다, 주마다 불려 나가고 내쳐지기 쉽다. 그래서 수공업자 가운데 가장 낮은 층인 재봉 직인도 하루에 반 크라운[11]을 버는데, 흔한 노동의 임금은 18펜스로 셈할 만하다. 작은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 재봉 직인의 임금은 흔한 노동의 임금과 겨우 같을 때가 잦으나, 런던에서는 특히 여름에 일자리 없이 여러 주를 보내는 일이 잦다.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은 것에 일의 고됨과 즐겁지 않음과 더러움이 겹치면, 가장 흔한 노동의 임금이 가장 솜씨 있는 수공업자의 임금 위로 올라가는 일이 더러 있다. 뉴캐슬에서 도급으로 일하는 석탄 광부는 예사로 흔한 노동 임금의 두 배쯤,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서는 세 배쯤을 번다고 한다. 그의 높은 임금은 오로지 일의 고됨과 즐겁지 않음과 더러움에서 나온다. 그의 일자리는 대개의 경우 그가 원하는 만큼 꾸준할 수 있다. 런던의 석탄 하역 인부는 고됨과 더러움과 즐겁지 않음에서 석탄 광부에 거의 맞먹는 일을 하는데, 석탄 배가 들어오는 때가 고를 수 없으므로 그 대부분은 일자리가 아주 꾸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석탄 광부가 예사로 흔한 노동 임금의 두 배와 세 배를 번다면, 석탄 하역 인부가 더러 그 임금의 네 배와 다섯 배를 번다 해도 터무니없어 보일 까닭이 없다. 몇 해 전에 그들의 형편을 조사했을 때, 그때 받던 이율로 하루에 6실링에서 10실링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6실링은 런던에서 흔한 노동 임금의 네 배쯤이다. 그리고 어느 생업에서나 가장 낮은 흔한 벌이는 늘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얻는 벌이로 보아도 좋다. 그 벌이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그 일에 딸린 즐겁지 않은 사정을 모두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면 이내 겨루는 사람이 아주 많아져서, 남에게 못 하게 막는 특권이 없는 생업에서라면 그 벌이는 곧 더 낮은 이율로 내려갔을 것이다.

일자리가 꾸준한가 꾸준하지 않은가는 어느 생업에서든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에 미칠 수 없다. 자산이 꾸준히 부려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생업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넷째로, 노동의 임금은 일꾼에게 맡겨야 하는 믿음이 작은가 큰가에 따라 다르다.

금세공인과 보석공의 임금은 어디서나 그들과 재주가 같은 다른 많은 일꾼, 나아가 재주가 훨씬 나은 일꾼의 임금보다 높은데, 이는 그들에게 값진 재료가 맡겨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건강을 의사에게 맡기고, 우리 재산을, 더러는 우리 목숨과 명성까지 법률가와 소송 대리인에게 맡긴다. 그런 믿음은 아주 비천하거나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수는 그처럼 중요한 믿음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위를 사회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들의 배움에 들여야 하는 긴 시간과 큰 비용이 이 사정과 겹치면 그들 노동의 값은 반드시 한결 더 올라간다.

어떤 사람이 거래에 자기 자산만 부린다면 맡겨진 믿음이란 없다. 그리고 그가 남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신용은 그 거래의 성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정직과 조심에 대한 남들의 평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거래의 갈래에 따라 이윤율이 다른 것은 그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정도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다.

다섯째로, 여러 일자리에서 노동의 임금은 그 일에서 성공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배운 일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가망은 직업에 따라 아주 다르다. 기계를 다루는 생업 대부분에서는 성공이 거의 확실하지만, 자유로운 직업에서는 아주 불확실하다. 아들을 구두장이에게 도제로 보내 놓으면 그가 구두 한 켤레 짓는 법을

익히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을 공부하러 보내놓으면, 그가 그 일로 먹고살 만한 수준에 이를 가망은 적어도 스물에 하나다. 완전히 공정한 복권이라면 당첨 제비를 뽑은 이들이 빈 제비를 뽑은 이들이 잃은 것을 모두 얻어야 한다. 하나가 성공하는 데 스물이 실패하는 직업이라면, 실패한 스물이 얻었어야 할 것을 모두 그 하나가 얻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마흔 살 가까이 되어서야 자기 직업으로 얼마간 벌기 시작하는 법정 변호사는, 자기가 그처럼 오래 걸리고 비싸게 배운 값뿐 아니라 그것으로 아무것도 벌지 못할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이 배운 값까지 되돌려 받아야 한다. 법정 변호사의 보수가 더러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되돌려 받는 것은 결코 이만큼 되지 못한다. 어느 한 곳에서 구두장이나 베 짜는 이처럼 흔한 생업에 종사하는 여러 일꾼이 한 해에 벌 만한 것과 한 해에 쓸 만한 것을 셈해 보면, 앞의 액수가 대개 뒤의 액수를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법학원[12]의 법정 변호사와 법학도를 모두 두고 같은 셈을 해 보면, 앞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높게 잡고 뒤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낮게 잡더라도 그들의 한 해 벌이가 한 해 씀씀이에 아주 작은 비율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복권은 완전히 공정한 복권과는 아주 거리가 멀며, 법이라는 직업도 다른 여러 자유롭고 명예로운 직업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제값을 못 받는다.

그러나 그런 직업은 다른 직업과 높이를 나란히 유지하며, 이런 낙담거리가 있음에도 도량이 가장 크고 가장 트인 마음을 지닌 이들이 모두 그리로 몰려들려고 애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인이 그 직업을 권할 만한 것으로 만든다. 첫째는 그 가운데 어느 것에서든 남보다 뛰어날 때 따라오는 명성을 바라는 마음이고, 둘째는 누구나 얼마간은

자기 능력뿐 아니라 자기 운수에 대해서도 지니고 있는 타고난 믿음이다.

어느 직업에서든 웬만한 수준에 이르는 이조차 드문 그런 직업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이른바 천재나 남보다 나은 재능의 가장 뚜렷한 표지다. 그처럼 남다른 능력에 따라오는 세상의 찬탄은 늘 그 보수의 한 몫을 이루며, 그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그 몫도 크거나 작다. 의술이라는 직업에서 그것은 보수의 적지 않은 몫을 이루고, 어쩌면 법에서는 한결 더 큰 몫을 이루며, 시와 철학에서는 거의 전부를 이룬다.

아주 즐겁고 아름다운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종류의 찬탄을 얻어 내지만, 벌이를 위하여 그것을 부리는 일은 이치에서든 편견에서든 일종의 공공연한 몸 팔기로 여겨지는 재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재능을 그렇게 부리는 이들이 돈으로 받는 보수는 그 재능을 얻는 데 들인 시간과 노동과 비용을 물어 주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생계의 방편으로 부리는 데 따르는 불명예까지 물어 주기에 넉넉해야 한다. 배우와 오페라 가수와 오페라 무희 등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이 두 가지 원리, 곧 그 재능의 드묾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부리는 데 따르는 불명예에 바탕을 둔다. 우리가 그들의 사람됨은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재능에는 가장 아낌없이 후하게 보답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의 것을 하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뒤의 것도 하게 된다. 그런 직업을 두고 세상의 의견이나 편견이 달라진다면 그들이 돈으로 받는 보수는 이내 줄어들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나설 것이고, 겨룸이 곧 그들 노동의 값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런 재능은 흔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드문 것도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재능을 아주 훌륭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쓰기를 마다하고,

그것으로 명예롭게 얼마간 벌 수 있다면 그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많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능력을 두고 품는 지나친 자만은 어느 시대에나 철학자와 도덕가들이 지적해 온 오래된 폐단이다. 자기 운수를 두고 품는 터무니없는 자신은 그보다 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한결 더 널리 퍼져 있다. 웬만큼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얼마간이라도 품지 않은 이가 세상에 없다. 벌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얼마간 지나치게 높이 치고, 잃을 수 있는 기회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나치게 낮게 치며, 웬만큼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제값보다 높이 치는 이가 거의 없다.

벌 기회를 저절로 지나치게 높이 친다는 것은 복권이 어디서나 잘 팔린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세상은 완전히 공정한 복권, 곧 얻은 것 전체가 잃은 것 전체를 메우는 복권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복권으로는 일을 벌인 사업가가 아무것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국영 복권에서 표는 처음 사들이는 이들이 내는 값어치만큼 되지 못하는데도 시장에서 예사로 20퍼센트, 30퍼센트, 더러는 40퍼센트를 얹어 팔린다. 큰 당첨 가운데 얼마를 얻으리라는 헛된 바람만이 이 수요를 낳는 오직 하나의 원인이다.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 1만이나 2만 파운드를 얻을 기회에 작은 돈을 내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지 않는데, 그 작은 돈조차 그 기회의 값어치보다 어쩌면 20퍼센트나 30퍼센트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 어떤 당첨도 20파운드를 넘지 않는 복권이라면 다른 점에서는 흔한 국영 복권보다 완전히 공정한 복권에 훨씬 가까울지라도 표가 그만큼 팔리지 않을 것이다. 큰 당첨 가운데 얼마를 얻을 기회를 더 늘리려고 어떤 이들은 표를 여러 장 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장수의 표에 걸린 작은 몫을 사들인다. 그러나 표를 많이 걸면 걸수록 잃는 쪽이 될 가망이 커진다는

것보다 수학에서 더 확실한 명제는 없다. 그 복권의 모든 표에 걸어 보라. 그러면 반드시 잃는다. 그리고 표의 수가 많을수록 이 확실함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잃을 기회를 낮게 치는 일이 잦고 제값보다 높이 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보험업자가 아주 적은 이윤을 얻는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불이든 바다의 위험이든 그것에 보험을 드는 일이 하나의 생업으로 굴러가려면, 흔한 보험료가 흔한 손실을 메우고 관리 비용을 물어 주며 같은 크기의 자본을 흔한 생업에 부려서 얻을 만한 이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야 한다. 이보다 더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위험의 실제 값어치, 곧 그가 보험을 들 수 있으리라고 온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만 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험으로 얼마간의 돈을 번 사람은 많아도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은 아주 적으니, 이 한 가지 사정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재산을 이루는 다른 흔한 생업보다 이 생업에서 이윤과 손실의 예사로운 셈이 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넉넉히 드러나는 듯하다. 그런데 보험료가 예사로 이처럼 알맞은 정도임에도 많은 사람이 그 위험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아 그것을 내려 하지 않는다. 왕국 전체를 평균으로 잡으면 스무 집 가운데 열아홉, 아니 어쩌면 백 집 가운데 아흔아홉은 불에 대한 보험이 들려 있지 않다. 바다의 위험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더 두렵게 여겨지므로 보험이 든 배가 들지 않은 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철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 전쟁 때에도 보험 없이 떠나는 배가 많다. 이것이 더러 조심 없는 짓이 아닐 수도 있다. 큰 회사, 나아가 큰 상인 하나가 배 스무 척이나 서른 척을 바다에 내놓고 있다면 그 배들이 이를테면 서로를 보증해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그 모두에서 아껴 둔 보험료가 우연의 흔한 흐름에서 그들이 맞닥뜨릴 만한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집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배에 대해서도 보험을 소홀히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런 섬세한 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는 무모함과 위험을 얕보는 건방짐에서 나온다.

위험을 얕보는 마음과 성공을 바라는 건방진 희망은 젊은이가 자기 직업을 고르는 나이에 삶의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때 불운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은 운수를 바라는 마음을 얼마나 맞비기지 못하는지는, 신분이 좋은 이들이 이른바 자유로운 직업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데서보다 보통 사람들이 선뜻 군인으로 뽑히거나 바다로 나가는 데서 한결 더 뚜렷이 드러난다.

한낱 병졸이 잃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알 만큼 뻔하다. 그러나 젊은 지원자들은 그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 전쟁이 터질 무렵이면 그 어느 때보다 선뜻 뽑혀 나간다. 그리고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음에도 그들은 젊은 공상 속에서, 결코 오지 않을 명예와 영광을 얻을 천 가지 계기를 그려 본다. 이 낭만적인 바람이 그들 피의 값 전부를 이룬다. 그들의 급료는 흔한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고, 실제로 복무하는 동안 그들의 고생은 훨씬 크다.

바다의 복권은 육군의 복권만큼 불리하지는 않다. 낯이 서는 노동자나 수공업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바다로 나가는 일이 잦으나, 군인으로 뽑혀 갈 때는 늘 그 허락 없이 간다. 남들은 그가 앞의 생업으로 얼마간 벌 기회는 보아 주지만, 뒤의 생업으로 무엇인가 벌 기회는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보아 주지 않는다. 큰 제독은 큰 장군보다 세상의 찬탄을 덜 받으며, 바다에서 얻는 가장 높은 성공도 땅에서 얻는 같은 성공만큼 빛나는 재산과 명성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같은 차이가 양쪽의 낮은 승진 단계에까지 다 걸쳐 있다. 서열의 규칙으로는 해군 함장이 육군 대령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만, 세상이 흔히 매기는 평가에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그 복권에서 큰 당첨이 작으므로 작은 당첨은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낱 뱃사람이 한낱

병졸보다 재산과 승진을 더 자주 얻으며, 그 당첨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그 생업을 무엇보다 권할 만한 것으로 만든다. 그들의 솜씨와 손재주는 거의 어느 수공업자보다 훨씬 나으며 그들의 온 삶은 고생과 위험이 끊이지 않는 한 장면이건만, 그 모든 손재주와 솜씨에 대하여, 그 모든 고생과 위험에 대하여 그들이 한낱 뱃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받는 보수는 앞의 것을 부리는 즐거움과 뒤의 것을 이겨 내는 즐거움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임금은 뱃사람 임금의 이율을 정하는 항구의 흔한 노동자 임금보다 높지 않다. 그들은 끊임없이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 다니므로, 영국의 여러 항구에서 떠나는 이들의 한 달 급료는 그 여러 곳의 다른 어느 일꾼의 임금보다 서로 가까운 높이에 있으며, 가장 많은 수가 오가는 항구, 곧 런던 항구의 이율이 다른 모든 항구의 이율을 다스린다. 런던에서는 여러 부류의 일꾼 대부분의 임금이 에든버러에서 같은 부류가 받는 임금의 두 배쯤이다. 그러나 런던 항구에서 떠나는 뱃사람은 리스 항구에서 떠나는 뱃사람보다 한 달에 3실링이나 4실링 넘게 더 버는 일이 좀처럼 없고, 그 차이가 그만큼도 되지 않는 일이 잦다. 평화로운 때 상선 근무에서 런던의 값은 달력 한 달에 1기니[13]에서 27실링쯤이다. 런던의 흔한 노동자는 한 주에 9실링이나 10실링의 이율로 치면 달력 한 달에 40실링에서 45실링을 벌 수 있다. 물론 뱃사람은 급료에 더하여 먹을 것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값어치가 그의 급료와 흔한 노동자의 급료 사이의 차이를 늘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며, 더러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 남는 몫이 뱃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벌이는 아니다. 그는 그것을 아내와 식구와 나눌 수 없고, 식구는 집에서 그의 임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모험으로 가득한 삶에 딸린 위험과 아슬아슬한 벗어남은 젊은이의 기를 꺾기는커녕 그 생업을 그들에게 권하는 구실을 하는 일이 잦은

듯하다. 낮은 계층의 다정한 어머니는 배를 보고 뱃사람의 이야기와 모험을 듣는 것이 아들을 바다로 꾀어낼까 두려워 항구 도시의 학교에 아들을 보내기를 꺼리는 일이 잦다. 용기와 솜씨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바랄 만한 위험이 멀리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 아니며, 어떤 일자리에서도 노동의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용기와 솜씨가 아무 쓸모도 없는 위험이 딸린 일자리는 그렇지 않다. 몸에 아주 해롭다고 알려진 생업에서 노동의 임금은 늘 눈에 띄게 높다. 몸에 해롭다는 것은 즐겁지 않음의 한 종류이며, 그것이 노동의 임금에 미치는 결과는 그 큰 갈래 아래에 넣어야 한다.

자산을 부리는 온갖 일자리에서 예사로운 이윤율은 되돌아올 것이 확실한가 불확실한가에 따라 얼마간 달라진다. 되돌아올 것은 대체로 바깥 거래보다 안 거래에서 덜 불확실하며, 바깥 거래에서도 어떤 갈래는 다른 갈래보다 덜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로 가는 거래보다 북아메리카로 가는 거래가 그렇다. 예사로운 이윤율은 위험이 커지는 대로 늘 얼마간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에 비례하여 올라가거나 위험을 온전히 메울 만큼 올라가지는 않는 듯하다. 파산은 가장 위험한 생업에서 가장 잦다. 온갖 생업 가운데 가장 위험한 밀수업은 그 모험이 들어맞으면 또한 가장 벌이가 좋은 생업이지만, 어김없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성공을 바라는 건방진 희망이 여기서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용하여 그처럼 많은 모험가를 그 위험한 생업으로 꾀어내는 듯하며, 그들이 서로 겨루는 바람에 이윤은 그 위험을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것을 온전히 메우려면 흔히 되돌아오는 것이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을 넘어서 이따금의 손실을 모두 메워 줄 뿐 아니라, 보험업자의 이윤과 같은 성질의 남는 이윤을 그 모험가들에게 안겨 주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되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넉넉하다면 파산이 다른 생업보다 이 생업에서 더 잦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임금을 다르게 만드는 다섯 가지 사정 가운데 자산의 이윤에 미치는 것은 둘뿐인데, 그 일이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일에 위험이 따르는가 안전한가이다.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보면 자산을 부리는 여러 일자리 대부분에는 차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으나 노동의 여러 일자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은 위험이 커지는 대로 올라가기는 하나 늘 위험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에서, 같은 사회나 같은 이웃 안에서라면 자산을 부리는 여러 일자리의 평균 이윤율과 예사 이윤율이 여러 종류의 노동이 돈으로 받는 임금보다 서로 가까운 높이에 있으리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 흔한 노동자의 벌이와 일거리가 많은 법률가나 의사의 벌이 사이의 차이는, 서로 다른 어느 두 거래 갈래의 예사 이윤 사이의 차이보다 분명히 훨씬 크다. 게다가 여러 생업의 이윤에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과 이윤으로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늘 갈라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착각인 것이 대개다.

약제사의 이윤은 유별나게 터무니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버릇이 되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이처럼 큰 이윤은 알고 보면 노동에 대한 온당한 임금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다. 약제사의 솜씨는 어떤 수공업자의 솜씨보다도 훨씬 섬세하고 까다로운 것이며, 그에게 맡겨지는 믿음은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나 의사이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괴로움이나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을 때의 의사다. 그러므로 그의 보수는 그의 솜씨와 그가 맡은 믿음에 걸맞아야 하며, 그 보수는 대개 그가 약을 파는 값에서 나온다. 그런데 장이 서는 큰 마을에서 일거리가 가장 많은 약제사가 한 해에 파는 약을

다 합쳐도 그가 들인 값은 30파운드나 40파운드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300파운드나 400파운드에 팔아 1000퍼센트의 이윤을 남긴다 해도, 그것이 그의 노동에 대한 온당한 임금을 그가 물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곧 약값에 얹어 물린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이윤의 대부분은 이윤의 옷을 입고 숨어 있는 실제 임금이다.

작은 항구 도시에서 자그마한 식료품 상인은 100파운드의 자산으로 40퍼센트나 50퍼센트를 남기는데, 같은 곳의 적지 않은 도매 상인은 1만 파운드의 자산으로 8퍼센트나 10퍼센트를 남기기도 어렵다. 식료품 상인의 생업은 그곳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일 수 있고, 시장이 좁아서 그 일에 더 큰 자본을 부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생업으로 먹고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생업이 요구하는 자질에 걸맞게 먹고살아야 한다. 작은 자본을 가지는 것 말고도 그는 읽고 쓰고 셈할 수 있어야 하며, 어쩌면 쉰 가지나 예순 가지에 이르는 여러 물건과 그 값과 품질,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시장까지 웬만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그는 큰 상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다 갖추어야 하며, 그가 큰 상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넉넉한 자본이 없다는 것뿐이다. 그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의 노동에 한 해 30파운드나 40파운드는 지나치게 큰 보수로 볼 수 없다. 겉보기에 큰 그의 자본 이윤에서 이것을 덜어 내면 어쩌면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보다 조금밖에 더 남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난 이윤의 대부분은 실제 임금이다.

소매 거래의 겉보기 이윤과 도매 거래의 겉보기 이윤 사이의 차이는 작은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보다 수도에서 훨씬 작다. 식료품 거래에 1만 파운드를 부릴 수 있는 곳에서는 식료품 상인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 그처럼 큰 자산의 실제 이윤에 아주 조금 보태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넉넉한 소매 상인의 겉보기 이윤이 도매 상인의 이윤과 더 가까운 높이에 있다. 소매로 파는 물건이 작은 도시와 시골 마을보다 수도에서 대개 그만큼 싸고 흔히 훨씬 싼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은 대개 훨씬 싸고, 빵과 푸줏간 고기는 흔히 그만큼 싸다. 식료품을 큰 도시로 실어 오는 데 드는 값은 시골 마을로 실어 오는 데 드는 값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곡물과 가축을 실어 오는 데는 훨씬 많이 드는데, 그 대부분을 훨씬 먼 곳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료품의 원가는 두 곳에서 같으므로, 그 값이 가장 싼 곳은 그것에 이윤이 가장 적게 얹히는 곳이다. 빵과 푸줏간 고기의 원가는 시골 마을보다 큰 도시에서 더 크다. 그래서 이윤은 더 적은데도 그것이 큰 도시에서 늘 더 싼 것은 아니고 흔히 값이 엇비슷하다. 빵과 푸줏간 고기 같은 물건에서는 겉보기 이윤을 줄이는 바로 그 원인이 원가를 키운다. 시장이 넓으면 더 큰 자산에 일거리가 생기므로 겉보기 이윤이 줄어들지만, 더 먼 곳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하므로 원가가 커진다. 한쪽이 줄고 다른 쪽이 커지는 이 두 가지는 대개의 경우 서로를 거의 맞비기는 듯하며, 왕국의 여러 지역에서 곡물과 가축의 값은 예사로 크게 다른데도 빵과 푸줏간 고기의 값은 그 대부분에서 대개 거의 같은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도매 거래에서든 소매 거래에서든 자산의 이윤은 작은 도시와 시골 마을보다 수도에서 대개 적지만, 작게 시작하여 큰 재산을 이루는 일은 앞의 곳에서 잦고 뒤의 곳에서는 거의 없다. 작은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는 시장이 좁으므로 자산이 커지는 대로 거래를 늘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윤율이 아주 높을 수 있어도 그 이윤의 액수는 결코 아주 클 수 없고, 따라서 그가 한 해에 쌓는 액수도 아주 클 수 없다. 반면에 큰 도시에서는 자산이 늘어나는 대로 거래를 넓힐 수 있으며, 아끼고 번창하는 사람의 신용은

그의 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다. 그의 거래는 그 둘을 합한 액수에 비례하여 넓어지고, 그의 이윤 액수는 그의 거래가 넓어진 만큼에 비례하며, 한 해에 그가 쌓는 것은 그 이윤의 액수에 비례한다. 그러나 큰 도시에서조차 규칙 있고 자리 잡히고 널리 알려진 어느 한 갈래의 사업으로 큰 재산이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고, 큰 재산은 평생에 걸친 근면과 검약과 주의에서 나온다. 물론 그런 곳에서는 이른바 투기 거래로 갑작스러운 재산이 이루어지는 일도 더러 있다. 투기 상인은 규칙 있고 자리 잡히고 널리 알려진 어느 한 갈래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는 곡물 상인이고 이듬해는 포도주 상인이며 그다음 해는 설탕이나 담배나 차 상인이다. 어떤 거래든 예사보다 벌이가 좋아지리라고 내다보면 거기에 뛰어들고, 그 이윤이 다른 거래와 같은 높이로 돌아가리라고 내다보면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러므로 그의 이윤과 손실은 자리 잡히고 널리 알려진 어느 한 갈래의 사업의 이윤과 손실에 대하여 어떤 규칙 있는 비율도 지닐 수 없다. 담대한 모험가는 두세 번의 들어맞은 투기로 적지 않은 재산을 얻는 일이 더러 있으나, 두세 번의 어긋난 투기로 재산을 잃을 가망도 그만큼 크다. 이 거래는 큰 도시 말고는 어디서도 벌일 수 없다. 그 일에 필요한 소식은 거래와 왕래가 가장 넓게 퍼진 곳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사정은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에 적지 않은 불평등을 낳지만, 노동이든 자산이든 여러 쓰임새에 딸린 이로움과 불리함 전체, 곧 실제의 것이든 상상 속의 것이든 그 전체에는 아무런 불평등도 낳지 않는다. 그 사정의 성질이 그러해서, 그것들은 어떤 쓰임새에서는 돈벌이가 적은 것을 메워 주고 다른 쓰임새에서는 돈벌이가 큰 것을 맞비겨 놓는다.

그러나 이로움과 불리함 전체에서 이 같음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조차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그 일자리는

그 이웃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오래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일자리는 예사로운 상태, 곧 그 본래의 상태라 부를 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셋째, 그 일자리는 그것을 맡은 이들의 오직 하나의, 또는 주된 일자리여야 한다.

첫째로, 이 같음은 그 이웃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오래 자리 잡혀 있는 일자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사정이 모두 같다면 임금은 묵은 생업보다 새 생업에서 대개 높다. 어떤 사업 기획자가 새 제조업을 세우려 할 때, 그는 처음에 일꾼들이 자기 생업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또 자기 일의 성질이 본래 요구할 것보다 높은 임금으로 그들을 다른 일자리에서 꾀어내야 하며, 그 임금을 흔한 높이로 낮추어 볼 엄두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수요가 오로지 유행과 취향에서 생기는 제조품은 끊임없이 바뀌며, 오래 자리 잡힌 제조품으로 여겨질 만큼 길게 가는 일이 드물다. 반면에 수요가 주로 쓸모나 필요에서 생기는 제조품은 바뀔 일이 덜하며, 같은 모양이나 같은 짜임이 여러 세기에 걸쳐 계속 수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의 임금은 뒤의 종류의 제조업보다 앞의 종류의 제조업에서 더 높을 가망이 크다. 버밍엄은 주로 앞의 종류의 제조품을 다루고 셰필드는 뒤의 종류를 다루는데, 그 두 곳에서 노동의 임금은 제조품의 성질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걸맞다고 한다.

새 제조업이든 새 상업 갈래든 농사의 새 방도든 그것을 세우는 일은 늘 하나의 투기이며, 사업 기획자는 그것에서 남다른 이윤을 얻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 이윤은 더러 아주 크지만, 더러, 어쩌면 더 자주 아주 그렇지 못하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 이웃의 묵은 생업의 이윤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규칙 있는 비율도 지니지 않는다. 그 기획이 들어맞으면 그 이윤은 처음에 예사로 아주 높다. 그 생업이나 방도가

온전히 자리 잡히고 널리 알려지면 겨룸이 그것을 다른 생업과 같은 높이로 끌어내린다.

둘째로,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 딸린 이로움과 불리함 전체에서 이 같음은 그 쓰임새의 예사로운 상태, 곧 그 본래의 상태라 부를 만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예사보다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앞의 경우에는 그 일자리의 이로움이 흔한 높이 위로 올라가고, 뒤의 경우에는 그 아래로 내려간다. 시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건초를 베는 때와 거두는 때에 한 해의 나머지 대부분보다 크며, 임금도 수요와 함께 오른다. 전쟁 때에 뱃사람 4만 명이나 5만 명이 상선 근무에서 국왕의 근무로 끌려가면, 상선에 쓸 뱃사람에 대한 수요는 그들이 모자라는 대로 반드시 오르고, 그럴 때 그들의 임금은 예사로 한 달에 1기니와 27실링에서 40실링과 3파운드로 오른다. 반면에 기울어 가는 제조업에서는 많은 일꾼이 자기 생업을 버리기보다, 그 일자리의 성질에 본래 걸맞을 것보다 적은 임금으로 만족한다.

자산의 이윤은 그 자산이 부려지는 상품의 값과 함께 달라진다. 어떤 상품의 값이 예사로운 이율이나 평균 이율 위로 오르면,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 데 부려진 자산 가운데 적어도 얼마의 이윤이 제자리 위로 올라가고, 그 값이 내려가면 그 아래로 내려간다. 모든 상품은 얼마간 값이 흔들리기 쉬우나 어떤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그렇다. 사람의 근면이 만들어 내는 모든 상품에서 한 해에 쓰이는 근면의 양은 한 해의 수요에 따라 반드시 다스려지며, 그렇게 해서 한 해 평균 생산량이 될 수 있는 대로 한 해 평균 소비량과 같아진다. 이미 살펴본 대로 어떤 일자리에서는 같은 양의 근면이 늘 같은 양, 또는 거의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아마포나 모직물 제조업에서는 같은 수의 일손이 한 해에 거의 같은 양의 아마포와 모직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그런 상품의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수요가 우연히 흔들리는 데서만 생길 수 있다. 국상이 나면 검은 천의 값이 오른다. 그러나 무늬 없는 아마포와 모직물 대부분에 대한 수요가 꽤 고른 만큼 그 값도 고르다. 반면에 같은 양의 근면이 늘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일자리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근면이 해에 따라 아주 다른 양의 곡물, 포도주, 홉, 설탕, 담배 등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그런 상품의 값은 수요가 흔들리는 데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잦은 양의 흔들림에 따라 달라지므로 몹시 요동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몇몇 사람의 이윤은 그 상품의 값과 함께 반드시 요동한다. 투기 상인의 일은 주로 그런 상품을 두고 벌어진다. 그는 그 값이 오를 듯하다고 내다보면 그것을 사 모으고, 내릴 듯하다고 내다보면 그것을 팔아 치우려 한다.

셋째로,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 딸린 이로움과 불리함 전체에서 이 같음은 그것을 맡은 이들의 오직 하나의, 또는 주된 일자리인 쓰임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 일자리에서 생계를 얻는다면, 그는 틈이 나는 사이사이에 다른 일자리의 성질에 본래 걸맞을 것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흔히 품는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는 코타 또는 코티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14] 몇 해 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들은 지주와 농부의 바깥 하인과 같은 이들이다. 그들이 주인에게서 예사로 받는 보수는 집 한 채, 푸성귀를 심을 작은 밭, 소 한 마리를 먹일 만큼의 풀, 그리고 어쩌면 한두 에이커의 메마른 갈이 땅이다. 주인이 그들의 노동을 쓸 일이 있을 때는 그 밖에 한 주에 오트밀 두 펙[15]을 더 주는데, 그 값은 16펜스 스털링쯤이다. 한 해의 많은 동안 주인은 그들의 노동을 쓸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그들이 가진 작은 땅을 가는 것으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남은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을 때에는 남는 시간을 아주 적은 보수로 누구에게나 내놓으려 했고, 다른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으로 일해 왔다고 한다. 옛 시절에는 그들이 유럽 어디에나 흔했던 듯하다. 갈이가 나쁘고 사람이 더 적게 살던 나라에서는 지주와 농부 대부분이 시골 노동에 어떤 철마다 필요한 남다른 수의 일손을 그 밖의 길로는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런 노동자가 주인에게서 이따금 받는 하루 보수나 한 주 보수는 그들 노동의 값 전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얻은 작은 땅이 그 값의 적지 않은 몫을 이루었다. 그런데도 옛 시절의 노동과 식료품의 값을 모아 놓고 그 둘이 놀랄 만큼 낮았다고 그려 보이기를 즐긴 여러 저술가는 이 하루 보수나 한 주 보수를 그 값 전부로 여긴 듯하다.

---

1.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여기 나오는 네 법령은 차례로 1545년(헨리 8세 37년), 1571년(엘리자베스 13년), 1624년(제임스 1세 21년), 1713년(앤 여왕 12년)의 것이다. 「제8장」은 그해 법령집에서 몇 번째 법인가를 가리킨다. 앤 여왕은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2. 옮긴이 — 왕정복고는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른 일을 가리킨다.

3. 옮긴이 — 「지난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이어진 7년 전쟁이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이 전쟁을 줄곧 이렇게 부른다.

4. 옮긴이 — 저본에는 단위 없이 「4000만쯤」이라고만 적혀 있다. 영국 공채를 말하는 자리이므로 파운드로 옮겼다.

5. 옮긴이 — 키케로(기원전 106~43)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론가다. 여기서 말하는 브루투스(기원전 85~42)는 키프로스 속주에서 돈을 빌려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다.

6. 옮긴이 — 몽테스키외(1689~1755)는 프랑스의 법학자로, 『법의 정신』에서 이자 문제를 다루었다.

7. 옮긴이 — 동인도회사는 1600년에 설립되어 인도와 동아시아 거래의 독점권을 쥐었던 영국 회사다. 스미스가 이 글을 쓸 때 이 회사는 벵골의 통치까지 맡고 있었다.

8.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9. 옮긴이 — 테오크리토스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목가 시인이다. 스미스가 가리키는 제21목가는 가난한 어부 둘을 그린 시다.

10. 옮긴이 — 도제살이는 1563년의 직인법으로 제도화되어, 여러 생업에서 7년의 도제 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은 1814년에 폐지되었다.

11. 옮긴이 — 반 크라운은 2실링 6펜스, 곧 30펜스다.

12. 옮긴이 — 법학원(Inns of Court)은 런던에 있던 네 곳의 법조 단체로, 법정 변호사를 길러 내고 그 자격을 주는 일을 맡았다.

13.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14. 옮긴이 — 코타 또는 코티저는 지주에게서 오막살이와 작은 땅을 얻고 그 대가로 필요한 때에 노동을 대던 사람들이다. 스코틀랜드 농업이 바뀌면서 19세기에 사라졌다.

15. 옮긴이 — 펙은 곡물을 되는 단위로 4분의 1부셸, 곧 약 9리터다.

10장 —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 따른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이어서)

그런 노동의 생산물은 그 성질에 걸맞을 값보다 더 헐하게 시장에 나오는 일이 흔하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서 양말은 어디서 베틀로 짠 것보다도 훨씬 헐하게 떠 낸다. 그것은 생계의 큰 몫을 다른 일자리에서 얻는 하인과 노동자의 손일이다. 셰틀랜드 양말은 해마다 천 켤레가 넘게 리스로 들어오는데, 값은 한 켤레에 5펜스에서 7펜스 사이다.[1] 셰틀랜드제도의 작은 중심지인 러윅에서는 흔한 노동의 흔한 값이 하루 10펜스라고 나는 확실히 들었다. 그런데 같은 섬에서 그들은 한 켤레에 1기니가 넘는 값이 나가는 소모사 양말을 떠 낸다.

스코틀랜드에서 아마실을 잣는 일은 양말을 뜨는 일과 거의 같은 길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다른 목적으로 고용된 하인들이 그 일을 한다. 이 두 생업 가운데 어느 하나로 살아갈 길을 찾으려는 이들은 아주 빈약한 생계밖에 벌지 못한다. 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주에 20펜스를 벌 수 있으면 잘 잣는 사람이다.

넉넉한 나라에서는 시장이 대개 워낙 넓으므로 어느 한 생업만으로도 그 생업에 몸담은 이들의 노동과 자산을 모두 부리기에 넉넉하다. 한 일자리로 살아가면서 그와 함께 다른 일자리에서 얼마쯤 작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사례는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아주 부유한 나라의 중심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 런던보다 집세가 비싼 도시는 없다고 나는 믿는데, 그러면서도

가구가 딸린 셋방을 그렇게 헐하게 얻을 수 있는 중심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셋방은 런던이 파리보다 훨씬 헐할 뿐만 아니라, 같은 정도로 좋은 것을 놓고 보면 에든버러보다도 훨씬 헐하다. 그리고 유별나게 보일지 모르나, 집세가 비싼 것이야말로 셋방이 헐한 원인이다. 런던에서 집세가 비싼 것은 큰 중심지라면 어디서나 집세를 비싸게 만드는 원인들, 곧 노동이 비싼 것, 대개 먼 곳에서 실어 와야 하는 건축 자재가 모두 비싼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붙는 지대가 비싼 것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주마다 독점자의 몫을 하여 도시의 나쁜 땅 한 에이커에 시골의 가장 좋은 땅 백 에이커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대를 물리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유별난 몸가짐과 관습에서도 나오는데, 그 관습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집 하나를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세내도록 강요한다. 잉글랜드에서 살림집이라 하면 한 지붕 밑에 든 모든 것을 뜻한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곳에서는 그것이 한 층을 뜻하는 데 그치는 일이 흔하다. 런던의 장사꾼은 제 손님들이 사는 동네에서 집 하나를 통째로 세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가게는 1층에 있고 그와 그 식구는 다락에서 잠을 자며, 그는 가운데 두 층을 세놓아 집세의 얼마를 물려고 애를 쓴다. 그는 셋방꾼이 아니라 제 장사로 식구를 먹여 살릴 것을 바란다. 그런데 파리와 에든버러에서는 방을 놓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것이 흔하니, 방값이 그 집의 집세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살림비 전부를 물어 내야 한다.

2절 — 유럽의 정책이 낳은 불평등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가 지닌 이로움과 해로움 전체에 걸쳐, 앞에서 말한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어긋날 때 가장 온전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조차 반드시 생겨나는 불평등이 이러하다. 그런데 유럽의

정책은 일을 온전한 자유에 맡겨 두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중대한 다른 불평등들을 낳는다.

그것은 주로 다음 세 길로 그렇게 한다. 첫째, 어떤 일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들어오려 했을 사람보다 적은 수로 경쟁을 묶어 둔다. 둘째, 다른 일자리에서는 저절로 그러할 정도를 넘어서까지 경쟁을 늘린다. 셋째, 노동과 자산이 일자리에서 일자리로, 또 곳에서 곳으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다.

첫째, 유럽의 정책은 어떤 일자리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들어오려 했을 사람보다 적은 수로 경쟁을 묶어 둠으로써,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가 지닌 이로움과 해로움 전체에 아주 중대한 불평등을 낳는다.

동업조합이 쥔 배타적 특권이 그 정책이 이 목적에 쓰는 주된 수단이다.

동업조합을 이룬 생업이 쥔 배타적 특권은 그 조합이 자리 잡은 도시에서 경쟁을 그 생업의 자유를 지닌 이들에게로 반드시 묶어 둔다. 그 도시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고용주 밑에 도제살이를 마쳤다는 것이 이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요건인 것이 흔하다. 동업조합의 내규는 고용주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도제의 수를 정하는 일이 더러 있고, 도제마다 몇 해를 채워야 하는지는 거의 언제나 정해 둔다. 두 규정의 뜻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생업에 들어오려 했을 사람보다 훨씬 적은 수로 경쟁을 묶어 두려는 것이다. 도제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곧바로 경쟁을 묶는다. 도제살이의 기간이 긴 것은 좀 더 에돌아 묶기는 하나, 가르침에 드는 비용을 늘림으로써 그만큼 톡톡히 묶는다.

셰필드에서는 동업조합의 내규에 따라 어느 칼장이 고용주도 한 번에 도제를 한 명 넘게 둘 수 없다. 노퍽과 노리치에서는 어느 직조 고용주도 도제를 둘 넘게 두면 한 달에 5파운드를 국왕에게 물어야 한다. 잉글랜드나 잉글랜드의 식민지 어디에서도 어느 모자 만드는 고용주는

도제를 둘 넘게 둘 수 없으며, 그러면 한 달에 5파운드를 물어 그 절반은 국왕에게, 절반은 기록 법원에 소를 낸 이에게 돌아간다. 이 두 규정은 왕국의 공법으로 굳어졌으나, 셰필드의 내규를 만들어 낸 것과 똑같은 동업조합 기질이 불러 준 것임이 뚜렷하다. 런던의 비단 직조공들은 동업조합이 된 지 겨우 한 해가 될 무렵에 어느 고용주도 한 번에 도제를 둘 넘게 두지 못하도록 묶는 내규를 만들었다. 이 내규를 물리려면 의회의 특별한 법이 따로 있어야 했다.

7년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유럽 어디서나 동업조합을 이룬 생업 대부분에서 도제살이가 이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던 듯하다. 그런 조합은 모두 예전에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실로 어떤 조합이든 가리키는 제대로 된 라틴어 이름이다.[2] 대장장이의 우니베르시타스, 재봉장이의 우니베르시타스 따위는 옛 도시들의 낡은 특허장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표현이다. 이제 유별나게 대학이라 불리는 그 특정한 조합들이 처음 세워질 때, 문학 석사 학위를 얻으려고 공부해야 했던 햇수는 흔한 생업의 도제살이 기간을 그대로 본뜬 것임이 뚜렷해 보이며, 그런 생업의 조합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누구든 흔한 생업에서 고용주가 되어 스스로 도제를 두려면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고용주 밑에서 7년을 일하였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양 학문에서 스승이나 선생이나 박사(예전에는 같은 뜻의 낱말들이었다)가 되어 제 밑에서 공부할 학생이나 도제(이 또한 본디 같은 뜻의 낱말들이었다)를 두려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스승 밑에서 7년을 공부하였어야 했다.

흔히 도제법이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치세 5년의 법으로,[3] 앞으로는 누구도 그때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던 생업이나 기술이나 비법을'[4] 적어도 7년의 도제살이를 먼저 마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고 정하여졌다. 그리하여 그전까지 개별 동업조합 여럿의 내규였던 것이 잉글랜드에서는 장이 서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업에 걸친 일반

공법이 되었다. 이 법령의 말은 아주 두루뭉술하여 왕국 전체를 담은 듯이 뚜렷이 보이지만, 해석으로 그 효력은 장이 서는 도시로 한정되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생업을 각각 7년씩 도제살이하지 않고서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그 생업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다 사람 수가 생업마다 따로 일손을 댈 만큼 넉넉하지 못한 일이 흔하였기 때문이다. 말을 엄하게 새긴 탓에 이 법령의 효력은 엘리자베스 치세 5년 이전에 잉글랜드에서 자리 잡았던 생업으로도 한정되었고, 그 뒤에 들어온 생업에는 한 번도 미치지 않았다. 이 한정은 여러 가지 구별을 낳았는데, 그것을 행정의 규칙으로 놓고 보면 좀처럼 더 어리석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어 보인다. 예컨대 마차 만드는 이는 제 마차 바퀴를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직인을 부려 만들게 할 수도 없으며 수레바퀴장이 고용주에게서 사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니, 이 뒤엣것은 엘리자베스 치세 5년 이전에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진 생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레바퀴장이는 마차 만드는 이에게 도제살이를 한 적이 없어도 마차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직인을 부려 만들게 할 수도 있으니, 마차 만드는 생업은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맨체스터와 버밍엄과 울버햄프턴의 제조업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이런 까닭으로 법령에 들지 않으니, 엘리자베스 치세 5년 이전에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도제살이의 기간은 도시마다 생업마다 다르다. 파리에서는 아주 많은 생업에서 5년이 요구되는 기간이지만, 그 가운데 여럿에서는 누구든 고용주로서 그 생업을 행할 자격을 얻기까지 직인으로 5년을 더 채워야 한다. 이 뒤의 기간 동안 그는 제 고용주의 동료라 불리고, 그 기간 자체는 그의 동료살이라 불린다.

스코틀랜드에는 도제살이의 기간을 두루 정해 놓은 일반 법이 없다. 기간은 동업조합마다 다르다. 기간이 긴 곳에서는 대개 작은 돈을 물어 그 얼마를 면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아주 작은 돈만으로도 어느 동업조합의 자유를 사기에 넉넉하다. 이 나라의 주된 제조업인 아마천과 삼베천 직조공은 물론이요 그들에게 딸린 다른 모든 수공업자, 곧 바퀴 만드는 이와 얼레 만드는 이 따위도 아무 돈을 물지 않고 어느 자치 도시에서나 제 생업을 행할 수 있다. 모든 자치 도시에서 누구나 한 주 가운데 법으로 허락된 날이면 정육을 팔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몇몇 생업에서조차 3년이 흔한 도제살이 기간이며, 대체로 동업조합의 법이 이만큼 덜 억누르는 나라를 나는 유럽에서 알지 못한다.

누구나 제 노동에 대하여 지니는 소유권은 다른 모든 소유권의 본디 바탕이므로, 그만큼 가장 신성하고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세습 재산은 제 두 손의 힘과 솜씨에 있으니, 이웃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힘과 솜씨를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대로 쓰는 것을 막는 것은 이 가장 신성한 소유권을 뚜렷이 짓밟는 일이다. 그것은 일꾼의 정당한 자유와 그를 쓰려 했을 이들의 정당한 자유를 다 함께 드러내어 침범하는 짓이다. 그것이 한쪽에게는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게는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사람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 그가 고용될 만한지를 가리는 일은 그 일에 이해가 그만큼 걸려 있는 고용하는 이들의 판단에 맡겨도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알맞지 않은 사람을 쓰지나 않을까 하여 법을 만드는 이가 꾸며 내는 걱정은 억누르는 짓인 만큼이나 주제넘은 짓임이 뚜렷하다.

도제살이를 길게 두는 제도는 모자란 솜씨로 만든 물건이 시장에 나와 팔리는 일이 흔하지 않도록 지켜 주지 못한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대개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속임수 때문이며, 도제살이가

아무리 길어도 속임수를 막아 주지는 못한다. 이 폐단을 막으려면 전혀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은제품에 찍는 스털링 표시와[5] 아마천과 모직천에 찍는 검인은 어떤 도제살이 법령보다도 사는 이를 훨씬 더 잘 지켜 준다. 그는 대개 이것들을 살펴보지만, 그 일꾼이 7년의 도제살이를 마쳤는지 캐물을 값어치가 있다고는 결코 여기지 않는다.

도제살이를 길게 두는 제도는 젊은 사람을 근면하게 기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일감의 개수로 삯을 받는 직인은 근면할 법한데, 제 근면을 쏟을 때마다 거기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도제는 게으를 법하고 거의 언제나 그러한데, 그러지 않을 당장의 이해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낮은 일자리에서 노동의 단맛은 온통 노동의 보수에 있다. 그 단맛을 누릴 처지에 가장 일찍 놓이는 이들이 가장 일찍 그 맛을 들이고 근면의 버릇을 일찍 익힐 법하다. 젊은 사람은 오랫동안 노동에서 아무 이득을 받지 못하면 저절로 노동을 싫어하게 된다. 관청의 구호로 도제로 보내지는 아이들은 대개 예사로운 햇수보다 더 오래 묶이며, 대개 아주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도제살이는 옛사람들에게 도무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고용주와 도제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는 오늘날의 어느 법전에서나 상당한 조항을 이룬다. 로마법은 그에 대하여 온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가 이제 도제라는 낱말에 붙이는 뜻, 곧 고용주가 그 생업을 가르쳐 준다는 조건으로 몇 해 동안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생업에 일하도록 묶인 하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낱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하나도 없다고 감히 우겨도 되리라 믿는다).

도제살이를 길게 두는 것은 도무지 쓸데없는 일이다. 흔한 생업보다 훨씬 위에 놓이는 기술, 예컨대 시계와 회중시계를 만드는 기술에는 오랜 가르침이 필요할 만큼의 비법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아름다운 기계를 처음 생각해 낸 일, 나아가 그것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의

얼마를 처음 생각해 낸 일은 참으로 깊은 생각과 오랜 시간의 열매였을 것이 틀림없고, 사람의 재주가 이룬 가장 복된 성과에 든다고 마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둘이 제대로 생각해 내어져 잘 알려진 뒤라면, 어느 젊은 사람에게 그 도구를 어떻게 쓰고 그 기계를 어떻게 짜 맞추는지를 가장 온전하게 일러 주는 데 몇 주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이 들 리 없고, 아마 며칠의 가르침으로도 넉넉할 것이다. 흔한 기계를 다루는 생업에서라면 며칠의 가르침으로 틀림없이 넉넉할 것이다. 참으로 손의 솜씨는 흔한 생업에서조차 많은 익힘과 경험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처음부터 직인으로 일하여 제가 해낼 수 있는 적은 일에 맞추어 삯을 받고, 서투름과 경험 없음 탓에 더러 망칠 재료에 대하여 제 몫을 물어 낸다면, 그는 훨씬 더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익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의 배움은 대개 더 톡톡할 것이고 언제나 덜 지겹고 덜 비쌀 것이다. 참으로 고용주는 손해를 보는 쪽이 된다. 그는 이제 7년을 내리 아끼고 있는 도제의 임금을 모두 잃을 것이다. 끝에는 아마 도제 자신도 손해를 볼 것이다. 그처럼 쉽게 익히는 생업에서는 그에게 경쟁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온전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의 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경쟁이 그만큼 늘어나면 일꾼의 임금이 줄어들듯이 고용주의 이윤도 줄어든다. 생업도 기술도 비법도 모두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모든 수공업자의 일감이 훨씬 헐하게 시장에 나오므로 세상은 이득을 볼 것이다.

값이, 따라서 임금과 이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가장 틀림없이 불러올 자유로운 경쟁을 묶어 두려고 모든 동업조합과 동업조합 법의 대부분이 세워져 왔다. 예전에 유럽의 여러 곳에서는 동업조합을 세우는 데 그것이 자리 잡는 자치 도시의 권위 말고 다른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참으로 잉글랜드에서는 국왕의 특허장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왕권의 이 특권은 그처럼 억누르는 독점에 맞서

모두의 자유를 지키기보다 오히려 신민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남겨 두어진 듯하다. 국왕에게 돈을 물면 특허장은 대개 선선히 내려진 듯하고, 어느 특정한 부류의 수공업자나 장사꾼이 특허장 없이 동업조합처럼 행세하는 것이 알맞다고 여겼을 때에도 사생 길드라 불린 그런 조합들은 그 때문에 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빼앗아 쥔 특권을 행할 허락을 받으려고 해마다 국왕에게 돈을 물어야 했다(매독스의 《피르마 부르기》 26쪽 등을 보라).[6] 모든 동업조합과 그들이 제 다스림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알맞다고 여긴 내규를 바로 감독하는 일은 그들이 자리 잡은 자치 도시에 딸려 있었고, 그들에게 가해진 규율은 무엇이든 대개 국왕에게서가 아니라 그 하위 조합들이 부분이나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던 저 더 큰 조합에서 나왔다.

자치 도시의 통치는 온통 장사꾼과 수공업자의 손에 있었고, 그들의 말버릇대로 하자면 시장이 저마다의 근면이 낳은 물건으로 넘치는 것을 막는 일이 그들 각 부류의 뚜렷한 이해였는데, 이는 실상 시장을 늘 모자란 채로 두는 일이다. 각 부류는 이 목적에 알맞은 규정을 세우려고 애가 탔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는다면 다른 모든 부류가 똑같이 하는 것에도 선선히 동의하려 하였다. 참으로 그런 규정 탓에 각 부류는 제가 쓸 물건을 도시 안의 다른 모든 부류에게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쯤 비싸게 사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은 제 물건도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었으니, 그들의 말마따나 그만큼은 이리 재도 저리 재도 같았고, 도시 안의 여러 부류가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서는 이 규정으로 손해를 본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시골과 주고받는 거래에서는 그들이 모두 크게 이득을 보았으니, 도시마다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거래의 전부가 이 뒤엣거래에 있다.

도시마다 제 생계 전부와 제 근면에 쓰이는 재료 전부를 시골에서 끌어온다. 도시는 그 값을 주로 두 길로 물어 낸다. 첫째, 그 재료의

얼마를 손질하고 만들어 시골로 되돌려 보내는 길인데, 이때 그 값은 일꾼의 임금과 그 고용주나 직접 부리는 이의 이윤만큼 더해진다. 둘째, 다른 나라의 것이든 같은 나라의 먼 곳의 것이든 도시로 들여온 원생산물과 제조품의 얼마를 시골로 보내는 길인데, 이때에도 그 물건의 본래 값은 실어 나르는 이나 뱃사람의 임금과 그들을 부리는 상인의 이윤만큼 더해진다. 이 거래의 앞의 갈래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도시가 제 제조업으로 얻는 이로움이 있고, 뒤의 갈래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그 나라 안 거래와 나라 밖 거래의 이로움이 있다. 일꾼의 임금과 그들을 부리는 여러 이의 이윤이 이 둘에서 벌어들이는 것의 전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 임금과 이윤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높이는 쪽으로 기우는 규정은 무엇이든, 도시가 더 적은 양의 제 노동으로 더 많은 양의 시골 노동이 낳은 생산물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도시의 장사꾼과 수공업자에게 시골의 지주와 농부와 노동자보다 나은 자리를 주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놓였을 저 자연스러운 대등함을 무너뜨린다. 사회의 노동이 해마다 낳는 생산물 전부가 해마다 이 서로 다른 두 무리 사이에 갈라진다. 그런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더 큰 몫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도시의 주민에게 돌아가고 더 작은 몫이 시골의 주민에게 돌아간다.

도시가 해마다 제게 들여오는 식료품과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물어내는 값은 해마다 제게서 실어 내는 제조품과 다른 물건의 양이다. 뒤엣것이 비싸게 팔릴수록 앞엣것은 헐하게 사들여진다. 도시의 근면은 더 이롭게 되고 시골의 근면은 덜 이롭게 된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유럽 어디서나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보다 더 이롭다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셈을 따지지 않고도 아주 단순하고 뚜렷한 관찰 하나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는 도시에 마땅히 딸리는 산업인 거래와 제조업으로

작은 시작에서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을 적어도 백 명은 찾아내는데, 시골에 마땅히 딸리는 산업, 곧 땅을 개량하고 갈아 원생산물을 길러 내는 일로 그렇게 한 사람은 한 명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근면은 앞의 처지에서 뒤의 처지보다 더 잘 보답받는 것이 틀림없고,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이 더 클 것임이 뚜렷하다. 그런데 자산과 노동은 저절로 가장 이로운 쓰임새를 찾아간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저절로 될 수 있는 대로 도시로 몰려들고 시골을 버린다.

도시의 주민은 한곳에 모여 있으므로 쉽게 서로 단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하찮은 생업조차 어딘가에서는 동업조합을 이루었고, 한 번도 조합을 이루지 않은 곳에서조차 동업조합 기질, 낯선 이를 꺼리는 마음, 도제를 받거나 제 생업의 비밀을 알려 주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대개 그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내규로는 금할 수 없는 저 자유로운 경쟁을 자발적인 결사와 합의로 막는 법을 그들에게 흔히 가르쳐 준다. 일손을 적게 쓰는 생업일수록 그런 단합으로 가장 쉽게 흘러간다. 실 잣는 이와 천 짜는 이 천 명을 일하게 하려면 아마 양모 빗는 이 여섯 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도제를 받지 않기로 단합함으로써 일자리를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제조업 전체를 저들에게 매인 일종의 종살이로 떨어뜨리고, 제 노동의 값을 제 일감의 성질에 마땅한 것보다 훨씬 높이 올릴 수 있다.

시골의 주민은 먼 곳에 흩어져 있으므로 쉽게 서로 단합할 수 없다. 그들은 한 번도 조합을 이룬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질이 그들 사이에 퍼진 적도 없다. 시골의 큰 생업인 농사에 자격을 갖추는 데 도제살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른바 미술과 교양 전문직을 빼놓으면 이만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생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온갖 말로 이에 대하여 쓰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학식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것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로 여겨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에서 흔한 농부조차 예사로 지니고 있는 그 다양하고 얽힌 작업에 대한 지식을 걷어 모으려는 우리의 애는 헛일이 될 것이니, 그 책 가운데 얼마를 쓴 몹시 하찮은 지은이들이 더러 그를 아무리 업신여겨 말하는 티를 내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달리 흔한 기계 생업이라면 그 모든 작업이 낱낱이 몇 쪽밖에 안 되는 소책자 안에서 말과 그림으로 밝힐 수 있는 한 온전하고 또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이제 펴내고 있는 기술의 역사에서는 그 가운데 여럿이 실제로 이렇게 밝혀져 있다. 게다가 날씨가 바뀔 때마다, 또 그 밖의 많은 뜻밖의 일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 작업을 이끄는 일은, 늘 같거나 거의 같은 작업을 이끄는 일보다 훨씬 많은 판단과 분별을 요구한다.

농부의 기술, 곧 농사 작업을 두루 이끄는 일뿐만 아니라 시골 노동의 낮은 갈래 여럿도 기계 생업 대부분보다 훨씬 많은 솜씨와 경험을 요구한다. 놋과 쇠를 다루는 사람은 그 성질이 늘 같거나 거의 같은 도구를 가지고 그런 재료에 손을 댄다. 그러나 말이나 소를 한 떼 부려 땅을 가는 사람은 그 건강과 힘과 성질이 때마다 아주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일한다. 게다가 그가 다루는 재료의 형편도 그가 가지고 일하는 도구의 형편만큼이나 변하기 쉬우니, 그 둘을 다루는 데 많은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한다. 흔한 밭갈이꾼은 대개 미련함과 무지함의 본보기로 여겨지지만, 이 판단과 분별이 모자란 일은 드물다. 참으로 그는 도시에 사는 기술자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덜 익숙하다. 그의 목소리와 말씨는 더 거칠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알아듣기에 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지력은 더 다양한 대상을 살피는 데 익숙해져 있으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한두 가지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해내는 데 온 마음을 쓰는 것이 흔한 저 다른 사람의 지력보다 대개 훨씬 뛰어나다.

시골의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 도시의 그런 사람들보다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가는 일 때문이든 궁금함 때문이든 그 두 쪽 모두와 많이 이야기하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안다. 그러기에 중국과 힌두스탄에서는 시골 노동자의 신분과 임금이 수공업자와 제조업자 대부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한다. 동업조합 법과 동업조합 기질이 막지 않는다면 아마 어디서나 그러할 것이다.

도시의 산업이 유럽 어디서나 시골의 산업보다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오로지 동업조합과 동업조합 법 탓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규정으로도 받쳐진다. 나라 밖 제조품에 물리는 높은 관세, 그리고 외국 상인이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물리는 높은 관세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기운다. 동업조합 법은 도시의 주민이 제 나라 사람의 자유로운 경쟁에 밀려 더 헐하게 팔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값을 올릴 수 있게 한다. 저 다른 규정은 그들을 외국 사람의 경쟁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켜 준다. 이 둘이 낳는 값의 올림은 어디서나 결국 시골의 지주와 농부와 노동자가 물어 내는데, 이들은 그런 독점이 세워지는 데 좀처럼 맞선 적이 없다. 그들은 단합에 들어갈 마음도 그럴 만한 채비도 대개 갖추지 못하였으며, 상인과 제조업자의 떠들썩한 소리와 궤변은 사회의 한 부분, 그것도 종속된 한 부분의 사사로운 이해가 전체의 두루 걸친 이해라고 그들을 쉽게 믿게 만든다.

영국에서 도시의 산업이 시골의 산업보다 나은 정도는 지금보다 예전에 더 컸던 듯하다. 시골 노동의 임금은 제조업 노동의 임금에, 그리고 농업에 쓰인 자산의 이윤은 거래와 제조업에 쓰인 자산의 이윤에 지난 세기나 이 세기의 첫머리에 그러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 변화는 도시의 산업에 주어진 유별난 북돋움이 낳은, 아주 늦었으나 반드시 뒤따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도시에 쌓인 자산은 때가 되면 워낙 커져서 도시에 유별나게 딸린 그 갈래의 산업에 예전만큼의

이윤으로는 더 쓰일 수 없게 된다. 그 산업도 다른 모든 산업처럼 한계가 있으며, 자산이 늘어나면 경쟁이 늘어나므로 반드시 이윤이 줄어든다. 도시에서 이윤이 내려가면 자산이 시골로 밀려 나가고, 거기서 시골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어 반드시 그 임금을 올린다. 그러고 나서 그 자산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땅의 낯 위로 저를 펼치며, 농업에 쓰임으로써, 애초에 도시에 쌓일 때 크게 보아 그 비용을 댄 시골에 얼마쯤 되돌려진다. 유럽 어디서나 시골의 가장 큰 개량이 애초에 도시에 쌓인 자산이 이렇게 넘쳐흐른 데서 나왔다는 것을 나는 뒤에서 보이려 하며, 그와 함께 어떤 나라들은 이 길로 상당한 정도의 넉넉함에 이르렀으나 그 길 자체는 반드시 느리고 못 미더우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밖의 일에 흐트러지고 끊어지기 쉬우며 어느 모로나 자연과 이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그런 길을 낳은 이해와 편견과 법과 관습은 이 연구의 3편과 4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또렷하게 풀어 보이려 한다.

같은 생업에 몸담은 사람들은 흥겨움과 놀이를 위해서조차 좀처럼 모이는 일이 없으나, 모이면 그 이야기는 세상에 맞선 음모나 값을 올릴 무슨 꾀로 끝난다. 참으로 그런 모임을 집행할 수 있거나 자유와 정의에 어긋나지 않을 어떤 법으로 막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법이 같은 생업에 몸담은 사람들이 더러 함께 모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모임을 쉽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물며 그것을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드는 일은 더욱 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특정한 도시에서 같은 생업에 몸담은 모든 이에게 제 이름과 사는 곳을 관청의 등록부에 적어 넣도록 강요하는 규정은 그런 모임을 쉽게 만든다. 그것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서로 결코 알지 못하였을 사람들을 이어 주고, 그 생업에 몸담은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어디서 찾을지 알려 준다.

같은 생업에 몸담은 이들이 제 빈민과 병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려고 제게 부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규정은, 그들에게 함께 다룰 이해를 줌으로써 그런 모임을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든다.

조합을 이루는 것은 그런 모임을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수가 정한 것을 전체에 묶어 두는 것으로 만든다. 자유로운 생업에서는 낱낱의 장사꾼 모두가 한뜻으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톡톡한 단합을 세울 수 없고, 낱낱의 장사꾼 모두가 같은 마음을 지니는 동안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동업조합의 다수는 알맞은 벌칙을 붙인 내규를 만들 수 있으니, 그것은 어떤 자발적인 단합보다도 더 톡톡하고 더 오래도록 경쟁을 묶어 둘 것이다.

동업조합이 생업을 더 잘 다스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핑계는 아무 바탕이 없다. 일꾼에게 실제로 톡톡히 가해지는 규율은 그의 동업조합이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님들이 가하는 것이다. 그의 속임수를 묶어 두고 그의 소홀함을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일감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배타적인 동업조합은 반드시 이 규율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면 특정한 한 무리의 일꾼이 잘 처신하든 못하든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을 이룬 큰 도시 여럿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생업 가운데 얼마에서조차 그럭저럭 쓸 만한 일꾼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제 일감을 그럭저럭 쓸 만하게 해내게 하려면 그것을 변두리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일꾼들이 배타적 특권이 없으므로 제 평판 말고는 믿고 기댈 것이 없으며, 그러고 나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도시 안으로 몰래 들여와야 한다.

유럽의 정책은 이렇게 하여, 어떤 일자리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들어오려 했을 사람보다 적은 수로 경쟁을 묶어 둠으로써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가 지닌 이로움과 해로움 전체에 아주 중대한 불평등을 낳는다.

둘째, 유럽의 정책은 어떤 일자리에서 저절로 그러할 정도를 넘어서까지 경쟁을 늘림으로써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가 지닌 이로움과 해로움 전체에 이와 반대되는 종류의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어떤 전문직을 위하여 알맞은 수의 젊은 사람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 워낙 중대하게 여겨져서, 더러는 관청이 더러는 사사로운 설립자들의 경건함이 이 목적으로 많은 연금과 장학금과 급여와 보조세 따위를 세워 놓았고, 그것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생업을 따르겠다고 나서지 못하였을 사람들을 그리로 훨씬 많이 끌어들인다. 모든 그리스도교 나라에서 성직자 대부분의 배움이 이런 길로 값을 치러진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제 비용으로 길러지는 이는 아주 적다. 그러므로 제 비용으로 길러지는 이들이 받은 길고 지겹고 비싼 배움이 그들에게 늘 걸맞은 보답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니, 교회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런 배움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주었을 자리보다 훨씬 적은 보수라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가난한 이들의 경쟁이 부유한 이들의 보답을 빼앗아 간다. 큐레이트든 채플린이든[7] 흔한 생업의 직인과 견주는 것은 틀림없이 무례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큐레이트나 채플린의 보수는 직인의 임금과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 마땅히 볼 수 있다. 셋 모두 저마다 제 위에 있는 이와 맺게 된 계약에 따라 제 일감의 값을 받는다. 14세기 중엽이 지날 때까지 잉글랜드에서 큐레이트나 봉급을 받는 교구 사제의 예사로운 보수는 5마크였는데,[8] 이는 오늘 우리 돈 10파운드쯤에 든 만큼의 은을 담고 있었으며, 여러 전국 공의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낸다. 같은 시기에 하루 4펜스, 곧 오늘 우리 돈 1실링과 같은 양의 은을 담은 돈이 석공 고용주의 보수로 밝혀졌고, 하루 3펜스, 곧 오늘 우리 돈 9펜스와 같은 것이 석공 직인의 보수로 밝혀졌다

(에드워드 3세 치세 25년의 노동자법을 보라).'[9] 그러므로 이 두 노동자가 줄곧 일하였다고 치면 그들의 임금은 큐레이트의 임금보다 훨씬 높았다. 석공 고용주가 한 해의 3분의 1을 일감 없이 지냈다고 쳐도 그의 임금은 그것과 넉넉히 맞먹었을 것이다. 앤 여왕 치세 12년의 법 제12장에서는 "큐레이트에게 넉넉한 부양과 북돋움이 없는 탓으로 여러 곳에서 사목이 부실하게 채워져 왔으므로, 주교는 제 손으로 적고 제 봉인을 찍은 글로써 한 해에 50파운드를 넘지 않고 20파운드보다 적지 않은 넉넉하고 일정한 봉급이나 수당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하고 밝혀 놓았다. 오늘날 한 해 40파운드면 큐레이트에게 아주 좋은 보수로 셈해지며, 이 의회의 법이 있음에도 한 해 20파운드가 못 되는 큐레이트 자리가 많다. 런던에는 한 해 40파운드를 버는 구두 만드는 직인이 있고, 그 큰 도시에서 어떤 종류든 부지런한 일꾼이라면 20파운드보다 많이 벌지 않는 이가 거의 없다. 참으로 이 뒤의 액수는 시골의 여러 교구에서 흔한 노동자가 흔히 버는 것을 넘지 않는다. 법이 일꾼의 임금을 매기려 든 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늘 임금을 올리기보다 오히려 내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은 여러 자리에서 큐레이트의 임금을 올리려 하였고, 교회의 품위를 위하여 교구 주임 사제들이 큐레이트 스스로 받아들이려 했을지도 모를 그 비참한 부양보다 더 많이 주도록 강요하려 하였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법은 똑같이 톡톡하지 못하였던 듯하니, 큐레이트의 임금을 올리지도 노동자의 임금을 뜻한 만큼 끌어내리지도 결코 하지 못하였다. 앞의 이들이 제 처지의 가난함과 제 경쟁자의 많음 때문에 법이 정한 수당보다 적은 것이라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뒤의 이들이 그들을 부려 이윤이나 즐거움을 얻으려던 이들의 반대 방향 경쟁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큰 성직록과 그 밖의 교회 고위직은 교회의 낮은 구성원 얼마가 처한 딱한 형편에도 아랑곳없이 교회의 명예를 받쳐 준다. 또 그 직업에 바쳐지는 존경은 그런 낮은 이들에게조차 돈으로 받는 보수의 딱함을 얼마쯤 메워 준다. 잉글랜드와 모든 로마 가톨릭 나라에서 교회라는 제비뽑기는 실상 꼭 그래야 할 것보다 훨씬 이롭다. 스코틀랜드와 제네바의 교회,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개신교 교회의 사례는, 그처럼 떳떳한 직업, 그것도 배움을 그토록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업에서라면 훨씬 알맞은 성직록에 대한 바람만으로도 배움 있고 점잖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넉넉한 수로 성직에 들어올 것임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줄 것이다.

법률과 의술처럼 성직록이 없는 전문직에서 만일 같은 비율의 사람이 관청의 비용으로 길러진다면 경쟁이 곧 워낙 심해져서 그들이 돈으로 받는 보답을 몹시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제 아들을 제 비용으로 이 두 전문직 가운데 어느 하나에 넣으려고 가르칠 값어치를 더는 찾지 못한다. 그 전문직은 그런 관청의 구호로 길러진 이들에게 온통 내맡겨질 것이고, 그들의 수와 궁핍함은 그들이 대개 아주 비참한 보수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니, 이제 존경받는 법률과 의술이라는 전문직은 온통 격이 떨어질 것이다.

흔히 문인이라 불리는 저 번성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앞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법률가와 의사가 아마 놓일 그런 처지에 거의 그대로 놓여 있다.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그들 대부분은 교회를 위하여 길러졌으나 여러 까닭으로 성직에 들어가는 것이 막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개 관청의 비용으로 길러졌고, 그들의 수가 어디서나 워낙 많으므로 그 노동의 값은 대개 아주 보잘것없는 보수로까지 끌어내려진다.

인쇄술이 생겨나기 전에는 문인이 제 재주로 무엇이든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가 관청이나 사사로운 집의 선생이 되는 것, 곧 제가 얻은 진기하고 쓸모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인쇄술이 생겨나게 만든 저 다른 일자리, 곧 책 장수를 위하여 글을 쓰는 일보다 틀림없이 지금도 더 명예롭고 더 쓸모 있으며 대체로 더 벌이가 되는 일자리다. 여러 학문의 뛰어난 선생이 될 자격을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공부, 재능과 지식과 정성은 법률과 의술에서 가장 크게 일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에 적어도 맞먹는다. 그러나 뛰어난 선생이 받는 예사로운 보답은 법률가나 의사의 그것에 도무지 견줄 수 없으니, 앞의 이의 생업은 관청의 비용으로 거기에 길러진 궁핍한 사람들로 붐비는 데 반하여 뒤의 두 생업은 제 비용으로 길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주 적어 짐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청과 사사로운 집의 선생이 받는 예사로운 보수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입에 풀칠하려고 글을 쓰는 저 더욱 궁핍한 문인들의 경쟁이 시장에서 걷어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금보다 적었을 것이다. 인쇄술이 생겨나기 전에는 학자와 걸인이 거의 같은 뜻의 말이었던 듯하다. 그때 여러 대학의 학장들은 제 학생들에게 빌어먹을 허가를 내주는 일이 흔하였던 듯하다.

옛날에는 궁핍한 사람을 학식 있는 전문직에 길러 주는 이런 종류의 구호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뛰어난 선생이 받는 보답이 훨씬 상당하였던 듯하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른바 소피스트를 논박하는 연설에서 제 시대의 선생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그들은 제 학생에게 가장 거창한 약속을 하고,” 그는 말한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면서, 그처럼 중대한 봉사의 값으로 4미나나 5미나라는 하찮은 보수를 정해 놓는다.” “지혜를 가르치는 이들은,” 그는 이어 말한다,

“틀림없이 스스로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 그런 값에 그런 거래를 팔려 한다면 그는 가장 뚜렷한 어리석음을 지은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그가 여기서 그 보답을 부풀려 말하려는 뜻은 틀림없이 아니니, 그것이 그가 그려 보인 것보다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어도 된다. 4미나는 13파운드 6실링 8펜스와 같았고 5미나는 16파운드 13실링 4펜스와 같았다.[10] 그러므로 그때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들에게는 이 두 액수 가운데 큰 쪽보다 적지 않은 무엇이 예사로 치러졌을 것이 틀림없다. 이소크라테스 자신은 학생마다 10미나, 곧 33파운드 6실링 8펜스를 요구하였다. 그가 아테네에서 가르칠 때 학생이 백 명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그가 한 번에 가르친 수, 곧 우리가 강의 한 과정이라 부를 것에 나온 수로 알아듣는다. 그처럼 큰 도시에서 그처럼 이름난 선생, 그것도 그때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유행하던 수사학을 가르친 선생에게라면 이 수가 유별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강의 한 과정마다 천 미나, 곧 3335파운드 6실링 8펜스를 벌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플루타르코스는 다른 곳에서 천 미나가 그의 디닥트론, 곧 가르침의 예사로운 값이었다고 말한다. 그때의 다른 뛰어난 선생 여럿도 큰 재산을 이룬 듯하다. 고르기아스는 순금으로 만든 제 조각상을 델포이 신전에 바쳤다. 그것이 실물만큼 컸다고 여겨서는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사는 모양새는 그때의 다른 뛰어난 선생 둘인 히피아스와 프로타고라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화려하다고, 그것도 뽐낼 만큼 화려하다고 그려 놓았다. 플라톤 자신도 제법 웅장하게 살았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되어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알렉산드로스와 그 아버지 필리포스 두 사람에게서 가장 넉넉하게 보답받았으나, 그럼에도 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다시 잡으려고 아테네로 돌아갈 값어치가 있다고 여겼다. 여러 학문의 선생은 그때에는 한두 시대 뒤에 그렇게 된

것보다 아마 덜 흔하였을 것이고, 뒤에 와서는 경쟁이 그들의 노동의 값과 그 사람에 대한 감탄을 얼마쯤 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은 오늘날 같은 직업에 몸담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존중을 늘 누렸던 듯하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카데미아파의 카르네아데스와 스토아파의 디오게네스를 로마로 보내는 엄숙한 사절로 삼았다. 그때 그들의 도시는 예전의 웅대함에서 기울어 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독립된 상당한 공화국이었다.

게다가 카르네아데스는 태어난 곳으로 보면 바빌로니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만큼 외국 사람을 관직에 들이기를 꺼린 백성은 한 번도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그들의 존중은 아주 컸을 것이 틀림없다.

이 불평등은 대체로 보아 세상에 아마 해롭기보다 오히려 이롭다. 그것이 관청의 선생이라는 직업을 얼마쯤 떨어뜨릴지는 모르나, 학문을 배우는 일이 헐하다는 것은 이 자잘한 거북함을 크게 웃돌고도 남는 이로움임이 틀림없다. 게다가 배움이 이루어지는 저 학교와 대학의 짜임새가 이제 유럽 대부분에서 그러한 것보다 더 이치에 닿았다면 세상은 거기서 더욱 큰 이로움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의 정책은 노동과 자산이 일자리에서 일자리로, 또 곳에서 곳으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의 여러 쓰임새가 지닌 이로움과 해로움 전체에 아주 거북한 불평등을 낳는다.

도제법은 노동이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같은 곳 안에서조차 가로막는다. 동업조합이 쥔 배타적 특권은 같은 일자리에서조차 노동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다.

어느 한 제조업의 일꾼에게는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데 다른 제조업의 일꾼은 겨우 목숨을 이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앞의 것은 나아가는 상태에 있으므로 새 일손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뒤의 것은 기울어 가는 상태에 있으므로 남는 일손이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 두 제조업이 더러 같은 도시에, 더러 같은 이웃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조금의 도움도 빌려줄 수 없는 일이 있다. 도제법이 한 경우에 그것을 막고, 다른 경우에는 도제법과 배타적 동업조합이 함께 막는다. 그러나 여러 다른 제조업에서 작업이 워낙 서로 비슷하므로, 그 터무니없는 법이 막지 않는다면 일꾼들이 서로 생업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무늬 없는 아마천을 짜는 기술과 무늬 없는 비단을 짜는 기술은 거의 온전히 같다. 무늬 없는 모직을 짜는 기술은 얼마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워낙 하찮으므로 아마천 직조공이든 비단 직조공이든 며칠 만에 그럭저럭 쓸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큰 제조업 가운데 어느 하나가 삭아 가고 있다면 일꾼들은 더 번성하는 형편에 있는 다른 둘 가운데 하나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임금은 잘되는 제조업에서 너무 높이 오르지도, 삭아 가는 제조업에서 너무 낮게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참으로 잉글랜드에서 아마천 제조업은 특별한 법령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의 대부분에서 그다지 일구어지지 않으므로, 삭아 가는 다른 제조업의 일꾼에게 두루 걸친 살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그들은 도제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교구의 구호를 받는 것과 흔한 노동자로 일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몸에 익은 버릇 때문에 흔한 노동자 일에는 제 일과 조금이라도 닮은 어떤 종류의 제조업 일보다도 훨씬 못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개 교구의 구호를 받는 쪽을 고른다.

노동이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자산이 흐르는 것도 가로막으니, 어느 갈래의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자산의 양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노동의 양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업조합 법은 자산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노동이 그렇게 흐르는 것보다는 덜 가로막는다. 부유한 상인이 자치 도시에서 거래할 특권을 얻는 것은 어디서나 가난한 수공업자가 거기서 일할 특권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쉽다.

동업조합 법이 노동이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유럽의 어느 곳에나 두루 있다고 나는 믿는다. 구빈법이[11] 그것을 가로막는 일은 내가 아는 한 잉글랜드에만 있는 일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정주 자격을 얻는 데, 또는 제가 딸린 교구 말고 다른 교구에서 제 근면을 펼치도록 허락받는 데조차 부딪히는 어려움에 있다. 동업조합 법이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노동뿐이다. 정주 자격을 얻는 어려움은 흔한 노동의 흐름까지 가로막는다. 아마도 잉글랜드의 행정에서 가장 큰 병폐일 이 어지러움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나아갔으며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얼마쯤 이야기해 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수도원이 없어지면서 빈민이 그 종교 시설의 구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다른 몇 가지 톡톡하지 못한 시도가 있은 뒤에, 엘리자베스 치세 43년의 법 제2장으로[12] 교구마다 제 교구의 빈민을 먹이도록 묶이고, 해마다 빈민 감독관을 뽑아 교구 위원과 함께 교구 부과금을 걷어 이 목적에 알맞은 금액을 마련하도록 정하여졌다.

이 법령으로 제 교구의 빈민을 먹여야 할 의무가 교구마다 빠져나갈 수 없이 지워졌다. 그러므로 누구를 각 교구의 빈민으로 볼 것인가가 얼마쯤 중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얼마쯤 이리저리 바뀐 끝에 찰스 2세 치세 13년과 14년의 법으로 마침내 판가름 났는데, 거기서는 40일을 방해받지 않고 사는 것으로 누구든 어느 교구에서 정주 자격을 얻는다고, 그러나 그 기간 안에는 교구 위원이나 빈민 감독관이 고발할 때 치안 판사 두 사람이 새 주민을 그가 마지막으로 법에 맞게 정주 자격을 얻었던 교구로 돌려보내는 것이 법에 맞는다고 정하여졌으니,

다만 그가 한 해 10파운드짜리 집을 세내거나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교구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보증을 그 판사들이 넉넉하다고 여길 만큼 내놓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법령 탓으로 얼마간의 속임수가 벌어졌다고 한다. 교구의 관리들이 더러 제 교구의 빈민에게 뒷돈을 주어 몰래 다른 교구로 가서 40일 동안 몸을 숨겨 거기서 정주 자격을 얻게 하고, 그로써 그들이 마땅히 딸려 있던 교구가 짐을 벗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임스 2세 치세 1년의 법으로, 누구든 정주 자격을 얻는 데 있어야 하는 40일의 방해받지 않은 삶은 그가 와서 살게 된 교구의 교구 위원이나 감독관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 사는 곳과 제 식구의 수를 글로 적어 알린 때부터 헤아린다고 정하여졌다.

그런데 교구의 관리들은 다른 교구를 대할 때보다 제 교구를 대할 때 늘 더 정직하지는 않았던 듯하여, 더러 그런 끼어듦을 눈감아 주고 통고를 받아 두고도 그에 따른 알맞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구 안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끼어드는 이들 때문에 짐을 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막을 이해가 있으리라고 여겨졌으므로, 윌리엄 3세 치세 3년의 법으로 그 40일의 삶은 그런 글로 적은 통고를 주일에 예배가 끝난 바로 뒤에 교회에서 알린 때부터 헤아린다고 다시 정하여졌다.

"결국" 번 박사는 말한다,[13] "글로 적은 통고를 알린 뒤에 40일을 이어 사는 이런 정주 자격은 아주 드물게만 얻어지며, 이 법들의 뜻은 정주 자격을 얻게 하는 데 있다기보다 몰래 교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데 있으니, 통고를 한다는 것은 교구에 내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형편이 그를 실제로 내쫓을 수 있는지 어떤지 헷갈릴 만한 것이라면, 그는 통고를 함으로써 교구가 그를 40일 동안 그대로 두어 다툼 없이 정주

자격을 인정하게 하거나 그를 내쫓아 그 권리를 가려 보게 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은 가난한 사람이 40일을 산다는 낡은 길로 새 정주 자격을 얻는 것을 거의 될 수 없는 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 교구의 흔한 사람들이 다른 교구에서 마음 놓고 자리 잡는 것을 아예 가로막는 듯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 법령은 통고를 주거나 알리지 않고도 정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다른 길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는 교구 부과금을 물게 매겨져 그것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한 해 임기의 교구 직책에 뽑혀 한 해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 교구에서 도제살이를 하는 것이고, 넷째는 거기서 한 해 동안 고용되어 그 한 해 내내 같은 일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앞의 두 길로는 온 교구가 공적으로 작성한 증서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정주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교구 사람들은 제 노동 말고는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새로 온 이를 교구 부과금을 물게 매기거나 교구 직책에 뽑아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혼인한 남자는 뒤의 두 길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정주 자격을 좀처럼 얻을 수 없다. 도제가 혼인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혼인한 하인은 한 해 동안 고용되는 것으로 정주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못 박아 정하여져 있다. 일자리로 정주 자격을 얻게 하는 길을 들여온 것이 낳은 주된 결과는 한 해 단위로 고용하는 낡은 관행을 크게 없애 버린 것이었다. 그 관행은 그전까지 잉글랜드에서 워낙 흔하였으므로, 오늘날에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하인마다 한 해 단위로 고용된 것으로 법이 새긴다. 그러나 고용주는 하인을 이런 길로 고용하여 그에게 정주 자격을 주려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은 아니며, 하인도 그렇게 고용되려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니, 마지막 정주 자격이 그전의 모든 정주

자격을 없애 버리므로 그로써 제가 태어난 곳, 곧 제 부모와 친척이 사는 곳에서 지녔던 본래의 정주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일하는 일꾼이라면 노동자든 수공업자든 도제살이로든 일자리로든 새 정주 자격을 얻을 법하지 않음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제 근면을 새 교구로 옮겨 갔을 때,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부지런하더라도 어느 교구 위원이나 감독관의 변덕에 따라 내쫓길 수 있었으니, 다만 그가 한 해 10파운드짜리 집을 세내거나, 곧 제 노동 말고는 살아갈 것이 없는 이에게는 될 수 없는 일이거나, 교구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보증을 치안 판사 두 사람이 넉넉하다고 여길 만큼 내놓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이 어떤 보증을 요구할지는 온통 그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30파운드보다 적은 것을 요구하기는 좀처럼 어려우니, 값이 30파운드가 못 되는 자유 보유 부동산을 사는 것조차 교구에 짐이 되지 않게 하기에 넉넉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도 정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처럼 내놓을 수 없는 보증이며, 그보다 훨씬 큰 보증이 요구되는 일도 흔하다.

이 여러 법령이 거의 온통 빼앗아 가 버린 저 자유로운 노동의 흐름을 얼마쯤 되살리려고 증명서라는 방책이 생각해 내어졌다. 윌리엄 3세 치세 8년과 9년의 법으로, 누구든 제가 마지막으로 법에 맞게 정주 자격을 얻었던 교구에서 교구 위원과 빈민 감독관이 서명하고 치안 판사 두 사람이 인정한 증명서를 가져오면 다른 모든 교구가 그를 받아들이도록 묶이고, 그가 교구에 짐이 될 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내쫓기지 않고 실제로 짐이 되었을 때에만 내쫓기며, 그때에는 증명서를 내준 교구가 그를 먹이는 비용과 내쫓는 비용을 함께 물도록 묶인다고 정하여졌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와서 사는 교구에

가장 온전한 보증을 주려고, 같은 법령으로 그가 한 해 10파운드짜리 집을 세내거나 제 몫으로 한 해 임기의 교구 직책을 한 해 내내 맡는 것을 빼면 어떤 길로도 거기서 정주 자격을 얻지 못하며, 따라서 통고로도 일자리로도 도제살이로도 교구 부과금을 내는 것으로도 얻지 못한다고 다시 정하여졌다. 또 앤 여왕 치세 12년의 법 제1편 제18장으로, 그렇게 증명서를 가진 사람의 하인도 도제도 그가 그런 증명서로 사는 교구에서 정주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다시 정하여졌다.

이 방책이 앞의 여러 법령이 거의 온통 빼앗아 가 버린 저 자유로운 노동의 흐름을 얼마나 되살렸는지는 번 박사의 다음과 같은 아주 슬기로운 관찰에서 배울 수 있다. "어느 곳이든 와서 자리 잡는 사람에게 증명서를 요구할 만한 좋은 까닭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뚜렷하다," 그는 말한다, "곧 증명서로 사는 사람은 도제살이로도 일자리로도 통고로도 교구 부과금을 내는 것으로도 정주 자격을 얻을 수 없고, 도제도 하인도 그곳에 정주하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이 교구에 짐이 되면 어디로 돌려보낼지 틀림없이 알 수 있고 그 교구가 돌려보내는 비용과 그동안 먹이는 비용을 물어 줄 것이며, 그들이 병들어 옮길 수 없게 되면 증명서를 내준 교구가 그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 모두가 증명서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까닭들은 교구가 예사로운 경우에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 편이 낫다는 쪽으로도 그만큼 들어맞을 것이니,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을 더 나쁜 형편으로 되돌려 받게 될 쪽이 반반보다 훨씬 더 어림이 크기 때문이다." 이 관찰의 교훈은, 증명서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사는 교구가 늘 요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가 떠나려는 교구는 아주 드물게만 내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듯하다. "이 증명서라는 일에는 얼마쯤 모진 것이 있다," 같은 아주 슬기로운 지은이는 제 《구빈법의 역사》에서 말한다, "사람이 이른바 정주 자격을 얻는 불행을 맞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 아무리

거북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살면서 제 앞에 어떤 이로움을 그려 보더라도, 교구 관리에게 그를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할 힘을 쥐여 주기 때문이다."

증명서는 그와 함께 잘 처신하였다는 증언을 지니고 다니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실제로 딸려 있는 교구에 딸려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주는 것도 물리는 것도 온통 교구 관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교구 위원과 감독관에게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직무 이행 명령이 한 번 청구되었으나, 왕좌 법원은 그 청구를 아주 괴상한 시도라 하여 물리쳤다고 번 박사는 말한다.

잉글랜드에서 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들 사이에 노동의 값이 몹시 고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아마 증명서 없이 제 근면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옮기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정주법이 가로막는 것에서 비롯한다. 참으로 건강하고 부지런한 홀몸의 남자라면 더러 증명서 없이 눈감아 주는 대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내와 식구가 있는 남자가 그렇게 하려 든다면 대부분의 교구에서 틀림없이 내쫓길 것이며, 그 홀몸의 남자가 뒤에 혼인한다면 그도 대개 내쫓길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구의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다른 교구에 일손이 남는 것으로 늘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스코틀랜드에서 늘 그렇게 메워지고 정주 자격에 어려움이 없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메워진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나라에서도 큰 도시의 이웃이나 그 밖에 노동에 대한 유별난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임금이 더러 얼마쯤 오르고 그런 곳에서 멀어짐에 따라 차츰 내려가 그 나라의 흔한 이율로 되돌아가기는 한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 우리가 더러 보는 저 이웃한 곳들 사이의 갑작스럽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임금의 차이를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결코 만나지 못하니, 잉글랜드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교구라는 인공의 경계를 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더러 임금의 이율을 아주 또렷하게

갈라놓는 자연의 경계인 바다의 한 팔이나 높은 산줄기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흔하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제가 살기로 고른 교구에서 내쫓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유와 정의를 뚜렷이 짓밟는 일이다. 그러나 제 자유를 그토록 시샘하여 지키면서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흔한 사람들처럼 그 자유가 무엇에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잉글랜드의 흔한 사람들은, 이제 백 년이 넘도록 제 몸이 이 억누름에 놓이는 것을 아무런 바로잡음 없이 참아 왔다. 또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도 더러 정주법을 세상의 괴로움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그것이 두루 걸친 백성의 떠들썩한 소리의 대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틀림없이 폐단이기는 하나 두루 걸친 억누름을 낳을 법하지는 않았던 저 일반 영장에 맞선 떠들썩한 소리와는 달랐다. 잉글랜드에서 마흔 살이 된 가난한 사람 가운데 제 삶의 어느 대목에서 이 잘못 꾸며진 정주법에 가장 모질게 억눌린다고 느껴 보지 않은 이는 거의 없다고 나는 감히 말하겠다.

나는 이 긴 장을 다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맺으려 한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왕국 전체에 미치는 일반 법으로, 그 뒤에는 주마다 치안 판사들의 개별 명령으로 임금을 매기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나, 이 두 관행은 이제 온통 쓰이지 않게 되었다. “400년이 넘는 경험으로 보면,” 번 박사는 말한다, “그 성질로 보아 잘게 한정할 수 없는 듯한 것을 엄한 규정 아래 두려는 모든 애를 이제 접어 둘 때가 된 듯하다. 같은 종류의 일감에 몸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겨루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고 근면이나 재주가 들어설 자리가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개별 법은 여전히 더러 특정한 생업과 특정한 곳에서 임금을 매기려 든다. 이를테면 조지 3세 치세 8년의 법은 무거운 벌칙 아래, 런던과 그 5마일 안의 모든 재봉 고용주가 하루 2실링 7펜스 반을

넘게 주는 것과 그 일꾼이 그것을 받는 것을 금하는데, 다만 나라가 두루 상을 치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입법부가 고용주와 그 일꾼 사이의 다름을 매기려 들 때마다 그 조언자는 언제나 고용주들이다. 그러므로 그 규정이 일꾼에게 이로울 때에는 그것이 언제나 옳고 공평하지만, 고용주에게 이로울 때에는 더러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여러 다른 생업의 고용주에게 제 일꾼의 삯을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물도록 강요하는 법은 아주 옳고 공평하다. 그것은 고용주에게 아무런 실제의 모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물건으로 물어 주는 척하면서도 늘 실제로 물어 주지는 않았던 그 가치를 돈으로 물도록 강요하는 데 그친다. 이 법은 일꾼에게 이롭다. 그러나 조지 3세 치세 8년의 법은 고용주에게 이롭다. 고용주들이 제 일꾼의 임금을 끌어내리려고 단합할 때 그들은 대개 일정한 벌칙 아래 일정한 임금보다 많이 주지 않기로 하는 사사로운 계약이나 합의에 들어간다. 만일 일꾼들이 같은 종류의 반대 방향 단합에 들어가 일정한 벌칙 아래 일정한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면 법은 그들을 아주 엄하게 벌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치우치지 않고 다루려 한다면 고용주도 같은 길로 다룰 것이다. 그러나 조지 3세 치세 8년의 법은 고용주들이 더러 그런 단합으로 세우려 드는 바로 그 규정을 법으로 밀어붙인다. 그것이 가장 솜씨 있고 가장 부지런한 일꾼을 예사로운 일꾼과 같은 자리에 놓는다는 일꾼들의 하소연은 온전히 옳은 바탕이 있는 듯하다.

또 옛날에는 식료품과 다른 물건의 값을 매김으로써 상인과 다른 장사꾼의 이윤을 매기려 드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빵값 공정은[14] 내가 아는 한 이 옛 관행에 남은 유일한 자취다. 배타적 동업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마 알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경쟁이 어떤 공정보다도 훨씬 잘 그것을 매길 것이다. 조지 2세 치세 31년의 법으로 세워진 빵값

공정을 정하는 방법은 스코틀랜드에서는 법의 결함 때문에 실행될 수 없었으니, 그 집행이 거기에는 없는 시장 관리인이라는 직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함은 조지 3세 치세 3년의 법에 이르러서야 바로잡혔다. 공정이 없다는 것이 느낄 만한 거북함을 낳지 않았고, 그것이 세워진 몇 곳에서도 아직 느낄 만한 이로움을 낳지 않았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도시 대부분에는 빵 굽는 이들의 조합이 있어서 배타적 특권을 주장하는데, 그 특권이 아주 엄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노동과 자산의 여러 쓰임새에서 임금과 이윤의 여러 이율 사이의 비율은, 이미 살펴본 대로 사회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나아가는 상태인가 멈춘 상태인가 기울어 가는 상태인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세상의 형편에 그런 뒤집힘이 있으면 임금과 이윤의 두루 걸친 이율이 흔들리기는 하나, 끝에는 여러 다른 쓰임새에서 그것들을 똑같이 흔들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것들 사이의 비율은 그대로 남을 것이 틀림없으며, 적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는 그런 뒤집힘으로 좀처럼 바뀔 수 없다.

---

1.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2. 옮긴이 —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는 본디 「단체」를 뜻하여 어떤 조합이든 가리켰다. 오늘날의 「대학」은 그 가운데 학문을 가르치던 단체가 이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3.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제N장」은 그해 법령집에서 몇 번째 법인가를 가리킨다. 엘리자베스 치세 5년의 법은 1563년의 것으로, 직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814년에 폐지되었다.

4. 옮긴이 — 「비법」으로 옮긴 미스터리(mystery)는 중세 이래 동업조합이 쥐고 바깥에 알리지 않던 기술을 가리키던 법률 용어다. 「생업, 기술, 비법」은 법령이

쓰던 정해진 문구다.

5. 옮긴이 — 스털링 표시는 은의 순도를 보증하려고 은제품에 찍던 검인이다.

6. 옮긴이 — 사생 길드는 국왕의 특허장 없이 동업조합처럼 행세한 조합을 가리킨다. 토머스 매독스의 《피르마 부르기》는 1726년에 나온 책으로, 영국 자치 도시의 특권을 다루었다.

7. 옮긴이 — 큐레이트는 교구 주임 사제를 돕거나 대리하던 성직자이고, 채플린은 개인이나 단체에 딸려 있던 성직자다. 둘 다 성직록을 받지 못하고 보수를 받았다.

8. 옮긴이 — 마크는 실제 화폐가 아니라 셈에 쓰던 단위로, 1마크는 13실링 4펜스다.

9. 옮긴이 — 노동자법은 에드워드 3세 치세 25년, 곧 1351년의 법으로, 흑사병으로 일손이 줄어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 한 법이다.

10. 옮긴이 — 미나는 고대 그리스의 은 무게이자 셈에 쓰던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에 해당한다. 디닥트론은 가르침의 값으로 받는 돈을 말한다.

11. 옮긴이 — 구빈법은 교구마다 제 교구의 빈민을 먹이도록 한 법 체계다. 리처드 번의 《구빈법의 역사》는 1764년에 나왔다.

12. 옮긴이 — 엘리자베스 치세 43년의 법 제2장은 1601년의 구빈법이다. 이 법이 세운 교구 단위의 빈민 부양이 뒤에 이어지는 정주 관련 법령들의 바탕이 되었다.

13. 옮긴이 — 번(1709~1785)은 잉글랜드의 성직자이자 법률 저술가로, 치안 판사를 위한 편람과 《구빈법의 역사》를 썼다.

14. 옮긴이 — 빵값 공정은 관청이 곡물 값에 맞추어 빵의 무게와 값을 정해 고시한 제도로, 영국에서 13세기부터 이어졌다.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토지를 쓰는 값으로 물리는 것으로 볼 때, 지대는 그 토지가 놓인 실제 사정에서 차지인(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차지 계약의 조건을 매길 때 지주는, 차지인이 씨앗을 대고 노동에 값을 물고 가축과 그 밖의 농사 도구를 사서 건사하는 밑이 되는 자산을 지탱하기에 넉넉한 만큼과 그 근방에서 농사 자산이 예사로 얻는 이윤을 더한 것보다 더 큰 생산물의 몫은 그에게 남겨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것은 차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몫임이 분명하며, 지주가 그보다 더 많이 남겨 줄 마음을 먹는 일은 좀처럼 없다. 생산물 가운데,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 가운데 이 몫을 넘는 부분은 무엇이든 지주가 자기 토지의 지대로 제 것으로 남겨 두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곧 그 토지가 놓인 실제 사정에서 차지인이 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임이 분명하다. 물론 지주의 너그러움이, 더 잦게는 그의 무지가 이 몫보다 얼마쯤 적은 것을 더러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또 더 드물기는 하나 차지인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근방의 농사 자산이 예사로 얻는 이윤보다 얼마쯤 더 많이 물기로 하거나 얼마쯤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 몫은 여전히 토지의 자연 지대, 곧 토지가 대개 그 값으로 세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할 지대로 여길 수 있다.

토지의 지대란 지주가 그 토지를 개량하느라 들인 자산에 대한 웬만한 이윤이나 이자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쯤 사실일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느 때에도 얼마쯤 사실인 정도를 넘어서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지주는 개량하지 않은 토지에도 지대를 요구하며, 개량에 든 비용에 대한 이자나 이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대개 이 본래의 지대에 덧붙는다. 게다가 그런 개량이 언제나 지주의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는 차지인의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차지 계약을 새로 맺을 때가 되면 지주는 그 개량이 모두 자기 자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은 지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예사다.

지주는 사람의 개량이 아예 미칠 수 없는 것에도 더러 지대를 요구한다. 켈프는 바닷말의 한 가지로, 태우면 알칼리성 소금을 내놓는데 이것은 유리와 비누를 만드는 데,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쓰임새에 요긴하다. 그것은 영국의 여러 곳,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자라는데 만조선 안쪽에 놓인 바위 위에서만 자라며, 그 바위는 날마다 두 번 바다에 덮이므로 그 생산물이 사람의 근면으로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켈프 바닷가를 자기 땅의 경계로 삼은 지주는 그것에도 자기 곡물밭에 대해서와 똑같이 지대를 요구한다.

셰틀랜드 섬들 근방의 바다는 예사보다 훨씬 고기가 많으며, 그 고기는 그곳 사람들의 생계에서 큰 몫을 이룬다. 그러나 물에서 나는 것으로 벌이를 얻으려면 그들은 근방의 땅에 살 집을 두어야 한다. 지주가 받는 지대는 농부가 그 땅으로 벌 수 있는 것에 비례하지 않고 땅과 물 양쪽으로 벌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그 지대는 얼마쯤 바닷고기로 물린다. 지대가 그 상품 값의 한 몫을 이루는 아주 드문 보기 가운데 하나를 그 고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쓰는 값으로 물리는 것으로 볼 때 토지의 지대는 본래 독점 가격이다. 그것은 지주가 토지를 개량하느라 들였을 것에도, 그가 받을 만한 것에도 전혀 비례하지 않고 농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예사로운 값이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데 부려야 하는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우기에 넉넉한 부분만이 대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예사로운 값이 이보다 높으면 남는 부분은 자연히 그 토지의 지대로 간다. 그보다 높지 않으면 그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어도 지주에게 지대를 낳아 줄 수 없다. 값이 그보다 높은지 높지 않은지는 수요에 달려 있다.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는 그것을 시장에 내오기에 넉넉한 값보다 더 높은 값을 낳아 줄 만한 수요가 언제나 붙는 것이 있고, 그런 더 높은 값을 낳아 줄 만한 수요가 붙을 때도 있고 붙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있다. 앞의 것은 반드시 언제나 지주에게 지대를 낳아 준다. 뒤의 것은 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대를 낳을 때도 있고 낳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지대가 상품 값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길은 임금과 이윤이 들어가는 길과 다르다는 데 눈여겨볼 바가 있다. 임금과 이윤이 높거나 낮은 것은 값이 높거나 낮은 원인이고, 지대가 높거나 낮은 것은 그 결과다. 어떤 상품을 시장에 내오려면 높거나 낮은 임금과 이윤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값이 높거나 낮은 것이다. 그러나 그 값이 그 임금과 이윤을 물기에 넉넉한 것보다 훨씬 높거나 아주 조금 높거나 조금도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낳거나 낮은 지대를 낳거나 지대를 아예 낳지 못한다.

이 장은 세 절로 갈린다. 첫째로 언제나 얼마간의 지대를 낳는 토지 생산물을 따로 살피고, 둘째로 지대를 낳을 때도 있고 낳지 않을 때도 있는 생산물을 살피며, 셋째로 개량이 여러 단계를 지나는 동안 이 두

가지 원생산물이 서로 견주어서나 제조품과 견주어서나 그 상대 가치에서 자연히 겪는 변화를 살핀다.

1절 — 언제나 지대를 낳는 토지 생산물에 대하여

사람도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제 생계의 밑천에 비례하여 불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먹을 것에는 언제나 얼마간의 수요가 있다. 먹을 것은 언제나 더 많거나 더 적은 양의 노동을 사거나 부릴 수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을 언제나 찾을 수 있다. 물론 먹을 것이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은, 노동에 더러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 까닭에 가장 아껴 쓸 때 먹여 살릴 수 있는 양과 언제나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 근방에서 그런 종류의 노동이 예사로 먹여 살려지는 이율에 따라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노동은 언제나 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는 거의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데 드는 노동을 그 노동이 먹여 살려지는 가장 넉넉한 길로 다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먹을 것을 낸다. 그리고 그 남는 몫은 언제나 그 노동을 부린 자산과 그 이윤을 메우기에 넉넉한 정도를 넘는다. 그러므로 지주에게 지대로 갈 것이 언제나 얼마쯤 남는다.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가장 메마른 황무지도 가축에게 얼마간의 목초를 내주며, 그 가축에서 나는 젖과 불어나는 새끼는 그것을 돌보는 데 드는 노동을 다 먹여 살리고 농부나 가축 떼 임자에게 예사로운 이윤을 물어 주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지주에게 얼마간의 작은 지대까지 낳아 주기에도 언제나 넉넉하다. 지대는 목초지가 좋은 만큼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같은 넓이의 땅이 더 많은 수의 가축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그 가축이 더 좁은 자리 안에 모이므로 그것을 돌보고 그 생산물을 걷는 데 드는 노동이 적어진다. 지주는 양쪽에서 다 얻는다. 생산물이

늘어나는 데서 얻고, 그 생산물로 먹여 살려야 할 노동이 줄어드는 데서 얻는다.

토지의 지대는 그 생산물이 무엇이든 기름짐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그 기름짐이 어떠하든 놓인 자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도시 근방의 토지는 시골 멀리 있는 똑같이 기름진 토지보다 더 많은 지대를 낸다. 한쪽을 갈아 가꾸는 데 다른 쪽보다 더 많은 노동이 들지 않더라도, 먼 곳 토지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오는 데는 반드시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그 생산물로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먹여 살려야 하고, 농부의 이윤과 지주의 지대를 다 끌어내는 그 남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골의 먼 곳에서는 이미 밝혀 보인 대로 이윤율이 대개 큰 도시 근방보다 높다. 그러므로 이 줄어든 남는 몫 가운데 지주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좋은 길과 운하,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은 운반 비용을 줄임으로써 시골의 먼 곳을 도시 근방의 곳과 더 비슷한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모든 개량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것들은 먼 곳을 갈아 가꾸도록 북돋우는데, 그 먼 곳이야말로 언제나 시골에서 가장 넓은 둘레를 이룬다. 그것들은 도시 근방 시골이 쥔 독점을 깨뜨림으로써 도시에도 이롭다. 심지어 그 근방 시골에도 이롭다. 그것들이 예전 시장에 겨루는 상품을 얼마간 끌어들이기는 하나, 그 시골의 생산물에는 많은 새 시장을 열어 준다. 게다가 독점은 좋은 경영의 큰 적이며, 좋은 경영은 누구나 제 몸을 지키려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자유롭고 두루 미치는 겨룸이 있고서야 널리 자리 잡는다. 런던 근방의 몇몇 주가 유료 도로[1]를 더 먼 주들로 늘리는 데 반대하여 의회에 청원한 것은 50년이 넘지 않은 일이다. 그들이 내세운 말로는, 그 먼 주들이 노동이 싼 덕에 런던 시장에서 자기들보다 풀과 곡물을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어 자기들의

지대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갈이를 망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의 지대는 올랐고 그들의 갈이는 나아졌다.

웬만큼 기름진 곡물밭은 같은 넓이의 가장 좋은 목초지보다 사람에게 훨씬 많은 양의 먹을 것을 낸다. 그것을 갈아 가꾸는 데 훨씬 많은 노동이 들기는 하나, 씨앗을 메우고 그 노동을 다 먹여 살린 뒤에 남는 몫도 그만큼 훨씬 크다. 그러므로 푸줏간 고기 1파운드(무게)가 빵 1파운드(무게)보다 더 값나간다고 여겨지는 일이 결코 없었다면, 이 더 큰 남는 몫이 어디서나 더 큰 가치를 지니고 농부의 이윤과 지주의 지대 양쪽을 위한 더 큰 자금을 이루었을 것이다. 농사가 거친 첫 시절에는 어디서나 그러했던 듯하다.

그러나 빵과 푸줏간 고기라는 이 두 가지 먹을 것의 상대 가치는 농사의 여러 단계에서 크게 다르다. 거친 첫 시절에는 그 무렵 나라의 훨씬 큰 몫을 차지하는 개량하지 않은 들판이 모두 가축에게 내맡겨진다. 빵보다 푸줏간 고기가 더 많으므로 빵이야말로 가장 큰 겨룸이 붙는 먹을 것이고 따라서 가장 높은 값을 받는다. 우요아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년이나 50년 전에 레알 4개, 곧 스털링 21펜스 반[2]이 200마리나 300마리 떼에서 골라낸 소 한 마리의 예사로운 값이었다. 그는 빵 값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마 그것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에서 소 한 마리는 그것을 붙잡는 노동보다 조금 더 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곡물은 어디서도 많은 노동 없이 길러낼 수 없다. 그리고 그 무렵 유럽에서 포토시의 은광으로 곧장 이어지던 길목인 라플라타강에 걸친 고장에서 노동의 화폐 가격이 아주 쌌을 수는 없다.[3] 나라의 큰 몫에 걸쳐 갈아 가꾸는 땅이 넓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에는 푸줏간 고기보다 빵이 더 많다. 겨룸이 방향을 바꾸고 푸줏간 고기 값이 빵 값보다 높아진다.

게다가 갈아 가꾸는 땅이 넓어지면서 개량하지 않은 들판은 푸줏간 고기에 대한 수요를 대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된다.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을 가축을 기르고 살찌우는 데 부려야 하며, 그러므로 그 가축의 값은 그것을 돌보는 데 드는 노동을 물어 주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그런 땅을 갈이에 부렸을 때 지주가 끌어낼 수 있었을 지대와 농부가 끌어낼 수 있었을 이윤까지 물어 주기에 넉넉해야 한다. 가장 갈아 가꾸지 않은 황무지에서 난 가축도 같은 시장에 나오면 그 무게나 좋기에 비례하여 가장 잘 개량한 땅에서 기른 가축과 같은 값에 팔린다. 그 황무지의 임자들은 이것으로 벌이를 얻고 자기 가축 값에 비례하여 자기 땅의 지대를 올린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여러 곳에서 푸줏간 고기가 오트밀로 만든 빵만큼 싸거나 그보다 더 쌌던 것은 백 년이 넘지 않은 일이다. 연합법[4]은 하일랜드의 가축에게 잉글랜드 시장을 열어 주었다. 그 가축의 예사로운 값은 이제 이 세기 초보다 세 배쯤 높고, 하일랜드의 여러 땅에서 지대가 같은 동안에 세 배 네 배로 올랐다. 영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요즘 가장 좋은 푸줏간 고기 1파운드(무게)는 대개 가장 좋은 흰 빵 2파운드(무게)보다 값나가며, 넉넉한 해에는 더러 3파운드(무게)나 4파운드(무게)만큼 값나간다.

이리하여 개량이 나아가는 동안 개량하지 않은 목초지의 지대와 이윤은 얼마쯤 개량한 목초지의 지대와 이윤에 다스려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곡물의 지대와 이윤에 다스려지게 된다. 곡물은 한 해에 거두는 작물이고 푸줏간 고기는 자라는 데 네 해나 다섯 해가 드는 작물이다. 그러므로 1에이커의 땅이 한쪽 먹을 것을 다른 쪽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내놓으므로, 양이 모자라는 것은 값이 높은 것으로 메워져야 한다. 그것이 넘치게 메워진다면 더 많은 곡물밭이 목초지로 바뀔 것이고, 메워지지 않는다면 목초지로 있던 땅의 얼마가 다시 곡물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풀의 지대와 이윤이 곡물의 지대와 이윤과 같아지는 이것, 곧 바로 나는 생산물이 가축의 먹이인 땅과 바로 나는 생산물이 사람의 먹을 것인 땅 사이에서 그 둘이 같아지는 이것은 큰 나라에서 개량한 땅의 큰 몫에 걸쳐서만 일어난다고 알아들어야 한다. 몇몇 특별한 고장에서는 사정이 아주 달라서 풀의 지대와 이윤이 곡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이리하여 큰 도시 근방에서는 젖과 말먹이에 대한 수요가 푸줏간 고기의 높은 값과 더불어 풀의 가치를 곡물 가치에 대한 이른바 자연스러운 비율보다 높이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는 일이 잦다. 이런 고장의 이로움은 멀리 있는 땅에는 옮겨 갈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남다른 사정이 어떤 나라를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그 온 땅이 큰 도시 근방의 토지처럼 그곳 사람들의 생계에 드는 풀과 곡물을 다 내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된 일이 더러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주로 부피가 더 크고 먼 곳에서 그리 쉽게 실어 올 수 없는 상품인 풀을 내는 데 부려졌고,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인 곡물은 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다. 네덜란드가 지금 이런 사정에 있고, 옛 이탈리아의 적지 않은 부분이 로마인이 번성하던 동안에 그러했던 듯하다. 키케로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 노 카토[5]는 가축을 잘 먹이는 것이 사삿집 땅을 다스리는 데서 첫째로 가장 벌이가 되는 일이고, 웬만큼 먹이는 것이 둘째이며, 나쁘게 먹이는 것이 셋째라고 하였다. 밭을 가는 것은 벌이와 이로움에서 넷째 자리에나 놓았다. 실제로 옛 이탈리아에서 로마 근방에 놓인 곳의 갈이는, 백성에게 공짜로 또는 아주 낮은 값으로 자주 나누어 준 곡물 때문에 크게 꺾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 곡물은 정복한 속주에서 실어 온 것이었고, 그 가운데 여러 곳은 세금 대신에 자기 생산물의 10분의 1을 정해진 값, 곧 한 펙에 6펜스쯤으로 공화국에 바쳐야 했다. 이 곡물이 백성에게 나누어진 낮은 값은 라티움, 곧 로마의 옛 땅에서

로마 시장에 내올 수 있었던 곡물의 값을 끌어내렸을 수밖에 없고, 그 고장에서 곡물을 갈아 가꾸는 일을 꺾었을 수밖에 없다.

또 주로 곡물이 나는 터진 고장에서는 울타리를 잘 둘러친 풀밭 한 조각이 그 근방의 어느 곡물밭보다 높은 지대를 받는 일이 잦다. 그것은 곡물을 갈아 가꾸는 데 부리는 가축을 먹이기에 편하며, 이때 그 높은 지대는 그 풀밭 자체의 생산물이 지닌 가치에서 물리는 것이라기보다 그 풀밭의 힘으로 갈아 가꾸는 곡물밭의 가치에서 물리는 것이다. 근방의 땅에 울타리가 두루 둘러지면 그 지대는 내려갈 듯하다. 스코틀랜드에서 울타리 두른 땅의 지대가 지금 높은 것은 울타리 두른 땅이 드물기 때문인 듯하며, 그것이 드물지 않게 되면 그 높은 지대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울타리의 이로움은 곡물보다 목초지에 더 크다. 그것은 가축을 지키는 노동을 덜어 주며, 가축도 지키는 사람이나 그 개에게 시달릴 일이 없을 때 더 잘 먹는다.

그러나 이런 고장의 이로움이 없는 곳에서는 곡물, 또는 그 밖에 사람들이 흔히 먹는 식물성 먹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지대와 이윤이 그것을 내기에 알맞은 땅에서 목초지의 지대와 이윤을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심어 기르는 풀과 순무, 당근, 양배추를 쓰는 것, 그리고 같은 넓이의 땅이 저절로 난 풀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가축을 먹이게 하려고 찾아낸 그 밖의 방책은, 개량한 나라에서 푸줏간 고기 값이 빵 값에 대하여 본래 지니는 우위를 얼마쯤 줄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러했던 듯하며, 적어도 런던 시장에서는 빵 값에 견준 푸줏간 고기 값이 지난 세기 초보다 요즘 훨씬 낮다고 믿을 만한 까닭이 얼마쯤 있다.

버치 박사는 헨리 왕자[6] 전기의 부록에서 그 왕자가 예사로 물었던 푸줏간 고기 값을 우리에게 적어 주었다. 거기에 적힌 바로는 무게가 600파운드(무게)인 소 한 마리의 네 토막이 예사로 9파운드 10실링쯤

들었으니, 100파운드(무게)마다 31실링 8펜스인 셈이다. 헨리 왕자는 1612년 11월 6일에 나이 열아홉째 해로 죽었다.

1764년 3월에 그 무렵 식료품 값이 높은 까닭을 두고 의회 조사가 있었다. 그때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와 더불어 어느 버지니아 상인이 증언한 바로는, 1763년 3월에 그는 소고기 1헌드레드웨이트에 24실링이나 25실링으로 자기 배에 식량을 실었고 그것을 예사로운 값으로 여겼는데, 그 값비싼 해에는 같은 무게와 같은 종류에 27실링을 물었다. 그러나 1764년의 이 높은 값은 헨리 왕자가 물었던 예사로운 값보다 4실링 8펜스 싸며, 그런 먼 뱃길을 위하여 소금에 절이기에 알맞은 것은 가장 좋은 소고기뿐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헨리 왕자가 물었던 값은 낮은 부위와 고급 부위를 함께 셈하여 몸통 전체로 1파운드(무게)마다 3과 5분의 4펜스에 해당하며, 그 이율이라면 고급 부위는 1파운드(무게)에 4펜스 반이나 5펜스보다 싸게 소매로 팔릴 수 없었을 것이다.

1764년의 의회 조사에서 증인들은 가장 좋은 소고기의 고급 부위 값이 쓰는 사람에게 1파운드(무게)에 4펜스와 4펜스 반이고, 낮은 부위는 대개 7파딩에서 2펜스 반과 2펜스 4분의 3까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종류의 부위가 3월에 예사로 팔리던 값보다 대개 반 펜스 비싼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나 이 높은 값조차도 헨리 왕자 때의 예사로운 소매 값이었으리라고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싸다.

지난 세기의 첫 12년 동안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의 평균 값은 윈체스터 부셸 9개에 해당하는 1쿼터[7]에 1파운드 18실링 3펜스 반이었다.

그런데 1764년까지의 12년 동안 같은 시장에서 같은 되로 잰 가장 좋은 밀의 평균 값은 2파운드 1실링 9펜스 반이었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의 첫 12년 동안에는 1764년까지의 12년 동안보다 밀이 훨씬 싸고 푸줏간 고기는 훨씬 비쌌던 듯하다.

모든 큰 나라에서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은 사람의 먹을 것이나 가축의 먹이를 내는 데 부려진다. 이런 땅의 지대와 이윤이 그 밖에 갈아 가꾼 모든 땅의 지대와 이윤을 다스린다. 어떤 생산물이 그보다 적게 낳으면 그 땅은 곧 곡물밭이나 목초지로 바뀔 것이고, 어떤 생산물이 그보다 많이 낳으면 곡물밭이나 목초지로 있던 땅의 얼마가 곧 그 생산물로 돌려질 것이다.

물론 땅을 그것에 맞게 만들려면 개량에 처음부터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해마다 갈아 가꾸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물은, 앞의 것은 곡물이나 목초지보다 더 많은 지대를, 뒤의 것은 더 많은 이윤을 낳는 것이 예사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우위가 그 더 많은 비용에 대한 웬만한 이자나 보상을 넘는 정도에 이르는 일은 좀처럼 없다.

홉밭과 과일밭과 남새밭에서는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이 대개 곡물밭이나 풀밭에서보다 많다. 그러나 땅을 이런 형편으로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지주에게 더 많은 지대가 돌아가야 하게 된다. 또 더 살피고 더 솜씨 있는 경영이 든다. 그래서 농부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야 하게 된다. 게다가 적어도 홉밭과 과일밭에서는 수확이 더 미덥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 값은 이따금 나는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보험의 이윤 같은 것을 낳아 주어야 한다. 대개 낮고 언제나 대수롭지 않은 원정들의 형편은, 그들의 뛰어난 재주가 예사로 지나치게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줄 것이다. 그 즐거운 기예를 하도 많은 부자가 소일거리로 하는 바람에, 벌이를 위하여 그것을 하는 이들이 얻을 이로움은 적다. 자연히 그들의 가장 좋은 손님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값진 생산물을 모두 제 손으로 마련하기 때문이다.

지주가 그런 개량에서 얻는 이로움이 그것을 이루는 데 처음 든 비용을 메우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컸던 적은 어느 때에도 없었던 듯하다. 옛 농사에서는 포도밭 다음으로 물을 잘 댄 남새밭이 가장 값진 생산물을 낸다고 여겨진 농장의 부분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2000년쯤 전에 농사에 대하여 글을 썼고 옛사람들이 그 기예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로 여긴 데모크리토스[8]는 남새밭에 담을 두르는 이들이 슬기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말로는 그 벌이가 돌담에 드는 비용을 메우지 못할 것이며, 벽돌(내 생각으로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뜻했을 것이다)은 비와 겨울 폭풍에 부스러져 끊임없이 손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이 판단을 전하는 콜루멜라는 그것에 맞서지 않고, 가시나무와 들장미로 산울타리를 두르는 아주 아낌 있는 길을 내놓는데, 그는 그것이 오래가고 뚫리지 않는 울이라는 것을 겪어 보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데모크리토스 때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듯하다. 팔라디우스는 콜루멜라의 생각을 따르는데, 그 생각은 그전에 바로가 권한 것이었다. 그 옛 개량가들의 판단으로는 남새밭의 생산물이 남다르게 가꾸는 일과 물 대는 비용을 물기에 넉넉한 정도를 조금 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듯하다. 해에 그처럼 가까운 고장에서는 그때도 지금처럼 밭의 모든 두둑으로 끌어 댈 수 있는 물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럽의 큰 몫에 걸쳐 남새밭은 지금도 콜루멜라가 권한 것보다 나은 울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영국과 그 밖의 몇몇 북쪽 고장에서는 더 좋은 과일이 담의 도움 없이는 잘 익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고장에서 그 과일의 값은 그것 없이는 과일을 얻을 수 없는 그 담을 세우고 건사하는 비용을 물기에 넉넉해야 한다. 과일나무 담은 남새밭을 둘러싸는 일이 잦으며, 그래서 남새밭은 제 생산물로는 좀처럼 물 수 없는 울의 덕을 누린다.

포도밭을 제대로 심어 잘 키워 놓으면 그것이 농장에서 가장 값진 부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포도주 나는 모든 고장에서 그렇듯이 옛 농사에서도 의심할 것 없는 금언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새 포도밭을 심는 것이 이로운가는 옛 이탈리아 농사꾼들 사이에서 다투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콜루멜라에게서 알게 된다. 그는 남다르게 공들이는 가꾸기라면 무엇이든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답게 포도밭 쪽으로 판을 내리고, 벌이와 비용을 견주어 그것이 가장 이로운 개량이라는 것을 밝혀 보이려 애쓴다. 그러나 새 사업의 벌이와 비용을 그렇게 견주는 것은 예사로 크게 어긋나기 쉬우며, 농사에서보다 더 그러한 데는 없다. 그런 밭을 심어 실제로 얻은 이득이 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예사로 컸다면 그것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포도주 나는 고장에서 자주 다투는 거리가 된다. 실제로 그 고장의 농사 저술가들, 곧 공들여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북돋우는 이들은 대개 콜루멜라와 함께 포도밭 쪽으로 판을 내리려는 듯하다. 프랑스에서 오래된 포도밭 임자들이 새 포도밭이 심기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듯하며, 겪어 보아 알 만한 이들이 이 갈래의 가꾸기가 지금 그 나라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생각, 곧 이 남다른 벌이가 지금 포도를 자유로이 가꾸는 것을 묶어 두는 법보다 오래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보여 주는 듯하다. 1731년에 그들은 국왕 참사회의 명령[9]을 얻어 냈는데, 그것은 새 포도밭을 심는 것과 두 해 동안 가꾸기가 끊겼던 오래된 포도밭을 되살리는 것을 함께 금하되, 그 주의 앵탕당이 그 땅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가꾸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알려 온 뒤에야 내려지는 왕의 특별한 허락이 있으면 풀어 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이 내세운 구실은 곡물과 목초지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남쳐 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남쳐 도는 것이 참이었다면, 참사회의 어떤 명령도 없이 이 갈래 가꾸기의 이윤을 곡물과 목초지의 이윤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율 밑으로 끌어내려 새 포도밭이 심기는 것을 제대로 막았을 것이다. 포도밭이 늘어난 탓에 곡물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고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곡물이 땅이 그것을 내기에 알맞은 포도주 주들, 곧 부르고뉴와 기옌과 상 랑그도크에서보다 더 정성껏 가꾸어지는 곳은 없다. 한 갈래 가꾸기에 부려지는 많은 일손은 다른 갈래의 생산물에 곧바로 팔릴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그 다른 갈래를 북돋우지 않을 수 없다. 곡물 값을 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곡물 가꾸기를 북돋우는 방책으로는 참으로 가장 가망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제조업을 꺾어서 농사를 북돋우려는 정책과 같다.

그러므로 땅을 그것에 맞게 만들려면 개량에 처음부터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해마다 갈아 가꾸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물의 지대와 이윤은, 곡물과 목초지의 지대와 이윤보다 훨씬 높은 일이 잦더라도 그 남다른 비용을 메우는 데 그치는 한 실제로는 그 흔한 작물의 지대와 이윤에 다스려진다.

물론 어떤 생산물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너무 작아서 유효 수요를 채울 수 없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럴 때에는 그 생산물 전부를, 그것을 길러 시장에 내오는 데 드는 지대와 임금과 이윤 전부를 그 자연율로, 또는 그 밖에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에서 물리는 이율로 물기에 넉넉한 것보다 얼마쯤 더 내려는 이들에게 넘길 수 있다. 개량과 가꾸기에 든 비용 전부를 물고 남는 값의 몫은, 이럴 때에만, 그리고 이럴 때에는 예사로 곡물이나 목초지에서 남는 같은 몫과 아무 고른 비율도 이루지 않고 거의 어떤 정도까지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것의 큰 몫은 자연히 지주의 지대로 간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지대와 이윤이 곡물과 목초지의 지대와 이윤에 대하여 지니는 예사롭고 자연스러운 비율은, 거의 어디서나 가볍고 자갈이 섞이거나 모래가 섞인 흙에서 길러낼 수 있고 도수와 몸에 좋은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좋은 보통 포도주만을 내는 포도밭에 대해서만 일어난다고 알아들어야 한다. 나라의 흔한 땅이 겨룸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포도밭에 대해서뿐이다. 남다른 품질을 지닌 포도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포도나무는 어느 과일나무보다 흙의 다름에 더 영향을 받는다. 어떤 흙에서는 다른 어떤 흙에서도 어떤 가꾸기나 다스림으로도 견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맛을 얻는다. 이 맛은 참된 것이든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든, 더러는 몇 포도밭의 생산물에만 있고 더러는 작은 고을의 큰 몫에 걸치며 더러는 큰 주의 적지 않은 부분에 걸친다. 시장에 나오는 그런 포도주의 양 전부는 유효 수요, 곧 그것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드는 지대와 이윤과 임금 전부를 예사로운 이율로, 또는 흔한 포도밭에서 물리는 이율로 물려는 이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양 전부를 더 많이 물려는 이들에게 넘길 수 있으며, 그것이 그 값을 흔한 포도주 값보다 높이 끌어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차이는 그 포도주가 유행을 타고 드문 덕에 사는 이들의 겨룸이 더 달아오르는가 덜 달아오르는가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것이 어떠하든 그 큰 몫은 지주의 지대로 간다. 그런 포도밭이 대개 다른 대부분의 포도밭보다 정성껏 가꾸어지기는 하나, 그 포도주의 높은 값은 이 정성스러운 가꾸기의 결과라기보다 그 원인인 듯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값진 생산물에서는 소홀함이 낳는 손실이 하도 커서 가장 무심한 사람까지 마음을 쓰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높은 값의 작은 몫만으로도 그 가꾸기에 들인 남다른 노동의 임금과 그 노동을 움직이는 남다른 자산의 이윤을 물기에 넉넉하다.

유럽 여러 나라가 서인도에 거느린 설탕 식민지는 그 값진 포도밭에 견줄 만하다. 그 생산물 전부는 유럽의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그것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드는 지대와 이윤과 임금 전부를 다른 어느 생산물에서 예사로 물리는 이율로 물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내려는 이들에게 넘길 수 있다. 그 고장의 농사를 아주 꼼꼼히 살핀 푸아브르 씨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어느 철학자의 여행기』}, 코친차이나(오늘날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좋은 흰 설탕은 대개 1퀸탈에 피아스터 3개, 곧 우리 돈으로 13실링 6펜스쯤에 팔린다. 그곳에서 퀸탈이라 부르는 것은 파리 파운드(무게)로 150에서 200, 고르게 잡아 175에 해당하므로, 영국 헌드레드웨이트로 셈하면 그 값이 스털링 8실링쯤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우리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황설탕, 곧 무스코바도에 예사로 물리는 값의 4분의 1도 되지 않고 가장 좋은 흰 설탕에 물리는 값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코친차이나에서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은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인 곡물과 벼를 내는 데 부려진다. 그곳에서 곡물과 벼와 설탕의 값은 아마 자연스러운 비율, 곧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에서 여러 작물 사이에 자연히 일어나는 비율에 있을 것이며, 그 비율은 개량에 처음 드는 비용과 해마다 갈아 가꾸는 비용에 따라 셈할 수 있는 만큼 가깝게 지주와 농부에게 되돌려 준다. 그러나 우리 설탕 식민지에서는 설탕 값이 유럽에서나 아메리카에서나 논이나 곡물밭의 생산물 값에 대하여 그런 비율을 지니지 않는다. 설탕 농장주는 럼과 당밀로 자기 가꾸기의 비용 전부를 물고 설탕은 모두 고스란히 이윤이 되기를 바란다고 흔히 말한다. 이것이 참이라면, 나는 그것을 참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으나, 그것은 곡물 농부가 쭉정이와 짚으로 자기 가꾸기의 비용을 물고 낟알은 모두 고스란히 이윤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런던과 그 밖의 거래 도시에 있는 상인 모임이 우리 설탕 식민지의 버려진 땅을 사들여, 먼 거리와 그 고장의 재판이 허술한

탓에 되돌아오는 것이 미덥지 못함에도 대리인과 거래 대행인을 두어 벌이를 얻으며 개량하고 갈아 가꾸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또는 북아메리카의 곡물 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그렇게 개량하고 갈아 가꾸려 드는 이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이 고장에서는 재판이 더 꼼꼼한 덕에 되돌아오는 것이 더 고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담배 가꾸기가 곡물 가꾸기보다 벌이가 가장 된다고 하여 더 낫게 여겨진다. 담배는 유럽의 큰 몫에 걸쳐 이롭게 가꿀 수 있을 터이나, 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그것은 세금을 매기는 주된 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풀을 가꾸게 될 나라의 농장마다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세관에서 그것을 들여올 때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고 여겨졌다. 이 때문에 담배 가꾸기는 유럽의 큰 몫에 걸쳐 아주 터무니없이 금지되었고, 그것은 담배를 가꾸도록 허락된 고장에 한 가지 독점을 안겨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담배를 가장 많이 내므로 그 두 곳은 겨루는 이가 얼마쯤 있기는 하나 이 독점의 이로움을 크게 나누어 갖는다. 그러나 담배 가꾸기는 설탕 가꾸기만큼 이롭지는 않은 듯하다. 영국에 사는 상인의 자본으로 개량하고 갈아 가꾼 담배 농장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조차 없으며, 우리 담배 식민지는 우리 설탕 섬에서 자주 건너오는 것을 보는 만큼 부유한 농장주를 본국으로 보내 주지 않는다. 그 식민지에서 담배 가꾸기를 곡물 가꾸기보다 낫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담배에 대한 유럽의 유효 수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듯하기는 하나, 그것은 설탕에 대한 수요보다 아마 더 가깝게 채워져 있을 것이다. 또 담배의 지금 값이 그것을 손질하여 시장에 내오는 데 드는 지대와 임금과 이윤 전부를 곡물 땅에서 예사로 물리는 이율로 물기에 넉넉한 정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설탕의 지금 값만큼 많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담배 농장주들은 프랑스에서 오래된 포도밭 임자들이 포도주가 남쳐 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담배가 남쳐 도는 것에 대하여 보여 왔다. 그들은 식민지 의회의 법으로 담배 가꾸기를 열여섯 살에서 예순 살 사이의 흑인 노예[10] 한 사람마다 6000그루로 묶었는데, 그만큼이면 담배 1000파운드(무게)를 낸다고 본다. 그런 사람 하나가 이만큼의 담배에 더하여 강냉이,[11] 4에이커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은 셈한다. 또 시장에 물건이 넘치는 것을 막으려고, 더글러스 박사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더글러스, 『개요』 제2권 379쪽, 373쪽.} (나는 그가 잘못 들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들은 넉넉한 해에 더러 네덜란드 사람들이 향료를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흑인 한 사람마다 얼마간의 담배를 태워 버렸다. 담배의 지금 값을 지탱하는 데 그런 거친 수가 필요하다면, 담배 가꾸기가 곡물 가꾸기보다 지니는 남다른 이로움은 아직 얼마쯤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마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생산물이 사람의 먹을 것인 갈아 가꾼 땅의 지대가 그 밖에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의 지대를 다스린다. 어떤 생산물도 그보다 적게 낳는 것을 오래 이어 갈 수 없는데, 그 땅이 곧 다른 쓰임새로 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생산물이 예사로 그보다 많이 낳는다면, 그것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너무 작아서 유효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곡물이 사람의 먹을 것으로 곧바로 쓰이는 주된 토지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남다른 자리를 빼면 유럽에서는 곡물 땅의 지대가 그 밖에 갈아 가꾼 모든 땅의 지대를 다스린다. 영국은 프랑스의 포도밭도 이탈리아의 올리브밭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남다른 자리를 빼면 이런 것들의 가치는 곡물의 가치에 다스려지며, 곡물에서 영국의 기름짐은 그 두 나라 어느 쪽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흔히 먹고 좋아하는 식물성 먹을 것을, 가장 흔한 땅이 같은 가꾸기나 거의 같은 가꾸기로 가장 기름진 땅이 곡물을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내는 풀에서 얻게 된다면, 지주의 지대, 곧 노동을 물어 주고 농부의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운 뒤에 그에게 남을 먹을 것의 남는 양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나라에서 노동이 예사로 먹여 살려지는 이율이 어떠하든, 이 더 큰 남는 몫은 언제나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따라서 지주가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사거나 부릴 수 있게 해 준다. 그의 지대가 지닌 실질 가치, 그의 실질 힘과 권위, 남의 노동이 그에게 대 줄 수 있는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것과 편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그의 부림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논은 가장 기름진 곡물밭보다 훨씬 많은 양의 먹을 것을 낸다. 한 해에 두 번 거두며 그때마다 30부셀에서 60부셀이 나는 것이 1에이커의 예사로운 생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벼를 가꾸는 데 더 많은 노동이 들기는 하나, 그 노동을 다 먹여 살린 뒤에 훨씬 큰 남는 몫이 남는다. 그러므로 벼가 사람들이 흔히 먹고 좋아하는 식물성 먹을 것이고 갈아 가꾸는 이들이 주로 그것으로 먹여 살려지는 벼 나는 고장에서는, 이 더 큰 남는 몫 가운데 지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곡물 나는 고장에서보다 커야 한다. 캐롤라이나에서는 다른 영국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농장주가 대개 농부이면서 지주이고 따라서 지대가 이윤과 뒤섞여 있는데, 그곳 밭이 한 해에 한 번만 거두고 유럽의 관습이 널리 퍼진 탓에 벼가 거기서 사람들이 흔히 먹고 좋아하는 식물성 먹을 것이 아님에도 벼 가꾸기가 곡물 가꾸기보다 벌이가 된다고 한다.

좋은 논은 어느 철에나 진펄이고 한 철에는 물에 덮인 진펄이다. 그것은 곡물에도 목초지에도 포도밭에도, 그리고 실은 사람에게 아주 요긴한 다른 어떤 식물성 생산물에도 맞지 않으며, 그런 쓰임새에 맞는 땅은 벼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벼 나는 고장에서도 논의 지대가, 결코

그 생산물로 돌려질 수 없는 그 밖에 갈아 가꾼 땅의 지대를 다스릴 수는 없다.

감자밭이 내는 먹을 것은 양에서 논이 내는 것에 뒤지지 않고 밀밭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다. 1에이커의 땅에서 감자 1만 2000파운드(무게)가 나는 것은 밀 2000파운드(무게)가 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이 아니다. 물론 그 두 가지 풀에서 각각 끌어낼 수 있는 먹을 것, 곧 단단한 자양분은 감자가 물기가 많은 까닭에 그 무게에 아주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뿌리의 무게 절반이 물이라고 아주 넉넉히 잡아 주더라도, 그런 1에이커의 감자밭은 여전히 단단한 자양분 6000파운드(무게)를 내니 1에이커의 밀밭이 내는 양의 세 배다. 1에이커의 감자밭은 1에이커의 밀밭보다 적은 비용으로 갈아 가꾸어진다. 밀을 뿌리기 전에 흔히 하는 묵히기가, 감자에 언제나 들이는 김매기와 그 밖의 남다른 가꾸기를 메우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 뿌리가 유럽의 어느 곳에서든 몇몇 벼 나는 고장의 벼처럼 사람들이 흔히 먹고 좋아하는 식물성 먹을 것이 되어, 밀과 그 밖에 사람이 먹는 낟알이 지금 차지하는 만큼의 비율로 갈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같은 넓이의 갈아 가꾼 땅이 훨씬 많은 수의 사람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대개 감자를 먹게 되므로 자산을 모두 메우고 가꾸기에 부려진 노동을 모두 먹여 살린 뒤에 더 큰 남는 몫이 남을 것이다. 또 이 남는 몫 가운데 지주에게 돌아가는 몫도 함께 커진다. 사람의 수가 늘고 지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이 오를 것이다.

감자에 맞는 땅은 그 밖의 거의 모든 요긴한 식물에도 맞다. 감자가 지금 곡물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율로 갈아 가꾼 땅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똑같이 그 밖에 갈아 가꾼 땅의 큰 몫의 지대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랭커셔의 몇몇 곳에서 오트밀로 만든 빵이 일하는 사람에게 밀빵보다 더 실한 먹을 것이라고 내세운다고 하며,

스코틀랜드에서도 같은 주장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참인지 얼마쯤 의심스럽다. 오트밀을 먹는 스코틀랜드의 흔한 사람들은 대개 밀빵을 먹는 잉글랜드의 같은 층 사람들만큼 튼튼하지도 잘나 보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일도 그만큼 잘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그만큼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나라의 상류 사람들 사이에는 같은 차이가 없으므로, 스코틀랜드에서 흔한 사람들의 먹을 것이 잉글랜드에서 같은 층에 있는 이웃의 먹을 것만큼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겪어 보아 알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감자는 사정이 다른 듯하다. 런던의 가마꾼과 짐꾼과 석탄 부리는 일꾼, 그리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들은 어쩌면 영국 땅에서 가장 튼튼한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일 터인데, 그들의 큰 몫이 대개 이 뿌리를 먹는 아일랜드의 가장 낮은 층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어떤 먹을 것도 제 자양분과 사람의 몸에 유별나게 잘 맞는다는 것을 이보다 더 또렷하게 입증할 수 없다.

감자를 한 해 내내 두는 것은 어렵고, 곡물처럼 두 해나 세 해씩 이어 쌓아 두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썩기 전에 팔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감자 가꾸기를 꺾으며, 어느 큰 나라에서든 감자가 빵처럼 모든 층 사람들의 주된 식물성 먹을 것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어쩌면 이 두려움일 것이다.

2절 — 지대를 낳을 때도 있고 낳지 않을 때도 있는 토지 생산물에 대하여

사람의 먹을 것은 언제나 반드시 지주에게 얼마간의 지대를 낳아 주는 유일한 토지 생산물인 듯하다. 그 밖의 생산물은 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대를 낳을 때도 있고 낳지 않을 때도 있다.

먹을 것 다음으로 입을 것과 살 곳이 사람의 두 가지 큰 필요다.

토지는 본래의 거친 상태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에게 입을 것과 살 곳의 재료를 내줄 수 있다. 개량된 상태에서는 그 재료를 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더러 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 재료를 바라고 그 값을 물려 하는 만큼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므로 앞의 상태에서는 이 재료가 언제나 남쳐 돌고, 그 때문에 값어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일이 잦다. 뒤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모자란 일이 잦아서 그 가치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상태에서는 그 재료의 큰 몫이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쓰이는 것의 값은 그것을 쓸 수 있게 손질하는 노동과 비용에만 맞먹는다고 여겨지므로 지주에게 지대를 낳아 줄 수 없다. 뒤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모두 쓰이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수요가 붙는 일이 잦다. 그 재료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비용을 물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내려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 그러므로 그 값은 언제나 지주에게 얼마간의 지대를 낳아 줄 수 있다.

더 큰 동물의 가죽이 입을 것의 본래 재료였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주로 그런 동물의 고기로 이루어진 사냥꾼과 목자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제 먹을 것을 마련하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옷의 재료를 마련한다.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없다면 그 큰 몫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버려질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사냥하는 나라들이 그 고장을 유럽인이 찾아내기 전에는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남는 모피를 유럽인과 담요와 총과 브랜디로 바꾸며, 그것이 모피에 얼마간의 값어치를 안겨 준다. 알려진 세계가 지금처럼 거래로 이어진 상태에서는, 토지 소유가 자리 잡은 가장 미개한 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나라 밖 거래가 얼마쯤 있어서, 자기 땅이 내는 것이지만 집에서 손질할 수도 쓸 수도 없는 옷 재료 전부에 대하여 더 부유한 이웃 사이에서 그 값을 그 이웃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보다 높이 끌어올릴

만한 수요를 찾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주에게 얼마간의 지대를 낳아 준다. 하일랜드의 가축 큰 몫이 그 고장 언덕에서 먹혀 없어지던 때에는 그 가죽을 내보내는 것이 그 고장 거래에서 가장 큰 품목을 이루었고, 그 가죽과 바꾼 것이 하일랜드 땅의 지대에 얼마쯤 보탬이 되었다. 옛 시절에 집에서 쓸 수도 손질할 수도 없었던 잉글랜드의 양모는 그 무렵 더 부유하고 더 부지런하던 플란데런에서 시장을 찾았고, 그 값은 그것을 낸 땅의 지대에 얼마쯤을 안겨 주었다. 그때의 잉글랜드나 지금의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보다 잘 갈아 가꾸지 못하였고 나라 밖 거래도 없던 고장에서는 옷 재료가 하도 남쳐 돌아 그 큰 몫이 쓸모없다고 버려졌을 것이며 어느 부분도 지주에게 지대를 낳아 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살 곳의 재료는 옷 재료만큼 먼 거리로 언제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밖 거래의 거리가 그리 쉽게 되지도 않는다. 그것을 내는 고장에서 그것이 남쳐 돌 때에는, 세계가 지금처럼 거래로 이어진 상태에서도 그것이 지주에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일이 잦다. 런던 근방의 좋은 채석장은 적지 않은 지대를 낳아 줄 것이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여러 곳에서는 아무 지대도 낳지 못한다. 집 지을 재목나무[12]는 사람이 많고 잘 갈아 가꾼 고장에서 큰 값어치를 지니며, 그것을 내는 땅은 적지 않은 지대를 낳아 준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는 지주가 제 큰 나무의 큰 몫을 실어 가 줄 사람에게 크게 고마워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몇몇 곳에서는 길과 물길 운반이 없어 나무 가운데 껍질만이 시장에 보내질 수 있고 재목은 땅에서 썩도록 내버려진다. 살 곳의 재료가 그처럼 남쳐 돌 때에는 쓰이는 부분이 그 쓰임새에 맞게 손질하는 노동과 비용만큼만 값나간다. 그것은 지주에게 지대를 낳아 주지 못하며, 지주는 대개 그것을 쓰겠다고 청하는 수고를 하는 누구에게든 쓰도록 내준다. 그러나 더 부유한 나라의 수요가 더러

그에게 그것으로 지대를 얻게 해 준다. 런던 거리에 돌을 깐 일은 스코틀랜드 바닷가의 헐벗은 바위 임자들이 전에는 아무 지대도 낳지 못했던 것에서 지대를 끌어내게 해 주었다. 노르웨이와 발트해 바닷가의 숲은 제 고장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시장을 영국의 여러 곳에서 찾으며, 그리하여 그 임자들에게 얼마간의 지대를 낳아 준다.

나라에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생산물이 옷을 입히고 살 곳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 먹을 것이 마련되면 필요한 옷과 살 곳을 찾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들이 손닿는 곳에 있어도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일은 잦을 수 있다. 영국 땅의 몇몇 곳에서는 집이라 부르는 것을 한 사람이 하루 노동으로 지을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갈래의 옷인 동물 가죽은 그것을 다루어 쓸 수 있게 마련하는 데 얼마쯤 더 많은 노동이 든다. 그러나 많이 들지는 않는다. 야만스럽거나 미개한 나라에서는 한 해 노동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도 사람들의 큰 몫을 만족시킬 만한 옷과 살 곳을 마련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나머지 99분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에 겨우 넉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다.

그러나 토지를 개량하고 갈아 가꾸어 한 집의 노동이 두 집의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절반의 노동으로 온 사회의 먹을 것을 마련하기에 넉넉해진다. 그러므로 다른 절반, 또는 적어도 그 큰 몫은 다른 것을 마련하거나 사람의 다른 필요와 바람을 채우는 데 부려질 수 있다. 옷과 살 곳, 집안 살림살이, 그리고 이른바 마차 살림[13]이 그 필요와 바람의 큰 몫이 향하는 주된 거리다. 부자는 가난한 이웃보다 더 많은 먹을 것을 쓰지 않는다. 품질에서는 크게 다를 수 있고 그것을 골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동과 기예가 들 수 있으나, 양에서는 거의 같다. 그러나 한쪽의 널찍한 궁궐과 큰 옷장을 다른 쪽의 오막살이와 몇 조각 누더기와 견주어 보면, 그 둘의 옷과 살 곳과 집안 살림살이의 차이가

품질에서 그러한 만큼 양에서도 거의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먹을 것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사람 위의 좁은 그릇으로 한이 그어져 있으나, 집과 옷과 마차 살림과 집안 살림살이에서 편함과 꾸밈을 바라는 마음에는 한이나 뚜렷한 경계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제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먹을 것을 부리는 이들은 그 남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을 언제나 이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바꾸려 한다. 한이 그어진 바람을 채우고 남는 것은 채워질 수 없고 아주 끝이 없는 듯한 그 바람들을 달래는 데 주어진다. 가난한 이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부자의 그런 바람을 채워 주려 힘쓰며, 그것을 더 틀림없이 얻으려고 자기 일이 싸고 나무랄 데 없도록 서로 겨룬다. 일꾼의 수는 먹을 것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곧 토지의 개량과 갈아 가꾸기가 나아감에 따라 늘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의 성질이 노동을 가장 잘게 갈라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손질할 수 있는 재료의 양은 그 수보다 훨씬 큰 비율로 늘어난다. 여기서 사람의 재주가 집과 옷과 마차 살림과 집안 살림살이에 요긴하게든 꾸밈으로든 쓸 수 있는 온갖 재료에 대한 수요가 생겨난다. 곧 땅속에 든 화석과 광물, 귀금속, 그리고 보석에 대한 수요다.

이리하여 먹을 것은 지대의 본래 샘일 뿐 아니라, 뒤에 지대를 낳게 되는 토지 생산물의 다른 모든 부분도 그 가치의 그 몫을 토지의 개량과 갈아 가꾸기로 먹을 것을 내는 노동의 힘이 커진 데서 얻는다.

그러나 뒤에 지대를 낳게 되는 토지 생산물의 그 다른 부분이 언제나 지대를 낳는 것은 아니다. 개량하고 갈아 가꾼 고장에서도 그것에 붙는 수요가, 노동을 물어 주고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데 부려야 하는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우기에 넉넉한 것보다 더 높은 값을 낳아 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수요인지 아닌지는 여러 사정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탄광이 지대를 얼마간 낳을 수 있는지는 얼마쯤 그 기름짐에, 얼마쯤 그 놓인 자리에 달려 있다.

어떤 종류의 광산이든, 일정한 양의 노동으로 그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광물의 양이 같은 양의 노동으로 같은 종류의 다른 광산 큰 몫에서 캐낼 수 있는 것보다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기름지다고도 메말랐다고도 할 수 있다.

좋은 자리에 놓인 탄광 가운데도 메마른 탓에 파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생산물이 비용을 물어 주지 못한다. 그런 탄광은 이윤도 지대도 낳아 줄 수 없다.

그 생산물이 노동을 물어 주고 그것을 파는 데 부린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우기에 겨우 넉넉한 탄광도 있다. 그런 탄광은 그 일을 벌인 사업가에게 얼마간의 이윤은 낳아 주지만 지주에게 지대는 낳아 주지 못한다. 그런 탄광은 지주 말고는 아무도 이롭게 팔 수 없으며, 지주는 스스로 그 일을 벌인 사업가가 되어 거기 부리는 자본의 예사로운 이윤을 얻는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탄광이 이렇게 파이며 다르게는 파일 수 없다. 지주는 얼마간의 지대를 물지 않고 다른 누가 그것을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터인데, 아무도 지대를 물 수 없다.

같은 고장의 다른 탄광은 넉넉히 기름지면서도 놓인 자리 탓에 파낼 수 없다. 파는 비용을 물기에 넉넉한 양의 광물을 예사로운 양의 노동으로, 또는 예사로운 양보다 적은 노동으로도 그 광산에서 캐낼 수 있을 터이나, 사람이 드물게 살고 좋은 길도 물길 운반도 없는 내륙 고장에서는 이만큼의 양을 팔 수 없을 것이다.

석탄은 나무보다 덜 마음에 드는 땔감이고 몸에도 덜 좋다고 한다. 그러므로 석탄이 쓰이는 곳에서 그 비용은 대개 나무의 비용보다 얼마쯤 적어야 한다.

한편 나무 값은 가축 값과 거의 같은 길로, 그리고 바로 같은 까닭으로 농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농사가 거친 첫 시절에는 어느 나라든 그 큰 몫이 나무로 덮여 있고, 그때 나무는 한낱 거리적거리는 것이어서 지주에게 아무 값어치가 없으므로 지주는 베어 가겠다는 누구에게든 그것을 기꺼이 내줄 것이다. 농사가 나아가면서 숲은 얼마쯤 갈이가 퍼지는 데 밀려 걷히고 얼마쯤 가축의 수가 늘어난 탓에 삭아 간다. 가축은 온전히 사람의 근면으로 얻는 곡물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으나, 사람의 돌봄과 보살핌 아래 불어난다. 사람은 넉넉한 철에 모자란 철을 버티게 해 줄 것을 쌓아 두고, 한 해 내내 가꾸지 않은 자연이 가축에게 내주는 것보다 많은 양의 먹이를 대 주며, 가축의 적을 없애고 뿌리 뽑아 자연이 내주는 모든 것을 가축이 마음껏 누리도록 지켜 준다. 많은 가축 떼가 숲을 헤매고 다니도록 놓아두면, 그것이 늙은 나무를 망치지는 않아도 어린 나무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므로 한두 세기가 지나는 동안 숲 전체가 망가진다. 그러면 나무가 모자라 그 값이 오른다. 나무는 좋은 지대를 낳으며, 지주는 자기 가장 좋은 땅을 재목나무 키우는 것보다 더 이롭게 부릴 길이 좀처럼 없다는 것을 더러 알게 된다. 재목나무에서는 이윤이 큰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늦은 것을 메워 주는 일이 잦다. 요즘 영국의 여러 곳에서 형편이 거의 이러한 듯하며, 그곳에서는 나무 심는 이윤이 곡물이나 목초지의 이윤과 같다고 한다. 지주가 나무 심기에서 얻는 이로움은 적어도 오랜 동안으로 보면 곡물이나 목초지가 그에게 낳아 줄 수 있는 지대를 어디서도 넘어설 수 없으며, 잘 갈아 가꾼 내륙 고장에서는 그 지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 않는 일이 잦을 것이다. 물론 잘 개량한 고장의 바닷가에서 땔감으로 석탄을 편히 얻을 수 있다면, 집 지을 재목나무를 덜 갈아 가꾼 다른 나라에서 실어 오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싼 일이 더러 있을 수

있다. 근래 몇 해 사이에 지은 에든버러의 새 시가에는 스코틀랜드 재목이 한 토막도 없을 것이다.

나무 값이 어떠하든, 석탄 값이 석탄 불에 드는 비용을 나무 불에 드는 비용과 거의 같게 만드는 수준이라면, 그곳에서 그런 사정 아래 석탄 값은 오를 수 있는 만큼 다 올랐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잉글랜드 내륙의 몇몇 곳, 특히 옥스퍼드셔에서 그런 듯하다. 그곳에서는 흔한 사람들의 불에서도 석탄과 나무를 섞는 것이 예사이며, 그러므로 그 두 갈래 땔감의 비용 차이가 아주 클 수는 없다. 석탄이 나는 고장에서는 석탄 값이 어디서나 이 가장 높은 값보다 훨씬 낮다. 그렇지 않다면 석탄은 물길로든 땅길로든 먼 운반의 비용을 짊어질 수 없을 것이다. 적은 양만 팔릴 것이고, 탄광 경영주와 탄광 임자는 적은 양을 가장 높은 값에 파는 것보다 많은 양을 가장 낮은 값보다 얼마쯤 높은 값에 파는 것이 자기 이익에 더 맞는다고 본다. 또 가장 기름진 탄광이 그 근방 다른 모든 탄광의 석탄 값을 다스린다. 그 광산의 임자와 그 일을 벌인 사업가는 근방의 모든 이보다 얼마쯤 싸게 팔아서, 앞의 사람은 더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고 뒤의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근방의 이들은 그 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 값이 자기들의 지대와 이윤을 언제나 줄이고 더러는 아예 없애 버리는데도 곧 같은 값에 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떤 광산은 아예 버려지고, 어떤 광산은 지대를 낳지 못하여 그 임자만이 팔 수 있게 된다.

석탄이 오랜 동안 팔릴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시장에 내오는 데 부려야 하는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우기에 겨우 넉넉한 값이다. 지주가 지대를 얻을 수 없어 스스로 파거나 아예 내버려 두어야 하는 탄광에서 석탄 값은 대개 이 값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석탄이 지대를 낳는 곳에서도 지대가 그 값에서 차지하는 몫은 대개 토지의 원생산물 가운데 다른 대부분의 값에서 차지하는 몫보다 작다. 땅 위의 토지에서 나는 지대는 예사로 총생산물의 3분의 1이라고 여겨지는 데 이르며, 그것은 대개 정해진 지대여서 수확이 이따금 오르내리는 것과 무관하다. 탄광에서는 총생산물의 5분의 1이면 아주 큰 지대이고 10분의 1이 흔한 지대이며, 그것이 정해진 지대인 일은 좀처럼 없고 생산물이 이따금 오르내리는 데 달려 있다. 그 오르내림이 하도 커서, 토지의 소유권을 30년치 값[14]으로 사는 것이 웬만한 값으로 여겨지는 고장에서 탄광의 소유권은 10년치 값이면 좋은 값으로 여겨진다.

탄광이 그 임자에게 지니는 가치는 그 기름짐만큼이나 놓인 자리에 달려 있는 일이 잦다. 금속 광산의 가치는 그 기름짐에 더 많이, 놓인 자리에 더 적게 달려 있다. 거친 금속[15]은, 그리고 귀금속은 더욱이 광석에서 갈라내면 하도 값나가서 대개 아주 먼 땅길 운반과 가장 먼 바닷길 운반의 비용을 짊어질 수 있다. 그 시장은 광산 근방의 고장에 갇히지 않고 온 세계에 걸친다. 일본의 구리는 유럽의 거래에서 한 품목을 이루고, 스페인의 철은 칠레와 페루의 거래에서 한 품목을 이룬다. 페루의 은은 유럽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유럽에서 중국으로도 흘러간다.

웨스트모얼랜드나 슈롭셔의 석탄 값은 뉴캐슬의 석탄 값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리오네(리옹 지방)의 석탄 값은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처럼 멀리 떨어진 탄광의 생산물은 결코 서로 겨룸에 끌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가장 멀리 떨어진 금속 광산의 생산물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잦고 실제로 예사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광산의 거친 금속 값, 그리고 더욱이 귀금속 값은 세계의 다른 모든 광산에서 그 값에 얼마쯤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구리 값은 유럽의 구리 광산에서 그 값에 얼마간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페루의 은 값, 곧 그 은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노동이나 다른 재화의 양은 유럽의 은광에서뿐 아니라 중국의 은광에서도 그 값에 얼마간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페루의 광산이 발견된 뒤에 유럽의 은광은 그 큰 몫이 버려졌다. 은의 가치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 생산물이 더는 그 광산을 파는 비용을 물어 주지도, 그 일에 쓰인 먹을 것과 옷과 살 곳과 그 밖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이윤과 함께 메우지도 못하였다. 쿠바와 산토도밍고의 광산도 그러했고, 포토시의 광산이 발견된 뒤에는 페루의 오래된 광산까지 그러했다. 그러므로 모든 광산에서 모든 금속의 값은 세계에서 실제로 파이고 있는 가장 기름진 광산의 값에 얼마쯤 다스려지므로, 광산의 큰 몫에서 그 값은 파는 비용을 물어 주는 것을 조금 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지주에게 아주 높은 지대를 낳아 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래서 광산의 큰 몫에서 지대는 거친 금속의 값에서 작은 몫만을 차지하고 귀금속의 값에서는 더 작은 몫을 차지하는 듯하다. 노동과 이윤이 둘 다의 큰 몫을 이룬다.

주석 광산 관할(스태너리)의 부감독관인 볼레이스 목사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 세계에 알려진 가장 기름진 주석 광산인 콘월의 주석 광산에서 평균 지대는 총생산물의 6분의 1로 셈할 수 있다. 그의 말로는 어떤 광산은 그보다 많이 낳고 어떤 광산은 그만큼 낳지 못한다. 스코틀랜드의 아주 기름진 여러 납 광산의 지대도 총생산물의 6분의 1이다.

프레지에와 우요아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 페루의 은광에서 임자는 그 광산을 벌인 사업가에게서 광석을 자기 방아에서 갈고 예사로운 방앗세, 곧 가는 값을 물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 잦다. 실제로 1736년까지 스페인 왕의 세금은 법정 품질의 은 5분의 1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그것은 세계에 알려진 가장

풍족한 은광인 페루 은광의 큰 몫에서 실질 지대로 여길 만한 것이었다. 그 세금이 없었다면 이 5분의 1은 자연히 지주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그 세금을 물 수 없어서 그때 팔 수 없었던 많은 광산이 파였을 것이다. 콘월 공이 주석에 매기는 세금은 5퍼센트를 넘는 것, 곧 그 가치의 20분의 1에 이른다고 여겨지며, 그 몫이 얼마이든 주석에 세금이 없다면 그것도 자연히 그 광산의 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20분의 1을 6분의 1에 더해 보면, 콘월 주석 광산의 평균 지대 전체가 페루 은광의 평균 지대 전체에 대하여 13 대 12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페루의 은광은 이제 이 낮은 지대조차 물 수 없으며, 은에 매기는 세금은 1736년에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내려갔다. 또 은에 매기는 이 세금조차 주석에 매기는 20분의 1 세금보다 밀수를 더 꾀며, 밀수는 부피 큰 상품보다 값진 상품에서 훨씬 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페인 왕의 세금은 아주 잘 걷히지 않고 콘월 공의 세금은 아주 잘 걷힌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은광의 은 값에서보다 가장 기름진 주석 광산의 주석 값에서 더 큰 몫을 이룰 것이다. 그 여러 광산을 파는 데 부린 자산과 그 예사로운 이윤을 메운 뒤에 임자에게 남는 나머지는 귀금속에서보다 거친 금속에서 더 큰 듯하다.

페루에서 은광을 벌인 사업가들의 이윤도 예사로 아주 크지는 않다. 아주 미더우면서 잘 아는 그 같은 저술가들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로는, 페루에서 누가 새 광산을 파기로 나서면 그는 누구에게나 파산과 몰락이 정해진 사람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모두가 그를 꺼리고 피한다. 광산 일은 거기서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복권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그 복권에서 당첨 제비는 빈 제비를 메워 주지 못하는데도, 몇몇 당첨이 큰 것이 많은 모험가를 꾀어 그런 가망 없는 사업에 자기 재산을 던져 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주권자가 자기 세입의 적지 않은 몫을 은광의 생산물에서 끌어내므로, 페루의 법은 새 은광을 찾아내고 파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북돋운다. 새 광산을 찾아낸 사람은 누구든 광맥이 뻗은 방향이라고 짐작하는 쪽으로 길이 246피트, 너비로 그 절반을 재어 떼어 낼 권리를 얻는다. 그는 그 광산의 이 몫의 임자가 되고, 지주에게 아무 사례도 물지 않고 그것을 팔 수 있다. 콘월 공의 이익이 그 오래된 공국에서 거의 같은 종류의 규정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버려지고 울타리를 두르지 않은 땅에서는 주석 광산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든 일정한 범위까지 그 경계를 그어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광산의 경계 잡기라 부른다. 경계를 잡은 사람은 그 광산의 실질 임자가 되어,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것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팔 때에는 땅 주인에게 아주 작은 사례를 물어야 한다. 두 규정에서 모두 사유 재산의 거룩한 권리가 나라 세입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바쳐진다.

페루에서는 새 금광을 찾아내고 파는 일에도 같은 북돋움이 주어지며, 금에서는 왕의 세금이 법정 품질 금속의 20분의 1에만 이른다. 그것은 한때 은에서처럼 5분의 1이었고 그 뒤에 10분의 1이었으나, 그 일이 이 두 세금 가운데 낮은 것조차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프레지에와 우요아라는 그 같은 저술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은광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을 찾기가 드물다면 금광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찾기는 훨씬 더 드물다. 이 20분의 1이 칠레와 페루의 금광 큰 몫에서 물리는 지대 전부인 듯하다. 또 금은 은보다도 밀수되기 훨씬 쉬운데, 그 금속이 부피에 견주어 값어치가 더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연이 그것을 내놓는 남다른 꼴 때문이기도 하다. 은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채로 발견되는 일이 아주 드물고, 다른 대부분의 금속처럼 대개 어떤 다른 물질과 섞여 광석이 되어 있다. 비용을 물어 줄 만한 양으로 그것을 갈라내는 일은

아주 힘들고 지루한 작업 없이는 될 수 없는데, 그 작업은 그것을 위하여 세운 작업장에서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왕의 관리가 살펴보는 눈에 드러난다. 반대로 금은 거의 언제나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채로 발견된다. 그것은 더러 얼마간 부피가 있는 덩이로 발견되며, 모래와 흙과 그 밖의 딴 물질에 작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알갱이로 섞여 있을 때에도 아주 짧고 단순한 작업으로 갈라낼 수 있다. 그 작업은 수은을 조금 가진 누구든 어느 사삿집에서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의 세금이 은에서 잘 걷히지 않는다면 금에서는 훨씬 더 잘 걷히지 않을 것이며, 지대는 은 값에서보다 금 값에서 훨씬 작은 몫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귀금속이 오랜 동안 팔릴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곧 그것과 바꿀 수 있는 다른 재화의 가장 작은 양은 다른 모든 재화의 가장 낮은 예사 값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 다스려진다. 그것을 광산에서 시장으로 내오는 데 예사로 부려야 하는 자산과 예사로 쓰여야 하는 먹을 것과 옷과 살 곳이 그 값을 정한다. 그 값은 적어도 그 자산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우기에 넉넉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장 높은 값은 이 금속 자체가 실제로 드문가 넉넉한가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반드시 정해지지 않는 듯하다. 그것은 석탄 값이 나무 값에 정해지고 어떤 모자람도 그 값을 그 위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떤 상품의 값에 정해지지 않는다. 금이 드문 것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 보라. 그러면 그 가장 작은 조각이 금강석보다 값진 것이 되어 더 많은 양의 다른 재화와 바뀔 수 있다.

그 금속에 대한 수요는 얼마쯤 그 요긴함에서, 얼마쯤 그 아름다움에서 생겨난다. 철을 빼면 그것은 어쩌면 다른 어느 금속보다 요긴하다. 그것은 녹과 더러움을 덜 입으므로 깨끗하게 두기가 더 쉽고, 그 때문에 밥상이나 부엌의 그릇은 그것으로 만들었을 때 더 마음에 드는 일이 잦다. 은 솥은 납이나 구리나 주석 솥보다 깨끗하며, 같은

성질이 금 솥을 은 솥보다 더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주된 값어치는 아름다움에서 생겨나며, 그 아름다움이 그것을 옷과 살림살이의 꾸밈에 유별나게 알맞게 만든다. 어떤 물감이나 물들임도 도금만큼 빛나는 빛깔을 낼 수 없다. 그 아름다움의 값어치는 그것이 드문 덕에 크게 높아진다. 부자의 큰 몫에게 부의 주된 즐거움은 부를 내보이는 데 있으며, 그것은 그들 눈에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또렷한 넉넉함의 표시를 가진 듯이 보일 때만큼 온전한 적이 없다. 그들 눈에는 얼마쯤이라도 요긴하거나 아름다운 물건의 값어치가, 그것이 드문 덕에, 또는 그것을 적지 않은 양으로 모으는 데 드는 큰 노동, 곧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물어 줄 수 없는 노동 덕에 크게 높아진다. 그런 물건을 그들은 훨씬 더 아름답고 요긴하지만 더 흔한 것보다 높은 값으로 사려 한다. 요긴함과 아름다움과 드묾이라는 이 성질이 그 금속의 높은 값, 곧 그것이 어디서나 바꿀 수 있는 다른 재화의 많은 양의 본래 바탕이다. 이 가치는 그것이 돈으로 쓰이기에 앞서 있었고 그 쓰임과 무관하였으며, 그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든 성질이었다. 그러나 그 쓰임은 새 수요를 낳고 다른 쓰임새로 부릴 수 있는 양을 줄임으로써 뒤에 그 가치를 지탱하거나 키우는 데 이바지했을 수 있다.

보석에 대한 수요는 온전히 그 아름다움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꾸밈으로 쓰이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으며, 그 아름다움의 값어치는 그것이 드문 덕에, 또는 그것을 광산에서 얻는 어려움과 비용 덕에 크게 높아진다. 그래서 임금과 이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높은 값의 거의 전부를 이룬다. 지대는 아주 작은 몫으로만 들어오고 아무 몫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잦으며, 가장 기름진 광산만이 얼마간 적지 않은 지대를 낳아 준다. 보석 장인 타베르니에가 골콘다와 비자푸르의 금강석 광산을 찾아갔을 때, 그는 그 광산을 파서 이득을 얻던 그 고장의

주권자가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돌을 내는 광산만 남기고 모두 닫으라고 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머지는 그 임자에게 팔 만한 값어치가 없었던 듯하다.

귀금속과 보석의 값은 온 세계에서 세계의 가장 기름진 광산의 값에 다스려지므로, 그 어느 쪽 광산이든 그 임자에게 낳아 줄 수 있는 지대는 그 절대적인 기름짐에 비례하지 않고 이른바 상대적인 기름짐, 곧 같은 종류의 다른 광산에 대한 우위에 비례한다. 포토시의 광산이 유럽의 광산보다 나았던 만큼 포토시의 광산보다 나은 새 광산이 발견된다면, 은의 가치가 하도 떨어져서 포토시의 광산까지 팔 만한 값어치가 없게 될 수 있다. 스페인령 서인도가 발견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기름진 광산이 그 임자들에게 지금 페루의 가장 풍족한 광산이 낳아 주는 만큼 큰 지대를 낳아 주었을 수 있다. 은의 양이 훨씬 적었더라도 그것이 같은 양의 다른 재화와 바뀌었을 수 있고, 임자의 몫이 그에게 같은 양의 노동이나 상품을 사거나 부릴 수 있게 해 주었을 수 있다.

---

1. 옮긴이 — 유료 도로(turnpike road)는 통행세를 받아 그 돈으로 길을 닦고 건사하던 길이다. 잉글랜드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 의회가 법으로 도로 관리 조합을 세워 주었고, 18세기에 그 수가 빠르게 늘었다. 19세기 후반에 철도가 퍼지면서 사라졌다.

2.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파딩은 4분의 1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레알은 스페인의 은화이고, 스털링은 영국 화폐를 가리킨다.

3. 옮긴이 — 저본에 오식으로 보이는 자리가 이 장에 두 군데 있다. 첫째, 라플라타강 대목의 저본은 「the money-price of labour could be very cheap」인데 앞뒤 논지로 보면 「could not be very cheap」이어야 하므로 그 뜻으로 옮겼다. 둘째, 페루의 금세 대목에서 저본은 「standard rental」로 적고 있으나 은을 다룬 앞 문단의 「standard silver」와 짝을 맞추면 「법정 품질의 금속」이다.

4. 옮긴이 — 연합법은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한 왕국으로 합친 법이다.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관세가 없어지고 스코틀랜드의 가축과 물건이 잉글랜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5. 옮긴이 — 노 카토(기원전 234~149)는 로마의 정치가로 『농사에 대하여』를 남겼다. 키케로(기원전 106~43)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론가다.

6. 옮긴이 — 여기 나오는 헨리 왕자는 제임스 1세의 맏아들 헨리 프레더릭(1594~1612)이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아우가 찰스 1세가 되었다. 토머스 버치(1705~1766)는 그의 전기를 쓴 영국의 저술가다.

7.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약 291리터이며 밀로는 8부셸쯤이다. 네 분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윈체스터 부셸은 1696년에 법으로 정해진 영국의 부셸로 약 35리터다. 여기서 저본이 1쿼터를 9부셸로 적은 것은 윈저 시장에서 쓰던 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8. 옮긴이 — 데모크리토스(기원전 460년쯤~370년쯤)는 그리스의 철학자로, 옛사람들은 그가 농사에 대하여 쓴 글을 남겼다고 보았다. 콜루멜라는 1세기 로마의 농학자로 『농사에 대하여』를 남겼고, 바로(기원전 116~27)와 팔라디우스(4세기)도 로마의 농서 저자다.

9. 옮긴이 — 국왕 참사회의 명령은 프랑스에서 왕이 참사회를 거쳐 내리던 행정 명령이다. 앵탕당은 왕이 각 주에 보내 재정과 치안과 재판을 살피게 한 지방 행정관으로, 18세기 프랑스 지방 통치의 중심이었다.

10. 옮긴이 — 저본의 낱말은 negro이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담배 농장에서 노예로 부려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문단의 「6000그루」와 「4에이커」는 그들 한 사람에게 지워진 일의 양을 적은 것이다.

11. 옮긴이 — 저본의 Indian corn 은 아메리카 원산의 낟알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corn 은 모두 곡물, 특히 밀을 뜻하므로 이 자리만 갈라 적었다.

12. 옮긴이 — 저본의 barren timber 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서 얻는 재목을 말한다. 과일나무와 맞세운 말이며,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 데 쓰였다.

13. 옮긴이 — equipage 는 마차와 그것을 끄는 말, 거기 딸린 마부와 하인까지 아우르는 것을 가리킨다. 18세기에 신분과 넉넉함을 드러내는 가장 눈에 띄는 살림이었다.

14. 옮긴이 — 「몇 년치 값」(years purchase)은 한 해 지대의 몇 배로 땅값을 셈하던 당대의 방식이다. 30년치 값이면 한 해 지대의 30배를 내고 그 땅을 산다는 뜻이다.

15. 옮긴이 — 「거친 금속」은 구리와 납과 주석과 철처럼 값이 낮은 금속을 가리키며, 금과 은 같은 귀금속과 맞세운 스미스의 말이다.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이어서)

생산물의 가치나 지대의 가치나, 곧 그 둘이 공공에게도 소유주에게도 안겨 주는 실질 수입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귀금속이든 보석이든, 가장 넉넉한 광산이라 해도 세상의 부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값어치가 주로 그 드묾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넉넉해지면 반드시 값이 떨어진다. 은그릇 한 벌이며 옷과 가구를 꾸미는 그 밖의 시시한 장식들을 더 적은 양의 상품으로 살 수 있게 될 터인데, 세상이 그 넉넉함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란 이것뿐이다.

땅 위의 재산은 사정이 다르다. 그 생산물의 가치도 그 지대의 가치도 서로 견준 기름짐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름짐에 비례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얼마만큼 내는 땅은 언제나 얼마만큼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할 수 있으며, 지주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이든 그 몫만큼 그에게 그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그리고 그 노동이 그에게 내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배력을 준다. 가장 메마른 땅의 가치는 가장 기름진 땅이 곁에 있다고 해서 줄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 그 때문에 늘어난다. 기름진 땅이 먹여 살리는 그 많은 사람이 메마른 땅에서 나는 생산물의 여러 부분에 시장을 열어 주는데, 그 시장은 메마른 땅이 제 생산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먹을 것을 내는 땅의 기름짐을 키우는 것은 무엇이든, 그 개량이 베풀어진 땅의 가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땅의 생산물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어 그 땅들의 가치까지 키우는 데 이바지한다. 땅을 개량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제 손으로 다 먹어 치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먹을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먹을 것의 넉넉함이야말로 귀금속과 보석은 물론이고 옷·집·살림살이·수레와 말을 꾸미는 온갖 편의와 장식에 대한 수요를 낳는 큰 원인이다. 먹을 것은 세상의 부에서 으뜸되는 부분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에 그 가치의 으뜸되는 부분을 주는 것 또한 먹을 것의 넉넉함이다. 스페인인이 쿠바와 산토도밍고를 처음 찾아냈을 때, 그곳의 가난한 주민들은 머리며 옷의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금 조각을 달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여느 것보다 조금 더 예쁜 조약돌을 여기듯 여겨서, 주워 둘 만은 하지만 달라는 사람에게 굳이 마다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듯했다. 그들은 처음 달라는 말 한마디에 그것을 새 손님들에게 내주었고, 자기들이 무슨 값진 선물을 했다고는 여기지 않는 듯했다. 그것을 얻으려는 스페인인의 혈안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먹을 것이 그토록 남아돌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곧 자기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토록 빠듯한 먹을 것을 그 반짝이는 장난감 조금과 바꾸어 온 집안을 여러 해 먹여 살릴 만큼이나 선선히 내놓는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다. 이 점을 알아듣게 해 줄 수 있었다면 스페인인의 열정이 그들에게 놀랍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3절. 언제나 지대를 내는 종류의 생산물과 어떤 때는 지대를 내고 어떤 때는 내지 않는 종류의 생산물, 이 둘의 값이 서로 맺는 비율에 일어나는 변동에 대하여

개량과 경작이 늘어난 결과로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먹을 것이 아니면서 쓰임새로든 장식으로든 쓰일 수 있는 땅의 생산물 하나하나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늘어난다. 그러므로 개량이 나아가는 내내 이 두 가지 생산물의 견줌 가치에는 한 방향의 변동만 있으리라고 기대할 만하다. 곧 어떤 때는 지대를 내고 어떤 때는 내지 않는 종류의 가치가, 언제나 얼마쯤의 지대를 내는 종류에 견주어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 기예와 근면이 나아감에 따라 옷과 집의 재료, 땅에서 캐내는 요긴한 광물과 재료, 귀금속과 보석은 차츰 더욱더 수요를 얻고, 차츰 더 많은 양의 먹을 것과 바뀌게 되며, 달리 말하면 차츰 더 값비싸져야 한다. 실제로도 이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왔고, 어떤 경우에 특별한 우연이 그 가운데 몇 가지의 공급을 수요보다 더 큰 비율로 늘려 놓지 않았다면 모두가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어느 쪽으로나 켤 수 있는 돌을 캐는 채석장의 가치는 그 주위 고을의 개량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드시 올라가는데, 근처에 그런 채석장이 그것뿐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은광의 가치는 천 마일 안에 다른 은광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놓인 나라가 개량된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는다. 채석장에서 나는 것의 시장은 그 주위 몇 마일을 넘어 뻗는 일이 드물어 그 수요는 대개 그 작은 고을의 개량과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나, 은광에서 나는 것의 시장은 알려진 온 세계에 걸쳐 뻗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가 두루 개량과 인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 광산 근처의 큰 나라 하나가 개량되더라도 은에 대한 수요는 조금도 늘지 않을지 모른다. 세계가 두루 개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량이 나아가는 동안에 이제까지 알려진 어느 것보다도 훨씬 기름진 새 광산이 발견된다면, 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늘어날 터이나 공급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늘어나 그 금속의 실질 가격이 차츰 내려갈 수도 있다. 곧 정해진

어떤 양, 이를테면 1파운드(무게)의 은이 차츰 더 적은 양의 노동을 사거나 부리게 되고, 노동자의 생계에서 으뜸되는 부분인 곡물과 차츰 더 적은 양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은의 큰 시장은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깃든 부분이다.

개량이 두루 나아감으로써 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와 함께 공급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은의 가치는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차츰 올라갈 것이다. 정해진 어떤 양의 은이 차츰 더 많은 양의 곡물과 바뀔 터이니, 달리 말하면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이 차츰 더 헐해질 것이다.

거꾸로 어떤 우연으로 공급이 여러 해에 걸쳐 잇달아 수요보다 큰 비율로 늘어난다면 그 금속은 차츰 더 헐해질 터이니, 달리 말하면 온갖 개량이 있더라도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이 차츰 더 값비싸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금속의 공급이 수요와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거의 같은 양의 곡물을 계속 사거나 그와 바뀔 것이고,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도 온갖 개량이 있더라도 거의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개량이 나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짜임을 모두 다한 듯하다. 그리고 지금 세기에 앞선 네 세기 동안, 프랑스와 영국에서 벌어진 일로 미루어 판단해도 된다면,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짜임이 저마다 유럽 시장에서 일어났던 듯하며 그 순서도 내가 여기 적어 놓은 것과 거의 같았던 듯하다.

지난 네 세기 동안 은의 가치에 일어난 변동에 관한 여담

첫째 시기. 1350년과 그 얼마 앞선 때에 잉글랜드에서 밀 1쿼터[1]의 평균 가격은 런던탑 무게[2]로 은 4온스보다 낮게 어림된 적이 없는 듯한데, 이는 오늘 우리 화폐로 20실링[3]쯤에 해당한다. 이 값에서 차츰

내려가 은 2온스, 곧 오늘 우리 화폐로 10실링쯤이 되었던 듯하다. 16세기 초에 어림된 값이 바로 이것이며, 1570년 무렵까지 계속 그렇게 어림되었던 듯하다.

1350년, 곧 에드워드 3세 치세 25년에 이른바 노동자법[4]이 만들어졌다. 그 머리글은 고용주에게 삯을 올려 받으려고 애쓰는 하인들의 무람없음을 몹시 탓한다. 그래서 이 법은 모든 하인과 노동자가 앞으로는 국왕 치세 20년과 그 앞의 네 해에 받아 오던 것과 똑같은 임금과 리버리로 만족해야 한다고 정하고(그때 리버리는 옷만이 아니라 식료품까지 뜻했다), 그런 까닭으로 리버리로 주는 밀은 어디서나 1부셸에 10펜스보다 높게 어림해서는 안 되며, 밀로 줄지 돈으로 줄지는 언제나 고용주가 고를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1부셸에 10펜스는 에드워드 3세 치세 25년에 밀의 아주 알맞은 값으로 셈되고 있었다. 하인들이 늘 받던 식료품 리버리를 그 값으로 바꾸어 받도록 강제하는 데 따로 법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열 해 앞선 국왕 치세 16년, 곧 이 법령이 가리키는 그 시기에도 그것은 알맞은 값으로 셈되고 있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 치세 16년에 10펜스에는 런던탑 무게로 은 반 온스쯤이 들어 있었고, 이는 오늘 우리 화폐의 반 크라운에 거의 맞먹었다. 그러므로 런던탑 무게로 은 4온스, 곧 그때 화폐로 6실링 8펜스이고 오늘 화폐로는 20실링에 가까운 값이 8부셸 1쿼터의 알맞은 값으로 셈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법령은 그때 곡물의 알맞은 값으로 무엇이 셈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로 몇몇 해의 값보다 틀림없이 낫다. 그런 해의 값은 유별나게 값비싸거나 헐했던 까닭으로 역사가와 그 밖의 글쓴이들이 적어 둔 것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서 예사로운 값이 얼마였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뿐 아니라 14세기 초와 그 얼마 앞선 때에 밀의 흔한 값이 1쿼터에 은

4온스보다 적지 않았고 다른 곡물도 그에 비례했다고 믿을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

1309년에 캔터베리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원장 랠프 드 본은 취임하는 날에 잔치를 열었는데, 윌리엄 손이 그 잔치의 차림표만이 아니라 여러 품목의 값까지 남겨 놓았다. 그 잔치에서 쓰인 것은 첫째로 밀 53쿼터인데 값이 19파운드, 곧 1쿼터에 7실링 2펜스였으니 오늘 우리 화폐로 21실링 6펜스쯤에 해당한다. 둘째로 엿기름 58쿼터인데 값이 17파운드 10실링, 곧 1쿼터에 6실링이었으니 오늘 우리 화폐로 18실링쯤에 해당한다. 셋째로 귀리 20쿼터인데 값이 4파운드, 곧 1쿼터에 4실링이었으니 오늘 우리 화폐로 12실링쯤에 해당한다. 여기서 엿기름과 귀리의 값은 밀값에 대한 예사로운 비율보다 높아 보인다.

이 값들은 유별나게 값비싸거나 헐해서 적힌 것이 아니라, 그 호사스러움으로 이름난 잔치에서 쓰인 많은 양의 곡물에 실제로 치른 값으로서 우연히 언급된 것이다.

1262년, 곧 헨리 3세 치세 51년에 빵과 맥주의 정찰법[5]이라 불리는 옛 법령이 되살려졌다. 국왕은 그 머리글에서 이 법이 한때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자기 조상들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아무리 늦어도 그의 할아버지 헨리 2세의 시절만큼은 오래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정복 때만큼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 이 법은 그때 화폐로 1쿼터에 1실링에서 20실링에 이르기까지 밀값이 얼마가 되든 그에 따라 빵값을 정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법령은 대개 가운뎃값에서 벗어나는 모든 경우를, 곧 그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똑같이 꼼꼼하게 헤아려 두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런던탑 무게로 은 6온스가 들어 있고 오늘 우리 화폐로 30실링쯤에 해당하는 10실링이, 이 가정에 따르면 이 법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밀 1쿼터의 가운뎃값으로 셈되었을 것이고 헨리 3세 치세 51년에도 계속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니 가운뎃값이 이

법령이 빵값을 정해 둔 가장 높은 값의 3분의 1보다, 곧 런던탑 무게로 은 4온스가 들어 있는 그때 화폐의 6실링 8펜스보다 적지 않았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사실로부터 우리는 14세기 중엽과 그보다 꽤 오랜 앞선 때에 밀 1쿼터의 평균값 또는 예사로운 값이 런던탑 무게로 은 4온스보다 적다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얼마쯤의 근거를 얻은 듯하다.

14세기 중엽 무렵부터 16세기 초까지, 알맞고 온당하다고 셈되던 값, 곧 밀의 예사로운 값 또는 평균값은 차츰 이 값의 절반쯤으로 가라앉아 마침내 런던탑 무게로 은 2온스, 곧 오늘 우리 화폐로 10실링쯤까지 내려간 듯하다. 1570년 무렵까지 이 값으로 계속 어림되었다.

1512년에 엮인 노섬벌랜드의 다섯째 백작 헨리의 살림 책에는 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어림이 나온다. 하나는 1쿼터에 6실링 8펜스로 셈해 놓았고, 다른 하나는 겨우 5실링 8펜스로 셈해 놓았다. 1512년에 6실링 8펜스에는 런던탑 무게로 은이 2온스밖에 들어 있지 않았고, 이는 오늘 우리 화폐로 10실링쯤에 해당했다.

에드워드 3세 치세 25년부터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를 무렵까지 200년이 넘는 동안, 여러 법령에서 드러나듯이 6실링 8펜스가 이른바 온당하고 알맞은 값, 곧 밀의 예사로운 값 또는 평균값으로 계속 여겨졌다. 그러나 그 명목상의 액수에 들어 있는 은의 양은 이 기간 동안 주화에 몇 차례 손질이 가해진 결과로 끊임없이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은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같은 명목 액수에 들어 있는 은의 양이 줄어든 것을 어느 만큼 메워 주었으므로, 입법부는 이 사정을 굳이 헤아릴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듯하다.

그리하여 1436년에는 값이 6실링 8펜스만큼 낮을 때에는 허가 없이 밀을 내보낼 수 있다고 정해졌고, 1463년에는 값이 1쿼터에 6실링

8펜스를 넘지 않으면 밀을 들여오지 못한다고 정해졌다. 입법부는 값이 그만큼 낮을 때에는 내보내는 데 아무 불편이 없으나, 값이 그보다 오르면 들여오기를 허락하는 것이 슬기롭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화폐의 13실링 4펜스와 거의 같은 양의 은이 들어 있던 6실링 8펜스가, 다시 말해 에드워드 3세 시절에 같은 명목 액수에 들어 있던 것보다 3분의 1 적은 은이 들어 있던 액수가 그때에는 이른바 밀의 온당하고 알맞은 값으로 여겨졌다.

1554년에 펠리페와 메리 치세 1년 및 2년의 법으로, 그리고 1558년에 엘리자베스 치세 1년의 법으로, 1쿼터 값이 6실링 8펜스를 넘을 때마다 밀을 내보내는 것이 마찬가지로 금지되었는데, 그때 그 액수에 들어 있던 은은 지금 같은 명목 액수에 들어 있는 것보다 2펜스어치도 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값이 그토록 낮아질 때까지 밀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내보내기를 아주 막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내 드러났다. 그리하여 1562년에 엘리자베스 치세 5년의 법으로, 1쿼터 값이 10실링을 넘지 않을 때마다 몇몇 항구에서 밀을 내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10실링에 들어 있던 은의 양은 오늘 같은 명목 액수에 들어 있는 것과 거의 같았다. 그러므로 이 무렵에는 이 값이 이른바 밀의 온당하고 알맞은 값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는 1512년 노섬벌랜드 책의 어림과 거의 들어맞는다.

프랑스에서도 곡물의 평균값이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그 앞선 두 세기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은 뒤프레 드 생모르와 『곡물 행정론』의 우아한 지은이가 함께 살펴본 바다. 같은 기간에 유럽의 대부분에서도 그 값이 아마 같은 길을 밟아 가라앉았을 것이다.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은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개량과 경작이 늘어난 결과로 그 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에 온전히 말미암았고 그동안 공급은 예전과 같이 이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수요는 예전과 같이 이어졌는데 공급이 차츰 줄어든 데에 온전히 말미암았을 수도 있다. 그때 세상에 알려져 있던 광산의 대부분이 많이 바닥나서 그것을 파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또는 이 두 사정에 얼마씩 나뉘어 말미암았을 수도 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유럽의 대부분은 그 앞의 여러 시대에 누린 것보다 더 자리 잡힌 통치의 꼴로 다가가고 있었다. 안전이 늘어나면 자연히 근면과 개량이 늘어나고, 귀금속에 대한 수요도 그 밖의 온갖 사치와 장식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부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늘어난다. 한 해에 나는 생산물이 더 많아지면 그것을 돌리는 데 더 많은 양의 주화가 필요하고, 넉넉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면 은그릇과 그 밖의 은 장식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또 그때 유럽 시장에 은을 대던 광산의 대부분이 꽤 바닥나서 파는 데 돈이 더 들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가운데 많은 광산은 로마인의 시절부터 파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옛 시절의 상품 값에 대하여 글을 쓴 사람들 대부분은 정복 때부터, 어쩌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쳐들어온 때부터 아메리카의 광산이 발견될 때까지 은의 가치가 끊임없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품어 왔다. 그들이 이런 의견으로 끌려간 것은 한편으로는 곡물과 땅이 내는 원생산물의 몇몇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값에서 비롯되었고,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부가 늘어남에 따라 은의 양이 자연히 늘어나므로 그 양이 늘어나는 만큼 그 가치는 줄어든다는 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곡물 값을 살피는 데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정이 그들을 자주 잘못 이끈 듯하다.

첫째로 옛 시절에는 지대를 거의 모두 물건으로 치렀다. 곧 얼마만큼의 곡물, 소, 닭 따위로 치렀다. 그런데 지주가 차지인에게 해마다 물건으로 치르게 할지 그 대신 얼마만큼의 돈으로 치르게 할지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을 두는 일이 더러 있었다. 물건으로 치를 것을 이렇게 얼마만큼의 돈으로 바꿀 때 쓰는 값을 스코틀랜드에서는 환산가라 부른다. 물건을 받을지 값을 받을지 고르는 권리가 언제나 지주에게 있으므로, 차지인이 안전하려면 환산가가 평균 시장 가격보다 높기보다는 낮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것은 이 값의 절반을 크게 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대부분에서는 닭에 대하여 이 관습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소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가격[6]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끝내지 않았다면 곡물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그러했을 것이다. 공정가격이란 주마다의 실제 시장 가격에 따라 온갖 종류의 곡물과 그 하나하나의 온갖 품질에 대하여 평균값을 해마다 심리원의 판정으로 매기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곡물 지대를 이른바 환산할 때 정해 둔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해의 공정가격에 따라 환산하는 것이 차지인에게는 넉넉히 안전해지고 지주에게는 훨씬 편해졌다. 그런데 옛 시절의 곡물 값을 모은 글쓴이들은 스코틀랜드에서 환산가라 부르는 것을 실제 시장 가격으로 잘못 알아본 일이 잦았던 듯하다. 플리트우드[7]는 한 자리에서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목적을 두고 책을 쓴 터라 이 환산가를 열다섯 번이나 옮겨 적은 뒤에야 그 시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그 값은 밀 1쿼터에 8실링이다. 그가 이 값을 처음 쓴 해인 1423년에 이 액수에는 오늘 우리 화폐의 16실링과 같은 양의 은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이 값을 마지막으로 쓴 해인 1562년에는 같은 명목 액수에 지금 들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있지 않았다.

둘째로 그들은 옛 정찰법 몇 가지가 게으른 필사자들의 손에 엉성하게 옮겨 적힌 탓에,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입법부가 실제로 엉성하게 지어낸 탓에 잘못 이끌렸다.

옛 정찰법들은 언제나 밀과 보리의 값이 가장 낮을 때 빵과 맥주의 값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하여, 그 두 곡물의 값이 이 가장 낮은 값 위로 차츰 오름에 따라 그 값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해 나갔던 듯하다. 그런데 그 법령을 옮겨 적은 사람들은 앞머리의 가장 낮은 값 서너 개까지만 규정을 베껴 두면 넉넉하다고 여긴 일이 잦았던 듯하다. 그렇게 해서 제 수고를 덜면서, 더 높은 모든 값에서 어떤 비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이기에는 이것으로 넉넉하다고 판단했으리라고 나는 짐작한다.

그리하여 헨리 3세 치세 51년의 빵과 맥주의 정찰법에서 빵값은 그때 화폐로 1쿼터에 1실링에서 20실링에 이르는 밀의 여러 값에 따라 정해졌다. 그런데 러프헤드의 판본에 앞선 여러 법령집이 모두 바탕으로 삼은 필사본에서는, 베낀 사람들이 이 규정을 12실링의 값을 넘어서까지 옮겨 적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글쓴이가 이 흠 있는 필사에 잘못 이끌려, 가운뎃값인 1쿼터에 6실링, 곧 오늘 우리 화폐로 18실링쯤이 그때 밀의 예사로운 값 또는 평균값이었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지었다.

거의 같은 때에 만들어진 자벨대와 차꼬의 법[8]에서 맥주 값은 보리 값이 1쿼터에 2실링에서 4실링에 이르는 동안 6펜스 오를 때마다 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그 4실링이 그때 보리 값이 자주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며, 이 값들은 더 높든 더 낮든 다른 모든 값에서 지켜야 할 비율을 보이는 보기로만 제시된 것임을 우리는 그 법령의 마지막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Et sic deinceps crescetur vel diminuetur per sex denarios.) 표현은 몹시 엉성하지만 뜻은 넉넉히 분명하다. 보리 값이 6펜스 오르내릴 때마다 그에 따라 맥주 값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린다는 말이다. 이 법령을

지어낸 데서 입법부 자신도 다른 법령을 옮겨 적은 필사자들만큼이나 소홀했던 듯하다.

스코틀랜드의 옛 법서인 『레기암 마예스타템』의 오랜 필사본에는 정찰법 하나가 실려 있는데, 거기서 빵값은 스코틀랜드 볼[9]로 10펜스에서 3실링에 이르는 밀의 온갖 값에 따라 정해진다. 스코틀랜드 볼은 잉글랜드 1쿼터의 절반쯤에 해당한다. 이 정찰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때에 스코틀랜드 화폐 3실링은 오늘 우리 화폐로 스털링 9실링쯤에 해당했다. 루디먼은 이로부터 3실링이 그때 밀값이 오른 가장 높은 값이고 10펜스나 1실링, 많아야 2실링이 예사로운 값이었다고 결론짓는 듯하다. (앤더슨의 『스코틀랜드 문서집』에 그가 붙인 머리글을 보라.) 그러나 그 필사본을 살펴보면 이 값들이 모두 밀값과 빵값이 서로 지켜야 할 비율의 보기로만 적혀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법령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reliqua judicabis secundum praescripta, habendo respectum ad pretium bladi.) 곧 「나머지 경우는 곡물 값을 헤아려 위에 적힌 바에 따라 판단하라」는 말이다.

셋째로 그들은 아주 옛 시절에 밀이 더러 팔린 몹시 낮은 값에도 잘못 이끌려, 그때의 가장 낮은 값이 뒷날보다 훨씬 낮았으니 예사로운 값도 마찬가지로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그 옛 시절에 밀의 가장 높은 값이 뒷날 알려진 어떤 값보다도 위로 올라간 폭이, 가장 낮은 값이 아래로 내려간 폭과 넉넉히 맞먹었다는 것을 그들은 찾아낼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플리트우드는 1270년에 밀 1쿼터의 값을 두 가지 들어 보인다. 하나는 그때 화폐로 4파운드 16실링인데 이는 오늘 화폐로 14파운드 8실링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6파운드 8실링인데 이는 오늘 우리 화폐로 19파운드 4실링에 해당한다.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초에는 이만한 터무니없음에 다가가는 값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곡물 값은

어느 때나 변동하기 쉬우나, 온갖 거래와 왕래가 끊겨 나라의 한쪽에 있는 넉넉함으로 다른 쪽의 모자람을 덜어 줄 수 없는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사회에서 가장 크게 변동한다. 12세기 중엽 무렵부터 1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를 다스린 플랜태저넷 왕가 아래의 무질서한 형편에서는, 한 고을이 넉넉한 동안에 멀지 않은 다른 고을이 철에 닥친 어떤 우연으로든 근처 영주의 침범으로든 농사를 망쳐 굶주림의 온갖 끔찍함을 겪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두 고을 사이에 사이가 나쁜 어느 영주의 땅이 끼어 있으면 한쪽이 다른 쪽에 조금의 도움도 줄 수 없었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내내 잉글랜드를 다스린 튜더 왕가의 힘찬 통치 아래에서는 어느 영주도 감히 공공의 안전을 흔들 만큼 힘이 세지 못했다.

이 장의 끝에서 독자는 플리트우드가 모은 1202년부터 1597년까지의 밀값 전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값들은 오늘 화폐로 고쳐져 있고, 열두 해씩 일곱 묶음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묶음마다 그 끝에는 그 열두 해의 평균값도 실려 있다. 그 긴 기간에서 플리트우드가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든 해의 값뿐이어서, 마지막 열두 해를 채우려면 네 해가 모자란다. 그래서 나는 이튼 칼리지의 회계에서 1598년, 1599년, 1600년, 1601년의 값을 가져다 보탰다. 내가 보탠 것은 이것뿐이다. 독자는 13세기 초부터 16세기 중엽을 지날 때까지 열두 해씩의 평균값이 차츰 낮아지고, 16세기 말로 갈수록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플리트우드가 모을 수 있었던 값은 실로 유별나게 값비싸거나 헐해서 눈에 띄던 것이 주로였던 듯하며, 나는 거기서 아주 확실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밝혀 주는 한, 그것은 내가 들려주려고 애써 온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플리트우드 자신은 다른 대부분의 글쓴이와 함께, 이 기간 내내 은이 넉넉해진 결과로 그 가치가 끊임없이

줄어들었다고 믿었던 듯하다. 그가 스스로 모은 곡물 값은 이 의견과 분명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것은 뒤프레 드 생모르의 의견과, 그리고 내가 풀어 보이려고 애써 온 의견과 온전히 들어맞는다. 플리트우드 주교와 뒤프레 드 생모르는 옛 시절 물건의 값을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미덥게 모은 두 지은이로 보인다. 그 두 사람의 의견이 그토록 다른데도 사실만은, 적어도 곡물 값에 걸린 사실만은 그토록 꼭 들어맞는다는 것이 얼마쯤 신기하다.

그런데 가장 슬기로운 글쓴이들이 그 아주 옛 시절에 은의 가치가 컸다고 미루어 안 것은 곡물의 낮은 값보다는 땅이 내는 원생산물의 다른 몇몇 부분의 낮은 값에서였다. 곡물은 일종의 제조품이므로 그 거친 시대에는 다른 상품 대부분보다 비율로 따져 훨씬 값비쌌다고들 한다. 내 짐작으로는 소·닭·온갖 사냥감 따위와 같이 제조를 거치지 않은 상품 대부분보다 값비쌌다는 말이다. 가난하고 미개했던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이 곡물보다 비율로 따져 훨씬 헐했다는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그러나 이 헐함은 은의 가치가 높았던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상품들의 가치가 낮았던 데서 온 것이다. 그때 은이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사거나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품이 더 넉넉하고 더 개량된 시절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거나 나타냈기 때문이다. 은은 유럽보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틀림없이 더 헐하다. 은이 나는 나라에서가, 땅과 바다로 멀리 실어 오는 비용과 뱃삯과 보험료를 들여 그것을 가져가는 나라에서보다 더 헐할 것이다. 그런데 우요아의 말로는 얼마 전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너 백 마리 떼에서 골라낸 황소 한 마리의 값이 스털링 21펜스 반이었다. 바이런의 말로는 칠레의 도읍에서 좋은 말 한 마리의 값이 스털링 16실링이었다. 본디 기름지나 그 태반이 아주 갈리지 않은 채로 있는 나라에서는 소·닭·온갖 사냥감 따위를 아주 적은 양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것도 아주

적은 양뿐이다. 그것이 팔릴 수 있는 낮은 화폐 가격은 거기서 은의 실질 가치가 아주 높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상품들의 실질 가치가 아주 낮다는 증거다.

은의 가치든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든 그 참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상품 꾸러미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거의 버려져 있거나 사람이 드물게 사는 나라에서는 소·닭·온갖 사냥감 따위가 자연이 저절로 내는 것이어서, 자연은 그것을 주민들이 먹어 치우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내놓는 일이 잦다. 그런 형편에서는 공급이 대개 수요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사회의 형편이 다르고 개량의 형편이 다르면, 그런 상품은 서로 아주 다른 양의 노동을 나타내거나 그것과 맞먹게 된다.

사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개량이 어느 단계에 있든 곡물은 사람의 근면이 낸 생산물이다. 그런데 어떤 근면이든 그것이 내는 평균 생산물은 언제나 평균 소비에, 곧 평균 공급은 평균 수요에 얼마쯤 정확하게 맞추어진다. 그뿐 아니라 개량의 단계가 서로 달라도 같은 흙과 같은 기후에서 같은 양의 곡물을 기르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같은 양의 노동이, 또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거의 같은 양의 값이 든다. 경작이 개량된 형편에서 노동의 생산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것은 농업의 으뜸된 도구인 소의 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으로 얼마쯤 맞비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까닭으로 우리는 같은 양의 곡물이, 사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개량이 어느 단계에 있든, 땅이 내는 원생산물의 다른 어떤 부분의 같은 양보다도 같은 양의 노동을 더 가깝게 나타내거나 그것과 더 가깝게 맞먹는다고 마음 놓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곡물은 부와 개량의 온갖 다른 단계에서 다른 어떤 상품이나 상품 꾸러미보다도 가치를 더 정확하게 재는 자다. 그러므로

그 온갖 다른 단계에서 우리는 은을 다른 어떤 상품이나 상품 꾸러미와 견주기보다 곡물과 견주어서 그 실질 가치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곡물이든 그 밖에 백성이 흔히 즐겨 먹는 식물성 먹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문명이 깃든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자의 생계에서 으뜸되는 부분을 이룬다. 농업이 넓어진 결과로 어느 나라의 땅이든 동물성 먹을 것보다 식물성 먹을 것을 훨씬 많은 양으로 내며, 노동자는 어디서나 가장 헐하고 가장 넉넉한 몸에 좋은 먹을 것으로 주로 살아간다. 푸주간 고기는 가장 번성한 나라나 노동이 가장 후하게 갚아지는 곳이 아니라면 그의 생계에서 대단찮은 몫밖에 차지하지 않고, 닭고기는 그보다 더 작은 몫을 차지하며, 사냥감은 아무 몫도 차지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노동이 프랑스보다 얼마쯤 후하게 갚아지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노동하는 빈민은 축일이나 그 밖의 유별난 자리가 아니면 푸주간 고기를 좀처럼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의 화폐 가격은 푸주간 고기나 땅이 내는 원생산물의 다른 어떤 부분의 평균 화폐 가격보다 노동자의 생계인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에 훨씬 더 달려 있다. 따라서 금과 은의 실질 가치, 곧 그것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실질 양은 그것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푸주간 고기나 땅이 내는 원생산물의 다른 어떤 부분의 양보다 곡물의 양에 훨씬 더 달려 있다.

그러나 곡물이든 다른 상품이든 그 값에 대한 이런 어설픈 살핌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총명한 지은이를 잘못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동시에, 어느 나라에서나 부가 늘어남에 따라 은의 양이 자연히 늘어나므로 그 양이 늘어나는 만큼 그 가치는 줄어든다는 세간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아무 근거도 없는 듯하다.

어느 나라에서든 귀금속의 양은 서로 다른 두 원인으로 늘어날 수 있다. 첫째는 그 나라에 귀금속을 대는 광산이 더 넉넉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의 부가 늘어나는 것, 곧 그들이 한 해에 하는 노동의

생산물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원인은 의심할 것 없이 귀금속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반드시 이어져 있으나, 둘째 원인은 그렇지 않다.

더 넉넉한 광산이 발견되면 더 많은 양의 귀금속이 시장에 나오고, 그것과 바꾸어야 할 살림에 꼭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의 양은 예전과 같으므로, 같은 양의 금속이 더 적은 양의 상품과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귀금속의 양이 늘어난 것이 광산이 더 넉넉해진 데서 비롯된 한, 그것은 그 가치가 얼마쯤 줄어드는 것과 반드시 이어져 있다.

거꾸로 어느 나라의 부가 늘어나 그 노동이 한 해에 내는 생산물이 차츰 많아지면, 더 많은 양의 상품을 돌리는 데 더 많은 양의 주화가 필요해진다. 또 백성은 그럴 힘이 있으므로, 곧 그 대가로 내줄 상품이 더 많아졌으므로 자연히 은그릇을 차츰 더 많은 양으로 사들일 것이다. 그들의 주화는 필요 때문에 양이 늘어나고, 은그릇은 허영과 자랑 때문에, 또는 훌륭한 조각과 그림과 그 밖의 온갖 사치품과 진귀한 물건이 그들 사이에서 양이 늘어날 법한 것과 같은 까닭으로 양이 늘어난다. 그런데 조각가와 화가가 부유하고 번성한 시절에 가난하고 가라앉은 시절보다 더 못한 보수를 받을 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금과 은도 더 못한 값을 받을 법하지 않다.

더 넉넉한 광산이 우연히 발견되어 값을 눌러 두지 않는다면, 금과 은의 값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부와 더불어 자연히 오르고, 따라서 광산의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나 가난한 나라보다 넉넉한 나라에서 자연히 더 높다. 금과 은도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값을 주는 시장을 자연히 찾아가는데, 무엇에든 가장 좋은 값을 주는 것은 대개 그럴 힘이 가장 넉넉한 나라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에든 치러지는 마지막 값이 노동이라는 점이다. 노동이 똑같이 후하게

갚아지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의 화폐 가격이 노동자의 생계의 화폐 가격에 비례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가난한 나라보다 넉넉한 나라에서, 생계가 어설프게 대어지는 나라보다 생계가 넘치는 나라에서 자연히 더 많은 양의 생계와 바뀐다. 두 나라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차이가 아주 클 수 있다. 금속이 못한 시장에서 나은 시장으로 자연히 날아가기는 하지만, 두 곳의 값이 거의 고르게 될 만한 양으로 실어 보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가까우면 그 차이는 더 작고 더러는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작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어 보내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럽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넉넉한 나라이고, 중국과 유럽에서 생계의 값 차이는 아주 크다. 중국의 쌀은 유럽 어디의 밀보다도 훨씬 헐하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넉넉한 나라이지만, 두 나라에서 곡물의 화폐 가격 차이는 훨씬 작아서 겨우 알아챌 만하다. 양이나 되로 따지면 스코틀랜드 곡물은 대개 잉글랜드 곡물보다 꽤 헐해 보이나, 품질로 따지면 틀림없이 얼마쯤 더 값비싸다. 스코틀랜드는 거의 해마다 잉글랜드에서 아주 많은 양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상품이든 대개 그것이 나온 나라보다 그것이 들어간 나라에서 얼마쯤 더 값비싸다. 그러므로 잉글랜드 곡물은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값비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품질로, 곧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밀가루나 거친 가루의 양과 좋음으로 따지면, 그것과 겨루며 시장에 나오는 스코틀랜드 곡물보다 거기서 더 높은 값에 팔릴 수는 대개 없다.

중국과 유럽에서 노동의 화폐 가격 차이는 생계의 화폐 가격 차이보다 더 크다. 유럽의 대부분이 개량되어 가는 형편에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제자리에 멈춰 선 듯하므로, 노동의 실질 보수가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노동의 화폐 가격은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낮은데, 이는 노동의 실질 보수가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더 큰 부로 나아가고 있으나 잉글랜드보다 훨씬 느리게 나아간다. 스코틀랜드에서 사람이 자주 떠나가고 잉글랜드에서는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 것이 두 나라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넉넉히 밝혀 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마다 노동의 실질 보수가 서로 맺는 비율이 그 나라의 실제 부나 가난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아가는 형편인지 멈춘 형편인지 기울어 가는 형편인지에 따라 자연히 정해진다는 점이다.

금과 은은 가장 넉넉한 나라들 사이에서 자연히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가장 작은 가치를 지닌다.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미개한 종족들 사이에서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다.

큰 도시에서는 곡물이 시골 외진 곳보다 언제나 더 값비싸다. 그러나 이는 은이 실제로 헐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 실제로 값비싼 데서 오는 것이다. 은을 큰 도시로 가져가는 데 드는 노동이 시골 외진 곳으로 가져가는 데 드는 것보다 적지는 않지만, 곡물을 가져가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동이 든다.

네덜란드와 제노바의 영역처럼 아주 넉넉하고 거래가 활발한 몇몇 나라에서는 큰 도시에서 곡물이 값비싼 것과 같은 까닭으로 곡물이 값비싸다. 그 나라들은 제 주민을 먹여 살릴 만큼을 내지 못한다. 그들은 제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근면과 솜씨에서, 노동을 손쉽게 하고 줄여 주는 온갖 기계에서, 배와 실어 보내고 거래하는 데 쓰는 그 밖의 온갖 도구와 수단에서 넉넉하다. 그러나 곡물에서는 가난하니, 곡물은 먼 나라에서 가져와야 하므로 값을 더 붙여 그 나라들에서 실어 오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 은을 단치히로 가져가는 데 드는 노동이 암스테르담으로 가져가는 데 드는 것보다 적지는 않으나, 곡물을 가져가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동이 든다. 은의 실질 비용은 두 곳에서

거의 같을 것이나 곡물의 실질 비용은 아주 다를 것이다. 네덜란드든 제노바의 영역이든 주민의 수는 그대로 둔 채 그 실질적인 넉넉함을 줄여 보라. 먼 나라에서 스스로 조달할 힘을 줄여 보라. 그러면 곡물 값은 이 기울어짐에 원인으로든 결과로든 반드시 따라붙는 은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가라앉기는커녕 굶주림의 값까지 오를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 우리는 남는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데, 남는 것의 가치는 넉넉하고 번성한 시절에 오르고 가난하고 괴로운 시절에 가라앉는다. 꼭 필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 실질 가격, 곧 그것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은 가난하고 괴로운 시절에 오르고, 넉넉하고 번성한 시절에 가라앉는다. 넉넉하고 번성한 시절은 언제나 크게 풍족한 시절이며, 그렇지 않다면 넉넉하고 번성한 시절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곡물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은은 남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14세기 중엽과 16세기 중엽 사이의 기간에 부와 개량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귀금속 양의 증가가 얼마였든, 그것이 영국에서든 유럽의 다른 어느 곳에서든 귀금속의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기울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옛 시절 물건의 값을 모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곡물이든 다른 상품이든 그 값을 살핀 바에서 은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미루어 알 근거가 없었다면, 부와 개량이 늘었으리라는 짐작에서 그것을 미루어 알 근거는 더욱 없었다.

둘째 시기. 첫째 시기에 은의 가치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아무리 여러 갈래였다 하더라도, 둘째 시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한결같다.

1570년 무렵부터 1640년 무렵까지 70년쯤 되는 기간에 은의 가치와 곡물의 가치가 맺는 비율의 변동은 사뭇 반대의 길을 걸었다. 은은 실질 가치가 가라앉아 예전보다 더 적은 양의 노동과 바뀌게 되었고, 곡물은 명목 가격이 올라 1쿼터에 은 2온스쯤, 곧 오늘 우리 화폐로 10실링쯤에

흔히 팔리던 것이 1쿼터에 은 6온스와 8온스, 곧 오늘 우리 화폐로 30실링과 40실링쯤에 팔리게 되었다.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은의 가치가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아메리카의 넉넉한 광산이 발견된 것이 유일한 원인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누구나 이를 똑같이 설명하며, 그 사실을 두고서든 그 원인을 두고서든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 기간에 유럽의 대부분은 근면과 개량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므로 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급이 늘어난 것이 수요가 늘어난 것을 어찌나 넘어섰던지 그 금속의 가치가 크게 가라앉았다. 눈여겨볼 것은 아메리카의 광산이 발견된 일이 1570년 뒤에 이르기까지는 잉글랜드의 물건 값에 이렇다 할 영향을 끼치지 않은 듯하다는 점이다. 포토시의 광산만 해도 그보다 20년이 더 앞서 발견되어 있었는데도 그러했다.

1595년부터 1620년까지 두 해를 다 넣어,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 9부셀 1쿼터의 평균 가격은 이튼 칼리지의 회계로 보아 2파운드 1실링 6 9/13펜스였던 듯하다. 이 액수에서 끝의 분수를 버리고 그 9분의 1, 곧 4실링 7 1/3펜스를 덜어 내면 8부셀 1쿼터의 값은 1파운드 16실링 10 2/3펜스가 된다. 그리고 이 액수에서도 분수를 버리고, 가장 좋은 밀의 값과 중간 밀의 값 차이로 그 9분의 1, 곧 4실링 1 1/9펜스를 덜어 내면 중간 밀의 값은 1파운드 12실링 8 8/9펜스쯤, 곧 은 6온스와 3분의 1온스쯤이 된다.

1621년부터 1636년까지 두 해를 다 넣어, 같은 시장에서 같은 되로 되는 가장 좋은 밀의 평균 가격은 같은 회계로 보아 2파운드 10실링이었던 듯하다. 여기서 앞의 경우와 같이 덜어 내면 중간 밀 8부셀 1쿼터의 평균 가격은 1파운드 19실링 6펜스, 곧 은 7온스와 3분의 2온스쯤이 된다.

셋째 시기. 1630년과 1640년 사이, 곧 1636년 무렵에 아메리카의 광산 발견이 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은 다 끝난 듯하고, 그 금속의 가치가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그때보다 더 낮게 가라앉은 적은 없는 듯하다. 그것은 지금 세기에 들어 얼마쯤 올라간 듯하며, 아마 지난 세기가 끝나기 얼마 앞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1637년부터 1700년까지 두 해를 다 넣어, 곧 지난 세기의 마지막 64년 동안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 9부셸 1쿼터의 평균 가격은 같은 회계로 보아 2파운드 11실링 0 1/3펜스였던 듯한데, 이는 그 앞 16년 동안보다 1실링 0 1/3펜스밖에 더 값비싸지 않다. 그러나 이 64년 동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철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 두었을 때보다 곡물을 훨씬 더 모자라게 만들었을 것이므로, 은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고 가정하지 않고도 이 아주 작은 값의 오름을 넉넉히 설명해 준다.

이 가운데 첫째 사건은 내전이었다. 내전은 밭갈이를 가라앉히고 거래를 끊음으로써 곡물 값을 철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 두었을 때보다 훨씬 높이 올려놓았을 것이다. 이 작용은 왕국의 온갖 시장에서 얼마쯤씩 나타났겠지만, 가장 먼 곳에서 조달해 와야 하는 런던 근처의 시장에서 특히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1648년에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의 값은 같은 회계로 보아 4파운드 5실링이었고, 1649년에는 9부셸 1쿼터에 4파운드였던 듯하다. 이 두 해의 값이 1637년 앞 16년의 평균값인 2파운드 10실링을 넘어선 만큼은 3파운드 5실링인데, 이것만 지난 세기의 마지막 64년에 나누어 붙여도 그 64년에 일어난 듯한 그 작은 값의 오름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높은 값일 뿐이며, 내전이 일으킨 듯한 높은 값이 이것뿐인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사건은 1688년에 주어진 곡물 수출 장려금[10]이었다. 많은 사람은 이 장려금이 밭갈이를 북돋워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에 나라 안

시장에서 곡물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넉넉하게, 따라서 더 헐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장려금이 어느 때고 이런 작용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지금은 1688년과 1700년 사이에 그런 작용을 낼 만한 틈이 없었다는 것만 말해 두겠다. 이 짧은 기간에 그것이 낸 작용이란 해마다 남는 생산물을 내보내도록 북돋우고 그리하여 한 해의 넉넉함으로 다른 해의 모자람을 메우는 것을 막아, 나라 안 시장의 값을 올린 것뿐이었을 것이다. 1693년부터 1699년까지 두 해를 다 넣어 잉글랜드에 널리 퍼진 모자람은 의심할 것 없이 주로 철이 나빴던 데서 온 것이고 그래서 유럽의 꽤 넓은 곳까지 뻗어 있었지만, 장려금이 그것을 얼마쯤 더 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1699년에는 곡물을 더 내보내는 것이 아홉 달 동안 금지되었다.

같은 기간에 셋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곡물을 모자라게 만들 수도 없었고 곡물에 흔히 치러진 은의 실질 양을 늘릴 수도 아마 없었으나, 그 명목 액수는 반드시 얼마쯤 늘려 놓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깎아 내기와 닳음으로 은화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 일[11]이었다. 이 폐단은 찰스 2세의 치세에 시작되어 1695년까지 끊임없이 커져 갔고, 그때에는 론즈에게서 알 수 있듯이 통용되던 은화가 평균으로 그 법정 가치보다 25퍼센트 가까이 낮았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든 그 시장 가격을 이루는 명목 액수는 법정 기준에 따라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은의 양보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 있다고 경험으로 드러난 은의 양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다. 그러므로 이 명목 액수는 주화가 깎아 내기와 닳음으로 품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법정 가치에 가까울 때보다 반드시 더 높다.

지금 세기에 들어 은화가 그 법정 무게보다 아래로 내려간 정도는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몹시 닳아 지워졌어도 그 가치는 그것과 바꾸어 쓰이는 금화의 가치에 떠받쳐져 왔다. 지난번 개주

앞에는 금화도 꽤 닳아 지워져 있었으나 은화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1695년에는 은화의 가치가 금화에 떠받쳐지지 않아, 그때 기니 한 닢이 닳고 깎인 은화 30실링과 흔히 바뀌었다. 지난번 금화 개주 앞에 은괴의 값은 1온스에 5실링 7펜스보다 높은 적이 드물었는데, 이는 조폐국 값보다 5펜스밖에 높지 않다. 그러나 1695년에 은괴의 흔한 값은 1온스에 6실링 5펜스였고(론즈의 『 은화론 』 68쪽), 이는 조폐국 값보다 15펜스 높다. 그러므로 지난번 금화 개주 앞에도 금화와 은화를 합친 주화는 은괴와 견주었을 때 그 법정 가치보다 8퍼센트 넘게 낮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거꾸로 1695년에는 그 가치보다 25퍼센트 가까이 낮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 세기의 초, 곧 윌리엄 왕 시절의 대개주가 있은 바로 뒤에는 통용되던 은화의 대부분이 지금보다 그 법정 무게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또 지금 세기에는 밭갈이를 가라앉히거나 나라 안의 거래를 끊을 만한 내전 같은 큰 공공의 재앙이 없었다. 그리고 이 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시행된 장려금이 지금의 밭갈이 형편에서 곡물 값을 언제나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쯤 높이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장려금은 흔히 그 공으로 돌려지는 온갖 좋은 작용, 곧 밭갈이를 북돋우고 그리하여 나라 안 시장의 곡물 양을 늘리는 작용을 다 낼 만한 틈을 넉넉히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뒤에서 풀어 보이고 따져 볼 어떤 체계의 원리에 따르면, 장려금이 한쪽으로 그 상품의 값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쪽으로 그 값을 내리는 데도 얼마쯤 몫을 했다고 볼 만하다. 많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몫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세기의 64년 동안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 9부셸 1쿼터의 평균 가격은 이튼 칼리지의 회계로 보아 2파운드 0실링 6 10/32펜스였던 듯한데, 이는 지난 세기의 마지막 64년 동안보다 10실링 6펜스쯤, 곧 25퍼센트 넘게 헐하고, 아메리카의 넉넉한 광산 발견이 그 작용을 다 냈다고 볼 만한 1636년 앞 16년 동안보다 9실링

6펜스쯤 헐하며, 그 발견이 그 작용을 다 냈다고 보기 어려운 1620년 앞 26년 동안보다 1실링쯤 헐하다. 이 회계에 따르면 지금 세기의 첫 64년 동안 중간 밀의 평균 가격은 8부셸 1쿼터에 32실링쯤이 된다.

그러므로 은의 가치는 지금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얼마쯤 올라간 듯하며, 아마 지난 세기가 끝나기 얼마 앞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1687년에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 9부셸 1쿼터의 값은 1파운드 5실링 2펜스였는데, 이는 1595년 이래 그 값이 내려간 가장 낮은 값이었다.

1688년에 이런 일에 밝은 것으로 이름난 그레고리 킹[12]은 웬만큼 넉넉한 해에 밀의 평균 가격을 기른 사람에게는 1부셸에 3실링 6펜스, 곧 1쿼터에 28실링으로 어림했다. 기른 사람의 값이란 더러 계약 가격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고 나는 이해하는데, 이는 농부가 몇 해 동안 얼마만큼의 곡물을 상인에게 대주기로 계약하는 값이다. 이런 계약은 농부에게 시장에 내는 비용과 수고를 덜어 주므로 계약 가격은 대개 평균 시장 가격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낮다. 킹은 1쿼터에 28실링이 그때 웬만큼 넉넉한 해의 예사로운 계약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요사이 철이 유별나게 나쁘게 이어져 생긴 모자람 앞에는 그것이 모든 예사로운 해의 예사로운 계약 가격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들었다.

1688년에 의회가 정한 곡물 수출 장려금이 주어졌다. 그때 입법부에서 지금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시골 지주들은 곡물의 화폐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장려금은 그것을 찰스 1세와 찰스 2세 시절에 자주 팔리던 높은 값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방편이었다. 그래서 장려금은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만큼 높아질 때까지 시행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바로 그해에 킹이 웬만큼 넉넉한 시절의 기른 사람의 값으로 어림한 것보다 20실링, 곧 7분의 5 더 값비싼 값이다. 그의 셈이

두루 얻은 명성 가운데 얼마라도 값한다면, 1쿼터에 48실링은 장려금 같은 방편이 없이는 그때 유별나게 모자란 해가 아니고서는 바랄 수 없는 값이었다. 그러나 윌리엄 왕의 정부는 그때 아직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터였다. 그 정부는 바로 그때 해마다 걷는 토지세를 처음 세우는 일을 시골 지주들에게 청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무엇도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치에 견준 은의 가치는 지난 세기가 끝나기 앞에 아마 얼마쯤 올라 있었고, 지금 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계속 올랐던 듯하다. 다만 장려금이 반드시 낸 작용 때문에, 지금의 밭갈이 형편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만큼 그 오름이 뚜렷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넉넉한 해에 장려금은 유별나게 많이 내보내게 함으로써 곡물 값을 반드시 그해에 그렇지 않았을 값보다 높이 올린다. 가장 넉넉한 해에조차 곡물 값을 떠받쳐 밭갈이를 북돋우는 것이 이 제도가 내놓고 밝힌 목적이었다.

크게 모자란 해에는 실로 장려금이 대개 멈춰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해의 여러 값에 얼마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넉넉한 해에 유별나게 많이 내보내게 함으로써, 그것은 한 해의 넉넉함으로 다른 해의 모자람을 메우는 것을 자주 막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넉넉한 해에나 모자란 해에나 장려금은 곡물 값을 지금의 밭갈이 형편에서 자연히 되었을 값보다 높이 올린다. 따라서 지금 세기의 첫 64년 동안의 평균값이 지난 세기의 마지막 64년 동안보다 낮았다면, 밭갈이 형편이 같은 채로 장려금의 이 작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려금이 없었다면 밭갈이 형편이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나라의 농업에 어떤 작용을 끼쳤는지는 뒤에서 장려금을 따로 다룰 때에 풀어 보이려 애쓰겠다. 지금은 곡물의 가치에

견주어 은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 일이 잉글랜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만 말해 두겠다. 곡물 값을 아주 미덥고 부지런하게 애써 모은 세 사람, 곧 뒤프레 드 생모르와 메상스와 『곡물 행정론』의 지은이가 같은 기간에 프랑스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 비율도 거의 같았음을 살펴 놓았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764년까지 곡물을 내보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니 한 나라에서 이런 금지에도 일어난 값의 내림과 거의 같은 내림이 다른 나라에서는 내보내기에 준 유별난 북돋움에 말미암았다고 보기는 얼마쯤 어렵다.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에 일어난 이 변동은 곡물의 실질 평균 가치가 내려간 데서 온 것이라기보다 유럽 시장에서 은의 실질 가치가 차츰 올라간 데서 온 것으로 보는 편이 아마 더 옳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곡물은 멀리 떨어진 시대들 사이에서 은보다, 그리고 아마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가치를 더 정확하게 재는 자다. 아메리카의 넉넉한 광산이 발견된 뒤에 곡물이 예전 화폐 가격의 서너 배로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이 변화를 곡물의 실질 가치가 오른 데가 아니라 은의 실질 가치가 내린 데로 두루 돌렸다. 그러므로 지금 세기의 첫 64년 동안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이 지난 세기의 대부분보다 얼마쯤 아래로 내려갔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곡물의 실질 가치가 내린 데가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은의 실질 가치가 얼마쯤 오른 데로 돌려야 한다.

지난 열 해나 열두 해 동안 곡물 값이 높았던 것이 실로 유럽 시장에서 은의 실질 가치가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의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높은 곡물 값은 철이 유별나게 사나웠던 데서 온 것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늘 머무는 일이 아니라 지나가는 일, 어쩌다 생긴 일로 보아야 한다. 지난 열 해나 열두 해 동안 철은 유럽의 대부분에서 사나웠고, 폴란드의 어지러움이 값비싼 해에 그 시장에서 곡물을 대어

오던 모든 나라의 모자람을 크게 키웠다. 나쁜 철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니어도 결코 유례없는 일은 아니다. 옛 시절의 곡물 값의 역사를 많이 살펴본 사람이라면 같은 종류의 다른 보기 여러 개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유별나게 모자란 열 해는 유별나게 넉넉한 열 해보다 더 놀라울 것이 없다. 1741년부터 1750년까지 두 해를 다 넣어 곡물 값이 낮았던 것을 지난 여덟 해나 열 해 동안 곡물 값이 높았던 것과 맞세워 볼 만하다. 1741년부터 1750년까지 윈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밀 9부셸 1쿼터의 평균 가격은 이튼 칼리지의 회계로 보아 1파운드 13실링 9 4/5펜스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 세기의 첫 64년 동안의 평균값보다 6실링 3펜스쯤 낮다. 이 회계에 따르면 이 열 해 동안 중간 밀 8부셸 1쿼터의 평균 가격은 1파운드 6실링 8펜스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1741년과 1750년 사이에 장려금은 나라 안 시장에서 곡물 값이 자연히 내려갔을 만큼 낮게 내려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이 열 해 동안 내보낸 온갖 곡물의 양은 세관 장부로 보아 8,029,156쿼터 1부셸에 이르렀다. 이에 치른 장려금은 1,514,962파운드 17실링 4 1/2펜스에 이르렀다. 그래서 1749년에 그때 총리였던 펠럼[13]은 하원에서, 지난 세 해 동안 곡물 수출 장려금으로 아주 유별난 액수가 치러졌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충분한 까닭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는 더 충분한 까닭이 있을 수 있었다. 그 한 해에 치른 장려금이 324,176파운드 10실링 6펜스에 이르렀던 것이다.(『곡물 거래 논고』 제3편을 보라.) 이렇게 억지로 내보낸 것이 나라 안 시장에서 곡물 값을 그렇지 않았을 값보다 얼마나 높이 올려놓았을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장에 붙인 회계의 끝에서 독자는 그 열 해의 낱낱 회계가 나머지와 따로 떨어져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 앞 열 해의 낱낱 회계도 보게 될 터인데, 그 평균도 이 세기의 첫 64년 동안의 전체

평균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만큼 낮지는 않다. 다만 1740년은 유별나게 모자란 해였다. 1750년 앞의 이 스무 해를 1770년 앞의 스무 해와 맞세워 볼 만하다. 앞의 스무 해가 값비싼 해 한두 해가 끼어 있었는데도 이 세기의 전체 평균보다 꽤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뒤의 스무 해는 이를테면 1759년처럼 헐한 해 한두 해가 끼어 있었는데도 그 평균보다 꽤 높았다. 앞의 스무 해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던 만큼 뒤의 스무 해가 그보다 높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마 장려금에 돌려야 한다. 이 변화는 은의 가치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돌릴 수 있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음이 분명한데, 은의 가치는 언제나 느리고 차츰차츰 변하기 때문이다. 그 작용이 갑작스러웠던 것은 갑작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원인, 곧 철의 우연한 변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영국에서 노동의 화폐 가격은 실로 지금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줄어든 데서 온 것이라기보다, 나라가 크게 그리고 거의 두루 번성한 데서 비롯된 영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서 온 듯하다. 그만큼 번성하지는 못한 프랑스에서는 지난 세기 중엽 이래 노동의 화폐 가격이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과 함께 차츰 가라앉았다는 것이 살펴진 바다. 지난 세기에나 지금 세기에나 거기서 여느 노동의 하루 임금은 밀 1셉티에 평균값의 20분의 1쯤으로 꽤 한결같았다고 한다. 셉티에는 윈체스터 부셸 4개가 조금 넘게 들어가는 되다. 영국에서 노동의 실질 보수, 곧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살림에 꼭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의 실질 양은 이미 보인 대로 지금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크게 늘어났다. 그 화폐 가격이 오른 것은 유럽의 전체 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줄어든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유별나게 복된 사정 덕분에 영국이라는 그 특정한 시장에서 노동의 실질 가격이 오른 데서 온 듯하다.

아메리카가 처음 발견된 뒤 한동안 은은 예전 값에, 또는 예전 값보다 크게 낮지 않은 값에 계속 팔렸을 것이다. 광산 일의 이윤은 한동안 아주 커서 그 자연율을 훨씬 넘어섰을 법하다. 그러나 그 금속을 유럽으로 들여온 사람들은 한 해에 들여온 전부를 이 높은 값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은은 차츰 더 적은 양의 물건과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 그 값은 차츰 더 낮게 가라앉아 마침내 자연 가격까지, 곧 그것을 광산에서 시장까지 가져오는 데 치러야 하는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과 토지의 지대를 저마다의 자연율에 따라 치르기에 겨우 넉넉한 값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페루의 은광 대부분에서는 총생산물의 10분의 1에 이르는 스페인 왕의 세금이 토지의 지대를 온통 먹어 치운다. 이 세금은 본디 2분의 1이었고 그 뒤 이내 3분의 1로 떨어졌다가 5분의 1이 되었고 마침내 10분의 1이 되어 아직 그 비율로 이어지고 있다. 페루의 은광 대부분에서 그 일을 벌인 사업가의 자산을 그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운 뒤에 남는 것은 이것뿐인 듯하다. 그리고 한때 아주 높았던 이 이윤이 이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아졌다는 것은 두루 인정되는 듯하다.

스페인 왕의 세금은 1504년에 등록된 은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솔로르사노, 제2권), 이는 포토시 광산이 발견된 해인 1545년보다 41년 앞선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곧 1636년 앞에 아메리카에서 가장 기름진 이 광산들은 그 작용을 온전히 낼 만한, 다시 말해 스페인 왕에게 이 세금을 계속 치르는 채로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를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낮게 끌어내릴 만한 틈을 넉넉히 가졌다. 90년은 독점이 없는 어떤 상품이든 그 자연 가격까지, 곧 어떤 세금을 치르면서도 꽤 오랜 동안 잇달아 계속 팔릴 수 있는 가장 낮은 값까지 끌어내리기에 넉넉한 틈이다.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값은 어쩌면 더 낮게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1736년처럼 그 세금을 10분의 1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금에 매긴 세금과 마찬가지로 20분의 1까지 줄이거나, 지금 파고 있는 아메리카 광산의 대부분을 파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을 수도 있다. 은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난 것, 곧 아메리카 은광에서 나는 것의 시장이 차츰 넓어진 것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은 원인이며, 그것이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를 떠받쳐 온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난 세기 중엽 무렵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려놓기까지 했을 것이다.

아메리카가 처음 발견된 뒤로 그 은광에서 나는 것의 시장은 차츰 더욱더 넓어져 왔다.

첫째로 유럽의 시장이 차츰 더욱더 넓어졌다. 아메리카가 발견된 뒤로 유럽의 대부분은 크게 개량되었다. 잉글랜드·네덜란드·프랑스·독일은 물론이고 스웨덴·덴마크·러시아까지 모두 농업에서나 제조업에서나 크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은 듯하다. 이탈리아가 기울어진 것은 페루가 정복되기 앞의 일이다. 그때 뒤로는 오히려 얼마쯤 되살아난 듯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실로 뒤로 물러섰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유럽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며, 스페인이 기울어진 정도도 어쩌면 사람들이 흔히 짐작하는 만큼 크지 않다. 16세기 초에 스페인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으니, 그때 뒤로 그토록 크게 개량된 프랑스에 견주어 보아도 그러했다. 두 나라를 그토록 자주 오가며 여행한 황제 카를 5세가 프랑스에는 모든 것이 넘치는데 스페인에는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한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럽의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돌리는 데 쓰이는 은화의 양도 반드시 차츰 늘어나야 했을 것이고, 넉넉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은그릇과 그 밖의 은 장식도 그만큼 양이 늘어나야 했을 것이다.

둘째로 아메리카 자체가 그곳 은광에서 나는 것의 새 시장이다. 그리고 아메리카가 농업과 근면과 인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므로 그 수요도 훨씬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영국 식민지는 온전히 새 시장이어서, 예전에는 아무 수요도 없었던 큰 대륙에 걸쳐 한편으로는 주화로 한편으로는 은그릇으로 은을 끊임없이 늘려 가며 대야 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의 대부분도 온전히 새 시장이다. 누에바그라나다·유카탄·파라과이·브라질은 유럽인이 발견하기 앞에는 기예도 농업도 없는 미개한 종족들이 살던 곳이었다. 이제는 그 모든 곳에 기예와 농업이 꽤 들어와 있다. 멕시코와 페루조차, 온전히 새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예전보다 훨씬 넓은 시장임은 틀림없다. 그 나라들이 옛 시절에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하여 나온 온갖 놀라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 나라들이 처음 발견되고 정복된 역사를 얼마쯤 차분한 판단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라면, 기예와 농업과 거래에서 그곳 주민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타타르인보다 훨씬 무지했음을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둘 가운데 더 문명이 깃들었던 페루인조차 금과 은을 장식에 쓰기는 했으나 어떤 종류의 주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거래는 모두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노동의 분업이 거의 없었다. 땅을 갈던 사람들은 제 집을 제 손으로 짓고 제 살림살이와 제 옷과 신과 농기구를 제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몇몇 수공업자는 모두 주권자와 귀족과 사제가 먹여 살렸다고 하며, 아마 그들의 하인이거나 노예였을 것이다. 멕시코와 페루의 옛 기예는 유럽에 제조품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다. 스페인 군대는 500명을 넘은 적이 거의 없고 그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일이 잦았는데도, 거의 어디서나 먹을 것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의 굶주림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아주 많고

잘 갈린 나라로 그려지는 곳에서 그러했다는 것은, 그 많은 인구와 높은 경작의 이야기가 태반 꾸며진 것임을 넉넉히 보여 준다. 스페인 식민지는 여러 면에서 영국 식민지의 정부보다 농업과 개량과 인구에 덜 이로운 정부 아래에 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에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기름진 흙과 복된 기후에서 땅이 크게 넉넉하고 헐한 것은 모든 새 식민지에 두루 있는 사정인데, 그것이 통치에 있는 여러 결함을 메울 만큼 큰 이로움인 듯하다. 1713년에 페루를 찾아간 프레지에는 리마의 주민이 2만 5000명에서 2만 8000명 사이라고 적었다. 1740년부터 1746년까지 같은 나라에 머문 우요아는 그것이 5만 명이 넘는다고 적었다. 칠레와 페루의 다른 주요한 도시 여러 곳의 인구에 대한 두 사람의 기록 차이도 거의 같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정보도 의심할 까닭이 없어 보이므로, 이는 영국 식민지의 증가에 거의 못지않은 증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아메리카는 그곳 은광에서 나는 것의 새 시장이며, 그 수요는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동인도는 아메리카 은광에서 나는 것의 또 다른 시장이며, 그 광산이 처음 발견된 때부터 은을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양으로 빨아들여 온 시장이다. 그때 뒤로 아카풀코 배[14]로 이루어지는 아메리카와 동인도 사이의 직접 거래가 끊임없이 늘어났고, 유럽을 거치는 간접적인 왕래는 그보다 더 큰 비율로 늘어났다. 16세기 동안 동인도로 규칙적인 거래를 해 나간 유럽 나라는 포르투갈뿐이었다. 그 세기의 마지막 몇 해에 네덜란드인이 이 독점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몇 해 안에 그들을 인도의 주요한 거점에서 몰아냈다. 지난 세기의 대부분에 이 두 나라가 동인도 거래의 가장 큰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네덜란드인의 거래가 늘어난 비율이 포르투갈인의 거래가 기울어진 비율보다 끊임없이 더 컸다. 잉글랜드인과 프랑스인은 지난 세기에 인도와 얼마쯤 거래를

했고, 그것이 지금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크게 늘어났다. 스웨덴인과 덴마크인의 동인도 거래는 지금 세기에 들어 시작되었다. 모스크바인조차 이제는 시베리아와 타타르 지방을 가로질러 육로로 베이징까지 가는 일종의 대상을 통하여 중국과 규칙적으로 거래한다. 지난 전쟁이 거의 무너뜨린 프랑스인의 거래를 빼면, 이 모든 나라의 동인도 거래는 거의 끊임없이 늘어나 왔다. 유럽에서 동인도 물건을 써 없애는 양이 늘어난 것이 어찌나 커서 그 모든 나라에 일감을 차츰 더 늘려 주는 듯하다. 이를테면 차는 지난 세기 중엽 앞에는 유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약재였다. 지금은 영국 동인도회사가 제 나라 사람들이 쓸 것으로 한 해에 들여오는 차의 가치가 한 해 150만 파운드를 넘는다.[15] 그런데도 이것으로 넉넉하지 않아,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그리고 프랑스 동인도회사가 번성하는 동안에는 프랑스의 해안에서도 훨씬 많은 양이 끊임없이 몰래 들어온다. 중국의 자기, 말루쿠제도의 향료, 벵골의 직물, 그 밖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을 써 없애는 양도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 세기의 어느 한때에 동인도 거래에 쓰인 유럽의 모든 배의 톤수는, 어쩌면 영국 동인도회사가 요사이 제 배를 줄이기 앞에 가지고 있던 톤수보다 크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

1.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8부셸, 약 291리터다. 「4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다. 1부셸은 약 36리터다. 스미스는 이 장에서 9부셸 1쿼터와 8부셸 1쿼터를 갈라 쓴다.

2. 옮긴이 — 런던탑 무게는 잉글랜드 조폐국이 오래 쓴 무게 기준으로, 1파운드가 5400그레인이다. 1527년에 폐지되고 1파운드가 5760그레인인 트로이 무게로 바뀌었다.

3.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반 크라운은 2실링 6펜스이고,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스미스가 「오늘 우리 화폐」라고 할 때는 이 책이 나온 1776년 무렵의 영국 화폐를 말한다.

4.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에드워드 3세는 1327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25년은 1351년에 걸치고, 헨리 3세는 1216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51년은 1266년에 걸친다. 메리 1세는 1553년에,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에 왕위에 올랐다. 노동자법은 흑사병으로 일손이 줄어 삯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으로, 임금과 리버리를 흑사병 앞의 수준에 묶어 두었다.

5. 옮긴이 — 빵과 맥주의 정찰법은 밀과 보리 값에 따라 빵과 맥주의 값과 무게를 정해 둔 법이다. 잉글랜드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

6. 옮긴이 — 공정가격은 스코틀랜드에서 주마다 해마다 곡물 값을 판정해 공시한 것으로, 곡물로 매긴 지대를 돈으로 바꿀 때의 기준이 되었다.

7. 옮긴이 — 윌리엄 플리트우드(1656~1723)는 잉글랜드의 주교로, 옛 물가를 모아 『크로니콘 프레치오숨』(1707)을 남겼다.

8. 옮긴이 — 자벨대는 죄인을 태워 끌고 다닌 수레이고, 차꼬는 목과 두 손을 널에 끼워 사람들 앞에 세워 둔 형구다. 이 법은 되와 값을 속인 빵장수와 술장수를 그런 형벌로 다스리도록 정했다.

9. 옮긴이 — 볼은 스코틀랜드에서 곡물을 되던 단위로, 스미스의 말대로 잉글랜드 1쿼터의 절반쯤이다.

10. 옮긴이 — 곡물 수출 장려금은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 아래일 때 밀을 내보내는 사람에게 나라가 돈을 주던 제도다. 스미스는 1688년의 일로 적었고, 오늘날은 이듬해에 만들어진 법으로 센다. 스미스는 4편 5장에서 이 제도를 길게 따진다.

11. 옮긴이 — 깎아 내기는 은화의 테두리를 잘라 내어 은을 빼돌리던 짓이다. 윌리엄 3세 때인 1696년에 나라가 은화를 모두 거두어 다시 찍는 대개주를 했다. 윌리엄 론즈(1652~1724)는 그때 재무부의 서기관으로 『은화론』을 썼다.

12. 옮긴이 — 그레고리 킹(1648~1712)은 잉글랜드의 통계가로, 잉글랜드의 인구와 소득을 셈한 글을 남겼다.

13. 옮긴이 — 헨리 펠럼(1694~1754)은 1743년부터 죽을 때까지 영국의 총리를 맡았다.

14. 옮긴이 — 아카풀코 배는 스페인이 멕시코의 아카풀코와 필리핀의 마닐라 사이에 해마다 띄운 갈레온선으로, 아메리카의 은을 아시아로 실어 가고 아시아의 물품을 실어 왔다.

15. 옮긴이 — 저본에는 단위 없이 「한 해 150만이 넘는다」고만 적혀 있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들여오는 차의 값을 말하는 자리이므로 파운드로 옮겼다.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이어서)

그런데 동인도에서는, 특히 중국과 힌두스탄에서는 유럽인이 그 나라들과 거래를 트기 시작하였을 때 귀금속의 가치가 유럽에서보다 훨씬 높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쌀을 심는 나라는 대개 한 해에 두 번, 더러는 세 번 거두며 그 한 번의 수확이 곡물의 여느 수확보다 넉넉하므로, 먹을 것의 넉넉함이 같은 넓이의 어느 곡물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에는 그에 걸맞게 사람도 훨씬 많다. 또 그런 나라의 부자들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먹을 것을 더 많이 쥐고 있으므로, 남의 노동을 훨씬 더 많이 사들일 수단을 가진다. 그래서 중국이나 힌두스탄의 대귀족이 거느리는 시종 무리는 전해 오는 모든 이야기로 보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신하가 거느리는 무리보다 훨씬 수가 많고 훨씬 화려하다.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 남아도는 먹을 것은, 자연이 아주 적은 양만 내놓는 유별나고 드문 산물, 곧 부자들이 다투어 얻으려 하는 큰 목표인 귀금속과 보석 같은 것을 얻는 데 먹을 것을 더 많이 내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인도의 시장에 물건을 대던 광산이 유럽의 시장에 물건을 대던 광산만큼 넉넉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품은 자연히 유럽에서보다 인도에서 더 많은 양의 먹을 것과 맞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시장에 귀금속을 대던 광산은 유럽의 시장에 대던 광산보다 넉넉함이 훨씬 떨어졌던 듯하고, 보석을 대던 광산은 훨씬 나았던 듯하다. 그러므로 귀금속은 인도에서 자연히 유럽에서보다

얼마쯤 더 많은 양의 보석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먹을 것과 맞바뀌었을 것이다. 모든 군더더기 가운데 으뜸인 다이아몬드의 화폐 가격은 한쪽 나라에서 다른 쪽 나라보다 얼마쯤 낮고, 모든 필수품 가운데 첫째인 먹을 것의 화폐 가격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실질 가격, 곧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생활 필수품의 실제 양은 이미 살펴본 대로 인도의 두 큰 시장인 중국과 힌두스탄에서 유럽 대부분에서보다 낮다. 그곳에서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더 적은 양의 먹을 것밖에 살 수 없으며, 먹을 것의 화폐 가격이 유럽보다 인도에서 훨씬 낮으므로 노동의 화폐 가격은 두 겹으로 낮다. 곧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먹을 것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낮고, 그 먹을 것의 값이 싸기 때문에 또 낮다. 그런데 기술과 근면이 서로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제조품 대부분의 화폐 가격이 노동의 화폐 가격에 비례할 것이며, 제조 기술과 근면에서 중국과 힌두스탄은 유럽의 어느 곳보다 못하기는 하나 크게 못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제조품 대부분의 화폐 가격은 그 큰 두 제국에서 자연히 유럽의 어느 곳에서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또 유럽 대부분에서는 육상 운송에 드는 비용이 제조품 대다수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을 다 크게 끌어올린다. 먼저 재료를, 그다음에는 완성된 제조품을 시장까지 가져오는 데에 노동이 더 들고 따라서 돈이 더 든다. 중국과 힌두스탄에서는 내륙 수운이 넓게 뻗어 있고 갈래가 많아 이 노동의 대부분, 따라서 이 돈의 대부분을 아끼며, 그로써 제조품 대부분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을 한층 더 낮춘다. 이런 모든 까닭으로 귀금속은 유럽에서 인도로 실어 가기에 예나 이제나 몹시 이로운 상품이다. 그곳에서 그보다 더 나은 값을 받는 상품, 또는 유럽에서 그것을 얻는 데 드는 노동과 상품의 양에 견주어 인도에서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상품을 사들이거나 부릴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다. 또 그곳으로는 금보다 은을 실어 가는 것이 더 이롭다. 중국과 인도의 다른

시장 대부분에서 순은과 순금의 비율은 열 대 하나, 많아도 열둘 대 하나인데, 유럽에서는 열넷 또는 열다섯 대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다른 시장 대부분에서는 은 열 온스, 많아도 열두 온스로 금 한 온스를 살 수 있으나, 유럽에서는 열넷에서 열다섯 온스가 든다. 그러므로 인도로 떠나는 유럽 배 대부분의 뱃짐에서 은은 대체로 가장 값나가는 물목 가운데 하나였다. 마닐라로 가는 아카풀코 배에서도 은이 가장 값나가는 물목이다. 이렇게 하여 새 대륙의 은은 옛 대륙의 양 끝 사이에 오가는 거래를 떠받치는 주된 상품 가운데 하나가 된 듯하며, 세상의 그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도 얼마쯤은 이 은을 통해서다.

그렇게 아주 널리 뻗은 시장에 대려면, 광산에서 해마다 나오는 은의 양은 번창하는 모든 나라에서 요구되는 주화와 그릇의 꾸준한 증가를 떠받치기에 넉넉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금속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은의 끊임없는 닳음과 소모를 메우기에도 넉넉해야 한다.

주화가 닳아서, 그릇이 닳고 또 닦여서 귀금속이 끊임없이 줄어드는 것은 눈에 뚜렷이 띄는 일이며, 쓰임새가 그렇게 널리 뻗은 상품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해마다 아주 많은 양을 대야 할 것이다. 몇몇 특정한 제조업에서 그 금속이 없어지는 양은 어쩌면 전체로 보아 이 차츰차츰의 소모보다 많지 않을지 몰라도, 훨씬 빠르게 일어나므로 훨씬 더 눈에 띈다. 버밍엄의 제조업에서만도 도금과 은도금에 해마다 쓰여 그 뒤로는 다시 금속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금과 은의 양이 5만 파운드[1] 스털링을 넘는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버밍엄과 같은 갈래의 제조업이나, 레이스와 자수, 금실 은실 천, 책과 가구의 도금 등에서 세상의 여러 지역이 해마다 없애는 양이 얼마나 클지 얼마쯤 짐작할 수 있다. 또 그 금속을 바다로나 땅으로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해마다 적지 않은 양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시아의 정부 대부분에서는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관습이 거의 온 나라에 퍼져 있고, 감춘 사람이 죽으면서 그 자리에 대한 지식도 함께 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그 때문에 없어지는 양은 한층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카디스와 리스본 두 곳에 들여오는 금과 은의 양은 가장 믿을 만한 기록으로 보아 한 해에 스털링 600만 파운드쯤에 이른다(등록을 거쳐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몰래 들여온다고 볼 수 있는 것까지 넣은 셈이다).

메건스 씨에 따르면(《만국 상인》 보유 15~16쪽. 이 보유는 책이 나온 지 세 해 뒤인 1756년에야 인쇄되었고, 그 책은 재판을 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보유가 붙은 책은 몇 권 되지 않는다. 보유는 본문의 잘못 몇 가지를 바로잡고 있다) 스페인으로 해마다 들여온 귀금속의 양은 1748년부터 1753년까지 여섯 해의 평균으로, 포르투갈로 들여온 양은 1747년부터 1753년까지 일곱 해의 평균으로 은이 1,101,107파운드(무게), 금이 49,940파운드(무게)에 이르렀다. 은은 트로이 파운드[2]당 62실링으로 셈하면 스털링 3,413,431파운드 10실링이 된다. 금은 트로이 파운드당 44기니 반으로 셈하면 스털링 2,333,446파운드 14실링이 된다. 둘을 합하면 스털링 5,746,878파운드 4실링이다. 등록을 거쳐 들어온 것에 대한 셈은 정확하다고 그는 우리에게 다짐한다. 그는 금과 은이 실려 온 곳을 하나하나 밝히고, 등록에 따라 그 각각이 내놓은 금속의 양도 하나하나 밝혀 준다. 또 그는 몰래 들여왔으리라고 보는 금속의 양까지 각각 헤아려 넣는다. 사리를 아는 이 상인의 큰 경험은 그의 견해에 적잖은 무게를 실어 준다.

《두 인도에서 유럽인이 세운 것들에 관한 철학적·정치적 역사》를 쓴, 글이 힘차고 더러는 아는 것도 많은 저자[3]에 따르면 스페인으로 해마다 들여온 등록된 금과 은은 1754년부터 1764년까지 열한 해의 평균으로 10레알짜리 피아스트르 13,984,185와 5분의 3에 이르렀다.

그러나 몰래 들여온 것을 헤아리면 한 해에 들여온 전체가 1700만 피아스트르에 이르렀으리라고 그는 본다. 이는 피아스트르당 4실링 6펜스로 치면 스털링 3,825,000파운드에 맞먹는다. 그도 금과 은이 실려 온 곳을 하나하나 밝히고, 등록에 따라 그 각각이 내놓은 금속의 양도 하나하나 밝혀 준다. 또 그는 브라질에서 리스본으로 해마다 들여오는 금의 양을 포르투갈 국왕에게 바친 세금의 액수로 미루어 헤아려 본다면, 그 세금은 표준 순도 금속의 5분의 1인 듯하므로 그 금을 1800만 크루자도, 곧 프랑스 리브르 4500만에 해당하는 값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털링 2000만 파운드쯤이라고 알려 준다.[4] 그러나 몰래 들여온 것을 헤아려 이 액수에 8분의 1, 곧 스털링 250,000파운드를 더 보태도 안전하다고 그는 말하니, 전체는 스털링 2,250,000파운드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셈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로 해마다 들여오는 귀금속 전체는 스털링 6,075,000파운드쯤에 이른다.

원고로만 남아 있으나 아주 믿을 만한 다른 여러 셈도 이 한 해 수입 전체를 평균하여 스털링 600만 파운드쯤으로, 더러는 조금 더 많게 더러는 조금 더 적게 잡는 데에 서로 맞아떨어진다고 나는 다짐을 받았다.

카디스와 리스본으로 해마다 들여오는 귀금속의 양이 아메리카 광산의 한 해 생산물 전부와 같은 것은 물론 아니다. 얼마는 해마다 아카풀코 배로 마닐라에 실려 가고, 얼마는 스페인 식민지가 다른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와 벌이는 밀무역에 쓰이며, 얼마는 틀림없이 그 나라에 남는다. 게다가 아메리카의 광산이 세상의 금광과 은광 전부인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넉넉한 광산이라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다. 알려진 다른 모든 광산의 생산물은 그에 견주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며, 그 생산물의 훨씬 큰 몫이 해마다 카디스와 리스본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그런데 한 해 5만

파운드라는 비율로 보면 버밍엄 한 곳의 소모만으로도 한 해 600만 파운드라는 비율의 이 한 해 수입의 120분의 1에 맞먹는다. 그러므로 그 금속을 쓰는 세상 여러 나라 전체에서 금과 은이 한 해에 없어지는 양은 어쩌면 한 해 생산물 전체와 거의 같을지도 모른다. 남는 것은 번창하는 모든 나라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채우기에 겨우 넉넉할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이 수요에 얼마쯤 못 미쳐 유럽 시장에서 그 금속의 값을 어느 만큼 끌어올렸을 수조차 있다.

놋쇠와 무쇠를 광산에서 시장으로 해마다 가져오는 양은 금과 은의 양과 견줄 수조차 없이 많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거친 금속이 수요를 넘어 불어나거나 차츰차츰 더 싸지리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귀금속은 왜 그리 되리라고 여겨야 하는가. 거친 금속은 더 단단하기는 하나 훨씬 더 험한 데에 쓰이며, 값이 덜하므로 지켜 두는 데에 마음을 덜 쓴다. 그러나 귀금속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온갖 길로 잃어버려지고 닳고 없어지기 쉽다.

모든 금속의 값은 천천히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토지의 원생산물 가운데 거의 어느 것보다도 해마다의 흔들림이 적다. 그리고 귀금속의 값은 거친 금속의 값보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덜 흔들린다. 금속이 오래 남는다는 성질이 이 유별난 값의 한결같음의 바탕이다. 지난해에 시장에 나온 곡물은 올해가 끝나기 오래전에 다, 또는 거의 다 없어진다. 그러나 두세 백 년 전에 광산에서 나온 무쇠의 얼마는 아직도 쓰이고 있을 것이고, 두세 천 년 전에 나온 금의 얼마도 어쩌면 그럴 것이다. 해에 따라 세상의 소비를 채워야 하는 곡물의 덩이는 언제나 그 여러 해의 생산량에 거의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해에 쓰이고 있을 무쇠 덩이 사이의 비율은 그 두 해 철광산 생산량에 우연히 생긴 차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금 덩이 사이의 비율은 금광 생산량에 그런 차이가 생겨도 한층 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속 광산 대부분의 생산량은 곡물 밭 대부분의 생산량보다 어쩌면 해마다 더 크게 흔들릴지 몰라도, 그 흔들림이 한쪽 상품의 값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쪽 상품의 값에 미치는 영향과 같지 않다.

금과 은이 각기 가지는 가치 사이의 비율에 일어난 변화

아메리카의 광산이 발견되기 전에 순금과 순은의 가치는 유럽의 여러 조폐국[5]에서 하나 대 열과 하나 대 열둘 사이의 비율로 다스려졌다. 곧 순금 한 온스가 순은 열 온스에서 열두 온스의 값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난 세기 중엽쯤에 그것은 하나 대 열넷과 하나 대 열다섯 사이의 비율로 다스려지게 되었다. 곧 순금 한 온스가 순은 열네 온스와 열다섯 온스 사이의 값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었다. 금은 그 명목 가치에서, 곧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은의 양에서 올랐다. 두 금속은 다 그 실질 가치에서, 곧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에서 내려갔으나 은이 금보다 더 내려갔다. 아메리카의 금광과 은광은 그전에 알려진 모든 광산보다 넉넉함에서 앞섰으나, 은광의 넉넉함이 금광의 넉넉함보다 비례로 따져 한층 더 컸던 듯하다.

유럽에서 인도로 해마다 실어 가는 많은 양의 은은 영국이 세운 몇몇 정착지에서 금에 견준 그 금속의 가치를 차츰 끌어내렸다. 콜카타의 조폐국에서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순금 한 온스가 순은 열다섯 온스의 값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것은 벵골 시장에서 지니는 값에 비하면 조폐국에서 어쩌면 너무 높게 매겨진 것일 수 있다. 중국에서 금과 은의 비율은 아직도 하나 대 열, 또는 하나 대 열둘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하나 대 여덟이라고 한다.

메건스 씨의 셈에 따르면 유럽으로 해마다 들여오는 금과 은의 양 사이의 비율은 하나 대 스물둘에 가깝다. 곧 금 한 온스마다 은 스물두 온스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온다. 해마다 동인도로 보내는 많은 양의

은이 유럽에 남는 그 금속의 양을 하나 대 열넷 또는 열다섯, 곧 그 가치의 비율로 줄인다고 그는 본다. 그는 그 가치 사이의 비율이 그 양 사이의 비율과 반드시 같아야 하며, 따라서 이렇게 은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하나 대 스물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두 상품이 각기 가지는 가치 사이의 예사로운 비율이 시장에 흔히 나와 있는 그 양 사이의 비율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10기니로 셈한 황소 한 마리의 값은 3실링 6펜스로 셈한 새끼 양 한 마리 값의 예순 배쯤이다. 그렇다고 시장에 황소 한 마리마다 새끼 양 예순 마리가 흔히 나와 있다고 여기서 미루어 내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며, 금 한 온스로 흔히 은 열네 온스나 열다섯 온스를 살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장에 금 한 온스마다 은이 겨우 열네 온스나 열다섯 온스만 흔히 나와 있다고 미루어 내는 것도 똑같이 어이없는 일이다.

시장에 흔히 나와 있는 은의 양이 금의 양에 견주어 얼마나 되는가는, 어떤 양의 금의 가치가 같은 양의 은의 가치에 견주어 얼마나 되는가보다 아마 훨씬 클 것이다. 값싼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전체 양은 흔히 값비싼 상품의 전체 양보다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도 더 크다. 해마다 시장에 나오는 빵의 전체 양은 푸줏간 고기의 전체 양보다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도 더 크다. 푸줏간 고기의 전체 양은 가금, 곧 집에서 치는 새의 전체 양에 대하여 그렇고, 가금의 전체 양은 들새의 전체 양에 대하여 그렇다. 값비싼 상품보다 값싼 상품을 살 사람이 훨씬 많으므로, 흔히 그것을 더 많은 양으로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가치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값싼 상품의 전체 양이 값비싼 상품의 전체 양에 견주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양의 값비싼 상품의 가치가 같은 양의 값싼 상품의 가치에 견주어 차지하는 비율보다 흔히 클 수밖에 없다. 귀금속끼리 견주어 보면 은은 값싼 상품이고 금은 값비싼 상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장에 언제나 금보다 은이 양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치로도 더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자연히 기대해야 한다. 둘을 조금씩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기 은그릇을 금그릇과 견주어 보라. 그는 아마 앞의 것이 양으로만 아니라 가치로도 뒤의 것을 크게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금그릇은 없으면서 은은 꽤 가진 사람이 많으며, 금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은 대체로 시계집이나 코담배갑 같은 자잘한 장식물에 그쳐 그 전체 액수가 큰 가치에 이르는 일이 드물다. 영국 주화에서는 참으로 금의 가치가 크게 앞서지만 모든 나라의 주화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나라의 주화에서는 두 금속의 가치가 거의 같다. 잉글랜드와 연합하기 전 스코틀랜드 주화에서는 조폐국 기록으로 보아 금이 아주 조금, 그래도 얼마쯤은 앞섰다(러디먼이 앤더슨의 《스코틀랜드 고문서》에 붙인 서문을 보라). 많은 나라의 주화에서는 은이 앞선다. 프랑스에서는 큰 액수를 흔히 그 금속으로 치르며, 그곳에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말고는 금을 더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금그릇보다 은그릇의 가치가 더 나가는 것은, 몇몇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은 주화보다 금 주화가 앞서는 것을 넉넉히 메우고도 남는다.

낱말의 한 뜻으로 보면 은은 언제나 금보다 훨씬 싸 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하겠으나,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어쩌면 오늘날 스페인 시장의 형편에서는 금이 은보다 얼마쯤 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 값비싸다거나 값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사로운 값의 크고 작음 자체만이 아니라, 그 값이 꽤 오랫동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값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에 따라서도 말할 수 있다. 이 가장 낮은 값이란 그 상품을 거기까지 가져오는 데에 부려야 하는 자산을 웬만한 이윤과 함께 겨우 메우는 값이다. 그것은 지주에게 아무것도 안겨 주지 않는 값, 곧 지대가 그 값의 어느 부분도 이루지 않고 오로지 임금과 이윤으로만 갈라지는 값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페인 시장의 형편에서는 금이

틀림없이 은보다 이 가장 낮은 값에 얼마쯤 더 가깝다. 스페인 국왕이 금에 매기는 세금은 표준 순도 금속의 20분의 1, 곧 5퍼센트뿐인데, 은에 매기는 세금은 그 10분의 1, 곧 10퍼센트에 이른다. 또 이미 살펴본 대로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금광과 은광 대부분에서 나오는 지대 전부가 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금에 매긴 세금은 은에 매긴 세금보다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금광 사업가의 이윤도 그들이 재산을 이루는 일이 더 드문 만큼, 대체로 은광 사업가의 이윤보다 한층 더 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페인 금의 값은 지대도 이윤도 더 적게 내주므로 스페인 시장에서 스페인 은의 값보다 그곳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에 얼마쯤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을 셈에 넣으면 한쪽 금속의 전체 양은 스페인 시장에서 다른 쪽 금속의 전체 양만큼 이롭게 처분될 수 없는 듯하다. 참으로 포르투갈 국왕이 브라질의 금에 매기는 세금은 스페인 국왕이 멕시코와 페루의 은에 매기던 옛 세금과 같아 표준 순도 금속의 5분의 1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전체 시장에 대하여 아메리카 금의 덩이 전부가 아메리카 은의 덩이 전부보다 그곳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에 더 가까운 값으로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그 밖의 보석의 값은 어쩌면 금의 값보다도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에 한층 더 가까울지 모른다.

과세하기에 가장 알맞은 대상, 곧 순전한 사치이자 군더더기에 매겨진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에 매긴 세금처럼 아주 중요한 세입을 내주는 세금이라면,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치를 수 있는 동안은 결코 놓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736년에 그것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낮추게 만든, 바로 그 치를 수 없음이 언젠가는 그것을 한층 더 낮추게 만들지도 모른다. 금에 매긴 세금을 20분의 1로 낮추게 만든 것과 같은 일이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은광이 다른 모든 광산과 마찬가지로 일을 벌여야 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깊이에서 물을

빼내고 맑은 바람을 넣어 주는 데에 드는 비용이 더 커지는 까닭으로 파는 일이 차츰 비싸진다는 것은 그 광산의 형편을 캐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한다.

은이 점점 귀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이런 원인들은(어떤 양을 모으는 일이 더 어렵고 더 비싸질 때 그 상품이 더 귀해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언젠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낳을 것이다. 첫째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그 금속 값이 그에 비례하여 오르는 것으로 온전히 메워지거나, 둘째로 은에 매긴 세금이 그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으로 온전히 메워지거나, 셋째로 얼마는 앞의 것으로 얼마는 뒤의 것으로 메워지는 것이다. 이 셋째 일은 아주 있을 수 있다. 금에 매긴 세금이 크게 줄었는데도 금값이 은에 견주어 올랐던 것처럼, 은에 매긴 세금이 그만큼 줄어도 은값이 노동과 상품에 견주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이처럼 잇달아 낮추는 것은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아주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만큼 늦추기는 틀림없이 할 것이다. 그렇게 낮춘 결과로, 전에는 옛 세금을 치를 수 없어 파낼 수 없던 광산 여럿을 파낼 수 있게 될 것이고, 해마다 시장에 나오는 은의 양은 언제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 얼마쯤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어떤 양의 가치도 얼마쯤 낮아질 수밖에 없다. 1736년에 세금을 낮춘 결과로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는 오늘날 그 낮춤 전보다 낮지는 않을지 몰라도, 스페인 궁정이 옛 세금을 그대로 걷었을 경우에 견주면 적어도 10퍼센트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낮추었음에도 이번 세기가 흐르는 동안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얼마쯤 오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위에서 들어 놓은 사실과 논거들이 나를 믿게,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고 어림잡게 만든다.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나은 견해조차 어쩌면 믿음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런 오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것이 너무나

작아,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듣고도 많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또는 유럽 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마저 확실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과 은을 해마다 얼마나 들여온다고 보든, 그 금속을 해마다 없애는 양이 그 한 해 수입과 같아지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살펴 두어야 한다. 그 소모는 그 덩이가 커지는 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큰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덩이가 커지면 그 가치는 줄어든다. 그것은 더 많이 쓰이고 덜 아껴지므로, 그 소모는 그 덩이보다 더 큰 비율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 금속을 해마다 없애는 양은 이렇게 하여 그 한 해 수입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수입이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해에 없애는 양이 한 해에 들여오는 양과 같아진 뒤에 한 해 수입이 차츰 줄어든다면, 한 해에 없애는 양이 얼마 동안 한 해 수입을 넘어설 수 있다. 그 금속의 덩이는 차츰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고 그 가치는 차츰 눈에 띄지 않게 오를 것이며, 그러다가 한 해 수입이 다시 한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한 해에 없애는 양이 차츰 눈에 띄지 않게 그 한 해 수입이 떠받칠 수 있는 만큼에 스스로 맞춰 갈 것이다.

은의 가치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

유럽의 부가 늘어난 것과, 귀금속의 양은 부가 늘어남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고 그 가치는 그 양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든다는 널리 퍼진 생각은 어쩌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럽 시장에서 그 가치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 모른다. 그리고 토지의 원생산물

가운데 여러 가지의 값이 아직도 차츰 오르고 있는 것은 그들을 이 견해에 한층 더 굳게 붙들어 둘지 모른다.

어떤 나라에서 부가 늘어난 데서 생기는 귀금속의 양의 증가가 그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보이려 애쓴 바다. 금과 은은 온갖 사치품과 값진 물건이 부유한 나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저절로 그런 나라로 모여든다. 그곳에서 그것이 더 가난한 나라보다 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비싸기 때문, 곧 그것에 더 나은 값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값이 더 높다는 것이며, 그 높음이 그치자마자 그것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기를 그친다.

곡물과 그처럼 오로지 사람의 근면으로만 길러 내는 다른 작물을 빼면, 소와 가금과 온갖 사냥감, 땅에서 나오는 쓸모 있는 화석과 광물 따위 다른 모든 갈래의 원생산물은 사회가 부와 개량에서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저절로 더 비싸진다는 것도 내가 이미 보이려 애쓴 바다. 그러므로 그런 상품이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은과 맞바뀌게 되더라도, 거기서 은이 실제로 더 싸졌다거나 전보다 더 적은 노동을 사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품이 실제로 더 비싸졌다, 곧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르는 것은 그것의 명목 가격만이 아니라 실질 가격이다. 그 명목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실질 가격이 오른 결과다.

개량의 진전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원생산물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

이 여러 갈래의 원생산물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사람의 근면으로는 그 양을 도무지 늘릴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부류는 근면이 수요에 비례하여 늘릴 수 있는 것들이다. 셋째 부류는 근면이 미치는 힘이 한계가 있거나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다. 부와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첫째 부류의 실질 가격은 얼마든지 터무니없이 높아질 수 있고 어떤 정해진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듯하다. 둘째 부류의 실질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기는 하나 어떤 정해진 울타리가 있어 꽤 오랫동안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셋째 부류의 실질 가격은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르는 것이 그 타고난 성향이기는 하나, 같은 정도의 개량 아래에서도 이 갈래의 원생산물을 늘리려는 사람의 근면이 여러 우연에 따라 더 성공하기도 덜 성공하기도 하는 대로 더러는 떨어지는 일조차 있고, 더러는 그대로 머무르며, 더러는 더 많거나 더 적게 오른다.

첫째 부류.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값이 오르는 첫째 갈래의 원생산물은 사람의 근면으로는 그 양을 도무지 늘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이 정해진 양만 내놓는 것들, 그리고 몹시 썩기 쉬운 성질이라 여러 철의 생산물을 한데 모아 쌓아 둘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드물고 유별난 새와 물고기의 대부분, 여러 갈래의 사냥감, 거의 모든 들새, 특히 모든 철새, 그 밖의 많은 것이 그러하다. 부가 늘고 그에 따르는 사치가 늘면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그와 함께 늘기 쉬우며, 사람의 근면을 아무리 쏟아도 그 공급을 수요가 늘기 전보다 크게 늘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런 상품의 양은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머무르는데 그것을 사려는 겨룸은 끊임없이 커지므로, 그 값은 얼마든지 터무니없이 높아질 수 있고 어떤 정해진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듯하다. 멧도요가 한 마리에 20기니에 팔릴 만큼 유행을 타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근면을 아무리 쏟아도 시장에 나오는 그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로마인이 가장 큰 영화를 누리던 때에 드문 새와 물고기에 치른 높은 값도 이렇게 하면 쉽게 설명된다. 그 값은 그때 은의 가치가 낮았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근면으로는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드물고 값진 것의 가치가 높았던 결과다. 은의 실질 가치는

로마에서, 공화국이 무너지기 앞뒤의 얼마 동안 오늘날 유럽 대부분에서보다 높았다. 공화국이 시칠리아의 십일조 밀 1모디우스, 곧 1펙에 치른 값은 스털링 6펜스쯤에 해당하는 3세스테르티우스[6]였다. 그러나 이 값은 아마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았을 것이다. 이 값에 밀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시칠리아 농부들에게는 세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인이 십일조 밀보다 더 많은 곡물을 구할 일이 있으면, 그들은 협약에 따라 그 남는 양에 1펙당 4세스테르티우스, 곧 스털링 8펜스의 비율로 값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그때의 웬만하고 무리 없는, 곧 예사로운 또는 평균 계약 가격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쿼터[7]당 21실링쯤에 해당한다. 근래의 모자란 해들 앞에 잉글랜드 밀의 예사로운 계약 가격은 쿼터당 28실링이었는데, 잉글랜드 밀은 품질이 시칠리아 밀에 못 미쳐 유럽 시장에서 대체로 더 낮은 값에 팔린다. 그러므로 은의 가치는 그 옛 시절에 오늘날의 가치에 대하여 거꾸로 셋 대 넷이었을 수밖에 없다. 곧 그때 은 세 온스로 오늘날 네 온스가 살 수 있는 만큼의 노동과 상품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플리니우스에서, 세이우스가 아그리피나 황후에게 바칠 선물로 흰 나이팅게일을 오늘날 우리 돈으로 50파운드쯤에 해당하는 6000세스테르티우스에 샀다는 것(제10권 29장)과, 아시니우스 켈레르가 붉은촉수 한 마리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66파운드 13실링 4펜스에 해당하는 8000세스테르티우스에 샀다는 것(제9권 17장)을 읽을 때, 그 값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든 그것은 실제보다 3분의 1쯤 덜한 것으로 우리에게 비치기 쉽다. 그 실질 가격, 곧 그 대가로 내준 노동과 생계의 양은 오늘날 그 명목 가격이 우리에게 알려 주기 쉬운 것보다 3분의 1쯤 더 컸다. 세이우스는 나이팅게일 한 마리에 오늘날 66파운드 13실링 4펜스가 살 수 있는 만큼의 노동과 생계를 부릴 힘을 내주었고, 아시니우스 켈레르는 붉은촉수 한 마리에

88파운드 17실링 9펜스가 살 수 있는 만큼을 부릴 힘을 내주었다. 그런 높은 값이 터무니없게 된 까닭은 은이 넉넉하였던 데에 있다기보다, 그 로마인들이 제가 쓰기에 필요한 것을 넘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과 생계가 넉넉하였던 데에 있다.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은의 양은 같은 양의 노동과 생계를 부릴 힘이 오늘날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을 양보다 훨씬 적었다.

둘째 부류.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값이 오르는 둘째 갈래의 원생산물은 사람의 근면이 수요에 비례하여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갈지 않은 나라에서 자연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내놓아 값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그래서 갈이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더 이로운 생산물에 자리를 내주도록 밀려나는 쓸모 있는 초목과 짐승으로 이루어진다.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오랜 동안 이것의 양은 끊임없이 줄어드는데 그와 함께 그것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그 실질 가치, 곧 그것으로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실제 양은 차츰 올라, 마침내 사람의 근면으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잘 간 땅에서 길러 낼 수 있는 어떤 것에도 못하지 않을 만큼 이로운 생산물이 되게 하는 높이에 이른다. 그 높이에 이르면 그것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더 올라간다면 그 양을 늘리려고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근면이 곧 그리로 쏠릴 것이다.

예를 들어 소의 값이 사람의 먹을 것을 길러 내려고 땅을 가는 것만큼 소의 먹을 것을 길러 내려고 땅을 가는 것이 이로울 만큼 높이 오르면, 그것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더 올라간다면 곡물 밭이 곧 더 많이 목초지로 바뀔 것이다. 갈이가 뻗어 나가는 것은 들목초지의 양을 줄임으로써, 나라가 노동이나 갈이 없이 저절로 내놓는 푸줏간 고기의 양을 줄인다. 또 곡물이나, 아니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곡물의 값을 쥐고 그것과 맞바꾸려는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수요를 늘린다. 그러므로

푸줏간 고기의 값, 따라서 소의 값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잘 간 땅을 소의 먹을 것을 길러 내는 데에 쓰는 것이 곡물을 길러 내는 데에 쓰는 것만큼 이로워질 만큼 높이 오를 때까지 차츰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이가 소의 값을 이 높이까지 끌어올릴 만큼 뻗어 나가는 것은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늦은 일일 수밖에 없으며, 그 높이에 이르기까지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값은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유럽에는 어쩌면 소의 값이 아직 이 높이에 이르지 못한 곳이 있을 것이다. 연합법[8] 전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곳에서도 그것은 이 높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소가 늘 스코틀랜드 시장에만 갇혀 있었다면, 소를 먹이는 일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땅의 양이 다른 쓰임새에 쓸 수 있는 땅에 견주어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소를 먹이려고 땅을 가는 것이 이로울 만큼 그 값이 높이 오르는 일은 어쩌면 거의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살펴본 대로 런던 근처에서 소의 값이 지난 세기 초쯤에 이 높이에 이른 듯하나, 더 멀리 떨어진 여러 주의 대부분에서 그것이 이 높이에 이른 것은 아마 훨씬 뒤의 일이며, 그 가운데 어떤 주에서는 어쩌면 아직도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째 갈래의 원생산물을 이루는 여러 물건 가운데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값이 이 높이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어쩌면 소일 것이다.

참으로 소의 값이 이 높이에 이르기까지는, 가장 높은 갈이를 받을 수 있는 땅조차 그 대부분이 온전히 갈릴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거름을 실어 올 만한 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모든 농장에서, 곧 넓이가 넓은 모든 나라의 농장 가운데 훨씬 큰 몫에서 잘 간 땅의 양은 그 농장이 스스로 내놓는 거름의 양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시 그 농장에서 먹이는 소 자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땅에 거름을 주는 길은 그 위에 소를 풀어 먹이거나, 우리에서 먹이고 그 똥거름을 실어

내어 뿌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의 값이 간 땅의 지대와 이윤을 다 치를 만큼 되지 않는다면 농부는 그 위에 소를 풀어 먹일 형편이 못 되며, 우리에서 먹일 형편은 한층 더 못 된다. 소를 우리에서 먹일 수 있는 것은 개량하여 간 땅의 생산물로써뿐인데, 묵고 개량하지 않은 땅의 빈약하고 흩어진 생산물을 모으려면 노동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를 땅에 풀어 먹이게 할 때에도 그 값이 개량하여 간 땅의 생산물을 치르기에 넉넉하지 않다면, 적지 않은 노동을 더 들여 그 생산물을 모아 우리로 실어다 주어야 할 때에는 그 값이 그것을 치르기에 한층 더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에서는 갈이에 필요한 만큼 말고는 소를 우리에서 이롭게 먹일 수 없다. 그런데 그만큼의 소로는 그것이 갈 수 있는 땅 전부를 늘 좋은 상태로 지킬 만큼의 거름을 결코 내줄 수 없다. 그것이 내주는 거름은 농장 전체에 모자라므로 자연히 가장 이롭게 또는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땅, 곧 가장 기름진 땅이나 어쩌면 헛간 마당 가까운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땅은 늘 좋은 상태로 지켜져 갈이에 알맞게 되고, 나머지는 그 대부분이 묵혀 두어 비틀거리며 반쯤 굶은 소 몇 마리를 겨우 살려 두기에 넉넉한 비참한 목초밖에 거의 내놓지 못하게 된다. 그 농장은 온전히 갈려면 필요할 소의 수에 견주어서는 소가 크게 넘치면서도, 실제 생산물에 견주어서는 소가 넘치는 일이 아주 잦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꼴로 여섯 해나 일곱 해를 잇달아 풀밭으로 쓴 뒤에는 이 묵은 땅의 얼마를 갈아엎을 수 있고, 그러면 어쩌면 나쁜 귀리나 그 밖의 거친 곡식을 한두 번 빈약하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땅이 온전히 지쳐 버려 전처럼 다시 쉬게 하고 풀밭으로 써야 하며, 또 다른 얼마를 갈아엎어 같은 꼴로 지치게 한 다음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법 전에 스코틀랜드 저지대 전역에서 다스림의 일반 체계가 이러하였다. 늘 거름을 잘 주어

좋은 상태로 지킨 땅은 농장 전체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넘는 일이 드물었고, 더러는 5분의 1이나 6분의 1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나머지는 거름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얼마가 차례로 어김없이 갈리고 지쳐 버렸다. 이런 다스림의 체계 아래에서는 좋은 갈이를 받을 수 있는 스코틀랜드 땅조차 그것이 내놓을 수 있는 양에 견주어 아주 적게밖에 내놓을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 체계가 얼마나 불리하게 보이든, 연합법 전에는 소의 값이 낮았던 까닭으로 그것이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었던 듯하다. 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그것이 나라의 적지 않은 곳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곳에서 틀림없이 무지와 옛 관습에 매달리는 마음 탓이겠으나, 대부분의 곳에서는 더 나은 체계를 곧바로 또는 빠르게 세우는 데에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내놓는 피할 수 없는 걸림돌 탓이다. 첫째로는 차지인이 가난한 탓, 곧 그들이 자기 땅을 더 온전히 갈 만큼의 소 자산을 손에 넣을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한 탓이다. 그 값이 오른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자산을 갖추는 것을 이롭게 만들면서, 바로 그 오름이 그것을 손에 넣기를 더 어렵게도 만든다. 둘째로는 그들이 그 더 많은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자기 땅을 다듬어 놓을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한 탓이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땅이 개량되는 것은 반드시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하는 두 가지 일이며,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어디서도 크게 앞질러 갈 수 없다. 자산이 얼마쯤 늘지 않으면 땅의 개량이란 거의 있을 수 없으나, 땅이 크게 개량되지 않고서는 자산이 크게 늘 수도 없다. 그러지 않으면 땅이 그 자산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은 체계를 세우는 데 맞선 이런 자연스러운 걸림돌은 오랫동안 절약과 근면을 이어 가는 것 말고는 치울 길이 없다. 그리고 차츰 낡아 가고 있는 옛 체계가 나라의 여러 곳에서 온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어쩌면 반세기나 한 세기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의 연합에서 얻은 모든 상업상의 이로움 가운데 소의 값이 오른 이 일이 어쩌면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은 하일랜드의 모든 땅의 가치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어쩌면 저지대가 개량된 주된 원인이었다.

새로 생긴 모든 식민지에서는 여러 해 동안 소를 먹이는 일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묵은 땅이 많으므로 소가 곧 몹시 넉넉해지며, 무엇이든 크게 넉넉하면 크게 싸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 아메리카에 있는 유럽 식민지의 소는 다 본래 유럽에서 실어 간 것이었으나, 그곳에서 곧 그토록 많이 불어나고 값이 그토록 떨어져 말조차 숲에서 멋대로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고 아무도 그것을 제 것이라 주장할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런 식민지가 처음 세워진 뒤로 간 땅의 생산물로 소를 먹이는 것이 이로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은 원인, 곧 거름이 모자라는 것과 갈이에 부려지는 자산이 그것으로 갈아야 할 땅에 견주어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곳에도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서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농사 체계를 들여놓기 쉽다. 스웨덴 여행가 칼름 씨[9]는 1749년에 자기가 본 대로 북아메리카의 몇몇 영국 식민지의 농사를 적으면서, 그에 걸맞게 그곳에서는 농업의 여러 갈래에 그토록 솜씨가 좋은 영국 국민의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들은 곡물 밭에 거름을 거의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한 조각의 땅이 잇단 농사로 지쳐 버리면 그들은 다른 새 땅을 개간하여 갈고, 그것이 지치면 세 번째 땅으로 넘어간다. 그들의 소는 숲과 그 밖의 갈지 않은 땅을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어 그곳에서 반쯤 굶는데, 봄에 한해살이 풀이 꽃을 맺거나 씨를 떨굴 틈을 갖기도 전에 너무 일찍 뜯어 먹혀 그 풀이 오래전에 거의 다 뿌리째 없어졌기 때문이다(칼름의 《여행기》 제1권 343~344쪽). 그 한해살이 풀은 북아메리카의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자연 목초였던 듯하며, 유럽인이 처음 그곳에 자리 잡았을 때에는 아주 빽빽하게 자라 서너 피트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이 예사였다. 그가 글을 쓸 때에 암소 한 마리도 먹여 살릴 수 없던 땅 한 조각이 옛 시절에는 네 마리를 먹여 살렸을 것이며, 그 네 마리마다 지금 그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젖의 네 배를 냈을 것이라고 그는 다짐을 받았다. 그가 보기에 목초가 나빠진 것이 그들의 소가 나빠진 까닭이며, 그 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눈에 띄게 못해졌다. 그것은 아마 삼사십 년 전에 스코틀랜드 전역에 흔하던 그 비틀어진 품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 품종은 이제 저지대 대부분에서 크게 나아졌다. 이는 품종을 바꾼 덕이 아니라, 그런 방편을 쓴 곳도 더러 있기는 하나 더 넉넉하게 먹이는 길을 찾은 덕이다.

그러므로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를 먹이려고 땅을 가는 것이 이로울 만한 값을 소가 받게 되는 것은 늦은 일이지만, 이 둘째 갈래의 원생산물을 이루는 여러 부분 가운데 이 값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어쩌면 소일 것이다. 소가 그 값을 받기까지는 유럽의 여러 곳에서 개량이 이르러 있는 그 정도의 온전함에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소가 이 갈래에서 가장 먼저인 것들에 든다면, 사슴 고기는 어쩌면 이 갈래의 원생산물 가운데 이 값을 가장 늦게 받는 것에 든다. 영국에서 사슴 고기의 값은 얼마나 터무니없게 보이든 사슴 사육장에 드는 비용을 메우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사슴을 먹여 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슴을 먹이는 일은 옛 로마인 사이에서 투르디라 불리던 그 작은 새를 먹이는 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곧 흔한 농사의 한 가지가 되었을 것이다. 바로와 콜루멜라[10]는 그것이 가장 이로운 항목이었다고 우리에게 다짐한다. 그 나라에 마른 몸으로 날아드는 철새인 오르톨랑을 살지게 먹이는 일이 프랑스의 몇몇

곳에서는 그러하다고 한다. 사슴 고기가 계속 유행을 타고 영국의 부와 사치가 얼마 전부터 그래 온 대로 늘어 간다면, 그 값은 아주 그럼직하게 지금보다 한층 더 오를 것이다.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처럼 그토록 꼭 있어야 할 물건의 값을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시점과, 사슴 고기처럼 그토록 군더더기인 물건의 값을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시점 사이에는 아주 긴 동안이 있으며,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갈래의 원생산물이 저마다 다른 형편에 따라 어떤 것은 더 이르게 어떤 것은 더 늦게 차츰 그 가장 높은 값에 이른다.

이를테면 어느 농장에서나 헛간과 마구간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얼마쯤의 가금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들은 그러지 않으면 버려질 것으로 먹으므로 그야말로 버릴 것을 거두어 쓰는 셈이며, 농부에게 드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그는 그것을 아주 헐값에 팔 형편이 된다. 그가 얻는 것은 거의 다 고스란히 남는 것이라, 그 값이 이만큼의 수를 먹이는 일을 그만두게 할 만큼 낮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갈이가 나쁘고 그래서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비용 없이 길러 낸 가금이 흔히 온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하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에서는 그것이 흔히 푸줏간 고기나 그 밖의 어떤 짐승 먹을거리와 마찬가지로 싸다. 그러나 농장이 이렇게 비용 없이 내놓는 가금의 전체 양은 언제나 그 농장에서 길러지는 푸줏간 고기의 전체 양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으며, 부와 사치의 시절에는 그 좋음이 거의 같기만 하다면 흔한 것보다 드문 것을 언제나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개량과 갈이의 결과로 부와 사치가 늘어 감에 따라 가금의 값은 푸줏간 고기의 값 위로 차츰 올라, 마침내 그것을 먹이려고 땅을 가는 것이 이로워질 만큼 높아진다. 그 높이에 이르면 그것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더 올라간다면 곧 더 많은 땅이 그 쓰임새로 돌려질 것이다.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서는 가금을

먹이는 일이 시골 살림살이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지며, 농부가 그러려고 강냉이[11]와 메밀을 적지 않게 길러 낼 마음이 생길 만큼 이롭다. 그곳에서 어지간한 농부는 더러 마당에 새 400마리를 두기도 한다. 잉글랜드에서는 가금을 먹이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로 널리 여겨지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프랑스에서 적지 않은 양을 받아 오는 만큼, 그것은 프랑스보다 잉글랜드에서 틀림없이 더 비싸다.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갈래의 짐승 먹을거리든 그것이 가장 비싼 시기는 자연히 그것을 길러 내려고 땅을 가는 일이 널리 퍼지기 바로 앞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관행이 널리 퍼지기 앞의 얼마 동안은 모자람이 반드시 그 값을 끌어올린다. 그것이 널리 퍼진 뒤에는 먹이는 새로운 길을 흔히 찾아내게 되어, 농부가 같은 넓이의 땅에서 그 갈래의 짐승 먹을거리를 훨씬 많이 길러 낼 수 있게 된다. 넉넉해지면 그는 더 싸게 팔지 않을 수 없게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량 덕에 더 싸게 팔 형편이 된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그 넉넉함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로버와 순무, 당근, 양배추 따위가 들어온 것이 런던 시장에서 푸줏간 고기의 흔한 값을 지난 세기 초쯤보다 얼마쯤 낮추는 데에 이바지한 것도 아마 이런 길을 거쳤을 것이다.

똥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다른 어떤 쓸모 있는 짐승도 마다하는 많은 것을 탐하여 삼키는 돼지도 가금과 마찬가지로 본래 버릴 것을 거두어 쓰려고 기른다. 이처럼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짐승의 수가 수요를 채우기에 넉넉한 동안은, 이 갈래의 푸줏간 고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시장에 나온다. 그러나 수요가 이 양으로 채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오르고, 다른 소를 먹이고 살지게 하려고 그러하듯이 돼지를 먹이고 살지게 하려고 일부러 먹을 것을 길러 내야 하게 되면, 그 값은 반드시 오르며 그 나라의

성질과 농업의 형편이 돼지를 먹이는 일을 다른 소를 먹이는 일보다 더 비싸게 만들거나 덜 비싸게 만드는 대로 다른 푸줏간 고기의 값보다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뷔퐁 씨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돼지고기의 값은 쇠고기의 값과 거의 같다. 영국 대부분에서 그것은 오늘날 얼마쯤 더 높다.

영국에서 돼지와 가금의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오막살이 사람들과 그 밖에 땅을 조금 차지한 이들의 수가 줄어든 데에 흔히 돌려져 왔다. 그렇게 줄어든 일은 유럽의 어디에서나 개량과 더 나은 갈이가 오기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그와 함께 그 물건의 값을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 얼마쯤 더 이르게 또 얼마쯤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에 이바지하였을 수도 있다. 가장 가난한 집도 고양이나 개 한 마리를 아무 비용 없이 먹여 살리는 일이 잦은 것처럼, 땅을 차지한 가장 가난한 이들도 흔히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금 몇 마리나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몇 마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자기 밥상에서 나오는 자잘한 찌꺼기와 젖 국물, 걷어 낸 젖, 버터를 짜고 남은 젖이 그 짐승에게 먹을 것의 얼마를 대어 주고, 나머지는 이웃한 밭에서 아무에게도 눈에 띌 만한 해를 입히지 않고 찾아낸다. 그러므로 땅을 조금 차지한 그런 이들의 수가 줄어듦으로써, 이렇게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게 나오던 이 갈래의 식료품의 양이 적잖이 줄어들었을 것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그 값이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이르게 또 더 빠르게 올랐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값은 이르든 늦든 어차피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곧 다른 간 땅 대부분에서 치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짐승에게 먹을 것을 내주는 땅을 가는 노동과 비용을 치르는 값까지 올랐을 것이다.

젖을 다루는 일, 곧 낙농도 돼지와 가금을 먹이는 일과 마찬가지로 본래 버릴 것을 거두어 쓰려고 벌인다. 농장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소는

제 새끼를 기르는 데에 드는 것이나 농부네 식구가 먹는 데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은 젖을 내며, 어느 한 철에 가장 많이 낸다.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가운데 젖은 어쩌면 가장 썩기 쉽다. 그것이 가장 넉넉한 더운 철에는 24시간을 채 가지 못한다. 농부는 그것을 생버터로 만들어 한 주 동안 그 얼마를 저장하고, 소금 버터로 만들어 한 해 동안 저장하며, 치즈로 만들어 그보다 훨씬 많은 몫을 여러 해 동안 저장한다. 이 모두에서 얼마는 제 식구가 쓰도록 남겨 두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나은 값을 찾아 시장으로 가는데, 그 값이 제 식구가 쓰고 남는 것을 그곳으로 보내기를 그만두게 할 만큼 낮아지기는 어렵다. 그 값이 참으로 아주 낮으면 그는 낙농을 몹시 게으르고 지저분하게 다루기 쉬우며, 어쩌면 그것을 위하여 따로 방이나 건물을 두는 것조차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아 제 부엌의 연기와 더러움과 지저분함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삼사십 년 전 스코틀랜드의 거의 모든 농부의 낙농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 가운데 많은 곳이 그러하다. 푸줏간 고기의 값을 차츰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원인, 곧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나라가 개량된 결과로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게 먹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낙농 생산물의 값도 같은 꼴로 끌어올리며, 그 값은 저절로 푸줏간 고기의 값 또는 소를 먹이는 비용과 이어진다. 값이 오르면 노동과 돌봄과 깨끗함에 더 많이 치를 수 있게 된다. 낙농이 농부의 마음을 쓸 값어치가 더 있게 되고 그 생산물의 품질도 차츰 좋아진다. 마침내 그 값이 가장 기름지고 가장 잘 간 땅의 얼마를 오로지 낙농을 위하여 소를 먹이는 데에 쓸 값어치가 있을 만큼 높아지며, 그 높이에 이르면 그것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더 올라간다면 곧 더 많은 땅이 그 쓰임새로 돌려질 것이다. 그것은 잉글랜드 대부분에서 이 높이에 이른 듯하며, 그곳에서는 좋은 땅이 흔히 그렇게 쓰이고 있다. 웬만큼 큰 읍 몇 곳의 근처를 빼면

스코틀랜드의 어디에서도 그것은 아직 이 높이에 이르지 못한 듯하며, 그곳의 여느 농부는 오로지 낙농을 위하여 소의 먹을 것을 길러 내는 데에 좋은 땅을 많이 쓰는 일이 드물다. 그 생산물의 값은 요 몇 해 사이에 웬만큼 올랐으나 아직 그럴 수 있을 만큼은 아마 낮을 것이다. 참으로 그 품질이 잉글랜드 낙농의 생산물에 견주어 떨어지는 정도는 그 값이 떨어지는 정도와 꼭 맞먹는다. 그러나 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값이 낮은 것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결과다. 품질이 훨씬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 나라의 형편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것의 대부분을 훨씬 나은 값으로 처분할 수 없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며, 오늘날의 값으로는 훨씬 나은 품질을 내놓는 데에 드는 땅과 노동의 비용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잉글랜드 대부분에서는 값이 더 높음에도 낙농이 곡물을 길러 내는 것이나 소를 살지게 하는 것, 곧 농업의 두 큰 목표보다 땅을 더 이롭게 쓰는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대부분에서 그것은 아직 그만큼 이로울 수조차 없다.

어느 나라의 땅도 사람의 근면이 그 위에서 길러 내야 하는 모든 생산물의 값이 온전한 개량과 갈이에 드는 비용을 치를 만큼 높아지고 나서야 온전히 갈리고 개량될 수 있음이 뚜렷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생산물의 값이 첫째로 좋은 곡물 밭의 지대를 치르기에 넉넉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다른 간 땅 대부분의 지대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좋은 곡물 밭에서 흔히 치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의 노동과 비용을 치르기에 넉넉해야 하며, 달리 말하면 그가 그 일에 부리는 자산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우기에 넉넉해야 한다. 저마다의 생산물의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그것을 길러 내도록 정해진 땅이 개량되고 갈리는 일보다 앞서야 함이 뚜렷하다. 벌이가 모든 개량의 목적이며, 손실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일에는 개량이라는 이름이 걸맞을 수 없다. 그런데 값이 결코 비용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생산물을 위하여 땅을 개량하는 일에는 손실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를 온전히 개량하고 가는 것이 모든 공적인 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아주 틀림없이 그러한데, 그 여러 갈래의 원생산물의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공적인 재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것에 반드시 앞서 오고 함께 오는 일로 보아야 한다.

그 여러 갈래의 원생산물의 명목 가격, 곧 화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도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실질 가격이 오른 결과다. 그것은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은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생계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시장에 가져오는 데에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생계가 드는 만큼, 그것이 그곳에 왔을 때에는 더 많은 양을 나타내거나 그와 맞먹는다.

셋째 부류.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값이 저절로 오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갈래의 원생산물은 그 양을 늘리는 데에 사람의 근면이 미치는 힘이 한계가 있거나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갈래의 원생산물의 실질 가격은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절로 오르는 쪽으로 기울기는 하나, 그 양을 늘리려는 사람의 근면이 여러 우연에 따라 더 성공하기도 덜 성공하기도 하는 대로 서로 아주 다른 개량의 시기에 더러는 떨어지는 일조차 있고 더러는 그대로 머무르며, 또 같은 시기 안에서도 더러는 더 많거나 더 적게 오른다.

자연이 다른 갈래에 딸린 것처럼 만들어 놓아, 어느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한쪽의 양이 다른 쪽의 양에 반드시 같히게 되는 갈래의 원생산물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양모나 생가죽의 양은 그 나라에서 기르는 크고 작은 소의 수에 반드시 같힌다. 그 수는 다시 그 나라의 개량된 형편과 농업의 성질이 반드시 정한다.

개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푸줏간 고기의 값을 차츰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원인이 양모와 생가죽의 값에도 같은 결과를 낳아 그것도 거의 같은 비율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개량이 갓 시작된 거친 때에 뒤의 상품의 시장이 앞의 상품의 시장만큼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면 아마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각각의 시장이 뻗은 범위는 흔히 몹시 다르다.

푸줏간 고기의 시장은 거의 어디서나 그것을 내놓는 나라 안에 갇혀 있다. 참으로 아일랜드와 영국령 아메리카의 얼마는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적지 않게 거래하고 있으나, 내가 믿기로 그렇게 하는 나라, 곧 자기 푸줏간 고기의 적지 않은 몫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나라는 상업 세계에서 그들뿐이다.

이와 달리 양모와 생가죽의 시장은 개량이 갓 시작된 거친 때에 그것을 내놓는 나라 안에 갇히는 일이 아주 드물다. 그것은 먼 나라로 쉽게 실어 갈 수 있는데, 양모는 아무 손질 없이 그럴 수 있고 생가죽은 아주 조금만 손질하면 그럴 수 있다. 또 그것은 많은 제조업의 재료이므로, 그것을 내놓는 나라의 근면이 그것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지 않을 때에도 다른 나라의 근면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다.

갈이가 나쁘고 그래서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나라에서는 양모와 가죽의 값이 짐승 전체의 값에서 차지하는 몫이, 개량과 인구가 더 앞으로 나아가 푸줏간 고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나라에서보다 언제나 훨씬 크다. 흄은 색슨 시절에 양털 한 벌이 양 한 마리 전체 가치의 5분의 2로 매겨졌으며 이는 오늘날의 매김에서 차지하는 몫보다 훨씬 높았다고 살펴 둔다. 스페인의 몇몇 지방에서는 오로지 양털과 굳기름을 얻으려고 양을 죽이는 일이 잦다고 나는 다짐을 받았다. 몸통은 흔히 땅에 버려져 썩거나, 먹이를 노리는 짐승과 새에게 먹히도록 내버려진다. 이런 일이 스페인에서조차 더러 일어난다면, 칠레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다른 여러 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어나며, 그곳에서는 뿔소를 오로지 가죽과 굳기름을 얻으려고 죽이는 일이 거의 언제나 벌어진다. 이런 일은 히스파니올라가 버커니어 해적에게 시달리던 때, 그리고 프랑스인 개척지가 자리를 잡고 개량되고 사람이 늘어나 스페인인의 소에 얼마쯤의 가치를 안겨 주기 전에도 거의 언제나 일어났다. 그 개척지는 이제 섬의 서쪽 절반 거의 전체의 해안을 둘러 뻗어 있으며, 스페인인은 아직도 해안의 동쪽 부분뿐 아니라 그 나라의 내륙 산악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개량과 인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짐승 전체의 값은 반드시 오르지만, 이 오름에 몸통 고기의 값이 양모와 가죽의 값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쉽다. 몸통 고기의 시장은 사회가 거친 상태에 있을 때 언제나 그것을 내놓는 나라 안에 갇히므로, 그 나라의 개량과 인구에 비례하여 반드시 넓어진다. 그러나 야만스러운 나라의 것이라 해도 양모와 가죽의 시장은 상업 세계 전체로 뻗는 일이 잦으므로, 그것이 같은 비율로 넓어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상업 세계 전체의 형편이 어느 한 나라의 개량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은 드물며, 그런 상품의 시장은 그런 개량이 있은 뒤에도 그전과 같거나 거의 같은 채로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는 그 개량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시장이 얼마쯤 넓어지는 편이 옳다. 특히 그런 상품을 재료로 삼는 제조업이 그 나라에서 번창하게 된다면, 그 시장이 크게 넓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자라난 곳에 전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올 것이며, 그 재료의 값은 적어도 그것을 먼 나라로 실어 가는 데에 예사로 들던 비용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푸줏간 고기와 같은 비율로 오르지는 않더라도 얼마쯤은 저절로 오르는 것이 옳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옳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모직물 제조업이 번창하고 있음에도 에드워드 3세 때 뒤로 잉글랜드 양모의 값이 웬만큼 떨어졌다. 그 임금의 치세에(14세기 중엽 무렵, 곧 1339년쯤) 토드, 곧 잉글랜드 양모 28파운드(무게)의 웬만하고 무리 없는 값으로 여겨진 것이 그때 돈으로 10실링보다 적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믿을 만한 기록이 많다(스미스의 《양모 비망록》 제1권 5·6·7장과 제2권도 보라). 이는 온스당 20펜스의 비율로 런던탑 무게[12]로 은 6온스를 담고 있어 오늘날 우리 돈 30실링쯤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토드당 21실링을 아주 좋은 잉글랜드 양모의 좋은 값으로 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3세 때 양모의 화폐 가격은 오늘날의 화폐 가격에 대하여 열 대 일곱이었다. 그 실질 가격의 높음은 한층 더 컸다. 쿼터당 6실링 8펜스의 비율로 보면 그 옛 시절에 10실링은 밀 12부셸의 값이었다. 쿼터당 28실링의 비율로 보면 오늘날 21실링은 겨우 6부셸의 값이다. 그러므로 옛 시절의 실질 가격과 오늘날의 실질 가격 사이의 비율은 열둘 대 여섯, 곧 둘 대 하나다. 그 옛 시절에 양모 한 토드로는 오늘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생계의 두 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며, 노동에 돌아가는 실제 보수가 두 시기에 같았다면 따라서 노동도 두 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양모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일은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에 걸맞게 힘과 술수의 결과였다.[13] 첫째로 잉글랜드에서 양모를 내보내는 것을 아예 금한 것의 결과요, 둘째로 스페인에서 그것을 관세 없이 들여오도록 허락한 것의 결과요, 셋째로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 말고 다른 나라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금한 것의 결과다. 이런 규제의 결과로 잉글랜드 양모의 시장은 잉글랜드가 개량된 결과로 얼마쯤 넓어지는 대신 국내 시장에 갇혔으며, 그 시장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의 양모가 그것과 겨루도록 허락되어 있고 아일랜드의 양모는 그것과

겨루도록 떠밀려 들어와 있다. 또 아일랜드의 모직물 제조업도 올바름과 공정한 거래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까지 온전히 억눌려 있으므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제 양모의 더 적은 몫밖에 국내에서 손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가운데 더 큰 몫을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뿐인 시장인 영국으로 보내야 한다.

옛 시절의 생가죽 값에 대해서는 그런 믿을 만한 기록을 나는 찾을 수 없었다. 양모는 흔히 임금에게 바치는 부조금으로 치러졌으므로 그 부조금에 매긴 값이 적어도 어느 만큼은 그 예사로운 값을 알려 준다. 그러나 생가죽은 그렇지 않았던 듯하다. 그래도 플리트우드는 1425년에 옥스퍼드 버스터의 수도원장과 그 참사원 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셈에서 적어도 그 특정한 자리에 적힌 대로 그 값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데, 곧 황소 가죽 다섯 장에 12실링, 암소 가죽 다섯 장에 7실링 3펜스, 두 해 자란 양 가죽 서른여섯 장에 9실링, 송아지 가죽 열여섯 장에 2실링이다. 1425년에 12실링은 오늘날 우리 돈 24실링과 거의 같은 양의 은을 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셈에서 황소 가죽 한 장은 오늘날 우리 돈 4와 5분의 4실링과 같은 양의 은으로 매겨졌다. 그 명목 가격은 오늘날보다 적잖이 낮았다. 그러나 쿼터당 6실링 8펜스의 비율로 보면 12실링으로 그때에는 밀 14부셸과 5분의 4부셸을 살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부셸당 3실링 6펜스로 치면 오늘날 51실링 4펜스가 들 것이다. 그러므로 황소 가죽 한 장으로 그때에는 오늘날 10실링 3펜스로 살 수 있는 만큼의 곡물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실질 가치는 오늘날 우리 돈 10실링 3펜스와 같았다. 겨울의 대부분 동안 소가 반쯤 굶던 그 옛 시절에 소가 아주 큰 덩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없다. 애버뒤포이즈 16파운드(무게) 짜리 스톤으로 네 스톤 나가는 황소 가죽은 오늘날 나쁜 것으로 셈하지 않으며, 그 옛 시절에는 아마 아주 좋은 것으로 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스톤당 반 크라운[14]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1773년 2월) 흔한 값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가죽은 오늘날 겨우 10실링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명목 가격은 오늘날이 그 옛 시절보다 높지만, 그 실질 가격, 곧 그것으로 사거나 부릴 수 있는 생계의 실제 양은 오히려 얼마쯤 낮다. 위의 셈에 적힌 암소 가죽의 값은 황소 가죽의 값에 대하여 거의 흔한 비율을 이룬다. 양 가죽의 값은 그보다 적잖이 높다. 그것은 아마 양모와 함께 팔렸을 것이다. 반대로 송아지 가죽의 값은 그보다 크게 낮다. 소의 값이 아주 낮은 나라에서는 자산을 이어 가려고 기를 작정이 아닌 송아지를 대체로 아주 어릴 때 죽이는데, 이삼십 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그러하였다. 그렇게 하면 젖을 아끼는데, 송아지 값으로는 그 젖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가죽은 흔히 별 쓸모가 없다.

생가죽의 값은 몇 해 전보다 오늘날 적잖이 낮은데, 이는 아마 바닷물범 가죽에 매긴 관세를 없앤 것과, 1769년에 이루어진 일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아일랜드와 개척지에서 생가죽을 관세 없이 들여오도록 허락한 것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세기 전체를 평균하여 보면 그 실질 가격은 아마 그 옛 시절보다 얼마쯤 높았을 것이다. 이 상품의 성질은 그것을 먼 시장으로 실어 가는 데에 양모만큼 알맞지 않게 만든다. 그것은 두어 두면 더 상한다. 소금에 절인 가죽은 갓 벗긴 가죽보다 못하다고 셈하여 더 낮은 값에 팔린다. 이 사정은 그것을 제조하지 않고 내보내야 하는 나라에서 나온 생가죽의 값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제조하는 나라에서 나온 생가죽의 값을 그에 견주어 끌어올리는 쪽으로 반드시 얼마쯤 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야만스러운 나라에서 그 값을 끌어내리고, 개량되고 제조업을 갖춘 나라에서 그 값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얼마쯤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옛 시절에 그 값을 끌어내리고 오늘날 그 값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얼마쯤 기울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무두질업자는 우리 모직물 업자만큼

나라의 지혜를 설득하여, 공동체의 안전이 자기네 제조업이 잘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덜한 은혜를 받아 왔다. 참으로 생가죽을 내보내는 것은 금지되고 공적인 해악으로 선언되었으나, 바깥 나라에서 그것을 들여오는 것에는 관세가 매겨져 왔다. 그리고 이 관세가 아일랜드와 개척지의 생가죽에 대해서는 (다섯 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없어졌으나, 아일랜드는 남는 가죽이나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는 가죽을 팔 때에 영국 시장에 갇혀 있지는 않다. 여느 소의 가죽은 겨우 요 몇 해 안에 개척지가 본국 말고 어디로도 보낼 수 없는 열거 상품[15]에 들었으며, 아일랜드의 거래도 이 경우에는 영국의 제조업을 받쳐 주려고 지금까지 짓눌린 적이 없다.

양모나 생가죽의 값을 그것이 저절로 이르렀을 값 아래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기우는 어떤 규제든, 개량되고 갈린 나라에서는 푸줏간 고기의 값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얼마쯤 기울 수밖에 없다. 개량하여 간 땅에서 먹이는 크고 작은 소의 값은 지주가 개량하여 간 땅에서 기대할 만한 지대와 농부가 기대할 만한 이윤을 치르기에 넉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곧 그것을 먹이기를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값 가운데 양모와 가죽으로 치러지지 않는 몫은 몸통 고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치러지는 것이 적을수록 다른 쪽으로 치러져야 하는 것이 많아진다. 이 값이 짐승의 여러 부분에 어떻게 갈라지느냐는, 그것이 다 자기들에게 치러진다면 지주와 농부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개량되고 갈린 나라에서 지주와 농부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그런 규제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없으나, 소비자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식료품의 값이 오름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량되지 않고 갈리지 않은 나라, 땅의 대부분을 소를 먹이는 일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쓸 수 없고 양모와 가죽이 그 소의 가치의 주된 몫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사정이 아주 다를 것이다. 이 경우에 지주와 농부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그런 규제로 아주 깊이 영향을 받고, 소비자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아주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에 양모와 가죽의 값이 떨어져도 몸통 고기의 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 나라 땅의 대부분을 소를 먹이는 일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쓸 수 없으므로 여전히 같은 수를 먹일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푸줏간 고기가 여전히 시장에 나온다. 그것에 대한 수요는 전보다 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값도 전과 같다. 소의 값 전체가 떨어질 것이고, 그와 함께 소가 주된 생산물인 모든 땅, 곧 그 나라 땅의 대부분의 지대와 이윤이 다 떨어질 것이다. 흔히 에드워드 3세에게 돌려지지만 아주 잘못 돌려진 양모 수출의 영구 금지는, 그때 그 나라의 형편에서는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규제였을 것이다. 그것은 이 왕국 땅 대부분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작은 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갈래의 값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뒤의 개량을 아주 크게 늦추었을 것이다.

---

1.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스털링」은 영국의 법정 화폐라는 뜻이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2. 옮긴이 — 트로이 파운드는 귀금속을 다는 무게 단위로 12트로이온스, 곧 약 373그램이다. 무게 단위 파운드와 화폐 단위 파운드가 한 문단에 같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앞의 것을 「파운드(무게)」로 적어 갈라 두었다.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3. 옮긴이 — 기욤 토마 레날(1713~1796)을 말한다. 그가 1770년에 낸 이 책은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와 그 거래를 다룬 당대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피아스트르는 스페인의 큰 은화이고 레알은 그것을 잘게 나눈 단위다. 크루자도는 포르투갈의 화폐이고 리브르는 프랑스의 화폐다.

4. 옮긴이 — 저본의 셈이 맞지 않는 자리다. 여기에 8분의 1인 25만 파운드를 더하여 225만 파운드가 되려면 앞의 액수가 200만 파운드여야 한다. 저본에는 2000만

파운드로 적혀 있다.

5. 옮긴이 — 저본에는 「유럽의 여러 광산(mines)에서」로 적혀 있으나, 금과 은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조폐국(mints)이므로 그렇게 고쳐 읽었다. 바로 다음 문단이 콜카타의 조폐국을 말하는 자리다.

6. 옮긴이 — 세스테르티우스는 로마의 화폐 단위다. 모디우스는 로마의 곡물 단위로 약 8.7리터이며, 펙은 4분의 1부셸, 곧 약 9리터다. 스미스가 뒤에서 인용하는 책은 플리니우스(23~79)의 《자연사》이고,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다.

7.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 치면 약 8부셸이다. 네 분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1부셸은 약 36리터다.

8. 옮긴이 — 연합법은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한 왕국으로 합친 법이다.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거래를 막던 장벽이 없어졌고, 스코틀랜드의 소가 잉글랜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9. 옮긴이 — 페르 칼름(1716~1779)은 스웨덴의 박물학자로, 1748년부터 1751년까지 북아메리카를 돌아보고 그 기록을 냈다.

10. 옮긴이 — 바로(기원전 116~27)와 콜루멜라(1세기)는 농업을 다룬 글을 남긴 로마의 저술가다. 투르디는 지빠귀 무리를 가리키는 라틴어 이름이다. 오르톨랑은 유럽에서 미식거리로 살지게 먹여 기른 작은 멧새다.

11. 옮긴이 — 강냉이는 아메리카가 원산인 마이즈(maize)를 가리킨다. 이 책에서 corn은 곡물 일반, 특히 밀을 뜻하므로, 원문이 Indian corn 인 이 자리만 갈라 적었다.

12. 옮긴이 — 토드는 양모를 다는 단위로 28파운드(무게)다. 런던탑 무게는 런던탑 조폐국에서 쓰던 옛 무게 기준으로, 1파운드가 12온스이며 트로이 무게보다 조금 가볍다. 에드워드 3세는 1327년부터 1377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13. 옮긴이 — 양모를 내보내는 것은 중세 이래 여러 법으로 금지되어, 1660년 뒤에는 어기면 무거운 벌을 받았다. 스페인 양모를 관세 없이 들여오게 한 것과 아일랜드 양모를 영국 시장에만 팔게 한 것은 다 잉글랜드 모직물 제조업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14. 옮긴이 — 스톤은 무게 단위로 여기서는 16파운드(무게)다. 애버뒤포이즈는 귀금속이 아닌 여느 물건을 다는 무게 기준이다. 반 크라운은 2실링 6펜스, 곧 30펜스다.

15. 옮긴이 — 열거 상품은 항해법에 따라 식민지가 본국 말고 다른 곳으로는 내보낼 수 없도록 법에 이름을 적어 둔 상품이다. 설탕과 담배 따위가 먼저 올랐고 뒤에 품목이 늘어났다.

11장 —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이어서)

스코틀랜드의 양모는 잉글랜드와 연합한 결과로 그 값이 아주 크게 떨어졌는데, 그 연합으로 양모가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서 밀려나 영국이라는 좁은 시장에 갇혔기 때문이다. 주로 양을 치는 고장인 스코틀랜드 남부 여러 주의 땅은 그 대부분이 이 일로 가치에 아주 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나, 푸줏간 고기의 값이 오른 것이 양모의 값이 떨어진 것을 넉넉히 메워 주었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양모든 생가죽이든 그 양을 늘리는 데에서 사람의 근면이 내는 효력은, 그것이 근면을 부리는 그 나라 자체의 생산물에 매여 있는 한 한계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다른 나라들의 생산물에 매여 있는 한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그 나라들이 생산하는 양보다도 그 나라들이 제조하지 않고 남겨 두는 양에, 그리고 그런 종류의 원생산물을 내보내는 일에 그 나라들이 마땅하다고 여기거나 여기지 않을 제한에 매여 있다. 이런 사정은 국내의 근면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근면이 쏟는 노력의 효력을 얼마쯤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원생산물을 불리는 데에서 사람의 근면이 내는 효력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해져 있지도 않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생산물, 곧 시장에 나오는 물고기의 양을 불리는 데에서도 그 효력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것은 나라가 놓인 자리, 곧 그 여러 고장이 바다에서 가깝거나 먼 정도,

호수와 강의 수, 그리고 이런 종류의 원생산물에 관하여 그 바다와 호수와 강이 얼마나 넉넉하거나 메말랐는가 하는 것으로 한계가 정해진다. 인구가 늘고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갈수록 커지면 물고기를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며, 그 사는 사람들 또한 그것으로 사들일 다른 재화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여러 가지로 갖게 되거나, 같은 말이지만 더 많고 더 여러 가지인 다른 재화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좁고 갇힌 시장에 대던 데 들던 것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쓰지 않고서 그 크고 넓어진 시장에 대는 일은 대개 될 수 없다. 전에는 1000톤만 있으면 되던 시장이 한 해에 1만 톤의 물고기를 찾게 되면, 전에 그 시장에 대기에 넉넉하던 노동의 열 배가 넘는 양을 쓰지 않고서는 좀처럼 댈 수 없다. 물고기는 대개 더 먼 데서 찾아야 하고, 더 큰 배를 써야 하며, 온갖 종류의 더 값비싼 기계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이 상품의 실질 가격은 개량이 나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오른다. 내가 믿는 바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얼마쯤 그렇게 되어 왔다.

어느 하루의 고기잡이가 잘될지는 몹시 정해지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라가 놓인 자리를 주어진 것으로 놓고 한 해 또는 여러 해를 함께 놓고 볼 때, 일정한 양의 물고기를 시장에 내오는 데에서 근면이 내는 전체 효력은 어쩌면 넉넉히 정해져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고, 그것은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의 부와 근면의 상태보다도 나라가 놓인 자리에 더 매여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개량의 시기가 아주 다른 때에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시기에 아주 다를 수도 있으므로, 개량의 상태와 그것이 맺는 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정해지지 않음이다.

땅속에서 캐내는 여러 광물과 금속, 그 가운데 특히 더 값진 것들의 양을 늘리는 데에서는 사람의 근면이 내는 효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하다.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귀금속의 양은 그 나라가 놓인 자리에 딸린 어떤 것, 곧 그 나라 광산이 넉넉한가 메말랐는가 하는 것으로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금속은 광산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나라에 흔히 넘쳐난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양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에 매여 있는 듯하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매력, 곧 그 근면의 상태와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며, 그것에 따라 그 나라는 금과 은 같은 남는 물건을 제 광산에서든 다른 나라의 광산에서든 가져오거나 사들이는 데에 더 많거나 더 적은 양의 노동과 생계를 들일 수 있다. 둘째는 어느 때에 상업 세계에 그런 금속을 대게 되는 광산이 넉넉한가 메말랐는가 하는 것이다. 광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그런 금속의 양은 그 넉넉함이나 메마름에 얼마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속은 부피가 작고 가치가 커서 나르기가 쉽고 값싸기 때문이다. 중국과 힌두스탄에서 그 양은 아메리카 광산이 넉넉한 것에 얼마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그 양이 위의 두 가지 사정 가운데 앞의 것, 곧 구매력에 매여 있는 한, 그 실질 가격은 다른 모든 사치품이나 남는 물건의 실질 가격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부와 개량과 더불어 오르고 그 가난과 쇠퇴와 더불어 내리기 쉽다. 남겨 둘 노동과 생계를 많이 가진 나라는 남겨 둘 것이 적은 나라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생계를 들여서 그런 금속의 일정한 양을 사들일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 그 양이 뒤의 것, 곧 상업 세계에 금속을 대게 되는 광산이 넉넉한가 메말랐는가 하는 것에 매여 있는 한, 그 실질 가격, 곧 그것이 사거나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노동과 생계의 실질적인 양은 그 광산이 넉넉한 정도에 비례하여 얼마쯤 떨어지고 메마른 정도에 비례하여 오를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때에 상업 세계에 금속을 대게 되는 광산이 넉넉한가 메말랐는가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근면 상태와 아무런 관계도 없을 수 있음이 뚜렷한 사정이다. 그것은 세계 전체의 근면 상태와도 그다지 필연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듯하다. 참으로 기예와 상업이 차츰 땅의 더 넓은 부분으로 퍼져 나가면서 새 광산을 찾는 일도 더 넓은 면으로 뻗게 되니, 좁은 범위에 갇혀 있던 때보다 성공할 가망이 얼마쯤 나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옛 광산이 차츰 바닥나 가는 가운데 새 광산을 찾아내는 일은 가장 정해지지 않은 일이며, 사람의 솜씨나 근면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조짐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인정되는 바이며, 실제로 새 광산을 찾아내어 제대로 파 보는 일만이 그 가치가 참으로 있는지, 아니 그런 광산이 있기나 한지를 밝혀 줄 수 있다. 이 찾는 일에서는 사람의 근면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도, 얼마나 헛수고가 될 수 있는지에도 정해진 한계가 없는 듯하다. 한두 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넉넉한 새 광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때 알려진 가장 넉넉한 광산이 아메리카 광산이 발견되기 전에 파던 어떤 광산보다 더 메마를 수도 있으니, 이 둘은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일어나든, 그것은 세계의 실질적인 부와 번영에, 곧 사람들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지니는 실질 가치에 거의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 그 명목 가치, 곧 이 연간 생산물을 나타내거나 가리킬 수 있는 금과 은의 양은 틀림없이 아주 달라질 것이나, 그 실질 가치, 곧 그것이 사거나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실질적인 양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쪽 경우에는 1실링[1]이 지금 1펜스가 나타내는 만큼의 노동밖에 나타내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쪽 경우에는 1펜스가 지금 1실링이 나타내는 만큼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한쪽 경우에 주머니에 1실링을 가진 사람은 지금 1펜스를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쪽 경우에 1펜스를 가진 사람은

지금 1실링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넉넉할 것이다. 금은 그릇이 값싸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 한쪽 일에서 세계가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의 전부이고, 그런 대수롭지 않은 남는 물건이 값비싸고 드물어지는 것이 다른 쪽 일에서 세계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의 전부다.

은의 가치 변동에 관한 여담의 결론

옛 시대의 물건 값을 화폐로 모아 놓은 저술가들은 그 대부분이, 곡물과 재화 일반의 화폐 가격이 낮았던 것, 달리 말하면 금과 은의 가치가 높았던 것을 그런 금속이 드물었다는 증거로만 여기지 않고 그때 그 나라가 가난하고 야만스러웠다는 증거로도 여긴 듯하다. 이 생각은 나라의 부는 금과 은이 넘쳐나는 데에 있고 나라의 가난은 그것이 드문 데에 있다고 보는 정치경제학의 체계와 이어져 있는데, 나는 이 『탐구』의 4편에서 그 체계를 아주 길게 밝히고 따져 볼 것이다. 지금은 다만 이렇게만 말해 두겠다. 귀금속의 가치가 높았던 것은 그때 어느 한 나라가 가난하거나 야만스러웠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그때 상업 세계에 금속을 대던 광산이 메말랐다는 증거일 뿐이다. 가난한 나라는 더 많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과 은에 부유한 나라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금속의 가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보다 더 높을 리는 없다. 유럽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부유한 나라인 중국에서는 귀금속의 가치가 유럽의 어느 곳보다도 훨씬 높다. 참으로 아메리카 광산이 발견된 뒤로 유럽의 부가 크게 늘어난 것과 더불어 금과 은의 가치는 차츰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줄어든 것은 유럽의 실질적인 부, 곧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늘어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전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넉넉한 광산을 우연히 발견한 데서 온 것이다. 유럽에서 금과 은의 양이 늘어난 일과 그 제조업과 농업이 늘어난 일은 거의 같은 무렵에

일어났으면서도 아주 다른 원인에서 비롯한 두 가지 일이며, 서로 사이에 자연스러운 관계가 거의 없다. 하나는 그저 우연에서 비롯한 것으로, 거기에는 슬기도 정책도 몫을 가지지 않았고 가질 수도 없었다. 다른 하나는 봉건 체계가 무너진 데서, 그리고 근면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북돋움, 곧 제 노동의 열매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어지간한 보장을 근면에 내준 정부가 세워진 데서 비롯하였다. 봉건 체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폴란드는 오늘날에도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라다. 그러나 곡물의 화폐 가격은 올랐고, 귀금속의 실질 가치는 유럽의 다른 곳과 똑같이 폴란드에서도 떨어졌다. 그러므로 그런 금속의 양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늘었을 것이며,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대한 비율도 거의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금속의 양이 늘어난 것이 그 연간 생산물을 늘리지도, 그 나라의 제조업과 농업을 개량하지도, 그 주민의 형편을 낫게 하지도 않은 듯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곧 광산을 가진 나라들은 폴란드 다음으로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헐벗은 두 나라다. 그러나 귀금속의 가치는 유럽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낮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금속이 그 나라들에서 유럽의 다른 모든 곳으로 갈 때 운임과 보험뿐 아니라 밀수의 비용까지 얹히기 때문이다. 그 나라들에서는 금속을 내보내는 일이 금지되어 있거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그러므로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견주어 볼 때 그 양은 유럽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그 나라들에서 더 많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 나라들은 유럽의 대부분보다 더 가난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봉건 체계가 폐지되었으나, 그 뒤를 훨씬 더 나은 체계가 이어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금과 은의 가치가 낮은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부유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나 재화 일반 또는 특히 곡물의 화폐 가격이 낮은 것도 그 나라가 가난하고 야만스럽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재화 일반이든 특히 곡물이든 그 화폐 가격이 낮은 것이 그 시대가 가난하거나 야만스러웠다는 증거가 못 된다 하더라도, 소·닭·온갖 종류의 사냥감 같은 몇몇 특정한 종류의 재화가 곡물에 견주어 화폐 가격이 낮은 것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것은 첫째로 그런 것들이 곡물에 견주어 크게 넘쳐났다는 것, 따라서 그런 것들이 차지한 땅이 곡물이 차지한 땅에 견주어 아주 넓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둘째로 이 땅의 가치가 곡물 땅의 가치에 견주어 낮았다는 것, 따라서 그 나라 땅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갈리지도 개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또 그 나라의 자산과 인구가 문명한 나라에서 흔히 그러한 만큼의 비율을 그 땅의 넓이에 대하여 지니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서 사회가 아직 어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재화 일반이든 특히 곡물이든 그 화폐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상업 세계에 금과 은을 대던 광산이 넉넉하였거나 메말랐다는 것뿐이고 그 나라가 부유하였거나 가난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재화가 다른 것들에 견주어 화폐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에서는, 그 나라가 부유하였거나 가난하였다는 것, 그 땅의 더 많은 부분이 개량되었거나 개량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더 야만스러운 상태에 있었거나 덜 야만스러운 상태에, 또는 더 문명한 상태에 있었거나 덜 문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함에 가까운 개연성으로 헤아릴 수 있다.

은의 가치가 떨어진 데서만 온 재화의 화폐 가격 상승이라면 모든 종류의 재화에 똑같이 미쳐서, 은이 그 전 가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5분의 1을 잃은 만큼에 따라 그 값을 두루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5분의 1만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따짐과 이야기의 거리가 되어 온 식료품 값의 상승은 모든 종류의 식료품에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 이번 세기의 흐름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 상승을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조차 곡물 값이 다른 몇몇 종류의 식료품 값보다 훨씬 덜 올랐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 다른 종류의 식료품 값이 오른 것을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른 원인들을 셈에 넣어야 하며, 앞에서 든 원인들이 아마 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가정에 의지하지 않고도 곡물 값에 견주어 실제로 값이 오른 그 특정한 종류의 식료품에서 이 상승을 넉넉히 설명해 줄 것이다.

곡물 값 자체로 말하면, 그것은 이번 세기의 앞의 64년 동안, 곧 요즈음의 유별나게 이어진 흉년이 오기 전까지는 지난 세기의 뒤의 64년 동안보다 얼마쯤 낮았다. 이 사실은 윈저 시장의 기록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모든 주의 공정 곡가[2]로, 또 메상스와 뒤프레 드 생모르가 아주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모아 놓은 프랑스 여러 시장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그 증거는 본디 밝혀내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에서 기대할 만한 것보다 더 온전하다.

지난 10년이나 12년 동안 곡물 값이 높았던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가정하지 않고도 계절이 나빴던 것으로 넉넉히 설명된다.

그러므로 은의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견해는 곡물 값에 대한 것이든 다른 식료품 값에 대한 것이든 어떤 좋은 관찰에도 바탕을 두지 않은 듯하다.

같은 양의 은으로는 여기서 내놓은 셈에 따르더라도 오늘날에 지난 세기의 어느 때에 살 수 있었을 것보다 여러 종류의 식료품을 훨씬 적게 살 수 있으며, 이 변화가 그런 재화의 가치가 오른 데서 온 것인지 은의

가치가 떨어진 데서 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은 부질없고 쓸데없는 구별을 세우는 것일 뿐이어서, 장에 들고 갈 은이 일정한 양밖에 없거나 화폐로 받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고 어쩌면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 구별을 안다고 하여 그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아주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라가 번영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해 주므로 공중에 얼마쯤 보탬이 될 수 있다. 몇몇 종류의 식료품 값이 오른 것이 오로지 은의 가치가 떨어진 데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아메리카 광산이 넉넉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사정에서 온 것이다. 그런 사정에도 아랑곳없이 나라의 실질적인 부, 곧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은 포르투갈과 폴란드에서처럼 차츰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고, 유럽의 다른 대부분에서처럼 차츰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종류의 식료품 값이 오른 것이 그것을 내놓는 땅의 실질 가치가 오른 데서, 곧 그 땅이 더 비옥해진 데서 또는 개량과 좋은 갈이가 더 널리 퍼진 결과로 그 땅이 곡물을 내놓기에 알맞게 된 데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그 나라가 번영하며 나아가는 상태에 있음을 가장 뚜렷하게 가리키는 사정에서 온 것이다. 땅은 넓은 나라마다 그 부의 훨씬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는 부분을 이룬다. 그 부의 훨씬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는 부분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토록 결정적인 증거를 갖는 것은 공중에 얼마쯤 보탬이 되거나, 적어도 얼마쯤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 나라가 그 아랫자리 일꾼들 가운데 몇몇의 삯을 정하는 데에도 얼마쯤 보탬이 될 수 있다. 몇몇 종류의 식료품 값이 오른 것이 은의 가치가 떨어진 데서 온 것이라면, 그들의 삯이 전에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고 할 때 그 떨어진 크기에 비례하여 마땅히 늘려 주어야 한다.

그것을 늘려 주지 않으면 그들이 실제로 받는 것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 값 오름이 그런 식료품을 내놓는 땅이 더 비옥해진 결과로 그 가치가 늘어난 데서 온 것이라면, 삯을 어떤 비율로 늘려 주어야 하는지, 또는 늘려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한 문제가 된다. 개량과 갈이가 널리 퍼지는 것은 곡물 값에 비례하여 모든 종류의 동물성 먹을거리 값을 얼마쯤 반드시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바로는 모든 종류의 식물성 먹을거리 값을 반드시 끌어내린다. 그것이 동물성 먹을거리 값을 끌어올리는 까닭은, 그것을 내놓는 땅의 많은 부분이 곡물을 내놓기에 알맞게 되어 지주와 농부에게 곡물 땅의 지대와 이윤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식물성 먹을거리 값을 끌어내리는 까닭은,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 그 넉넉함을 늘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의 개량은 곡물보다 땅을 덜 쓰고 노동을 더 쓰지도 않으면서 훨씬 싸게 시장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식물성 먹을거리를 들여온다. 감자와 강낭이[3]가 그러하니, 이 둘은 어쩌면 유럽의 농업이, 아니 유럽 자체가 그 상업과 항해가 크게 뻗어 나간 데서 받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량이다. 그뿐 아니라 농업이 거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채마밭에 갇혀 삽으로만 길러지던 여러 종류의 식물성 먹을거리가, 농업이 개량된 상태에서는 보통 밭에 들어와 쟁기로 길러지게 된다. 순무·당근·양배추 같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개량이 나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먹을거리의 실질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면 다른 먹을거리의 실질 가격은 반드시 내리며, 하나가 오른 것이 다른 하나가 내린 것으로 어디까지 메워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더 미묘한 문제가 된다. 푸줏간 고기의 실질 가격이 한번 그 꼭대기에 이르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어떤 종류의 동물성 먹을거리 값에 일어날 수 있는 오름은 아랫자리 사람들의 형편에 그다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쩌면 돼지고기만 빼고 모든 종류에 대하여 잉글랜드의 많은 곳에서 한 세기도

더 전에 이미 그 꼭대기에 이른 듯하다. 잉글랜드의 많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의 형편은 닭·물고기·들새·사슴고기 값이 오르는 것으로 괴로워지는 것보다 감자 값이 내리는 것으로 덜어지는 것이 틀림없이 더 크다.

이번 모자란 철에 곡물 값이 높은 것은 틀림없이 가난한 이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곡물이 예사로운 값이나 평균 값에 있는 어지간히 넉넉한 때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원생산물 값이 저절로 오르는 것이 그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들은 어쩌면 소금·비누·가죽·양초·엿기름·맥주·에일 같은 몇몇 제조품 값에 세금이 일으킨 인공적인 오름으로 더 괴로워한다.

개량의 진전이 제조품의 실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개량이 저절로 낳는 결과는 거의 모든 제조품의 실질 가격을 차츰 떨어뜨리는 것이다. 제조하는 솜씨의 값은 어쩌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조품에서 떨어진다. 더 나은 기계, 더 큰 손재주, 그리고 일을 더 알맞게 갈라 나누어 맡기는 것은 모두 개량이 저절로 낳는 결과인데, 그 덕분에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내는 데에 훨씬 적은 양의 노동이 들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번영하는 형편에 있는 결과로 노동의 실질 가격이 아주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대개 그 가격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오름을 메우고도 훨씬 남는다.

참으로 원재료의 실질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이 일을 해내는 데에 개량이 들여올 수 있는 모든 이로움을 메우고도 남는 제조품이 몇 가지 있다. 목수와 소목의 일, 그리고 거친 종류의 가구 일에서는 땅이 개량된 결과로 메마른 땅에서 자란 목재의 실질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기계와 가장 큰 손재주와 일을 가장 알맞게 갈라 나누어 맡기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로움을 메우고도 남는다.

그러나 원재료의 실질 가격이 아주 오르지 않거나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제조품의 실질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값이 떨어진 일은 이번 세기와 지난 세기를 지나는 동안 거친 금속을 재료로 삼는 제조품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세기 중엽쯤에 20파운드를 주어야 살 수 있었을 것보다 더 나은 시계 기계를 이제는 어쩌면 20실링에 얻을 수 있다. 칼 만드는 이와 자물쇠 만드는 이의 일에서, 거친 금속으로 만드는 온갖 자잘한 물건에서, 그리고 버밍엄과 셰필드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진 모든 재화에서 같은 기간에 값이 아주 크게 떨어졌는데, 시계 일에서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다른 모든 곳의 일꾼들을 놀라게 하기에 넉넉하였으니, 그들은 두 배 또는 세 배의 값을 받고도 그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여러 경우에 인정한다. 노동을 갈라 나누는 일을 더 멀리까지 밀고 갈 수 있거나 쓰이는 기계에 더 여러 가지 개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제조품은 어쩌면 거친 금속을 재료로 삼는 것들 말고는 없다.

옷감 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에 값이 그처럼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고운 천의 값은 지난 25년이나 30년 안에 그 품질에 견주어 얼마쯤 올랐다고 나는 들었으며, 그것은 온전히 스페인 양모로 이루어진 재료의 값이 크게 오른 탓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온전히 잉글랜드 양모로 만드는 요크셔 천의 값은 이번 세기를 지나는 동안 그 품질에 견주어 꽤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품질이란 아주 다투기 쉬운 문제여서, 나는 이런 종류의 모든 이야기를 얼마쯤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옷감 제조업에서 노동을 갈라 나누는 일은 이제도 한 세기 전과 거의 같고 쓰이는 기계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둘 다에 작은 개량이 얼마쯤 있어서 값이 얼마쯤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조품의 값을 오늘날의 것과 훨씬 더 먼 시기, 곧 노동이 아마 훨씬 덜 갈라 나뉘고 쓰이는 기계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설펐을

15세기 끝 무렵의 것과 견주어 보면, 그 떨어짐이 훨씬 더 눈에 띄고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1487년, 곧 헨리 7세 치세 4년[4]에 이렇게 정해졌다. "가장 고운 다홍물감을 들인 천이나 가장 곱게 만든 다른 물들인 천을 폭 넓은 천으로 1야드에 16실링을 넘겨 소매로 파는 자는 그렇게 판 1야드마다 40실링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화폐의 24실링과 거의 같은 양의 은을 담고 있던 16실링이 그때 가장 고운 천 1야드의 값으로 터무니없지 않다고 여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치 금지법인 만큼 그런 천은 흔히 얼마쯤 더 비싸게 팔려 왔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1기니[5]를 가장 높은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의 품질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고 오늘날의 품질이 아마 훨씬 나을 것이지만,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가장 고운 천의 화폐 가격은 15세기 끝 무렵부터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때 그리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밀 1쿼터[6]의 평균 값은 6실링 8펜스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16실링은 밀 2쿼터에 3부셸이 넘는 양의 값이었다. 오늘날 밀 1쿼터를 28실링으로 잡으면, 그때 고운 천 1야드의 실질 가격은 오늘날 우리 화폐로 적어도 3파운드 6실링 6펜스와 같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산 사람은 그 금액이 오늘날 살 수 있는 만큼의 노동과 생계를 부릴 힘을 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거친 제조품의 실질 가격이 떨어진 정도는 적지 않았으나 고운 것에서만큼 크지는 않았다.

1463년, 곧 에드워드 4세 치세 3년에 이렇게 정해졌다. "농사일을 하는 하인이나 보통 일꾼, 또는 도시나 자치 시읍 밖에 사는 수공업자의 하인은 폭 넓은 천으로 1야드에 2실링을 넘는 천을 옷으로 쓰거나 입어서는 안 된다." 에드워드 4세 치세 3년의 2실링은 오늘날 우리 화폐의 4실링과 거의 같은 양의 은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1야드에

4실링으로 팔리는 요크셔 천은 그때 가장 가난한 계층의 보통 하인이 입도록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도 아마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화폐 가격조차 품질에 견주어 그 옛 시대보다 오늘날에 얼마쯤 더 싸다고 할 수 있다. 실질 가격은 틀림없이 꽤 많이 더 싸다. 그때 밀 1부셸의 알맞고 터무니없지 않은 값이라 불리던 것은 10펜스였다. 그러므로 2실링은 밀 2부셸에 2펙[7] 가까이 되는 양의 값이었으며, 오늘날 부셸에 3실링 6펜스로 치면 8실링 9펜스의 값이 될 것이다. 이 천 1야드를 얻으려고 그 가난한 하인은 오늘날 8실링 9펜스로 살 수 있는 만큼의 생계를 살 힘을 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 또한 가난한 이들의 사치와 헤픔을 억누르는 사치 금지법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흔히 훨씬 더 비쌌을 것이다.

같은 법으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한 켤레에 14펜스를 넘는 값의 양말을 신는 것도 금지되었는데, 14펜스는 오늘날 우리 화폐의 28펜스쯤과 같다. 그러나 그때 14펜스는 밀 1부셸에 2펙 가까이 되는 양의 값이었으며, 오늘날 부셸에 3실링 6펜스로 치면 5실링 3펜스가 들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계층의 하인이 신는 양말 한 켤레 값으로 아주 높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 값에 실제로 맞먹는 것을 그 양말에 치렀을 것이 틀림없다.

에드워드 4세 때에는 양말을 뜨는 기술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아마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양말은 보통 천으로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그 값이 비쌌던 원인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양말을 신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고 한다. 여왕은 그것을 스페인 대사에게서 선물로 받았다.

거친 털옷감 제조업에서나 고운 털옷감 제조업에서나 쓰인 기계는 오늘날보다 그 옛 시대에 훨씬 더 어설펐다. 그 뒤로 기계는 아주 큰 개량 세 가지를 받았고, 그 밖에도 아마 작은 개량을 여러 가지 받았을

것이나 그 수도 그 중요성도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주 큰 개량 세 가지는 이러하다. 첫째는 실 막대와 가락을 물레[8]로 바꾼 것인데, 물레는 같은 양의 노동으로 두 배가 넘는 양의 일을 해낸다. 둘째는 아주 재치 있는 기계 몇 가지를 쓰는 것인데, 이 기계들은 소모사와 털실을 감는 일, 또는 날실과 씨실을 베틀에 걸기 전에 알맞게 벌여 놓는 일을 더욱 큰 비율로 쉽고 짧게 만들어 준다. 그 기계가 나오기 전에 이 일은 몹시 지루하고 번거로웠을 것이 틀림없다. 셋째는 천을 물속에서 발로 밟는 대신에 축융 물방아[9]를 써서 천을 다지는 것이다. 16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에는 어떤 종류의 풍차도 물방아도 알려지지 않았고, 내가 아는 바로는 알프스 북쪽 유럽의 다른 어느 곳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보다 얼마쯤 앞서 이탈리아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보면, 거친 제조품이든 고운 제조품이든 그 실질 가격이 오늘날보다 그 옛 시대에 그토록 훨씬 높았던 까닭을 어쩌면 얼마쯤 알 수 있을 것이다. 재화를 시장에 내오는 데에 더 많은 양의 노동이 들었다. 그러므로 재화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은 더 많은 양을 사거나 그 값과 맞바꾸었을 것이 틀림없다.

거친 제조품은 그 옛 시대에 잉글랜드에서, 기예와 제조업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늘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집안 제조업이어서, 일의 서로 다른 부분마다 거의 모든 살림집의 여러 식구가 때때로 맡아 하였으나, 달리 할 일이 없을 때에만 하는 일이었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것에서 생계의 대부분을 얻는 주된 일거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일꾼의 생계를 잇는 주된 밑돈이거나 오직 하나뿐인 밑돈이 되는 일보다 언제나 훨씬 싸게 시장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한편 고운 제조품은 그때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유하고 상업이 발달한 나라인

플란데런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아마 그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생계의 전부나 주된 부분을 그 일에서 얻는 사람들이 맡아 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외국 제조품이어서 왕에게 얼마쯤 세금, 적어도 톤세와 파운드세[10]라는 옛 관세를 치렀을 것이 틀림없다. 참으로 이 세금은 아마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유럽의 정책은 높은 세금으로 외국 제조품을 들여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북돋우는 것이었으니, 상인들이 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면서도 제 나라의 근면이 마련해 줄 수 없는 편의품과 사치품을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보면, 그 옛 시대에 거친 제조품의 실질 가격이 고운 제조품의 실질 가격에 견주어 오늘날보다 그토록 훨씬 낮았던 까닭을 어쩌면 얼마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 결론

나는 이 아주 긴 장을 다음을 말하면서 마치려 한다. 사회의 형편이 나아지는 모든 개량은 곧바로든 에둘러서든 토지의 실질 지대를 끌어올려 지주의 실질적인 부, 곧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그 노동의 생산물을 사들이는 그의 힘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개량과 갈이가 널리 퍼지는 것은 그것을 곧바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생산물이 늘어나면 지주가 받는 몫도 반드시 늘어난다.

땅의 원생산물 가운데 몇몇 부분의 실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처음에는 개량과 갈이가 널리 퍼진 결과이고 그 뒤에는 그것이 더 널리 퍼지게 하는 원인인데, 예컨대 소의 값이 오르는 것도 토지의 지대를 곧바로, 그리고 더욱 큰 비율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지주가 받는 몫의 실질 가치, 곧 다른 사람의 노동을 부리는 그의 실질적인 힘은 생산물의

실질 가치와 더불어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산물에 대하여 그의 몫이 차지하는 비율도 그와 더불어 오른다.

그 생산물은 실질 가격이 오른 뒤에도 그것을 걷어 들이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이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더 적은 비율로도 그 노동을 부리는 자산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우기에 넉넉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 더 많은 비율이 지주에게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제조품의 실질 가격을 곧바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노동 생산력의 모든 개량은 토지의 실질 지대를 에둘러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지주는 자기 원생산물 가운데 자기가 쓰고 남는 부분,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부분의 값을 제조품과 맞바꾼다. 뒤의 것의 실질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은 무엇이든 앞의 것의 실질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리하여 앞의 것 같은 양이 뒤의 것 더 많은 양과 맞먹게 되며, 지주는 자기에게 필요한 편의품이나 장식품이나 사치품을 더 많은 양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사회의 실질적인 부가 늘어나는 모든 일, 그 안에서 쓰이는 쓸 만한 노동의 양이 늘어나는 모든 일은 토지의 실질 지대를 에둘러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 노동의 일정한 비율은 저절로 땅으로 간다. 더 많은 수의 사람과 소가 땅을 가는 데에 쓰이고, 그렇게 생산에 쓰이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생산물이 늘어나며, 생산물과 더불어 지대가 늘어난다.

이와 반대되는 사정, 곧 갈이와 개량을 게을리하는 것, 땅의 원생산물 가운데 어느 부분의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것, 제조하는 기예와 근면이 쇠하여 제조품의 실질 가격이 오르는 것, 사회의 실질적인 부가 기울어지는 것은 모두 거꾸로 토지의 실질 지대를 끌어내리고 지주의

실질적인 부를 줄이며,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그 노동의 생산물을 사들이는 그의 힘을 깎는 쪽으로 작용한다.

나라마다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연간 생산물의 값 전체는 이미 보았듯이 저절로 세 부분, 곧 토지의 지대와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으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입을 이룬다. 곧 지대로 사는 이들, 임금으로 사는 이들, 이윤으로 사는 이들이다. 이들은 문명한 사회마다 그것을 이루는 크고 본디의 세 계층이며, 다른 모든 계층의 수입은 마침내 이들의 수입에서 나온다.

방금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 크고 세 계층 가운데 첫째 계층의 이익은 사회의 전체 이익과 빈틈없이 그리고 떼어 놓을 수 없게 이어져 있다. 그 하나를 밀어 주거나 막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하나를 반드시 밀어 주거나 막는다. 공중이 상업이나 행정에 관한 어떤 규정을 의논할 때, 토지를 가진 이들은 자기 계층만의 이익을 밀어 주려고 공중을 그른 길로 이끌 수 없다. 적어도 그들이 그 이익을 어지간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 참으로 그들은 이 어지간한 앎조차 갖추지 못한 일이 너무 잦다. 그들은 세 계층 가운데 그 수입이 노동도 걱정도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저절로, 그들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기획과도 상관없이 들어오는 오직 하나뿐인 계층이다. 그들이 놓인 자리가 편하고 안전한 데서 저절로 오는 그 게으름은 그들을 어떤 공공 규정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헤아리는 데에 꼭 있어야 할 마음 쓰기에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 잦다.

임금으로 사는 이들인 둘째 계층의 이익도 첫째 계층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이익과 빈틈없이 이어져 있다. 일꾼의 임금은 이미 보였듯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을 때, 곧 쓰이는 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적이 없다. 사회의 이 실질적인

부가 멈추어 서면 그의 임금은 이내 가족을 길러 내거나 일꾼의 대를 이어 가기에 겨우 넉넉한 만큼으로 줄어든다. 사회가 기울면 임금은 그 아래로까지 떨어진다. 토지를 가진 계층은 어쩌면 사회의 번영에서 일꾼의 계층보다 더 많이 얻을 것이나, 사회가 기울 때 그토록 모질게 괴로움을 겪는 계층은 없다. 그러나 일꾼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빈틈없이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이익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자기 이익과 맺는 관계를 알지도 못한다. 그가 놓인 형편은 그에게 꼭 있어야 할 소식을 받아들일 틈을 주지 않으며, 그가 받은 가르침과 익은 버릇은 흔히 그를 온전히 알고 있을 때조차 판단하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공공의 의논에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더욱 거의 헤아려지지 않는데, 다만 그의 아우성이 그의 고용주들에게서 부추김과 거들음과 뒷받침을 받는 특별한 자리에서는 다르며, 그때 그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만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의 고용주들은 이윤으로 사는 이들인 셋째 계층을 이룬다. 사회마다 쓸 만한 노동의 대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윤을 얻으려고 쓰이는 자산이다. 자산을 부리는 이들의 계획과 기획이 노동의 가장 중요한 모든 움직임을 다스리고 이끌며, 이윤은 그 모든 계획과 기획이 내놓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윤율은 지대와 임금처럼 사회의 번영과 더불어 오르고 사회의 기움과 더불어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부유한 나라에서 저절로 낮고 가난한 나라에서 높으며, 가장 빠르게 망해 가는 나라에서 언제나 가장 높다. 그러므로 이 셋째 계층의 이익은 다른 두 계층의 이익과 달리 사회의 전체 이익과 같은 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인과 제조업 고용주는 이 계층에서 흔히 가장 큰 자본을 부리고 그 부로 공중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두 부류다. 그들은 한평생 계획과 기획에 몸을 담고 있으므로 시골 지주의 대부분보다 이해가 더

날카로운 일이 잦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흔히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기 일의 특정한 갈래가 지니는 이익을 두고 움직이므로, 가장 솔직하게 내놓은 판단일 때조차,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솔직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 가운데 뒤의 것보다 앞의 것에 관하여 훨씬 더 믿을 만하다. 그들이 시골 지주보다 나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자기 이익을 아는 것보다 그들이 자기 이익을 더 잘 아는 데에 있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이렇게 더 잘 아는 까닭으로, 그들은 지주의 너그러움을 등에 업고 그가 자기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내놓게 만든 일이 잦았으니, 자기들의 이익이 곧 공공의 이익이고 지주의 이익은 그렇지 않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직한 믿음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거래나 제조업의 어느 한 갈래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이익은 언제나 몇몇 점에서 공중의 이익과 다르고 서로 맞서기까지 한다. 시장을 넓히고 경쟁을 좁히는 것은 언제나 장사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흔히 공중의 이익에 넉넉히 들어맞을 수 있으나, 경쟁을 좁히는 것은 언제나 그것에 맞서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장사하는 이들이 자기 이윤을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 것보다 높게 끌어올려 제 잇속을 위하여 나머지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물리게 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다. 이 계층에서 나오는 새 법이나 상업 규정의 제안은 언제나 큰 조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며, 가장 꼼꼼한 눈뿐 아니라 가장 의심하는 눈으로 오래도록 조심스럽게 따져 본 뒤에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그 이익이 공중의 이익과 정확히 같은 적이 없고, 공중을 속이고 억누르기까지 하는 데에 이익을 두는 일이 흔하며, 그리하여 여러 경우에 공중을 실제로 속이고 억눌러 온 사람들의 계층에서 나오는 것이다.

밀 값

연도	그 해의 쿼터당 값			한 해 여러 값의 평균				각 해 평균 값을 1776년 화폐로 나타낸 것		
	£	s	d	£	s	d		£	s	d
1202	0	12	0					1	16	0
1205	0	12	0							
	0	13	4	0	13	5		2	0	3
	0	15	0							
1223	0	12	0					1	16	0
1237	0	3	4					0	10	0
1243	0	2	0					0	6	0
1244	0	2	0					0	6	0
1246	0	16	0					2	8	0
1247	0	13	5					2	0	0
1257	1	4	0					3	12	0
1258	1	0	0							
	0	15	0	0	17	0		2	11	0
	0	16	0							
1270	4	16	0							
	6	8	0	5	12	0		16	16	0
1286	0	2	8							
	0	16	0	0	9	4		1	8	0
							합계	35	9	3
							평균	2	19	1¼
1287	0	3	4					0	10	0
1288	0	0	8							
	0	1	0							
	0	1	4							
	0	1	6							
	0	1	8	0	3	0¼		0	9	1¾
	0	2	0							
	0	3	4							
	0	9	4							
1289	0	12	0							
	0	6	0							
	0	2	0	0	10	1½		1	10	4½
	0	10	8							
	1	0	0							
1290	0	16	0					2	8	0
1294	0	16	0					2	8	0
1302	0	4	0					0	12	0

1309	0	7	2						1	1	6
1315	1	0	0						3	0	0
1316	1	0	0								
	1	10	0		1	10	6		4	11	6
	1	12	0								
	2	0	0								
1317	2	4	0								
	0	14	0								
	2	13	0		1	19	6		5	18	6
	4	0	0								
	0	6	8								
1336	0	2	0						0	6	0
1338	0	3	4						0	10	0
								합계	23	4	11¼
								평균	1	18	8
1339	0	9	0						1	7	0
1349	0	2	0						0	5	2
1359	1	6	8						3	2	2
1361	0	2	0						0	4	8
1363	0	15	0						1	15	0
1369	1	0	0								
	1	4	0		1	2	0		2	9	4
1379	0	4	0						0	9	4
1387	0	2	0						0	4	8
1390	0	13	4								
	0	14	0		0	14	5		1	13	7
	0	16	0								
1401	0	16	0						1	17	6
1407	0	4	4¾								
	0	3	4		0	3	10		0	8	10
1416	0	16	0						1	12	0
								합계	15	9	4
								평균	1	5	9½
1423	0	8	0								0
1425	0	4	0								0
1434	1	6	8								4
1435	0	5	4								8
1439	1	0	0								
	1	6	8		1	3	4		2	6	8
1440	1	4	0						2	8	0
1444	0	4	4		0	4	2		0	4	8
	0	4	0								
1445	0	4	6						0	9	0
1447	0	8	0						0	16	0

1448	0	6	8						0	13	4
1449	0	5	0						0	10	0
1451	0	8	0						0	16	0
							합계		12	15	4
							평균		1	1	3 1/3
1453	0	5	4						0	10	8
1455	0	1	2						0	2	4
1457	0	7	8						1	15	4
1459	0	5	0						0	10	0
1460	0	8	0						0	16	0
1463	0	2	0	0	1	10			0	3	8
	0	1	8								
1464	0	6	8						0	10	0
1486	1	4	0						1	17	0
1491	0	14	8						1	2	0
1494	0	4	0						0	6	0
1495	0	3	4						0	5	0
1497	1	0	0						1	11	0
							합계		8	9	0
							평균		0	14	1
1499	0	4	0						0	6	0
1504	0	5	8						0	8	6
1521	1	0	0						1	10	0
1551	0	8	0						0	8	0
1553	0	8	0						0	8	0
1554	0	8	0						0	8	0
1555	0	8	0						0	8	0
1556	0	8	0						0	8	0
1557	0	8	0								
	0	4	0	0	17	8½			0	17	8½
	0	5	0								
	2	13	4								
1558	0	8	0						0	8	0
1559	0	8	0						0	8	0
1560	0	8	0						0	8	0
							합계		6	0	2½
							평균		0	10	0½
1561	0	8	0						0	8	0
1562	0	8	0						0	8	0
1574	2	16	0								
	1	4	0	2	0	0			2	0	0
1587	3	4	0						3	4	0
1594	2	16	0						2	16	0
1595	2	13	0						2	13	0

1596	4	0	0						4	0	0
1597	5	4	0								
	4	0	0		4	12	0		4	12	0
1598	2	16	8						2	16	8
1599	1	19	2						1	19	8
1600	1	17	8						1	17	8
1601	1	14	10						1	14	10
								합계	28	9	4

평균 2 7 5½

윈저 시장에서 성모 영보 축일과 성 미카엘 축일[11]에 팔린, 가장 좋은 밀 또는 가장 높은 값이 붙은 밀 9부셸 1쿼터의 값. 1595년부터 1764년까지 두 해를 모두 넣었으며, 각 해의 값은 이 두 장날의 가장 높은 값 가운데 중간값이다.

	£	s	d
1595	2	0	0
1596	2	8	0
1597	3	9	6
1598	2	16	8
1599	1	19	2
1600	1	17	8
1601	1	14	10
1602	1	9	4
1603	1	15	4
1604	1	10	8
1605	1	15	10
1606	1	13	0
1607	1	16	8
1608	2	16	8
1609	2	10	0
1610	1	15	10
1611	1	18	8
1612	2	2	4
1613	2	8	8
1614	2	1	8½
1615	1	18	8
1616	2	0	4
1617	2	8	8
1618	2	6	8

1619	1	15	4
1620	1	10	4
26)54		0	6½
평균	2	1	6¾
1621	1	10	4
1622	2	18	8
1623	2	12	0
1624	2	8	0
1625	2	12	0
1626	2	9	4
1627	1	16	0
1628	1	8	0
1629	2	2	0
1630	2	15	8
1631	3	8	0
1632	2	13	4
1633	2	18	0
1634	2	16	0
1635	2	16	0
1636	2	16	8
16)40		0	0
평균	2	10	0
1637	2	13	0
1638	2	17	4
1639	2	4	10
1640	2	4	8
1641	2	8	0
1646	2	8	0
1647	3	13	0
1648	4	5	0
1649	4	0	0
1650	3	16	8
1651	3	13	4
1652	2	9	6
1653	1	15	6
1654	1	6	0
1655	1	13	4
1656	2	3	0
1657	2	6	8
1658	3	5	0
1659	3	6	0
1660	2	16	6
1661	3	10	0
1662	3	14	0

1663	2	17	0
1664	2	0	6
1665	2	9	4
1666	1	16	0
1667	1	16	0
1668	2	0	0
1669	2	4	4
1670	2	1	8
1671	2	2	0
1672	2	1	0
1673	2	6	8
1674	3	8	8
1675	3	4	8
1676	1	18	0
1677	2	2	0
1678	2	19	0
1679	3	0	0
1680	2	5	0
1681	2	6	8
1682	2	4	0
1683	2	0	0
1684	2	4	0
1685	2	6	8
1686	1	14	0
1687	1	5	2
1688	2	6	0
1689	1	10	0
1690	1	14	8
1691	1	14	0
1692	2	6	8
1693	3	7	8
1694	3	4	0
1695	2	13	0
1696	3	11	0
1697	3	0	0
1698	3	8	4
1699	3	4	0
1700	2	0	0
60)	153	1	8
평균	2	11	$0^{1}/_{3}$
1701	1	17	8
1702	1	9	6
1703	1	16	0
1704	2	6	6

1705	1	10	0				
1706	1	6	0				
1707	1	8	6				
1708	2	1	6				
1709	3	18	6				
1710	3	18	0				
1711	2	14	0				
1712	2	6	4				
1713	2	11	0				
1714	2	10	4				
1715	2	3	0				
1716	2	8	0				
1717	2	5	8				
1718	1	18	10				
1719	1	15	0				
1720	1	17	0				
1721	1	17	6				
1722	1	16	0				
1723	1	14	8				
1724	1	17	0				
1725	2	8	6				
1726	2	6	0				
1727	2	2	0				
1728	2	14	6				
1729	2	6	10				
1730	1	16	6				
1731	1	12	10		1	12	10
1732	1	6	8		1	6	8
1733	1	8	4		1	8	4
1734	1	18	10		1	18	10
1735	2	3	0		2	3	0
1736	2	0	4		2	0	4
1737	1	18	0		1	18	0
1738	1	15	6		1	15	6
1739	1	18	6		1	18	6
1740	2	10	8		2	10	8
				10)	18	12	8
					1	17	3½
1741	2	6	8		2	6	8
1742	1	14	0		1	14	0
1743	1	4	10		1	4	10
1744	1	4	10		1	4	10
1745	1	7	6		1	7	6
1746	1	19	0		1	19	0

1747	1	14	10		1	14	10
1748	1	17	0		1	17	0
1749	1	17	0		1	17	0
1750	1	12	6		1	12	6
				10)	16	18	2
					1	13	9¾
1751	1	18	6				
1752	2	1	10				
1753	2	4	8				
1754	1	13	8				
1755	1	14	10				
1756	2	5	3				
1757	3	0	0				
1758	2	10	0				
1759	1	19	10				
1760	1	16	6				
1761	1	10	3				
1762	1	19	0				
1763	2	0	9				
1764	2	6	9				
64)	129	13	6				

평균 2 0 6¾

---

1.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아래 표의 £ s d 는 차례로 이 세 단위를 가리킨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2. 옮긴이 — 공정 곡가는 스코틀랜드의 각 주 법원이 해마다 판정하여 공포한 곡물 값이다. 지대와 성직자 봉급을 비롯한 여러 셈의 기준으로 쓰였다.

3. 옮긴이 — 스미스가 적은 낱말은 maize이고, 영어에서는 Indian corn이라고도 불렀다.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곡식으로 우리말로는 강냉이라 한다. 이 책에서 corn은 곡물 일반, 특히 밀을 뜻하므로 그것과 섞이지 않게 갈라 적었다.

4.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헨리 7세 치세 4년은 1487년이고 에드워드 4세 치세 3년은 1463년이다.

5.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6.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밀 약 8부셸, 약 291리터다. 4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다. 1부셸은 약 36리터다. 뒤에 나오는 윈저 시장 표에서는 9부셸을 1쿼터로 셈하였다.

7. 옮긴이 — 펙은 곡물을 되는 단위로 4분의 1부셸, 곧 약 9리터다.

8. 옮긴이 — 실 막대는 감아 둘 실을 꽂아 놓는 막대이고, 가락은 실을 꼬아 감는 나무 축이다. 이 둘을 손으로 놀리던 자리를 바퀴를 돌려 가락을 먹이는 물레가 대신하였다.

9. 옮긴이 — 축융은 짜 놓은 털옷감을 물에 적셔 두들겨 조직을 촘촘히 다지는 일이다. 전에는 사람이 물속에서 발로 밟았고, 뒤에는 물의 힘으로 나무 망치를 올렸다 내리는 물방아가 그 일을 맡았다.

10. 옮긴이 — 톤세는 들여오는 술을 통의 부피에 따라, 파운드세는 그 밖의 물건을 값에 따라 물리던 옛 관세다.

11. 옮긴이 — 성모 영보 축일은 3월 25일이고 성 미카엘 축일은 9월 29일이다. 잉글랜드에서 이 두 날은 셈을 맺고 지대를 치르던 네 분기일 가운데 둘이었다.

2편 — 자산의 성질과 축적과 쓰임에 대하여

머리말

분업이 없고, 주고받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며, 사람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거친 사회 상태에서는, 사회의 일을 치러 나가기 위하여 어떤 자산을 쌓아 두거나 미리 저장해 둘 필요가 없다. 사람마다 그때그때 생기는 자기 바람을 제 근면으로 채우려고 애쓴다. 배가 고프면 숲으로 사냥을 나가고, 겉옷이 다 해지면 처음으로 잡은 큰 짐승의 가죽을 걸치며, 오막살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와 떼로 될 수 있는 대로 손질한다.

그러나 분업이 한번 온전히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제 노동으로 낸 생산물은 그때그때 생기는 자기 바람 가운데 아주 작은 몫밖에 채우지 못한다. 그 훨씬 더 큰 몫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 낸 생산물로 채우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 생산물로,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기 생산물의 값으로 사들인다. 그런데 이 사들이기는 제 노동의 생산물이 다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팔리기까지 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두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먹여 살리고 그에게 일할 재료와 도구를 대어 주기에 넉넉한, 여러 종류의 물건으로 된 자산이 어딘가에 쌓여 있어야 한다. 베 짜는 사람은 제 손에 있든 다른 누구의 손에 있든, 자기가 짜는 베를 다 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까지 할 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일할 재료와 도구를 대어 주기에 넉넉한 자산이 미리 어딘가에 쌓여 있지 않으면 자기만의

일에 온전히 매달릴 수 없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자기만의 일에 제 근면을 쏟기 앞서 이 축적이 먼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자산의 축적이 사물의 성질상 분업보다 앞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자산이 미리 점점 더 많이 쌓여 가는 만큼만 점점 더 잘게 갈라질 수 있다. 같은 수의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재료의 양은 노동이 점점 더 잘게 갈라짐에 따라 큰 비율로 늘어나며, 일꾼 하나하나의 작업이 차츰 더 단순해질수록 그 작업을 쉽게 하고 줄여 줄 새 기계가 여러 가지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분업이 나아갈 때 같은 수의 일꾼에게 끊임없는 일자리를 주려면, 더 거친 형편에서 필요했을 것과 같은 양의 식료품 자산과 그보다 더 많은 재료와 도구의 자산이 미리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갈래의 일에서든 일꾼의 수는 그 갈래의 분업과 함께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아니 오히려 그들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부류를 갈라 잘게 나뉠 수 있게 된다.

자산의 축적이 노동의 생산력을 이렇게 크게 개량하는 데 먼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축적은 저절로 이 개량으로 이끈다. 자기 자산을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 부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은 양의 일이 나오도록 그것을 부리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일꾼들 사이에 일자리를 가장 알맞게 갈라 맡기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내거나 사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계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려고 애쓴다. 이 두 가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대개 그의 자산의 크기, 곧 그것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근면의 양은 그것을 부리는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날 뿐 아니라, 그 늘어남의 결과로 같은 양의 근면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낸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근면과 그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이러하다.

이어지는 편에서 나는 자산의 성질, 그것이 여러 종류의 자본으로 쌓이는 데서 나오는 결과, 그리고 그 자본들을 서로 다르게 부리는 데서 나오는 결과를 밝히려고 애썼다. 이 편은 다섯 장으로 갈라져 있다. 1장에서는 개인의 자산이든 큰 사회의 자산이든 그것이 저절로 갈라지는 여러 부분 또는 갈래가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애썼다. 2장에서는 사회의 일반 자산의 한 갈래로 본 화폐의 성질과 작용을 밝히려고 애썼다. 자본으로 쌓인 자산은 그 임자가 스스로 부릴 수도 있고 다른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그것이 이 두 처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려고 애썼다. 다섯째이자 마지막 장은 자본을 서로 다르게 부리는 것이 한 나라의 근면의 양과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의 양에 곧바로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다룬다.

1장 — 자산의 분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가진 자산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기에 겨우 넉넉한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그는 거기에서 무슨 수입을 끌어낼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아껴 가며 그것을 써 나가고, 그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 그 자리를 채울 무엇인가를 제 노동으로 얻으려고 애쓴다. 이런 경우에 그의 수입은 오직 그의 노동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하는 빈민 대부분이 놓인 형편이다.

그러나 여러 달이나 여러 해 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자산을 가지게 되면, 그는 그 가운데 더 큰 몫에서 수입을 끌어내려고 저절로 애를 쓰게 되고, 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 자기를 지탱해 줄 만큼만 당장 쓸 몫으로 남겨 둔다. 그러므로 그의 자산 전체는 두 부분으로 갈린다. 그에게 이 수입을 안겨 줄 것으로 그가 바라는

부분을 그의 자본이라 부른다. 다른 부분은 그가 당장 쓸 것을 대어 주는 몫인데, 이는 첫째로 그의 자산 전체 가운데 본래 이 목적으로 남겨 두었던 몫이거나, 둘째로 어디서 나온 것이든 차츰 들어오고 있는 그의 수입이거나, 셋째로 지난 몇 해에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로 사들였으면서 아직 다 쓰이지 않은 것들, 곧 옷가지나 집안 살림살이 따위의 자산이다. 사람들이 보통 제가 당장 쓸 몫으로 남겨 두는 자산은 이 세 항목 가운데 하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이루어진다.

자본을 부려서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 수입이나 이윤을 낳게 하는 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본은 물건을 길러 내거나 만들거나 사들여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파는 데 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부려진 자본은 그것이 그의 손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나 같은 꼴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 아무런 수입도 이윤도 낳아 주지 않는다. 상인의 물건은 그가 그것을 팔아 돈으로 바꿀 때까지 그에게 아무 수입도 이윤도 낳아 주지 않으며, 그 돈 또한 다시 물건과 바꾸어질 때까지 그에게 낳아 주는 것이 그만큼이나 없다. 그의 자본은 한 꼴로 끊임없이 그에게서 나가고 다른 꼴로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오며, 그가 무슨 이윤이든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렇게 돌고 도는 것, 곧 잇달아 꼴이 바뀌는 것을 거쳐서다. 그러므로 그런 자본은 유동 자본이라 부르는 것이 아주 알맞다.

둘째, 자본은 토지를 개량하는 데, 쓸모 있는 기계와 생업에 쓰는 도구를 사들이는 데, 또는 그와 같이 임자가 바뀌거나 더 돌아다니지 않으면서도 수입이나 이윤을 낳는 것들에 부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자본은 고정 자본이라 부르는 것이 아주 알맞다.

생업이 다르면 거기에 부려지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비율도 아주 다르다.

예컨대 상인의 자본은 온통 유동 자본이다. 그에게는 기계도 생업에 쓰는 도구도 필요하지 않으니, 그의 가게나 창고를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

고용주인 수공업자나 제조업자라면 누구나 그 자본의 얼마쯤은 생업에 쓰는 도구에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몫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작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크다. 재봉사 고용주에게는 바늘 한 묶음 말고는 생업에 쓰는 도구가 달리 필요하지 않다. 구두장이 고용주의 도구는 그보다 조금, 그러나 아주 조금 더 값이 나간다. 베짜는 사람의 도구는 구두장이의 것보다 꽤 많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런 수공업자 고용주라면 누구나 그 자본의 훨씬 더 큰 몫은 일꾼의 임금으로든 재료의 값으로든 돌려지고, 그 일의 값으로 이윤이 붙어 되돌아온다.

다른 일터에서는 훨씬 더 큰 고정 자본이 든다. 예컨대 큰 제철소에서는 광석을 녹이는 화덕, 쇠를 벼리는 풀무간, 쇠를 가늘게 쪼개는 방아가[1] 모두 아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생업의 도구다. 석탄 일터와 온갖 종류의 광산에서는 물을 빼내는 데며 그 밖의 여러 쓰임에 필요한 기계가 그보다 더 값이 나가는 일이 잦다.

농부의 자본 가운데 농사 도구에 부려지는 몫은 고정 자본이고, 일하는 하인의 임금과 그들을 먹여 살리는 데 부려지는 몫은 유동 자본이다. 그는 앞의 것으로는 그것을 제 손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이윤을 내고, 뒤의 것으로는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이윤을 낸다. 일하는 짐승의 값이나 값어치는 농사 도구의 값과 마찬가지로 고정 자본이고, 그것을 먹여 살리는 몫은 일하는 하인을 먹여 살리는 몫과 마찬가지로 유동 자본이다. 농부는 일하는 짐승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그리고 그 먹이를 내어 놓음으로써 이윤을 낸다.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팔려고 사들여 살을 올리는 짐승의 값과 그 먹이는 둘 다 유동

자본이다. 농부는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이윤을 낸다. 새끼를 치는 고장에서 일을 시키려고도 팔려고도 아니고 다만 그 털과 젖과 새끼로 이윤을 내려고 들여 놓은 양 떼나 소 떼는 고정 자본이다. 이윤은 그것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얻는다. 그 먹이는 유동 자본이다. 이윤은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얻으며, 그 먹이에 붙은 이윤과 짐승 값 전체에 붙은 이윤이 함께 털과 젖과 새끼의 값으로 되돌아온다. 씨앗의 값어치 전체도 제대로 따지면 고정 자본이다. 그것이 땅과 곳간 사이를 오가기는 하지만 임자가 바뀌는 일이 없으므로 제대로 말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농부는 그것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불어나는 것으로 이윤을 낸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그 일반 자산은 거기 사는 사람 전체, 곧 그 구성원 전체의 자산과 같은 것이며, 그러므로 저절로 같은 세 몫으로 갈라지고,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구실과 몫을 맡는다.

첫째 몫은 당장 쓰려고 남겨 둔 몫으로, 그 두드러진 특징은 아무런 수입도 이윤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알맞은 소비자가 사들였으나 아직 다 쓰이지 않은 먹을 것, 옷가지, 집안 살림살이 따위의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때에 그 나라에 있는 순전한 살림집 전체의 자산도 이 첫째 몫의 한 부분을 이룬다. 어떤 집에 들인 자산은 그것이 임자가 살 집이라면 그 순간부터 자본의 구실을 하지도, 그 주인에게 어떤 수입을 안겨 주지도 못한다. 살림집은 살림집인 한 거기 사는 사람의 수입에 아무것도 보태 주지 않으며, 그에게 몹시 쓸모 있는 것임에는 의심이 없으나 그것은 옷가지와 집안 살림살이가 그에게 쓸모 있는 것과 같으며, 그런 것들은 그의 비용에 들어가지 수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집을 세든 사람에게 집세를 받고 내준다면, 집 자체는 아무것도 낳아 낼 수 없으므로 세든 사람은 그 집세를 노동에서든 자산에서든 토지에서든 끌어낸 다른 수입에서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집은 그 임자에게

수입을 낳아 주어 그에게는 자본의 구실을 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에는 아무 수입도 낳아 줄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자본의 구실을 할 수도 없으며, 온 국민의 수입이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옷가지와 집안 살림살이도 이와 같이 더러 수입을 낳아 주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본의 구실을 한다. 가면 잔치가 흔한 나라에서는 가면 잔치 옷을 하룻밤 빌려주는 것이 하나의 생업이다. 가구 장식업자는 살림살이를 달로도 해로도 빌려주는 일이 잦다. 장례를 맡아 치르는 이들은 장례에 쓰는 물건을 날로도 주로도 빌려준다.[2] 살림살이를 갖춘 집을 내주고 집을 쓰는 값뿐 아니라 살림살이를 쓰는 값까지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입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다른 수입의 원천에서 끌어낸 것이다. 개인의 자산이든 사회의 자산이든 당장 쓰려고 남겨 둔 몫 가운데 집에 들인 것이 가장 느리게 쓰인다. 옷가지의 자산은 여러 해를 갈 수 있고 살림살이의 자산은 반백 년이나 백 년을 갈 수 있으나, 잘 지어 알맞게 돌본 집의 자산은 여러 백 년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쓰이는 시기가 더 멀다고 해서, 그것이 옷가지나 집안 살림살이와 똑같이 참으로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회의 일반 자산이 갈라지는 세 몫 가운데 둘째는 고정 자본이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돌아다니거나 임자를 바꾸지 않으면서 수입이나 이윤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다음 네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노동을 쉽게 하고 줄여 주는 온갖 쓸모 있는 기계와 생업에 쓰는 도구다.

둘째, 집세를 받고 내주는 임자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니고서 그 집세를 물어 주는 사람에게도 수입을 마련해 주는 온갖 벌이가 되는 건물이다. 가게, 창고, 작업장, 농가와 거기에 딸린 온갖 필요한 건물,

마구간, 곳간 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순전한 살림집과 아주 다르다. 그것들은 일종의 생업 도구이며 그와 같은 눈으로 보아도 된다.

셋째, 토지의 개량, 곧 땅에서 나무를 걷어 내고 물을 빼고 울을 두르고 거름을 주어 갈이와 가꾸기에 가장 알맞은 형편으로 만드는 데 벌이가 되도록 들인 것이다. 개량된 농장은 노동을 쉽게 하고 줄여 주며 그 덕에 같은 양의 유동 자본이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수입을 안겨 줄 수 있게 하는 그 쓸모 있는 기계들과 아주 마땅히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다. 개량된 농장은 그런 기계 가운데 어느 것과도 못하지 않게 이로우면서 더 오래가며, 그것을 가꾸는 데 부려지는 농부의 자본을 가장 벌이가 되게 쓰는 것 말고는 달리 손볼 것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잦다.

넷째, 그 사회에 사는 사람과 구성원 모두가 익혀서 얻은 쓸모 있는 재능이다. 그런 재능을 얻는 데는 그것을 얻는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도제살이를 하는 동안 그를 먹여 살리는 실제 비용이 늘 들며, 그 비용은 이를테면 그의 몸에 고정되고 실현된 자본이다. 그런 재능은 그의 재산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속한 사회의 재산의 한 부분도 이룬다. 일꾼의 나아진 손재주는 노동을 쉽게 하고 줄여 주며, 얼마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이윤과 함께 되돌려 주는 기계나 생업의 도구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일반 자산이 저절로 갈라지는 세 몫 가운데 셋째이자 마지막은 유동 자본이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돌아다니거나 임자를 바꿈으로써만 수입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다른 세 부분을 모두 돌려서 알맞은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화폐다.

둘째, 푸줏간 주인, 소를 먹여 기르는 사람, 농부, 곡물 상인, 술 빚는 사람 따위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팔아 이윤을 얻으려 하는

식료품의 자산이다.

셋째, 옷가지와 살림살이와 건물에 들어갈 재료로서, 아주 거친 것이든 얼마쯤 손이 간 것이든 아직 그 세 가지 꼴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기르는 사람, 제조업자, 비단 장수와 옷감 장수, 목재 상인, 목수와 가구장이, 벽돌 굽는 사람 따위의 손에 남아 있는 것이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져 완성되었으나 아직 상인과 제조업자의 손에 있고 알맞은 소비자에게 넘겨지거나 나누어지지 않은 물건이다. 대장장이, 가구장이, 금세공장이, 보석 장수, 사기그릇 장수 따위의 가게에 이미 만들어진 채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완성된 물건이 여기에 든다. 유동 자본은 이렇게 저마다의 장수들 손에 있는 온갖 종류의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물건, 그리고 그것들을 끝내 쓰거나 없앨 사람들에게 돌려 나누어 주는 데 필요한 화폐로 이루어진다.

이 네 부분 가운데 셋, 곧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물건은 해마다든 그보다 길거나 짧은 동안에든 거기에서 어김없이 빠져나와 고정 자본에 놓이거나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놓인다.

고정 자본은 어느 것이나 본래 유동 자본에서 나오고 또 유동 자본으로 끊임없이 받쳐져야 한다. 쓸모 있는 기계와 생업의 도구는 모두 본래 유동 자본에서 나오는데, 그 유동 자본이 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그것을 만드는 일꾼의 살림을 대어 준다. 그것들을 늘 손보아 두는 데도 같은 종류의 자본이 필요하다.

고정 자본은 유동 자본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수입도 낳을 수 없다. 가장 쓸모 있는 기계와 생업의 도구라도, 그것이 쓰일 재료와 그것을 쓰는 일꾼의 살림을 대어 주는 유동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낳아 내지

못한다. 토지도 아무리 개량되었더라도 그것을 갈고 그 생산물을 걷는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유동 자본이 없으면 아무 수입도 낳지 않는다.

당장 쓰려고 남겨 둘 수 있는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둘 다의 유일한 끝이자 목적이다.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바로 이 자산이다. 그들이 넉넉한지 가난한지는 그 두 자본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얼마나 후하게 또는 인색하게 대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유동 자본의 그처럼 큰 몫이 사회의 일반 자산의 다른 두 갈래에 놓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므로, 유동 자본 쪽에서도 끊임없는 보탬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유동 자본은 이내 없어질 것이다. 이 보탬은 주로 세 원천에서 나온다. 토지의 생산물, 광산의 생산물, 그리고 어장의 생산물이다. 이것들이 식료품과 재료를 끊임없이 대어 주고, 그 가운데 얼마는 뒤에 완성된 물건으로 만들어지며, 이것들로 유동 자본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물건이 채워진다. 광산에서는 유동 자본 가운데 화폐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키고 늘리는 데 필요한 것도 나온다. 이 부분은 일이 예사롭게 굴러가는 동안에는 다른 세 부분처럼 사회의 일반 자산의 다른 두 갈래에 놓이기 위하여 반드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는 닳고 해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러 잃어버리거나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므로, 훨씬 적기는 하겠으나 끊임없는 보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토지와 광산과 어장은 모두 그것을 가꾸는 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이 다 필요하며, 그 생산물은 그 자본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모든 자본까지 이윤을 붙여 채워 준다. 이리하여 농부는 제조업자가 지난해에 써 없앤 식료품과 만드는 데 들인 재료를 해마다 그에게 채워 주고, 제조업자는 농부가 같은 동안에 닳리고 해어지게 한 완성된

물건을 그에게 채워 준다. 이것이 이 두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참된 주고받음이다. 다만 한쪽의 원생산물과 다른 쪽의 제조된 생산물이 곧바로 서로 맞바꾸어지는 일은 드물다. 농부가 자기 곡물과 소와 아마와 양모를 파는 상대가, 그가 원하는 옷가지와 살림살이와 생업의 도구를 사려고 고른 바로 그 사람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원생산물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쓸 제조된 생산물을 살 수 있다. 토지는 어장과 광산을 가꾸는 자본까지도 적어도 얼마쯤은 채워 준다. 물에서 고기를 끌어내는 것은 토지의 생산물이고, 땅속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은 땅 위에서 나는 생산물이다.

토지와 광산과 어장의 생산물은 그 타고난 기름짐이 같을 때는 거기에 부려지는 자본의 크기와 그것을 알맞게 쓰는 정도에 비례한다. 자본이 같고 그것을 똑같이 잘 쓸 때는 그 타고난 기름짐에 비례한다.

웬만한 안전이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보통의 지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산을 다 부려서 지금의 누림이든 뒷날의 이윤이든 얻으려 애쓸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누림을 얻는 데 부려지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이다. 그것이 뒷날의 이윤을 얻는 데 부려지면, 그 이윤은 그것이 그의 곁에 머물러서 나오거나 그에게서 떠나가서 나올 수밖에 없다. 앞의 경우에는 고정 자본이고 뒤의 경우에는 유동 자본이다. 웬만한 안전이 있는 곳에서 제 것이든 남에게서 빌린 것이든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산 전체를 이 세 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히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참으로 저 불행한 나라들, 곧 사람들이 윗사람의 폭력을 늘 두려워하는 나라들에서는 제 자산의 큰 몫을 땅에 묻거나 감추어 두는 일이 잦은데, 자기들이 언제나 놓여 있다고 여기는 그런 재앙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닥쳐올 낌새가 보이면 언제든 안전한 곳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손 닿는 데 두려는 것이다. 튀르크와 힌두스탄, 그리고 내가 믿는 바로는 아시아의 다른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이것이 흔한 관행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도 봉건 통치의 폭력이 심하던 동안에는 이것이 흔한 관행이었던 듯하다. 그 시절에 땅에 묻힌 보물은[3] 유럽에서 가장 큰 주권자들의 세입 가운데 업신여길 수 없는 몫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찾아낸 보물로서 어느 특정한 사람도 권리를 밝힐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보여서, 그 권리가 특허장의 명문 조항으로 토지 임자에게 넘겨져 있지 않은 한 언제나 찾아낸 사람의 것도 토지 임자의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금광과 은광과 같은 자리에 놓였는데, 금광과 은광은 특허장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토지를 넘겨주는 일반 조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결코 여겨지지 않았고, 납과 구리와 주석과 석탄의 광산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장 — 사회의 일반 자산의 한 갈래로 본 화폐, 곧 국민 자본을 지키는 비용에 대하여

1편에서 밝힌 대로, 대부분 상품의 값은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노동의 임금을 치르고, 또 하나는 자산의 이윤을 치르며, 셋째는 그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오는 데 부려진 토지의 지대를 치른다. 참으로 그 값이 그 가운데 두 부분, 곧 노동의 임금과 자산의 이윤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품도 얼마쯤 있고, 온통 한 부분, 곧 노동의 임금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품도 아주 조금 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값이든 반드시 그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나 몇몇, 또는 셋 모두로 갈라지며, 지대로도 임금으로도 가지 않는 몫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 된다.

낱낱의 상품을 따로 떼어 놓고 볼 때 사정이 이러하다고 밝혀졌으니, 어느 나라든 그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 전체를 이루는 모든 상품을 한데 묶어 볼 때도 반드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 한 해 생산물의 값 전체, 곧 교환 가치 전체는 반드시 같은 세 부분으로 갈라져 그 나라에 사는 여러 사람에게 그들 노동의 임금으로든 그들 자산의 이윤으로든 그들 토지의 지대로든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그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의 값어치 전체가 이렇게 거기 사는 여러 사람에게 갈라져 그들의 수입을 이루기는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영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두고 총 지대와 순 지대를[4] 갈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나라에 사는 사람 전체의 수입에서도 그렇게 갈라 볼 수 있다.

개인의 영지에서 나오는 총 지대는 농부가 치르는 것 전부를 아우르고, 순 지대는 관리 비용과 손보는 비용과 그 밖에 반드시 들어가는 온갖 부담을 뺀 뒤에 지주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남는 것, 곧 그가 자기 영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넣을 수 있는 것, 또는 제 식탁과 탈것, 집과 살림살이의 꾸밈, 제 사사로운 누림과 즐김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참된 부는 총 지대가 아니라 순 지대에 비례한다.

큰 나라에 사는 사람 전체의 총수입은 그들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 전체를 아우르고, 순수입은 첫째로 그들의 고정 자본을, 둘째로 그들의 유동 자본을 지키는 비용을 뺀 뒤에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남는 것, 곧 그들이 자기 자본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넣을 수 있거나 자기들의 생계와 편의와 즐김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참된 부도 총수입이 아니라 순수입에 비례한다.

고정 자본을 지키는 비용 전체는 사회의 순수입에서 마땅히 빼내야 한다. 그들의 쓸모 있는 기계와 생업의 도구와 벌이가 되는 건물 따위를

받쳐 주는 데 필요한 재료도, 그 재료를 알맞은 꼴로 다듬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도 순수입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없다. 그 노동의 값은 참으로 순수입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부려진 일꾼들은 자기 임금의 값어치 전체를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노동에서는 값과 생산물이 다 이 자산으로 간다. 값은 일꾼의 자산으로 가고, 생산물은 그 일꾼들의 노동으로 생계와 편의와 즐김이 늘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자산으로 간다.

고정 자본의 뜻은 노동의 생산력을 키우는 것, 곧 같은 수의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필요한 건물과 울과 물길과 오가는 길 따위가 모두 가장 완전하게 갖추어진 농장에서는 같은 수의 노동자와 일하는 짐승이, 넓이가 같고 흙도 똑같이 좋으나 그만한 편의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장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길러 낼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같은 수의 일손이 가장 좋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더 못한 생업 도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어떤 종류든 고정 자본에 알맞게 들인 비용은 늘 큰 이윤과 함께 되돌아오며, 그런 개량을 받쳐 주는 데 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만큼 한 해 생산물을 늘린다. 그러나 이 받쳐 주는 일에도 그 생산물의 얼마쯤은 여전히 들어간다. 얼마쯤의 재료와 얼마쯤의 일꾼이 들이는 노동은 사회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 곧 생계와 편의를 당장 늘리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다른 쓰임으로, 참으로 크게 이롭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쓰임으로 돌려진다. 같은 수의 일꾼이 전에 쓰던 것보다 값싸고 단순한 기계로 같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온갖 기계상의 개량이 어느 사회에서나 늘 이롭게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에는 더 복잡하고 값비싼 기계를 받쳐 주는 데 부려졌던 얼마쯤의 재료와 얼마쯤의 일꾼이 들이는 노동을, 그 뒤에는 그 기계든 다른 어떤 기계든 오직 해내는 데에만 쓸모가 있는 그

일의 양을 늘리는 데 돌릴 수 있게 된다. 어떤 큰 제조장을 벌인 사업가가 자기 기계를 지키는 데 한 해에 1000파운드를[5] 쓰고 있다면, 그가 이 비용을 500파운드로 줄일 수 있을 때 남는 500파운드로 재료를 더 사들여 일꾼을 더 늘려 그것을 만들게 하는 것은 저절로 그리 될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계가 오직 해내는 데에만 쓸모가 있는 그 일의 양은 저절로 늘어날 것이고, 그 일에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로움과 편의도 그와 함께 늘어날 것이다.

큰 나라에서 고정 자본을 지키는 비용은 개인의 영지에서 손보는 데 드는 비용에 아주 알맞게 견줄 수 있다. 손보는 비용은 그 영지의 생산물을, 따라서 지주의 총 지대와 순 지대를 함께 받쳐 주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더 알맞게 이끌어서 생산물이 조금도 줄지 않으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총 지대는 적어도 전과 같이 남아 있고 순 지대는 반드시 늘어난다.

그러나 고정 자본을 지키는 비용 전체는 이렇게 반드시 사회의 순수입에서 빠지지만, 유동 자본을 지키는 비용은 사정이 같지 않다. 뒤엣것을 이루는 네 부분, 곧 화폐와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물건 가운데 뒤의 셋은 이미 살펴본 대로 거기에서 어김없이 빠져나와 사회의 고정 자본에 놓이거나 그들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놓인다. 그 쓸 수 있는 물건 가운데 앞엣것을 지키는 데 부려지지 않는 몫은 모두 뒤엣것으로 가서 사회의 순수입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유동 자본의 그 세 부분을 지키는 일은 고정 자본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 말고는 한 해 생산물의 어떤 몫도 사회의 순수입에서 빼내지 않는다.

사회의 유동 자본은 이 점에서 개인의 유동 자본과 다르다. 개인의 유동 자본은 그의 순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룰 수 없도록 온전히 빠지는데, 그의 순수입은 온통 그의 이윤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마다의 유동 자본은 그가 속한 사회의 유동

자본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도, 그렇다는 까닭으로 그 사회의 순수입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에서까지 온전히 빠지지는 않는다. 어떤 상인의 가게에 있는 물건 전체가 그 자신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놓일 수는 결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는 놓일 수 있으며, 그들은 다른 자금에서 나온 수입으로 그에게 그 값어치를 이윤과 함께 어김없이 채워 주면서도 그의 자본이나 자기들의 자본을 조금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화폐는 사회의 유동 자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순수입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가운데 화폐로 이루어진 부분은 사회의 수입에 미치는 점에서 서로 아주 많이 닮았다.

첫째, 그 기계와 생업의 도구 따위는 처음에 세우는 데, 그리고 그 뒤에 받쳐 주는 데 얼마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두 비용은 총수입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도 사회의 순수입에서는 빠지는 것이니,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든 돌아다니는 화폐의 자산도 처음에 그것을 모으는 데,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받쳐 주는 데 얼마간의 비용이 들며, 이 두 비용도 총수입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순수입에서는 빠진다. 아주 값나가는 재료인 금과 은의 얼마쯤과 아주 공들인 노동의 얼마쯤이,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 곧 개인들의 생계와 편의와 즐김을 늘리는 대신에, 저 크지만 값비싼 상업의 도구를 받쳐 주는 데 부려지며, 사회의 개인마다 자기 생계와 편의와 즐김을 알맞은 비율로 어김없이 나누어 받는 것은 그 도구를 거쳐서다.

둘째, 개인의 고정 자본이든 사회의 고정 자본이든 그것을 이루는 기계와 생업의 도구 따위가 어느 쪽의 총수입도 순수입도 이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수입 전체가 그 여러 구성원에게 어김없이 나누어지는 길이 되는 화폐도 그 수입의 어떤 부분도 스스로 이루지

않는다. 돌림의 큰 바퀴는 그것을 거쳐 돌아가는 물건과 온통 다르다. 사회의 수입은 온통 그 물건에 있고 그것을 돌리는 바퀴에 있지 않다. 어떤 사회의 총수입을 셈하든 순수입을 셈하든, 우리는 화폐와 물건이 한 해 동안 돌아간 것 전체에서 화폐의 값어치 전체를 늘 빼내야 하며, 그 화폐에서는 단 한 파딩도[6] 그 어느 쪽의 부분을 이룰 수 없다.

이 명제가 의심스럽게도 보이고 앞뒤가 안 맞게도 보이는 것은 오직 말이 두 가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알맞게 풀어 밝혀 놓고 보면 그것은 거의 저절로 뚜렷하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액수의 화폐를 두고 말할 때, 더러는 그것을 이루는 쇠붙이 조각만을 뜻하기도 하고, 더러는 그것과 바꾸어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것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사는 힘을 어렴풋이 가리키는 뜻까지 담기도 한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돌아다니는 화폐가 1800만으로 셈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만 어떤 저술가들이 그 나라에서 돌아다닌다고 셈하였거나 오히려 그렇다고 가정한 쇠붙이 조각의 액수를 나타내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해에 50파운드나 100파운드의 값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에게 해마다 치러지는 쇠붙이 조각의 액수만이 아니라 그가 해마다 사거나 쓸 수 있는 물건의 값어치까지 나타내려 한다. 곧 그의 사는 법이 어떠한지 또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그가 알맞게 누려도 될 생활의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과 질이 어떠한지를 밝히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일정한 액수의 화폐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쇠붙이 조각의 액수를 나타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바꾸어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어렴풋이 가리키는 뜻까지 담으려 할 때, 이런 경우에 그것이 가리키는 부나 수입은 같은 낱말로 얼마쯤 두 가지로 읽히게 내비쳐진 그 두 값어치 가운데 하나에만 맞먹으며, 앞엣것보다 뒤엣것에, 곧 화폐보다 화폐의 값어치에 더 알맞게 맞먹는다.

이리하여 어떤 사람의 한 주 연금이 1기니라면[7] 그는 그 한 주 동안 그것으로 얼마쯤의 생계와 편의와 즐김을 살 수 있다. 이 양이 큰 만큼 또는 작은 만큼 그의 참된 넉넉함, 곧 그의 참된 한 주 수입이 크거나 작다. 그의 한 주 수입은 1기니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 둘 다에 맞먹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서로 같은 그 두 값어치 가운데 하나에만 맞먹으며, 앞엣것보다 뒤엣것에, 곧 1기니보다 1기니의 값어치에 더 알맞게 맞먹는다.

그런 사람의 연금이 금으로가 아니라 1기니짜리 한 주 어음으로 치러진다면, 그의 수입은 분명히 그 종이쪽에 있다기보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있을 것이다. 1기니는 이웃의 모든 장수에게 얼마쯤의 필수품과 편의품을 내라고 쓴 어음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수입은 그 금붙이 조각에 있다기보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곧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에 있다. 그것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파산한 사람에게 쓴 어음처럼 가장 쓸모없는 종이쪽만큼의 값어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사는 여러 사람의 한 주 수입이나 한 해 수입이 그들에게 화폐로 치러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치러지는 일이 잦기는 하지만, 그들의 참된 넉넉함, 곧 그들 모두를 한데 묶어 본 참된 한 주 수입이나 한 해 수입은 늘 그들 모두가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쓸 물건의 양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 그들 모두를 한데 묶어 본 수입 전체는 분명히 화폐와 쓸 물건 둘 다에 맞먹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값어치 가운데 하나에만 맞먹으며, 앞엣것보다 뒤엣것에 더 알맞게 맞먹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입을 그에게 해마다 치러지는 쇠붙이 조각으로 나타내는 일이 잦은 까닭은, 그 조각의 액수가 그가 사는 힘의 크기, 곧 그가 해마다 써 없앨 수 있는 물건의 값어치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수입이 그 사는 힘 또는 써 없애는 힘에 있다고 여기며, 그 힘을 실어 오는 조각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을 두고도 넉넉히 뚜렷하다면, 사회를 두고는 더욱 뚜렷하다. 어떤 개인에게 해마다 치러지는 쇠붙이 조각의 액수는 그의 수입과 딱 맞먹는 일이 잦고, 그러므로 그 값어치를 가장 짧고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쇠붙이 조각의 액수는 그 구성원 모두의 수입과 결코 맞먹을 수 없다. 오늘 어떤 사람의 한 주 연금을 치른 바로 그 1기니가 내일 다른 사람의 연금을 치르고 그다음 날 세 번째 사람의 연금을 치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해마다 돌아다니는 쇠붙이 조각의 액수는 그것으로 해마다 치러지는 화폐 연금 전체보다 훨씬 적은 값어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화폐 연금 전체가 잇달아 치러지는 대로 그것으로 잇달아 살 수 있는 물건, 곧 사는 힘은 늘 그 연금과 딱 같은 값어치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받는 여러 사람의 수입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수입은 액수가 그 값어치보다 그처럼 훨씬 적은 그 쇠붙이 조각에 있을 수 없고, 사는 힘, 곧 그 조각이 손에서 손으로 돌아가는 대로 그것으로 잇달아 살 수 있는 물건에 있다.

그러므로 돌림의 큰 바퀴이자 상업의 큰 도구인 화폐는 다른 모든 생업의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 부분, 그리고 아주 값나가는 부분을 이루면서도 그것이 속한 사회의 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으며, 그것을 이루는 쇠붙이 조각이 한 해 동안 돌아가는 사이에 사람마다에게 제게 알맞은 수입을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그 조각 자체는 그 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고정 자본을 이루는 기계와 생업의 도구 따위는 유동 자본 가운데 화폐로 이루어진 부분과 이런 점에서도 닮았다. 곧 그 기계를 세우고 받쳐 주는 비용에서 노동의 생산력을 줄이지 않는 절약은

무엇이든 사회의 순수입을 나아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 자본 가운데 화폐로 이루어진 부분을 모으고 받쳐 주는 비용에서 아끼는 것도 무엇이든 딱 같은 종류의 나아짐이라는 점이다.

고정 자본을 받쳐 주는 비용에서 아끼는 것이 어떤 길로 사회의 순수입을 나아지게 하는지는 넉넉히 뚜렷하며 이미 얼마쯤 밝혀 두기도 하였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벌인 사업가의 자본 전체는 반드시 그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갈린다. 그의 자본 전체가 같은 채로 있는 동안에는 한쪽이 작아질수록 다른 쪽이 반드시 커진다. 재료와 노동의 임금을 대어 주어 근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유동 자본이다. 그러므로 고정 자본을 지키는 비용에서 노동의 생산력을 줄이지 않는 절약은 무엇이든 근면을 움직이게 하는 자금을 반드시 늘리고, 따라서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 곧 어느 사회에서나 참된 수입인 그것을 반드시 늘린다.

금화와 은화 자리에 종이를 갈아 놓으면 아주 값비싼 상업의 도구가 훨씬 덜 드는 도구로, 더러는 똑같이 편한 도구로 바뀐다. 돌림은 새 바퀴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 바퀴는 묵은 바퀴보다 세우는 데도 지키는 데도 비용이 덜 든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떤 길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길로 사회의 총수입이나 순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기우는지는 그만큼 뚜렷하지 않으니 얼마쯤 더 풀어 밝혀야 할 것이다.

지폐에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은행과 은행가가 내어 돌리는 은행권이 가장 잘 알려진 갈래이며 이 목적에 가장 알맞은 듯하다.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은행가의 재산과 정직함과 조심스러움을 굳게 믿어, 그가 어느 때든 자기에게 들어올 만한 약속 어음을 요구가 있는 대로 언제나 치러 줄 태세라고 여기게 되면, 그 어음은 금화와

은화와 같은 통화로 돌아다니게 된다. 그것을 내면 언제든 그런 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어떤 은행가가 자기 손님들에게 자기 약속 어음을 빌려주는데 그 액수가 10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해 보자. 그 어음은 화폐의 모든 쓸모를 다하므로, 그의 채무자들은 그가 그만한 화폐를 빌려주었을 때와 같은 이자를 그에게 물어 준다. 이 이자가 그의 벌이의 원천이다. 그 어음 가운데 얼마는 끊임없이 치러 달라고 그에게 되돌아오지만, 얼마는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줄곧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그는 10만 파운드에 이르는 어음을 늘 돌려 놓고 있으면서도 금과 은 2만 파운드로 이따금 있는 요구에 넉넉히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이 일로 금과 은 2만 파운드가 그러지 않았다면 10만 파운드가 해냈어야 할 구실을 모두 해낸다. 10만 파운드어치 그의 약속 어음으로도 같은 값어치의 금화와 은화로 하는 것과 똑같은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양의 쓸 물건이 알맞은 소비자에게 돌려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금과 은 8만 파운드가 이렇게 그 나라의 돌림에서 덜어질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일이 여러 다른 은행과 은행가에 의하여 같은 때에 벌어진다면 돌림 전체가 그러지 않았다면 필요했을 금과 은의 5분의 1만으로 치러질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화폐 전체가 어느 때에 100만 파운드 스털링에 이르렀고 그 액수가 그때 그들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 전체를 돌리기에 넉넉하였다고 해 보자. 그리고 그 뒤 얼마 있어 여러 은행과 은행가가 지닌 사람에게 치르는 약속 어음을 100만 파운드에 이르도록 내고 저마다의 금고에 이따금 있는 요구에 대비하여 20만 파운드를 남겨 두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돌림에는 금과 은 80만 파운드와 은행권 100만 파운드, 곧 종이와 화폐를 합하여 180만 파운드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은 전에 그것을 돌려 알맞은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데 100만 파운드만 필요하였고, 그 한 해 생산물이 그런 은행 일로 곧바로 늘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뒤에도 그것을 돌리는 데는 100만 파운드로 넉넉할 것이다. 사고팔 물건이 전과 딱 같으니 그것을 사고파는 데도 같은 양의 화폐로 넉넉할 것이다.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돌림의 물길은 전과 딱 같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100만 파운드가 그 물길을 채우기에 넉넉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액수를 넘겨 거기에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그 안으로 흘러들 수 없고 넘쳐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180만 파운드가 부어졌다. 그러므로 80만 파운드는 넘쳐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 액수가 그 나라의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액수가 안에서는 부려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값나가는 것이어서 놀려 두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벌이가 되는 쓰임을 찾아 바깥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런데 종이는 바깥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을 내는 은행에서 멀고 법으로 그 지급을 다그칠 수 있는 나라에서 멀면 예사로운 지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과 은 80만 파운드가 바깥으로 보내지고, 안의 돌림의 물길은 전에 그것을 채우고 있던 100만 파운드의 쇠붙이 대신 100만 파운드의 종이로 채워진 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지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내진다거나 그 임자들이 그것을 바깥 나라에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바깥 나라의 소비를 채우려고든 자기 나라의 소비를 채우려고든 그것을 이런저런 종류의 바깥 나라 물건과 바꿀 것이다.

그들이 어느 한 바깥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다른 나라의 소비를 채우는 데, 곧 이른바 운송 거래에 그것을 부린다면, 그들이 내는 이윤은 무엇이든 자기 나라의 순수입에 보태어질 것이다. 이는 새 거래를

벌이려고 새로 만들어 낸 자금과 같다. 나라 안의 일은 이제 종이로 치러지고 금과 은은 이 새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들이 나라 안에서 쓸 바깥 나라 물건을 사는 데 그것을 부린다면, 첫째로 바깥 나라 술이나 바깥 나라 비단 따위와 같이 아무것도 낳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써 없앨 만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둘째로 재료와 도구와 식료품의 자산을 더 사들여, 제가 한 해에 써 없애는 값어치를 이윤과 함께 다시 낳는 부지런한 사람을 더 많이 먹여 살리고 부릴 수도 있다.

그것이 첫째 길로 부려지는 만큼 그것은 헤픔을 북돋우고, 낳는 것을 늘리지도 못하고 그 비용을 받쳐 줄 어떤 붙박이 자금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비용과 소비를 늘리니, 어느 모로 보나 사회에 해롭다.

그것이 둘째 길로 부려지는 만큼 그것은 근면을 북돋운다. 그리고 사회의 소비를 늘리기는 하지만 그 소비를 받쳐 줄 붙박이 자금을 마련해 주니, 써 없애는 사람들이 제가 한 해에 써 없애는 값어치 전체를 이윤과 함께 다시 낳기 때문이다. 사회의 총수입, 곧 그들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은 그 일꾼들의 노동이 제가 다루는 재료에 보태는 값어치 전체만큼 늘어나고, 그들의 순수입은 그 값어치에서 그들 생업의 연장과 도구를 받쳐 주는 데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만큼 늘어난다.

그런 은행 일로 바깥으로 밀려 나가 나라 안에서 쓸 바깥 나라 물건을 사는 데 부려지는 금과 은 가운데 더 큰 몫이 이 둘째 종류의 물건을 사는 데 부려지고 있으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럼직할 뿐 아니라 거의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제 수입이 조금도 늘지 않는데도 제 비용을 아주 크게 늘리는 일이 더러 있으나, 어떤 계층이나 신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일은 결코 없다고 우리는 믿어도 좋다. 보통의 조심스러움이 지닌 원칙이 개인마다의 처신을 늘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은 어느 계층이나 신분에서나 그 대다수의

처신에는 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수입은 하나의 계층이나 신분으로 볼 때 그런 은행 일로 조금도 늘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용도 대체로 그런 일로 크게 늘어날 수 없으니, 그들 가운데 몇몇 개인의 비용은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더러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이 바깥 나라 물건을 찾는 정도가 전과 같거나 거의 같으니, 그런 은행 일로 바깥으로 밀려 나가 나라 안에서 쓸 바깥 나라 물건을 사는 데 부려지는 화폐 가운데 그들이 쓸 물건을 사는 데 부려질 만한 몫은 아주 작다. 그 더 큰 몫은 저절로 근면을 부리는 데로 정해질 것이고 게으름을 먹여 살리는 데로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회의 유동 자본이 부릴 수 있는 근면의 양을 셈할 때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물건으로 이루어진 부분만을 헤아려야 하며, 화폐로 이루어져 오직 그 셋을 돌리는 구실만 하는 다른 부분은 늘 빼내야 한다. 근면을 움직이게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다룰 재료, 그것으로 일할 연장,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까닭이 되는 임금 또는 보수다. 화폐는 다룰 재료도 아니고 그것으로 일할 연장도 아니며, 일꾼의 임금이 보통 그에게 화폐로 치러지기는 하지만 그의 참된 수입은 다른 모든 사람의 참된 수입과 마찬가지로 화폐에 있지 않고 화폐의 값어치에 있으며, 쇠붙이 조각에 있지 않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있다.

어떤 자본이든 그것이 부릴 수 있는 근면의 양은 분명히 그것으로 재료와 연장과 그 일의 성질에 걸맞은 살림을 대어 줄 수 있는 일꾼의 수와 맞먹을 수밖에 없다. 그 일의 재료와 연장을 사고 일꾼의 살림을 사는 데 화폐가 있어야 할 수 있으나, 그 자본 전체가 부릴 수 있는 근면의 양은 사는 화폐와 그것으로 사들이는 재료와 연장과 살림 둘

다에 맞먹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두 값어치 가운데 하나에만 맞먹으며, 앞엣것보다 뒤엣것에 더 알맞게 맞먹는다.

금화와 은화 자리에 종이를 갈아 놓으면 유동 자본 전체가 대어 줄 수 있는 재료와 연장과 살림의 양이, 전에 그것을 사는 데 부려지던 금과 은의 값어치 전체만큼 늘어날 수 있다. 돌리고 나누어 주는 큰 바퀴의 값어치 전체가 그것을 거쳐 돌려 나누어지는 물건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이 일은 얼마쯤은 어떤 큰 일을 벌인 사업가가 기계상의 어떤 개량에 따라 자기 묵은 기계를 내리고 그 값과 새 기계의 값의 차이를 자기 유동 자본, 곧 자기 일꾼들에게 재료와 임금을 대어 주는 자금에 보태는 일과 닮았다.

어느 나라에서든 돌아다니는 화폐가 그것을 거쳐 돌려지는 한 해 생산물의 값어치 전체에 대하여 어떤 비율을 이루는지는 아마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저술가가 그것을 그 값어치의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로 셈하였다. 그러나 돌아다니는 화폐가 한 해 생산물의 값어치 전체에 대하여 이루는 비율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생산물 가운데 근면을 먹여 살리는 데로 정해지는 것은 한 부분, 게다가 흔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돌아다니는 화폐는 늘 그 부분에 대하여 아주 상당한 비율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종이를 갈아 놓음으로써 돌림에 필요한 금과 은이 어쩌면 전의 양의 5분의 1까지 줄어들 때, 남은 5분의 4 가운데 더 큰 몫의 값어치만이라도 근면을 먹여 살리는 데로 정해진 자금에 보태어진다면 그것은 그 근면의 양에, 따라서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의 값어치에 아주 상당한 보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일이 지난 스물다섯 해나 서른 해 사이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졌는데, 웬만큼 큰 도시마다, 나아가 시골 마을 몇몇에까지 새 은행 회사가 세워진 것이다. 그 결과는 위에 그려 놓은 것과 딱 같았다.

그 나라의 일은 거의 온통 그 여러 은행 회사의 종이로 치러지며 온갖 종류의 사들이기와 지급이 보통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은은 20실링짜리 은행권을 헐어 줄 때 말고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금은 그보다 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여러 회사의 처신이 흠잡을 데 없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의회의 법까지 필요하게 되었으나,[8] 그럼에도 이 나라가 그들의 거래에서 큰 이로움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글래스고 시의 거래가 그곳에 은행이 처음 세워진 뒤 열다섯 해쯤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는 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거래가 에든버러에 두 공공 은행이 처음 세워진 뒤로 네 배 넘게 되었다는 말을 나는 들은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스코틀랜드 은행이라 불리며 1695년에 의회의 법으로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왕립 은행이라 불리며 1727년에 왕의 특허장으로 세워졌다. 스코틀랜드 전체의 거래든 글래스고 시의 거래든 그처럼 짧은 동안에 참으로 그처럼 큰 비율로 늘어났는지는 내가 안다고 내세우지 않겠다. 그 어느 쪽이든 이만한 비율로 늘어났다면, 그것은 이 원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거래와 근면이 이 동안에 아주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은행이 이 늘어남에 적잖이 이바지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1707년의 연합법[9]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돌아다니던 은화, 곧 연합법 바로 뒤에 다시 주조하려고 스코틀랜드 은행에 들어온 은화의 값어치는 411,117파운드 10실링 9펜스 스털링에 이르렀다. 금화에 대해서는 셈이 남아 있지 않으나, 스코틀랜드 조폐국의 옛 셈으로 보면 해마다 주조된 금의 값어치가 은의 값어치를 얼마쯤 넘어섰던 듯하다. 게다가 이때 되돌려 받지 못할까 하는 꺼림에서 자기 은을 스코틀랜드 은행에 들여놓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고, 그 밖에 불러들여지지 않은 잉글랜드 화폐도 얼마쯤 있었다. 그러므로 연합법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돌아다닌 금과 은의 값어치 전체는 100만 파운드 스털링보다 적게 볼 수 없다. 그것이 그 나라의 돌림 거의 전부를 이루었던 듯하다. 그때 맞설 상대가 없던 스코틀랜드 은행의 돌림이 상당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가운데는 아주 작은 몫밖에 이루지 않았던 듯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돌림 전체는 200만 파운드보다 적게 볼 수 없고, 그 가운데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마 50만 파운드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돌아다니는 금과 은이 이 동안에 그처럼 크게 줄어들었어도 그 참된 넉넉함과 번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그 농업과 제조업과 거래, 곧 그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은 분명히 늘어났다.

은행과 은행가 대부분이 자기 약속 어음을 내는 것은 주로 환어음을 할인함으로써, 곧 그것이 만기가 되기 앞서 그 위에 돈을 미리 내어 줌으로써다. 그들은 미리 내어 주는 액수가 얼마든 거기에서 그 어음이 만기가 될 때까지의 법정 이자를 늘 덜어 낸다. 그 어음이 만기가 되어 치러지면 미리 내어 준 것의 값어치가 그 이자만큼의 순전한 이윤과 함께 은행에 채워진다. 자기가 할인해 주는 어음의 임자인 상인에게 금과 은이 아니라 자기 약속 어음을 내어 주는 은행가는, 경험으로 보아 보통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 약속 어음의 값어치 전체만큼 더 큰 액수를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이로움을 누린다. 그는 이로써 그만큼 더 큰 액수에 대한 이자를 순전한 벌이로 챌 수 있게 된다.

스코틀랜드의 상업은 오늘날에도 그리 크지 않으나, 처음 두 은행 회사가 세워졌을 때는 더욱 대수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자기 일을 환어음 할인에만 묶어 두었다면 거래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약속 어음을 내는 다른 방도를 생각해 냈으니, 그들이 현금 계정이라 부르는 것을[10] 열어 주는 것, 곧 미리 내어 준 돈이 얼마든 신용을 열어 준 액수 안에서라면 요구가 있는 대로 법정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겠다고 보증할, 의심 없는 신용과 좋은 땅을 지닌 사람 둘을 세울 수 있는 누구에게나 얼마쯤의 액수(예컨대 2000파운드나 3000파운드)까지 신용을 주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신용은 내가 믿는 바로는 세계의 온갖 곳에서 은행과 은행가가 보통 열어 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은행 회사들이 되돌려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손쉬운 조건은 내가 아는 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며, 어쩌면 그 회사들의 큰 거래와 이 나라가 그것에서 얻은 이로움 둘 다의 으뜸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 회사 가운데 하나와 이런 종류의 신용을 맺고 예컨대 1000파운드를 그 위에 빌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액수를 한 번에 20파운드씩 30파운드씩 조금씩 되돌려 줄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작은 액수가 하나하나 들어온 날부터 큰 액수의 이자 가운데 그에 걸맞은 몫을 덜어 내고 그렇게 전부가 되돌려질 때까지 그리한다. 그러므로 모든 상인과 거의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 그들과 그런 현금 계정을 두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며, 그로써 그 회사들의 어음을 온갖 지급에서 선선히 받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에게도 그리하도록 북돋워 그 회사들의 거래를 밀어 주는 데 마음을 쓰게 된다. 은행은 손님이 돈을 달라고 찾아오면 대개 자기 약속 어음으로 그것을 내어 준다. 상인들은 이것을 물건값으로 제조업자에게 치르고, 제조업자는 재료와 식료품값으로 농부에게 치르며, 농부는 지대로 자기 지주에게 치른다. 지주는 상인들이 대어 주는 편의품과 호사품의 값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상인들은 자기 현금 계정을 맞추거나 그들에게서 빌린 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다시 은행으로 되돌려 준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화폐 일이 거의 온통 그것을 거쳐 치러진다. 그 회사들의 큰 거래가 여기서 나온다.

그 현금 계정을 거쳐 상인은 누구나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거래를 벌일 수 있다. 런던에 한 사람, 에든버러에 다른 한 사람, 같은 갈래의 거래에 같은 자산을 부리는 상인 둘이 있다면, 에든버러 상인은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런던 상인보다 더 큰 거래를 벌이고 더 많은 수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런던 상인은 신용으로 사들인 물건값을 치르라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요구에 맞추려고, 자기 금고에든 이자를 주지 않는 자기 은행가의 금고에든 상당한 액수의 화폐를 늘 곁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액수가 예사롭게 500파운드라고 해 보자. 그러면 그의 창고에 있는 물건의 값어치는, 그런 액수를 놀려 두어야 할 처지가 아니었다면 그러했을 것보다 늘 500파운드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그가 손에 있는 자산 전체, 곧 손에 있는 자산의 값어치만큼의 물건을 한 해에 한 번 처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해 보자. 그처럼 큰 액수를 놀려 두어야 하므로 그는 한 해에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500파운드어치 적은 물건을 팔 수밖에 없다. 그의 한 해 이윤은 500파운드어치 물건을 더 팔아서 낼 수 있었을 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그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도록 마련하는 데 부려지는 사람의 수도 500파운드의 자산이 더 있었다면 부릴 수 있었을 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한편 에든버러의 상인은 그렇게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화폐를 놀려 두지 않는다. 그 요구가 실제로 그에게 들어오면 그는 은행과 맺은 자기 현금 계정에서 그것을 채우고, 자기 물건을 이따금 팔아 들어오는 화폐나 종이로 빌린 액수를 차츰 채워 넣는다. 그러므로 그는 같은 자산으로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런던 상인보다 언제나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자기 창고에 둘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도 더 큰 이윤을 내고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놓도록 마련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끊임없는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이 나라가 이 거래에서 얻은 큰 이로움이 여기서 나온다.

환어음을 손쉽게 할인해 주는 것이 잉글랜드 상인들에게 스코틀랜드 상인들의 현금 계정과 맞먹는 편의를 주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상인들도 잉글랜드 상인들만큼 손쉽게 자기 환어음을 할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자기들의 현금 계정이라는 편의를 더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지폐 전체는 그것이 자리를 메워 주는 금과 은, 곧 (상업이 같다고 볼 때) 지폐가 없었다면 그곳에서 돌아다녔을 금과 은의 값어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예컨대 20실링짜리 어음이 스코틀랜드에서 돌아다니는 가장 낮은 지폐라면, 그곳에서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통화 전체는 그 나라 안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20실링 값어치 이상의 한 해 주고받음을 치르는 데 필요했을 금과 은의 액수를 넘어설 수 없다. 돌아다니는 종이가 어느 때든 그 액수를 넘어선다면, 그 넘치는 몫은 바깥으로 보내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돌림에 부려질 수도 없으므로 금과 은으로 바꾸어 달라고 곧바로 은행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자기 손의 이 종이가 안에서 제 일을 치르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많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을 바깥으로 보낼 수 없으니 곧바로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것이다. 이 남는 종이가 금과 은으로 바뀌면 그들은 그것을 바깥으로 보내어 쓸 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종이 꼴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쓸 데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곧바로 이 남는 종이 전부만큼 은행으로 몰려가 지급을 다그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은행이 치르는 데 어려움이나 꺼림을 보이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놀람이 그 몰림을 반드시 키우기 때문이다.

집세와 하인과 서기와 셈하는 사람의 임금 따위와 같이 거래의 어느 갈래에나 공통된 비용 말고도, 은행에만 있는 비용은 주로 두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자기 어음을 지닌 사람들의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자기 금고에 큰 액수의 화폐를 늘 두어 두고 그 이자를 잃는 비용이고, 둘째는 그런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느라 비어 가는 대로 그 금고를 다시 채우는 비용이다.

그 나라의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종이를 내고 그 넘치는 몫이 치러 달라고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은행 회사는, 자기 금고에 늘 두어 두는 금과 은의 양을 자기 돌림이 지나치게 늘어난 비율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늘려야 한다. 그들의 어음이 그 양이 넘치는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그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회사는 자기 비용의 첫째 항목을 이렇게 억지로 늘어난 자기 일의 비율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늘려야 한다.

그런 회사의 금고는 훨씬 더 가득 차 있어야 하면서도, 자기 일을 더 웬만한 테두리 안에 묶어 두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저절로 비어 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다시 채우려면 더 거세게만이 아니라 더 꾸준하고 끊임없이 비용을 쏟아야 한다. 게다가 그렇게 그 금고에서 그처럼 많은 양으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주화는 그 나라의 돌림에 부려질 수 없다. 그것은 그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종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것도 그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그러나 그 주화를 놀려 두게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것은 이런 꼴로든 저런 꼴로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벌이가 되는 쓰임을 찾아 바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과 은을 이렇게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은 어려움을 키워서, 그처럼 빠르게 저절로 비어 가는 그 금고를 다시 채우려고 새 금과 은을 찾는 은행의 비용을 반드시 더욱 키운다. 그러므로 그런 회사는 이렇게 억지로 늘어난 자기 일의 비율에 따라 자기 비용의 둘째 항목을 첫째 항목보다 더욱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어떤 은행의 종이 가운데 그 나라의 돌림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것이 딱 4만 파운드에 이르고,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그 은행이 자기 금고에 금과 은 1만 파운드를 늘 두어야 한다고 해 보자. 이 은행이 4만 4000파운드를 돌리려 든다면, 그 돌림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정도를 넘는 4000파운드는 내어 준 것과 거의 같은 빠르기로 그 은행에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이 은행은 자기 금고에 1만 1000파운드만이 아니라 1만 4000파운드를 늘 두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 은행은 지나치게 돌린 4000파운드의 이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금고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빠르기로 끊임없이 그 금고에서 나가 버릴 금과 은 4000파운드를 끊임없이 모으는 비용 전부를 잃을 것이다.

은행 회사마다 제 이익을 늘 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썼더라면, 돌림이 지폐로 넘치게 차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회사마다 제 이익을 늘 알아보거나 거기에 마음을 쓴 것이 아니어서, 돌림이 지폐로 넘치게 차는 일이 잦았다.

너무 많은 양의 종이를 내고 그 넘치는 몫이 금과 은으로 바꾸어 달라고 끊임없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은 여러 해를 잇달아 한 해에 80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 사이, 곧 평균하여 85만 파운드쯤의 금을 주조해야 하였다. 이 큰 주조를 위하여 그 은행은 (몇 해 전에 금화가 닳고 깎인 상태로 떨어졌던 까닭에) 금덩이를 온스당 4파운드라는 높은 값에 사들여야 하는 일이 잦았고, 그것을 얼마 뒤에 온스당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로 주화로 내놓아, 그처럼 아주 큰 액수를 주조하면서 이렇게 2.5퍼센트에서 3퍼센트 사이를 잃었다. 그러므로 그 은행이 주조 수수료를 물지 않았고[11] 주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알맞게 떠맡았음에도, 정부의 이 후함이 그 은행의 비용을 온통 막아 주지는 못하였다.

스코틀랜드 은행들은 같은 종류의 넘침 때문에 모두 런던에 대리인을 늘 두고 자기들을 위하여 화폐를 모아 오게 해야 하였는데, 그 비용은 1.5퍼센트나 2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드물었다. 이 화폐는 짐마차로 내려 보내졌고, 운반하는 이들이 0.75퍼센트, 곧 100파운드에 15실링이라는 비용을 더 받고 그 보험을 맡았다. 그 대리인들이 제 주인의 금고를 비어 가는 것과 같은 빠르기로 늘 다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은행들이 쓸 수 있는 방도는 자기들이 바라는 액수만큼 런던의 거래 상대에게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그 상대가 그 뒤에 이 액수를 이자와 수수료와 함께 치르라고 그들에게 어음을 발행하면, 그 은행 가운데 몇몇은 자기들의 지나친 돌림이 몰아넣은 궁함 때문에 이 지급 요구를 채울 다른 길이 없어 같은 상대나 런던의 다른 상대에게 두 번째 어음 묶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러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액수, 아니 오히려 같은 액수의 어음이 이런 길로 두세 번 넘게 오가는 일이 더러 있었으며, 빚진 은행은 쌓인 액수 전체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늘 물어야 하였다. 지나친 조심성 없음으로 남달랐던 적이 없는 스코틀랜드 은행들조차 이 망국적인 방도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더러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이나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그 나라의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자기 종이의 몫과 바꾸어 내어 준 금화는, 그것 또한 그 돌림에 부려질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더러는 주화 꼴로 바깥으로 보내지고 더러는 녹여져 금덩이 꼴로 바깥으로 보내지고 더러는 녹여져 잉글랜드 은행에 온스당 4파운드라는 높은 값에 팔렸다. 주화 전체에서 조심스럽게 골라내어져 바깥으로 보내지거나 녹여진 것은 가장 새롭고 가장 무겁고 가장 좋은 조각뿐이었다. 안에서는, 그리고 주화 꼴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무거운 조각이 가벼운 것보다 더 값나가지 않았으나, 바깥에서는, 또는 안에서 녹여 금덩이로 만들면

더 값나갔다. 잉글랜드 은행은 해마다 그처럼 크게 주조하였음에도 해마다 주화가 지난해와 똑같이 모자란 것을, 그리고 해마다 그 은행에서 좋은 새 주화가 그처럼 많이 나갔음에도 주화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해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하였다. 해마다 그들은 지난해에 주조한 것과 거의 같은 양의 금을 주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알았고, 주화가 끊임없이 닳고 깎이는 까닭에 금덩이 값이 끊임없이 오르니 이 큰 한 해 주조의 비용이 해마다 갈수록 커졌다. 여기서 살펴 둘 것은, 잉글랜드 은행이 자기 금고에 주화를 대는 일로 온 왕국에 주화를 대는 일까지 간접으로 떠맡고 있다는 점이니, 그 금고에서 온갖 갈래의 길로 주화가 끊임없이 왕국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지폐가 이렇게 지나치게 돌아가는 것을 받쳐 주는 데 주화가 얼마나 필요하였든, 이 지나친 돌림이 왕국에 꼭 있어야 할 주화에 얼마나 빈자리를 냈든, 잉글랜드 은행이 그것을 다 채워야 하였다.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모두 제 조심성 없음과 마음 쓰지 않음의 값을 아주 비싸게 물었음에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은 제 조심성 없음의 값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스코틀랜드 은행의 훨씬 더 큰 조심성 없음의 값까지 아주 비싸게 물었다.

연합 왕국의 두 쪽 모두에서 대담한 사업 기획자 몇몇이 거래를 지나치게 벌인 것이 지폐가 이렇게 지나치게 돌아가게 된 본래의 원인이었다.

은행이 상인이든 어떤 종류의 사업가든 그에게 알맞게 미리 내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거래에 쓰는 자본 전체도 아니고 그 자본의 상당한 몫조차 아니며, 오직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놀려 둔 채 언제든 쓸 수 있는 화폐로 곁에 두어야 했을 그 몫뿐이다. 은행이 미리 내어 주는 지폐가 이 값어치를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폐가 없었다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돌아다녔을 금과 은의 값어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고, 그 나라의 돌림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양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은행이 상인에게, 참된 채권자가 참된 채무자에게 발행하고 만기가 되는 대로 그 채무자가 참으로 치르는 참된 환어음을 할인해 줄 때, 그것은 오직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놀려 둔 채 언제든 쓸 수 있는 화폐로 곁에 두어야 했을 값어치의 한 몫을 그에게 미리 내어 주는 것일 뿐이다. 그 어음이 만기가 되어 치러지면 은행에 미리 내어 준 것의 값어치가 이자와 함께 채워진다. 은행의 금고는 그 거래가 그런 손님에게만 묶여 있는 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나가면서도 흘러 나가는 것과 똑같은 다른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못과 같으니, 더 돌보거나 마음 쓰지 않아도 그 못은 늘 똑같이, 또는 똑같은 데 아주 가깝게 차 있다. 그런 은행의 금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비용이 거의 또는 전혀 들지 않는다.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지 않는 상인도 할인할 어음이 없을 때조차 언제든 쓸 수 있는 화폐가 얼마쯤 필요한 일이 잦다. 은행이 그의 어음을 할인해 주는 것 말고도 그런 때에 그의 현금 계정에서 그만한 액수를 그에게 미리 내어 주고, 스코틀랜드 은행 회사들의 손쉬운 조건으로 그의 물건을 이따금 팔아 화폐가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되돌려 받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가 이따금 있는 요구에 맞추려고 자기 자산의 어떤 몫을 놀려 둔 채 언제든 쓸 수 있는 화폐로 곁에 두어야 할 처지를 온전히 벗어나게 해 준다. 그런 요구가 실제로 그에게 들어오면 그는 자기 현금 계정에서 그것을 넉넉히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그런 손님을 상대할 때 얼마쯤 짧은 동안(예컨대 넉 달이나 다섯 달, 여섯 달이나 여덟 달) 사이에 그들에게서 보통 받는 되돌려 줌의 액수가 그들에게 보통 미리 내어 주는 액수와 넉넉히 맞먹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큰 마음을 써서 살펴야 한다. 그렇게 짧은 동안 사이에 어떤 손님들에게서 되돌려 받는 액수가 대개 미리 내어 준 액수와 넉넉히 맞먹는다면, 그 은행은 그런 손님을 안전하게 계속 상대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 그 금고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가는 물줄기가 아주 크더라도 거기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가 적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으니, 더 돌보거나 마음 쓰지 않아도 그 금고는 늘 똑같이, 또는 똑같은 데 아주 가깝게 차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채우려고 남다른 비용을 들여야 할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다. 거꾸로 다른 어떤 손님들에게서 되돌려 받는 액수가 그들에게 미리 내어 주는 액수에 대개 아주 많이 모자란다면, 적어도 그들이 이런 식대로 계속 상대해 온다면 그 은행은 그런 손님을 조금도 안전하게 계속 상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그 금고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가는 물줄기는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보다 반드시 훨씬 크니, 크고 끊임없는 비용의 애씀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금고는 이내 온통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

---

1. 옮긴이 — 쇠를 가늘게 쪼개는 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날바퀴 사이에 넓적한 쇠판을 물려 여러 가닥의 가는 쇠막대로 쪼개는 시설이다. 못을 만드는 재료를 대는 데 주로 쓰였다.

2. 옮긴이 — 이 책에서 undertaker 는 대개 사업을 벌이는 사람, 곧 사업가를 뜻한다. 다만 이 자리는 장례를 맡아 치르는 생업을 가리킨다. 18세기 런던에서는 상여와 검은 천과 촛대를 비롯한 장례 도구를 빌려주는 일이 하나의 생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3. 옮긴이 — 땅에 묻힌 보물은 임자를 알 수 없이 땅속에서 찾아낸 금은붙이를 말한다. 잉글랜드 법에서 그것은 찾아낸 사람이나 땅 임자가 아니라 국왕에게 돌아갔다.

4. 옮긴이 — 저본의 neat 는 net 의 옛 꼴이다. 들어온 것 전부에서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를 뜻하므로 「순」으로 옮겼다.

5. 옮긴이 — 저본에는 단위 없이 「한 해에 1000」 이라고만 적혀 있다. 파운드를 말하는 자리이므로 그렇게 옮겼다.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6. 옮긴이 — 파딩은 4분의 1펜스로, 당시 영국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다.

7.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8. 옮긴이 — 1765년의 법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20실링에 못 미치는 액면의 은행권을 내는 것과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조항을 붙인 어음을 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9. 옮긴이 — 1707년의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하나의 영국으로 합쳐졌다. 스코틀랜드의 옛 화폐는 이때 잉글랜드 화폐로 바뀌었고, 그래서 옛 은화를 조폐국으로 불러들여 다시 주조하였다.

10. 옮긴이 — 현금 계정은 보증인을 세우고 한도를 정해 두면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갚으며 실제로 쓴 날수만큼만 이자를 무는 신용이다.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18세기에 널리 쓴 것으로, 오늘날의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한다.

11. 옮긴이 — 주조 수수료는 주조를 맡은 곳이 금은을 주화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떼는 몫이다. 온스당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는 당시 잉글랜드 조폐국이 금 1온스를 주화로 바꾸어 주던 공정 값이며, 1온스는 약 31그램이다.

2장 — 사회의 일반 자산의 한 특수한 부문으로 본 화폐, 곧 국민 자본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어서)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의 은행 회사들은 오랫동안 모든 거래처에게 자주 그리고 고르게 갚기를 요구하는 데 아주 마음을 썼고, 재산이 얼마이든 신용이 어떠하든 그들이 이르는바 자주 그리고 고르게 거래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씀으로써 그들은 금고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유별난 비용을 거의 온통 아끼는 데다가, 아주 큰 이점을 둘 더 얻었다.

첫째, 이렇게 마음을 씀으로써 그들은 제 장부가 보여 주는 것 말고 다른 증거를 따로 찾아 나서지 않고도 채무자들의 형편이 피어나는지 기울어지는지를 그럭저럭 가늠할 수 있었다. 사람은 대개 형편이 피어나는가 기울어지는가에 따라 갚는 것이 고르거나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돈을 여섯이나 열두 사람쯤의 채무자에게 내주는 개인이라면 제 손으로든 대리인을 써서든 그 하나하나의 처신과 형편을 끊임없이 그리고 꼼꼼히 살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500명쯤이나 되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내주며 그 살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일에 끊임없이 붙들려 있는 은행 회사는, 제 장부가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서 채무자 대부분의 처신과 형편을 고르게 알아낼 길이 없다. 스코틀랜드의

은행 회사들이 모든 거래처에게 자주 그리고 고르게 갚기를 요구한 것은 아마 이 이점을 내다본 것이었을 터이다.

둘째, 이렇게 마음을 씀으로써 그들은 나라의 유통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폐를 내놓게 될 여지를 스스로 막았다. 어느 거래처가 갚는 액수가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대개 그에게 내준 액수와 온전히 맞먹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에게 내준 지폐가 어느 때에도 지폐가 없었더라면 그가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곁에 두어야 했을 금은의 양을 넘지 않았음을, 따라서 그를 통하여 돌린 지폐가 어느 때에도 지폐가 없었더라면 그 나라에 돌았을 금은의 양을 넘지 않았음을 믿어도 좋았다. 그가 갚는 일의 빈도와 고름과 액수는, 그들이 내준 액수가 어느 때에도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곧 나머지 자본을 끊임없이 부리기 위하여 놀리는 채로 현금으로 곁에 두어야 했을 그 자본의 몫을 넘지 않았음을 넉넉히 보여 주었다.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지폐든 주화든 돈의 꼴로 모든 장사꾼에게 끊임없이 돌아오고 또 같은 꼴로 끊임없이 그에게서 나가는 것은 그 자본의 이 몫뿐이다. 은행이 내주는 액수가 예사로 그 자본의 이 몫을 넘었더라면, 그가 예사로 갚는 액수가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은행이 예사로 내주는 액수와 맞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거래를 통하여 은행 금고로 끊임없이 흘러드는 물줄기가, 같은 거래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물줄기와 같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은행 지폐를 내주는 액수가, 그런 내줌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곁에 두어야 했을 금은의 양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이내 (상업은 같다고 보아) 지폐가 없었더라면 그 나라에 돌았을 금은의 온 양을 넘어서고, 따라서 그 나라의 유통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양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 넘치는 지폐는 금은으로 바꾸어 받으려고 곧바로 은행에 되돌아올 것이었다. 이 둘째 이점은 첫째 것과 똑같이 실제였으나, 아마

스코틀랜드의 여러 은행 회사가 다 첫째 것만큼 잘 알아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신용이 있는 장사꾼들이 한편으로는 어음 할인의 편리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현금 계정[1]의 편리함으로,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제 자산의 얼마를 놀리는 채로 현금으로 곁에 두어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은행과 은행가에게 그 이상의 도움을 바랄 만한 근거가 없다. 은행과 은행가는 거기까지 가고 나면 제 이익과 안전을 해치지 않고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제 이익을 해치지 않고서는 장사꾼이 굴리는 유동 자본의 전부를, 또는 그 대부분까지도 그에게 내줄 수 없다. 그 자본이 돈의 꼴로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오고 같은 꼴로 그에게서 나가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 전체는 나가는 것 전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가 갚는 액수의 합이 은행의 편리에 맞을 만큼 길지 않은 기간 안에는 은행이 내준 액수의 합과 맞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고정 자본의 상당한 몫을 내주는 것은 더욱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테면 제철 단련장을 하는 사업가가 단련장과 제련소, 작업장과 창고, 일꾼들의 살림집 따위를 세우는 데 쓰는 자본, 광산을 하는 사업가가 갱도를 파 내리고 물을 뽑아 올리는 기계를 세우며 길과 마차길을 내는 데 쓰는 자본, 땅을 개량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버려진 땅과 갈지 않은 들을 치우고 물을 빼고 울을 두르고 거름을 주고 갈아엎는 데, 그리고 마구와 곳간 같은 딸린 것을 다 갖춘 농가를 짓는 데 쓰는 자본이 그러하다. 고정 자본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유동 자본이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그런 비용은 아무리 신중하고 분별 있게 들여 썼더라도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는 좀처럼 사업가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그 기간은 은행의 편리에 맞기에는 너무나 멀다. 장사꾼과 그 밖의 사업가들이 제 기획의 상당한 몫을 빌린 돈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물론 아주 마땅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공정하려면, 이 경우에 그들 자신의 자본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 채권자들의 자본을 보증하기에 넉넉해야 하고, 곧 그 기획의 성공이 사업 기획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그 채권자들이 손실을 볼 일은 거의 없게 만들 만해야 한다. 이런 조심을 하더라도, 빌리는 돈이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갚기로 된 것이라면 은행에서 빌릴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자본을 굴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돈의 이자로 살아가려는 개인들에게서 차용 증서나 저당을 잡히고 빌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을 여러 해 동안 쥐고 있을 만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빌려줄 뜻이 있다. 인지를 붙인 증서에 드는 비용도, 차용 증서와 저당 문서를 짓는 데 드는 변호사 수수료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스코틀랜드 은행 회사들의 그 느긋한 조건으로 갚는 것을 받아 주는 은행이라면 그런 장사꾼과 사업가에게는 물론 아주 편리한 채권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장사꾼과 사업가는 그런 은행에게 틀림없이 가장 불편한 채무자일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은행 회사가 내놓은 지폐가 그 나라의 유통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양에 온전히 맞먹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얼마쯤 넘게 된 뒤로 이제 25년이 넘었다. 그러므로 그 회사들은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은행과 은행가가 제 이익을 해치지 않고 줄 수 있는 도움을 스코틀랜드의 장사꾼과 그 밖의 사업가들에게 다 주어 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얼마쯤 더 하기까지 하였다. 거래를 조금 지나치게 벌여, 이 업에서는 아주 조금만 지나치게 거래해도 반드시 따라오는 그 손실, 적어도 그 이윤의 줄어듦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은행과 은행가에게서 그만큼 많은 도움을 얻은 그 장사꾼과 그 밖의 사업가들은 더 많이 얻기를 바랐다. 그들은 은행이 종이 몇 연 값 말고는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든 그만큼 신용을 늘려 줄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들은 그 은행 이사들의 좁은 소견과 비겁한 기질을 나무라며, 이사들이 나라의 거래가 늘어난 만큼 신용을 늘려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거래가 늘어난다는 말로 그들이 뜻한 것은 물론, 제 자본으로도 차용 증서나 저당이라는 예사로운 길로 개인에게서 빌릴 만한 신용으로도 밀고 나갈 수 없는 데까지 제 기획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은행이 그 모자람을 메우고 그들이 거래에 쓰고 싶은 자본을 다 대어 주어야 할 도리가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은행은 생각이 달랐다. 은행이 신용을 늘려 주기를 마다하자 그 장사꾼 가운데 몇은 한 방편에 의지하였는데, 그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기는 하였으나 한동안은 은행 신용을 아무리 늘려 준다 해도 이룰 만한 것을 그만큼 잘 이루어 그들의 목적에 들어맞았다. 이 방편은 다름 아니라 널리 알려진 어음 떼기와 되떼기[2]라는 수로, 운이 다한 장사꾼이 파산의 문턱에서 더러 의지하는 수였다. 이런 수로 돈을 만드는 관행은 잉글랜드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거래의 높은 이윤이 지나친 거래로 이끄는 큰 유혹이 되었던 지난 전쟁[3] 동안에는 아주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그것이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들어왔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좁은 상업과 아주 조그마한 자본에 비추어 볼 때 잉글랜드에서 일찍이 벌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곧 벌어졌다.

어음을 떼고 되떼는 관행은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 너무나 잘 알므로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들의 손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관행이 은행업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하는 사람들조차 두루 알고 있지는 않을 듯하므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또렷이 그것을 밝혀 보려 한다.

유럽의 미개한 법이 상인들의 계약 이행을 강제해 주지 못하던 때에 자리 잡았고 지난 두 세기 동안 유럽 모든 나라의 법 속으로 받아들여진 상인의 관습은 환어음에 워낙 유별난 특권을 주어, 다른 어떤 종류의

채무 증서를 잡을 때보다도 환어음을 잡고 돈을 더 선선히 내준다. 특히 어음을 뗀 날로부터 두세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치르게 되어 있을 때 그러하다. 어음의 기일이 되었을 때 인수인이 그것을 내미는 대로 치르지 않으면 그는 그 순간부터 파산자가 된다. 그 어음에는 지급 거절 증서가 붙어 발행인에게 되돌아가고, 발행인이 그것을 곧바로 치르지 않으면 그 또한 파산자가 된다. 그 어음이 인수인에게 지급을 청하려고 내미는 사람의 손에 오기 전에 여러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쳤고, 그들이 차례로 서로에게 그 어음에 적힌 값을 돈이나 재화로 내주었으며, 저마다 차례가 되어 그 값을 받았음을 나타내려고 모두 차례대로 배서를, 곧 어음 뒤쪽에 제 이름을 적어 두었다면, 배서한 사람은 저마다 차례로 그 어음을 가진 이에게 그 값을 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치르지 못하면 그 또한 그 순간부터 파산자가 된다. 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과 배서인이 다 신용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일이 짧다는 것만으로 그 어음을 가진 이에게는 얼마쯤 담보가 된다. 그들이 다 파산할 낌새가 아주 짙더라도 그 짧은 동안에 모두 그리 되는 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다. 이 집은 삭아서 오래 서 있지 못하겠다고 지친 길손은 혼잣말을 한다. 그러나 바로 오늘 밤에 무너지는 것은 어쩌다 있는 일일 터이니, 그러니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자 보겠다고.

에든버러의 장사꾼 A가 런던의 B를 지급인으로 삼아 뗀 날로부터 두 달 뒤에 치르는 어음을 뗀다고 해 보자. 실상 런던의 B는 에든버러의 A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러나 B는 지급 기일이 오기 전에 같은 액수에 이자와 수수료를 더하여 에든버러의 A를 지급인으로 삼아 역시 뗀 날로부터 두 달 뒤에 치르는 또 하나의 어음을 되뗀다는 조건으로 A의 어음을 인수해 주기로 한다. 그리하여 B는 첫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어음을 에든버러의 A에게 되뗀다. A는 다시 그 두 번째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런던의 B를 지급인으로 삼아 역시 뗀 날로부터 두 달 뒤에 치르는

둘째 어음을 뗀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런던의 B가 에든버러의 A를 지급인으로 삼아 또 하나의 어음을 역시 뗀 날로부터 두 달 뒤에 치르게 되뗀다. 이 관행은 여러 달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기도 하였고, 어음은 앞선 모든 어음의 이자와 수수료가 쌓인 채 늘 에든버러의 A에게로 돌아왔다. 이자는 한 해에 5퍼센트였고 수수료는 어음을 뗄 때마다 0.5퍼센트를 밑도는 일이 없었다. 이 수수료가 한 해에 여섯 번 넘게 되풀이되었으므로, A가 이 방편으로 만들어 낸 돈은 무엇이든 한 해에 8퍼센트가 조금 넘게 든 셈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수료 값이 오르거나 앞선 어음의 이자와 수수료에 다시 이자를 얹어 치러야 할 때에는 더러 훨씬 더 들었다. 이 관행을 돌려 떼어 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불렀다.

상업 기획의 대부분에서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이 6퍼센트와 10퍼센트 사이라고 보는 나라에서, 그 일을 밀고 나가려고 이렇게 빌린 돈에 든 엄청난 비용을 되돌려 주고도 사업 기획자에게 넉넉한 나머지 이윤까지 남겨 주는 투기라면 그것은 여간 운 좋은 투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고 넓게 벌인 기획이 많이 나섰고, 이 엄청난 비용을 치러 만든 것 말고는 그것을 받쳐 줄 다른 자금 없이 여러 해 동안 밀고 나갔다. 사업 기획자들은 물론 황금빛 꿈속에서 이 큰 이윤을 아주 또렷이 보았다. 그러나 기획이 끝나서든 더는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없게 되어서든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믿는 바로는 그것을 찾아내는 좋은 운을 누린 이는 아주 드물었다.

{본문에서 밝힌 방편은 그 모험가들이 돌려 떼어 돈을 만들 때 쓴 것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것도 가장 비싼 것도 결코 아니었다. 에든버러의 A가 첫 환어음의 기일이 며칠 남았을 때 같은 런던의 B를 지급인으로 삼아 석 달 기일의 둘째 어음을 떼어, B가 그 첫 어음을 치를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 어음은 A 자신의 지시대로 치르게 되어

있었으므로 A는 그것을 에든버러에서 액면 그대로 팔았고, 그 돈으로 B의 지시에 따라 보는 즉시 치르는 런던 어음을 사서 우편으로 B에게 보냈다. 지난 전쟁이 끝나 갈 무렵 에든버러와 런던 사이의 환시세는 에든버러에 3퍼센트 불리한 때가 자주 있었으니, 그 일람 어음을 사는 데 A는 자주 그만한 웃돈을 치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를 한 해에 적어도 네 번 되풀이하고 되풀이할 때마다 적어도 0.5퍼센트의 수수료를 얹었으니, 그때에 A에게는 한 해에 적어도 14퍼센트가 들었을 것이다. 또 어떤 때에는 A가 첫 환어음의 기일이 며칠 남았을 때 B가 아닌 런던의 어떤 제삼자, 이를테면 C를 지급인으로 삼아 두 달 기일의 둘째 어음을 떼어 B가 그 첫 환어음을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다른 어음은 B의 지시대로 치르게 되어 있었고, C가 그것을 인수하자 B는 런던의 어느 은행가에게 그것을 할인하였다. 그리고 A는 그 어음의 기일이 며칠 남았을 때 더러는 처음의 거래 상대 B를, 더러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사람, 이를테면 D나 E를 지급인으로 삼아 역시 두 달 기일의 세 번째 어음을 떼어 C가 그것을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세 번째 어음은 C의 지시대로 치르게 되어 있었고, C는 그것이 인수되는 대로 앞서와 똑같이 런던의 어느 은행가에게 할인하였다. 이런 거래를 한 해에 적어도 여섯 번 되풀이하고 되풀이할 때마다 적어도 0.5퍼센트의 수수료를 얹은 데다 법정 이자 5퍼센트까지 붙었으니, 이렇게 돈을 만드는 것도 본문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A에게 8퍼센트가 조금 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든버러와 런던 사이의 환시세를 아낀 까닭에 이 각주 앞머리에서 말한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었다. 다만 그러려면 런던에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과 자리 잡은 신용이 있어야 했으니, 이 모험가들 가운데 많은 이에게는 그런 이점을 얻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에든버러의 A는 런던의 B를 지급인으로 삼아 뗀 어음을 기일 두 달 전에 에든버러의 어느 은행이나 은행가에게 으레 할인하였고, 런던의 B는 에든버러의 A를 지급인으로 삼아 되뗀 어음을 잉글랜드 은행이나 런던의 다른 은행가에게 그만큼 으레 할인하였다. 그런 돌림어음을 잡고 내준 것은 에든버러에서는 스코틀랜드 은행들의 지폐로 내주었고, 런던에서 잉글랜드 은행에 할인할 때에는 그 은행의 지폐로 내주었다. 이 지폐를 내준 밑이 된 어음은 기일이 되는 대로 다 차례로 갚아졌으나, 첫 어음을 잡고 실제로 내준 값이 그것을 내준 은행에 실제로 돌아온 적은 없었다. 어음마다 기일이 되기 전에 곧 치러야 할 어음보다 얼마쯤 큰 액수로 또 다른 어음을 늘 떼었고, 곧 기일이 될 그 어음을 치르는 데에는 이 다른 어음을 할인하는 일이 아니고는 안 될 만큼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급은 온통 헛것이었다. 그 돌림 환어음을 통하여 한번 은행 금고에서 흘러나가게 된 물줄기는 그 금고로 실제로 흘러드는 어떤 물줄기로도 메워지지 않았다.

그 돌림 환어음을 잡고 내놓은 지폐는 여러 경우에 농업이나 상업이나 제조업의 크고 넓은 기획 하나를 밀고 나가려고 마련한 자금 전체에 이르렀고, 지폐가 없었더라면 사업 기획자가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놀리는 채로 현금으로 곁에 두어야 했을 그 몫에만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폐의 대부분은 지폐가 없었더라면 그 나라에 돌았을 금은의 값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나라의 유통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금은으로 바꾸어 받으려고 곧바로 은행에 되돌아왔으니, 은행은 그 금은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였다. 그것은 그 사업 기획자들이 은행이 알지도 못하고 헤아려 승낙하지도 않은 채, 아니 한동안은 아마 자기들이 그것을 정말로 내주었다는 것을 아득히도 의심하지 못한 채 은행에서 끌어내려고 아주 교묘하게 꾸며 낸 자본이었다.

끊임없이 서로를 지급인으로 삼아 어음을 떼고 되떼는 두 사람이 늘 같은 은행가에게 어음을 할인한다면, 그 은행가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곧 알아채고 그들이 제 자본이 아니라 자기가 내주는 자본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또렷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음을 더러는 이 은행가에게 더러는 저 은행가에게 할인하고, 같은 두 사람이 늘 서로를 지급인으로 삼아 떼고 되떼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사업 기획자들의 큰 동아리를 한 바퀴 돌 때에는 이것을 알아채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그 동아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만드는 일에서 서로 돕는 것이 제 이익이라고 보며, 그러기에 진짜 환어음과 가짜 환어음을, 곧 진짜 채권자가 진짜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삼아 뗀 어음과, 그것을 할인한 은행 말고는 참된 채권자가 없고 그 돈을 쓴 사업 기획자 말고는 참된 채무자가 없는 어음을 가려내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어렵게 만든다. 은행가가 이것을 알아챘다 해도 더러 너무 늦게 알아챘을 수 있고, 그 사업 기획자들의 어음을 이미 워낙 크게 할인해 놓아서 더 할인해 주기를 마다하면 그들을 다 파산시키게 될 것이며 그렇게 그들을 망침으로써 아마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제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이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서 한동안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으나, 그러면서도 차츰 빠져나오려 애쓰며,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할인을 두고 더 큰 어려움을 내세워 이 사업 기획자들이 차츰 다른 은행가에게, 또는 돈을 만드는 다른 길에 의지하도록 몰아,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동아리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리하여 잉글랜드 은행과 런던의 주요 은행가들, 그리고 더 신중한 스코틀랜드 은행들까지도 얼마 뒤에, 그것도 다들 이미 너무 멀리 가 버린 뒤에 할인을 두고 내세우기 시작한 그 어려움은 그 사업 기획자들을 놀라게 한 것을 넘어 더할 수 없이 노엽게 하였다. 은행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또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린 것이 물론 바로

그 계기였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곤궁을 나라의 곤궁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곤궁은 온통 은행들의 무지와 담 작음과 그릇된 처사 탓이며, 은행들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개량하고 부유하게 하려고 힘쓰는 이들의 씩씩한 사업에 넉넉히 후한 도움을 주지 않은 탓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빌리고 싶은 기간만큼 길게, 또 빌리고 싶은 액수만큼 크게 빌려주는 것이 은행의 의무라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준 이들에게 신용을 더 주기를 이렇게 마다함으로써, 그때에 제 신용이나 그 나라의 공공 신용을 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잡은 것이었다.

이 아우성과 곤궁 가운데 스코틀랜드에 새 은행 하나가 세워졌으니, 나라의 곤궁을 덜어 준다는 것을 드러내어 내세운 목적으로 삼았다.[4] 그 뜻은 너그러웠으나 해 나간 것은 신중하지 못하였고, 덜어 주려 한 그 곤궁의 성질과 원인을 아마 잘 알지 못하였다. 이 은행은 현금 계정을 내주는 일에서나 환어음을 할인하는 일에서나 일찍이 어느 은행보다도 후하였다. 뒤엣것에서는 진짜 어음과 돌림어음을 거의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할인한 듯하다. 땅의 개량처럼 돌아오는 것이 가장 느리고 먼 개량에 쓰일 자본 전체를 웬만한 담보만 있으면 내준다는 것이 이 은행이 드러내어 밝힌 원칙이었다. 그런 개량을 북돋우는 것이 이 은행을 세운 공공을 위한 목적 가운데 으뜸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현금 계정을 내주고 환어음을 할인하는 데 후하였으므로 이 은행은 물론 제 은행권을 아주 많이 내놓았다. 그러나 그 은행권은 대부분이 나라의 유통이 쉽게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므로, 내놓는 대로 금은으로 바꾸어 받으려고 이 은행에 되돌아왔다. 그 금고는 한 번도 넉넉히 차 본 적이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출자 모집으로 이 은행에 약속된 자본은 16만 파운드였고, 그 가운데 80퍼센트만 납입되었다. 이 액수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다. 임자들의 큰 몫은 첫 회분을 납입할 때 그 은행에 현금 계정을 열었고, 이사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후하게 제 은행의 임자들을 대해야 한다고 여겨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뒤에 납입할 모든 회분을 이 현금 계정으로 빌려 치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납입은 바로 조금 전에 다른 금고에서 꺼낸 것을 한 금고에 넣어 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은행의 금고가 아무리 넉넉히 찼더라도, 지나치게 돌린 지폐는 런던을 지급인으로 삼아 어음을 떼고 그 기일이 되면 같은 곳을 지급인으로 삼아 또 어음을 떼어 이자와 수수료까지 함께 치른다는 그 파멸을 부르는 방편 말고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금고를 비워 놓았을 것이다. 그 금고가 워낙 옹색하게 차 있었으므로 이 은행은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이 수단으로 내몰렸다고 한다. 이 은행 임자들의 재산은 몇백만 파운드에 이르렀고, 은행의 처음 채무 증서, 곧 설립 계약에 이름을 적음으로써 그 재산은 은행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데 실제로 담보로 잡혀 있었다. 그만큼 큰 담보가 주게 마련인 큰 신용에 힘입어 이 은행은 너무 후하게 처신하였음에도 2년이 넘게 일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지급을 멈추어야 하였을 때 이 은행은 은행권으로 20만 파운드쯤을 돌리고 있었다. 내놓는 대로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그 은행권의 유통을 받치려고 이 은행은 런던을 지급인으로 삼아 환어음을 떼는 일을 끊임없이 하였는데, 그 수와 값이 자꾸 늘어 지급을 멈출 때에는 60만 파운드를 웃돌았다. 그러므로 이 은행은 2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5퍼센트로 80만 파운드를 웃도는 돈을 내준 것이었다. 은행권으로 돌린 20만 파운드에서는 이 5퍼센트를 관리 비용 말고는 달리 뺄 것이 없는 고스란한 벌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런던을 지급인으로 삼아 끊임없이 환어음을 떼며 마련한 60만 파운드를 웃도는

돈에서는 이자와 수수료로 8퍼센트를 웃도는 것을 치르고 있었으니, 그 결과 온 거래의 4분의 3이 넘는 데에서 3퍼센트가 넘게 잃고 있었다.

이 은행이 한 일은 그것을 꾀하고 이끈 몇몇 사람이 뜻한 것과는 사뭇 반대되는 결과를 낳은 듯하다. 그들은 그때 그 나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업을 씩씩한 사업이라 보아 그것을 받쳐 주려 하였고, 동시에 은행업 전체를 자기들에게 끌어와 다른 모든 스코틀랜드 은행, 특히 환어음 할인에 뜨악하여 얼마쯤 노여움을 산 에든버러의 은행들을 밀어내려 한 듯하다. 이 은행은 물론 그 사업 기획자들에게 한동안 도움이 되었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밀고 나갈 수 있었을 것보다 2년쯤 더 오래 제 기획을 밀고 나가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더 깊이 빚에 빠지게 해 준 것일 뿐이어서, 파멸이 왔을 때 그 파멸은 그들에게나 그 채권자들에게나 그만큼 더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므로 이 은행이 한 일은 그 사업 기획자들이 자기 자신과 제 나라에 불러들인 곤궁을 덜어 주기는커녕 길게 보아 실상 더하였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로 그만둔 때보다 2년 먼저 그만두어야 하였다면 그들 자신에게나 그 채권자들에게나 그 나라에나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은행이 그 사업 기획자들에게 준 한동안의 도움은 다른 스코틀랜드 은행들에게는 참되고 오래가는 도움이 되었다. 그 다른 은행들이 할인하기를 그토록 뜨악해하던 돌림 환어음을 굴리던 사람들이 다 이 새 은행으로 몰려갔고, 새 은행은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그 다른 은행들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상당한 손실과, 아마 얼마쯤 신용을 잃는 일까지 겪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었을 그 끔찍한 동아리에서 아주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길게 보아 이 은행이 한 일은 제가 덜어 주려 한 그 나라의 참된 곤궁을 더하였고, 제가 밀어내려 한 맞수들을 아주 큰 곤궁에서 톡톡히 건져 주었다.

이 은행이 처음 문을 열 때 어떤 이들은, 그 금고가 아무리 빨리 비더라도 제 지폐를 내준 이들의 담보를 잡고 돈을 만들어 쉽게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여겼다. 내가 믿는 바로는 경험이 이내 그들에게 일러 주었으니, 이렇게 돈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목적에 맞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애초에 그토록 옹색하게 차 있었고 그토록 빨리 비어 버리는 금고는 런던을 지급인으로 삼아 어음을 떼고 그 기일이 되면 이자와 수수료가 쌓인 것을 같은 곳에 덴 다른 어음으로 치른다는 그 파멸을 부르는 방편 말고는 어떤 방편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여 바라는 만큼 빨리 돈을 만들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래마다 이윤을 얻기는커녕 손실을 보았을 것이니, 길게 보아 그들은 상업 회사로서 스스로를 망쳤을 것이며, 다만 어음을 떼고 되떼는 더 비싼 관행으로 망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래도 그 지폐의 이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 지폐는 나라의 유통이 빨아들여 부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내놓는 대로 금은으로 바꾸어 받으려고 그들에게 되돌아왔고, 그것을 치르려고 그들 자신이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빌리는 데 드는 온 비용, 곧 빌려줄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설 대리인을 쓰고 그런 사람들과 흥정하며 알맞은 차용 증서나 양도 증서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다 그들에게 떨어졌을 것이고, 그들 셈의 잔액에서는 그만큼이 고스란한 손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금고를 다시 채우겠다는 기획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나가기만 하고 흘러드는 물줄기는 없는 못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을 써서 몇 마일 떨어진 우물까지 물통을 들고 끊임없이 오가게 하여 물을 길어 와 채움으로써 그 못을 늘 똑같이 가득한 채로 지키겠다는 기획에 견줄 만하다.

그러나 이 거래가 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상업 회사로서의 그 은행에게 이롭기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거기서 아무 이익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그 때문에 아주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이 거래는 빌려줄 돈의 양을 조금도 늘릴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은행을 나라 전체를 위한 일종의 두루 쓰이는 대출소로 세운 것일 뿐이었을 터이다. 빌리려는 이들은 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개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 은행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500명쯤 되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부분에 대하여 이사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은행이, 제가 아는 몇 사람, 그 차분하고 아낄 줄 아는 처신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여기는 몇 사람에게 제 돈을 빌려주는 개인보다 채무자를 고르는 데 더 분별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가 그 처신을 얼마간 이야기한 그런 은행의 채무자는 대부분이 허황한 사업 기획자, 곧 돌림 환어음을 떼고 되떼는 사람이었을 법하다. 그들은 그 돈을 터무니없는 사업에 쓸 터인데, 그 사업은 온갖 도움을 다 받더라도 아마 끝내 마칠 수 없을 것이고, 마친다 해도 실제로 든 비용을 결코 되돌려 주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쓰인 만큼의 노동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금을 결코 내놓지 못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에게서 빌리는 차분하고 아낄 줄 아는 채무자는 빌린 돈을 제 자본에 걸맞은 차분한 사업에 쓸 법이 더 크니, 그런 사업은 웅장하고 놀라운 것은 덜하더라도 튼튼하고 이로운 것은 더 많아, 거기에 들여 쓴 것을 무엇이든 큰 이윤과 함께 되돌려 주고, 그리하여 거기에 쓰인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라의 자본을 조금도 늘리지 못하고, 그 자본의 큰 몫을 신중하고 이로운 사업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사업으로 옮겨 놓는 데 그쳤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근면이 그것을 부릴 돈이 없어 시들었다는 것이 이름난 로 씨의 생각이었다.[5] 그는 한 특수한 종류의 은행을 세워, 그 은행이 나라의 모든 땅값 전체에 이르는 지폐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

듯하며, 그렇게 하여 이 돈의 모자람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그가 이 기획을 처음 내놓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뒷날 그때 프랑스의 섭정이던 오를레앙 공이 얼마간 달리 고쳐 받아들였다. 지폐를 거의 끝없이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른바 미시시피 계획의 참된 바탕이었으니, 이는 은행업으로 보나 자산을 놓고 벌인 투기 매매로 보나 아마 세상이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기획이었다. 이 계획의 여러 거래는 뒤베르네 씨가 『뒤토 씨의 상업과 재정에 관한 정치적 고찰에 대한 검토』에서 워낙 넉넉하고 또렷하게, 워낙 짜임새 있고 뚜렷하게 밝혀 놓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선 원리는 로 씨 자신이 이 기획을 처음 내놓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펴낸 『화폐와 교역에 관한 논고』에서 밝혀 놓았다. 그 글과 같은 원리에 선 몇몇 다른 글에 펼쳐진 그 화려하나 헛된 생각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요사이 스코틀랜드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원망을 사고 있는 그 지나친 은행업에 아마 얼마쯤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유럽에서 가장 큰 유통 은행이다. 그것은 의회의 법에 따라 1694년 7월 27일 날짜로 국새를 찍은 특허장으로 법인이 되었다. 그때 이 은행은 100,000파운드의 연금을 받기로, 곧 8퍼센트 이자로 한 해 96,000파운드와 관리 비용으로 한 해 4,000파운드를 받기로 정부에 1,200,000파운드를 내주었다.[6] 명예혁명[7]으로 세워진 새 정부의 신용은 그토록 높은 이자로 빌려야 하였던 것을 보면 아주 낮았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여겨도 좋다.

1697년에 이 은행은 1,001,171파운드 10실링을 접붙이는 것으로[8] 제 자본을 늘리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므로 그 온 자본은 이때 2,201,171파운드 10실링에 이르렀다. 이 접붙임은 공공 신용을 받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1696년에 탤리[9]는 40퍼센트, 50퍼센트,

60퍼센트나 깎여 거래되었고 은행권은 20퍼센트 깎여 거래되었다. {제임스 포슬스웨이트, 『공공 세입의 역사』, 301쪽.} 이때 벌어지고 있던 은화의 큰 재주조 동안에 이 은행은 제 은행권의 지급을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으니, 그 때문에 은행권의 신용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앤 여왕 치세 7년의 법 제7장[10]에 따라 이 은행은 400,000파운드를 국고에 내어 납입하였으니, 이자로 96,000파운드와 관리 비용으로 4,000파운드라는 처음의 연금을 받고 내준 액수가 모두 1,600,000파운드가 되었다. 그러므로 1708년에 정부의 신용은 개인의 신용만큼 좋았으니, 그때의 예사로운 법정 이율이며 시장 이율이던 6퍼센트 이자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법에 따라 이 은행은 6퍼센트 이자로 1,775,027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에 이르는 재무부 증권[11]을 없앴고, 동시에 제 자본을 두 배로 늘리려고 출자를 받아들이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므로 1703년에 이 은행의 자본은 4,402,343파운드에 이르렀고, 정부에 내준 액수는 3,375,027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이었다.

1709년에 15퍼센트의 납입 요구가 있어 656,204파운드 1실링 9펜스가 납입되어 자산이 되었고, 1710년에 10퍼센트의 또 다른 납입 요구가 있어 501,448파운드 12실링 11펜스가 납입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의 납입 요구로 은행 자본은 5,559,995파운드 14실링 8펜스에 이르렀다.

조지 1세 치세 3년의 법 제8장에 따라 이 은행은 없애기로 한 재무부 증권 200만 파운드어치를 내놓았다. 그러므로 이때 정부에 내준 액수는 5,375,027파운드 17실링 10펜스였다. 조지 1세 치세 8년의 법 제21장에 따라 이 은행은 남해회사[12]에서 4,000,000파운드어치의 자산을 사들였고, 1722년에 이 매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받아들인 출자로 그

자본이 3,400,000파운드 늘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은행이 공공에 내준 액수는 9,375,027파운드 17실링 10펜스 반이었고, 그 자본은 8,959,995파운드 14실링 8펜스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은행이 공공에 내주고 이자를 받는 액수가 그 자본, 곧 은행 자산을 가진 임자들에게 배당을 치르는 액수를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다. 달리 말하면 이 은행이 나누는 자본 위에 나누지 않는 자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다. 그 뒤로 이 은행은 같은 종류의 나누지 않는 자본을 줄곧 가지고 있다. 1746년에 이 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에 11,686,800파운드를 내주었고, 나누는 자본은 여러 번의 납입 요구와 출자로 10,780,000파운드까지 늘었다. 이 두 액수의 형편은 그 뒤로 줄곧 그대로다.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25장에 따라 이 은행은 특허장을 다시 받는 값으로 이자도 없고 되돌려 받지도 않는 110,000파운드를 정부에 치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 액수는 앞의 두 액수 가운데 어느 것도 늘리지 않았다.

이 은행의 배당은, 공공에 내준 돈에 대하여 여러 때에 걸쳐 받아 온 이자의 이율이 달라진 데 따라, 또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 이율은 8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차츰 내려왔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은행의 배당은 5.5퍼센트였다.

잉글랜드 은행의 튼튼함은 영국 정부의 튼튼함과 같다. 그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려면 이 은행이 공공에 내준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 잉글랜드에서는 다른 어떤 은행 회사도 의회의 법으로 세워질 수 없고 회원이 여섯을 넘을 수도 없다. 이 은행은 예사로운 은행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큰 기관으로도 움직인다. 공공의 채권자들에게 치러야 할 연금의 대부분을 받아서 치르고, 재무부 증권을 돌리며, 여러 해 뒤에야 걷히는 일이 잦은 토지세와 맥아세의 한 해분을 정부에 내준다. 이런 여러 거래에서 공공에 대한 의무가 더러 이

은행으로 하여금 이사들의 잘못 없이도 유통에 지폐를 너무 많이 채우게 하였을 수 있다. 이 은행은 상인의 어음도 할인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잉글랜드뿐 아니라 함부르크와 네덜란드의 주요 상사의 신용을 받쳐 주었다. 한 번은 1763년에 이 목적으로 한 주 동안 1,600,000파운드쯤을 내주었다고 하며, 그 큰 몫은 금은괴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액수가 그만큼 크다거나 그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보증하는 척하지는 않겠다. 또 어떤 때에는 이 큰 회사가 6펜스 은화로 치러야 하는 처지로 떨어졌다.

은행업의 가장 분별 있는 거래가 나라의 근면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자본을 늘려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그 자본의 더 큰 몫을 활발하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다. 장사꾼이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놀리는 채로 현금으로 곁에 두어야 하는 그 자본의 몫은 그만큼 죽은 자산이며, 이 형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도 그 나라에도 아무것도 낳아 주지 않는다. 은행업의 분별 있는 거래는 그가 이 죽은 자산을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곧 가지고 일할 재료로, 써서 일할 연장으로, 벌어서 얻을 식료품과 생계로, 자기에게도 그 나라에도 무엇인가를 낳아 주는 자산으로 바꾸게 해 준다. 어느 나라에서든 돌아다니는 금은 화폐, 그것을 통하여 그 나라 땅과 노동의 생산물이 해마다 돌고 제 소비자에게 나뉘는 그 금은 화폐는 장사꾼의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 죽은 자산이다. 그것은 나라의 자본 가운데 아주 값진 몫이면서 나라에는 아무것도 낳아 주지 않는다. 은행업의 분별 있는 거래는 이 금은의 큰 몫 자리에 지폐를 놓음으로써 나라가 이 죽은 자산의 큰 몫을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곧 나라에 무엇인가를 낳아 주는 자산으로 바꾸게 해 준다. 어느 나라에서든 돌아다니는 금은 화폐는 큰길에 견주는 것이 아주 알맞다. 큰길은 그 나라의 모든 풀과 곡물을 돌리고 장으로 실어 가면서도 그 자체로는 둘

가운데 어느 것도 한 무더기 낳지 못한다. 은행업의 분별 있는 거래는, 이토록 거친 비유를 허락받을 수 있다면, 공중에 놓은 마차길 같은 것을 마련함으로써 나라가 그 큰길의 큰 몫을 이를테면 좋은 목초지와 곡물밭으로 바꾸게 해 주고, 그리하여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을 아주 크게 늘리게 해 준다. 그러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으니, 나라의 상업과 근면이 얼마쯤 늘어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이를테면 지폐라는 다이달로스의 날개[13]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금은이라는 단단한 땅 위를 돌아다닐 때만큼 온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이 지폐를 다루는 사람들의 서투름 때문에 겪는 사고에 더하여, 상업과 근면은 그 다루는 사람들의 아무런 신중함이나 솜씨로도 막아 줄 수 없는 다른 사고 몇 가지를 겪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전쟁에 져서 적이 수도를, 따라서 지폐의 신용을 받쳐 주던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된다면, 유통 전체가 지폐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유통의 대부분이 금은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보다 훨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상업의 예사로운 도구가 그 값을 잃었으니 물물교환이나 신용 말고는 무엇을 주고받을 길이 없다. 모든 세금을 여느 때 지폐로 걷었으므로 군주는 군대에 봉급을 치를 것도 군량 창고를 채울 것도 없을 것이며, 그 나라의 형편은 유통의 대부분이 금은으로 이루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영토를 언제나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두고자 애쓰는 군주라면 이런 까닭으로, 지폐를 내놓는 은행 자체를 망치는 그 지나친 지폐 불림을 막을 뿐 아니라 은행이 나라의 유통 대부분을 지폐로 채울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불림까지도 막아야 한다.

어느 나라의 유통이든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으니, 장사꾼끼리의 유통과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의 유통이다. 지폐든 쇠붙이든 같은 돈 조각이 더러는 이 유통에 더러는 저 유통에 쓰일 수

있으나, 둘이 늘 동시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저마다 그것을 이어 갈 이런저런 돈의 자산이 얼마쯤 있어야 한다. 여러 장사꾼 사이에 도는 재화의 값은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에 도는 재화의 값을 결코 넘어설 수 없으니, 장사꾼이 사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끝내 소비자에게 팔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사꾼끼리의 유통은 도매로 이루어지므로 거래 하나하나에 으레 꽤 큰 액수가 든다. 이와 달리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의 유통은 으레 소매로 이루어지므로 아주 작은 액수, 곧 1실링이나 반 펜스만으로도 넉넉한 때가 많다. 그러나 작은 액수는 큰 액수보다 훨씬 빠르게 돈다. 1실링은 1기니[14]보다 더 자주 주인을 바꾸고 반 펜스는 1실링보다 더 자주 주인을 바꾼다. 그러므로 모든 소비자가 한 해에 사들이는 것이 모든 장사꾼이 사들이는 것과 값으로 적어도 맞먹더라도 그것은 으레 훨씬 적은 양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같은 돈 조각이 더 빠르게 돌아 저쪽보다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은 매매의 도구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지폐는 여러 장사꾼 사이의 유통에 거의 갇히게 다스릴 수도 있고,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의 유통에서도 큰 몫으로 퍼지게 다스릴 수도 있다. 런던처럼 10파운드 아래의 은행권을 돌리지 않는 곳에서는 지폐가 장사꾼끼리의 유통에 거의 갇힌다. 10파운드 은행권 한 장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면 그는 으레 5실링어치를 살 일이 있는 첫 가게에서 그것을 바꾸어야 하니, 그 돈은 소비자가 40분의 1도 쓰기 전에 장사꾼의 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잦다. 스코틀랜드처럼 20실링이라는 작은 액수로도 은행권을 내놓는 곳에서는 지폐가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의 유통에서도 상당한 몫으로 퍼진다. 10실링권과 5실링권의 유통을 멈춘 의회의 법이 있기 전에는 지폐가 그 유통을 더 큰 몫으로 채웠다. 북아메리카의 통화에서는 1실링이라는 작은 액수로도 예사로 지폐를

내놓아 그 유통을 거의 온통 채웠다. 요크셔의 어떤 지폐 통화에서는 6펜스라는 작은 액수로도 내놓았다.

그렇게 아주 작은 액수의 은행권을 내놓는 것이 허락되고 또 예사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변변찮은 사람들이 은행가가 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부추김을 받는다. 5파운드, 아니 20실링짜리 약속어음이라면 누구에게나 퇴짜를 맞을 사람도 6펜스라는 작은 액수로 내놓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볼품없는 은행가들이 겪게 마련인 잦은 파산은 그 어음을 지급으로 받아 두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큰 불편, 더러는 아주 큰 재난까지 끼칠 수 있다.

아마 이 왕국의 어느 곳에서도 5파운드보다 작은 액수로는 은행권을 내놓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면 지폐는 10파운드 아래의 은행권을 내놓지 않는 런던에서 지금 그러한 만큼, 이 왕국 어느 곳에서나 여러 장사꾼 사이의 유통에 거의 같힐 것이다. 이 왕국 대부분에서 5파운드는 아마 재화를 그 절반쯤밖에 사지 못할지라도, 흥청망청 쓰는 런던에서 10파운드가 그러한 만큼 큰 액수로 여겨지고 또 그만큼 드물게 한꺼번에 쓰이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 런던처럼 지폐가 장사꾼끼리의 유통에 거의 갇혀 있는 곳에는 금은이 늘 넉넉하다. 스코틀랜드처럼,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더욱 그러하듯이 지폐가 장사꾼과 소비자 사이의 유통에서도 상당한 몫으로 퍼지는 곳에서는 지폐가 금은을 그 나라에서 거의 온통 몰아내니, 그 나라 안쪽 상업의 예사로운 거래가 거의 다 지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실링권과 5실링권을 없앤 것은 스코틀랜드의 금은 모자람을 얼마쯤 덜어 주었고, 20실링권을 없애면 아마 더 덜어 줄 것이다. 아메리카에서는 그 지폐 통화 가운데 얼마를

없앤 뒤로 그 쇠붙이가 더 넉넉해졌다고 한다. 또 그런 통화를 세우기 전에도 더 넉넉하였다고 한다.

지폐가 장사꾼끼리의 유통에 거의 갇힌다 하더라도, 은행과 은행가는 지폐가 유통의 거의 전부를 채우던 때에 주던 것과 거의 같은 도움을 그 나라의 근면과 상업에 여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사꾼이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곁에 두어야 하는 현금은 온통 자기와, 재화를 사들이는 다른 장사꾼 사이의 유통에 쓰이기로 되어 있다. 그는 자기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을 위하여 현금을 곁에 둘 일이 없으니, 소비자는 그의 거래처로서 그에게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현금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폐를 장사꾼끼리의 유통에 거의 갇히게 할 만한 액수로만 내놓도록 한다 하더라도, 은행과 은행가는 한편으로 진짜 환어음을 할인하고 한편으로 현금 계정으로 빌려주어, 그 장사꾼들 대부분이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응하려고 제 자산의 상당한 몫을 놀리는 채로 현금으로 곁에 두어야 하는 처지에서 여전히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은행과 은행가가 온갖 장사꾼에게 마땅히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을 여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은행가의 약속어음을 액수가 크든 작든 제 뜻으로 지급으로 받으려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것, 또는 은행가가 그런 어음을 내놓으려 하고 그 이웃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내놓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연적 자유를 뚜렷이 해치는 일이며, 법의 마땅한 일은 그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받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규제는 물론 얼마쯤은 자연적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자연적 자유를 부리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때에는 어느 정부의 법이든, 가장 자유로운 정부의 법이든 가장 전제적인 정부의 법이든 그것을 막고 있고 또 막아야 한다. 불이

옮아 붙지 않게 하려고 경계벽을 쌓게 하는 의무는 자연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니, 여기서 내놓는 은행업 규제와 바로 같은 종류다.

신용이 의심할 데 없는 사람이 내놓고, 요구하면 아무 조건 없이 치르며, 실제로 내미는 대로 늘 선선히 치러지는 은행권으로 이루어진 지폐는 모든 점에서 금은 화폐와 값이 같으니, 그것으로 언제든 금은 화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지폐로 사거나 파는 것은 무엇이든 금은으로 사고팔 수 있었을 만큼 싸게 사고팔 수밖에 없다.

지폐가 늘어나면 통화 전체의 양이 늘고 따라서 그 값이 떨어져 상품의 화폐 가격이 오르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통화에서 빠져나가는 금은의 양은 거기에 더해지는 지폐의 양과 늘 같으므로, 지폐가 통화 전체의 양을 반드시 늘리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세기 초부터 오늘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식료품이 1759년보다 싼 때는 없었는데, 10실링권과 5실링권이 돌았으므로 그때 그 나라에는 지금보다 지폐가 더 많았다. 스코틀랜드의 식료품 값과 잉글랜드의 식료품 값 사이의 비율은 스코틀랜드에 은행 회사가 크게 불어나기 전과 지금이 같다. 곡물은 대개 잉글랜드에서 프랑스와 똑같이 싼데, 잉글랜드에는 지폐가 아주 많고 프랑스에는 거의 없다. 흄 씨가 『정치 논집』을 펴낸 1751년과 1752년, 곧 스코틀랜드에서 지폐가 크게 불어난 바로 뒤에 식료품 값이 눈에 띄게 올랐으나, 그것은 아마 지폐가 불어난 탓이 아니라 철이 나빴던 탓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으로 이루어진 지폐로서 그 곧바른 지급이 어떤 점에서든 그것을 내놓은 이들의 선의에 달려 있거나, 어음을 가진 이가 늘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지지는 못할 조건에 달려 있거나, 또는 몇 해가 지난 뒤에야 지급을 청할 수 있고 그동안 이자가 붙지 않는 지폐라면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지폐는 곧바로 지급을 받기가 어렵거나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라, 또는 지급을 청할 수 있는 때가

멀거나 가까운 정도에 따라 금은의 값보다 얼마쯤 아래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몇 해 전에 스코틀랜드의 여러 은행 회사는 제 은행권에 그들이 선택 조항이라 부르는 것을 넣는 관행이 있었다. 그 조항으로 그들은 어음을 내미는 대로 가진 이에게 치르거나, 아니면 이사들이 선택하여 내민 뒤 여섯 달이 지나서 그 여섯 달의 법정 이자를 함께 치르기로 약속하였다. 그 은행 가운데 몇 곳의 이사들은 더러 이 선택 조항을 써먹었고, 또 더러는 제 은행권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금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구한 것의 일부만 받고 물러나지 않으면 그 조항을 써먹겠다고 으르기도 하였다. 그때 그 은행 회사들의 약속어음은 스코틀랜드 통화의 훨씬 큰 몫을 이루고 있었으니, 이렇게 지급이 불확실하였으므로 그 통화는 금은 화폐의 값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폐단이 이어지던 동안(그것은 주로 1762년과 1763년과 1764년에 퍼졌다) 런던과 칼라일 사이의 환시세는 제값대로였는데 런던과 덤프리스 사이의 환시세는 더러 덤프리스에 4퍼센트 불리하였으니, 이 고을은 칼라일에서 30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칼라일에서는 어음을 금은으로 치렀고 덤프리스에서는 스코틀랜드 은행권으로 치렀으니, 이 은행권을 금은 주화로 바꾸어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으므로 그 은행권은 그 주화의 값보다 4퍼센트 아래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10실링권과 5실링권을 없앤 그 의회의 법이 이 선택 조항도 없애, 그리하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환시세를 그 자연율로, 곧 거래와 송금의 흐름이 만들어 놓을 수준으로 되돌렸다.

요크셔의 지폐 통화에서는 6펜스라는 작은 액수의 지급이 더러 어음을 가진 이가 그것을 내놓은 사람에게 1기니의 잔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었으니, 그런 어음을 가진 이로서는 채우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잦았을 조건이며, 이 통화를 금은 화폐의 값보다 아래로 떨어뜨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의회의 법이 그런 조항을 다 불법이라 선언하고, 스코틀랜드에서와 똑같이 가진 이에게 치르는 20실링 아래의 약속어음을 다 없앴다.

북아메리카의 지폐 통화는 요구하면 가진 이에게 치르는 은행권이 아니라, 내놓은 뒤 여러 해가 지나야 지급을 청할 수 있는 정부 지폐였다. 식민지 정부들은 이 지폐를 가진 이에게 이자를 치르지 않았으나, 그것을 내놓은 값 전체에 대하여 법정 지급 수단이라 선언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담보가 아주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6퍼센트인 나라에서 이를테면 15년 뒤에 치러질 100파운드는 현금 40파운드보다 조금 더한 값어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현금으로 치른 100파운드의 빚에 대하여 이것을 온전한 지급으로 받아들이도록 채권자에게 강요한 것은, 자유롭다고 자처하는 다른 어느 나라의 정부도 아마 좀처럼 해 보지 않았을 만큼 난폭한 불의였다. 그것은 정직하고 거침없는 더글러스 박사가 우리에게 다짐하여 말하는 바 원래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속이려고 꾸민 꾀였다는 뚜렷한 자취를 지니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정부는 1722년에 지폐를 처음 내놓을 때, 재화를 식민지 지폐로 팔 때와 금은으로 팔 때 그 값에 차이를 두는 이를 다 벌하는 법을 만들어 제 지폐를 금은과 같은 값으로 만들려 한 것이 사실이나, 그 규제는 받쳐 주려 한 규제와 똑같이 사납고 그보다 훨씬 효험이 없었다. 성문법은 1실링을 1기니에 대한 법정 지급 수단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내놓은 채무자를 놓아주라고 법정에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성문법도 재화를 팔면서 제 뜻대로 팔거나 팔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값으로 1실링을 1기니와 맞먹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제가 있었음에도 영국과의 환시세로 보면 100파운드 스털링이 어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통화로 130파운드와, 다른 식민지에서는 1100파운드라는 큰 액수와 맞먹는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으니, 이렇게 값이 달라진 것은 여러 식민지가 내놓은 지폐의 양이 다르고 그것을 마침내 갚고 거두어들이기로 한 때가 멀거나 가까운 정도와 그리될 법한 정도가 달랐던 데서 온다.

그러므로 식민지에서 그토록 부당하게 원망을 산 그 의회의 법, 곧 앞으로 거기서 내놓는 지폐 통화는 법정 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법보다 더 공정한 법은 없었을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는 우리 식민지 가운데 어느 곳보다도 지폐를 내놓는 데 늘 조심스러웠다. 그리하여 그 지폐 통화는 지폐를 처음 내놓기 전에 그 식민지에서 통용되던 금은의 값보다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지폐를 내놓기 전에 이 식민지는 제 주화의 명목을 올려, 식민지 의회의 법으로 5실링 스털링이 식민지에서 6실링 3펜스로 통하게 하였고 뒤에는 6실링 8펜스로 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 통화 1파운드는 그 통화가 금은이었을 때에도 1파운드 스털링의 값보다 30퍼센트 넘게 아래였고, 그 통화가 지폐로 바뀌었을 때에도 그 값보다 30퍼센트가 조금 넘게 아래인 때가 대부분이었다. 주화의 명목을 올린 구실은, 같은 양의 금은이 본국에서보다 식민지에서 더 큰 액수로 통하게 하여 금은이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국에서 오는 모든 재화의 값이 그들이 주화의 명목을 올린 그대로의 비율로 올랐으니, 그들의 금은은 여전히 빠르게 나갔다.

각 식민지의 지폐는 그것을 내놓은 값 전체로 그 지방의 세금을 치르는 데 받아들여졌으므로, 이 쓰임에서 마침내 갚고 거두어들일 때가 실제로 멀거나 멀다고 여겨지는 데서 얻을 값 위에 얼마쯤 값을 더 얻게 마련이었다. 이 더해진 값은 내놓은 지폐의 양이 그것을 내놓은 그 식민지의 세금을 치르는 데 쓰일 수 있는 양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에

따라 컸거나 작았다. 모든 식민지에서 그 양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제 세금의 얼마를 어떤 종류의 지폐로 치르게 하는 법을 만드는 군주는, 그 지폐를 마침내 갚고 거두어들이는 때가 온통 그 군주의 뜻에 달려 있더라도 그렇게 하여 이 지폐에 얼마쯤 값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폐를 내놓은 은행이 그 양을 늘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보다 얼마쯤 적게 지키도록 마음을 쓴다면, 그것을 찾는 힘이 커서 웃돈이 붙을 수도, 곧 그 지폐를 내놓고 받은 금은 통화의 양보다 시장에서 얼마쯤 더 값나가게 팔릴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암스테르담 은행의 아지오,[15] 곧 은행 화폐가 통용 화폐보다 나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나, 그들이 내세우는 대로라면 이 은행 화폐는 임자의 뜻으로 은행에서 꺼낼 수 없다. 외국 환어음의 대부분은 은행 화폐로, 곧 은행 장부에 옮겨 적는 것으로 치러야 하는데, 이사들이 은행 화폐의 온 양을 늘 이 쓰임이 찾게 하는 것보다 적게 지키도록 마음을 쓴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의 말로는 이 때문에 은행 화폐가 웃돈을 붙여 팔리고, 곧 그 나라 금은 통화의 같은 명목 액수보다 4퍼센트나 5퍼센트의 아지오가 붙는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은행에 대한 이 설명은 뒤에 드러나겠지만 대체로 허황한 것이다.

금은 주화의 값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지폐 통화가 그 때문에 그 쇠붙이의 값을 떨어뜨리거나, 같은 양의 쇠붙이가 다른 종류의 재화를 더 적게 바꾸어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금은의 값과 다른 종류 재화의 값 사이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폐의 성질이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업 세계의 큰 시장에 그 쇠붙이를 대는 광산이 넉넉한가 메말랐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일정한 양의 금은을 시장에 가져오는 데 드는 노동의

양과, 다른 어떤 종류의 재화를 일정한 양만큼 거기로 가져오는 데 드는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

은행가가 일정한 액수보다 작은 유통 은행권, 곧 가진 이에게 치르는 어음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은행권을 내미는 대로 곧바로 아무 조건 없이 치를 의무를 지운다면, 그들의 업은 다른 모든 점에서 공공에 해가 없이 온전히 자유롭게 놓아두어도 된다. 요사이 이 연합 왕국의 두 곳에서 은행 회사가 불어난 것을 두고 많은 사람이 크게 놀랐으나, 그것은 공공의 안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 그것은 은행 회사 모두가 제 처신을 더 조심하게 하고, 제 현금에 걸맞은 정도를 넘어 통화를 늘리지 않게 하여, 맞수가 그토록 많은 데서 늘 닥칠 수 있는 그 심술궂은 지급 요구의 몰림에 스스로 대비하게 한다. 그것은 각 회사의 유통을 더 좁은 동아리 안으로 묶고 그 돌아다니는 은행권의 수를 줄인다. 유통 전체를 더 많은 몫으로 나누어 놓으므로, 어느 한 회사가 무너지는 일, 곧 일이 되어 가는 가운데 더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고가 공공에게 덜 큰 일이 된다. 이 자유로운 경쟁은 또한 모든 은행가가 맞수에게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래처를 더 후하게 대하게 한다. 무릇 어떤 거래의 갈래든 어떤 노동의 갈림이든 공공에 이롭다면, 경쟁이 더 자유롭고 더 널리 퍼질수록 그것은 늘 더 이로울 것이다.

---

1. 옮긴이 — 현금 계정은 스코틀랜드 은행업의 관행이다. 보증인을 세우면 은행이 한도를 정해 주고,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빼 쓰고 들어오는 대로 갚으며 쓴 날수만큼 이자를 치른다. 잉글랜드에는 없던 제도로, 스미스는 이것을 스코틀랜드 은행업의 특색으로 든다.

2. 옮긴이 — 어음을 뗀다는 것은 지급할 사람을 지정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일이고, 되뗀다는 것은 그 지급인이 거꾸로 앞의 발행인을 지급인으로 삼아 새 어음을

발행하는 일이다. 두 사람이 이것을 번갈아 되풀이하면 실제 거래가 없어도 어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그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돈을 만들 수 있다.

3. 옮긴이 — 7년 전쟁(1756~1763)을 가리킨다. 《국부론》은 1776년에 나왔다.

4. 옮긴이 — 스미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은행은 1769년 에이르에 세워진 더글러스·헤런 상회, 이른바 에이르 은행이다. 1772년 6월에 지급을 멈추었다.

5. 옮긴이 — 존 로(1671~1729)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왕립 은행과 서방회사를 세워 지폐를 크게 불렸다. 1720년에 그 계획이 무너졌다.

6.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7. 옮긴이 — 1688년에 제임스 2세를 물리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왕위에 앉힌 일을 가리킨다. 잉글랜드 은행은 그 뒤 1694년에 세워졌다.

8. 옮긴이 — 접붙임은 국채를 은행 자본에 옮겨 붙여 자본을 늘리던 길을 가리킨다. 국채를 가진 이가 그 채권을 내놓고 그만큼 은행 자본의 몫을 받는 것이다.

9. 옮긴이 — 탤리는 나뭇조각에 금을 새겨 국고의 채무를 적어 두던 증서다. 쪼갠 두 쪽을 채권자와 국고가 나누어 가졌다.

10.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의 것인가로 가리킨다. 앤 여왕 치세 7년은 1708년이고, 조지 1세 치세 3년은 1716년, 치세 8년은 1721년이며, 조지 3세 치세 4년은 1764년이다. 제 몇 장이라는 것은 그 회기의 법령에 매긴 번호다.

11. 옮긴이 — 재무부 증권은 영국 재무부가 세입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마련하려고 내놓은 짧은 기한의 채무 증서다.

12. 옮긴이 — 남해회사는 1711년에 세워진 회사로 스페인령 아메리카와의 거래 독점을 내세웠다. 1720년에 그 자산 값이 부풀었다가 무너졌다.

13. 옮긴이 — 다이달로스는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만들어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크레타를 벗어났다. 이카로스는 해에 너무 가까이 올라 밀랍이 녹아 떨어졌다.

14.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15. 옮긴이 — 아지오는 은행 장부에 적힌 예금 화폐가 시중에 도는 주화보다 더 값나가는 그 웃돈을 가리킨다. 스미스는 4편 3장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다시 다룬다.

3장 — 자본의 축적, 곧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3장 — 자본의 축적, 곧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노동에는 그것이 들여진 대상의 가치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갈래가 있고, 그런 효과가 없는 갈래가 또 있다. 앞의 것은 가치를 낳으므로 생산적 노동이라 부를 수 있고, 뒤의 것은 비생산적 노동이라 부를 수 있다(배움이 깊고 재주가 뛰어난 몇몇 프랑스 저술가는 이 낱말들을 다른 뜻으로 써 왔다. 4편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그들의 뜻이 알맞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1]. 그러므로 제조업자의 노동은 대체로 그가 다루는 재료의 가치에 자기 생계의 값과 고용주의 이윤을 보탠다. 반대로 집안 하인의 노동은 아무것의 가치에도 보태는 것이 없다. 제조업자는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미리 받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에게 아무 비용도 지우지 않는데, 그 임금의 가치는 그의 노동이 들여진 대상의 높아진 가치 속에서 이윤과 함께 대체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 하인의 생계는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 사람은 많은 제조업자를 부려서 부유해지고, 많은 집안 하인을 먹여 살려서 가난해진다. 그러나 뒤의 노동에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앞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그 보수를 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제조업자의 노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팔 수 있는 상품에 자기를 붙박아 실현하며, 그 대상은 적어도 그 노동이 지난 뒤로도 얼마쯤 남아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일정한 양의 노동이 쌓여

저장된 것이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기회에 부려 쓸 수 있다. 그 대상,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대상의 값은 뒤에 필요할 때 처음 그것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양의 노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집안 하인의 노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팔 수 있는 상품에 자기를 붙박지도 실현하지도 못한다. 그의 봉사는 대체로 그것이 행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지며, 그 뒤에 같은 양의 봉사를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가치의 자취를 남기는 일이 드물다.

이 사회에서 가장 떠받들리는 여러 계층 가운데 몇몇의 노동도 집안 하인의 노동처럼 어떤 가치도 낳지 못하며, 그 노동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어 그 뒤에 같은 양의 노동을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영구한 대상이나 팔 수 있는 상품에 자기를 붙박지도 실현하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주권자는 그 아래에서 일하는 재판과 전쟁의 모든 관리와 더불어, 또 육군과 해군 전체와 더불어 비생산적 노동자다. 그들은 공공의 종이며 다른 사람들의 근면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일부로 먹여 살려진다. 그들의 봉사가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같은 양의 봉사를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그들의 노동이 올해 이룩한 결과인 나라의 보호와 안전과 방위는 다음 해의 보호와 안전과 방위를 사들이지 못한다. 같은 갈래에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직업도 몇몇 넣어야 하고 가장 하찮은 직업도 몇몇 넣어야 한다. 성직자, 법률가, 의사, 온갖 갈래의 문인, 그리고 배우, 어릿광대, 악사, 오페라 가수, 오페라 무희 따위가 그렇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이의 노동에도 일정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다른 모든 갈래의 노동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다스려진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쓸모 있는 이의 노동도 그 뒤에 같은 양의 노동을 사거나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배우의 낭송이나 변론가의

연설이나 악사의 가락처럼 이들 모두의 일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진다.

생산적 노동자든 비생산적 노동자든, 또 아예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로 먹여 살려진다. 이 생산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할 수는 없고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해에 그 가운데 더 작은 몫이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는가 더 큰 몫이 쓰이는가에 따라, 앞의 경우에는 생산적인 일손에게 더 많이 남고 뒤의 경우에는 더 적게 남으며, 그에 따라 다음 해의 생산물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진다. 땅이 스스로 내놓는 것을 빼면 해마다의 생산물 전체가 생산적 노동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 전체는 의심할 것 없이 마침내 그 주민의 소비를 채우고 그들에게 수입을 마련해 주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것이 땅에서든 생산적 노동자의 손에서든 처음 나올 때에는 저절로 두 몫으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더구나 흔히 더 큰 쪽은 먼저 자본을 메우도록, 곧 자본에서 빠져나갔던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일감을 다시 채우도록 정해져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자본의 임자에게 그 자산의 이윤으로서,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토지의 지대로서 수입을 이루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한 몫은 농부의 자본을 메우고, 다른 한 몫은 그의 이윤과 지주의 지대를 치르며, 이렇게 하여 이 자본의 임자에게는 그 자산의 이윤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토지의 지대로서 수입을 이룬다. 큰 제조 공장의 생산물도 마찬가지로 한 몫은,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더 큰 쪽인데, 그 일을 벌인 사업가의 자본을 메우고 다른 한 몫은 그의 이윤을 치러서 이 자본의 임자에게 수입을 이룬다.

어느 나라에서든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자본을 메우는 몫은 결코 생산적인 일손 말고 다른 것을 먹여 살리는 데 곧바로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적 노동의 임금만 치른다. 이윤으로든 지대로든 수입을 이루도록 곧바로 정해져 있는 몫은 생산적인 일손이든 비생산적인 일손이든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자산 가운데 어느 몫을 자본으로 쓰든 그것이 이윤과 함께 자기에게 되돌아오기를 늘 바란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에만 쓰며, 그것이 그에게 자본의 구실을 다한 뒤에는 그들에게 수입을 이룬다. 그가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어떤 갈래의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쓸 때마다, 그 몫은 그 순간부터 그의 자본에서 빠져나와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에 놓인다.

비생산적 노동자와 아예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수입으로 먹여 살려진다. 첫째로는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본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토지의 지대로서든 자산의 이윤으로서든 수입을 이루도록 정해져 있는 몫으로 먹여 살려지고, 둘째로는 본디 자본을 메우고 생산적 노동자만 먹여 살리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그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온 뒤에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계를 넘는 몫은 생산적인 일손이든 비생산적인 일손이든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몫으로 먹여 살려진다. 그러므로 큰 지주나 부유한 상인만이 아니라 흔한 일꾼조차 임금이 웬만하면 집안 하인 하나를 둘 수 있다. 또 그는 더러 연극이나 인형극을 보러 가서 한 무리의 비생산적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데 자기 몫을 보태기도 하고, 세금을 얼마쯤 물어서 참으로 더 명예롭고 더 쓸모 있기는 하나 똑같이 비생산적인 또 한 무리를 먹여 살리는 데 손을 보태기도 한다. 그러나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본디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던 몫은, 그것이 생산적 노동을 온전히 다

움직이게 한 뒤에야, 곧 그것이 쓰인 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움직이게 한 뒤에야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돌려진다. 일꾼은 일을 해서 자기 임금을 벌어야 비로소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그렇게 쓸 수 있다. 게다가 그 몫은 대체로 아주 작다. 그것은 그의 남는 수입일 뿐이며, 생산적 노동자에게 그런 것이 많은 일은 드물다. 그래도 그들은 대체로 얼마쯤은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치를 때에는 그 수가 많은 것이 저마다의 몫이 작은 것을 얼마쯤 메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지대와 자산의 이윤은 어디서나 비생산적인 일손이 자기 생계를 얻어 내는 주된 샘이다. 이 둘은 그 임자에게 대체로 남는 것이 가장 많은 두 갈래의 수입이다. 이 둘은 생산적인 일손이든 비생산적인 일손이든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 터이나, 뒤의 것을 얼마쯤 더 좋아하는 듯하다. 큰 영주의 씀씀이는 대체로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을 더 많이 먹인다. 부유한 상인은 자기 자본으로는 부지런한 사람만 먹여 살리지만, 자기 씀씀이로는, 곧 자기 수입을 쓰는 것으로는 흔히 큰 영주와 똑같은 부류를 먹인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일손과 비생산적인 일손 사이의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나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그것이 땅에서든 생산적 노동자의 손에서든 나오는 즉시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는 몫과 지대로든 이윤으로든 수입을 이루도록 정해져 있는 몫 사이의 비율에 크게 달려 있다. 이 비율은 부유한 나라에서와 가난한 나라에서 아주 다르다.

그리하여 오늘날 유럽의 넉넉한 나라들에서는 토지 생산물 가운데 아주 큰 몫이, 흔히 가장 큰 몫이 부유하고 독립된 농부의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고, 다른 몫은 그의 이윤과 지주의 지대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옛날 봉건 정치가 널리 퍼져 있던 시절에는 아주 작은 몫으로도 경작에 쓰인 자본을 메우기에 넉넉하였다. 그 자본은 흔히 갈지 않은 땅이 스스로 내놓는 것만으로 온전히 먹여 살려지는

비쩍 마른 가축 몇 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니, 그 가축은 따라서 땅이 스스로 내놓는 것의 한 몫으로 볼 수 있었다. 게다가 그것은 대체로 지주의 것이었고 지주가 땅을 붙이는 이들에게 미리 대어 준 것이었다. 생산물의 나머지 전부도 그의 토지에 대한 지대로서든 이 하찮은 자본에 대한 이윤으로서든 본디 그의 것이었다. 땅을 붙이는 이들은 대체로 예속민이어서 그 몸과 재물이 똑같이 그의 소유였다. 예속민이 아닌 이들은 임의 차지인이었다. 그들이 문 지대는 이름으로는 흔히 면역 지대(부역을 면하는 대신 무는 형식만의 지대)에 조금 더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그 토지의 생산물 전체에 이르렀다. 그들의 주인은 어느 때든 평시에는 그들의 노동을, 전시에는 그들의 봉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 그들이 그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그 집에서 사는 가솔과 똑같이 그에게 매여 있었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먹여 살리는 모든 이의 노동과 봉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토지의 생산물 전체가 의심할 것 없이 속한다. 오늘날 유럽의 형편에서는 지주의 몫이 토지 생산물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일이 드물고 더러는 4분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개량된 모든 지역에서 토지의 지대는 그 옛 시절 뒤로 세 배 네 배가 되었으므로,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이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전에는 전체였던 것보다 세 배 네 배 더 큰 듯하다. 개량이 나아가는 가운데 지대는 토지의 넓이에 대한 비율로는 늘어나지만 토지의 생산물에 대한 비율로는 줄어든다.

유럽의 넉넉한 나라들에서는 오늘날 큰 자본이 거래와 제조업에 쓰인다. 옛 상태에서는 오가던 얼마 안 되는 거래와 벌이던 몇 가지 소박하고 거친 제조업이 아주 작은 자본밖에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자본은 아주 큰 이윤을 내었을 것이다. 이자율은 어디서도 100분의 10보다 낮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윤은 이 큰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개량된 지역에서 이자율은 어디서도 100분의 6보다 높지 않고, 가장 많이 개량된 몇몇 곳에서는 100분의 4나 3이나 2까지 낮다. 주민의 수입 가운데 자산의 이윤에서 나오는 몫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언제나 훨씬 크지만, 그것은 자산이 훨씬 크기 때문이며, 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이윤이 대체로 훨씬 적다.

그러므로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그것이 땅에서든 생산적 노동자의 손에서든 나오는 즉시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는 몫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지대로든 이윤으로든 수입을 이루도록 곧바로 정해져 있는 몫에 견주어서도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한다. 생산적 노동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은 뒤의 나라보다 앞의 나라에서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일손이든 비생산적인 일손이든 먹여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으면서 대체로 뒤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자금에 견주어서도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 서로 다른 자금들 사이의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주민이 근면한가 게으른가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반드시 정한다. 우리가 우리 선조보다 더 근면한 것은, 오늘날에는 근면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이 게으름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기 쉬운 자금에 견주어 이삼백 년 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근면을 북돋우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 게을렀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노는 것이 낫다고 한다. 아랫자리 사람들이 주로 자본을 쓰는 데에서 먹여 살려지는 거래와 제조업의 도시에서는 그들이 대체로 근면하고 술을 삼가며 살림이 피어난다. 잉글랜드의 여러 도시와 네덜란드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다. 궁정이 늘 머무르거나 때때로 머무르는 것으로 주로 버티고, 아랫자리 사람들이 주로 수입을 쓰는 데에서 먹여 살려지는 도시에서는 그들이 대체로

게으르고 방탕하고 가난하다. 로마와 베르사유와 콩피에뉴와 퐁텐블로가 그렇다. 루앙과 보르도를 빼면 프랑스의 어느 고등법원 도시[2]에도 거래나 근면이 거의 없으며, 아랫자리 사람들은 주로 재판소의 구성원들과 그 앞에서 변론하러 오는 이들의 씀씀이로 먹여 살려지므로 대체로 게으르고 가난하다. 루앙과 보르도의 큰 거래는 온전히 그 자리가 낳은 결과인 듯하다. 루앙은 파리라는 큰 도시의 소비를 위하여 남의 나라에서든 프랑스의 바닷가 주에서든 실려 오는 거의 모든 물자가 모이는 중계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보르도도 마찬가지로 가론 강과 그 강으로 흘러드는 여러 강의 물가에서 자라는 포도주가 모이는 중계지이니,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포도주 고장의 하나이며 내보내기에 가장 알맞은, 곧 남의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포도주를 내놓는 듯하다. 그렇게 이로운 자리는 큰 자본에 큰 쓸자리를 내주므로 반드시 그것을 끌어들이며, 이 자본을 쓰는 것이 그 두 도시가 근면한 까닭이다. 프랑스의 다른 고등법원 도시에서는 저희들의 소비를 채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만큼보다 자본이 조금 더 쓰이는 데 그치는 듯하니, 곧 그곳에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본보다 조금 더한 데 그친다. 파리와 마드리드와 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세 도시 가운데 파리가 단연 가장 근면하나, 파리에 자리 잡은 모든 제조업의 주된 시장이 파리 자신이며, 파리가 벌이는 모든 거래의 주된 목표도 자신의 소비다. 런던과 리스본과 코펜하겐은 궁정이 늘 머무르는 곳이면서 동시에 거래하는 도시로, 곧 자신의 소비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의 소비를 위하여 거래하는 도시로 볼 수 있는, 아마 유럽에서 유일한 세 도시일 것이다. 이 셋의 자리는 다 몹시 이로워서, 먼 곳의 소비를 위하여 정해진 물자의 큰 몫이 모이는 중계지가 되기에 저절로 알맞다. 큰 수입이 쓰이는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소비를 채우는 것 말고 다른 목적으로 자본을 이롭게 쓰기가,

아랫자리 사람들이 그런 자본을 쓰는 데에서 얻는 것 말고는 다른 생계가 없는 도시에서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것이다. 수입을 쓰는 데에서 먹여 살려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게으른 것이 자본을 쓰는 데에서 먹여 살려져야 할 사람들의 근면을 썩히고,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보다 그곳에서 자본을 쓰는 것이 덜 이롭게 된다는 것이 있음직하다. 연합법[3] 전에 에든버러에는 거래나 근면이 거의 없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더 이상 그곳에서 모이지 않게 되고 그곳이 스코틀랜드의 주요 귀족과 지주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곳은 거래와 근면이 얼마쯤 있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곳은 여전히 스코틀랜드의 주요 재판소와 관세청과 소비세청 따위가 있는 곳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웬만한 수입이 여전히 그곳에서 쓰인다. 거래와 근면에서 그곳은 주민이 주로 자본을 쓰는 데에서 먹여 살려지는 글래스고보다 훨씬 못하다. 제조업에서 웬만큼 나아갔던 큰 마을의 주민이 큰 영주가 그 근방에 자리를 잡은 탓으로 게을러지고 가난해졌다는 것이 더러 눈에 띄었다.

그러므로 자본과 수입 사이의 비율이 어디서나 근면과 게으름 사이의 비율을 다스리는 듯하다. 자본이 앞서는 곳에서는 근면이 우세하고, 수입이 앞서는 곳에서는 게으름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자본이 늘거나 줄면 근면의 실제 양과 생산적인 일손의 수가, 따라서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교환 가치, 곧 모든 주민의 실질 부와 수입이 저절로 늘거나 주는 쪽으로 기운다.

자본은 절약으로 늘고 낭비와 잘못된 경영으로 줄어든다.

사람이 자기 수입에서 아끼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자본에 보태며, 그것을 스스로 써서 생산적인 일손을 더 많이 먹여 살리든가, 이자를 받고, 곧 이윤의 몫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자본이 그가 해마다의 수입이나 해마다의

벌이에서 아끼는 것으로만 늘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자본은, 그것은 사회를 이루는 모든 개인의 자본과 같은 것인데, 오직 같은 길로만 늘어날 수 있다.

자본이 늘어나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근면이 아니라 절약이다. 참으로 근면은 절약이 쌓아 두는 대상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근면이 무엇을 얻어 내더라도 절약이 아끼고 모아 두지 않는다면 자본은 조금도 커지지 않을 것이다.

절약은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을 늘림으로써, 그 노동이 들여진 대상의 가치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그 일손의 수를 늘리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교환 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근면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며, 그 근면이 해마다의 생산물에 가치를 더 얹어 준다.

해마다 아껴 두는 것도 해마다 써 버리는 것과 똑같이 어김없이 소비되며, 게다가 거의 같은 시간 안에 소비된다. 다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부자가 자기 수입 가운데 해마다 써 버리는 몫은 대개 게으른 손님과 집안 하인이 소비하며, 그들은 자기가 소비한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가 해마다 아끼는 몫은 이윤을 얻으려고 곧바로 자본으로 쓰이므로 같은 길로, 게다가 거의 같은 시간 안에 소비되나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것은 노동자와 제조업자와 수공업자가 소비하며, 그들은 자기가 해마다 소비한 것의 가치를 이윤과 함께 다시 낳는다. 그의 수입은 돈으로 치러진다고 해 두자. 그가 그것을 다 써 버렸다면 그 전부로 살 수 있었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 앞의 부류에게 나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얼마를 아끼면 그 몫은 이윤을 얻으려고 그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곧바로 자본으로

쓰므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 반드시 뒤의 부류를 위하여 남겨진다. 소비는 같으나 소비하는 사람은 다르다.

검약한 사람이 해마다 아끼는 것으로 그는 이듬해를 위하여 생산적인 일손을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구빈 작업장을 세운 사람처럼 앞으로 올 모든 시절에 같은 수를 먹여 살릴 이를테면 영구한 자금을 마련해 놓는다. 참으로 이 자금을 영구히 그 몫으로 떼어 그 쓸 곳을 정해 두는 일이 언제나 어떤 실정법이나 어떤 신탁 권리나 영구 양도 증서[4]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힘센 원리, 곧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언젠가 자기 것이 될 모든 개인의 뚜렷하고 또렷한 이익으로 언제나 지켜진다. 그 가운데 어느 몫도 뒤에 생산적인 일손 말고 다른 것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일 수 없으니, 그렇게 그것을 제자리에서 비틀어 놓는 사람에게 뚜렷한 손실이 돌아가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낭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비틀어 놓는다. 그는 자기 씀씀이를 수입 안에 가두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본을 파먹는다. 어떤 경건한 기부로 세운 재단의 수입을 속된 목적으로 비틀어 쓰는 사람처럼, 그는 선조의 검약이 이를테면 근면을 먹여 살리는 데 바쳐 놓았던 그 자금으로 게으름의 임금을 치른다. 생산적 노동을 부리도록 정해진 자금을 줄임으로써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달린 만큼, 그 노동이 들여진 대상에 가치를 보태는 그 노동의 양을, 따라서 나라 전체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 곧 그 주민의 실질 부와 수입을 반드시 줄인다. 어떤 이들의 낭비가 다른 이들의 검약으로 메워지지 않는다면, 낭비하는 사람마다 그 행실로 부지런한 이의 빵으로 게으른 이를 먹여 자기를 거지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낭비하는 사람의 씀씀이가 온전히 나라 안에서 만든 것에 대한 것이고 남의 나라 상품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생산적 자금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같다. 해마다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렸어야 할 일정한 양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여전히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러므로 해마다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되었을 것보다 여전히 얼마쯤 줄어들 것이다.

참으로 이 씀씀이는 남의 나라 물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을 내보내게 하지도 않으므로 같은 양의 돈이 전과 같이 나라 안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손이 소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양이 생산적인 일손에게 나뉘었다면, 그들은 자기가 소비한 것의 온전한 가치를 이윤과 함께 다시 낳았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같은 양의 돈이 똑같이 나라 안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같은 가치의 소비할 물자가 다시 생겼을 것이다. 하나 대신 둘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같은 양의 돈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다. 돈의 유일한 쓸모는 소비할 물자를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매개로 식료품과 재료와 완성된 일감이 사고 팔리고 저마다 알맞은 소비자에게 나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해마다 쓰일 수 있는 돈의 양은 그 안에서 해마다 돌려지는 소비할 물자의 가치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 물자는 그 나라 자신의 토지와 노동이 곧바로 내놓은 것이거나, 그 생산물의 얼마로 사들인 무엇이거나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물자의 가치는 그 생산물의 가치가 줄어드는 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와 더불어 그것을 돌리는 데 쓰일 수 있는 돈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산물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어 나라 안의 돌음에서 해마다 밀려나는 돈이 놀도록 내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든 그 이익이 그것을 쓰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쓸자리가 없으므로 그것은 온갖 법과 금령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 나라 안에서 얼마쯤 쓸모가 있을 소비할 물자를 사는 데 쓰일 것이다. 그것이 해마다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여, 얼마 동안은 그 나라 자신의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를 넘어서 그 나라의 해마다의 소비에 무엇인가를 계속 보태 줄 것이다. 번성하던 날에 그 해마다의 생산물에서 아껴 금과 은을 사는 데 쓰였던 것이 얼마 동안은 궁하게 된 때의 소비를 떠받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금과 은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 나라가 기울어 가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더구나 얼마 동안은 그 기울어 감의 괴로움을 덜어 줄 수도 있다.

거꾸로 어느 나라에서나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가 늘어나는 대로 돈의 양도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 안에서 해마다 돌려지는 소비할 물자의 가치가 더 커지면 그것을 돌리는 데 더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어난 생산물의 한 몫이 나머지를 돌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금과 은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것을 더 사들이는 데 저절로 쓰일 것이다. 이 경우에 그 금속이 늘어나는 것은 나라가 번성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일 것이다. 금과 은은 어디서나 같은 길로 사들여진다. 그것을 광산에서 시장까지 가져오는 데 자기 노동이나 자산이 쓰이는 모든 이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 곧 그들의 수입과 생계가 페루에서나 잉글랜드에서나 그것에 치러지는 값이다.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자기에게 쓸 일이 있는 그 금속의 양이 없이 오래 지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어느 나라도 자기에게 쓸 일이 없는 양을 오래 쥐고 있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실질 부와 수입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든, 곧 소박한 이치가 가리키는 듯한 대로 그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든 속된 편견이 여기는 대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귀금속의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든, 그 어느 쪽으로 이 일을 보아도 낭비하는 사람마다 공공의 원수로 보이고 검약한 사람마다 공공의 은인으로 보인다.

잘못된 경영의 효과는 흔히 낭비의 효과와 같다. 농업에서든 광산에서든 어업에서든 거래에서든 제조업에서든 슬기롭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업마다 같은 길로 생산적 노동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을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런 사업마다 자본이 생산적인 일손만 소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쓰이는 슬기롭지 못한 꼴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소비한 것의 온전한 가치를 다시 낳지 못하므로,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회의 생산적 자금이 되었을 것에 반드시 얼마쯤 줄어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으로 큰 나라의 형편이 개인의 낭비나 잘못된 경영으로 크게 흔들리는 일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다. 어떤 이들이 헤프고 무분별한 것은 다른 이들의 검약과 좋은 행실로 언제나 넉넉히 메워지고도 남기 때문이다.

헤픔에 대하여 말하자면, 씀씀이로 몰아가는 원리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바라는 정념이다. 이 정념은 더러 거세고 누르기가 몹시 어렵기도 하나 대체로 잠깐뿐이고 어쩌다 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끼도록 몰아가는 원리는 우리 형편을 낫게 하려는 욕망이니, 이 욕망은 대체로 차분하고 정념에 물들지 않으나 우리가 어미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두 순간을 가르는 온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처지에 그토록 온전하고 빈틈없이 만족하여 어떤 갈래의 바꿈이나 나아짐도 바라지 않는 일은 아마 한 가지 보기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 대부분이 자기 형편을 낫게 하려고 생각하고 바라는

수단이다. 그것은 가장 속되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수단이며, 자기 재산을 늘리는 가장 있음직한 길은 자기가 얻는 것의 얼마를 어김없이 해마다든 무슨 유별난 기회에든 아껴 모으는 것이다. 그러므로 씀씀이의 원리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기회에,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거의 모든 기회에 우세하기는 하나, 사람 대부분에게서는 그 한평생을 고르게 보아 검약의 원리가 우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우세한 듯하다.

잘못된 경영에 대하여 말하자면, 슬기롭고 성공한 사업의 수가 어디서나 슬기롭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업의 수보다 훨씬 많다. 파산이 잦다고 우리가 그토록 한탄하지만, 이 불운에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은 거래와 그 밖의 온갖 갈래의 생업에 몸담은 전체 수 가운데 아주 작은 몫에 지나지 않으니 아마 천에 하나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파산은 아마 죄 없는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낯을 깎는 재난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대부분은 그것을 피하려고 웬만큼 조심한다. 참으로 더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데, 어떤 이들이 교수대를 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큰 나라는 개인의 낭비와 잘못된 경영으로 가난해지는 일이 결코 없으나 나라의 낭비와 잘못된 경영으로는 더러 가난해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입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 수가 많고 화려한 궁정을 이루는 사람들, 큰 교회 조직, 큰 함대와 군대가 그러하니, 이들은 평시에는 아무것도 낳지 않고 전시에는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조차 저들을 먹여 살리는 데 든 비용을 메울 만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낳지 않으므로 모두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 내놓은 것으로 먹여 살려진다. 그러므로 그 수가 필요를 넘어서 불어나면 그들은 어느 특정한 해에 이 생산물의 몫을 그토록 많이 소비하여, 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낳아야 할 생산적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것을 남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해의 생산물은 그 앞해의 것보다 적어질 것이고, 같은 어지러움이 이어진다면 셋째 해의 것은 둘째 해의 것보다 더욱 적어질 것이다. 백성의 남는 수입 가운데 일부로만 먹여 살려져야 할 그 비생산적인 일손이 그들의 수입 전체의 몫을 그토록 많이 소비하여, 그토록 많은 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본, 곧 생산적 노동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을 파먹게 만들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거칠고 억지스러운 파먹음이 일으킨 생산물의 허비와 깎임을 개인의 검약과 좋은 행실을 다 모아도 메울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험으로 보건대 이 검약과 좋은 행실은 대개의 경우 개인의 사사로운 낭비와 잘못된 경영만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인 헤픔까지 메우기에 넉넉하다. 자기 형편을 낫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벌이는 한결같고 끊임없고 그침 없는 애씀은 공공과 나라의 넉넉함도 사사로운 넉넉함과 마찬가지로 본디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이니, 그것은 정부의 헤픔과 행정의 가장 큰 잘못을 다 무릅쓰고도 사물이 나아짐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걸음을 지켜 내기에 흔히 넉넉히 힘세다. 알 수 없는 동물 생명의 원리가 병만이 아니라 의사의 터무니없는 처방까지 무릅쓰고 몸에 건강과 힘을 흔히 되돌려 주는 것과 같다.

어느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은 그 생산적 노동자의 수를 늘리든가 이미 부려지고 있던 그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키우든가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길로도 그 가치를 늘릴 수 없다. 그 생산적 노동자의 수는 자본, 곧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이 늘어난 결과로가 아니고는 크게 늘어날 수 없음이 뚜렷하다. 같은 수의 노동자의 생산력은 노동을 쉽게 하고 줄여 주는 그 기계와 도구에 무엇이 보태지고 그것이 나아지든가, 일을 더 알맞게 갈라 나누어 맡기든가 하는 결과로가 아니고는 커질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자본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 거의 언제나다. 어떤 일을 벌인 사업가가 자기

일꾼에게 더 나은 기계를 마련해 주거나 그들 사이에 일을 더 알맞게 갈라 맡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본이 더 있음으로써다. 해야 할 일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사람마다 줄곧 한 가지 일에만 붙어 있게 하려면, 사람마다 그 일의 여러 부분을 번갈아 맡는 경우보다 훨씬 큰 자본이 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의 형편을 서로 다른 두 시기에 견주어 보아 그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이 뒤의 시기에 앞의 시기보다 뚜렷이 크고 그 토지가 더 잘 갈리고 그 제조업이 더 여러 가지가 되고 더 번창하고 그 거래가 더 넓어졌음을 알게 된다면, 그 두 시기 사이에 그 나라의 자본이 늘어났음을, 또 어떤 이들의 좋은 행실이 거기에 보탠 것이 다른 이들의 사사로운 잘못된 경영이나 정부의 공적인 헤픔이 거기에서 뺀 것보다 많았음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모든 시절에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장 슬기롭고 가장 절약하는 정부를 누리지 못한 나라조차 그러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서로 얼마쯤 떨어진 시기의 나라 형편을 견주어 보아야 한다. 나아감이 흔히 그토록 더디므로 가까운 시기에는 나아짐이 눈에 띄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가 크게 번성하고 있는데도 더러 일어나는 일로 산업의 어떤 갈래나 나라의 어떤 지역이 기울어 가는 것 때문에 전체의 부와 근면이 썩어 가고 있다는 의심이 흔히 일어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은 한 세기가 조금 넘는 전, 곧 찰스 2세의 왕정복고[5] 때보다 오늘날 틀림없이 훨씬 크다. 오늘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적으리라고 나는 믿지만, 그런데도 이 사이에 다섯 해가 지나도록 나라의 부가 빠르게 기울고 있으며 고장의 사람이 줄고 농업이 버려지고 제조업이 썩어 가고 거래가 망가졌음을 밝히려는,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쯤 권위를 얻을 만한 솜씨로 쓰인 책이나 소책자가 나오지 않은 일이 좀처럼 없었다. 또 그런

글이 다 거짓과 돈에 팔림이 낳은 딱한 자식인 당파의 소책자였던 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아주 숨김없고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이 썼으며,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을 썼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썼다.

또 잉글랜드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은 왕정복고 때에, 그보다 백 년쯤 전인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른 때에 그러하였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틀림없이 훨씬 컸다. 이 시기에도 그 나라는 그보다 한 세기쯤 전, 곧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사이의 다툼이 끝나 갈 무렵보다 개량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고 믿을 만한 온갖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그때에도 그 나라는 아마 노르만 정복 때보다 나은 형편이었을 것이고, 노르만 정복 때에는 색슨 칠왕국의 어지러움 속에서보다 나은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 이른 시기에도 그 나라는 주민이 북아메리카의 미개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입 때보다 틀림없이 더 개량된 나라였다.[6]

그렇지만 그 시기마다 사사로이도 공적으로도 헤픔이 많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도 않은 전쟁이 많았고, 해마다의 생산물이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에서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크게 비틀렸을 뿐만 아니라, 더러는 내란의 어지러움 속에서 자산이 그토록 온전히 허비되고 무너져 부가 저절로 쌓이는 것을 더디게 하였다고 볼 만한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시기가 끝날 때 그 나라를 시작할 때보다 더 가난하게 남겨 놓았다고 볼 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운이 좋았던 시기, 곧 왕정복고 뒤로 흘러온 시기에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 나라가 가난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망하리라고 여겨졌을 어지러움과 불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가. 런던의 화재와 흑사병, 두 차례의 네덜란드 전쟁, 명예혁명의 어지러움, 아일랜드의 전쟁, 1688년과 1701년과 1742년과

1756년에 벌어진 비용이 많이 든 네 차례의 프랑스 전쟁, 그리고 1715년과 1745년의 두 차례 반란이 그것이다.[7] 네 차례의 프랑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라는 그 전쟁이 불러온 그 밖의 온갖 유별난 해마다의 비용 말고도 145,000,000파운드가 넘는 빚을 짊어졌으니,[8] 그리하여 전체는 200,000,000파운드보다 적게 셈할 수 없다. 명예혁명 뒤로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그토록 큰 몫이 여러 기회에 유별나게 많은 수의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다. 그러나 그 전쟁들이 그토록 큰 자본에 이 특정한 방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대부분은 저절로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을 것이며, 그 일손의 노동이 자기가 소비한 것의 온전한 가치를 이윤과 함께 메웠을 것이다.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가치가 그로써 해마다 웬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해마다 늘어난 것이 그 이듬해의 늘어남을 더욱더 키웠을 것이다. 집이 더 많이 지어졌을 것이고 땅이 더 많이 개량되었을 것이며 전에 개량된 땅은 더 잘 갈렸을 것이고, 제조업이 더 많이 자리 잡았을 것이며 전에 자리 잡은 제조업은 더 넓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실질 부와 수입이 이제쯤 어느 높이까지 올라 있을 수 있었을지는 아마 떠올려 보기조차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헤픔이 잉글랜드가 부와 개량을 향하여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틀림없이 더디게 하였을 터이나, 그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은 왕정복고 때보다도 명예혁명 때보다도 오늘날 틀림없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갈고 이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 해마다 쓰이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훨씬 커야 한다. 정부의 온갖 뜯어냄 가운데서도 이 자본은 개인의 사사로운 검약과 좋은 행실로, 곧 자기 형편을 낫게 하려는 그들의 보편되고 끊임없고 그침 없는 애씀으로 조용히 차츰 쌓였다.

법이 지켜 주고 자유가 가장 이로운 꼴로 스스로 펼쳐지도록 허락한 이 애씀이 지난 거의 모든 시절에 잉글랜드가 넉넉함과 개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지켜 왔으며, 앞으로 올 모든 시절에도 그러하기를 바랄 만하다. 그렇지만 잉글랜드가 아주 절약하는 정부의 복을 누린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약이 그 주민의 두드러진 덕이었던 때도 없었다. 그러므로 국왕과 대신이 사사로운 사람들의 살림을 지켜보겠다고 나서서 사치 금지법[9]으로든 남의 나라 사치품을 들여오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든 그들의 씀씀이를 억누르려 하는 것은 가장 심한 무람없음이고 건방짐이다. 그들 자신이야말로 언제나, 아무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크게 돈을 흩뿌리는 자들이다. 그들이 자기 씀씀이를 잘 살피게 하고, 사사로운 사람들의 씀씀이는 안심하고 그들에게 맡겨 두게 하라. 그들 자신의 헤픔이 나라를 망치지 않는다면 신하들의 헤픔이 나라를 망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검약이 나라의 자본을 늘리고 낭비가 그것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쌓지도 파먹지도 않고 씀씀이가 수입과 딱 맞먹는 사람들의 행실은 그것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어떤 갈래의 씀씀이는 다른 갈래보다 나라의 넉넉함이 자라는 데 더 많이 이바지하는 듯하다.

개인의 수입은 곧바로 소비되어 어느 하루의 씀씀이가 다른 하루의 씀씀이를 덜어 주지도 떠받쳐 주지도 못하는 것에 쓰일 수도 있고, 더 오래가서 쌓아 둘 수 있고 날마다의 씀씀이가 그가 고르는 대로 그 이듬날의 씀씀이가 낼 효과를 덜어 주거나 떠받쳐 주고 높여 줄 수 있는 것에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수입을 헤프고 호화로운 식탁과 많은 수의 집안 하인과 수많은 개와 말을 거느리는 데 쓸 수도 있고, 검약한 식탁과 적은 수의 시종으로 만족하면서 그 대부분을 자기 집이나 시골 별장을 꾸미는 데, 쓸모 있거나 보기 좋은 건물에, 쓸모 있거나 보기 좋은 가구에, 책과 조각과 그림을 모으는 데,

또는 더 하찮은 것, 곧 패물과 노리개와 온갖 갈래의 재주 부린 자잘한 물건에, 또는 무엇보다 가장 대단찮은 것, 곧 몇 해 전에 죽은 어느 큰 군주의 총신이자 대신처럼 좋은 옷을 가득 채운 큰 옷장을 모으는 데 들일 수도 있다. 재산이 같은 두 사람이 자기 수입을 하나는 주로 이 길로, 다른 하나는 주로 저 길로 쓴다고 하면, 오래가는 상품에 주로 씀씀이를 들인 사람의 화려함은 날마다의 씀씀이가 그 이듬날의 씀씀이가 낼 효과를 떠받치고 높이는 데 무엇인가를 보태므로 줄곧 늘어갈 것이다. 거꾸로 다른 한 사람의 화려함은 그 기간이 끝날 때에도 시작할 때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앞의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날 때 둘 가운데 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게는 든 값어치를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나 무엇인가 값어치가 있을, 어떤 갈래의 물자로 된 자산이 남는다. 뒤의 사람의 씀씀이는 아무 자취도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고, 열 해나 스무 해의 헤픔이 낸 효과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온전히 스러져 없어질 것이다.

한쪽 갈래의 씀씀이가 개인의 넉넉함에 다른 쪽보다 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넉넉함에도 그러하다. 부자의 집과 가구와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랫자리와 가운뎃자리 사람들에게 쓸모 있게 된다. 윗사람들이 그것에 싫증이 나면 그들은 그것을 살 수 있으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갈래의 씀씀이가 널리 퍼지면 온 백성이 두루 누리는 편의가 이렇게 차츰 나아진다. 오래 부유하였던 나라에서는 아랫자리 사람들이 아주 좋고 온전한 집과 가구를 둘 다 가지고 있으나 그 집은 그들이 쓰도록 지어진 것일 수 없고 그 가구도 그들이 쓰도록 만들어진 것일 수 없는 일을 흔히 보게 될 것이다. 전에 시머 가문의 저택이었던 것이 이제 배스로 가는 길가의 여관이다. 영국의 제임스 1세의 혼인 침대는 그 왕비가 주권자가 주권자에게 주기에 알맞은 선물로 덴마크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10] 몇 해 전에 던펌린의 어느

술집을 꾸미는 물건이었다.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거나 얼마쯤 기울어 간 몇몇 옛 도시에서는 오늘날의 주민을 위하여 지어졌을 수 있는 집을 한 채도 좀처럼 찾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쓰기에 아주 알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리가 그만큼 없는, 훌륭하지만 낡은 가구를 많이 흔히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한 궁전과 화려한 별장과 책과 조각과 그림과 그 밖의 진귀한 것을 크게 모아 놓은 것은 흔히 그 근방에만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나라 전체에 꾸밈이자 명예가 된다. 베르사유는 프랑스에 꾸밈이자 명예이고 스토와 윌턴은 잉글랜드에 그렇다. 이탈리아는 그것을 낳은 부가 썩어 없어지고 그것을 꾀한 재주가 꺼져 버린 듯하지만, 아마 같은 쓸자리를 갖지 못한 탓일 터인데, 그것이 지닌 이 갈래의 기념물이 많은 것으로 여전히 얼마쯤의 우러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오래가는 상품에 들이는 씀씀이는 쌓임에만이 아니라 검약에도 이롭다. 어떤 사람이 언제든 그 씀씀이가 지나쳤다면, 그는 사람들의 꾸지람을 사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다. 하인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것, 식탁을 크게 헤픈 것에서 크게 검약한 것으로 고치는 것, 한번 갖춘 거마를 내려놓는 것은 이웃의 눈을 벗어날 수 없는 바꿈이며, 앞서의 나쁜 행실을 얼마쯤 시인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번 이 갈래의 씀씀이에 너무 멀리 나가는 불운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망함과 파산이 그를 억지로 몰아세우기 전에 고칠 용기를 뒤에 내는 이는 적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언제든 건물이나 가구나 책이나 그림에 너무 큰 씀씀이를 하였다면, 그가 행실을 바꾸는 것에서 무분별을 짐작할 수는 없다. 이런 것에서는 앞서의 씀씀이 때문에 더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일이 흔하며, 어떤 사람이 문득 그치면 그는 자기 재산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든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오래가는 상품에 들이는 씀씀이는 가장 헤픈 손님 대접에 쓰이는 씀씀이보다 흔히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 큰 잔치에서 더러 차려 내는 이삼백 헌드레드웨이트의 식료품 가운데 아마 절반은 거름더미에 던져지며, 언제나 아주 많은 것이 허비되고 잘못 쓰인다. 그러나 이 잔치에 든 씀씀이가 석공과 목수와 실내 장식장이와 기계공 따위를 일 시키는 데 쓰였다면, 같은 가치의 식료품이 더욱 많은 수의 사람에게 나뉘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한 푼어치씩 한 파운드(무게)씩 사서 한 온스도 잃거나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한쪽 길로는 이 씀씀이가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고 다른 쪽 길로는 비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한쪽 길로는 그것이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교환 가치를 늘리고, 다른 쪽 길로는 늘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말로 내가 한쪽 갈래의 씀씀이가 다른 쪽보다 언제나 더 너그럽거나 더 큰 마음을 보여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기 수입을 주로 손님 대접에 쓸 때 그는 그 대부분을 벗들과 동무들과 함께 나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오래가는 상품을 사는 데 쓸 때 그는 흔히 그 전부를 자기 한 몸에 쓰고 그에 맞먹는 것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의 갈래의 씀씀이는 특히 하찮은 것, 곧 옷과 가구의 자잘한 꾸밈이나 패물이나 노리개나 값싼 장식물로 향할 때에 대단찮은 마음만이 아니라 낮고 제 것만 챙기는 마음까지 흔히 드러낸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한쪽 갈래의 씀씀이가 값어치 있는 상품을 얼마쯤 쌓게 하고 사사로운 검약에, 따라서 나라의 자본이 늘어나는 데 더 이로우며 비생산적인 일손보다 생산적인 일손을 먹여 살리므로, 다른 쪽보다 나라의 넉넉함이 자라는 데 더 많이 이바지한다는 것뿐이다.

4장 —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산에 대하여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자산은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본으로 여겨진다. 그는 때가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그동안 빌린 사람이 그것을 쓴 값으로 해마다 일정한 세를 자기에게 치를 것을 바란다. 빌린 사람은 그것을 자본으로 쓸 수도 있고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으로 쓸 수도 있다. 그것을 자본으로 쓰면 그는 그것을 생산적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데 쓰고, 그 노동자들이 그 가치를 이윤과 함께 다시 낳는다. 이 경우에 그는 다른 어떤 수입의 샘을 떼어 내거나 파먹지 않고도 자본을 되돌려 주고 이자를 치를 수 있다. 그것을 당장 쓰려고 남겨 둔 자산으로 쓰면 그는 낭비하는 사람의 노릇을 하는 것이어서 부지런한 이를 떠받치도록 정해져 있던 것을 게으른 이를 먹여 살리는 데 흩어 버린다. 이 경우에 그는 토지의 소유나 토지의 지대 같은 다른 어떤 수입의 샘을 떼어 내거나 파먹지 않고는 자본을 되돌려 줄 수도 이자를 치를 수도 없다.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자산은 틀림없이 이 두 길로 다 쓰이는 일이 더러 있으나, 뒤의 길보다 앞의 길로 훨씬 더 잦게 쓰인다. 쓰려고 빌리는 사람은 곧 망할 것이고 그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어리석음을 뉘우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목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심한 고리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경우에 두 편의 이익에 어긋난다. 또 사람들이 이쪽도 저쪽도 하는 일이 틀림없이 더러 일어나기는 하나,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살피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더러 여기기 쉬운 만큼 아주 잦게 일어날 수는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웬만큼 슬기로운 부자에게 아무나 붙잡고, 이롭게 쓸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게으르게 써 버릴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에 자기 자산의 더 큰 몫을 빌려주었느냐고 물어 보라. 그는 그런 물음을

내놓았다고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약으로 세상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들이라 할 수 없는 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검약하고 부지런한 이의 수가 낭비하고 게으른 이의 수를 웬만큼 넘어선다.

자산을 빌려줄 때 그것을 아주 이롭게 쓸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저당을 잡히고 빌리는 시골 지주들이다. 그들조차 그저 쓰려고 빌리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들이 빌리는 것은 빌리기 전에 이미 써 버린 것이 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가게 주인과 장사꾼이 외상으로 대어 준 물자를 대체로 그토록 많이 소비하여, 그 빚을 치르려고 이자를 물고 빌리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일임을 알게 된다. 빌린 자본은 시골 지주들이 자기 땅의 지대에서는 메울 수 없었을 그 가게 주인과 장사꾼의 자본을 메운다. 그것은 제대로 말하면 쓰려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써 버린 자본을 메우려고 빌리는 것이다.

이자를 물고 빌리는 것은 거의 모두 종이돈으로든 금과 은으로든 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빌리는 사람이 실제로 바라는 것,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이 선선히 그에게 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의 값어치, 곧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물자다. 그가 그것을 당장 쓸 자산으로 바란다면 그가 그 자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물자뿐이다. 그가 그것을 근면을 부릴 자본으로 바란다면, 부지런한 이들이 자기 일을 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와 재료와 생계를 마련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물자에서뿐이다. 빌려줌을 매개로 빌려주는 사람은 이를테면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내놓는 해마다의 생산물의 일정한 몫에 대한 자기 권리를,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쓰도록 그에게 넘겨준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자산의 양, 곧 흔히 말하는 대로 돈의 양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빌려줌의 도구로 쓰이는 종이돈이나 주화의 가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그것이 땅에서든 생산적 노동자의 손에서든

나오는 즉시 자본을 메우도록, 게다가 그 임자가 스스로 부리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는 몫의 가치로 정해진다. 그런 자본은 흔히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되받으므로 이른바 화폐 이해를 이룬다. 그것은 토지의 이해와도 다르고 거래와 제조업의 이해와도 다르니, 뒤의 둘에서는 임자들 자신이 자기 자본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화폐 이해에서도 돈은 이를테면 양도 증서일 뿐이며, 임자들이 스스로 부리고 싶지 않은 그 자본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겨준다. 그 자본은 그것을 넘기는 도구로 쓰이는 돈의 액수보다 거의 어떤 비율로든 더 클 수 있다. 같은 돈 조각이 여러 다른 사들임에 잇달아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빌려줌에도 잇달아 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W에게 1000파운드를 빌려주고 W는 그 돈으로 곧 B에게서 1000파운드어치의 물자를 산다. B는 자기가 그 돈을 쓸 일이 없으므로 같은 조각을 X에게 빌려주고, X는 그 돈으로 곧 C에게서 또 1000파운드어치의 물자를 산다. C도 같은 꼴로 같은 이유로 그것을 Y에게 빌려주고, Y는 다시 그 돈으로 D에게서 물자를 산다. 이렇게 하여 주화든 종이돈이든 같은 조각이 며칠 사이에 세 가지 다른 빌려줌과 세 가지 다른 사들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가치로는 그 조각들의 액수 전체와 맞먹는다. 돈을 가진 세 사람 A와 B와 C가 빌리는 세 사람 W와 X와 Y에게 넘겨준 것은 그 사들임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에 그 빌려줌의 가치와 쓸모가 다 들어 있다. 돈을 가진 세 사람이 빌려준 자산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물자의 가치와 맞먹으며, 그 사들임이 이루어지는 데 쓰인 돈의 가치보다 세 배 크다. 그렇지만 그 빌려줌은 다 아주 잘 담보될 수 있으니, 여러 빚진 이들이 산 물자가 때가 되면 주화든 종이돈이든 같은 가치를 이윤과 함께 되가져오도록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돈 조각이 이렇게 그 가치의 세 배, 또는 같은 이유로 서른 배에 이르는 여러 빌려줌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되갚음의 도구로도 잇달아 쓰일 수 있다.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본은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웬만큼 큰 일정한 몫을 넘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 대신 빌린 사람이 빌려줌이 이어지는 동안 해마다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라 불리는 작은 몫을 넘겨주고, 그것이 끝날 때에는 처음 자기에게 넘겨졌던 것과 똑같이 큰 몫을 되갚음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넘겨준다는 조건이 붙는다. 주화든 종이돈이든 돈이 작은 몫에도 더 큰 몫에도 대체로 양도 증서 노릇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넘겨지는 것과는 온전히 다르다.

해마다의 생산물 가운데 그것이 땅에서든 생산적 노동자의 손에서든 나오는 즉시 자본을 메우도록 정해져 있는 몫이 어느 나라에서 늘어나는 대로 이른바 화폐 이해도 그와 함께 저절로 늘어난다. 임자들이 스스로 부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그 특정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자본이 전체로 늘어나는 것에 저절로 따라붙는다. 달리 말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대로 이자를 받고 빌려줄 자산의 양도 차츰 더욱더 커진다.

이자를 받고 빌려줄 자산의 양이 늘어나는 대로 이자, 곧 그 자산을 쓴 값으로 치러야 하는 값이 반드시 줄어든다. 이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 흔히 그 시장 가격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 일반적인 원인 때문만이 아니라, 이 특정한 경우에만 있는 다른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에서든 자본이 늘어나면 그것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반드시 줄어든다. 새 자본을 이롭게 부릴 길을 나라 안에서 찾기가 차츰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 결과로 여러 자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한쪽 임자가 다른 쪽이 차지하고 있는 그 쓸자리를 손에 넣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그가 그 다른 쪽을 그 쓸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으리라고

바랄 수 있는 길은 더 무리 없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말고 없다. 그는 자기가 다루는 것을 얼마쯤 더 헐하게 팔아야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더러 그것을 더 비싸게 사야 하기도 한다. 생산적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것을 먹여 살리도록 정해진 자금이 늘어남으로써 날마다 더욱더 커진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쉽게 찾으나 자본의 임자는 일 시킬 노동자를 얻기가 어렵다. 그들의 다툼이 노동의 임금을 올리고 자산의 이윤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자본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이렇게 이를테면 양쪽 끝에서 줄어들면, 그것을 쓴 값으로 치를 수 있는 값, 곧 이자율도 그와 함께 반드시 줄어든다.

로크 씨와 로 씨와 몽테스키외 씨는 다른 많은 저술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령 서인도가 발견된 결과로 금과 은의 양이 늘어난 것이 유럽 대부분에서 이자율이 낮아진 진짜 원인이라고 여긴 듯하다.[11] 그 금속 자체의 가치가 낮아졌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특정한 몫을 쓰는 것의 가치도, 따라서 그것에 치를 수 있는 값도 반드시 낮아졌다고 그들은 말한다. 언뜻 보아 그토록 그럴듯한 이 생각은 흄 씨가 그토록 온전히 벗겨 놓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의 아주 짧고 소박한 논의가 그 분들을 잘못 이끈 듯한 그 헛됨을 더 또렷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페인령 서인도가 발견되기 전에는 유럽 대부분에서 100분의 10이 흔한 이자율이었던 듯하다. 그 뒤로 여러 나라에서 그것은 100분의 6과 5와 4와 3으로 떨어졌다. 나라마다 은의 가치가 이자율과 딱 같은 비율로 떨어졌다고, 그리하여 예를 들어 이자가 100분의 10에서 5로 낮아진 나라에서는 같은 양의 은으로 이제 전에 살 수 있었던 물자의 딱 절반만 살 수 있다고 해 두자. 이 가정이 어디서도 사실에 맞는다고 밝혀지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려는 견해에 가장 이로운 가정이다. 그런데 이 가정 위에서조차 은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 수는 도무지 없다. 그 나라들에서 이제 100파운드가 그때 50파운드가 가졌던 가치보다 더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10파운드는 그때 5파운드가 가졌던 가치보다 더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자본의 가치를 낮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같은 원인이 이자의 가치도 반드시 낮추었을 터이며, 더구나 딱 같은 비율로 낮추었을 것이다. 자본의 가치와 이자의 가치 사이의 비율은 그 율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거꾸로 그 율을 바꾸면 그 두 가치 사이의 비율이 반드시 바뀐다. 이제 100파운드가 그때 50파운드보다 더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5파운드는 그때 2파운드 10실링보다 더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을 100분의 10에서 5로 낮추면 우리는 전의 가치의 절반과 맞먹는다고 가정된 자본을 쓴 값으로 전의 이자의 가치의 4분의 1과 겨우 맞먹는 이자를 주는 셈이다.

은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매개로 돌려지는 상품의 양은 그대로였다면, 그 금속의 가치를 낮추는 것 말고 다른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없었다. 온갖 갈래의 물자의 명목 가치는 더 커지겠으나 그 실질 가치는 전과 딱 같았을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수의 은 조각과 맞바뀌겠으나 그것이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 그것이 먹여 살리고 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딱 같았을 것이다. 그 나라의 자본은, 그 가운데 어느 같은 몫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기는 데 더 많은 수의 조각이 필요하였을지라도 그대로였을 것이며, 양도 증서는 말이 많은 대서인이 쓴 증서처럼 더 거추장스러워지겠으나 그것으로 넘겨지는 것은 전과 딱 같아서 같은 효과밖에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생산적 노동을 먹여 살릴 자금이 그대로이므로 그것에 대한 수요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값, 곧 임금은 이름으로는 더 커지더라도 실제로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것은 더 많은 수의 은 조각으로 치러지겠으나 같은 양의 물자밖에 사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산의 이윤은 이름으로도

실제로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노동의 임금은 흔히 노동자에게 치러지는 은의 양으로 셈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늘어나면 그의 임금이 늘어난 듯이 보이지만 더러 전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이윤은 그것을 치르는 데 쓰인 은 조각의 수로 셈하지 않고 그 조각이 쓰인 자본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셈한다. 그리하여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한 주에 5실링이 노동의 흔한 임금이고 100분의 10이 자산의 흔한 이윤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자본 전체가 전과 같은데 그것이 갈라져 있는 여러 개인의 자본 사이의 다툼도 마찬가지로 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같은 이로움과 이롭지 못함을 안고 거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이윤 사이의 흔한 비율은 그대로일 것이고, 따라서 돈의 흔한 이자도 그대로일 것이다. 돈을 쓴 값으로 흔히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씀으로써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스려진다.

거꾸로 그 나라 안에서 해마다 돌려지는 상품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돌리는 돈의 양은 그대로였다면,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 말고도 다른 여러 중요한 효과를 낼 것이다. 그 나라의 자본은 이름으로는 그대로일지라도 실제로는 늘어날 것이며, 여전히 같은 양의 돈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부릴 것이다. 그것이 먹여 살리고 일 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동의 양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그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 임금은 수요와 함께 저절로 오르겠으나 그래도 떨어진 듯이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더 적은 양의 돈으로 치러질 수 있으나 그 더 적은 양이 전에 더 많은 양이 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의 이윤은 실제로도 보기에도 줄어들 것이다. 그 나라의 자본 전체가 늘어났으므로 그것을 이루는 여러 자본 사이의 다툼도 그와 함께 저절로 늘어나고, 그 특정한 자본의 임자들은 저마다의 자본이 일 시킨 그 노동이 내놓은 생산물 가운데 더 작은 몫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돈의 이자는 언제나 자산의 이윤과

걸음을 맞추므로, 돈의 가치, 곧 어느 특정한 액수로 살 수 있는 물자의 양이 크게 늘어났더라도 이렇게 하여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돈의 이자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돈을 씀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어디서나 그것을 쓴 값으로 무엇인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경험으로 보건대 이 규정은 고리대의 해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키운다는 것이 드러났다. 빚진 사람은 돈을 쓴 값만이 아니라 그 씀에 대한 보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빚 준 사람이 무릅쓰는 위험에 대하여도 치러야 하므로,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빚 준 사람을 고리대에 대한 벌에서 건져 줄 보험을 들어 주어야 하는 셈이다.

이자가 허락된 나라에서는 법이 고리대의 뜯어냄을 막으려고 벌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율을 대체로 정해 놓는다. 이 율은 언제나 가장 낮은 시장 가격, 곧 가장 의심할 것 없는 담보를 내놓을 수 있는 이들이 돈을 쓴 값으로 흔히 치르는 값보다 얼마쯤 높아야 마땅하다. 이 법정 율이 가장 낮은 시장 율보다 낮게 정해진다면, 그렇게 못 박은 것이 낼 효과는 이자를 아예 금하는 것의 효과와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빚 준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의 값어치보다 적게 받고서는 자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빚진 사람은 그 씀의 온전한 값어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무릅쓰는 위험에 대하여 그에게 치러야 한다. 그것이 가장 낮은 시장 가격에 딱 맞추어 정해진다면, 그것은 자기 나라의 법을 우러르는 정직한 사람들과 더불어, 가장 좋은 담보를 내놓을 수 없는 모든 이의 신용을 망가뜨려 그들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매달리게 만든다. 돈을 정부에는 100분의 3으로, 사사로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담보를 잡고 100분의 4나 4와 2분의 1로 빌려주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날의 법정 율인 100분의 5가 아마 다른 어느 것만큼이나 알맞다.

법정 율은 가장 낮은 시장 율보다 얼마쯤 높아야 마땅하기는 하나 크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법정 이자율이 100분의 8이나 10만큼 높게 정해진다면, 빌려줄 돈의 대부분이 낭비하는 사람과 사업 기획자에게 빌려질 것이니 그들만이 이 높은 이자를 줄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쓴 값으로 그것을 씀으로써 자기가 얻을 만한 것의 일부밖에 주지 않을 착실한 사람들은 그 다툼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자본의 큰 몫이 그것을 이롭고 유익하게 쓸 가망이 가장 큰 손에서 빠져나와, 그것을 허비하고 무너뜨릴 가망이 가장 큰 손에 던져질 것이다. 거꾸로 법정 이자율이 가장 낮은 시장 율보다 아주 조금만 높게 정해진 곳에서는 착실한 사람들이 빌리는 이로서 낭비하는 사람과 사업 기획자보다 두루 더 낫게 여겨진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뒤의 이들에게서 감히 받을 만한 것과 거의 같은 이자를 앞의 이들에게서 얻으며, 그의 돈은 뒤의 부류의 손에서보다 앞의 부류의 손에서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하여 그 나라의 자본의 큰 몫이 이롭게 쓰일 가망이 가장 큰 손에 던져진다.

어떤 법도 돈의 흔한 이자율을 그 법이 만들어질 때의 가장 낮은 예사 시장 율보다 낮게 끌어내릴 수 없다. 프랑스 국왕이 이자율을 100분의 5에서 4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한 1766년의 칙령에도 아랑곳없이, 프랑스에서는 여러 다른 길로 그 법을 비껴가며 100분의 5로 돈이 계속 빌려졌다.[12]

토지의 예사 시장 가격은 어디서나 이자의 예사 시장 율에 달려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스스로 부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얻고 싶은 자본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토지를 살까 이자를 받고 빌려줄까를 헤아려 본다. 토지가 더 안전한 것과 이 갈래의 재산에 거의 어디서나 따라붙는 그 밖의 몇 가지 이로움이 대체로 그로 하여금, 자기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수입을 토지에서

얻고 만족하게 만들 것이다. 이 이로움은 수입의 얼마쯤의 차이를 메우기에 넉넉하지만, 그것이 메우는 것은 얼마쯤의 차이에 그친다. 그리고 토지의 지대가 돈의 이자에 그보다 더 큰 차이로 못 미친다면 아무도 토지를 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곧 토지의 예사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거꾸로 그 이로움이 그 차이를 메우고도 훨씬 남는다면 누구나 토지를 살 것이고, 그러면 다시 곧 토지의 예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자가 100분의 10이었을 때 토지는 흔히 열 해분이나 열두 해분으로 팔렸다.[13] 이자가 100분의 6과 5와 4로 떨어지면서 토지의 값은 스무 해분과 스물다섯 해분과 서른 해분으로 올랐다. 이자의 시장 율은 잉글랜드보다 프랑스에서 높고 토지의 흔한 값은 더 낮다. 잉글랜드에서는 흔히 서른 해분으로, 프랑스에서는 스무 해분으로 팔린다.

---

1. 옮긴이 — 스미스가 가리키는 프랑스 저술가들은 프랑수아 케네(1694~1774)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경제학자들, 곧 중농학파다. 이들은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낳는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4편 9장에서 이들을 다룬다.

2. 옮긴이 — 고등법원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여러 도시에 있던 최고 재판소다. 재판만이 아니라 국왕의 법령을 등록하는 일도 맡아 정치에서도 무게가 있었다. 1789년 혁명 뒤에 없어졌다.

3. 옮긴이 — 연합법은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한 나라로 합친 법이다. 이로써 에든버러에 있던 스코틀랜드 의회가 문을 닫았다.

4. 옮긴이 — 영구 양도는 재산을 교회나 재단 같은 단체에 넘겨 다시는 남의 손으로 옮겨 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처분이다. 잉글랜드에서는 13세기부터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잇달아 나왔다.

5. 옮긴이 — 왕정복고는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른 일을 가리킨다.

6. 옮긴이 —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에 왕위에 올랐다.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의 다툼은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장미 전쟁이다. 노르만 정복은 1066년이고, 색슨 칠왕국은 그보다 앞서 잉글랜드에 있던 일곱 왕국을 가리킨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55년과 54년에 브리타니아로 건너왔다.

7. 옮긴이 — 런던의 흑사병은 1665년, 큰 화재는 1666년이다. 두 차례의 네덜란드 전쟁은 1665년부터 1667년까지와 1672년부터 1674년까지 벌어졌다. 명예혁명은 1688년이고 아일랜드의 전쟁은 그 뒤 1689년부터 1691년까지 이어졌다. 1715년과 1745년의 반란은 스튜어트 가문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 한 이른바 자코바이트 봉기다.

8.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9. 옮긴이 — 사치 금지법은 신분에 따라 입을 옷과 먹을 것과 쓸 물건을 법으로 제한한 법령이다. 잉글랜드에서는 14세기부터 여러 번 나왔고 17세기에 이르러 사라졌다.

10. 옮긴이 —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고, 그 왕비는 덴마크의 앤(1574~1619)이다.

11. 옮긴이 — 존 로크(1632~1704)는 잉글랜드의 철학자다. 존 로(1671~1729)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화폐 제도를 꾸렸다. 몽테스키외(1689~1755)는 프랑스의 법학자다. 흄(1711~1776)은 스미스의 벗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철학자로, 《정치 논집》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스페인령 서인도는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거느린 땅을 가리킨다.

12. 옮긴이 — 1766년의 칙령을 낸 프랑스 국왕은 루이 15세(1710~1774)다.

13. 옮긴이 — 「몇 해분」은 토지의 값을 그 땅이 한 해에 내는 지대의 몇 배인가로 나타내던 셈법이다. 열 해분은 한 해 지대의 열 배에 해당한다.

5장 — 자본의 여러 쓰임에 대하여

5장 — 자본의 여러 쓰임에 대하여

모든 자본은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크기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노동의 양은 자본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지며, 그 쓰임이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보태는 가치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다.

자본을 쓰는 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회가 쓰고 소비하는 데에 해마다 필요한 원생산물을 마련하는 데에 쓰는 것이고, 둘째는 그 원생산물을 당장 쓰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손질하는 데에 쓰는 것이며, 셋째는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그것이 넉넉한 곳에서 그것을 바라는 곳으로 옮기는 데에 쓰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의 일정한 몫을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찾는 양에 맞도록 잘게 가르는 데에 쓰는 것이다. 첫째 길에는 땅이나 광산이나 어장의 개량과 경작을 벌이는 모든 사람의 자본이 쓰이고, 둘째 길에는 모든 제조업 고용주의 자본이 쓰이며, 셋째 길에는 모든 도매 상인의 자본이, 넷째 길에는 모든 소매 상인의 자본이 쓰인다. 자본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넣을 수 없는 길로 쓰이는 일은 좀처럼 떠올리기 어렵다.

자본을 쓰는 이 네 가지 길은 저마다 나머지 셋이 있게 하거나 넓어지게 하는 데에, 또는 사회 전체의 편의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생산물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대는 데에 자본이 쓰이지 않는다면 제조업도 어떤 종류의 거래도 있을 수 없다.

원생산물 가운데 쓰고 소비하기에 알맞게 되기까지 손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제조하는 데에 자본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아예 생산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찾는 수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혹 저절로 생산된다 해도 교환 가치가 없어서 사회의 부에 아무것도 보태지 못할 것이다.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그것이 넉넉한 곳에서 그것을 바라는 곳으로 옮기는 데에 자본이 쓰이지 않는다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이웃에서 소비하는 데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 없을 것이다. 상인의 자본은 한 곳에서 남는 생산물을 다른 곳에서 남는 생산물과 맞바꾸며, 그리하여 두 곳의 근면을 북돋우고 두 곳이 누리는 것을 늘린다.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그 일정한 몫을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찾는 양에 맞도록 쪼개고 가르는 데에 자본이 쓰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재화를 당장 쓸 만큼보다 더 많이 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고기 파는 생업이 없다면 누구나 한 번에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사야 할 것이다. 이는 부자에게도 대개 불편하려니와 가난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그렇다. 가난한 일꾼이 한 달치나 여섯 달치 식료품을 한꺼번에 사야 한다면, 그가 생업의 도구나 가게의 살림에 자본으로 굴려 수입을 얻는 자산 가운데 큰 몫을, 당장 쓰려고 남겨 두어 아무 수입도 낳지 않는 자산 쪽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대로 날마다, 나아가 시간마다 생계에 드는 것을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편한 일이 없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산을 거의 다 자본으로 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는 더 큰 가치의 일감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며, 그러면서 얻는 이윤은 소매 상인의 이윤이 재화에 덧붙이는 값을 메우고도 넉넉히 남는다. 가게 주인과 장사꾼을 두고 몇몇 정치

저술가가 품은 편견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그들에게 세를 매기거나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는커녕, 그들은 서로를 해칠 만큼 수가 늘 수는 있어도 공중을 해칠 만큼 늘 수는 결코 없다. 이를테면 어떤 도시에서 팔릴 수 있는 식료잡화의 양은 그 도시와 그 이웃의 수요로 한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식료잡화 거래에 쓰일 수 있는 자본은 그만한 양을 사들이기에 넉넉한 액을 넘을 수 없다. 이 자본이 식료잡화 상인 둘에게 갈리면 그 둘의 경쟁은 한 사람이 그것을 쥐고 있을 때보다 둘 다 더 싸게 팔게 하는 쪽으로 기울고, 스무 사람에게 갈리면 그 경쟁은 그만큼 더 커지며 값을 올리려고 서로 단합할 낌새는 그만큼 더 작아진다. 그들의 경쟁이 그들 가운데 몇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챙기는 일은 관계된 당사자들의 일이며 그들의 헤아림에 맡겨 두어도 괜찮다. 그 경쟁은 소비하는 사람도 생산하는 사람도 해칠 수 없고, 오히려 그 거래 전체를 한두 사람이 독점할 때보다 소매 상인들이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게 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 몇이 더러는 마음 약한 손님을 꾀어 쓸 데 없는 것을 사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폐단은 너무 작아 공중이 눈여겨볼 값이 없으며, 그들의 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반드시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가장 의심을 받는 예를 들면, 술집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에게 술에 빠지는 기질이 널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생긴 그 기질이 많은 술집에 일거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자본을 이 네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하나에 굴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생산적 노동자다. 그들의 노동이 옳게 이끌리면 그 노동이 얹히는 대상, 곧 팔 수 있는 상품에 자리 잡고 실현되며, 적어도 그들 자신을 부양하고 소비하는 데에 드는 만큼의 가치를 그 상품의 값에 보탠다. 농부와 제조업자와 상인과 소매 상인의 이윤은 모두, 앞의 둘이 생산하고 뒤의 둘이 사고파는 재화의 값에서 나온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자본이라도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길에 쓰이면 저마다 아주 다른 양의 생산적 노동을 곧바로 움직이며, 그 자본이 딸린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가치도 아주 다른 비율로 늘린다.

소매 상인의 자본은 그가 재화를 사들이는 상인의 자본을 그 이윤과 함께 메워 주어 그 상인이 장사를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소매 상인 자신이 그 자본이 곧바로 부리는 유일한 생산적 노동자다. 그 자본의 쓰임이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보태는 가치 전체는 그의 이윤에 들어 있다.

도매 상인의 자본은 그가 다루는 원생산물과 제조품을 사들이는 농부와 제조업자의 자본을 그 이윤과 함께 메워 주어, 그들이 저마다 하는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그가 사회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고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늘리는 데에 간접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주로 이 구실로써다. 그의 자본은 또 그의 재화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뱃사람과 짐 나르는 사람들도 부리며, 자기 이윤에 해당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그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그 재화의 값을 올린다. 이것이 그 자본이 곧바로 움직이는 생산적 노동의 전부이며, 연간 생산물에 곧바로 보태는 가치의 전부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그 자본이 하는 일은 소매 상인의 자본이 하는 일보다 훨씬 크다.

제조업 고용주의 자본 가운데 일부는 생업의 도구에 고정 자본으로 쓰이며, 그 도구를 사들이는 다른 수공업자의 자본을 그 이윤과 함께 메워 준다. 그의 유동 자본 가운데 일부는 재료를 사들이는 데에 쓰이며, 그 재료를 사들이는 농부와 광부의 자본을 그 이윤과 함께 메워 준다. 그러나 그 자본 가운데 큰 몫은 해마다, 또는 훨씬 짧은 동안에 늘 그가 부리는 여러 일꾼에게 나누어진다. 그 자본은 그 일꾼들의 임금만큼, 그리고 그 사업에 쓰인 임금과 재료와 생업 도구를 다 합친 자산에 붙는 고용주의 이윤만큼 그 재료의 가치를 올린다. 그러므로 그 자본은 같은

크기의 자본이 어느 도매 상인의 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곧바로 움직이며,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훨씬 큰 가치를 보탠다.

같은 크기의 자본 가운데 농부의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이는 것은 없다. 그가 부리는 일꾼만이 아니라 그가 부리는 집짐승도 생산적 노동자다. 게다가 농업에서는 자연이 사람과 나란히 일하는데, 자연의 노동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나 그 노동의 생산물에도 가장 값비싼 일꾼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자연의 걸찬 힘을 늘리려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기는 하지만, 그 힘을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식물을 길러 내는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찔레와 가시덩굴이 무성한 밭도 가장 잘 가꾼 포도밭이나 곡물밭만큼 많은 양의 초목을 낼 때가 흔하다. 심고 가는 일은 자연의 살아 있는 걸찬 힘을 북돋우기보다 그것을 다스리는 데에 그칠 때가 흔하며, 그 모든 노동을 들인 뒤에도 일의 큰 몫은 늘 자연이 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농업에 쓰이는 노동자와 집짐승은 제조업의 일꾼처럼 자기들의 소비, 곧 자기들을 부리는 자본에 그 임자의 이윤을 더한 것과 같은 가치를 다시 낳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다시 낳게 한다. 그들은 농부의 자본과 그 모든 이윤을 넘어 지주의 지대까지 어김없이 다시 낳게 한다. 이 지대는 지주가 농부에게 그 쓰임을 빌려주는 자연의 힘이 낸 생산물로 볼 수 있다. 지대는 그 힘이 얼마나 크다고 여겨지는가에 따라, 달리 말하면 그 땅이 타고났거나 개량으로 얻었다고 여겨지는 걸찬 정도에 따라 크거나 작다. 그것은 사람의 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덜어 내거나 갚아 준 뒤에 남는 자연의 일이다. 그것이 생산물 전체의 4분의 1보다 적은 일은 드물고 3분의 1을 넘는 일은 흔하다. 제조업에 쓰이는 같은 양의 생산적 노동은 결코 그만큼 큰 재생산을 낳을 수 없다. 제조업에서는 자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이 다 하며, 재생산은 늘 그것을 낳는 힘의 세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업에 쓰이는 자본은 제조업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어떤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것이 부리는 생산적 노동의 양에 견주어 보아도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곧 그 주민들의 실질 부와 수입에 훨씬 큰 가치를 보탠다. 자본을 쓸 수 있는 모든 길 가운데 이것이 사회에 가장 이로운 길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농업과 소매 거래에 쓰이는 자본은 늘 그 사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쓰임은 거의 한 자리, 곧 농장과 소매 상인의 가게에 매여 있다. 또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그 자본은 대개 그 사회에 사는 구성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도매 상인의 자본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거나 반드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없어 보이며, 싸게 살 수 있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데를 따라 이곳저곳 떠돌 수 있다.

제조업자의 자본은 두말할 것 없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곳에 머물러야 하나, 그곳이 어디일지는 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재료가 자라는 곳에서도, 다 된 제조품이 소비되는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때가 흔하다. 리옹은 그 제조업의 재료를 내주는 곳에서도, 그 제조품을 소비하는 곳에서도 아주 멀다.[1] 시칠리아의 멋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낸 재료로 다른 나라에서 짠 비단을 입는다. 스페인 양모의 일부는 영국에서 제조되며, 그 옷감의 일부는 나중에 스페인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어느 사회에서 남는 생산물을 자기 자본으로 내보내는 상인이 그 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것은 거의 대수롭지 않다. 그가 외국 사람이라면 그 사회의 생산적 노동자 수는 그가 그 나라 사람일 때보다 딱 한 사람 적어지고, 그 사회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가치는 그 한

사람의 이윤만큼 적어질 뿐이다. 그가 부리는 뱃사람이나 짐 나르는 사람들은 그가 그 나라 사람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든 가리지 않고 그의 나라에 딸릴 수도 있고 그들의 나라에 딸릴 수도 있으며 어느 제3의 나라에 딸릴 수도 있다. 외국 사람의 자본도 그 나라 사람의 자본과 똑같이, 남는 생산물을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꾸어 그 생산물에 가치를 준다. 또 그 남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의 자본을 똑같이 잘 메워 주고 그가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똑같이 잘 해 주는데, 도매 상인의 자본이 자기가 딸린 사회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고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늘리는 데에 주로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구실이다.

제조업자의 자본이 그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자본은 반드시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이며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더 큰 가치를 보탠다. 그러나 그 자본이 그 나라 안에 머물지 않아도 그 나라에 아주 이로울 수 있다. 발트해 연안에서 해마다 들여오는 아마와 삼을 손질하는 영국 제조업자의 자본은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들에 분명히 아주 이롭다. 그 재료들은 그 나라들에서 남는 생산물의 일부이며, 그것이 해마다 그 나라들에서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도 없을 터이고 머지않아 생산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보내는 상인들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본을 메워 주어 그들이 생산을 이어 가도록 북돋우며,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그 상인들의 자본을 메워 준다.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 땅을 다 개량하고 경작하는 데에, 그 원생산물 전부를 당장 쓰고 소비할 수 있게 제조하고 손질하는 데에, 그리고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남는 부분을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꿀 수 있는 먼 시장으로 옮기는 데에 다 댈 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지 못하는 때가 흔하다. 영국의 여러 고장 주민들은 제

땅을 다 개량하고 경작할 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지 못했다. 스코틀랜드 남부 여러 주의 양모는 그 큰 몫이, 아주 나쁜 길을 따라 멀리 육로로 실려 간 뒤 요크셔에서 제조되는데, 고장에서 그것을 제조할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작은 제조업 도시가 많은데, 그 주민들은 자기 산업이 낸 생산물을 그것을 찾고 소비하는 먼 시장으로 옮길 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상인이 있다 해도 그들은 실은 큰 상업 도시에 사는 더 넉넉한 상인들의 대리인일 뿐이다.

어느 나라의 자본이 이 세 가지 쓰임에 다 대기에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본 가운데 더 큰 몫이 농업에 쓰일수록 그 나라 안에서 움직여지는 생산적 노동의 양이 더 커지며, 그 쓰임이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보태는 가치도 그만큼 커진다. 농업 다음으로는 제조업에 쓰이는 자본이 가장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이고 연간 생산물에 가장 큰 가치를 보탠다. 내보내는 거래에 쓰이는 자본은 이 셋 가운데 그 효력이 가장 작다.

이 세 가지 쓰임에 다 댈 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지 못한 나라는 참으로 자연이 마련해 둔 듯한 그 풍요의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나라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자본으로 때 이르게 그 셋을 다 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넉넉한 자본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결코 아니다. 한 나라 모든 사람의 자본에는 한 사람의 자본과 똑같이 한계가 있으며,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쓰임도 정해져 있다. 한 나라 모든 사람의 자본은 한 사람의 자본과 똑같은 길로, 곧 수입에서 아끼는 것을 끊임없이 모아 거기에 보태는 것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그 자본은 그 나라 모든 주민에게 가장 큰 수입을 가져다주는 길로 쓰일 때 가장 빨리 늘어날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이 가장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나라 모든 주민의

수입은 그들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가 부와 큼으로 빠르게 나아간 으뜸 원인은 이제까지 그 자본이 거의 다 농업에 쓰였다는 데에 있다.[2] 그들에게는 제조업이 없는데, 농업이 나아가면 반드시 따라오고 어느 집에서나 여자와 아이들의 일거리가 되는 집안의 거친 제조업만은 예외다. 아메리카에서 내보내는 거래와 연안 거래의 큰 몫은 영국에 사는 상인들의 자본으로 이루어진다. 몇몇 주,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재화를 소매로 파는 창고와 가게조차 그 많은 것이 본국에 사는 상인들의 것이며, 어느 사회의 소매 거래가 그 사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드문 보기 가운데 하나가 된다. 아메리카인들이 단합으로든 다른 어떤 폭력으로든 유럽 제조품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그리하여 같은 재화를 만들 수 있는 제 나라 사람들에게 독점을 주어 자기네 자본 가운데 적지 않은 몫을 이 쓰임으로 돌린다면, 그들은 연간 생산물의 가치가 더 늘어나는 것을 재촉하는 대신 늦출 터이고, 그들 나라가 참된 부와 큼으로 나아가는 것을 밀어주는 대신 막을 것이다. 그들이 그와 같이 내보내는 거래 전부를 자기들끼리 독점하려 든다면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번영이 흘러온 길을 보면, 어느 큰 나라가 이 세 가지 쓰임에 다 댈 만큼 넉넉한 자본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오래 이어진 일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중국의 부와 경작을 두고, 또 옛 이집트와 힌두스탄의 옛 모습을 두고 전해 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믿어 준다면 모르지만 말이다.[3] 전해 오는 모든 이야기로 보아 세상에 있었던 가장 넉넉한 나라였던 그 세 나라조차, 이름을 얻은 것은 주로 농업과 제조업에서 남보다 앞섰다는 데에서다. 그들이 외국 거래로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다. 옛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를 미신처럼 꺼렸고, 인도인 사이에도 거의 같은

종류의 미신이 퍼져 있으며, 중국 사람들은 외국 상업에 뛰어난 적이 없다. 그 세 나라에서 남는 생산물의 큰 몫은 늘 외국 사람들이 내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그 대가로 그 나라들에서 수요가 있다고 본 다른 무엇, 흔히 금과 은을 주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자본이 농업과 제조업과 도매 거래에 쓰이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더 많거나 더 적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움직이며,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더 크거나 더 작은 가치를 보탠다. 또 그 자본의 일부가 어떤 종류의 도매 거래에 쓰이는가에 따라서도 그 차이는 아주 크다.

모든 도매 거래, 곧 다시 도매로 팔려고 사들이는 일은 모두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다. 국내 무역과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과 중계 무역이다.[4] 국내 무역은 한 나라 산업이 낸 생산물을 그 나라의 한 고장에서 사들여 다른 고장에서 파는 데에 쓰인다. 여기에는 내륙 거래와 연안 거래가 다 들어간다.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은 국내에서 소비할 외국 재화를 사들이는 데에 쓰인다. 중계 무역은 외국들 사이의 상업을 맡아 보거나, 한 나라에서 남는 생산물을 다른 나라로 실어 가는 데에 쓰인다.

어떤 나라 산업이 낸 생산물을 그 나라의 한 고장에서 사들여 다른 고장에서 팔려고 쓰이는 자본은,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그 나라의 농업이나 제조업에 쓰였던 두 개의 다른 자본을 대개 메워 주어 그 둘이 그 쓰임을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그 자본이 상인이 사는 곳에서 일정한 가치의 상품을 내보낼 때에는 그 대가로 적어도 그와 같은 가치의 다른 상품을 대개 되가져온다. 그 둘이 다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일 때에는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 쓰였던 두 개의 다른 자본을 반드시 메워 주어 그 둘이 그 부양을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스코틀랜드 제조품을 런던으로 보내고 잉글랜드의 곡물과 제조품을

에든버러로 되가져오는 자본은,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영국의 농업이나 제조업에 쓰였던 두 개의 영국 자본을 반드시 메워 준다.

국내에서 소비할 외국 재화를 사들이는 데에 쓰이는 자본도, 그 사들이는 일이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두 개의 다른 자본을 메워 준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이 국내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영국 재화를 포르투갈로 보내고 포르투갈 재화를 영국으로 되가져오는 자본은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영국 자본 하나만을 메워 준다.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 자본이다. 그러므로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의 회수가 국내 무역의 회수만큼 빠르다 해도, 거기에 쓰이는 자본은 그 나라의 근면이나 생산적 노동에 절반만큼의 격려를 줄 뿐이다.

그런데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의 회수가 국내 무역의 회수만큼 빠른 일은 아주 드물다. 국내 무역의 회수는 대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들어오며, 어떤 때에는 한 해에 세 번이나 네 번 들어온다.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의 회수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고, 어떤 때에는 두 해나 세 해가 지나서야 들어온다. 그러므로 국내 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자본이 한 번 일을 치르는 동안에 어떤 때에는 열두 번 일을 치르니, 곧 열두 번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므로 두 자본의 크기가 같다면 앞의 것은 뒤의 것보다 그 나라의 근면에 스물네 배 더 큰 격려와 부양을 줄 것이다.

국내에서 소비할 외국 재화를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국 재화로 사들이는 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외국 재화도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로 곧바로 사들인 것이거나, 그 생산물로 사들인 다른 무엇으로 사들인 것일 수밖에 없다. 전쟁과 정복의 경우를 빼면 외국 재화는 곧바로든 두세 차례 서로 다른 교환을 거친 뒤든 국내에서 생산된 무엇과 맞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자본이 내는 효력은 같은 종류의 가장 곧바른 거래에 쓰이는 자본이 내는 효력과 모든 점에서 같으며, 다만 마지막 회수가 더 멀어지기 쉽다는 점만 다른데 그것이 서로 다른 두세 외국 거래의 회수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리가의 삼과 아마를, 영국 제조품으로 사들인 버지니아 담배로 사들인다면,[5] 그 상인은 서로 다른 두 외국 거래의 회수를 기다린 뒤에야 같은 자본으로 같은 양의 영국 제조품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버지니아 담배를 영국 제조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제조품으로 사들인 자메이카의 설탕과 럼으로 사들였다면, 그는 세 차례의 회수를 기다려야 한다. 그 두세 외국 거래가 저마다 다른 두세 상인의 손으로 이루어져서, 둘째 상인이 첫째 상인이 들여온 재화를 사고 셋째 상인이 둘째 상인이 들여온 재화를 사서 다시 내보낸다면, 그 경우에 상인들은 저마다 제 자본이 돌아오는 것을 더 빨리 받기는 하겠으나, 그 거래에 쓰인 자본 전체의 마지막 회수는 여전히 그만큼 늦을 것이다. 이처럼 멀리 돌아가는 거래에 쓰이는 자본 전체가 한 상인의 것이든 세 상인의 것이든, 그것은 그 나라에는 아무 차이도 낳지 못하나 그 상인들 각자에게는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일정한 가치의 영국 제조품을 일정한 양의 아마와 삼과 맞바꾸려면, 그 제조품과 그 아마와 삼을 곧바로 서로 맞바꾸었을 때 들었을 자본의 세 배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자본 전체는 같은 종류의 더 곧바른 거래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자본보다 그 나라의 생산적 노동에 대개 더 적은 격려와 부양을 줄 것이다.

국내에서 소비할 외국 재화를 어떤 외국 상품으로 사들이든, 그것은 그 거래의 성질에도,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생산적 노동에 줄 수 있는 격려와 부양에도 이렇다 할 차이를 낳지 못한다. 이를테면 그것을

브라질의 금으로 사들이거나 페루의 은으로 사들인다면, 그 금과 은도 버지니아의 담배처럼 그 나라 산업이 낸 생산물이거나 그런 생산물로 사들인 다른 무엇으로 사들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생산적 노동에 관한 한, 금과 은을 끼고 이루어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는 그만큼 멀리 돌아가는 다른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이 가지는 모든 이로움과 모든 불편이 다 있으며, 그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 곧바로 쓰이는 자본을 똑같이 빠르게 또는 똑같이 느리게 메워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멀리 돌아가는 다른 어떤 외국 거래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는 듯하다. 그 금속들은 부피가 작고 가치가 커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이 같은 가치의 다른 어떤 외국 재화를 옮기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 그 운임은 훨씬 적고 보험료는 더 크지 않으며, 게다가 실려 가는 동안에 상하는 일이 그만큼 적은 재화가 없다. 그러므로 금과 은을 끼우면 같은 양의 외국 재화를, 다른 어떤 외국 재화를 끼웠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의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로 사들일 수 있는 때가 흔하다. 이렇게 하여 그 나라의 수요가 다른 어떤 길로 채울 때보다 더 온전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채워지는 때가 흔하다. 그 금속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일로 이런 종류의 거래가 그것을 하는 나라를 다른 무슨 길로 가난하게 만들 것인지는 뒤에서 아주 길게 살펴볼 자리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자본 가운데 중계 무역에 쓰이는 부분은 그 나라 자체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일에서 아주 빠져나와 어떤 외국들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한다. 그 자본이 한 번 돌 때마다 두 개의 다른 자본을 메워 줄 수는 있으나, 그 둘 가운데 어느 것도 그 나라의 것이 아니다. 폴란드의 곡물을 포르투갈로 실어 가고 포르투갈의 과일과 포도주를 폴란드로 되실어 오는 네덜란드 상인의 자본은,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두 개의 자본을 메워 주는데 그 어느 것도 네덜란드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 쓰인 것이 아니며, 하나는 폴란드의 생산적 노동을,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이윤만이 어김없이 네덜란드로 돌아오며, 이 거래가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반드시 보태는 것은 그 이윤뿐이다. 어느 나라의 중계 무역이 그 나라의 배와 뱃사람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참으로 거기에 쓰이는 자본 가운데 운임을 치르는 부분이 그 나라의 생산적 노동자 얼마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을 움직인다. 실제로 중계 무역의 적지 않은 몫을 가졌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그것을 해 왔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이 거래의 이름도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거래의 성질에 꼭 붙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네덜란드 상인은 폴란드와 포르투갈의 상업을 맡아 보면서 한 나라에서 남는 생산물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실어 갈 때에 네덜란드 배가 아니라 영국 배를 쓸 수도 있다. 어떤 자리에서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중계 무역은 뱃사람과 배의 수에 그 방어와 안전이 걸려 있는 영국 같은 나라에 유별나게 이롭다고 여겨져 왔다.[6] 그러나 같은 자본이라면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도, 나아가 연안을 오가는 배로 이루어지는 국내 무역에서도 중계 무역에서만큼 많은 뱃사람과 배를 부릴 수 있다. 어떤 자본이 부릴 수 있는 뱃사람과 배의 수는 거래의 성질에 매여 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화의 부피가 그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큰가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화를 실어 갈 두 항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매여 있으며, 그 가운데 주로 앞의 것에 매여 있다. 이를테면 뉴캐슬에서 런던으로 가는 석탄 거래는 두 항구가 그리 멀지 않은데도 잉글랜드의 중계 무역 전체보다 더 많은 배를 부린다.[7] 그러므로 유별난 격려를 주어 어느 나라의 자본 가운데 저절로 갈 만한

몫보다 더 큰 몫을 중계 무역으로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의 국내 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자본보다 그 나라에서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에 격려와 부양을 주고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더 많이 늘리며, 뒤의 이 거래에 쓰이는 자본은 다시 이 두 가지 점에서 중계 무역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자본보다 훨씬 낫다. 어느 나라의 넉넉함은, 그리고 힘이 넉넉함에 매여 있는 만큼 그 나라의 힘은, 모든 세가 마침내 거기서 치러져야 하는 바탕인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에 늘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경제학이 내세우는 큰 목표는 그 나라의 넉넉함과 힘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은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을 국내 무역보다 앞세우거나 더 크게 격려해서는 안 되며, 중계 무역을 그 둘 가운데 어느 것보다 앞세워서도 안 된다. 그 두 물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그 나라의 자본 가운데 저절로 흘러들 몫보다 더 큰 몫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꾀어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거래의 갈래는 저마다, 아무 억누름이나 폭력 없이 일이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면 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고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산업 부문의 생산물이 그 나라의 수요가 찾는 것보다 많을 때에는, 남는 것을 외국으로 보내어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생산적 노동 가운데 일부가 멈추고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국의 땅과 노동은 대개 국내 시장의 수요가 찾는 것보다 많은 곡물과 털옷감과 쇠붙이를 낸다. 그러므로 그 남는 부분은 외국으로 보내어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내보내는 것으로만 그 남는 것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든 노동과 비용을 갚을

만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바닷가 근처와 배가 다니는 모든 강의 언저리가 근면에 이로운 자리인 것은, 그렇게 남는 생산물을 내보내어 그곳에서 수요가 더 많은 다른 무엇과 맞바꾸는 일을 쉽게 해 주기 때문일 뿐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이 낸 남는 생산물로 사들인 외국 재화가 국내 시장의 수요보다 많을 때에는, 그 남는 부분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어 국내에서 수요가 더 많은 무엇과 맞바꾸어야 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영국 산업이 낸 남는 생산물의 일부로 해마다 담배 9만 6000 호그스헤드쯤을 사들인다.[8] 그런데 영국의 수요가 찾는 것은 아마 1만 4000 호그스헤드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는 8만 2000 호그스헤드를 외국으로 보내어 국내에서 수요가 더 많은 무엇과 맞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들여오는 일이 곧 멈출 수밖에 없으며, 그와 함께 이 8만 2000 호그스헤드를 해마다 사들이는 데에 쓰이는 재화를 마련하는 일에 지금 매여 있는 영국 주민 모두의 생산적 노동도 멈출 수밖에 없다. 영국의 땅과 노동이 낸 생산물의 일부인 그 재화는 국내에 시장이 없고 외국에 있던 시장마저 빼앗기므로 생산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도 어떤 자리에서는 그 나라의 생산적 노동과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부양하는 데에 가장 곧바른 거래만큼이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자본이 그 나라 자체의 소비에 대고 그 나라 자체의 생산적 노동을 부양하는 데에 다 쓸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그 남는 부분은 저절로 중계 무역으로 넘쳐 나와 다른 나라들에 같은 구실을 하는 데에 쓰인다. 중계 무역은 큰 국부가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 조짐이나, 그 자연스러운 원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유별난 격려를 주려고 한 정치가들은 결과와 조짐을 원인으로 잘못 본 듯하다. 땅의 넓이와 주민의 수에 견주어 유럽에서 단연 가장 넉넉한 나라인

네덜란드가 그에 맞게 유럽 중계 무역의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유럽에서 둘째로 넉넉한 나라인 잉글랜드도 거기에 적지 않은 몫을 가졌다고 여겨지나, 흔히 잉글랜드의 중계 무역으로 여겨지는 것도 알고 보면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일 뿐인 때가 흔할 것이다. 동인도와 서인도와 아메리카의 재화를 유럽의 여러 시장으로 실어 가는 거래가 대체로 그러하다. 그 재화는 대개 영국 산업이 낸 생산물로 곧바로 사들이거나 그 생산물로 사들인 다른 무엇으로 사들이며, 그 거래의 마지막 회수는 대개 영국에서 쓰이거나 소비된다. 지중해의 여러 항구 사이를 영국 배로 오가는 거래와, 인도의 여러 항구 사이를 영국 상인들이 오가며 하는 같은 종류의 거래가 아마도 참된 뜻으로 영국의 중계 무역이라 할 것의 으뜸 갈래를 이룬다.

국내 무역의 넓이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자본의 크기는,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제 생산물을 맞바꿀 일이 있는 멀리 떨어진 모든 고장에서 남는 생산물이 가지는 가치로 한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의 넓이는 그 나라 전체에서 남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것으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의 가치로, 중계 무역의 넓이는 세상 모든 나라에서 남는 생산물의 가치로 한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중계 무역이 넓어질 수 있는 한계는 다른 둘에 견주면 얼마쯤 끝이 없는 셈이며, 가장 큰 자본도 빨아들일 수 있다.

어떤 자본의 임자가 그것을 농업에 굴릴지, 제조업에 굴릴지, 도매 거래나 소매 거래의 어떤 갈래에 굴릴지를 정하는 유일한 동기는 자기 사사로운 이윤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 자본이 어느 길에 쓰이는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생산적 노동의 양이 얼마나 다른지, 사회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보탤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는 그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업이 모든 쓰임 가운데 가장 이윤이 많고 농사와 개량이 큰 재산을 얻는 가장 곧바른 길인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자본이 저절로 사회 전체에 가장 이로운 길로 쓰일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농업의 이윤이 다른 쓰임의 이윤보다 나은 것 같지는 않다. 참으로 유럽 구석구석에서 사업 기획자들은 요 몇 해 사이에 땅을 경작하고 개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아주 굉장하게 셈해 보이며 공중을 즐겁게 해 왔다. 그들의 셈을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관찰 하나로 그 결과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거래와 제조업으로, 흔히 아주 작은 자본에서, 때로는 아무 자본도 없이 이루어진 가장 굉장한 재산을 날마다 본다. 같은 동안에 그만한 자본에서 농업으로 그런 재산을 이룬 보기는 이번 세기 유럽에서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유럽의 큰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좋은 땅이 아직 많이 경작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경작되는 땅의 큰 몫도 그 땅이 이를 수 있는 정도까지 개량되기에는 아직 멀다. 그러므로 농업은 거의 어디서나 지금까지 거기에 쓰인 것보다 훨씬 큰 자본을 빨아들일 수 있다. 유럽의 정책에 있는 어떤 사정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업에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생업보다 그토록 큰 이로움을 주어, 사사로운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가장 걸찬 밭을 개량하고 경작하는 것보다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가장 먼 중계 무역에 제 자본을 굴리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롭다고 여기는 일이 흔하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두 편에서 길게 밝혀 보려 한다.[9]

3편 — 나라마다 풍요가 나아가는 길이 다른 것에 대하여

1장 — 풍요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문명한 사회에서 가장 큰 상업은 도시 주민과 시골 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업이다. 그것은 원생산물을 제조품과 맞바꾸는 일로 이루어지며, 곧바로 맞바꾸기도 하고 돈이나 돈을 대신하는 어떤 종이를 끼워 맞바꾸기도 한다. 시골은 도시에 생계를 이을 것과 제조업의 재료를 댄다. 도시는 그 제조품의 일부를 시골 주민에게 되보내어 이렇게 받은 것을 갚는다. 물질을 다시 낳는 일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도시는 그 부와 생계 전부를 시골에서 얻는다고 말해도 아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도시가 얻는 것이 시골이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쪽이 얻는 것은 서로 오가며 맞물려 있고, 노동의 분업은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분업으로 갈린 여러 일자리에 매인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시골 주민은 그 제조된 재화를 스스로 마련하려 했을 때 들여야 했을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제 노동이 낸 생산물로 더 많은 양의 그 재화를 도시에서 사들인다. 도시는 시골에서 남는 생산물, 곧 경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남는 것에 시장을 내주며, 시골 주민은 그것을 자기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는 다른 무엇과 바로 거기서 맞바꾼다. 도시 주민의 수와 수입이 클수록 도시가 시골 주민에게 내주는 시장이 넓어지며, 그 시장이 넓을수록 늘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롭다. 도시에서 1마일 안에서 자란 곡물은 20마일 떨어진 데서 오는 곡물과 같은 값으로 그곳에서 팔린다. 그런데 뒤의 곡물 값은 대개 그것을 길러 시장으로 가져오는 비용을 치를 뿐 아니라 농부에게 농업의 보통 이윤까지 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 이웃에 있는

시골의 임자와 경작하는 사람들은 농업의 보통 이윤에 더하여, 자기가 파는 것의 값에서 더 먼 데서 오는 같은 생산물을 실어 오는 값 전부를 얻으며, 게다가 자기가 사는 것의 값에서 이 실어 오는 값 전부를 아낀다. 꽤 큰 도시의 이웃에 있는 땅의 경작을 그 도시에서 얼마쯤 떨어진 땅의 경작과 견주어 보면, 시골이 도시의 상업으로 얼마나 큰 이로움을 얻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무역 차액을 두고 퍼뜨려진 모든 터무니없는 억측 가운데에도, 시골이 도시와 하는 상업으로 잃는다거나 도시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시골과 하는 상업으로 잃는다고 내세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10]

생계가 사물의 성질에서 편의와 사치보다 앞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의 것을 마련하는 근면도 뒤의 것에 이바지하는 근면보다 반드시 앞선다. 그러므로 생계를 내주는 시골의 경작과 개량은 편의와 사치의 수단만을 내주는 도시가 커지는 것보다 반드시 앞선다. 도시의 생계를 이루는 것은 시골에서 남는 생산물, 곧 경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남는 것뿐이므로, 도시는 그 남는 생산물이 늘어나는 만큼만 커질 수 있다. 참으로 도시가 그 생계 전부를 이웃한 시골에서, 나아가 자기가 딸린 땅에서 얻지 않고 아주 먼 나라에서 얻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위의 일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되지는 않으나 시대와 나라에 따라 풍요가 나아가는 길에 적지 않은 차이를 낳았다.

필요가 억지로 시키는 그 일의 차례는, 나라마다 낱낱이 그렇지는 않으나 대체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밀어준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 타고난 성향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면, 도시는 어디서도 그것이 놓인 땅의 개량과 경작이 떠받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커질 수 없었을 터이고, 적어도 그 땅 전체가 온전히 경작되고 개량될 때까지는 그러했을 것이다.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사람들은 대개 제 자본을 제조업이나 외국 거래보다 땅의 개량과 경작에 굴리려 한다.

제 자본을 땅에 굴리는 사람은 그것을 더 잘 살피고 더 잘 다스릴 수 있으며, 그의 재산은 장사하는 사람의 재산보다 뜻하지 않은 일을 겪는 일이 훨씬 적다. 장사하는 사람은 재산을 바람과 물결에 맡길 뿐 아니라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정이라는 더 못 믿을 것에도 흔히 맡겨야 하는데, 사람됨과 형편을 좀처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 나라에서 큰 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주의 자본은 제 땅의 개량에 붙박여 있어 사람의 일이 허락할 수 있는 만큼 잘 지켜지는 듯하다. 게다가 시골의 아름다움, 시골살이의 즐거움, 그것이 약속하는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사람이 만든 법의 부정이 그것을 흔들지 않는 곳에서 그것이 참으로 내주는 홀로 섬은 누구에게나 얼마쯤 끌리는 매력이 있다. 땅을 가꾸는 것이 사람이 처음 받은 몫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삶의 어느 단계에서나 이 맨 처음의 일자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지니는 듯하다.

참으로 수공업자 몇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땅을 가꾸는 일은 큰 불편과 끊임없는 끊김을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장장이, 목수, 수레 목수와 쟁기 목수, 석공과 벽돌공, 무두장이, 신 짓는 사람, 재봉사는 농부가 그 일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런 수공업자들도 더러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들이 머무는 자리는 농부의 자리처럼 꼭 한 곳에 매여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저절로 서로 가까이 자리를 잡고 그리하여 작은 도시나 마을을 이룬다. 고기 파는 사람, 술 빚는 사람, 빵 굽는 사람이 곧 그들에게 합치고, 그들이 그때그때 바라는 것을 대는 데에 꼭 있어야 하거나 요긴한 다른 여러 수공업자와 소매 상인도 합쳐서 그 도시를 더욱 크게 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도시 주민과 시골 주민은 서로 서로의 심부름꾼이다. 도시는 끊이지 않는 장이나 시장이며, 시골 주민은 제 원생산물을 제조품과 맞바꾸려고 거기로 모여든다. 도시 주민에게 그 일의 재료와

생계의 수단을 둘 다 대 주는 것이 바로 이 상업이다. 그들이 시골 주민에게 파는 다 된 일감의 양이 그들이 사들이는 재료와 식료품의 양을 반드시 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자리도 생계도 다 된 일감을 찾는 시골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날 수 있으며, 이 수요는 개량과 경작이 넓어지는 만큼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어지럽힌 적이 없었다면, 어느 정치 사회에서나 도시의 부가 자라고 도시가 커지는 것은 그 땅, 곧 그 시골의 개량과 경작에 뒤따르는 일이었을 터이고 그것에 비례했을 것이다.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경작되지 않은 땅을 아직 싼값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그 도시 어디에도 먼 데에 팔 제조업이 세워진 적이 아직 없다. 어떤 수공업자가 이웃한 시골에 대는 자기 생업을 꾸리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 자산을 조금 더 모으면, 북아메리카에서 그는 그것으로 더 먼 데에 팔 제조업을 세우려 하지 않고 경작되지 않은 땅을 사서 개량하는 데에 쓴다. 수공업자에서 농장주가 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수공업자에게 내주는 큰 임금도 넉넉한 생계도 그를 꾀어 자기를 위하여 일하기보다 남을 위하여 일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수공업자란 자기 생계가 나오는 손님들의 심부름꾼이지만, 제 땅을 가꾸고 제 식구의 노동에서 필요한 생계를 얻는 농장주는 참으로 주인이며 온 세상에 매이지 않고 홀로 서 있음을 느낀다.

이와 달리 경작되지 않은 땅이 아예 없거나 싼값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웃에서 그때그때 생기는 일거리에 굴릴 수 있는 것보다 자산을 더 모은 수공업자마다 더 먼 데에 팔 일감을 마련하려 한다. 대장장이는 무슨 쇠 제조소를 세우고 직물 짜는 사람은 무슨 아마 옷감이나 털옷감 제조소를 세운다. 그 서로 다른 제조업은 때가 흐르면서 차츰 잘게 갈리고, 그리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여러 길로 나아지고 다듬어지므로 여기서 더 밝힐 필요가 없다.

자본에 쓸 자리를 찾을 때에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농업이 제조업보다 저절로 앞세워지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제조업이 외국 상업보다 저절로 앞세워진다. 지주나 농부의 자본이 제조업자의 자본보다 더 잘 지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의 자본도 언제나 그가 더 잘 살피고 더 잘 다스릴 수 있으므로 외국 상인의 자본보다 더 잘 지켜진다. 참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기에나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남는 부분, 곧 국내에 수요가 없는 부분은 국내에 얼마쯤 수요가 있는 무엇과 맞바꾸려고 외국으로 보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남는 생산물을 외국으로 실어 가는 자본이 외국 것인지 국내 것인지는 거의 대수롭지 않다. 사회가 제 땅을 다 경작하고 그 원생산물 전부를 가장 온전하게 제조하기에 넉넉한 자본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원생산물을 외국 자본이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적지 않게 이로운데, 그리하여 사회의 자산 전부를 더 요긴한 쓰임에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이집트의 부와 중국과 힌두스탄의 부는, 내보내는 거래의 큰 몫을 외국 사람들이 하더라도 한 나라가 아주 높은 정도의 풍요에 이를 수 있음을 넉넉히 보여 준다. 우리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식민지가 나아간 걸음도, 남는 생산물을 내보내는 데에 자기들의 자본만 쓰였다면 훨씬 더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면, 자라나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그 자본의 큰 몫이 먼저 농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가며 마지막으로 외국 상업으로 간다. 이 차례는 아주 자연스러워서, 땅을 얼마라도 가진 사회라면 어디서나 늘 얼마쯤은 지켜져 왔다고 나는 믿는다. 어지간한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그 땅의 얼마는 경작되었을 수밖에 없고, 그 도시들이 외국 상업에 나설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전에 그 도시들에서 제조업다운 거친 근면이 얼마쯤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차례가 그런 사회마다 얼마쯤은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다 해도, 유럽의 모든 근대 국가에서 그것은 여러 점에서 아주 거꾸로 되었다. 그 도시 가운데 몇몇이 한 외국 상업이 더 고운 제조업, 곧 먼 데에 팔기에 알맞은 제조업을 다 들여왔으며, 제조업과 외국 상업이 함께 농업의 으뜸 개량을 낳았다. 그 나라들이 처음 가졌던 정부의 성질이 들여온 몸가짐과 관습은 그 정부가 크게 바뀐 뒤에도 남아, 그 나라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자연스럽지 않고 뒤집힌 차례로 밀어 넣었다.

---

1. 옮긴이 — 리옹은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로, 16세기부터 유럽 비단 제조의 중심이었다. 비단 실은 이탈리아와 레반트에서 들여왔고 다 된 비단은 유럽 여러 나라로 팔려 나갔다.

2. 옮긴이 — 스미스가 이 책을 낸 1776년에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아직 영국에 딸려 있었다. 「우리」라는 말은 그 사정에서 나온 것이다.

3. 옮긴이 — 힌두스탄은 인도 북부, 넓게는 인도 전체를 가리키던 옛 이름이다.

4. 옮긴이 — 중계 무역(carrying trade)은 자기 나라의 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생산물을 그 나라들 사이에서 실어 주고 사고파는 거래다. 스미스가 이 장에서 견주는 세 갈래 가운데 자기 나라의 생산적 노동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다.

5. 옮긴이 — 리가는 발트해에 면한 항구로, 18세기 유럽에서 삼과 아마의 큰 시장이었다. 오늘날 라트비아의 수도다.

6. 옮긴이 — 1651년과 1660년의 항해법은 영국과 그 식민지로 드나드는 재화를 영국 배로만, 그리고 대부분 영국 뱃사람으로 싣도록 정했다. 뱃사람과 배의 수를 늘리려는 뜻이 있었다. 스미스는 이 법을 4편 2장에서 따로 다룬다.

7. 옮긴이 — 뉴캐슬은 잉글랜드 북동부의 석탄 산지로, 거기서 런던까지 석탄을 실어 가는 연안 거래는 18세기 영국에서 배를 가장 많이 쓰는 거래였다.

8. 옮긴이 — 호그스헤드는 큰 나무통으로, 담는 것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담배를 담은 호그스헤드는 18세기에 대략 1000파운드(무게), 곧 450킬로그램쯤 되었다.

9. 옮긴이 — 스미스가 말하는 두 편은 이 책의 3편과 4편이다. 3편은 바로 이 장 뒤에서 시작한다.

10. 옮긴이 — 무역 차액론은 나라가 내보내는 것을 들여오는 것보다 많게 하여 금은을 모아야 한다고 본 생각으로, 18세기 유럽 상업 정책의 바탕이었다. 스미스는 4편에서 이를 길게 논박한다.

2장 —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의 옛 상태에서 농업이 눌린 사정에 대하여

2장 —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의 옛 상태에서 농업이 눌린 사정에 대하여

독일과 스키타이의 여러 민족이 로마제국의 서쪽 속주들을 휩쓸었을 때, 그토록 큰 격변에 뒤따른 혼란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이어졌다. 야만인들이 예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휘두른 노략과 폭력은 도시와 시골 사이의 교역을 끊어 놓았다. 도시는 버려졌고 시골은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았으며, 로마제국 아래에서 꽤 큰 넉넉함을 누렸던 유럽의 서쪽 속주들은 가난과 야만의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졌다. 그 혼란이 이어지는 동안 그 여러 민족의 우두머리와 주된 지도자들은 그 여러 나라의 토지 가운데 큰 몫을 얻거나 제 것으로 빼앗았다. 그 가운데 큰 몫은 경작되지 않은 땅이었으나, 경작된 것이든 경작되지 않은 것이든 임자 없이 남은 땅은 한 조각도 없었다. 그 모두가 독차지되었고, 그 큰 몫은 몇 사람 안 되는 큰 임자들이 독차지하였다.

경작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에 이렇게 독차지한 것은 큰 해악이기는 하였으나 지나가는 해악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 땅은 상속으로든 양도로든 머지않아 다시 갈리어 작은 몫으로 쪼개질 수도 있었다. 장자상속법은 그것이 상속으로 갈리는 것을 막았고, 한사 상속이 들어온 것은 그것이 양도로 작은 몫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았다.[1]

토지를 동산처럼 생계와 즐김의 수단으로만 볼 때에는, 상속의 자연스러운 법이 동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집안의 모든 자식에게 나누어 준다.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자식의 생계와 즐김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연스러운 상속의 법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았으니, 그들은 토지를 물려받는 데서 우리가 동산을 나누는 데서 그러는 것보다 더 형과 아우를 가리거나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가 생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힘과 보호의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자, 그것이 갈리지 않은 채로 한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었다. 그 어지러운 시절에 큰 지주는 누구나 조그만 군주와 같았다. 그의 차지인은 그의 백성이었다. 그는 그들의 재판관이었고 어떤 점에서는 평화로울 때에는 그들의 입법자였으며 싸울 때에는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제 뜻대로 싸움을 벌였는데, 잦게는 이웃을 상대로 그리하였고 더러는 제 주권자를 상대로도 그리하였다. 그러므로 토지 재산의 안전, 곧 그 임자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보호는 그 크기에 달려 있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었고, 그 모든 조각을 이웃이 쳐들어와 짓누르고 삼켜 버리도록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장자 상속법은, 참으로 곧바로는 아니었으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지 재산의 상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왕국의 상속에서 그것이 대개 자리 잡은 것과 같은 까닭에서였다. 물론 왕국에서도 처음 세워질 때부터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다. 왕국의 힘, 따라서 왕국의 안전이 나뉘어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그것은 자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온전히 내려가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우선권을 그 가운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사람의 됨됨이가 나은지 못한지를 가리는 의심스러운 구별에 기대지 않고 다툴 여지가 없는 뻔하고 또렷한 차이에 기대는 어떤 일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같은 집안의 자식들 사이에 다툴 여지가 없는 차이란 성별과

나이밖에 없다. 남자는 어디서나 여자보다 앞세워지고, 다른 모든 것이 같으면 어디서나 형이 아우를 앞선다. 여기서 장자 상속권과 이른바 직계 상속이 비롯되었다.

법은 그것을 처음 생기게 한 사정, 그리고 그것만이 그 법을 이치에 닿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정이 이미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효력을 이어 가는 일이 잦다. 오늘날 유럽의 상태에서는 땅 한 에이커를 가진 임자도 100,000에이커를 가진 임자와 똑같이 자기 소유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데도 장자 상속권은 여전히 존중받고 있으며, 모든 제도 가운데 집안의 지체를 내세우는 자랑을 떠받치기에 가장 알맞은 것이므로 앞으로도 여러 세기를 이어 갈 듯하다. 그 밖의 모든 점에서는, 한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려고 나머지 자식을 모두 거지로 만드는 권리만큼 자식 많은 집안의 참된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한사 상속은 장자 상속법이 자연스럽게 낳은 결과다. 그것은 장자 상속법이 처음 떠올리게 한 어떤 직계 상속을 지켜 내고, 본래의 재산 가운데 어느 조각도 증여로든 유언 처분으로든 양도로든, 또 그 뒤를 이은 임자 가운데 누군가의 어리석음이나 불운으로든 미리 정해 놓은 계통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들어온 것이다. 그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예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의 후계 지정도 신탁 유증도 한사 상속과 조금도 닮은 데가 없다. 프랑스의 몇몇 법률가가 오늘날의 제도를 그 옛 제도의 말과 옷으로 꾸며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는 하였다.

큰 토지 재산이 일종의 공국이었을 때에는 한사 상속이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어떤 왕국의 이른바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수천 사람의 안전이 한 사람의 변덕이나 낭비로 위태로워지는 것을 자주 막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재산도 큰 재산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법에서 안전을 얻는 오늘날 유럽의 상태에서는

그보다 더 어이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가정 가운데 가장 어이없는 가정, 곧 잇따라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땅과 땅이 지닌 모든 것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가정, 오늘 세대의 소유가 아마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얽매이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도 한사 상속은 유럽의 큰 몫에서 여전히 존중받는데, 특히 귀한 태생이 문관이나 무관의 명예를 누리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인 나라에서 그러하다. 한사 상속은 나라의 큰 벼슬과 명예를 귀족이 독차지하는 이 특권을 지켜 내는 데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그 신분이 나머지 동료 시민에게서 옳지 않은 이로움 하나를 이미 빼앗아 가진 터에 그들의 가난이 그것을 우습게 만들지 않도록 또 하나를 가지는 것이 이치에 닿는다고 여겨진다. 참으로 잉글랜드의 관습법은 영구 구속을 몹시 꺼린다고 하며, 그에 따라 그곳에서는 유럽의 어느 왕국보다 그것이 더 좁게 갇혀 있다. 물론 잉글랜드에도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나라 안 온 토지의 5분의 1 넘게, 아마 3분의 1 넘게가 오늘날 엄격한 한사 상속 아래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개간되지 않은 넓은 땅이 이렇게 특정한 집안에 독차지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갈릴 수 있는 길까지 될 수 있는 한 영원히 막혔다. 그러나 큰 임자가 크게 개량하는 사람인 일은 좀처럼 없다. 그야말로 스러운 제도를 낳은 어지러운 시절에 큰 임자는 자기 땅을 지키거나 이웃의 땅에까지 자기 재판권과 권위를 뻗치는 일에 넉넉히 매여 있었다. 그에게는 토지를 경작하고 개량하는 데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었다. 법과 질서가 세워져 그런 겨를이 생겼을 때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일이 잦았고, 그에 필요한 재주는 거의 언제나 갖추지 못하였다. 집과 몸에 드는 비용이 자기 수입과 맞먹거나 그것을 넘어서면, 그리고 그런 일이 아주 잦았으므로, 그에게는 이렇게 굴릴 자산이 없었다. 그가

살림을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해마다 모은 것을 낡은 재산을 개량하는 데 쓰기보다 새로 사들이는 데 쓰는 것이 대개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모든 사업 계획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개량하여 이윤을 얻으려면 작은 절약과 작은 이익에 빈틈없이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큰 재산을 타고난 사람은 본디 아끼는 성품일지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아주 드물다. 그런 사람의 처지는 자연히 그를, 쓸 자리가 거의 없는 이윤보다 제 마음에 드는 꾸밈에 마음을 쏟게 만든다. 옷차림과 마차와 집과 살림 도구가 우아한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쯤 마음을 쓰는 데 익어 온 것들이다. 이 버릇이 자연히 만들어 놓은 마음의 결은 그가 토지 개량을 생각하게 될 때에도 그를 따라온다. 그는 아마 자기 집 근방의 400에이커나 500에이커를 곱게 꾸며 놓는데, 그 개량을 다 하고 난 뒤의 땅값보다 열 배나 되는 비용을 들인다. 그러고는 자기 재산 전체를 그와 같이 개량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길에도 취미가 없으므로, 그 10분의 1을 마치기도 전에 파산할 것임을 알게 된다. 연합 왕국의 두 부분에는 봉건 시대의 무질서 이래로 끊긴 적 없이 같은 집안의 손에 이어져 온 큰 재산이 아직 얼마쯤 남아 있다. 그 재산이 오늘날 어떠한지를 그 근방 작은 임자들의 소유와 견주어 보라. 그러면 그렇게 넓은 소유가 개량에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는 데 다른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큰 임자들에게서 개량을 바랄 것이 적었다면, 그 아래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에게서 바랄 것은 더욱 적었다. 유럽의 옛 상태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은 모두 임의 차지인이었다.[2] 그들은 모두, 또는 거의 모두 노예였으나, 그들의 노예 상태는 옛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에 알려진 것이나 우리 서인도 식민지에 있는 것보다 부드러운 갈래였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보다 토지에 더 곧바로 딸린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토지와 함께 팔릴 수 있었으나

따로 팔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주인의 허락을 얻으면 혼인할 수 있었고, 주인은 그 뒤에 그 남자와 그 아내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혼인을 깨뜨릴 수 없었다. 그가 그들 가운데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얼마간의 벌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그 벌은 대개 작았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를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든 주인에게 얻어진 것이었고, 주인은 마음대로 그것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갈 수 있었다. 그런 노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작과 개량은 무엇이든 제대로 말하면 그들의 주인이 이룬 것이었다. 그 비용은 그가 들였다. 씨앗과 가축과 농사 도구가 모두 그의 것이었다. 그 이익도 그에게 돌아갔다. 그런 노예는 날마다 먹고 입는 것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제 토지를 차지해 부친 것은 제대로 말하면 임자 자신이었고, 그는 제 예속민으로 그 땅을 경작한 것이었다. 이 갈래의 노예 상태는 러시아와 폴란드와 헝가리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그리고 독일의 다른 곳에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이 차츰 아예 없어진 곳은 유럽의 서쪽과 남서쪽 속주들뿐이다.

그러나 큰 임자에게서 큰 개량을 바랄 일이 좀처럼 없다면, 그들이 노예를 일꾼으로 부릴 때에는 더욱 바랄 것이 없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경험은, 노예가 한 일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비용밖에 들지 않는 듯이 보여도 끝에 가서는 어느 일보다 가장 비싸다는 것을 밝혀 준다고 나는 믿는다. 아무 소유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하는 것 말고 다른 이익이 있을 수 없다. 자기가 먹고 입을 것을 살 만한 것을 넘어서는 일은 무엇이든 폭력으로만 그에게서 짜낼 수 있고 그 자신의 이익으로는 짜낼 수 없다. 옛 이탈리아에서 곡물 농사가 노예의 손에 맡겨졌을 때 얼마나 나빠졌는지, 주인에게 얼마나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플리니우스와 콜루멜라가 함께 적어 놓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옛

그리스에서도 그보다 크게 낫지 않았다. 플라톤의 『법률』에 그려진 이상의 공화국을 말하면서 그는, 놀고 지내는 사람 5000명과 (그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본 전사의 수다) 그들의 여자와 하인들을 먹이려면 바빌론의 들판처럼 끝없이 넓고 걸찬 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자만은 그로 하여금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게 만들며, 아랫사람을 설득하려고 몸을 낮추어야 하는 것만큼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법이 그것을 허락하고 일의 성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는 대개 자유인의 일보다 노예의 일을 고른다. 사탕수수와 담배를 심는 일은 노예를 부려 경작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곡물을 기르는 일은 오늘날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 주된 생산물이 곡물인 잉글랜드 식민지에서는 일의 훨씬 큰 몫이 자유인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펜실베이니아의 퀘이커 교도들이 요즈음 자기네 흑인 노예를 모두 풀어 주기로 결의한 것은, 그 수가 그리 많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들이 그 소유의 꽤 큰 몫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런 결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 사탕수수 식민지에서는 일이 모두 노예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담배 식민지에서는 아주 큰 몫이 그렇다. 우리 서인도 식민지의 어느 곳에서든 사탕수수 개척지의 이윤은 대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알려진 다른 어떤 경작의 이윤보다 훨씬 크며, 담배 개척지의 이윤은 사탕수수의 것에는 못 미치나 곡물의 것보다는 앞선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둘 다 노예를 부려 경작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사탕수수가 담배보다 그것을 더 잘 감당한다. 그에 따라 흑인의 수는 백인의 수에 견주어 담배 식민지보다 사탕수수 식민지에서 훨씬 많다.

옛 시절의 노예 경작자들에게 차츰 뒤를 이은 것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메테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농부의 한 갈래였다.[3] 라틴어로는 콜로니 파르티아리이라고 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 지 오래되어 오늘날 나는 그들을 가리키는 영어 이름을 알지 못한다. 임자는 그들에게 씨앗과 가축과 농사 도구, 곧 한마디로 농장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 전체를 대어 주었다. 생산물은 자산을 그대로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정된 것을 따로 떼어 놓은 뒤에 임자와 농부 사이에 똑같이 갈렸으며, 그 자산은 농부가 농장을 떠나거나 농장에서 내쫓길 때 임자에게 돌려졌다.

그런 차지인이 차지해 부친 토지는 노예가 부친 토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말하면 임자의 비용으로 경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주 요긴한 차이 하나가 있다. 그런 차지인은 자유인이므로 소유를 얻을 수 있으며, 토지 생산물의 일정한 몫을 가지므로 자기 몫이 커지도록 생산물 전체가 될 수 있는 대로 커야 한다는 뻔한 이익을 가진다. 반대로 먹고 입을 것밖에 얻을 수 없는 노예는 그 먹고 입을 것을 넘어서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땅에서 나게 하여 제 편함을 챙긴다. 예속 보유가 유럽의 큰 몫에서 차츰 닳아 없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이 이로움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영주들을 늘 시새운 주권자들이 자기네 예속 농민으로 하여금 영주의 권위를 밀고 들어가게 차츰 북돋운 것 때문이었던 듯한데, 그 밀고 들어감은 적어도 이 갈래의 예속을 아주 거북하게 만들 만한 것이었던 것 같다.[4]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격변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근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대목 가운데 하나다. 로마 교회는 거기에 자기 공이 크다고 주장하며, 참으로 12세기에 이미 알렉산데르 3세가 노예를 널리 풀어 주라는 교서를 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신도들에게 어김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법이라기보다 경건한 권고였던 것 같다. 노예

상태는 그 뒤로도 여러 세기에 걸쳐 거의 어디서나 이어졌으며, 마침내 앞에 말한 두 이익, 곧 한편에서는 임자의 이익과 다른 한편에서는 주권자의 이익이 함께 움직인 힘으로 차츰 없어졌다. 자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토지를 그대로 차지하도록 허락된 예속 농민은 제 자산이 없었으므로 지주가 앞당겨 대어 주는 것으로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프랑스 사람들이 메테예라 부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갈래의 경작자에게도, 생산물 가운데 자기 몫에서 모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산의 어느 조각을 토지를 더 개량하는 데 들이는 것이 이익일 수는 결코 없었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은 지주가 그 땅에서 난 것이 무엇이든 그 절반을 가져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물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십일조도 개량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절반에 이르는 세금은 개량을 틀어막는 빗장이었음이 분명하다. 임자가 대어 준 자산으로 땅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만큼을 나게 하는 것은 메테예의 이익일 수 있었으나, 거기에 제 것을 조금이라도 섞는 것이 그의 이익일 수는 결코 없었다. 온 왕국의 6분의 5가 아직 이 갈래의 경작자에게 차지되어 있다고 하는 프랑스에서 임자들은, 자기네 메테예가 틈만 나면 주인의 가축을 경작보다 짐수레 끄는 데 부린다고 불평한다. 짐수레 일에서는 이윤을 모두 제 것으로 얻으나 경작에서는 그것을 지주와 나누기 때문이다. 이 갈래의 차지인은 스코틀랜드의 몇몇 곳에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을 스틸보 차지인이라 부른다. 수석 배런 길버트와 블랙스톤 박사가 제대로 말하는 농부라기보다 지주의 집사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 옛 잉글랜드 차지인들도 아마 같은 갈래였을 것이다.

이 갈래의 차지 관계에 뒤를 이은 것은, 아주 느린 걸음이었으나 제대로 말하는 농부, 곧 제 자산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지주에게 일정한

지대를 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농부가 몇 해를 두고 차지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큰 이윤과 함께 되찾기를 바랄 수 있으므로 자기 자본의 얼마를 농장을 더 개량하는 데 들이는 것이 자기 이익에 맞는다고 더러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농부의 차지조차 오래도록 몹시 위태로웠으며 유럽의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다. 그들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새로 땅을 산 사람에게 법에 따라 차지 계약을 빼앗길 수 있었으며, 잉글랜드에서는 커먼 리커버리라는 꾸며 낸 소송으로도 그럴 수 있었다.[5] 주인의 폭력으로 법에 어긋나게 내쫓기면, 그들이 바로잡음을 얻는 소송은 몹시 어설펐다. 그것이 언제나 그들을 토지의 차지로 되돌려 놓아 주지는 않고 손해 배상을 주었는데, 그 배상이 참된 손실에 이르는 일은 없었다. 요먼층이 유럽에서 아마 어디보다 늘 존중받아 온 나라인 잉글랜드에서도[6] 점유 회복 소송이 만들어진 것은 헨리 7세 치세 14년쯤에 이르러서였으니,[7] 그 소송으로 차지인은 손해 배상만이 아니라 차지 자체를 되찾으며, 그의 주장은 단 한 번의 순회 재판이 내리는 못 믿을 판정으로 반드시 끝나 버리지도 않는다. 이 소송이 그토록 효험 있는 구제로 드러났으므로, 오늘날의 관행에서는 지주가 토지의 차지를 되찾으려고 소송할 일이 생기면 지주로서 제게 마땅히 딸린 소송, 곧 권리 영장이나 입회 영장을 쓰는 일이 드물고 자기 차지인의 이름으로 점유 회복 영장을 내어 소송한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에서 차지인의 안전은 임자의 안전과 맞먹는다. 게다가 잉글랜드에서는 한 해 40실링 값의 종신 차지가 자유 보유지가 되어 그것을 차지받은 사람에게 의회 의원을 뽑는 표를 주며,[8] 요먼층의 큰 몫이 이런 갈래의 자유 보유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정치적 무게 덕택에 그 신분 전체가 지주에게 존중받게 된다. 차지 계약을 맺지 않은 토지에 차지인이 집을 짓고, 그렇게 중요한 개량을 지주가 명예를 지켜 이용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보기는 잉글랜드 말고는

유럽 어디에도 없다고 나는 믿는다. 요먼층에게 그토록 이로운 그 법과 관습은, 자랑거리로 삼는 그들의 모든 교역 규제를 다 합친 것보다 아마 오늘날 잉글랜드의 큰 세력에 더 많이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갈래의 승계자에게도 가장 긴 차지 계약을 지켜 주는 법은 내가 아는 한 영국에만 있는 것이다. 그것은 1449년에 벌써 제임스 2세의 법으로 스코틀랜드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이로운 영향은 한사 상속으로 크게 막혀 왔다. 한사 상속의 상속인은 대개 여러 해를 두고, 잦게는 한 해를 넘겨 차지 계약을 맺어 주는 것을 금하는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의회 법이 이 점에서 그 굴레를 얼마쯤 늦추어 주었으나 아직도 너무 좁다. 게다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차지 보유가 의회 의원을 뽑는 표를 주지 않으므로 요먼층이 이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보다 지주에게 덜 존중받는다.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상속인에게서든 땅을 산 사람에게서든 차지인을 지켜 주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 드러난 뒤에도 그 안전의 기한이 아주 짧은 동안으로 갇혀 있었으니, 프랑스를 보기로 들면 차지 계약을 시작한 때부터 9년이었다. 참으로 그 나라에서 요즈음 그것이 27년으로 늘었으나, 이는 차지인이 가장 중요한 개량을 하도록 북돋우기에는 아직 너무 짧은 동안이다. 옛적에 유럽 어디서나 입법자는 토지의 임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토지에 딸린 법은 모두 그들이 임자의 이익이라고 여긴 것에 맞추어 셈되었다. 앞서 있던 누군가가 맺어 준 차지 계약이 자기가 여러 해에 걸쳐 제 토지의 온 가치를 누리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제 이익이라고 그들은 여겼다. 탐욕과 옳지 않음은 언제나 앞을 보지 못하니, 그들은 이 규제가 개량을 얼마나 틀어막고 그리하여 마침내 지주의 참된 이익을 얼마나 해칠 것인지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

게다가 농부는 옛적에 지대를 무는 것 말고도 지주에게 아주 많은 부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졌는데, 그 부역은 차지 계약에 적히거나 어떤 또렷한 규칙으로 다스려지는 일이 드물고 장원이나 배런 영지의 관례와 버릇에 따랐다.[9] 그러므로 이 부역은 거의 전부가 제멋대로였으므로 차지인을 여러 괴롭힘에 놓이게 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차지 계약에 또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역을 모두 없앤 것이 몇 해 안에 그 나라 요먼층의 처지를 아주 크게 낫게 바꾸어 놓았다.

요먼층이 져야 했던 공적인 부역도 사사로운 부역만큼 제멋대로였다. 큰길을 만들고 건사하는 부역은 내가 믿기로 아직 어디서나 남아 있으나 나라마다 짓누르는 정도가 다르며, 그것만이 부역의 전부는 아니었다. 왕의 군대나 그의 집안사람이나 어떤 갈래의 관리가 나라의 어느 곳을 지나갈 때 요먼층은 조달관이 매긴 값으로 그들에게 말과 수레와 식료품을 대어 주어야 했다.[10] 내가 믿기로 영국은 징발의 억누름이 아예 없어진 유럽의 유일한 왕국이다. 그것은 프랑스와 독일에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이 물어야 했던 공적인 세금도 부역과 마찬가지로 고르지 않고 짓누르는 것이었다. 옛 영주들은 자기가 주권자에게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몹시 꺼렸으나, 주권자가 자기네 차지인에게 그들이 탈라주라 부른 것을 물리는 것은 선선히 허락하였으며, 이것이 마침내 자기네 수입에 얼마나 미칠지를 미리 볼 만한 앎이 없었다.[11] 프랑스에 아직 남아 있는 타유는 그 옛 탈라주의 보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농부가 얻으리라고 여겨지는 이윤에 물리는 세금인데, 그 이윤을 농장에 그가 가진 자산으로 어림한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산을 적게 가진 듯이 보이는 것, 따라서 경작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굴리고 개량에는 하나도 굴리지 않는 것이 그의 이익이다. 프랑스 농부의 손에 어떤 자산이

모이기라도 하면, 타유는 그것이 토지에 쓰이는 것을 거의 금하는 것과 맞먹는다. 게다가 이 세금은 그것을 무는 사람을 누구나 욕되게 하여 그를 신사의 지체만이 아니라 도시민의 지체보다도 낮추어 놓는다고 여겨지며, 남의 토지를 빌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물게 된다. 자산을 가진 신사도, 도시민조차도 이 낮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금은 토지 위에 모이는 자산이 그 개량에 쓰이는 것을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을 그 토지에서 몰아낸다. 옛적에 잉글랜드에서 그토록 예사였던 옛 10분의 1세와 15분의 1세도 토지에 미치는 한에서는 타유와 같은 성질의 세금이었던 것 같다.

이 모든 억누름 아래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에게서 개량을 바랄 것은 적었다. 그 무리의 사람들은 법이 줄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안전을 누리더라도 언제나 큰 불리함 아래에서 개량할 수밖에 없다. 임자에 견준 농부는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상인에 견준, 빌린 돈으로 장사하는 상인과 같다. 둘의 자산이 다 늘 수는 있으나, 처신이 똑같이 좋기만 하다면 한쪽의 자산은 빌린 돈의 이자로 이윤의 큰 몫이 먹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쪽의 것보다 느리게 늘 수밖에 없다. 농부가 경작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처신이 똑같이 좋기만 하다면, 생산물의 큰 몫이 지대로 먹히고 농부가 임자였다면 그것을 토지를 더 개량하는 데 굴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임자가 경작하는 토지보다 느리게 개량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농부의 자리는 일의 성질로 보아 임자의 자리보다 낮다. 유럽의 큰 몫에서 요먼층은 나은 편에 드는 소상인과 직공보다도 낮은 지체의 사람들로 여겨지며,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큰 상인과 제조업 고용주보다 낮은 지체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꽤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제 몸을 놓는 일은 좀처럼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의 상태에서도 다른 어떤 직업에서 농사의 길로 토지 개량에 흘러들 자산은 적을 듯하다. 영국에서는 아마

어느 나라보다 그런 일이 많으나, 그곳에서도 농사에 굴리는 큰 자산은 대개 농사로 얻은 것이었고, 농사는 아마 모든 생업 가운데 자산이 가장 느리게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임자들 다음으로는 넉넉하고 큰 농부가 어느 나라에서나 주된 개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유럽의 어느 왕국보다 잉글랜드에 아마 더 많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베른의 공화 정부 아래에서는 농부가 잉글랜드의 농부에 못지않다고 한다.

유럽의 옛 정책은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임자가 하든 농부가 하든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이롭지 않았다. 첫째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널리 금한 것인데 이것은 아주 두루 퍼진 규제였던 것 같고, 둘째는 매점자와 되팔이와 선매자를 막는 어이없는 법과 정기장과 장이 누린 특권으로, 곡물만이 아니라 농장 생산물의 거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 안 교역에 걸어 놓은 굴레다.[12]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금하고 아울러 바깥 곡물을 들여오는 것을 얼마쯤 북돋운 것이, 유럽에서 본디 가장 걸차고 그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 자리 잡았던 옛 이탈리아의 경작을 어떻게 틀어막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 상품의 나라 안 교역에 걸린 그런 굴레가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널리 금한 것과 어우러져, 덜 걸차고 처지가 덜 좋은 나라의 경작을 얼마나 눌렀을지는 아마 그려 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3장 —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도시가 일어나 뻗어 나간 과정에 대하여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크고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참으로 그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옛 공화국에 처음 살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뒤의 사람들은 주로 토지의 임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나라의 땅이 처음에 갈렸고, 그들은 서로 가까이에 집을 짓고 함께 지키려고 그 집들을 담으로 둘러싸는 것이 편하다고 여겼다. 반대로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토지의 임자들은 대개 제 재산 안에 있는 성채에서 자기 차지인과 딸린 사람들 가운데에 살았던 것 같다. 도시에는 주로 소상인과 직공이 살았는데, 그 시절에 그들은 예속 신분이거나 그에 아주 가까운 처지였던 것 같다. 옛 특허장이 유럽의 주된 도시 몇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을 보면, 그 허가가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떠하였는지가 넉넉히 드러난다. 영주의 허락 없이 제 딸을 혼인시켜 보낼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죽을 때 영주가 아니라 제 자식이 제 재물을 이어받는다는 것, 제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허가가 있기 전에는 아예 또는 아주 가깝게 시골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과 같은 예속 농민의 처지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참으로 그들은 아주 가난하고 낮은 무리의 사람들로, 오늘날의 행상과 등짐장수처럼 제 물건을 지니고 곳에서 곳으로, 정기장에서 정기장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날 아시아의 여러 타타르 정부에서 그러하듯, 길손이 어떤 장원을 지날 때, 어떤 다리를 건널 때, 정기장 안에서 제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그것을 팔려고 그 안에 가게나 좌판을 세울 때 그 사람과 물건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예사였다. 이 여러 세금은 잉글랜드에서 통행세와 교량세와 하물세와 좌판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13] 더러는 왕이, 더러는 어떤 큰 영주가, 어떤 경우에는 그럴 권한이 있었던 듯한데, 특정한 장사꾼에게, 특히 자기 직영지에 사는 장사꾼에게 그런 세금을 두루 면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 장사꾼은 다른 점에서는 예속 신분이거나 그에 아주 가까운 처지였음에도 이 때문에 자유 상인이라 불렸다. 그들은 그 대신에 자기를 지켜 주는 이에게 해마다 일종의 인두세를 무는 것이

예사였다. 그 시절에 보호는 값나가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으며, 이 세금은 아마 그들이 다른 세금을 면제받아 그 후원자가 잃게 될 것에 대한 메움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인두세도 그 면제도 아예 사람에게 딸린 것이어서,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그들을 지켜 주는 이의 뜻이 이어지는 동안에 특정한 개인에게만 미쳤던 것 같다. 잉글랜드의 여러 도시에 대하여 그 땅과 재산을 1086년에 적어 놓은 대장인 『둠즈데이 북』에서 뽑아 펴낸 아주 어설픈 기록에는, 이런 갈래의 보호를 받으려고 특정한 도시민이 저마다 왕이나 다른 어떤 큰 영주에게 문 세금이 더러 적혀 있고 더러는 그 모든 세금의 전체 액수만 적혀 있다. {브레이디의 『도시와 자치 도시에 대한 역사 논고』 3쪽 등을 보라.}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가 처음에 얼마나 예속되어 있었든, 그들이 시골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보다 훨씬 이르게 자유와 독립에 이르렀다는 것은 또렷이 드러난다. 어느 특정한 도시에서 그런 인두세로 생긴 왕의 수입 가운데 일부는, 몇 해를 두고 일정한 지대를 받는 것으로 더러는 주 장관에게 더러는 다른 사람에게 청부로 넘기는 것이 예사였다.[14] 도시민 자신이 저마다 그리고 함께 지대 전체를 맡는 것으로 하여, 제 도시에서 나오는 이런 갈래의 수입을 청부받도록 받아들여질 만한 믿음을 얻는 일도 잦았다. {매독스 『퍼르마 부르기』 18쪽. 또 『국고청 역사』 10장 5절 223쪽, 초판을 보라.} 이렇게 청부를 넘기는 것은 내가 믿기로 유럽 여러 나라 주권자들의 예사로운 살림살이에 아주 잘 맞았으며, 그들은 장원 전체를 그 장원의 모든 차지인에게 넘겨 그들이 저마다 그리고 함께 지대 전체를 맡되, 그 대신에 자기네 손으로 그것을 걷고 자기네가 뽑은 집사의 손으로 왕의 국고청에 들여놓도록 하여 왕의 관리들이 부리는 오만에서 아예

벗어나게 해 주는 일이 잦았으니, 그 시절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처음에는 그 도시의 청부가 아마 다른 청부인에게 그러하였듯이 도시민에게 몇 해를 두고만 넘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것을 영구 보유로, 곧 영원히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 뒤로 결코 늘리지 않을 일정한 지대만 남겨 두는 것이 두루 하는 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그 치름이 영원한 것이 되자, 그 대신으로 주어진 면제도 자연히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면제는 사람에게 딸린 것이기를 그치고, 그 뒤로는 개인으로서의 개인에게 딸린 것으로 여겨질 수 없고 특정한 자치 도시의 도시민에게 딸린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때문에 그 도시를 자유 도시라 불렀으니 그들을 자유 도시민이나 자유 상인이라 부른 것과 같은 까닭이다.

이 허가와 함께, 앞에 말한 중요한 특권, 곧 제 딸을 혼인시켜 보낼 수 있고 제 자식이 제 것을 이어받으며 제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권이 그것을 받은 도시의 도시민에게 대개 주어졌다. 그런 특권이 그전에 장사의 자유와 함께 특정한 도시민에게 개인으로서 예사로 주어졌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그럴 법하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으나 그것을 밝힐 곧바른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였든, 이렇게 예속 농민 신분과 노예 신분의 주된 표지가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들은 이제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는 낱말로 뜻하는 뜻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개 같은 때에 하나의 공동체 곧 자치 단체로 세워져, 자기네 행정관과 시 참사회를 두고 자기네 다스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자기네를 지키려고 담을 쌓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파수와 지킴의 의무를 지워 일종의 군사 규율 아래 두는 특권을 받았으니, 파수와 지킴은 옛적에 이해된 대로는 밤낮으로 그

담을 모든 공격과 기습에서 지키고 막는 것이다.[15] 잉글랜드에서 그들은 대개 헌드레드 법정과 주 법정에 나갈 의무를 면제받았고, 그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송사는 국왕 소추 사건만 빼고 자기네 행정관의 판정에 맡겨졌다.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크고 넓은 재판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잦았다. {매독스 『퍼르마 부르기』를 보라. 또 프리델의 『프리드리히 2세와 슈바벤 가문의 그 뒤 계승자들 아래에서 일어난 눈에 띄는 일들』을 보라.}

제 수입을 청부받도록 허락된 도시에는 자기네 시민이 치르게 만들 어떤 강제 재판권을 주는 것이 아마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어지러운 시절에 이런 갈래의 재판을 다른 어떤 법정에서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몹시 거북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의 주권자들이 자기 수입 가운데 아마 다른 어느 갈래보다도 자기 비용이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일이 저절로 흘러가는 동안에 늘어날 법한 갈래를 이렇게 다시는 늘리지 않을 일정한 지대와 맞바꾸고, 게다가 자기 영토의 심장에 일종의 독립한 공화국을 제 뜻으로 세워 준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절에 유럽의 어느 나라 주권자도 자기 영토 온 넓이에 걸쳐 제 백성 가운데 약한 쪽을 큰 영주들의 억누름에서 지켜 줄 힘이 아마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 법이 지켜 줄 수 없고 제 힘으로 제 몸을 지킬 만큼 세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떤 큰 영주의 보호에 매달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의 노예나 봉신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함께 지키려고 서로 돕는 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크고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제 몸을 지킬 힘이 없었으나, 이웃과 서로 돕는 동맹에 들어감으로써 업신여길 수 없는 저항을 할 수 있었다. 영주들은 도시민을 업신여겨 다른 무리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풀려난 노예 떼로, 거의 자기와 다른 종류로 여겼다.

도시민의 넉넉함은 그들의 시새움과 분함을 어김없이 돋우었고, 그들은 틈만 나면 자비도 뉘우침도 없이 도시민을 털었다. 도시민은 자연히 영주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왕도 영주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왕은 도시민을 업신여겼을지는 몰라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이익이 도시민으로 하여금 왕을 떠받치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영주들에 맞서 도시민을 떠받치게 하였다. 그들은 왕의 원수의 원수였으니, 그들을 그 원수들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고 독립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이익이었다. 자기네 행정관을 두는 것, 자기네 다스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특권, 자기네를 지키려고 담을 쌓는 특권,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일종의 군사 규율 아래 두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어, 왕은 자기 힘으로 베풀 수 있는 모든 안전의 수단과 배런들에게서 독립할 수단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갈래의 규칙 있는 다스림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계획이나 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 어떤 권위가 없고서는, 서로 돕는 어떤 자발스러운 동맹도 그들에게 오래가는 안전을 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왕에게 꽤 큰 힘을 보태게 만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제 도시의 청부를 영구 보유로 넘겨줌으로써 왕은, 자기 벗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자기 동맹자로 삼고 싶은 이들에게서, 제 도시의 청부 지대를 올리거나 그것을 다른 청부인에게 넘겨 자기를 언젠가 짓누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시새움과 의심의 모든 바탕을 없애 주었다.

그에 따라 자기 배런들과 가장 나쁜 사이로 지낸 군주들이 자기 자치 도시에 이런 갈래의 허가를 가장 후하게 준 것 같다. 보기를 들면 잉글랜드 왕 존은 자기 도시들에 아주 너그러운 베푸는 이였던 것 같다. {매독스를 보라.} 프랑스의 필리프 1세는 자기 배런들에 대한 권위를 모두 잃었다. 다니엘 신부에 따르면 그의 치세가 저물 무렵 그의 아들

루이, 뒷날 뚱보 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는 왕실 직영지의 주교들과 함께 큰 영주들의 폭력을 누를 가장 알맞은 길을 놓고 의논하였다. 그들의 조언은 두 가지 다른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그의 직영지에 있는 꽤 큰 도시마다 행정관과 시 참사회를 세워 새로운 갈래의 재판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행정관의 지휘 아래 마땅한 일이 생기면 왕을 도우려 나아가게 하여 새로운 민병을 이루는 것이었다. 프랑스 고문서 학자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도시의 행정관과 참사회라는 제도가 세워진 것은 이때부터로 잡아야 한다. 독일의 자유 도시 대부분이 그 특권을 처음 허가받은 것, 그리고 이름난 한자 동맹이 처음 두려운 세력이 된 것은 슈바벤 가문 군주들의 뜻대로 되지 않던 치세 동안이었다. {프리델을 보라.}

그 시절에 도시의 민병은 시골의 민병에 못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더 쉽게 모일 수 있었으므로 이웃 영주들과 다툴 때 그들이 이로운 자리에 서는 일이 잦았다. 이탈리아나 스위스처럼 다스림의 중심에서 멀거나 그 나라 자체가 본디 튼튼하거나 그 밖의 어떤 까닭으로 주권자가 제 권위를 온통 잃게 된 나라에서는, 도시가 대개 독립한 공화국이 되어 근방의 귀족을 모두 이겨 내고 그들에게 시골의 성채를 헐어 내리고 다른 평화로운 주민처럼 도시 안에 와 살도록 시켰다. 이것이 베른 공화국의 짧은 역사이며 스위스의 여러 다른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베네치아를 빼면, 그 도시의 역사는 얼마쯤 다르므로 그러하되, 이것은 12세기 끝에서 16세기 처음 사이에 그토록 많이 일어나고 스러진 꽤 큰 이탈리아 공화국 전부의 역사다.

프랑스나 잉글랜드처럼 주권자의 권위가 자주 아주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예 무너진 적은 없는 나라에서는 도시가 온전히 독립하게 될 틈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큰 세력이 되어, 주권자는 정해진 도시

청부 지대 말고는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어떤 세금도 물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국 신분회에 대표를 보내라는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성직자와 배런들과 함께 급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도움을 허락하는 데 함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대개 왕의 힘에 더 호의를 보였으므로, 왕은 그 모임에서 큰 영주들의 권위에 맞서는 저울추로 그들의 대표를 더러 썼던 것 같다. 여기서 유럽의 모든 큰 왕국의 신분회에 자치 도시가 대표를 보내는 일이 비롯되었다.

질서와 좋은 다스림, 그리고 그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이렇게 도시에 세워진 때에, 시골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은 온갖 갈래의 폭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켜 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생계로 만족한다. 더 얻으면 자기를 짓누르는 이들의 옳지 않음을 부추기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 근면의 열매를 누릴 것이 안전하면 그들은 자연히 제 처지를 낫게 하고 살림에 꼭 있어야 할 것만이 아니라 편의와 우아함까지 얻으려고 근면을 쏟는다. 그러므로 꼭 있어야 할 생계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겨누는 근면은, 시골에서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이 그것을 흔히 하게 되기 훨씬 앞서 도시에 세워졌다. 예속 농민의 부림에 짓눌린 가난한 경작자의 손에 자산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주인에게 딸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그것을 주인에게서 아주 조심스럽게 숨기고 틈이 나는 대로 도시로 달아났을 것이다. 그때의 법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너그럽고 시골 사람들에 대한 영주의 권위를 줄이려는 마음이 그토록 커서, 그가 거기에서 한 해 동안 제 영주의 뒤쫓음을 벗어나 몸을 숨길 수 있으면 그는 영원히 자유로웠다. 그러므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한 쪽의 손에 모인 자산은 무엇이든 자연히 도시로 피해 들어갔으니,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성소가 도시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네 생계와 자기네 근면의 모든 재료와 수단을 시골에서 얻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닷가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강가에 놓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제 근방의 시골에서만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훨씬 넓은 자리가 있어서, 제 근면으로 만든 제조품과 바꾸어서든,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서 나르는 일을 맡아 한 나라의 생산물을 다른 나라의 생산물과 바꾸어서든, 세상의 가장 먼 구석에서 그것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어떤 도시는 제 근방의 시골만이 아니라 그가 거래하는 모든 나라가 가난과 궁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큰 넉넉함과 빛남에 이를 수 있었다. 그 나라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마 그 도시의 생계나 일거리 가운데 작은 몫밖에 댈 수 없었을 것이나, 모두 합치면 큰 생계와 큰 일거리를 다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 교역이 미치는 좁은 테두리 안에도 넉넉하고 부지런한 나라가 얼마쯤 있었다. 그리스 제국은 그것이 버티고 있는 동안 그러하였고 아바스 왕조 치세의 사라센도 그러하였다. 이집트도 튀르크인에게 정복될 때까지 그러하였고, 바르바리 해안의 얼마와 무어인의 다스림 아래 있던 스페인의 모든 속주도 그러하였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유럽에서 교역으로 꽤 큰 넉넉함에 이른 첫 도시였던 것 같다. 이탈리아는 그때 세상에서 개량되고 문명을 이룬 쪽의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십자군은 그것이 일으킨 자산의 큰 낭비와 사람의 죽음으로 유럽의 큰 몫이 나아가는 것을 늦추었음이 분명하나, 몇몇 이탈리아 도시가 나아가는 데에는 몹시 이로웠다. 성지를 얻으려고 온갖 곳에서 나아간 큰 군대는, 더러는 그들을 거기로 실어 나름으로써 언제나 그들에게 식료품을 대어 줌으로써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피사의 배에 여느 때 없는 북돋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들은 그 군대의 병참을 맡은 이들이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 닥친 것 가운데 가장 파괴스러운 미친 짓이 그 공화국들에는 넉넉함의 샘이 되었다.

거래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넉넉한 나라의 개량된 제조품과 값비싼 사치품을 들여옴으로써 큰 임자들의 헛된 자랑에 얼마쯤 먹이를 주었고, 큰 임자들은 제 땅의 원생산물을 많이 내어 그것을 다투어 사들였다. 그에 따라 그 시절 유럽의 큰 몫에서 교역은 주로 제 원생산물을 더 문명을 이룬 나라의 제조품과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양모는 프랑스의 포도주와 플란데런의 고운 옷감과 맞바꾸는 것이 예사였으니, 오늘날 폴란드의 곡물을 프랑스의 포도주와 브랜디,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비단과 우단과 맞바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바깥과의 교역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던 나라에 더 곱고 더 개량된 제조품을 좋아하는 취미를 들여왔다. 그러나 이 취미가 꽤 큰 수요를 일으킬 만큼 두루 퍼지자, 상인들은 나르는 비용을 아끼려고 자연히 같은 갈래의 제조업을 제 나라에 세우려 애썼다. 여기서 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의 서쪽 속주들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멀리 팔려 나갈 것을 만드는 첫 제조업이 비롯되었다.

어떤 큰 나라도 그 안에서 얼마간의 제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버틴 적이 없고 버틸 수도 없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제조업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더 곱고 더 개량된 제조업, 또는 멀리 팔기에 알맞은 제조업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어느 큰 나라에서나 사람들 가운데 훨씬 큰 몫의 옷과 살림 도구는 그들 자신의 근면이 낸 생산물이다. 제조업이 없다고 흔히 말하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넘친다고 말하는 그 넉넉한 나라에서보다

이것이 더욱 두루 그러하다. 뒤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지체의 사람들이 입는 옷과 쓰는 살림 도구에서도 앞의 나라에서보다 바깥 생산물의 몫이 훨씬 큰 것을 대개 보게 될 것이다.

멀리 팔기에 알맞은 제조업은 두 가지 다른 길로 여러 나라에 들어온 것 같다.

더러는 앞에 말한 길로,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특정한 상인과 사업가의 자산이 거센 힘으로 밀어붙여 들어왔으니, 그들은 같은 갈래의 바깥 제조업을 본떠 그것을 세웠다. 그러므로 그런 제조업은 바깥과의 교역이 낳은 자식이며, 13세기에 루카에서 번성한 비단과 우단과 금실 옷감의 옛 제조업이 그러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그린 영웅 가운데 하나인 카스트루초 카스트라카니의 폭정으로 그곳에서 쫓겨났다. 1310년에 900 집안이 루카에서 몰려났고 그 가운데 31 집안이 베네치아로 물러가 그곳에 비단 제조업을 들여놓겠다고 내놓았다. {산디 『베네치아 시민사』 2부 1권 247쪽과 256쪽을 보라.}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많은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일꾼 300명으로 그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플란데런에서 옛적에 번성하여 엘리자베스 치세 처음에 잉글랜드로 들어온 고운 옷감의 제조업도 그러하였던 것 같고, 오늘날 리옹과 스피털필즈의 비단 제조업도 그러하다. 이렇게 들어온 제조업은 바깥 제조업을 본뜬 것이므로 대개 바깥 재료로 이루어진다. 베네치아의 제조업이 처음 세워졌을 때 재료는 모두 시칠리아와 레반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루카의 더 오래된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바깥 재료로 이루어졌다.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일은 16세기 앞에는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재주는 샤를 9세 치세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에 들어왔다. 플란데런의 제조업은 주로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양모로 이루어졌다. 스페인 양모는 잉글랜드의 첫 털옷감 제조업의 재료는 아니었으나 멀리 팔기에 알맞은

첫 제조업의 재료였다. 리옹 제조업 재료의 절반 넘는 것이 오늘날 바깥 비단이며, 그것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전부나 거의 전부가 그러하였다. 스피털필즈 제조업의 재료는 어느 부분도 잉글랜드의 생산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제조업은 대개 몇몇 사람의 계획과 기획으로 들어오므로, 그 자리가 더러는 바닷가 도시에 더러는 내륙 도시에 잡히는데 그들의 이익이나 판단이나 변덕이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른다.

다른 때에는 멀리 팔기에 알맞은 제조업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거친 나라에서도 어느 때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집안 제조업과 거친 제조업이 차츰 고와짐으로써 자연히, 이를테면 저절로 자라난다. 그런 제조업은 대개 그 나라가 내는 재료로 이루어지며, 바다에서 아주 멀지는 않으나 꽤 떨어져 있고 더러는 물길이 아예 닿지 않는 내륙 나라에서 처음 고와지고 나아진 일이 잦았던 것 같다. 본디 걸차고 경작하기 쉬운 내륙 나라는 경작자를 먹이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 식료품을 많이 남기는데, 땅으로 나르는 비용과 강으로 배를 다니게 하는 데 따르는 거북함 때문에 이 남는 것을 바깥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일이 잦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넉넉함이 식료품을 값싸게 만들고, 제 근면이 다른 곳에서보다 그곳에서 살림에 꼭 있어야 할 것과 편의를 더 많이 얻어 줄 수 있음을 아는 일꾼을 많이 근방에 자리 잡게 북돋운다. 그들은 그 땅이 내는 제조 재료를 다루어 놓고, 다 만든 물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을 더 많은 재료와 식료품과 바꾼다. 그들은 원생산물 가운데 남는 몫을 물가나 멀리 떨어진 장으로 나르는 비용을 아껴 줌으로써 그것에 새 가치를 주고, 경작자에게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쓸모 있거나 마음에 맞는 것을 전보다 쉬운 값으로 대어 준다. 경작자는 남는 생산물에 더 나은 값을 받고 자기가 쓸 일이 있는 다른 편의를 더 값싸게 살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토지를 더 개량하고 더 낫게

경작하여 이 남는 생산물을 늘리도록 북돋아지고 또 그럴 수 있게 된다. 땅의 걸참이 그 제조업을 낳았듯이, 제조업이 나아가는 것이 다시 땅에 되돌아 작용하여 그 걸참을 더욱 늘린다. 제조업자는 먼저 근방에 물건을 대고, 그 뒤에 제 일이 나아지고 고와지는 대로 더 멀리 떨어진 장에 댄다. 원생산물도, 거친 제조품조차도 땅으로 꽤 멀리 나르는 비용을 아주 큰 어려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나, 곱고 개량된 제조품은 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은 부피 안에 많은 양의 원생산물 값을 담는 일이 잦다. 보기를 들어 무게가 8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고운 옷감 한 필은 그 안에 양모 80파운드의 값만이 아니라 더러는 곡물 몇천 파운드의 값, 그리고 여러 일하는 사람과 그들을 바로 부리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값까지 담고 있다. 제 모습 그대로는 바깥으로 나르기 어려웠을 곡물이 이렇게 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모습으로 사실상 내보내지며,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쉽게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리즈와 핼리팩스와 셰필드와 버밍엄과 울버햄프턴의 제조업이 자연히, 이를테면 저절로 자라났다. 그런 제조업은 농업이 낳은 자식이다. 유럽의 근대사에서 그것이 뻗어 나가고 나아진 것은 대개 바깥과의 교역이 낳은 제조업이 그리한 것보다 뒤였다. 잉글랜드가 스페인 양모로 만든 고운 옷감의 제조업으로 이름났던 것은, 앞에 말한 곳에서 오늘날 번성하는 제조업 가운데 어느 것이 바깥에 팔기에 알맞게 되기보다 100년도 더 앞선 일이었다. 뒤의 것이 뻗어 나가고 나아진 것은 농업이 뻗어 나가고 나아진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었으니, 농업의 그것은 바깥과의 교역,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들여온 제조업이 낸 마지막이자 가장 큰 결과이며, 이제 그것을 밝혀 나가려 한다.

---

1. 옮긴이 — 장자 상속은 토지를 갈라 주지 않고 맏아들 한 사람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제도다. 한사 상속은 물려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팔거나 갈라 내지 못하게 하여 미리

정해 둔 계통 안에만 머물게 얽어 두는 제도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18세기까지 널리 쓰였다.

2. 옮긴이 — 임의 차지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땅을 부치는 사람으로, 지주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었다. 몇 해를 정해 맺는 차지 계약과 달리 차지인에게 아무 보장이 없었다.

3. 옮긴이 — 메테예는 임자가 씨앗과 가축과 농기구를 다 대어 주고 생산물을 절반씩 나누는 차지인이다. 라틴어 콜로니 파르티아리이도 같은 것을 가리킨다. 프랑스 중부와 남부에 20세기까지 남아 있었다.

4. 옮긴이 — 예속 농민은 영주의 땅에 얽매여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곳을 떠날 수 없고 부역을 지던 농민이다. 노예와 달리 제 집과 세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몸이 땅에 딸려 있었다. 예속 보유는 그런 조건으로 땅을 부치는 것을 말한다.

5. 옮긴이 — 커먼 리커버리는 한사 상속으로 얽힌 땅을 풀거나 차지 계약을 깨뜨리려고 당사자끼리 짜고 벌인 꾸며 낸 소송이다. 점유 회복 소송은 땅에서 쫓겨난 차지인이 손해 배상만이 아니라 땅 자체를 되찾게 해 준 소송이고, 권리 영장과 입회 영장은 지주가 쓰던 더 오래되고 느린 소송 방법이다.

6. 옮긴이 — 요먼층은 잉글랜드에서 제 땅을 가지거나 땅을 빌려 스스로 농사하던 사람들의 층을 가리킨다. 귀족과 날품팔이 사이에 놓인 층으로, 스미스는 이 장에서 농부와 차지인을 아울러 이 말로 부른다.

7. 옮긴이 — 영국의 법령과 사건은 국왕이 자리에 오른 뒤 몇 해째인가로 가리킨다. 헨리 7세 치세 14년은 1498년이다.

8. 옮긴이 — 자유 보유지는 기한 없이 제 것으로 가지는 토지 보유다. 잉글랜드에서는 한 해 40실링 값이 넘는 자유 보유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 선거구의 의회 의원을 뽑는 표가 주어졌다. 1430년에 정해진 이 기준이 1832년까지 이어졌다.

9. 옮긴이 — 봉건 부역은 차지인이 지대와 따로 지주에게 바치던 몸으로 하는 일로, 밭갈이와 짐수레와 수확 돕기 따위였다. 장원은 영주의 재판권이 미치는 토지 단위이고, 배런 영지는 배런이 국왕에게서 직접 받은 영지다.

10. 옮긴이 — 징발은 국왕의 행차나 군대가 지날 때 말과 수레와 식료품을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내놓게 하던 권한이고, 조달관은 그 값을 매기고 걷는 관리였다. 잉글랜드에서는 1660년에 없어졌다.

11. 옮긴이 — 탈라주는 영주나 국왕이 차지인에게 마음대로 물리던 옛 세금이고, 타유는 그것에서 자란 프랑스의 직접세다. 신분에 따라 면제가 있어 귀족과 성직자는 물지 않았고 1789년까지 이어졌다.

12. 옮긴이 — 매점자는 곡물을 사 모아 두었다가 되파는 사람, 되팔이는 같은 장에서 산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파는 사람, 선매자는 물건이 장에 나오기 전에 길에서 미리 사들이는 사람이다. 중세 잉글랜드는 이 셋을 모두 법으로 벌하였다.

13. 옮긴이 — 통행세는 장원을 지날 때, 교량세는 다리를 건널 때, 하물세는 물건을 옮길 때, 좌판세는 장에 가게나 좌판을 세울 때 물던 세금이다.

14. 옮긴이 — 여기서 청부는 세금이나 지대를 걷을 권리를 일정한 액수를 받는 조건으로 남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원문의 farm 은 농장을 뜻하는 낱말과 같고 청부받은 사람을 farmer 라 불렀으므로, 이 대목의 「청부인」은 농부가 아니다.

15. 옮긴이 — 원문의 corporation 은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동업조합, 곧 길드를 뜻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도시가 하나의 단체로 세워져 제 행정관과 참사회와 조례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하므로 갈라 적었다.

4장 — 도시의 교역이 시골 개량에 이바지한 과정에 대하여

4장 — 도시의 교역이 시골 개량에 이바지한 과정에 대하여

교역과 제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커지고 부유해진 것은 그 도시가 딸린 나라의 개량과 경작에 세 가지 다른 길로 이바지하였다.

첫째, 도시는 그 나라의 원생산물에 크고 언제든 열려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경작과 그 뒤의 개량을 북돋웠다. 이 이로움은 도시가 자리 잡은 나라에만 갇히지 않고 도시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나라에 얼마간 미쳤다. 도시는 그 모든 나라에 원생산물이든 제조품이든 그 일부를 내놓을 장을 마련해 주었고, 따라서 그 모두의 근면과 개량을 얼마간 북돋웠다. 그러나 도시가 딸린 나라는 가까이 있는 덕으로 이 장에서 가장 큰 이로움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나라의 원생산물은 운반이 덜 물리므로, 장사꾼이 기르는 사람에게 더 나은 값을 치러 주면서도 먼 나라의 것과 같이 싸게 쓰는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었다.

둘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얻은 부는 팔려고 나온 토지를 사들이는 데 쓰이는 일이 잦았는데, 그 토지의 큰 몫은 경작되지 않은 땅인 경우가 많았다. 상인은 대개 시골 지주가 되고자 하는 뜻을 품으며, 그리 될 때 그들은 두루 모든 개량하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다. 상인은 제 돈을 주로 이윤이 남는 일에 굴리는 데 익어 있으나, 한갓 시골 지주는 그것을 주로 비용에 쓰는 데 익어 있다. 한쪽은 제 돈이 제 손을 떠났다가 이윤을

붙여 되돌아오는 것을 자주 보나, 다른 쪽은 한번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다시 볼 것을 좀처럼 바라지 않는다. 이 서로 다른 버릇은 어떤 갈래의 일에서나 그들의 마음결과 성향에 자연히 미친다. 상인은 대개 담대한 사업가이고 시골 지주는 겁 많은 사업가다. 한쪽은 제 토지의 가치를 비용에 견주어 올릴 만한 앞날이 그럴듯하게 보이면 큰 자본을 단번에 그 개량에 들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나, 다른 쪽은 자본이 있다 하여도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굴리는 일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 그가 아예 개량을 한다면 그것은 대개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해마다의 수입에서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개량되지 않은 나라에 자리 잡은 상업 도시에 살아 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에서 상인의 하는 일이 한갓 시골 지주의 하는 일보다 얼마나 더 기운차던가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상업의 일이 상인에게 자연히 심어 주는 조리와 아낌과 꼼꼼함의 버릇은, 그를 어떤 개량의 일이든 이윤과 성과를 내며 밀고 나가기에 훨씬 알맞은 사람으로 만든다.

셋째이자 끝으로, 교역과 제조업은 차츰 질서와 좋은 다스림을 들여놓았고 그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들여놓았는데, 그들은 그전에는 이웃과 거의 끊임없는 싸움의 상태에서, 그리고 제 윗사람에게 종처럼 매인 상태에서 살았다. 이것은 가장 덜 눈에 띈 것이기는 하나 그 모든 결과 가운데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아는 한 흄만이 여태까지 이것을 눈여겨본 글쓴이다.[1]

바깥과의 교역도 없고 좀 나은 제조업도 없는 나라에서 큰 임자는, 제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경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큰 몫을 맞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모두를 제집에서 시골스러운 손님 대접으로써 없앤다. 이 남는 생산물이 100명이나 1000명을 먹일 만하다면, 그는 100명이나 1000명을 먹이는 것 말고는 그것을 쓸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수많은 가신과 딸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제가 먹는 것에 맞갖게 되돌려 줄 것이 없고 온전히 그의 베풂으로 먹고살므로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으니, 병사가 제게 삯을 주는 군주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2] 유럽에서 교역과 제조업이 퍼지기 전에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이 베푼 손님 대접은, 주권자에서 가장 작은 배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쉬이 그려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컸다. 웨스트민스터 홀은 윌리엄 루퍼스의 식당이었고, 더러는 아마 그의 손님을 담기에 너무 크지 않았을 것이다.'[3] 토머스 베켓이 철에 맞추어 제 큰 방 바닥에 깨끗한 건초나 골풀을 깔아, 자리를 얻지 못한 기사와 종사들이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 고운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한 것은 하나의 호사로 여겨졌다. 저 대단한 워릭 백작은 제 여러 장원에서 날마다 30,000명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여기 든 수가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부풀림이 먹힐 만하려면 그 수는 참으로 아주 컸을 수밖에 없다. 거의 같은 갈래의 손님 대접이 몇 해 전까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여러 곳에서 베풀어졌다. 그것은 교역과 제조업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두루 있는 일인 듯하다. 포코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아라비아의 우두머리가 제 가축을 팔러 온 도시의 거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흔한 걸인까지도 저와 함께 앉아 제 잔치를 나누자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은 어느 점에서나 큰 임자의 가신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매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예속 농민 신분이 아닌 사람들조차 임의 차지인이었으니, 그들이 무는 지대는 그 토지가 그들에게 내주는 생계에 어느 점에서도 맞갖지 않았다.[4] 크라운 하나, 반 크라운,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가 몇 해 전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서 한 집안을 먹이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였다.'[5] 어떤

곳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러하며, 오늘날 그곳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큰 재산에서 남는 생산물을 그 재산 안에서 써 없애야 하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그의 가신이나 집안 하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매여 있기만 하다면, 그 일부를 제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쓰는 것이 임자에게 더 편한 일이 잦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 많은 손님도 너무 많은 식구도 거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면역 지대에 조금 더할 뿐인 값으로 제 집안을 먹일 만한 토지를 가진 임의 차지인은 어떤 하인이나 가신과도 다름없이 임자에게 매여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임자는 제 하인과 가신을 제집에서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차지인을 그들의 집에서 먹인다. 둘의 생계가 모두 그의 베풂에서 나오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은 그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 형편에서 큰 임자들이 제 차지인과 가신에게 반드시 가졌던 권위 위에 옛 배런들의 힘이 세워졌다. 그들은 제 재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울 때에는 재판관이 되고 싸울 때에는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 직영지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저마다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의 불의에 맞서 모든 주민의 힘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만한 권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왕이 그러하였다. 그 옛 시절에 국왕은 제 영토에서 가장 큰 임자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큰 임자들은 공동의 적을 함께 막기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예를 갖추었을 뿐이다. 모든 주민이 무장하고 서로 편들어 버티는 데 익은 큰 임자의 토지 안에서 조그만 빚을 물리게 하는 일은, 국왕이 제 권위로 그것을 하려 들었다면 내란을 끄는 것과 거의 같은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라의 큰 몫에서 재판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같은 까닭으로 시골 민병의 지휘를 그 민병이 따를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토지 재판권이 봉건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와 형사의 가장 높은 재판권만이 아니라 군대를 모으는 힘과 돈을 찍는 힘, 나아가 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힘까지, 이 모두가 봉건법이라는 이름조차 유럽에 알려지기 여러 세기 전에 큰 토지 임자들이 자유 소유로 가지고 있던 권리였다.[6] 잉글랜드에서 색슨 영주들의 권위와 재판권은 정복 전에도 그 뒤 노르만 영주들의 어느 것에 못지않게 컸던 것 같다. 그러나 봉건법이 잉글랜드의 공통법이 된 것은 정복 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프랑스에서 큰 영주들이 봉건법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가장 널리 미치는 권위와 재판권을 자유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 권위와 그 재판권은 모두 방금 그려 놓은 재산과 풍속의 형편에서 흘러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잉글랜드 왕가의 먼 옛날로 거슬러 오르지 않고도, 우리는 훨씬 뒤의 시절에서 그런 결과가 그런 원인에서 언제나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로카버의 신사인 로키얼의 캐머런 씨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곧 그때 레갈리티 영주라 불린 사람도 아니고 직속 차지인도 아니며 아길 공작의 봉신이었고 치안 판사조차 아니었음에도 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형사 재판권을 휘두르는 것이 예사였는데, 그것이 3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7] 그는 재판의 어떤 절차도 갖추지 않고 그리하였으나 아주 공평하게 그리하였다고 한다. 또 그때 그 지역의 형편이 공공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이 권위를 떠맡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그럴 법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 지대가 한 해에 500파운드를 넘은 적이 없는 그 신사는 1745년에 제 사람 800명을 이끌고 반란에 들어갔다.

봉건법이 들어온 것은 큰 자유 소유 영주들의 권위를 넓히기는커녕 그것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국왕에서 가장 작은 임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줄로 이어지는 복무와 의무를 딸린 일정한 위아래 질서를 세웠다. 임자가 아직 어린 동안에는 지대와 그 토지의 관리가 그 바로 위 상전의 손에 들어갔고, 따라서 모든 큰 임자의 것은 국왕의 손에 들어갔는데, 국왕은 그 어린 사람을 먹이고 가르칠 책임을 지고 후견인의 권위로 보아 그를 혼인시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졌으니, 다만 그 지체에 어울리지 않게 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왕의 권위를 굳히고 큰 임자들의 권위를 허무는 데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하여도, 그것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질서와 좋은 다스림을 세우기에는 어느 쪽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 어지러움이 나온 재산과 풍속의 형편을 넉넉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스림의 권위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는 너무 약하고 아래 팔다리에서는 너무 센 채로 이어졌으며, 아래 팔다리가 지나치게 센 것이 머리가 약한 까닭이었다. 봉건의 위아래 질서가 세워진 뒤에도 국왕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큰 영주들의 폭력을 억누를 힘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제 뜻대로 싸움을 벌였으니 거의 끊임없이 서로를 상대로 그리하였고 아주 잦게는 국왕을 상대로도 그리하였으며, 담 밖의 시골은 여전히 폭력과 노략과 어지러움의 무대로 남았다.

그러나 봉건 제도의 온갖 폭력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었던 것을 바깥과의 교역과 제조업이 소리 없고 느껴지지 않는 움직임으로 차츰 이루어 냈다. 이것들은 큰 임자들에게 제 토지에서 남는 생산물 전체를 맞바꿀 만한 것, 그러면서 차지인과도 가신과도 나누지 않고 제가 다 쓸 수 있는 것을 차츰 마련해 주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어느 시대에나 인류의 주인들이

지녔던 못된 격언이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 지대의 값 전체를 스스로 써 없앨 길을 찾아내자마자 그것을 다른 누구와 나눌 마음이 없어졌다. 아마 다이아몬드 죔쇠 한 벌, 또는 그만큼 시시하고 쓸모없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들은 1000명을 한 해 먹일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먹일 값을 맞바꾸었고, 그와 함께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온 무게와 권위까지 맞바꾸었다. 그러나 그 죔쇠는 다 제 것이 될 터였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할 터였으나, 더 오래된 쓰임새로는 그들이 적어도 1000명과 나누어야 하였을 것이다. 어느 쪽이 나은지를 가릴 재판관에게 이 차이는 더할 나위 없이 결정적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허영 가운데 가장 어린애 같고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제 힘과 권위를 다 차츰 맞바꾸어 내주었다.

바깥과의 교역도 없고 좀 나은 제조업도 없는 나라에서 한 해 10,000파운드를 얻는 사람은 제 수입을 아마 1000 집안을 먹이는 것 말고는 달리 굴릴 길이 없으며, 그 집안들은 모두 그의 분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유럽의 형편에서 한 해 10,000파운드를 얻는 사람은 제 수입을 다 쓸 수 있고 대개 그리하는데, 스무 사람을 곧바로 먹이지도 않고 분부할 값도 없는 열 명의 하인보다 많은 사람에게 분부할 수도 없다. 에두르는 길로는 그가 아마 옛 쓰임새로 먹일 수 있었을 만큼 많은, 아니 그보다도 많은 사람을 먹인다. 그가 제 수입 전체를 맞바꾸어 얻는 값진 물건의 양은 아주 적으나, 그것을 모으고 다듬는 데 부린 일꾼의 수는 아주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물건의 큰 값은 대개 그들의 노동의 임금과 그들을 바로 부린 모든 사람의 이윤에서 나온다. 그는 그 값을 치름으로써 에두르는 길로 그 모든 임금과 이윤을 치르며, 그리하여 에두르는 길로 그 모든 일꾼과 그들을 부린 사람들을 먹이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그가 저마다를 먹이는 데 이바지하는 몫은 아주 작으니, 아주 적은 몇몇에게는 아마

10분의 1이 못 되고 많은 이에게는 100분의 1이 못 되며 어떤 이에게는 그 한 해 전체 먹거리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고 10,000분의 1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 모두를 먹이는 데 이바지하기는 하나,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얼마간 벗어나 있으니 대개 그가 없어도 다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이다.

큰 토지 임자들이 제 지대를 제 차지인과 가신을 먹이는 데 쓸 때에는, 저마다 제 차지인 모두와 제 가신 모두를 온전히 먹인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소상인과 수공업자를 먹이는 데 쓸 때에는, 그들을 다 합치면 아마 그전과 같은 수, 또는 시골스러운 손님 대접에 따르는 허비 덕에 그전보다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저마다를 떼어 놓고 보면, 그 더 많은 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먹이는 데 이바지하는 몫은 아주 작은 일이 잦다. 소상인이나 수공업자는 저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나 1000명의 서로 다른 손님이 주는 일에서 제 생계를 얻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 모두에게 얼마간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아예 매여 있지는 않다.

큰 임자들의 몸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차츰 늘었으므로, 그들의 가신 수가 그와 나란히 줄어들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들을 아예 내보내는 데 이르렀다. 같은 원인이 그들로 하여금 차츰 쓸데없는 차지인을 내보내게 하였다. 농장은 커졌고, 토지를 차지해 부친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하소연이 있었음에도 그 시절의 어설픈 경작과 개량의 형편에 맞추어 그것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수로 줄었다. 쓸데없는 입을 덜고 농부에게서 농장의 온 값을 받아 냄으로써, 더 많이 남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더 많이 남는 것의 값이 임자에게 들어왔고, 상인과 제조업자는 머지않아 그가 그것을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제 몸에 쓸 길을 마련해 주었다. 그 원인이 계속 움직였으므로 그는 제 토지가 실제 개량된 형편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 지대를 올리고 싶어

하였다. 그의 차지인은 한 가지 조건에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를 더 개량하는 데 들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윤과 함께 되찾을 만한 시간을 줄 만큼 여러 해 동안 제 보유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지주의 비용 드는 허영은 그로 하여금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긴 차지 계약이 비롯되었다.

토지의 온 값을 무는 임의 차지인조차도 지주에게 아예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받는 돈의 이로움은 맞갚음이고 맞먹는 것이며, 그런 차지인은 임자를 섬기느라 제 목숨도 제 재산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여러 해를 정한 차지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아예 벗어나 있으며, 그의 지주는 차지 계약에 똑똑히 적힌 것이나 그 나라의 두루 알려진 법이 그에게 지운 것 말고는 아무리 자그마한 섬김도 그에게서 바랄 수 없다.

차지인이 이렇게 벗어나고 가신이 내보내지자, 큰 임자들은 더 이상 재판이 가지런히 집행되는 것을 막거나 시골의 평화를 흔들 수 없었다. 그들은 제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으되 에서처럼 굶주리고 다급할 때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 아니라, 넉넉함에 겨워 노리개와 장식붙이에, 곧 어른의 진지한 일거리보다 아이의 장난감에 알맞은 것에 팔았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도시의 어느 넉넉한 도시민이나 소상인과 다름없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가지런한 다스림이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골에도 세워졌으니,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흔들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지금 다루는 주제와 관계가 없겠으나, 나는 여러 대를 이어 아버지에서 아들로 꽤 큰 재산을 지녀 온 아주 오래된 집안이 상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처럼 교역이 적은 나라에서는 그런 집안이 아주 흔하다. 아라비아의 역사서는 모두 계보로

가득한 듯하고, 어느 타타르 칸이 쓴 역사서가 있어 여러 유럽 말로 옮겨졌는데 그 안에는 거의 계보밖에 없으니, 그 민족들 사이에 오래된 집안이 아주 흔하다는 증거다. 부유한 사람이 제 수입을 그것이 먹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말고는 달리 쓸 길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는 살림을 다 흩기 쉽고 그의 어짊은 제 힘에 넘치는 수를 먹이려 들 만큼 세찬 일이 좀처럼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수입을 제 몸에 쓸 수 있는 곳에서는 그의 비용에 한이 없는 일이 잦으니, 그의 허영이나 제 몸을 아끼는 마음에 한이 없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부가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가장 모진 법의 규제가 있어도 부가 같은 집안에 오래 머무는 일이 아주 드물다. 반대로 소박한 민족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의 규제가 없이도 그런 일이 잦으니, 타타르인과 아랍인 같은 목자의 민족 사이에서는 그 재산이 써 없앨 수 있는 성질이라서 그런 규제가 모두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혁명이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무리의 사람들 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공공을 섬길 뜻이 조금도 없었다. 가장 어린애 같은 허영을 채우는 것이 큰 임자들의 유일한 동기였다. 훨씬 덜 우스꽝스러운 상인과 수공업자는 오직 제 이익을 보아 움직였으며, 한 푼을 얻을 데가 있으면 어디서나 한 푼을 버는 저들의 행상 원리를 따랐을 뿐이다. 둘 가운데 어느 쪽도 한쪽의 어리석음과 다른 쪽의 근면이 차츰 이루어 내고 있던 그 큰 혁명을 알지도 못하였고 미리 내다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유럽의 큰 몫에서 도시의 교역과 제조업은 시골이 개량되고 경작된 것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어긋나므로 느리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 부가 교역과 제조업에 크게 달려 있는 유럽

나라들의 느린 나아감을, 그 부가 온전히 농업에 터를 둔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빠른 나아감과 견주어 보라. 유럽의 큰 몫에서는 주민의 수가 500년이 못 되어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여러 곳에서는 그것이 20년이나 25년에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유럽에서는 장자 상속법과 여러 갈래의 영구 구속이 큰 재산이 갈리는 것을 막고, 그리하여 작은 임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제 작은 땅의 구석구석을 알고, 재산이 더구나 작은 재산이 자연히 불러일으키는 온 애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런 까닭에 그것을 경작하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꾸미는 데에서도 즐거움을 얻는 작은 임자는 두루 모든 개량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다. 게다가 같은 규제가 그토록 많은 토지를 장에 나오지 못하게 붙들어 두므로, 팔 토지보다 살 자본이 늘 더 많고 따라서 팔리는 것은 늘 독점 가격에 팔린다. 그 지대는 산 값의 이자를 결코 채우지 못하며, 게다가 돈의 이자에는 없는 수리비와 그때그때 드는 다른 비용을 짊어진다. 토지를 사는 것은 유럽의 어디서나 작은 자본을 굴리는 가장 이윤 없는 길이다. 참으로 더 나은 안전을 위하여, 넉넉함이 어중간한 사람이 일에서 물러날 때 제 작은 자본을 토지에 들이기를 더러 고르기도 한다. 또 제 수입이 다른 데서 나오는 전문 직업의 사람도 제가 모은 것을 같은 길로 안전하게 두기를 좋아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장사나 어떤 전문 직업에 몸을 붙이지 않고 2,000파운드나 3,000파운드의 자본을 작은 땅 한 조각을 사서 경작하는 데 굴리는 젊은이는, 참으로 아주 행복하고 아주 홀가분하게 살기를 바랄 수 있겠으나 큰 재산이나 크게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모든 바람에는 영원히 작별을 말해야 하니, 제 자산을 달리 굴렸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 또 그런 사람은 임자가 되기를 바랄 수 없으면서도 농부가 되는 것을 낮잡아

보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장에 나오는 토지의 양이 적은 것과 거기 나온 것의 값이 높은 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 방향으로 갔을 많은 자본이 그 경작과 개량에 굴려지는 것을 막는다. 반대로 북아메리카에서는 50파운드나 60파운드가 개척지를 하나 벌이기에 넉넉한 자산으로 드러나는 일이 잦다. 경작되지 않은 토지를 사서 개량하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본에게나 가장 큰 자본에게나 가장 이윤이 남는 길이며, 그 나라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이름을 얻는 가장 곧바른 길이다. 참으로 그런 토지는 북아메리카에서 거의 값 없이, 또는 그 자연스러운 생산물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얻을 수 있으니, 유럽에서는 또 참으로 모든 토지가 오래전부터 사사로운 재산이 된 어느 나라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토지 재산이 자식이 많은 임자가 죽을 때 그 모든 자식에게 고르게 갈린다면, 대개 그 재산을 팔게 된다. 그토록 많은 토지가 장에 나와 그것이 더는 독점 가격에 팔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토지의 부담 없는 지대가 산 값의 이자를 채우는 데 더 가까이 갈 것이고, 작은 자본을 토지를 사는 데 굴리는 것이 다른 어느 길만큼 이윤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8]

잉글랜드는 흙이 타고나게 걸차고, 나라 전체에 견주어 바닷가가 아주 길고, 그 안을 흐르며 가장 안쪽 여러 곳까지 물길 운반의 편함을 주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많으므로, 아마 유럽의 어느 큰 나라에도 못지않게 바깥과의 교역과 먼 곳에 팔 제조업과 이것들이 낳을 수 있는 모든 개량의 자리가 되기에 자연이 알맞게 만들어 놓은 나라다. 또 엘리자베스 치세가 시작된 때부터 잉글랜드의 입법부는 교역과 제조업의 이익에 유별나게 마음을 썼으며, 참으로 유럽에서 네덜란드조차 빼놓지 않고 그 법이 두루 보아 이런 갈래의 산업에 이보다 이로운 나라는 없다. 따라서 교역과 제조업은 이 온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나아갔다. 나라의 경작과 개량도 의심할 것 없이 차츰

나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교역과 제조업의 더 빠른 나아감을 느리게, 멀찍이 떨어져 뒤따랐던 것 같다. 나라의 큰 몫은 아마 엘리자베스 치세 전에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나, 그 가운데 아주 큰 몫이 아직도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훨씬 더 큰 몫의 경작이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법은 교역을 지켜 줌으로써 에두르는 길로만이 아니라 여러 곧바른 북돋움으로도 농업을 돕는다. 모자랄 때를 빼면 곡물을 내보내는 것은 자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북돋워진다. 넉넉함이 어중간할 때에는 바깥 곡물을 들여오는 데 금지에 맞먹는 관세가 물린다. 살아 있는 가축을 들여오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오는 것을 빼고는 언제나 금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오는 것이 허용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토지 생산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품목인 빵과 푸줏간 고기에 대하여 제 나라 사람들에게 맞서는 독점을 쥐고 있다. 이런 북돋움은 뿌리에서 보면 아마 내가 뒤에 밝히려 하겠듯이 온전히 헛것이겠으나, 적어도 입법부가 농업을 도우려 한 좋은 뜻은 넉넉히 드러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의 요먼층이 법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홀가분하고 떳떳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 상속권이 자리 잡고 십일조를 물며 영구 구속이 법의 정신에 어긋나면서도 더러는 허용되는 나라로서 잉글랜드보다 농업을 더 북돋우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그 경작의 형편은 그러하다. 법이 교역의 나아감에서 에두르는 길로 생기는 것 말고는 농업에 아무런 곧바른 북돋움도 주지 않았고 요먼층을 유럽의 다른 대부분 나라와 같은 처지에 두었더라면, 그것은 어떠하였을까? 엘리자베스 치세가 시작된 때로부터 이제 200년이 넘었으니, 사람의 번영이 흔히 이어지는 기간만큼 긴 세월이다.

프랑스는 잉글랜드가 상업 나라로 이름나기 거의 한 세기 전부터 바깥과의 교역을 꽤 많이 지녔던 것 같다. 프랑스의 해군은 샤를 8세가 나폴리로 원정하기 전에 그 시절의 생각으로 보아 꽤 컸다.[9] 그러나 프랑스의 경작과 개량은 두루 보아 잉글랜드의 것보다 못하다. 그 나라의 법은 농업에 같은 곧바른 북돋움을 준 적이 없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의 다른 곳과 하는 바깥과의 교역은 주로 남의 배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꽤 크다. 그 식민지와 하는 교역은 제 배로 이루어지며, 그 식민지가 아주 부유하고 넓은 까닭에 훨씬 크다. 그러나 그것은 두 나라 어느 쪽에도 먼 곳에 팔 만한 제조업을 꽤 크게 들여놓은 적이 없으며, 두 나라의 큰 몫은 아직도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포르투갈의 바깥과의 교역은 이탈리아를 빼면 유럽의 어느 큰 나라의 것보다 오래되었다.

이탈리아는 바깥과의 교역과 먼 곳에 팔 제조업으로 구석구석까지 경작되고 개량된 듯한 유럽의 유일한 큰 나라다. 귀차르디니에 따르면 샤를 8세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탈리아는 가장 산이 많고 메마른 곳도 가장 평평하고 가장 걸찬 곳에 못지않게 경작되었다.[10] 그 나라의 이로운 처지와 그때 그 안에 있던 많은 독립한 나라가 아마 이 두루 퍼진 경작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또 오늘날 역사가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가장 말을 아끼는 사람의 이 두루뭉술한 말이 있음에도, 그때 이탈리아가 오늘날 잉글랜드보다 더 잘 경작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역과 제조업으로 어느 나라가 얻은 자본은, 그 가운데 얼마가 그 토지의 경작과 개량에 붙들려 실물로 되기까지는 언제나 아주 위태롭고 불확실한 소유물이다. 상인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시민일 필요가 없다고 아주 알맞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가 어느 곳에서 제 장사를 하는지는 그에게 크게 아랑곳없는 일이며, 아주 사소한

불쾌함만으로도 그는 제 자본을, 그리고 그와 함께 그것이 떠받치는 모든 산업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갈 것이다. 그 가운데 어느 부분도 어느 특정한 나라에 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것이 건물로든 토지의 오래가는 개량으로든 그 나라의 얼굴에 마치 펼쳐 놓이기까지는 그렇다. 한자 도시들의 큰 몫이 지녔다고 하는 큰 부는 이제 13세기와 14세기의 흐릿한 역사 말고는 아무 자취도 남아 있지 않다.[11] 그 가운데 몇 곳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 몇 곳에 붙은 라틴어 이름이 유럽의 어느 도시에 해당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5세기 끝과 16세기 처음에 이탈리아에 닥친 불운이 롬바르디아와 토스카나 도시들의 교역과 제조업을 크게 줄여 놓았음에도, 그 지역은 여전히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잘 경작된 곳에 든다. 플란데런의 내란과 그 뒤를 이은 스페인의 다스림은 안트베르펜과 헨트와 브뤼허의 큰 교역을 쫓아냈다. 그러나 플란데런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경작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속주의 하나로 남아 있다. 전쟁과 통치의 예사로운 격변은 교역에서만 생기는 부의 샘을 쉬이 마르게 한다. 농업의 더 단단한 개량에서 생기는 부는 훨씬 오래가며, 적대하는 야만의 민족이 한두 세기를 이어 노략하여 일으키는 저 더 모진 뒤흔들림이 아니고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 유럽 서쪽 속주에서 로마제국이 무너지기 얼마 전과 그 뒤 얼마 동안 일어난 것과 같은 것들이다.

4편 —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의 학문의 한 갈래로 볼 때 두 가지 다른 목표를 내놓는다. 첫째는 백성에게 넉넉한 수입 곧 생계를 마련해 주는

것, 더 알맞게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그런 수입 곧 생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 곧 공동체에 공공의 일에 넉넉한 세입을 대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백성과 주권자를 다 부유하게 하고자 한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풍요가 다르게 나아간 것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두 가지 다른 정치경제학 체계가 생길 계기를 주었다. 하나는 상업 체계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농업 체계라 부를 수 있다. 나는 둘을 다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또렷하게 밝히려 하며, 상업 체계에서 시작하겠다. 그것은 오늘날의 체계이며 우리 나라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있다.

1장 — 상업 체계 곧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에 대하여

부가 돈, 곧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루 퍼진 생각인데, 이것은 돈이 교역의 연장이자 가치의 자라는 두 가지 노릇을 하는 데서 자연히 생긴다. 돈이 교역의 연장인 까닭에,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다른 무엇이든 다른 어떤 상품으로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큰일은 언제나 돈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늘 본다. 그것을 얻으면 그다음 무엇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돈이 가치의 자인 까닭에, 우리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그것이 맞바꿀 돈의 양으로 헤아린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을 두고 그가 많은 값어치가 있다 하고, 가난한 사람을 두고 그가 아주 적은 돈의 값어치가 있다 한다. 검약한 사람이나 부유해지기를 애타게 바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하고, 무심한 사람이나 후한 사람이나 헤픈 사람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다. 부유해지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며, 한마디로 부와 돈은 흔한 말씨에서 어느 점에서나 같은 말로 여겨진다.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이 넘치는 나라로 여겨지며, 어느 나라에 금과 은을 쌓아 올리는 것이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길로 여겨진다. 아메리카를 찾아낸 뒤 한동안 스페인인이 알려지지 않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처음 묻는 것은 그 근처에서 금이나 은을 찾을 수 있는지였다. 그들은 얻은 소식에 따라 그곳에 정주지를 세울 만한지, 또는 그 나라가 정복할 값이 있는지를 가늠하였다. 프랑스 국왕이 저 이름난 칭기즈 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절로 보낸 수사 플라노 카르피니는, 타타르인이 자기에게 프랑스 왕국에 양과 소가 많으냐고 자주 묻는 것이 예사였다고 말한다.[12] 그들의 물음은 스페인인의 물음과 같은 목적을 지녔다. 그들은 그 나라가 정복할 값이 있을 만큼 부유한지 알고자 하였다. 타타르인 사이에서는 돈의 쓰임을 두루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목자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가축이 교역의 연장이요 가치의 자다. 그러므로 그들에 따르면 부는 가축으로 되어 있었으니, 스페인인에 따르면 그것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던 것과 같다. 둘 가운데 타타르인의 생각이 아마 진실에 더 가까웠다.

로크는 돈과 다른 동산 사이의 구별을 지적한다.[13] 그의 말로는 다른 모든 동산은 써 없앨 수 있는 성질이 아주 커서 그것으로 된 부는 크게 믿을 수 없으며, 한 해에 그것이 넘치는 나라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도 오직 제 허비와 헤픔만으로 이듬해에 그것이 크게 모자랄 수 있다. 반대로 돈은 한결같은 벗이니, 그것이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닐지라도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허비되고 써 없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금과 은은 한 나라의 옮길 수 있는 부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알찬 부분이며,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까닭으로 그 금속을 불리는 것이 그 나라 정치경제학의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 나라가 온 세상에서 떼어 놓일 수 있다면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돌든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돈으로 돌려진 써 없앨 수 있는 재화는 더 많거나 더 적은 낱돈과 맞바꿀 뿐이며, 그 나라의 참된 부나 가난은 그 써 없앨 수 있는 재화가 넉넉한지 모자란지에 온전히 달려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바깥 나라와 이어져 있고 바깥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며 먼 나라에 함대와 군대를 두어야 하는 나라는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의 말로는 이것은 그들에게 삯을 줄 돈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한 나라는 안에 돈이 많지 않으면 밖으로 많은 돈을 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는 모두 평화로울 때에 금과 은을 쌓아 두려고 애써야 하니, 그리하여 일이 생길 때 바깥에서 전쟁을 벌일 밑감을 갖추게 된다.

이 두루 퍼진 생각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모두 제 나라에 금과 은을 쌓아 둘 온갖 길을 파고들었으나 얻은 것은 적었다. 유럽에 그 금속을 대어 주는 주된 광산의 임자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가장 모진 벌로 금하거나 꽤 많은 관세를 물렸다. 그런 금지는 옛적에 다른 대부분 유럽 나라의 정책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있을 법하지 않다고 여길 곳, 곧 금이나 은을 왕국 밖으로 내가는 것을 무거운 벌로 금한 스코틀랜드의 몇몇 옛 의회 법령에서도 볼 수 있다. 같은 정책이 옛적에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도 자리 잡았다.

그 나라들이 상업 나라가 되었을 때 상인들은 이 금지가 여러 경우에 몹시 거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제 나라로 들여오거나 다른 바깥 나라로 실어 갈 바깥 재화를, 다른 어떤 상품으로보다 금과 은으로 더 이롭게 사는 일이 잦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금지가 장사에 해롭다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첫째로 이렇게 내세웠다. 바깥 재화를 사기 위하여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이 왕국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양을 늘 줄이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 양을 더러는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깥 재화를 그 나라에서 더 많이 쓰게 되지 않는다면 그 재화를 바깥 나라로 다시 내보낼 수 있고, 거기서 큰 이윤에 팔아 그것을 사려고 처음에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보배를 되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은 대외 무역의 이 움직임을 농업의 씨 뿌리는 철과 거두는 철에 견준다.[14]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씨 뿌리는 철에 농사꾼이 좋은 곡물을 땅에 많이 내던지는 짓만 본다면, 우리는 그를 농사꾼이라기보다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애쓰는 일의 끝인 거두는 철의 수고를 헤아릴 때, 우리는 그가 한 일의 값과 넉넉한 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둘째로 이렇게 내세웠다. 이 금지는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가치에 견주어 부피가 작으므로 쉬이 몰래 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그들이 무역 차액이라 부른 것에 알맞게 마음을 씀으로써만 막을 수 있다. 어느 나라가 들여온 것보다 큰 값을 내보냈을 때에는 차액이 바깥 나라에서 그 나라에 갚을 것이 되고, 그것은 금과 은으로 그 나라에 갚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왕국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양을 늘린다. 그러나 내보낸 것보다 큰 값을 들여왔을 때에는 거꾸로 된 차액이 바깥 나라에 갚을 것이 되고, 그것은 같은 길로 그들에게 갚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양을 줄인다. 이런 경우에 그 금속을 내보내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 더 비싸게 만든다. 그리하여 환시세가 차액을 갚아야 하는 나라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리하게 돌아가니, 바깥 나라 앞으로 뗀 어음을 산 상인은 그것을 판 은행가에게 돈을 그곳으로 보내는 데 드는 자연스러운 위험과 수고와 비용만이 아니라 그 금지에서 생기는 남다른 위험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시세가 어느 나라에 불리할수록 무역 차액도 그 나라에 반드시 그만큼 더 불리해지니, 그 나라의 돈이 차액을 갚아야 할 나라의 돈에 견주어 반드시 그만큼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사이의 환시세가 잉글랜드에 100분의 5 불리하다면, 네덜란드의 은 100온스를 받을 어음을 사려고 잉글랜드에서 은 105온스가 든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의 은 105온스는 네덜란드의 은 100온스의 값어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한 양의 네덜란드 재화만 살 것이나, 반대로 네덜란드의 은 100온스는 잉글랜드에서 105온스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고 그만한 양의 잉글랜드 재화를 살 것이다. 네덜란드에 팔리는 잉글랜드 재화는 그만큼 싸게 팔리고 잉글랜드에 팔리는 네덜란드 재화는 그만큼 비싸게 팔릴 것이니, 그 환시세의 차이만큼 그러할 것이다. 한쪽은 그 차이만큼 네덜란드 돈을 잉글랜드로 덜 끌어들일 것이고, 다른 쪽은 그만큼 잉글랜드 돈을 네덜란드로 더 끌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 차액은 잉글랜드에 반드시 그만큼 더 불리해질 것이고, 더 많은 금과 은의 차액을 네덜란드로 내보내게 할 것이다.

그 논거는 얼마는 단단하고 얼마는 궤변이었다. 장사에서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이 그 나라에 이로울 수 있는 일이 잦다고 내세운 데까지는 단단하였다. 사사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내보내는 데서 이로움을 찾아낼 때 어떤 금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내세운 데에서도 단단하였다. 그러나 그 금속의 양을 지키거나 늘리는 것이, 그런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장사의 자유가 알맞은 양을 어김없이 대어 주는 다른 어떤 쓸모 있는 상품의 양을 지키거나 늘리는 것보다 정부가 더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데에서는 궤변이었다. 또 높은 환시세가 그들이 불리한 무역 차액이라 부른 것을 반드시 크게 만들거나 더 많은 금과 은을 내보내게 만든다고 내세운 데에서도 아마 궤변이었다. 참으로 그 높은

시세는 바깥 나라에 치를 돈이 있는 상인들에게 몹시 불리하였다. 그들은 제 은행가가 그 나라들 앞으로 떼어 준 어음에 그만큼 더 비싸게 치렀다. 그러나 그 금지에서 생기는 위험이 은행가에게 남다른 비용을 일으킬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반드시 그 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실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비용은 대개 그 나라 안에서, 곧 그 돈을 몰래 실어 내는 데 다 쓰였을 것이고, 어음으로 뗀 그 액수를 넘어 6펜스 한 닢을 더 내보내게 하는 일도 좀처럼 없었다. 또 높은 환시세는 상인들이 제 내보내기와 들여오기를 거의 맞먹게 하려고 애쓰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리하여 이 높은 시세를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액수에만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환시세는 바깥 재화의 값을 올림으로써 반드시 세금처럼 움직여 그 쓰임을 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이 불리한 무역 차액이라 부른 것을, 따라서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을 늘리기보다 줄이는 데로 기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거는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그것이 말 건네진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것은 상인들이 의회와 군주의 참의회와 귀족과 시골 지주에게 건넨 말이었고, 장사를 안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제 자신도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건넨 말이었다. 대외 무역이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경험이 귀족과 시골 지주에게도 상인에게와 마찬가지로 밝혀 주었으나, 어떻게 또는 어떤 길로 그리하는지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상인들은 그것이 어떤 길로 저희를 부유하게 하는지 더할 나위 없이 잘 알았으니,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길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지 아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 그 주제는 그들이 대외 무역에 관한 법을 얼마 바꾸어 달라고 제 나라에 매달릴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그들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에는 대외 무역이 낳는 이로운 결과와, 그때의 법이 그 결과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에

대하여 무언가 말할 필요가 생겼다. 그 일을 판가름할 재판관들에게는, 대외 무역이 나라에 돈을 들여오는데 문제의 법이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들여올 만큼 많이 들여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그 논거는 바라던 결과를 낳았다.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을 금하는 것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그 나라들 저마다의 주화에만 한정되었다. 바깥 주화와 금은 덩이를 내보내는 것은 자유로워졌다. 네덜란드와 다른 몇몇 곳에서는 이 자유가 그 나라의 주화에까지 넓혀졌다. 정부의 마음은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을 막는 데에서 돌아서서, 그 금속이 늘거나 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인 무역 차액을 살피는 데로 옮겨 갔다. 열매 없는 한 가지 마음씀에서 돌아서서, 훨씬 얽히고 훨씬 거북하며 딱 그만큼 열매 없는 다른 마음씀으로 옮겨 간 것이다. 먼의 책 제목인 『대외 무역으로 얻는 잉글랜드의 보배』는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업 나라의 정치경제학에서도 으뜸가는 격언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 안의 교역 곧 국내 무역, 같은 자본으로 가장 큰 수입을 낳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무역은 대외 무역에 딸린 것으로만 여겨졌다. 그것은 나라에 돈을 들여오지도 않고 밖으로 내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그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에두르는 길로 대외 무역의 형편에 미치는 한을 빼면, 그것으로 더 부유해지지도 더 가난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 광산이 없는 나라는 제 포도밭이 없는 나라가 제 포도주를 바깥 나라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금과 은을 바깥 나라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이 다른 쪽보다 한쪽에 더 쏠려야 할 까닭은 없는 듯하다. 포도주를 살 밑감이 있는 나라는 제가 필요한 포도주를 언제나 얻을 것이며, 금과 은을 살 밑감이 있는 나라는 그 금속이 모자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값에 살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다른 모든 상품의 값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상품이 그 금속의 값이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장사의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언제나 대어 줄 것임을 더할 나위 없이 마음 놓고 믿는다. 그와 똑같이 마음 놓고, 그것이 우리 상품을 돌리는 데든 다른 쓰임에든 우리가 살 수 있고 굴릴 수 있는 만큼의 금과 은을 언제나 대어 줄 것임을 믿어도 된다.

사람의 근면이 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모든 상품의 양은 어느 나라에서나 유효 수요에 따라, 곧 그것을 마련하여 장에 내오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지대와 노동과 이윤의 전부를 치를 뜻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저절로 갈라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 유효 수요에 따라 금과 은보다 더 쉽고 더 딱 맞게 저절로 갈라 맞추어지는 상품은 없으니, 그 금속은 부피가 작고 가치가 커서 어떤 상품도 그보다 쉽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곧 그것이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그것이 이 유효 수요를 넘치는 곳에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어 잉글랜드에 금을 더 얻으려는 유효 수요가 있다면, 우편선 한 척이 리스본에서 또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느 곳에서 금 50톤을 실어 올 수 있고 그것으로 500만 기니가 넘는 돈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값의 곡물에 대한 유효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들여오려면 톤당 5기니로 쳐서 100만 톤의 배, 곧 1000톤짜리 배 1000척이 든다. 잉글랜드의 온 해군으로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 들여온 금과 은의 양이 유효 수요를 넘칠 때에는 정부가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그것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피를 부르는 온갖 법도 제 금과 은을 안에 붙들어 둘 수 없다. 페루와 브라질에서 끊임없이 들여오는 것이 그 나라들의 유효 수요를 넘쳐, 그곳에서 그 금속의 값을 이웃 나라의 값 아래로

떨어뜨린다. 반대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그 양이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그 값이 이웃 나라의 값 위로 올랐다면, 정부는 그것을 들여오려고 아무런 애를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그것을 들여오지 못하게 애를 쓴다 하여도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스파르타인이 그것을 살 밑감을 갖추었을 때, 그 금속은 리쿠르고스의 법이 라케다이몬 곧 스파르타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세운 온갖 울을 뚫고 들어왔다. 세관의 피를 부르는 온갖 법도 네덜란드와 예테보리 동인도회사의 차를 들여오는 것을 막지 못하니, 그것이 영국 회사의 것보다 얼마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 한 파운드(무게)는 그것에 흔히 치르는 가장 높은 값인 16실링을 은으로 놓은 것의 100배쯤 되는 부피이고 같은 값을 금으로 놓은 것의 2,000배가 넘는 부피이니, 따라서 딱 그만큼 배로 몰래 실어 내기 어렵다.

그 금속의 값이 다른 대부분 상품의 값처럼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넘치는 곳에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쉽게 옮겨 갈 수 있는 데에 얼마쯤 힘입은 것인데, 다른 상품은 부피 때문에 장에 그것이 넘치거나 모자랄 때 자리를 옮기지 못한다. 참으로 그 금속의 값도 달라짐에서 아예 벗어나 있지는 않으나, 그것이 겪는 바뀜은 대개 느리고 차츰 일어나며 고르다. 보기를 들어 유럽에서는 아마 터가 그리 단단하지 않은 채로, 스페인령 서인도에서 끊임없이 들여오는 것 때문에 이 세기와 앞 세기 동안 그것의 가치가 꾸준히 그러나 차츰 떨어져 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금과 은의 값에 갑작스러운 바뀜을 일으켜 다른 모든 상품의 돈 값을 단번에 느낄 만큼 눈에 띄게 올리거나 내리려면, 아메리카를 찾아낸 일이 일으킨 것과 같은 교역의 격변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도 금과 은이 어느 때든 그것을 살 밑감이 있는 나라에서 모자라게 된다면, 그 자리를 메울 방편이 다른 거의 어떤 상품보다 많다.

제조업의 밑감이 모자라면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 식료품이 모자라면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돈이 모자라면 물물 교환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니, 다만 꽤 거북할 것이다. 외상으로 사고팔면서 여러 거래하는 사람들이 달마다 또는 해마다 서로 제 외상을 맞셈하면, 그것이 덜 거북하게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 잘 갈라 맞춘 지폐는 아무런 거북함도 없이,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얼마간 이로움까지 주면서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점에서 보아도 정부의 마음이 어느 나라 안의 돈의 양을 지키거나 늘리는 것을 살피는 데로 향할 때보다 더 쓸데없이 쓰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돈이 모자란다는 하소연보다 흔한 것은 없다. 돈은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살 밑감도 없고 그것을 빌릴 신용도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 둘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제가 필요한 돈이든 포도주든 모자라는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모자란다는 이 하소연이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쓰는 사람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러 한 상업 도시와 그 근처 시골 전체에 두루 퍼진다.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는 것이 그 흔한 원인이다. 벌인 일이 제 자본에 걸맞지 않았던 착실한 사람들도, 비용이 제 수입에 걸맞지 않았던 낭비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살 밑감도 그것을 빌릴 신용도 없게 되기 쉽다. 벌인 일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들의 자산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신용도 사라진다. 그들은 돈을 빌리려고 곳곳을 뛰어다니고, 누구나 그들에게 빌려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두루 퍼진, 돈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조차도 예사로운 수의 금은 낱돈이 그 나라에 돌지 않고 있음을 늘 밝혀 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낱돈을 얻으려 하는 많은 사람이 그것에 내줄 것이 없음을 밝혀 줄 뿐이다. 장사의 이윤이 예사보다 클 때에는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는 것이 크게 거래하는 사람과 작게 거래하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퍼진

잘못이 된다. 그들은 늘 예사보다 많은 돈을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많은 재화를 외상으로 사서 그것을 어느 먼 장으로 보내며 갚으라는 요구가 오기 전에 회수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 요구가 회수보다 먼저 오고, 그들에게는 돈을 살 것도 빌릴 단단한 담보로 내놓을 것도 손에 없다. 돈이 모자란다는 두루 퍼진 하소연을 일으키는 것은 금과 은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빌리기 어렵고 그들의 빚쟁이가 갚음을 받기 어려운 데 있다.

부가 돈이나 금과 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돈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돈은 사는 데에만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굳이 진지하게 밝히려 드는 것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다. 돈이 언제나 나라의 자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것 없으나, 그것이 대개 그 가운데 작은 부분만을 이루고 언제나 가장 이윤 없는 부분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밝혀 놓았다.

상인이 돈으로 재화를 사는 것이 재화로 돈을 사는 것보다 대개 더 쉽다고 여기는 것은, 부가 재화보다 돈에 더 본디부터 들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교역의 알려지고 자리 잡은 연장이어서 무엇이든 그것과 맞바꾸어 선선히 주어지지만 그것은 무엇과 맞바꾸어서든 그만큼 선선히 얻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화의 큰 몫은 돈보다 쉬이 상하므로 그가 그것을 지니고 있다가 훨씬 큰 손실을 입는 일이 잦을 수 있다. 또 제 재화를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그 값을 제 금고에 넣어 두었을 때보다 제가 대지 못할 돈 요구를 받기 쉽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그의 이윤은 사는 데에서보다 파는 데에서 더 곧바로 생긴다. 이 모든 까닭으로 그는 대개 제 돈을 재화와 맞바꾸기보다 제 재화를 돈과 맞바꾸기를 훨씬 애타게 바란다. 그러나 제 창고에 재화가 넘치는 어떤 상인 한 사람은 더러 그것을 때맞추어 팔지 못하여 망할 수 있어도, 한 민족이나 한 나라는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 상인 한 사람의 온 자본은

돈을 사려고 마련된 상하기 쉬운 재화로 되어 있는 일이 잦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 가운데 이웃에게서 금과 은을 사려고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몫에 지나지 않는다. 훨씬 큰 몫은 저희끼리 돌려지고 써 없어지며, 바깥으로 보내는 남은 것 가운데에서도 큰 몫은 대개 다른 바깥 재화를 사려고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과 은을 그것을 사려고 마련된 재화와 맞바꾸어 얻을 수 없다 하여도 그 민족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으로 얼마간 손실과 거북함을 입고, 돈의 자리를 메우는 데 필요한 방편 가운데 얼마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은 예사와 같거나 아주 비슷할 것이니, 같거나 아주 비슷하게 써 없앨 자본이 그것을 떠받치는 데 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재화가 돈이 재화를 끌어오는 것만큼 언제나 선선히 돈을 끌어오지는 않는다 하여도, 길게 보면 재화가 돈을 끌어오는 것이 돈이 재화를 끌어오는 것보다 더 어김없다. 재화는 돈을 사는 것 말고도 다른 여러 목적에 쓰일 수 있으나, 돈은 재화를 사는 것 말고 다른 아무 목적에도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돈은 반드시 재화를 뒤따라 달리나, 재화는 늘 또는 반드시 돈을 뒤따라 달리지는 않는다. 사는 사람은 늘 다시 팔려는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쓰거나 써 없애려는 뜻을 품는 일이 잦으나, 파는 사람은 늘 다시 사려는 뜻을 품는다. 한쪽은 제 일을 다 마친 일이 잦을 수 있으나, 다른 쪽은 제 일의 절반보다 많이 마친 적이 결코 없다. 사람이 돈을 바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다.

써 없앨 수 있는 상품은 머지않아 없어지지만 금과 은은 더 오래가는 성질이며, 이렇게 끊임없이 내보내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여 그 나라의 참된 부를 믿기 어려울 만큼 늘려 놓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래가는 상품을 그렇게 상하기 쉬운 상품과 맞바꾸는

장사보다 어느 나라에 더 불리한 것은 없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는 잉글랜드의 철물을 프랑스의 포도주와 맞바꾸는 장사를 불리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철물은 아주 오래가는 상품이며 이렇게 끊임없이 내보내는 일이 없었다면 그것도 여러 세대에 걸쳐 쌓여 그 나라의 솥과 냄비를 믿기 어려울 만큼 늘려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간의 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것에 대한 쓰임에 따라 한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곳에서 흔히 먹는 먹을 것을 익히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솥과 냄비를 두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는 것, 먹을 것의 양이 늘어난다면 솥과 냄비의 수도 그와 함께 선선히 늘어날 것이며 늘어난 먹을 것의 일부가 그것을 사는 데 또는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일꾼을 더 먹이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은 곧바로 떠오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떠올라야 할 것이 있다. 금과 은의 양도 어느 나라에서나 그 금속에 대한 쓰임에 따라 한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 쓰임은 주화로서 상품을 돌리는 데 있고 은그릇으로서 일종의 집안 세간 노릇을 하는 데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주화의 양은 그것으로 돌릴 상품의 가치에 따라 갈라 맞추어진다. 그 가치를 늘려 보라, 그러면 곧 그 일부가 바깥으로 보내져 그 상품을 돌리는 데 필요한 주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더 얻어 올 것이다. 은그릇의 양은 그런 갈래의 호사를 저에게 허락하기로 고른 사사로운 집안의 수와 부에 따라 갈라 맞추어진다. 그런 집안의 수와 부를 늘려 보라, 그러면 이 늘어난 부의 일부가 은그릇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것을 더 사는 데 쓰일 것이 아주 그럴듯하다. 어느 나라의 부를 필요 없는 양의 금과 은을 들여오거나 그 안에 붙들어 둠으로써 늘리려 드는 것은, 사사로운 집안에 필요 없는 수의 부엌 세간을 두게 하여 그 집안이 잘 먹고 지내는 것을 늘리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다. 그 필요 없는 세간을 사는 비용은 그 집안 식료품의 양이나 좋음을 늘리기는커녕 줄일 것이니,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양의 금과 은을 사는 비용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그들을 부양하고 부리는 부를 반드시 그만큼 줄일 것이다. 금과 은은 주화의 모습이든 은그릇의 모습이든 부엌의 세간과 다름없는 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의 쓰임을 늘려 보라, 그것으로 돌리고 다루고 마련할 써 없앨 수 있는 상품을 늘려 보라, 그러면 그대는 어김없이 그 양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다른 수단으로 그 양을 늘리려 든다면, 그대는 그만큼 어김없이 그 쓰임을 줄일 것이고 그 양마저 줄일 것이니, 그 금속의 양은 그 쓰임이 요구하는 것보다 결코 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느 때든 이 양을 넘어 쌓인다면, 그것을 실어 옮기는 것이 그토록 쉽고 그것이 놀며 쓰이지 않는 데서 오는 손실이 그토록 크므로, 어떤 법도 그것이 곧바로 나라 밖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가 바깥에서 전쟁을 벌이고 먼 나라에 함대와 군대를 두려면 금과 은을 쌓아 두어야 하는 것이 늘 필요한 일은 아니다. 함대와 군대는 금과 은으로 부양되는 것이 아니라 써 없앨 수 있는 재화로 부양된다. 제 국내 산업의 한 해 생산물에서, 곧 제 토지와 노동과 써 없앨 수 있는 자산에서 해마다 생기는 수입에서 그 써 없앨 수 있는 재화를 먼 나라에서 살 밑감이 있는 민족은 그곳에서 바깥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어느 민족은 먼 나라에서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세 가지 다른 길로 살 수 있다. 첫째로 제가 쌓아 둔 금과 은의 일부를 바깥으로 보내는 것, 둘째로 제 제조품의 한 해 생산물의 일부를 보내는 것, 끝으로 제 원생산물의 한 해 생산물의 일부를 보내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 쌓이거나 저장되어 있다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금과 은은 세 부분으로 갈라 볼 수 있다. 첫째는 돌고 있는 돈이고, 둘째는 사사로운 집안의 은그릇이며, 끝으로 여러 해의 절약으로 모아 군주의 국고에 넣어 둔 돈이다.

그 나라에 돌고 있는 돈에서 많이 덜어 낼 수 있는 일은 좀처럼 있을 수 없으니, 그 안에 넘치는 것이 많은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해마다 사고파는 재화의 가치는 그것을 돌리고 그것을 제 쓰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돈을 요구하며, 그보다 많은 돈에는 일자리를 줄 수 없다. 돌림의 물길은 그것을 채울 만한 액수를 반드시 제게로 끌어들이며, 그보다 많은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깥 전쟁이 있을 때에는 이 물길에서 얼마가 대개 빠져나간다.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 부양되므로 안에서 부양되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곳에서 돌려지는 재화가 줄고, 그것을 돌리는 데 필요한 돈이 적어진다. 또 그런 때에는 잉글랜드에서 재무부 증권과 해군 어음과 은행권 같은 어떤 갈래의 지폐가 예사롭지 않게 많이 발행되는 것이 대개의 일이며, 돌고 있는 금과 은의 자리를 메움으로써 그것을 더 많이 바깥으로 보낼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용이 크고 여러 해 이어지는 바깥 전쟁을 치르는 데 보잘것없는 밑감밖에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사로운 집안의 은그릇을 녹이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그보다도 대수롭지 않은 밑감임이 드러났다. 프랑스인은 지난 전쟁이 시작될 때 이 방편에서 그 세공을 잃은 손실을 메울 만한 이로움도 얻지 못하였다.

군주가 쌓아 둔 보배는 예전 시절에 훨씬 크고 훨씬 오래가는 밑감이 되어 주었다. 오늘날에는 프로이센 국왕을 빼면 보배를 쌓아 두는 것이 유럽 군주들의 정책에 든 일이 아닌 듯하다.

이 세기의 바깥 전쟁, 아마 역사가 적어 놓은 가장 비용이 큰 전쟁을 떠받친 자금은 돌고 있는 돈이나 사사로운 집안의 은그릇이나 군주의 보배를 내보내는 데 거의 기대지 않았던 것 같다.[15] 지난 프랑스 전쟁은 영국에 90,000,000파운드가 넘는 비용을 들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새로 진 빚 75,000,000파운드만이 아니라 파운드당 2실링이 더 붙은

토지세와 감채 기금에서 해마다 빌린 것까지 들어 있다. 이 비용의 3분의 2가 넘는 몫이 먼 나라에서, 곧 독일과 포르투갈과 아메리카와 지중해의 항구와 동인도와 서인도에서 쓰였다. 잉글랜드의 국왕들에게는 쌓아 둔 보배가 없었다. 우리는 은그릇을 예사롭지 않게 많이 녹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 나라에 돌고 있는 금과 은은 18,000,000파운드를 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금화를 다시 찍은 뒤로 그것이 꽤 낮게 매겨졌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보거나 들은 기억이 있는 가장 부풀린 셈을 따라서, 금과 은을 합쳐 그것이 30,000,000파운드에 이르렀다고 하여 보자. 그 전쟁을 우리 돈으로 치렀다면, 이 셈을 따르더라도 그 전부가 여섯 해에서 일곱 해 사이의 기간에 적어도 두 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긴다면, 정부가 돈을 지키는 것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밝혀 주는 가장 결정적인 논거가 될 것이다. 이 가정에 따르면 그 나라의 온 돈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그 나라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그 일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림의 물길은 이 기간 어느 때에도 예사보다 비어 보인 적이 없었다. 돈에 치를 밑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돈이 모자란 사람은 적었다. 참으로 대외 무역의 이윤은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내내, 더구나 그 끝으로 갈수록 예사보다 컸다. 이것이 언제나 일으키는 것을 일으켰으니, 곧 영국의 모든 항구에서 두루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는 뒤에 언제나 따라오는 돈이 모자란다는 예사로운 하소연을 일으켰다. 그것을 살 밑감도 빌릴 신용도 없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 하였고, 빚진 사람이 빌리기 어려웠으므로 빚쟁이가 갚음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금과 은은 대개 그 값을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값에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난 전쟁의 엄청난 비용은 주로 금과 은을 내보내어 치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갈래의 영국 상품을 내보내어 치른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나 그 아래에서 일한 사람들이 어느 바깥 나라로 돈을 보내는 일을 상인과 맺었을 때, 그는 제가 어음을 떼어 준 바깥 거래 상대에게 금과 은보다 상품을 바깥으로 보내어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영국의 상품이 그 나라에서 수요가 없으면, 그는 그 나라 앞으로 뗀 어음을 살 수 있는 다른 어느 나라로 그것을 보내려고 애썼을 것이다. 상품을 실어 옮기는 것은 그 장에 알맞게 맞춘 것이라면 언제나 꽤 큰 이윤을 낳으나, 금과 은을 실어 옮기는 것은 이윤을 낳는 일이 거의 없다. 그 금속을 바깥 상품을 사려고 바깥으로 보낼 때, 상인의 이윤은 사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수된 것을 파는 데에서 생긴다. 그러나 그것을 오직 빚을 갚으려고 바깥으로 보낼 때에는 그에게 회수되는 것이 없고 따라서 이윤도 없다. 그러므로 그가 제 바깥 빚을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보다 상품을 내보내는 것으로 갚을 길을 찾아내려고 제 재주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난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영국 재화가 아무 회수도 되가져오지 않으면서 많이 내보내진 것을 『나라의 오늘 형편』의 글쓴이가 지적하고 있다.

위에 말한 세 갈래의 금과 은 말고도, 모든 큰 상업 나라에는 대외 무역을 위하여 번갈아 들여오고 내보내는 금은 덩이가 꽤 많다. 이 금은 덩이는 나라의 주화가 어느 나라에서나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업 나라 사이를 도므로, 저 큰 상업 공화국의 돈으로 볼 수 있다. 나라의 주화는 그 특정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 돌려지는 상품에서 그 움직임과 방향을 받고, 상업 공화국의 돈은 여러 나라 사이에서 돌려지는 상품에서 그것을 받는다. 둘 다 맞바꿈을 손쉽게 하는 데 쓰이니, 하나는 같은 나라의 여러 사람 사이의 맞바꿈에 쓰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 사이의 맞바꿈에 쓰인다. 이 큰 상업 공화국의 돈 가운데

일부가 지난 전쟁을 치르는 데 쓰였을 수 있고 아마 쓰였을 것이다. 두루 퍼진 전쟁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깊은 평화 속에서 흔히 따르는 것과 다른 움직임과 방향을 받아, 전쟁터 근처에서 더 많이 돌고 그곳과 이웃 나라에서 여러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사는 데 더 많이 쓰인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상업 공화국의 돈 가운데 영국이 해마다 이렇게 굴린 부분이 얼마이든, 그것은 영국 상품으로든 그 상품으로 산 다른 무엇으로든 해마다 사들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상품으로, 곧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 준 마지막 밑감인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로 데려간다. 참으로 그토록 큰 한 해 비용이 큰 한 해 생산물에서 치러졌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기를 들어 1761년의 비용은 19,000,000파운드가 넘었다. 어떤 쌓아 둔 것도 그토록 큰 한 해의 헤픔을 떠받칠 수 없었을 것이다. 금과 은조차 그것을 떠받칠 만한 한 해 생산물이 없다. 가장 나은 셈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에 해마다 들여오는 금과 은 전부가 흔히 6,000,000파운드 스털링을 크게 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해에는 지난 전쟁의 넉 달 비용도 채 치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먼 나라로 실어 보내어 거기서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사거나, 그것을 사는 데 쓸 상업 공화국의 돈 얼마를 사기에 가장 알맞은 상품은 좀 곱고 좀 잘 다듬은 제조품인 듯한데, 그것은 작은 부피에 큰 가치를 담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먼 곳까지 내보낼 수 있다. 그 산업이 그런 제조품을 해마다 크게 남기고 그것을 흔히 바깥 나라로 내보내는 나라는, 금과 은을 꽤 많이 내보내지 않고도, 아니 내보낼 만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용이 아주 큰 바깥 전쟁을 여러 해 치를 수 있다. 참으로 이런 경우에 그 제조품의 한 해 남는 것 가운데 꽤 큰 몫은 그 나라에 아무 회수도 되가져오지 않고 내보내질 수밖에 없으나, 상인에게는 회수를 가져다준다. 정부가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그곳에서 사려고 상인에게서

바깥 나라 앞으로 뗀 어음을 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남는 것의 일부는 여전히 회수를 되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자들은 전쟁 동안 두 갈래의 수요를 받아, 첫째로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위하여 바깥 나라 앞으로 뗀 어음을 갚으려고 바깥으로 보낼 재화를 만들도록, 둘째로 그 나라에서 흔히 써 온 예사로운 회수 물품을 사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만들도록 불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헐어 내는 바깥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제조업의 큰 몫이 크게 흥하는 일이 잦을 수 있고, 반대로 평화가 돌아오면 그것이 기울 수 있다. 그것은 제 나라가 허물어지는 가운데에서 흥하고 제 나라의 번영이 돌아올 때 삭기 시작할 수 있다. 지난 전쟁 동안과 평화가 온 뒤 얼마 동안 영국 제조업의 여러 갈래가 처한 서로 다른 형편이, 방금 말한 것을 보여 주는 보기가 될 수 있다.

비용이 크거나 오래 이어지는 바깥 전쟁은 흙의 원생산물을 내보내는 것으로는 편하게 치를 수 없을 것이다.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살 만한 양의 원생산물을 바깥 나라로 보내는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 또 제 주민의 생계에 넉넉한 것보다 훨씬 많은 원생산물을 내는 나라는 적다. 그러므로 그것을 꽤 많이 바깥으로 보내는 것은 백성에게 필요한 생계의 일부를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제조품을 내보내는 것은 다르다. 그것에 부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안에 남고, 그들의 일에서 남는 부분만 내보내진다. 흄은 잉글랜드의 옛 국왕들이 오래 이어지는 바깥 전쟁을 끊김 없이 치를 힘이 없었다는 것을 자주 눈여겨본다. 그 시절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바깥 나라에서 제 군대의 삯과 식료품을 살 밑감으로, 안에서 쓰는 것에서 꽤 많이 덜어 낼 수 없는 흙의 원생산물 말고는, 또는 원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실어 옮기는 비용이 너무 큰 가장 거친 갈래의 제조품 몇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힘없음은 돈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좀 곱고 좀 잘 다듬은 제조품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다. 사고파는 일은 그때 잉글랜드에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이루어졌다. 돌고 있는 돈의 양은 그때 흔히 이루어진 사고팖의 수와 가치에 대하여,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비를 지녔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보다 큰 비를 지녔을 수밖에 없으니, 그때에는 오늘날 금과 은이 하는 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역과 제조업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민족 사이에서 주권자는 남다른 일이 있을 때 제 백성에게서 꽤 큰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으니, 그 까닭은 뒤에 밝히겠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서 그는 그런 급한 일에 맞설 유일한 밑감으로 보배를 쌓아 두려고 대개 애쓴다. 이 필요와 따로 보아도, 그는 그런 처지에서 쌓아 두기에 필요한 절약으로 자연히 기울어진다. 그 소박한 형편에서는 주권자의 비용조차 궁정의 번드르르한 치장을 즐기는 허영에 이끌리지 않고, 제 차지인에게 베푸는 은혜와 제 가신에게 베푸는 손님 대접에 쓰인다. 그러나 은혜와 손님 대접은 헤픔으로 이어지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허영은 거의 언제나 그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타타르의 우두머리는 누구나 보배를 지니고 있다. 카를 12세의 이름난 동맹이었던 우크라이나 코자크의 우두머리 마제파의 보배는 아주 컸다고 한다. 메로빙거 혈통의 프랑스 국왕들은 모두 보배를 지녔다. 그들이 제 왕국을 여러 자식에게 갈라 줄 때 제 보배도 갈라 주었다. 색슨의 군주들과 정복 뒤의 첫 국왕들도 마찬가지로 보배를 쌓아 두었던 것 같다. 새 치세가 시작될 때마다 첫 공적은 대개 앞선 국왕의 보배를 차지하는 것이었으니, 왕위를 잇는 것을 굳히는 가장 요긴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개량되고 상업이 이루어진 나라의 주권자는 보배를 쌓아 둘 같은 필요 아래 있지 않으니, 대개 남다른 일이 있을 때 제 백성에게서 남다른 도움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그리할 마음도 덜하다. 그들은 자연히, 아마 반드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며, 그들의 비용은 제 영토 안 다른 모든 큰 임자의 비용을 이끄는 것과 같은 헤픈

허영에 갈라 맞추어지게 된다. 그 궁정의 대수롭지 않은 겉치레는 날마다 더 번드르르해지고, 그 비용은 쌓아 두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더 요긴한 비용에 마련된 자금까지 잠식하는 일이 잦다. 데르킬리다스가 페르시아 궁정에 대하여 한 말, 곧 자기는 그곳에서 화려함은 많고 힘은 적으며 하인은 많고 병사는 적은 것을 보았다는 말은, 유럽의 여러 군주의 궁정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

1. 옮긴이 — 데이비드 흄(1711~1776)은 스미스와 가까이 지낸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역사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잉글랜드사』와 「교역에 대하여」 같은 글이다.

2. 옮긴이 — 가신은 영주의 집에 딸려 그 보호와 먹거리를 받고 무력과 시봉으로 섬긴 사람들이다. 하인처럼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영주의 무리를 이루었다. 딸린 사람은 그보다 넓게 영주에게 매여 사는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3. 옮긴이 — 웨스트민스터 홀은 1097년에 짓기 시작한 잉글랜드 왕궁의 큰 방이다. 윌리엄 루퍼스는 윌리엄 2세(재위 1087~1100)의 별명이고, 토머스 베켓(1120?~1170)은 헨리 2세의 대법관을 지내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사람이며, 여기 말하는 워릭 백작은 리처드 네빌(1428~1471)이다. 포코크 박사는 동방을 돌아본 기록을 남긴 리처드 포코크(1704~1765)다.

4. 옮긴이 — 임의 차지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땅을 부치는 사람으로, 지주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었다. 예속 농민 신분은 몸이 영주의 땅에 얽매여 그 허락 없이 떠날 수 없는 처지를 말한다. 면역 지대는 부역을 면하는 대신 무는 아주 적은 액수의 지대로, 땅에 대한 보유를 확인해 주는 표시 구실을 하였다.

5.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크라운은 5실링짜리 은돈이고 기니는 21실링짜리 금돈이다.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액수 사이의 비율에 걸려 있다.

6. 옮긴이 — 자유 소유는 라틴어 알로디움을 옮긴 것으로, 위에 아무 상전도 없이 제 것으로 온전히 가지는 토지 보유를 말한다. 봉신이 상전에게서 받아 복무의 의무를 지고 가지는 봉토 보유와 맞선다.

7. 옮긴이 — 레갈리티 영주는 스코틀랜드에서 국왕의 재판권까지 넘겨받아 제 영지에서 중죄를 다스린 영주이고, 직속 차지인은 국왕에게서 곧바로 토지를 받은 사람이며, 봉신은 다시 그 아래에서 토지를 받아 복무의 의무를 진 사람이다. 치안

판사는 주 단위에서 경범을 다스리고 치안을 맡은 직함으로, 이 책의 「행정관」과는 다른 자리다. 스코틀랜드의 이런 세습 재판권은 1747년에 없어졌다.

8.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더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고」로 적었다. 그러나 토지가 독점 가격에 팔리지 않게 되면 지대가 산 값의 이자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이 문단의 논증이므로, 다른 판본이 적은 대로 「더 가까이 갈 것이고」로 옮겼다.

9. 옮긴이 — 샤를 8세(1470~1498)는 프랑스 국왕으로, 1494년에 나폴리 왕위를 주장하며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이탈리아 전쟁의 첫머리를 열었다. 신성로마 황제 카를 5세와는 다른 사람이다.

10. 옮긴이 —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1483~1540)는 피렌체의 정치가이자 역사가로, 『이탈리아사』를 남겼다. 스미스가 「가장 슬기롭고 가장 말을 아끼는 역사가」라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11. 옮긴이 — 한자 도시는 13세기부터 북해와 발트해의 교역을 함께 쥐려고 동맹을 맺은 독일 북부의 도시들이다. 뤼베크와 함부르크와 브레멘이 그 가운데 크게 자란 곳이고, 17세기에 이르러 동맹은 흩어졌다.

12. 옮긴이 — 조반니 다 피안 델 카르피네(1180?~1252)는 프란치스코회 수사로, 1245년에 교황 인노첸티우스 4세가 몽골에 보낸 사절이다. 저본은 프랑스 국왕이 보냈다고 적었다. 칭기즈 칸(1162?~1227)은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이다.

13. 옮긴이 — 존 로크(1632~1704)는 잉글랜드의 철학자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1692년에 낸 『이자와 화폐 가치 인하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이다.

14. 옮긴이 — 토머스 먼(1571~1641)은 동인도회사의 이사를 지낸 상인으로, 무역 차액을 내세운 중상주의 저술가 가운데 가장 이름난 사람이다. 그의 『대외 무역으로 얻는 잉글랜드의 보배』는 1630년 무렵에 써서 1664년에 나왔다.

15. 옮긴이 — 「지난 프랑스 전쟁」은 7년 전쟁(1756~1763)을 말한다. 감채 기금은 1717년에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세운 기금이고, 재무부 증권은 나라가 짧은 기간 돈을 빌리려고 떼어 준 증서이며, 해군 어음은 해군이 물자와 품값을 뒤에 갚기로 하고 떼어 준 어음이다. 「파운드당 2실링」은 토지에서 나오는 값 1파운드마다 2실링, 곧 10분의 1을 걷었다는 뜻이다.

1장 — 상업 체계 곧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에 대하여 (이어서)

금과 은을 수입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외국 무역에서 얻는 주된 이익이 아니며, 하물며 하나뿐인 이익은 더욱 아니다. 어느 곳들 사이에서 외국 무역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곳이 거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외국 무역은 그들 사이에 수요가 없는, 그 땅과 노동이 낸 생산물의 남는 부분을 실어 내고, 그 대신으로 수요가 있는 다른 무엇을 실어 온다. 그것은 그들에게 남아도는 것을, 그들에게 없어서 아쉬운 것 얼마를 채워 주고 그들의 누림을 늘려 줄 다른 무엇과 맞바꾸어 줌으로써 그 남아도는 것에 가치를 준다. 그것 덕분에 국내 시장이 좁다는 사정도 어느 기술이나 제조업의 한 갈래에서 노동의 분업이 가장 높은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들의 노동이 낸 생산물 가운데 국내 소비를 넘는 부분이 무엇이든 거기에 더 넓은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외국 무역은 그들이 그 생산력을 키우고 연간 생산물을 끝까지 불리도록, 그리하여 사회의 실질 수입과 부를 늘리도록 북돋운다. 외국 무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 나라 모두에게 이 크고 중요한 구실을 끊임없이 해 주고 있다. 그 모두가 거기서 큰 이익을 얻으나 대개는 상인이 사는 나라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데, 그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을 채워 주고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것을 실어 내는 일에 더 많이 힘쓰기 때문이다. 광산이 없는 나라에 쓰일 만한 금과 은을 들여오는 것도 외국 상업이 하는 일의 한 부분임에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운데 가장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다. 오직 이것 때문에 외국 무역을 하는 나라라면 백 년에 배 한 척을 부릴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을 넉넉하게 만든 것은 금과 은을 수입해서가 아니다. 아메리카 광산이 넉넉했던 덕에 그 금속들은 값이 내렸다. 은식기 한 벌을 이제는 15세기에 들었을 곡물의 3분의 1, 또는 노동의 3분의 1로 살 수 있다. 노동과 상품을 해마다 같은 만큼 들여서 유럽은 그때 살 수 있었을 은식기의 세 배쯤을 해마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여느 값의 3분의 1에 팔리게 되면, 전에 그것을 사던 사람들이 전보다 세 배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값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아마도 전의 열 배가 넘는, 아마도 스무 배가 넘는 수까지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에는 아메리카 광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개량된 상태에서도 있었을 은식기의 세 배가 아니라 스무 배나 서른 배가 넘는 양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유럽이 참된 편리를 얻은 것에는 의심이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아주 자잘한 편리다. 금과 은이 싸진 탓에 그 금속들은 전보다 화폐로 쓰기에 오히려 덜 알맞게 되었다. 같은 것을 사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몸에 지녀야 하고, 전에는 그로트 한 닢으로 되던 자리에 이제는 실링 한 닢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한다.[1] 이 불편과 그 맞은쪽의 편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자잘한지는 말하기 어렵다. 어느 쪽도 유럽의 처지에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발견은 참으로 아주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모든 상품에 새롭고 다함이 없는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그것은 옛 상업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생산물의 큰 몫을 받아 줄 시장이 없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업과 기술의 개량이 일어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노동의 생산력이 커지고 그 생산물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

늘어났으며, 그와 함께 주민의 실질 수입과 부도 늘어났다. 유럽의 상품은 거의 다 아메리카에 새로웠고 아메리카의 상품 가운데 많은 것이 유럽에 새로웠다. 그러므로 전에는 생각조차 못 했던 새로운 맞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옛 대륙에 이로웠던 것이 분명한 만큼 새 대륙에도 자연히 이로웠어야 했다. 유럽인들의 야만스러운 불의는 모두에게 이로웠어야 할 일을 그 불행한 나라 여럿에게 파멸과 멸망이 되게 만들었다.

거의 같은 무렵에 있었던 희망봉을 돌아 동인도로 가는 길의 발견은, 거리가 더 멀었음에도 아마 아메리카의 발견보다도 외국 상업에 더 넓은 터를 열어 주었다. 아메리카에는 어느 면으로든 야만인보다 나은 민족이 둘밖에 없었고, 이들은 발견되자마자 거의 곧 무너졌다. 그 나머지는 한낱 야만인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힌두스탄과 일본의 제국, 그리고 동인도의 여러 다른 나라는 금이나 은의 광산이 더 걸차지는 않았으나 다른 모든 면에서 멕시코나 페루보다 훨씬 더 걸차고 더 잘 경작되었으며 모든 기술과 제조업에서 더 앞서 있었다. 그 제국들의 옛 상태를 두고 스페인 저술가들이 부풀려 적어 놓은 이야기를 곧이듣는다 해도 그러한데, 그 이야기는 곧이들을 값어치가 없음이 뻔하다. 그런데 걸차고 문명한 나라들은 야만인이나 미개인과 맞바꾸는 것보다 서로 훨씬 더 큰 가치를 맞바꿀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여태까지 동인도와의 상업에서 아메리카와의 상업에서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얻었다. 포르투갈인들이 백 년쯤 동인도 거래를 제 것으로 독점하였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오직 에둘러 그들을 거쳐서만 그 나라에 재화를 보내거나 그 나라에서 재화를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이 지난 세기 초에 그들을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기네 동인도 상업 전체를 배타적 특권을 가진 회사 하나에 맡겨 버렸다.[2] 영국인과 프랑스인과 스웨덴인과 덴마크인이 모두 그 본을 따랐으니, 유럽의 어느 큰 나라도

여태 동인도로 가는 자유로운 상업의 이익을 누려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아메리카로 가는 거래만큼 이로웠던 적이 없는 까닭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는데, 아메리카 거래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그 나라 자신의 식민지 사이에서 그 나라의 모든 신민에게 열려 있다. 그 동인도회사들의 배타적 특권과 그 큰 재물, 그리고 그것이 저마다 제 나라 정부에서 얻어 낸 큰 은혜와 보호는 그들을 겨눈 시샘을 크게 돋우었다. 이런 시샘은 그들의 거래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은을 해마다 엄청나게 실어 낸다는 이유로 그 거래를 아주 해로운 것으로 그려 내는 일이 흔했다. 걸린 편에서는 이렇게 맞섰다. 그들의 거래가 은을 끊임없이 실어 내는 것은 참으로 유럽 전체를 가난하게 하는 쪽으로 기울지는 몰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난하게 하지는 않는데, 회수의 일부를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실어 냄으로써 그 나라는 실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금속을 해마다 집으로 들여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반대와 이 대답이 모두 내가 방금 살펴본 그 흔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대해서도 더 말할 것이 없다. 해마다 동인도로 은을 실어 내는 탓에 은그릇은 아마 유럽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쯤 비싸고, 은화는 아마 노동과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이 두 결과 가운데 앞의 것은 아주 작은 손실이고 뒤의 것은 아주 작은 이득이며, 둘 다 나라의 눈길을 얼마라도 받을 값어치가 없을 만큼 대수롭지 않다. 동인도로 가는 거래는 유럽의 상품에, 또는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것으로 그 상품으로 사들이는 금과 은에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유럽 상품의 연간 생산을, 따라서 유럽의 실질 부와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태까지 그 둘을 그토록 조금밖에 늘리지 못한 것은 아마 그 거래가 어디서나 얽매여 있는 그 묶임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루해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부가 화폐에 있다거나 금과 은에 있다는 이 흔한 생각을 끝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미 말한 대로 화폐라는 말은 여느 말씨에서 부를 뜻하는 일이 흔하고, 이 말의 두 뜻이 이 흔한 생각을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탓에, 그것이 터무니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제 원칙을 잊고 따져 나가는 동안 그것을 틀림없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 버리기 쉽다. 상업을 다룬 영국의 가장 나은 저술가 몇 사람은 어느 나라의 부가 그 금과 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와 집과 온갖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있다는 말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따져 나가는 동안 토지와 집과 소비할 수 있는 재화는 그들의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듯하고, 그들 논증의 결은 모든 부가 금과 은에 있으며 그 금속을 불리는 것이 나라의 산업과 상업의 큰 목표라고 여기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부가 금과 은에 있다는 것과, 광산이 없는 나라에 그 금속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은 무역 차액뿐, 곧 들여오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내보내는 것뿐이라는 이 두 원칙이 세워지자, 국내 소비에 쓸 외국 재화의 수입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의 수출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큰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를 넉넉하게 만들려는 그 두 큰 기관은 수입을 묶는 것과 수출을 북돋우는 것이었다.

수입을 묶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재화를 국내 소비에 쓰려고 들여오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 들여오든 묶는 것이다.

둘째, 무역 차액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그 특정한 나라들에서 거의 온갖 재화를 들여오는 것을 묶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묶음은 더러 높은 관세로 이루어졌고 더러 아주 금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수출은 더러 관세 환급으로, 더러 장려금으로, 더러 외국과 맺는 이로운 통상 조약으로, 더러 먼 나라에 식민지를 세우는 것으로 북돋워졌다.

관세 환급은 서로 다른 두 자리에서 주어졌다. 국내 제조품에 어떤 관세나 소비세가 물려 있을 때에는 그것을 내보낼 적에 그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일이 흔했고, 관세가 물리는 외국 재화를 다시 내보내려고 들여왔을 때에는 그렇게 내보낼 적에 이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일이 더러 있었다.[3]

장려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제조업을 북돋우려고, 또는 유별난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갈래의 산업을 북돋우려고 주어졌다.

이로운 통상 조약으로는 어느 외국에서 그 나라의 재화와 상인이 다른 나라의 재화와 상인에게 허락된 것을 넘어서는 특정한 특권을 얻어 냈다.

먼 나라에 식민지를 세움으로써 특정한 특권만이 아니라 독점까지 그 식민지를 세운 나라의 재화와 상인에게 얻어 주는 일이 흔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수입 묶음과 이 네 가지 수출 북돋움이, 무역 차액을 제 쪽에 유리하게 돌려 어느 나라의 금과 은의 양을 늘리려고 상업 체계가 내놓는 여섯 가지 주된 방도를 이룬다. 나는 그 하나하나를 따로 한 장씩 두어 살펴볼 것이며, 그것이 나라 안으로 화폐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기운다는 그 짐작에는 더 눈길을 두지 않고, 그 하나하나가 그 나라 산업의 연간 생산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듯한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이 이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기우는가 줄이는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 그것은 분명히 그 나라의 실질 부와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거나 줄이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2장 —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묶는 것에 대하여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높은 관세로든 아주 금지하는 것으로든 묶으면, 그것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국내 산업에 국내 시장의 독점이 얼마쯤 굳어진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소나 소금절임 식료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영국의 목축업자들에게 푸줏간 고기의 국내 시장 독점을 굳혀 준다. 곡물 수입에 물리는 높은 관세는 어지간히 넉넉한 때에는 금지와 다름없어져 그 상품을 기르는 이들에게 같은 이익을 준다. 외국 모직물의 수입 금지는 모직 제조업자들에게 똑같이 이롭다. 비단 제조업은 온통 외국 재료를 쓰면서도 요즈음 같은 이익을 얻었다. 아마포 제조업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쪽으로 크게 걸음을 내딛고 있다. 다른 여러 갈래의 제조업도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 나라 사람들을 겨눈 독점을 온전히 얻거나 거의 온전히 얻었다. 영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주 금지되거나 어떤 조건 아래 금지되는 재화의 가지 수는, 관세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쉽게 짐작할 만한 것을 크게 넘어선다.

국내 시장의 이 독점이 그것을 누리는 그 특정한 갈래의 산업에 큰 격려를 주는 일이 흔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쓰임으로 가지 않았을 사회의 노동과 자산의 더 큰 몫을 그 쓰임으로 돌리는 일이 흔한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산업 전체를 늘리는 쪽으로 기우는가, 또는 그것에 가장 이로운 방향을 주는 쪽으로 기우는가는 아마 그만큼 뻔하지는 않다.

사회의 산업 전체는 그 사회의 자본이 부릴 수 있는 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일자리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일꾼의 수가 그 사람의 자본에 일정한 비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끊임없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그 사회의 자본 전체에 일정한 비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코 그 비례를 넘어설 수 없다. 어떤 상업 규제도 어느 사회의 산업의 양을 그 자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까지 늘릴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그 가운데 얼마를 그러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뿐이며, 이렇게 만들어 낸 방향이 그 산업이 스스로 갔을 방향보다 사회에 더 이로울 듯한지는 조금도 확실하지 않다.

사람마다 제가 굴릴 수 있는 자본이 무엇이든 그것에 가장 이로운 쓰임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참으로 그가 내다보는 것은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제 이익이다. 그러나 제 이익을 살피는 일이 자연히, 아니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그를 사회에 가장 이로운 그 쓰임을 앞세우도록 이끈다.

첫째, 사람마다 제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집 가까이 쓰려고 애쓰고,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국내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쓰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해서 자산의 보통 이윤을 얻거나 보통 이윤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을 때에 도매 상인은 누구나 자연히 국내 무역을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보다 앞세우고,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을 중계 무역보다 앞세운다. 국내 무역에서는 그의 자본이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 흔히 그러하듯 그토록 오래 그의 눈길 밖에 놓이는 일이 없다. 그는 자기가 믿고 맡기는 사람들의 됨됨이와 처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어쩌다 속는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찾아가야 할 그 나라의 법을 더 잘 안다. 중계 무역에서는 상인의 자본이 말하자면 두 외국으로 갈라져 있고, 그 어느 부분도 반드시 집으로 들여와 그의 눈길과 손아래에 곧바로 놓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리스본으로 곡물을 실어 가고 리스본에서

쾨니히스베르크로 과일과 포도주를 실어 오는 데에 암스테르담 상인이 쓰는 자본은 대개 그 절반이 쾨니히스베르크에, 나머지 절반이 리스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부분도 암스테르담으로 올 까닭이 없다. 그런 상인이 자연히 머물 곳은 쾨니히스베르크나 리스본이어야 하며, 그가 암스테르담에 머무는 쪽을 앞세우게 만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 자본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에서 느끼는 불안이 대개 그로 하여금 리스본 시장에 보내려는 쾨니히스베르크 재화와 쾨니히스베르크 시장에 보내려는 리스본 재화를 얼마씩 암스테르담으로 가져오게 만들며, 이렇게 하면 짐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두 곱으로 치러야 하고 관세와 세관 비용도 얼마간 물어야 하지만, 제 자본의 얼마를 늘 제 눈길과 손아래에 두려는 마음에서 그는 이 남다른 비용을 기꺼이 치른다. 중계 무역의 적지 않은 몫을 가진 나라가 저마다 늘 그 나라가 무역을 맡아 보는 여러 나라의 재화가 모이는 집산지, 곧 두루 쓰이는 시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해서다. 상인은 짐을 두 번 싣고 내리는 것을 아끼려고 그 여러 나라의 재화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국내 시장에서 팔려고 늘 애쓰며, 그리하여 될 수 있는 데까지 제 중계 무역을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몸을 담은 상인도 이와 같이 외국 시장에 보낼 재화를 모을 때에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으면 그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몫을 국내에서 팔게 되는 것을 늘 기뻐한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소비를 위한 제 외국 무역을 이렇게 국내 무역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는 내보내는 위험과 수고를 스스로 덜게 된다. 이렇게 집은 말하자면 어느 나라에서나 주민의 자본이 끊임없이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중심이며 그 자본이 늘 향하고 있는 곳인데, 다만 특별한 원인으로 자본이 더러 그곳에서 밀려나 더 먼 쓰임으로 쫓겨 가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미 보인 대로 국내 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자본보다 반드시 더 많은 양의 국내 산업을 움직이고 그 나라의 더 많은 주민에게 수입과 일자리를 주며,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자본은 중계 무역에 쓰이는 같은 크기의 자본에 대하여 같은 이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기만 하면 사람마다 자연히 제 자본을 국내 산업을 가장 크게 부양하고 제 나라 사람을 가장 많이 먹여 살릴 듯한 쓰임에 쓰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둘째, 제 자본을 국내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쓰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이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도록 이끌려고 애쓴다.

산업의 생산물은 그 산업이 쓰이는 대상이나 재료에 그것이 보태는 것이다. 이 생산물의 가치가 크거나 작은 데에 비례하여 그 산업을 부리는 사람의 이윤도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런데 누구든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자본을 쓰는 것은 오직 이윤 때문이므로, 그는 그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듯한, 곧 화폐든 다른 재화든 가장 많은 양과 맞바꿀 듯한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그것을 쓰려고 늘 애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연간 수입은 그 산업의 연간 생산물 전체가 가지는 교환 가치와 언제나 딱 같으며, 아니 그 교환 가치와 딱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제 자본을 국내 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쓰려고, 그리고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도록 이끌려고 힘껏 애쓰는 만큼, 사람마다 사회의 연간 수입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드는 일에 애쓰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그는 대개 공공의 이익을 이루려는 뜻도 없고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국 산업을 부양하는 것보다 국내 산업을 부양하는 것을 앞세울 때에 그가 뜻하는 것은 제 안전뿐이고,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도록 이끌 때에 그가 뜻하는 것은 제 벌이뿐이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제 뜻에는 없었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한다.[4] 그것이 제 뜻에 없었다고 해서 사회에 늘 더 나쁜 것도 아니다. 제 이익을 좇음으로써 그는 사회의 이익을 참으로 이루려고 뜻할 때보다 그것을 더 잘 이루는 일이 흔하다. 공공의 좋음을 위하여 거래한다고 꾸며 대는 이들이 큰 좋음을 이루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참으로 그것은 상인들 사이에 그리 흔한 꾸밈이 아니므로,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달래는 데에 많은 말이 들 일도 없다.

제 자본이 부릴 수 있는 국내 산업이 어떤 갈래이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듯한지는, 사람마다 제가 놓인 고장의 사정에서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가 그를 위하여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판단할 수 있음이 뻔하다. 사사로운 사람들이 제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끌어 보려는 정치가는 아주 쓸데없는 일에 제 눈길을 잔뜩 얹어 놓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평의회나 원로원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한을 제 것으로 삼는 셈인데, 그 권한이 그것을 쓰기에 알맞다고 제 스스로 여길 만큼 어리석고 뻔뻔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제조업에서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에 국내 시장의 독점을 주는 것은 사사로운 사람들이 제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얼마쯤 이끄는 것이며, 거의 모든 경우에 쓸데없거나 해로운 규제일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을 외국 산업이 낸 것과 같은 값으로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규제는 분명히 쓸데없다.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대개 해로울 수밖에 없다. 사 오는 것보다 만드는 데에 더 많이 드는 것을 집에서 만들려 들지 않는 것이 신중한 가장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격언이다. 재봉사는 제 신발을 만들려 들지 않고 구두장이에게서 사들인다. 구두장이는 제 옷을 만들려 들지 않고

재봉사를 쓴다. 농부는 그 어느 것도 만들려 들지 않고 그 여러 수공업자를 쓴다. 그들 모두가 제 근면을 온통 제 이웃보다 얼마쯤 나은 데가 있는 쪽에 쓰고, 그 생산물의 일부로, 또는 같은 말이 되는 것으로 그 일부의 값으로 그 밖에 아쉬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들이는 것이 제 이익이 됨을 알고 있다.

사사로운 집안을 꾸리는 데에서 신중함인 것이 큰 왕국을 꾸리는 데에서 어리석음일 수는 거의 없다. 어떤 외국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싸게 어떤 상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쯤 나은 데가 있는 쪽에 쓴 우리 근면이 낸 생산물의 일부로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는 편이 낫다. 어느 나라의 산업 전체는 늘 그것을 부리는 자본에 비례하므로 앞에서 말한 수공업자들의 근면이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 줄지 않을 것이며, 다만 가장 큰 이익이 되게 쓰일 길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놓아둘 뿐이다. 만드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향하여 이렇게 산업이 이끌려 갈 때에 그것은 분명히 가장 큰 이익이 되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 이끌려 가서 만들게 된 상품보다 가치가 더 큰 것이 분명한 상품을 만드는 일에서 이렇게 산업이 돌려세워질 때에 그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분명히 얼마쯤 줄어든다. 앞의 가정에 따르면 그 상품은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싸게 외국에서 사들일 수 있었으니, 같은 크기의 자본이 부린 산업이 저절로 가는 길을 따르도록 놓아두었을 때 국내에서 만들어 냈을 상품의 일부로만, 또는 같은 말이 되는 것으로 그 상품 값의 일부로만 그것을 사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산업은 이렇게 더 이로운 쓰임에서 덜 이로운 쓰임으로 돌려세워지며, 그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입법자가 뜻한 대로 늘어나기는커녕 그런 규제 하나하나로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으로 그런 규제 덕분에 어떤 특정한 제조업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일찍 얻는 일이 더러 있고,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국내에서 그 외국과 같은 값으로, 또는 더 싸게 만들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의 산업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일찍 어떤 특정한 물길로 이롭게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 산업의 총액이든 그 수입의 총액이든 그런 규제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은 조금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사회의 산업은 그 자본이 늘어나는 데에 비례해서만 늘어날 수 있고, 그 자본은 그 수입에서 조금씩 절약해 낼 수 있는 것에 비례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곧바로 낳는 결과는 그 수입을 줄이는 것이며, 수입을 줄이는 것이 자본과 산업을 다 놓아두어 저절로 제 쓰임을 찾게 했을 때 늘어났을 것보다 더 빨리 자본을 늘려 줄 듯하지는 참으로 않다.

그런 규제가 없어서 사회가 그 마련해 보려던 제조업을 끝내 얻지 못한다 해도, 그 때문에 그 사회가 그 이어짐의 어느 시기에든 반드시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어짐의 모든 시기에 그 사회의 자본과 산업 전체는 대상이 달랐을 뿐 그때그때 가장 이로운 쓰임에 그대로 쓰였을 것이다. 모든 시기에 그 수입은 그 자본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을 수 있고, 자본과 수입이 다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

어느 나라가 특정한 상품을 만드는 데에서 다른 나라보다 가진 타고난 이점은 더러 너무 커서 그것과 다투어 보는 것이 헛되다는 데에 온 세상이 뜻을 같이한다. 유리 온실과 온상과 더운 담을 쓰면 스코틀랜드에서도 아주 좋은 포도를 길러 낼 수 있고 그것으로 아주 좋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으나, 적어도 그만큼 좋은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데에 드는 비용의 서른 배쯤이 든다. 스코틀랜드에서 클라레와 부르고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북돋우려는 그것만으로 외국 포도주의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법이겠는가? 그런데 아쉬운 상품을 같은 양만큼 외국에서 사들이는 데에 드는 것보다 그 나라의 자본과 산업을 서른 배나 어떤 쓰임으로 돌려세우는 것이 뻔한 터무니없음이라면, 그 가운데 어느 쪽이든 30분의 1, 아니 300분의 1만 더 그런 쓰임으로 돌려세우는 것에도 그만큼 눈에 띄지는 않으나 바로 같은 종류의 터무니없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가진 이점이 타고난 것인지 얻은 것인지는 이 점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한 나라가 그 이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갖지 못한 동안에는, 뒤의 나라로서는 앞의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사는 편이 늘 더 이로울 것이다. 다른 업을 하는 이웃에 대하여 한 수공업자가 가진 이점은 얻은 이점일 뿐인데, 그래도 그 둘 다 제 업에 딸리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서로에게서 사는 편이 더 이롭다고 여긴다.

국내 시장의 이 독점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상인과 제조업자다. 외국 소와 소금절임 식료품의 수입 금지, 그리고 어지간히 넉넉한 때에는 금지와 다름없어지는 외국 곡물에 물리는 높은 관세는, 같은 종류의 다른 규제들이 영국의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이로운 만큼 영국의 목축업자와 농부에게 이롭지는 못하다. 제조품은, 특히 고운 갈래의 제조품은 곡물이나 소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실어 가기가 쉽다. 그래서 외국 무역이 주로 힘쓰는 것이 제조품을 가져오고 실어 가는 일이다. 제조품에서는 아주 작은 이점만 있어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까지 우리 일꾼보다 싸게 팔 수 있다. 흙에서 나는 원생산물에서 그렇게 하려면 아주 큰 이점이 있어야 한다. 외국 제조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허락된다면 국내 제조업 여럿이 아마 해를 입고 그 가운데 얼마는 어쩌면 아주 망할 것이며, 지금 거기에 쓰이는 자산과 산업의 적지 않은 몫이 다른 쓰임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흙에서 나는 원생산물을 아무리 자유롭게 들여온다 해도 그 나라의 농업에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이를테면 외국 소의 수입이 아무리 자유로워진다 해도 들여올 수 있는 수가 너무 적어서 영국의 목축업이 그로 말미암아 받는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소는 아마 바다로 실어 가는 것이 땅으로 실어 가는 것보다 비싼 유일한 상품일 것이다. 땅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간다. 바다로는 소만이 아니라 그 먹이와 물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들여 실어야 한다. 참으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짧은 바다는 아일랜드 소의 수입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요즈음 한동안만 허락된 그 자유로운 수입이 영구히 이어지게 된다 해도 영국 목축업자의 이익에는 이렇다 할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아일랜드해에 닿아 있는 영국의 그 지방들은 모두 목축하는 고장이다. 아일랜드 소를 그 고장들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제 시장에 다다르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들여 바로 그 아주 넓은 고장들을 지나 몰려가야 할 것이다. 살진 소는 그토록 멀리 몰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여윈 소만 들여올 수 있으며, 그런 수입은 소를 먹이고 살지게 하는 고장의 이익과는 부딪치지 않고, 여윈 소의 값을 내려 주므로 오히려 그 고장에 이로울 것이며, 오직 소를 기르는 고장의 이익과만 부딪칠 것이다. 아일랜드 소의 수입이 허락된 뒤로 들여온 수가 적은 것과 여윈 소가 여전히 좋은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소를 기르는 고장조차 아일랜드 소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이 결코 없을 듯함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참으로 아일랜드의 여느 사람들이 제 소를 내보내는 것에 더러 힘으로 맞섰다고 한다. 그러나 내보내는 이들이 그 거래를 이어 가는 데에 큰 이익이 있다고 여겼다면, 법이 제 쪽에 있었으므로 이 때 지은 맞섬을 쉽게 눌러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소를 먹이고 살지게 하는 고장은 늘 크게 개량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데 비하여 소를 기르는 고장은 대개 경작되지 않은 곳이다. 여윈 소의 높은 값은 경작되지 않은 땅의 가치를 키워 주므로 개량을 거스르는 장려금과 같다. 온통 크게 개량된 나라라면 여윈 소를 스스로 기르는 것보다 들여오는 편이 더 이로울 것이다. 그래서 네덜란드 지방이 오늘날 이 격언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와 노섬벌랜드의 산지는 크게 개량될 수 없는 고장이고, 영국에서 소를 기르는 고장이 되도록 자연이 정해 준 곳으로 보인다. 외국 소를 아무리 자유롭게 들여온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소를 기르는 그 고장들이 이 왕국 나머지 땅의 늘어나는 인구와 개량을 틈타 제 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올리고 그 나라의 더 개량되고 경작된 모든 곳에 참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막는 것뿐이다.

소금절임 식료품을 아무리 자유롭게 들여온다 해도 살아 있는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목축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적을 것이다. 소금절임 식료품은 부피가 아주 큰 상품인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싱싱한 고기에 견주면 질이 더 나쁜 상품이면서 노동과 비용이 더 들어 값이 더 높은 상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나라의 소금절임 식료품과는 겨룰지 몰라도 싱싱한 고기와 겨루게 될 일은 결코 없다. 그것은 먼 뱃길을 가는 배에 먹을 것을 싣는 데에나 그와 비슷한 데에 쓰일 수 있을 뿐, 사람들의 먹을거리 가운데 이렇다 할 몫을 이룰 일은 결코 없다. 아일랜드에서 소금절임 식료품을 들여오는 것이 자유로워진 뒤로 들여온 양이 적다는 것은 우리 목축업자가 그것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음을 겪어서 보여 주는 증거다. 그것 때문에 푸줏간 고기 값이 느낄 만큼 움직인 적은 없는 듯하다.

외국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조차 영국 농부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을 것이다. 곡물은 푸줏간 고기보다 부피가 훨씬 큰 상품이다.

1펜스 하는 밀 1파운드(무게)는 4펜스 하는 푸줏간 고기 1파운드(무게) 만큼 비싸다. 가장 크게 모자란 때에도 외국 곡물을 들여온 양이 적었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롭게 들여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 농부들에게 납득시킬 만하다. 해마다 들여오는 평균 양은 『곡물 거래론』의 아주 잘 아는 지은이에 따르면[5] 온갖 곡식을 다 합쳐 23,728쿼터에 그치며,[6] 연간 소비의 571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에 주는 장려금이 넉넉한 해에 더 많이 내보내게 만드는 만큼, 그것은 그 결과로 모자란 해에 오늘의 갈이 상태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들여오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한 해의 넉넉함이 다른 해의 모자람을 메워 주지 못하며, 내보내는 평균 양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늘어나는 만큼 오늘의 갈이 상태에서 들여오는 평균 양도 그럴 수밖에 없다. 장려금이 없다면 내보내는 곡물이 줄어드는 만큼 해마다 따져 보아도 들여오는 곡물이 지금보다 줄어들 듯하다. 영국과 외국 사이에서 곡물을 가져오고 실어 가는 이들인 곡물 상인들은 일거리가 훨씬 줄어들어 적지 않은 해를 입을 수 있으나, 시골 지주와 농부는 거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려금을 되살리고 이어 가는 것을 가장 애타게 바라는 마음을 내가 본 곳은 시골 지주와 농부보다 오히려 곡물 상인들 쪽이었다.

시골 지주와 농부는, 그들에게 큰 명예가 되는 일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딱한 독점의 정신에 가장 덜 물든 이들이다. 큰 제조 공장의 사업가는 같은 종류의 공장이 제게서 20마일 안에 세워지면 더러 놀란다. 아브빌에서 모직 제조업을 벌인 네덜란드 사업가는 같은 종류의 공장이 그 도시에서 30리그 안에는 세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7] 이와 달리 농부와 시골 지주는 대개 이웃의 농장과 땅을 경작하고 개량하는 것을 막기보다 도와주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들에게는 제조업자들 대부분이 가진 것과 같은 비밀이 없고, 이롭다고 알아낸 새

농사법이 있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알려 주고 될 수 있는 데까지 널리 퍼뜨리기를 대개 좋아한다. 늙은 카토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경건하고 가장 든든한 벌이이며 시샘을 가장 적게 받는다.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장 적게 품는다.」[8] 그 나라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시골 지주와 농부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처럼 쉽게 단합할 수 없는데, 이들은 도시에 모여 살면서 거기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배타적인 동업조합의 정신에 익어 있으므로, 저마다 제 도시의 주민들에 대하여 대개 가지고 있는 그 배타적 특권을 제 나라 사람 모두에 대하여 얻어 내려고 자연히 애쓴다. 그래서 그들이 제게 국내 시장의 독점을 굳혀 주는 그 외국 재화 수입 묶음을 처음 생각해 낸 이들인 듯하다. 영국의 시골 지주와 농부가 제 처지에 자연스러운 그 너그러움을 잊어버릴 만큼, 제 나라 사람에게 곡물과 푸줏간 고기를 대 주는 배타적 특권을 달라고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들을 본뜨고 자기들을 짓누르려 드는 것을 본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이익이 그 본을 따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거래의 자유로 얼마나 덜 영향을 받는지 헤아려 볼 겨를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외국 곡물과 소를 들여오는 것을 영구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구와 산업이 어느 때에도 그 나라 흙에서 나는 원생산물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과 참으로 다름없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북돋우려고 외국 산업에 얼마간 짐을 물리는 것이 대개 이로울 두 경우가 있는 듯하다.

첫째는 어떤 특정한 갈래의 산업이 그 나라의 방어에 꼭 필요한 경우다. 이를테면 영국의 방어는 그 뱃사람과 배의 수에 매우 크게 매여 있다. 그러므로 항해법은 아주 마땅하게도 영국의 뱃사람과 배에 제 나라 거래의 독점을 주려고 애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경우에는 외국 배에 무거운 짐을 물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9] 이 법의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자와 선장과 뱃사람의 4분의 3이 영국 신민이 아닌 배는 모두 배와 짐을 몰수한다는 벌 아래, 영국의 정착지와 식민 농장으로 거래하는 것이나 영국의 연안 거래에 쓰이는 것이 금지된다.

둘째,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부피가 아주 큰 여러 가지는 위에서 말한 배로만, 또는 그 재화를 만든 나라의 배로서 임자와 선장과 뱃사람의 4분의 3이 그 특정한 나라 사람인 배로만 영국에 들여올 수 있으며, 뒤의 종류의 배로 들여올 때에도 외국인 관세의 두 배를 물린다.[10] 다른 어느 나라의 배로 들여오면 배와 재화를 몰수하는 벌을 받는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네덜란드인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처럼 유럽의 큰 운송인이었으며, 이 규제로 그들은 영국의 운송인이 되는 것에서도, 다른 어느 유럽 나라의 재화를 우리에게 들여오는 것에서도 아주 밀려났다.

셋째,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부피가 아주 큰 여러 가지는 영국 배로도 그것을 만든 나라가 아닌 어느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이 배와 짐을 몰수한다는 벌 아래 금지된다. 이 규제도 아마 네덜란드인을 겨눈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그때도 오늘처럼 모든 유럽 재화의 큰 집산지였는데, 이 규제로 영국 배는 다른 어느 유럽 나라의 재화도 네덜란드에서 실을 수 없게 되었다.

넷째, 온갖 소금절임 생선과 고래 지느러미와 고래뼈와 기름과 비계는 영국 배에서 잡아 배 위에서 절인 것이 아니면 영국으로 들여올 때에 외국인 관세의 두 배를 물린다. 네덜란드인은 오늘날에도 으뜸이지만 그때에는 유럽에서 외국에 생선을 대 주려고 한 유일한 고기잡이였다. 이 규제로 그들이 영국에 생선을 대는 일에 아주 무거운 짐이 얹혔다.

항해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두 나라 사이에는 가장 격한 미움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 법을 처음 만든 장기 의회가 다스리던 때에 시작되었고, 얼마 뒤 호국경과 찰스 2세가 다스리던 때에 네덜란드 전쟁으로 터져 나왔다.[11] 그러므로 이 이름난 법의 규제 가운데 얼마는 나라들 사이의 미움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온통 가장 사려 깊은 슬기가 시킨 것이었다 해도 그만큼은 슬기롭다. 그 특정한 때에 나라들 사이의 미움이 겨눈 것은 가장 사려 깊은 슬기가 권했을 바로 그 목표, 곧 잉글랜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군 세력인 네덜란드의 해군 세력을 줄이는 것이었다.

항해법은 외국 상업에 이롭지 않고, 거기서 자라날 수 있는 그 풍요에도 이롭지 않다. 어느 나라가 외국과 맺는 상업 관계에서 가지는 이익은 상인이 저와 거래하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고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가장 싸게 살 듯한 때는 가장 온전한 거래의 자유로 저에게 사들일 일이 있는 재화를 모든 나라가 가져오도록 북돋울 때이며, 같은 이유로 가장 비싸게 팔 듯한 때는 그렇게 제 시장이 가장 많은 사는 이로 가득 찰 때다. 참으로 항해법은 영국 산업이 낸 생산물을 내보내려고 오는 외국 배에는 아무 짐도 물리지 않는다. 들여오는 재화만이 아니라 내보내는 재화에도 모두 물리던 그 오래된 외국인 관세조차 그 뒤 여러 법으로 내보내는 물품의 큰 몫에서는 걷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금지나 높은 관세로 팔러 오는 것을 막히면 그들은 사러 올 여유도 늘 있을 수 없는데, 짐을 싣지 않고 오면 제 나라에서 영국까지의 운임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는 이의 수를 줄이면 우리는 사는 이의 수도 줄이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거래의 자유가 더 온전할 때보다 외국 재화를 더 비싸게 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것을 더 싸게 팔게 될 듯하다. 그러나 방어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항해법은 아마 잉글랜드의 모든 상업 규제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것이다.

국내 산업을 북돋우려고 외국 산업에 얼마간 짐을 물리는 것이 대개 이로울 둘째 경우는, 국내에서 뒤의 것이 낸 생산물에 어떤 세금이 물려 있는 때다. 이 경우에는 앞의 것이 낸 같은 생산물에도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국내 산업에 국내 시장의 독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자산과 노동 가운데 저절로 갈 만한 몫보다 더 큰 몫을 어떤 특정한 쓰임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저절로 그 쓰임으로 갈 것의 얼마가 그 세금 때문에 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돌려세워지는 것을 막을 뿐이고, 세금을 물린 뒤에도 외국 산업과 국내 산업 사이의 겨룸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전과 같은 자리에 두게 할 뿐이다. 영국에서는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에 그런 세금이 물릴 때에, 국내에서 더 싸게 팔리게 된다고 시끄럽게 하소연하는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의 입을 막으려고 같은 종류의 모든 외국 재화의 수입에 훨씬 더 무거운 관세를 물리는 것이 예사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거래의 자유에 두는 이 둘째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세금이 물린 상품과 겨루게 될 바로 그 외국 상품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멀리까지 늘려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바로는, 어느 나라에서 생필품에 세금이 물렸으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같은 생필품만이 아니라 국내 산업이 낸 무엇과든 겨루게 될 온갖 외국 재화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마땅해진다. 그들 말로는 그런 세금 때문에 생계가 반드시 비싸지고, 노동의 값은 늘 노동자의 생계 값과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이 낸 상품은 저마다 곧바로 세금이 물리지 않았다 해도 그런 세금 때문에 비싸지는데, 그것을 만드는 노동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들 말로는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국내에서

만드는 상품 하나하나에 물리는 세금과 참으로 맞먹는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을 외국 산업과 같은 자리에 두려면 외국 상품마다 그것이 겨루게 될 국내 상품의 값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 꼭 필요해진다고 그들은 여긴다.

영국에서 비누와 소금과 가죽과 양초 따위에 물리는 것과 같은 생필품 세금이 노동의 값을,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의 값을 반드시 올리는지는 뒤에 세금을 다룰 때에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아 두자. 참으로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 노동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값이 이렇게 두루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상품에 곧바로 물린 특정한 세금 때문에 그 상품의 값이 올라간 경우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그런 세금 때문에 그런 상품의 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는 늘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의 값이 두루 올라간 것이 노동이 쓰인 여러 상품의 값에 저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웬만큼이라도 정확히 알아낼 길이 결코 없었다. 그러므로 외국 상품마다 물릴 세금을 국내 상품마다 올라간 값에 웬만큼이라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생필품 세금은 사람들의 처지에 메마른 흙과 나쁜 날씨와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 때문에 식료품이 비싸지는 것은 그것을 길러 내는 데에 남다른 노동과 비용이 드는 경우와 다름없다. 흙과 날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모자람 속에서 사람들에게 제 자본과 산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끌어 주려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면, 그런 세금에서 오는 만들어진 모자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다. 될 수 있는 대로 제 산업을 제 처지에 맞추어 보고, 그 나쁜 사정에도 아랑곳없이 국내 시장에서든 외국 시장에서든 얼마쯤 이점을 가질 만한 쓰임을 찾아내도록 그들을 놓아두는 것이 두 경우에 다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다. 그들이 이미 세금에 짓눌려 있고 이미 생필품에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새 세금을 물려 다른 상품의 큰 몫에도 너무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그 잘못을 메우는 가장 터무니없는 길이다.

그런 세금이 어느 높이까지 자라나면 그것은 땅이 메마른 것이나 하늘이 거친 것과 맞먹는 저주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세금을 가장 두루 물려 온 곳은 가장 걸차고 가장 근면한 나라들이었다. 다른 어느 나라도 그토록 큰 어지러움을 버텨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튼튼한 몸만이 몸에 해로운 섭생 아래에서 살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갈래의 산업에서 타고난 이점과 얻은 이점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만이 그런 세금 아래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그런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 남다른 사정 덕에 계속 번영하고 있는데, 아주 터무니없이 짐작되어 온 것처럼 그 세금 덕분이 아니라 그 세금에도 아랑곳없이 그러하다.

국내 산업을 북돋우려고 외국 산업에 얼마간 짐을 물리는 것이 대개 이로울 두 경우가 있듯이, 더러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 되는 다른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어떤 외국 재화의 자유로운 수입을 이어 가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유로운 수입이 한동안 끊긴 뒤에 그것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되살리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것이다.

어떤 외국 재화의 자유로운 수입을 이어 가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지 더러 헤아려 보아야 할 경우는, 어떤 외국이 높은 관세나 금지로 우리 제조품 얼마가 제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묶을 때다. 이 경우에 복수심은 자연히 되갚음을 시키며, 우리도 그들의 제조품 얼마나 그 모두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같은 관세와 금지를 물리도록 시킨다. 그래서 나라들은 이렇게 되갚는 일을 거르는 때가 드물다. 프랑스인들은 저와

겨루게 될 외국 재화의 수입을 묶어 제 제조품을 감싸는 데에 유별나게 앞장서 왔다. 콜베르 씨의 정책 가운데 큰 몫이 여기에 있었으니, 그는 큰 재능을 가졌음에도 이 경우에는 제 나라 사람을 겨눈 독점을 늘 요구하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궤변에 속아 넘어간 듯하다.[12] 이런 갈래의 그의 조치가 제 나라에 이롭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사리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대신은 1667년의 관세표로 아주 많은 외국 제조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물렸다. 그가 네덜란드인을 위하여 그것을 낮추어 주기를 마다하자 그들은 1671년에 프랑스의 포도주와 브랜디와 제조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672년의 전쟁은 얼마쯤 이 통상 다툼에서 비롯한 듯하다. 1678년의 네이메헌 평화 조약이 네덜란드인을 위하여 그 관세 얼마를 낮추어 그것을 끝냈고, 네덜란드인은 그에 따라 제 금지를 거두었다. 프랑스인과 잉글랜드인이 같은 관세와 금지로 서로의 산업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도 거의 같은 무렵이었는데, 다만 프랑스인이 먼저 그 본을 보인 듯하다. 그 뒤로 두 나라 사이에 놓여 있는 맞섬의 기운이 여태까지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낮추지 못하게 막아 왔다. 1697년에 잉글랜드는 플란데런의 제조품인 본레이스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때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나라 정부는 그 보답으로 잉글랜드 모직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700년에 본레이스를 잉글랜드로 들여오는 금지가 풀렸는데, 잉글랜드 모직물을 플란데런으로 들여오는 것을 전과 같은 자리에 되돌린다는 조건이었다.

하소연의 대상인 그 높은 관세나 금지를 거두게 할 듯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이런 갈래의 되갚음에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큰 외국 시장을 되찾는 것은 어떤 갈래의 재화에 짧은 동안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잠깐의 번거로움을 대개 넘고도 남게 메워 준다. 그런 되갚음이 그런 결과를 낳을 듯한지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은 두루 쓰이는 원칙에 따라 헤아려야 하는 입법자의 학문에 속하기보다는, 그날그날의

일이 오르내리는 데에 따라 방책이 이끌리는, 흔히 정치가니 정객이니 부르는 그 음흉하고 약삭빠른 동물의 솜씨에 속하는 듯하다. 그런 철회를 얻어 낼 개연성이 없을 때에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층이 입은 해를 메우려고 우리 스스로 그 층만이 아니라 거의 다른 모든 층에도 또 하나의 해를 입히는 것은 나쁜 길로 보인다. 우리 이웃이 우리 제조품 얼마를 금지하면 우리는 대개 같은 것만 금지하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제조품 얼마를 금지한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층의 일꾼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그 맞수 얼마를 몰아내어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 값을 올리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금지로 해를 입은 그 일꾼들은 우리의 금지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과 우리 시민의 거의 모든 다른 층이 그 때문에 어떤 재화에 전보다 비싼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법마다 온 나라에 참된 세금을 물리는 셈인데, 우리 이웃의 금지로 해를 입은 그 특정한 층의 일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층을 위해서다.

외국 재화의 자유로운 수입이 한동안 끊긴 뒤에 그것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되살리는 것이 온당한지 더러 헤아려 보아야 할 경우는, 저와 겨루게 될 모든 외국 재화에 물린 높은 관세나 금지 덕에 어떤 특정한 제조업이 아주 많은 사람을 부릴 만큼 커진 때다. 이 경우에는 인간다움이 거래의 자유를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리고 적잖은 조심과 신중함을 가지고서만 되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높은 관세와 금지를 한꺼번에 걷어 버리면 같은 종류의 더 싼 외국 재화가 국내 시장으로 그토록 빠르게 쏟아져 들어와 우리 사람 수천이 제 여느 일자리와 생계의 길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것이 가져올 어지러움은 참으로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은 흔히 짐작되는 것보다 아마 훨씬 작을 것이다.

첫째, 장려금 없이 그 일부가 여느 때에 유럽의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는 제조품은 모두 외국 재화를 아무리 자유롭게 들여온다 해도 받는 영향이 아주 작을 것이다. 그런 제조품은 같은 질과 종류의 다른 외국 재화와 같은 값으로 밖에서 팔릴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그보다 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내 시장을 그대로 지킬 것이며, 변덕스러운 멋쟁이가 더러 외국 물건이라는 그것만으로 국내에서 만든 더 싸고 더 좋은 같은 종류의 재화보다 그것을 앞세울 수는 있겠으나, 이 어리석음은 일의 성질로 보아 그토록 적은 사람에게만 미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일자리 전체에 느낄 만한 자취를 남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모직 제조업의 여러 갈래와 다룸가죽과 철물 가운데 큰 몫이 아무 장려금 없이 해마다 유럽의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부리는 제조업이다. 이 거래의 자유로 가장 크게 해를 입을 제조업은 아마 비단이고, 그다음이 아마포이지만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둘째, 이렇게 거래의 자유를 되살림으로써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제 여느 일자리와 늘 해 오던 생계의 길에서 밀려난다 해도, 그들이 그 때문에 일자리도 생계도 다 잃는다는 결론은 조금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지난 전쟁이 끝날 때에 육군과 해군을 줄임으로써 가장 큰 제조업에 쓰이는 수와 맞먹는 100,000명이 넘는 군인과 뱃사람이 한꺼번에 제 여느 일자리에서 밀려났다.[13] 그러나 그들이 얼마간 번거로움을 겪은 것에는 의심이 없으나 그 때문에 일자리와 생계를 다 잃지는 않았다. 뱃사람의 큰 몫은 아마 틈이 나는 대로 조금씩 상선 일로 옮겨 갔을 것이고, 그동안 그들과 군인들은 사람들의 큰 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아주 여러 가지 일에 쓰였다. 모두 무기를 다루는 데에 익었고 그 가운데 많은 이가 노략과 약탈에도 익었던 1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처지에 그토록 큰 변화가 일어났으나 큰 격변은커녕 느낄 만한

어지러움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떠돌이의 수가 어디서도 느낄 만큼 늘어난 곳이 거의 없었고,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한에서는 상선의 뱃사람 일을 빼면 어느 일에서도 노동의 임금이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군인의 익은 버릇과 어느 갈래든 제조업자의 익은 버릇을 견주어 보면, 뒤의 것이 그 사람을 새 업에 쓰이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가 앞의 것이 그 사람을 어느 업에도 쓰이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만큼 크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조업자는 제 생계를 제 노동에서만 찾는 데에 늘 익어 있었고 군인은 제 삯에서 그것을 바라는 데에 익어 있었다. 한쪽에는 끈기와 근면이 익숙했고 다른 쪽에는 게으름과 방탕이 익숙했다. 그런데 근면을 한 갈래의 노동에서 다른 갈래로 돌리는 것이 게으름과 방탕을 어디로든 돌리는 것보다 확실히 훨씬 쉽다. 게다가 이미 말한 대로 제조업의 큰 몫에는 성질이 아주 비슷한 다른 곁가지 제조업이 있어서 일꾼이 제 근면을 그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쉽게 옮겨 갈 수 있다. 그런 일꾼의 큰 몫도 더러 시골일에 쓰인다. 전에 그들을 어떤 특정한 제조업에 쓰던 그 자산은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 같은 수의 사람을 다른 데에 쓸 것이다. 그 나라의 자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도 그대로이거나 거의 그대로일 것이며, 다만 다른 곳에서 다른 일에 쓰일 수 있다. 참으로 군인과 뱃사람은 국왕의 복무에서 풀려나면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어느 도시나 어느 곳에서든 어떤 업이든 할 자유를 가진다. 군인과 뱃사람에게 하듯이 국왕의 모든 신민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갈래의 산업을 할 그 타고난 자유를 되돌려 주라. 곧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을 깨뜨리고 도제법을 폐지하라. 이 둘은 참으로 타고난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정주법의 폐지를 보태어, 가난한 일꾼이 한 업에서든 한 곳에서든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기소나 쫓겨남을 겁내지 않고 다른 업이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하라.[14] 그러면 어떤 특정한

층의 제조업자가 더러 풀려나는 일로 나라도 개인도 군인이 풀려나는 일에서보다 훨씬 더 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제조업자들이 제 나라에 큰 공이 있음에는 의심이 없으나, 그 나라를 제 피로 지키는 이들보다 더 큰 공이 있을 수는 없고 더 조심스럽게 대접받을 만하지도 않다.

참으로 거래의 자유가 영국에서 온전히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오세아나나 유토피아가 거기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터무니없다.[15] 여느 사람들의 선입견만이 아니라 훨씬 더 누를 수 없는 것인 많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그것에 맞선다. 제조업 고용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 맞수의 수를 늘릴 듯한 법마다 맞서는 그 열성과 한마음으로 육군 장교들이 병력을 줄이는 데에 맞선다면, 그리고 뒤의 이들이 제 일꾼을 부추기듯이 앞의 이들이 제 군인을 부추겨 그런 규제를 내놓는 이들을 힘과 난동으로 치게 한다면, 육군을 줄여 보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제조업자들이 우리를 겨누어 얻어 낸 그 독점을 어느 면으로든 줄여 보려는 것이 그렇게 된 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 독점은 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리의 수를 그토록 많이 늘려 놓아서, 그들은 너무 커진 상비군처럼 정부에도 만만찮은 존재가 되었고 여러 경우에 입법부를 위협한다. 이 독점을 굳히려는 제안마다 받쳐 주는 의회 의원은 거래를 안다는 평판을 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수와 부로 큰 힘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와 세력을 얻는 것이 틀림없다. 이와 달리 그가 그들에게 맞서면, 더구나 그들을 꺾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널리 인정받은 곧음도 아무리 높은 신분도 아무리 큰 공로도, 노여워하고 뜻이 꺾인 독점가들의 무람없는 난동에서 나오는 가장 더러운 욕설과 헐뜯음에서, 몸으로 받는 모욕에서, 더러는 참된 위험에서 그를 지켜 주지 못한다.

큰 제조업의 사업가가 국내 시장이 갑자기 외국인의 겨룸에 열려 제업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는 참으로 적지 않은 해를 입을 것이다. 그의 자본 가운데 여느 때에 재료를 사들이고 일꾼에게 삯을 치르는 데에 쓰이던 부분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쓰임을 찾을 수 있겠으나, 작업장과 일하는 기구에 붙박여 있던 부분은 적지 않은 손실 없이는 처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익을 온당하게 살피자면 이런 갈래의 변화는 결코 갑자기 들여오지 말고 느리게 조금씩, 그리고 아주 오래 미리 알린 뒤에 들여와야 한다. 입법부의 헤아림이 치우친 이익들의 시끄러운 조름이 아니라 두루 좋음을 널리 내다보는 눈으로 늘 이끌릴 수 있다면, 바로 이 때문에 입법부는 이런 갈래의 새 독점을 세우지도 말고 이미 세워진 것을 더 넓히지도 말도록 아마 유별나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규제마다 나라의 틀에 얼마쯤 참된 어지러움을 들여오는데, 그것은 뒤에 또 하나의 어지러움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 재화를 들여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세입을 걷으려고 그것을 들여오는 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지는 뒤에 세금을 다룰 때에 살펴볼 것이다. 들여오는 것을 막거나 줄이려는 뜻으로 물리는 세금은 분명히 거래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만큼 관세 세입도 무너뜨린다.

---

1.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그로트는 4펜스에 해당하는 은화로, 17세기 중엽 뒤로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다.

2. 옮긴이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02년에, 잉글랜드 동인도회사는 1600년에 세워졌다. 두 회사 모두 제 나라의 동인도 거래를 혼자 맡는 배타적 특권을 나라에서 받았다.

3. 옮긴이 — 관세 환급은 이미 물린 관세나 소비세를 그 재화를 다시 내보낼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소비세는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소비하는 물건에 물리는

세금이고, 관세는 국경을 넘는 재화에 물리는 세금이다.

4. 옮긴이 —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 전권 379,794단어 가운데 이 한 자리에만 나온다. 같은 저자의 《도덕감정론》에도 한 번 나오며, 그 책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완역되어 있다.

5. 옮긴이 — 『곡물 거래론』(1766)의 지은이는 찰스 스미스(1713~1777)로, 애덤 스미스와 다른 사람이다. 영국의 곡물 수출입 통계를 모아 놓은 책이다.

6.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는 약 8부셸에 해당한다. 네 분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7. 옮긴이 — 리그는 걸어서 한 시간쯤 가는 거리를 재던 단위로, 프랑스에서는 대략 4킬로미터에 해당하였다. 아브빌은 프랑스 북부의 도시로,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 판 로베가 왕실의 특권을 받아 모직 공장을 세운 곳이다.

8. 옮긴이 — 늙은 카토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기원전 234~149)로, 로마의 정치가이며 농사를 다룬 『농업론』을 남겼다. 스미스가 인용한 것은 그 책 머리말의 라틴어 구절이다.

9. 옮긴이 — 항해법은 165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660년에 다시 정해진 법으로, 영국과 그 식민지로 드나드는 재화를 영국 배로만, 그리고 대부분 영국 뱃사람으로 싣도록 정했다. 뱃사람과 배의 수를 늘리려는 뜻이 있었다.

10. 옮긴이 — 외국인 관세는 외국인이 임자인 배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재화에 영국 신민의 배보다 더 물린 관세다. 19세기에 없어졌다.

11. 옮긴이 — 장기 의회는 1640년에 모여 1653년까지 이어진 잉글랜드 의회로, 1651년에 항해법을 처음 만들었다. 호국경은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이 1653년부터 쓴 칭호이고, 찰스 2세(1630~1685)는 1660년에 왕위에 올랐다. 네덜란드 전쟁은 두 나라가 1652년부터 1654년까지, 그리고 1665년부터 1667년까지 벌인 해전을 말한다.

12. 옮긴이 — 장바티스트 콜베르(1619~1683)는 루이 14세의 재무 총감으로 프랑스의 제조업과 무역을 이끌었다. 네이메헌 평화 조약은 1678년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전쟁을 끝낸 조약이다.

13. 옮긴이 — 스미스가 「지난 전쟁」이라 부른 것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이어진 7년 전쟁이다. 파리 조약으로 끝난 뒤 영국은 육군과 해군을 크게 줄였다.

14. 옮긴이 — 도제법은 엘리자베스 치세 5년의 법 제4장(1563년)으로, 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 다섯째 해에 통과된 법이라는 뜻이다. 여러 업에서 7년 도제살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그 업을 하는 것을 막았다. 정주법은 1662년부터 여러 차례 고쳐진 법으로, 빈민 구제를 받을 자격을 한 교구에 묶어 두어 일꾼이 다른 교구로 옮겨 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은 도시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15. 옮긴이 — 오세아나는 제임스 해링턴(1611~1677)이 1656년에 낸 『오세아나 공화국』에 그린 나라이고,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1478~1535)가 1516년에 낸 책에 그린 섬나라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장 —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가한 특별한 제한

3장 —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가한 특별한 제한

1절 — 상업 체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그 제한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나라들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업 체계가 금과 은의 양을 늘리려고 내놓는 두 번째 방책이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슐레지엔 론을 일정한 관세만 물면 국내에서 쓰려고 들여올 수 있으나, 프랑스의 캠브릭과 론은 다시 내보내려고 창고에 넣어 두는 런던 항 말고는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 포도주에는 포르투갈 포도주에, 아니 다른 어느 나라 포도주에 물리는 것보다 높은 관세를 물린다. 이른바 1692년 수입세[1]로 모든 프랑스 재화에 정해진 사정액 곧 가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졌는데, 다른 나라들의 재화는 그 큰 몫이 훨씬 가벼운 관세를 물었고 5퍼센트를 넘는 일이 드물었다. 프랑스의 포도주와 브랜디와 소금과 초는 정말이지 여기서 빠졌으나, 이 상품들은 다른 법으로든 같은 법의 특별한 조항으로든 다른 무거운

관세를 물고 있었다. 1696년에는 첫 번째 것이 넉넉히 억누르지 못한다고 여겨져 브랜디만 빼고 모든 프랑스 재화에 25퍼센트의 두 번째 관세가 매겨졌고, 프랑스 포도주 한 톤에 25파운드[,2], 프랑스 초 한 톤에 15파운드의 새 관세가 함께 매겨졌다. 관세 사정표에 오른 재화 전부 또는 그 큰 몫에 매겨 온 5퍼센트의 그 일반 보조세, 곧 관세에서 프랑스 재화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다. 3분의 1 보조세와 3분의 2 보조세를 둘이 합쳐 온전한 보조세 하나를 이룬다고 셈하면 이런 일반 보조세가 다섯 번 있었으니, 지금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프랑스에서 자라거나 나거나 만들어진 재화의 큰 몫이 물어야 할 가장 낮은 관세가 75퍼센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화의 큰 몫에는 그런 관세가 금지와 다름없다. 프랑스인들도 그들 차례로 우리 재화와 제조품을 똑같이 매섭게 다루어 왔다고 나는 믿으나, 그들이 우리 것에 안긴 낱낱의 괴로움은 그만큼 잘 알지 못한다. 서로 가한 그 제한은 두 나라 사이의 바른 교역을 거의 다 끝장내 버렸고, 이제는 영국 재화를 프랑스로 들여가는 일이든 프랑스 재화를 영국으로 들여오는 일이든 밀수꾼이 주로 하고 있다. 앞 장에서 내가 살펴본 원리들은 사사로운 이익과 독점의 심사에서 비롯되었고,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원리들은 나라의 편견과 미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이 원리들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듯이 더욱 이치에 닿지 않는다. 상업 체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첫째, 이를테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때 차액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나오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해도, 그런 무역이 영국에 불리하다거나 그리하여 영국 무역 전체의 일반 차액이 더욱 영국에 어긋나게 돌아선다는 결론이 결코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프랑스 포도주가 포르투갈 포도주보다 낫고 싸다면, 또는 프랑스 아마포가 독일 아마포보다 낫고 싸다면, 영국으로서는 필요한 포도주와 외국 아마포를

포르투갈과 독일에서 사는 것보다 프랑스에서 사는 것이 더 이롭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해마다 들여오는 것의 가치가 크게 늘어난다 해도, 같은 품질의 프랑스 재화가 다른 두 나라의 재화보다 싼 그만큼 해마다 들여오는 것 전체의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들여온 프랑스 재화 전부를 영국에서 소비한다고 가정해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그 가운데 큰 몫은 다른 나라들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 팔리면 어쩌면 들여온 프랑스 재화 전체의 원가와 맞먹는 가치의 회수를 되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인도 거래를 두고 자주 하던 말이 프랑스 거래에도 맞을 법하다. 곧 동인도 재화의 큰 몫을 금과 은으로 샀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를 다른 나라로 다시 내보내어, 그 거래를 이끈 나라로 전체 원가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되돌려 왔다는 말이다. 오늘날 네덜란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갈래 하나가 프랑스 재화를 다른 유럽 나라들로 실어 주는 일이다. 영국에서 마시는 프랑스 포도주조차 얼마는 네덜란드와 제일란트에서 몰래 들어온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있거나, 또는 프랑스 재화를 다른 유럽 나라들의 재화와 같은 관세만 물고 들여오게 하고 그것을 내보낼 때 그 관세를 되돌려 받게 한다면, 영국도 네덜란드에 그토록 이롭다고 알려진 이 거래에서 얼마쯤 몫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또 마지막으로, 어느 두 나라 사이의 이른바 차액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가치를 내보내는지를 확실히 가려 줄 기준이 없다. 나라의 편견과 미움은 언제나 특정한 장사꾼들의 사사로운 이익에서 부추김을 받아, 이 문제를 둘러싼 모든 물음에서 우리의 판단을 이끄는 원리가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자주 끌어대던 기준이 둘 있는데, 세관 장부와 환 시세다. 세관 장부는 거기에 적힌 재화의 큰 몫이 얼마로 사정되었는가가 정확하지 않아 아주

못 믿을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는 널리 받아들여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환 시세도 아마 거의 그와 같다.

런던과 파리처럼 두 곳 사이의 환이 평가(平價)에 있을 때는[3] 런던이 파리에 진 빚이 파리가 런던에 진 빚으로 맞비겨진다는 표시라고들 한다. 반대로 파리 앞으로 떼는 어음에 런던에서 웃돈을 치를 때는 런던이 파리에 진 빚이 파리가 런던에 진 빚으로 맞비겨지지 않아 그 차액을 화폐로 런던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표시라고들 하며, 그것을 내보내는 데에 드는 위험과 수고와 비용 때문에 그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도시 사이의 빚과 채권이 보통 어떤 상태인가는 서로 거래하는 보통의 흐름이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상대에게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상대에게서 들여오지 않으면 저마다의 빚과 채권이 서로 맞비겨질 수 있다. 그러나 둘 가운데 한쪽이 상대에게 내보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상대에게서 들여오면, 앞쪽은 뒤쪽이 앞쪽에 지는 액보다 더 큰 액을 뒤쪽에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저마다의 빚과 채권이 서로 맞비겨지지 않으니, 빚이 채권보다 무거운 쪽에서 화폐를 내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의 환 시세는 두 곳 사이의 빚과 채권이 보통 어떤 상태인가를 알리는 표지이니, 그 상태를 정하는 것이 그들이 내보내고 들여오는 것의 보통 흐름이므로 환 시세는 그 흐름을 알리는 표지이기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통의 환 시세가 어느 두 곳 사이의 빚과 채권이 보통 어떤 상태인가를 넉넉히 알려 준다고 인정한다 해도, 빚과 채권의 보통 상태가 제게 유리한 쪽이 무역 차액에서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거기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어느 두 곳 사이의 빚과 채권의 보통 상태는 서로 거래하는 보통의 흐름만으로 늘 온전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다른 여러 곳과 하는 거래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잉글랜드 상인들이 함부르크와 단치히와 리가 같은 곳에서 사들이는 재화의 값을 네덜란드 앞으로 떼는 어음으로 치르는 것이 예사라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사이의 빚과 채권의 보통 상태는 두 나라가 서로 거래하는 보통의 흐름만으로 온전히 정해지지 않고 잉글랜드가 그 다른 곳들과 하는 거래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로 해마다 내보내는 것이 거기서 해마다 들여오는 것의 연간 가치를 크게 넘고 이른바 무역 차액이 잉글랜드에 아주 유리하다 해도, 잉글랜드는 해마다 네덜란드로 화폐를 내보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여태 환 평가를 셈해 온 그 셈법으로는, 보통의 환 시세가 제게 유리해 보이거나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빚과 채권의 보통 상태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려 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실제 환율이 셈으로 나온 환율과 아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흔히 그러하므로, 뒤엣것의 흐름에서 앞엣것의 흐름을 두고 확실한 결론을 끌어낼 수 없는 자리가 많다.

잉글랜드에서 치른 화폐 액수가 잉글랜드 조폐국의 법정 기준으로 순은 몇 온스를 담고 있을 때, 그 액을 치르고 프랑스에서 치를 화폐 액수의 어음을 받되 그 액이 프랑스 조폐국의 법정 기준으로 같은 온스의 순은을 담고 있다면,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환이 평가에 있다고 한다. 더 많이 치르면 웃돈을 준 것으로 보아 환이 잉글랜드에 어긋나고 프랑스에 유리하다고 하며, 더 적게 치르면 웃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환이 프랑스에 어긋나고 잉글랜드에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여러 나라의 통용 화폐가 가지는 가치를 저마다의 조폐국 법정 기준으로 늘 가늠할 수는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더 닳고 깎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덜 닳고 깎여, 그 기준에서 이리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통용 주화든 다른 어느 나라의 것과

견준 그 가치는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할 순은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담고 있는 순은의 양에 비례한다. 윌리엄 국왕 때 은화를 개주하기 전에는[4]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사이의 환을 저마다의 조폐국 법정 기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셈하면 잉글랜드에 25퍼센트 어긋났다. 그러나 라운즈씨에게서 배우는 바로는, 그때 잉글랜드 통용 주화의 가치는 그 법정 가치보다 25퍼센트가 조금 넘게 낮았다. 그러므로 셈으로 나온 환율이 그토록 잉글랜드에 어긋났어도 실제 환율은 그때조차 잉글랜드에 유리했을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 실제로 치른 더 적은 온스의 순은으로 네덜란드에서 치를 더 많은 온스의 순은짜리 어음을 샀을 수 있으니, 웃돈을 준다고 여겨진 사람이 실제로는 웃돈을 받았을 수 있다. 근래 잉글랜드 금화를 개주하기 전에는[5] 프랑스 주화가 잉글랜드 주화보다 훨씬 덜 닳아 있어 아마 2퍼센트나 3퍼센트만큼 법정 기준에 더 가까웠다. 그러므로 프랑스와의 셈한 환율이 잉글랜드에 2퍼센트나 3퍼센트를 넘지 않게 어긋났다면, 실제 환율은 잉글랜드에 유리했을 수 있다. 금화를 개주한 뒤로 환은 늘 잉글랜드에 유리하고 프랑스에 어긋나 있다.

둘째로, 어떤 나라에서는 주조 비용을 정부가 치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금은괴를 조폐국으로 가져가는 개인이 치르며, 정부는 주조에서 얼마쯤 수입을 얻기도 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정부가 치르니, 법정 품위의 은 1파운드(무게)를 조폐국으로 가져가면 같은 법정 품위의 은 1파운드(무게)를 담은 62실링을 되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주조 때문에 8퍼센트의 관세를 떼는데, 이것은 주조 비용을 치르고도 정부에 적은 수입을 안겨 준다. 잉글랜드에서는 주조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통용 주화가 실제로 담고 있는 금은괴의 양보다 훨씬 더 값나갈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세공에 값을 치르므로, 그 세공이 만든 은그릇의 가치에 보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화의 가치에도 보태진다. 그러므로 같은 무게의 순은을

담은 프랑스 화폐 액수는 같은 무게의 순은을 담은 잉글랜드 화폐 액수보다 더 값나가며, 그것을 사려면 더 많은 금은괴나 다른 상품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통용 주화가 저마다의 조폐국 법정 기준에 똑같이 가깝다 해도, 잉글랜드 화폐 액수로는 같은 온스의 순은을 담은 프랑스 화폐 액수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따라서 그만한 액의 프랑스 앞 어음도 살 수 없다. 그런 어음을 사려고 프랑스 주조 비용을 메우기에 넉넉한 만큼만 더 치른다면, 두 나라 사이의 실제 환율은 평가에 있을 수 있으니 저마다의 빚과 채권이 서로 맞비겨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셈한 환율은 프랑스에 크게 유리하게 나온다. 그보다 적게 치른다면 셈한 환율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나오는 동안에도 실제 환율은 잉글랜드에 유리할 수 있다.

셋째로 또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와 베네치아 같은 몇몇 곳에서는 외국 환어음을 이른바 은행 화폐로 치르고, 런던과 리스본과 안트베르펜과 리보르노 같은 다른 곳에서는 그 나라의 보통 통화로 치른다. 이른바 은행 화폐는[6] 언제나 같은 명목 액수의 보통 통화보다 더 값나간다. 이를테면 암스테르담 은행의 1000길더는 암스테르담 통화 1000길더보다 더 값나간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그 은행의 아지오라 부르는데,'[7] 암스테르담에서는 대개 5퍼센트쯤이다. 두 나라의 통용 화폐가 저마다의 조폐국 법정 기준에 똑같이 가깝다고 하고, 한쪽은 외국 어음을 이 보통 통화로 치르고 다른 쪽은 은행 화폐로 치른다고 하면, 은행 화폐로 치르는 쪽에 셈한 환율이 유리하게 나오면서도 실제 환율은 통용 화폐로 치르는 쪽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더 나은 화폐로, 곧 제 법정 기준에 더 가까운 화폐로 치르는 쪽에 셈한 환율이 유리하게 나오면서도 실제 환율은 더 못한 화폐로 치르는 쪽에 유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근래 금화를 개주하기 전에는 셈한 환율이 대개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와 베네치아에 대해, 또 내가

믿기로는 이른바 은행 화폐로 치르는 다른 모든 곳에 대해 런던에 어긋났다. 그러나 실제 환율도 런던에 어긋났다는 결론이 결코 따라 나오지 않는다. 금화를 개주한 뒤로는 그 곳들에 대해서까지 런던에 유리해졌다. 셈한 환율은 리스본과 안트베르펜과 리보르노에 대해, 또 프랑스를 빼면 내가 믿기로 보통 통화로 치르는 유럽의 다른 대부분 지역에 대해 대개 런던에 유리했고, 실제 환율도 그러했다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예치 은행, 특히 암스테르담 은행에 관한 여담.

프랑스나 잉글랜드 같은 큰 나라의 통화는 대개 거의 다 제 나라 주화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통화가 어느 때든 닳거나 깎이거나 그 밖에 법정 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그 나라는 주화를 개주하여 통화를 실제로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제노바나 함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의 통화는 온통 제 나라 주화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드물고, 그 주민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이웃 나라들의 주화로 큰 몫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는 제 주화를 개주해도 늘 제 통화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 환어음을 이 통화로 치른다면, 본디 그토록 불확실한 것의 어떤 액수든 그 가치가 불확실하므로 환이 언제나 그런 나라에 아주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 그 통화가 모든 외국에서 실제 값어치보다도 낮게 사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불리한 환이 그 나라 상인들에게 안길 수밖에 없는 불편을 덜려고, 그런 작은 나라들은 무역의 이익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가치가 넘는 외국 환어음은 보통 통화로 치르지 말고 어느 은행 앞으로 떼는 지급 지시로 또는 그 은행 장부에 옮겨 적는 것으로 치르도록 자주 법을 세웠다. 그 은행은 나라의 신용에 기대고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세워졌고, 언제나 그 나라의 법정 기준에 정확히 맞는 좋고 참된 화폐로 치를 의무를 졌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와

뉘른베르크의 은행은 본디 다 이런 뜻으로 세워진 듯하며, 그 가운데 몇은 나중에 다른 목적에 쓰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은행의 화폐는 그 나라의 보통 통화보다 나으므로 아지오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 통화가 나라의 법정 기준 아래로 얼마나 떨어졌다고 여겨지는가에 따라 아지오가 크거나 작았다. 이를테면 함부르크 은행의 아지오는 대개 14퍼센트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의 좋은 법정 화폐와 이웃 나라들에서 온통 쏟아져 들어온 깎이고 닳고 줄어든 통화 사이의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1609년 전에는 암스테르담의 넓은 무역이 유럽 온 곳에서 끌어들인 깎이고 닳은 외국 주화가 워낙 많아, 그 통화의 가치가 조폐국에서 갓 나온 좋은 화폐의 가치보다 9퍼센트쯤 낮아졌다. 그런 좋은 화폐는 나타나기만 하면 그런 사정에서 늘 그렇듯 녹여지거나 실려 나갔다. 상인들은 통화는 넉넉히 가지고 있었으나 환어음을 치를 좋은 화폐를 늘 넉넉히 찾을 수는 없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여러 규정을 세웠어도 그 어음의 가치가 큰 몫 불확실해졌다.

이 불편을 덜려고 1609년에 시의 보증 아래 은행 하나가 세워졌다. 이 은행은 외국 주화든 나라의 가볍고 닳은 주화든 그 나라의 좋은 법정 화폐로 셈한 실제 내재 가치대로 받되, 주조 비용과 그 밖에 관리에 드는 비용을 치르기에 필요한 만큼만 떼었다. 이 적은 떼기를 한 뒤에 남는 가치만큼 은행은 제 장부에 신용을 적어 주었다. 이 신용을 은행 화폐라 불렀으며, 이것은 조폐국 법정 기준에 정확히 맞는 화폐를 나타내므로 언제나 같은 실질 가치를 지녔고 내재로는 통용 화폐보다 더 값나갔다. 그와 함께 암스테르담 앞으로 떼거나 암스테르담에서 넘겨 파는 600길더 이상의 어음은 모두 은행 화폐로 치르도록 법으로 정하였으니, 이로써 그 어음의 가치에 있던 불확실함이 단번에 없어졌다. 이 규정

때문에 모든 상인은 외국 환어음을 치르려고 은행에 계정을 두어야 했고, 그것이 은행 화폐를 찾는 일정한 수요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 화폐는 통화보다 내재로 나은 것과 이 수요가 거기에 안겨 줄 수밖에 없는 덧붙는 가치 말고도 다른 이로움이 몇 가지 더 있다. 불과 도둑과 그 밖의 사고에서 안전하고, 암스테르담 시가 그것을 보증하며, 세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위험을 지지 않아도 되어 옮겨 적는 것만으로 치를 수 있다. 이런 여러 이로움 때문에 처음부터 아지오가 붙은 듯하며, 본디 은행에 예치된 화폐는 다 거기 남도록 허락되었다고들 믿는데, 시장에서 웃돈을 붙여 팔 수 있는 채권을 굳이 찾아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면 은행 신용의 임자는 이 웃돈을 잃는다. 조폐국에서 갓 나온 1실링이 시장에서 흔히 닳은 우리 1실링보다 더 많은 재화를 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 금고에서 개인의 금고로 옮겨진 좋고 참된 화폐도 그 나라의 보통 통화와 섞이고 뒤엉켜 더 이상 쉽게 가려낼 수 없게 되므로 그 통화보다 더 값나가지 않을 것이다. 은행 금고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나은 줄 알려져 있고 확인되어 있다. 개인의 금고로 들어가면 그것이 낫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드는 수고가 어쩌면 그 차이보다 클 것이다. 게다가 은행 금고에서 나오면 안전함과 쉽고 안전한 옮김과 외국 환어음을 치르는 데에 쓰이는 것 같은 은행 화폐의 다른 이로움을 다 잃는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곧 드러나겠지만 그것을 지켜 준 값을 미리 치르지 않고는 그 금고에서 꺼낼 수 없었다.

주화의 그런 예치, 곧 은행이 주화로 되돌려 줄 의무를 진 그 예치가 은행의 본디 자본, 곧 이른바 은행 화폐가 나타내는 것의 온 가치를 이루었다. 오늘날은 그것이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몫만 이룬다고 여겨진다. 금은괴 거래를 쉽게 하려고 은행은 여러 해 전부터 금괴와 은괴의 예치에 제 장부로 신용을 적어 주는 관행을 지켜 왔다. 이 신용은

대개 그런 금은괴의 조폐국 값보다 5퍼센트쯤 낮다. 그와 함께 은행은 이른바 리치피체 곧 예치증을[8] 내주는데, 이것은 예치한 사람이나 그것을 지닌 사람이 여섯 달 안에 언제든 그 금은괴를 다시 꺼낼 수 있는 권리를 주며, 예치할 때 장부에 적어 준 것과 같은 액의 은행 화폐를 은행에 옮겨 주고 예치가 은이면 지켜 준 값으로 4분의 1퍼센트, 금이면 2분의 1퍼센트를 치르는 것이 그 조건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기한이 지나면 그 예치물은 받을 때의 값 곧 대체 장부에 신용으로 적어 준 값으로 은행의 것이 된다고 밝혀 둔다. 이렇게 예치물을 지켜 준 값으로 치르는 것은 일종의 보관료로 볼 수 있는데,[9] 이 보관료가 왜 은보다 금에 그토록 더 비싸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다른 까닭이 붙었다. 금의 순도는 은의 순도보다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가장 값비싼 금속에서는 속임수를 쓰기가 더 쉽고 손실도 더 크다. 게다가 은이 법정 기준이 되는 금속이므로 나라가 금보다 은을 예치하는 것을 더 북돋우려 한다고도 한다.

금은괴의 예치는 값이 보통보다 얼마쯤 낮을 때 하는 일이 가장 흔하고, 값이 오를 때 다시 꺼낸다. 네덜란드에서는 금은괴의 시장 가격이 대개 조폐국 값보다 높은데, 근래 금화를 개주하기 전에 잉글랜드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은 까닭이다. 그 차이는 순은 열한 몫에 잡금 한 몫이 든 은 8온스, 곧 1마르크에[10] 대개 6스타이버에서 16스타이버쯤이라고 한다. 그런 은을 예치할 때 은행이 주는 은행 값 곧 신용은(순도가 잘 알려져 확인된 멕시코 달러 같은 외국 주화로 예치할 때다) 1마르크에 22길더이고, 조폐국 값은 23길더쯤이며, 시장 가격은 23길더 6스타이버에서 23길더 16스타이버, 곧 조폐국 값보다 2퍼센트에서 3퍼센트 높다.

암스테르담 은행이 지금(1775년 9월) 여러 가지 금은괴와 주화를 받는 값은 다음과 같다.

은

멕시코 달러 1마르크에 22길더

프랑스 크라운 22

잉글랜드 은화 22

멕시코 달러, 새 주화 21 10

두카툰 3 0

릭스달러 2 8

막대 은은 순은 12분의 11을 담은 것이 1마르크에 21길더이고, 이 비율에 따라 순도 4분의 1까지 내려가며 그것에는 5길더를 준다. 순은 막대 ..... 1마르크에 28길더.

금

포르투갈 주화 1마르크에 310길더

기니 금화 310

새 루이도르 310

같은 것, 옛 주화 300

새 두카트 ..... 두카트 하나에 4 19 8

막대나 덩이로 된 금은 위의 외국 금화와 견준 순도에 비례하여 받는다. 순금 막대에 은행은 1마르크에 340을 준다. 그렇더라도 대체로 순도가 알려진 주화에는, 녹여서 시금하지 않고는 순도를 확인할 수 없는 금괴나 은괴보다 얼마쯤 더 준다.

금괴의 은행 값과 조폐국 값과 시장 가격 사이의 비율은 거의 같다. 사람은 대개 금은괴의 조폐국 값과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만큼 받고 제 예치증을 팔 수 있다. 금은괴 예치증은 거의 언제나 얼마쯤 값이 나가므로, 여섯 달이 끝나기 전에 꺼내지 않거나 다시 여섯 달의 새 예치증을 얻으려고 4분의 1퍼센트나 2분의 1퍼센트를 치르기를

게을리하여 누군가 제 예치증이 기한을 넘기게 두거나 제 금은괴를 받을 때의 값으로 은행에 떨어지게 두는 일은 아주 드물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드물게나마 더러 있다고 하며, 은보다 금에서 더 자주 있다고 하는데, 더 값비싼 금속을 지켜 주는 데에 더 높은 보관료를 치르기 때문이다.

금은괴를 예치하여 은행 신용과 예치증을 함께 얻은 사람은 기한이 되는 대로 제 은행 신용으로 환어음을 치르고, 금은괴 값이 오를 듯한가 내릴 듯한가를 헤아려 제 예치증을 팔거나 쥐고 있는다. 예치증과 은행 신용이 오래 함께 붙어 있는 일은 드물고 그럴 까닭도 없다. 예치증을 가지고 금은괴를 꺼내려는 사람은 보통 값으로 살 은행 신용 곧 은행 화폐를 늘 넉넉히 찾아내고, 은행 화폐를 가지고 금은괴를 꺼내려는 사람도 예치증을 늘 그만큼 넉넉히 찾아낸다.

은행 신용의 임자와 예치증을 지닌 사람은 은행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채권자를 이룬다. 예치증을 지닌 사람은 그 금은괴를 받을 때의 값과 같은 액의 은행 화폐를 은행에 되넘겨 주지 않고는 그것을 꺼낼 수 없다. 제 은행 화폐가 없으면 가진 사람에게서 사야 한다. 은행 화폐의 임자는 제가 바라는 양에 해당하는 예치증을 은행에 내놓지 않고는 금은괴를 꺼낼 수 없다. 제 것이 없으면 가진 사람에게서 사야 한다. 예치증을 지닌 사람이 은행 화폐를 살 때는 조폐국 값이 은행 값보다 5퍼센트 높은 금은괴를 꺼낼 힘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사려고 흔히 치르는 5퍼센트의 아지오는 헛된 가치가 아니라 실제 가치에 치르는 것이다. 은행 화폐의 임자가 예치증을 살 때는 시장 가격이 조폐국 값보다 흔히 2퍼센트에서 3퍼센트 높은 금은괴를 꺼낼 힘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사려고 치르는 값도 마찬가지로 실제 가치에 치른다. 예치증의 값과 은행 화폐의 값이 둘이 합쳐 그 금은괴의 온 가치 곧 온 값을 이룬다.

나라에 도는 주화의 예치에도 은행은 은행 신용과 함께 예치증을 내주나, 그 예치증은 값이 없어 시장에서 아무 값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통화에서 하나에 3길더 3스타이버로 통하는 두카툰에 은행은 3길더의 신용만, 곧 그 통용 가치보다 5퍼센트 낮게 적어 준다. 은행은 예치증도 함께 내주어, 그것을 지닌 사람이 지켜 준 값으로 4분의 1퍼센트를 치르고 여섯 달 안에 언제든 예치한 두카툰의 수만큼 꺼낼 수 있게 한다. 이 예치증은 시장에서 아무 값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은행 화폐 3길더는 시장에서 대개 3길더 3스타이버, 곧 두카툰을 은행에서 꺼냈을 때의 온 가치로 팔리는데, 꺼내려면 그 전에 지켜 준 값으로 4분의 1퍼센트를 치러야 하니 그것은 예치증을 지닌 사람에게 고스란히 손실이다. 그렇더라도 은행의 아지오가 어느 때든 3퍼센트로 떨어진다면 그런 예치증도 시장에서 얼마쯤 값을 받아 1과 4분의 3퍼센트로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아지오가 이제는 대개 5퍼센트쯤이므로 그런 예치증은 기한을 넘기도록, 그들의 말로는 은행에 떨어지도록 두는 일이 흔하다. 금 두카트의 예치에 주는 예치증은 그보다도 더 자주 그렇게 되는데, 다시 꺼내려면 그 전에 더 높은 보관료 곧 2분의 1퍼센트를 지켜 준 값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화든 금은괴든 예치물이 은행에 떨어지도록 허락될 때 은행이 얻는 5퍼센트는 그런 예치물을 영구히 지켜 주는 보관료로 볼 수 있다.

예치증이 기한을 넘긴 은행 화폐의 액수는 아주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은행의 본디 자본 전부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자본은 처음 예치된 때부터 거기 남도록 허락되었다고 대개 여겨지니, 이미 든 까닭으로 예치증을 새로 받는 것도 예치물을 꺼내는 것도 손실 없이는 할 수 없어 누구도 굳이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액수가 얼마이든 그것이 은행 화폐의 온 덩이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은 아주 작다고 여겨진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여러 해 전부터 유럽의 큰 금은괴

창고였고, 그 예치증은 기한을 넘기도록, 그들의 말로는 은행에 떨어지도록 허락되는 일이 아주 드물다. 은행 화폐 곧 은행 장부에 적힌 신용의 훨씬 큰 몫은 여러 해 전부터 금은괴를 다루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치하고 되찾는 그런 예치로 생겨났다고 여겨진다.

리치피체 곧 예치증이 아니고는 은행에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다. 예치증이 기한을 넘긴 더 작은 은행 화폐 덩이는 예치증이 아직 살아 있는 훨씬 큰 덩이와 섞이고 뒤엉켜 있으니, 예치증이 없는 은행 화폐의 액수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어느 때든 예치증으로 요구할 수 없는 특정한 액이나 몫은 없다. 은행이 같은 것을 두고 두 사람에게 채무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예치증이 없는 은행 화폐의 임자는 예치증을 살 때까지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보통의 조용한 때라면 시장 가격으로 살 예치증을 찾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며, 그 값은 대개 그 예치증으로 은행에서 꺼낼 수 있는 주화나 금은괴를 팔 수 있는 값과 맞아떨어진다.

나라의 재앙이 닥친 때, 이를테면 1672년 프랑스인들의 침입 같은 때에는[11]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은행 화폐의 임자들이 모두 그것을 은행에서 꺼내어 제 손에 두려고 애가 타므로, 예치증을 찾는 수요가 그 값을 터무니없이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다. 예치증을 지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품고, 2퍼센트나 3퍼센트가 아니라 저마다의 예치증이 나온 그 예치물에 적어 준 은행 화폐의 절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적은 보물이 실려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사들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 급한 때에 은행은 예치증을 지닌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보통의 규칙을 깨뜨리리라고 여겨진다. 은행 화폐가 없는 예치증 소지자들은 저마다의 예치증이 나온 그 예치물의 가치에서 2퍼센트나 3퍼센트 안쪽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은행은 예치증을 얻을 수 없는 은행 화폐의 임자들에게 장부에 적힌

액의 온 가치를 화폐로든 금은괴로든 거리낌 없이 치러 주고, 그와 함께 은행 화폐가 없는 예치증 소지자들에게는 2퍼센트나 3퍼센트를 치러 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처지에서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온 가치가 그만큼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조용한 때에도 예치증을 지닌 사람들은 아지오를 누르는 것이 제 이익이니, 그래야 은행 화폐를(그리고 따라서 그 예치증으로 그때 은행에서 꺼낼 수 있는 금은괴를) 그만큼 싸게 사거나, 은행 화폐를 가지고 금은괴를 꺼내려는 사람들에게 제 예치증을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예치증의 값은 대개 은행 화폐의 시장 가격과 그 예치증이 나온 주화나 금은괴의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와 같다. 반대로 은행 화폐의 임자들은 아지오를 올리는 것이 제 이익이니, 그래야 제 은행 화폐를 그만큼 비싸게 팔거나 예치증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서는 이익이 더러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을 되넘겨 값을 놀리는 농간을 막으려고, 은행은 근래에 언제나 5퍼센트의 아지오로 통화를 받고 은행 화폐를 팔며 4퍼센트의 아지오로 그것을 되사기로 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아지오는 5퍼센트 위로 오를 수도 4퍼센트 아래로 내릴 수도 결코 없게 되었고, 은행 화폐의 시장 가격과 통용 화폐의 시장 가격 사이의 비율은 언제나 그 내재 가치 사이의 비율에 아주 가깝게 지켜진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맞서는 이익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로 은행 화폐의 시장 가격이 더러 9퍼센트의 아지오까지 오르기도 하고 더러 평가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제게 예치된 것의 어느 몫도 빌려주지 않고, 제 장부에 신용으로 적어 준 1길더마다 화폐로든 금은괴로든 1길더의 가치를 제 창고에 지킨다고 내세운다. 살아 있는 예치증이 나와 있어 어느 때든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끊임없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화폐와 금은괴를 은행이 모두 제 창고에 지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예치증이 오래전에 기한을 넘겨 보통의 조용한 때에는 요구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언제까지나, 또는 네덜란드 연방이 버티는 동안은 은행에 남아 있을 법한 그 자본의 몫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가는 어쩌면 더 불확실해 보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은행 화폐로 도는 1길더마다 그에 맞먹는 1길더가 금이나 은으로 은행의 보물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더 굳게 선 믿음의 조목이 없다. 시가 그러하도록 보증한다. 은행은 해마다 바뀌는 네 시장(市長)의[12] 지휘 아래 있다. 새로 앉은 시장들은 저마다 그 보물을 찾아가 장부와 맞추어 보고 맹세로 넘겨받으며, 뒤를 잇는 이들에게 같은 엄숙한 절차로 넘겨준다. 그리고 그 진중하고 신심 깊은 나라에서는 맹세가 아직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돌림만으로도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관행을 넉넉히 막는 것으로 보인다. 당파가 암스테르담 정부에 일으킨 온갖 변란 가운데에서도 이긴 쪽이 은행을 다스린 일로 앞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고발도 밀려난 쪽의 명성과 재산에 이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없었을 것이니, 그런 고발을 떠받칠 수 있었다면 반드시 나왔으리라고 우리는 믿어도 된다. 1672년 프랑스 국왕이 위트레흐트에 있을 때 암스테르담 은행은 워낙 선선히 치러 주어, 제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 왔는지에 아무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그 창고에서 나온 몇몇 조각은 은행이 세워진 뒤 얼마 되지 않아 시청에서 난 불에 그슬린 듯이 보였다. 그러므로 그 조각들은 그때부터 거기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은행에 든 보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오랫동안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의 헤아림을 붙잡아 온 물음이다. 그것을 두고는 억측밖에 내놓을 수 없다. 은행에 계정을 둔 사람이 2000명쯤이라고 대개 셈하는데, 저마다의 계정에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러 1500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놓여 있다고 넉넉히 잡으면(아주 넉넉히 잡은 것이다) 은행 화폐의 온 양,

따라서 은행에 든 보물은 300만 파운드 스털링쯤, 곧 1파운드 스털링에 11길더로 셈하여 3300만 길더가 될 것이다. 큰 액수이고 아주 넓은 돌림을 이끌기에 넉넉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 보물을 두고 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암스테르담 시는 은행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다. 위에서 말한 보관료라 부를 만한 것 말고도, 은행에 처음 계정을 여는 사람은 누구나 10길더의 수수료를 치르고, 계정을 새로 열 때마다 3길더 3스타이버를, 옮겨 적을 때마다 2스타이버를 치르며, 옮겨 적는 액이 300길더보다 적으면 작은 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억누르려고 6스타이버를 치른다. 한 해에 두 번 제 계정을 맞추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25길더를 물린다. 제 계정에 있는 것보다 많은 액을 옮겨 적으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넘겨 뗀 액의 3퍼센트를 치를 의무를 지고, 그 지시는 덤으로 물리쳐진다. 은행은 예치증이 기한을 넘겨 더러 제게 떨어지는 외국 주화나 금은괴를 파는 데에서도 적지 않은 이윤을 낸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늘 이롭게 팔 수 있을 때까지 지켜 둔다. 5퍼센트의 아지오로 은행 화폐를 팔고 4퍼센트로 되사는 데에서도 이윤을 낸다. 이런 여러 가지 벌이는 관리들의 봉급을 치르고 관리 비용을 메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 예치증으로 금은괴를 지켜 주는 값으로 치르는 것만으로도 한 해 15만 길더에서 20만 길더 사이의 순수입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더라도 이 기관을 세운 본디 목적은 공공의 편익이었고 수입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상인들을 불리한 환의 불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생겨난 수입은 미리 헤아린 것이 아니었고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긴 여담에서 돌아올 때다. 이른바 은행 화폐로 치르는 나라들과 보통 통화로 치르는 나라들 사이의 환이 왜 대개 앞쪽에 유리하고 뒤쪽에 어긋나게 보이는지를 밝히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끌려 들어왔다. 앞쪽은 내재 가치가 언제나 같고 저마다의

조폐국 법정 기준에 정확히 맞는 갈래의 화폐로 치르고, 뒤쪽은 내재 가치가 끊임없이 달라지며 거의 언제나 그 기준보다 얼마쯤 낮은 갈래의 화폐로 치른다.

2절 — 다른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그 특별한 제한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

이 장의 앞부분에서 나는 상업 체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에서 들여오는 재화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보이려고 애썼다.

그렇더라도 이 제한만이 아니라 교역에 관한 다른 거의 모든 규제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무역 차액의 이 교설 전체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은 없다. 두 곳이 서로 무역할 때 차액이 고르면 어느 쪽도 잃지도 얻지도 않으나, 차액이 어느 정도든 한쪽으로 기울면 정확한 균형에서 벗어난 그만큼 한쪽은 잃고 다른 쪽은 얻는다고 이 교설은 본다. 두 가정이 다 틀렸다. 장려금과 독점으로 억지로 이끄는 무역은 그것을 세워 주려던 나라에 불리할 수 있고 흔히 불리한데, 이는 뒤에서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억지나 얽매임 없이 어느 두 곳 사이에서 자연스럽고 규칙 바르게 이루어지는 무역은 늘 두 곳에 다 이로우며, 다만 언제나 똑같이 이로운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로움이나 이득은 금과 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교환 가치가 늘어나는 것, 곧 그 주민들의 연간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차액이 고르고 두 곳 사이의 무역이 온통 저마다의 제 나라 상품을 맞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대개의 자리에서 둘이 다 얻을 뿐 아니라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얻을 것이다. 이때 저마다 상대의 남는 생산물 가운데 얼마에 시장을 마련해 줄 것이고, 저마다 상대의 그 남는

생산물을 길러 내고 시장에 낼 수 있게 손질하는 데에 쓰였던, 그리고 일정한 수의 주민들에게 나누어져 그들에게 수입과 부양을 주었던 자본을 메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주민 가운데 얼마는 상대에게서 곧바로 제 수입과 부양을 얻는다. 또 맞바꾸는 상품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그 무역에 쓰이는 두 자본도 대개의 자리에서 같거나 거의 같을 것이고, 둘이 다 두 나라의 제 나라 상품을 길러 내는 데에 쓰이므로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저마다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입과 부양도 같거나 거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마련해 주는 이 수입과 부양은 그들이 거래하는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를테면 그 거래가 저마다 해마다 10만 파운드나 100만 파운드에 이른다면, 저마다 상대의 주민들에게 앞의 경우에는 10만 파운드, 뒤의 경우에는 100만 파운드의 연간 수입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들의 무역이 한쪽은 제 나라 상품만 상대에게 내보내고 그 상대가 보내오는 회수는 온통 외국 재화로 이루어지는 성질이라면, 이때도 상품을 상품으로 치른 것이니 차액은 여전히 고르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때도 둘이 다 얻겠으나 똑같이 얻지는 못하며, 제 나라 상품만 내보낸 나라의 주민들이 그 무역에서 가장 큰 수입을 얻는다. 이를테면 잉글랜드가 프랑스에서 그 나라의 제 나라 상품만 들여오고, 거기서 찾는 그런 상품을 제 나라에 가지고 있지 않아 해마다 담배와 이를테면 동인도 재화 같은 외국 재화를 많이 보내어 그 값을 갚는다면, 이 무역은 두 나라 주민에게 다 얼마쯤 수입을 주겠으나 잉글랜드 주민보다 프랑스 주민에게 더 많이 줄 것이다. 여기에 해마다 쓰인 프랑스 자본 전체는 해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나, 잉글랜드 자본 가운데에서는 그 외국 재화를 사들인 잉글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쓰인 몫만 해마다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 큰 몫은 버지니아와 힌두스탄과 중국에 쓰였던, 그리고 그 먼 나라 주민들에게

수입과 부양을 주었던 자본을 메우는 데로 간다. 그러므로 자본이 같거나 거의 같다면, 이렇게 쓰인 프랑스 자본이 프랑스 사람들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잉글랜드 자본이 잉글랜드 사람들의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때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곧바로 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을 하는 것이고,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같은 갈래의 멀리 돌아가는 무역을 하는 것이다. 곧바로 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는 자본과 멀리 돌아가는 그것에 쓰이는 자본이 내는 서로 다른 효과는 이미 낱낱이 밝혔다.

어느 두 나라 사이에도 양쪽이 다 제 나라 상품을 내는 것으로만, 또는 한쪽은 제 나라 상품을 내고 다른 쪽은 외국 재화를 내는 것으로만 온통 이루어지는 무역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서로 얼마는 제 나라 재화로 얼마는 외국 재화로 맞바꾼다. 그렇더라도 제 실은 짐에 제 나라 재화의 비율이 가장 크고 외국 재화의 비율이 가장 작은 나라가 늘 주로 얻는 쪽이 될 것이다.

잉글랜드가 프랑스에서 해마다 들여오는 상품의 값을 담배와 동인도 재화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치른다면, 상품을 상품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치른 것이니 이때는 차액이 고르지 않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무역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 주민에게 다 얼마쯤 수입을 주겠으나 잉글랜드 주민보다 프랑스 주민에게 더 많이 줄 것이다. 이것은 잉글랜드 주민에게도 얼마쯤 수입을 준다. 이 금과 은을 사들인 잉글랜드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쓰였던, 그리고 잉글랜드의 일정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져 그들에게 수입을 주었던 자본이 그로써 메워지고 그 쓰임을 이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잉글랜드의 자본 전체가 이 금과 은을 내보내는 것으로 줄어드는 정도는 같은 가치의 다른 어떤 재화를 내보내는 것으로 줄어드는 정도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개의 경우에 늘어날

것이다. 나라 밖에서 찾는 수요가 나라 안에서 찾는 수요보다 크다고 여겨지는 재화, 따라서 그 회수가 내보낸 상품보다 나라 안에서 더 값나갈 것이라고 기대되는 재화가 아니면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 10만 파운드밖에 값나가지 않는 담배를 프랑스로 보내어 잉글랜드에서 11만 파운드 값나가는 포도주를 산다면, 이 맞바꿈은 잉글랜드의 자본을 1만 파운드 늘릴 것이다. 같은 모양으로 잉글랜드 금 10만 파운드가 잉글랜드에서 11만 파운드 값나가는 프랑스 포도주를 산다면, 이 맞바꿈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의 자본을 1만 파운드 늘릴 것이다. 제 지하실에 11만 파운드 값어치의 포도주를 가진 상인이 10만 파운드 값어치의 담배만 제 창고에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한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 10만 파운드 값어치의 금만 제 금고에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두 사람 어느 쪽보다 더 많은 양의 산업을 움직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수입과 부양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자본은 그 여러 주민이 가진 자본을 모두 합친 것과 같고, 그 나라에서 해마다 부양할 수 있는 산업의 양은 그 여러 자본이 부양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자본도, 그 나라에서 해마다 부양할 수 있는 산업의 양도 이 맞바꿈으로 대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이지 잉글랜드로서는 프랑스 포도주를 버지니아의 담배로도 브라질과 페루의 금은으로도 아니라 제 나라의 철물과 두꺼운 나사로 살 수 있다면 더 이로울 것이다. 곧바로 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이 늘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더 이롭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이 똑같이 멀리 돌아가는 다른 어떤 무역보다 덜 이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 광산이 없는 나라가 그 금속을 해마다 내보내는 것으로 금과 은이 바닥날 법하기로는, 담배를 기르지 않는 나라가 그 풀을 해마다 내보내는 것으로 담배가 바닥날 법한 것보다 더하지 않다. 담배를 살

밑천이 있는 나라가 담배가 없어 오래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속을 살 밑천이 있는 나라도 금과 은이 없어 오래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일꾼이 술집과 벌이는 거래는 밑지는 거래라고 하며, 제조하는 나라가 포도주 나는 나라와 자연스럽게 벌일 거래도 같은 성질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술집과 벌이는 거래가 반드시 밑지는 거래는 아니다. 그 본디 성질로는 다른 어떤 거래와 똑같이 이로우며, 다만 어쩌면 그릇되게 쓰이기가 얼마쯤 더 쉬울 뿐이다. 술 빚는 사람의 생업도, 발효한 술을 소매로 파는 사람의 생업조차도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할 노동의 갈래다. 일꾼으로서는 필요한 양을 제가 빚는 것보다 술 빚는 사람에게서 사는 것이 대개 더 이롭고, 가난한 일꾼이라면 술 빚는 사람에게서 많은 양을 사는 것보다 소매 상인에게서 조금씩 사는 것이 대개 더 이롭다. 그가 어느 쪽에서든 너무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니, 제 이웃의 다른 어떤 장사꾼에게서도, 먹보라면 푸줏간에서도, 벗들 사이에서 멋쟁이인 척하려 한다면 옷감 장수에게서도 그럴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렇더라도 이 모든 생업이 자유로운 것이 일꾼 전체에게 이로우며, 이 자유가 그 모든 생업에서 그릇되게 쓰일 수 있고 어쩌면 어떤 것에서 다른 것보다 더 그러기 쉽다 해도 그러하다. 게다가 개인이 더러 발효한 술을 지나치게 마셔 제 재산을 망칠 수는 있으나, 나라가 그러할 위험은 없어 보인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술에 제 힘에 넘치게 쓰는 사람이 많으나, 덜 쓰는 사람은 언제나 훨씬 더 많다. 또 눈여겨볼 값이 있는 것은, 경험에 물어보면 포도주가 싼 것이 술 취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술 조심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포도주 나는 나라의 주민들은 대체로 유럽에서 가장 술을 조심하는 사람들이니, 스페인인과 이탈리아인과 프랑스 남부 여러 주의 주민들이 그 증거다. 사람들은 제 나날의 끼니가 되는 것에서

지나침을 저지르는 일이 드물다. 묽은 맥주만큼[13] 싼 술을 헤프게 쓴다고 해서 너그럽고 사귐성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이는 없다. 이와 달리 지나친 더위나 추위로 포도가 나지 않아 포도주가 비싸고 드문 나라에서는 술 취함이 흔한 악덕이니, 북쪽 나라들과 남북 회귀선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를테면 기니 해안의 흑인들이 그렇다. 프랑스 연대가 포도주가 얼마쯤 비싼 프랑스 북부 여러 주에서 아주 싼 남부로 옮겨 주둔하면, 병사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싸고 낯설어 흐트러지나 몇 달 지내고 나면 그 큰 몫이 다른 주민들만큼 술을 조심하게 된다는 말을 나는 자주 들었다. 외국 포도주에 물리는 관세와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물리는 소비세를 단번에 없앤다면, 같은 모양으로 영국에서도 중간 계층과 아래 계층 사람들 사이에 꽤 널리 한동안 술 취함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 뒤로는 아마 오래가는, 거의 두루 미치는 술 조심이 곧 따라올 것이다. 오늘날 술 취함은 멋을 아는 사람들이나 가장 값비싼 술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악덕이 결코 아니다. 에일에 취한 신사를 우리 사이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 게다가 영국에서 포도주 거래에 가한 제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술집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헤아린 것이라기보다 가장 좋고 가장 싼 술을 살 수 있는 데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 그 제한은 포르투갈의 포도주 거래를 도와주고 프랑스의 것을 억누른다. 정말이지 포르투갈인이 프랑스인보다 우리 제조품을 더 잘 사 가는 손님이니 그들을 프랑스인보다 먼저 북돋워야 한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단골이 되어 주니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좀스러운 장사꾼이 몰래 쓰는 술수가 큰 제국을 이끄는 정치의 격언으로 떠받들려 있으니, 제 단골에게서 주로 사기를 규칙으로 삼는 것은 가장 좀스러운 장사꾼뿐이기 때문이다. 큰 장사꾼은 이런 자잘한 이익에 마음 쓰지 않고 늘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데에서 제 재화를 산다.

그렇더라도 이런 격언으로 나라들은 제 이익이 이웃을 모두 거지로 만드는 데에 있다고 배워 왔다. 나라마다 제가 무역하는 모든 나라의 번영을 샘 많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득을 제 손실로 여기게 되었다. 나라들 사이에서도 개인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고 벗이 되게 하는 끈이어야 할 교역이 불화와 미움을 가장 걸차게 낳는 샘이 되었다. 국왕과 대신들의 변덕스러운 야심도 이 세기와 앞 세기 동안 상인과 제조업자의 주제넘은 시샘보다 유럽의 안식에 더 해롭지는 않았다. 인류를 다스리는 이들의 난폭함과 부정함은 오래된 해악이고 사람 일의 성질로는 거기에 고칠 길을 좀처럼 내줄 수 없을까 두려우나, 인류를 다스리는 이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될 상인과 제조업자의 천박한 탐욕과 독점하려는 심사는 어쩌면 고칠 수 없다 해도 그들 자신 말고 누구의 평온도 흔들지 못하게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다.

본디 이 교설을 지어내고 퍼뜨린 것이 독점의 심사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처음 가르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 전체의 이익은 제가 바라는 것을 가장 싸게 파는 이에게서 사는 데에 늘 있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명제는 워낙 뚜렷하여 굳이 애써 증명하려는 것이 우스워 보이며, 상인과 제조업자의 제 잇속을 챈 궤변이 인류의 상식을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의심받은 적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의 이익은 사람들 전체의 이익과 곧바로 맞선다. 동업조합의 자유민이[14] 나머지 주민들이 저희 말고 다른 일꾼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저희 이익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상인과 제조업자가 국내 시장의 독점을 저희 것으로 굳히는 것이 저희 이익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또 다른 대부분 유럽 나라에서 외국 상인이 들여오는 거의 모든 재화에 특별한 관세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 것과 겨룰 수 있는 모든 외국

제조품에 높은 관세와 금지가 붙는다. 그래서 또 무역 차액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 곧 나라의 미움이 가장 거세게 타오른 나라들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에 특별한 제한이 붙는다.

그렇더라도 이웃 나라들의 부는 전쟁과 정치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서는 확실히 이롭다. 서로 맞선 처지에서는 그 부가 우리 것보다 나은 함대와 군대를 적이 지탱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평화와 교역의 처지에서는 그 부가 또한 그들이 우리와 더 큰 가치를 맞바꾸게 하고, 우리 산업이 곧바로 낸 생산물에든 그 생산물로 사들인 무엇에든 더 좋은 시장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넉넉한 사람이 제 이웃의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손님이 될 법한 것과 마찬가지로 넉넉한 나라도 그러하다. 정말이지 제 스스로 제조업자인 넉넉한 사람은 같은 길로 벌이하는 모든 이에게 아주 위험한 이웃이다. 그렇더라도 그 이웃의 나머지 사람들, 곧 훨씬 더 많은 수는 그가 쓰는 돈이 마련해 주는 좋은 시장으로 이익을 본다. 그들은 그가 같은 길로 벌이하는 더 가난한 일꾼들보다 싸게 파는 것에서까지 이익을 본다. 같은 모양으로 넉넉한 나라의 제조업자도 물론 이웃 나라의 제조업자에게 아주 위험한 맞수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바로 이 겨룸이 사람들 전체에게 이로우며, 그들은 그 밖에도 그런 나라가 크게 쓰는 돈이 다른 모든 길로 마련해 주는 좋은 시장으로 크게 이익을 본다. 재산을 모으려는 개인은 그 나라의 멀고 가난한 지방으로 물러갈 생각은 결코 하지 않고, 수도나 큰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로 몰려간다. 부가 조금 도는 데에서는 얻을 것이 적으나 많이 움직이는 데에서는 그 가운데 얼마가 제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이렇게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의 상식을 이끌 이 같은 격언이 백만 명이나 천만 명이나 이천만 명의 판단도 다스려야 하며, 한 나라 전체가 이웃의 넉넉함을 제가 넉넉해질 수 있는 원인이자 기회로 여기게 해야 한다. 외국 무역으로

넉넉해지려는 나라는 그 이웃이 다 넉넉하고 근면하며 교역하는 나라일 때 확실히 그러할 법이 가장 크다. 온 사방이 떠도는 미개인과 가난한 야만인으로 둘러싸인 큰 나라도 제 땅을 경작하고 제 안에서 교역하여 넉넉함을 얻을 수는 물론 있겠으나, 외국 무역으로는 그럴 수 없다. 옛 이집트인과 오늘날 중국인이 큰 부를 얻은 것이 이런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옛 이집트인은 외국 교역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며, 오늘날 중국인은 그것을 몹시 업신여겨 법으로 알맞게 지켜 주려고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오늘날 외국 교역의 격언들은 우리 이웃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려 하니, 그것이 노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만큼 바로 그 교역을 하찮고 업신여길 만한 것으로 만드는 쪽으로 기운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교역이 두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억누름과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이런 격언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 두 나라가 장사꾼의 시샘도 나라의 미움도 없이 제 참된 이익을 헤아린다면, 프랑스의 교역이 다른 어느 나라의 교역보다 영국에 더 이로울 수 있고, 같은 까닭으로 영국의 교역이 프랑스에 더 이로울 수 있다. 프랑스는 영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잉글랜드 남쪽 해안과 프랑스 북쪽과 북서쪽 해안 사이의 거래에서는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한 해에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의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거래에 쓰이는 자본은 두 나라 저마다에서, 같은 자본이 외국 무역의 다른 대부분 갈래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네 배나 다섯 배나 여섯 배의 산업을 움직이고 네 배나 다섯 배나 여섯 배의 사람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서로 가장 먼 지역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의 회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거래마저 적어도 우리 유럽 외국 무역의 다른 대부분 갈래만큼은 이로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와의 거래보다

적어도 세 배 더 이로울 것인데, 그 거래에서는 회수가 세 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드물고 네 해나 다섯 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흔하였다. 게다가 프랑스는 주민이 2400만 명이라고 여겨진다.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주민이 300만 명을 넘는다고 여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프랑스는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넉넉한 나라이나, 부가 더 고르지 않게 나누어져 있어 한쪽 나라에 다른 쪽보다 가난과 구걸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마련해 준 적이 있는 시장보다 적어도 여덟 배 넓고, 회수가 더 자주 이루어지므로 스물네 배 더 이로운 시장을 마련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영국의 거래도 프랑스에 그만큼 이로울 것이며, 저마다의 부와 인구와 가까움에 비례하여 프랑스가 제 식민지와 벌이는 거래보다 같은 정도로 나을 것이다. 두 나라의 지혜가 억누르는 것이 옳다고 여긴 거래와 가장 도와준 거래 사이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열리고 자유로운 교역을 그토록 두 나라에 이롭게 만들었을 바로 그 사정이 그 교역에 가장 큰 막힘을 일으켰다. 이웃이므로 그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저마다의 부와 힘이 상대에게 더욱 두렵게 되며, 나라끼리 벗이 되었다면 이로움을 키웠을 것이 나라끼리의 미움을 더 거세게 타오르게 하는 데에만 쓰인다. 둘이 다 넉넉하고 근면한 나라이며, 저마다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상대 쪽의 솜씨와 활기와 겨루는 것을 두려워한다. 장사꾼의 시샘이 돋우어지고, 그것이 나라의 미움의 거센 기운을 타오르게 하며 또 스스로 그것에 타오르니, 두 나라의 장사꾼들은 상대와 얽매이지 않은 교역을 하면 반드시 불리한 무역 차액이 따라온다고 내세우며 그 때문에 저마다 확실히 망한다고 제 잇속에서 나온 거짓의 뜨거운 자신으로 알려 왔다.

이 체계를 내세우는 박사들이 불리한 무역 차액 때문에 망할 날이 가깝다고 자주 예언하지 않은 상업 나라는 유럽에 없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이것을 두고 일으킨 온갖 걱정에도, 또 거의 모든 무역하는 나라가 그 차액을 제게 유리하고 이웃에게 어긋나게 돌리려고 벌인 온갖 헛된 애씀에도,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 원인으로 어떤 점에서든 가난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도시와 나라가 제 항구를 모든 나라에 열어 준 그만큼, 상업 체계의 원리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대로 이 자유로운 무역에 망하기는커녕 그것으로 넉넉해졌다. 정말이지 유럽에는 어떤 점에서 자유 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몇 있으나, 그런 나라는 없다. 어쩌면 네덜란드가 어느 나라보다 이 성격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나 그래도 거기서 아주 멀며, 네덜란드가 제 부 전체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생계의 큰 몫까지 외국 무역에서 얻는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정말이지 이미 밝힌 또 하나의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무역 차액과 아주 다르며 유리하게 나오는가 불리하게 나오는가에 따라 나라마다의 번영이나 쇠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연간 생산과 소비의 차액이다. 이미 말한 대로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가 연간 소비의 교환 가치를 넘으면, 그 사회의 자본은 이 넘치는 만큼에 비례하여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그 사회는 제 수입 안에서 살며, 제 수입에서 해마다 아낀 것은 자연스럽게 제 자본에 보태어져 연간 생산물을 더욱 늘리도록 쓰인다. 이와 달리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가 연간 소비에 못 미치면, 그 사회의 자본은 이 모자란 만큼에 비례하여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그 사회의 비용이 제 수입을 넘어 제 자본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그 산업이 낸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의 이 차액은 이른바 무역 차액과 온통 다르다. 그것은 외국 무역이 없고 온 세상에서 온통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부와 인구와 개량이 차츰 늘거나 차츰 쇠할 수 있는 이 땅덩이 전체에서도 일어난다.

생산과 소비의 차액은 이른바 무역 차액이 대개 어느 나라에 어긋나더라도 그 나라에 늘 유리할 수 있다. 어떤 나라가 어쩌면 반 세기 동안 내보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들여올 수 있고, 그동안 그 나라로 들어온 금과 은이 다 곧바로 나라 밖으로 실려 나갈 수 있으며, 도는 주화가 차츰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지폐가 들어설 수 있고, 거래하는 주요한 나라들에서 지는 빚까지 차츰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나라의 실질 부, 곧 그 땅과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교환 가치는 같은 기간에 훨씬 큰 비율로 늘어나고 있었을 수 있다. 지금의 분란이[15] 시작되기 전 우리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처지와 그들이 영국과 벌인 거래의 처지는(이 문단은 1775년에 썼다) 이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가정이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

1. 옮긴이 — 1692년 수입세는 그해 의회가 프랑스 재화에 따로 매긴 25퍼센트의 관세다. 여기서 「보조세」는 국왕에게 내주기로 의회가 승인한 관세를 가리키며, 관세 사정표는 재화마다 관세를 매기는 바탕이 되는 가액을 적어 둔 공식 표다.

2. 옮긴이 — 영국 화폐는 1파운드가 20실링, 1실링이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이 책은 화폐 액수를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3. 옮긴이 — 평가(平價)는 두 나라 화폐에 든 순금속의 무게가 꼭 맞아떨어져 웃돈도 깎음도 없이 맞바꾸어지는 자리를 말한다. 「셈한 환율」은 조폐국이 정한 법정 기준대로 셈한 것이고, 「실제 환율」은 실제로 돌아다니는 주화에 든 금속의 양대로 셈한 것이다.

4. 옮긴이 — 윌리엄 3세 치세에 잉글랜드는 1696년부터 닳고 깎인 은화를 모두 거두어 다시 주조하였다. 윌리엄 라운즈(1652~1724)는 그때 재무부 서기로서 주화의 실제 상태를 조사해 밝힌 사람이다.

5. 옮긴이 — 잉글랜드는 1774년에 무게가 모자라는 금화를 거두어 다시 주조하였다. 스미스가 「근래의 개주」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6. 옮긴이 — 은행 화폐는 예치 은행의 장부에 적힌 신용으로, 법정 품위에 꼭 맞는 화폐를 나타내므로 닳고 깎인 주화가 섞인 시중 통화보다 값이 나갔다. 장부에 옮겨 적는 것만으로 치러졌고 주화로 들고 다니지 않았다.

7. 옮긴이 — 아지오는 은행 화폐가 같은 명목 액수의 시중 통화보다 더 값나가는 그 웃돈을 가리킨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대개 5퍼센트쯤이었다.

8. 옮긴이 — 리치피체는 예치를 적어 준 증서로, 이것을 지닌 사람만 맡긴 금은괴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은행 신용과 따로 사고팔렸으므로 두 가지가 각기 다른 값으로 시장에 나돌았다.

9. 옮긴이 — 원문의 rent 는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뜻한다. 그러나 이 대목은 은행이 금은괴를 맡아 지켜 주는 값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므로 보관료로 갈라 적었다.

10. 옮긴이 — 마르크는 귀금속을 되는 무게 단위로 8온스, 곧 약 246그램이다. 길더는 네덜란드 화폐 단위이고 1길더는 20스타이버였다.

11. 옮긴이 — 1672년 루이 14세가 네덜란드를 침공하여 위트레흐트까지 들어왔다. 네덜란드인은 이 해를 재난의 해라 부른다.

12. 옮긴이 — 원문의 버고마스터는 네덜란드 도시의 최고 행정관으로, 암스테르담에서는 네 사람이 함께 자리를 맡고 해마다 바뀌었다.

13. 옮긴이 — 묽은 맥주는 맥아를 두 번째로 우려내어 빚은 도수가 아주 낮은 맥주로, 18세기 잉글랜드에서 물 대신 마시던 가장 값싼 음료였다.

14. 옮긴이 — 동업조합의 자유민은 그 도시의 조합에 들어 그 생업을 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조합에 들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생업에서 일꾼을 쓸 수 없었다.

15. 옮긴이 — 「지금의 분란」은 1775년에 시작된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무장 저항, 곧 뒤에 미국 독립 전쟁이 된 사태를 말한다. 스미스는 이 책을 1776년에 냈다.

4장 — 관세 환급에 대하여

4장 — 관세 환급에 대하여

상인과 제조업자는 국내 시장의 독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제 물건이 나라 밖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팔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외국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거기서 그들에게 무슨 독점을 마련해 주기는 좀처럼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수출을 북돋우는 몇 가지 조치를 청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북돋움 가운데 이른바 관세 환급이 가장 사리에 닿아 보인다. 국내 산업에 매겨진 소비세나 국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이 수출할 때 되돌려 받도록 허락하는 것은, 관세가 아예 매겨지지 않았을 때 나갔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내보내게 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런 북돋움은 나라의 자본 가운데 어느 한 용도로 저절로 갈 몫보다 더 큰 몫을 그 용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그 몫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몰아내는 것을 막을 뿐이다. 그것은 사회의 온갖 용도 사이에 저절로 잡히는 그 균형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그 균형을 뒤엎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지켜 두는 것이 이로운 것, 곧 사회 안에서 노동이 저절로 갈라지고 나뉘어 있는 그 모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지켜 준다.

들여온 외국 물건을 다시 내보낼 때 주는 관세 환급도 같다. 영국에서 이 환급은 대개 수입 관세의 가장 큰 부분에 이른다. 이제 구보조세[1]라

불리는 것을 매긴 의회 법에 붙은 규정 가운데 둘째 규정으로, 영국 상인이든 외국인 상인이든 모두 수출할 때 그 관세의 절반을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었다. 영국 상인은 열두 달 안에 내보내는 경우에, 외국인 상인은 아홉 달 안에 내보내는 경우에 그러했다. 포도주와 건포도와 짠 명주만이 이 규정에 들지 않았는데, 그것들에는 더 이롭게 매겨진 다른 허용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회 법으로 매겨진 관세가 그때에는 외국 물건을 들여올 때 매기는 관세의 전부였다. 이 환급과 그 밖의 모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그 뒤에 조지 1세 치세 7년의 법 제21장 제10절로[2] 3년으로 늘어났다.

구보조세 뒤에 매겨진 관세는 그 대부분이 수출할 때 온전히 되돌려진다. 그러나 이 일반 규정에는 예외가 아주 많아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리는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덜 단순한 일이 되어 버렸다.

어떤 외국 물건은 들여오는 양이 국내 소비에 필요한 것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였으므로, 그것을 내보낼 때에는 구보조세의 절반조차 남기지 않고 관세 전부를 되돌려 준다.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담배를 독점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여온 것은 9만 6천 호그스헤드[3]쯤이었고 국내 소비는 1만 4천을 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남은 것을 털어 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그 큰 수출을 쉽게 하려고, 3년 안에 내보내기만 하면 관세 전부를 되돌려 주었다.

서인도 여러 섬에서 나는 설탕은 아직도, 아주 다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탕을 한 해 안에 내보내면 수입 관세가 모두 되돌려지고, 3년 안에 내보내면 구보조세의 절반을 뺀 관세가 모두 되돌려지는데, 그 절반은 거의 모든 물건을 내보낼 때 여전히 남겨 둔다. 설탕을 들여오는 양이 국내 소비에 필요한 것을

웬만큼 넘어서기는 하지만, 그 넘치는 양은 담배에서 그러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다.

어떤 물건은 우리 제조업자들이 유난히 시새우는 대상이어서 국내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일정한 관세를 물면 들여와 수출용으로 창고에 넣어 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내보낼 때 이 관세는 한 푼도 되돌려지지 않는다. 우리 제조업자들은 이렇게 묶어 둔 수입조차 북돋워지는 것을 꺼리는 듯하고, 그 물건의 일부가 창고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기들 물건과 겨루게 될까 두려워한다. 짠 명주, 프랑스산 캠브릭과 론, 그림 놓거나 무늬 찍거나 물들인 캘리코 따위를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규정 아래에서뿐이다.

우리는 프랑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조차 꺼려서,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우리 손을 빌려 무슨 이윤을 얻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이윤을 스스로 버리는 편을 고른다. 프랑스 물건을 내보낼 때에는 구보조세의 절반뿐 아니라 둘째 25퍼센트 관세까지 남겨 둔다.

구보조세에 붙은 규정 가운데 넷째 규정으로 모든 포도주를 내보낼 때 허락된 관세 환급은, 그때 그 포도주를 들여올 때 물던 관세의 절반보다 훨씬 많았다. 그때 입법부는 포도주 중계 무역에 여느 것보다 조금 더한 북돋움을 주려 했던 듯하다. 구보조세와 같은 때에 또는 그 뒤에 매겨진 다른 관세들, 곧 이른바 추가 관세, 신보조세, 3분의 1 보조세와 3분의 2 보조세, 1692년 부과세, 포도주 톤세도 수출할 때 온전히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추가 관세와 1692년 부과세를 뺀 이 관세들은 모두 들여올 때 현금으로 내야 했으므로, 그만큼 큰 돈에 붙는 이자가 비용이 되어 이 품목에서 남는 중계 무역을 기대하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도주 부과세라 불리는 관세의 일부만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었고, 프랑스 포도주에 매긴 톤당 25파운드[4]와 1745년과 1763년과 1778년에 매긴 관세는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1779년과

1781년에 그 앞의 모든 관세 위에 매긴 5퍼센트 부과세 둘은 다른 모든 물건을 내보낼 때 온전히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었으므로 포도주를 내보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락되었다. 포도주에 따로 매긴 마지막 관세, 곧 1780년의 관세는 온전히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관세가 그토록 많이 남아 있는 판에 이런 너그러움이 포도주 한 톤을 내보내게 하는 일조차 아마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 규정들은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를 뺀 모든 합법 수출지에 적용되었다.

무역을 북돋우기 위한 법이라 불리는 찰스 2세 치세 15년의 법 제7장은, 유럽에서 자라거나 만들어진 모든 상품을, 따라서 포도주도, 식민지에 대어 주는 독점을 영국에 주었다. 우리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식민지처럼 해안이 그토록 길게 뻗은 나라에서, 우리 권위가 언제나 그토록 엉성했고 그곳 주민들이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자기들 배로 처음에는 유럽 어디로나, 그 뒤에는 피니스테레곶 남쪽의 유럽 어디로나 실어 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던 곳에서, 이 독점이 크게 지켜질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들은 물건을 실어 내가도록 허락된 나라에서 언제라도 무슨 짐을 실어 오는 길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유럽 포도주를 그것이 자란 곳에서 들여오는 데에는 얼마간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게다가 영국에서 그것을 들여올 수도 없었는데, 거기서는 포도주에 무거운 관세가 잔뜩 얹혀 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몫이 수출할 때 되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데이라 포도주는 유럽 상품이 아니었으므로 아메리카와 서인도로 곧바로 들여올 수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열거되지 않은 모든 상품에서 마데이라섬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이 아마 마데이라 포도주에 대한 그 널리 퍼진 기호를 들여놓았을 것이다. 1755년에 시작된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장교들은 우리 모든 식민지에 그 기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포도주는 그 앞에 본국에서 그리 유행하지 않았다. 그 전쟁이 끝난 1763년에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15장 제12절로, 프랑스 포도주를 뺀 모든 포도주를 식민지로 내보낼 때 3파운드 10실링을 뺀 관세 전부를 되돌려 받도록 허락되었다. 프랑스 포도주의 거래와 소비에는 나라의 편견이 어떤 북돋움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이 너그러움이 주어진 때부터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의 기간은 그 나라들의 관습에 이렇다 할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았을 것이다.

프랑스 포도주를 뺀 모든 포도주의 관세 환급에서 식민지를 다른 나라보다 그토록 더 두둑이 대접한 바로 그 법이, 다른 상품 대부분의 환급에서는 식민지를 훨씬 못하게 대접했다. 상품 대부분을 다른 나라로 내보낼 때에는 구보조세의 절반이 되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유럽이나 동인도에서 자라거나 만들어진 어떤 상품이든 식민지로 내보낼 때에는 포도주와 흰 캘리코와 모슬린을 빼고 그 관세를 한 푼도 되돌려 주지 말라고 정했다.

관세 환급은 아마 처음에 중계 무역을 북돋우려고 주어졌을 것이다. 배의 운임을 외국인이 돈으로 치르는 일이 흔하므로 중계 무역은 금과 은을 나라로 끌어들이기에 유난히 알맞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계 무역이 유난한 북돋움을 받을 만하지 않고 이 제도를 만든 동기가 어쩌면 넉넉히 어리석었다 해도, 제도 그 자체는 웬만큼 사리에 닿아 보인다. 그런 환급은 수입 관세가 아예 없었을 때 이 무역으로 저절로 갔을 몫보다 더 큰 몫의 나라 자본을 이 무역으로 억지로 밀어 넣지 못한다. 다만 그 관세 때문에 그 몫이 아예 밀려나는 일을 막을 뿐이다. 중계 무역은 우대를 받을 만하지는 않지만 막아서도 안 되고, 다른 모든 무역처럼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농업에서도 제조업에서도, 국내 무역에서도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도 쓰일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밑천이다.

관세로 들어오는 세입은 그런 환급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 두는 관세의 그 몫만큼 이득을 본다. 관세를 모두 남겨 두었더라면 그 관세를 물린 외국 물건은 시장이 없어 좀처럼 내보내지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들여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를 남겨 두는 그 관세는 아예 물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는 관세 환급을 넉넉히 정당화하는 듯하고,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매긴 것이든 외국 물건에 매긴 것이든 관세 전부를 수출할 때 언제나 되돌려 준다 해도 그 정당화는 여전히 넉넉하다. 이렇게 되면 소비세 세입은 조금 줄고 관세 세입은 웬만큼 더 줄겠지만, 그런 관세 때문에 늘 얼마간 흐트러지는 산업의 저절로 잡힌 균형, 곧 노동이 저절로 갈라지고 나뉘어 있는 모양은 그런 규정으로 더 가깝게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아주 남남이고 독립된 나라로 물건을 내보낼 때의 환급만 정당화하고,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가 독점을 누리는 나라로 내보낼 때의 환급은 정당화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유럽 물건을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로 내보낼 때 주는 환급은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출을 언제나 낳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가 거기서 누리는 독점 덕분에, 관세를 모두 남겨 두었더라도 어쩌면 같은 양이 흔히 거기로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환급은 무역의 상태를 바꾸지도 못하고 무역을 어느 모로도 더 넓히지도 못한 채, 흔히 소비세와 관세 세입에 고스란히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환급이 우리 식민지의 산업을 북돋우는 알맞은 수단으로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 식민지가 나머지 모든 같은 백성이 물고 있는 세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본국에 어디까지 이로운지는, 뒤에 식민지를 다룰 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관세 환급이 쓸모가 있는 것은, 환급을 주고 내보내게 한 그 물건이 정말로 어느 외국으로 나가고 우리 나라로 몰래 되들어오지 않는

경우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알아 두어야 한다. 어떤 환급, 특히 담배에 주는 환급이 이렇게 자주 악용되어 세입에도 정직한 거래자에게도 똑같이 해로운 속임수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5장 — 장려금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국내 산업의 어떤 부문이 내는 생산물에 수출 장려금을 달라는 청원이 잦고, 더러 주어지기도 한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가 외국 시장에서 겨루는 자들만큼 싸게, 또는 그들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고들 내세운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양이 나가고 따라서 무역 차액이 우리 나라 쪽으로 더 기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그랬듯이 외국 시장에서 우리 일꾼에게 독점을 줄 수 없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외국인에게 그들의 물건을 사라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그다음으로 좋은 수단은 물건을 사 가는 대가로 돈을 얹어 주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중상주의 체계가 무역 차액으로 나라 전체를 넉넉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겠다고 내놓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장려금은 그것 없이는 해 나갈 수 없는 무역 부문에만 주어야 한다고들 인정한다. 그러나 상인이 물건을 마련해 시장에 내보내는 데 들인 자본 전부를 자산의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아 주는 값에 팔 수 있는 무역 부문이라면 어디든 장려금 없이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문은 장려금 없이 해 나가는 다른 모든 무역 부문과 뚜렷이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보다 더 장려금이 필요할 수 없다. 장려금이 필요한 무역은 오직, 상인이 제 자본을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아 주지 못하는 값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무역, 또는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는 데 실제로 든 것보다 적은 값에 팔아야 하는 무역뿐이다. 장려금은 이 손해를 메워

주어, 들어오는 회수보다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무역, 한 번 돌 때마다 거기 들인 자본의 일부를 먹어 치우는 무역, 다른 모든 무역이 이것을 닮았다면 나라에 이내 자본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한 성질의 무역을 그가 이어 가도록, 어쩌면 시작하도록 북돋우려고 주어진다.

눈여겨볼 것은 장려금으로 해 나가는 무역만이 두 나라 사이에서 웬만큼 오랫동안, 그 가운데 한쪽이 언제나 그리고 늘 손해를 보거나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는 데 실제로 든 것보다 적은 값에 파는 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려금이 상인에게 그 물건 값에서 볼 손해를 메워 주지 않는다면, 그는 제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이내 제 자산을 다른 데 쓰거나, 물건 값이 그것을 시장에 내보내는 데 들인 자본을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아 주는 무역을 찾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려금의 효과는 중상주의 체계의 다른 모든 수단이 그렇듯이, 한 나라의 무역을 그것이 저절로 흘러갈 물길보다 훨씬 덜 이로운 물길로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일 수밖에 없다.

『곡물 거래론』을 쓴 재주 있고 잘 아는 지은이[5]는, 곡물 수출 장려금이 처음 세워진 뒤로 내보낸 곡물의 값을 웬만큼 낮추어 매기고 들여온 곡물의 값을 아주 높이 매겨 보아도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넘어서는 액수가 그 기간에 치른 장려금 전부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아주 뚜렷이 보여 주었다. 그는 이것이 중상주의 체계의 참된 원리로 볼 때 이렇게 억지로 떠받친 곡물 거래가 나라에 이롭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여긴다. 수출의 가치가 수입의 가치를 넘어서는 액수가, 그것을 내보내려고 공공이 치른 별난 비용 전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별난 비용, 곧 장려금이 곡물을 내보내는 데 사회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의 가장 작은 부분임을 생각하지 못한다. 농부가 그 곡물을 길러 내는 데 들인 자본도 셈에 넣어야 한다. 곡물이 외국 시장에서 팔릴 때 그 값이 장려금뿐 아니라 이 자본까지 자산의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아 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쪽이고 나라의 자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장려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바로 그 이유가, 값이 이 일을 하기에 모자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장려금이 세워진 뒤로 곡물의 평균 값이 웬만큼 떨어졌다고들 말해 왔다. 곡물의 평균 값이 지난 세기 끝머리에 다소 떨어지기 시작해 이번 세기의 첫 64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미 밝혀 보려 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믿는 대로 참이라고 해도, 장려금이 있었음에도 일어난 것일 수밖에 없고 장려금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잉글랜드에서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는 장려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1764년까지 곡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곡물의 평균 값이 이렇게 차츰 떨어진 것은 결국 이 규정 때문도 저 규정 때문도 아니고, 이 책 1편에서 내가 밝혀 보려 했듯이 이번 세기에 유럽의 전반적인 시장에서 일어난 은의 실질 가치의 그 차츰차츰 눈에 띄지 않게 오르는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장려금이 곡물 값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있을 수 없어 보인다.

이미 말했듯이 넉넉한 해에는 장려금이 유별난 수출을 일으켜 국내 시장의 곡물 값을 저절로 떨어질 자리보다 반드시 높이 떠받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제도가 내놓고 밝힌 목적이었다. 모자란 해에는 장려금이 자주 멈춰지기는 하지만, 넉넉한 해에 그것이 일으키는 그 큰 수출이 한 해의 넉넉함으로 다른 해의 모자람을 덜어 주는 일을 자주 얼마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넉넉한 해에든 모자란 해에든 장려금은 국내 시장에서 곡물의 화폐 값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간 높이 올리는 쪽으로 반드시 기운다.

갈이의 지금 상태에서 장려금이 반드시 이렇게 기운다는 것은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다투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갈이를 북돋우는 쪽으로 기울며 그 길이 둘이라고 여긴 사람이 많았다. 첫째로 농부의 곡물에 더 넓은 외국 시장을 열어 주므로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따라서 그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기운다고 그들은 여긴다. 둘째로 갈이의 지금 상태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나은 값을 그에게 보장해 주므로 갈이를 북돋우는 쪽으로 기운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 겹친 북돋움이 여러 해에 걸쳐 곡물 생산을 그만큼 늘려 놓아, 그 기간 끝에 갈이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든 그 상태에서 장려금이 값을 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내 시장의 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그들은 여긴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장려금이 외국 시장을 얼마만큼 넓힐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해마다 반드시 고스란히 국내 시장을 희생시켜 이루어진다. 장려금 덕분에 나가는, 그리고 장려금이 없었다면 나가지 않았을 곡물은 한 부셸 한 부셸이 국내 시장에 남아 소비를 늘리고 그 상품의 값을 낮추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곡물 장려금이 다른 모든 수출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두 가지 다른 세금을 물린다는 점이다. 첫째는 장려금을 치르기 위해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둘째는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 값이 올라 생기는 세금인데, 백성 전체가 곡물을 사는 사람이므로 이 상품에서는 이 세금을 백성 전체가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상품에서는 이 둘째 세금이 두 가지 가운데 훨씬 무겁다. 해를 서로 견주어 보아, 밀 1쿼터[6]를 내보낼 때 주는 5실링의 장려금이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값을 그 작물의 지금 상태에서 저절로 되었을 것보다 1부셸에 6펜스, 곧 1쿼터에 4실링만 올린다고 해 보자. 이 아주 너그러운 가정 위에서도 백성 대다수는 내보내는 밀 1쿼터마다 5실링의 장려금을 치르는 그 세금을 내는 데 더해, 자기들이

먹는 1쿼터마다 4실링의 또 다른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곡물 거래론』을 쓴 그 잘 아는 지은이에 따르면 내보내는 곡물이 국내에서 먹는 곡물에 대해 갖는 평균 비율은 31에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첫째 세금을 내는 데 5실링을 낼 때마다 둘째 세금을 내는 데 6파운드 4실링을 내야 한다. 목숨을 잇는 첫째 필수품에 이토록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노동하는 빈민의 생계를 줄이거나, 그들이 생계를 얻는 데 드는 돈의 값이 오른 만큼 그들이 돈으로 받는 임금을 얼마간 올려 놓게 될 수밖에 없다. 앞쪽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것은 노동하는 빈민이 자식을 가르치고 길러 낼 힘을 줄이고, 그만큼 나라의 인구를 억누르는 쪽으로 기운다. 뒤쪽으로 작용하는 만큼 그것은 빈민을 부리는 이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만큼 많은 수를 부릴 힘을 줄이고, 그만큼 나라의 산업을 억누르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장려금이 일으키는 그 유별난 곡물 수출은 해마다 외국 시장과 소비를 넓히는 만큼 그대로 국내 시장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의 인구와 산업을 억눌러 마침내는 국내 시장이 차츰 넓어지는 것을 움츠러들게 하고 막는 쪽으로 기울며, 그리하여 길게 보면 곡물의 시장과 소비 전체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곡물의 화폐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상품이 농부에게 더 남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그 생산을 북돋울 것이라고들 여겨 왔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장려금의 효과가 곡물의 실질 가격을 올리는 것이거나, 같은 양의 곡물로 농부가 그 이웃에서 노동자들이 흔히 부양되는 그대로, 곧 넉넉하게든 웬만하게든 빠듯하게든 더 많은 수의 노동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장려금도, 사람이 세운 그 어떤 제도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없음은 뚜렷하다. 장려금이 웬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곡물의 실질 가격이 아니라 명목 가격이다. 그리고 그 제도가 백성 전체에게 물리는

세금이 그것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무거울 수 있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움이 아주 적다.

장려금의 참된 효과는 곡물의 실질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기보다 은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곧 같은 양의 은이 곡물만 아니라 국내에서 만든 다른 모든 상품과도 더 적은 양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곡물의 화폐 값이 국내에서 만든 다른 모든 상품의 화폐 값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의 화폐 값을 다스린다. 노동의 화폐 값은 노동자가 자기와 제 식구를 먹여 살릴 만한 양의 곡물을 살 수 있게 하는 값이어야 하고, 그 살림이 넉넉하냐 웬만하냐 빠듯하냐는 사회가 나아가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 물러나고 있느냐에 따라 그를 부리는 이들이 그를 어떻게 먹여 살리게 되느냐로 정해진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원생산물의 다른 모든 부분의 화폐 값을 다스린다. 그 값은 개량의 어느 시기에나 곡물 값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 비율은 시기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그것은 풀과 건초, 푸줏간 고기, 말, 말을 먹이는 데 드는 것의 화폐 값을 다스리고, 따라서 땅으로 실어 나르는 값을, 곧 나라 안 상업의 대부분을 다스린다.

땅에서 나는 원생산물의 다른 모든 부분의 화폐 값을 다스림으로써 그것은 거의 모든 제조업의 재료 값을 다스린다. 노동의 화폐 값을 다스림으로써 제조하는 솜씨와 근면의 값도 거기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이 둘을 다 다스림으로써 그것은 다 만들어진 제조품의 값을 다스린다. 노동의 화폐 값, 그리고 땅에서 나거나 노동에서 나는 모든 것의 화폐 값은 곡물의 화폐 값에 비례해 오르거나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려금 덕분에 농부가 제 곡물을 1부셸에 3실링 6펜스 대신 4실링에 팔 수 있게 되고, 제 생산물의 화폐 값이 이렇게 오른 만큼에 비례해 지주에게 화폐로 매긴 지대를 더 내게 된다 해도, 곡물 값이

이렇게 오른 결과로 4실링으로 살 수 있는 국내산 물건이 그 앞에 3실링 6펜스로 살 수 있던 것보다 많지 않다면, 농부의 형편도 지주의 형편도 이 변화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농부는 훨씬 잘 갈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고 지주는 훨씬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 상품을 살 때에는 곡물 값이 이렇게 오른 것이 그들에게 얼마쯤 이로울 수 있다. 국내산 상품을 살 때에는 전혀 이롭지 않다. 그런데 농부의 비용 거의 전부와 지주의 비용 가운데서도 훨씬 큰 부분이 국내산 상품에 들어간다.

광산이 기름진 데서 나오는 은 가치의 떨어짐, 곧 상업 세계의 대부분에 똑같이 또는 아주 비슷하게 작용하는 그 떨어짐은 어느 한 나라에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에 따라 모든 화폐 값이 오르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넉넉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더 가난해지지도 않는다. 은그릇 한 벌이 정말로 싸지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앞과 똑같은 실질 가치를 그대로 지킨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유별난 처지나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서 나와 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은 가치의 떨어짐은 아주 크게 상관이 있는 일이어서, 누구를 실제로 더 넉넉하게 하기는커녕 모두를 실제로 더 가난하게 하는 쪽으로 기운다. 이 경우 그 나라에만 일어나는 모든 상품의 화폐 값 오름은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산업을 얼마간 주춤하게 하고, 외국이 거의 온갖 물건을 그 나라 일꾼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은으로 내놓아 외국 시장에서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까지 그들보다 싸게 파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광산의 임자로서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에 금과 은을 나누어 주는 유별난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이 금속들은 유럽의 다른 어느 곳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얼마간 더 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것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금속들은 값이 아주 크고 부피는 작으므로 그 운임이 대단할 것이 없고 그 보험료는 같은 가치의 다른 물건과 같다. 그러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치 제도로 제 유별난 처지의 불리함을 더 키우지 않았다면 그 처지에서 볼 손해는 아주 적었을 것이다.

스페인은 금과 은의 수출에 세금을 물려서, 포르투갈은 그것을 금지해서, 그 수출에 밀무역 비용을 얹어 놓고, 그 비용 전부만큼 다른 나라에서 이 금속들의 가치를 제 나라에서보다 그만큼 더 높이 올려 놓는다. 물줄기를 막아 보를 쌓아 두면 보가 차는 대로 보가 아예 없었을 때만큼 많은 물이 보 마루를 넘어 흘러야 한다.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금과 은을 자기들이 화폐와 은그릇과 금박과 그 밖의 금은붙이 장식에 쓸 수 있는 양보다, 곧 자기들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이 쓰도록 허락하는 양보다 더 많이 붙들어 둘 수는 없다. 그 양을 얻으면 보가 찬 것이니 그 뒤에 흘러드는 물줄기는 모두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금과 은이 해마다 나가는 양은, 모든 보고에 따르면 이런 제약이 있음에도 해마다 들어오는 양 전부에 아주 가깝다. 그러나 물이 보 마루 뒤에서 그 앞보다 반드시 더 깊듯이, 이 제약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붙들어 두는 금과 은의 양은 그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 보 마루가 높고 튼튼할수록 그 뒤와 앞의 물 깊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세금이 무거울수록, 금지를 지키게 하는 벌이 무거울수록, 법이 집행되는지 살피는 행정이 촘촘하고 엄할수록,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에 대한 금과 은의 비율과 다른 나라의 그 비율 사이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하며, 다른 나라에서라면 그런 호사에 어울리거나 걸맞다고 여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은그릇이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을 거기서 자주 본다고 한다. 금과 은이 싸다는 것, 곧 같은 말로 모든

상품이 비싸다는 것은 귀금속이 이렇게 남아도는 데서 반드시 나오는 결과인데, 이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농업과 제조업을 다 주춤하게 하고, 외국이 여러 가지 원생산물과 거의 온갖 제조품을 그 나라 사람들이 집에서 길러 내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의 금과 은으로 그들에게 대어 줄 수 있게 한다. 세금과 금지는 두 가지 다른 길로 작용한다. 그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귀금속의 가치를 몹시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갔을 얼마만큼의 금속을 거기 붙들어 둠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그 가치를 그러지 않았을 것보다 얼마간 높게 떠받치고, 그리하여 그 나라들에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의 거래에서 겹친 이로움을 준다. 수문을 열어 보라. 그러면 곧 보 마루 위의 물이 줄고 아래의 물이 늘어 두 곳이 이내 같은 높이에 이를 것이다. 세금과 금지를 없애 보라. 그러면 금과 은의 양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웬만큼 줄고 다른 나라에서 얼마간 늘 것이며, 이 금속들의 가치, 곧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에 대한 그 비율은 모든 나라에서 이내 같은 높이에 또는 아주 가까운 높이에 이를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제 금과 은을 이렇게 내보내어 볼 손해는 고스란히 명목에 그치는 헛것일 것이다. 그들 물건의, 그리고 그들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의 명목 가치는 떨어져 그 앞보다 적은 양의 은으로 나타내어지겠지만, 그 실질 가치는 그 앞과 같아서 같은 양의 노동을 먹여 살리고 부리고 쓰기에 여전히 넉넉하다. 그들 물건의 명목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남아 있는 금과 은의 실질 가치가 올라, 그 앞에 더 많은 양이 하던 상업과 돌림의 모든 구실을 더 적은 양이 해낼 것이다. 나라 밖으로 나가는 금과 은은 헛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의 이런저런 물건을 실어 올 것이다. 그 물건도 다 놀고먹는 사람들이 제 소비에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 않고 써 없앨 한갓 사치와 씀씀이의 물건만은 아니리라. 놀고먹는 사람들의 실질 부와 수입이 이

유별난 금은 수출로 늘지 않을 터이니 그들의 소비도 그것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물건은 아마 그 대부분이, 그리고 어느 부분은 반드시, 부지런한 사람들을 부리고 먹여 살리는 데 드는 재료와 연장과 식료품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써 없앤 것의 값어치 전부를 이윤과 함께 되살려 낼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죽은 자산 가운데 일부가 살아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뀌어, 그 앞에 부려지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산업을 움직이게 하리라. 그들 땅과 노동의 해마다 생산물은 당장 조금 늘고 몇 해 안에 아마 크게 늘 것이니, 그들 산업이 지금 짓눌려 있는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에서 이렇게 풀려나기 때문이다.

곡물 수출 장려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 어이없는 정책과 똑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갈이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은 국내 시장에서 우리 곡물을 그 상태에서 저절로 되었을 것보다 얼마간 비싸게 하고 외국 시장에서는 얼마간 싸게 하며, 곡물의 평균 화폐 값이 다른 모든 상품의 화폐 값을 얼마간 다스리므로 한쪽에서는 은의 가치를 웬만큼 낮추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올리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외국인, 특히 네덜란드인이 우리 곡물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싸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러는 같은 자리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매슈 데커[7]라는 훌륭한 권위가 우리에게 일러 주는 바다. 그것은 우리 일꾼이 제 물건을 그러지 않았을 때만큼 적은 양의 은으로 내놓지 못하게 하고, 네덜란드인은 제 물건을 더 적은 양으로 내놓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어느 시장에서나 우리 제조품을 얼마간 비싸게 하고 그들 제조품을 얼마간 싸게 하는 쪽으로 기울며, 따라서 그들 산업에 우리 산업보다 겹친 이로움을 주는 쪽으로 기운다.

장려금은 국내 시장에서 우리 곡물의 실질 가격이 아니라 명목 가격을 올리므로, 또 얼마만큼의 곡물이 먹여 살리고 부릴 수 있는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이 바뀔 은의 양만 늘리므로, 우리 농부에게도 시골 지주에게도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 제조업을 주춤하게 한다. 그것이 양쪽 주머니에 돈을 조금 더 넣어 주기는 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 대부분을 설득하기는 어쩌면 얼마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이 살 수 있는 노동과 식료품과 온갖 국내산 상품의 양으로 볼 때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 양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면, 그 도움은 명목에 그치는 헛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라 전체에서 장려금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어쩌면 한 무리뿐이리라. 곡물 상인, 곧 곡물을 내보내고 들여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넉넉한 해에는 장려금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수출을 반드시 일으켰고, 한 해의 넉넉함으로 다른 해의 모자람을 덜어 주는 일을 막아 모자란 해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 필요했을 것보다 많은 수입을 일으켰다. 그것은 두 경우 다 곡물 상인의 일거리를 늘렸다. 그리고 모자란 해에는 그가 더 많은 양을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해의 넉넉함으로 다른 해의 모자람을 덜어 주는 일이 얼마간 막히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것보다 나은 값에, 따라서 더 큰 이윤과 함께 팔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장려금을 이어 가거나 되살리자는 열의가 가장 뜨거운 것을 내가 본 것은 바로 이 무리에서다.

우리 시골 지주들이 외국 곡물을 들여오는 데[8] 높은 관세를 물렸을 때, 곧 웬만큼 넉넉한 때에는 금지에 맞먹는 그 관세를 물리고 장려금을 세웠을 때, 그들은 우리 제조업자들의 행동을 본뜬 듯하다. 한 제도로 그들은 국내 시장의 독점을 제 손에 넣었고, 다른 제도로 그 시장이 제 상품으로 넘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막으려 했다. 두 제도로 그들은 그

실질 가치를 올리려 했는데, 우리 제조업자들이 그와 같은 제도로 여러 가지 제조품의 실질 가치를 올린 것과 똑같았다. 그들은 어쩌면 자연이 곡물과 거의 다른 모든 물건 사이에 세워 둔 그 크고 본질적인 차이에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시장의 독점으로든 수출 장려금으로든 우리 모직이나 아마 제조업자가 제 물건을 그러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얼마간 나은 값에 팔 수 있게 해 주면, 당신은 그 물건의 명목 가격만 아니라 실질 가격까지 올리는 것이다. 당신은 그 물건을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생계에 맞먹게 만든다. 당신은 그 제조업자들의 명목 이윤만 아니라 실질 이윤, 실질 부와 실질 수입까지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더 잘 살거나 그 제조업에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부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그 제조업을 북돋우고, 나라의 산업 가운데 저절로 거기로 갈 것보다 많은 양을 거기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도로 당신이 곡물의 명목 값, 곧 화폐 값을 올릴 때에는 그 실질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농부나 시골 지주의 실질 부, 실질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곡물을 기르는 일을 북돋우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곡물을 길러 내는 데 더 많은 노동자를 먹여 살리고 부릴 수 있게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이 곡물에 실질 가치를 찍어 두었고, 그것은 한갓 화폐 값을 바꾸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어떤 수출 장려금도, 어떤 국내 시장 독점도 그 가치를 올릴 수 없다. 가장 자유로운 경쟁도 그것을 낮출 수 없다. 세상 전체로 보면 그 가치는 곡물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동의 양과 같고, 각 고장에서는 그 고장에서 노동이 흔히 부양되는 대로 넉넉하게든 웬만하게든 빠듯하게든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동의 양과 같다. 모직이나 아마 천은 다른 모든 상품의 실질 가치를 마지막으로 재고 정하는 그 다스리는 상품이 아니다. 곡물이 그것이다. 다른 모든 상품의 실질 가치는 그 평균 화폐 값이 곡물의 평균 화폐 값에 대해 갖는 비율로

마지막에 재어지고 정해진다. 곡물의 실질 가치는 한 세기와 다른 세기 사이에 더러 일어나는 그 평균 화폐 값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은의 실질 가치다.

국내산 상품을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은 첫째로 중상주의 체계의 온갖 수단에 다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반론에 걸린다. 곧 나라의 산업 가운데 일부를 저절로 흘러갈 물길보다 덜 이로운 물길로 억지로 밀어 넣는다는 반론이다. 둘째로 그것은 산업을 덜 이로운 물길로 밀어 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로운 물길로 밀어 넣는다는 그 유별난 반론에 걸린다. 장려금이 없으면 해 나갈 수 없는 무역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무역이기 때문이다. 곡물 수출 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그것이 북돋우려 한 바로 그 상품을 길러 내는 일을 어느 모로도 밀어 주지 못한다는 반론에 걸린다. 그러므로 우리 시골 지주들이 장려금을 세우자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를 본떠 움직였으면서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흔히 이끄는 그 온전한 제 이익 파악은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공의 세입에 아주 큰 비용을 지웠다. 그들은 백성 전체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그들은 제 상품의 실질 가치를 이렇다 할 만큼 늘리지 못했다. 그리고 은의 실질 가치를 얼마간 낮춤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을 얼마간 주춤하게 했고,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에 반드시 매여 있는 제 땅의 개량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얼마간 뒤로 끌었다.

어떤 상품의 생산을 북돋우려면 수출에 주는 장려금보다 생산에 주는 장려금이 더 곧바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게다가 그것은 백성에게 세금을 하나만, 곧 장려금을 치르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만 물릴 것이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 값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쪽으로 기울 것이고, 그리하여 백성에게 둘째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첫째 세금에 낸 것을 적어도 일부는 되돌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에 주는 장려금은 아주 드물게 주어졌다. 상업 체계가 세워 놓은 편견은 나라의 부가 생산보다 수출에서 더 곧바로 나온다고 우리가 믿게 가르쳤다. 그래서 수출이 돈을 나라로 끌어들이는 더 곧바른 길이라 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 생산에 주는 장려금이 수출에 주는 것보다 속임수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이 경험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것이 어디까지 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수출 장려금이 온갖 속임수에 악용되어 왔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단을 지어낸 그 큰 지은이들인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는 국내 시장이 제 물건으로 넘치는 것이 이익이 아니고, 생산에 주는 장려금은 더러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수출 장려금은 그들이 남는 몫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국내 시장에 남은 것의 값을 떠받칠 수 있게 하여 이런 일을 톡톡히 막아 준다. 그래서 중상주의 체계의 온갖 수단 가운데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여러 사업가가 자기들끼리 몰래 어울려 제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 자기들이 다루는 물건의 얼마만큼을 내보낼 때 장려금을 주기로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수단은 어찌나 잘 들어맞았던지, 생산이 웬만큼 늘었음에도 국내 시장에서 그들 물건 값이 두 배가 넘게 올랐다. 곡물 장려금이 그 상품의 화폐 값을 낮추었다면 그 작용은 놀랍도록 달랐던 셈이다.

그렇더라도 생산에 주는 장려금과 비슷한 것이 몇몇 자리에서 주어졌다. 흰청어잡이와 고래잡이에 준 톤수 장려금[9]을 어쩌면 얼마간 이런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서 그 물건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싸게 만드는 쪽으로 곧바로 기운다고 볼 만하다. 다른 점에서는 그 효과가 수출 장려금의 효과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있기에 나라 자본의 일부가, 그 값이 자산의 보통 이윤과 함께 든 비용을 되찾아 주지 못하는 물건을 시장에 내오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 어업들에 준 톤수 장려금이 나라의 풍요에 이바지하지 않더라도, 뱃사람과 배의 수를 늘려 나라의 방어에 이바지한다고 어쩌면 여길 수 있다. 이런 장려금으로 그 일을 더러 할 수 있고, 상비 육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큰 상비 해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말이 있음에도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면 나는 이 장려금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줄 때 입법부가 아주 심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믿게 된다.

첫째, 청어잡이 버스선[10] 장려금은 너무 큰 듯하다.

1771년 겨울 어기가 시작될 때부터 1781년 겨울 어기가 끝날 때까지 청어잡이 버스선 어업에 준 톤수 장려금은 톤당 30실링이었다. 이 열한 해 동안 스코틀랜드의 청어잡이 버스선 어업이 잡은 배럴 수는 모두 378,347에 이르렀다. 바다에서 잡아 절인 청어를 바닷절임 청어라 부른다[11]. 그것을 이른바 상품 청어로 만들려면 소금을 더 넣어 다시 담아야 하는데, 이때 바닷절임 청어 3배럴이 흔히 상품 청어 2배럴로 다시 담긴다고 셈한다. 그러므로 이 셈에 따르면 이 열한 해 동안 잡은 상품 청어의 배럴 수는 252,231¼에 이를 뿐이다. 이 열한 해 동안 치른 톤수 장려금은 155,463파운드 11실링에 이르렀으니, 바닷절임 청어 1배럴마다 8실링 2¼펜스이고 상품 청어 1배럴마다 12실링 3¾펜스다.

이 청어를 절이는 데 쓰는 소금은 더러 스코틀랜드 소금이고 더러 외국 소금인데, 둘 다 소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고 생선 절이는 이들에게 내준다. 스코틀랜드 소금의 소비세는 지금 1부셸에 1실링 6펜스이고 외국 소금의 소비세는 10실링이다. 청어 1배럴에는 외국 소금 1부셸과 4분의 1부셸쯤이 든다고 여긴다. 스코틀랜드 소금은 2부셸이 평균으로 여겨진다. 청어를 수출로 신고하면 이 소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소비로 신고하면 외국 소금으로 절였든 스코틀랜드 소금으로

절였든 1배럴에 1실링만 낸다. 그것은 소금 1부셸에 물던 옛 스코틀랜드 소비세였는데, 1부셸은 낮추어 잡아 청어 1배럴을 절이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진 양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외국 소금은 생선 절이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1771년 4월 5일부터 1782년 4월 5일까지 들여온 외국 소금의 양은 936,974부셸에 이르렀고 1부셸은 84파운드(무게)였다. 소금 가마에서 생선 절이는 이들에게 내준 스코틀랜드 소금의 양은 168,226에 그쳤고 1부셸은 56파운드(무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업에 주로 쓰이는 것은 외국 소금인 듯하다. 게다가 내보내는 청어 1배럴마다 2실링 8펜스의 장려금이 있고, 버스선이 잡은 청어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나라 밖으로 나간다. 이 모든 것을 한데 놓아 보면, 이 열한 해 동안 스코틀랜드 소금으로 절인 버스선 청어 1배럴이 나라에 치르게 한 돈은 내보낼 때 17실링 11¾펜스이고 국내 소비로 신고할 때 14실링 3¾펜스이며, 외국 소금으로 절인 1배럴은 내보낼 때 1파운드 7실링 5¾펜스이고 국내 소비로 신고할 때 1파운드 3실링 9¾펜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상품 청어 1배럴의 값은 17실링, 18실링에서 24실링, 25실링까지 오가고 평균으로는 1기니쯤이다[12]. {이 편 끝에 붙인 계산표를 보라.}

둘째, 흰청어잡이에 주는 장려금은 톤수 장려금이어서 배의 적재량에 비례하고, 어업에서 부린 부지런함이나 거둔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들이 고기가 아니라 장려금을 잡을 목적만으로 채비를 갖추고 나가는 일이 너무 흔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걱정한다. 장려금이 톤당 50실링이던 1759년에 스코틀랜드의 버스선 어업 전체가 들여온 것은 바닷절임 청어 4배럴뿐이었다. 그해에 바닷절임 청어 1배럴은 장려금만으로 나라에 113파운드 15실링을 치르게 했고, 상품 청어 1배럴은 159파운드 7실링 6펜스를 치르게 했다.

셋째, 흰청어잡이에 이 톤수 장려금을 준 그 고기잡이 방법, 곧 적재량 20톤에서 80톤에 이르는 버스선이나 갑판 있는 배로 하는 방법은 스코틀랜드의 처지보다 네덜란드의 처지에 더 잘 맞는 듯하고, 그 방법은 네덜란드의 관행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청어가 주로 모여든다고 알려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먼 바다로 가는 뱃길에 넉넉할 만큼 물과 식료품을 실을 수 있는 갑판 있는 배로만 그 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헤브리디스제도, 곧 서쪽 섬들과 셰틀랜드제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북쪽과 북서쪽 해안, 곧 청어잡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 이웃의 고장들은 어디에나 바다의 팔이 뻗어 들어와 땅속으로 웬만큼 깊이 파고들어 있는데, 그 고장 말로 그것을 시로크라 부른다. 청어가 이 바다를 찾아오는 철에 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런 시로크다. 이 고기와, 내가 듣기로는 다른 여러 고기의 찾아옴도 아주 규칙 바르고 한결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의 유별난 처지에 가장 잘 맞는 고기잡이 방법은 쪽배 어업으로 보이며, 이 어업에서는 고기잡이들이 잡는 대로 곧바로 청어를 뭍으로 실어 와 절이거나 날로 먹게 한다. 그런데 톤당 30실링의 장려금이 버스선 어업에 주는 그 큰 북돋움은 쪽배 어업에게는 반드시 주춤거림이 되는데, 쪽배 어업은 그런 장려금이 없으므로 절인 고기를 버스선 어업과 같은 조건으로 시장에 내올 수 없다. 그래서 버스선 장려금이 세워지기 전에는 아주 컸고 지금 버스선 어업이 부리는 것에 못하지 않은 수의 뱃사람을 부렸다고 하는 쪽배 어업이 이제는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이제 망하여 버려진 이 어업이 옛날에 얼마나 컸는지는 내가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쪽배 어업의 채비에는 장려금이 치러지지 않았으므로 관세나 소금세 관리들이 그것을 셈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스코틀랜드의 여러 고장에서는 해의 어떤 철에 청어가 보통 사람들의 먹을거리에서 적지 않은 몫을 이룬다. 국내 시장에서 그 값을 낮추는 쪽으로 기우는 장려금이라면 형편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우리 동포 여러 사람의 살림을 덜어 주는 데 웬만큼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어잡이 버스선 장려금은 그런 좋은 목적에 조금도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 대어 주기에 훨씬 잘 맞는 쪽배 어업을 망쳐 놓았고, 내보낼 때 1배럴에 2실링 8펜스를 더 주는 장려금이 버스선 어업 생산물의 큰 몫, 곧 3분의 2가 넘는 몫을 나라 밖으로 실어 간다. 30년에서 40년쯤 전, 버스선 장려금이 세워지기 전에는 흰청어의 보통 값이 1배럴에 16실링이었다고 나는 들었다. 10년에서 15년쯤 전, 쪽배 어업이 아주 망하기 전에는 값이 1배럴에 17실링에서 20실링을 오갔다고 한다. 지난 다섯 해 동안은 평균으로 1배럴에 25실링이었다. 그러나 이 높은 값은 스코틀랜드 해안에 청어가 정말로 모자란 데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청어와 함께 팔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값이 앞의 모든 값에 들어 있는 통, 곧 배럴이 아메리카 전쟁이 시작된 뒤로 그 앞 값의 두 배쯤, 곧 3실링쯤에서 6실링쯤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옛날 값에 대해 내가 받은 보고가 결코 아주 한결같고 앞뒤가 맞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경험 많은 한 노인이 나에게 일러 준 바로는, 50년도 더 전에는 좋은 상품 청어 1배럴의 보통 값이 1기니였다고 하며, 이것을 아직도 평균 값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버스선 장려금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값이 낮아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모든 보고가 맞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업 사업가들이 그런 두둑한 장려금을 받은 뒤에도 그 앞에 하던 것과 같은 값에, 또는 더 높은 값에 제 물건을 계속 파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윤이 아주 클 것으로 짐작할 만하고, 몇몇 사람의 이윤이

그러했을 법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이 아주 달랐다고 믿을 온갖 이유가 나에게 있다. 그런 장려금이 흔히 내는 효과는 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무른 사업가들이 덤벼들도록 북돋우는 것이니, 그들이 제 게으름과 무지로 잃는 것이 나라의 가장 두둑한 너그러움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고도 남는다. 1750년에 흰청어잡이를 북돋우기 위해 톤당 30실링의 장려금을 처음 준 바로 그 법으로, 곧 조지 2세 치세 23년의 법 제24장으로 자본 500,000파운드의 합본 회사가 세워졌는데, 그 주주들은 다른 온갖 북돋움, 곧 방금 말한 톤수 장려금과 1배럴에 2실링 8펜스인 수출 장려금과 영국 소금이든 외국 소금이든 소금세를 물리지 않고 내주는 것에 더해, 열네 해 동안 회사 자산에 청약하여 들여놓은 100파운드마다 해마다 3파운드를 받을 권리를 얻었으며, 이 돈은 관세 수입 총괄관이 반년마다 같은 액수로 치르게 되어 있었다. 총재와 이사들이 런던에 머물게 되어 있던 이 큰 회사 말고도, 왕국의 여러 지방 항구마다 저마다의 위험을 스스로 지고 저마다의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맡아 꾸리는 어업 회소를 세우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포되었는데, 다만 그 자본에 10,000파운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액수가 청약되어야 했다. 이 작은 회소들의 거래에도 큰 회사의 거래와 똑같은 연금과 똑같은 온갖 북돋움이 주어졌다. 큰 회사의 청약은 이내 다 채워졌고 왕국의 여러 지방 항구에 여러 어업 회소가 세워졌다. 이 모든 북돋움이 있었음에도 크고 작은 그 여러 회사가 거의 다 제 자본의 전부나 대부분을 잃었다. 이제 그 어느 것의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흰청어잡이는 이제 고스란히 또는 거의 고스란히 사사로운 모험가들이 해 나간다.

어떤 제조업이 사회의 방어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대어 주는 일을 이웃에게 기대는 것이 언제나 슬기롭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제조업을 국내에서 달리 떠받칠 수 없다면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 다른

모든 산업 부문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영국에서 만든 돛베와 영국에서 만든 화약을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은 어쩌면 둘 다 이 원리로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조업자 계층의 산업을 떠받치려고 백성 대다수의 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리에 닿는 일은 아주 드물겠지만, 큰 번영에 들뜬 판에, 공공이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할 만큼 큰 세입을 누릴 때에는 좋아하는 제조업에 그런 장려금을 주는 것이 다른 어떤 헛된 씀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자연스러우리라. 공공의 씀씀이에서나 사사로운 씀씀이에서나 큰 부가 큰 어리석음의 핑계로 자주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루 어렵고 고달픈 때에 그런 헤픔을 이어 가는 데에는 여느 것을 넘어서는 어이없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장려금이 더러는 관세 환급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장려금에 하는 것과 같은 반론에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제당을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은 그것을 만드는 데 쓰인 흑당과 조당에 물린 관세의 환급으로 볼 수 있고, 짠 명주를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은 들여온 생사와 꼰 명주실에 물린 관세의 환급으로, 화약을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은 들여온 유황과 초석에 물린 관세의 환급으로 볼 수 있다. 관세청의 말로는 들여올 때와 같은 꼴로 내보내는 물건에 주는 허용액만 관세 환급이라 부른다. 그 꼴이 무슨 제조를 거쳐 달라져 새 이름 아래로 들어오면 그것을 장려금이라 부른다.

저마다의 일에서 뛰어난 기술자와 제조업자에게 공공이 주는 포상금은 장려금에 하는 것과 같은 반론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남다른 솜씨와 재주를 북돋움으로써 그 여러 일에 실제로 몸담고 있는 일꾼들의 겨루는 마음을 떠받치는 데 이바지하고, 나라 자본 가운데 저절로 어느 한 일로 갈 것보다 더 큰 몫을 그 일로 돌릴 만큼 크지 않다.

그것이 기우는 쪽은 여러 일 사이의 저절로 잡힌 균형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훌륭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포상금에 드는 비용은 아주 작고 장려금에 드는 비용은 아주 크다. 곡물 장려금만으로도 한 해에 공공에게 300,000파운드가 넘는 돈을 치르게 한 때가 더러 있었다.

장려금이 더러 포상금이라 불리고, 관세 환급이 더러 장려금이라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경우에나 낱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일의 성질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곡물 거래와 곡물법에 관한 여담.

곡물 수출 장려금을 세운 그 법과 그에 이어진 규정 체계에 쏟아진 칭찬이 고스란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님을 짚어 두지 않고서는 장려금을 다룬 이 장을 끝맺을 수 없다. 곡물 거래의 성질과 그에 관한 영국의 주요 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주장이 참임을 넉넉히 보여 줄 것이다.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여담의 길이를 정당화해 줄 것이다.

곡물 상인의 거래는 네 가지 다른 부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더러 같은 사람이 이 넷을 다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성질로 보면 서로 따로 떨어진 네 가지 거래다. 첫째는 국내 거래상의 거래, 둘째는 국내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수입 상인의 거래, 셋째는 외국 소비를 위해 국내 생산물을 내보내는 수출 상인의 거래, 넷째는 중계 상인, 곧 다시 내보내기 위해 곡물을 들여오는 사람의 거래다.

1. 국내 거래상의 이익과 백성 대다수의 이익은 처음에 아무리 어긋나 보여도 가장 심하게 모자란 해에조차 똑같다. 제 곡물 값을 그 철의 실제 모자람이 요구하는 만큼 높이 올리는 것이 그의 이익이고, 그보다 더 높이 올리는 것은 결코 그의 이익일 수 없다. 값을 올려 그는 소비를 주춤하게 하고, 모두를, 특히 아랫자리 사람들을 얼마간 아끼고 잘

꾸리게 만든다. 값을 너무 높이 올려 소비를 지나치게 주춤하게 하여 그 철에 들어온 것이 그 철의 소비를 넘어서고 다음 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로도 얼마 동안 남을 듯하게 되면, 그는 제 곡물의 적지 않은 몫을 저절로 썩혀 잃을 위험만 아니라 남은 것을 몇 달 전에 받을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할 위험까지 안는다. 값을 넉넉히 높이 올리지 않아 소비를 너무 조금 주춤하게 하여 그 철에 들어온 것이 그 철의 소비에 못 미칠 듯하게 되면, 그는 그러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윤의 일부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이 그 철이 끝나기 전에 궁핍의 고달픔이 아니라 기근의 끔찍한 참상을 겪게 만든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하는 소비가 그 철에 들어온 것에 될 수 있는 대로 꼭 맞게 비례하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다. 국내 곡물 거래상의 이익도 같다. 그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이 비율대로 그들에게 대어 주면 제 곡물을 다 가장 높은 값에 가장 큰 이윤과 함께 팔 수 있고, 작물의 상태와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팔린 것에 대한 그의 아는 바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대어지고 있는지를 얼마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백성의 이익을 뜻하지 않고도 그는 제 이익을 살피는 마음에 이끌려, 모자란 해에조차 배의 신중한 선장이 더러 제 선원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그들을 다루게 된다. 식량이 모자랄 듯하다고 미리 보면 선장은 그들에게 배급을 줄인다. 지나친 조심에서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더러 그렇게 한다 해도, 그로써 선원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은 덜 앞을 내다보는 처사로 그들이 더러 놓일 수 있는 위험과 비참과 파멸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욕심에서 국내 곡물 상인이 더러 제 곡물 값을 그 철의 모자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얼마간 높이 올린다 해도, 그 철 끝에 백성이 기근을 겪지 않도록 톡톡히 막아 주는 그 처사로 백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은, 그 철 첫머리에 더 너그럽게 다루었을 때 그들이 놓일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다. 이 지나친 욕심으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곡물 상인 자신일 것이다. 그것이 대개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만 아니라, 그가 그 분노의 결과를 면한다 해도 그 때문에 그 철 끝에 제 손에 반드시 남게 되는 곡물의 양 때문이며, 다음 철이 좋게 나오면 그는 그 곡물을 그러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싼 값에 언제나 팔아야 한다.

정말로 상인들의 큰 회사 하나가 넓은 나라의 작물 전체를 제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네덜란드인이 말루쿠제도의 향료를 그렇게 한다는 말처럼 남은 것의 값을 떠받치려고 그 적지 않은 몫을 없애거나 내버리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이익일 것이다. 그러나 곡물에 대해 그런 넓은 독점을 세우는 것은 법의 힘으로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법이 거래를 자유롭게 두는 곳에서는 곡물이 온갖 상품 가운데 몇몇 큰 자본의 힘으로 사재이거나 독점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니, 그 자본이 곡물의 대부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그 가치가 몇몇 사삿사람의 자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한참 넘어설 뿐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해도 곡물이 길러지는 모양이 그런 사들임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든다. 문명한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곡물이 해마다 먹는 양이 가장 많은 상품이므로, 곡물을 길러 내는 데 해마다 쓰이는 산업의 양이 다른 어떤 상품을 길러 내는 데 쓰이는 것보다 많다. 또 곡물이 땅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반드시 더 많은 임자에게 갈라져 있고, 이 임자들은 서로 딴 제조업자 여럿처럼 한곳에 모일 수 없으며 반드시 나라의 온갖 구석에 흩어져 있다. 이 첫 임자들은 곧바로 제 이웃의 먹는 이들에게 대어 주거나, 그 먹는 이들에게 대어 주는 다른 국내 거래상에게 대어 준다. 그러므로 농부와 빵장수를 다 넣어 곡물의 국내 거래상은 다른 어떤 상품의 거래상보다 반드시 수가 많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처지는 그들이 어떤 전반적인 단합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모자란 해에 그들 가운데 누가 지금 값으로는 그 철이 끝나기 전에 팔아 치울 수 있으리라고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제 손에 쥐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제 손해를 무릅쓰고 겨루는 이들만 이롭게 하려고 이 값을 떠받칠 생각은 결코 하지 않고, 새 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제 곡물을 털어내려고 당장 값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한 거래상의 행동을 다스릴 그 같은 동기, 그 같은 이익이 다른 모든 거래상의 행동도 다스려, 그들 모두가 대체로 저마다의 판단으로 그 철의 모자람이나 넉넉함에 가장 맞는다고 본 값에 제 곡물을 팔게 만들 것이다.

이번 세기나 그 앞 두 세기에 유럽의 어느 곳을 괴롭힌 궁핍과 기근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여럿에 대해 우리에게 꽤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궁핍이 곡물의 국내 거래상들 사이의 어떤 단합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실제로 모자란 것 말고 다른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 적도 없음을, 그리고 그 모자람은 어쩌면 어떤 고장에서 더러 전쟁의 헐어 없암에서 왔을지 몰라도 훨씬 많은 경우에는 철의 탓이었음을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또 기근이 궁핍의 불편을 그른 수단으로 바로잡으려 한 정부의 폭력 말고 다른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 적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넓은 곡물 나라에서 그 여러 고장 사이에 거래와 오고 감이 자유롭다면, 가장 나쁜 철이 일으키는 모자람이 기근을 낳을 만큼 클 수는 결코 없다. 그리고 가장 빈약한 작물도 검약과 아낌으로 꾸리면 웬만큼 넉넉한 작물이 더 넉넉하게 먹이는 것과 같은 수의 사람을 한 해 동안 먹여 살릴 것이다. 작물에 가장 나쁜 철은 몹시 마르거나 몹시 비가 많은 철이다. 그러나 곡물은 높은 땅에서나 낮은 땅에서나, 너무 젖기 쉬운 땅에서나 너무 마르기 쉬운 땅에서나 똑같이 자라므로, 나라의 한 고장에 해로운 마름이나 비가 다른 고장에는 이롭다. 그리고 젖은

철에나 마른 철에나 작물이 더 알맞게 고른 철보다 웬만큼 적기는 하지만, 두 철 다 나라의 한 고장에서 잃은 것이 다른 고장에서 얻은 것으로 얼마간 메워진다. 쌀 나라에서는 작물이 아주 축축한 흙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라는 어느 시기에는 물에 잠겨 있어야 하므로 마름의 결과가 훨씬 참혹하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도 정부가 자유로운 거래를 허락한다면 마름이 기근을 반드시 일으킬 만큼 두루 미치는 일은 어쩌면 거의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벵골의 마름은 아마 아주 큰 궁핍을 일으켰을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부하들이 쌀 거래에 물린 몇 가지 그른 규정과 슬기롭지 못한 제약이 어쩌면 그 궁핍을 기근으로 바꾸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정부가 궁핍의 불편을 바로잡으려고 모든 거래상에게 알맞다고 저 여기는 값에 곡물을 팔라고 명하면, 그것은 그들이 곡물을 시장에 내오는 것을 막아 더러 그 철 첫머리에조차 기근을 낳거나, 그들이 곡물을 거기 내온다 해도 백성이 그것을 빨리 먹어 없앨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그렇게 하도록 북돋워 그 철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기근을 낳게 한다. 곡물 거래의 끝없고 걸림 없는 자유는 기근의 비참을 막는 유일하게 톡톡한 길이면서 궁핍의 불편을 덜어 주는 가장 좋은 길이다. 실제로 모자란 것은 바로잡을 수 없고 덜어 줄 수만 있기 때문이다. 어떤 거래도 이 거래보다 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만하지 않고, 어떤 거래도 이 거래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거래도 이 거래만큼 사람들의 미움에 내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자란 해에는 아랫자리 사람들이 제 고달픔을 곡물 상인의 욕심 탓으로 돌리고, 그가 그들의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자리에서 이윤을 얻기는커녕 아주 망해 버리고 제 곡물 창고가 그들의 폭력으로 털리고 부서질 위험에 자주 놓인다. 그러나 곡물 상인이 제 주된 이윤을 얻으려고 바라는 때는 값이 높은 모자란 해다.

그는 흔히 몇몇 농부와 계약을 맺어 몇 해 동안 일정한 양의 곡물을 일정한 값에 대어 받는다. 이 계약 값은 웬만하고 알맞다고 여겨지는 값, 곧 보통 값 또는 평균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값은 요 몇 해 모자란 해가 오기 전에는 밀 1쿼터에 흔히 28실링쯤이었고 다른 곡물은 그에 비례했다. 그러므로 모자란 해에는 곡물 상인이 제 곡물의 큰 몫을 보통 값에 사서 훨씬 높은 값에 판다. 그러나 이 남다른 이윤이 그의 거래를 다른 거래와 공평하게 같은 자리에 놓고, 그 상품 자체가 썩기 쉬운 성질과 그 값이 자주 예기치 못하게 오르내리는 데서 다른 자리에 그가 겪는 많은 손해를 메우기에 넉넉할 뿐임은, 이 거래에서 큰 재산이 만들어지는 일이 다른 어떤 거래에서만큼이나 드물다는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도 넉넉히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모자란 해, 곧 이 거래가 크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에 그것에 따라붙는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인품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래에 들어가기를 꺼린다. 그것은 아랫자리 거래상들에게 내버려져 있다. 그리하여 물방앗간 주인과 빵장수와 가루 장수와 가루 중개인, 그리고 여러 딱한 떠돌이 장사꾼들이 국내 시장에서 기르는 이와 먹는 이 사이에 드는 거의 유일한 중간 사람들이다.

유럽의 옛 정책은 공공에 그토록 이로운 거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고 북돋운 듯하다.

에드워드 6세 치세 5년과 6년의 법 제14장으로, 누구든 다시 팔 뜻으로 곡물이나 그 밖의 낟알을 사면 불법 매점꾼으로 여겨져 첫 잘못에는 두 달 옥에 갇히고 그 곡물의 값어치를 빼앗기며, 두 번째에는 여섯 달 옥에 갇히고 그 값어치의 두 배를 빼앗기고, 세 번째에는 차꼬에 세워지고 국왕이 뜻하는 동안 옥에 갇히며 제 물건과 가재를 모두 빼앗긴다고 정해졌다. 유럽 다른 대부분 고장의 옛 정책도 잉글랜드의 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우리 조상들은 백성이 곡물 상인에게서보다 농부에게서 곡물을 더 싸게 살 것이라고 여긴 듯한데, 곡물 상인은 제가 농부에게 치른 값에 더해 터무니없는 이윤을 제 몫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거래를 아예 없애려 했다. 그들은 기르는 이와 먹는 이 사이에 어떤 종류의 중간 사람이 드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막으려고까지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이른바 키더, 곧 곡물 운반상의 거래에 물린 여러 제약의 뜻이었다. 이 거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거래하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확인해 주는 면허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 6세의 법령으로는 이 면허를 주는 데 치안 판사 세 사람의 권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제약조차 뒤에 넉넉하지 않다고 여겨져, 엘리자베스의 법령으로 그것을 줄 권한이 4분기 재판으로만 좁혀졌다[13].

유럽의 옛 정책은 이렇게 나라의 큰 거래인 농업을, 도시의 큰 거래인 제조업에 대해 세워 둔 것과 아주 다른 원칙으로 다스리려 했다. 농부에게 먹는 이나 그 바로 아래 중개인, 곧 키더와 곡물 운반상 말고는 다른 손님을 남겨 주지 않음으로써, 그 정책은 그가 농부의 거래만 아니라 곡물 상인 또는 곡물 소매상의 거래까지 하도록 몰아붙이려 했다. 그와 달리 그 정책은 여러 경우에 제조업자가 가게 주인의 거래를 하는 것, 곧 제 물건을 소매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한 법으로 그 정책은 나라의 전반적인 이익을 밀어 주려 했고 곡물을 싸게 만들려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지는 어쩌면 잘 헤아려지지 않았다. 다른 법으로 그 정책은 어느 한 계층의 이익, 곧 가게 주인들의 이익을 밀어 주려 했는데, 제조업자가 소매를 하도록 허락되면 가게 주인들이 그에게 너무 싸게 밀려 그 거래가 망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가게를 두고 제 물건을 소매로 팔도록 허락되었다 해도 여느 가게 주인보다 싸게 팔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 자본 가운데

얼마를 가게에 놓았다면 그만큼을 제조업에서 빼내야 했으리라. 제 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해 나가려면 한쪽에서 제조업자의 이윤을 얻어야 했듯이 다른 쪽에서 가게 주인의 이윤도 얻어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사는 그 도시에서 제조업 자산과 가게 자산의 보통 이윤이 다 10퍼센트였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는 제 가게에서 파는 제 물건 하나하나에 20퍼센트의 이윤을 얹어야 했을 것이다. 물건을 제 작업장[14]에서 제 가게로 옮길 때 그는 그것을 도매로 사들일 거래상이나 가게 주인에게 팔 수 있었을 값으로 매겨야 했을 것이다. 그보다 낮게 매겼다면 그는 제 제조업 자본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잃었으리라. 또 제 가게에서 그것을 팔 때 가게 주인이 팔았을 것과 같은 값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제 가게 자본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같은 물건 하나에서 이윤을 두 번 얻는 듯이 보일 수 있어도, 이 물건이 서로 딴 두 자본의 일부를 차례로 이루었으므로 그는 그것에 쓰인 자본 전체에서 이윤을 한 번만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만 못하게 얻었다면 그는 손해를 본 쪽이고, 제 자본 전체를 이웃 대부분과 같은 이로움으로 쓰지 못한 것이다.

---

1. 옮긴이 — 구보조세는 1660년에 매긴 관세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물건의 값어치 1파운드마다 1실링, 곧 5퍼센트를 물렸다. 뒤에 매긴 여러 관세와 갈라 부르려고 「구」를 붙였다.

2.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조지 1세는 1714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7년은 1720년에서 1721년에 걸친다. 이 장에 나오는 다른 국왕들은 에드워드 6세가 1547년, 찰스 2세가 1660년, 조지 2세가 1727년, 조지 3세가 1760년에 왕위에 올랐다.

3. 옮긴이 — 호그스헤드는 큰 나무통을 세는 단위다. 담배는 한 통에 500파운드(무게)에서 1,000파운드(무게)쯤 들어갔다.

4.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5. 옮긴이 — 『곡물 거래론』(1766)을 쓴 사람은 찰스 스미스(1713~1777)로, 이 책을 쓴 애덤 스미스와 다른 사람이다. 스미스는 이 장에서 그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

6.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8부셸, 약 291리터다. 「4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다. 1부셸은 약 36리터다.

7. 옮긴이 — 매슈 데커(1679~1749)는 네덜란드에서 잉글랜드로 건너간 상인이자 하원 의원으로, 무역과 세금을 다룬 글을 남겼다.

8.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외국 곡물의 수출에 물린 높은 관세」로 적었다. 그러나 그 관세가 금지에 맞먹고 국내 시장의 독점을 지주에게 안겨 준다는 앞뒤 논증으로 보면 들여올 때 물리는 관세이며, 다른 판본도 그렇게 적는다.

9. 옮긴이 — 톤수 장려금은 배의 적재량 1톤마다 얼마씩 나라가 주던 돈으로, 잡아 온 고기의 양과는 상관이 없었다.

10. 옮긴이 — 버스선은 그물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절이기까지 하는 갑판 있는 배다. 네덜란드의 청어잡이에서 온 배꼴이다.

11. 옮긴이 — 바닷절임 청어는 배에서 바로 소금에 절여 통에 담은 것이고, 상품 청어는 뭍에서 소금을 더 넣어 다시 담아 팔 수 있게 만든 것이다.

12.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13. 옮긴이 — 키더는 곡물을 사서 장으로 나르며 팔던 중간 상인이다. 4분기 재판은 한 주의 치안 판사들이 해마다 네 번 모여 열던 재판이므로, 치안 판사 세 사람이 처리하던 때보다 면허를 얻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14. 옮긴이 —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 일터이며, 같은 낱말이 구빈원을 가리키는 자리와는 다르다.

5장 — 장려금에 대하여 (이어서)

제조업자에게 금지된 일을 농부에게는 얼마쯤 떠맡으라고 명령했다. 곧 자본을 서로 다른 두 쓰임에 나누어, 한 몫은 시장이 그때그때 찾는 것을 대주려고 곳간과 낟가리 마당에 두고 나머지 몫은 제 땅을 갈고 가꾸는 데에 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의 몫을 농사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보다 적게 받고 쓸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의 몫을 상업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보다 적게 받고 쓰기도 그에게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다. 곡물 상인의 일을 실제로 꾸려 가는 자산이 농부라 불리는 사람의 것이든 곡물 상인이라 불리는 사람의 것이든, 그 임자가 자산을 그렇게 쓰는 값을 메워 주려면, 그의 일을 다른 거래와 나란한 자리에 놓으려면, 그리고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것을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게 하려면, 두 경우 모두 똑같은 이윤이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곡물 상인의 일까지 억지로 떠맡게 된 농부는,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곡물 상인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을 값보다 헐하게 제 곡물을 팔 수 없었다.

제 자산을 온통 한 갈래의 일에만 쓸 수 있는 거래인은, 제 노동을 온통 한 가지 손놀림에만 쓸 수 있는 일꾼과 같은 종류의 이점을 누린다. 뒤의 사람이 손재간을 얻어 같은 두 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의 사람은 제 일을 치르고 물건을 사들이고 처분하는 데에 그토록 쉽고 손에 익은 길을 얻어 같은 자본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한쪽이 대개 제 일감을

훨씬 더 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쪽도 대개 제 물건을 얼마쯤 더 헐하게 내놓을 수 있는데, 자산과 마음을 더 여러 가지 것에 함께 쓸 때보다 그렇다. 제조업자 가운데 대부분은 물건을 도매로 사들여 소매로 되파는 것만이 제 일인 부지런하고 눈 밝은 가게 주인만큼 헐하게 제 물건을 소매로 팔 수 없었을 것이다. 농부 가운데 대부분은, 곡물을 도매로 사들여 큰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소매로 파는 것만이 제 일인 부지런하고 눈 밝은 곡물 상인만큼 헐하게, 대부분의 농부에게서 어쩌면 4마일이나 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고을의 주민들에게 제 곡물을 소매로 팔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제조업자가 가게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한 법은 자산의 쓰임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저절로 될 것보다 더 빨리 가게 하려고 애썼다. 농부에게 곡물 상인의 일을 하라고 시킨 법은 그것이 그토록 빨리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썼다. 두 법은 모두 자연스러운 자유를 뻔히 어긴 것이었으므로 옳지 않았고, 둘 다 옳지 않은 만큼이나 어리석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억지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가로막아도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사회에나 이로운 바다. 제가 놓인 처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길로 제 노동이나 제 자산을 쓰는 사람은, 값을 깎아 팔아 이웃을 해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는 제 몸을 해칠 수 있고 실제로 대개 그렇게 한다. 온갖 일에 손대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속담이 말한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제 이익을 스스로 돌보게 맡겨야 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놓인 자리에서 입법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대개 그것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부에게 곡물 상인의 일을 하라고 시킨 법은 둘 가운데 훨씬 더 해로운 것이었다.

그 법은 어느 사회에나 그토록 이로운 자산 쓰임의 갈라짐만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량과 경작 또한 가로막았다. 농부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을 꾸려 가라고 시켰으니, 자본을 두 몫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하나만 경작에 쓰도록 억지로 밀어붙인 셈이다. 그러나 그가 타작한 곡물을 나오는 대로 곡물 상인에게 죄다 팔 수 있었다면, 그의 자본은 온통 곧바로 땅으로 돌아와 땅을 더 잘 개량하고 경작하려고 짐승을 더 사들이고 일손을 더 얻는 데에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곡물을 소매로 팔아야 했으므로 그는 자본의 큰 몫을 한 해 내내 곳간과 낟가리 마당에 두어야 했고, 따라서 같은 자본으로 달리 할 수 있었을 만큼 잘 경작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반드시 토지의 개량을 가로막았고, 곡물을 더 헐하게 만들기는커녕 반드시 곡물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더 드물게, 따라서 더 값비싸게 만들었을 것이다.

농부의 일 다음으로 곡물을 길러 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거래는, 알맞게 보호하고 북돋운다면 참으로 곡물 상인의 거래다. 그것은 도매 거래인의 거래가 제조업자의 거래를 받쳐 주는 것과 똑같이 농부의 거래를 받쳐 줄 것이다.

도매 거래인은 제조업자에게 곧 팔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고 그가 만들어 내는 대로 물건을 받아 가며, 더러는 그가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값을 미리 치러 주기까지 하여, 그가 제 자본을 온통, 더러는 제 자본보다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제조에 쓰게 해 주고 따라서 자기가 직접 마지막 소비자에게, 또는 소매 상인에게라도 물건을 처분해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게다가 도매 상인의 자본은 대개 여러 제조업자의 자본을 메워 줄 만큼 넉넉하므로, 그와 제조업자들 사이의 이런 오고 감은 큰 자본의 임자가 수많은 작은 자본의 임자들을 받쳐 주는 데에,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손실과 불운을 겪을 때 그들을 돕는 데에 마음을 쓰게 만든다.

농부들과 곡물 상인들 사이에 같은 종류의 오고 감이 두루 자리 잡는다면 농부들에게도 똑같이 이로운 효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들은 제

자본을 온통, 제 자본보다 더 많은 것까지도 끊임없이 경작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들의 거래만큼 휘말리기 쉬운 거래가 없는 그런 우연한 일이 닥칠 때면, 그들은 제 단골 손님인 넉넉한 곡물 상인에게서 자기들을 받쳐 줄 마음과 그럴 힘을 아울러 지닌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지주의 너그러움이나 그 관리인의 자비에 온통 매달리지는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될 수 없는 일이겠으나 이 오고 감을 두루, 그리고 한꺼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왕국의 농사 자산을 온통 한꺼번에 그 본디 일인 토지의 경작으로 돌리고 지금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새어 들어가 있는 다른 모든 쓰임에서 빼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큰 자산이 하는 일을 때에 따라 받치고 돕기 위하여 그와 거의 맞먹을 만큼 큰 또 하나의 자산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정의 바뀜만으로도 나라의 온 모습에 얼마나 큰, 얼마나 널리 미치는, 얼마나 갑작스러운 개량이 일어날지는 어쩌면 쉽게 떠올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6세의 법령은 기르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사이에 중간 상인이 끼어드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금하여, 자유롭게 하도록 놓아두면 흉년의 불편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처방일 뿐 아니라 그 재앙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이기도 한 거래를 아예 없애려고 애썼다. 농부의 거래 다음으로 곡물 상인의 거래만큼 곡물을 길러 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는 거래는 없다.

이 법의 가혹함은 그 뒤에 나온 여러 법령으로 누그러졌고, 그 법령들은 밀값이 1쿼터[1]에 20실링[2]과 24실링, 32실링과 40실링을 넘지 않을 때 곡물을 매점[3]하는 것을 차례로 허락했다. 마침내 「찰스 2세 치세 15년의 법 제7장」[4]으로,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을 넘지 않고 다른 곡물의 값도 그에 비례하는 동안에는 되팔려고 곡물을 매점하거나 사들이는 일이 선매하는 사람, 곧 석 달 안에 같은 시장에서 되파는

사람이 아닌 모든 이에게 법에 맞는 일이라고 선언되었다. 나라 안 곡물 거래인의 거래가 이제까지 누려 온 모든 자유는 이 법령이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매점하는 사람과 선매하는 사람을 막는 옛 법을 거의 모두 없앤 지금 국왕 치세 12년의 법은, 이 법령이 지운 제약만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아직도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사람들 사이에 퍼진 아주 터무니없는 두 가지 편견을 얼마쯤 뒷받침해 준다.

첫째, 이 법령은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이나 되도록 오르고 다른 곡물의 값도 그에 비례할 때에는 곡물이 사람들을 해칠 만큼 매점되기 쉽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로 미루어 보면, 나라 안 거래인들이 어떤 값에서도 사람들을 해칠 만큼 곡물을 매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넉넉히 뚜렷해 보인다. 게다가 1쿼터에 48실링은 아주 높은 값으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모자란 해에는 거둔 바로 뒤에 흔히 나타나는 값인데 그때는 새로 거둔 곡물 가운데 어느 몫도 팔려 나갔을 수가 거의 없으니, 그 가운데 어느 몫이 사람들을 해칠 만큼 매점될 수 있다고 여기기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이 법령은 곡물이 선매되기 쉬운, 곧 머지않아 같은 시장에서 되팔려고 사들여져 사람들을 해치기 쉬운 어떤 값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상인이 어느 특정한 시장으로 가는 곡물이든 어느 특정한 시장에 있는 곡물이든, 머지않아 같은 시장에서 되팔려고 사들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장이 그 특정한 때만큼 넉넉하게 한 철 내내 공급될 수 없다고, 따라서 값이 머지않아 올라야 한다고 그가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려서 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쓴 자산의 이윤을 온통 잃을 뿐 아니라, 곡물을 쌓아 두고 지키는 데에 반드시 따라붙는 비용과 손실로 자산 그 자체의 한 몫까지 잃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 특정한 장날에 스스로 사 두지 못하게 막힌 그 특정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에서 제 몸을 해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뒤에 다른 어느 장날에든 똑같이 헐하게 사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이 맞았다면 그는 사람들의 큰 몸뚱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 된다. 그들이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얼마쯤 이르게 흉년의 불편을 느끼게 함으로써, 값이 헐한 까닭에 그들이 그 철의 실제 모자람에 맞지 않을 만큼 빠르게 먹어 치우도록 북돋워졌을 때 뒤에 틀림없이 겪게 될 만큼 심하게 그것을 겪지 않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모자람이 실제로 있을 때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불편을 한 해의 여러 달과 주와 날에 될 수 있는 대로 고르게 나누는 것이다. 곡물 상인의 이익은 그가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게 만들며, 다른 어느 사람도 그만큼 정확하게 그것을 할 만한 이익도, 지식도, 능력도 지닐 수 없으므로, 상업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온전히 그에게 맡겨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곡물 거래는 적어도 국내 시장의 공급에 관한 한 온전히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한다.

매점과 선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술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세간의 마음에 견줄 만하다. 뒤의 죄로 몰린 불행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씌워진 불운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었던 것만큼이나, 앞의 죄로 몰린 사람들도 죄가 없다. 마술을 다스리는 모든 기소를 끝낸 법, 곧 누구든 이웃을 그 있지도 않은 죄로 몰아 제 악심을 채울 힘을 없애 버린 법은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북돋우고 받쳐 준 큰 원인을 없앰으로써 그것을 실제로 끝낸 듯하다. 나라 안 곡물 거래에 온전한 자유를 되돌려 줄 법도 매점과 선매에 대한 세간의 두려움을 끝내는 데에 그만큼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찰스 2세 치세 15년의 법 제7장」은 온갖 흠이 있음에도, 국내 시장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일에나 갈이를 늘리는 일에나 어쩌면 법령집에 실린 다른 어떤 법보다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나라 안 곡물 거래가 이제까지 누려 온 모든 자유와 보호는 이 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공급이든 갈이의 이익이든, 수입 거래나 수출 거래보다 나라 안 거래로 훨씬 더 효험 있게 북돋워진다.

영국으로 들여오는 온갖 곡물의 평균 양이 소비되는 온갖 곡물의 양에 대하여 갖는 비율은 『곡물 거래론』[5]을 쓴 이가 셈한 바로는 57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 시장을 공급하는 일에서 나라 안 거래의 중요함은 수입 거래의 중요함에 대하여 570 대 1이 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내보내는 온갖 곡물의 평균 양은 같은 사람의 말로는 연간 생산물의 31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 생산물에 시장을 마련하여 갈이를 북돋우는 일에서 나라 안 거래의 중요함은 수출 거래의 중요함에 대하여 30 대 1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정치 산술을 크게 믿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셈이 정확하다고 보증할 뜻도 없다. 가장 사리 밝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보아 곡물의 외국 거래가 국내 거래보다 얼마나 덜 중요한지를 보이려고 그것을 들었을 뿐이다. 장려금이 자리 잡기 바로 앞선 여러 해에 곡물이 몹시 헐했던 것은, 어쩌면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그보다 25년쯤 앞서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 효과를 낼 넉넉한 시간이 있었던 이 찰스 2세의 법령이 한 일로 얼마쯤 돌려도 될 것이다.

곡물 거래의 나머지 세 갈래에 관하여 내가 할 말은 아주 몇 마디로 넉넉히 밝힐 수 있다.

Ⅱ. 나라 안에서 쓸 외국 곡물을 들여오는 상인의 거래는 국내 시장의 당장의 공급에 뻔히 이바지하며, 그러한 만큼 사람들의 큰 몸뚱이에 곧바로 이로울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을 얼마쯤

내리는 쪽으로 기울기는 하나, 곡물의 실질 가치나 그것이 부양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을 줄이지는 않는다. 들여오는 것이 언제나 자유로웠다면 우리 농부와 시골 양반들은 해를 이어 셈해 볼 때, 들여오는 것이 거의 언제나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지금보다 제 곡물로 받는 돈이 아마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돈은 가치가 더 컸을 터이고 다른 온갖 종류의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터이며 더 많은 노동을 부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질 부와 실질 수입은 지금과 같았을 터이며, 다만 더 적은 양의 은으로 나타내어졌을 뿐이고, 그들이 지금 하는 만큼 곡물을 경작할 힘을 잃지도 그럴 마음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곡물의 화폐 가격이 내려간 결과로 은의 실질 가치가 오르면 다른 모든 상품의 화폐 가격도 얼마쯤 내려가므로, 그 일이 일어나는 나라의 산업에 모든 외국 시장에서 얼마쯤 이점을 주게 되고 따라서 그 산업을 북돋우고 늘리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곡물의 국내 시장의 크기는 곡물이 자라는 나라의 산업 전반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 곧 다른 무엇을 만들어 내어 따라서 다른 무엇을, 또는 같은 말이 되는 다른 무엇의 값을 곡물과 바꾸어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국내 시장은 가장 가깝고 가장 손쉬운 시장인 만큼 곡물에는 또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므로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이 내려간 결과인 은의 실질 가치의 그 오름은 곡물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을 넓히는 쪽으로 기울며, 따라서 곡물을 기르는 것을 막기는커녕 북돋우는 쪽으로 기운다.

「찰스 2세 치세 22년의 법 제13장」으로, 국내 시장의 값이 1쿼터에 53실링 4펜스를 넘지 않을 때에는 밀을 들여오는 데에 1쿼터마다 16실링의 관세가 매겨졌고, 값이 4파운드를 넘지 않을 때에는 8실링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 두 값 가운데 앞의 것은 지난 백 년이 넘는 동안 몹시 크게 모자란 때에만 나타났고, 뒤의 것은 내가 아는 한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밀이 이 뒤의 값 위로 오르기까지는 이 법령으로 아주 높은 관세가 매겨졌고, 앞의 값 위로 오르기까지는 금지나 마찬가지인 관세가 매겨졌다. 다른 종류의 곡물을 들여오는 것도 곡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거의 똑같이 높은 값과 관세로 제약되었다. 지금 국왕 치세 13년의 법 앞에는 여러 종류의 곡물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관세가 다음과 같았다.

곡물. 관세. 관세 관세.

콩 28실링까지 1쿼터마다 19실링 10펜스, 그 뒤 40실링까지 16실링 8펜스, 그다음 12펜스.

보리 28실링까지 - 19실링 10펜스 - 32실링 16실링 - 12펜스.

엿기름은 해마다 나오는 엿기름세 법안으로 금지된다.

귀리 16실링까지 - 5실링 10펜스, 그 뒤 - 9½펜스.

완두 40실링까지 - 16실링 0펜스, 그 뒤 - 9¾펜스.

호밀 36실링까지 - 19실링 10펜스, 40실링까지 16실링 8펜스 - 12펜스.

밀 44실링까지 - 21실링 9펜스, 53실링 4펜스까지 17실링 - 8실링.

4파운드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1실링 4펜스쯤.

메밀 1쿼터에 32실링까지 16실링을 낸다.

이 여러 관세는 얼마쯤은 옛 보조세[6] 대신에 「찰스 2세 치세 22년의 법」으로, 얼마쯤은 새 보조세로, 3분의 1 보조세와 3분의 2 보조세로, 그리고 1747년 보조세로 매겨졌다. 뒤에 나온 법들이 그 관세를 더욱 올렸다.

모자란 해에 그 법들을 엄하게 집행했더라면 사람들에게 가져왔을 괴로움은 아마 몹시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대개 한동안 외국 곡물을 들여오도록 허락하는 한시 법령으로 그 집행이 멈추어졌다. 이런

한시 법령이 있어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일반 법령이 옳지 않았음이 넉넉히 드러난다.

들여오는 것에 씌운 이 제약은 장려금이 자리 잡기에 앞선 것이었으나, 뒤에 그 규정을 만들게 한 것과 똑같은 정신, 똑같은 원리가 부른 것이었다. 이 제약이나 들여오는 것에 씌운 다른 어떤 제약이 그 자체로 아무리 해롭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결과로 그것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밀이 1쿼터에 48실링 아래이거나 그보다 크게 높지 않을 때에 외국 곡물을 관세 없이, 또는 작은 관세만 내고 들여올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장려금의 혜택을 받아 다시 내보내져 나라의 세입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제도를 온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제도의 목적은 국내에서 기른 것의 시장을 넓히는 것이었고 외국에서 기른 것의 시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Ⅲ. 외국에서 쓸 곡물을 내보내는 상인의 거래는 국내 시장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데에 곧바로 이바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에둘러서는 이바지한다. 이 공급이 국내에서 기른 것에서 나오든 외국에서 들여온 것에서 나오든 그 근원이 어디든, 나라 안에서 대개 소비되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이 대개 길러지거나 대개 들여오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의 공급은 결코 몹시 넉넉할 수 없다. 그런데 남은 것을 여느 경우에 모두 내보낼 수 없다면 기르는 사람은 국내 시장의 맨 소비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르지 않으려고, 들여오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들여오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다. 그 시장은 넘치게 차는 일이 몹시 드물고 대개는 모자라게 찰 것인데, 그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 물건이 손에 남을까 대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보내는 것을 금하면 나라의 개량과 경작이 나라 안 주민의 공급에 필요한 만큼으로 한정된다. 내보내는 것이 자유로우면 외국 사람들의 공급을 위해서까지 경작을 넓힐 수 있다.

「찰스 2세 치세 12년의 법 제4장」으로 밀값이 1쿼터에 40실링을 넘지 않고 다른 곡물의 값도 그에 비례할 때에는 곡물을 내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같은 국왕 치세 15년의 법으로 이 자유는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을 넘을 때까지로 늘어났고, 치세 22년의 법으로 그보다 높은 모든 값으로까지 늘어났다. 참으로 그렇게 내보낼 때에는 국왕에게 파운드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관세 평가표에 모든 곡물이 그토록 낮게 매겨져 있었으므로 이 파운드세는 1쿼터에 밀은 1실링, 귀리는 4펜스, 그 밖의 모든 곡물은 6펜스에 그쳤다. 이 장려금을 세운 법인 「윌리엄과 메리 치세 1년의 법」으로 이 작은 관세는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을 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벗겨졌고, 「윌리엄 3세 치세 11년과 12년의 법 제20장」으로는 그보다 높은 모든 값에서도 분명하게 벗겨졌다.

이리하여 내보내는 상인의 거래는 장려금으로 북돋워졌을 뿐 아니라 나라 안 거래인의 거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다. 이 법령 가운데 마지막 것으로 곡물은 내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에서도 매점될 수 있었으나, 나라 안에서 팔기 위해서는 값이 1쿼터에 48실링을 넘지 않을 때가 아니면 매점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라 안 거래인의 이익은 사람들의 큰 몸뚱이의 이익과 결코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였다. 내보내는 상인의 이익은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더러 그러하다. 제 나라가 흉년에 시달리는 동안에 이웃 나라가 기근에 짓눌린다면, 그로서는 흉년의 재앙을 몹시 크게 키울 만한 양의 곡물을 그 뒤의 나라로 실어 가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국내 시장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것은 그 법령들의 곧바른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농업을 북돋운다는 구실 아래 곡물의 화폐 가격을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올리고, 그리하여 국내 시장에 될 수 있는 대로 흉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들여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시장의 공급은 크게 모자란 때에도 국내에서 기른 것에 한정되었고, 값이 1쿼터에 48실링이나 되도록 높을 때 내보내는 것을

북돋움으로써 그 시장은 꽤 크게 모자란 때에도 국내에서 기른 것 전부를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한동안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금하고 한동안 그것을 들여오는 데 붙는 관세를 벗기는 한시 법들, 영국이 그토록 잦게 붙들어야 했던 그 임시 방편들이야말로 영국의 일반 체계가 옳지 않았음을 넉넉히 드러낸다. 그 체계가 좋았다면 영국이 그것을 그토록 잦게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로운 수출과 자유로운 수입이라는 너그러운 체계를 따른다면, 하나의 큰 대륙이 갈라져 있는 여러 나라는 그러한 만큼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는 여러 속주와 닮아진다.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는 여러 속주 사이에서 나라 안 거래의 자유가 이치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흉년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처방일 뿐 아니라 기근을 막는 가장 효험 있는 예방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대륙이 갈라져 있는 여러 나라 사이에서도 수출과 수입 거래의 자유가 그러할 것이다. 대륙이 클수록, 그리고 땅으로나 물로나 그 여러 부분을 오가는 길이 쉬울수록,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이 두 재앙 가운데 어느 것에도 덜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어느 한 나라의 모자람이 다른 어느 나라의 넉넉함으로 덜어질 가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너그러운 체계를 온전히 받아들인 나라는 아주 드물다. 곡물 거래의 자유는 거의 어디서나 이럭저럭 제약되어 있고, 많은 나라에서는 흉년의 피할 수 없는 불행을 기근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잦게 키워 놓는 그런 터무니없는 규정에 갇혀 있다. 그런 나라들의 곡물 수요는 잦게 그토록 크고 그토록 다급해질 수 있어서,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가 마침 그와 함께 얼마쯤 흉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 자신을 그와 같은 무서운 재앙에 내놓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대주는 일을 감히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한 나라의 몹시 나쁜 행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저절로 가장 좋은 행정이 되었을 것을 세우는 일을 얼마쯤 위험하고 조심성 없는 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내보내는 것을 아무 한정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큰 나라에서는 훨씬 덜 위험할 터인데, 기르는 양이 훨씬 더 커서 내보내질 만한 어떤 양의 곡물로도 공급이 크게 흔들릴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어느 주에서나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 몇몇에서는 어쩌면 더러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제약해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나 잉글랜드 같은 큰 나라에서는 좀처럼 그럴 수 없다. 게다가 농부가 언제든 가장 좋은 시장으로 제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의의 예사로운 법을 공공의 유익이라는 생각에, 곧 일종의 국가 이유에 뻔히 내던지는 것이다. 이는 가장 다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휘둘러야 하고 그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입법 권한의 행사다. 곡물을 내보내는 것을 금하는 값은, 그것을 굳이 금해야 한다면 언제나 아주 높은 값이어야 한다.

곡물에 관한 법은 어디서나 종교에 관한 법에 견줄 만하다. 사람들은 이승에서 제 생계에 걸린 일이나 다음 생에서 제 행복에 걸린 일에 저 자신이 그토록 깊이 얽혀 있다고 느끼므로, 정부는 그들의 편견에 굽히고 공공의 평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 두 가지 으뜸되는 일에 관하여 사리에 맞는 체계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그토록 드물게 보는 것은 어쩌면 이 까닭일 것이다.

Ⅳ. 중계 상인의 거래, 곧 다시 내보내려고 외국 곡물을 들여오는 사람의 거래는 국내 시장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참으로 그의 곡물을 그곳에서 파는 것이 그 거래의 곧바른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대개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터이며, 외국 시장에서 바랄 만한 것보다 꽤 적은 돈을 받고도 그러할 것인데, 이렇게 하여 싣고 내리는 비용과 뱃삯과 보험료를 아끼기 때문이다. 중계 무역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대주는 창고와 저장고가 된 나라의 주민들은 저희가 모자라게 되는 일이 좀처럼 없다. 그러므로 중계 무역은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곡물의 평균 화폐 가격을 낮추는 데에 이바지할 터이나, 그럼으로써 곡물의 실질 가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은의 실질 가치를 얼마쯤 올릴 뿐이다.

중계 무역은 영국에서 여느 때에는 외국 곡물을 들여오는 데 붙는 높은 관세로 사실상 금지되었는데, 그 관세는 큰 몫에 관세 환급이 없었다. 그리고 모자람 때문에 한시 법령으로 그 관세를 멈추어야 했던 남다른 때에는 내보내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체계로 중계 무역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장려금이 자리 잡은 일과 이어져 있는 그 법의 체계는 그것에 베풀어진 찬사를 어느 몫도 받을 만하지 않아 보인다. 그 법들에 그토록 잦게 돌려진 영국의 개량과 번영은 다른 원인으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람마다 제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하리라고 영국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안전만으로도, 이런 것들과 그 밖의 스무 가지 터무니없는 상업 규정이 있음에도 어느 나라든 번성하게 하기에 넉넉하다. 그리고 이 안전은 장려금이 자리 잡은 것과 거의 같은 때에 명예혁명[7]으로 온전해졌다. 사람마다 제 처지를 낫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애씀은, 자유와 안전 속에서 저 스스로 펼쳐지도록 놓아두면 그토록 힘센 원리여서, 그것만으로 아무 도움 없이도 사회를 부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의 어리석음이 그 일을 너무나 잦게 짓눌러 놓는 백 가지 되지못한 가로막음을 넘어설 수 있다. 물론 그 가로막음의 효과는 언제나 이럭저럭 그 자유를 침범하거나 그 안전을 줄이는 것이다. 영국에서 근면은 온전히 안전하다. 그리고 온전히 자유롭기에는 아직 멀지만, 유럽의 다른 어느 곳에서와 견주어도 그만큼 자유롭거나 더 자유롭다.

영국의 가장 큰 번영과 개량의 시기가 장려금과 이어져 있는 그 법의 체계보다 뒤에 왔다고 하여, 그 까닭으로 그것을 그 법들에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라의 빚보다도 뒤에 왔으나, 나라의 빚이 그 원인이 아니었음은 아주 틀림없다.

장려금과 이어져 있는 그 법의 체계가 그것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귀금속의 가치를 얼마쯤 내린다는 점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행과 똑같은 쪽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넉넉한 나라의 하나임이 틀림없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쩌면 가장 헐벗은 나라에 든다. 그러나 이 처지의 다름은 서로 다른 두 원인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금과 은을 내보내는 데에 스페인이 매긴 세와 포르투갈이 내린 금지,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을 살피는 눈 밝은 행정은, 두 나라가 합하여 해마다 600만 스털링이 넘게 들여오는 몹시 가난한 두 나라에서 곡물법이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곧바로, 그리고 훨씬 더 세게 그 금속의 가치를 그곳에서 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째로 이 나쁜 행정은 그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두루 누리는 자유와 안전으로 맞받쳐지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근면이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세속 정부와 교회 정부는, 그 상업 규정이 지금 그 대부분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과는 반대로 아주 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나라들의 지금 같은 가난한 상태를 길이 이어 가게 하기에 넉넉할 만한 것이다.

「지금 국왕 치세 13년의 법 제43장」은 곡물법에 관하여 여러 점에서 옛것보다 나은, 그러나 한두 점에서는 어쩌면 그만큼 좋지 않은 새 체계를 세운 듯하다.

이 법령으로 중등품 밀값이 1쿼터에 48실링까지, 중등품 호밀과 완두와 콩의 값이 32실링까지, 보리 값이 24실링까지, 귀리 값이 16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나라 안에서 쓸 것을 들여오는 데 붙는 높은 관세가 벗겨지고, 그 대신 밀 1쿼터에 6펜스, 그 밖의 곡물에도 그에 비례하는 작은 관세만 매겨진다. 그 여러 종류의 곡물 모두에 관하여,

특히 밀에 관하여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앞서보다 꽤 낮은 값에서 외국의 공급에 열린다.

같은 법령으로 밀을 내보내는 데에 주던 5실링의 옛 장려금은 값이 1쿼터에 44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그치는데, 앞서 그것이 그쳤던 값은 48실링이었다. 보리를 내보내는 데에 주던 2실링 6펜스의 장려금은 값이 22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그치는데, 앞서는 24실링에서 그쳤다. 오트밀을 내보내는 데에 주던 2실링 6펜스의 장려금은 값이 14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그치는데, 앞서 그것이 그쳤던 값은 15실링이었다. 호밀에 주는 장려금은 3실링 6펜스에서 3실링으로 줄고, 값이 28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그치는데 앞서는 32실링에서 그쳤다. 내가 애써 밝히려 한 대로 장려금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빨리 그칠수록, 그리고 낮을수록 그만큼 더 좋다.

같은 법령은 가장 낮은 값에서도 다시 내보내려고 곡물을 들여오는 것을 관세 없이 허락하는데, 그동안 국왕과 수입업자가 함께 채운 자물쇠 아래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8] 참으로 이 자유는 영국의 여러 항구 가운데 25곳에만 미친다. 그러나 그 항구들은 으뜸되는 것들이며, 나머지 대부분에는 어쩌면 이 일에 알맞은 창고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 법은 옛 체계보다 나아진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으로 귀리를 내보내는 데에 값이 14실링을 넘지 않을 때면 1쿼터에 2실링의 장려금이 주어진다. 이 곡물을 내보내는 데에는 그 앞에 아무 장려금도 주어진 적이 없었고, 완두나 콩을 내보내는 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 같은 법으로 밀을 내보내는 것은 값이 1쿼터에 44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금지되고, 호밀은 28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보리는 22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귀리는 14실링까지 오르는 대로 금지된다. 이 여러 값은

모두 꽤 많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내보내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주었던 그 장려금이 거두어지는 바로 그 값에서 내보내는 것을 아예 금하는 데에도 옳지 않은 점이 있어 보인다. 장려금은 틀림없이 훨씬 더 낮은 값에서 거두어졌어야 했거나, 아니면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값에서 허락되었어야 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 법은 옛 체계보다 못해 보인다. 그러나 온갖 흠이 있음에도 우리는 어쩌면 솔론의 법[9]에 대하여 이야기된 것을 이 법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나 그 시대의 이익과 편견과 기질이 허락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것은 어쩌면 때가 되면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길을 닦아 줄지도 모른다.

6장 — 통상 조약에 대하여

어느 나라가 조약으로 저를 얽어매어, 다른 모든 나라에는 금하는 어떤 물건을 한 외국에서만 들어오게 허락하거나 다른 모든 나라의 물건에는 매기는 관세를 한 나라의 물건에만 면해 주면, 그렇게 그 상업이 우대받는 나라, 적어도 그 나라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반드시 그 조약에서 큰 이득을 얻는다. 그 상인과 제조업자는 그렇게 저희에게 너그러운 나라에서 일종의 독점을 누린다. 그 나라는 그들의 물건에 더 넓고 더 이로운 시장이 된다. 더 넓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물건이 쫓겨나거나 더 무거운 관세를 지게 되니 그들의 물건을 더 많이 받아 가기 때문이고, 더 이롭다는 것은 우대받는 나라의 상인이 그곳에서 일종의 독점을 누리니 다른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경쟁에 드러나 있을 때보다 잦게 제 물건을 더 좋은 값에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약은 우대받는 나라의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는 이로울 수 있으나, 우대하는 나라의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는 반드시

해롭다. 이리하여 그들을 거스르는 독점이 한 외국에 주어지며, 그들은 제게 필요한 외국 물건을 다른 나라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허락되었을 때보다 잦게 더 값비싸게 사야 한다. 그러한 나라가 외국 물건을 사는 데에 내놓는 제 생산물의 몫은 따라서 더 헐하게 팔려야 하는데, 두 가지가 서로 바뀔 때 한쪽이 헐한 것은 다른 쪽이 값비싼 것의 반드시 따르는 결과이거나 차라리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그러한 조약 하나하나로 줄어들기 쉽다. 그러나 이 줄어듦이 확실한 손실이 되기는 어렵고, 저절로 얻었을 이득이 적어지는 것에 그칠 뿐이다. 제 물건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헐하게 팔더라도, 아마 그것이 든 값보다 적게 받고 팔지는 않을 터이며, 장려금의 경우처럼 그것을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쓴 자본과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을 함께 메우지 못할 값에 팔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거래는 오래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대하는 나라라 해도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때보다는 적으나 그 거래로 여전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통상 조약은 이와는 아주 다른 원리에서 이롭다고 여겨져 왔다. 어떤 상업 국가가 한 외국의 어떤 물건에 이런 종류의 독점을 저를 거스르며 허락해 준 일이 더러 있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상업 전체에서 저희가 해마다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팔게 되고 따라서 금과 은의 차액이 해마다 저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1703년에 메수엔 씨가 맺은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사이의 통상 조약[10]이 그토록 크게 기려져 온 것은 이 원리에서다. 다음은 세 조항으로만 된 그 조약을 낱말대로 옮긴 것이다.

제1조. 포르투갈의 신성한 국왕 폐하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도 그 뒤를 잇는 이들의 이름으로도, 영국의 모직 옷감과 그 밖의 모직 제조품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까지 그러했던 대로 앞으로 언제까지나 포르투갈로 들어오게 허락하기를 약속한다. 다만 다음 조건 아래에서 그러하다.

제2조. 곧 영국의 신성한 여왕 폐하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도 그 뒤를 잇는 이들의 이름으로도, 포르투갈에서 자란 포도주가 영국으로 들어오게 허락할 의무를 앞으로 언제까지나 진다. 그리하여 영국과 프랑스 두 왕국 사이에 평화가 있든 전쟁이 있든 어느 때에도, 그 포도주가 영국으로 파이프통이나 호그즈헤드통이나 그 밖의 통에 담겨 들어오든, 관세나 세라는 이름으로든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든, 곧바로든 에둘러서든, 같은 양이나 같은 되의 프랑스 포도주에 요구되는 것에서 관세나 세의 3분의 1을 덜어 내거나 깎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포도주에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해야 하는 이 관세의 덜어 냄이나 깎음이 어느 때에든 어떻게든 흔들리고 해쳐진다면, 포르투갈의 신성한 국왕 폐하가 영국의 모직 옷감과 그 밖의 모직 제조품을 다시 금하는 것이 옳고 법에 맞는 일이 된다.

제3조. 가장 뛰어난 전권 대사 어른들은 위에 이름을 적은 저희 주인들이 이 조약을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을 제 몫으로 떠맡으며, 두 달 안에 비준서를 주고받기로 한다.

이 조약으로 포르투갈의 왕실은 잉글랜드 모직물을 금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곧 그전에 내던 관세를 올리지 않고 들어오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테면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나은 조건으로 그것을 들어오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영국의 왕실은 포르투갈의 포도주를, 그와 경쟁하게 될 가망이 가장 큰 프랑스 포도주에 매겨지는 관세의 3분의 2만 받고 들어오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 조약은 포르투갈에는 이롭고 영국에는 해로운 것이 뻔하다.

그러나 그것은 잉글랜드의 상업 행정이 낸 걸작으로 기려져 왔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에서 해마다 제 나라 안의 상업에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을 받아들이는데, 주화의 꼴로든 금은 그릇의 꼴로든 그러하다. 남은 것은 값진 것이라 놀려 두고 금고에 잠가 둘 수 없으며, 나라 안에서 이로운 시장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떤 금지가 있더라도 밖으로 보내져 나라 안에서 더 이로운 시장이 있는 무엇과 바뀔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큰 몫이 해마다 잉글랜드로 오는데, 잉글랜드의 물건값으로든 잉글랜드를 거쳐 회수를 받는 다른 유럽 나라들의 물건값으로든 그러하다. 바레티 씨[11]는 리스본에서 오는 주마다의 우편선이 주를 이어 셈해 볼 때 5만 파운드가 넘는 금을 잉글랜드로 실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액수는 아마 부풀려진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해에 260만 파운드가 넘을 터인데, 이는 브라질이 내준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많다.

우리 상인들은 몇 해 전에 포르투갈 왕실에 언짢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조약으로가 아니라 그 왕실이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주었던 어떤 특권이, 참으로 아마 그들이 청하였고 영국 왕실이 베푼 훨씬 더 큰 은혜, 곧 방어와 보호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졌던 그 특권이 침범되거나 거두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포르투갈 거래를 기리는 데에 누구보다 이해가 걸려 있던 사람들이 그때는 그것을 여느 때 여겨져 온 것보다 덜 이롭다고 말하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해마다 들어오는 이 금 가운데 훨씬 더 큰 몫, 거의 그 전부가 영국 몫이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의 몫이며, 포르투갈에서 해마다 영국으로 들여오는 과일과 포도주가 그곳으로 보내는 영국 물건의 가치를 거의 메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영국 몫이었고 그 액수가 바레티 씨가 여긴 듯한 것보다도 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더라도 이 거래는 그 까닭으로, 같은

가치를 내보내어 같은 가치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 오는 다른 어느 거래보다 더 이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여오는 것 가운데 왕국의 금은 그릇에든 주화에든 해마다 보태지는 데에 쓰인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몫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보내져 이런저런 종류의 소비할 수 있는 물건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잉글랜드 산업이 낸 생산물로 곧바로 샀더라면, 그 생산물로 먼저 포르투갈의 금을 사고 그 금으로 뒤에 그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잉글랜드에 더 이로웠을 것이다.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거래는 언제나 에두르는 것보다 더 이로우며, 같은 가치의 외국 물건을 국내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에 앞의 길로는 뒤의 길로보다 훨씬 더 적은 자본이 든다. 그러므로 그 산업 가운데 더 작은 몫이 포르투갈 시장에 알맞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쓰이고 더 큰 몫이, 영국에서 수요가 있는 그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장에 알맞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쓰였더라면 잉글랜드에 더 이로웠을 것이다. 제 나라에서 쓰려고 하는 금과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아울러 마련하는 데에 이 길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자본이 든다. 그러므로 남는 자본이 생겨 다른 목적에, 곧 산업을 더 많이 일으키고 더 큰 연간 생산물을 길러 내는 데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 포르투갈 거래에서 온통 쫓겨난다 하더라도, 금은 그릇에 쓰려는 것이든 주화에 쓰려는 것이든 외국 거래에 쓰려는 것이든 제게 필요한 해마다의 금 공급을 모두 마련하는 데에 거의 아무 어려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금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내놓을 값어치를 지닌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든 그 값어치로 얻어질 수 있다. 게다가 포르투갈에 해마다 남는 금은 여전히 밖으로 보내질 터이며, 영국이 실어 가지 않는다 해도 다른 어느 나라가 실어 갈

터인데, 그 나라는 영국이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제 값에 되팔기를 반가워할 것이다. 참으로 포르투갈에서 금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첫 손에서 산다. 그에 비하여 스페인을 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산다면 두 번째 손에서 사는 것이 되어 얼마쯤 더 값비싸게 치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차이는 나라가 눈여겨볼 만하기에는 틀림없이 너무 하찮을 것이다.

우리 금은 거의 모두 포르투갈에서 온다고 이야기된다. 다른 나라들과는 무역 차액이 우리에게 거스르거나 우리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에서 금을 더 많이 들여올수록 다른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더 적게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 금에 대한 유효 수요는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양에 한정되어 있다. 이 양의 10분의 9를 한 나라에서 들여온다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들여올 것은 10분의 1만 남는다. 게다가 어떤 특정한 나라들에서 금은 그릇과 주화에 필요한 것 위로 해마다 더 많은 금을 들여올수록, 다른 어떤 나라들로 반드시 더 많은 금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요즘 행정의 그 가장 하찮은 목표인 무역 차액이 어떤 특정한 나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리해 보일수록,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포르투갈 거래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지난 전쟁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욕이나 도발이 있었다고 내세우지도 않고서 포르투갈 국왕에게 영국의 모든 배를 그 항구에서 내쫓으라고, 그리고 그 내쫓음을 지키기 위하여 프랑스나 스페인의 수비대를 그 항구에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12] 포르투갈 국왕이 그의 처남인 스페인 국왕이 내놓은 그 부끄러운 조건에 굽혔더라면, 영국은 포르투갈 거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편, 곧 몹시 약한 동맹을 떠받치는 짐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그 동맹은 제 몸을 지킬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여, 잉글랜드의 온 힘을 그 한 가지 목적에만 돌렸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싸움을 치르는 동안 그를 지켜내기가 어쩌면 어려웠다. 포르투갈 거래를 잃는 것은 그때 그 거래에 몸담고 있던 상인들에게 틀림없이 꽤 큰 낭패를 안겼을 터이고, 그들은 어쩌면 한두 해 동안 제 자본을 쓸 다른 어떤 똑같이 이로운 길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저 이름난 상업 행정으로 겪을 수 있었던 불편이란 아마 이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금과 은을 해마다 크게 들여오는 것은 금은 그릇을 위한 것도 주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외국 거래를 위한 것이다. 소비를 위하여 에두르는 외국 거래는 다른 거의 어떤 물건보다 이 금속으로 더 이롭게 꾸려 갈 수 있다. 그것은 두루 쓰이는 상업의 도구이므로 다른 어떤 물건보다 모든 상품의 값으로 더 선선히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부피가 작고 가치가 큰 까닭으로 다른 거의 어떤 종류의 상품보다 그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가며 옮기는 데 값이 덜 들고, 그렇게 옮겨져도 가치를 덜 잃는다. 그러므로 한 외국에서 사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물건으로 되팔거나 바꾸기 위한 것 말고는 다른 아무 목적이 없는 모든 상품 가운데 금과 은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영국에서 꾸려 가는 소비를 위한 온갖 에두르는 외국 거래를 쉽게 해 주는 데에 포르투갈 거래의 으뜸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으뜸으로 꼽을 이점은 아니나 틀림없이 꽤 큰 이점이다.

왕국의 금은 그릇에든 주화에든 해마다 보태진다고 사리에 맞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도 금과 은을 해마다 아주 조금만 들여오면 되게 한다는 것은 넉넉히 뚜렷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포르투갈과 곧바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작은 양은 늘 어디서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금장이의 일이 꽤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해마다 파는 새 금은 그릇 가운데 훨씬 더 큰 몫은 다른 낡은 그릇을 녹여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왕국의 금은 그릇 전체에 해마다 보태지는 것은 크지 않을 터이며, 해마다 아주 조금만 들여오면 되었을 것이다.

주화도 사정이 같다. 지난번 금화 개조 앞에 열 해를 이어 금으로 한 해에 80만 파운드가 넘었던 해마다의 주조 가운데 큰 몫이라도 왕국에 이미 돌던 화폐에 해마다 보태진 것이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믿기로는 아무도 없다. 주조 비용을 정부가 대는 나라에서는 주화가 금과 은의 법정 무게를 온전히 갖추었을 때에도 그 가치가 주조되지 않은 같은 양의 그 금속의 가치보다 크게 더할 수 없는데, 어떤 양의 주조되지 않은 금과 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양의 주화를 얻으려면 조폐국까지 가는 수고와 어쩌면 몇 주일의 기다림만 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돌고 있는 주화의 큰 몫은 거의 언제나 이럭저럭 닳아 있거나 달리 법정 품위에서 떨어져 있다. 영국에서도 지난번 개조 앞에는 꽤 그러하여, 금은 법정 무게보다 2퍼센트가 넘게, 은은 8퍼센트가 넘게 모자랐다. 그런데 법정 무게를 온전히 갖추어 금 1파운드(무게)가 되는 44기니[13] 반이 주조되지 않은 금 1파운드(무게)보다 아주 조금밖에 더 살 수 없었다면, 무게의 한 몫이 모자라는 44기니 반으로는 1파운드(무게)를 살 수 없었을 터이고 그 모자람을 메우려고 무엇을 보태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금덩이의 그때 값은 조폐국 가격인 46파운드 14실링 6펜스와 같지 않고 47파운드 14실링쯤이었으며 더러는 48파운드쯤이었다. 그러나 주화의 큰 몫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는 조폐국에서 갓 나온 44기니 반도 다른 여느 기니보다 시장에서 물건을 더 살 수 없었는데, 그것이 상인의 금고에 들어가면 다른 돈과 섞여서 그 뒤로는 그 차이가 값어치 있을 만큼의 수고를 더 들이지 않고서는 가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기니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46파운드 14실링 6펜스밖에 값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이는 가마에 던져 넣으면 그것은 느낄 만한 손실 없이 법정 품위의 금 1파운드(무게)를 냈고, 그것은 언제든 47파운드 14실링에서 48파운드 사이의 값으로 금으로든 은으로든 팔릴 수 있었으며 녹여 버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화의 모든 쓰임에 알맞았다. 그러므로 갓 주조된 돈을 녹이는 데에 뻔한 이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한순간에 이루어져 정부의 어떤 조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까닭으로 조폐국이 하는 일은 페넬로페의 베와 얼마쯤 닮아서, 낮에 해 놓은 일이 밤에 풀어졌다. 조폐국은 주화에 날마다 보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날마다 녹아 없어지는 그 가장 좋은 몫을 메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금과 은을 조폐국으로 가져가는 개인들이 주조 비용을 제 손으로 치른다면, 그것은 세공이 금은 그릇의 가치에 보태는 것과 똑같이 그 금속의 가치에 보탤 것이다. 주조된 금과 은은 주조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값지게 된다. 주조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다면 그것은 그 세의 온 가치를 금덩이에 보탤 터인데, 정부가 어디서나 주조하는 독차지 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주화도 정부가 알맞다고 여겨 내주는 것보다 헐하게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세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곧 주조에 필요한 노동과 비용의 실질 가치보다 몹시 크게 높다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위조하는 자들이 금덩이의 가치와 주화의 가치 사이의 큰 차이에 마음이 끌려 정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만큼 많은 양의 가짜 돈을 쏟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주조 수수료가 8퍼센트인데도 이런 종류의 느낄 만한 불편이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조하는 자가 제가 주화를 위조하는 나라에 산다면 그 자신이, 외국에 산다면 그

대리인이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마주하게 되는 위험은 6퍼센트나 7퍼센트의 이윤을 노려 무릅쓰기에는 훨씬 너무 크다.

프랑스의 주조 수수료는 주화의 가치를 그 안에 든 순금의 양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린다. 그리하여 1726년 1월의 칙령으로 24캐럿 순금의 조폐국 가격은 파리 온스로 8온스가 되는 마르크마다 740리브르 9수 1드니에와 11분의 1로 정해졌다.[14] {『화폐 사전』 제2권 「주조 수수료」 항목 439쪽 81항을 보라. 아보 드 바징겐, 파리 화폐 법원의 참사관 겸 위원.} 프랑스의 금화는 조폐국의 허용 오차를 헤아려 주면 21캐럿과 4분의 3의 순금과 2캐럿 4분의 1의 섞임쇠를 지닌다. 그러므로 법정 품위의 금 1마르크는 671리브르 10드니에쯤밖에 값하지 않는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법정 품위의 금 1마르크는 24리브르짜리 루이도르 30개, 곧 720리브르로 주조된다. 그러므로 주조는 법정 품위의 금덩이 1마르크의 가치를 671리브르 10드니에와 720리브르의 차이만큼, 곧 48리브르 19수 2드니에만큼 늘린다.

주조 수수료는 많은 경우에 새 주화를 녹이는 이윤을 아예 없애고, 모든 경우에 그것을 줄인다. 이 이윤은 언제나 흔히 도는 돈이 지녀야 하는 금덩이의 양과 실제로 지니고 있는 양의 차이에서 나온다. 이 차이가 주조 수수료보다 적으면 이윤이 아니라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조 수수료와 같으면 이윤도 손실도 없어진다. 그것이 주조 수수료보다 크면 참으로 얼마쯤 이윤이 있을 터이나 주조 수수료가 없을 때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번 금화 개조 앞에 주조에 5퍼센트의 주조 수수료가 있었다면 금화를 녹이는 데에 3퍼센트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주조 수수료가 2퍼센트였다면 이윤도 손실도 생기지 않았다. 주조 수수료가 1퍼센트였다면 2퍼센트가 아니라 1퍼센트의 이윤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무게로 달지 않고 낱개로 세어 받는 곳에서는 주조 수수료가 주화를 녹이는 것을, 그리고

같은 까닭으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막는 가장 효험 있는 예방이다. 녹여지거나 내보내지는 것은 대개 가장 좋고 가장 무거운 조각들인데, 그런 것에서 가장 큰 이윤이 나기 때문이다.

주조를 관세 없이 하게 하여 그것을 북돋우려는 법은 찰스 2세 치세에 한동안만 두기로 처음 만들어졌고, 뒤에 여러 번 늘어나며 이어져 1769년에 영구한 것이 되었다. 영국 은행은 제 금고를 돈으로 다시 채우려고 잦게 금덩이를 조폐국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주조가 저희 비용으로 되기보다 정부의 비용으로 되는 것이 저희에게 더 이롭다고 그들은 아마 여겼을 것이다. 정부가 이 법을 영구한 것으로 만들기로 한 것은 아마 이 큰 회사에 마음을 맞추어 준 데서 나온 일이었다. 그러나 금을 무게로 다는 관행이 그 번거로움 때문에 아주 그러할 듯이 쓰이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잉글랜드의 금화가 지난번 재주조 앞에 그러했던 대로 낱개로 세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큰 회사는 어쩌면 이 일에서도 다른 몇몇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이익을 적잖이 잘못 알았음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지난번 재주조 앞에 잉글랜드의 금 돈이 법정 무게보다 2퍼센트 모자랐을 때, 주조 수수료가 없었으므로 그것은 저것이 지녀야 했던 그 양의 법정 품위 금덩이의 가치보다 2퍼센트 모자랐다. 그러므로 이 큰 회사가 주조하려고 금덩이를 살 때에는 주조한 뒤의 값어치보다 2퍼센트 더 치러야 했다. 그러나 주조에 2퍼센트의 주조 수수료가 있었다면, 흔히 도는 금 돈이 법정 무게보다 2퍼센트 모자랐더라도 그것이 지녀야 했던 그 양의 법정 품위 금의 가치와 맞먹었을 터인데, 이 경우에는 세공의 가치가 무게의 줄어듦을 메워 주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주조 수수료를 치러야 했을 터이고 그것이 2퍼센트이므로 이 거래 전체에서 그들이 본 손실은 2퍼센트가 되어 실제와 똑같았을 터이며 그보다 크지도 않았다.

주조 수수료가 5퍼센트이고 금 돈이 법정 무게보다 2퍼센트만 모자랐다면, 이 경우에 은행은 금덩이 값에서 3퍼센트를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주조에 5퍼센트의 주조 수수료를 치러야 했을 터이므로 이 거래 전체에서 그들이 본 손실은 앞과 똑같이 바로 2퍼센트였을 것이다.

주조 수수료가 1퍼센트뿐이고 금 돈이 법정 무게보다 2퍼센트 모자랐다면, 이 경우에 은행은 금덩이 값에서 1퍼센트만 잃는 셈이 된다. 그러나 1퍼센트의 주조 수수료도 치러야 했을 터이므로 이 거래 전체에서 그들이 본 손실은 다른 모든 경우와 똑같이 바로 2퍼센트였을 것이다.

알맞은 주조 수수료가 있으면서 그와 함께 주화가 지난번 재주조 뒤로 거의 그러했던 대로 법정 무게를 온전히 지니고 있다면, 은행이 주조 수수료로 잃을 것은 무엇이든 금덩이 값에서 얻을 터이고, 금덩이 값에서 얻을 것은 무엇이든 주조 수수료로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거래 전체에서 잃지도 얻지도 않을 터이며, 이 경우에도 앞서 말한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조 수수료가 없을 때와 바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다.

어떤 상품에 매긴 세가 밀매를 북돋우지 않을 만큼 알맞을 때에는, 그것을 거래하는 상인이 그 세를 먼저 내놓기는 하나 상품 값으로 되받으므로 참으로 그것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그 세는 마지막 구매자나 소비자가 끝내 치른다. 그러나 돈은 사람마다 누구나 상인이 되는 상품이다. 되팔려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으며, 그것에 관하여는 여느 경우에 마지막 구매자도 소비자도 없다. 그러므로 주조에 매긴 세가 화폐 위조를 북돋우지 않을 만큼 알맞을 때에는, 누구나 그 세를 먼저 내놓기는 하나 아무도 끝내 그것을 치르지 않는데, 누구나 주화의 올라간 가치로 그것을 되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맞은 주조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의 비용이나 주조하려고 금덩이를 조폐국으로 가져가는 다른 어떤 개인의 비용을 늘리지 않을 터이며, 알맞은 주조 수수료가 없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주조 수수료가 있든 없든, 도는 돈이 법정 무게를 온전히 지니고 있다면 주조는 누구에게도 값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게에 못 미친다면 주조는 언제나 그것이 지녀야 하는 금덩이의 양과 실제로 지니고 있는 양의 차이만큼 값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조 비용을 댈 때에는 얼마쯤 작은 비용을 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알맞은 관세로 얻을 수 있었을 얼마쯤 작은 세입까지 잃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은행도 다른 어떤 개인도 이 쓸모없는 나라의 너그러움으로 조금도 이득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은행의 이사들은 아무 이득도 약속해 주지 않고 손실에서 지켜 주겠다고만 내세우는 어떤 추론을 믿고 주조 수수료를 매기는 데에 동의하기를 아마 마다할 것이다. 금화가 지금 같은 상태에 있고 그것이 계속 무게로 달아 받아들여지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러한 바뀜으로 얻을 것이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금화를 무게로 다는 관행이 아주 그럴 듯이 언제든 쓰이지 않게 되고, 금화가 지난번 재주조 앞에 놓여 있던 것과 같은 떨어진 상태로 언제든 빠진다면, 주조 수수료를 매김으로써 은행이 얻는 것, 더 바르게 말하여 아끼게 되는 것은 아마 꽤 클 것이다. 영국 은행은 꽤 많은 양의 금덩이를 조폐국으로 보내는 유일한 회사이며, 해마다의 주조가 지우는 짐은 온통, 또는 거의 온통 그것에 떨어진다. 이 해마다의 주조가 주화의 피할 수 없는 손실과 어쩔 수 없는 닳음을 메우는 일만 하면 된다면 그것이 5만 파운드, 아무리 많아도 10만 파운드를 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주화가 법정 무게 아래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해마다의 주조가 이것 말고도, 내보내는

것과 녹이는 가마가 도는 주화에 끊임없이 만들어 놓는 큰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지난번 금화 개조 바로 앞의 열 해나 열두 해 동안 해마다의 주조가 평균 85만 파운드가 넘었던 것은 이 까닭이었다. 그러나 금화에 4퍼센트나 5퍼센트의 주조 수수료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때 사정이 그러했던 상태에서도 내보내는 일과 녹이는 가마의 일을 아마 효험 있게 멈추어 세웠을 것이다. 은행은 85만 파운드가 넘는 주화로 주조될 금덩이에 해마다 2.5퍼센트쯤을 잃어 2만 1250파운드가 넘는 손실을 해마다 입는 대신에, 아마 그 손실의 10분의 1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주조 비용을 대라고 의회가 배정해 둔 세입은 한 해 1만 4천 파운드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 들게 하는 실제 비용, 곧 조폐국 관리들의 수수료는 여느 때에는 그 액수의 반을 넘지 않는다고 나는 전해 들었다. 그토록 아주 작은 액수를 아끼는 것, 또는 그보다 크게 많을 수도 없을 다른 액수를 얻는 것은 정부가 심각하게 눈여겨볼 만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앞서도 잦게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날 듯도 한 어떤 일이 닥칠 경우에 한 해 1만 8천이나 2만 파운드를 아끼는 것은, 영국 은행처럼 큰 회사에게조차 틀림없이 심각하게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앞서 말한 추론과 살핌 가운데 어떤 것은 어쩌면 돈의 기원과 쓰임을 다루는 1편의 장들에, 그리고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의 차이를 다루는 장에 놓는 것이 더 알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조를 북돋우려는 법은 중상주의 체계가 들여놓은 그 상스러운 편견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이 장에 남겨 두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했다. 나라마다의 부를 이룬다고 그 체계가 여기는 바로 그것, 곧 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일종의 장려금을 주는 것만큼 그 체계의 정신에

맞갖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라를 넉넉하게 만들려는 그 체계의 많은 놀라운 방편 가운데 하나다.

---

1.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단위로 8부셸, 약 291리터다. 「4분의 1」 이라는 뜻이 아니다. 1부셸은 약 36리터다.

2.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저본이 53s·4d. 꼴로 적은 것은 53실링 4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3. 옮긴이 — 매점은 되팔려고 곡물을 사들여 쥐고 있는 것이고, 선매는 곡물이 장에 이르기 전에 사들여 같은 장에서 머지않아 되파는 것이다. 잉글랜드는 오랫동안 이 둘을 죄로 다루었다.

4.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킨다. 찰스 2세는 1660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12년은 1660년, 치세 15년은 1663년, 치세 22년은 1670년에 걸친다. 에드워드 6세는 1547년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1689년에 올랐다. 스미스가 「지금 국왕」 이라 할 때는 1760년에 오른 조지 3세를 말하므로 그 치세 12년은 1772년, 치세 13년은 1773년에 걸친다.

5. 옮긴이 — 『곡물 거래론』은 찰스 스미스(1713~1777)가 1758년부터 낸 글 모음이다. 애덤 스미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6. 옮긴이 — 보조세는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를 말한다. 1660년의 옛 보조세는 관세 평가표에 매긴 값의 100분의 5였고, 그 뒤 새 보조세와 3분의 1 보조세, 3분의 2 보조세, 1747년 보조세가 잇달아 그 위에 얹혔다.

7. 옮긴이 — 명예혁명은 1688년에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왕위에 오른 일이다. 곡물 수출 장려금은 그 이듬해의 법으로 자리 잡았다.

8. 옮긴이 — 자물쇠 둘을 국왕 쪽과 수입업자 쪽이 따로 채워, 양쪽이 함께 있어야 창고를 열 수 있게 한 방식이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건을 다시 내보낼 때까지 맡아 두는 데 쓰였다.

9. 옮긴이 — 솔론은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입법자다. 제 법이 가장 좋은 법이냐는 물음에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가장 좋은 법이라고 답했다고 전한다.

10. 옮긴이 — 메수엔 조약은 1703년에 영국 사절 존 메수엔(1650~1706)이 리스본에서 맺은 통상 조약이다. 포르투갈은 영국 모직물을 받아들이고 영국은

포르투갈 포도주에 프랑스 포도주보다 3분의 1 낮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조약 뒤로 영국에서는 포르투갈 포도주가 프랑스 포도주를 밀어냈다.

11. 옮긴이 — 주세페 바레티(1719~1789)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런던에서 글을 썼고, 1770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닌 기록을 냈다.

12. 옮긴이 — 지난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이다. 1762년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포르투갈에 이 요구를 했고, 포르투갈이 거절하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왔다.

13. 옮긴이 — 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다. 조폐국 가격은 조폐국이 금덩이를 받아들일 때 매기는 값으로, 이때 금 1파운드(무게)에 46파운드 14실링 6펜스였다. 스미스가 말하는 지난번 개조는 1774년까지 이어진 금화 재주조로, 닳은 금화를 거두어 다시 찍은 일이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로, 남편을 기다리며 낮에 짠 베를 밤에 풀어 구혼자들을 물렸다.

14. 옮긴이 — 프랑스 화폐는 리브르·수·드니에다. 1리브르는 20수이고 1수는 12드니에다. 루이도르는 금화이고, 마르크는 금은을 다는 무게 단위로 파리 온스 8온스다. 캐럿은 금의 순도를 24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므로 24캐럿이 순금이다.

7장 — 식민지에 대하여

7장 — 식민지에 대하여

1절 — 새 식민지를 세운 동기에 대하여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있는 여러 유럽 식민지를 처음 자리 잡게 만든 이익은, 옛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를 세우도록 이끈 이익만큼 그렇게 뻔하고 또렷하지는 않았다.

옛 그리스의 여러 나라는 저마다 아주 작은 땅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그 땅이 손쉽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을 넘어 불어나면 그 가운데 한 몫을 세상의 멀고 외진 곳으로 새 삶터를 찾아 내보냈으니, 사방을 둘러싼 이웃들이 싸움에 능하여 어느 나라든 제 집 가까이에서 땅을 크게 넓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리스인의 식민지는 주로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로 갔는데, 로마가 세워지기 앞선 시절에 그곳에는 야만스럽고 문명이 없는 나라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스인의 다른 두 큰 갈래인 이오니아인과 아이올리스인의 식민지는 소아시아와 에게해의 섬들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도 그때에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의 주민들과 거의 같은 형편에 있었던 듯하다[1]. 모도시[2]는 식민지를 언제나 큰 호의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갚음으로 많은 고마움과 존경을 바쳐야 하는 자식이라 여기기는 했으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 손에서 풀려난 자식이라 보아 그 위에 곧바로 미치는 권위나 재판권을 주장하려 들지 않았다. 식민지는 제 통치

형태를 스스로 정하고 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제 행정관을 스스로 뽑았으며, 모도시의 승인이나 동의를 기다릴 까닭이 없는 독립한 나라로서 이웃과 화친을 맺기도 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한 세움을 하나하나 이끈 이익보다 더 뻔하고 더 또렷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로마는 다른 옛 공화국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본디 농지법 위에 세워졌는데, 그 법은 나라를 이룬 여러 시민에게 공유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주었다. 사람의 일이 흘러가는 결에 따라 혼인으로, 상속으로, 넘겨줌으로 이 본디의 나눔은 어쩔 수 없이 흐트러졌고, 여러 집안을 먹여 살리라고 떼어 준 땅이 흔히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이 어지러움을, 사람들이 그것을 어지러움이라 여겼으므로, 바로잡으려고 어느 시민이든 지닐 수 있는 땅의 양을 500유게라[3], 곧 영국 에이커로 350에이커쯤으로 묶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한두 번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읽기는 하나 버려지거나 피해 갔고, 재산의 고르지 못함은 끊임없이 커져 갔다. 시민 가운데 대부분은 땅이 없었는데, 땅이 없으면 그 시절의 풍습과 관례로는 자유인이 제 홀로 섬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 땅이 없더라도 자산이 조금 있으면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거나 자그마한 소매 거래를 꾸려 갈 수 있고, 자산이 없더라도 시골 품팔이꾼으로든 수공업자로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옛 로마인 사이에서는 부자의 땅을 죄다 노예가 갈았고 그 노예들은 저 또한 노예인 감독 밑에서 일했으므로, 가난한 자유인이 농부로든 품팔이꾼으로든 일자리를 얻을 가망은 거의 없었다. 온갖 거래와 제조업도, 소매 거래까지도 부자의 노예들이 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꾸려 갔는데, 주인의 부와 권위와 비호 때문에 가난한 자유인이 그들과 겨루어 버티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땅이 없는 시민에게는 해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뿌리는 인심 말고는 생계를 꾸릴 다른 길이 거의 없었다. 호민관들은 사람들을 부자와 높은

이들에게 맞서도록 부추길 마음이 들면 옛날의 토지 나눔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이런 종류의 사유 재산을 묶어 둔 그 법이야말로 공화국의 으뜸가는 법이라고 내세웠다. 사람들은 땅을 얻겠다고 떠들썩해졌고, 부자와 높은 이들은 제 땅의 어느 몫도 내주지 않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얼마쯤 달래려고 흔히 새 식민지를 내보내자고 내놓았다. 그러나 정복해 나가는 로마는 그런 때에도 제 시민을 내몰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모르는 채 넓은 세상을 헤매며 제 운을 찾게 할 까닭이 없었다. 로마는 대개 이탈리아의 정복한 속주에 그들에게 땅을 떼어 주었는데, 그곳은 공화국의 판도 안이었으므로 그들은 결코 독립한 나라를 이룰 수 없었고 기껏해야 일종의 자치 단체[4]에 지나지 않아, 제 다스림을 위하여 내규를 만들 힘은 지녔으나 언제나 모도시의 바로잡음과 재판권과 입법 권위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런 종류의 식민지를 내보내는 일은 사람들을 얼마쯤 달래 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지 않았더라면 고분고분할지 의심스러웠을 갓 정복한 속주에 흔히 일종의 수비대를 두는 셈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는 그 세움 자체의 성질을 보든 그것을 세운 동기를 보든 그리스의 식민지와 아주 달랐다. 그에 따라 본디 말에서 이 서로 다른 세움을 가리키는 낱말도 뜻이 아주 다르다. 라틴어 낱말(colonia)은 그저 개척지를 뜻한다. 그와 달리 그리스어 낱말(apoixia)은 사는 자리를 갈라 나오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가 여러 면에서 그리스의 식민지와 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우도록 밀어붙인 이익은 똑같이 뻔하고 또렷했다. 두 제도는 모두 거스를 수 없는 필요에서든 뚜렷하고 분명한 쓸모에서든 그 비롯함을 얻었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유럽 식민지를 세운 일은 어떤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쓸모가 아주 크기는 했으나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지는 않다. 그 쓸모는 처음 세울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세움의 동기도 그것을 있게 한 발견의 동기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쓸모의 성질과 크기와 한계는 어쩌면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베네치아인은 14세기와 15세기에 향신료와 그 밖의 동인도 물품으로 아주 이로운 장사를 하여 그것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나누어 팔았다. 그들은 그것을 주로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그때 이집트는 맘루크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고 맘루크는 튀르크인의 적이었으며 베네치아인 또한 튀르크인의 적이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익이 하나로 맞물린 데에 베네치아의 돈이 거들어, 베네치아인에게 그 거래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것을 안겨 주는 맺음이 이루어졌다.

베네치아인의 큰 이윤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겼다. 그들은 15세기 내내 무어인이 사막을 건너 상아와 사금을 실어 오는 그 나라들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내려고 애써 왔다. 그들은 마데이라제도와 카나리아제도와 아소르스제도와 카보베르데제도를, 기니 해안과 로앙고와 콩고와 앙골라와 벵겔라의 해안을, 그리고 마침내 희망봉을 찾아냈다. 그들은 베네치아인의 이로운 장사에 끼어들기를 오래 바라 왔는데, 이 마지막 발견이 그렇게 될 만한 앞길을 그들에게 열어 주었다. 1497년에 바스쿠 다 가마가 배 네 척의 선단을 이끌고 리스본 항구를 떠나 열한 달을 항해한 끝에 힌두스탄 해안에 이르렀으니, 백 년 가까이 아주 꾸준하게 거의 끊임없이 이어 온 발견의 길이 이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보다 몇 해 앞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벌인 일의 성공이 아직 의심스러워 보여 유럽의 기대가 매달려 있을 때, 제노바 출신 항해사

하나가 서쪽으로 배를 몰아 동인도에 이른다는 한결 더 대담한 일을 꾀했다. 그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때 유럽에 아주 어설프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 가 본 몇 안 되는 유럽 나그네들은 그 거리를 부풀려 말했는데, 어쩌면 단순함과 무지에서 그러했을 터이고 참으로 아주 먼 것이 그것을 잴 수 없는 이들에게는 거의 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터이며, 어쩌면 유럽에서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간 제 모험의 놀라움을 얼마쯤 더 키우려고 그러했을 터이다. 동쪽으로 가는 길이 멀면 멀수록 서쪽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짧으리라고 콜럼버스는 아주 옳게 매듭지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길이 가장 짧고 가장 틀림없기도 하니 그 길을 잡자고 내놓았고, 제 계획이 될 법하다는 것을 카스티야의 이사벨에게 믿게 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1492년 8월에 팔로스 항구를 떠났으니 바스쿠 다 가마의 원정대가 포르투갈을 떠나기 거의 다섯 해 앞선 일이었고, 두 달에서 석 달 사이를 항해한 끝에 먼저 바하마 곧 루카얀 제도의 작은 섬 몇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산토도밍고라는 큰 섬을 찾아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이 항해에서든 그 뒤의 어느 항해에서든 찾아낸 나라들은 그가 찾아 나선 나라들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중국과 힌두스탄의 부와 경작과 많은 사람 대신에 그가 산토도밍고에서, 그리고 그가 가 본 신세계의 다른 모든 곳에서 본 것은 온통 숲으로 덮이고 갈지 않았으며 벌거벗고 비참한 미개인 몇 무리만이 사는 땅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이 마르코 폴로가 그려 낸 나라들 가운데 어느 것과 같지 않다고는 그리 믿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 마르코 폴로는 중국이나 동인도를 찾아간 첫 유럽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첫 유럽 사람이었다. 그리고 산토도밍고에 있는 시바오라는 산의 이름과 마르코 폴로가 말한 치팡구의 이름 사이에서 그가 찾아낸 것 같은 아주 희미한 닮음만으로도, 더없이 뚜렷한 증거에 어긋나는데도 그가 이

아끼는 선입견으로 되돌아가기에 흔히 넉넉했다. 그는 페르난도와 이사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찾아낸 나라들을 인도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이 마르코 폴로가 그려 낸 나라들의 끝자락이며 갠지스강에서, 또는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곳이 다른 곳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 넉넉한 나라들이 그리 멀리 있지 않으리라고 여전히 제 마음을 달랬고, 그리하여 뒤의 어느 항해에서는 티에라피르메 해안을 따라, 그리고 다리엔 지협 쪽으로 그 나라들을 찾아 나섰다.

콜럼버스의 이 잘못 때문에 인도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줄곧 그 불행한 나라들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인도가 옛 인도와 아주 다르다는 것이 뚜렷이 밝혀졌을 때, 앞의 것은 서인도라 불렸고 그와 맞세워 뒤의 것은 동인도라 불렸다.

그렇지만 콜럼버스에게는 자기가 찾아낸 나라가 무엇이든 그것이 아주 큰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스페인 궁정에 알려지는 일이 중요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참된 넉넉함을 이루는 것, 곧 땅에서 나는 짐승과 푸성귀를 보면 그때 그 나라들을 그렇게 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쥐와 토끼의 중간쯤 되는 코리는 뷔퐁 씨가 브라질의 아페레아와 같은 것이라고 본 짐승인데, 산토도밍고에서 새끼를 낳는 네발짐승 가운데 가장 컸다. 이 종류는 결코 아주 많지는 않았던 듯하고, 스페인인의 개와 고양이가 오래전에 그것을 거의 온통 없애 버렸으며 그보다 더 작은 다른 몇 갈래도 그리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바나 또는 이구아나라 불리는 제법 큰 도마뱀과 더불어 그 땅이 내주는 짐승 먹거리의 주된 몫을 이루었다.

그곳 주민들의 푸성귀 먹거리는 그들에게 근면이 없었던 탓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까지 모자라지는 않았다. 그것은 강냉이[5]와

얌과 감자와 바나나 따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푸성귀들은 그때 유럽에 아주 알려지지 않았고 그 뒤로도 유럽에서 그리 대접받은 적이 없으며, 이쪽 세상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가꾸어 온 흔한 종류의 곡물과 콩류에서 얻는 것과 맞먹는 양식을 내준다고 여겨진 적도 없다.

목화는 참으로 아주 중요한 제조업의 감을 내주었고 그때 유럽인에게는 그 섬들에서 나는 온갖 푸성귀 생산물 가운데 틀림없이 가장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15세기 끝 무렵에 동인도의 모슬린과 그 밖의 무명 물건이 유럽 어디에서나 크게 대접받기는 했어도, 무명을 짜는 제조업 자체는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가꾸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생산물마저도 그때 유럽인의 눈에는 아주 큰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보일 수 없었다.

새로 찾아낸 나라들의 짐승에서도 푸성귀에서도 그 나라들을 아주 이롭게 알릴 만한 것을 찾지 못하자 콜럼버스는 눈길을 그곳의 광물로 돌렸고, 이 셋째 나라에서 나는 것이 넉넉하다면 앞의 두 가지가 보잘것없는 것을 넉넉히 메워 주리라고 제 마음을 달랬다. 그곳 주민들이 옷을 꾸미는 데에 쓰던 자잘한 금붙이,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여울에서 흔히 찾아낸다고 그가 들은 그 금붙이만으로도 그 산들에 더없이 넉넉한 금광이 그득하다고 그가 흡족해하기에 넉넉했다. 그리하여 산토도밍고는 금이 그득한 나라로,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편견만이 아니라 그 시절의 편견으로 보아도) 스페인의 왕실과 왕국에 참된 부를 끝없이 대어 주는 샘으로 알려졌다. 콜럼버스가 첫 항해에서 돌아와 카스티야와 아라곤의 주권자 앞에 개선하는 자리와도 같은 영예를 받으며 나아갔을 때, 그가 찾아낸 나라들에서 난 주된 생산물이 그의 앞에 엄숙한 행렬을 이루어 옮겨졌다. 그 가운데 값진 것이라고는 자그마한 금테와 팔찌와 그 밖의 금붙이 몇, 그리고 목화 꾸러미 몇이 고작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뭇사람의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물건, 곧 엄청나게 큰 갈대 몇 대와 깃털이 아주 고운 새 몇 마리와 커다란 악어와 매너티의 박제 가죽 몇 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에는 가엾은 원주민 예닐곱이 앞장섰는데, 그들의 남다른 살빛과 생김새가 그 구경거리의 새로움을 크게 더해 주었다.

콜럼버스가 그렇게 알린 결과로 카스티야 참사회는 그곳 주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뻔히 없는 그 나라들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경건한 목적이 그 계획의 옳지 못함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금 보물을 찾으리라는 바람이 그 일을 벌이도록 밀어붙인 유일한 동기였다. 그리고 이 동기에 무게를 더 실어 주려고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찾아낼 온갖 금과 은의 절반을 왕실이 갖도록 하자고 내놓았다. 이 제안은 참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첫 모험가들이 유럽으로 들여온 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킬 힘 없는 원주민을 털어 내는 아주 손쉬운 길로 얻는 동안에는 이 무거운 세를 무는 일마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원주민이 지닌 것을 죄다 빼앗기고 나자, 산토도밍고에서도 콜럼버스가 찾아낸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 일은 여섯 해에서 여덟 해 사이에 남김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더 찾으려면 광산을 파야 하게 되자 이 세를 무는 일은 더는 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이 세를 모질게 뜯어낸 것이 산토도밍고의 광산을 온통 버리게 만든 첫 까닭이었다고 하며, 그 광산은 그 뒤로 한 번도 캐어진 적이 없다. 그리하여 그것은 머지않아 금광 총생산물의 3분의 1로 줄었고, 그다음에는 5분의 1로, 그 뒤에는 10분의 1로, 마침내 20분의 1로 줄었다. 은에 매긴 세는 오랫동안 총생산물의 5분의 1에 머물렀다. 그것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였다. 그러나 첫 모험가들은 은에 그리 마음을 쓰지

않았던 듯하다. 금보다 덜 귀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의 눈길을 받을 만하지 않아 보였다.

콜럼버스의 일 뒤에 스페인인이 신세계에서 벌인 다른 모든 사업도 같은 동기에서 밀려 나온 듯하다. 오헤다와 니쿠에사와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를 다리엔 지협으로 데려간 것, 코르테스를 멕시코로, 알마그로와 피사로를 칠레와 페루로 데려간 것은 금을 향한 그 거룩한 목마름이었다. 그 모험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해안에 이르든 언제나 그곳에서 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고,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들은 바에 따라 그 나라를 떠날지 그곳에 자리 잡을지를 정했다.

그렇지만 손대는 사람 대부분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그 돈 많이 들고 미덥지 않은 온갖 계획 가운데, 어쩌면 새 은광과 금광을 찾아 나서는 일보다 더 남김없이 망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밑지는 제비뽑기이거나, 상을 뽑은 이들의 얻음이 꽝을 뽑은 이들의 잃음에 견주어 가장 작은 몫밖에 되지 않는 제비뽑기다. 상은 적고 꽝은 많은데 표 한 장의 흔한 값이 아주 큰 부자의 재산을 통째로 잡아먹기 때문이다. 광산을 파는 계획은 거기에 쓴 자본을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워 주기는커녕 흔히 자본과 이윤을 아울러 삼켜 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 나라의 자본을 늘리고자 하는 슬기로운 입법자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북돋워 주거나 저절로 그리 갈 몫보다 더 큰 몫의 자본을 그쪽으로 돌리기를 가장 꺼릴 계획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제 행운을 터무니없이 믿기 때문에, 성공할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너무 큰 몫이 저절로 그리 가기 쉽다.

그러나 그런 계획에 대하여 맑은 정신과 경험이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더없이 나빴지만, 사람의 탐욕이 내리는 판단은 흔히 아주 딴판이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현자의 돌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어넣은

바로 그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넉넉한 금광과 은광이라는 똑같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이 금속들의 가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그 드묾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드묾이란 자연이 어디서든 한자리에 묻어 둔 양이 아주 적다는 데에서, 자연이 거의 어디서나 그 적은 양을 단단하고 다루기 힘든 바탕으로 둘러싸 두었다는 데에서, 따라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 손에 넣으려면 어디서나 노동과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데에서 나왔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납이나 구리나 주석이나 쇠의 광맥으로 흔히 찾아내는 것만큼 크고 넉넉한 금은의 광맥을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제 마음을 달랬다. 엘도라도라는 황금의 도시와 나라에 대한 월터 롤리 경의 꿈은, 슬기로운 사람조차 그런 이상한 헛생각에서 언제나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보여 준다. 그 위대한 사람이 죽고 백 해가 넘게 지난 뒤에도 예수회 수사 구밀라는 그 놀라운 나라가 참으로 있다고 여전히 굳게 믿었고, 제 선교사의 경건한 수고에 그토록 잘 보답할 수 있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가져가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아주 뜨겁게,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아주 참되게 털어놓았다.

스페인인이 처음 찾아낸 나라들에는 캘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금광이나 은광이 오늘날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다. 첫 모험가들이 그곳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금속의 양은, 처음 찾아낸 바로 뒤에 캐던 광산의 기름짐과 마찬가지로, 아마 아주 크게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험가들이 찾아냈다고 알려진 것만으로도 제 나라 사람들 모두의 탐욕에 불을 지르기에 넉넉했다.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간 스페인인은 누구나 엘도라도를 찾아내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운명도 다른 자리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던 일을 이때에는 해 주었다. 운명은 제게 매달리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바람을 얼마쯤 이루어 주었으니, 멕시코와 페루를 찾아내고 정복하는 일에서 (하나는 콜럼버스의 첫

원정으로부터 서른 해쯤 뒤에, 다른 하나는 마흔 해쯤 뒤에 일어났다) 그들이 찾던 귀금속의 그 헤픔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러므로 동인도와 장사하려던 계획이 서인도를 처음 찾아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복하려는 계획이 스페인인이 그 새로 찾아낸 나라들에 세운 모든 터전을 있게 했다. 그들을 이 정복으로 부추긴 동기는 금광과 은광을 찾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슬기로는 아무도 내다볼 수 없었던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 이 계획은 사업가들이 이치에 맞게 기대할 만한 근거를 지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맞았다.

아메리카에 터전을 잡으려 한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의 첫 모험가들도 그와 같은 허황한 생각에 들떠 있었으나 그만큼 들어맞지는 않았다. 브라질에 처음 자리 잡고 나서 백 해가 넘게 지나서야 그곳에서 은광이든 금광이든 금강석 광산이든 찾아냈다.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식민지에서는 아직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적어도 오늘날 캘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북아메리카에 처음 자리 잡은 영국 사람들은 특허장을 내주는 대가로 그곳에서 찾아낼 온갖 금과 은의 5분의 1을 국왕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월터 롤리 경에게 준 특허장에서도, 런던 회사와 플리머스 회사에 준 특허장에서도, 플리머스 참사회에 준 특허장 따위에서도 이 5분의 1은 그에 따라 왕실의 몫으로 남겨졌다. 금광과 은광을 찾아내리라는 기대에 더하여 그 첫 정착민들은 동인도로 가는 북서 항로를 찾아내리라는 기대도 품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두 가지 다에서 어긋났다.

2절 — 새 식민지가 번성한 까닭

문명한 나라의 식민지가 빈 땅을 차지하거나, 사람이 드물게 살아 원주민이 새 정착민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는 땅을 차지하면, 그 식민지는 사람이 이룬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빠르게 부와 큼으로 나아간다.

식민지 사람들은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들[6] 사이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저절로 자라날 수 있는 것보다 나은 농사 지식과 그 밖의 쓸모 있는 재주를 가지고 나간다. 그들은 또한 윗사람을 따르는 버릇과, 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반듯한 통치와 그것을 받쳐 주는 법의 체계와 반듯하게 베푸는 재판에 대한 얼마쯤의 생각도 가지고 나가며, 새 터전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저절로 세운다. 그러나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들 사이에서는 법과 통치가 재주를 지켜 주는 데에 필요한 만큼 자리 잡고 난 뒤에도, 법과 통치가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이 재주가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보다 여전히 느리다. 식민지 사람은 저마다 제가 도저히 다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땅을 얻는다. 그에게는 물어야 할 지대도 없고 물어야 할 세금도 거의 없다. 어떤 지주도 그 생산물을 그와 나누어 가지지 않고, 주권자의 몫도 흔히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거의 온통 제 것이 될 생산물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들 온갖 동기를 지닌다. 그러나 그의 땅은 흔히 너무 넓어서 제 온 근면을 다하고 부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온 근면을 다 보태어도 그 땅이 낼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도 내게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사방에서 일꾼을 그러모아 더없이 후한 임금으로 갚아 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후한 임금에 땅이 넉넉하고 헐하다는 사정이 더해져, 그 일꾼들은 머지않아 스스로 지주가 되려고 그를 떠나 버리고 저도 똑같이 후하게 다른 일꾼들에게 갚아 주는데, 그 일꾼들 또한 제가 첫 고용주를 떠난 것과 같은 까닭으로 머지않아 그들을 떠난다. 노동에 후하게 갚아

주는 것은 혼인을 북돋운다. 아이들은 여린 젖먹이 시절에 잘 먹고 알맞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나면 그 노동의 가치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값을 훌쩍 넘겨 갚는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노동의 값이 비싸고 땅값이 헐한 덕에 제 아비가 앞서 그러했듯이 스스로 터를 잡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대와 이윤이 임금을 먹어 치우고 위의 두 계층이 아래 계층을 짓누른다. 그러나 새 식민지에서는 위의 두 계층의 이익이 그들로 하여금 아래 계층을 더 너그럽고 더 사람답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적어도 그 아래 계층이 노예 신세에 놓여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다. 타고난 기름짐이 더없이 좋은 빈 땅을 하찮은 값에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사업가이기도 한 임자가 그 땅을 개량하여 얻으리라 기대하는 수입의 늘어남이 그의 이윤을 이루는데, 이런 형편에서는 그 이윤이 흔히 아주 크다. 그러나 이 큰 이윤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써서 땅을 일구고 갈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새 식민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땅은 아주 넓고 사람은 적어 그 둘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그가 이 노동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임금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어떤 값에라도 노동을 기꺼이 쓴다. 노동의 높은 임금은 사람이 느는 것을 북돋운다. 좋은 땅이 헐하고 넉넉한 것은 개량을 북돋우고 임자가 그 높은 임금을 물 수 있게 해 준다. 땅값의 거의 전부가 그 임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임금은 노동의 임금으로 보면 높으나 그토록 값진 것의 값으로 보면 낮다. 사람이 늘고 개량이 나아가는 것을 북돋우는 것은 무엇이든 실질 부와 큼이 나아가는 것을 북돋운다.

그에 따라 옛 그리스 식민지 가운데 많은 것이 부와 큼으로 나아간 걸음은 아주 빨랐던 듯하다. 한두 세기 사이에 그 가운데 여럿이 제 모도시와 어깨를 겨루었고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한 듯하다.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와 아크라가스, 이탈리아의 타렌툼과 로크리, 소아시아의

에페소스와 밀레토스는 전하는 모든 이야기로 보아 옛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도 적어도 뒤지지 않았던 듯하다. 세워진 것은 뒤였으나 다듬어진 온갖 재주와 철학과 시와 말솜씨가 본국의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가꾸어졌고 그만큼 높이 닦였던 듯하다. 가장 오래된 두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와 피타고라스의 학파가 옛 그리스가 아니라 하나는 아시아의 식민지에,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에 세워졌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식민지들은 모두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들이 사는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은 새 정착민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에게는 좋은 땅이 넉넉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도시에서 아주 독립해 있었으므로 제 이익에 가장 알맞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 제 일을 꾸려 갈 자유가 있었다.

로마 식민지의 역사는 결코 그만큼 빛나지 않는다. 참으로 그 가운데 피렌체 같은 몇몇은 여러 시대를 지나 모도시가 무너진 뒤에 제법 큰 나라로 자라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나아간 걸음이 아주 빨랐던 적은 없는 듯하다. 그것들은 모두 정복한 속주에 세워졌는데, 그곳은 대개 앞서 사람이 꽉 들어차 살던 곳이었다. 식민지 사람 하나하나에게 떼어 준 땅의 양은 좀처럼 아주 많지 않았고, 식민지가 독립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제 이익에 가장 알맞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 제 일을 꾸려 갈 자유를 언제나 누리지는 못했다.

좋은 땅이 넉넉하다는 점에서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세워진 유럽 식민지는 옛 그리스의 식민지를 닮았고 그것을 크게 넘어서기까지 한다. 본국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는 옛 로마의 식민지를 닮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덕에 그 모두에서 이 매임의 효과가 얼마쯤 누그러졌다. 그 자리 때문에 그들은 본국의 눈길에도 본국의 힘에도 덜 닿았다. 제 이익을 제 뜻대로 좇는 데에서 그들이 한 일은 여러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졌으니,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러는 멀리 떨어져 있어 막기가 어려웠으므로 그대로 참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사납고 제멋대로인 스페인의 통치조차 여러 자리에서 온 나라가 들고일어날까 두려워 제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내린 명령을 거두거나 누그러뜨려야 했다. 그에 따라 모든 유럽 식민지가 부와 사람 수와 개량에서 나아간 걸음은 아주 컸다.

스페인 왕실은 금과 은에서 제 몫을 받아 식민지를 처음 세운 그 순간부터 거기서 얼마쯤 세입을 얻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의 탐욕 속에 더욱 큰 넉넉함에 대한 더없이 터무니없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질의 세입이었다. 그러므로 스페인 식민지는 처음 세워진 그 순간부터 본국의 눈길을 아주 많이 끌었으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는 오랫동안 크게 내버려져 있었다. 앞의 것이 이 눈길 덕에 더 잘된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이 이 내버려 둠 탓에 더 못된 것도 어쩌면 아니다. 그들이 얼마쯤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에 견주어 보면 스페인 식민지는 유럽의 거의 다른 어느 나라의 식민지보다도 사람이 적고 덜 번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스페인 식민지조차 사람 수와 개량에서 나아간 걸음은 틀림없이 아주 빠르고 아주 컸다. 정복한 뒤에 세워진 리마시에는 서른 해쯤 전에 주민이 5만 명 있었다고 우요아는 적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초라한 마을에 지나지 않던 키토도 같은 저자가 글을 쓰던 무렵에는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고 적혀 있다. 젬멜리 카레리는 참으로 나그네인 체한 사람이라고들 하나 어디서나 아주 좋은 소식에 기대어 쓴 듯한데, 그는 멕시코시에 주민이 10만 명 있다고 적었다. 이 수는 스페인 저술가들이 부풀린 온갖 것을 감안하더라도 몬테수마 시절에 그 도시에 있던 수보다 아마 다섯 배가 넘을 것이다. 이 수는 영국 식민지의 가장 큰 세 도시인 보스턴과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수를 크게 넘어선다. 스페인인이 정복하기 앞서 멕시코에도 페루에도 멍에를 메울 만한 짐승이 없었다. 라마가 그들의 유일한 짐 나르는

짐승이었는데 그 힘은 흔한 나귀의 힘보다 꽤 못했던 듯하다. 쟁기는 그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쇠를 쓸 줄 몰랐다. 그들에게는 찍어 낸 돈도 없었고 어떤 종류의 자리 잡은 장사 수단도 없었다. 그들의 장사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나무 삽이 그들의 주된 농사 연장이었다. 날카로운 돌이 무엇을 베는 칼과 도끼 노릇을 했고, 물고기 뼈와 몇몇 짐승의 굳은 힘줄이 무엇을 꿰매는 바늘 노릇을 했으니, 이것들이 그들의 주된 일 연장이었던 듯하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그 두 제국 가운데 어느 쪽도 온갖 종류의 유럽 짐승을 넉넉히 갖추고 쇠와 쟁기와 유럽의 여러 재주가 그들 사이에 들어온 오늘날만큼 개량되었거나 잘 갈렸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개량과 경작의 정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정복 뒤에 뒤따른 원주민의 모진 죽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큰 제국에는 아마 지난 어느 때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주 다르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스페인계 크리오요[7]가 여러 면에서 옛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낫다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인이 자리 잡은 다음으로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에 자리 잡은 것이 아메리카에서 유럽 어느 나라의 것보다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처음 찾아낸 뒤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금광도 은광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왕실에 세입을 거의 또는 아예 주지 못했으므로 오랫동안 크게 내버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것은 크고 힘 있는 식민지로 자라났다.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동안 브라질은 네덜란드인의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브라질이 나뉘어 있는 열네 주 가운데 일곱을 차지했다. 그들이 머지않아 나머지 일곱도 정복하리라 기대하고 있을 때 포르투갈은 브라간사 집안이 왕위에 오르면서 독립을 되찾았다. 그러자 스페인인의 적이던 네덜란드인은

마찬가지로 스페인인의 적이던 포르투갈 사람들의 벗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복하지 못한 브라질의 몫을 포르투갈 국왕에게 남겨 주기로 했고, 국왕은 그들이 정복한 몫을 그들에게 남겨 주기로 했으니, 그토록 좋은 동맹과 다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통치는 머지않아 포르투갈 식민지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소연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제 새 주인들에게 맞서 무기를 들었으며, 본국이 눈감아 주기는 했으나 드러내 놓고 도와주지는 않는 가운데 제 용기와 결단으로 그들을 브라질에서 몰아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인은 그 나라의 어느 몫도 제 것으로 붙들고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이 온통 포르투갈 왕실에 되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식민지에는 포르투갈 사람이거나 포르투갈 사람의 자손인 이들, 곧 크리오요와 물라토와 포르투갈 사람과 브라질인 사이에서 난 혼혈이 60만 명 넘게 있다고 한다. 아메리카의 어느 식민지에도 유럽 혈통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5세기 끝 무렵과 16세기의 대부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큰 바다 위의 두 큰 해군 세력이었다. 베네치아의 장사가 유럽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기는 했으나 그 함대가 지중해 밖으로 나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인은 처음 찾아냈다는 것을 내세워 아메리카 전부를 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포르투갈만큼 큰 해군 세력이 브라질에 자리 잡는 것을 막지는 못했으나, 그때 그들의 이름이 주는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유럽의 다른 나라들 대부분은 그 큰 대륙의 다른 어느 곳에도 터를 잡기를 두려워했다. 플로리다에 자리 잡으려 한 프랑스 사람들은 스페인인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16세기 끝 무렵에 그들이 무적함대라 부르던 것이 패하거나 어그러진 결과로 이 뒤의 나라의 해군 세력이 기울자, 그들에게는 다른 유럽 나라들이 터를 잡는 것을 더는 가로막을 힘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17세기 동안에 영국인과 프랑스인과

네덜란드인과 덴마크인과 스웨덴인, 곧 큰 바다에 항구를 하나라도 가진 모든 큰 나라가 신세계에 얼마쯤 터를 잡으려고 애썼다.

스웨덴인은 뉴저지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스웨덴 집안의 수는 본국이 이 식민지를 지켜 주었더라면 그것이 아주 번성할 만했음을 넉넉히 보여 준다. 그러나 스웨덴이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것은 머지않아 네덜란드의 뉴욕 식민지에 삼켜졌고, 그 뉴욕은 다시 1674년에 영국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갔다.

세인트토머스와 산타크루스라는 작은 섬들은 덴마크인이 신세계에서 차지한 적이 있는 유일한 땅이다. 이 자그마한 터전도 배타적 특권 회사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는데, 그 회사는 식민지의 남는 생산물을 사들일 권리도 식민지가 바라는 다른 나라 물건을 대어 줄 권리도 홀로 지니고 있었으므로, 사들일 때에도 팔 때에도 그들을 짓누를 힘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없이 컸다. 상인들의 배타적 특권 회사가 다스리는 것은 어떤 나라에나 어쩌면 온갖 다스림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식민지들이 나아가는 것을 더 느리고 더 맥없게 만들기는 했어도 아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덴마크의 지난 국왕이 이 회사를 없앴고, 그때부터 이 식민지들은 아주 크게 번성했다.

서인도에 있는 네덜란드의 터전도 동인도에 있는 터전과 마찬가지로 본디 배타적 특권 회사의 다스림 아래에 놓였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몇몇이 나아간 걸음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자리 잡은 거의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제법 컸으나, 새 식민지 대부분에 견주면 맥없고 느렸다. 수리남 식민지는 아주 제법 크기는 하나 유럽 다른 나라들의 설탕 식민지 대부분보다 아직 못하다. 지금은 뉴욕과 뉴저지 두 주로 나뉘어 있는 노바 벨기아 식민지는 네덜란드인의 다스림 아래에 그대로 있었더라도 아마 머지않아 제법 커졌을 것이다. 좋은 땅이 넉넉하고

헐한 것은 번성의 원인으로 어찌나 힘이 센지, 더없이 나쁜 다스림도 그것이 내는 효험을 아주 막아 내기는 어렵다. 게다가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식민지 사람들은 회사가 자기들에게 휘두르는 독점을 밀무역으로 얼마쯤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그 회사는 네덜란드 배라면 무엇이든 실은 짐의 가치에 100분의 2와 2분의 1을 면허 값으로 물기만 하면 수리남과 거래하도록 허락하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직접 무역, 곧 거의 온통 노예 거래인 그것만을 제 것으로 남겨 둔다. 회사의 배타 특권이 이렇게 느슨해진 것이 그 식민지가 오늘날 누리는 그만한 번성의 주된 원인일 것이다. 네덜란드에 딸린 두 주요 섬인 퀴라소와 신트외스타티위스는 모든 나라의 배에 열려 있는 자유항이다. 그리고 항구가 한 나라의 배에만 열려 있는 더 나은 식민지들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그 메마른 두 섬이 번성한 큰 원인이었다.

프랑스의 캐나다 식민지는 지난 세기의 대부분과 이번 세기의 얼마 동안 배타적 특권 회사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다. 그토록 좋지 못한 다스림 아래에서 그것이 나아간 걸음은 다른 새 식민지에 견주어 어쩔 수 없이 아주 느렸다. 그러나 미시시피 계획[8]이라 불리는 것이 무너진 뒤에 이 회사가 없어지자 그 걸음은 훨씬 빨라졌다. 영국인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본 주민의 수는 샤를부아 신부가 스무 해에서 서른 해쯤 앞서 적어 둔 수의 곱절에 가까웠다. 그 예수회 수사는 그 땅을 두루 돌아다녔고 그곳을 실제보다 덜 보잘것없게 그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프랑스의 산토도밍고 식민지는 해적과 노략꾼들이 세운 것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보호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도적 떼가 이 권위를 받아들일 만큼은 시민이 되었을 때에도 오랫동안 그 권위를 아주 부드럽게 휘둘러야

했다. 이 동안에 이 식민지의 사람 수와 개량은 아주 빠르게 늘었다. 프랑스의 다른 모든 식민지와 더불어 얼마 동안 그 아래에 놓였던 배타적 특권 회사의 짓누름조차, 그것이 걸음을 늦추기는 했어도 아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 짓누름에서 벗어나자마자 번성의 걸음이 되돌아왔다. 그것은 이제 서인도의 설탕 식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생산물이 영국의 설탕 식민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한다. 프랑스의 다른 설탕 식민지도 대체로 모두 아주 번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보다 나아간 걸음이 더 빨랐던 식민지는 없다.

좋은 땅이 넉넉한 것과 제 일을 제 뜻대로 꾸려 갈 자유, 이 둘이 모든 새 식민지가 번성하는 두 큰 원인인 듯하다.

좋은 땅이 넉넉하다는 점에서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틀림없이 아주 넉넉하게 갖추고 있기는 하나 스페인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의 식민지보다는 못하고, 지난 전쟁[9] 앞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몇몇 식민지보다 낫지도 않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의 정치 제도는 다른 세 나라의 제도보다 이 땅을 개량하고 가는 데에 더 이로웠다.

첫째, 갈지 않은 땅을 매점하는 일은 결코 아주 막히지는 않았으나 영국 식민지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죄어졌다. 임자마다 제 땅의 일정한 몫을 정해진 기한 안에 개량하고 갈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버려둔 땅을 다른 아무에게나 내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식민지 법은, 어쩌면 아주 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어도 얼마쯤 효험이 있었다.

둘째, 펜실베이니아에는 장자 상속권이 없고 땅은 움직이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모든 자식에게 고르게 나뉜다. 뉴잉글랜드의 세 주에서는 모세 율법에서처럼 맏이가 곱절의 몫만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주들에서 더러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매점하더라도 한두 세대

사이에 다시 넉넉히 나눌 법하다. 참으로 다른 영국 식민지에서는 잉글랜드의 법에서처럼 장자 상속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국 식민지에서 땅은 죄다 자유 소케지[10]로 지니므로 그 보유 형태가 남에게 넘기기를 쉽게 만든다. 그리고 넓은 땅을 받은 사람은 대개 그 대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남에게 넘기고 자기는 자그마한 면역지대만 남겨 두는 것이 제 이익에 맞는다고 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는 어떤 명예 칭호가 딸린 큰 재산을 물려줄 때 마요라스고[11]라 불리는 권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재산은 죄다 한 사람에게 가고 사실상 한정 상속이 되어 남에게 넘길 수 없다. 프랑스 식민지는 참으로 파리 관습법 아래에 있는데, 그 법은 땅을 물려주는 데에서 잉글랜드의 법보다 아래 자식들에게 훨씬 더 이롭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에서 기사 복무와 신종 선서라는 귀족식 보유로 지니는 재산의 어느 몫을 남에게 넘기면, 그것은 정해진 기한 동안 윗사람의 상속인이나 그 집안의 상속인이 도로 사들일 권리 아래에 놓인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큰 재산은 모두 그러한 귀족식 보유로 지니므로 남에게 넘기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거추장스러워진다. 그런데 새 식민지에서 갈지 않은 큰 재산은 물려줌보다 남에게 넘김으로 훨씬 더 빨리 나눌 법하다. 좋은 땅이 넉넉하고 헐한 것이 새 식민지가 빠르게 번성하는 주된 원인임은 이미 말한 바다. 땅을 매점하는 일은 사실상 이 넉넉함과 헐함을 없앤다. 게다가 갈지 않은 땅을 매점하는 일은 그 땅을 개량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 땅을 개량하고 가는 데에 쓰이는 노동은 사회에 가장 크고 가장 값진 생산물을 내준다. 이때 노동의 생산물은 제 임금과 그 노동을 부리는 자산의 이윤만이 아니라 그 노동이 쓰인 땅의 지대까지 치러 낸다. 그러므로 영국 식민지의 노동은 땅을 개량하고 가는 데에 더 많이 쓰이므로, 땅을 매점하는 탓에

얼마쯤 다른 쓰임으로 돌려지는 다른 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의 노동보다도 더 크고 더 값진 생산물을 내줄 법하다.

셋째, 영국 식민지 사람들의 노동은 더 크고 더 값진 생산물을 내줄 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세금이 가벼운 덕에 이 생산물의 더 큰 몫이 그들 자신의 것이 되고, 그들은 그것을 쌓아 두었다가 더욱 많은 양의 노동을 움직이는 데에 쓸 수 있다. 영국 식민지 사람들은 본국을 지키는 데에도 본국의 민간 통치를 떠받치는 데에도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이제까지 거의 온통 본국의 비용으로 지켜져 왔다. 그런데 함대와 군대에 드는 비용은 민간 통치에 반드시 드는 비용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 제 민간 통치에 드는 비용은 언제나 아주 가벼웠다. 그것은 대개 총독과 판사와 그 밖의 몇몇 행정 관리에게 알맞은 봉급을 주고 가장 쓸모 있는 공공사업 몇 가지를 건사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에 머물렀다. 매사추세츠 베이의 민간 통치 기구에 드는 비용은 지금의 소란[12]이 일어나기 앞서 한 해에 1만 8000파운드[,13]쯤에 지나지 않았다. 뉴햄프셔와 로드아일랜드는 저마다 3500파운드, 코네티컷은 4000파운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는 저마다 4500파운드, 뉴저지는 1200파운드,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저마다 8000파운드였다. 노바스코샤와 조지아의 민간 통치 기구는 의회가 해마다 주는 돈으로 얼마쯤 떠받쳐진다. 그러나 노바스코샤는 그 밖에도 식민지의 공공 비용으로 한 해에 7000파운드쯤을 내고 조지아는 2500파운드쯤을 낸다. 한마디로 북아메리카의 온갖 민간 통치 기구는, 정확한 셈을 얻지 못한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것을 빼면, 지금의 소란이 일어나기 앞서 주민들에게 한 해 6만 4700파운드 넘게 들지 않았다. 300만 명이 다스려질 뿐 아니라 잘 다스려지는 데에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드는지를 보여 주는, 길이 기억할 만한 보기다. 참으로 통치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몫인 방어와 보호의 비용은 줄곧 본국이

떠맡았다. 식민지에서 민간 통치의 의례, 곧 새 총독을 맞을 때나 새 의회를 열 때 따위의 의례도 넉넉히 점잖기는 하나 돈이 많이 드는 호사나 행렬이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교회 다스림도 그만큼 검소한 틀로 꾸려진다. 십일조는 그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결코 수가 많지 않은 그들의 성직자는 웬만한 봉급으로든 사람들이 스스로 내는 헌금으로든 살아간다. 그와 달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힘은 제 식민지에 매긴 세금에서 얼마쯤 받침을 얻는다. 프랑스는 참으로 제 식민지에서 제법 큰 세입을 끌어낸 적이 없으니, 거기에 매기는 세금을 대개 그곳에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나라의 식민지 통치는 모두 훨씬 더 넓게 뻗은 틀로 꾸려지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의례가 따른다. 이를테면 페루의 새 부왕을 맞는 데에 쓴 돈은 흔히 엄청났다. 그러한 의례는 넉넉한 식민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무는 참된 세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자리에서도 허영과 낭비의 버릇을 그들 사이에 들여놓는 노릇을 한다. 그것은 이따금 무는 아주 괴로운 세금일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더욱 괴로운 세금, 곧 사사로운 사치와 헤픔이라는 망하게 하는 세금을 끊임없이 무는 것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그 세 나라의 식민지에서는 교회 다스림도 더없이 짓누른다. 그 모두에 십일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는 더없이 모질게 걷힌다. 게다가 그 모두가 수많은 탁발 수도사 무리에 짓눌려 있는데, 그들의 구걸은 종교가 허락했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준 것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괴로운 세금이 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주는 것이 의무이고 그들에게 자선을 거절하는 것이 아주 큰 죄라고 더없이 꼼꼼하게 배운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그 모두에서 성직자가 가장 큰 땅 매점꾼이다.

넷째, 남는 생산물, 곧 제 소비를 넘고 남는 것을 처분하는 데에서 영국 식민지는 유럽 다른 어느 나라의 식민지보다도 더 좋은 대접을

받았고 더 넓은 시장을 허락받았다. 유럽의 나라는 저마다 제 식민지의 장사를 제 것으로 독점하려고 얼마쯤 애써 왔고, 그런 까닭에 외국 배가 식민지와 거래하는 것을 막았으며 식민지가 어느 외국에서든 유럽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막았다. 그러나 이 독점을 휘두른 모양은 나라마다 아주 달랐다.

어떤 나라들은 제 식민지의 장사 전부를 배타적 특권 회사에 넘겨주었는데, 식민지 사람들은 저희가 바라는 유럽 물건을 죄다 그 회사에서 사야 했고 남는 생산물을 죄다 그 회사에 팔아야 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익은 앞의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고 뒤의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사는 데에만 있지 않고, 이 헐한 값에라도 유럽에서 아주 비싼 값에 처분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많이 사들이지 않는 데에도 있었다. 어느 경우에나 식민지의 남는 생산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경우에 그 양이 저절로 느는 것을 막고 눌러 두는 것도 그들의 이익이었다. 새 식민지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오그라뜨리려고 꾸며 낼 수 있는 온갖 수 가운데 배타적 특권 회사라는 수가 틀림없이 가장 잘 듣는다. 그런데 이것이 네덜란드의 정책이었으니, 다만 그들의 회사는 이번 세기에 들어와 여러 면에서 제 배타 특권을 휘두르기를 그만두었다. 이것은 또한 지난 국왕의 치세까지 덴마크의 정책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따금 프랑스의 정책이기도 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1755년부터, 다른 모든 나라가 터무니없다는 까닭으로 그것을 버린 뒤에, 그것이 포르투갈의 정책이 되었으니 적어도 브라질의 주요한 두 주인 페르남부쿠와 마라냥에 대하여 그러하다.

다른 나라들은 배타적 특권 회사를 세우지는 않았으나 제 식민지의 장사 전부를 본국의 어느 한 항구에 묶어 두었고, 그곳에서는 선단을 이루어 정해진 철에 떠나는 배가 아니면, 또는 홀로 떠나는 배라면 따로

받은 면허에 따르는 배가 아니면 떠날 수 없었는데 그 면허는 대개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참으로 본국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식민지 거래를 열어 주기는 했으니, 다만 마땅한 항구에서 마땅한 철에 마땅한 배로 거래해야 했다. 그러나 그 면허받은 배를 꾸리려고 제 자산을 한데 모은 여러 상인은 서로 짜고 움직이는 것이 제 이익에 맞는다고 보았을 터이므로, 이렇게 꾸려 간 거래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 특권 회사의 거래와 거의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상인들의 이윤도 거의 똑같이 터무니없고 짓누르는 것이었을 터이다. 식민지는 물건을 제대로 대어 받지 못하고 아주 비싸게 사고 아주 헐하게 팔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몇 해 전까지 줄곧 스페인의 정책이었다. 그에 따라 스페인령 서인도에서는 온갖 유럽 물건의 값이 엄청났다고 한다. 키토에서는 쇠 1파운드(무게)가 4실링 6펜스쯤에, 강철 1파운드(무게)가 스털링으로 6실링 9펜스쯤에 팔렸다고 우요아가 우리에게 일러 준다. 그런데 식민지가 제 생산물을 내놓는 것은 주로 유럽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한쪽에 더 많이 치를수록 다른 쪽으로 실제로 받는 것은 더 적어지니, 한쪽이 비싼 것은 다른 쪽이 헐한 것과 같은 일이다. 이 점에서 포르투갈의 정책은 페르남부쿠와 마라냥을 뺀 제 모든 식민지에 대하여 스페인의 옛 정책과 같다. 그리고 그 둘에 대해서는 요즈음 더욱 나쁜 정책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나라들은 제 식민지의 거래를 제 백성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어 두어, 그들이 본국의 여러 항구 어디에서나 그 거래를 꾸려 갈 수 있게 하고 세관의 예사로운 서류 말고는 어떤 면허도 필요하지 않게 한다. 이럴 때에는 거래인의 수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두루 미치는 단합을 이루기가 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겨룸만으로도 그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막기에 넉넉하다. 그토록 너그러운 정책 아래에서 식민지는 제 생산물을 팔

수도 있고 유럽의 물건을 알맞은 값에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식민지가 아직 갓난아이와 같던 시절에 플리머스 회사가 없어진 뒤로 이것이 줄곧 잉글랜드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프랑스의 정책이기도 했고, 잉글랜드에서 흔히 미시시피 회사라 부르는 것이 없어진 뒤로는 한결같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제 식민지와 하는 거래의 이윤은, 다른 모든 나라에 겨룸이 열려 있을 때보다 틀림없이 얼마쯤 높기는 하나 결코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에 따라 유럽 물건의 값은 그 두 나라 어느 쪽의 식민지에서도 대부분의 곳에서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다.

남는 생산물을 내보내는 데에서도 영국 식민지가 본국의 시장에 묶여 있는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만이다. 이 상품들은 항해법[14]과 그 뒤에 나온 몇몇 법에 이름이 하나하나 적혔으므로 그런 까닭에 열거 상품이라 불렸다. 나머지는 열거되지 않은 상품이라 불리며 다른 나라로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데, 다만 영국 배나 개척지 배로 실어 가야 하고 그 배는 임자와 뱃사람의 4분의 3이 영국 백성이어야 한다.

열거되지 않은 상품 가운데에는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생산물 몇 가지가 들어 있으니, 온갖 종류의 곡물과 재목과 소금에 절인 식료품과 물고기와 설탕과 럼이다.

곡물은 모든 새 식민지가 가꾸는 첫째가는 주된 것이 되기 마련이다. 법은 그것에 아주 넓은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식민지 사람들이 이 가꿈을 사람이 드문 나라의 소비를 훨씬 넘어서까지 넓히도록, 그리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넉넉한 생계를 미리 마련해 두도록 북돋운다.

온통 숲으로 덮여 있어 나무가 값어치가 거의 또는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땅을 일구는 비용이 개량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은 식민지의 재목에 아주 넓은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그러지 않았더라면

값어치가 거의 없었을 상품의 값을 올리고 그리하여 그러지 않았더라면 비용에 지나지 않았을 것에서 얼마쯤 이윤을 내게 해 주어 개량을 쉽게 만들려고 애쓴다.

사람도 절반쯤밖에 살지 않고 땅도 절반쯤밖에 갈리지 않은 나라에서는 짐승이 주민들의 소비를 넘어 저절로 불어나므로 흔히 그런 까닭에 값어치가 거의 또는 아예 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땅의 대부분이 개량되려면 그에 앞서 짐승의 값이 곡물의 값에 일정한 비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보인 바다. 법은 죽은 것이든 산 것이든 온갖 꼴의 아메리카 짐승에 아주 넓은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그 값이 비싼 것이 개량에 그토록 중요한 상품의 가치를 올리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이 자유가 내는 좋은 효과는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15장」[15] 때문에 얼마쯤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 법은 짐승 가죽과 털가죽을 열거 상품에 넣어 그로써 아메리카 짐승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우리 식민지의 고기잡이를 넓혀 영국의 배와 해군의 힘을 키우는 일은 입법부가 거의 줄곧 눈여겨 온 목표인 듯하다. 그런 까닭에 그 고기잡이는 자유가 줄 수 있는 온갖 북돋움을 받았고 그에 따라 번성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뉴잉글랜드의 고기잡이는 요즈음의 소란이 일어나기 앞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잡이 가운데 하나였다. 영국에서는 터무니없이 후한 장려금을 주는데도 고래잡이가 어찌나 보람 없이 꾸려지는지,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보증할 뜻이 없다) 그 온 생산물이 해마다 그것에 치르는 장려금의 가치를 그리 넘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고래잡이가 뉴잉글랜드에서는 장려금이 하나도 없이 아주 크게 꾸려진다. 물고기는 북아메리카인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지중해로 거래하는 주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다.

설탕은 본디 열거 상품이어서 영국으로만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751년에 설탕 개척지 임자들이 청원하자 세상 어디로든 내보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주면서 함께 건 제약에 영국에서 설탕값이 비싸다는 사정이 더해져 그 자유는 크게 힘을 잃었다. 영국과 그 식민지는 아직도 영국 개척지에서 나는 온갖 설탕의 거의 유일한 시장으로 남아 있다. 그들의 소비가 어찌나 빨리 느는지, 자메이카와 할양받은 섬들의 개량이 나아간 결과로 지난 스무 해 사이에 설탕을 들여오는 것이 아주 크게 늘었는데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앞서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럼은 아메리카인들이 아프리카 해안으로 꾸려 가는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그들은 그 갚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실어 온다.

아메리카에서 남는 온갖 종류의 곡물과 소금에 절인 식료품과 물고기를 죄다 열거에 넣어 그로써 영국 시장으로 억지로 몰아넣었더라면, 그것은 우리 백성의 산업이 낸 생산물과 너무 많이 부딪혔을 것이다. 그 중요한 상품들을 열거에서 빼놓았을 뿐 아니라 쌀을 뺀 온갖 곡물과 온갖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예사로운 법의 상태에서 막아 둔 것은, 아마 아메리카의 이익을 헤아려서라기보다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시샘했기 때문이다.

열거되지 않은 상품은 본디 세상 어디로든 내보낼 수 있었다. 재목과 쌀은 한때 열거에 들어갔다가 뒤에 거기서 빠졌는데, 그때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피니스테레곶 남쪽에 놓인 나라들로만 묶였다. 「조지 3세 치세 6년의 법 제52장」으로 열거되지 않은 온갖 상품이 그와 같은 제약 아래에 놓였다. 피니스테레곶 남쪽에 놓인 유럽의 여러 곳은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식민지 배가 그곳에서 우리 것과 부딪힐 만한 제조품을 싣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덜 시샘한다.

열거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메리카에서만 나는 생산물이거나 본국에서 날 수 없는 것, 또는 적어도 본국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당밀과 커피와 코코야자 열매와 담배와 피멘토와 생강과 고래수염과 생사와 목화와 양모와 비버 가죽과 그 밖의 아메리카 털가죽과 인디고와 푸스틱과 그 밖의 물감 나무가 이런 종류다. 둘째는 아메리카에서만 나는 생산물은 아니어서 본국에서도 나고 날 수 있으나, 본국에서 찾는 것의 대부분을 대어 줄 만한 양으로는 나지 않아 그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온갖 선박 물자와 돛대와 활대와 이물기둥과 타르와 피치와 테레빈과 선철과 봉철과 구리 광석과 짐승 가죽과 털가죽과 잿물재와 정제한 잿물재가 이런 종류다. 첫째 종류의 상품은 아무리 많이 들여와도 본국 생산물의 어느 몫도 자라는 것을 막거나 팔리는 것과 부딪힐 수 없었다. 그것을 국내 시장에 묶어 두면 우리 상인들이 개척지에서 그것을 더 헐하게 사고 따라서 본국에서 더 나은 이윤을 남겨 팔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개척지와 외국 사이에 이로운 중계 무역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으니, 그 상품이 처음 들어가야 하는 유럽 나라로서 영국이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이나 집산지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종류의 상품을 들여오는 것도, 본국에서 나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팔리는 것과 부딪히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팔리는 것과만 부딪히도록 다스릴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여겼다. 알맞은 관세를 써서 그것을 언제나 앞의 것보다 얼마쯤 비싸면서도 뒤의 것보다는 꽤 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 묶어 두어, 영국의 생산물이 아니라 무역 차액이 영국에 이롭지 않다고 믿어지던 몇몇 외국의 생산물을 막자는 것이었다.

돛대와 활대와 이물기둥과 타르와 피치와 테레빈을 식민지에서 영국 말고 다른 어느 나라로도 내보내지 못하게 막은 것은, 식민지에서

나무의 값을 내리고 따라서 그들의 땅을 일구는 비용, 곧 그들의 개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용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기가 시작될 무렵인 1703년에 스웨덴의 피치·타르 회사가 제 배로, 제가 매긴 값으로,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양만큼만 내보내고 그 밖에는 내보내지 못하게 막아 영국에 파는 제 상품의 값을 올리려고 했다. 이 눈에 띄는 상업 정책을 맞받고 스웨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북방 세력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려고,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선박 물자를 들여오는 데에 장려금을 주었다. 그리고 이 장려금의 효과는 국내 시장에 묶어 둔 것이 내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아메리카에서 나무의 값을 올리는 것이었다. 두 규제가 같은 때에 만들어졌으므로 그 둘이 함께 낸 효과는 아메리카에서 땅을 일구는 것을 막기보다 오히려 북돋우는 것이었다.

선철과 봉철도 열거 상품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아메리카에서 들여올 때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 때 물어야 하는 제법 무거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므로, 이 규제의 한쪽이 아메리카에 용광로를 세우는 것을 북돋우는 힘이 다른 쪽이 그것을 막는 힘보다 크다. 용광로만큼 나무를 많이 쓰게 만드는 제조업도, 나무가 우거진 나라를 일구는 데에 그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 제조업도 없다.

이 규제 가운데 몇몇이 아메리카에서 나무의 가치를 올리고 그로써 땅을 일구기 쉽게 만드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어쩌면 입법부가 뜻한 바도 알아차린 바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 그 이로운 효과가 어쩌다 생긴 것이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덜 참된 것은 아니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있는 영국 식민지 사이에는 열거 상품에서나 열거되지 않은 상품에서나 더없이 온전한 거래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 그 식민지들은 이제 사람이 많고 번성하게 되어 저마다 다른 몇몇 식민지에서 제 생산물의 온갖 몫을 위한 크고 넓은 시장을 찾아낸다.

그들을 모두 합쳐 보면 그들은 서로의 생산물을 위한 큰 내부 시장을 이룬다.

그렇지만 잉글랜드가 제 식민지의 거래에 보인 너그러움은 주로 원생산물 그대로의 생산물이나 제조의 맨 첫 단계라 할 만한 것에 있는 생산물의 시장에 관한 데에 머물렀다. 더 나아갔거나 더 다듬어진 제조품은 식민지에서 난 것을 감으로 삼은 것이라 해도 영국의 상인과 제조업자가 제 몫으로 남겨 두기를 골랐고, 그들은 입법부를 움직여 더러는 무거운 관세로 더러는 아주 금하여 그것이 식민지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았다.

이를테면 영국 개척지에서 오는 조당은 들여올 때 1헌드레드웨이트마다 6실링 4펜스만 물면 되지만, 흰 설탕은 1파운드 1실링 1펜스를 물고, 덩이로 굳혀 두 번 거르든 한 번 거르든 정제한 설탕은 4파운드 2실링 5와 20분의 8펜스를 문다. 이 무거운 관세를 매길 때 영국은 영국 식민지의 설탕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된 시장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처음에는 외국 시장에 내려고 설탕을 흙으로 거르거나 정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온 생산물의 어쩌면 10분의 9가 넘게 나가는 그 시장에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에 따라 설탕을 흙으로 거르거나 정제하는 제조업은 프랑스의 모든 설탕 식민지에서 번성했으나 잉글랜드의 어느 식민지에서도 식민지 자체의 시장에 내려는 것 말고는 거의 가꾸어지지 않았다. 그레나다가 프랑스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에는 적어도 거의 모든 개척지마다 흙으로 거르는 설탕 정제소가 있었다. 그것이 잉글랜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뒤로 이런 종류의 일터는 거의 모두 걷어치워졌고, 지금(1773년 10월)은 그 섬에 두셋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나는 확실히 들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세관이 눈감아 주어, 흙으로 거르거나 정제한 설탕도 덩이에서 가루로 바꾸어 놓으면 흔히 조당으로 들여온다.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 때 같은 종류의 상품이 물어야 하는 관세를 아메리카의 선철과 봉철에는 물리지 않아 그것을 만드는 것을 북돋우면서도, 제 아메리카 개척지 어디에서든 강철 용광로와 쇠를 째는 공장을 세우는 것은 아주 금한다. 영국은 제 식민지가 그 더 다듬어진 제조품을 제 소비를 위해서라도 만드는 것을 참아 주지 않고, 그런 종류의 물건 가운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죄다 영국의 상인과 제조업자에게서 사라고 다그친다.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난 모자와 양모와 모직물을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물길로 내보내는 것을 막고, 말 등에 싣거나 수레에 실어 뭍길로 옮기는 것까지 막는다. 이 규제는 멀리 내다 팔려고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자리 잡는 것을 톡톡히 막아 내며, 이런 길로 제 식민지 사람들의 산업을 한 집안이 흔히 제 쓰임에나 같은 주에 사는 몇몇 이웃의 쓰임에 맞추어 만드는, 거칠고 집에서 만드는 제조품에 묶어 둔다.

그렇지만 큰 백성에게 제 생산물의 어느 몫으로든 만들 수 있는 것을 죄다 만들지 못하게 막거나, 제 자산과 근면을 스스로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데에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람이 지닌 더없이 거룩한 권리를 뻔히 어기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금함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까지 식민지를 크게 해치지는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는 땅이 아직 아주 헐하고 따라서 노동이 아주 비싸므로, 더 다듬어지거나 더 나아간 제조품은 거의 모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헐하게 본국에서 들여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조업을 세우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개량의 상태에서는 제 이익을 헤아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개량의

상태에서 그 금함은 어쩌면 그들의 산업을 옥죄지도 않고 저절로 갔을 어떤 쓰임에서 그것을 막지도 않으니, 본국 상인과 제조업자의 터무니없는 시샘이 넉넉한 까닭도 없이 그들에게 씌운 주제넘은 종살이의 표지일 뿐이다. 더 나아간 상태에서라면 그것이 참으로 짓누르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은 또한 식민지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생산물 몇 가지를 제 시장에 묶어 두는 대신 그 값으로 그 가운데 몇몇에게 그 시장에서 이점을 주는데, 더러는 같은 종류의 생산물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때 더 무거운 관세를 매김으로써 그렇게 하고, 더러는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데에 장려금을 줌으로써 그렇게 한다. 앞의 길로는 제 식민지의 설탕과 담배와 쇠에 국내 시장에서 이점을 주고, 뒤의 길로는 그들의 생사와 삼과 아마와 인디고와 선박 물자와 집 지을 나무에 이점을 준다. 들여오는 데에 장려금을 주어 식민지 생산물을 북돋우는 이 뒤의 길은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한 영국에만 있는 것이나, 앞의 길은 그렇지 않다. 포르투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담배를 들여오든 더 무거운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없이 엄한 벌로 그것을 금한다.

유럽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데에서도 잉글랜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제 식민지를 너그럽게 다루었다.

영국은 외국 물건을 들여올 때 문 관세의 한 몫, 거의 언제나 절반이고 대개 그보다 큰 몫이며 더러는 전부를, 그것을 어느 외국으로든 내보낼 때 되돌려 받도록 허락한다. 거의 모든 외국 물건이 영국으로 들여올 때 지는 그 무거운 관세를 짊어진 채 온다면 독립한 어느 외국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보낼 때 그 관세의 얼마쯤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중계 무역, 곧 중상주의 체계가 그토록 아끼는 그 무역은 끝장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식민지는 결코 독립한 외국이 아니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에서 오는 온갖 물건을 식민지에 대어 줄 배타 권리를 제 것으로 삼았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제 식민지에 한 것과 똑같이) 본국에서 물던 것과 똑같은 관세를 죄다 짊어진 채로 그 물건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달리 1763년까지는 외국 물건 대부분을 우리 식민지로 내보낼 때에도 독립한 어느 외국으로 내보낼 때와 똑같은 관세 환급이 치러졌다. 참으로 1763년에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15장」으로 이 너그러움이 꽤 줄어들어, "유럽이나 동인도에서 자라거나 나거나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이 왕국에서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나 개척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구보조세라 불리는 관세의 어느 몫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포도주와 흰 옥양목과 모슬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졌다. 이 법이 나오기 앞서는 여러 종류의 외국 물건을 본국에서보다 개척지에서 더 헐하게 살 수 있었고, 더러는 아직도 그럴 것이다.

식민지 거래에 관한 규제 대부분에서 그 거래를 꾸려 가는 상인들이 주된 조언자였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큰 몫에서 식민지의 이익보다도 본국의 이익보다도 그들의 이익이 더 헤아려졌다 해도 우리는 놀랄 것이 없다. 식민지가 유럽에서 바라는 온갖 물건을 식민지에 대어 주고, 남는 생산물 가운데 자기들이 본국에서 꾸려 가는 어느 거래와도 부딪히지 않을 몫을 죄다 사들이는 그 배타 특권에서, 식민지의 이익이 그 상인들의 이익에 바쳐졌다. 유럽과 동인도의 물건 대부분을 식민지로 되내보낼 때 독립한 어느 나라로 되내보낼 때와 똑같은 관세 환급을 허락한 데에서는, 본국의 이익이 상업의 생각으로 본 그 이익의 잣대로 보더라도 거기에 바쳐졌다. 식민지로 보내는 외국 물건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치르고 따라서 영국으로 들여올 때 먼저 낸 관세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되돌려 받는 것이 상인들의 이익이었다.

그로써 그들은 같은 양의 물건을 더 큰 이윤으로 팔거나 더 많은 양을 같은 이윤으로 식민지에서 팔 수 있었을 터이고, 따라서 이 길로든 저 길로든 얼마쯤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물건을 죄다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얻는 것은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이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본국의 이익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국은 흔히 세입에서 손해를 보았을 터이니 그러한 물건을 들여올 때 문 관세의 큰 몫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고, 또 제조업에서도 손해를 보았을 터이니 그 관세 환급 덕에 외국 제조품이 손쉬운 조건으로 그곳에 실려 가 식민지 시장에서 값이 깎여 밀렸기 때문이다. 영국 아마포 제조업이 나아가는 걸음이 독일 아마포를 아메리카 식민지로 되내보낼 때 주는 관세 환급 탓에 꽤 늦추어졌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제 식민지의 거래에 관한 영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똑같은 상업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는 해도, 그것은 대체로 그 어느 나라의 정책보다 덜 옹색하고 덜 짓누르는 것이었다.

외국 거래를 뺀 모든 일에서 영국 식민지 사람들이 제 일을 제 뜻대로 꾸려 갈 자유는 온전하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본국에 있는 제 동포 시민의 자유와 같고, 식민지 통치를 떠받칠 세금을 매길 권리를 홀로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모인 의회로 똑같이 지켜진다. 이 의회의 권위는 집행권을 눌러 놓는다.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식민지 사람도 아무리 미움받는 식민지 사람도 법을 지키는 한, 총독의 노여움도 그 주에 있는 다른 어느 문관이나 무관의 노여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식민지 의회는 잉글랜드의 하원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람들을 아주 고르게 대표하지는 않으나 그 성격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리고 집행권에는 그들을 물들일 수단이 없거나, 본국에서 받는 받침 덕에 그렇게 할 까닭이 없으므로, 그들은 어쩌면 대체로 저를 뽑아

준 이들의 뜻에 더 많이 움직인다. 식민지 입법부에서 영국의 상원에 맞먹는 참사회는 세습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뉴잉글랜드의 세 통치체에서 그러하듯 몇몇 식민지에서는 그 참사회를 국왕이 뽑지 않고 사람들의 대표가 뽑는다. 영국 식민지 어디에도 세습 귀족은 없다. 참으로 그 모두에서 다른 모든 자유로운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식민지 집안의 자손이 같은 값어치와 재산을 지닌 벼락출세한 사람보다 더 우러름을 받기는 한다. 그러나 그는 더 우러름을 받을 뿐이고 이웃을 성가시게 할 만한 특권은 지니지 않는다. 지금의 소란이 일어나기 앞서 식민지 의회는 입법권만이 아니라 집행권의 한 몫도 지니고 있었다.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에서는 그들이 총독을 뽑았다. 다른 식민지에서는 그들이 세금 걷는 관리를 임명했는데, 그 관리들은 저마다의 의회가 매긴 세금을 걷었고 그 의회에 곧바로 책임을 졌다. 그러므로 영국 식민지 사람들 사이에는 본국 주민들 사이에서보다 고름이 더 크다. 그들의 풍습은 더 공화국다우며, 그들의 통치도, 그 가운데에서도 뉴잉글랜드 세 주의 통치는 이제까지 더 공화국다웠다.

---

1.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sewn"으로 찍었으나 앞뒤로 보아 "seem"이다. 이 장의 저본에는 그 밖에도 "Waiter Raleigh"(Walter), "the greater past of the colonies"(part), "imported front any other country"(from), "£18;000"(£18,000), "more re publican"(republican)처럼 뜻이 통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 모두 뜻이 통하는 쪽으로 옮겼다.

2. 옮긴이 — 모도시는 그리스 식민을 내보낸 본디 도시를 말한다. 스미스는 이것을 본국(mother country)과 갈라 쓴다. 그리스의 식민지는 모도시에서 정치로 독립해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는 모도시의 판도 안에 있었다.

3. 옮긴이 — 유게룸은 로마의 땅 단위로 한 쌍의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넓이에서 나왔다. 500유게라는 스미스의 셈대로 영국 에이커로 350에이커쯤이다.

4. 옮긴이 — 이 자리의 corporation 은 길드를 뜻하는 동업조합이 아니라, 제 내규를 만들 수 있으나 상위의 법 아래에 놓인 자치 단체를 말한다. 이 책에서 그 낱말은 대개

동업조합으로 옮기나 여기서는 문맥이 다른 것을 가리킨다.

5. 옮긴이 — 스미스가 쓴 Indian corn 은 아메리카의 마이즈, 곧 강냉이다. 이 책에서 corn 은 거의 언제나 곡물 일반, 특히 밀을 가리키므로 이 자리만 갈라 적는다.

6. 옮긴이 — 18세기 유럽의 저술이 농경과 문자와 국가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사회를 가리켜 쓰던 말이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사냥하는 사회, 짐승을 치는 사회, 농사짓는 사회, 상업하는 사회의 네 단계로 사회를 나누어 본다.

7. 옮긴이 — 크리오요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유럽계 사람을 가리킨다. 본국에서 건너온 사람과도, 원주민이나 혼혈과도 갈라 부르던 말이다.

8. 옮긴이 — 미시시피 계획은 스코틀랜드 사람 존 로(1671~1729)가 프랑스에서 벌인 일로, 루이지애나 개발을 내건 회사의 주권과 지폐를 함께 부풀렸다가 1720년에 무너졌다. 잉글랜드에서는 흔히 미시시피 회사라 불렀다.

9. 옮긴이 — 지난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 동쪽 땅을, 그리고 서인도의 몇몇 섬을 영국에 넘겼다.

10. 옮긴이 — 자유 소케지는 잉글랜드의 토지 보유 형태 가운데 하나로, 기사로서 복무할 의무 대신 일정한 지대나 정해진 봉사를 무는 보유다. 군역이 따르는 귀족식 보유보다 남에게 넘기기가 쉬웠다.

11. 옮긴이 — 마요라스고는 스페인의 한정 상속 제도로, 재산을 나누거나 팔지 못하게 묶어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다.

12. 옮긴이 — 지금의 소란은 1775년에 무장 충돌로 번진 아메리카 식민지와 본국의 다툼을 가리킨다. 이 책은 1776년 3월에 나왔다.

13.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저본이 4s:6d. 꼴로 적은 것은 4실링 6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14. 옮긴이 — 항해법은 1651년과 1660년에 자리 잡은 잉글랜드의 법으로, 식민지의 물건을 영국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하고 어떤 상품은 본국으로만 내보내게 묶었다. 이 책 4편 2장에서 스미스가 따로 다룬다.

15.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킨다. 조지 3세는 1760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4년은 1763년에서 1764년에, 치세 6년은 1765년에서 1766년에 걸친다.

7장 — 식민지에 대하여 (이어서)

그와 달리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전제 정부는 제 식민지에서도 그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아래 관리들에게 으레 맡기는 재량의 권한은 거리가 아주 먼 까닭에 그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난폭함으로 행사되기 마련이다. 모든 전제 정부 아래에서는 수도에 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자유가 더 많다. 주권자 자신은 재판의 질서를 뒤틀거나 사람들의 큰 몸뚱이를 짓누를 이익도 마음도 결코 지닐 수 없다. 수도에서는 그가 몸소 있다는 것만으로 아래 관리들이 얼마쯤 주눅 들지만, 사람들의 하소연이 그에게 이르기 어려운 먼 지방에서는 그 관리들이 훨씬 더 마음 놓고 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그런데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는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큰 제국들의 가장 먼 지방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영국 식민지의 정부는 어쩌면 세상이 시작된 뒤로 그토록 먼 지방의 주민들에게 온전한 안전을 줄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의 통치는 언제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알맞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나은 처신은 프랑스 국민의 성격에도 어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 성격을 빚어내는 것, 곧 그들 정부의 성질에도 어울리는데, 그 정부는 영국의 정부에 견주면 제멋대로이고 난폭하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부에 견주면 법에 맞고 자유롭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방침이 나은 점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나아간 걸음에서다.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가

나아간 걸음은 잉글랜드의 설탕 식민지 대부분에 적어도 맞먹었고 어쩌면 그보다 나았는데, 잉글랜드의 설탕 식민지도 그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자리 잡은 것과 거의 같은 종류의 자유로운 정부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러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는 잉글랜드의 설탕 식민지와 달리 제 설탕을 정제하는 일을 막히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정부의 기질이 저절로 흑인 노예를 더 잘 다루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유럽의 모든 식민지에서 사탕수수 농사는 흑인 노예가 짓는다.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몸은 서인도의 불타는 볕 아래에서 땅을 파는 노동을 견딜 수 없으리라고들 여긴다. 그리고 사탕수수 농사는 지금 꾸려 가는 방식으로는 온통 손일인데, 많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골타기 쟁기를 들여오면 큰 이점이 있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소를 부려 짓는 경작의 이윤과 성공이 그 소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크게 달려 있듯이, 노예를 부려 짓는 경작의 이윤과 성공도 그 노예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똑같이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노예를 잘 다루는 일에서는 프랑스 개척지 농장주가 잉글랜드 농장주보다 낫다는 것이 두루 인정되는 바라고 나는 생각한다. 법이 주인의 난폭함에 맞서 노예에게 얼마쯤 약한 보호를 주는 한에서는, 그 법은 정부가 온전히 자유로운 식민지에서보다 정부가 크게 제멋대로인 식민지에서 더 잘 집행되기 쉽다. 노예 제도라는 불행한 법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행정관이 노예를 보호할 때 주인의 사유 재산을 다루는 일에 얼마쯤 끼어드는 셈이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주인이 어쩌면 식민지 의회의 의원이거나 그런 의원을 뽑는 유권자이므로, 행정관은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가 아니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가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그 존중이 그로서는 노예를 보호하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정부가 크게 제멋대로인

나라, 곧 행정관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다루는 일에까지 끼어드는 것이 예사이고 제 마음에 들게 다루지 않으면 어쩌면 르트르 드 카셰를 보내기까지 하는 나라에서는, 그가 노예에게 얼마쯤 보호를 주기가 훨씬 쉽고 여느 사람다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하도록 그를 이끈다.[1] 행정관의 보호는 주인의 눈에 노예를 덜 하찮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하여 주인은 노예를 더 헤아려 보고 더 부드럽게 다루게 된다. 부드럽게 부리면 노예는 더 충실해질 뿐 아니라 더 슬기로워지고, 따라서 두 갈래로 더 쓸모 있어진다. 그는 자유로운 하인의 처지에 더 가까워지고 얼마쯤 곧은 마음과 주인의 이익에 대한 애착을 지닐 수도 있으니, 이는 자유로운 하인에게는 흔히 있는 덕이나 주인이 온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노예가 예사로 다루어지는 대로 다루어지는 노예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덕이다.

노예의 처지가 자유로운 정부 아래에서보다 제멋대로인 정부 아래에서 더 낫다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역사가 뒷받침한다고 나는 믿는다. 로마의 역사에서 행정관이 주인의 난폭함으로부터 노예를 지키려고 끼어드는 것을 우리가 처음 읽는 것은 황제들 아래에서다. 비디우스 폴리오가 아우구스투스가 보는 앞에서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제 노예 하나를 토막 내어 제 물고기를 먹이려고 못에 던지라고 시켰을 때, 황제는 노여워하며 그 노예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다른 모든 노예까지 당장 풀어 주라고 그에게 명령했다.[2] 공화정 아래에서는 어떤 행정관도 노예를 지킬 만한 권위를 지니지 못했을 터이고 주인을 벌할 권위는 더더욱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 특히 생도맹그라는 큰 식민지를 개량한 자산이 거의 온통 그 식민지들을 차츰 개량하고 경작한 데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것은 거의 온통 그 땅과 식민지 사람들의 근면이 낸 생산물이었고,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잘 꾸려 나간 덕에 차츰

쌓이고 더 많은 생산물을 길러 내는 데에 쓰인 그 생산물의 값이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설탕 식민지를 개량하고 경작한 자산은 그 큰 몫이 잉글랜드에서 보내진 것이었고 결코 온통 그 땅과 식민지 사람들의 근면이 낸 생산물이 아니었다. 잉글랜드의 설탕 식민지가 번영한 것은 크게 잉글랜드의 큰 부 덕분이었으니, 그 부의 한 몫이 말하자면 이 식민지들 위로 흘러넘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가 번영한 것은 온통 식민지 사람들이 잘 처신한 덕분이었으므로 그 처신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처신보다 얼마쯤 나았을 수밖에 없고, 이 나은 점은 제 노예를 잘 다룬 일에서만큼 뚜렷이 드러난 데가 없다.

제 식민지를 두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편 방침의 큰 줄거리는 이러했다.

그러므로 유럽의 방침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처음 세운 일에서든, 그 안의 통치에 관한 한 그 뒤에 이루어진 번영에서든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

어리석음과 옳지 않음이 그 식민지를 세우려는 첫 기획을 이끌고 다스린 원리였던 듯하다. 금광과 은광을 좇아 쫓아다닌 어리석음이 하나요, 유럽 사람들을 해친 적이 없기는커녕 처음 온 모험가들을 온갖 친절과 후대의 표로 맞아 준 해롭지 않은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를 차지하려고 탐낸 옳지 않음이 또 하나다.

참으로 뒤에 선 개척지 가운데 얼마를 이룬 모험가들은 금광과 은광을 찾겠다는 허황한 기획에 더 사리에 닿고 더 갸륵한 다른 동기를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기들조차 유럽의 방침에 돌릴 영예는 거의 없다.

본국에서 억눌린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달아나 그곳에 뉴잉글랜드의 네 정부를 세웠다. 훨씬 더 큰 옳지 않음을 겪은 잉글랜드 가톨릭 교도들은 메릴랜드의 정부를 세웠고 퀘이커

교도들은 펜실베이니아의 정부를 세웠다. 종교 재판에 쫓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브라질로 내쫓긴 포르투갈 유대인들은 제 본보기로, 본디 그 식민지에 사람을 채운 귀양 보내진 중죄인과 창녀 들 사이에 얼마쯤 질서와 근면을 들여놓았고 그들에게 사탕수수 농사를 가르쳤다. 이 모든 서로 다른 경우에 아메리카에 사람을 채우고 그곳을 경작한 것은 유럽 정부들의 슬기와 방침이 아니라 그 무질서와 옳지 않음이었다.

이 개척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얼마를 실제로 이루는 데에서도 유럽의 여러 정부가 세운 공은 그것을 기획하는 데에서만큼이나 적었다. 멕시코를 정복한 일은 스페인 참사회의 기획이 아니라 쿠바 총독의 기획이었고, 그것을 이룬 것은 그 일을 맡은 대담한 모험가의 기개였으니, 그런 사람을 믿은 것을 곧 뉘우친 그 총독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그러했다. 칠레와 페루를 정복한 사람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거의 모든 스페인 개척지를 정복한 사람들이 지니고 간 나라의 북돋움이란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개척지를 세우고 정복해도 좋다는 두루뭉술한 허락뿐이었다. 그 모험은 모두 모험가들이 제 위험과 제 비용으로 한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그 가운데 어느 것에도 거의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다. 잉글랜드 정부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식민지를 세우는 일을 이루는 데에 그만큼 적게 보탰다.

그 개척지들이 이루어지고 본국의 눈길을 끌 만큼 커졌을 때, 본국이 그것을 두고 처음 만든 규정은 언제나 저 자신에게 그 상업의 독점을 확보해 주는 것을, 곧 식민지의 시장을 가두고 그들을 희생시켜 제 시장을 넓히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번영해 가는 걸음을 재촉하고 앞당기기보다 오히려 죽이고 막는 것을 노렸다. 이 독점이 행사되어 온 여러 방식에 제 식민지를 두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편 방침의 가장 본질에 닿는 차이 하나가 들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은 잉글랜드의

방침도 나머지 어느 나라의 방침보다 얼마쯤 덜 옹졸하고 덜 억누를 뿐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방침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처음 세우는 일에나 오늘날의 웅장함에 어떻게 이바지했는가? 한 가지 길로, 오직 한 가지 길로만 그것은 크게 이바지했다. 위대한 사내들의 어머니여![3] 그것은 그토록 큰 일을 해내고 그토록 큰 제국의 터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 내고 빚어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느 구석에도 그런 사람들을 빚어낼 수 있는 방침은 없으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빚어낸 적도 없다. 식민지는 그 활발하고 진취하는 창건자들의 교육과 큰 안목을 유럽의 방침에 빚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얼마는 그 안의 통치에 관한 한 그것 말고는 유럽의 방침에 빚진 것이 거의 없다.

제3절.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일과 희망봉을 돌아 동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 일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아메리카 식민지가 유럽의 방침에서 얻은 이익은 이러하다.

그러면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에 식민한 일에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그 이익은 첫째로 유럽을 하나의 큰 나라로 볼 때 그 큰 사건들에서 얻은 두루 미치는 이익과, 둘째로 식민한 나라가 저마다 제게 딸린 식민지에서 그 위에 부리는 권위나 지배의 결과로 얻은 남다른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을 하나의 큰 나라로 볼 때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에 식민한 일에서 얻은 두루 미치는 이익은 첫째로 누림이 늘어난 것이고 둘째로 산업이 커진 것이다.

아메리카의 남는 생산물이 유럽으로 들어와 이 큰 대륙의 주민들에게 달리는 지닐 수 없었을 여러 가지 상품을, 얼마는 편리하고 쓸모

있으라고 얼마는 즐거우라고 얼마는 꾸미라고 대어 주며, 그리하여 그들의 누림을 늘리는 데에 이바지한다.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에 식민한 일이 첫째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프랑스와 잉글랜드처럼 그곳과 곧바로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산업을 키우는 데에 이바지했고, 둘째로 그곳과 곧바로 거래하지는 않으나 다른 나라를 거쳐 제 생산물인 물건을 그곳으로 보내는 모든 나라, 이를테면 오스트리아령 플란데런과 독일의 몇몇 지방처럼 앞서 말한 나라들을 거쳐 적지 않은 양의 리넨과 다른 물건을 그곳으로 보내는 나라들의 산업을 키우는 데에 이바지했다는 것은 선뜻 인정될 것이다. 그런 모든 나라가 제 남는 생산물에 더 넓은 시장을 얻은 것은 뻔하고, 따라서 그 양을 늘리도록 북돋워졌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큰 사건들이 헝가리와 폴란드처럼 어쩌면 제 생산물인 상품을 아메리카로 한 가지도 보낸 적이 없을 나라의 산업까지 북돋우는 데에 이바지했으리라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아메리카 생산물의 얼마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소비되고, 그곳에서도 그 새로운 세상 구석의 설탕과 초콜릿과 담배를 얼마쯤 찾는다. 그러나 그 상품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근면이 낸 생산물이거나 그 생산물의 얼마로 사들인 무엇으로 사야 한다. 아메리카의 그 상품은 헝가리와 폴란드로 들어와 그곳에서 이 나라들의 남는 생산물과 바뀌는 새로운 가치요 새로운 맞짝이다. 그것이 그곳으로 실려 감으로써 그 남는 생산물에 새롭고 더 넓은 시장이 생긴다. 그것은 그 가치를 올리고 그리하여 그것이 늘어나도록 북돋우는 데에 이바지한다. 그 가운데 어느 몫도 아메리카로 실려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른 나라로 실려 갈 수 있는데, 그 나라들은 아메리카의 남는 생산물 가운데 제게 떨어진 몫으로 그것을 사들이며,

또 그것은 본디 아메리카의 남는 생산물이 움직이게 한 그 거래의 돌림을 통하여 시장을 찾을 수 있다.

그 큰 사건들은 아메리카로 상품을 보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상품을 받은 적도 없는 나라들의 누림을 늘리고 산업을 키우는 데에까지 이바지했을 수 있다. 그런 나라들조차 아메리카 거래 덕에 남는 생산물이 커진 나라들에게서 다른 상품을 더 넉넉하게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더 넉넉해진 것은 그들의 누림을 늘렸을 수밖에 없듯이 그들의 산업 또한 키웠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종류의 새로운 맞짝이 더 많이 그들 앞에 놓여 그 산업의 남는 생산물과 바뀌게 되었을 터이다. 그 남는 생산물에 더 넓은 시장이 생겨 그 가치를 올리고 그리하여 그것이 늘어나도록 북돋웠을 터이다. 해마다 유럽 상업이라는 큰 고리 안으로 던져져 그 여러 차례의 돎으로 해마다 그 안에 든 온갖 나라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상품의 덩어리는 아메리카의 남는 생산물 전부만큼 커졌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더 커진 덩어리의 더 큰 몫이 그 나라들 저마다에게 떨어져 그 누림을 늘리고 그 산업을 키웠을 법하다.

본국들의 배타 거래는 그 모든 나라 일반의, 그리고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의 누림과 산업을 함께 줄이거나 적어도 저절로 올랐을 자리 밑으로 눌러 두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큰 몫을 움직이게 하는 큰 용수철 하나의 움직임 위에 얹힌 죽은 짐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식민지 생산물을 더 값비싸게 만듦으로써 그것은 그 소비를 줄이고, 그리하여 식민지의 산업과 다른 모든 나라의 누림과 산업을 함께 옥죄는데, 그 나라들은 누리는 것에 더 많이 치를수록 덜 누리고 만들어 내는 것에 더 적게 받을수록 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식민지에서 다른 모든 나라의 생산물을 더 값비싸게 만듦으로써 그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나라의 산업과 식민지의 누림과 산업을 함께 옥죈다.[4] 그것은 어떤 몇몇 나라에 이로우리라 여겨지는 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나라의 즐거움을 성가시게 하고 그 산업에 짐을 지우는 차꼬이며, 식민지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보다 더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모든 나라를 어느 한 시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내쫓을 뿐 아니라 식민지를 어느 한 시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두어 두는데, 다른 모든 시장이 열려 있는데 어느 한 시장에서 내쫓기는 것과 다른 모든 시장이 닫혀 있는데 어느 한 시장에 갇히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식민지의 남는 생산물은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에 식민한 일에서 얻는 그 모든 누림과 산업의 늘어남의 본디 샘이며, 본국들의 배타 거래는 이 샘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훨씬 덜 넉넉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운다.

식민한 나라가 저마다 제게 딸린 식민지에서 얻는 남다른 이익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다. 첫째는 어느 제국이나 제 지배 아래 있는 지방에서 얻는 두루 있는 이익이고, 둘째는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처럼 아주 별난 성질을 지닌 지방에서 나오리라 여겨지는 유별난 이익이다.

어느 제국이나 제 지배 아래 있는 지방에서 얻는 두루 있는 이익은 첫째로 그 방비를 위하여 그들이 대어 주는 군사력이고, 둘째로 그 민간 통치를 떠받치기 위하여 그들이 대어 주는 세입이다. 로마의 식민지는 때때로 이것도 저것도 대어 주었다. 그리스의 식민지는 이따금 군사력을 대어 주었으나 세입을 대어 주는 일은 드물었다. 어머니 도시의 지배 아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대개 전쟁에서는 그 동맹이었으나 평화로울 때 그 신민인 일은 아주 드물었다.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는 이제까지 본국의 방비를 위하여 아무 군사력도 대어 준 적이 없다. 그 군사력은 이제까지 제 방비에도 넉넉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본국들이 벌인 여러 전쟁에서 제 식민지를 지키는 일은 대개 그 나라들의 군사력을 아주 크게 흩뜨려 놓았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는 유럽의 모든 식민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 본국에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약함이 되는 원인이었다.

본국의 방비나 그 민간 통치를 떠받치는 일에 세입을 얼마라도 보탠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뿐이다. 다른 유럽 나라들의 식민지, 특히 잉글랜드의 식민지에 매겨진 세금은 평화로운 때에 그들에게 들인 비용에 맞먹은 적이 드물었고, 전쟁 때에 그들이 일으킨 비용을 치르기에 넉넉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식민지는 제 본국에 세입의 샘이 아니라 비용의 샘이었다.

그런 식민지가 제 본국에 주는 이익은 온통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처럼 아주 별난 성질을 지닌 지방에서 나오리라 여겨지는 그 유별난 이익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유별난 이익의 오직 하나의 샘이 배타 거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이 배타 거래의 결과로, 이를테면 잉글랜드 식민지의 남는 생산물 가운데 이른바 열거 상품에 드는 몫은 잉글랜드 말고 다른 어느 나라로도 보낼 수 없다.[5] 다른 나라들은 그 뒤에 잉글랜드에게서 그것을 사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잉글랜드에서 헐해야 하고, 다른 어느 나라의 누림보다 잉글랜드의 누림을 늘리는 데에 더 이바지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잉글랜드의 산업을 북돋우는 데에도 더 이바지해야 한다. 잉글랜드가 그 열거 상품과 바꾸는 제 남는 생산물의 모든 몫에 대하여 잉글랜드는, 다른 나라들이 제 생산물의 같은 몫을 같은 상품과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값보다 더 나은 값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잉글랜드의 제조품은 다른 나라의 같은 제조품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제 식민지 설탕과 담배를 살 것이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의 제조품과 다른 나라의 제조품이 둘 다 잉글랜드 식민지의 설탕과 담배와 바뀌어야 하는 한에서, 이렇게 값이 나은 것은 앞의 것에 뒤의 것이 이런 사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북돋움을 준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배타 거래는 그것을 지니지 못한 나라들의 누림과 산업을 줄이거나 적어도 저절로 올랐을 자리 밑으로 눌러 두는 만큼, 그것을 지닌 나라에 그 다른 나라들보다 뚜렷한 이점을 준다.

그러나 이 이점은 어쩌면 절대의 이점이라기보다 상대의 이점이라 부를 만한 것임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을 누리는 나라를 자유로운 무역이 있을 때 저절로 올랐을 자리 위로 그 나라의 산업과 생산물을 올려 주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산업과 생산물을 눌러서 나은 자리에 놓아 주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테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담배는 잉글랜드가 그것에 대하여 누리는 독점 덕에, 잉글랜드가 그 적지 않은 몫을 으레 팔아 넘기는 프랑스에 이르는 값보다 틀림없이 더 헐하게 잉글랜드에 이른다. 그러나 프랑스와 다른 모든 유럽 나라가 어느 때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락되어 있었다면, 그 식민지의 담배는 이제쯤 그 다른 모든 나라뿐 아니라 잉글랜드에도 실제 그러한 것보다 더 헐하게 이르렀을 것이다. 담배의 생산은 이제까지 누려 온 어느 시장보다 그토록 훨씬 넓은 시장이 열린 결과로, 이제쯤 담배 개척지의 이윤을 곡물 개척지의 이윤과 나란한 자연스러운 자리로 끌어내릴 만큼 크게 늘어날 수 있었을 터이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을 터인데, 담배 개척지의 이윤은 아직 곡물 개척지의 이윤보다 얼마쯤 높다고 여겨진다. 담배의 값은 이제쯤 지금보다 얼마쯤 더 낮게 떨어질 수 있었을 터이고 아마 실제로 떨어졌으리라. 잉글랜드의 상품이든 그 다른 나라들의 상품이든 같은 양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담배를 살 수 있었을 터이고, 따라서 그곳에서 그만큼 더 나은 값에 팔렸을 터이다. 그러므로 그 풀이 헐하고 넉넉해져 잉글랜드의 누림이든 다른 어느 나라의 누림이든 늘리고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한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두 가지 효과를 지금 낼 수 있는 것보다 얼마쯤 더 크게 냈을 것이다. 참으로 이런 경우에 잉글랜드는 다른 나라보다 아무 이점도 얻지 못했으리라. 잉글랜드는 제 식민지의 담배를 얼마쯤 더 헐하게 샀을 터이고 따라서 제 상품의 얼마를 실제 그러한 것보다 얼마쯤 더 값비싸게 팔았을 터이나, 다른 어느 나라가 할 수 있었을 것보다 더 헐하게 앞의 것을 사거나 더 값비싸게 뒤의 것을 팔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잉글랜드는 어쩌면 절대의 이점을 얻었을 터이나 상대의 이점은 틀림없이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무역에서 이 상대의 이점을 얻으려고, 곧 다른 나라들이 그 거래에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막으려는 얄궂고 앙심 어린 기획을 이루려고, 잉글랜드는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거래에서 얻었을 절대의 이점 가운데 한 몫을 바쳤을 뿐 아니라 거의 다른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절대의 불리함과 상대의 불리함을 아울러 제 몸에 지웠다고 믿을 만한 아주 그럴듯한 까닭이 있다.

잉글랜드가 항해법으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을 저 자신에게 돌렸을 때, 그전에 그 거래에 쓰이던 외국 자본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래에서 빠져나갔다.[6] 그전에는 그 거래의 한 몫밖에 꾸려 가지 않던 잉글랜드 자본이 이제 그 전부를 꾸려 가야 했다. 그전에는 식민지가 유럽에서 얻고자 하는 물건 가운데 한 몫밖에 대어 주지 않던 자본이 이제 그들에게 그 전부를 대어 주려고 쓰이는 것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본은 그들에게 전부를 대어 줄 수 없었고, 실제로 대어 준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아주 값비싸게 팔렸다. 그전에는 식민지의 남는 생산물 가운데 한 몫밖에 사들이지 않던 자본이 이제 그 전부를 사들이려고 쓰이는 것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본은 옛 값에 가까운 값으로는 전부를

사들일 수 없었고, 따라서 무엇을 사들이든 어쩔 수 없이 아주 헐하게 사들였다. 그런데 상인이 아주 값비싸게 팔고 아주 헐하게 사들이는 그런 자본의 쓰임에서는 이윤이 아주 컸을 수밖에 없고 다른 갈래 무역의 예사로운 이윤 수준을 훨씬 넘었을 수밖에 없다. 식민지 무역에서 이렇게 이윤이 나은 것은 다른 갈래의 무역에서 그전에 그 무역에 쓰이던 자본의 한 몫을 끌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본이 이렇게 옮아간 것은 식민지 무역에서 자본들의 경쟁을 차츰 늘렸을 수밖에 없듯이 그 다른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그 경쟁을 차츰 줄였을 수밖에 없다. 곧 한쪽의 이윤을 차츰 내렸을 수밖에 없듯이 다른 쪽의 이윤을 차츰 올렸을 수밖에 없으니, 마침내 모든 이윤이 그전에 있던 수준과는 다르고 그보다 얼마쯤 높은 새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모든 거래에서 자본을 끌어내고 모든 거래에서 이윤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린 이 두 겹의 효과는 이 독점이 처음 자리 잡을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줄곧 이 독점이 낳아 온 것이다.

첫째, 이 독점은 다른 모든 거래에서 줄곧 자본을 끌어내어 식민지 거래에 쓰이게 해 왔다.

영국의 부는 항해법이 자리 잡은 뒤로 아주 많이 늘어났으나, 식민지의 부가 늘어난 것과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은 틀림없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외국 무역은 저절로 그 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남는 생산물은 그 온 생산물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그리고 영국은 이른바 식민지의 외국 무역 거의 전부를 저 혼자 차지했는데 그 자본은 그 무역의 넓이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다른 갈래의 무역에서 그전에 그 무역에 쓰이던 자본의 한 몫을 줄곧 빼내지 않고서는, 그리고 저절로 그 갈래로 갔을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그 갈래에 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지 않고서는 그 무역을 꾸려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항해법이 자리 잡은 뒤로 식민지 무역은 줄곧 늘어나 왔고, 다른 많은 갈래의 외국 무역, 특히 유럽의 다른 곳과 하는 무역은 줄곧 시들어 왔다. 외국에 팔려고 만드는 우리 제조품은 항해법 앞선 때처럼 이웃한 유럽 시장이나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더 먼 시장에 맞추어지는 대신, 그 큰 몫이 더욱 먼 식민지 시장에, 곧 경쟁하는 자가 많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독점을 지닌 시장에 맞추어져 왔다. 매슈 데커 경과 다른 저자들이 세금이 너무 많고 걷는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데에서, 노동의 값이 높다는 데에서, 사치가 늘었다는 데에서 찾던 다른 갈래 외국 무역의 시드는 원인은 모두 식민지 무역이 지나치게 자란 데에서 찾을 수 있다.[7] 영국의 상업 자본은 아주 크기는 하나 끝없지는 않고, 항해법 뒤로 크게 늘어나기는 했으나 식민지 무역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았으므로, 그 자본의 한 몫을 다른 갈래의 무역에서 빼내지 않고는, 따라서 그 다른 갈래가 얼마쯤 시드는 일이 없이는 그 무역을 도저히 꾸려 갈 수 없었다.

눈여겨볼 것은 잉글랜드가 항해법이 식민지 무역의 독점을 세우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역이 아주 크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큰 무역국이었고 그 상업 자본이 아주 컸으며 나날이 더욱더 커질 참이었다는 점이다.[8] 크롬웰이 다스릴 때에 벌인 네덜란드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해군은 네덜란드의 해군보다 나았고, 찰스 2세 치세가 시작될 무렵에 터진 전쟁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해군을 합친 것에 적어도 맞먹었으며 어쩌면 그보다 나았다. 오늘날에는 그 나은 점이 더 커 보이기 어려울 터인데, 적어도 네덜란드 해군이 지금 네덜란드 상업에 대하여 그때와 같은 비율을 지닌다면 그렇다. 그러나 이 큰 해군력은 그 어느 전쟁에서도 항해법 덕일 수 없었다. 앞의 전쟁 때에는 그 법의 안이 겨우 짜였을 뿐이고, 뒤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법의 권위로 온전히 제정되기는 했으나 그 어느 몫도 이렇다 할 효과를 낼 시간이

없었으며, 식민지와 하는 배타 거래를 세운 그 몫은 더욱 그러했다. 식민지도 그 무역도 그때는 오늘날에 견주어 대수롭지 않았다. 자메이카섬은 몸에 해로운 벌판이어서 사람이 적게 살았고 경작은 더 적었다. 뉴욕과 뉴저지는 네덜란드 사람이 지니고 있었고 세인트크리스토퍼섬의 절반은 프랑스 사람이 지니고 있었다. 앤티가섬과 두 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와 노바스코샤는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뉴잉글랜드는 개척되었고 아주 잘되어 가는 식민지였으나, 그때는 유럽에든 아메리카에든 그들이 그 뒤에 부와 인구와 개량에서 이룬 빠른 걸음을 미리 내다보거나 짐작이라도 한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었다. 요컨대 바베이도스섬만이 그때의 처지가 오늘날의 처지와 얼마쯤 닮은, 이렇다 할 만한 유일한 영국 식민지였다. 항해법 뒤로도 얼마 동안은 잉글랜드가 그 한 몫밖에 누리지 못한 식민지 무역은, 항해법이 제정된 뒤 몇 해가 지나도록 아주 엄하게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그때 잉글랜드의 큰 무역의 원인일 수도 없었고 그 무역이 떠받친 큰 해군력의 원인일 수도 없었다. 그때 그 큰 해군력을 떠받친 무역은 유럽과 하는 무역, 그리고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과 하는 무역이었다. 그런데 영국이 오늘날 그 무역에서 누리는 몫은 그런 큰 해군력을 떠받칠 수 없다. 자라나는 식민지 무역이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열려 있었다면, 그 가운데 영국에 떨어진 몫이 얼마든, 그리고 아주 적지 않은 몫이 아마 영국에 떨어졌을 터인데, 그것은 모두 영국이 그전에 지니고 있던 이 큰 무역에 보태진 것이었을 수밖에 없다. 독점의 결과로 식민지 무역이 늘어난 것은 영국이 그전에 지녔던 무역에 보태짐을 일으킨 것이라기보다 그 방향을 온통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둘째, 이 독점은 어쩔 수 없이 영국 무역의 모든 갈래에서 이윤율을 모든 나라가 영국 식민지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락되었을 때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붙들어 두는 데에 이바지했다.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영국 자본 가운데 저절로 그 무역으로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을 어쩔 수 없이 그 무역으로 끌어당겼듯이, 모든 외국 자본을 내쫓음으로써 그 무역에 쓰이는 자본의 온 양을 자유로운 무역이 있을 때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줄였다. 그러나 그 갈래의 무역에서 자본들의 경쟁을 줄임으로써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갈래의 이윤율을 올렸다. 또 다른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영국 자본들의 경쟁을 줄임으로써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다른 갈래에서 영국 이윤의 율을 올렸다. 항해법이 자리 잡은 뒤 어느 특정한 때에 영국 상업 자본의 상태나 넓이가 어떠했든,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갈래에서든 영국 무역의 다른 모든 갈래에서든 영국 이윤의 예사로운 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올렸을 수밖에 없다. 항해법이 자리 잡은 뒤로 영국 이윤의 예사로운 율이 크게 떨어졌다면,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법이 세운 독점이 그것을 붙들어 두는 데에 이바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욱 낮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예사로운 이윤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 그 나라가 독점을 지니지 못한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그 나라에 절대의 불리함과 상대의 불리함을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지운다.

그것은 그 나라에 절대의 불리함을 지운다. 그런 갈래의 무역에서는 그 나라 상인들이 제 나라로 들여오는 외국 물건도 외국으로 내보내는 제 나라 물건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더 값비싸게 팔지 않고서는 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나라는 더 값비싸게 사고 더 값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 수밖에 없으며,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더 적게 누리고 더 적게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나라에 상대의 불리함을 지운다. 그런 갈래의 무역에서는 같은 절대의 불리함을 지지 않은 다른 나라들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그 나라 위로 더 높이 올려놓거나 그 나라 아래로 덜 내려놓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나라가 누리고 만들어 내는 것에 견주어 그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만들어 내게 해 준다. 그것은 그들이 나은 정도를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그들이 못한 정도를 더 작게 만든다. 그 나라 생산물의 값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올림으로써 그것은 다른 나라 상인들이 외국 시장에서 그 나라보다 값을 깎아 팔게 해 주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독점을 지니지 못한 거의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그 나라를 밀어내게 해 준다.

우리 상인들은 우리 제조품이 외국 시장에서 남들에게 값이 깎여 팔리는 원인이라며 영국 노동의 높은 임금을 자주 하소연하지만, 자산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들은 남들이 지나친 이익을 얻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제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자산의 높은 이윤은 많은 경우에 영국 노동의 높은 임금만큼, 그리고 더러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영국 제조품의 값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영국의 자본이 그 나라가 독점을 지니지 못한 여러 갈래 무역의 큰 몫에서, 특히 유럽과 하는 무역과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과 하는 무역에서 한편으로는 끌려 나오고 한편으로는 밀려 나왔다고 말해도 옳을 터인데, 그렇게 된 사정은 이러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식민지 무역에서 이윤이 나은 데에 끌려 그 갈래의 무역에서 끌려 나왔는데, 그 무역이 줄곧 늘어나고 한 해에 그것을 꾸려 가던 자본이 이듬해에 그것을 꾸려 가기에 줄곧 모자란 결과다.

그것은 한편으로 영국에 자리 잡은 높은 이윤율이 영국이 독점을 지니지 못한 여러 갈래의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이점에 밀려

그 갈래에서 밀려 나왔다.

식민지 무역의 독점이 그 다른 갈래에서 저절로 그 갈래에 쓰였을 영국 자본의 한 몫을 끌어냈듯이, 그것은 식민지 무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결코 그 갈래로 가지 않았을 많은 외국 자본을 그 갈래로 밀어 넣었다. 그 다른 갈래의 무역에서 그것은 영국 자본들의 경쟁을 줄였고 그리하여 영국 이윤의 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올렸다. 거꾸로 그것은 외국 자본들의 경쟁을 늘렸고 그리하여 외국 이윤의 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낮게 떨어뜨렸다. 이 길로든 저 길로든 그것은 그 다른 모든 갈래의 무역에서 영국에 상대의 불리함을 지웠음이 뻔하다.

그러나 어쩌면 식민지 무역이 영국에 다른 어느 무역보다 이롭다고, 그리고 그 독점은 저절로 그 무역으로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의 영국 자본을 그 무역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그 자본을 그것이 찾을 수 있었을 다른 어느 쓰임보다 나라에 더 이로운 쓰임으로 돌려놓았다고 말할지 모른다.

어느 자본이든 그것이 딸린 나라에 가장 이로운 쓰임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고 그 나라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을 가장 많이 늘리는 쓰임이다. 그런데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인 자본이 떠받칠 수 있는 생산적 노동의 양은 2편에서 보인 대로 그 회수가 얼마나 잦은가에 꼭 비례한다. 이를테면 1천 파운드의 자본이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여 그 회수가 한 해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자본이 딸린 나라에서 1천 파운드가 한 해 동안 떠받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적 노동을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있다. 회수가 한 해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2천 파운드나 3천 파운드가 그곳에서 한 해 동안 떠받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적 노동을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있다.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은 그런 까닭에 먼

나라와 하는 것보다 이웃한 나라와 하는 것이 대개 더 이롭다. 그리고 같은 까닭으로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무역은 2편에서 마찬가지로 보인 대로 에두르는 외국 무역보다 대개 더 이롭다.

그러나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영국 자본의 쓰임에 작용한 한에서 모든 경우에 그 자본의 한 몫을 이웃한 나라와 하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 더 먼 나라와 하는 무역으로 밀어 넣었고, 많은 경우에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무역에서 에두르는 무역으로 밀어 넣었다.

첫째,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모든 경우에 영국 자본의 한 몫을 이웃한 나라와 하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 더 먼 나라와 하는 무역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모든 경우에 그 자본의 한 몫을 유럽과 하는 무역과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과 하는 무역에서 더 먼 아메리카와 서인도 지역과 하는 무역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곳에서 오는 회수는 거리가 더 먼 까닭으로만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남다른 사정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덜 잦다. 이미 말한 대로 새 식민지는 언제나 자산이 모자란다. 그 자본은 제 땅을 개량하고 경작하는 데에 큰 이윤과 이익을 보며 쓸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적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끊임없이 찾으며, 제 자본의 모자람을 메우려고 본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꾸어 오려 애쓰고 따라서 본국에 언제나 빚을 지고 있다. 식민지가 이 빚을 지는 가장 흔한 길은 본국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써 주고 꾸는 것이 아니라, 더러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물건을 대어 주는 제 거래처가 밀린 값을 얼마까지 봐주느냐에 맞추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밀려 두는 것이다. 그들의 연간 회수는 흔히 그들이 진 빚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더러는 그만한 비율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래처가 그들에게 미리 대어 준 온 자본이 3년 안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드물고 더러는 4년이나 5년 안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테면 1천 파운드의 영국 자본이 5년에 한 번만 영국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온통 한 해에 한 번씩 돌아올 때 떠받칠 수 있는 영국 산업의 5분의 1밖에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없고, 1천 파운드가 한 해 동안 떠받칠 수 있는 양의 산업 대신 200파운드가 한 해 동안 떠받칠 수 있는 양만을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있다. 개척지 농장주는 틀림없이 유럽에서 오는 물건에 치르는 높은 값으로, 먼 날짜로 끊어 주는 어음의 이자로, 그리고 가까운 날짜로 끊어 준 어음을 다시 끊을 때의 구전으로 거래처가 이 늦어짐에서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메워 주고 아마 넘치게 메워 준다. 그러나 그는 제 거래처의 손실을 메워 주더라도 영국의 손실은 메워 줄 수 없다. 회수가 아주 먼 무역에서 상인의 이윤은 회수가 아주 잦고 가까운 무역에서만큼 크거나 그보다 클 수 있으나, 그가 사는 나라의 이익, 곧 그곳에서 끊임없이 떠받쳐지는 생산적 노동의 양과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은 언제나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아메리카와 하는 무역의 회수가, 그리고 서인도와 하는 무역의 회수는 더욱, 유럽의 어느 곳과 하는 무역이나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과 하는 무역의 회수보다 대개 더 멀 뿐 아니라 더 고르지 않고 더 미덥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그 여러 갈래 무역을 겪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선뜻 인정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많은 경우에 영국 자본의 한 몫을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무역에서 에두르는 무역으로 밀어 넣었다.

영국 말고 다른 어느 시장으로도 보낼 수 없는 열거 상품 가운데에는 그 양이 영국의 소비를 훨씬 넘어서고 따라서 그 한 몫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여럿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 자본의 한 몫을 소비를 위한 에두르는 외국 무역으로 밀어 넣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이를테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해마다 영국으로 9만 6천 호그셰드가 넘는 담배를 보내는데 영국의 소비는 1만 4천 호그셰드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9] 그러므로 8만 2천 호그셰드가 넘는 담배를 다른 나라로, 곧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발트해와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 8만 2천 호그셰드를 영국으로 가져오고 그곳에서 그 다른 나라들로 다시 내보내며 그 다른 나라들에서 영국으로 물건이든 돈이든 되받아 오는 영국 자본의 그 몫은 소비를 위한 에두르는 외국 무역에 쓰이는 것이며, 이 큰 나머지를 처분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쓰임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다. 이 자본 전부가 몇 해 만에 영국으로 돌아올 법한지 셈하려면 아메리카에서 오는 회수의 멂에 그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회수의 멂을 더해야 한다. 우리가 아메리카와 하는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무역에서 쓰인 온 자본이 흔히 3년이나 4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에두르는 무역에 쓰인 온 자본은 4년이나 5년 안에 돌아오지 않을 법하다. 앞의 것이 한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본으로 떠받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없다면, 뒤의 것은 그 산업의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끊임없이 쓰이게 할 수 없다. 몇몇 바깥 항구에서는 담배를 내보내는 외국 거래처에 으레 외상을 준다. 참으로 런던 항구에서는 담배가 으레 맞돈으로 팔리니 그 규칙은 달아 주고 값 치르기다. 그러므로 런던 항구에서는 에두르는 무역 전체의 마지막 회수가 아메리카에서 오는 회수보다 물건이 창고에 팔리지 않고 놓여 있을 그 시간만큼만 더 멀지만, 그래도 더러는 꽤 오래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가 제 담배를 파는 데에 영국 시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에게 오는 담배는 국내 소비에 필요한 것보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이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담배의 큰 나머지로 지금 제가 소비할 물건을 사들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마 제 산업이 곧바로 낸 생산물로, 또는 제 제조품의 한 몫으로 그것을 사들였을 것이다. 그 생산물과 그 제조품은 지금처럼 거의 온통 하나의 큰 시장에 맞추어지는

대신 아마 수많은 더 작은 시장에 맞추어졌으리라. 소비를 위한 하나의 큰 에두르는 외국 무역 대신 영국은 아마 같은 종류의 수많은 작은 곧바른 외국 무역을 꾸려 갔을 것이다. 회수가 잦은 덕에, 지금 이 큰 에두르는 무역을 꾸려 가는 자본의 한 몫, 그것도 아마 작은 몫, 어쩌면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몫으로도 그 모든 작은 곧바른 무역을 꾸려 가기에 넉넉했을 터이고, 같은 양의 영국 산업을 끊임없이 쓰이게 했을 터이며, 영국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을 똑같이 떠받쳤을 것이다. 이 무역의 모든 목적이 이렇게 훨씬 적은 자본으로 이루어졌다면 다른 목적에 쓸 큰 여유 자본이 있었을 터이니, 영국의 토지를 개량하고 제조업을 늘리고 상업을 넓히는 데에, 적어도 그 여러 길에 쓰이는 다른 영국 자본들과 경쟁에 들어가 그 모든 길에서 이윤율을 낮추고 그리하여 그 모든 길에서 영국에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욱 큰, 다른 나라보다 나은 자리를 주는 데에 쓸 자본이 있었을 것이다.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또한 영국 자본의 한 몫을 소비를 위한 온갖 외국 무역에서 중계 무역으로 밀어 넣었고, 따라서 영국의 산업을 얼마쯤이라도 떠받치는 데에서 한편으로 식민지의 산업을, 한편으로 다른 몇몇 나라의 산업을 떠받치는 데에만 온통 쓰이도록 밀어 넣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해마다 다시 내보내는 8만 2천 호그셰드라는 큰 나머지 담배로 해마다 사들이는 물건이 모두 영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얼마, 이를테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오는 리넨은 식민지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소비된다. 그런데 이 리넨을 나중에 사들이는 데에 쓸 담배를 사들이는 영국 자본의 그 몫은 영국의 산업을 떠받치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 한편으로 식민지의 산업을, 한편으로 제 산업이 낸 생산물로 이 담배 값을 치르는 그 몇몇 나라의 산업을 떠받치는 데에만 온통 쓰인다.

게다가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저절로 그 무역으로 갔을 것보다 훨씬 큰 몫의 영국 자본을 그리로 밀어 넣음으로써, 저절로 그러했다면 영국 산업의 여러 갈래 사이에 자리 잡았을 그 자연스러운 균형을 온통 깨뜨려 놓은 듯하다. 영국의 산업은 수많은 작은 시장에 맞추어지는 대신 주로 하나의 큰 시장에 맞추어져 왔다. 그 상업은 수많은 작은 물길로 흐르는 대신 주로 하나의 큰 물길로 흐르도록 길들여졌다. 그러나 그리하여 그 산업과 상업의 온 체계는 덜 안전해졌고 나라라는 몸의 온 상태는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덜 튼튼해졌다. 오늘날의 처지에서 영국은 요긴한 부위 가운데 얼마가 지나치게 자라 버린, 그런 까닭에 모든 부위가 더 알맞게 어우러진 몸에는 좀처럼 닥치지 않는 많은 위험한 탈에 걸리기 쉬운 성치 못한 몸뚱이를 닮았다. 제 자연스러운 크기를 넘어 억지로 부풀려졌고 그 나라 산업과 상업의 자연스럽지 못한 몫이 그리로 돌도록 떠밀린 그 큰 핏줄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나라라는 몸 전체에 가장 위험한 탈을 불러오기 아주 쉽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와 사이가 갈라지리라는 예상은 영국 사람들에게 스페인 무적함대나 프랑스의 침입에 대하여 느낀 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겼다. 인지세법을 거두어들인 일을 적어도 상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조치로 만든 것은, 근거가 있든 없든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10] 식민지 시장에서 온통 쫓겨나는 것이 몇 해 동안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상인의 큰 몫은 제 거래가 아주 멈추어 버리는 것을, 우리 제조업 고용주의 큰 몫은 제 사업이 온통 망하는 것을, 우리 일꾼의 큰 몫은 제 일자리가 끝나는 것을 눈앞에 본다고 여기곤 했다. 대륙의 이웃 가운데 누구와 사이가 갈라지는 것도 이 여러 부류 사람들 가운데 얼마의 일자리에 얼마쯤 멈춤이나 끊김을 일으키기 쉽기는 하나, 그런 두루 퍼진 마음의 흔들림 없이 내다보인다. 더 작은 핏줄 가운데 얼마에서 돌던 피가 멈추면 그 피는 더 큰 핏줄로 쉽게 쏟아져 들어가 아무 위험한

탈도 일으키지 않지만, 더 큰 핏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멈추면 경련이나 졸중이나 죽음이 곧바로 피할 수 없이 따라온다. 장려금으로든 국내 시장과 식민지 시장의 독점으로든 억지로 자연스럽지 못한 높이까지 키워진 그 지나치게 자란 제조업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 일에 조금만 멈춤이나 끊김을 만나면, 그것은 흔히 정부를 놀라게 하고 입법부의 의논까지 성가시게 할 만한 소요와 무질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 주요 제조업자 가운데 그토록 큰 몫의 일자리가 갑자기 온통 멈추면 어떤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하고들 생각했던 것이다.

영국에 식민지와 하는 배타 거래를 주는 법을 얼마쯤 알맞게 차츰 늦추어 마침내 크게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느 때에나 영국을 이 위험에서 건져 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지나치게 자란 쓰임에서 제 자본의 한 몫을 빼내어 이윤은 덜 남더라도 다른 쓰임으로 돌리도록 영국이 할 수 있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제 산업의 한 갈래를 차츰 줄이고 나머지 모두를 차츰 늘림으로써 그 여러 갈래를 온전한 자유가 반드시 세우고 온전한 자유만이 지킬 수 있는 그 자연스럽고 튼튼하고 알맞은 어우러짐으로 차츰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편인 듯하다. 식민지 무역을 한꺼번에 모든 나라에 열어 주는 것은 지금 그 무역에 제 산업이나 자본을 걸고 있는 이들의 큰 몫에 얼마쯤 지나가는 불편만이 아니라 크고 오래가는 손실까지 일으킬 수 있다. 영국의 소비를 넘어서는 8만 2천 호그셰드의 담배를 실어 오는 배들만 해도 그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다. 중상주의 체계의 모든 규정이 낳는 불행한 효과란 이러하다. 그것은 나라라는 몸의 상태에 아주 위험한 탈을 들여놓을 뿐 아니라, 적어도 한동안은 더욱 큰 탈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탈을 들여놓는다. 그러므로 식민지 무역을 어떤 차례로 차츰

열어야 하는지, 어떤 제약을 먼저 걷어 내고 어떤 제약을 나중에 걷어 내야 하는지, 또는 온전한 자유와 정의라는 자연스러운 체계를 어떻게 차츰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는 앞날의 정치가와 입법자의 슬기에 맡겨 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미리 내다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다섯 가지 사건이 아주 다행스럽게 함께 일어나, 1774년 12월 1일부터 한 해가 넘도록 이어져 온 식민지 무역의 아주 중요한 한 갈래, 곧 북아메리카의 연합한 열두 지방과 하는 무역에서 온통 쫓겨난 일을 영국이 두루 예상된 만큼 뼈저리게 느끼지 않도록 막아 주었다.[11] 첫째, 그 식민지들은 물건을 들여오지 않기로 한 약정에 대비하면서 제 시장에 맞는 온갖 상품을 영국에서 남김없이 쓸어 갔다. 둘째, 스페인 선단의 예사롭지 않은 수요가 올해에 독일과 북쪽 지방에서 많은 상품, 특히 영국 시장에서까지 영국 제조품과 경쟁하곤 하던 리넨을 쓸어 갔다.[,12] 셋째, 러시아와 튀르크 사이의 평화는 튀르크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수요를 일으켰는데, 그 시장은 그 나라가 곤경에 있는 동안,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에게해 섬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동안 아주 빈약하게 공급되어 왔다. 넷째, 영국 제조품에 대한 북유럽의 수요가 얼마 전부터 해마다 늘어 왔다. 다섯째, 얼마 전 폴란드가 나뉘고 그 결과로 그곳이 평정된 일은 그 큰 나라의 시장을 열어 올해에 북쪽의 늘어나는 수요에 예사롭지 않은 수요를 더해 주었다.[,13] 이 사건들은 넷째 것을 빼면 모두 그 성질이 한때의 것이고 우연한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무역의 그토록 중요한 한 갈래에서 쫓겨난 일이 불행히도 훨씬 더 오래 이어진다면 그것은 아직도 얼마쯤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차츰 닥쳐올 것이므로 한꺼번에 닥쳤을 때보다 훨씬 덜 모질게 느껴질 것이며, 그동안 이 나라의 산업과 자본은 새 쓰임과 새 방향을 찾아 이 괴로움이 이렇다 할 높이까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저절로 그 무역으로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의 영국 자본을 그 무역으로 돌려놓은 한에서, 모든 경우에 그것을 이웃한 나라와 하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서 더 먼 나라와 하는 무역으로, 많은 경우에 소비를 위한 곧바른 외국 무역에서 에두르는 무역으로, 더러는 소비를 위한 온갖 외국 무역에서 중계 무역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그것은 그 자본을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쳤을 방향에서 훨씬 적은 양밖에 떠받칠 수 없는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게다가 영국 산업과 상업의 그토록 큰 몫을 오직 한 시장에만 맞춤으로써, 그 생산물이 더 여러 가지 시장에 맞추어졌을 때보다 그 산업과 상업의 온 상태를 더 위태롭고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식민지 무역의 효과와 그 무역을 독점하는 것의 효과를 조심스럽게 갈라 보아야 한다. 앞의 것은 언제나 반드시 이롭고 뒤의 것은 언제나 반드시 해롭다. 그러나 앞의 것이 어찌나 이로운지, 식민지 무역은 독점 아래 놓여 있고 그 독점의 해로운 효과가 있는데도 온통 따져 보면 여전히 이로우며 크게 이로우니, 다만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훨씬 덜 이로울 뿐이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식민지 무역의 효과는 영국 산업이 낸 생산물 가운데 더 가까운 유럽 시장과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시장이 찾는 것을 넘어서는 몫에 크고도 먼 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식민지 무역은 그 시장들에 이제까지 보내지던 생산물의 어느 몫도 빼내지 않으면서, 그 남는 생산물과 바꿀 새로운 맞짝을 끊임없이 내놓음으로써 영국이 그 남는 생산물을 끊임없이 늘리도록 북돋운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식민지 무역은 영국에서 생산적 노동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되, 그전에 그곳에 쓰이던 노동의 방향은 어느 모로도 바꾸지 않는다. 식민지 무역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의 경쟁이 새

시장에서든 새 쓰임에서든 이윤율이 여느 수준 위로 오르는 것을 막을 것이다. 새 시장은 옛 시장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제 공급을 위한 새 생산물을 만들어 낼 터이고, 그 새 생산물이 새 쓰임을 꾸려 갈 새 자본을 이룰 터이니 그 자본 또한 마찬가지로 옛 쓰임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다른 나라들의 경쟁을 막아 내고 그리하여 새 시장에서든 새 쓰임에서든 이윤율을 올림으로써, 옛 시장에서 생산물을 빼내고 옛 쓰임에서 자본을 빼낸다. 식민지 무역에서 우리 몫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크게 하는 것이 독점이 내세우는 목적이다. 그 무역에서 우리 몫이 독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면 독점을 세울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그 회수가 다른 대부분의 거래보다 더디고 더 먼 갈래의 무역으로 저절로 그 갈래에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의 자본을 밀어 넣는 것은 무엇이든, 그곳에서 해마다 떠받쳐지는 생산적 노동의 온 양과 그 나라 토지와 노동의 온 연간 생산물을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적게 만든다. 그것은 그 나라 주민들의 수입을 저절로 올랐을 자리 밑으로 눌러 두고 그리하여 그들이 쌓아 올릴 힘을 줄인다. 그것은 어느 때에나 그들의 자본이 저절로 떠받쳤을 만큼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그 자본이 저절로 늘었을 만큼 빨리 늘지 못하게, 따라서 더욱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식민지 무역의 자연스럽고 좋은 효과는 영국에 독점의 나쁜 효과를 메우고도 남으므로, 독점까지 온통 아울러 보더라도 그 무역은 지금 꾸려 가는 모습대로도 이로울 뿐 아니라 크게 이롭다. 식민지 무역이 열어 주는 새 시장과 새 쓰임은 독점 때문에 잃는 옛 시장의 몫과 옛 쓰임의 몫보다 훨씬 넓다. 말하자면 식민지 무역이 만들어 낸 새

생산물과 새 자본은, 회수가 더 잦은 다른 거래에서 자본이 옮아간 탓에 일자리를 잃었을 노동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영국에서 떠받친다. 그러나 식민지 무역이 지금 꾸려 가는 모습대로도 영국에 이롭다면, 그것은 독점 덕분이 아니라 독점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다.

식민지 무역이 새 시장을 열어 주는 것은 유럽의 원생산물보다는 제조품 쪽이다. 농업은 모든 새 식민지의 마땅한 일이며 땅이 헐한 덕에 다른 어느 일보다 이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땅의 원생산물이 넘쳐나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는커녕 대개 내보낼 큰 나머지를 지닌다. 새 식민지에서 농업은 다른 모든 일에서 일손을 끌어내거나 일손이 다른 어느 일로도 가지 못하게 붙들어 둔다. 없어서는 안 될 제조업에 돌릴 일손은 적고 꾸미는 제조업에 돌릴 일손은 없다. 그 두 종류의 제조품 가운데 큰 몫은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것이 더 헐하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식민지 무역이 그 농업을 에둘러 북돋우는 것은 주로 유럽의 제조업을 북돋움으로써다. 그 무역이 일자리를 주는 유럽의 제조업자들이 땅의 생산물에 새 시장, 그것도 모든 시장 가운데 가장 이로운 시장을 이룬다. 유럽의 곡물과 소, 빵과 푸줏간 고기의 국내 시장은 이렇게 아메리카와 하는 무역 덕에 크게 넓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많고 잘되어 가는 식민지와 하는 무역의 독점만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제조업을 세우기는커녕 지켜 가기에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본보기가 넉넉히 보여 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렇다 할 식민지를 지니기 전에 제조업 나라였다.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가장 기름진 식민지를 지닌 뒤로 두 나라는 다 제조업 나라이기를 그쳤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독점의 나쁜 효과가 다른 원인들로 더 심해져 어쩌면 식민지 무역의 자연스럽고 좋은 효과를 거의 덮어

버렸다. 그 원인은 다른 여러 종류의 독점, 금과 은의 가치가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보다 낮게 깎여 있는 것, 수출에 매긴 옳지 못한 세금으로 외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나라 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데에 매긴 더욱 옳지 못한 세금으로 국내 시장이 좁아지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르지 못하고 치우친 재판의 시행이니, 그것은 넉넉하고 힘 있는 빚진 이를 해를 입은 빚쟁이의 추궁에서 지켜 주는 일이 잦고, 그리하여 그 나라의 부지런한 사람들이 외상으로 팔기를 감히 마다하지 못하면서도 값을 돌려받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거만하고 지체 높은 이들이 소비할 물건을 마련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거꾸로 잉글랜드에서는 식민지 무역의 자연스럽고 좋은 효과가 다른 원인들의 도움을 받아 독점의 나쁜 효과를 크게 이겨 냈다. 그 원인은 얼마쯤 제약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다른 어느 나라에 맞먹고 어쩌면 그보다 나은 무역의 두루 미치는 자유, 국내 산업이 낸 생산물인 거의 온갖 종류의 물건을 관세 없이 거의 어느 외국으로나 내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 나라 안 한 곳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나 어느 관청에도 아무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어떤 종류의 추궁이나 조사도 받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끝없는 자유인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르고 치우치지 않은 재판의 시행이니, 그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영국 신민의 권리를 가장 지체 높은 이에게도 존중받게 만들고, 사람마다 제 근면의 열매를 지켜 줌으로써 온갖 종류의 산업에 가장 크고 가장 효험 있는 북돋움을 준다.

그러나 영국의 제조업이 식민지 무역으로 나아갔다면,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것은 그 무역의 독점 덕분이 아니라 독점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다. 독점의 효과는 영국 제조품의 한 몫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 질과 꼴을 바꾼 것이었고, 저절로 그러했다면

회수가 잦고 가까운 시장에 맞추어졌을 것을 회수가 더디고 먼 시장에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그 효과는 영국 자본의 한 몫을 더 많은 양의 제조업 산업을 떠받쳤을 쓰임에서 훨씬 적은 양밖에 떠받치지 못하는 쓰임으로 돌려놓은 것이었고, 그리하여 영국에서 떠받쳐지는 제조업 산업의 온 양을 늘리기는커녕 줄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중상주의 체계의 다른 모든 치사하고 앙심 어린 방편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나라의 산업을,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지의 산업을 눌러 놓으면서, 그것이 세워진 나라의 산업을 조금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인다.

독점은 그 나라의 자본이 어느 특정한 때에 얼마나 넓든, 그 자본이 저절로 떠받쳤을 만큼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지 못하게 막고 부지런한 주민들에게 저절로 주었을 만큼 큰 수입을 주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데 자본은 수입에서 아낀 것으로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독점은 그 자본이 저절로 주었을 만큼 큰 수입을 주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저절로 늘었을 만큼 빨리 늘지 못하게 막고, 따라서 더욱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지 못하게, 그 나라의 부지런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수입을 주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므로 수입의 큰 본디 샘 하나인 노동의 임금을 독점은 어느 때에나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덜 넉넉하게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

상업 이윤의 율을 올림으로써 독점은 토지의 개량을 막는다. 개량의 이윤은 그 땅이 실제로 내는 것과 얼마쯤의 자본을 들여 내게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에 달려 있다. 이 차이가 어느 상업의 쓰임에서 같은 자본으로 뽑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윤을 준다면 토지의 개량이 모든 상업의 쓰임에서 자본을 끌어낼 것이다. 그 이윤이 더 적다면 상업의 쓰임이 토지의 개량에서 자본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 이윤의 율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 개량의 이윤이 나은 정도를 줄이거나 못한

정도를 키우며, 앞의 경우에는 자본이 개량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뒤의 경우에는 개량에서 자본을 끌어낸다. 그런데 개량을 막음으로써 독점은 수입의 또 하나의 큰 본디 샘인 토지의 지대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더디게 만든다. 또한 이윤율을 올림으로써 독점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이자율을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높이 붙들어 둔다. 그런데 땅값은 그 땅이 내는 지대에 견주어, 곧 그 땅을 사려고 으레 치르는 지대의 몇 해치로 셈하면, 이자율이 오르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대로 오른다. 그러므로 독점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길로 지주의 이익을 해치니, 첫째로 그 지대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을 더디게 하고, 둘째로 그 땅이 내는 지대에 견주어 그가 땅을 팔 때 받을 값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을 더디게 한다.

참으로 독점은 상업 이윤의 율을 올리고 그리하여 우리 상인의 이익을 얼마쯤 키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의 자연스러운 늘어남을 가로막으므로, 그 나라 주민들이 자산의 이윤에서 얻는 수입의 온 액수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기우니, 큰 자본에서 나오는 작은 이윤이 작은 자본에서 나오는 큰 이윤보다 대개 더 큰 수입을 주기 때문이다. 독점은 이윤의 율을 올리지만 이윤의 총액이 저절로 오를 만큼 높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다.

수입의 온갖 본디 샘, 곧 노동의 임금과 토지의 지대와 자산의 이윤을 모두 독점은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훨씬 덜 넉넉하게 만든다. 한 나라에서 한 작은 부류 사람들의 작은 이익을 북돋우려고 그것은 그 나라의 다른 모든 부류 사람들의 이익과 다른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해친다.

독점이 어느 한 부류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드러났거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사로운 이윤율을 올림으로써다. 그러나 더 높은 이윤율에서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 이미 말한 나라 전체에 대한 온갖

나쁜 효과 말고도, 어쩌면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이면서 겪어 온 바로 미루어 보면 그것과 떼어 놓을 수 없이 이어진 나쁜 효과가 하나 더 있다. 높은 이윤율은 어디서나 다른 사정에서라면 상인의 성격에 저절로 붙어 있는 그 절약을 무너뜨리는 듯하다. 이윤이 높을 때에는 그 차분한 덕이 쓸데없어 보이고 값비싼 사치가 그 넉넉한 처지에 더 어울려 보인다. 그러나 큰 상업 자본의 임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온 산업을 이끌고 부리는 이들일 수밖에 없고, 그 본보기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전체의 몸가짐에 다른 어느 부류 사람들의 본보기보다 훨씬 큰 힘을 미친다. 고용주가 꼼꼼하고 아끼면 일꾼도 그러기 쉽다. 그러나 주인이 헤프고 어지러우면 주인이 정해 주는 본에 맞추어 제 일을 다듬는 하인은 주인이 보여 주는 본보기에 맞추어 제 삶 또한 다듬을 것이다. 이리하여 본디 가장 쌓아 올리기 쉬운 이들의 손에서 쌓임이 막히고,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도록 정해진 밑천은 본디 그것을 가장 많이 키워야 할 이들의 수입에서 아무 보탬도 받지 못한다. 그 나라의 자본은 늘어나기는커녕 차츰 줄어들고, 그곳에서 떠받쳐지는 생산적 노동의 양은 나날이 더 적어진다. 카디스와 리스본 상인들의 터무니없는 이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자본을 키웠는가? 그것이 그 두 거지꼴 나라의 가난을 덜어 주었는가, 그 산업을 북돋웠는가? 그 두 상업 도시에서 상인들이 돈을 쓰는 품이 어찌나 대단한지, 그 터무니없는 이윤은 그 나라의 두루 미치는 자본을 키우기는커녕 그 이윤이 나온 바로 그 자본을 지켜 내기에도 거의 넉넉하지 않았던 듯하다. 말하자면 외국 자본이 나날이 더욱더 카디스와 리스본의 거래로 밀고 들어온다. 제 자본이 나날이 더욱더 꾸려 가기에 모자라게 되는 그 거래에서 그 외국 자본을 몰아내려고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은 나날이 제 터무니없는 독점의 쓰라린 끈을 더욱더 조이려 애쓴다. 카디스와 리스본 상인들의 몸가짐을 암스테르담 상인들의 몸가짐과 견주어 보라. 그러면

자산의 이윤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상인의 처신과 성격이 얼마나 다르게 물드는지 느낄 것이다. 참으로 런던의 상인들은 아직 두루 카디스와 리스본 상인들처럼 으리으리한 나리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암스테르담 상인들처럼 두루 꼼꼼하고 아끼는 시민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앞의 사람들 대부분보다 꽤 넉넉하고 뒤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만큼은 넉넉하지 않다고들 여긴다. 다만 그들의 이윤율은 앞의 사람들의 것보다 대개 훨씬 낮고 뒤의 사람들의 것보다 꽤 높다.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고 속담은 말한다. 그리고 돈을 쓰는 예사로운 품은 어디서나 실제로 쓸 수 있는 힘보다 쓸 돈을 얻기가 쉬우리라는 짐작에 따라 정해지는 듯하다.

독점이 한 부류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는 그 하나의 이점이 여러 다른 길로 나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이러하다.

오로지 손님이 될 백성을 길러 낼 셈으로 큰 제국을 세우는 것은 언뜻 보면 가게 주인들의 나라에나 어울리는 기획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 주인들의 나라에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고, 정부가 가게 주인들에게 휘둘리는 나라에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기획이다. 그런 정치가들, 오직 그런 정치가들만이 그런 제국을 세우고 지키는 데에 제 동포 시민의 피와 재물을 쓰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보리라고 헛되이 그려 볼 수 있다. 가게 주인에게, 나에게 좋은 땅을 하나 사서 주면 다른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얼마쯤 더 치르더라도 내 옷은 언제나 당신 가게에서 사겠소 하고 말해 보라. 그러면 그가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가 당신에게 그런 땅을 사서 준다면, 그 가게 주인은 그 은인이 당신의 옷을 모두 제 가게에서 사라고 당신에게 이르기만 한다면 그에게 크게 고마워할 것이다. 잉글랜드는 본국에서 마음 편치 못하던 제 신민 얼마를 위하여 먼 나라에 큰 땅을 사서 주었다. 참으로 그 값은 아주 적었으니, 오늘날

땅값이 으레 지대의 30년치인 데에 견주어 그것은 처음 발견을 이루고 해안을 살피고 그 나라를 지닌 척 꾸민 여러 차례 채비에 든 비용에 조금 더 보탠 것에 지나지 않았다.[14] 그 땅은 좋고 아주 넓었으며, 경작하는 이들은 일굴 좋은 땅을 넉넉히 지녔고 한동안은 제 생산물을 마음에 드는 곳에 팔 자유를 누렸으므로, 30년이나 40년 남짓 동안에, 곧 1620년과 1660년 사이에 어찌나 수가 늘고 잘되어 갔던지 잉글랜드의 가게 주인과 다른 거래인들이 그 단골을 독차지하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 땅을 산 돈도 그 뒤 개량에 든 비용도 제가 한 푼이라도 치렀다고 내세우지 않은 채, 앞으로는 아메리카의 경작자들이 제 가게에 갇히도록 의회에 청원했다. 첫째로 유럽에서 얻고자 하는 물건을 모두 사는 데에서, 둘째로 제 생산물 가운데 그 거래인들이 사기에 알맞다고 여기는 몫을 모두 파는 데에서 그러했다. 그들은 그 생산물의 모든 몫을 사는 것이 알맞다고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얼마가 잉글랜드로 들어오면 그들 자신이 본국에서 꾸려 가는 거래 가운데 얼마와 부딪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몇몇 몫은 식민지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곳에 팔기를 그들도 바랐으니, 멀면 멀수록 좋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 시장을 피니스테레곶 남쪽 나라들로 가두자고 내놓았다. 저 이름난 항해법의 한 조항이 이 참으로 가게 주인다운 제안을 법으로 세웠다.

이 독점을 지키는 것이 이제까지 영국이 제 식민지 위에 부리는 지배의 주된, 아니 더 제대로 말하면 어쩌면 오직 하나의 목적이었다. 민간 통치를 떠받치는 데에든 본국을 지키는 데에든 이제까지 세입도 군사력도 대어 준 적이 없는 그 지방들의 큰 이익이 배타 거래에 들어 있다고들 여긴다. 독점은 그들이 매여 있음을 보여 주는 주된 표이며, 이제까지 그 매임에서 거두어들인 오직 하나의 열매다. 영국이 이제까지 이 매임을 지키는 데에 들인 비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참으로 이 독점을

떠받치려고 들인 것이다. 지금의 소동이 시작되기 전에 식민지의 예사로운 평시 주둔에 든 비용은 스무 개 보병 연대의 급료와, 그들에게 대어 주어야 했던 대포와 군수품과 별도 식료품의 비용과, 다른 나라의 밀수선으로부터 북아메리카의 드넓은 해안과 우리 서인도 섬들의 해안을 지키려고 늘 유지하던 아주 적지 않은 해군력의 비용을 합한 것이었다. 이 평시 주둔의 온 비용은 영국 세입에 지운 짐이었고, 동시에 식민지의 지배가 본국에 치르게 한 것 가운데 가장 작은 몫이었다. 그 전부의 액수를 알려면 우리는 이 평시 주둔의 연간 비용에, 영국이 제 식민지를 제 지배 아래 있는 지방으로 여긴 결과로 여러 차례 그들을 지키는 데에 들인 돈의 이자를 더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지난 전쟁의 온 비용과 그 앞선 전쟁 비용의 큰 몫을 더해야 한다. 지난 전쟁은 온통 식민지를 두고 벌인 다툼이었고, 그 온 비용은 그것이 독일에서 쓰였든 동인도에서 쓰였든 세상 어느 곳에서 쓰였든 마땅히 식민지의 셈으로 적어야 한다. 그 액수는 새로 진 빚뿐 아니라 파운드마다 2실링씩 더 매긴 토지세와 해마다 감채 기금에서 꾸어 낸 돈까지 넣으면 9천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었다. 1739년에 시작된 스페인 전쟁도 주로 식민지를 두고 벌인 다툼이었다. 그 주된 목적은 스페인령 아메리카 본토와 밀무역을 하던 식민지 배들을 뒤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15] 이 온 비용은 실상 독점을 떠받치려고 준 장려금이다. 그것이 내세운 목적은 영국의 제조업을 북돋우고 상업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제 효과는 상업 이윤의 율을 올리는 것,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그 회수가 다른 대부분의 거래보다 더디고 먼 한 갈래의 무역으로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더 큰 몫의 제 자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장려금이 이 두 가지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런 장려금을 줄 만도 했을 것이다.

1. 옮긴이 — 르트르 드 카셰는 프랑스 국왕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봉인한 편지 한 장으로 사람을 가두거나 귀양 보내도록 내린 명령이다. 18세기에는 대신이나 지방 장관이 그 봉인장을 받아 쓰는 일이 흔했고 1790년에 없어졌다.

2. 옮긴이 —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황제로 기원전 63년에 나서 서기 14년에 죽었다. 이 사람은 그와 가까이 지낸 부유한 기사로 오늘날에는 베디우스 폴리오로 적는 것이 보통이나, 저본은 스미스가 쓴 대로 비디우스로 적었으므로 본문도 그 꼴을 따랐다. 이 일화는 세네카와 대 플리니우스가 전한다.

3. 옮긴이 —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2권의 「위대한 사내들의 어머니」(magna virum mater)를 딴 말이다. 베르길리우스는 이탈리아 땅을 그렇게 불렀고, 스미스는 유럽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4.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다른 모든 식민지(all other colonies)의 산업」이라 적었다. 바로 앞 문장과 짝을 이루는 자리이고 뒤에 식민지가 따로 나오므로 「다른 모든 나라」로 옮겼다.

5. 옮긴이 — 열거 상품은 항해법에 따라 식민지가 본국 말고 다른 곳으로는 내보낼 수 없도록 법에 이름을 적어 둔 상품이다. 설탕과 담배와 쪽과 목화 따위가 먼저 올랐고 뒤에 품목이 늘어났다.

6. 옮긴이 — 항해법은 165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660년에 「찰스 2세 치세 12년의 법 제18장」으로 다시 세워진 법으로, 영국 식민지와 하는 무역을 영국 배와 영국 선원에게만 허락했다.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킨다.

7. 옮긴이 — 매슈 데커(1679~1749)는 네덜란드에서 잉글랜드로 건너온 상인으로 동인도회사 이사와 하원 의원을 지냈다. 1744년에 영국의 외국 무역이 시드는 까닭을 논한 글을 냈다.

8.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곡물 무역(corn trade)의 독점」이라 적었다. 앞뒤가 온통 식민지 무역의 독점을 논하는 자리이고 바로 다음 문장의 「그 무역」이 식민지 무역을 가리키므로 「식민지 무역」으로 옮겼다.

9. 옮긴이 — 호그셰드는 담배와 술을 담는 큰 통으로, 담배를 담을 때 한 통은 대개 1천 파운드(무게) 안팎이었다. 통의 크기가 물건과 때에 따라 달라 하나로 못 박힌 값은 없다.

10. 옮긴이 — 인지세법은 1765년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인쇄물과 증서에 인지를 붙이게 한 법으로, 식민지의 거센 반발과 영국 상인들의 청원에 밀려 이듬해에 거두어들여졌다.

11. 옮긴이 — 1774년에 필라델피아에 모인 대륙 회의는 영국 물건을 그해 12월 1일부터 들여오지 않기로 약정했다. 스미스가 「연합한 열두 지방」이라 한 것은 그 약정에 든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이다. 이 책의 초판은 1776년 3월에 나왔다.

12. 옮긴이 — 스페인 선단은 스페인이 해마다 아메리카 식민지로 보낸 호송 선단으로, 카디스에서 떠나 물건을 실어 가고 금은을 실어 왔다.

13. 옮긴이 — 1772년에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 땅의 얼마를 저마다 갈라 가진 일을 말한다. 러시아와 튀르크 사이의 평화는 1774년의 퀴췩카이나르자 조약으로 이루어졌다.

14. 옮긴이 — 땅값을 지대의 몇 해치로 셈하는 것이 당대의 관행이었다. 「30년치」는 해마다 나오는 지대의 30배를 값으로 치른다는 뜻이며,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 해수가 늘어난다.

15. 옮긴이 — 「지난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7년 전쟁이고 「그 앞선 전쟁」은 1740년부터 1748년까지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다. 1739년에 시작된 스페인 전쟁은 영국 배를 뒤지는 문제로 터졌다. 토지세는 셈한 땅값 1파운드마다 얼마씩 매기는 세금이어서 전쟁 때에는 평시의 2실링에 2실링을 더 매겼다. 감채 기금은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따로 떼어 둔 돈이다. 「스페인령 아메리카 본토」는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카리브해 남쪽 해안을 가리키던 말이다.

7장 — 식민지에 대하여 (이어서)

그러므로 지금의 꾸림새 아래에서 영국은 제 식민지에 대하여 떠맡은 지배에서 손해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영국이 제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스스로 내놓고, 그들이 알맞다고 여기는 대로 저희 행정관을 뽑고 저희 법을 만들고 화평과 전쟁을 결정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책을 제안하는 일이 될 터이다. 어떤 나라도 한 지방의 지배를 스스로 내놓은 적이 없으니, 그곳을 다스리기가 아무리 성가시고 그곳이 가져다주는 세입이 그것이 불러오는 비용에 견주어 아무리 적더라도 그러하였다. 그러한 희생은 이해에는 흔히 들어맞을지 모르나 어느 나라에서나 그 자존심에는 언제나 뼈아픈 일이며,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는,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쪽의 사사로운 이해와 언제나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믿음과 이득이 따르는 숱한 자리를 나누어 줄 권한을 잃고 부와 이름을 얻을 숱한 기회를 잃을 터인데, 가장 소란스럽고 백성 대다수에게 가장 이득 없는 지방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자리와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뜬구름을 잡는 열광가라도 그러한 방책이 언젠가 받아들여지리라는 진지한 바람을 조금이라도 품고서 그것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영국은 식민지의 평시 군비에 드는 한 해 비용 전부에서 곧바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상 조약을 맺어 자유로운 무역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무역은 지금 누리는 독점보다 상인들에게는 덜 이롭겠으나 백성 대다수에게는 더 이롭다. 이렇게 좋은 벗으로 갈라선다면 식민지가 본국에 품은 자연스러운 애정이, 어쩌면 요사이의 다툼이 거의 꺼뜨려 놓았을 그 애정이 이내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갈라설 때 우리와 맺은 그 통상 조약을 몇백 년 내리 지키려 들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나 전쟁에서나 우리를 편들려 들 것이고, 소란스럽고 파당을 짓는 신민 대신에 더없이 미덥고 정 깊고 너그러운 우리 동맹이 될 것이며, 옛 그리스의 식민지들과 그들이 갈려 나온 모시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어버이의 정이 한쪽에 자식의 공경이 다른 쪽에 영국과 그 식민지 사이에 되살아날지도 모른다.[1]

어떤 지방이 제가 딸린 제국에 이롭게 되려면, 그 지방은 평시에 저 자신의 평시 군비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일반 정부를 떠받치는 데에 제 몫만큼을 내놓기에도 넉넉한 세입을 나라에 가져다주어야 한다. 어느 지방이나 그 일반 정부에 드는 비용을 늘리는 데에 얼마간은 반드시 한몫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지방이 이 비용을 대는 데에 제 몫을 내놓지 않으면, 고르지 못한 짐이 제국의 다른 어느 부분에 지워질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지방이나 전시에 나라에 가져다주는 특별 세입도, 같은 이치로 보아 평시의 예사 세입이 그러하듯이 제국 전체의 특별 세입에 대하여 같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 영국이 제 식민지에서 얻는 세입은 예사의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영국 제국 전체의 세입에 대하여 이 몫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선선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독점이 영국 백성의 사사로운 수입을 늘려 주고 그리하여 그들이 더 많은 세를 치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식민지가 내놓는 공공 세입의 모자람을 메워 준다고 여겨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독점은, 내가 밝히려고 애써 온 대로, 식민지에는 몹시 괴로운

세이면서 영국의 어느 한 무리의 수입은 늘려 줄지 몰라도 백성 대다수의 수입은 늘리기는커녕 줄이며, 따라서 백성 대다수가 세를 치를 힘을 늘리기는커녕 줄인다. 게다가 독점이 그 수입을 늘려 주는 사람들은 한 특별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른 무리들보다 더 무거운 몫으로 세를 매기기란 아주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매겨 보려고 드는 것조차 지극히 서투른 짓이니, 이는 다음 편에서 밝히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무리에게서 따로 끌어낼 밑천은 없다.

식민지에 세를 매기는 것은 저희 의회가 할 수도 있고 영국 의회가 할 수도 있다.

식민지 의회들이 제 유권자들에게서, 저희 자신의 민정과 군비를 언제나 유지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의 일반 정부에 드는 비용 가운데 제 몫을 치르기에도 넉넉한 공공 세입을 걷도록 꾸려질 수 있으리라고는 그리 있음 직해 보이지 않는다.[2] 주권자의 눈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잉글랜드 의회조차도 그러한 꾸림의 틀 아래로 들어오기까지, 곧 제 나라의 민정과 군비를 떠받치는 데에 쓸 돈을 넉넉히 내어 주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한 꾸림의 틀이 잉글랜드 의회에 대해서나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민정과 군비에서 생겨나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나누어 줄 권한의 큰 몫을 이러저러한 의원들에게 나누어 준 덕분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의회들은 주권자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수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저마다 다른 통치 틀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권자가 같은 수단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똑같이 꾸리기는 매우 어려울 터인데, 그 수단마저 없다. 영국 제국의 일반 정부에서 생겨나는 관직이나 그 관직을 나누어 줄 권한을 모든 식민지 의회의 주요 의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이 제 고장에서 얻은 인망을 버리고 제 유권자들에게 세를 매겨 그 일반 정부를 떠받치도록 마음을 돌릴 만큼 넉넉한 몫을 나누어 주기란 아주

불가능할 터이니, 그 정부에서 나오는 봉록은 거의 다 그들에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여러 의회의 여러 의원이 저마다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부가 어쩔 수 없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을 이렇게 꾸려 보려다 보면 자주 비위를 거스르게 되고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한 꾸림의 틀은 그들에게는 도무지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식민지 의회들이 제국 전체를 지키고 떠받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가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방어와 떠받침을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그에 대하여 소식을 얻을 정해진 길도 없다. 한 지방의 의회는 한 교구의 교구회와 마찬가지로 제 고장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가릴 수 있겠으나, 제국 전체의 일을 가릴 만한 길은 가질 수 없다. 제 지방이 제국 전체에 대하여 어느 만큼을 차지하는지, 또 다른 지방들에 견주어 제 부와 무게가 어느 만큼인지조차 제대로 가릴 수 없으니, 그 다른 지방들은 한 지방의 의회가 살피고 감독하는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국 전체를 지키고 떠받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각 부분이 어느 만큼씩 내놓아야 하는지는 제국 전체의 일을 살피고 감독하는 그 의회만이 가릴 수 있다.

그리하여 식민지에는 할당으로 세를 매기자는, 곧 영국 의회가 식민지마다 치러야 할 액수를 정하고 그 지방 의회가 그 지방 형편에 가장 알맞은 길로 그것을 부과하고 걷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제국 전체에 걸린 일은 제국 전체의 일을 살피고 감독하는 의회가 정하게 되고, 식민지마다의 지방 일은 여전히 저희 의회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식민지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겪어 온 바로 미루어 보면 의회가 요구하는 할당이 터무니없으리라고 볼 까닭은 없다. 잉글랜드 의회는 의회에 대표를 두지 않은 제국의

부분들에 짐을 지나치게 지우려는 낌새를 어느 때에도 조금도 보인 적이 없다. 건지섬과 저지섬은 의회의 권위에 맞설 수단이 전혀 없으면서도 영국의 어느 곳보다 가볍게 세를 물고 있다.[3] 의회는 식민지에 세를 매길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여겨 그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써 보려 하면서도, 이제껏 그들에게 본국의 같은 신민들이 치르는 것에 견주어 마땅한 몫에 가까이라도 가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게다가 식민지가 내놓는 몫이 토지세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따라 오르고 내리게 된다면, 의회는 제 유권자들에게 함께 세를 매기지 않고서는 식민지에 세를 매길 수 없을 터이고, 이 경우에 식민지는 의회에 사실상 대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지방 전부에 대하여,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한 덩어리로 세를 매기지 않고 주권자가 지방마다 치러야 할 액수를 정한 다음, 어떤 지방에서는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대로 그것을 부과하고 걷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신분 회의가 정하는 대로 부과하고 걷도록 맡겨 두는 제국의 보기가 없지 않다.[4]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서는 국왕이 알맞다고 여기는 세를 매길 뿐만 아니라 알맞다고 여기는 길로 그것을 부과하고 걷는다.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쯤의 액수를 내라고 요구하되, 그 액수를 부과하고 걷는 일은 지방마다의 신분 회의가 알맞다고 여기는 대로 하도록 맡겨 둔다. 할당으로 세를 매기는 방안대로 한다면, 영국 의회는 식민지 의회들에 대하여 프랑스 국왕이 아직도 저희 신분 회의를 지니는 특권을 누리는 지방들, 곧 프랑스에서 가장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지방들의 신분 회의에 대하여 서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식민지는 저희가 지는 공공의 짐이 본국의 같은 시민들이 지는 짐에 견주어 마땅한 몫을 넘어서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옳은 까닭이 없겠지만, 영국은 그것이 그 마땅한 몫에 끝내

이르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옳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영국 의회는 얼마 전부터 식민지에서, 프랑스 국왕이 아직 저희 신분 회의를 지니는 특권을 누리는 프랑스 지방들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굳은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 의회들이 그리 고분고분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그리고 이제껏 다루어 온 것보다 더 솜씨 있게 다루지 않는 한 그럴 성싶지도 않다), 그들은 의회의 더없이 온당한 할당 요구조차 피하거나 물리칠 핑계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전쟁이 터졌다고 해 보자. 제국의 본거지를 지키려면 1,000만 파운드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이 액수는 이자를 치르려고 저당 잡힌 어떤 의회 기금의 신용 위에서 빌려야 한다. 의회는 이 기금의 한 몫은 영국에서 걷을 세로 마련하고 다른 한 몫은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여러 식민지 의회 모두에 할당을 요구하여 마련하자고 한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면 때로는 그 결말이 저희와 그리 상관없다고 여길 그 모든 의회의 기분에 얼마쯤 매인 기금의 신용 위에 사람들이 선뜻 제 돈을 내어 주겠는가? 그러한 기금 위에서는 영국에서 걷을 세가 감당하리라고 여겨지는 만큼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 때문에 진 빚의 짐은 이제껏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고스란히 영국에, 곧 제국 전체가 아니라 제국의 한 부분에 떨어질 것이다. 영국은 어쩌면 세상이 시작된 뒤로 제국을 넓히면서 제 밑천은 한 번도 늘리지 못한 채 비용만 늘린 오직 하나뿐인 나라일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대개 제국을 지키는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저에게 딸린 아래 지방들에 떠넘겨 왔다. 영국은 이제껏 저에게 딸린 아래 지방들이 이 비용 거의 전부를 저에게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법이 이제껏 저에게 딸린 아래에 있다고 여겨 온 제 식민지와 영국을 나란한 자리에 놓으려면, 의회의 할당으로 그들에게 세를 매기는 방안에서는 식민지 의회들이 그 할당을 피하거나 물리치려 들 때에 의회가 제 요구를 곧바로 먹혀들게 할

수단을 얼마쯤 지니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지는 떠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한편 영국 의회가 식민지 의회들의 동의가 없이도 식민지에 세를 매길 권리를 온전히 굳히게 된다면, 그 의회들의 무게는 그 순간부터 끝날 것이고 영국령 아메리카의 모든 주요 인물이 지니는 무게도 그와 함께 끝날 것이다. 사람들이 나랏일을 꾸리는 데에 얼마쯤 끼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주로 그것이 저에게 무게를 실어 주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연스러운 귀족이라 할 주요 인물 대부분이 저마다의 무게를 지키고 지켜 낼 힘을 어느 만큼 지니느냐에 자유로운 통치의 틀이 얼마나 굳고 얼마나 오래가느냐가 달려 있다. 그 주요 인물들이 서로의 무게를 끊임없이 치고 제 무게를 지켜 내는 데에 나라 안 파당과 야심의 온갖 움직임이 들어 있다. 아메리카의 주요 인물들도 다른 모든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 무게를 지키기를 바란다. 그들은 저희 의회를, 곧 저희가 즐겨 본국 의회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그 권위가 영국 의회와 나란하다고 여기는 그 의회를 영국 의회의 고분고분한 심부름꾼이자 집행관으로 떨어뜨린다면 제 무게의 큰 몫이 끝나 버리리라고 느끼거나 그리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회의 할당으로 세를 물자는 제안을 물리쳤고, 야심 있고 기개 높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차라리 제 무게를 지키려고 칼을 뽑기를 골랐다.

로마 공화정이 기울어 갈 무렵, 나라를 지키고 제국을 넓히는 짐을 주로 져 온 로마의 동맹들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저희에게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이 거절되자 동맹시 전쟁이 터졌다.[5] 그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로마는 그들 대부분에게, 그들이 전체 동맹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만큼씩 그 특권을 하나하나 내어 주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세를 매기겠다고 우기고, 식민지는 저희 대표가 없는 의회에게서 세를 물기를 마다한다. 전체 동맹에서 떨어져

나오는 식민지마다 영국이, 같은 세를 물게 된 결과로 그 식민지가 제국의 공공 세입에 내놓는 몫에 걸맞은 수의 대표를 허락하고 그 대갚음으로 본국의 같은 신민들과 같은 무역의 자유를 누리게 하며, 뒷날 그 몫이 늘어나는 대로 대표의 수도 늘려 준다면, 식민지마다의 주요 인물들 앞에는 무게를 얻는 새로운 길이, 야심을 걸 새롭고 더 눈부신 과녁이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식민지 파당이라는 보잘것없는 제비뽑기에서나 찾을 수 있는 자잘한 상을 노리고 아웅다웅하는 대신에, 사람이 제 재주와 제 운수를 저절로 믿게 되는 그 마음으로, 영국 정치라는 거대한 나라 복권의 바퀴에서 이따금 나오는 큰 상을 뽑아 보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카의 주요 인물들이 지닌 무게를 지켜 주고 그들의 야심을 채워 줄 이 길이나 다른 어떤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그리고 이보다 더 뻔히 보이는 길은 없는 듯한데,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굽히고 들어올 성싶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억지로 그리하게 하느라 흘려야 할 피가 한 방울까지 모두 이미 우리와 같은 시민인 사람들의 피이거나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라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마당에 우리 식민지가 힘만으로 쉽사리 꺾이리라고 제 스스로 흐뭇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생각이 얕다. 저희가 대륙 회의라 부르는 것의 결의를 지금 좌우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 유럽의 가장 높은 신민조차 좀처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무게를 제 안에서 느끼고 있다.[,6] 가게 주인과 장사치와 변호사이던 그들은 정치가와 입법자가 되어, 저희 생각에 장차 세상에 있었던 어느 것보다도 크고 무서운 제국의 하나가 되리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리될 성싶어 보이는 드넓은 제국을 위하여 새로운 통치의 꼴을 짜내는 일에 매달려 있다. 대륙 회의 바로 아래에서 이런저런 길로 움직이는 500명쯤 되는 사람들과 그 500명 아래에서 움직이는 5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제 무게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느낀다.

아메리카에서 다스리는 쪽에 선 사람은 거의 하나하나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저가 이제껏 차지해 본 어떤 자리보다도, 아니 차지하리라고 바라 본 어떤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나 그 우두머리들에게 야심을 걸 새로운 과녁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에게 사람으로서 예사로운 기개가 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을 것이다.

에노 원장의 말에, 리그의 자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은 재미있게 읽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던 때에는 어쩌면 그리 대단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있다.[7] 그러나 그때에는 저마다 제가 얼마쯤 무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그는 말한다. 그 시절에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고록은 대부분, 제가 큰 몫을 맡았다고 스스로 흐뭇해하던 일들을 적어 두고 부풀리기를 즐긴 사람들이 쓴 것이었다. 그때에 파리가 얼마나 고집스레 버티었는지, 프랑스의 모든 국왕 가운데 가장 훌륭하였고 뒷날 가장 사랑받은 국왕에게 굽히느니 차라리 얼마나 끔찍한 기근을 견디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8] 시민 대부분은, 아니 그 대부분을 좌우하던 사람들은 제 무게를 지키려고 싸웠으니, 옛 통치가 다시 세워지는 날이면 그 무게가 끝나리라는 것을 그들이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식민지도 합방에 동의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파리가 더없이 훌륭한 국왕의 하나에게 맞서 그리하였던 것만큼이나 고집스레 더없이 훌륭한 본국에 맞서 버티려 들 것이다.

대표를 뽑는다는 생각은 옛적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한 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시민 자격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쓰는 길은 떼를 지어 몰려가 그 다른 나라의 백성과 함께 표를 던지고 의논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이탈리아 주민 대부분에게 로마 시민의 특권을 열어 준 것은 로마 공화정을 아주 무너뜨렸다. 누가 로마 시민이고 누가

아닌지를 더는 가려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트리부스(부족구)도 제 구성원을 알 수 없었다. 온갖 잡된 무리가 민회에 끌려들어 와 참된 시민들을 밀어내고 마치 저희가 시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화정의 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가 새 대표 50명이나 60명을 의회에 보낸다 하더라도, 하원의 문지기가 누가 의원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헌정이 로마와 이탈리아의 동맹 나라들이 합쳐짐으로써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영국의 헌정이 영국과 그 식민지가 합쳐짐으로써 다칠 낌새는 조금도 없다. 그 헌정은 오히려 그것으로 온전해질 터이며, 그것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국의 모든 부분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의회는 제대로 알고 하려면 마땅히 그 모든 부분에서 온 대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합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그것을 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그것도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우기지는 않겠다. 그렇더라도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은 아직 들어 보지 못하였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 일의 본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 이쪽과 저쪽 백성들이 지닌 선입견과 의견에서 나오는 것일 터이다.

물 이쪽에 있는 우리는 아메리카 대표가 무리로 들어오면 헌정의 균형이 뒤집혀 한쪽으로는 왕권의 힘이, 다른 쪽으로는 민주의 힘이 너무 커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표의 수가 아메리카에서 걷힌 세의 크기에 견주어 정해진다면, 다루어야 할 사람의 수는 그들을 다룰 수단에 꼭 맞추어 늘어나고 다룰 수단은 다루어야 할 사람의 수에 꼭 맞추어 늘어날 것이다. 헌정의 왕정 쪽과 민주 쪽은 합방한 뒤에도 서로에 대하여 그 전과 꼭 같은 만큼의 힘을 지니고 마주 서 있을 것이다.

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치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숱한 억눌림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의회에 앉을 그들의 대표는 처음부터 그 수가 제법 많아야 하겠거니와, 그 대표들이 그들을 모든 억눌림에서 손쉽게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대표가 유권자에게 매여 있다는 사정이 그리 약해지지는 않을 터이고, 대표는 제가 의회에서 차지한 자리와 그 자리에서 얻는 모든 무게를 유권자의 호의에 빚지고 있다고 여전히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에게는 그 호의를 가꾸는 것이 제 이해에 맞는 일이 될 터이니, 그는 입법부 의원이 지닌 온 권위를 걸고 제국의 그 먼 부분에서 어떤 민간 관리나 군 관리가 저질렀을 만행 하나하나를 따져 물을 것이다. 게다가 아메리카가 통치의 본거지에서 떨어져 있는 일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그 나라에서 난 사람들은 스스로 흐뭇하게 여길 만하고, 그렇게 여길 까닭도 얼마쯤 있어 보인다. 그 나라가 이제껏 부와 인구와 개량에서 나아간 걸음이 어찌나 빨랐던지, 어쩌면 100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아메리카에서 걷히는 세가 영국에서 걷히는 세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제국의 본거지가 전체를 지키고 떠받치는 데에 가장 많이 내놓는 제국의 그 부분으로 저절로 옮겨 갈 것이다.

아메리카를 찾아낸 일과 희망봉을 돌아 동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낸 일은 사람의 역사에 적힌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두 사건이다. 그 결과는 이미 크나, 그 발견이 있은 뒤로 흘러간 200년에서 300년 사이의 짧은 세월 동안에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다 보았을 수는 없다. 그 큰 사건에서 앞으로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이나 어떤 불행이 나올지는 사람의 어떤 슬기로도 내다볼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들을 얼마쯤 하나로 묶고, 서로의 모자람을 덜어 주고 서로의 누림을 늘리고 서로의 근면을 북돋우게 함으로써, 그 사건들이 대체로 향하는 곳은 이로운 쪽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인도와 서인도에서 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온갖 상업의 이로움이 그 사건이 불러온 끔찍한 불행 속에 가라앉아 사라져 버렸다. 그렇더라도 이 불행은 그 사건 자체의 본바탕에 든 무엇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우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발견이 이루어진 그 무렵에 힘의 우세가 마침 유럽인 쪽에 어찌나 크게 기울어 있었던지, 그들은 그 먼 나라들에서 온갖 종류의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쩌면 그 나라에서 난 사람들이 더 세어지거나 유럽에서 난 사람들이 더 약해질 수 있고, 세상 여러 구석의 주민들이 서로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음으로써 독립한 나라들의 옳지 못함을 겁주어 눌러 서로의 권리를 얼마쯤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의 고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의 고름을 세우는 데에는,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오가는 넓은 상업이 저절로, 아니 그보다 반드시 함께 데려오는 그 지식과 온갖 개량의 주고받음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그 발견이 낳은 주된 결과의 하나는 중상주의 체계를,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르지 못하였을 만큼의 화려함과 영광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 체계가 겨냥하는 바는 큰 나라를 부유하게 하되 땅을 개량하고 갈고 가꾸는 것보다 무역과 제조업으로, 시골의 산업보다 고을의 산업으로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견의 결과로 유럽의 상업 고을들은 세상의 아주 작은 한 부분, 곧 대서양이 씻는 유럽 땅과 발트해와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만을 위하여 물건을 만들고 실어 나르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아메리카의 수많고 번창하는 경작자들을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이가 되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를 위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고 몇몇 점에서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 이가 되었다. 그들의 산업 앞에 두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 하나하나가 옛 세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으며 그 가운데 하나의 시장은 날마다 더욱더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지니고 동인도와 곧바로 무역하는 나라들은 참으로 이 큰 상업의 겉모양과 화려함을 온통 누린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저들을 밀어내려고 마련한 온갖 얄미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이로움의 더 큰 몫을 흔히 누린다. 이를테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산업보다 다른 나라들의 산업을 더 참되게 북돋운다. 아마포라는 한 가지 물건만 보더라도 그 식민지에서 쓰는 양은 한 해에 3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다고 한다(그러나 나는 그 양을 보증한다고 우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많은 쓰임은 거의 다 프랑스와 플란데런과 네덜란드와 독일이 대어 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는 것은 작은 몫뿐이다. 이 많은 양의 아마포를 식민지에 대어 주는 자본은 해마다 그 다른 나라들의 주민들 사이에 나뉘어 그들에게 수입을 마련해 준다. 그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만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쓰이며, 거기서 카디스와 리스본 상인들의 으리으리한 헤픔을 떠받치는 데에 보탬이 된다.

나라마다 제 식민지와의 배타적 무역을 저에게 붙들어 두려고 마련한 규제조차, 그 규제가 밀어내려고 겨눈 나라들보다 그 규제로 덕을 보라고 세워 준 나라들에 더 해로운 일이 흔하다. 다른 나라의 산업을 옳지 못하게 억누르는 일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억누르는 자들의 머리 위로 도로 떨어져 그 다른 나라의 산업보다 저희 산업을 더 짓뭉갠다. 이를테면 그 규제 때문에 함부르크의 상인은 아메리카 시장에 보내려는 아마포를 런던으로 보내야 하고 독일 시장에 내놓으려는 담배를 런던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앞의 것을 아메리카로 곧바로 보낼 수도 없고 뒤의 것을 거기서 곧바로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제약 때문에 그는 앞의 것을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쯤 헐하게 팔고 뒤의

것을 얼마쯤 비싸게 사야 할 터이고, 그리하여 그의 이윤은 얼마쯤 깎일 것이다. 그러나 함부르크와 런던 사이의 이 무역에서 그는 아메리카로 곧바로 하는 무역에서보다 제 자본의 회수를 틀림없이 훨씬 빨리 받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일이지만 아메리카의 셈치름이 런던의 셈치름만큼 어김없다고 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 규제가 함부르크 상인을 가두어 둔 무역에서 그의 자본은, 그가 밀려나 있는 무역에서 그럴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일의 산업을 끊임없이 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쓰임이 그에게는 어쩌면 뒤의 것보다 덜 이로울지 몰라도, 그의 나라에는 덜 이로울 수 없다. 독점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런던 상인의 자본을 저절로 끌어들이는 그 쓰임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그 쓰임은 어쩌면 그에게 다른 대부분의 쓰임보다 더 이로울지 모르나, 회수가 더디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는 더 이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유럽의 어느 나라나 제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나오는 이로움을 통째로 저 혼자 차지하려고 옳지 못한 짓을 온갖으로 해 보았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저 혼자 차지한 것이라고는 식민지에 대하여 떠맡은 억누르는 권위를 평시에 떠받치고 전시에 지켜 내는 비용밖에 없다. 제 식민지를 지님으로써 생기는 불편은 나라마다 고스란히 저 혼자 차지하였다. 그 무역에서 나오는 이로움은 다른 숱한 나라와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얼핏 보면 아메리카의 큰 상업을 독점하는 것이 더없이 값진 것을 손에 넣는 일로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들뜬 야심의 어두운 눈에는 그것이 정치와 전쟁의 어수선한 다툼 속에서 싸워 얻을 만한 몹시 눈부신 과녁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녁의 눈부신 화려함, 곧 그 상업의 어마어마한 크기야말로 그것을 독점하는 일을 해롭게 만드는 바로 그 성질이니, 본바탕으로 보아 다른 대부분의 쓰임보다 나라에

반드시 덜 이로울 수밖에 없는 한 쓰임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리로 갔을 것보다 훨씬 더 큰 몫의 나라 자본을 빨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상업 자산은, 둘째 편에서 밝힌 대로,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 나라에 가장 이로운 쓰임을 저절로 찾아간다. 그것이 중계 무역에 쓰이면 그것이 딸린 나라는 그 자산이 무역을 맡아 주는 모든 나라의 물건이 모이는 집산지가 된다. 그러나 그 자산의 임자는 그 물건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몫을 제 나라에서 처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내보내는 데에 드는 수고와 위험과 비용을 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밖으로 보내어 얻으리라고 바랄 만한 값보다 훨씬 낮은 값에, 게다가 얼마쯤 적은 이윤을 남기고도 기꺼이 제 나라에서 팔려 한다. 그러므로 그는 제 중계 무역을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으로 바꾸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저절로 애쓴다. 또 그의 자산이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에 쓰이고 있다면, 그는 같은 까닭으로 어느 외국 시장에 내보내려고 모아 둔 제 나라 물건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몫을 제 나라에서 처분하기를 바랄 터이고, 그리하여 제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을 국내 무역으로 바꾸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애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상업 자산은 이렇게 가까운 쓰임을 저절로 좇고 먼 쓰임을 피한다. 회수가 잦은 쓰임을 저절로 좇고 회수가 멀고 더딘 쓰임을 피한다. 제가 딸린 나라, 곧 제 임자가 사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쓰임을 저절로 좇고 거기서 가장 적은 양밖에 먹여 살릴 수 없는 쓰임을 피한다. 그것은 예사로운 경우에 그 나라에 가장 이로운 쓰임을 저절로 좇고 예사로운 경우에 가장 덜 이로운 쓰임을 피한다.

그러나 예사로운 경우에 나라에 덜 이로운 그 먼 쓰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이윤이 마침 올라, 가까운 쓰임에 저절로 쏠리는 마음과 맞버티기에 넉넉한 만큼보다 얼마쯤 높아진다면, 이 이윤의 우세는 모든

이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가까운 쓰임에서 자산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윤의 우세는 그 사회가 놓인 실제 형편에서 그 먼 쓰임에 다른 쓰임에 견주어 자산이 얼마쯤 모자라게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의 자산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쓰임 사이에 가장 알맞게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마땅한 값보다 헐하게 사들여지거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어떤 한 무리가 여러 무리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고 또 저절로 있게 되는 그 고름에 어울리는 것보다 더 치르거나 덜 받음으로써 얼마간 억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다. 같은 자본이 먼 쓰임에서 가까운 쓰임에서만큼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결코 먹여 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쓰임도 사회의 살림살이에 가까운 쓰임만큼이나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먼 쓰임이 다루는 물건이 어쩌면 더 가까운 쓰임 가운데 여럿을 꾸려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윤이 제자리보다 높다면 그 물건은 마땅한 값보다, 곧 제 자연 가격보다 얼마쯤 비싸게 팔릴 터이고, 더 가까운 쓰임에 몸담은 모든 사람이 이 높은 값 때문에 얼마간 억눌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그들의 이해가 요구하는 바는 그 가까운 쓰임에서 자산을 얼마쯤 빼내어 그 먼 쓰임으로 돌려, 그 이윤을 제자리로 내리고 그것이 다루는 물건의 값을 제 자연 가격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 별난 경우에 공공의 이해가 요구하는 바는 예사로운 경우에 더 이로운 그 쓰임에서 자산을 얼마쯤 빼내어 예사로운 경우에 공공에 덜 이로운 쓰임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 별난 경우에도 사람들의 타고난 이해와 쏠림은 다른 모든 예사로운 경우에서와 꼭 같이 공공의 이해와 딱 맞아떨어져,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쓰임에서 자산을 빼내어 먼 쓰임으로 돌리게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마다의 사사로운 이해와 정념은 예사로운 경우에 사회에 가장 이로운 쓰임으로 제 자산을 돌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저절로 이끈다. 그러나 이 저절로 쏠리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 쓰임으로 자산을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그 쓰임에서 이윤이 떨어지고 다른 모든 쓰임에서 이윤이 오르는 것이 곧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그릇된 나눔을 고치게 한다. 그러므로 법이 끼어들지 않아도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해와 정념은, 사회마다 그 자산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쓰임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해에 가장 잘 맞는 몫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갈라 나누도록 저절로 이끈다.

중상주의 체계의 온갖 규제는 자산이 저절로 이루는 이 가장 이로운 나눔을 반드시 얼마간 어지럽힌다. 그러나 아메리카 무역과 동인도 무역에 걸린 규제는 어쩌면 다른 어떤 규제보다 그것을 더 어지럽히니, 그 두 큰 대륙과의 무역이 다른 어떤 두 갈래 무역보다 더 많은 양의 자산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 두 갈래 무역에서 이 어지럽힘을 빚어내는 규제가 아주 같지는 않다. 둘 다 독점이 그 큰 기관이지만 그 독점의 갈래가 다르다. 참으로 이런저런 갈래의 독점이야말로 중상주의 체계를 움직이는 오직 하나뿐인 기관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무역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모든 나라를 제 식민지와의 곧은 무역에서 아주 밀어냄으로써 그 식민지의 시장 전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저 혼자 차지하려고 애쓴다. 16세기의 대부분 동안 포르투갈 사람들은 동인도로 가는 길을 처음 찾아낸 공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인도 바다를 항해할 권리가 저희에게만 있다고 우기면서 동인도 무역을 저희도 그처럼 꾸리려고 애썼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직도 다른 모든 유럽 나라를 저희 향료 섬들과의 곧은 무역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런 갈래의 독점은 보다시피 다른 모든 유럽 나라를 겨누어 세워진 것이니, 그

나라들은 그 때문에 제 자산의 얼마쯤을 돌리기에 마침맞았을 무역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그 무역이 다루는 물건을 그 물건이 난 나라에서 저희가 곧바로 들여올 수 있었을 때보다 얼마쯤 비싸게 사야 한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힘이 무너진 뒤로는 어느 유럽 나라도 인도 바다를 항해할 배타적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고, 그 바다의 주요 항구는 이제 모든 유럽 나라의 배에 열려 있다. 그렇더라도 포르투갈과 요 몇 해 사이의 프랑스를 빼면, 동인도 무역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배타적 특권 회사의 손에 넘겨져 있었다.[9] 이런 갈래의 독점은 따지고 보면 그것을 세운 바로 그 나라를 겨누어 세워진 것이다. 그 나라 사람 대부분은 그 때문에 제 자산의 얼마쯤을 돌리기에 마침맞았을 무역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그 무역이 제 나라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자유로웠을 때보다 그 무역이 다루는 물건을 얼마쯤 비싸게 사야 한다. 이를테면 영국 동인도회사가 세워진 뒤로 잉글랜드의 나머지 주민들은 그 무역에서 밀려난 것으로도 모자라, 저희가 쓴 동인도 물건의 값으로 그 회사가 제 독점 덕분에 그 물건에서 얻었을 온갖 특별한 이윤뿐만 아니라 그토록 큰 회사의 일을 꾸리는 데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속임과 남용이 반드시 빚어냈을 온갖 특별한 낭비까지 치러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 둘째 갈래 독점의 터무니없음은 첫째 갈래의 그것보다 훨씬 뚜렷하다.

이 두 갈래 독점은 모두 사회의 자산이 저절로 이루는 나눔을 얼마간 어지럽히나, 언제나 똑같은 길로 어지럽히지는 않는다.

첫째 갈래의 독점은 그것이 세워진 그 특정한 무역으로, 저절로 그리로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의 사회 자산을 언제나 끌어들인다.

둘째 갈래의 독점은 형편에 따라 그것이 세워진 그 특정한 무역으로 자산을 끌어들일 때도 있고 그 무역에서 자산을 밀어낼 때도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무역으로 갔을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그리로 저절로 끌어들인다. 넉넉한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무역으로 갔을 자산을 꽤 많이 거기서 저절로 밀어낸다.

이를테면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가난한 나라는 그 무역이 배타적 특권 회사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동인도로 배 한 척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회사를 세우는 것은 모험가를 북돋우게 마련이다. 그들의 독점은 제 나라 시장에서 맞겨루는 모든 이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고, 외국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 거래인들과 같은 기회를 갖게 한다. 그들의 독점은 제법 많은 양의 물건에서 큰 이윤을 얻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과 아주 많은 양에서 제법 큰 이윤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 그러한 별난 북돋움이 없었다면, 그처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거래인들은 동인도 무역이 저희 눈에 보였을 대로 그토록 멀고 그토록 어림할 수 없는 모험에 제 작은 자본을 걸어 볼 생각조차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꾸로 네덜란드처럼 넉넉한 나라는 무역이 자유롭다면 아마 지금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를 동인도로 보낼 것이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자산이 정해진 만큼으로 묶여 있는 탓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무역으로 갔을 큰 상업 자본이 아마 여럿 거기서 밀려난다. 네덜란드의 상업 자본은 어찌나 큰지 이를테면 끊임없이 넘쳐흘러, 어떤 때에는 외국의 공공 기금으로, 어떤 때에는 외국의 사사로운 거래인과 모험가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어떤 때에는 가장 멀리 돌아가는 소비를 위한 외국 무역으로, 또 어떤 때에는 중계 무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가까운 쓰임은 모두 빈틈없이 채워졌고 참을 만한 이윤을 남기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자본은 이미 다 넣어 두었으므로, 네덜란드의 자본은 가장 먼 쓰임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 동인도 무역이 아주 자유롭다면 아마 이 남는 자본의 큰 몫을 빨아들일 것이다. 동인도는 유럽의 제조품에도, 아메리카의 금과 은에도, 또 아메리카에서

나는 다른 여러 산물에도, 유럽과 아메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시장을 내어 준다.

자산이 저절로 이루는 나눔을 어지럽히는 일은 그것이 벌어지는 사회에 반드시 해로우니, 어떤 특정한 무역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리로 갔을 자산을 밀어내는 것이든 어떤 특정한 무역으로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았을 자산을 끌어들이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배타적 특권 회사가 없었다면 네덜란드의 동인도 무역이 지금보다 컸을 것이라면, 그 나라는 제 자본의 얼마가 그 나라에 가장 마침맞은 쓰임에서 밀려남으로써 제법 큰 손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10] 마찬가지로 배타적 특권 회사가 없었다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동인도 무역이 지금보다 작았을 것이라면, 또는 어쩌면 더 있음 직한 대로 아예 없었을 것이라면, 그 두 나라도 제 자본의 얼마가 지금 형편에 얼마간 어울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쓰임으로 끌려 들어감으로써 제법 큰 손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지금 형편에서는 어쩌면 그 두 나라가 얼마쯤 비싸게 치르더라도 동인도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것이, 회수가 그토록 더디고 그 자본이 제 나라에서 그토록 적은 양의 생산적 노동밖에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토록 먼 무역으로 제 작은 자본의 그토록 큰 몫을 돌리는 것보다 나을 터이니, 그 나라에서는 생산적 노동이 그토록 모자라고 해 놓은 일이 그토록 적고 할 일이 그토록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타적 특권 회사가 없으면 어떤 나라가 동인도와 곧은 무역을 도무지 해 나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나라에 그러한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나라가 이러한 형편에서는 동인도와 곧바로 무역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뿐이다. 그러한 회사가 동인도 무역을 해 나가는 데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배타적 특권 회사가 없이도 100년이 넘도록 그 무역을 거의 온통 누린 포르투갈 사람들이 겪은 바가 넉넉히 보여 준다.

사사로운 상인은 어느 누구도, 이따금 동인도로 보내는 배에 실을 물건을 마련해 두려고 동인도의 여러 항구에 주재 상인과 대리인을 두고 부릴 만큼 넉넉한 자본을 지니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실을 짐을 찾기 어려워 그의 배가 돌아올 철을 놓치는 일이 흔할 터이고, 그토록 오래 머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모험에서 나오는 이윤을 다 먹어 버릴 뿐만 아니라 흔히 아주 큰 손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변이 무엇인가를 밝혀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특권 회사가 없이는 어떤 큰 갈래의 무역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는 셈인데, 이는 모든 나라가 겪어 온 바와 어긋난다. 어떤 큰 갈래의 무역에서도, 그 으뜸 갈래를 해 나가려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딸린 갈래들 전부를 사사로운 상인 한 사람의 자본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한 나라가 어떤 큰 갈래의 무역을 할 만큼 익었을 때에는 어떤 상인들은 제 자본을 그 으뜸 갈래로 돌리고 어떤 상인들은 딸린 갈래로 돌리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하여 그 여러 갈래가 다 꾸려지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사사로운 상인 한 사람의 자본으로 꾸려지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동인도 무역을 할 만큼 익었다면, 그 나라 자본의 얼마쯤은 그 무역의 여러 갈래 사이에 저절로 갈라져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 상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동인도에 머물면서 제 자본을 거기서 써, 유럽에 머무는 다른 상인들이 내보내는 배에 실을 물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 이해에 맞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유럽 나라가 동인도에 얻어 둔 거류지를 지금 그것이 딸려 있는 배타적 특권 회사에서 거두어 주권자가 바로 보호하는 아래에 둔다면, 적어도 그 거류지가 딸린 그 나라의 상인들에게는 이렇게 머무는 일이 안전하고 손쉬워질 것이다. 어느 때에든 한 나라의 자본 가운데,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스스로 동인도 무역으로 쏠리고 기울던 몫이 그 무역의 여러 갈래를 다 해 나가기에 넉넉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때에 그 나라가 그 무역을 할 만큼 익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 동안은 더 높은 값을 치르더라도 쓸 만큼의 동인도 물건을 다른 유럽 나라에서 사들이는 것이 동인도에서 곧바로 들여오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일 터이다. 그 물건의 값이 높아 잃는 것이, 동인도와의 곧은 무역보다 더 필요하고 더 쓸 만하고 제 형편과 자리에 더 어울리는 다른 쓰임에서 제 자본의 큰 몫이 딴 데로 끌려감으로써 입을 손해와 맞먹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해안에도 동인도에도 제법 큰 거류지를 여럿 지니고 있지만, 그 어느 쪽에도 아메리카의 여러 섬과 대륙에 있는 것만큼 수가 많고 번창하는 식민지를 아직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또 동인도라는 두루뭉술한 이름 아래 묶이는 여러 나라에도 야만스러운 종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종족들은 가엾고 속수무책이던 아메리카 원주민만큼 약하고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결코 아니었고, 게다가 저희가 사는 땅이 타고난 기름짐에 견주어 인구가 훨씬 많았다. 아프리카에서든 동인도에서든 가장 야만스러운 종족들도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으니 호텐토트 사람들조차 그러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와 페루를 빼면 아메리카 어느 곳에서나 원주민은 사냥하는 사람들일 뿐이었고, 똑같이 기름진 땅이 똑같은 넓이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목축하는 사람의 수와 사냥하는 사람의 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와 동인도에서는 원주민을 밀어내고 본디 살던 사람들의 땅 대부분에 유럽인의 개척지를 넓히기가 더 어려웠다. 게다가 배타적 특권 회사의 기질은,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새 식민지가 자라는 데에 이롭지 않으며, 동인도에서 그 식민지가 거의 나아가지 못한 주된 까닭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 무역도 동인도 무역도 배타적 특권 회사 없이 해 나갔고, 아프리카 해안의 콩고와 앙골라와 벵겔라에 그리고

동인도의 고아에 둔 그들의 거류지는 미신과 온갖 못된 통치에 짓눌리기는 하였어도 아메리카의 식민지와 얼마쯤 닮은 데가 있으며, 거기에는 몇 대째 자리 잡고 사는 포르투갈 사람들도 얼마쯤 살고 있다. 희망봉과 바타비아에 있는 네덜란드의 거류지는 지금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든 동인도에든 세운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크며, 그 두 거류지는 자리가 남달리 좋다. 희망봉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만큼이나 야만스럽고 제 몸을 지킬 힘이 꼭 그만큼 없는 종족이 살고 있었다. 게다가 그곳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유럽과 동인도 사이의 중간 참이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배가 갈 때도 올 때도 거기에 얼마쯤 머문다. 그 배들에 온갖 싱싱한 식료품과 과일과 더러는 포도주를 대어 주는 일만으로도 그 식민지에서 남아도는 생산물에 아주 넓은 시장이 열린다. 희망봉이 유럽과 동인도 곳곳 사이에서 하는 노릇을 바타비아는 동인도의 주요 나라들 사이에서 한다. 그곳은 힌두스탄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가장 붐비는 길 위에 있고 그 길의 거의 한가운데쯤에 놓여 있다. 또 유럽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배는 거의 모두 바타비아에 들르며, 그 위에 그곳은 이른바 동인도 역내 무역의 중심이자 으뜸가는 장터이니, 유럽인이 하는 몫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난 인도인이 하는 몫에 대해서도 그러하다.[11] 그 항구에서는 중국과 일본, 통킹과 말라카, 코친차이나와 셀레베스섬의 주민들이 부리는 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로운 자리 덕분에 그 두 식민지는 배타적 특권 회사의 억누르는 기질이 이따금 그들이 자라는 데에 놓았을 온갖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바타비아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몸에 해로운 기후라는 더한 불리함까지 넘어설 수 있었다.

영국 회사와 네덜란드 회사는 앞에서 말한 두 곳 말고는 이렇다 할 식민지를 세우지 못하였으나, 둘 다 동인도에서 제법 큰 땅을 쳐서 손에 넣었다. 그런데 그 둘이 새로 얻은 신민을 다스리는 모양에서 배타적

특권 회사의 타고난 기질이 더없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향료 섬들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넉넉한 철에 나는 향료 가운데, 저희가 넉넉하다고 여기는 이윤을 붙여 유럽에서 처분하리라고 헤아리는 양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태워 버린다고 한다. 저희 거류지가 없는 섬에서는 거기에 절로 자라는 정향나무와 육두구나무의 어린 꽃과 푸른 잎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는데, 이 모진 방책 때문에 그 나무들이 이제 거의 아주 뿌리 뽑혔다고 한다. 저희 거류지가 있는 섬에서도 그 나무의 수를 크게 줄여 놓았다고 한다. 저희 섬에서 나는 것조차 저희 시장에 맞는 양보다 훨씬 많아지면 그 땅 사람들이 그 얼마를 다른 나라로 넘길 길을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의심하며, 제 독점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저희가 손수 장으로 가져가는 만큼보다 더 많이 자라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억누르는 술책으로 말루쿠제도 몇 곳의 인구를, 저희의 보잘것없는 수비대와 이따금 향료를 실으러 오는 저희 배에 싱싱한 식료품과 그 밖의 살림에 필요한 것을 대기에 넉넉할 만큼의 수로 거의 줄여 놓았다. 그런데 그 섬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스릴 적에도 사람이 제법 많이 살았다고 한다. 영국 회사는 벵골에서 그토록 온전히 결딴내는 틀을 세울 겨를이 아직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얼개가 향한 곳은 꼭 같았다. 내가 믿을 만하게 들은 바로는, 상관의 우두머리, 곧 그 상관의 수석 서기가 농민에게 양귀비가 잘 자란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벼나 다른 곡물을 뿌리라고 이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12] 내세운 구실은 식료품이 모자라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으나, 참된 까닭은 그 우두머리가 마침 손에 쥐고 있던 많은 양의 아편을 더 좋은 값에 팔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명령이 거꾸로 되어, 우두머리가 아편으로 남다른 이윤을 얻을 성싶다고 내다보면 양귀비를 심을 자리를 내려고 벼나 다른 곡물이 잘 자란 밭을 갈아엎게

하였다. 그 회사의 고용인들은 여러 번에 걸쳐 그 나라의 외국 무역뿐만 아니라 내륙 무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갈래 몇을 저희에게 유리하도록 독점하려고 들었다. 그들이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렇게 독점을 가로챈 그 물건의 생산을 저희가 사들일 수 있는 양으로만이 아니라 저희가 넉넉하다고 여기는 이윤을 붙여 팔 수 있으리라고 헤아리는 양으로까지 묶어 두려고 언젠가는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100년이나 2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영국 회사의 방책도 이렇게 하여 아마 네덜란드 사람들의 것만큼이나 온전히 결딴내는 것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쳐서 얻은 나라의 주권자로 보았을 때, 그 회사들의 참된 이해에 이 결딴내는 얼개만큼 바로 어긋나는 것은 없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권자의 세입은 백성의 수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백성의 수입이 클수록, 곧 그들의 땅과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이 클수록 그들이 주권자에게 대어 줄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므로 그 해마다의 생산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는 것이 주권자의 이해에 맞는다. 이것이 어느 주권자에게나 이해에 맞는 일이라면, 벵골의 주권자처럼 제 세입이 주로 토지 지대에서 나오는 주권자에게는 남달리 그러하다. 그 지대는 생산물의 양과 가치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둘은 모두 시장이 얼마나 넓은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양은 언제나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만큼에 얼마쯤 어김없이 맞추어질 터이고, 그들이 치를 값은 언제나 그들이 얼마나 다투어 사려 드느냐에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권자에게 이해에 맞는 일은 제 나라의 생산물에 더없이 넓은 시장을 열어 주는 것, 사는 사람의 수와 그들 사이의 다툼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려고 더없이 온전한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리고 그런 까닭에 온갖 독점뿐만 아니라 제 나라 생산물을 나라 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는 데에 걸린 제약이나 그것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데에 걸린 제약이나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온갖 물건을 들여오는 데에 걸린 제약까지 모두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그는 그 생산물의 양과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서 저에게 돌아오는 몫, 곧 제 세입을 가장 잘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회사는 저희가 주권자가 된 뒤에도 저희를 주권자로 여기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은 여전히 무역을, 곧 되팔려고 사들이는 일을 제 본업으로 여기며, 야릇하게도 터무니없이 주권자라는 자격을 상인이라는 자격에 덧붙은 것쯤으로, 곧 상인 노릇에 딸려 거들어야 할 무엇으로, 또는 그것을 빌려 인도에서 더 헐하게 사들이고 그리하여 유럽에서 더 나은 이윤을 붙여 팔 수 있게 해 주는 무엇으로 여긴다. 이러려고 그들은 저희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장에서 맞겨루는 이를 모두 될 수 있는 대로 몰아내려 애쓰며, 그리하여 적어도 그 나라에서 남아도는 생산물의 얼마를 저희가 찾는 만큼을 대기에 겨우 넉넉할 양으로, 또는 저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윤을 붙여 유럽에서 팔 수 있으리라고 헤아리는 양으로 줄이려 애쓴다. 이렇게 그들이 몸에 익힌 장사치의 버릇은 어쩌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예사로운 경우에는 언제나 주권자의 크고 오래가는 세입보다 독점하는 자의 작고 덧없는 이윤을 고르게 하며, 저희가 다스리는 나라를 차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말루쿠제도를 다루는 것과 거의 다름없이 다루게 만들 것이다. 동인도회사를 주권자로 보면, 저희 인도 영지로 실어 가는 유럽 물건이 거기서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팔리고 거기서 실어 오는 인도 물건이 거기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값을 받는 것, 곧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리는 것이 그 회사의 이해에 맞는다. 그러나 상인으로서는 이와 거꾸로 되는 것이 그들의 이해에 맞는다. 주권자로서는 그들의 이해가 저희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해와 꼭 같다. 상인으로서는 그들의 이해가 그 이해와 바로 맞선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의 기질이 유럽에 있는 이사회에 걸린 일에서조차 이렇게 본바탕부터, 그리고 어쩌면 고칠 길 없이 그릇되어 있다면, 인도에 있는 그 행정부의 기질은 더욱 그러하다. 그 행정부는 상인들의 평의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인이라는 직업은 두말할 것 없이 더없이 떳떳한 것이지만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백성을 저절로 두렵게 하여 힘을 쓰지 않고도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그런 권위를 함께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한 평의회가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거느린 군대의 힘으로써뿐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통치는 군사의 통치이자 전제의 통치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본업은 상인의 일이다. 곧 저희 주인의 셈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유럽 물건을 팔고 그 대신에 유럽 시장에 내놓을 인도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다. 앞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고 뒤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사들이며, 그리하여 저희가 가게를 벌여 놓은 그 시장에서 맞겨루는 이를 모두 될 수 있는 대로 몰아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행정부의 기질은 회사의 무역에 걸린 일에서는 이사회의 기질과 같다. 그것은 통치를 독점의 이해에 딸린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적어도 그 나라에서 남아도는 생산물의 얼마가 저절로 자라는 것을 회사가 찾는 만큼에 겨우 맞을 양으로 오그라뜨리는 쪽으로 기운다.

게다가 그 행정부의 구성원은 저마다 얼마간 제 셈으로 장사를 하며, 그것을 못 하게 막아 보아야 헛일이다. 1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거의 아주 눈 밖에 있는 큰 상사의 서기들이 주인의 간단한 명령 한마디에 제 셈으로 하던 온갖 장사를 대번에 그만두고, 밑천이 제 손안에 있는 한밑천 잡을 바람을 죄다 영영 버리고, 그 주인들이 내주는 어지간한 봉급으로 만족하리라고 바라는 것만큼 아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 그 봉급은 어지간하기는 하여도 좀처럼 더 올릴 수 없는 것이 회사의 무역에서 나오는 참된 이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이미 그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회사의 고용인들이 제 셈으로 장사하는 것을 막아 보아야, 윗자리의 고용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저희 눈 밖에 나는 불운을 겪은 아랫자리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게 해 주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효험이 없다. 고용인들은 회사의 공적 무역에 세워진 것과 같은 독점을 제 사사로운 무역에도 세우려고 저절로 애쓴다. 저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들은 저희가 다루기로 고른 물건을 다른 모든 사람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 버림으로써 이 독점을 드러내 놓고 곧바로 세울 터인데, 이것이 어쩌면 그것을 세우는 가장 나은 길이자 가장 덜 억누르는 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온 명령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그래도 같은 갈래의 독점을 몰래 에둘러 세우려 애쓸 터인데 그 길은 그 나라를 훨씬 더 결딴낸다. 그들은 숨겨 둔 대리인이나 적어도 드러내 놓고 밝히지 않은 대리인을 내세워 해 나가기로 고른 어떤 갈래의 상업에서든 저희와 맞부딪치는 사람들을 들볶고 망하게 하려고, 통치의 온 권위를 끌어다 쓰고 정의를 펴는 일을 비틀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고용인들의 사사로운 무역은 회사의 공적 무역보다 훨씬 여러 가지 물건에 저절로 뻗친다. 회사의 공적 무역은 유럽과의 무역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며 그 나라 외국 무역의 한 몫만을 아우른다. 그러나 고용인들의 사사로운 무역은 그 나라의 내륙 무역과 외국 무역의 온갖 갈래에 다 뻗칠 수 있다. 회사의 독점은 남아도는 생산물 가운데 무역이 자유로웠다면 유럽으로 내보내졌을 몫이 저절로 자라는 것만을 오그라뜨리는 쪽으로 기운다. 고용인들의 독점은 저희가 다루기로 고른 생산물이라면 어느 몫이든, 곧 내보내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쓰려는 것까지 저절로 자라는 것을 오그라뜨리는 쪽으로 기울며, 그리하여 나라 전체의 경작을 떨어뜨리고 그 주민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온갖 생산물의 양을,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의 양까지도, 회사의 고용인들이 그것을 다루기로 고르기만 하면

그 고용인들이 사들일 수도 있고 제 마음에 드는 이윤을 붙여 팔 수 있으리라 헤아리기도 하는 양으로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13]

또 그들이 놓인 자리의 본바탕으로 보아, 고용인들은 저희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해에 맞서 제 이해를 모질고 매섭게 밀어붙이려는 마음이 그 주인들이 제 이해를 밀어붙이려는 마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나라는 그들의 주인에게 딸린 것이고, 주인은 제게 딸린 것의 이해를 얼마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라는 고용인들에게 딸린 것이 아니다. 그들 주인의 참된 이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 나라의 이해와 같다(그렇더라도 동인도회사 자산의 임자라면 누구나 그의 이해는, 제 표가 그 통치에 얼마쯤 입김을 실어 주는 그 나라의 이해와 결코 같지 않다. 5편 1장 2절을 보라).[14]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억누르는 것은 주로 모르는 데에서, 또 장사치의 선입견이 지닌 옹졸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고용인들의 참된 이해는 그 나라의 이해와 결코 같지 않으며, 더없이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이 억누르는 일이 반드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보내온 규제는 흔히 힘이 없기는 하였어도 대개는 뜻이 좋았다. 인도에 있는 고용인들이 세운 규제에는 더 많은 슬기가, 그리고 어쩌면 더 적은 좋은 뜻이 이따금 드러났다. 행정부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 따라서 그 통치와 손을 끊기를 바라고, 제 재산을 죄다 챙겨 그곳을 떠난 바로 이튿날이면 그 나라 전체가 지진에 삼켜진다 해도 제 이해에는 도무지 아무렇지 않은, 참으로 별난 통치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기서 한 말로 동인도회사 고용인들의 됨됨이를 두루 밉살스럽게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됨됨이를 두고 그러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15] 내가 꾸짖으려는 것은 통치의 틀, 곧 그들이 놓인 자리이지 그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의 됨됨이가 아니다. 그들은 제가 놓인 자리가 저절로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며, 그들을

두고 가장 크게 떠들어 댄 사람들이라고 하여 아마 더 낫게 움직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전쟁에서도 담판에서도 마드라스와 콜카타의 평의회는 여러 번에 걸쳐, 로마 공화정의 가장 좋던 시절의 원로원에 갖다 놓아도 그 이름을 빛냈을 만한 결단과 매서운 슬기로 처신하였다. 그렇지만 그 평의회의 구성원들은 전쟁이나 정치와는 아주 다른 직업을 익히며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놓인 자리 하나만으로, 배움도 겪음도 본보기조차 없이, 그 자리가 요구하는 큰 자질이 그들 안에 대번에 빚어진 듯하고, 저희가 지녔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재주와 덕이 그들 안에 불어넣어진 듯하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어떤 때에는 그들에게서 바라기 어려웠을 너그럽고 큰 행동을 하도록 그들을 북돋웠다면, 다른 때에는 얼마쯤 다른 성질의 일을 저지르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하여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타적 특권 회사는 어느 모로 보나 성가신 것이니, 그것이 세워진 나라에는 언제나 얼마간 불편하고 그 통치 아래에 떨어지는 불운을 겪은 나라는 결딴낸다.

---

1. 옮긴이 — 옛 그리스의 식민지는 모시에서 갈려 나간 뒤 독립한 나라가 되어 모시에 세를 바치지 않았고, 어버이와 자식 사이 같은 예우만 주고받았다. 모시는 식민지를 내보낸 본디의 도시를 말한다.

2.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can never 로 적었으나, 이어지는 논증이 식민지 의회를 그렇게 꾸리는 일은 「도무지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맺으므로 can ever 로 읽어 옮겼다.

3. 옮긴이 — 건지와 저지는 영국 해협에 있는 채널 제도의 두 섬으로, 왕실에 곧바로 딸려 있어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4. 옮긴이 — 신분 회의는 프랑스 지방의 신분제 의회다. 이 의회가 남아 있던 지방에서는 국왕이 내야 할 액수만 정하고 부과와 징수는 그 의회에 맡겼다.

5. 옮긴이 — 동맹시 전쟁은 기원전 91년부터 88년까지 로마와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로마는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시민권을 차례로

내주어 동맹을 갈라놓았다.

6. 옮긴이 — 대륙 회의는 177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모인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연합 회의다. 이 책이 나온 1776년에는 아직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

7. 옮긴이 — 샤를 장 프랑수아 에노(1685~1770)는 파리 고등법원의 원장을 지냈고 프랑스사 연표를 썼다. 저본은 그 이름을 Heynaut 로 적었다.

8. 옮긴이 — 리그는 16세기 프랑스 종교 전쟁 때의 가톨릭 동맹이다. 1590년에 앙리 4세가 파리를 에워싸자 성안 사람들은 굶주리면서도 버티었고, 앙리 4세는 1593년에야 파리에 들어갔다.

9. 옮긴이 — 배타적 특권 회사는 나라가 어느 지역과의 무역을 한 회사에만 허락하여 다른 국민을 그 무역에서 밀어낸 회사를 말한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160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02년에 이러한 특허를 받았다.

10.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that port(그 항구)로 적었으나 앞뒤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가리키므로 that country 로 읽어 옮겼다.

11. 옮긴이 — 역내 무역은 유럽으로 오가는 무역이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던 무역을 말한다. 저본의 country trade 다.

12. 옮긴이 — 상관은 유럽의 회사들이 아시아의 항구에 두고 물건을 사 모으던 거점이다. 저본은 「그 상관의 수석 서기」를 the first clerk or a factory 로 적었으나 of a factory 로 읽어 옮겼다.

13.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the servants of the country 로 적었으나 문단 전체가 회사의 고용인을 말하므로 the servants of the company 로 읽어 옮겼다.

14. 옮긴이 — 괄호 안은 스미스가 본문에 중괄호로 끼워 넣은 자신의 주다. 동인도회사의 자산을 일정액 넘게 가진 사람은 회사 총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었다.

15.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touch less 로 적었으나 much less 로 읽어 옮겼다.

8장 — 중상주의 체계의 결론

8장 — 중상주의 체계의 결론

수출을 북돋우는 것과 들여오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 중상주의 체계가 나라마다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내세우는 두 가지 큰 장치이기는 하나, 몇몇 특정한 상품에 관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계획을 따르는 듯하다. 곧 수출을 억누르고 수입을 북돋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목적만은 언제나 같다고 그 체계는 내세우는데, 무역 차액을 유리하게 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재료와 거래의 도구를 내보내는 것을 억누르는 까닭은 우리 일꾼들에게 이점을 주어 모든 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일꾼들보다 값을 깎아 팔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으며, 값이 그리 크지 않은 몇몇 상품의 수출을 이렇게 제한하여 다른 상품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값지게 내보내게 하겠다고 내세운다. 제조업의 재료를 들여오는 것을 북돋우는 까닭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더 헐하게 가공할 수 있게 하여 만들어진 상품이 더 많이, 더 값지게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는 데 있다. 적어도 우리 법령집에서는 거래의 도구를 들여오는 데에 무슨 장려가 주어진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제조업이 어느 정도 큰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거래의 도구를 만드는 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수많은 제조업의 목적이 된다. 그러한 도구를 들여오는 데에 특별한 장려를 주는 것은 그 제조업들의 이익을 너무 크게 건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수입은 북돋워지기는커녕 흔히 금지되어 왔다. 이리하여 아일랜드에서 오는 것이나 난파물 또는

나포물로 들어오는 것을 빼고는 양모를 빗는 빗을 들여오는 것이 「에드워드 4세 치세 3년의 법」[1]으로 금지되었고, 이 금지는 「엘리자베스 치세 39년의 법」으로 되살아나 뒤이은 여러 법으로 이어지며 아주 굳어졌다.

제조업의 재료를 들여오는 것은 더러 다른 물건이 무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북돋워졌고, 더러는 장려금으로 북돋워졌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는 양모, 모든 나라에서 오는 목화솜, 다듬지 않은 아마, 물들이는 약재의 대부분, 아일랜드나 영국 식민지에서 오는 무두질하지 않은 가죽의 대부분, 영국 그린란드 고기잡이에서 나오는 물범 가죽, 영국 식민지에서 오는 선철과 봉철, 그 밖의 여러 제조업 재료를 들여오는 일은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모든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북돋워졌다.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이 어쩌면 우리의 다른 상업 규제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면제도 입법부에서 억지로 뜯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면제들은 더할 나위 없이 옳고 사리에 맞으며, 나라의 필요와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모든 제조업 재료에까지 넓힐 수 있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큰 제조업자들의 탐욕은 더러 이 면제를 제 일의 원재료라고 옳게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넓혀 놓았다. 「조지 2세 치세 24년의 법 제46장」으로 외국의 바래지 않은 아마실을 들여올 때 1파운드(무게)에 1펜스[2]라는 작은 관세만 매겨졌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어 돛실에는 1파운드(무게)에 6펜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모든 실에는 1파운드(무게)에 1실링, 프로이센산이나 러시아산 실에는 1헌드레드웨이트[3]에 2파운드 13실링 4펜스였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자들은 이 감면에 오래 만족하지 않았다. 「같은 국왕 치세 29년의 법 제15장」, 곧 1야드에 18펜스를 넘지 않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아마포를 내보낼 때 장려금을 준 바로 그 법으로, 바래지 않은 아마실을 들여올 때 무는 이 작은 관세마저 없어졌다. 그러나 아마실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공정에는 그 뒤에 아마실로 아마포를 짜는 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근면이 들어간다. 아마를 기르는 사람과 아마를 다듬는 사람의 근면은 말할 것도 없고, 베 짜는 사람 하나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려면 적어도 실 잣는 사람 서넛이 있어야 하며, 아마포를 마련하는 데에 드는 노동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몫이 아마실을 마련하는 데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실 잣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이며, 대개 나라의 온갖 곳에 흩어져 있는 여자들로 받쳐 주는 이도 지켜 주는 이도 없다. 우리 큰 제조업 고용주들이 이윤을 얻는 것은 그들의 일감을 팔아서가 아니라 베 짜는 사람들의 완성된 일감을 팔아서다. 완성된 제조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의 이익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사들이는 것도 그들의 이익이다. 제 아마포를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과, 모든 외국 아마포를 들여올 때 무는 높은 관세와, 몇몇 프랑스 아마포를 나라 안에서 쓰는 일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입법부에서 뜯어냄으로써 그들은 제 물건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려고 애쓴다. 외국 아마실을 들여오는 것을 북돋우고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만든 실과 맞겨루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난한 실 잣는 사람들의 일감을 될 수 있는 대로 헐하게 사들이려고 애쓴다. 그들은 가난한 실 잣는 사람들의 벌이를 눌러 두려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제 베 짜는 사람들의 임금도 눌러 두려고 애쓰며, 완성된 일감의 값을 올리려 하든 원재료의 값을 내리려 하든 그것은 결코 일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중상주의 체계가 주로 북돋우는 것은 넉넉한 이들과 힘 있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꾸려지는 산업이다. 가난한 이들과 궁한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꾸려지는 산업은 너무나 자주 팽개쳐지거나 짓눌린다.

아마포를 내보낼 때 주는 장려금과 외국 실을 들여올 때 무는 관세의 면제는 둘 다 15년 동안만 주어졌으나 두 차례의 서로 다른 연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1786년 6월 24일 바로 다음에 오는 의회 회기가 끝날 때 함께 만료된다.

장려금으로 제조업의 재료를 들여오는 것을 북돋운 일은 주로 우리 아메리카 개척지에서 들여오는 것에 한정되어 왔다.

이런 종류의 첫 장려금은 이 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아메리카에서 배 만드는 물자를 들여오는 데에 주어진 것이다. 이 이름 아래에는 돛대와 활대와 이물대에 알맞은 재목과 삼, 타르, 피치, 테레빈이 들어갔다. 그러나 돛대감 재목에 1톤에 1파운드를 주는 장려금과 삼에 1톤에 6파운드를 주는 장려금은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들여오는 것에까지 넓혀졌다. 이 두 장려금은 아무런 바뀜 없이 같은 율로 이어지다가 저마다 만료되도록 놓아두었으니, 삼에 주는 것은 1741년 1월 1일에, 돛대감 재목에 주는 것은 1781년 6월 24일 바로 다음에 오는 의회 회기가 끝날 때 만료되었다.

타르와 피치와 테레빈을 들여오는 데에 주는 장려금은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처음에 타르에 주는 것은 1톤에 4파운드였고 피치에 주는 것도 같았으며 테레빈에 주는 것은 1톤에 3파운드였다. 타르에 1톤에 4파운드를 주는 장려금은 뒤에 정해진 대로 마련한 것에만 한정되었고, 그 밖에 좋고 깨끗하고 팔 만한 타르에 주는 것은 1톤에 2파운드 4실링으로 줄었다. 피치에 주는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1파운드로 줄었고 테레빈에 주는 것은 1톤에 1파운드 10실링으로 줄었다.

때의 차례로 보아 제조업 재료를 들여오는 데에 주어진 두 번째 장려금은 「조지 2세 치세 21년의 법 제30장」으로 영국 개척지에서 인디고를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개척지 인디고가 가장 좋은 프랑스

인디고 값의 4분의 3에 값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1파운드(무게)에 6펜스의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기간에만 주어진 이 장려금은 여러 차례 연장으로 이어졌으나 1파운드(무게)에 4펜스로 줄었다. 그것은 1781년 3월 25일 다음에 오는 의회 회기가 끝날 때 만료되도록 놓아두었다.

이런 종류의 세 번째 장려금은 (우리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더러 달래고 더러 다투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에)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26장」으로 영국 개척지에서 삼이나 다듬지 않은 아마를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이 장려금은 1764년 6월 24일부터 1785년 6월 24일까지 21년 동안 주어졌다. 첫 7년 동안은 1톤에 8파운드의 율로, 다음 7년 동안은 6파운드로, 마지막 7년 동안은 4파운드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에까지 넓혀지지 않았는데, 그곳 기후는 (삼이 더러 적은 양으로, 그것도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길러지기는 하나) 그 산물에 그리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아마를 잉글랜드로 들여오는 데에 그런 장려금을 주었다면 연합 왕국 남쪽 지방의 토착 산물을 너무 크게 가로막았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네 번째 장려금은 「조지 3세 치세 5년의 법 제45장」으로 아메리카에서 목재를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그것은 1766년 1월 1일부터 1775년 1월 1일까지 9년 동안 주어졌다. 첫 3년 동안은 좋은 널 120장마다 1파운드의 율로, 그 밖의 각재로 50세제곱피트가 드는 한 짐마다 12실링의 율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 3년 동안은 널에 15실링, 그 밖의 각재에 8실링의 율이었고, 마지막 3년 동안은 널에 10실링, 그 밖의 각재마다 5실링의 율이었다.

이런 종류의 다섯 번째 장려금은 「조지 3세 치세 9년의 법 제38장」으로 영국 개척지에서 생사를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그것은 1770년 1월 1일부터 1791년 1월 1일까지 21년 동안 주어졌다. 첫 7년 동안은 값

100파운드마다 25파운드의 율로, 다음 7년 동안은 20파운드로, 마지막 7년 동안은 15파운드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누에를 치고 명주를 마련하는 데에는 손일이 하도 많이 들고 아메리카에서는 노동이 하도 비싸서, 내가 들은 바로는 이토록 큰 장려금으로도 이렇다 할 효과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여섯 번째 장려금은 「조지 3세 치세 11년의 법 제50장」으로 영국 개척지에서 파이프통과 호그즈헤드통과 배럴통의 통널과 마구리널[4]을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그것은 1772년 1월 1일부터 1781년 1월 1일까지 9년 동안 주어졌다. 첫 3년 동안은 저마다 일정한 양에 대하여 6파운드의 율로, 다음 3년 동안은 4파운드로, 마지막 3년 동안은 2파운드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종류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장려금은 「조지 3세 치세 19년의 법 제37장」으로 아일랜드에서 삼을 들여오는 데에 준 것이다. 그것은 아메리카에서 삼과 다듬지 않은 아마를 들여오는 데에 준 것과 똑같은 꼴로 1779년 6월 24일부터 1800년 6월 24일까지 21년 동안 주어졌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7년씩 세 도막으로 나뉘며, 그 도막마다 아일랜드 장려금의 율은 아메리카 것과 같다. 그러나 아메리카 장려금과 달리 다듬지 않은 아마를 들여오는 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다면 영국에서 그 풀을 가꾸는 일을 너무 크게 가로막았을 것이다. 이 마지막 장려금이 주어질 무렵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법부는 그 전에 영국과 아메리카의 입법부가 서로 그러했던 것보다 그리 나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준 이 은혜가 아메리카에 준 모든 은혜보다 더 복된 조짐 아래 주어진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장려금을 준 바로 그 상품들은 아메리카가 아닌 다른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 때에는 적지 않은 관세를 물었다.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의 이익은 어머니 나라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부는 우리의 부로

여겨졌다. 그들에게 보낸 돈이 얼마이든 무역 차액으로 죄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들인 어떤 비용으로도 우리가 1파딩만큼도 더 가난해질 수 없다고들 했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우리 것이었고, 그 비용은 우리 재산을 개량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이문이 남게 부리는 데에 들인 비용이었다. 참혹한 경험이 이제 넉넉히 드러내 보인 체계의 어리석음을 들추어내려고 지금 더 무슨 말을 보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가 참으로 영국의 한 부분이었다면 그 장려금들은 생산에 주는 장려금으로 볼 수 있었을 터이고, 그런 장려금이 받는 모든 반론을 여전히 받았을 터이나 그 밖의 반론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제조업의 재료를 내보내는 것은 더러 아예 금지하여 억누르고 더러는 높은 관세로 억누른다.

우리 모직 제조업자들은 나라의 번영이 제 특정한 일의 성공과 확장에 달려 있다고 입법부를 설득하는 데에 다른 어느 부류의 일꾼들보다 크게 성공했다. 그들은 어느 외국에서든 모직물을 들여오는 것을 아예 금지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독점을 얻어 냈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양과 양모를 내보내는 것을 똑같이 금지하여 양을 치는 농부와 양모를 기르는 사람을 상대로 또 하나의 독점을 얻어 냈다. 세입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많은 법이 가혹하다는 원망은 아주 마땅한데, 그것을 죄라고 선언한 법령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나 허물없는 일로 여겨지던 행위에 무거운 벌을 매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세입법 가운데 가장 모진 것도,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아우성이 제 터무니없고 짓누르는 독점을 받치려고 입법부에서 뜯어낸 법 가운데 몇몇에 견주면 순하고 부드럽다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 드라콘의 법[5]처럼 이 법들은 죄다 피로 쓰인 것이라 말할 만하다.

「엘리자베스 치세 8년의 법 제3장」으로 양이나 새끼양이나 숫양을 내보낸 자는 처음 저질렀을 때 제 물건을 모조리 영영 빼앗기고 한 해 동안 갇혀 있다가 장이 서는 고을에서 장날에 왼손을 잘려 그 자리에 못 박히게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는 중죄인으로 판결되어 그에 따라 죽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우리 양의 씨가 외국에 퍼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던 듯하다. 「찰스 2세 치세 13년과 14년의 법 제18장」으로 양모를 내보내는 것은 중죄가 되었고, 내보낸 자는 중죄인과 똑같은 벌과 몰수를 받게 되었다.

이 나라 사람됨의 명예를 생각하면 이 두 법령 가운데 어느 것도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앞엣것은 내가 아는 한 곧바로 폐지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서전트 호킨스[6]는 그것이 아직도 힘을 지닌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찰스 2세 치세 12년의 법 제32장 제3절」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법은 앞선 법령들이 매긴 벌을 대놓고 거두어들이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벌을 매겼으니, 곧 내보냈거나 내보내려 한 양 한 마리마다 20실링을 물리고 아울러 그 양과 배에 대한 임자의 몫[7]을 빼앗는 것이다. 그 가운데 뒤엣것은 「윌리엄 3세 치세 7년과 8년의 법 제28장 제4절」로 대놓고 폐지되었는데, 그 법은 이렇게 선언한다. 「양모를 내보내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찰스 2세 국왕 치세 13년과 14년의 법령은 그 법에 적힌 다른 여러 가지와 더불어 그것을 중죄로 여기도록 정하였으나, 그 벌이 하도 모진 탓에 죄지은 자들을 기소하는 일이 그리 효험 있게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앞서 말한 권위로써 그 법 가운데 그 죄를 중죄로 만드는 것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고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 더 순한 법령이 매긴 벌이든, 앞선 법령들이 매겼으되 이 법으로 폐지되지 않은 벌이든, 아직도 넉넉히 모질다. 물건을 빼앗기는

것 말고도 내보낸 자는 내보냈거나 내보내려 한 양모 1파운드(무게)마다 3실링의 벌금을 무는데, 이는 그 값의 네댓 곱쯤 된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인이나 그 밖의 사람은 제게 딸린 빚이나 셈을 대리인이나 다른 누구에게서도 받아 낼 수 없게 된다. 그의 재산이 얼마이든, 그 무거운 벌금을 치를 수 있든 없든, 법은 그를 아주 결딴내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큰 몸뚱이의 도덕은 이 법령을 꾸며 낸 자들의 도덕만큼 아직 썩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실제로 써먹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 보지 못했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뒤 석 달 안에 벌금을 치르지 못하면 7년 동안 유형에 처해지며, 그 기한이 차기 전에 돌아오면 성직자 특전 없이 중죄의 형벌을 받는다.[8] 이 죄를 알고 있은 배 임자는 배와 그 딸린 물건에 대한 제 몫을 죄다 빼앗긴다. 이 죄를 알고 있은 선장과 선원들은 제 물건과 동산을 죄다 빼앗기고 석 달 동안 갇힌다. 뒤에 나온 법령으로 선장은 여섯 달 동안 갇힌다.

수출을 막으려고 양모의 나라 안 거래 전체가 몹시 무겁고 짓누르는 제한 아래 놓여 있다. 양모는 상자나 통이나 나무통이나 궤나 함이나 그 밖의 어떤 꾸러미에도 담을 수 없고 오직 가죽이나 포장천으로 된 짐짝에만 담을 수 있으며, 그 겉에는 「양모」나 「실」이라는 글자를 3인치 이상 되는 큰 글씨로 찍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양모와 꾸러미를 빼앗기고 임자나 짐 꾸린 사람이 1파운드(무게)마다 8실링을 물어야 한다. 해안에서 5마일 안에서는 해 뜰 때와 해 질 때 사이가 아니면 양모를 말이나 수레에 실을 수도 없고 뭍으로 나를 수도 없으며, 어기면 그 양모와 말과 수레를 빼앗긴다. 양모가 실려 나가거나 내보내어진 곳, 또는 그것이 지나간 곳으로서 바닷가에 맞닿은 백인구[9]는 그 양모가 10파운드어치에 못 미치면 20파운드를 물어야 하고, 그보다 값이 크면 그 값의 세 곱과 소송 비용의 세 곱을 물어야

하며, 소송은 그해 안에 내야 한다. 집행은 그곳 주민 가운데 아무나 둘에게 하며, 강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계 법원은 다른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매겨 그 둘에게 갚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 이 벌금보다 적은 액수로 백인구와 화해하면 5년 동안 갇히며, 다른 누구라도 그를 기소할 수 있다. 이 규제들은 온 왕국에 걸쳐 시행된다.

그러나 켄트와 서식스라는 특정한 주에서는 제한이 더욱 성가시다. 바닷가에서 10마일 안에 있는 양모 임자는 누구나 양털을 깎은 지 사흘 안에 가장 가까운 세관 관리에게 제 양털 뭉치가 몇 덩이인지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 옮기기 전에 양털 뭉치의 수와 무게, 그것을 사들인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 그리고 그것을 나르려는 곳을 마찬가지로 알려야 한다. 그 주에서 바다로부터 15마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사들인 양모의 어느 몫도 바다에서 15마일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국왕에게 서약서를 내기 전에는 양모를 살 수 없다. 그 주에서 앞서 말한 대로 신고되고 담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바닷가 쪽으로 실려 가는 양모가 발견되면 그것을 빼앗기고, 죄지은 자는 1파운드(무게)마다 3실링을 아울러 물어야 한다. 누구든 앞서 말한 대로 신고하지 않은 양모를 바다에서 15마일 안에 두면 그것은 압수되어 몰수되며, 그렇게 압수된 뒤에 누구든 그것이 제 것이라 주장하려면 재판에서 지는 경우 다른 모든 벌 말고도 소송 비용의 세 곱을 치르겠다는 담보를 재무부에 내야 한다.

나라 안 거래에 이런 제한이 매겨져 있으니 연안 거래도 그리 자유롭게 놓아두었을 리 없다고 우리는 믿어도 될 것이다. 양모를 해안의 어느 항구나 자리로 날라다가 거기서 바닷길로 해안의 다른 자리나 항구로 옮기려는 임자는 누구나, 그 양모를 그 항구에서 5마일 안으로 들여오기 전에 먼저 내보낼 항구에서 꾸러미의 무게와 표지와

수를 적은 신고서를 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 양모와 아울러 말과 수레와 그 밖의 나르는 것을 빼앗기고, 양모 수출을 막는 다른 법들이 정한 벌과 몰수까지 받는다. 그러나 이 법(「윌리엄 3세 치세 1년의 법 제32장」)은 아주 너그러워서, 양털을 깎은 곳이 바다에서 5마일 안이더라도 누구든 제 양모를 집으로 나르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선언하는데, 다만 양털을 깎은 지 열흘 안에 그리고 그 양모를 옮기기 전에 가장 가까운 세관 관리에게 양털 뭉치의 참된 수와 그것을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를 제 손으로 적어 알리고, 옮기려는 뜻을 사흘 전에 제 손으로 적어 그 관리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옮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연안으로 나르는 양모는 내보내는 것으로 신고한 그 항구에서 내리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하며, 그 가운데 어느 몫이든[10] 관리가 있지 않은 자리에서 내리면 다른 물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모를 몰수당할 뿐 아니라 1파운드(무게)마다 3실링이라는 예의 덧붙은 벌금까지 물게 된다.

우리 모직 제조업자들은 그토록 유별난 제한과 규제를 달라는 제 요구를 옳게 보이려고, 잉글랜드 양모는 남다른 품질을 지녀 어느 나라 양모보다 낫고, 다른 나라의 양모는 그것을 얼마쯤 섞지 않고는 쓸 만한 제조품으로 짜낼 수 없으며, 고운 모직은 그것 없이는 만들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아주 막을 수만 있다면 잉글랜드가 세상의 모직 거래를 거의 통째로 혼자 독점할 수 있을 터이며, 그리하여 맞수가 없으니 제 마음대로 값을 매겨 팔아 머지않아 가장 유리한 무역 차액으로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주장하는 다른 대부분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이 학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졌고 지금도 그러한데, 모직 거래를 모르거나 따로 알아본 적이 없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나 잉글랜드 양모가 고운

모직을 만드는 데에 무슨 점에서든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온전히 거짓이어서, 그것은 그 일에 아예 맞지 않는다. 고운 모직은 온통 스페인 양모로만 만든다. 잉글랜드 양모는 스페인 양모에 섞어 넣어도 그 모직의 바탕을 얼마쯤 망가뜨리고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끼어들 수조차 없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보였듯이 이 규제들의 효과는 잉글랜드 양모의 값을 지금 저절로 그러했을 값보다 낮게 누른 것만이 아니라 에드워드 3세 때에 실제로 그러했던 값보다 훨씬 낮게 누른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양모의 값은 연합의 결과로 같은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 절반쯤 떨어졌다고 한다. 아주 정확하고 사리 밝은 『양모 회고록』의 지은이 존 스미스 목사[11]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좋은 잉글랜드 양모의 값이 질이 훨씬 떨어지는 양모가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흔히 팔리는 값보다 대개 낮다고 적어 두었다. 이 상품의 값을 그 자연스럽고 마땅한 값이라 할 만한 것보다 낮게 누르는 것이 그 규제들이 드러내 놓고 내세운 목적이었으며, 그것들이 바라던 효과를 낳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값이 내려간 것이 양모 기르는 일을 가로막아 그 상품의 연간 생산물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곧 예전보다 아래로는 아닐지라도 지금 형편에서 열리고 자유로운 시장 덕분에 자연스럽고 마땅한 값까지 오르도록 놓아두었다면 그랬을 만한 양보다는 아래로 줄였을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연간 생산물의 양이 이 규제들로 얼마쯤 영향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는 없다고 믿는 쪽이다. 양모를 기르는 일은 양 치는 농부가 제 근면과 자산을 쓰는 주된 목적이 아니다. 그는 제 이윤을 양털 값보다 고깃덩이 값에서 바라며, 뒤엣것의 평균 값 또는 예사로운 값은 많은 경우에 앞엣것의 평균 값 또는 예사로운 값에 모자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에게 메워 주기까지

한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양모값이든 무두질하지 않은 가죽값이든 저절로 그러했을 값보다 낮게 가라앉히는 쪽으로 기우는 규제는 무엇이든, 개량되고 경작된 나라에서는 푸줏간 고기의 값을 올리는 쪽으로 얼마쯤 기울 수밖에 없다. 개량되고 경작된 땅에서 먹이는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그 값은 지주가 개량되고 경작된 땅에서 바랄 만한 지대와 농부가 바랄 만한 이윤을 치르기에 넉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머지않아 짐승 먹이기를 그만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값 가운데 양모와 가죽이 치르지 않는 몫은 고깃덩이가 치러야 한다. 한쪽에 치르는 것이 적을수록 다른 쪽에 치르는 것이 많아야 한다. 이 값이 짐승의 여러 부분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죄다 그들에게 치러지기만 한다면 지주와 농부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개량되고 경작된 나라에서 지주와 농부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그런 규제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없으나, 소비자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식료품 값이 오름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법에 따르면 개량되고 경작된 나라에서 양모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여 그 상품의 연간 생산물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양고기 값을 올림으로써 푸줏간 고기 가운데 그 한 갈래에 대한 수요를, 따라서 그 생산을 얼마쯤 줄일 수는 있으니 그만큼은 예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는 효과조차 아마 그리 대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간 생산물의 양에 미친 효과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질에 미친 효과는 반드시 아주 컸으리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다. 잉글랜드 양모의 질이 떨어진 것은, 지난날보다 아래로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개량되고 경작된 형편에서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는 아래로 떨어졌을 터인데, 그 떨어짐이 값이 떨어진 것과 거의 비례했으리라고 어쩌면 짐작할 수도 있다. 질이 씨와 목초에, 그리고 양털이 자라는 내내

양을 어떻게 건사하고 얼마나 깨끗이 기르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기울이는 정성이 그 정성이 요구하는 노동과 비용을 양털 값이 갚아 줄 만한 만큼을 넘어설 수는 결코 없으리라고 자연스레 떠올릴 만도 하다. 그러나 양털이 좋은지 어떤지는 크게 보아 짐승의 건강과 자람과 덩치에 달려 있으니, 고깃덩이를 낫게 하는 데에 필요한 바로 그 정성이 어느 점에서는 양털을 낫게 하는 데에도 넉넉하다. 값이 떨어졌는데도 잉글랜드 양모는 이 세기가 지나오는 동안에조차 적지 않게 나아졌다고 한다. 값이 더 좋았더라면 그 나아짐이 어쩌면 더 컸을 것이나, 값이 낮은 것이 그 나아짐을 가로막았을지언정 아주 막아 버리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규제들의 사나움은 양모의 연간 생산물의 양에도 질에도 사람들이 그러리라 여겼을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듯하며(다만 앞엣것보다 뒤엣것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양모를 기르는 사람들의 이익도 얼마쯤 다쳤을 것은 틀림없으나 모두 따져 보면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덜 다친 듯하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양모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것을 옳다고 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 수출에 적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일은 넉넉히 옳다고 해 준다.

어느 한 계층의 시민의 이익을 다른 계층의 이익을 북돋운다는 것 말고는 아무 목적도 없이 조금이라도 해치는 것은, 주권자가 제 신민의 서로 다른 모든 계층에게 지고 있는 정의와 고른 대우에 뻔히 어긋난다. 그런데 이 금지는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북돋운다는 것 말고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양모를 기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얼마쯤 틀림없이 해친다.

시민의 서로 다른 모든 계층은 주권자나 공동체를 떠받치는 데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양모 1토드[12]를 내보낼 때마다 5실링, 아니

10실링의 세금을 매긴다면 주권자에게 아주 적지 않은 세입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것은 양모값을 아마 그만큼 많이 낮추지는 않을 터이므로 금지보다 기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덜 해친다. 그것은 제조업자에게도 넉넉한 이점을 줄 터인데, 그가 금지 아래에서만큼 양모를 아주 헐하게 사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나라 제조업자가 내야 할 뱃삯과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적어도 그 제조업자가 살 수 있는 값보다 5실링이나 10실링 헐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에게 적지 않은 세입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이토록 적은 불편만 끼치는 세금을 생각해 내기란 좀처럼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금지는 그것을 지키는 온갖 벌에도 양모가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양모가 많은 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국내 시장의 값과 외국 시장의 값 사이의 큰 차이가 밀무역에 그런 유혹을 내미니 법의 온갖 엄함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법에 어긋나는 이 수출은 밀무역꾼 말고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세금을 무는 법에 맞는 수출이라면 주권자에게 세입을 가져다주고 그리하여 어쩌면 더 무겁고 더 거추장스러울 다른 세금을 매기는 일을 덜어 줌으로써 이 나라의 서로 다른 모든 신민에게 이로울 수 있을 것이다.

모직 제조품을 마련하고 씻어 내는 데에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축융토 곧 마전흙을 내보내는 것도 양모를 내보내는 것과 거의 같은 벌을 받게 되었다. 담뱃대 흙조차 마전흙과 다르다고 인정되는데도 서로 닮았다는 까닭으로, 또 마전흙이 더러 담뱃대 흙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까닭으로 같은 금지와 벌 아래 놓였다.

「찰스 2세 치세 13년과 14년의 법 제7장」으로 무두질하지 않은 가죽뿐 아니라 무두질한 가죽까지도 장화나 신이나 슬리퍼의 꼴이 아니고서는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이 법은 우리 장화 만드는 사람과 신 만드는 사람에게 목축업자를 상대로만이 아니라 무두장이를

상대로도 독점을 주었다. 뒤에 나온 법령들로 우리 무두장이들은 무두질한 가죽 1헌드레드웨이트, 곧 112파운드(무게)마다 1실링이라는 작은 세금을 무는 것으로 이 독점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또한 제 상품에 매겨진 소비세의 3분의 2를, 더 가공하지 않고 내보낼 때조차 환급받게 되었다. 가죽으로 만든 온갖 제조품은 관세 없이 내보낼 수 있고, 게다가 내보내는 자는 소비세 전부를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목축업자들은 여전히 옛 독점 아래 놓여 있다. 목축업자들은 서로 떨어져 나라의 온갖 구석에 흩어져 있으므로, 제 동료 시민에게 독점을 매기려는 목적으로든 남이 제게 매겨 놓은 독점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든 큰 어려움 없이는 단합할 수 없다. 온갖 종류의 제조업자들은 모든 큰 도시에 많은 무리로 모여 있으니 쉽게 그럴 수 있다. 소의 뿔조차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뿔 다루는 사람과 빗 만드는 사람이라는 보잘것없는 두 거래가 이 점에서 목축업자를 상대로 독점을 누린다.

얼마쯤 가공되었으나 아주 완성되지는 않은 물건을 내보내는 데에 금지로든 세금으로든 제한을 두는 일은 가죽 제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품이든 당장 쓰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한, 우리 제조업자들은 그 일을 저희가 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양모실과 소모사는 양모와 같은 벌 아래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바래지 않은 흰 모직물조차 우리는 내보낼 때 관세를 물리니, 우리 염색업자들은 그만큼 모직물업자를 상대로 독점을 얻어 낸 셈이다. 우리 모직물업자들은 아마 그에 맞서 제 몸을 지킬 수 있었을 터이나, 공교롭게도 우리 주요한 모직물업자 가운데 대부분이 스스로 염색업자이기도 하다. 회중시계 집과 괘종시계 집, 그리고 괘종시계와 회중시계의 문자판도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우리 괘종시계 만드는 사람과 회중시계 만드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세공 값이 외국 사람들의 경쟁으로 저희에게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양이다.

에드워드 3세와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때의 몇몇 옛 법령으로 모든 쇠붙이를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납과 주석만이 홀로 예외였는데, 아마 그 쇠붙이들이 아주 넉넉했던 까닭이고 그 시절에는 왕국의 거래 가운데 적지 않은 몫이 그것을 내보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광산 거래를 북돋우려고 「윌리엄과 메리 치세 5년의 법 제17장」은 영국 광석으로 만든 쇠와 구리와 먼딕 쇠붙이를 이 금지에서 빼 주었다. 영국 것이든 외국 것이든 온갖 종류의 구리 막대를 내보내는 것은 뒤에 「윌리엄 3세 치세 9년과 10년의 법 제26장」으로 허락되었다. 가공하지 않은 놋쇠, 곧 이른바 포금과 종쇠와 슈로프 쇠를 내보내는 것은 아직도 금지되어 있다. 온갖 종류의 놋쇠 제조품은 관세 없이 내보낼 수 있다.

제조업의 재료를 내보내는 일은 아주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관세를 문다.

「조지 1세 치세 8년의 법 제15장」으로 영국의 산물이거나 제조품으로서 앞선 법령들이 무슨 관세든 매겨 놓았던 모든 물건을 내보내는 일이 관세 없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 물건들은 예외였다. 명반, 납, 납 광석, 주석, 무두질한 가죽, 녹반, 석탄, 양모 빗[13], 흰 모직물, 칼라민석, 온갖 종류의 짐승 가죽, 아교, 집토끼 털이나 솜털, 산토끼 털, 온갖 종류의 털, 말, 그리고 일산화납이다. 말을 빼면 이것들은 모두 제조업의 재료이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조품(더 가공할 재료로 볼 수 있다)이거나, 거래의 도구다. 이 법령은 그것들을 그때까지 매겨진 적이 있는 모든 옛 관세와 구보조세와 내보낼 때 무는 1퍼센트 아래에 그대로 둔다.

같은 법령으로 염색업자가 쓰는 수많은 외국 약재가 들여올 때 무는 모든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 약재들은 저마다 뒤에 내보낼 때 일정한 관세를, 참으로 그리 무겁지는 않은 관세를 물게 되었다. 우리

염색업자들은 모든 관세를 면제하여 그 약재를 들여오는 것을 북돋우는 것이 제 이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내보내는 데에 얼마쯤 작은 방해를 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 이익이라고 여긴 모양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이 볼만한 재간을 떠올리게 한 탐욕은 십중팔구 제 목적을 스스로 그르쳤다. 그것은 들여오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들여오는 양이 국내 시장을 대는 데에 필요한 만큼을 넘지 않도록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조심하라고 반드시 가르쳤다. 국내 시장은 언제나 더 옹색하게 공급되기 쉬웠고, 그 상품들은 수출이 수입만큼 자유로웠을 때보다 그곳에서 언제나 얼마쯤 더 비싸기 쉬웠다.

앞서 말한 법령으로 세네갈 고무 곧 아라비아 고무는 열거된 물들이는 약재에 들어 있었으므로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었다. 다만 다시 내보낼 때에는 1헌드레드웨이트에 3펜스밖에 되지 않는 작은 파운드세를 물어야 했다. 그때 프랑스는 그 약재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 곧 세네갈강 언저리에 있는 나라와 독점 거래를 누리고 있었고, 영국 시장은 그것이 자라는 곳에서 곧바로 들여와 넉넉히 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지 2세 치세 25년의 법」으로 세네갈 고무는 (항해법[14]의 두루 미치는 규정과 어긋나게도) 유럽의 어느 곳에서든 들여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법은 잉글랜드 중상주의 행정의 두루 미치는 원리와 그토록 어긋나는 이런 갈래의 거래를 북돋울 뜻이 없었으므로, 그런 수입에 1헌드레드웨이트에 10실링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의 어느 몫도 뒤에 내보낼 때 환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1755년에 시작된 성공한 전쟁으로 영국은 프랑스가 전에 누리던 바로 그 독점 거래를 그 나라들에 대하여 얻게 되었다. 우리 제조업자들은 평화가 맺어지자마자 이 이점을 제 것으로 삼아, 이 상품을 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들여오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제게 이로운 독점을 세우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조지 3세 치세 5년의 법 제37장」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폐하의 영지에서 세네갈 고무를 내보내는 것은 영국으로만 한정되었고,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영국 식민지에서 나는 열거된 상품과 똑같은 제약과 규제와 몰수와 벌 아래 놓였다. 그것을 들여오는 데에는 참으로 1헌드레드웨이트에 6펜스라는 작은 관세만 매겨졌으나, 다시 내보내는 데에는 1헌드레드웨이트에 1파운드 10실링이라는 엄청난 관세가 매겨졌다. 그 나라들의 생산물 전부를 영국으로 들여오게 하고, 저희가 제 값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 어느 몫도 다시 내보내지 못하게 하되 내보내더라도 그 수출을 넉넉히 가로막을 만한 비용을 들이게 하자는 것이 우리 제조업자들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이번에도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목적을 스스로 그르쳤다. 이 엄청난 관세가 밀무역에 그런 유혹을 내밀었으므로 이 상품이 많은 양으로 몰래 나갔으니, 아마 유럽의 모든 제조업 나라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네덜란드로 나갔으며,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나갔다. 이런 까닭에 「조지 3세 치세 14년의 법 제10장」으로 수출에 무는 이 관세는 1헌드레드웨이트에 5실링으로 줄었다.

구보조세를 걷을 때 따르던 관세 평가표에서 비버 가죽은 한 장에 6실링 8펜스로 매겨졌고, 1722년 이전에 그것을 들여오는 데에 매겨졌던 여러 보조세와 부과금은 평가액의 5분의 1, 곧 가죽 한 장에 16펜스에 이르렀는데, 2펜스밖에 되지 않는 구보조세의 절반을 빼고는 그 전부를 내보낼 때 환급받았다. 제조업의 그토록 중요한 재료를 들여오는 데에 무는 이 관세는 너무 높다고 여겨졌으며, 그리하여 1722년에 평가액이 2실링 6펜스로 낮추어져 수입 관세가 6펜스로 줄었고 그 가운데 절반만을 내보낼 때 환급받게 되었다. 같은 성공한 전쟁으로 비버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 아래 들어왔고, 비버 가죽이 열거된 상품에 들어 있었으므로 아메리카에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은 따라서 영국 시장으로만 한정되었다. 우리 제조업자들은

머지않아 이 사정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냈고, 1764년에 비버 가죽을 들여오는 데에 무는 관세는 1펜스로 줄었으나 내보내는 데에 무는 관세는 가죽 한 장에 7펜스로 올랐으며 수입 관세를 환급해 주지도 않게 되었다. 같은 법으로 비버의 솜털이나 뱃가죽 털을 내보내는 데에 1파운드(무게)에 18펜스의 관세가 매겨졌으나 그 상품을 들여오는 데에 무는 관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그것은 영국 사람이 영국 배로 들여올 때 그 무렵 한 장에 4펜스와 5펜스 사이였다.

석탄은 제조업의 재료로도 거래의 도구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무거운 관세가 그것을 내보내는 데에 매겨졌으니, 지금(1783년)은 1톤에 5실링이 넘고 뉴캐슬 되로 1챌드런[15]에 15실링이 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탄갱에서, 아니 내보내려고 싣는 항구에서조차 그 상품이 본디 지닌 값보다 크다.

그러나 본디 뜻으로 거래의 도구라 불리는 것을 내보내는 일은 흔히 높은 관세가 아니라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리하여 「윌리엄 3세 치세 7년과 8년의 법 제20장 제8절」로 장갑이나 양말을 뜨는 틀이나 기계를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내보냈거나 내보내려 한 그 틀이나 기계를 빼앗길 뿐 아니라 40파운드를 물게 되며 그 절반은 국왕에게, 나머지 절반은 그 일을 고발하거나 그것을 걸어 소송한 사람에게 간다. 마찬가지로 「조지 3세 치세 14년의 법 제71장」으로 목화와 아마와 모직과 명주 제조업에 쓰는 어떤 연장이든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 연장을 빼앗길 뿐 아니라 그렇게 죄지은 사람이 200파운드를 물어야 하고, 그런 연장이 제 배에 실리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둔 선장도 마찬가지로 200파운드를 물어야 한다.

죽은 거래의 도구를 내보내는 데에 이런 무거운 벌이 매겨졌으니, 살아 있는 도구인 수공업자를 자유롭게 놓아두리라고는 좀처럼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조지 1세 치세 5년의 법 제27장」으로,

영국의 어느 제조업에 딸린 수공업자든 제 기술을 부리거나 가르치러 외국으로 가라고 꾀었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 저질렀을 때 100파운드를 넘지 않는 액수의 벌금과 석 달의 가둠에 처해지고 벌금을 치를 때까지 갇혀 있으며, 두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액수의 벌금과 열두 달의 가둠에 처해지고 벌금을 치를 때까지 갇혀 있게 되었다. 「조지 2세 치세 23년의 법 제13장」으로 이 벌은 무거워져, 처음 저질렀을 때에는 그렇게 꾄 수공업자 하나마다 500파운드와 열두 달의 가둠에 처해지고 벌금을 치를 때까지 갇혀 있으며, 두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는 1000파운드와 두 해의 가둠에 처해지고 벌금을 치를 때까지 갇혀 있게 되었다.

이 두 법령 가운데 앞엣것으로, 누군가가 수공업자를 꾀고 있었다는 것이나 어떤 수공업자가 앞서 말한 목적으로 외국에 가겠다고 약속하거나 계약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수공업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다 건너로 가지 않겠다는 담보를 내야 하며 그런 담보를 낼 때까지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어떤 수공업자든 바다 건너로 가서 외국에서 제 기술을 부리거나 가르치고 있을 때, 외국에 나가 있는 폐하의 공사나 영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또는 그때의 폐하의 국무대신 가운데 하나에게서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 뒤 여섯 달 안에 이 나라로 돌아와 그때부터 이 나라 안에 줄곧 머물러 살지 않으면, 그는 그때부터 이 왕국 안에서 제게 남겨진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유언 집행인도 재산 관리인도 될 수 없으며, 이 왕국 안의 어떤 땅도 상속으로든 유증으로든 매입으로든 가질 수 없다고 선언된다. 그는 또한 제 땅과 물건과 동산을 죄다 국왕에게 빼앗기고, 모든 점에서 외국인으로 선언되며, 국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다.

그런 규제가,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체하는 저 자랑스러운 신민의 자유에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경우에 그 자유는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하찮은 이익에 너무나 뻔히 제물로 바쳐졌다.

이 모든 규제의 갸륵한 동기는 우리 제조업을 그 자체의 개량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제조업을 모조리 짓눌러서, 그리고 그런 밉살스럽고 아니꼬운 맞수들의 성가신 경쟁을 될 수 있는 대로 끝장내서 늘리려는 것이다. 우리 제조업 고용주들은 제 나라 사람들의 재간을 저희가 독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몇몇 거래에서는 한 번에 부릴 수 있는 도제의 수를 제한하고 모든 거래에서는 긴 도제살이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저마다 제 일의 지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사람에게 가두어 두려고 애쓰면서도, 그 적은 수 가운데 어느 몫이든 외국으로 나가 외국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오직 하나뿐인 끝이요 목적이며, 생산하는 이의 이익은 소비하는 이의 이익을 북돋우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돌보아야 한다.

이 격률은 너무나 뻔히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것을 증명하려 드는 일 자체가 어처구니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상주의 체계에서는 소비하는 이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생산하는 이의 이익에 제물로 바쳐지며, 그 체계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산업과 상업의 마지막 끝이요 목적으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가 기르거나 만든 것과 맞겨룰 수 있는 모든 외국 상품을 들여오는 데에 두는 제한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뻔히 생산자의 이익에 제물로 바쳐진다. 앞엣사람이 이 독점이 거의 언제나 불러오는 그 값의 오름을 치러야 하는 것은 온통 뒤엣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다.

생산자가 만든 것 가운데 몇몇을 내보내는 데에 장려금이 주어지는 것도 온통 그의 이익을 위해서다. 국내 소비자는 첫째로 그 장려금을 치르는 데에 필요한 세금을 물어야 하고, 둘째로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값이 오르는 데에서 반드시 생겨나는 더 큰 세금을 물어야 한다.

포르투갈과 맺은 저 이름난 통상 조약으로 소비자는 우리 기후가 내놓지 못하는 상품을 이웃 나라에서 사들이는 것이 관세로 가로막히고, 먼 나라의 상품이 가까운 나라의 것보다 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데도 먼 나라에서 사들일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가 이 불편을 견뎌야 하는 것은 생산자가 제가 만든 것의 얼마쯤을 그러지 않았더라면 허락받았을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 먼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는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는 일이 국내 시장에서 바로 그 생산물의 값에 일으키는 오름까지 죄다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메리카와 서인도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세워 놓은 법의 체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우리의 다른 모든 상업 규제에서보다 더 터무니없이 헤프게 생산자의 이익에 제물로 바쳐졌다. 우리의 여러 생산자가 가게에 내놓을 수 있는 온갖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손님들의 나라 하나를 길러 내겠다는 오직 그 목적 하나로 거대한 제국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이 독점이 우리 생산자들에게 가져다줄 그 자잘한 값의 오름을 위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그 제국을 건사하고 지키는 비용 전부를 짊어져 왔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하여 지난 두 차례의 전쟁에서 2억 파운드가 넘는 돈이 쓰였고, 같은 목적으로 앞선 전쟁들에서 들인 것 말고도 1억 7천만 파운드가 넘는 새 빚이 지어졌다. 이 빚의 이자만 해도 식민지 거래의 독점으로 얻었다고 결코 내세울 수조차 없었던 그 유별난 이윤 전부보다 클 뿐 아니라, 그 거래 전체의 가치보다도, 또 해마다 평균하여 식민지로 내보낸 물건 전체의 가치보다도 크다.

이 중상주의 체계 전체를 꾸며 낸 자들이 누구인지 가려내기는 그리 어려울 수 없다. 이익이 온통 팽개쳐진 소비하는 이들은 아니라고 믿어도 될 터이고, 이익이 그토록 정성스레 돌보아진 생산하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단연 으뜸가는 설계자였다. 이 장에서 눈여겨본 중상주의 규제에서는 우리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무엇보다 각별히 돌보아졌고, 그것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것은 소비하는 이들의 이익이라기보다 다른 몇몇 생산자 무리의 이익이었다.

---

1.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킨다. 이 장에 나오는 국왕이 왕위에 오른 해는 에드워드 3세 1327년, 에드워드 4세 1461년, 헨리 8세 1509년, 에드워드 6세 1547년, 엘리자베스 1세 1558년, 조지 1세 1714년, 조지 2세 1727년, 조지 3세 1760년이다. 찰스 2세의 치세 연차는 아버지가 죽은 1649년부터 세므로 치세 12년은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1660년에 걸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1689년에 올랐다. 이를테면 「조지 3세 치세 5년의 법 제45장」은 1765년 회기의 45번째 법이다.

2.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1파딩은 4분의 1펜스다. 저본이 £2:13:4 꼴로 적은 것은 2파운드 13실링 4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무게 단위 파운드와 헷갈릴 수 있는 자리는 「파운드(무게)」로 갈라 적었다.

3. 옮긴이 — 헌드레드웨이트는 무게 단위로 112파운드(무게), 약 50.8킬로그램이다. 스미스 자신이 뒤에서 이 값을 밝혀 둔다. 저본이 「스프루스」와 「모스코비아」라 적은 실은 프로이센 곧 발트해 연안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아마실을 가리키는 그때의 거래 용어다.

4. 옮긴이 — 통널은 통의 옆을 두르는 널이고 마구리널은 통의 양 끝을 막는 널이다. 저본은 이 자리를 leading 으로 적었으나 통 만드는 일에서 통널과 짝을 이루는 것은 heading 이므로 그렇게 옮겼다. 파이프와 호그즈헤드와 배럴은 저마다 크기가 다른 술통이다.

5. 옮긴이 — 드라콘은 기원전 7세기 아테네의 입법자로, 사소한 죄에도 죽음을 매긴 법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피로 쓴 법」이라는 말이 그에게서 나왔다.

6. 옮긴이 — 윌리엄 호킨스(1673~1746)는 잉글랜드 법률가로 형사법을 다룬 『왕관 소송 개요』를 썼다. 서전트는 법정 변호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직함이다.

7.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양에 대한 임자의 몫」으로 적었으나, 바로 앞에 이미 양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고 법령의 문면은 배에 대한 임자의 몫을 빼앗는 것이므로 그렇게 옮겼다.

8. 옮긴이 — 유형은 죄인을 식민지로 보내 정해진 햇수 동안 노역하게 한 형벌로, 18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아메리카로, 뒤에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냈다. 성직자 특전은 본디 성직자를 교회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던 관행에서 나와 글을 읽을 수 있는 초범에게 사형을 면해 주던 제도로 굳어졌다. 「성직자 특전 없이」는 그 감형의 길을 막는다는 뜻이다.

9. 옮긴이 — 백인구는 주를 나눈 잉글랜드의 옛 행정 구역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구역 전체가 함께 책임을 졌다. 강도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쓰였다.

10.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my part 로 적었으나 앞뒤로 보아 any part 이므로 「어느 몫이든」으로 옮겼다.

11. 옮긴이 — 존 스미스는 잉글랜드 성직자로 1747년에 『양모에 관한 연대기적 회고록』을 냈다. 애덤 스미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12. 옮긴이 — 토드는 양모를 다는 무게 단위로 28파운드(무게), 곧 4분의 1헌드레드웨이트다.

13.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를 「양모, 빗」으로 갈라 적었으나 이 장 첫머리에 나오는 양모를 빗는 빗과 같은 물건이다. 바로 다음 문장이 이 목록을 두고 말을 뺀 나머지는 모두 제조업의 재료이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조품이거나 거래의 도구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4. 옮긴이 — 항해법은 1651년과 1660년에 자리 잡은 법으로, 영국과 그 식민지로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영국 배나 그 물건이 난 나라의 배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식민지의 주요 산물은 영국으로만 보내게 했다.

15. 옮긴이 — 챌드런은 석탄을 되는 단위로, 뉴캐슬 되의 1챌드런은 런던 되의 그것보다 커서 약 2.6톤에 해당했다. 되는 곳마다 달랐으므로 스미스가 「뉴캐슬 되로」라고 밝힌 것이다.

9장 — 농업 체계, 곧 토지 생산물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으로 보는 여러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하여

9장 — 농업 체계, 곧 토지 생산물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으로 보는 여러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의 농업 체계는 내가 중상주의 체계 곧 상업 체계에 바쳐야 한다고 여겼던 것만큼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지 생산물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저 체계는 내가 아는 한 어느 나라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지금은 프랑스의 크게 배우고 재주 있는 몇몇 사람의 사변 속에만 있다. 세상 어느 구석에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끼치지 않을 체계의 잘못을 길게 따지는 일이 참으로 보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아주 기발한 체계의 큰 줄거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또렷이 밝혀 보려 한다.

루이 14세의 이름난 대신이었던 콜베르 씨[1]는 정직하고 몹시 부지런하며 자잘한 것까지 꿰뚫어 아는 사람이었고, 나라 회계를 살피는 데에 경험이 많고 눈이 날카로웠으며, 한마디로 나라 세입을 걷고 쓰는 일에 방법과 좋은 질서를 들여놓기에 모든 모로 알맞은 재주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 대신은 불행히도 중상주의 체계의 온갖 편견을 받아들였는데, 그 체계는 그 성질로 보나 알맹이로 보나 제한과 규제의

체계여서, 관청의 여러 부서를 다스리고 저마다를 제 몫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데 필요한 제동과 통제를 세우는 일에 익숙했던 일 많고 꾸준한 실무가의 마음에 들지 않기가 어려웠다. 그는 큰 나라의 산업과 상업을 관청의 부서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본보기에 따라 규제하려 들었고, 평등과 자유와 정의라는 너그러운 구상 위에서 사람마다 제 이익을 제 나름의 길로 좇게 내버려 두는 대신, 산업의 어떤 갈래에는 남다른 특권을 베풀고 다른 갈래에는 그만큼이나 남다른 제한을 지웠다. 그는 다른 유럽 대신들처럼 시골의 산업보다 도시의 산업을 더 북돋우려 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산업을 받쳐 주려고 시골의 산업을 짓누르고 가라앉히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도시 주민에게 식료품을 헐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하여 제조업과 외국 상업을 북돋우려고 그는 곡물 수출을 아주 금하였고, 그리하여 시골 주민에게서 그들 산업이 낸 생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을 팔 외국 시장을 죄다 빼앗았다. 이 금지는,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곡물을 옮기는 일에 프랑스의 옛 지방법이 지운 제한과, 거의 모든 지방에서 경작자에게 물리던 제멋대로이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세금과 한데 어울려, 그 나라의 농업을 그토록 걸찬 흙과 그토록 복된 기후에서 저절로 올랐을 자리보다 훨씬 아래로 눌러 두고 주눅 들게 하였다. 이렇게 주눅 들고 가라앉은 형편은 나라 안 어느 곳에서나 얼마쯤 느껴졌고, 그 까닭을 놓고 여러 가지 탐구가 시작되었다. 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콜베르 씨의 제도가 시골의 산업보다 도시의 산업을 앞세운 데에 있는 듯하였다.

회초리가 한쪽으로 너무 휘었으면 그것을 곧게 펴려고 반대쪽으로 그만큼 휘어야 한다고 속담은 말한다. 농업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체계를 내놓은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 속담의 격률을 받아들인 듯하니, 콜베르 씨의 구상에서 도시의 산업이 시골의

산업에 견주어 틀림없이 지나치게 높이 매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체계에서는 그것이 그만큼이나 틀림없이 낮게 매겨진 듯하다.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에 어떤 모로든 이바지한다고 여겨져 온 여러 부류의 사람을 그들은 세 계급으로 나눈다. 첫째는 토지 임자의 계급이다. 둘째는 경작자 곧 농부와 시골 일꾼의 계급으로, 그들은 이 계급에 생산적 계급이라는 남다른 이름을 붙여 기린다. 셋째는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계급으로, 그들은 이 계급에 메마른 계급 곧 비생산적 계급이라는 깎아내리는 이름을 붙여 낮추려 한다.

임자 계급은 토지의 개량에, 곧 그 위에 세우거나 건사하는 건물과 배수로와 울타리와 그 밖의 손질에 이따금 들이는 비용으로 해마다 나는 생산물에 이바지하는데, 그 덕분에 경작자는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길러 낼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지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지대는 임자가 제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 쓴 비용 곧 자본에 대하여 그에게 돌아가는 이자나 이윤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이 체계에서는 토지 비용(depenses foncieres)이라 부른다.

경작자 곧 농부는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 들이는, 이 체계에서 처음 비용과 해마다 드는 비용(depenses primitives, et depenses annuelles)이라 부르는 것으로 해마다 나는 생산물에 이바지한다. 처음 비용은 농기구와 가축이라는 자산과 씨앗, 그리고 땅을 차지한 첫해의 적어도 큰 몫 동안, 또는 땅에서 얼마간 회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농부의 식구와 하인과 가축을 먹여 살리는 데에 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해마다 드는 비용은 씨앗과 농기구의 닳음, 그리고 농부의 하인과 가축을, 또 그 식구 가운데 경작에 부리는 하인으로 볼 수 있는 몫까지 해마다 먹여 살리는 데에 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대를 치르고 그에게 남는 토지 생산물의 몫은, 첫째로 알맞은 기한 안에,

적어도 그가 땅을 차지한 기간 안에 그의 처음 비용 전부를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그에게 메워 주기에 넉넉해야 하고, 둘째로 해마다 드는 비용 전부를 역시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해마다 그에게 메워 주기에 넉넉해야 한다. 이 두 갈래 비용은 농부가 경작에 쓰는 두 자본이니, 알맞은 이윤과 함께 그것이 꼬박꼬박 그에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제 일을 다른 일과 나란한 자리에서 꾸려 갈 수 없고, 제 이익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농부가 제 일을 이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토지 생산물의 몫은 경작에 바쳐진 거룩한 기금으로 보아야 하니, 지주가 그것을 침범하면 그는 반드시 제 땅의 생산물을 줄이고, 몇 해 안에 농부가 이 쥐어짜 낸 지대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 땅에서 받았을 알맞은 지대마저 치르지 못하게 만든다. 지주에게 마땅히 돌아가는 지대는, 총생산물 곧 온 생산물을 길러 내려고 미리 들여야 하는 온갖 필요한 비용을 더할 나위 없이 온전히 치르고 남는 순생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경작자의 노동이 그 모든 필요한 비용을 온전히 치르고도 이런 순생산물을 남기는 까닭에, 이 체계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생산적 계급이라는 기리는 이름으로 남달리 갈라 불린다. 그들의 처음 비용과 해마다 드는 비용도 같은 까닭에서 이 체계에서는 생산적 비용이라 불리는데, 제 값어치를 메우고도 남아 이 순생산물을 해마다 다시 낳게 하는 까닭이다.

이른바 토지 비용, 곧 지주가 제 땅을 개량하는 데에 들이는 것도 이 체계에서는 생산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기려진다. 그 비용 전부가 자산의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그가 제 땅에서 받는 늘어난 지대로 그에게 온전히 되갚아질 때까지, 그 늘어난 지대는 교회에게나 국왕에게나 거룩하여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십일조에도 조세에도 걸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토지의 개량을 주눅

들게 하여 제 십일조가 뒷날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고, 국왕은 제 조세가 뒷날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는 셈이다. 그러므로 일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이 토지 비용이 제 값어치를 더할 나위 없이 온전히 다시 낳고도 남아 얼마 뒤에는 순생산물까지 다시 낳게 하므로, 이 체계에서는 그것을 생산적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지주의 토지 비용과 농부의 처음 비용과 해마다 드는 비용, 이 셋만이 이 체계에서 생산적이라 여겨지는 비용의 전부다. 그 밖의 온갖 비용과 그 밖의 온갖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가장 생산적이라 여겨지는 이들까지도 이 셈법에서는 죄다 메마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는 특히 그 근면이 사람들의 흔한 생각으로는 토지의 원생산물의 가치를 그토록 크게 늘리는 이들인데도, 이 체계에서는 죄다 메마르고 비생산적인 부류의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들의 노동은 그들을 부리는 자산을 그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울 뿐이라고 한다. 그 자산은 그들의 고용주가 그들에게 미리 내어 주는 재료와 연장과 임금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을 부리고 먹여 살리는 데에 바쳐진 기금이다. 그 이윤은 그들의 고용주를 먹여 살리는 데에 바쳐진 기금이다. 고용주는 그들을 부리는 데에 필요한 재료와 연장과 임금이라는 자산을 그들에게 미리 내어 주듯이 제 몸을 건사하는 데에 필요한 것도 스스로에게 미리 내어 주며, 이 건사하는 몫은 대개 그들의 일감 값으로 벌리라 내다보는 이윤에 맞추어 잡는다. 그 값이 그가 제 일꾼들에게 미리 내어 준 재료와 연장과 임금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미리 내어 준 건사 몫까지 그에게 되갚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가 거기에 들인 비용 전부를 그에게 되갚아 주지 못하는 것은 뻔하다. 그러므로 제조 자산의 이윤은 토지의 지대처럼 그것을 얻으려고 들여야 하는 비용 전부를 온전히 되갚고 남는 순생산물이 아니다. 농부의 자산은 제조업

고용주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이윤을 낳아 주고, 그 위에 제조업 고용주의 자산이 낳지 않는 지대까지 다른 사람에게 낳아 준다. 그러므로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를 부리고 먹여 살리는 데에 들인 비용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제 값어치의 존재를 이어 갈 뿐 새 가치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죄다 메마르고 비생산적인 비용이다. 이와 달리 농부와 시골 일꾼을 부리고 먹여 살리는 데에 들인 비용은 제 값어치의 존재를 이어 가고도 남아 새 가치, 곧 지주의 지대를 낳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산적 비용이다.

상업 자산도 제조 자산과 똑같이 메마르고 비생산적이다. 그것은 제 값어치의 존재를 이어 갈 뿐 새 가치를 조금도 낳지 않는다. 그 이윤은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그것을 부리는 동안, 또는 그 회수를 받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미리 내어 준 건사 몫을 되갚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그것을 부리는 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의 한 몫을 되갚는 것일 뿐이다.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노동은 토지의 원생산물이 한 해에 내는 총량의 가치에 결코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그것은 참으로 그 가운데 어떤 몫의 가치는 크게 늘린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다른 몫에 일으키는 소비가 그 몫에 보태는 가치와 꼭 같으므로, 총량의 가치는 어느 한때에도 그것으로 조금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고운 주름 소맷동 한 벌에 들어갈 레이스를 뜨는 사람은 더러 1펜스어치 아마의 가치를 30파운드 스털링까지 올려놓기도 한다[2].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그가 그리하여 원생산물 한 몫의 가치를 7,200배쯤 불리는 듯하지만, 실은 원생산물이 한 해에 내는 총량의 가치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그 레이스를 뜨는 데에 그는 아마 두 해의 노동을 들인다. 그것이 다 되었을 때 그가 받는 30파운드는 그 일에 매달린 두 해 동안 스스로에게 미리 내어 준 생계를 되갚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나 한 달이나 한 해의 노동으로 그가 아마에 보태는 가치는 그날이나 그달이나 그해 동안 제가

소비한 값어치를 메울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한때에도 토지의 원생산물이 한 해에 내는 총량의 가치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니, 그가 끊임없이 소비하는 그 생산물의 몫이 그가 끊임없이 낳는 가치와 늘 같은 까닭이다. 이 비싸면서도 하찮은 제조업에 매인 사람들 대부분이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일감 값이 예사로운 경우에 그들의 생계 값어치를 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러 줄 만하다. 농부와 시골 일꾼의 일은 그렇지 않다. 지주의 지대는 예사로운 경우에 일꾼과 그 고용주를 부리고 먹여 살리는 데에 들인 소비 전부, 비용 전부를 더할 나위 없이 온전히 메우고도 남아 끊임없이 낳아지는 가치다.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은 오직 절약으로만, 또는 이 체계의 말로 하면 결핍으로만, 곧 제 생계에 바쳐진 기금의 한 몫을 스스로에게서 떼어 냄으로써만 제가 속한 사회의 수입과 부를 늘릴 수 있다. 그들이 해마다 다시 낳는 것은 그 기금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마다 그 가운데 얼마를 아끼지 않는다면, 해마다 그 가운데 얼마를 누리는 일을 스스로에게서 떼어 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근면으로는 사회의 수입과 부가 조금도 늘어날 수 없다. 이와 달리 농부와 시골 일꾼은 제 생계에 바쳐진 기금 전부를 온전히 누리면서도 그와 동시에 제가 속한 사회의 수입과 부를 늘릴 수 있다. 제 생계에 바쳐진 것 말고도 그들의 근면은 해마다 순생산물을 남기고, 그것이 늘면 반드시 사회의 수입과 부가 는다. 그러므로 프랑스나 잉글랜드처럼 임자와 경작자가 큰 몫을 이루는 나라는 근면과 누림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나 함부르크처럼 주로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로 이루어진 나라는 오직 절약과 결핍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처지가 사뭇 다른 나라들은 이익도 사뭇 다르듯이 사람들의 흔한 됨됨이도 그러하다. 앞의 나라에서는 너그러움과 트인 마음과 좋은 사귐이 저절로 그 흔한

됨됨이의 한 몫을 이루고, 뒤의 나라에서는 좁은 마음과 인색함과, 온갖 사교의 즐거움과 누림을 꺼리는 제 잇속만 차리는 기질이 그러하다.

비생산적 계급, 곧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계급은 죄다 다른 두 계급, 곧 임자의 계급과 경작자의 계급의 비용으로 먹여 살려지고 부려진다. 이 두 계급이 그들에게 일감의 재료도 대어 주고 생계의 기금, 곧 그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이 소비하는 곡물과 가축도 대어 준다. 임자와 경작자가 마침내 비생산적 계급에 속한 모든 일꾼의 임금과 그 모든 고용주의 이윤을 치른다. 그 일꾼과 그 고용주는 실상 임자와 경작자의 하인이다. 그들은 집안 하인이 문 안에서 일하듯 문 밖에서 일하는 하인일 뿐이다. 그러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같은 주인의 비용으로 먹여 살려진다. 양쪽의 노동은 똑같이 비생산적이다. 그것은 토지의 원생산물을 죄다 합한 가치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그 합계의 가치를 늘리기는커녕 그 가운데서 치러야 하는 부담이요 비용이다.

그러나 비생산적 계급은 다른 두 계급에 쓸모가 있을 뿐 아니라 크게 쓸모가 있다.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근면 덕분에 임자와 경작자는 제게 필요한 외국 물건과 제 나라의 제조품을, 그 하나를 들여오거나 다른 하나를 제가 쓰려고 만들려 서툴고 어설프게 애쓸 때 들여야 했을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제 노동이 낸 생산물로 사들일 수 있다. 비생산적 계급 덕분에 경작자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서 마음을 흩어 놓았을 많은 걱정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마음을 한군데로 모은 덕분에 그들이 길러 낼 수 있게 되는 생산물의 더 나은 몫은, 비생산적 계급을 먹여 살리고 부리는 데에 임자나 그들 자신이 치르는 비용 전부를 치르고도 넉넉히 남는다.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근면은 그 성질로 보면 죄다 비생산적이면서도 이렇게 에둘러 토지의 생산물을 늘리는 데에 이바지한다. 그것은 생산적 노동이

제 본디 일자리인 토지 경작에만 매달릴 수 있게 놓아 줌으로써 그 생산하는 힘을 키우며, 쟁기와 가장 먼 일을 하는 사람의 노동 덕분에 쟁기는 흔히 더 쉽고 더 잘 나아간다.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근면을 어떤 모로든 억누르거나 주눅 들게 하는 것은 임자와 경작자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이 비생산적 계급이 누리는 자유가 클수록 그것을 이루는 온갖 거래에서 경쟁이 커질 것이고, 다른 두 계급은 외국 물건이든 제 나라의 제조품이든 더 헐하게 얻을 것이다.

비생산적 계급이 다른 두 계급을 억누르는 것도 그들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비생산적 계급을 먹여 살리고 부리는 것은 토지의 남는 생산물, 곧 먼저 경작자를 건사하고 다음으로 임자를 건사하고서 남는 것이다. 이 남는 몫이 클수록 그 계급이 먹고 부려지는 몫도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다. 더할 나위 없는 정의와 더할 나위 없는 자유와 더할 나위 없는 평등을 세우는 것이, 세 계급 모두에게 가장 높은 번영을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아주 단순한 비결이다.

네덜란드나 함부르크처럼 주로 이 비생산적 계급으로 이루어진 저 상업 국가의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도 꼭 같이 토지 임자와 경작자의 비용으로 죄다 먹여 살려지고 부려진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일감의 재료와 생계의 기금을 대어 주는 그 임자와 경작자가 대부분 몹시 불편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나라의 주민이요 다른 정부의 백성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상업 국가는 저 다른 나라의 주민에게 쓸모가 있을 뿐 아니라 크게 쓸모가 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빈자리를 얼마쯤 메워 주며, 저 나라 주민들이 제 나라 안에서 찾아야 마땅하나 제 정책의 어떤 흠 탓에 제 나라 안에서 찾지 못하는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를 대신해 준다.

이른바 토지 국가라 불러도 된다면, 그런 나라들이 그런 상업 국가의 거래나 그들이 대어 주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 그 근면을 주눅 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런 관세는 그런 상품을 값비싸게 만들어, 그것으로, 또는 마찬가지 말이지만 그 값으로 저 상품을 사들이는 제 토지의 남는 생산물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에나 쓰일 뿐이다. 그런 관세는 그 남는 생산물이 느는 것을, 따라서 제 토지의 개량과 경작을 주눅 들게 하는 데에나 쓰일 뿐이다. 이와 달리 그 남는 생산물의 가치를 올리고 그것이 늘도록 북돋우며 따라서 제 토지의 개량과 경작을 북돋우는 가장 잘 듣는 방편은, 그런 모든 상업 국가의 거래에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거래의 자유는 그들이 제 나라 안에서 아쉬워하던 온갖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때가 되면 그들에게 대어 주고, 거기서 느끼던 아주 중요한 그 빈자리를 가장 알맞고 가장 이롭게 메워 주는 데에도 가장 잘 듣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들 토지의 남는 생산물이 끊임없이 늘어나면 때가 되어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예사로운 이윤율로 쓰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이 생길 것이고, 그 남는 몫은 저절로 제 나라 안에서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를 부리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는 일감의 재료도 생계의 기금도 제 나라 안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그 둘을 더 먼 데서 가져와야 했던 그런 상업 국가의 자잘한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만큼 헐하게, 솜씨와 재간이 훨씬 못하더라도 곧바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솜씨와 재간이 모자라 얼마 동안은 그만큼 헐하게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나라 안에서 시장을 찾으므로 그토록 먼 데서만 그 시장으로 실어 올 수 있는 그런 상업 국가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일감만큼 헐하게 제 일감을 거기서 팔 수 있을

것이고, 솜씨와 재간이 나아짐에 따라 머지않아 그보다 더 헐하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업 국가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는 저 토지 국가의 시장에서 곧바로 맞수를 만날 것이고, 오래지 않아 값이 밀려 그 시장에서 아주 떠밀려나게 된다. 솜씨와 재간이 차츰 나아진 끝에 저 토지 국가의 제조품이 헐해지면 때가 되어 그 판로가 국내 시장을 넘어 여러 외국 시장에까지 미칠 것이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업 국가의 제조업자를 여럿 차츰 떠밀어 낼 것이다.

저 토지 국가의 원생산물과 제조품이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면 때가 되어 농업에도 제조업에도 예사로운 이윤율로는 쓰일 수 없는 더 큰 자본이 생길 것이다. 이 자본의 남는 몫은 저절로 외국 무역으로 돌아서서 제 나라의 원생산물과 제조품 가운데 국내 시장의 수요를 넘는 몫을 외국에 내보내는 데에 쓰일 것이다. 제 나라 생산물을 내보내는 일에서 토지 국가의 상인은, 그 수공업자와 제조업자가 상업 국가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하여 지녔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점, 곧 남들은 먼 데서 구해야 했던 그 짐과 그 물자와 식료품을 제 나라 안에서 찾는 이점을 상업 국가의 상인에 대하여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뱃길의 솜씨와 재간이 못하더라도 그들은 그 짐을 외국 시장에서 그런 상업 국가의 상인만큼 헐하게 팔 수 있을 것이고, 솜씨와 재간이 같다면 그보다 더 헐하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머지않아 외국 무역의 이 갈래에서 그런 상업 국가의 맞수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을 거기서 아주 떠밀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너그럽고 시원스러운 체계에 따르면, 토지 국가가 제 나라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길러 내는 가장 이로운 길은 다른 모든 나라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거래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 토지의 남는 생산물의 가치를 올리면 그것이 끊임없이 늘어 차츰 하나의 기금을 이루고, 그

기금이 때가 되면 제게 필요한 온갖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반드시 길러 낸다.

이와 달리 토지 국가가 높은 관세로든 금지로든 외국의 거래를 억누르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제 이익을 두 가지 길로 해친다. 첫째로 온갖 외국 물건과 온갖 제조품의 값을 올려, 그것으로, 또는 마찬가지 말이지만 그 값으로 저 외국 물건과 제조품을 사들이는 제 토지의 남는 생산물의 실질 가치를 반드시 떨어뜨린다. 둘째로 제 나라의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에게 국내 시장의 독점 비슷한 것을 주어 농업 이윤에 견주어 상업과 제조업의 이윤율을 올리고, 따라서 앞서 농업에 쓰이던 자본의 한 몫을 농업에서 빼내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면 농업으로 갔을 몫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두 가지 길로 농업을 주눅 들게 하니, 첫째는 그 생산물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그 이윤율을 낮추는 것이요, 둘째는 다른 온갖 일자리의 이윤율을 올리는 것이다. 농업은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덜 이롭게 되고 거래와 제조업은 더 이롭게 되니, 사람마다 제 이익에 이끌려 제 자본도 제 근면도 될 수 있는 대로 앞의 일에서 뒤의 일로 돌리게 된다.

이 억누르는 정책으로 토지 국가가 거래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쯤 일찍 제 나라의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길러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부터가 적잖이 미심쩍은 일이거니와, 그렇게 길러 낸다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설익은 채로, 그들을 받아들일 만큼 무르익기도 전에 길러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갈래의 근면을 너무 서둘러 길러 냄으로써 더 값진 다른 갈래의 근면을 짓누를 것이다. 저를 부리는 자산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알맞게 메울 뿐인 한 갈래의 근면을 너무 서둘러 길러 냄으로써, 그 자산을 그 이윤과 함께 메우고도 남아 순생산물, 곧 지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지대까지 내는 갈래의 근면을

짓누를 것이다. 죄다 메마르고 비생산적인 그 노동을 너무 서둘러 북돋움으로써 생산적 노동을 짓누를 것이다.

이 체계에 따라 토지가 해마다 내는 생산물의 총량이 앞서 말한 세 계급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 계급의 노동이 어떻게 제 소비의 가치를 메울 뿐 그 총량의 가치를 어떤 모로도 늘리지 못하는지를, 이 체계를 세운 아주 재주 있고 깊이 있는 지은이 케네씨[3]는 몇 가지 산술 도식을 들어 그려 보인다. 그 가운데 첫째 것을 그는 특히 뛰어난 것으로 여겨 경제표[4]라는 이름으로 남달리 갈라 부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자유의 상태, 따라서 가장 높은 번영의 상태,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순생산물을 남기고 계급마다 한 해 생산물 전체 가운데 제 몫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가 보는지를 그려 보인다. 그 뒤의 몇몇 도식은 제한과 규제의 여러 상태에서, 곧 임자의 계급이나 메마르고 비생산적인 계급이 경작자의 계급보다 더 우대를 받고 이쪽이나 저쪽이 이 생산적 계급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더러 많이 더러 적게 침범하는 상태에서 이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가 보는지를 그려 보인다. 이 체계에 따르면 그런 침범은 하나하나가,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자유가 세워 놓을 저 자연스러운 나눔을 어기는 일 하나하나가, 반드시 해마다 한 해 생산물의 가치와 총량을 더러 많이 더러 적게 깎아내리고 사회의 실질적인 부와 수입을 차츰 기울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그 기울어짐이 빠른가 더딘가는 이 침범의 정도에 따라, 곧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자유가 세워 놓을 저 자연스러운 나눔이 얼마나 어겨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뒤의 저 도식들은 이 체계에 따라 사물의 이 자연스러운 나눔이 어겨지는 여러 정도에 맞갖은 여러 정도의 기울어짐을 그려 보인다.

사변을 즐기는 어떤 의사들은 사람 몸의 건강이 오직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어떤 정확한 섭생법으로만 지켜질 수 있어서, 그것을 아무리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긴 정도에 걸맞은 얼마만큼의 병이나 탈이 반드시 생긴다고 여겼던 듯하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 주는 바로는, 사람 몸은 아주 여러 가지 섭생법 아래에서, 더러는 도무지 온전히 몸에 좋다고 하기 어렵다고들 하는 섭생법 아래에서도 적어도 겉보기로는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건강을 지키는 일이 잦다. 사람 몸의 건강한 상태는 아주 잘못된 섭생법의 나쁜 결과마저 여러 모로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보존의 원리를 제 안에 지닌 듯하다. 스스로 의사였고 사변을 몹시 즐기는 의사였던 케네 씨는 정치체를 두고도 같은 종류의 생각을 품어, 그것이 오직 어떤 정확한 섭생법, 곧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정의라는 바로 그 섭생법 아래에서만 잘되고 번영하리라 여겼던 듯하다. 그는 정치체에서도 사람마다 제 처지를 낫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얼마쯤 치우치고 얼마쯤 억누르는 정치경제의 나쁜 결과를 여러 모로 막고 바로잡을 수 있는 보존의 원리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듯하다. 그런 정치경제는 틀림없이 나라가 부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걸음을 얼마간 늦추기는 하나 그것을 아주 멈춰 세우지는 늘 못하며, 뒷걸음질 치게 하기는 더욱 못한다.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정의를 누리지 않고는 나라가 번영할 수 없다면, 이제껏 번영한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체에서도 자연의 슬기는 다행히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의가 낳는 여러 나쁜 결과를 고칠 길을 넉넉히 마련해 두었으니, 자연의 몸에서 사람의 게으름과 무절제가 낳는 결과를 고칠 길을 마련해 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체계의 가장 큰 잘못은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계급을 죄다 메마르고 비생산적이라고 그려 놓은 데에 있는 듯하다.

다음의 살핌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이 계급이 해마다 제 한 해 소비의 가치를 다시 낳고 적어도 저를 먹여 살리고 부리는 자산 곧 자본의 존재를 이어 간다는 것은 이 체계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만 보아도 메마르다거나 비생산적이라는 이름을 이 계급에 붙이는 것은 몹시 온당치 않아 보인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하게 했을 뿐이고 사람의 수를 늘리지 않고 전과 같이 이어 갔을 뿐이라 하여, 우리는 그 혼인을 메마르다거나 비생산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농부와 시골 일꾼은 참으로 저를 먹여 살리고 부리는 자산 말고도 해마다 순생산물, 곧 지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지대를 다시 낳는다. 아이 셋을 두는 혼인이 둘만 두는 혼인보다 틀림없이 더 생산적이듯이, 농부와 시골 일꾼의 노동은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노동보다 틀림없이 더 생산적이다. 그러나 한쪽 계급의 생산물이 더 낫다고 해서 다른 쪽이 메마르거나 비생산적이 되지는 않는다.

둘째, 그런 까닭에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집안 하인과 똑같이 보는 것은 아주 온당치 않은 듯하다. 집안 하인의 노동은 저를 먹여 살리고 부리는 기금의 존재를 이어 가지 않는다. 그들을 먹여 살리고 부리는 것은 죄다 그 주인의 비용으로 하는 일이고, 그들이 해내는 일은 그 비용을 되갚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일은 대개 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스러지는 시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들의 임금과 건사 비용의 값어치를 메울 수 있는 어떤 팔 만한 상품에 붙박이거나 깃들지 않는다. 이와 달리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노동은 저절로 그런 팔 만한 상품에 붙박이고 깃든다. 내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다룬 장에서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을 생산적 노동자에 넣고 집안 하인을 메마른 곧 비생산적인 쪽에 넣은 것은 이 까닭에서다.

셋째, 어떻게 가정하든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노동이 사회의 실질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 이를테면 이 체계가 가정하는 듯이 이 계급의 하루와 한 달과 한 해의 소비 가치가 그 하루와 한 달과 한 해의 생산 가치와 꼭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노동이 실질 수입에, 곧 사회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의 실질 가치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어떤 수공업자가 추수가 끝난 뒤 처음 여섯 달 동안 10파운드어치 일감을 해냈다면, 그가 같은 동안 10파운드어치 곡물과 그 밖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는 사회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에 참으로 10파운드의 가치를 보탠 것이다. 그가 10파운드어치 곡물과 그 밖의 생활 필수품이라는 반년 치 수입을 소비하는 동안, 그는 저에게든 다른 누구에게든 그만한 반년 치 수입을 사들일 수 있는 그만한 가치의 일감을 낳았다. 그러므로 이 여섯 달 동안 소비되고 생산된 것의 가치는 10파운드가 아니라 20파운드와 같다. 참으로 이 가치 가운데 어느 한때에 있었던 것이 10파운드어치를 넘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수공업자가 소비한 10파운드어치 곡물과 그 밖의 생활 필수품을 군인이나 집안 하인이 소비했더라면, 여섯 달이 끝날 때 있었을 한 해 생산물의 그 몫의 가치는 수공업자의 노동 덕분에 실제로 있게 된 것보다 10파운드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공업자가 낳는 것의 가치가 어느 한때에도 그가 소비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때에나 시장에 실제로 있는 물건의 가치는 그가 낳는 것 덕분에 저절로 그러했을 것보다 크다.

이 체계를 두둔하는 이들이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소비가 그들이 낳는 것의 가치와 같다고 내세울 때, 그들이 뜻하는 바는 아마 그들의 수입, 곧 그들의 소비에 바쳐진 기금이 그것과 같다는

것뿐이리라. 그러나 그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여 이 계급의 수입이 그들이 낳은 것의 가치와 같다고만 내세웠더라면, 이 수입에서 저절로 아껴질 것이 반드시 사회의 실질적인 부를 얼마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독자에게 쉬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논증 비슷한 것이라도 꾸며 내려면 그들은 실제로 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논증은 그것이 전제하는 듯한 대로 사정이 실제로 그러하다고 치더라도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넷째, 농부와 시골 일꾼도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과 마찬가지로 절약하지 않고서는 실질 수입, 곧 제가 속한 사회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을 늘릴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은 오직 두 길로만 늘 수 있으니, 첫째는 그 안에서 실제로 건사되고 있는 쓸모 있는 노동이 생산하는 힘이 얼마쯤 나아지는 것이요, 둘째는 그 노동의 양이 얼마쯤 느는 것이다.

쓸모 있는 노동이 생산하는 힘이 나아지는 것은 첫째로 일꾼의 재간이 나아지는 데에, 둘째로 그가 부리는 기계가 나아지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노동은 농부와 시골 일꾼의 노동보다 더 잘게 나눌 수 있고 일꾼마다의 노동을 더 단순한 손놀림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두 갈래의 나아짐도 훨씬 더 큰 정도로 이룰 수 있다{1편 1장을 보라.} 그러므로 이 점에서 경작자의 계급은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계급에 대하여 어떤 이점도 지닐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실제로 부려지는 쓸모 있는 노동의 양이 느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부리는 자본이 느는 데에 달려 있고, 그 자본이 느는 것은 다시, 그 자본을 꾸리고 부리는 일을 맡은 바로 그 사람들의 수입에서든 그들에게 그것을 빌려 주는 다른 사람들의 수입에서든, 거기서 아낀 몫의 크기와 꼭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체계가 가정하는 듯이 상인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가 임자와 경작자보다 절약하고 아끼는 데에

저절로 더 기울어 있다면, 그만큼 그들은 제가 속한 사회 안에서 부려지는 쓸모 있는 노동의 양을 늘리고 따라서 그 실질 수입, 곧 그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을 늘릴 가망이 더 큰 셈이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이 체계가 가정하는 듯이 어느 나라에서나 주민의 수입이 죄다 그 근면으로 얻을 수 있는 생계의 양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바로 그 가정 위에서도 거래와 제조업이 있는 나라의 수입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거래도 제조업도 없는 나라의 수입보다 늘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거래와 제조업 덕분에 어느 나라에는 제 토지가 지금 갈고 가꾸어진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생계가 해마다 들어올 수 있다. 도시 주민은 제 땅을 가진 것이 없는 일이 잦으면서도 제 근면으로 남의 땅에서 나는 원생산물을 저에게 그만큼 끌어들여, 일감의 재료뿐 아니라 생계의 기금까지 얻는다. 도시가 이웃한 시골에 대하여 늘 그러한 것처럼, 독립한 한 나라도 다른 독립한 나라들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잦다. 네덜란드가 제 생계의 큰 몫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는 것이 그러하니, 산 가축은 홀슈타인과 윌란에서, 곡물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끌어온다. 적은 양의 제조품이 많은 양의 원생산물을 사들인다. 그러므로 거래와 제조업이 있는 나라는 저절로 제 제조품의 적은 몫으로 다른 나라 원생산물의 큰 몫을 사들이고, 이와 달리 거래도 제조업도 없는 나라는 대개 제 원생산물의 큰 몫을 치르고 다른 나라 제조품의 아주 적은 몫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 한쪽은 아주 적은 사람만 먹이고 편하게 해 줄 것을 내보내고 많은 사람의 생계와 편의를 들여온다. 다른 쪽은 많은 사람의 편의와 생계를 내보내고 아주 적은 사람의 그것만 들여온다. 앞의 나라 주민은 제 토지가 지금 갈고 가꾸어진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것보다 늘 훨씬 많은 양의 생계를 누릴 수밖에 없다. 뒤의 나라 주민은 늘 훨씬 적은 양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체계는 그 온갖 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제까지 나온 것 가운데 아마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며, 그런 까닭에 그 아주 중요한 학문의 원리를 눈여겨 살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아려 볼 만하다. 토지에 쓰이는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그려 놓은 점에서 그것이 가르치는 생각은 아마 지나치게 좁고 갇혀 있으나, 나라의 부가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재물이 아니라 사회의 노동이 해마다 다시 낳는 쓸 수 있는 물건에 있다고 그려 놓은 점에서, 그리고 온전한 자유야말로 이 해마다의 다시 낳음을 될 수 있는 가장 크게 만드는 유일하게 잘 듣는 방편이라고 그려 놓은 점에서, 그 가르침은 너그럽고 시원스러운 만큼이나 모든 모로 옳아 보인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몹시 많으니, 사람들이 역설을 좋아하고 예사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것을 알아듣는 듯 보이기를 좋아하는 터라, 제조업 노동이 비생산적이라고 내세우는 이 체계의 역설이 그 찬미자의 수를 늘리는 데에 아마 적잖이 이바지했을 것이다. 그들은 몇 해 전부터 상당한 학파를 이루어 프랑스 문필 공화국에서 에코노미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5]. 그들의 글은 전에 제대로 살펴진 적이 없던 여러 주제를 널리 논의에 올렸을 뿐 아니라 나라의 행정을 농업에 이롭도록 얼마쯤 움직였으므로, 제 나라에 틀림없이 얼마간 이바지하였다. 프랑스의 농업이 전에 시달리던 억압 가운데 몇 가지에서 풀려난 것도 그들이 내세운 바의 결과다. 토지를 뒷날 사들이거나 물려받을 사람 누구에게나 맞설 수 있는 임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한이 9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났다. 나라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곡물을 옮기는 일에 걸려 있던 옛 지방의 제한이 아주 걷혔고, 그것을 모든 외국에 내보낼 자유가 예사로운 경우에는 나라의 보통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 학파는 몹시 많은 그들의 글에서, 정치경제학이라 제대로 불리는 것 곧 나라의 부의 성질과 원인만이 아니라 시민 정부 체계의 온갖 다른 갈래까지

다루면서, 하나같이 케네 씨의 가르침을 눈에 띄는 어긋남 없이 고스란히 따른다[6]. 그런 까닭에 그들의 글은 대부분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르침을 가장 또렷하고 가장 잘 이어 놓은 설명은 한때 마르티니크 지사였던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씨[7]가 쓴 『정치 사회의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질서』라는 작은 책에 있다. 스스로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던 스승을 향한 이 학파 전체의 우러름은, 옛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체계를 세운 이들에게 품었던 우러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몹시 부지런하고 훌륭한 지은이인 미라보 후작[8]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시작된 뒤로 정치 사회를 든든하게 만든 큰 발명이 셋 있었으니, 정치 사회를 넉넉하게 하고 꾸며 준 다른 많은 발명은 제쳐 놓고 하는 말이다. 첫째는 글자의 발명이니, 오직 이것만이 사람의 본성에 제 법과 제 계약과 제 연대기와 제 발견을 고치지 않고 물려줄 힘을 준다. 둘째는 돈의 발명이니, 이것이 문명한 사회들 사이의 온갖 관계를 하나로 묶는다. 셋째는 경제표이니, 앞의 두 가지가 낳은 열매로서 그 목적을 온전하게 하여 둘 다를 마무리 짓는다. 우리 시대의 큰 발견이나 그 덕은 우리 후손이 거둘 것이다.」

근대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경제학이 농업 곧 시골의 산업보다 제조업과 외국 무역 곧 도시의 산업에 더 이로웠던 것과 달리, 다른 나라들의 정치경제학은 다른 길을 따라 제조업과 외국 무역보다 농업에 더 이로웠다.

중국의 정책은 다른 온갖 일자리보다 농업을 북돋운다. 중국에서 일꾼의 처지는 유럽 대부분에서 수공업자의 처지가 일꾼의 처지보다 나은 만큼이나 수공업자의 처지보다 낫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람마다 크게 바라는 바는 소유로든 임차로든 자그마한 땅을 손에 넣는 것이며, 그곳의 임차는 아주 너그러운 조건으로 주어지고 빌린 이에게 넉넉히 보장된다고 한다. 중국 사람은 외국 무역을 거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베이징의 고관들이 러시아 사절 드 랑주 씨에게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쓰던 말투가 「너희의 그 거지 같은 장사!」였다{드 랑주 씨의 일지를 보라. 『벨의 여행기』 제2권 258쪽, 276쪽, 293쪽에 있다.}[9]. 일본을 빼면 중국 사람은 제 손으로 제 나라 배를 부려 외국 무역을 하는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외국 배를 들이는 항구도 제 나라 안에 한두 곳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외국 무역은, 제 나라 배로든 외국 배로든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저절로 뻗어 나갔을 테두리보다 모든 모로 훨씬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제조품은 부피가 작으면서도 큰 가치를 지니는 일이 잦아 그런 까닭에 원생산물의 대부분보다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비용이 적게 들므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외국 무역을 떠받치는 으뜸가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보다 땅이 좁고 국내 상업에 처지가 덜 좋은 나라에서는 제조품이 대개 외국 무역의 받침을 필요로 한다. 널찍한 외국 시장이 없으면 제조품은, 땅이 그리 넓지 않아 좁은 국내 시장밖에 내놓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또 한 지방과 다른 지방 사이의 오감이 너무 어려워 어느 한 고장의 물건이 그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국내 시장 전체를 누리기가 아예 불가능한 나라에서도 제대로 번성할 수 없다. 제조업의 완성은 죄다 분업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떤 제조업에 분업을 어디까지 들여놓을 수 있는가는 앞서 밝힌 대로 시장의 넓이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다. 그러나 중국 제국의 큰 넓이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과 여러 지방의 기후와 따라서 산물의 다름, 그리고 그 대부분 사이의 물길 운송으로 오가기 쉬운 형편은 그 나라의 국내 시장을 아주 넓게 만들어,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제조업을 떠받치고 아주 상당한 분업을 받아들이기에 넉넉하다. 중국의 국내 시장은 그 넓이로 보아 아마 유럽의 온갖 나라를 다 합한 시장에 그리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큰 국내 시장에 다른 온 세상의 외국 시장을 더해 줄 더

널찍한 외국 무역이 있었다면, 더욱이 그 무역의 상당한 몫을 중국 배로 하였다면, 중국의 제조업을 아주 크게 늘리고 그 제조업이 생산하는 힘을 아주 크게 나아지게 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더 널찍하게 배를 부리게 되면 중국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쓰는 온갖 기계를 스스로 쓰고 만드는 재주를, 또 세상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그 밖의 기예와 근면의 나아짐을 저절로 배웠을 것이다. 지금의 구상대로라면 그들에게는 일본 사람 말고는 어느 다른 나라의 본보기로 저를 나아지게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옛 이집트의 정책과 힌두스탄의 젠투 정부의 정책도 다른 온갖 일자리보다 농업을 북돋운 듯하다[10].

옛 이집트에서도 힌두스탄에서도 온 백성이 여러 카스트 곧 부족으로 나뉘어, 저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며 어떤 한 일자리나 한 갈래의 일자리에 매여 있었다. 사제의 아들은 반드시 사제요, 군인의 아들은 군인이요, 일꾼의 아들은 일꾼이요, 베 짜는 이의 아들은 베 짜는 이요, 바느질하는 이의 아들은 바느질하는 이가 되는 따위다. 두 나라에서 사제의 카스트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인의 카스트가 그다음이었으며, 두 나라에서 농부와 일꾼의 카스트는 상인과 제조업자의 카스트보다 높았다.

두 나라의 정부는 농업의 이익에 유달리 마음을 썼다. 나일강의 물을 알맞게 나누려고 옛 이집트의 주권자들이 세운 공사는 옛적부터 이름났고, 그 가운데 몇몇의 허물어진 자취는 지금도 나그네의 감탄을 자아낸다. 갠지스강을 비롯한 여러 강의 물을 알맞게 나누려고 힌두스탄의 옛 주권자들이 세운 같은 종류의 공사는 덜 알려졌으나 그에 못지않게 컸던 듯하다. 그런 까닭에 두 나라는 더러 궁핍을 겪기는 했으나 땅이 걸차기로 이름났다. 두 나라 모두 사람이 몹시

많았으면서도 웬만큼 넉넉한 해에는 이웃에 곡식을 많이 내보낼 수 있었다.

옛 이집트 사람은 바다를 미신처럼 꺼렸고, 젠투교는 그 따르는 이들이 물 위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따라서 먹을 것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그들이 먼 바닷길을 가는 것을 죄다 금한다. 이집트 사람도 인도인도 제 남는 생산물을 내보내는 일을 거의 죄다 다른 나라의 뱃길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기댐은 시장을 좁혔을 터이므로 이 남는 생산물이 느는 것을 주눅 들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원생산물이 느는 것보다 제조품이 느는 것을 더 주눅 들게 하였을 것이다. 제조품은 토지의 원생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 훨씬 널찍한 시장을 필요로 한다. 구두장이 한 사람은 한 해에 신을 300켤레 넘게 지을 것이나, 제 식구는 여섯 켤레도 닳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제 식구 같은 집 50가구를 단골로 두지 않으면 그는 제 노동이 낸 생산물을 죄다 처분할 수 없다. 큰 나라에서 수공업자는 가장 수가 많은 갈래라도 그 나라에 있는 온 가구 수의 50에 하나, 또는 100에 하나를 넘는 일이 드물다. 그런데 프랑스와 잉글랜드 같은 큰 나라에서 농업에 매인 사람의 수를 어떤 지은이는 절반으로, 어떤 이는 3분의 1로 셈하였고, 내가 아는 한 어느 지은이도 나라 온 주민의 5분의 1보다 적게 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와 잉글랜드 두 나라 농업의 생산물은 그 훨씬 큰 몫이 나라 안에서 소비되므로, 이 셈에 따르면 농업에 매인 사람은 저마다 제 노동이 낸 생산물을 죄다 처분하려면 제 식구 같은 집 하나나 둘, 많아야 넷의 단골을 조금 넘는 것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업은 좁은 시장이라는 주눅 아래에서도 제조업보다 훨씬 잘 제 몸을 지탱할 수 있다. 참으로 옛 이집트에서도 힌두스탄에서도 외국 시장이 좁았던 것은 여러 내륙 뱃길의 편리함으로 얼마쯤 메워졌으니, 그 뱃길이 두 나라 여러 고장의 온갖 생산물에 국내 시장 전체를 가장

이롭게 열어 주었다. 힌두스탄은 땅이 넓기도 하여 그 나라의 국내 시장이 몹시 커서 아주 여러 가지 제조업을 떠받치기에 넉넉하였다. 그러나 옛 이집트는 땅이 좁아 잉글랜드만 한 적도 없었으므로, 그 나라의 국내 시장은 어느 때에나 아주 여러 가지 제조업을 떠받치기에 너무 좁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힌두스탄의 지방 가운데 흔히 쌀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벵골은 그 곡식보다 아주 여러 가지 제조품을 내보내는 것으로 늘 더 이름났다. 이와 달리 옛 이집트는 고운 아마포를 비롯한 얼마간의 제조품과 그 밖의 물건을 내보내기는 했으나 곡식을 많이 내보내는 것으로 늘 가장 두드러졌다. 그곳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곳간이었다.

중국과 옛 이집트와, 힌두스탄이 때에 따라 나뉘어 있던 여러 왕국의 주권자들은 제 세입의 전부 또는 훨씬 큰 몫을 늘 어떤 종류의 토지세나 토지 지대에서 끌어냈다. 이 토지세 곧 토지 지대는 유럽의 십일조처럼 토지 생산물의 어떤 정해진 몫,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현물로 바치거나 어떤 정해진 평가에 따라 돈으로 치렀으므로 생산물이 오르내리는 대로 해마다 달라졌다. 그러므로 저 나라의 주권자들이 농업의 이익에 유달리 마음을 쓴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니, 농업이 번성하느냐 기우느냐에 제 세입이 해마다 늘고 주는 것이 곧바로 달려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스의 옛 공화국들과 로마의 정책은 제조업이나 외국 무역보다 농업을 기리기는 했으나, 앞의 것을 곧바로 또는 일부러 북돋우었다기보다 뒤의 일자리를 주눅 들게 한 쪽에 가까운 듯하다. 그리스의 옛 나라 여럿에서는 외국 무역이 아주 금지되었고, 다른 여럿에서는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일자리가 사람 몸의 힘과 날램을 해쳐 그들의 군사 훈련과 체조가 몸에 길러 주려던 버릇을 익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전쟁의 고단함을 견디고 그 위험을 맞서는 데에

얼마쯤 마땅치 않게 만든다고 여겨졌다. 그런 일자리는 노예에게나 알맞다고 여겨져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되었다. 그런 금지가 없었던 나라에서도, 이를테면 로마와 아테네에서도, 백성의 큰 무리는 이제 도시 주민 가운데 낮은 축이 흔히 하는 온갖 거래에서 사실상 밀려나 있었다. 그런 거래는 아테네에서나 로마에서나 죄다 부자의 노예가 차지하여 제 주인의 이익을 위해 하였고, 그 주인의 부와 힘과 비호 탓에 가난한 자유인은 제 일감이 부자의 노예의 일감과 겨루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팔 만한 시장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노예는 좀처럼 궁리를 내지 않으며, 기계에서든 일을 벌이고 나누는 짜임새에서든 노동을 쉽고 짧게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나아짐은 죄다 자유인이 찾아낸 것이다. 노예가 이런 종류의 나아짐을 내놓으면 그 주인은 그 말을 게으름에서 나온 소리, 주인의 비용으로 제 노동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나온 소리로 여기기가 쉽다. 그 딱한 노예는 상 대신에 아마 모진 욕을, 더러는 얼마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가 하는 제조업에서는 같은 양의 일을 해내는 데에 자유인이 하는 제조업에서보다 대개 더 많은 노동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앞의 것이 낸 일감은 대개 뒤의 것이 낸 일감보다 값비쌌을 것이다[11]. 몽테스키외 씨가 말한 바로는 헝가리 광산은 이웃한 튀르크 광산보다 더 넉넉하지 않은데도 늘 비용이 덜 들게, 따라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며 파여 왔다'[12]. 튀르크 광산은 노예가 파며, 그 노예의 팔이 튀르크인이 여태 부릴 생각을 해 본 유일한 기계다. 헝가리 광산은 자유인이 파는데, 그들은 기계를 많이 써서 제 노동을 쉽고 짧게 만든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시대에 제조품 값이 어떠했는지 알려진 바가 몹시 적으나, 그 가운데 고운 것은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듯하다. 비단은 제 무게만큼의 금값에 팔렸다. 참으로 그때에는 비단이 유럽의 제조품이 아니었고 죄다 동인도에서 가져왔으므로, 실어 오는 거리가 그 값이

비쌌던 까닭을 얼마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귀부인이 아주 고운 아마포 한 감에 더러 치렀다는 값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났던 듯한데, 아마포는 늘 유럽의 제조품이거나 멀어야 이집트의 제조품이었으므로 이 높은 값은 오직 거기에 들였을 노동의 큰 비용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이 노동의 비용은 다시 거기에 쓰이는 기계의 어설픔 말고는 다른 데서 나올 수 없었다. 고운 모직물 값도 그만큼 엄청나지는 않으나 지금의 값보다는 훨씬 위였던 듯하다. 플리니우스가 전하는 바로는{플리니우스 제9권 39장.} 어떤 천은 남다른 방법을 써서 물을 들여 파운드(무게)마다 100데나리우스, 곧 3파운드 6실링 8펜스가 들었다[13]. 다른 방법을 쓴 것은 파운드(무게)마다 1,000데나리우스, 곧 33파운드 6실링 8펜스가 들었다. 로마 파운드는 우리 아보아르뒤푸아 온스로 열두 온스밖에 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이 높은 값은 주로 물감 탓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천 자체가 오늘날 만드는 어떤 천보다 훨씬 값비싸지 않았다면 그토록 비싼 물감을 거기에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딸린 것의 가치와 본디 것의 가치 사이에 어울림이 너무 어긋났을 터이기 때문이다. 같은 지은이가 말하는{플리니우스 제8권 48장.} 트리클리나리아, 곧 식탁에서 자리에 기대어 누울 때 몸을 받치는 데에 쓰던 모직 베개나 방석 같은 것의 값은 도무지 믿기지 않으니, 그 가운데 더러는 30,000파운드가 넘고 더러는 300,000파운드가 넘었다고 한다. 이 높은 값은 물감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아버스넛 박사가 살핀 바로는 멋을 아는 남녀의 옷차림에 옛적이 요즘보다 가짓수가 훨씬 적었던 듯하고[14], 옛 조각상의 옷차림에 보이는 가짓수가 몹시 적다는 것이 그 살핌을 뒷받침한다. 그는 이로 미루어 그들의 옷차림이 대체로 우리 것보다 헐했으리라 짐작하나, 그런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 듯하다. 멋진 옷차림에 드는 비용이 몹시 클 때에는 가짓수가 몹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조하는 기예와

근면의 생산하는 힘이 나아져 옷 한 벌에 드는 비용이 아주 알맞게 되면 가짓수는 저절로 몹시 많아질 것이다. 부자는 어느 한 벌의 비용으로 제 몸을 남과 가르지 못하게 되면 저절로 제 옷의 수와 가짓수로 그리하려 애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상업의 갈래는 도시 주민과 시골 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앞서 밝혔다. 도시 주민은 제 일감의 재료이자 제 생계의 기금이 되는 원생산물을 시골에서 끌어오고, 그 원생산물의 값으로 그 가운데 얼마를 제조하여 곧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시골로 되돌려 보낸다. 이 두 무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마침내 얼마만큼의 원생산물을 얼마만큼의 제조품과 맞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뒤의 것이 값비쌀수록 앞의 것은 헐해지니, 어느 나라에서든 제조품의 값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나 토지의 원생산물 값을 낮추고 그리하여 농업을 주눅 들게 한다. 주어진 얼마만큼의 원생산물이, 또는 마찬가지 말이지만 주어진 얼마만큼의 원생산물의 값이 사들일 수 있는 제조품의 양이 적을수록 그 주어진 얼마만큼의 원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적어지고, 지주가 개량하여 그 양을 늘리거나 농부가 땅을 갈고 가꾸어 그리할 마음을 먹을 거리도 적어진다. 그 밖에도 어느 나라에서든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무엇이나 토지의 원생산물에 가장 중요한 시장인 국내 시장을 줄이고 그리하여 농업을 더욱더 주눅 들게 한다.

그러므로 다른 온갖 일자리보다 농업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북돋우려고 제조업과 외국 무역에 제한을 지우는 저 체계들은 스스로 내세우는 바로 그 목적에 어긋나게 움직이며, 스스로 북돋우려는 바로 그 갈래의 근면을 에둘러 주눅 들게 한다. 그만큼 그것들은 아마 중상주의 체계보다도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상주의 체계는 농업보다 제조업과 외국 무역을 더 북돋움으로써 사회의 자본 가운데 얼마를 더

이로운 갈래의 근면을 받쳐 주는 데에서 덜 이로운 갈래를 받쳐 주는 데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참으로, 그리고 끝에 가서는 스스로 북돋우려는 그 갈래의 근면을 북돋운다. 이와 달리 저 농업 체계는 참으로, 그리고 끝에 가서는 스스로 아끼는 그 갈래의 근면을 주눅 들게 한다.

그러므로 남다른 북돋움으로 어떤 한 갈래의 근면에 사회의 자본 가운데 저절로 그리로 갔을 것보다 더 큰 몫을 끌어들이려 하거나, 남다른 제한으로 어떤 한 갈래의 근면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쓰였을 자본의 얼마를 억지로 빼내려 하는 온갖 체계는, 실상 제가 북돋우려는 그 큰 목적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것은 사회가 참된 부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빠르게 하기는커녕 더디게 하고, 그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의 실질 가치를 늘리기는커녕 줄인다.

그러므로 우대의 체계든 제한의 체계든 이렇게 죄다 걷어 내고 나면, 명백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 사람은 누구나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제 이익을 제 나름의 길로 좇고 제 근면과 제 자본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의 그것과 겨루게 하도록 온전히 자유롭게 놓인다. 주권자는 한 가지 의무에서 온전히 풀려나니, 그것을 해내려 들면 그는 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어떤 사람의 슬기나 앎으로도 결코 넉넉할 수 없는 의무, 곧 사사로운 사람들의 근면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알맞은 일자리로 이끄는 의무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따르면 주권자가 마음 쓸 의무는 세 가지뿐이니, 참으로 크게 중요한 세 가지이면서도 예사 사람의 헤아림으로도 뚜렷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사회를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과 침입에서 지키는 의무요, 둘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모든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의무, 곧 정확한 사법

행정을 세우는 의무요, 셋째는 어떤 공공 사업과 어떤 공공 기관을 세우고 지키는 의무인데, 그것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적은 수의 개인이 세우고 지키는 일이 결코 그들의 이익이 될 수 없으니 그 이윤이 어느 한 개인이나 적은 수의 개인에게는 그 비용을 결코 메워 줄 수 없는 까닭이며, 큰 사회에는 그 비용을 메우고도 훨씬 남을 때가 자주 있다.

주권자의 이 여러 의무를 제대로 해내려면 반드시 얼마간의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다시 그것을 받쳐 줄 얼마간의 세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음 편에서 나는 첫째로 주권자 곧 나라의 필요한 비용은 무엇이며 그 비용 가운데 어느 것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내어 치러야 하고 어느 것을 어떤 한 몫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구성원만 치러야 하는지, 둘째로 사회 전체에 걸린 비용을 치르는 데에 사회 전체가 이바지하게 하는 여러 길은 무엇이며 그 길마다 으뜸가는 이로움과 불편은 무엇인지, 셋째로 거의 모든 근대 정부가 이 세입의 얼마를 저당 잡히거나 빚을 지게 만든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그 빚이 사회의 참된 부, 곧 그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밝혀 보려 한다. 그러므로 다음 편은 저절로 세 장으로 나뉠 것이다.

---

1. 옮긴이 — 장바티스트 콜베르(1619~1683)는 루이 14세(재위 1643~1715) 아래에서 재무총감을 지냈다.

2. 옮긴이 — 스털링은 영국 화폐를 말한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3. 옮긴이 — 프랑수아 케네(1694~1774). 이 체계를 세운 프랑스 사람이다.

4. 옮긴이 — 경제표는 케네가 1758년에 낸 도표이며 원어는 Tableau economique다.

5. 옮긴이 — 에코노미스트는 이 학파가 당대에 불리던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중농학파라 부른다.

6. 옮긴이 — 저본에는 이 자리가 Qttesnai로 찍혀 있으나, 앞서 나온 Quesnai 곧 케네다.

7. 옮긴이 — 피에르폴 르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1719~1801).

8. 옮긴이 — 빅토르 드 리케티, 미라보 후작(1715~1789).

9. 옮긴이 — 로렌츠 랑게(1690?~1752)는 러시아가 여러 차례 베이징에 보낸 사절이며, 그 일지는 존 벨(1691~1780)의 여행기에 실려 있다.

10. 옮긴이 — 힌두스탄은 인도 북부를 가리키던 이름이고, 젠투는 18세기 영어에서 인도의 무슬림과 갈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다.

11. 옮긴이 — 저본에는 farmer로 찍혀 있으나 앞뒤 논증으로 보아 former, 곧 노예가 하는 제조업이 낸 일감을 가리킨다.

12. 옮긴이 — 샤를 드 몽테스키외(1689~1755).

13. 옮긴이 — 대플리니우스(23~79)의 『박물지』를 말한다. 데나리우스는 로마 은화이고, 로마 파운드는 12온스로 오늘날 영국의 아보아르뒤푸아 파운드(16온스)보다 가볍다.

14. 옮긴이 — 존 아버스넛(1667~1735)은 옛 화폐와 도량형을 다룬 글을 냈다.

9장 — 농업 체계, 곧 토지 생산물을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으로 보는 여러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하여 (이어서)

4편 부록

아래 두 회계는 4편 5장에서 흰 청어잡이에 주는 톤수 장려금을 두고 말한 것을 밝히고 뒷받침하려고 덧붙인다. 독자는 두 회계가 다 정확하다고 믿어도 좋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11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꾸려 내보낸 청어잡이 배의 회계로, 싣고 나간 빈 배럴의 수와 잡아들인 청어 배럴의 수를 적고, 아울러 바다절임[1] 한 배럴마다와 가득 채워 담은 한 배럴마다에 평균으로 돌아간 장려금을 적은 것이다.

연도	청어잡이 배 척수	싣고 나간 빈 배럴	잡은 청어 배럴 수	청어잡이 배에 준 장려금 £.	s.	d.
1771	29	5,948	2,832	2,885	0	0
1772	168	41,316	22,237	11,055	7	6
1773	190	42,333	42,055	12,510	8	6
1774	240	59,303	56,365	26,932	2	6
1775	275	69,144	52,879	19,315	15	0
1776	294	76,329	51,863	21,290	7	6
1777	240	62,679	43,313	17,592	2	6
1778	220	56,390	40,958	16,316	2	6
1779	206	55,194	29,367	15,287	0	0
1780	181	48,315	19,885	13,445	12	6

1781	135	33,992	16,593	9,613 15 6	
합계	2,186	550,943	378,347	£165,463 14 0	

바다절임 378,347 바다절임 한 배럴마다 평균으로 돌아간

장려금 0파운드 8실링 2¼펜스[2]

그러나 바다절임 한 배럴은

가득 채워 담은 한 배럴의 3분의 2로만

쳐지므로, 3분의 1을 덜어

내야 하고, 그리하면

3분의 1을 덜어 냄 126,115 장려금은 0파운드 12실링 3¾펜스가 된다

가득 채워

담은 배럴 252,231

그리고 청어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그 밖에 또

0파운드 2실링 8펜스의 포상금이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한 배럴마다 돈으로 치러 주는

장려금은 0파운드 14실링 11¾펜스다

그러나 여기에다, 한 배럴을 절이는 데 썼다 하여 흔히

공제를 받아 온 소금의 세를 더하면, 그 소금은

평균으로 외국 소금 한 부셸[3]과 4분의 1

부셸이고 한 부셸에 10실링이니, 곧 0파운드 12실링 6펜스를 더하면

한 배럴마다의 장려금은 1파운드 7실링 5¾펜스에 이른다

청어를 영국 소금으로 절이면 셈은

이러하니, 곧

앞서와 같은 장려금 0파운드 14실링 11¾펜스

그러나 이 장려금에다, 스코틀랜드 소금 두 부셸에

물리는 세를 더하면, 한 부셸에 1실링 6펜스이고 이것이

한 배럴을 절이는 데 쓰이는 평균 양이라 치니,
곧 0파운드 3실링 0펜스를 더하는 것이다
한 배럴마다의 장려금은 0파운드 17실링 11¾펜스에 이른다
그리고 청어잡이 배가 잡은 청어를 스코틀랜드 안에서
쓰려고 신고하여 한 배럴에 1실링의 세를
물면, 장려금의 셈은 이러하다. 곧
앞서와 같이 0파운드 12실링 3¾펜스
여기서 한 배럴에 1실링을 덜어 내야 한다 0파운드 1실링 0펜스
0파운드 11실링 3¾펜스
그러나 거기에 다시, 청어 한 배럴을 절이는 데 쓴
외국 소금의 세를 더해야 하니 곧 0파운드 12실링 6펜스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서 쓰려고 신고한 청어
한 배럴마다 주어지는 포상금은 1파운드 3실링 9¾펜스다
청어를 영국 소금으로 절이면 셈은
아래와 같으니 곧
청어잡이 배가 실어 온 한 배럴마다의 장려금은
위와 같이 0파운드 12실링 3¾펜스
여기서 나라 안에서 쓰려고 신고할 때 치르는
한 배럴에 1실링을 덜어 낸다 0파운드 1실링 0펜스
0파운드 11실링 3¾펜스
그러나 이 장려금에다, 스코틀랜드 소금 두 부셸에
물리는 세를 더하면, 한 부셸에 1실링 6펜스이고 이것이
한 배럴을 절이는 데 쓰이는 평균 양이라 치니,
곧 0파운드 3실링 0펜스를 더하는 것이다
나라 안에서 쓰려고 신고한 한 배럴마다의 포상금은

1파운드 14실링 3¾펜스가 된다[4]

내보내는 청어에 걸린 세를 나라가 잃는 것은 아마 장려금이라 보기에 마땅하지 않을지 모르나, 나라 안에서 쓰려고 신고한 청어에 걸린 세를 잃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볼 수 있다.

1771년 4월 5일부터 1782년 4월 5일까지 청어잡이에 쓰려고 스코틀랜드로 들여온 외국 소금의 양과 그곳 제염소에서 세를 물리지 않고 내어 준 스코틀랜드 소금의 양을 적고, 둘의 한 해 평균을 아울러 적은 회계.

외국 소금을 제염소에서 내어 준

기간 들여온 양 스코틀랜드 소금

부셸 부셸

1771년 4월 5일부터

1782년 4월 5일까지 936,974 168,226

한 해 평균 85,159½ 15,293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외국 소금은 한 부셸이 48파운드(무게)이고 영국 소금은 한 부셸이 56파운드(무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편 — 주권자 곧 국가의 세입에 대하여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1절 — 방위비에 대하여

주권자의 첫째 임무, 곧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과 침입에서 제 사회를 지키는 임무는 군사력으로만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평시에 이 군사력을

갖추어 두는 비용이나 전시에 그것을 부리는 비용이나, 사회의 형편이 다름에 따라, 개량의 시기가 다름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사냥으로 사는 민족, 곧 사회의 가장 낮고 거친 형편에 있는 민족, 이를테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민족에게서는 사람마다 사냥꾼인 동시에 전사다. 제 사회를 지키려고든 다른 사회가 제 사회에 입힌 해를 갚으려고든 싸움터에 나갈 때, 그는 집에서 지낼 때와 똑같이 제 노동으로 제 몸을 건사한다. 그의 사회는 (이런 형편에서는 주권자도 국가도 본디 없으므로) 그를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를 하는 데에도, 싸움터에 있는 동안 그를 먹여 살리는 데에도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양 치는 민족, 곧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편에 있는 민족, 이를테면 타타르인과 아랍인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민족에게서도 사람마다 마찬가지로 전사다. 그런 민족에게는 대개 붙박이로 사는 집이 없고 천막이나 덮개를 씌운 수레 같은 데에서 사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기 쉽다. 부족 전체 곧 민족 전체가 한 해의 철이 바뀜에 따라, 또 그 밖의 우연한 일이 있음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그들의 소 떼와 양 떼가 한 지방의 꼴을 다 뜯어먹으면 그들은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거기서 또 셋째 지방으로 옮긴다. 마른 철에는 강기슭으로 내려오고 젖은 철에는 높은 지방으로 물러난다. 그런 민족이 싸움터에 나갈 때, 전사들은 제 소 떼와 양 떼를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의 약한 지킴에 맡기려 하지 않고,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 또한 지켜 주는 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뒤에 남겨지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온 민족이 평시에도 떠돌이 살림에 익어 있으므로 전시에 싸움터로 나서기가 쉽다. 군대로서 나아가든 목자의 무리로서 옮겨 다니든 살아가는 꼴은 거의 같고, 다만 그리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아주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함께 싸움터에 나가고, 저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

타타르인 사이에서는 여자들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전한다. 그들이 이기면 적의 부족에게 딸린 것은 무엇이나 승리의 갚음이 되나, 지면 모두 잃으니 소 떼와 양 떼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긴 자의 노획물이 된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은 이들조차 태반은 당장 먹고살기 위하여 이긴 자에게 굽히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는 흔히 사막에서 흩어지고 흩날린다.

타타르인이나 아랍인의 여느 살림살이, 여느 몸놀림이 그를 싸움에 넉넉히 채비시킨다. 달리기와 씨름과 몽둥이 겨루기와 창 던지기와 활 당기기 따위가 한데에서 사는 이들의 흔한 놀이이며, 그것들은 하나같이 싸움을 본뜬 것이다. 타타르인이나 아랍인이 실제로 싸움터에 나갈 때 그는 평시와 똑같이 제가 몰고 가는 소 떼와 양 떼로 제 몸을 건사한다. 그의 우두머리 곧 주권자는(그런 민족에게는 모두 우두머리나 주권자가 있다) 그를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으며, 그가 싸움터에 있을 때에는 노략질할 기회가 그가 바라거나 요구하는 오직 하나의 삯이다.

사냥꾼의 군대는 이삼백 명을 넘는 일이 드물다. 사냥이 마련해 주는 불안한 생계로는 그보다 많은 수가 얼마쯤이라도 오래 한데 모여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달리 양치기의 군대는 때로 이삼십만에 이르기도 한다. 그들의 나아감을 막는 것이 없는 한, 꼴을 다 뜯어먹은 한 고장에서 아직 성한 다른 고장으로 옮겨 갈 수 있는 한, 함께 행군할 수 있는 수에는 거의 한이 없는 듯하다. 사냥으로 사는 민족은 이웃한 문명된 민족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으나 양 치는 민족은 그리될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원주민의 싸움보다 더 하찮은 것이 없고, 그와 달리 아시아에서 타타르인의 침입이 흔히 그러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친 스키타이인을 당해 내지 못하리라던 투키디데스의 판단은 모든 시대의 겪음으로 참임이

드러났다. 드넓으나 지킬 것이 없는 스키티아 곧 타타르 지방의 벌판에 사는 이들은 정복을 일삼는 어느 무리나 씨족의 우두머리 아래 흔히 하나로 묶였고, 아시아의 쑥대밭과 황폐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로 묶였음을 알리는 표적이었다. 양 치는 또 하나의 큰 민족인 아라비아의 메마른 사막에 사는 이들은 무함마드 곧 무함마드와 그 바로 뒤를 이은 이들 아래에서 꼭 한 번 하나로 묶였을 뿐이다. 정복보다는 종교의 열광이 더 크게 빚어낸 그들의 뭉침도 같은 표적을 남겼다. 아메리카에서 사냥으로 사는 민족이 언젠가 양치기가 된다면, 그들이 이웃해 있다는 것은 유럽의 식민지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사회가 이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편, 곧 바깥 상업이 거의 없고 집집이 제가 쓰려고 마련하는 거친 살림 제조품 말고는 다른 제조품이 없는 농사꾼의 민족에게서도 사람마다 마찬가지로 전사이거나 쉽게 전사가 된다. 농사로 사는 이들은 대개 하루 내내 한데에서 지내며 온갖 사나운 날씨를 견딘다. 그 여느 살림의 고됨이 그들을 싸움의 시달림에 채비시키며, 그 시달림 가운데 더러는 그들이 늘 하는 일과 몹시 닮아 있다. 도랑 파는 이가 늘 하는 일은 밭에 두렁을 두르는 데에만이 아니라 참호에서 일하고 진지를 굳히는 데에도 그를 채비시킨다. 그런 농사꾼의 여느 놀이는 양치기의 놀이와 같고 마찬가지로 싸움을 본뜬 것이다. 그러나 농사꾼은 양치기보다 겨를이 적으므로 그런 놀이에 그만큼 자주 매달리지 못한다. 그들도 군사이기는 하나 제 몸놀림을 그만큼 잘 익힌 군사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를 하는 데에 주권자나 국가가 비용을 들이는 일은 드물다.

농사는 아무리 거칠고 낮은 형편에 있더라도 붙박이 자리, 곧 크게 밑지지 않고는 버릴 수 없는 어떤 붙박이 집을 앞세운다. 그러므로 오로지 농사꾼뿐인 민족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함께

싸움터로 갈 수 없다. 적어도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은 집을 건사하려고 뒤에 남아야 한다. 그러나 싸울 나이에 든 사내는 모두 싸움터로 나갈 수 있고, 이런 갈래의 작은 민족에서는 흔히 그리하였다. 어느 민족에서나 싸울 나이에 든 사내는 온 백성의 4분의 1이나 5분의 1쯤 된다고 친다. 게다가 싸움이 씨 뿌린 뒤에 시작되어 거두기 전에 끝난다면, 농사꾼도 그의 주된 일꾼들도 큰 밑짐 없이 농장을 비울 수 있다. 그는 그동안 해야 할 일을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이 넉넉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짧은 싸움 동안 삯 없이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를 싸움터에서 먹여 살리는 데에 드는 것이 그를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를 하는 데에 드는 것만큼이나 주권자나 국가에게 적은 일이 흔하다. 옛 그리스의 여러 나라 시민은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까지, 펠로폰네소스 사람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뒤까지 이런 모양으로 복무하였던 듯하다. 펠로폰네소스 사람들은 여름이면 으레 싸움터를 떠나 거두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투키디데스는 적는다. 로마 백성도 국왕들 아래에서, 또 공화국의 첫 몇 세기 동안 같은 모양으로 복무하였다. 집에 머문 이들이 싸움터에 나간 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 얼마쯤 보태기 시작한 것은 베이이를 에워싸 칠 때[5]에 이르러서였다. 로마 제국의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진 유럽의 왕국들에서는, 본디 봉건법이라 일컫는 것이 자리 잡기 전에도 자리 잡은 뒤로도 얼마 동안, 큰 영주들이 저에게 바로 딸린 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제 비용으로 왕실에 복무하곤 하였다. 그들은 싸움터에서도 집에서와 똑같이 제 수입으로 제 몸을 건사하였고, 그 일이 있다 하여 국왕에게서 받는 어떤 급여나 삯으로 건사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가 더 나아간 형편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까닭이 어우러져, 싸움터에 나가는 이들이 제 비용으로 제 몸을 건사하는 일을 아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 두 까닭이란 제조업의 나아감과 싸움 기술의 나아짐이다.

농사꾼은 싸움에 불려 나가더라도 그것이 씨 뿌린 뒤에 시작되어 거두기 전에 끝나기만 하면 제 일이 끊겼다 하여 늘 그의 수입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그의 노동이 끼어들지 않아도 남은 일의 태반은 자연이 스스로 해낸다. 그러나 이를테면 수공업자나 대장장이나 목수나 베 짜는 이가 제 일터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수입의 오직 하나뿐인 샘은 아주 말라 버린다. 자연은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가 제 손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가 나라를 지키러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제 몸을 건사할 수입이 없으므로 나라가 그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 큰 몫이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인 나라에서는 싸움터에 나가는 이들 가운데 큰 몫을 그 무리에서 뽑아내야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나라의 일에 매여 있는 동안 나라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게다가 싸움의 기술이 차츰 자라나 아주 얽히고설킨 학문이 되고, 싸움의 결말이 사회의 첫 시대처럼 어수선한 접전이나 싸움 한 번으로 판가름 나기를 그치고, 다툼이 대개 여러 차례의 싸움철에 걸쳐 늘어지며 그 하나하나가 한 해의 태반 동안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그 일에 매여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라가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어디서나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된다. 싸움터에 나가는 이들이 평시에 무슨 일을 하며 지내든, 그러지 않으면 그토록 지루하고 돈이 드는 복무는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 뒤로 아테네의 군대는 대개 삯을 받는 군사로 이루어졌던 듯하니, 그 가운데에는 시민도 있었으나 외국인도 있었고, 모두 똑같이 나라의 비용으로 고용되고 삯을 받았다. 베이이를 에워싸 친 때부터 로마의 군대는 싸움터에 머무는 동안 복무의 삯을 받았다.

봉건 정부 아래에서는 큰 영주의 군역도 그들에게 바로 딸린 이들의 군역도 어느 때부터인가 어디서나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돈은 그들을 대신하여 복무하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쓰였다.

온 백성의 수에 견주어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의 수는 거친 형편의 사회에서보다 문명된 사회에서 반드시 훨씬 적다. 문명된 사회에서는 군사를 군사 아닌 이들의 노동이 온통 먹여 살리므로, 앞의 수는 뒤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 걸맞게 제 몸과 저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다른 정부와 법의 일꾼들을 건사하고 그러고도 남는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를 결코 넘을 수 없다. 옛 그리스의 작은 농사 나라들에서는 온 백성의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저를 군사로 여겼고 때로는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유럽의 문명된 민족들 사이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주민의 100분의 1을 넘는 수를 군사로 쓰면 그 복무의 비용을 치르는 나라가 결딴난다고 흔히들 셈한다.

군대를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를 하는 비용은, 싸움터에서 군대를 먹여 살리는 일이 온전히 주권자나 국가에게 넘어간 뒤로도 한참 지나서야 어느 민족에서나 눈에 띄게 커졌던 듯하다. 옛 그리스의 여러 공화국에서는 저마다 군사의 몸놀림을 익히는 것이 나라가 모든 자유민에게 지운 가르침의 빠질 수 없는 한 몫이었다. 도시마다 나라의 행정관이 지키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여러 스승에게서 여러 몸놀림을 배우는 공공의 마당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스의 어느 나라가 제 시민을 싸움에 채비시키는 데에 들인 온 비용이란 이 아주 단순한 제도에 들어 있었던 듯하다. 옛 로마에서는 캄푸스 마르티우스 곧 마르스 들판에서 하던 몸놀림이 옛 그리스의 김나시온에서 하던 것과 같은 몫을 하였다. 봉건 정부 아래에서는 고장마다 시민이 활쏘기를 비롯한 여러 군사의 몸놀림을 익혀야 한다는 숱한 공공의 법령이 같은 것을 북돋우려는 뜻이었으나 그만큼 잘 북돋우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그 법령을

집행하도록 맡겨진 일꾼들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였든 다른 어떤 까닭에서였든, 그 법령은 어디서나 팽개쳐져 있었던 듯하고, 그런 정부들이 나아가는 가운데 군사의 몸놀림은 백성의 큰 몸통 사이에서 차츰 쓰이지 않게 되었던 듯하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국에서는 그것이 있어 온 온 기간 동안, 또 봉건 정부 아래에서는 그것이 처음 자리 잡은 뒤 한참 동안, 군사라는 생업은 어느 한 무리의 시민만이 하는 유일하거나 주된 일거리를 이루는 따로 떨어진 생업이 아니었다. 나라의 신민은 저마다 벌이를 얻는 여느 생업이나 일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여느 때에는 저 또한 군사라는 생업을 하기에 맞갖다고 여겼고, 남다른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싸움의 기술은 틀림없이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인 만큼, 개량이 나아감에 따라 반드시 그 가운데 가장 얽히고설킨 것의 하나가 된다. 그것과 반드시 이어져 있는 기계 기술을 비롯한 몇몇 기술의 형편이, 그것이 어느 때에 이를 수 있는 완성의 정도를 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 완성의 정도까지 밀어 올리려면 그것이 어느 한 무리의 시민만이 하는 유일하거나 주된 일거리가 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나아지는 데에도 분업이 꼭 있어야 한다. 다른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하기보다 한 가지 생업에만 매달리는 편이 제 이익을 더 잘 북돋운다는 것을 깨달은 개인들의 조심스러움이 분업을 절로 들여온다. 그러나 군사라는 생업을 다른 모든 것과 갈라진 따로 떨어진 생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의 슬기뿐이다. 깊은 평화의 때에 나라의 아무런 북돋움도 없이 제 시간의 태반을 군사의 몸놀림에 쏟는 한 사사로운 시민은 의심할 바 없이 그 몸놀림에서 크게 나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아주 즐거울 수도 있겠으나, 그가 제 이익을 북돋우지 않을 것만은 틀림없다. 제 시간의 태반을 이

남다른 일거리에 내놓는 것이 그의 이익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의 슬기뿐인데, 나라는 제 목숨을 지키려면 그런 슬기가 있어야 할 만큼 형편이 되었을 때조차 늘 그것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양치기에게는 겨를이 아주 많고, 농사가 거친 형편에 있을 때의 농사꾼에게는 얼마쯤 있으며,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에게는 도무지 없다. 앞의 사람은 밑짐 없이 제 시간을 많이 군사의 몸놀림에 쓸 수 있고, 가운데 사람은 얼마쯤 쓸 수 있으나, 뒤의 사람은 얼마간 밑지지 않고는 한 시간도 거기에 쓸 수 없으므로, 제 이익에 마음을 쓰다 보면 절로 그것을 아주 팽개치게 된다. 게다가 기술과 제조업이 나아가면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농사의 여러 나아짐도 농사꾼에게 수공업자만큼이나 겨를을 적게 남긴다. 군사의 몸놀림은 도시 주민에게서나 시골 주민에게서나 똑같이 팽개쳐지고, 백성의 큰 몸통은 아주 싸울 줄 모르게 된다. 그와 함께, 농사와 제조업이 나아지면 언제나 뒤따르며 실은 그 나아짐이 쌓인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 저 부가 이웃 모두의 침입을 불러들인다. 부지런하고 그 덕분에 넉넉한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얻어맞기 쉬우며, 나라가 나라를 지킬 새로운 방도를 세우지 않는 한 백성의 타고난 버릇은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아주 잃게 만든다.

이런 형편에서 나라가 공공의 방위를 웬만큼이나마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듯하다.

첫째로, 아주 엄한 행정을 써서, 백성의 이해와 기질과 성향이 온통 쏠리는 바를 거스르면서까지 군사의 몸놀림을 익히도록 다그치고, 싸울 나이에 든 시민 모두에게나 그 가운데 얼마간의 수에게, 그들이 달리 어떤 생업이나 직업에 매여 있든 거기에 군사라는 생업을 얼마쯤 겸하도록 지울 수 있다.

아니면 둘째로, 얼마간의 시민을 군사의 몸놀림을 늘 익히는 일에 붙들어 두고 먹여 살림으로써 군사라는 생업을 다른 모든 것과 갈라진 따로 떨어진 생업으로 만들 수 있다.

나라가 이 두 방편 가운데 앞의 것에 기대면 그 군사력은 민병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뒤의 것에 기대면 상비군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상비군의 군사에게는 군사의 몸놀림을 익히는 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일거리이며, 나라가 그들에게 대어 주는 먹을 것과 삯이 그들 생계의 주되고 여느 밑천이다. 민병의 군사에게는 군사의 몸놀림을 익히는 것이 이따금 하는 일거리일 뿐이고, 그들은 생계의 주되고 여느 밑천을 다른 일거리에서 얻는다. 민병에서는 일꾼이나 수공업자나 장사치의 성격이 군사의 성격을 누르고, 상비군에서는 군사의 성격이 다른 모든 성격을 누르니, 이 갈림에 이 두 갈래 군사력의 본디 다름이 들어 있는 듯하다.

민병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 왔다.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를 지키도록 매인 시민이 몸놀림만 익혔을 뿐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부대로 짜이지는 않았던 듯하니, 곧 저마다 제게 딸린 붙박이 장교 아래에서 몸놀림을 익히는 따로 떨어진 군사의 무리로 나뉘지 않았던 것이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국에서는 시민 저마다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혼자서 따로 몸놀림을 익히거나 제 마음에 드는 또래와 함께 익혔을 뿐, 실제로 싸움터에 나오라는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한 부대에 매이지 않았던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민병이 몸놀림을 익혔을 뿐 아니라 부대로도 짜였다. 잉글랜드에서도 스위스에서도, 또 내가 믿기로는 이런 갈래의 온전하지 못한 군사력이나마 세워 둔 오늘날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민병 하나하나가 평시에도 어느 한 부대에 매여 있고 그 부대는 제게 딸린 붙박이 장교 아래에서 몸놀림을 익힌다.

화기가 나오기 전에는 군사 하나하나가 제 무기를 다루는 솜씨와 재주가 가장 나은 쪽 군대가 나았다. 몸의 힘과 날램이 가장 크게

여겨졌고 흔히 싸움의 운명을 갈랐다. 그런데 제 무기를 다루는 이 솜씨와 재주는 오늘날의 칼싸움과 마찬가지로 큰 무리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어느 한 도장에서 어느 한 스승 아래에서, 또는 제 또래와 동무와 함께 익혀야만 얻을 수 있었다. 화기가 나온 뒤로는 몸의 힘과 날램이, 또 무기를 다루는 남다른 재주와 솜씨까지도 아무 쓸모가 없기는커녕 그래도 전보다 덜 여겨지게 되었다. 무기의 성질이 서툰 이를 솜씨 있는 이와 나란히 놓아 주지는 결코 않으나 전보다는 훨씬 가깝게 놓아 준다. 그것을 쓰는 데 있어야 할 재주와 솜씨는 모두 큰 무리를 지어 익혀도 넉넉히 얻을 수 있다고들 여긴다.

오늘날의 군대에서 싸움의 운명을 가르는 데에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은 군사가 제 무기를 다루는 재주와 솜씨가 아니라 규율과 질서와 명령에 대한 재빠른 복종이다. 그러나 화기의 소리와 연기, 그리고 대포알이 닿는 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또 흔히는 싸움이 제대로 붙었다고 할 만한 때보다 한참 앞서부터 사람마다 순간마다 저를 겨누고 있다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죽음은, 오늘날 싸움의 첫머리에서조차 이 규율과 질서와 재빠른 복종을 웬만큼이라도 지켜 내기를 몹시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옛 싸움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는 것 말고는 소리가 없었고, 연기도 없었으며, 상처나 죽음을 부르는 보이지 않는 까닭도 없었다. 사람마다 목숨을 앗는 무기가 실제로 제게 다가오기 전에는 그런 무기가 제 곁에 없음을 또렷이 보았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고 제 무기를 다루는 제 솜씨와 재주를 얼마쯤 믿는 군사들 사이에서는, 옛 싸움의 첫머리에서만이 아니라 그 온 흐름에 걸쳐 두 군대 가운데 하나가 아주 무너질 때까지 얼마쯤의 규율과 질서를 지켜 내기가 훨씬 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규율과 질서와 명령에 대한 재빠른 복종의 버릇은 큰 무리를 지어 몸놀림을 익히는 군사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민병은 어떤 모양으로 다스려지고 어떤 모양으로 몸놀림을 익히든, 잘 다스려지고 잘 익힌 상비군보다 언제나 훨씬 못할 수밖에 없다.

한 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몸놀림을 익히는 군사는 날마다나 이틀에 한 번씩 익히는 군사만큼 제 무기를 다루는 데 익을 수 없으며, 이 점이 옛날만큼 오늘날 크게 여겨지지는 않더라도, 몸놀림에 남달리 익은 데에 크게 힘입었다는 프로이센 군사의 널리 알려진 나음은 이 점이 오늘날에도 자못 크게 여겨짐을 우리에게 일러 주기에 넉넉하다.

한 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제 장교에게 따르게 매여 있고 그 밖의 때에는 어느 모로도 그에게 셈을 바치지 않은 채 제 일을 제 뜻대로 꾸려 가도 좋은 군사는, 온 삶과 몸가짐을 날마다 그에게 이끌리고 날마다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적어도 제 막사로 물러나는 것까지 그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와 같은 두려움을 그 앞에서 품을 수 없고 같은 재빠른 복종의 마음가짐을 지닐 수 없다. 이른바 규율, 곧 재빠르게 따르는 버릇에서 민병은 이른바 손몸놀림, 곧 제 무기를 건사하고 쓰는 일에서 때때로 뒤지는 것보다 언제나 더욱더 상비군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싸움에서는 재빠르고 즉시 따르는 버릇이 무기를 건사하는 솜씨의 자못 큰 나음보다 훨씬 더 크게 여겨진다.

타타르나 아랍의 민병처럼 평시에 따르기에 익은 바로 그 우두머리 아래에서 싸움터에 나가는 민병이 단연 가장 낫다. 제 장교를 받드는 데에서나 재빠르게 따르는 버릇에서나 그들은 상비군에 가장 가깝다. 하일랜드의 민병도 제 우두머리 아래에서 복무하였을 때에는 같은 갈래의 나음을 얼마쯤 지녔다. 그러나 하일랜드 사람들은 떠돌이 양치기가 아니라 붙박이 양치기여서 모두 붙박이로 사는 집이 있었고 평온한 때에 제 우두머리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데 익지

않았으므로, 전시에도 그를 따라 웬만큼 먼 데까지 가거나 오래도록 싸움터에 머물기를 덜 바랐다. 노획물을 얻고 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하였고, 그의 권위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는 모자란 적이 많았다. 따르는 일에서 그들은 타타르인과 아랍인에 대하여 전하는 바에 늘 훨씬 못 미쳤다. 게다가 하일랜드 사람들은 붙박이 살림 탓에 한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므로 군사의 몸놀림에 늘 덜 익었고, 제 무기를 다루는 데에도 타타르인과 아랍인이 그렇다고 전하는 것보다 덜 익숙하였다.

그러나 어떤 갈래의 민병이든 여러 차례의 싸움철을 잇달아 싸움터에서 복무하고 나면 모든 모로 상비군이 된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군사는 날마다 제 무기를 다루는 몸놀림을 익히고, 늘 제 장교의 명령 아래 있으므로 상비군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이 재빠르게 따르는 데 길든다. 싸움터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리 대수롭지 않다. 싸움터에서 몇 차례의 싸움철을 보내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모든 모로 상비군이 된다.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싸움[6]이 또 한 차례의 싸움철로 끌린다면, 아메리카의 민병은 모든 모로 저 상비군의 맞수가 될지도 모르니, 그 상비군의 용맹은 적어도 지난번 싸움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가장 굳센 노병에 못지않아 보였다.

이 갈림을 잘 새겨 두고 보면, 모든 시대의 역사가 잘 다스려진 상비군이 민병에 대하여 지니는 당해 낼 길 없는 나음을 증언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을 만한 역사에서 우리가 뚜렷한 기록을 지닌 첫 상비군의 하나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7]의 상비군이다. 트라키아인과 일리리아인과 테살리아인,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웃의 몇몇 그리스 도시와 자주 벌인 싸움이 처음에는 아마 민병이었을 그의 군사를 차츰 상비군의 엄정한

규율에 이르게 하였다. 그는 평화로울 때에도, 그런 때가 아주 드물었고 결코 오래 이어지지도 않았으나, 그 군대를 흩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그 군대는 참으로 길고 모진 겨룸 끝에 옛 그리스 주요 공화국의 씩씩하고 잘 익힌 민병을 이겨 굽혔고, 그 뒤에는 아주 적은 겨룸으로 큰 페르시아 제국의 나약하고 제대로 익히지 못한 민병을 굽혔다. 그리스 공화국들과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것은 상비군이 다른 온갖 갈래의 민병에 대하여 지니는 당해 낼 길 없는 나음이 빚어낸 일이다. 그것은 역사가 뚜렷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큰 변혁이다.

카르타고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로마가 일어선 것이 두 번째다. 이 이름난 두 공화국의 운수가 갈린 온갖 모습은 모두 같은 까닭으로 넉넉히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카르타고 전쟁이 끝난 때부터 두 번째 카르타고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카르타고의 군대는 내처 싸움터에 있었고, 지휘를 잇달아 이어받은 세 큰 장군, 곧 하밀카르와 그 사위 하스드루발과 그 아들 한니발[8] 아래에서 쓰였으니, 처음에는 제 나라에서 들고일어난 노예를 벌하는 데 쓰였고, 그 뒤에는 아프리카의 배반한 민족들을 굽히는 데 쓰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스페인의 큰 왕국을 정복하는 데 쓰였다. 한니발이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이끌고 간 군대는 그 여러 싸움을 거치는 동안 반드시 차츰 상비군의 엄정한 규율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지는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크게 대수로운 싸움에 매이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군사 규율은 자못 느슨해졌다고들 흔히 말한다. 한니발이 트레비아와 트라시메누스와 칸나이에서 맞닥뜨린 로마 군대는 상비군에 맞선 민병이었다. 이 사정이 다른 무엇보다 크게 그 싸움들의 운명을 가르는 데에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한니발이 스페인에 남겨 둔 상비군도 로마 사람들이 그에 맞서라고 보낸 민병에 대하여 똑같은 나음을 지녔고, 몇 해 안에 그의 아우인 작은 하스드루발의 지휘 아래 그들을 그 나라에서 거의 남김없이 몰아냈다.

한니발은 본국에서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로마의 민병은 내처 싸움터에 있었으므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잘 다스려지고 잘 익힌 상비군이 되었고, 한니발의 나음은 날마다 줄고 또 줄었다. 하스드루발은 제가 스페인에서 거느리던 상비군의 전부나 거의 전부를 이탈리아에 있는 아우를 도우러 이끌고 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행군에서 그는 길잡이에게 속았다고 전하며, 알지 못하는 땅에서 모든 모로 제 군대와 맞먹거나 더 나은 또 하나의 상비군에게 느닷없이 들이침을 받아 아주 무너졌다.

하스드루발이 스페인을 떠나고 나자 위대한 스키피오[9]는 제 군대보다 못한 민병 말고는 맞설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그 민병을 이겨 굽혔고,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자신의 민병은 반드시 잘 다스려지고 잘 익힌 상비군이 되었다. 그 상비군은 그 뒤 아프리카로 실려 갔고, 거기서도 맞설 것이라고는 민병밖에 없음을 알았다. 카르타고를 지키려면 한니발의 상비군을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기가 꺾이고 여러 번 무너진 아프리카의 민병이 거기에 합쳐져 자마의 싸움에서 한니발이 거느린 군사의 태반을 이루었다. 그날의 일이 맞겨루던 두 공화국의 운명을 갈랐다.

두 번째 카르타고 전쟁이 끝난 때부터 로마 공화국이 무너질 때까지 로마의 군대는 모든 모로 상비군이었다. 마케도니아의 상비군은 그들의 무력에 얼마쯤 버티었다. 로마가 한창 크던 때에도 그 작은 왕국을 굽히는 데에 두 차례의 큰 싸움과 세 차례의 큰 접전이 들었고, 그 나라 마지막 국왕이 겁쟁이가 아니었더라면 그것을 정복하기가 아마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스와 시리아와 이집트 등 옛 세상의 문명된

민족들의 민병은 로마의 상비군에 맥없이 버티었을 뿐이다. 몇몇 야만한 민족의 민병은 훨씬 잘 버티었다. 미트리다테스[10]가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 고장에서 끌어온 스키타이 곧 타타르의 민병은 두 번째 카르타고 전쟁 뒤로 로마 사람들이 맞닥뜨린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파르티아와 게르만의 민병도 늘 만만치 않았고, 여러 차례 로마 군대를 상대로 자못 큰 이득을 거두었다. 그러나 대체로 로마 군대가 잘 지휘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훨씬 나았던 듯하며, 로마 사람들이 파르티아나 게르마니아를 끝내 정복하려 들지 않은 것은 아마 이미 너무 커진 제국에 그 야만한 두 나라를 보태는 일이 값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옛 파르티아 사람들은 스키타이 곧 타타르의 갈래에서 나온 민족이며 제 조상의 버릇을 자못 많이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옛 게르만 사람들은 스키타이인이나 타타르인과 마찬가지로 떠돌며 양을 치는 민족으로, 평시에 따르기에 익은 바로 그 우두머리 아래에서 싸움터에 나갔다. 그들의 민병은 스키타이인이나 타타르인의 민병과 꼭 같은 갈래였고, 그들 또한 아마 스키타이인이나 타타르인에게서 갈라져 나왔을 것이다.

로마 군대의 규율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까닭이 이바지하였다. 그 지나친 모짊이 아마 그 까닭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들이 한창 크던 시절, 그들에게 맞설 만한 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때에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쓸데없이 거추장스럽다 하여 벗겨졌고, 힘겨운 몸놀림은 쓸데없이 고되다 하여 팽개쳐졌다. 게다가 로마 황제들 아래에서 로마의 상비군, 그 가운데에도 게르마니아와 판노니아의 변경을 지키던 군대는 제 주인에게 위험한 것이 되어 저희 장군을 내세워 자주 맞섰다. 그들을 덜 무섭게 만들려고 어떤 이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을 변경에서 처음 물렸다고 하는데, 그전까지 그들은 늘 대개 두세 군단씩 큰 무리를 지어 변경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그 뒤로는 여러 지방 도시에 작은

무리로 흩어져 침입을 물리쳐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장사와 제조업을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그 자리를 좀처럼 떠나지 않는 작은 군사의 무리는 저희도 장사치와 수공업자와 제조업자가 되었다. 민간의 성격이 군사의 성격을 누르게 되었고, 로마의 상비군은 차츰 썩고 팽개쳐지고 규율 없는 민병으로 타락하여, 머지않아 서쪽 제국에 쳐들어온 게르만과 스키타이의 민병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하였다. 황제들이 얼마 동안이나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민족들 가운데 얼마의 민병을 삯 주고 사서 다른 민족의 민병에 맞세운 덕분이었다. 서쪽 제국이 무너진 것은 옛 역사가 뚜렷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일에서 일어난 세 번째 큰 변혁이다. 그것은 야만한 민족의 민병이 문명된 민족의 민병에 대하여 지니는, 양 치는 민족의 민병이 농사꾼과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의 민족의 민병에 대하여 지니는 당해 낼 길 없는 나음이 빚어낸 일이다. 민병이 거둔 승리는 대개 상비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몸놀림과 규율에서 저희보다 못한 다른 민병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의 민병이 페르시아 제국의 민병에 대하여 거둔 승리가 그러하였고, 뒷날 스위스의 민병이 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의 민병에 대하여 거둔 승리도 그러하였다.

서쪽 제국의 무너진 터 위에 자리를 잡은 게르만과 스키타이 민족의 군사력은 그 새 터전에서도 얼마 동안 본디 제 나라에서와 같은 갈래로 이어졌다. 그것은 양치기와 농사꾼의 민병으로, 전시에 평시에 따르기에 익은 바로 그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싸움터에 나갔다. 그러므로 그것은 웬만큼 잘 익었고 웬만큼 잘 다스려졌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이 나아감에 따라 우두머리의 권위는 차츰 삭았고, 백성의 큰 몸통은 군사의 몸놀림에 쪼갤 시간이 줄었다. 그리하여 봉건 민병의 규율도 몸놀림도 차츰 허물어졌고, 그 자리를 메우려고 상비군이 차츰 들어왔다. 게다가 상비군이라는 방편을 어느 한 문명된 민족이 한 번

받아들이고 나자 그 이웃이 모두 그 본을 따라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 안전이 그리하는 데에 달렸음을, 그리고 제 민병으로는 그런 군대가 들이치는 것을 도무지 막아 낼 수 없음을 곧 깨달았다.

상비군의 군사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 흔히 노병의 용맹을 모두 갖춘 듯이 보였고, 싸움터에 나선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굳세고 가장 겪음 많은 노병과 맞설 만해 보였다. 1756년에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로 나아갔을 때 러시아 군사의 용맹은 그때 유럽에서 가장 굳세고 가장 겪음 많은 노병으로 여겨지던 프로이센 군사의 용맹에 못지않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그전 20년 가까이 깊은 평화를 누렸으므로 그때 적을 본 적이 있는 군사는 아주 적었을 것이다. 1739년에 스페인 전쟁[11]이 터졌을 때 잉글랜드는 28년쯤 깊은 평화를 누린 터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군사의 용맹은 그 긴 평화로 썩기는커녕, 그 불행한 싸움의 첫 번째 불행한 일이었던 카르타헤나 공격에서보다 더 빛난 적이 없었다. 긴 평화 속에서 장군들은 더러 제 솜씨를 잊을지도 모르나, 잘 다스려진 상비군을 지켜 온 곳에서는 군사가 제 용맹을 잊는 일이 결코 없는 듯하다.

문명된 민족이 제 방위를 민병에 기댈 때에는 이웃에 있게 된 어떤 야만한 민족에게든 언제나 정복당할 수 있다. 아시아의 문명된 나라가 모두 타타르인에게 자주 정복당한 일은 야만한 민족의 민병이 문명된 민족의 민병에 대하여 타고난 나음을 지님을 넉넉히 보여 준다. 잘 다스려진 상비군은 어떤 민병보다도 낫다. 그런 군대는 넉넉하고 문명된 민족이라야 가장 잘 건사할 수 있으니, 가난하고 야만한 이웃의 침입에서 그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군대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의 문명이든 얼마쯤이나마 오래 이어지거나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상비군의 힘을 빌려서다.

문명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잘 다스려진 상비군의 힘을 빌려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야만한 나라를 갑작스레 웬만큼 문명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힘을 빌려서다. 상비군은 당해 낼 길 없는 힘으로 제국의 가장 먼 지방에까지 주권자의 법을 세우고, 달리 어떤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나라에 얼마쯤의 고른 다스림을 지켜 낸다. 표트르 대제[12]가 러시아 제국에 들여온 개량을 눈여겨 살피는 이는 누구나 그것이 거의 다 잘 다스려진 상비군을 세운 일로 귀착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다른 모든 규제를 실어 나르고 지켜 내는 연장이다. 그 뒤로 그 제국이 누려 온 그만한 질서와 안의 평화는 온전히 그 군대의 힘에 힘입은 것이다.

공화의 뜻을 품은 이들은 상비군을 자유에 위험하다 하여 시새워 왔다. 장군의 이해와 주요 장교의 이해가 나라의 국제를 떠받치는 일과 반드시 이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그러하다. 카이사르의 상비군은 로마 공화국을 무너뜨렸다. 크롬웰의 상비군은 장기 의회[13]를 문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주권자 자신이 장군이고 나라의 주요 귀족과 지주가 군대의 주요 장교인 곳, 민간의 권위를 떠받치는 데에 가장 큰 이해를 지닌 이들의, 곧 그 권위를 저희가 가장 크게 나누어 가진 이들의 지휘 아래 군사력이 놓인 곳에서는 상비군이 자유에 위험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유에 이로울 수도 있다. 그것이 주권자에게 주는 든든함은 오늘날의 몇몇 공화국에서 시민의 가장 자잘한 몸짓까지 지켜보며 언제라도 시민마다의 평온을 어지럽히려 드는 듯한 저 성가신 시샘을 쓸데없게 만든다. 행정관의 든든함이 나라의 주요한 이들에게 떠받쳐지면서도 백성의 불평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곳, 작은 소동이 몇 시간 만에 큰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곳에서는 정부를 거스르는 모든 웅얼거림과 푸념을 짓누르고 벌하는 데에 정부의 온 권위를 쏟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나라의 타고난 귀족뿐

아니라 잘 다스려진 상비군에게도 떠받쳐진다고 느끼는 주권자에게는 가장 거칠고 가장 터무니없으며 가장 방자한 항의도 거의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마음 놓고 너그러이 보아 넘기거나 모른 체할 수 있고, 제가 더 낫다는 의식이 절로 그를 그리하도록 이끈다. 방자함에 가까운 그만한 자유는 오직 주권자가 잘 다스려진 상비군으로 든든해진 나라에서만 참아 줄 수 있다. 이 방자한 자유의 주제넘은 장난까지 짓누르라고 주권자에게 마음대로 쓸 권한을 맡길 것을 공공의 안전이 요구하지 않는 곳도 오직 그런 나라뿐이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첫째 임무, 곧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과 불의에서 제 사회를 지키는 임무는 사회가 문명으로 나아감에 따라 차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본디 평시에도 전시에도 주권자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우지 않던 사회의 군사력은 개량이 나아감에 따라 먼저 전시에 그가 건사해야 하고, 그 뒤에는 평시에도 그가 건사해야 한다.

화기가 나와 싸움의 기술에 들여온 큰 바뀜은 평시에 얼마간의 군사에게 몸놀림을 익히고 규율을 잡는 비용과 전시에 그들을 부리는 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들의 무기도 탄약도 더 비싸졌다. 화승총은 창이나 활과 화살보다 비싼 기계이고, 대포나 박격포는 발리스타나 카타풀타보다 비싼 기계다. 오늘날의 열병에서 쓰는 화약은 되찾을 길 없이 없어지므로 자못 큰 비용을 부른다. 옛 열병에서 던지거나 쏜 창과 화살은 쉽게 도로 주울 수 있었고 게다가 값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대포와 박격포는 발리스타나 카타풀타보다 훨씬 비쌀 뿐 아니라 훨씬 무거운 기계여서, 싸움터에 내보낼 채비를 하는 데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싸움터로 실어 가는 데에도 더 큰 비용이 든다. 게다가 오늘날의 대포가 옛날의 것보다 훨씬 나으므로, 그 나은 대포가 들이치는 것을 몇 주 동안만이라도 버티도록 도시를 굳히는 일이 훨씬 어려워졌고 따라서 훨씬 비싸졌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어우러져 사회를 지키는 일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 개량이 절로 나아가면서 피할 길 없이 빚어내는 결과가 이 점에서 싸움의 기술에 일어난 큰 변혁으로 자못 커졌는데, 그 변혁은 화약의 발명이라는 한낱 우연이 불러온 듯하다.

오늘날의 싸움에서 화기에 드는 큰 비용은 그 비용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에게, 따라서 가난하고 야만한 민족에 대하여 넉넉하고 문명된 민족에게 뚜렷한 이득을 준다. 옛날에는 넉넉하고 문명된 이들이 가난하고 야만한 민족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웠다. 오늘날에는 가난하고 야만한 이들이 넉넉하고 문명된 이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 얼핏 그토록 해로워 보이는 발명인 화기의 발명은 문명이 이어지는 데에도 널리 퍼지는 데에도 틀림없이 이롭다.

2절 — 사법비에 대하여

주권자의 둘째 임무, 곧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모든 구성원의 불의나 억누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임무, 곧 정의를 어김없이 베푸는 제도를 세우는 임무는 사회의 시기가 다름에 따라 아주 다른 두 정도의 비용을 부른다.

사냥으로 사는 민족에게는 재산이라 할 것이 거의 없고 적어도 이삼일치 노동의 가치를 넘는 것이 없으므로 자리 잡은 행정관도 고른 재판도 드물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서로에게 몸이나 이름으로만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때리거나 헐뜯을 때, 해를 입은 쪽은 괴로움을 겪으나 해를 입힌 쪽은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한다. 재산에 입히는 해는 그렇지 않다. 해를 입히는 이의 이득이 해를 입는 이의 밑짐과 맞먹는 일이 흔하다. 시새움이나 앙심이나 원망만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몸이나 이름에 해를 입히도록 몰아세울 수 있는 정념이다. 그러나 사람들 태반은 그런

정념에 그리 자주 휘둘리지 않고, 가장 못된 사람이라도 이따금 휘둘릴 뿐이다. 게다가 그것을 채우는 일은 어떤 성정에게는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참되거나 오래가는 이로움이 따르지 않으므로, 사람들 태반에게서는 앞뒤를 재는 마음에 눌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정념의 불의에서 저를 지켜 줄 행정관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웬만큼 든든하게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나 가진 이의 탐욕과 야심, 못 가진 이의 노동에 대한 미움과 당장의 편함과 즐거움에 대한 사랑은 재산을 침범하도록 몰아세우는 정념이며, 그것들은 훨씬 꾸준히 움직이고 훨씬 두루 미친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큰 고르지 못함이 있다. 아주 가멸진 사람 하나가 있으려면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이가 있어야 하며, 몇몇의 넉넉함은 여럿의 궁핍함을 앞세운다. 가진 이의 넉넉함은 못 가진 이의 분노를 돋우니, 그들은 모자람에 내몰리고 시새움에 부추겨져 그의 것을 침범하는 일이 흔하다. 여러 해 또는 여러 대에 걸친 노동으로 얻은 그 값진 재산의 임자가 하룻밤이라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행정관의 그늘 아래에서다. 그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그가 건드린 적이 없는데도 결코 달랠 수 없는 적이며, 그들의 불의에서 그를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벌하려고 내처 치켜든 행정관의 힘센 팔뿐이다. 그러므로 값지고 넓은 재산을 얻으려면 반드시 민간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재산이 없는 곳, 적어도 이삼일치 노동의 가치를 넘는 재산이 없는 곳에서는 민간 정부가 그만큼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민간 정부는 얼마간의 상하 질서를 앞세운다. 그런데 민간 정부가 있어야 할 까닭이 값진 재산을 얻는 것과 더불어 차츰 자라나듯, 상하 질서를 절로 들여오는 주된 까닭들도 그 값진 재산이 자라남과 더불어 차츰 자라난다.

상하 질서를 절로 들여오는 까닭이나 사정, 곧 어떤 민간의 제도보다 앞서 절로 어떤 사람을 제 형제들 태반보다 얼마쯤 높은 데에 두는 까닭이나 사정은 네 가지인 듯하다.

그 까닭이나 사정의 첫째는 개인의 자질이 나은 것이니, 몸의 힘과 아름다움과 날램, 마음의 슬기와 덕, 조심성과 정의와 굳셈과 절제가 그것이다. 몸의 자질은 마음의 자질에 떠받쳐지지 않는 한 사회의 어느 시기에도 큰 권위를 줄 수 없다. 오직 몸의 힘만으로 약한 두 사람을 억눌러 제게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힘센 사람이다. 아주 큰 권위를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자질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질이어서 언제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흔히 다툼이 벌어진다. 야만한 사회든 문명된 사회든 자리의 앞뒤와 상하의 규칙을 그런 보이지 않는 성질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마땅하다 여긴 적은 없고, 더 뚜렷하고 손에 잡히는 무엇에 따라 정해 왔다.

그 까닭이나 사정의 둘째는 나이가 많은 것이다. 늙은이는 그 나이가 망령을 의심할 만큼 많지만 않다면 어디서나 자리와 재산과 재주가 같은 젊은이보다 더 받들어진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처럼 사냥으로 사는 민족 사이에서는 나이가 자리와 앞뒤를 가르는 오직 하나의 바탕이다. 그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형제는 같은 자리의 사람을, 아들은 아랫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가장 넉넉하고 문명된 민족에서도 다른 모든 모로 같은 이들 사이에서, 따라서 달리 자리를 가를 것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자리를 가른다. 형제 사이에서나 자매 사이에서나 맏이가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을 때에도 명예로운 칭호처럼 나눌 수 없어 한 사람에게 온전히 가야 하는 것은 대개 맏이에게 돌아간다. 나이는 뚜렷하고 손에 잡히는 성질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 까닭이나 사정의 셋째는 재산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부의 권위는 사회의 어느 시대에나 크기는 하나, 재산에 웬만큼 큰 고르지 못함이 있는 사회 가운데 가장 거친 시대에 아마 가장 클 것이다. 늘어나는 양 떼와 소 떼로 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타타르의 우두머리는 그 늘어남을 천 명을 먹여 살리는 것 말고 달리 쓸 길이 거의 없다. 그 사회의 거친 형편은 제가 쓰고 남는 원생산물을 맞바꿀 만한 어떤 제조품도, 어떤 노리개나 장식물도 그에게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가 그리하여 먹여 살리는 천 명은 생계를 온전히 그에게 기대므로 전시에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평시에는 그의 재판에 따라야 한다. 그는 반드시 그들의 장군이자 판관이며, 그의 우두머리 자리는 그의 재산이 나은 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결과다. 넉넉하고 문명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훨씬 큰 재산을 지니고도 열댓 사람조차 부리지 못할 수 있다. 그의 땅이 낸 생산물이 천 명 넘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넉넉하고 아마 실제로 그만큼을 먹여 살릴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에게서 얻는 것마다 값을 치르고 그는 맞먹는 것을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주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저를 온전히 그에게 매였다고 여기는 이가 거의 없고 그의 권위는 몇몇 집안 하인에게밖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의 권위는 넉넉하고 문명된 사회에서도 아주 크다. 그것이 나이의 권위보다도 개인의 자질의 권위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은 재산에 웬만큼 큰 고르지 못함이 있던 사회의 어느 시기에나 한결같이 터져 나온 푸념이었다. 사회의 첫 시기인 사냥꾼의 시기는 그런 고르지 못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루 미치는 가난이 그들의 두루 미치는 고름을 세우고, 나이가 낫거나 개인의 자질이 나은 것이 권위와 상하 질서의 여리지만 오직 하나뿐인 바탕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이 시기에는 권위도 상하 질서도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사회의 둘째 시기인 양치기의 시기는 재산에 아주 큰 고르지 못함을 허락하며, 재산이 나은 것이 그것을 지닌

이에게 이만큼 큰 권위를 주는 시기는 달리 없다. 따라서 권위와 상하 질서가 이보다 더 온전히 자리 잡은 시기도 없다. 아라비아의 셰리프의 권위는 아주 크고, 타타르의 칸의 권위는 아주 전제로운 것이다.

그 까닭이나 사정의 넷째는 태생이 나은 것이다. 태생이 낫다는 것은 그것을 내세우는 이의 집안에 재산이 나은 내력이 오래되었음을 앞세운다. 모든 집안은 똑같이 오래되었으니, 군주의 조상이 거지의 조상보다 더 잘 알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더 많을 수는 없다. 집안이 오래되었다 함은 어디서나 부가 오래되었거나 흔히 부 위에 세워지거나 부를 거느리는 저 큼이 오래되었음을 뜻한다. 벼락출세한 큼은 어디서나 오래된 큼보다 덜 받들어진다. 왕위를 빼앗은 이에 대한 미움과 오래된 군주의 집안에 대한 사랑은 앞의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절로 품는 업신여김과 뒤의 것에 대한 우러름에 크게 뿌리를 둔다. 군사의 장교는 늘 저를 지휘해 온 윗사람의 권위에는 마다하지 않고 굽히나 제 아랫사람이 제 위에 놓이는 것은 견디지 못하듯, 사람들은 저와 제 조상이 늘 굽혀 온 집안에는 쉽게 굽히나 그런 나음을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다른 집안이 저를 다스리려 들면 분노로 타오른다.

태생의 가름은 재산의 고르지 못함보다 뒤에 오는 것이므로 사냥으로 사는 민족에게는 자리 잡을 수 없으니, 그들 사이에서는 사람마다 재산이 고르므로 태생 또한 거의 고를 수밖에 없다. 참으로 그들 사이에서도 슬기롭고 씩씩한 사람의 아들이 못난이나 겁쟁이의 아들이 되는 불행을 겪은, 공로가 같은 사람보다 얼마쯤 더 받들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다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슬기와 덕을 물려받은 것만으로 빛을 얻은 큰 집안은 내가 믿기로 한 번도 없었다.

태생의 가름은 양 치는 민족 사이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자리 잡는다. 그런 민족은 온갖 사치를 늘 낯설어하며, 큰 부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헤픔으로 흩어지는 일이 그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없다. 따라서 크고 빛나는 조상의 긴 핏줄에서 나왔다 하여 받들어지고 기려지는 집안이 그들보다 많은 민족은 없으니, 부가 같은 집안에 더 오래 머물기 쉬운 민족이 그들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태생과 재산이야말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 두 가지 사정임이 뚜렷하다. 그 둘은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두 큰 샘이며,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권위와 상하 질서를 절로 세우는 주된 까닭이다. 양 치는 민족 사이에서는 그 두 까닭이 온 힘으로 움직인다. 큰 부 덕분에, 또 생계를 제게 기대는 사람이 많은 덕분에 받들어지고, 태생이 귀한 덕분에, 또 그 빛나는 집안이 아득히 오래된 덕분에 우러름을 받는 큰 양치기 곧 목자는 제 무리나 씨족의 모든 아랫자리 양치기와 목자 위에 타고난 권위를 지닌다. 그는 그들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 부릴 수 있다. 그의 군사의 힘은 그들 누구의 것보다 크다. 전시에 그들은 모두 다른 누구의 깃발 아래보다 그의 깃발 아래 모이려는 마음이 절로 들며, 그리하여 그의 태생과 재산이 절로 그에게 얼마쯤의 집행하는 권력을 마련해 준다. 또 그들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 부리므로, 그는 남에게 해를 입힌 이가 누구든 그 잘못을 갚게 다그치기에 가장 알맞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에 너무 약한 이들이 모두 절로 우러러 지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들이 제가 입었다고 여기는 해를 하소연하는 상대도 절로 그가 되고, 그런 경우 그가 끼어드는 것은 하소연을 받은 쪽조차 다른 누구가 끼어드는 것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그의 태생과 재산이 절로 그에게 얼마쯤의 재판하는 권위를 마련해 준다.

재산의 고르지 못함이 처음 자리 잡아 그전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얼마간의 권위와 상하 질서를 사람들 사이에 들여오는 것은 양치기의 시대, 곧 사회의 둘째 시기에 이르러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제 목숨을 이어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저 민간 정부를 얼마쯤 들여오며,

그 일을 절로, 그런 필요를 헤아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해내는 듯하다. 그런 필요를 헤아리는 일은 의심할 바 없이 뒤에 와서 그 권위와 상하 질서를 지키고 든든하게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 가운데에도 가진 이들은 오직 그런 질서만이 제 이로움을 지닌 채로 저를 지켜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떠받칠 이해를 지닌다. 부가 적은 이들은 부가 많은 이들이 제 재산을 지니는 것을 지켜 주려고 뭉치는데, 그것은 부가 많은 이들이 저희가 제 것을 지니는 것을 지켜 주려고 뭉치게 하려는 뜻이다. 아랫자리 양치기와 목자는 모두 제 소 떼와 양 떼의 든든함이 큰 양치기 곧 목자의 소 떼와 양 떼의 든든함에 달렸음을, 제 작은 권위를 지키는 일이 그의 큰 권위를 지키는 일에 달렸음을, 그리고 저희가 그에게 굽히는 데에 저희 아랫사람을 저희에게 굽히게 하는 그의 힘이 달렸음을 느낀다. 그들은 일종의 작은 귀족을 이루어, 제 작은 주권자가 제 재산을 지켜 주고 제 권위를 떠받쳐 줄 수 있게 하려고 그의 재산을 지키고 그의 권위를 떠받칠 이해를 스스로 느낀다. 민간 정부는 재산의 든든함을 위하여 세워진 한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이에 맞서 가멸진 이를 지키려고, 곧 아무 재산도 없는 이에 맞서 얼마간의 재산이 있는 이를 지키려고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권자의 재판하는 권위는 비용을 부르기는커녕 오랫동안 그에게 수입의 샘이었다. 그에게 정의를 구하러 오는 이들은 언제나 그 값을 치르려 하였고, 하소연에는 예물이 따르지 않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주권자의 권위가 온전히 자리 잡은 뒤로는, 잘못이 드러난 이가 상대에게 갚아야 하는 것 말고도 주권자에게 벌금을 물어야 하였다. 그가 번거로움을 끼쳤고, 그가 어지럽혔으며, 그가 제 주인인 국왕의 평온을 깨뜨렸으니 그 잘못에는 벌금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아시아의 타타르 정부에서도,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게르만과 스키타이 민족이 세운 유럽의 정부에서도 재판을 베푸는 일은

주권자에게나 그 아래에서 어느 부족이나 씨족을 다스리거나 어느 땅이나 고장을 다스리는 재판권을 누린 모든 작은 우두머리와 영주에게나 자못 큰 수입의 샘이었다. 본디 주권자도 아랫자리 우두머리도 이 재판권을 제 몸으로 행하곤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어디서나 그것을 어떤 대리인이나 대관이나 판관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대리인은 그래도 제 주인이나 저를 세운 이에게 재판권이 낸 이익의 셈을 바쳐야 하였다. 헨리 2세 때 순회하는 판관에게 내린 훈령을(그것은 튀롤의 『잉글랜드사』에 실려 있다) 읽는 이라면 누구나 그 판관들이 국왕의 세입 가운데 몇몇 갈래를 걷으려고 나라 안을 돌게 한 일종의 떠돌이 대리인이었음을 또렷이 알 것이다. 그 시절에 재판을 베푸는 일은 주권자에게 얼마간의 수입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수입을 얻는 것이 그가 재판을 베풂으로써 얻으려 한 주된 이로움의 하나였던 듯하다.

재판을 베푸는 일을 수입의 목적에 딸리게 하는 이 얼개는 아주 거친 폐단을 여럿 낳지 않을 수 없었다. 큰 예물을 손에 들고 정의를 구하러 온 사람은 정의보다 많은 것을 얻기 쉬웠고, 작은 예물을 들고 온 사람은 정의보다 적은 것을 얻기 쉬웠다. 게다가 이 예물을 되풀이 받으려고 재판이 자주 미루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소연을 받은 이가 무는 벌금은 그가 실제로는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잘못한 쪽으로 판가름할 아주 든든한 까닭이 되는 일이 잦았다. 그런 폐단이 결코 드물지 않았음은 유럽 어느 나라의 옛 역사나 증언한다.

주권자나 우두머리가 재판하는 권위를 제 몸으로 행할 때에는 그가 그것을 아무리 함부로 썼더라도 바로잡기가 거의 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에게 셈을 물을 만큼 힘센 이가 있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대관을 시켜 그것을 행할 때에는 참으로 더러 바로잡을 수 있었다. 대관이 오직 제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저질렀다면

주권자 자신이 그를 벌하거나 그 잘못을 갚게 하기를 늘 마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 주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저를 세웠고 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이에게 잘 보이려고 억누름을 저지른 것이었다면, 바로잡는 일은 대개 주권자 자신이 저지른 때와 마찬가지로 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야만한 정부에서, 그 가운데에도 로마 제국의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진 유럽의 저 옛 정부들에서 재판을 베푸는 일은 오랫동안 몹시 썩어 있었던 듯하니, 가장 나은 군주 아래에서도 결코 고르고 치우침 없지 못하였고 가장 못된 군주 아래에서는 아주 막되었다.

양 치는 민족 사이에서 주권자나 우두머리는 무리나 씨족의 가장 큰 양치기 곧 목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 가신이나 신민과 똑같이 제 소 떼와 양 떼가 늘어나는 것으로 건사된다. 양치기의 형편에서 이제 막 벗어나 그 형편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한 농사꾼의 민족, 이를테면 트로이 싸움 무렵의 그리스 부족들이나 서쪽 제국의 무너진 터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의 게르만과 스키타이의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듯한 민족 사이에서도, 주권자나 우두머리는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가장 큰 지주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지주와 똑같이 제 사사로운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곧 오늘날 유럽에서 왕실 직영지라 일컫던 것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건사된다. 그의 신민은 여느 때에는 그를 떠받치는 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며, 다만 같은 신민 가운데 누구의 억누름에서 저를 지키려고 그의 권위가 있어야 할 때에만 보탤 뿐이다. 그런 때에 그들이 그에게 바치는 예물이 그가 그들을 다스림에서 얻는 여느 수입의 전부, 곧 벌이의 전부를 이루며, 아주 남다른 급한 일이 있을 때라야 그 밖의 것이 있을 뿐이다. 호메로스에서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그 우의를 얻으려고 그리스 일곱 도시의 주권을 내놓을 때, 거기서 얻을 만한 이로움으로 그가 든 오직 하나는 백성이 그를 예물로 기리리라는

것이었다. 그런 예물이, 그리고 재판의 벌이 곧 이른바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주권자가 제 주권에서 얻는 여느 수입의 전부를 이루는 동안에는, 그가 그것을 아주 내놓으리라고 바랄 수도 없었고 그리하라고 내놓고 말하기도 점잖지 못하였다. 그가 그것을 정하고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은 나올 수 있었고 실제로 자주 나왔다. 그러나 그렇게 정하고 못 박은 뒤에도, 못 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정한 바를 넘어 그것을 늘리는 일을 어떻게 막을지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몹시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예물이 제멋대로이고 못 박히지 않은 데에서 절로 나오는 재판의 썩음을 이렇다 할 방도로 고칠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러 까닭으로, 그 가운데에도 주로 다른 나라의 침입에서 나라를 지키는 비용이 내처 커진 탓으로 주권자의 사사로운 땅이 주권을 행하는 비용을 대기에 아주 모자라게 되고, 백성이 제 든든함을 위하여 여러 갈래의 세금으로 이 비용에 보태야 하게 되자, 재판을 베푸는 일에 대한 예물은 어떤 핑계로도 주권자도 그의 대관이나 대리인인 판관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 일이 아주 흔해졌던 듯하다. 그런 예물은 이렇다 할 방도로 정하고 못 박기보다 아주 없애기가 더 쉬우리라고 여겼던 듯하다. 판관에게는 못 박힌 봉급이 매겨졌으니, 세금이 주권자에게 그가 잃은 것을 넘치게 갚아 준 것처럼 그 봉급은 판관에게 옛 재판의 벌이 가운데 제 몫이었을 것을 잃은 데 대한 갚음이 되리라 여겨졌다. 그때부터 정의는 거저 베풀어진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정의가 어느 나라에서도 참으로 거저 베풀어진 적은 없다. 적어도 법률가와 소송 대리인은 언제나 당사자가 삯을 치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도 제 일을 더 못할 것이다. 법률가와 소송 대리인에게 해마다 치러지는 삯은 어느 법정에서나 판관의 봉급을 크게 웃도는 액수에 이른다. 그 봉급을 왕실이 치른다는

사정이 소송에 드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을 어디서도 크게 줄여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판관이 당사자에게서 어떤 예물이나 삯도 받지 못하게 막은 것은 비용을 줄이려 함이라기보다 재판이 썩는 것을 막으려 함이었다.

판관의 자리는 그 자체로 아주 명예로운 것이어서 벌이가 아주 적더라도 사람들이 기꺼이 맡으려 한다. 그보다 아랫자리인 치안 판사의 자리는 번거로움이 자못 많고 대개 벌이가 도무지 없는데도 우리 시골 지주 태반이 탐내는 자리다. 높고 낮은 모든 판관의 봉급과 재판을 베풀고 집행하는 온 비용을 합쳐도, 그것을 그리 알뜰히 꾸리지 않는 곳에서조차 문명된 나라라면 정부의 온 비용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몫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판의 온 비용은 법정 수수료로 쉽게 댈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면 재판을 베푸는 일을 썩을 참된 위험에 내놓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세입을 얼마쯤의, 아마 작기는 하나 얼마쯤의 짐에서 아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만큼 힘센 이가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제 수입의 자못 큰 몫을 거기서 얻는 곳에서는 법정 수수료를 이렇다 할 방도로 정하기가 어렵다. 판관이 거기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주된 사람인 곳에서는 아주 쉽다. 법이 판관에게 그 정한 바를 지키게 하기는 아주 쉬우나 주권자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기는 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정 수수료가 낱낱이 정해지고 굳어진 곳, 그것이 소송마다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출납을 맡은 이나 받는 이의 손에 치러져 소송이 판가름 난 뒤에야, 그리고 판가름 나기 전에는 결코, 그의 손으로 여러 판관 사이에 알려진 비율대로 나뉘는 곳에서는 그런 수수료를 아주 막은 때보다 썩을 위험이 더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수수료는 소송의 비용을 자못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판의 온 비용을 대기에 아주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송이 판가름

나기까지는 판관에게 치러지지 않으므로 법정이 그것을 살피고 판가름하는 데에 부지런하도록 얼마쯤 돋울 수도 있을 것이다. 판관의 수가 자못 많은 법정에서는 판관마다의 몫을 그가 법정에서든 법정의 명으로 위원회에서든 그 소송을 살피는 데에 쓴 시간과 날수에 견주어 매김으로써 그런 수수료가 판관 하나하나의 부지런함을 얼마쯤 북돋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의 일은 그 갚음이 오직 그 일을 해낸 뒤에야 오고 그 일을 해내는 데에 쏟은 부지런함에 견주어 매겨질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프랑스의 여러 고등법원[14]에서는 이른바 에피스와 바카시옹이라는 법정 수수료가 판관이 얻는 벌이의 훨씬 큰 몫을 이룬다. 온갖 공제를 다 하고 나면, 자리와 위엄으로 그 나라에서 둘째가는 고등법원인 툴루즈 고등법원의 평정관이나 판관이 왕실에서 받는 순 봉급은 한 해 150리브르, 곧 스털링으로 6파운드 11실링쯤에 지나지 않는다. 7년쯤 전에 그 액수는 같은 곳에서 여느 하인이 받는 한 해 임금이었다. 게다가 이 에피스를 나누는 일도 판관이 부지런한 정도를 따른다. 부지런한 판관은 제 자리에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편안한 수입을 얻고, 게으른 판관은 제 봉급보다 얼마 더 얻지 못한다. 그 고등법원들은 아마 여러 모로 그리 편리한 재판의 법정이 아닐지 모르나, 썩었다는 나무람을 받은 적이 없고 의심조차 받은 적이 없는 듯하다.

잉글랜드에서는 법정 수수료가 본디 여러 재판 법정을 떠받치는 주된 밑천이었던 듯하다. 법정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제게 끌어오려 애썼고, 그 때문에 본디 제 재판권에 들 것이 아니었던 숱한 소송도 기꺼이 맡으려 하였다. 형사 사건만 다루려고 세워진 왕좌 법원[15]이 민사 소송을 맡았으니, 피고가 저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아 얼마간의 불법 침해나 가벼운 죄를 저질렀다고 원고가 둘러댄 것이다. 국왕의 세입을 걷고 오직 국왕에게 진 빚만 치르게 하려고 세워진 재무 법원이 그 밖의

모든 계약의 빚을 맡았으니, 피고가 저에게 갚지 않아 저도 국왕에게 갚을 수 없다고 원고가 둘러댄 것이다. 이런 꾸밈 덕분에 어느 법정에서 제 사건을 다루게 할지가 온전히 당사자에게 달린 경우가 많아졌고, 법정마다 더 빠르고 더 치우침 없는 처리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건을 제게 끌어오려 애썼다. 오늘날 잉글랜드 재판 법정의 훌륭한 얼개는 아마 본디 저마다의 판관 사이에 옛날에 벌어졌던 이 겨룸이 크게 빚어낸 것이며, 판관마다 온갖 불의에 대하여 법이 허락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이렇다 할 구제를 제 법정에서 주려고 애썼던 것이다. 본디 보통법 법정은 계약을 어긴 데 대하여 손해의 갚음만 매겼다. 양심의 법정인 대법관 법원이 약정한 그대로 이행하게 다그치는 일을 처음 떠맡았다. 계약을 어긴 것이 돈을 치르지 않은 것일 때에는 입은 손해를 치르라고 명하는 것 말고는 달리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것은 약정한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과 매한가지였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보통법 법정의 구제로 넉넉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차지인이 제 영주가 저를 차지 계약에서 부당하게 내쫓았다 하여 그를 걸어 소송할 때, 그가 되찾은 손해의 갚음은 그 땅을 지니는 것과 결코 맞먹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런 사건은 얼마 동안 모두 대법관 법원으로 갔고, 보통법 법정은 적잖이 밑졌다. 보통법 법정이 그런 사건을 제게로 도로 끌어오려고 땅을 부당하게 내놓게 하거나 빼앗는 데 대한 가장 이렇다 할 구제인, 꾸며 만든 퇴거 영장을 지어냈다고 전한다.

---

1. 옮긴이 — 바다절임(sea-sticks)은 바다에서 잡아 배 위에서 곧바로 소금에 절여 담은 청어를 말한다. 뭍에서 다시 골라 가득 채워 담은 배럴의 3분의 2로 쳤다. 저본은 이 자리를 Sea-sricks로 찍었으나 뒤에 나오는 Sea-sticks와 같은 말이다.

2.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회계의 세 칸은 차례로 파운드와 실링과 펜스를 적은 것이다.

3. 옮긴이 — 부셸은 곡물과 소금을 재던 부피 단위다. 부피가 같아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랐으므로, 이 부록의 끝에서 스미스가 외국 소금과 영국 소금의 한 부셸 무게를 따로 적어 둔 것이다.

4. 옮긴이 — 바로 앞의 0파운드 11실링 3¾펜스에 0파운드 3실링 0펜스를 더하면 0파운드 14실링 3¾펜스가 되나, 저본에는 1파운드 14실링 3¾펜스로 찍혀 있다. 회계에 실린 숫자이므로 저본대로 두었다.

5. 옮긴이 — 베이이는 로마 북쪽의 에트루리아 도시로, 로마가 여러 해 에워싼 끝에 기원전 396년에 함락하였다.

6. 옮긴이 — 《국부론》은 1776년에 처음 나왔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그때 한창이던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 전쟁이다.

7. 옮긴이 —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기원전 382~336)이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다.

8. 옮긴이 — 하밀카르 바르카(기원전 275?~228)와 그 사위 하스드루발(기원전 270?~221)과 그 아들 한니발(기원전 247~183?)이다. 뒤에 나오는 「작은 하스드루발」은 한니발의 아우다.

9. 옮긴이 —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기원전 236~183)이고, 자마의 싸움은 기원전 202년에 있었다.

10. 옮긴이 — 폰토스의 국왕 미트리다테스 6세(기원전 135~63)를 말한다.

11. 옮긴이 — 1739년에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터진 싸움을 말한다. 카르타헤나는 오늘날 콜롬비아에 있는 스페인령 항구로, 1741년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12. 옮긴이 — 표트르 1세(1672~1725, 재위 1682~1725)를 말한다.

13. 옮긴이 — 장기 의회는 1640년에 모인 잉글랜드 의회이며,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이 1653년에 군대를 이끌고 그 남은 의원들을 흩었다.

14. 옮긴이 — 프랑스의 고등법원(parlement)은 의회가 아니라 국왕의 재판소이며 파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 있었다. 에피스와 바카시옹은 소송 당사자가 판관에게 치르던 수수료이고, 리브르는 당시 프랑스의 셈 단위 화폐다.

15. 옮긴이 — 왕좌 법원과 재무 법원은 보통법을 다루던 잉글랜드의 법정이고, 대법관 법원은 보통법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를 형평으로 메우던 법정이다. 퇴거 영장은 땅을 부당하게 빼앗긴 이가 그 땅을 되찾도록 마련된 소송의 꼴이다.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이어서)

저마다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 절차에 인지세를 매겨 그 법정이 스스로 거두고 거기에 딸린 재판관과 그 밖의 관원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쓴다면, 그것 또한 사회의 일반 세입에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법 행정의 비용을 대기에 넉넉한 수입을 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이 경우에 재판관들은 그러한 인지세에서 나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려고 사건마다 절차를 쓸데없이 불리려는 유혹에 놓일지도 모른다. 요사이 유럽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변호사와 법정 서기가 받을 삯을 그들이 써야 했던 쪽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다만 법정은 한 쪽에 몇 줄이 들어가고 한 줄에 몇 낱말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해 두었다. 제가 받을 삯을 늘리려고 변호사와 서기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낱말을 불리는 재주를 부려 왔고, 그리하여 내가 믿기로는 유럽의 모든 법정에서 법률 용어가 썩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유혹이 어쩌면 소송 절차의 꼴에서도 이와 비슷한 썩음을 불러올지 모른다.

그러나 사법 행정이 제 비용을 스스로 대도록 짜이든, 아니면 재판관이 어떤 다른 기금에서 나오는 정해진 봉급으로 먹고살든, 집행권을 맡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그 기금을 꾸리는 일이나 그 봉급을 치르는 일까지 떠맡아야 할 까닭은 없어 보인다.[1] 그 기금은 토지 재산의 지대에서 나올 수도 있을 터인데, 그 경우 재산 하나하나를 꾸리는 일은 그것으로 먹고살 바로 그 법정에 맡기면 된다. 그 기금은 어떤 목돈의

이자에서 나올 수도 있을 터인데, 그 돈을 빌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먹고살 법정에 맡기면 된다. 스코틀랜드 민사 대법정 재판관들의 봉급 가운데 얼마가, 참으로 아주 적은 몫이기는 하나, 어떤 목돈의 이자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기금이 반드시 지니게 마련인 흔들림은, 영원히 이어져야 할 기관을 떠받치기에 그것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듯하다.

사법권이 집행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본디 사회가 나아짐에 따라 그 일거리가 늘어난 데에서 비롯한 듯하다. 사법 행정은 어찌나 힘들고 얽힌 직무가 되었던지 그것을 맡은 사람이 온 마음을 거기에만 쏟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집행권을 맡은 사람은 사사로운 사건을 판결하는 데에 제 손으로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으므로, 그를 대신해 그것을 판결하도록 대리인을 세웠다. 로마가 커 가는 동안 집정관은 나라의 정치 일로 너무 바빠 사법 행정에 마음을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대신해 그것을 맡아볼 법무관을 세웠다. 로마 제국의 잔해 위에 세워진 유럽 여러 군주국이 나아가는 동안, 주권자와 큰 영주들은 어디서나 사법 행정을 제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천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디서나 대리인이나 집행리나 재판관을 세워 그 일에서 제 몸을 벗어 놓았다.

사법권이 집행권과 하나로 묶이면, 흔히 정치라 부르는 것에 정의가 자주 제물로 바쳐지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나라의 큰 이해를 맡은 사람들은 썩은 속셈이 조금도 없더라도 어떤 때에는 그 이해를 위하여 사사로운 사람의 권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사람 하나하나의 자유는, 곧 제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치우치지 않은 사법 행정에 달려 있다. 사람마다 저에게 딸린 온갖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 대하여 제 몸이 아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사법권이 집행권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그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그 권력에서 벗어나 홀로 서게 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그 권력의 변덕에 따라 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의 봉급이 제때 나오는 것이 그 권력의 호의에, 아니 그 권력의 살림 솜씨에조차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3절 — 공공 사업과 공공 기관의 비용에 대하여

주권자 곧 국가의 셋째이자 마지막 직무는, 큰 사회에는 더없이 이로울지 몰라도 그 성질로 보아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게는 그 이윤이 그 비용을 결코 갚아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그것을 세우거나 떠받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공공 기관과 공공 사업을 세우고 떠받치는 일이다. 게다가 이 직무를 해내는 데에도 사회의 시기마다 아주 다른 크기의 비용이 든다.

사회를 지키는 데에 필요한 공공 기관과 공공 사업, 그리고 사법 행정에 필요한 그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으니, 이 갈래에 드는 나머지 사업과 기관은 주로 사회의 상업을 돕기 위한 것과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다. 가르치기 위한 기관에는 두 갈래가 있으니, 젊은이를 교육하기 위한 것과 온갖 나이의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갈래의 공공 사업과 기관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대는 것이 가장 마땅한가를 따지는 일이 이 장의 셋째 절을 세 항으로 가를 것이다.

1항 — 사회의 상업을 돕는 공공 사업과 기관에 대하여

그리고 먼저, 상업 일반을 돕는 데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좋은 길이나 다리나 배가 다니는 운하나 항구 따위처럼 어느 나라의 상업을 돕는 공공 사업을 세우고 떠받치는 데에 사회의 시기마다 아주

다른 크기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뚜렷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 도로를 내고 떠받치는 비용은 그 나라 토지와 노동의 한 해 생산물과 더불어, 곧 그 길 위로 실어 가고 실어 와야 하게 되는 물건의 양과 무게와 더불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리의 튼튼함은 그 위를 지나기 쉬운 수레의 수와 무게에 알맞아야 한다. 배가 다니는 운하의 깊이와 물을 대는 양은 그 위로 물건을 나르기 쉬운 거룻배의 수와 톤수에 어울려야 하고, 항구의 넓이는 그 안에 몸을 피하기 쉬운 배의 수에 어울려야 한다.

그러한 공공 사업의 비용을 흔히 공공 세입이라 부르는 것, 곧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두고 쓰는 일이 집행권에 맡겨져 있는 그것에서 대어야 할 까닭은 없어 보인다. 그러한 공공 사업은 그 대부분이 사회의 일반 세입에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으면서 제 비용을 대기에 넉넉한 별도의 수입을 내어 주도록 손쉽게 꾸려질 수 있다.

이를테면 큰길과 다리와 배가 다니는 운하는 대개의 경우 그것을 쓰는 수레에 매기는 적은 통행료로 내기도 하고 떠받치기도 할 수 있으며, 항구는 그 안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배의 톤수에 매기는 알맞은 항구세로 그럴 수 있다. 상업을 돕는 또 하나의 기관인 화폐 주조는 많은 나라에서 제 비용을 댈 뿐만 아니라 주권자에게 적은 세입, 곧 주조 수수료까지 내어 준다. 같은 목적을 지닌 또 하나의 기관인 우편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 비용을 대고도 남아 주권자에게 아주 제법 큰 세입을 내어 준다.

큰길이나 다리 위를 지나는 수레와 배가 다니는 운하 위를 떠가는 거룻배가 제 무게나 톤수에 따라 통행료를 치를 때, 그들은 저희가 그 공공 사업에 입히는 닳고 해어짐에 꼭 맞추어 그것을 떠받치는 값을 치르는 셈이다. 그러한 사업을 떠받치는 데에 이보다 더 공평한 길을 생각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이 세 또는 통행료는 짐

나르는 이가 먼저 내놓기는 하여도 마침내는 물건 쓰는 이가 치르는데, 그것이 언제나 물건 값에 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공 사업 덕분에 나르는 비용이 아주 많이 줄어들므로, 통행료를 물더라도 물건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물건 쓰는 이에게 헐하게 이르니, 통행료 때문에 값이 오르는 것보다 나르는 값이 싸져서 값이 내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세를 치르는 사람은 그것을 치름으로써 잃는 것보다 그 쓰임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그가 치르는 것은 그가 얻는 것에 꼭 맞추어져 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나머지를 얻으려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얻음의 한 조각일 뿐이다. 세를 걷는 길 가운데 이보다 더 공평한 것은 떠올릴 수 없을 듯하다. 마차나 역마차 따위처럼 사치를 위한 수레에 매기는 통행료를 짐수레나 큰 짐수레 따위처럼 꼭 있어야 할 수레에 매기는 것보다 그 무게에 견주어 얼마쯤 높게 매기면, 무거운 물건을 나라 곳곳으로 나르는 값을 싸게 함으로써 부자의 게으름과 허영이 아주 손쉽게 가난한 이를 돕는 데에 한몫을 하게 된다.

큰길과 다리와 운하 따위가 이처럼 그것을 빌려 이루어지는 상업으로 만들어지고 떠받쳐지면, 그것은 그 상업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만,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곳에만 만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그 비용도, 그 크고 으리으리함도 그 상업이 치를 수 있는 만큼에 알맞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만드는 것이 마땅한 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상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쓸쓸한 고장에, 또는 그저 그 길이 마침 지방 감독관의 시골 별장이나 그 감독관이 비위를 맞추기에 좋다고 여기는 어떤 큰 영주의 별장으로 이어진다는 까닭으로 으리으리한 큰길을 낼 수는 없다. 아무도 건너지 않는 자리에, 또는 그저 이웃한 궁전의 창에서 내다보는 경치를 꾸미려고 강 위에 큰 다리를 놓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은 이 갈래의 사업이 그것 스스로 내어 줄 수 있는 수입이 아닌 다른 세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이따금 벌어진다.

유럽의 여러 곳에서 운하에 매기는 통행료 또는 갑문세는 사사로운 사람들의 재산이며, 그들의 사사로운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그 운하를 건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이 웬만한 꼴로 건사되지 않으면 배가 다니는 일이 아주 그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통행료로 얻을 수 있는 이윤도 몽땅 그친다. 그 통행료를 그것에 아무 이해도 걸려 있지 않은 관리 위원들의 손에 맡긴다면, 그들은 그 통행료를 낳는 사업을 건사하는 데에 마음을 덜 쓸지도 모른다. 랑그도크운하는 프랑스 국왕과 그 지방에 1,300만 리브르 넘게 들었는데, 이는 (은 1마르크에 28리브르로 쳐서, 곧 지난 세기 끝 무렵 프랑스 화폐의 값으로 쳐서) 9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 액수였다.[2] 그 큰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것을 늘 손보아 두는 가장 있음 직한 길은 그 사업을 꾸미고 이끈 기사 리케에게 그 통행료를 선물로 주는 것임이 드러났다. 그 통행료는 지금 그 사람의 집안 여러 갈래에 아주 큰 재산을 이루고 있으니,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사업을 늘 손보아 둘 큰 이해가 걸려 있다. 그러나 그 통행료가 그러한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관리 위원들의 손에 맡겨졌더라면, 어쩌면 그것은 겉치레에 쓰이는 쓸데없는 비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사업에서 가장 요긴한 곳은 무너지도록 내버려졌을지도 모른다.

큰길을 떠받치기 위한 통행료는 사사로운 사람들의 재산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큰길은 아주 내버려 두어도 아예 지날 수 없게 되지는 않으나 운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큰길의 통행료를 지닌 임자들은 그 길을 손보는 일을 아주 내버려 두고도 거의 같은 통행료를 계속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업을 떠받치기 위한 통행료는 관리 위원이나 수탁 관리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국에서는 그러한 통행료를 꾸리면서 수탁 관리인들이 저지른 남용을 두고 많은 경우에 아주 마땅한 불평이 나왔다. 여러 유료 도로 관문에서 거두는 돈이 해야 할 일을 더없이 온전하게 해내는 데에 필요한 것의 곱절이 넘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일은 흔히 아주 엉성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때에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갈래의 통행료로 큰길을 손보는 얼개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님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직 이를 수 있어 보이는 만큼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변변치 못하고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수탁 관리인으로 자주 세워진다면, 또 그들이 하는 일을 다잡고 통행료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내기에 겨우 넉넉할 만큼으로 줄이기 위한 알맞은 감사 법정과 회계 법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흠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변명해 주기도 하며, 그 흠의 대부분은 의회의 슬기로 때가 되면 차츰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여러 유료 도로 관문에서 거두는 돈은 길을 손보는 데에 필요한 것을 어찌나 넘어서는지, 살림을 알맞게 꾸리면 거기서 아낄 수 있을 것이 언젠가는 나라의 급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아주 큰 밑천이라고 몇몇 대신들조차 여겨 왔다. 정부가 유료 도로를 꾸리는 일을 제 손에 넣고 제 삯에 아주 조금만 얹어 주면 일할 병사들을 부린다면, 삯에서 제 생계를 몽땅 얻는 일꾼 말고는 달리 부릴 사람이 없는 수탁 관리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길을 좋은 꼴로 건사할 수 있으리라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백성에게 새 짐을 조금도 지우지 않고 큰 세입을, 어쩌면 50만 파운드를(이 책의 첫 두 판을 낸 뒤로 나는 영국에서 거두는 유료 도로 통행료를 다 합하여도 50만 파운드에 이르는 순수입은 나오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까닭을 얻었다. 그 액수는 정부가 꾸린다면 이 왕국의 주요한 길 다섯을 손보아 두기에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얻을 수 있다고들 내세웠고, 유료 도로는 지금 우편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일반 비용에 한몫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3]

이렇게 하여 제법 큰 세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나도 의심하지 않으나, 아마 이 계획을 꾸민 이들이 헤아린 것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계획 자체에는 아주 중요한 반론이 여럿 걸릴 듯하다.

첫째, 유료 도로 관문에서 거두는 통행료가 언젠가 나라의 급한 일을 채우는 밑천의 하나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 급한 일이 요구한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것은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정책으로 보아 그것은 아마 아주 빠르게 늘어나리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큰 세입을 손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행정부로 하여금 이 밑천에 아주 자주 손을 뻗게 만들 것이다. 지금의 통행료에서 어떤 살림 솜씨로든 5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을지는 어쩌면 자못 의심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을 곱절로 올리면 거기서 10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고 어쩌면 세 곱절로 올리면 20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수 없다(나는 이제 이렇게 어림한 액수가 모두 훨씬 지나치게 크다고 믿을 만한 까닭을 얻었다).[4] 게다가 이 큰 세입은 그것을 거두고 받을 관원을 하나도 새로 세우지 않고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유료 도로 통행료가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지금처럼 그 나라의 내륙 상업을 돕기는커녕 이내 그 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온갖 무거운 물건을 나라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르는 비용이 이내 아주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물건의 시장이 이내 아주 많이 좁아져, 그 생산이 크게 움츠러들고 그 나라 국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갈래들이 아주 결딴나 버릴 것이다.

둘째, 수레에 그 무게에 따라 매기는 세는 길을 손보는 오직 그 목적에만 쓰일 때에는 아주 고른 세이지만, 다른 어떤 목적에 쓰이거나

나라의 예사로운 급한 일을 채우는 데에 쓰일 때에는 아주 고르지 못한 세가 된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오직 그 목적에만 쓰일 때에는 수레마다 저희가 길에 입히는 닳고 해어짐에 꼭 맞추어 치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어떤 목적에 쓰일 때에는 수레마다 그 닳고 해어짐보다 더 많이 치르는 것으로 여겨지며, 나라의 다른 급한 일을 채우는 데에 한몫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유료 도로 통행료는 물건 값을 그 가치가 아니라 그 무게에 따라 올리므로, 그것은 주로 귀하고 가벼운 상품을 쓰는 이가 아니라 거칠고 부피 큰 상품을 쓰는 이가 치른다. 그러므로 이 세가 나라의 어떤 급한 일을 채우려는 것이든, 그 급한 일은 주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이의 부담으로, 곧 그것을 채울 힘이 가장 많은 이가 아니라 가장 적은 이의 부담으로 채워질 것이다.

셋째, 정부가 언젠가 큰길을 손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유료 도로 통행료의 어느 몫이든 마땅한 데에 쓰이도록 억지로 시키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백성에게서 큰 세입을 거두면서도 그 가운데 어느 몫도 이렇게 거둔 세입이 언제나 쓰여야 할 오직 그 목적에 쓰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유료 도로의 수탁 관리인들이 변변치 못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지금은 이따금 그들에게 제 잘못을 바로잡게 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면, 여기서 헤아리는 경우에는 그들의 부와 위세가 그것을 열 배나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프랑스에서 큰길을 손보는 데에 쓰이도록 정해진 기금은 집행권이 바로 거느린다. 그 기금은 한편으로는 유럽 대부분의 곳에서 시골 사람들이 큰길을 손보는 데에 내놓아야 하는 며칠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이 다른 비용에서 덜어 내기로 고른 만큼의 나라 일반 세입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옛 법으로 보나 유럽 대부분의 다른 곳의 법으로 보나, 시골 사람들의 노동은 국왕의 자문 회의에 바로 매여 있지 않은 고을 또는

지방의 행정관이 거느렸다. 그러나 지금의 관행으로는 시골 사람들의 노동도, 또 국왕이 어느 지방이나 관할구에서 큰길을 손보는 데에 떼어 주기로 고르는 다른 어떤 기금도 모두 감독관이 온통 꾸린다. 그는 국왕의 자문 회의가 세우고 물러나게 하며 그 회의에서 명령을 받고 그 회의와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관원이다. 전제 정치가 나아가는 동안 집행권의 권위는 나라 안의 다른 모든 권력의 권위를 차츰 빨아들이고, 어떤 공공의 목적에 쓰이도록 정해진 온갖 갈래의 세입을 꾸리는 일을 제 것으로 삼는다. 그렇더라도 프랑스에서 큰 역로, 곧 왕국의 주요 도시들 사이를 잇는 길은 대체로 좋은 꼴로 건사되며, 몇몇 지방에서는 잉글랜드의 유료 도로 대부분보다 훨씬 낫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가 샛길이라 부르는 것, 곧 그 나라 길의 훨씬 큰 몫은 아주 내버려져 있고 많은 곳에서는 무거운 수레가 도무지 지날 수 없다. 어떤 곳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조차 위험하여 노새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탈것이다. 겉치레를 좋아하는 궁정의 뽐내는 대신은 흔히 큰 큰길처럼 눈부시고 으리으리한 사업을 벌이기를 즐길 터인데, 그러한 길은 으뜸가는 귀족들 눈에 자주 띄고 그들의 칭찬은 그의 허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궁정에서 그의 이해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 놓아도 눈에 띄는 데가 없고 어떤 나그네에게도 조금의 감탄조차 자아내지 못하며 한마디로 더없이 쓸모 있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잘한 사업을 숱하게 벌이는 일은, 어느 모로 보나 그토록 높은 행정관이 마음 쓸 만한 것이 못 되는 하찮고 시시한 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정 아래에서는 그러한 사업이 거의 언제나 아주 내버려진다.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여러 정부에서는 집행권이 큰길을 손보는 일도 배가 다니는 운하를 떠받치는 일도 스스로 떠맡는다. 지방마다 그 총독에게 내리는 지침에서 그러한 일이 늘 그에게 당부되며, 궁정이

그가 한 일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그 지침의 이 대목에 얼마나 마음을 쓴 것으로 보이는가가 크게 좌우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갈래의 공공 행정은 그러한 나라 어디서나, 그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아주 크게 마음 쓰는 바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큰길이, 더구나 배가 다니는 운하가 유럽에서 알려진 같은 갈래의 무엇보다도 훨씬 낫다고들 내세운다. 그렇더라도 유럽에 전해진 그러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물러터지고 놀라기 잘하는 나그네들이, 흔히는 어리석고 거짓말하는 선교사들이 써낸 것이다. 그것이 더 밝은 눈으로 살펴진 것이었다면,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미더운 목격자의 입으로 전해진 것이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토록 놀라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베르니에가 힌두스탄에 있는 이 갈래의 몇몇 사업을 두고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보다 신기한 것을 더 좋아한 다른 나그네들이 전한 바에 훨씬 못 미친다.[5] 게다가 그러한 나라에서도 어쩌면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궁정과 서울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쉬운 큰길과 큰 통로에만 마음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내버려 두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힌두스탄에서도 아시아의 다른 여러 정부에서도 주권자의 세입은 거의 온통 토지세 또는 토지 지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토지의 한 해 생산물이 늘고 주는 데 따라 오르고 내린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큰 이해, 곧 그의 세입은 그러한 나라에서 반드시 그리고 곧바로 토지를 가꾸는 일과, 그 생산물의 큼과, 그 생산물의 가치에 이어져 있다. 그런데 그 생산물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고 값나가게 하려면 그것에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시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그 나라 곳곳 사이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손쉽고 가장 돈이 덜 드는 통로를 열어야 하는데, 이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운하를 빌려서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주권자의 세입은 주로 토지세나 토지 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유럽의 모든 큰 왕국에서 어쩌면 그 세입의 큰 몫이 마침내는

토지의 생산물에 매여 있을지 모르나, 그 매임은 그토록 곧바르지도 그토록 뚜렷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주권자는 토지 생산물의 양과 가치를 함께 늘리도록 북돋우거나 좋은 길과 운하를 건사하여 그 생산물에 가장 넓은 시장을 마련해 주도록 자신이 그토록 곧바로 부름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몇몇 곳에서 공공 행정의 이 부문이 집행권에 의하여 아주 마땅하게 꾸려지고 있다는 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가 보기에 자못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의 형편에서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그 권력이 그것을 웬만하게 꾸릴 성싶은 낌새는 조금도 없다.

제 성질로 보아 저를 떠받칠 어떤 수입도 내어 줄 수 없으면서 그 편리함이 어떤 특정한 고장이나 구역에 거의 갇혀 있는 공공 사업조차, 집행권이 언제나 꾸릴 수밖에 없는 나라의 일반 세입으로보다는 고을 또는 지방의 행정이 꾸리는 고을 또는 지방의 세입으로 더 잘 떠받쳐진다. 런던의 거리에 등을 달고 포장을 하는 일을 국고의 비용으로 한다면, 그것이 지금처럼 잘 되거나 또 지금처럼 적은 비용으로 될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게다가 그 비용은 런던의 거리나 교구나 구역마다 그 주민에게 매기는 고을 세로 걷히는 대신에 이 경우에는 나라의 일반 세입에서 대어질 터이고, 따라서 왕국의 모든 주민에게 매기는 세로 걷힐 터인데, 그들의 큰 몫은 런던 거리에 등을 달고 포장을 하는 데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는다.

고을과 지방의 세입을 고을과 지방이 꾸리는 데에 이따금 스며드는 남용은 아무리 엄청나 보이더라도, 따지고 보면 큰 제국의 세입을 꾸리고 쓰는 데에서 흔히 벌어지는 남용에 견주면 거의 언제나 아주 하찮다. 게다가 그것은 바로잡기도 훨씬 쉽다. 영국에서 치안 판사가 꾸리는 고을 또는 지방의 행정 아래에서, 시골 사람들이 큰길을 손보는 데에 내놓아야 하는 엿새의 노동은 어쩌면 언제나 아주 슬기롭게

쓰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모질거나 억누르는 낌새를 띠고 물리는 일은 거의 없다.[6] 프랑스에서는 감독관이 꾸리는 행정 아래에서 그 쓰임이 언제나 더 슬기롭지도 않고 물리는 일은 흔히 더없이 모질고 억누른다. 이른바 코르베라 하는 그러한 부역은 그 관원들이 제 미움을 사는 불운을 겪은 교구나 공동체를 벌하는 데에 쓰는 으뜸가는 폭정의 연장 가운데 하나다.

상업의 특정한 갈래를 돕는 데에 필요한 공공 사업과 기관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공공 사업과 기관이 노리는 것은 상업 일반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갈래를 도우려면 특정한 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은 또 특정하고 남다른 비용을 요구한다.

야만스럽고 문명이 없는 나라들과 이루어지는 상업의 어떤 특정한 갈래는 남다른 보호를 요구한다. 예사로운 창고나 회계소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과 무역하는 상인들의 물건에 안전을 거의 내어 주지 못할 것이다. 야만스러운 원주민에게서 그 물건을 지키려면 그것을 쌓아 두는 자리를 얼마쯤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힌두스탄의 통치가 어지러운 탓에 그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채비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고,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회사가 그 나라에 처음으로 가진 요새를 세우도록 허락받은 것도 제 사람과 재산을 우격다짐에서 지킨다는 구실 아래에서였다. 제 땅 안에 낯선 이가 요새 진 자리를 가지는 것을 그 기운찬 통치가 결코 견디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대사나 공사나 영사를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제 나라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다툼을 그들 제 관습에 따라 판결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주민과 다툴 때에는 제 공적인 자격을 빌려 더 큰 권위로 끼어들어 사사로운 사람에게서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힘 있는 보호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도 있다. 상업의 이해 때문에, 전쟁이나 동맹의 목적으로는 아무런 필요도 없었을 나라에 공사를 두어야 했던 일이

흔하다. 튀르크 회사의 상업이 콘스탄티노플에 상주 대사를 두게 된 첫 계기였다. 러시아로 보낸 첫 잉글랜드 사절은 온통 상업의 이해에서 비롯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의 신민 사이에 그러한 이해가 반드시 끊임없이 얽히게 된 것이 아마 이웃한 모든 나라에 평시에도 대사나 공사를 늘 머물게 두는 관례를 들여왔을 것이다. 옛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 관례는 15세기 끝 무렵 또는 16세기 첫머리보다, 곧 상업이 유럽 나라 대부분으로 처음 뻗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이해에 처음 마음을 쓰기 시작한 때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은 듯하다.

상업의 어떤 특정한 갈래를 보호하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남다른 비용을 바로 그 갈래에 매기는 알맞은 세로, 이를테면 거래인이 그 갈래에 처음 들어올 때 내놓는 알맞은 가입금으로, 또는 더 고르게 하자면 그들이 그 갈래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나라로 실어 내거나 거기서 실어 들이는 물건에 몇 퍼센트씩 매기는 특정한 관세로 대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무역 일반을 해적과 노략꾼에게서 보호하는 일이 관세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계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역 일반을 보호하는 비용을 대려고 무역에 일반 세를 매기는 것이 이치에 닿는다고 여겨졌다면, 어떤 특정한 갈래를 보호하는 남다른 비용을 대려고 그 특정한 갈래에 특정한 세를 매기는 것도 꼭 그만큼 이치에 닿아 보여야 한다.

무역 일반을 보호하는 일은 언제나 국가의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러한 까닭에 집행권이 맡은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일반 관세를 거두고 쓰는 일은 언제나 그 권력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무역의 어떤 특정한 갈래를 보호하는 일도 무역 일반을 보호하는 일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그 권력이 맡은 직무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여러 나라가 언제나 앞뒤가 맞게 움직였다면, 그러한 특정한 보호를 위하여 거두는 특정한 관세도 언제나 꼭 그만큼 그 권력의 처분에

맡겨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다른 많은 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언제나 앞뒤가 맞게 움직이지는 않았고, 유럽의 상업하는 나라 대부분에서 상인들의 특정한 회사들이 입법부를 꾀어, 주권자가 맡은 직무의 이 부분을 그것에 반드시 딸린 온갖 권한과 함께 저희에게 맡기게 하는 재주를 부렸다.

이러한 회사들은 나라가 하기에는 슬기롭지 않다고 여길 법한 실험을 제 비용으로 해냄으로써 어쩌면 상업의 몇몇 갈래를 처음 들여오는 데에는 쓸모가 있었을지 모르나, 오래 두고 보면 어디서나 짐스럽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무역을 잘못 꾸리거나 좁혀 놓았다.

그러한 회사가 합자한 자산으로 무역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한 가입금을 내고 그 회사의 규제에 따르기로 하면 받아들여야 하며 구성원마다 제 자산으로 제 위험을 지고 무역할 때, 그것을 규제 회사라 부른다. 그들이 합자한 자산으로 무역하고 구성원마다 그 자산에 대한 제 몫에 따라 공동의 이윤이나 손실을 나누어 가질 때, 그것을 합본 회사라 부른다. 그러한 회사는 규제 회사든 합본 회사든 배타적 특권을 지닐 때도 있고 지니지 않을 때도 있다.

규제 회사는 어느 모로 보나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와 읍에서 그토록 흔한 동업조합과 닮았으며, 같은 갈래의 독점을 넓혀 놓은 것이라 할 만하다. 읍에 사는 사람이 동업조합에 든 업을 하려면 먼저 그 조합에서 자유민 자격을 얻어야 하듯이, 대개의 경우 나라의 신민은 규제 회사가 세워져 있는 외국 무역의 어떤 갈래도 먼저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는 법대로 해 나갈 수 없다.[7] 그 독점은 받아들이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가에 따라, 또 그 회사의 이사들이 얼마나 큰 권위를 지니는가와 그 무역의 큰 몫을 저희와 제 가까운 벗들에게 가두어 두도록 일을 꾸밀 힘을 얼마나 지니는가에 따라 더 빡빡하기도 하고 덜 빡빡하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규제 회사에서는 도제살이의 특권이 다른

동업조합에서와 같아서, 그 회사의 구성원 밑에서 제 햇수를 채운 사람은 가입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가입금만 내고 스스로 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었다. 법이 막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여느 동업조합의 기질이 모든 규제 회사를 사로잡는다. 그들이 제 타고난 기질대로 움직이도록 허락받았을 때, 그들은 맞겨룸을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사람에게 가두려고 언제나 그 무역을 짐스러운 규제에 숱하게 옭아매려 애썼다. 법이 그들을 막아 그리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그들은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외국 상업을 위한 규제 회사로는 옛 모험 상인 회사, 곧 이제 흔히 함부르크 회사라 부르는 것과 러시아 회사, 이스틀랜드 회사, 튀르크 회사, 아프리카 회사가 있다.

함부르크 회사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제 아주 쉽다고들 한다. 또 그 이사들은 그 무역을 성가신 제약이나 규제에 옭아맬 힘을 지니지 않았거나, 적어도 요사이에는 그 힘을 쓰지 않았다. 늘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 세기 한중간 무렵에 가입금은 50파운드였고 한때는 100파운드였으며, 그 회사가 한 일은 더없이 억누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1643년과 1645년과 1661년에 잉글랜드 서부의 모직물 제조업자와 자유 거래인들은 그들이 무역을 가두고 그 나라의 제조업을 억누르는 독점자라고 의회에 불평하였다. 그 불평이 의회의 법을 낳지는 않았으나, 아마 그 회사를 겁먹게 하여 하는 일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그들을 겨눈 불평이 없었다. 「윌리엄 3세 치세 10년과 11년의 법 제6장」으로 러시아 회사에 들어가는 가입금은 5파운드로 줄었고,[8] 「찰스 2세 치세 25년의 법 제7장」으로 이스틀랜드 회사에 들어가는 그것은 40실링으로 줄었으며, 그와 함께 스웨덴과 덴마크와 노르웨이, 곧 발트해 북쪽의 모든 나라가

그들의 배타적 특허에서 풀려났다. 아마 그 회사들이 한 일이 이 두 의회법을 낳은 계기였을 것이다. 그 전에 조사이아 차일드 경은 이 두 회사도 함부르크 회사도 더없이 억누르는 것으로 그려 보였고, 그때 우리가 그들 저마다의 특허에 든 나라들과 하던 무역이 낮은 꼴에 머문 것을 그들이 잘못 꾸린 탓으로 돌렸다.[9] 그러나 그러한 회사가 요즈음에는 그리 억누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아주 쓸모없다. 참으로 그저 쓸모없을 뿐이라는 것은 어쩌면 규제 회사에 마땅하게 바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림일 터이고, 앞에서 말한 세 회사는 모두 지금의 꼴로 보아 이 기림을 받을 만한 듯하다.

튀르크 회사에 들어가는 가입금은 예전에 26살이 안 된 사람에게는 모두 25파운드였고 그 나이가 넘은 사람에게는 모두 50파운드였다. 오직 도매 상인만 받아들여졌으니, 이 제약이 온갖 가겟집과 소매상을 밀어냈다. 어느 내규로는 영국의 제조품을 그 회사의 공동 배로만 튀르크로 실어 낼 수 있었는데, 그 배들은 언제나 런던 항구에서 떠났으므로 이 제약은 그 무역을 그 돈 많이 드는 항구에, 그리고 그 거래인을 런던과 그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두었다. 또 다른 내규로는 런던에서 20마일 안에 살면서 그 도시의 자유민이 아닌 사람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니, 이 또 하나의 제약이 앞의 것과 어우러져 런던 자유민 말고는 모두 반드시 밀어냈다. 그 공동 배가 짐을 싣고 떠나는 때가 온통 이사들에게 매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제 물건과 제 가까운 벗의 물건으로 그 배를 손쉽게 채우면서 제안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고 둘러댈 만한 다른 이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편에서 이 회사는 어느 모로 보나 빡빡하고 억누르는 독점이었다. 그러한 남용이 「조지 2세 치세 26년의 법 제18장」을 낳은 계기가 되었으니, 그 법은 가입금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20파운드로 줄이고 오직 도매 상인이어야 한다거나 런던 자유민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없앴으며,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영국의 모든 항구에서 튀르크의 어느 항구로든 실어 내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온갖 영국 물건을 실어 낼 자유를 주되, 일반 관세와 그 회사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하여 매긴 특정한 관세를 아울러 치르고 튀르크에 머무는 영국 대사와 영사의 정당한 권위와 그 회사가 제대로 만든 내규에 따르게 하였다. 그러한 내규로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려고 같은 법으로 이렇게 정하였다. 그 회사의 구성원 일곱이 이 법이 지나간 뒤에 만들어진 어떤 내규로 저희가 억울함을 겪었다고 여기면, 그 내규가 만들어진 뒤 열두 달 안에 제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역 식민 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이제 추밀원의 한 위원회가 물려받았다), 구성원 일곱이 이 법이 지나가기 전에 만들어진 어떤 내규로 저희가 억울함을 겪었다고 여기면, 이 법이 시행되기로 한 날부터 열두 달 안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이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해를 겪어 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내규가 해로운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알아차리기에 언제나 넉넉하지는 않을 터이고, 그들 가운데 여럿이 뒤늦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여도 무역 위원회도 추밀원 위원회도 그들에게 아무런 구제를 내어 줄 수 없다. 게다가 모든 규제 회사의 내규는, 다른 모든 동업조합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큰 몫이 이미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억누르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구성원이 되려는 마음을 꺾는 것을 노리는데, 이는 높은 가입금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숱한 재주로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회사가 늘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제 이윤율을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올리고, 저희가 실어 내는 물건에서나 실어 들이는 물건에서나 시장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산이 모자란 채로 두는 것인데, 이는 맞겨룸을 억누르거나 새 모험가가 그 무역에 들어오려는 마음을 꺾음으로써만 이룰 수 있다. 게다가 20파운드의 가입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튀르크 무역에

들어와 거기 머물 뜻을 품는 것을 꺾기에는 어쩌면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투기 상인이 거기서 한 번의 모험을 걸어 보는 것을 꺾기에는 넉넉할지 모른다. 어느 무역에서나 자리 잡은 붙박이 거래인들은 동업조합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이윤을 올리려고 저절로 단합하는데, 그 이윤을 언제나 제 마땅한 높이로 눌러 두는 데에는 투기하는 모험가들이 이따금 끼어들어 맞겨루는 것만 한 것이 없다. 튀르크 무역은 이 의회법으로 얼마쯤 열리기는 하였어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온전히 자유롭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여긴다. 튀르크 회사는 대사 한 사람과 영사 두엇을 먹여 살리는 데에 한몫을 하는데, 그들은 다른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통 나라가 먹여 살려야 하고 그 무역은 국왕 폐하의 모든 신민에게 열려야 한다. 그 회사가 이 일과 그 밖의 동업조합 일을 위하여 거두는 여러 세는 나라가 그러한 공사를 먹여 살리기에 넉넉하고도 남을 세입을 내어 줄 것이다.

조사이아 차일드 경이 눈여겨본 대로, 규제 회사는 공사를 자주 떠받치기는 하였어도 저희가 무역하는 나라에 요새나 수비대를 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반면에 합본 회사는 자주 그리하였다. 또 따지고 보면 앞의 것은 이 갈래의 일에 뒤의 것보다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첫째, 규제 회사의 이사들은 그러한 요새와 수비대가 그것을 위하여 놓여 있는 그 회사의 일반 무역이 번창하는 데에 이렇다 할 이해가 걸려 있지 않다. 그 일반 무역이 쇠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 사사로운 무역에 이롭게 되는 일조차 흔하니, 맞겨루는 이의 수를 줄임으로써 그들이 더 헐하게 사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합본 회사의 이사들은 제 손에 맡겨진 공동 자산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한 제 몫밖에 가지지 않으므로, 그 이해를 그 회사의 일반 무역의 그것과 갈라놓을 수 있는 제 사사로운 무역을 지니지 않는다. 그들의 사사로운 이해는 그 회사의 일반 무역이 번창하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것에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떠받침이 반드시 요구하는 끊임없고 꼼꼼한 마음 씀을 지니기 쉽다. 둘째, 합본 회사의 이사들은 언제나 큰 자본, 곧 그 회사가 합자한 자산을 꾸리며, 그 얼마를 그러한 꼭 있어야 할 요새와 수비대를 짓고 손보고 떠받치는 데에 마땅하게 쓸 수 있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규제 회사의 이사들은 공동의 자본을 꾸리지 않으므로, 가입금과 그 회사의 무역에 매긴 동업조합 관세에서 우연히 들어오는 수입 말고는 이 일에 쓸 다른 기금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한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데에 마음 쓸 같은 이해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 마음 씀이 열매를 맺게 할 같은 힘을 지니는 일은 좀처럼 없다. 공사를 먹여 살리는 일은 마음을 거의 쓸 것도 없고 알맞고 한정된 비용밖에 들지 않으므로, 규제 회사의 기질에도 그 힘에도 훨씬 어울리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조사이아 차일드 경의 때보다 한참 뒤인 1750년에 규제 회사 하나가, 곧 지금의 아프리카 무역 상인 회사가 세워졌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는 블랑곶과 희망봉 사이에 있는 영국의 모든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일을, 뒤에는 루주곶과 희망봉 사이에 있는 것만을 떠받치는 일을 똑똑히 맡았다. 이 회사를 세우는 법(「조지 2세 치세 23년의 법 제51장」)은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바라본 듯하다. 첫째는 규제 회사의 이사들에게 타고난 억누르고 독점하려는 기질을 실제로 누르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타고나지 않은 마음 씀을, 곧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지로 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목적을 위하여 가입금은 40실링으로 한정되었다. 그 회사는 동업조합의 자격으로 또는 합자한 자산으로 무역하는 것과, 공동의 인장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그 무역에 어떤 제약을 놓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 무역은 영국 신민이고 가입금을 낸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다. 그 통치는 런던에서 모이는 아홉 사람의 위원회가 맡는데, 그들은 런던과 브리스틀과 리버풀에서 그 회사의 자유민들이 해마다 세 사람씩 뽑는다. 어느 위원도 내리 세 해를 넘겨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어느 위원이든 무역 식민 위원회가, 이제는 추밀원의 한 위원회가 제 변명을 들은 뒤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 위원회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실어 내거나 아프리카 물건을 영국으로 실어 들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일을 맡았으므로 그 목적을 위하여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여러 갈래의 물건과 물자를 실어 낼 수 있다. 그들이 그 회사에서 받는 돈 가운데 런던과 브리스틀과 리버풀에 있는 서기와 대리인의 봉급, 런던에 있는 사무소의 집세,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꾸리고 맡고 대리하는 데에 드는 그 밖의 온갖 비용으로 800파운드를 넘지 않는 액수가 허락된다. 이 액수에서 그러한 여러 비용을 대고 남는 것은 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끼리 알맞다고 여기는 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꾸림새로 보아 독점의 기질이 실제로 눌리고 이 목적 가운데 첫째가 넉넉히 이루어지리라고 바랄 만하였다. 그러나 그리되지 않은 듯하다. 「조지 3세 치세 4년의 법 제20장」으로 세네갈 요새와 거기에 딸린 온갖 것이 아프리카 무역 상인 회사에 맡겨졌으나, 그 이듬해에(「조지 3세 치세 5년의 법 제44장」으로) 세네갈과 거기에 딸린 것만이 아니라 남바르바리의 살레 항구에서 루주곶에 이르는 해안 전체가 그 회사의 관할에서 풀려나 국왕에게 맡겨졌고 그곳과의 무역은 국왕 폐하의 모든 신민에게 자유롭다고 선언되었다. 그 회사는 무역을 옥죄고 마땅치 않은 어떤 갈래의 독점을 세웠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그렇더라도 「조지 2세 치세 23년의 법」의 규제 아래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는지는 그려 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늘 진실을 가장 미덥게 적어 놓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원의 인쇄된

논쟁록에서 나는 그들이 이러한 일로 고발당하였음을 본다. 아홉 사람 위원회의 구성원이 모두 상인이고 그들의 여러 요새와 거류지에 있는 총독과 주재 상인이 모두 그들에게 매여 있으므로, 뒤의 사람들이 앞의 사람들의 위탁과 주문에 남다른 마음을 썼을 법하고 이것이 참된 독점을 이루었을 법하다.

이 가운데 둘째 목적, 곧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일을 위하여 의회는 그들에게 해마다 얼마씩을, 대체로 1만 3,000파운드쯤을 떼어 주었다. 이 돈을 마땅하게 썼는지에 대하여 그 위원회는 해마다 재무 법정의 쿠르시터 배런에게 셈을 내놓아야 하고, 그 셈은 뒤에 의회 앞에 놓여야 한다.[10] 그러나 수백만 파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그토록 적게 마음 쓰는 의회가 해마다 1만 3,000파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크게 마음 쓸 성싶지 않고, 재무 법정의 쿠르시터 배런도 그 직업과 배움으로 보아 요새와 수비대에 드는 마땅한 비용에 깊이 밝을 성싶지 않다. 참으로 국왕 폐하의 해군 함장이나 해군 본부가 세운 다른 어떤 임명받은 장교는 그 요새와 수비대의 꼴을 살펴 제 본 바를 그 본부에 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본부는 그 위원회에 대하여 아무런 곧은 관할권도 지니지 않고, 그렇게 살펴본 사람들이 한 일을 바로잡을 아무런 권위도 지니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국왕 폐하의 해군 함장이 언제나 축성술에 깊이 밝으리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겨우 세 해 동안만 누릴 수 있고 그동안에도 그 법대로 받는 벌이가 그토록 아주 적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공공의 돈이든 그 회사의 돈이든 그것을 대놓고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것 말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느 위원이든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인 듯한데, 그 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달리 마음 쓸 이해를 지니지 않은 일에 끊임없고 꼼꼼한 마음을 억지로 쏟게 할 만큼 무거운 동기가 결코 될 수 없다. 그 위원회는 기니 해안에 있는 케이프코스트 성을 손보려고 잉글랜드에서

벽돌과 돌을 보냈다는 고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의회가 여러 차례 남다른 돈을 내어 준 일이었다. 게다가 그토록 먼 뱃길로 보낸 이 벽돌과 돌은 품질이 어찌나 나빴던지 그것으로 손본 벽을 바닥부터 다시 쌓아야 하였다고 한다. 루주곶 북쪽에 있는 요새와 수비대는 나라의 비용으로 떠받쳐질 뿐만 아니라 집행권의 곧은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곶 남쪽에 있고 적어도 얼마쯤은 나라의 비용으로 떠받쳐지기도 하는 것이 왜 다른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는 그럴듯한 까닭을 그려 보기조차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지중해 무역을 보호한다는 것이 지브롤터와 미노르카 수비대의 본디 목적 또는 구실이었으며, 그 수비대를 떠받치고 다스리는 일은 언제나 아주 마땅하게도 튀르크 회사가 아니라 집행권에 맡겨져 왔다. 그 권력의 자랑과 위엄은 크게 보아 그 지배가 미치는 넓이에 있으니, 그 지배를 지키는 데에 필요한 것에 마음 쓰기를 게을리할 성싶지 않다. 그리하여 지브롤터와 미노르카의 수비대는 한 번도 내버려진 적이 없다. 미노르카는 두 번 빼앗겼고 이제 아마 아주 잃었겠으나, 그 불행이 집행권의 어떤 게으름 탓으로 돌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 돈 많이 드는 수비대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것을 스페인 왕국에서 떼어 낸 본디 목적에 조금이라도 필요하였다고 넌지시 말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싶지는 않다. 그 떼어 냄은 어쩌면 잉글랜드에서 그 타고난 동맹인 스페인 국왕의 마음을 돌려놓고, 부르봉 집안의 두 으뜸 갈래를 핏줄의 끈이 결코 묶을 수 없었을 만큼 더 빡빡하고 더 오래가는 동맹으로 묶어 놓은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참된 목적에도 이바지한 적이 없다.

국왕의 특허로 세워졌든 의회 법으로 세워졌든 합본 회사는 규제 회사와도, 또 사사로운 조합과도 여러 점에서 다르다.

첫째, 사사로운 조합에서는 어느 동무도 그 회사의 동의 없이 제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새 구성원을 그 회사에 들일 수 없다.

그렇더라도 구성원마다 제때 알리면 그 조합에서 빠져나와 공동 자산에 대한 제 몫을 치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꾸로 합본 회사에서는 어느 구성원도 그 회사에 제 몫을 치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나, 구성원마다 그들의 동의 없이 제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그로써 새 구성원을 들일 수 있다. 합자한 자산에 대한 한 몫의 가치는 언제나 그것이 장에서 받아낼 값이며, 이는 그 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에서 제 앞으로 올라 있는 액수보다 어떤 비율로든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

둘째, 사사로운 조합에서는 동무마다 그 회사가 진 빚에 대하여 제 재산 전부를 걸고 매인다. 거꾸로 합본 회사에서는 동무마다 제 몫만큼만 매인다.

합본 회사의 무역은 언제나 이사회가 꾸린다. 참으로 이 이사회는 여러 점에서 임자 총회의 다잡음을 받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그 임자들의 큰 몫은 그 회사의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내세우는 일이 좀처럼 없으며, 그들 사이에 파당을 짓는 기질이 마침 휩쓸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일로 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이사들이 알맞다고 여겨 저희에게 내어 주는 반년치나 한 해치 배당을 흐뭇하게 받아 갈 뿐이다. 수고에서도 또 한정된 액수를 넘는 위험에서도 이렇게 아주 벗어나 있다는 점이 숱한 사람을 부추겨 합본 회사에서 모험가가 되게 하니, 그들은 사사로운 조합에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재산을 걸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사는 흔히 어떤 사사로운 조합도 뽐낼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자산을 저희에게 끌어들인다. 남해 회사의 무역 자산은 한때 3,380만 파운드가 넘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나누어진 자본은 지금 1,078만 파운드에 이른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이사들은 제 돈보다는 남의 돈을 꾸리는 사람이므로, 사사로운 조합의 동무들이 흔히 제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애타는 눈초리로 그것을 지켜보리라고 바라기는 어렵다. 부자의 집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잘한 일에 마음 쓰는 것을 제 주인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고, 그리하여 아주 손쉽게 제 몸에 그리하지 않아도 좋다는 면제를 내어 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사의 일을 꾸리는 데에는 게으름과 헤픔이 언제나 얼마간 휩쓸 수밖에 없다. 외국 무역을 위한 합본 회사가 사사로운 모험가들과의 맞겨룸을 견뎌 낼 수 있었던 일이 좀처럼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타적 특권이 없이 잘된 적이 아주 드물고, 그것을 지니고도 잘되지 못한 일이 흔하다. 배타적 특권이 없으면 그들은 흔히 그 무역을 잘못 꾸렸다. 배타적 특권이 있으면 그들은 그것을 잘못 꾸리고 또 좁혀 놓았다.

지금 아프리카 회사의 앞선 회사인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특허로 배타적 특권을 지녔으나, 그 특허가 의회 법으로 굳어지지 않았으므로 권리선언에 따라 그 무역은 명예혁명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 폐하의 모든 신민에게 열렸다.[11] 허드슨만 회사는 그 법적 권리로 보면 왕립 아프리카 회사와 같은 자리에 있다. 그들의 배타적 특허도 의회 법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남해 회사는 무역하는 회사로 있는 동안 의회 법으로 굳어진 배타적 특권을 지녔고, 지금의 동인도 무역 상인 연합 회사도 마찬가지다.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이내 사사로운 모험가들과의 맞겨룸을 견뎌 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권리선언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은 얼마 동안 그 모험가들을 밀무역꾼이라 부르며 그러한 자로 몰아붙이기를 이어 갔다. 그렇더라도 1698년에 사사로운 모험가들은 그들 무역의 거의 모든 갈래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물게 되었고, 그것은 그 회사가 제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는 데에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무거운 세에도 아랑곳없이 그 회사는 여전히 그 맞겨룸을 견뎌 낼 수 없었다. 그들의 자산과 신용은 차츰 기울었다. 1712년에 그들의 빚은 어찌나 커졌던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빚쟁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따로 의회 법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 빚쟁이들 가운데 수로 보나 액수로 보나 3분의 2가 내리는 결정이 나머지를 묶도록, 곧 그 회사가 제 빚을 갚는 데에 주어질 기한에 대해서도 또 그 빚을 두고 그들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어떤 다른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졌다. 1730년에 그들의 살림은 어찌나 어지러웠던지 그들이 세워진 유일한 목적이자 구실이었던 제 요새와 수비대를 떠받치기가 아주 불가능하였다. 그해부터 그들이 마침내 풀릴 때까지 의회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해마다 1만 파운드를 내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732년에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흑인을 서인도로 실어 나르는 무역에서 손해를 본 끝에 마침내 그것을 아주 그만두기로, 곧 그 해안에서 사들인 흑인을 아메리카의 사사로운 거래인들에게 팔고 제 고용인들을 아프리카 안쪽 지방과 사금과 상아와 물감 약재 따위를 두고 무역하는 일에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더 좁은 무역에서 거둔 성공도 앞서의 그 넓은 무역에서보다 낫지 않았다. 그들의 살림은 차츰 기울어 가기를 이어 가다가 마침내 어느 모로 보나 거덜 난 회사가 되어 의회 법으로 풀렸고, 그 요새와 수비대는 지금의 아프리카 무역 상인 규제 회사에 맡겨졌다. 왕립 아프리카 회사가 세워지기 전에도 아프리카 무역을 위하여 다른 합본 회사 셋이 잇달아 하나씩 세워졌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잘되지 못하였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모두 배타적 특허를 지녔고, 그것은 의회 법으로 굳어지지 않았어도 그때에는 참된 배타적 특권을 내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허드슨만 회사는 지난번 전쟁에서 불운을 겪기 전까지 왕립 아프리카 회사보다 훨씬 운이 좋았다.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비용은 훨씬 적다. 그들이 여러 거류지와 살림터에, 곧 요새라는 이름을 붙여 높여 준 곳에 먹여 살리는 사람의 수를 다 합하여도 12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이 수는 제 배에 실을 모피와 그 밖의 물건을 미리 마련해

두기에는 넉넉한데, 그 배는 얼음 탓에 그 바다에 여섯 주나 여덟 주를 넘겨 머물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다. 실을 짐을 미리 마련해 둔다는 이 이로움은 여러 해 동안 사사로운 모험가들이 얻을 수 없었고, 그것이 없이는 허드슨만과 무역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11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회사의 그리 크지 않은 자본은, 그들의 특허에 든 넓지만 가엾은 그 고장의 무역과 남아도는 생산물을 온통 또는 거의 온통 저희가 틀어쥐기에 넉넉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모험가로서 그들과 맞겨루며 그 고장과 무역하려고 해 본 사람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법으로는 그럴 권리를 지니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언제나 배타적 무역을 누려 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그리 크지 않은 자본은 아주 적은 수의 임자들 사이에 나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적은 수의 임자로 이루어지고 그리 크지 않은 자본을 지닌 합본 회사는 사사로운 조합의 성질에 아주 가까워지며, 거의 같은 만큼의 지켜봄과 마음 씀을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이로움 덕분에 허드슨만 회사가 지난번 전쟁 전에 제 무역을 제법 크게 성공을 거두며 해 나갈 수 있었다 하여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이윤이 고인이 된 도브스 씨가 그려 본 것에 다가간 적이 있을 성싶지는 않다. 『상업의 역사 연대기적 고찰』을 쓴 앤더슨 씨는 훨씬 차분하고 슬기로운 글쓴이인데, 그는 도브스 씨 자신이 여러 해에 걸쳐 내놓은 그들의 수출입 셈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는 남다른 위험과 비용을 마땅하게 셈에 넣어 보면 그들의 이윤이 남의 시샘을 받을 만하다거나 그것이 여느 무역의 이윤을 크게, 아니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마땅하게 눈여겨본다.[12]

남해 회사는 떠받쳐야 할 요새나 수비대를 한 번도 지니지 않았고 따라서 외국 무역을 위한 다른 합본 회사가 지는 큰 비용 하나에서 아주 벗어나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임자들 사이에 나뉜

엄청난 자본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헤픔이 그들의 일을 꾸리는 온 자리를 휩쓸리라고 내다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이 자산을 가지고 벌인 투기 사업의 속임수와 방탕함은 넉넉히 알려져 있고, 그것을 풀어 밝히는 일은 지금 다루는 일에서 벗어난다. 그들의 상업 사업도 그다지 낫게 꾸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손댄 첫 무역은 스페인령 서인도에 흑인을 대는 일이었고, 그것에 대하여 그들은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른바 아시엔토 계약에 따라) 배타적 특권을 지녔다.[13] 그러나 이 무역에서 큰 이윤이 나오리라고 바랄 수 없었으니, 그 전에 같은 조건으로 그것을 누린 포르투갈 회사도 프랑스 회사도 그 때문에 거덜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상으로 일정한 짐을 싣는 배 한 척을 해마다 보내어 스페인령 서인도와 곧바로 무역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해마다 보내는 배가 할 수 있었던 열 번의 뱃길 가운데 1731년 로열 캐롤라인호의 뱃길 하나에서는 제법 벌었고 나머지 거의 모두에서는 얼마간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잘되지 못한 것을 그들의 주재 상인과 대리인은 스페인 정부의 갈취와 억누름 탓으로 돌렸으나, 어쩌면 주로 바로 그 주재 상인과 대리인의 헤픔과 노략질 때문이었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몇몇은 한 해 만에도 큰 재산을 얻었다고 한다. 1734년에 그 회사는 국왕에게, 해마다 보내는 배로 얻는 이윤이 적으니 그 배의 무역과 톤수를 처분하고 스페인 국왕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1724년에 이 회사는 고래잡이에 손을 대었다. 참으로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독점을 지니지 않았으나, 그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 동안 다른 어떤 영국 신민도 거기에 손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배가 그린란드로 간 여덟 번의 뱃길 가운데 한 번에서는 벌었고 나머지 모두에서는 손해를 보았다. 여덟째이자 마지막 뱃길 뒤에 배와 물자와

연장을 팔았을 때, 그들은 이 갈래에서 입은 손해가 자본과 이자를 합하여 23만 7,000파운드가 넘음을 알게 되었다.

1722년에 이 회사는 의회에 청원하여, 3,380만 파운드가 넘는 제 엄청난 자본을, 그 전부가 정부에 빌려준 것이었는데, 똑같은 두 몫으로 가르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 절반, 곧 1,690만 파운드 남짓은 다른 정부 연금과 같은 자리에 놓여 그 회사의 이사들이 상업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진 빚이나 입은 손해에 매이지 않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처럼 무역 자산으로 남겨 그 빚과 손해에 매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청원은 너무나 이치에 닿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1733년에 그들은 다시 의회에 청원하여, 제 무역 자산의 4분의 3을 연금 자산으로 바꾸고 4분의 1만 무역 자산으로 남겨 이사들이 잘못 꾸려서 생기는 위험에 드러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때쯤에는 그들의 연금 자산도 무역 자산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덕분에 저마다 200만 파운드 넘게 줄어 있었으므로, 이 4분의 1은 366만 2,784파운드 8실링 6펜스밖에 되지 않았다. 1748년에 아시엔토 계약에 따라 그 회사가 스페인 국왕에게 내놓은 온갖 요구는 아헨 조약으로 보상이라 여겨진 것과 맞바꾸어 포기되었다.[14] 스페인령 서인도와의 그들 무역은 끝이 났고, 남은 무역 자산은 연금 자산으로 바뀌었으며, 그 회사는 어느 모로 보나 무역하는 회사이기를 그쳤다.

남해 회사가 해마다 보내는 배로 해 나간 무역, 곧 그들이 제법 큰 이윤을 얻으리라고 바랄 수 있었던 유일한 무역에서도 그들에게 외국 시장에서나 제 나라 시장에서나 맞겨루는 이가 없지 않았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카르타헤나와 포르토벨로와 라베라크루스에서 그들은 카디스에서 그 시장으로 제 배의 나가는 짐과 같은 갈래의 유럽 물건을 실어 오는 스페인 상인들과 맞겨루어야 하였고, 잉글랜드에서는 카디스에서 제 배의 들어오는 짐과 같은 갈래의 스페인령 서인도 물건을

실어 들이는 잉글랜드 상인들과 맞겨루어야 하였다. 참으로 스페인 상인의 물건도 잉글랜드 상인의 물건도 어쩌면 더 높은 관세에 매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회사 고용인들의 게으름과 헤픔과 빼돌림이 불러온 손해는 아마 그 모든 관세보다 훨씬 무거운 세였을 것이다. 사사로운 모험가들이 합본 회사와 어떤 꼴로든 열리고 공정한 맞겨룸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회사가 외국 무역의 어떤 갈래를 성공을 거두며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온갖 겪은 바에 어긋나 보인다.

옛 영국 동인도회사는 1600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허로 세워졌다. 그들이 인도로 꾸려 보낸 첫 열두 번의 뱃길에서 그들은 규제 회사로서, 곧 저마다 따로 자산을 지니고 다만 그 회사의 공동 배로만 무역한 것으로 보인다. 1612년에 그들은 합자한 자산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특허는 배타적인 것이었고, 의회 법으로 굳어지지 않았어도 그때에는 참된 배타적 특권을 내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그들은 밀무역꾼 때문에 그리 시달리지 않았다. 74만 4,000파운드를 결코 넘지 않았고 한 몫이 50파운드였던 그들의 자본은 엄청나게 크지도 않았고 그들이 벌이는 거래도 아주 넓지 않아서, 큰 게으름과 헤픔을 둘러댈 구실이 되지도 않았고 큰 빼돌림을 가릴 덮개가 되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심술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우연 때문에 생긴 몇몇 남다른 손해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잘되는 무역을 해 나갔다. 그러나 때가 흐르면서 자유의 원리가 더 잘 이해되자, 의회 법으로 굳어지지 않은 국왕의 특허가 배타적 특권을 어디까지 내어 줄 수 있는지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의심스러워졌다. 이 물음을 두고 법정의 판결은 한결같지 않았고 정부의 권위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다. 밀무역꾼이 그들 위로 불어났고, 찰스 2세 치세의 끝 무렵과 제임스 2세 치세 내내와 윌리엄 3세 치세의 한동안에 걸쳐 그들을 큰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1698년에 의회에 제안이 하나 들어왔으니, 정부에 200만 파운드를 8퍼센트로 빌려주되 그 응모자들을 배타적 특권을 지닌 새 동인도회사로 세워 준다는 조건이었다. 옛 동인도회사는 제 자본과 거의 맞먹는 70만 파운드를 같은 조건으로 4퍼센트에 내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공공 신용의 형편이 그러하였으므로, 정부로서는 70만 파운드를 4퍼센트로 빌리는 것보다 200만 파운드를 8퍼센트로 빌리는 편이 더 편하였다. 새 응모자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새 동인도회사가 세워졌다. 그렇더라도 옛 동인도회사는 1701년까지 제 무역을 이어 갈 권리를 지녔다. 그들은 그와 함께 제 회계 책임자의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31만 5,000파운드를 새 회사의 자산에 응모해 두었다. 이 200만 파운드의 대부에 응모한 이들에게 동인도 무역을 맡긴 그 의회 법의 문면이 엉성하였던 탓에, 그들이 모두 합자한 자산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응모액이 7,200파운드밖에 되지 않던 사사로운 거래인 몇몇은 제 자산으로 제 위험을 지고 따로 무역할 특권을 내세웠다. 옛 동인도회사는 1701년까지 제 자산으로 따로 무역할 권리를 지녔고, 또 그때 앞뒤로 새 회사의 자산에 응모해 둔 31만 5,000파운드로 다른 사사로운 거래인과 마찬가지로 따로 무역할 권리도 지녔다. 그 두 회사가 사사로운 거래인들과, 또 저희끼리 맞겨룬 일이 그 둘을 거의 거덜 낼 뻔하였다고 한다. 그 뒤인 1750년에 그 무역을 규제 회사의 손에 맡겨 그로써 얼마쯤 열어 놓자는 제안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동인도회사는 이 제안에 맞서 그때 이 맞겨룸이 낳은, 저희가 보기에 딱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힘주어 그려 보였다. 그들의 말로는 인도에서는 그것이 물건 값을 어찌나 높이 올려놓았던지 살 만한 값어치가 없어졌고, 잉글랜드에서는 시장에 물건이 넘치게 하여 그 값을 어찌나 낮게 떨어뜨렸던지 거기서 아무런 이윤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 넉넉하게 대어진 덕분에

잉글랜드 시장에서 인도 물건의 값이 아주 많이 내렸고 그것이 세상에 크나큰 이로움과 편리함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도 시장에서 그 값을 아주 많이 올렸으리라는 것은 그리 있음 직해 보이지 않으니, 그 맞겨룸이 불러올 수 있었을 남다른 수요를 다 합하여도 인도 상업이라는 드넓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이따금 물건 값을 올릴지 몰라도 오래 두고 보면 반드시 그것을 내린다. 그것은 생산을 북돋우고 그로써 생산하는 이들 사이의 맞겨룸을 늘리는데, 그들은 서로 더 싸게 팔려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예 떠올리지도 못하였을 새로운 노동의 나눔과 새로운 기술의 나아짐에 손을 뻗는다. 그 회사가 불평한 딱한 결과란 쓰는 일이 헐해진 것과 생산이 북돋워진 것이었으니, 이는 바로 정치경제학이 북돋우기를 제 큰 일로 삼는 그 두 가지 결과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서글프게 늘어놓은 그 맞겨룸은 오래 이어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1702년에 두 회사는 여왕을 셋째 당사자로 하는 삼자 계약으로 얼마쯤 하나가 되었고, 1708년에는 의회 법으로 온전히 한 회사로 합쳐져 지금의 이름인 동인도 무역 상인 연합 회사가 되었다. 이 법에는 따로 무역하는 거래인들이 1711년 미카엘 축일까지 제 무역을 이어 가게 하되, 그와 함께 이사들이 세 해 전에 알리고 그들의 자잘한 자본 7,200파운드를 되사들여 그로써 그 회사의 자산 전부를 합자한 자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 둘 만하다고 여겨졌다.[15] 같은 법으로 그 회사의 자본은 정부에 새로 빌려준 것에 따라 200만 파운드에서 320만 파운드로 늘었다. 1743년에 그 회사는 정부에 또 100만 파운드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 100만 파운드는 임자들에게 걷어서가 아니라 연금을 팔고 채무 증서를 발행하여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임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자산을 늘리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무역 자산을 늘렸으니, 그 회사가 상업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입은 손해와 진 빚에 대하여 다른 320만 파운드와 꼭 같이 매였기 때문이다. 1708년부터, 또는 적어도 1711년부터 이 회사는 온갖 맞겨루는 이에게서 벗어나 잉글랜드가 동인도와 하는 상업의 독점 위에 온전히 자리 잡고서 잘되는 무역을 해 나갔고, 그 이윤에서 해마다 임자들에게 알맞은 배당을 내어 주었다. 1741년에 시작된 프랑스와의 전쟁 동안, 퐁디셰리의 프랑스 총독 뒤플렉스 씨의 야심이 그들을 카르나티크의 전쟁과 인도 군주들의 정치에 끌어들였다. 여러 번의 뚜렷한 성공과 그에 못지않게 뚜렷한 손해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때 인도에서 저희의 으뜸가는 거류지였던 마드라스를 잃었다. 그것은 아헨 조약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왔고, 이 무렵에 전쟁과 정복의 기질이 인도에 있는 그들의 고용인들을 사로잡아 그 뒤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은 듯하다. 1755년에 시작된 프랑스와의 전쟁 동안, 그들의 무기는 영국의 무기를 두루 따라다닌 행운을 함께 누렸다. 그들은 마드라스를 지켜 냈고 퐁디셰리를 빼앗았으며 콜카타를 되찾았고, 그때 말로는 한 해에 300만 파운드가 넘는다는 넉넉하고 드넓은 땅의 세입을 손에 넣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이 세입을 조용히 쥐고 있었으나, 1767년에 행정부는 그들이 얻은 땅과 거기서 나오는 세입이 마땅히 국왕에게 딸린 것이라고 요구하였고, 그 회사는 이 요구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에 한 해 40만 파운드를 치르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이보다 앞서 제 배당을 6퍼센트쯤에서 10퍼센트로 차츰 올려 두었으니, 곧 320만 파운드의 제 자본에 대하여 그것을 12만 8,000파운드만큼 늘려 한 해 19만 2,000파운드에서 32만 파운드로 올렸던 것이다. 그들은 이 무렵에 그것을 12.5퍼센트까지 더 올리려고 하였는데, 그리되었다면 임자들에게 해마다 치르는 것이 정부에 해마다 치르기로 합의한 것과, 곧 한 해 40만 파운드와 맞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로 한 두 해 동안 그들은 잇달아 나온 두 의회 법으로 배당을 더 올리지 못하게 묶였는데, 그 법이 노린 것은 그때 600만이나 7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다고 어림된 그들의 빚을 갚아 나가는 일을 더 빨리 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1769년에 그들은 정부와의 합의를 다섯 해 더 이어 가기로 하면서, 그동안에는 제 배당을 12.5퍼센트까지 차츰 올리되 한 해에 1퍼센트를 넘겨 올리지는 않기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배당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더 오를 수 없는 데까지 올랐을 때에도, 그들이 땅을 얻기 전에 치르던 것에 견주어 임자들과 정부에 해마다 치르는 것을 다 합하여 68만 파운드만큼밖에 늘릴 수 없었다. 그렇게 얻은 땅에서 나오는 총세입이 얼마로 여겨졌는지는 이미 말하였거니와, 1769년에 동인도 상선 크러튼든호가 가져온 셈으로는 온갖 공제와 군사 비용을 뺀 순세입이 204만 8,747파운드로 적혀 있었다. 그와 함께 그들은 한편으로는 토지에서 또 주로는 여러 거류지에 세워 둔 관세에서 나오는 43만 9,000파운드의 다른 세입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하원에서 그들의 의장이 내놓은 증언에 따르면 그때 그들의 무역 이윤은 적어도 한 해 40만 파운드에 이르렀고, 그들의 회계 책임자가 내놓은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50만 파운드였으며, 가장 낮게 잡은 셈으로도 적어도 임자들에게 치르기로 한 가장 높은 배당과 맞먹었다. 그토록 큰 세입이라면 해마다 치르는 것을 68만 파운드만큼 늘리고도 그 빚을 빨리 줄이기에 넉넉한 큰 감채 기금을 남겨 둘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1773년에 그들의 빚은 줄기는커녕 늘어났으니, 40만 파운드를 치르는 데에서 국고에 밀린 것이 하나요, 물지 않은 관세로 세관에 밀린 것이 또 하나요, 빌린 돈으로 은행에 진 큰 빚이 또 하나요, 인도에서 그들 앞으로 떼어져 함부로 받아들여진 120만 파운드가 넘는 어음이 넷째였다. 이렇게 쌓인 요구가 그들에게 불러온 궁지 때문에 그들은 배당을 한꺼번에 6퍼센트로

줄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비에 제 몸을 내던져, 첫째로 약정한 한 해 40만 파운드를 더 치르지 않게 해 달라고, 둘째로 당장의 파산을 면하게 140만 파운드를 빌려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보아하니 그 고용인들에게 그 재산이 늘어난 것에 견주어서도 더 큰 헤픔의 구실과 더 큰 빼돌림의 덮개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다. 인도에 있는 그들 고용인이 한 일과 인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들의 살림이 놓인 두루한 형편이 의회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들의 통치를 이루는 얼개에 아주 중요한 고침이 여럿 가해졌다. 인도에서는 그때까지 서로 아주 따로 놓여 있던 마드라스와 봄베이와 콜카타의 으뜸가는 거류지들이 네 사람의 배석 위원이 돕는 총독 아래에 놓였고, 의회는 콜카타에 머물게 될 이 총독과 평의회를 처음으로 지명하는 일을 제 것으로 삼았으니, 그 도시는 이제 예전에 마드라스가 그러하였듯이 인도에서 잉글랜드의 거류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디 그 도시와 그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상업 사건을 재판하려고 세워진 콜카타 시장의 법정은 그 제국이 넓어짐에 따라 제 관할을 차츰 넓혀 왔다. 이제 그것은 그 제도가 세워진 본디의 목적으로 줄어들고 갇혔다. 그 대신에 국왕이 세우는 수석 재판관 한 사람과 재판관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새 최고 사법 법정이 세워졌다. 유럽에서는 임자가 총회에서 표를 던질 자격이 본디 그 회사 자산에서 한 몫의 값이던 5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로 올랐다. 게다가 이 자격으로 표를 던지려면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사들인 경우에는 전에 요구되던 여섯 달 대신에 적어도 한 해 동안은 지니고 있었어야 한다고 똑똑히 정하였다. 스물네 사람의 이사회는 전에는 해마다 뽑았으나, 이제는 앞으로 이사마다 네 해 임기로 뽑되 그 가운데 여섯 사람은 해마다 차례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이듬해의 새 이사 여섯을 뽑는 선거에서 다시 뽑힐 수

없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고침으로 임자 총회도 이사회도 전에 흔히 그러하던 것보다 더 무게 있고 더 흔들림 없이 움직이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어떤 고침으로도 그 총회와 이사회를 큰 제국을 다스리기에, 아니 그 통치에 한몫 끼기에조차 어느 모로도 알맞은 것으로 만들기란 불가능해 보이니, 그 구성원의 큰 몫은 그 제국이 번창하는 데에 걸린 이해가 언제나 너무 적어 그것을 북돋울 만한 일에 진지하게 마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큰 재산을 지닌 사람이, 어떤 때에는 적은 재산을 지닌 사람조차 인도 회사 자산에서 1,000파운드어치 한 몫을 기꺼이 사들이는 일이 흔한데, 이는 오로지 임자 총회에서 표를 하나 던짐으로써 얻으리라고 바라는 입김 때문이다. 그것은 그에게 인도를 노략질하는 데에 한몫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노략질하는 자들을 세우는 데에 한몫을 준다. 이사회가 그 임명을 하기는 하나 그들은 반드시 얼마간 임자들의 입김 아래에 놓이는데, 임자들은 그 이사를 뽑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인도에 있는 제 고용인을 세우는 일까지 뒤집어 놓기 때문이다. 이 입김을 몇 해 누리고 그로써 제 벗 몇몇의 앞길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흔히 배당에도, 아니 제 표가 딛고 선 그 자산의 가치에조차 거의 마음 쓰지 않는다. 그 표가 그에게 통치의 한몫을 주는 그 큰 제국이 번창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아예 마음 쓰지 않는 일이 흔하다. 어떤 주권자도 제 신민이 행복한지 비참한지에, 제 영지가 나아지는지 거덜 나는지에, 제 통치가 빛나는지 부끄러운지에, 그러한 상업 회사의 임자 대부분이 거스를 수 없는 도덕적 까닭으로 그러하며 또 그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토록 아주 무심하였던 적이 없고 일의 본바탕으로 보아 그러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이 무심함은 의회 조사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몇몇 규제 때문에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성싶었다. 이를테면 하원의 결의로 이렇게 선언되었으니, 정부가 그 회사에 빌려준 140만 파운드가 갚아지고

그들의 채무 증서가 150만 파운드로 줄어들면 그때에,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제 자본에 대하여 8퍼센트를 나눌 수 있으며, 본국에 남는 그들의 세입과 순이윤은 무엇이든 네 몫으로 갈라 그 가운데 셋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도록 국고에 들여보내고 넷째 몫은 채무 증서를 더 줄이거나 그 회사에 닥칠지 모를 다른 뜻밖의 급한 일을 갚는 기금으로 남겨 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제 순세입과 이윤 전부가 저희 것이고 저희 뜻대로 쓸 수 있었을 때에도 나쁜 집사이자 나쁜 주권자였다면, 그 4분의 3이 남의 것이 되고 나머지 4분의 1도 그 회사의 이로움을 위하여 쓰이기는 하되 남의 살핌을 받고 남의 승낙을 얻어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나아질 성싶지는 참으로 않았다.

---

1. 옮긴이 — 저본에는 이 대목이 seen 으로 찍혀 있으나 seem 이다. 이 파일의 저본에는 이와 같이 한두 글자가 어긋난 자리가 몇 군데 더 있으며, 모두 뜻이 통하는 쪽으로 읽어 옮겼다. 곧 made add maintained 는 and, would probably he augmented 는 be, recur very frequently te this resource 는 to, exemption front trouble and front risk 는 from, should bind the rust 는 rest, new divisions or labour 는 of labour, their principal settlements or Madras 는 of Madras, govermnent 는 government, aquire 는 acquire 다.

2. 옮긴이 — 리브르는 그때 프랑스의 셈 화폐이고 마르크는 은의 무게 단위다. 은 1마르크를 28리브르로 친다는 것은 은값으로 두 나라 화폐를 견준다는 뜻이다. 피에르폴 리케(1609~1680)는 랑그도크운하를 설계하고 공사를 이끈 사람으로, 그 운하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다.

3. 옮긴이 — 괄호 안은 스미스가 본문에 중괄호로 끼워 넣은 자신의 주다. 옮긴이가 덧붙인 말이 아니다.

4. 옮긴이 — 괄호 안은 스미스가 본문에 중괄호로 끼워 넣은 자신의 주다.

5. 옮긴이 — 프랑수아 베르니에(1620~1688)는 프랑스 의사로 무굴 제국에 열두 해 남짓 머물며 여행기를 남겼다.

6. 옮긴이 — 잉글랜드에서는 교구민이 해마다 엿새 동안 길 닦는 일에 나가야 했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부역을 코르베라 하였다. 코르베는 삯 없이 시키는 노역을 말한다.

7. 옮긴이 — 도시의 자유민 자격은 그 도시에서 장사하거나 동업조합에 들 권리를 말한다. 도제살이를 마치거나 돈을 내거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얻었다.

8.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킨다. 이 장에 나오는 국왕이 왕위에 오른 해는 찰스 2세 1660년(치세 연차는 아버지가 죽은 1649년부터 센다), 윌리엄 3세 1689년, 조지 2세 1727년, 조지 3세 1760년이다.

9. 옮긴이 — 조사이아 차일드(1630~1699)는 잉글랜드 상인으로 동인도회사 총재를 지냈고 『무역에 관한 새 담론』을 썼다.

10. 옮긴이 — 쿠르시터 배런은 재무 법정에 딸린 관원으로 재판보다 회계와 서류를 맡았다.

11. 옮긴이 — 권리선언은 1689년에 의회가 내놓아 뒤에 권리장전이 된 문서로, 국왕이 의회의 뜻을 거슬러 법을 멈추거나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명예혁명은 1688년에서 1689년 사이에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오른 일을 말한다.

12. 옮긴이 — 아서 도브스(1689~1765)는 허드슨만 회사의 독점을 공격한 글을 냈고, 애덤 앤더슨(1692?~1765)은 상업의 역사를 다룬 책을 냈다.

13. 옮긴이 — 아시엔토는 스페인 국왕이 제 아메리카 식민지에 노예를 대는 일을 남에게 맡기던 계약이다. 위트레흐트 조약은 1713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끝낸 조약으로, 이 계약이 그때 영국으로 넘어왔다.

14. 옮긴이 — 아헨 조약은 1748년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끝낸 조약이다. 엑스라샤펠은 오늘날 독일의 아헨이다.

15. 옮긴이 — 미카엘 축일은 9월 29일로, 잉글랜드에서 네 분기일 가운데 하나여서 셈을 치르고 계약을 맺고 끝내는 날로 쓰였다.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이어서)

8퍼센트로 잡아 둔 배당을 치르고 나서 무엇이든 남는 나머지가, 그 결의로 말미암아 얼마쯤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 손에 들어가느니보다, 회사 자신의 심부름꾼과 딸린 이들이 그것을 헤프게 쓰는 즐거움이나 빼돌리는 이득을 누리는 편이 회사에게는 더 마음에 들었을 법하다. 그 심부름꾼과 딸린 이들의 이해는 임자 회의에서 어찌나 크게 판을 쳤던지, 그 회의는 더러 제 권위를 정면으로 거슬러 저질러진 노략질의 장본인을 두둔하는 쪽으로 기울기까지 하였다. 임자의 다수에게는 제 회의의 권위를 받쳐 주는 일조차, 그 권위를 대놓고 짓밟은 자들을 받쳐 주는 일보다 덜 중요한 일이었던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러므로 1773년의 규제는 인도에서 회사가 하던 통치의 어지러움을 끝내지 못하였다. 몸가짐이 반듯했던 잠깐의 발작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이 한때 콜카타의 금고에 3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 돈을 거두어들였는데도[1], 그 뒤에 인도에서 가장 걸차고 가장 기름진 나라 가운데 얼마를 크게 더 보태어 제 지배나 제 노략질을 거기까지 넓혔는데도, 모두 헤프게 쓰이고 무너졌다. 그들은 하이다르 알리의 침입을 막거나 맞서기에 도무지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았다'[2]. 그리고 그 어지러움의 결과로 회사는 이제(1784년) 어느 때보다 더 큰 곤경에 빠져 있으며, 당장의 파산을 막으려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도움을 애걸하는 데까지 몰려 있다. 그 일을 더 낫게 꾸려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의회의 여러 당파에서 나왔는데, 그 계획들은 모두 한 가지를 미리 놓고 들어가는 듯하니, 참으로 언제나 넘치도록 뚜렷하던 것, 곧 그 회사가 제 영토를 다스리기에 도무지 알맞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 자신조차 제 무능을 그만큼은 알아차린 듯하며, 그 까닭에 영토를 정부에 넘겨줄 뜻이 있는 듯하다.

멀고 미개한 나라에 요새와 수비대를 둘 권리에는 그 나라에서 화친을 맺고 전쟁을 벌일 권리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앞의 권리를 가졌던 합본 회사들은 늘 뒤의 권리도 휘둘렀고, 더러는 그 권리를 드러내 놓고 받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그 권리를 여느 때에 얼마나 부당하게, 얼마나 변덕스럽게, 얼마나 모질게 휘둘렀는지는 가까운 경험에서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어떤 상인 무리가 제 위험과 제 비용으로 멀고 미개한 나라와 새 거래를 트겠다고 나설 때, 그들을 합본 회사로 묶어 주고 그들이 성공할 경우에 몇 해 동안 그 거래의 독점을 내주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뒷날 대중이 그 이익을 거두게 될 위험하고 비싼 시도를 무릅써 준 데 대하여 나라가 그들에게 갚아 줄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이런 종류의 한때뿐인 독점은, 새 기계의 비슷한 독점을 그 발명자에게 주고 새 책의 그것을 그 지은이에게 주는 것과 같은 원리 위에서 두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하면 독점은 반드시 끝나야 하고, 요새와 수비대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혀졌다면 그것은 정부의 손에 넘어가고 그 값은 회사에 치러 주며, 거래는 나라의 모든 신민에게 열어 주어야 한다. 독점이 영구히 이어지면 나라의 다른 모든 신민은 두 가지 다른 길로 몹시 터무니없이 세금을 물게 된다. 첫째는 물건 값이 높아서인데, 거래가 자유로웠다면 그들은 그것을 훨씬 헐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그들 가운데 많은 이에게 편하고도 이로울 수 있었을 사업의 한 갈래에서 죄다

밀려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세금을 무는 것은 온갖 목적 가운데 가장 값없는 목적을 위해서다. 그것은 다만 회사가 제 심부름꾼들의 태만과 헤픔과 부정을 떠받칠 수 있게 하려는 것뿐인데, 그 심부름꾼들의 어지러운 몸가짐 탓에 회사의 배당이 아주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예사 이윤율을 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그 비율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일이 아주 잦다. 그러나 독점이 없으면 합본 회사는 외국 거래의 어느 갈래도 오래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 경험으로 드러나는 듯하다. 한 시장에서 사들여 다른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고 파는 일, 그것도 두 시장 모두에 겨루는 이가 많을 때에 그리하는 일, 수요의 이따금씩 일어나는 변동뿐 아니라 겨룸에서 일어나는 훨씬 크고 훨씬 잦은 변동, 곧 그 수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게 될 공급에서 일어나는 변동까지 지켜보는 일, 그리고 물건 한 벌 한 벌의 양과 질을 이 온갖 사정에 솜씨 있고 사리에 맞게 맞추는 일은 일종의 싸움이어서, 그 움직임이 끊임없이 바뀌며, 합본 회사의 이사들에게서는 오래 바랄 수 없는 저 그침 없는 경계와 주의를 쏟지 않고서는 좀처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동인도회사는 제 기금을 되사고 제 배타적 특권이 다하고 나면, 의회의 법에 따라 자산을 한데 모은 단체로 이어 가면서 그 단체의 자격으로 다른 동료 신민과 나란히 동인도와 거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서라면 사사로운 모험가의 더 나은 경계와 주의가 머지않아 그들을 그 거래에 넌더리 나게 만들 것이 거의 틀림없다.

정치경제학의 일에 아는 것이 많은 이름난 프랑스 지은이 모를레 신부는 1600년 이래 유럽 여러 곳에 세워진 외국 거래용 합본 회사 쉰다섯 곳의 목록을 내놓는데, 그에 따르면 그 회사들은 배타적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모두 잘못된 경영 탓에 무너졌다[3]. 그는 그 가운데 두세 곳의 내력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것들은 합본 회사도

아니었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무너진 합본 회사가 여럿 더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빠뜨렸다.

배타적 특권 없이도 합본 회사가 성공해 이어 갈 수 있을 듯한 거래는, 그 움직임이 죄다 이른바 판박이로, 곧 변화를 거의 또는 전혀 허락하지 않는 한결같은 방식으로 줄여질 수 있는 거래뿐이다. 이런 종류의 것으로는 첫째로 은행업이 있고, 둘째로 불과 바닷길의 위험과 전쟁 때의 나포에 대비하는 보험업이 있으며, 셋째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이나 운하를 내고 지키는 업이 있고, 넷째로 큰 도시에 물을 대 주려고 물을 끌어 오는 그와 비슷한 업이 있다.

은행업의 원리가 얼마쯤 알기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그 실무는 엄한 규칙으로 줄여질 수 있다. 남다른 벌이가 있으리라는 솔깃한 궁리에 넘어가 어떤 경우에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언제나 몹시 위험하며, 그것을 해 보는 은행 회사에게 목숨이 걸린 일이 되는 때가 잦다. 그런데 합본 회사의 짜임새는 대체로 그들을 어떤 사사로운 동업보다도 정해진 규칙에 더 끈덕지게 매달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런 회사는 이 거래에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 듯하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은행 회사는 합본 회사이며, 그 가운데 많은 곳이 아무런 배타적 특권 없이도 제 거래를 아주 잘 꾸려 나간다. 잉글랜드 은행은 잉글랜드의 다른 어떤 은행 회사도 여섯 사람을 넘겨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말고는 다른 배타적 특권이 없다. 에든버러의 두 은행은 아무런 배타적 특권이 없는 합본 회사다.

불에서 오는 것이든 바다에서 잃는 것이든 나포로 잃는 것이든, 그 위험의 값어치는 아마 아주 정확히 셈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래도 대충 어림할 수는 있어서 얼마쯤은 엄한 규칙과 방법으로 줄여진다. 그러므로 보험업은 아무런 배타적 특권 없이도 합본 회사가 성공해 이어 갈 수

있다. 런던 어슈어런스도 로열 익스체인지 어슈어런스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이나 운하가 한번 뚫리고 나면 그것을 꾸려 가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져 엄한 규칙과 방법으로 줄여진다. 그것을 내는 일조차 그러하니, 1마일에 얼마, 갑문 하나에 얼마로 사업가와 도급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도시에 물을 대 주려고 물을 끌어 오는 운하나 수로나 큰 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업은 아무런 배타적 특권 없이도 합본 회사가 아주 잘 꾸려 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리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합본 회사가 그것을 성공해 꾸려 갈 수 있으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회사를 세우는 일, 또는 어떤 특정한 장수무리가 그런 면제를 받으면 잘될 수 있으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이웃 모두에게 두루 미치는 일반 법에서 얼마쯤 면제해 주는 일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립이 온전히 사리에 맞으려면, 엄한 규칙과 방법으로 줄여질 수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다른 두 가지 사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로 그 사업이 여느 거래의 대부분보다 더 크고 더 널리 미치는 쓸모가 있음이 더없이 또렷한 증거로 드러나야 하고, 둘째로 그것이 사사로운 동업에 쉬이 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을 필요로 해야 한다. 알맞은 자본으로 넉넉하다면 그 사업의 큰 쓸모만으로는 합본 회사를 세울 넉넉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내놓을 것에 대한 수요가 사사로운 모험가들에 의해 선뜻 쉽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든 네 가지 거래에서는 그 두 가지 사정이 함께 갖추어진다.

은행업이 슬기롭게 꾸려질 때 지니는 크고 널리 미치는 쓸모는 이 탐구의 둘째 편에서 낱낱이 밝혔다. 그러나 공공 신용을 떠받치고 특별한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세금의 생산물 전부를, 아마 여러

백만에 이르는 액수를 그것이 들어오기 한두 해 앞서 정부에 꾸어 주어야 하는 공공 은행은, 어떤 사사로운 동업에도 쉬이 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을 필요로 한다.

보험업은 사사로운 사람들의 재산에 큰 안전을 주며, 한 개인을 결딴낼 손실을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지움으로써 그것이 사회 전체에 가볍고 수월하게 내려앉게 만든다. 그러나 이 안전을 주려면 보험을 드는 쪽이 아주 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런던에 보험을 위한 두 합본 회사가 서기 전에, 몇 해 사이에 무너진 사사로운 보험업자 백쉰 명의 목록이 법무장관 앞에 놓였다고 한다[4].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과 운하, 그리고 큰 도시에 물을 대 주는 데에 더러 필요한 공사가 크고 널리 미치는 쓸모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사사로운 사람들의 재산에 걸맞지 않을 만큼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잦다는 것은 넉넉히 뚜렷하다.

위에 든 네 가지 거래 말고는, 합본 회사를 세우는 일을 사리에 맞게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사정이 다 갖추어지는 다른 거래를 나는 떠올릴 수가 없었다. 런던의 영국 구리 회사, 납 제련 회사, 유리 연마 회사는 저희가 좇는 목적에 크거나 남다른 쓸모가 있다는 핑계조차 대지 못하며, 그 목적을 좇는 데에 사사로운 사람 여럿의 재산에 걸맞지 않을 비용이 든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회사들이 이어 가는 거래가 합본 회사의 경영에 알맞을 만큼 엄한 규칙과 방법으로 줄여지는지, 또는 그들이 남다른 이윤을 자랑할 까닭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나는 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광산 모험가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하였다. 에든버러의 영국 아마포 회사의 자산 한 몫은 지금 평가보다 훨씬 아래로 팔리는데, 다만 몇 해 전보다는 덜 그러하다[5]. 어떤 특정한 제조업을 북돋운다는 공공심 어린 목적으로 세워진 합본 회사들은 제 일을 잘못 꾸려 사회의 총자산을 줄이는 데에 더하여, 다른 모로도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 끼치지 않는 일이 좀처럼 없다. 더없이 올곧은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제조업의 어떤 특정한 갈래에 어쩔 수 없이 치우치게 되고 그 갈래의 사업가들이 그들을 그릇 이끌고 속여 먹는 탓에, 그것은 나머지 갈래에게 참된 주눅이 되며,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리에 맞는 근면과 이윤 사이에 저절로 자리 잡았을 저 자연스러운 비례를 얼마쯤 반드시 깨뜨리는데, 그 비례야말로 나라의 근면 전체에 온갖 북돋움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 있는 것이다.

2항 — 젊은이를 가르치는 기관의 비용에 대하여

젊은이를 가르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 비용을 치르기에 넉넉한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 학생이 스승에게 치르는 수업료 곧 사례금이 저절로 이런 종류의 수입을 이룬다.

스승이 받는 갚음이 죄다 이 자연스러운 수입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그것이 사회의 저 일반 수입에서 나와야 할 까닭은 여전히 없으니, 그 일반 수입을 걷고 쓰는 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행 권력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에서 학교와 칼리지의 기부 재산은 그 일반 수입에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거나 지워도 아주 적게 지운다. 그것은 어디서나 주로 어떤 고장이나 지방의 수입에서, 어떤 토지 재산의 지대에서, 또는 얼마간의 돈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생겨나는데, 그 돈은 더러는 주권자 자신이 더러는 어떤 사사로운 기부자가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떼어 놓고 수탁자의 손에 맡겨 둔 것이다.

그 공공 기부 재산은 대체로 그것을 세운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하였는가? 그것은 가르치는 이들의 부지런함을 북돋우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이바지하였는가? 그것은 교육의 진로를, 저절로 나아갔을 방향보다 개인에게나 대중에게나 더 쓸모 있는 목표 쪽으로

이끌었는가? 이 물음 하나하나에 적어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일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직업에서나 그것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쏟는 힘은 언제나 그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비례한다. 이 절박함은 제 직업에서 나오는 보수가 제 재산은 물론이고 제 예사 수입과 생계까지 바라볼 유일한 원천인 이들에게 가장 크다. 이 재산을 얻으려면, 아니 이 생계라도 얻으려면 그들은 한 해 동안에 값이 알려진 일감을 일정한 양만큼 해내야 하며, 겨룸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서로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려고 애쓰는 겨루는 이들의 맞겨룸이 사람마다 제 일을 얼마쯤 정확하게 해내려 애쓰게 만든다.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성공하여 얻을 목표가 크다는 것이 남다른 기개와 야심을 지닌 몇몇 사람의 힘씀을 더러 북돋우는 일이 있음은 물론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 큰 힘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목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이 뚜렷하다. 맞겨룸과 서로 앞지르려는 마음은 하찮은 직업에서조차 뛰어남을 야심의 목표로 만들고, 더없이 큰 힘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잦다. 이와 달리 큰 목표는 홀로 있고 꾸준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이렇다 할 힘씀을 불러일으키기에 넉넉했던 적이 드물다. 잉글랜드에서 법률가라는 직업에서 성공하면 야심의 아주 큰 목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넉넉한 재산을 타고난 사람 가운데 그 직업에서 이름을 떨친 이가 얼마나 적었던가?

학교와 칼리지의 기부 재산은 가르치는 이들이 꾸준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얼마쯤 반드시 줄여 왔다. 그들의 생계는 봉급에서 나오는 한, 제 특정한 직업에서 거두는 성공이나 평판과는 아주 무관한 기금에서 나옴이 뚜렷하다.

어떤 대학에서는 봉급이 가르치는 이가 받는 보수의 한 부분, 더러는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고, 그 보수의 더 큰 몫은 제자들이 내는

사례금이나 수업료에서 나온다[6]. 이 경우에 꾸준히 매달릴 절박함은 늘 얼마쯤 줄어들기는 하나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제 직업에서 얻는 평판이 그에게 그래도 얼마쯤 중요하고, 그는 제 가르침을 들은 이들의 애정과 고마움과 좋은 평판에 그래도 얼마쯤 기대고 있다. 그리고 이 좋은 마음을 얻는 데에 그것을 받을 만하게 되는 것보다, 곧 제 의무의 어느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해내는 능력과 부지런함으로 그리하는 것보다 나은 길은 없을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이가 제자에게서 어떤 사례금이나 수업료도 받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고, 봉급이 그가 제 자리에서 얻는 수입의 전부를 이룬다. 이 경우에 그의 이해는 제 의무와 맞세울 수 있는 데까지 곧바로 맞세워져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 이익이며, 아주 고된 어떤 의무를 하든 하지 않든 제 보수가 꼭 같을 것이라면, 그것을 아주 저버리거나, 그리하도록 두지 않는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면 그 권위가 허락하는 데까지 되는대로 어설프게 해치우는 것이 적어도 이익이라는 말을 흔히 알아듣는 뜻으로 보자면 틀림없이 그의 이익이다. 그가 천성으로 부지런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지런함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제 의무를 해내는 데에 쓰기보다 얼마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무 쪽으로나 쓰는 것이 그의 이익이다.

그가 매여 있는 권위가 그 자신이 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 곧 칼리지나 대학 안에 있고,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이이거나 가르치는 이여야 할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서로에게 아주 너그러워지기 쉽고, 저마다 제가 제 의무를 저버리도록 허락받는 한 제 이웃이 제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여기기 쉽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공공 교수의 대부분이 여러 해 전부터 가르친다는 시늉마저 아주 그만두었다.

그가 매여 있는 권위가 그가 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보다도 바깥의 어떤 사람들, 이를테면 교구의 주교나 지방의 총독이나 어쩌면 어떤 대신에게 있다면, 이 경우에는 참으로 그가 제 의무를 아주 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윗사람들이 그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정한 시간만큼 제자들 앞에 나오는 일, 곧 한 주에 또는 한 해에 일정한 수의 강의를 하는 일뿐이다. 그 강의가 어떤 것이 될지는 여전히 가르치는 이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고, 그 부지런함은 그가 그것을 쏟을 동기에 비례하기 쉽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바깥에서 오는 관할은 무지하게도 변덕스럽게도 휘둘리기 쉽다. 그 성질로 보아 그것은 제멋대로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인 것이며,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이의 강의를 스스로 듣지도 않고 어쩌면 그가 가르쳐야 할 학문을 알지도 못하므로, 그것을 사리에 맞게 휘두를 만한 이가 드물다. 게다가 자리에서 오는 거만함 탓에 그것을 어떻게 휘두르든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잦고, 아무런 옳은 까닭 없이 함부로 그를 나무라거나 자리에서 떼어 내기가 아주 쉽다. 그런 관할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깎아내려지며,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가장 하찮고 가장 업신여김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가 언제나 놓여 있는 그 나쁜 대우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힘 있는 비호뿐이며, 이 비호를 얻는 길은 제 직업에서 보이는 능력이나 부지런함이 아니라 윗사람의 뜻에 굽실거리는 것, 그리고 그가 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의 권리와 이익과 명예를 언제라도 그 뜻에 바칠 채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쉽다. 프랑스 대학의 운영을 얼마간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제멋대로이고 바깥에서 오는 관할에서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결과를 알아차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가르치는 이들의 공적과 평판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학생을 어떤 칼리지나 대학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이든 그 공적과 평판이 있어야 할 까닭을 얼마쯤 줄인다.

문학과 법학과 의학과 신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일정한 대학에서 일정한 햇수를 지내야만 얻을 수 있을 때에 가르치는 이들의 공적이나 평판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학생을 그런 대학으로 반드시 몰아넣는다. 학위를 받은 이들의 특권은 일종의 도제법이며, 다른 도제법이 기예와 제조업을 나아지게 한 것과 꼭 같은 만큼 교육을 나아지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장학금과 급비와 보조금 따위의 자선 기금은 그 특정한 칼리지의 공적과는 아주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학생을 일정한 칼리지에 반드시 붙들어 맨다[7]. 그런 자선 기금을 받는 학생이 제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칼리지를 고를 자유를 누린다면, 그 자유는 아마 여러 칼리지 사이에 서로 앞지르려는 마음을 얼마쯤 불러일으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달리 어느 특정한 칼리지의 얽매이지 않은 구성원조차, 떠나려는 곳의 허락을 먼저 얻지 않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그 마음을 끄는 데에 아주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칼리지마다 학생 하나하나에게 온갖 기예와 학문을 가르쳐야 할 지도 교사 곧 가르치는 이를 학생이 제 뜻으로 고르지 못하고 칼리지의 우두머리가 정해 준다면, 그리고 그가 저버리거나 모자라거나 학생을 나쁘게 대하더라도 학생이 허락을 먼저 얻지 않고는 다른 이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런 규정은 같은 칼리지의 여러 지도 교사 사이에 서로 앞지르려는 마음을 죄다 끄는 데에 아주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서 제자들에 대한 부지런함과 주의가 있어야 할 까닭을 아주 크게 줄일 것이다. 그런 가르치는 이들은 학생에게서 삯을 아주 넉넉히

받더라도, 학생에게서 삯을 전혀 받지 않는 이들이나 봉급 말고는 다른 갚음이 없는 이들만큼이나 학생을 저버리기 쉬울 것이다.

가르치는 이가 마침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동안 제가 말하거나 읽고 있는 것이 헛소리이거나 헛소리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것임을 스스로 아는 일이 그에게 언짢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제 학생의 대부분이 제 강의를 저버리는 것, 또는 어쩌면 저버림과 업신여김과 비웃음의 표가 넉넉히 드러나는 낯빛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일도 그에게 언짢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가 일정한 수의 강의를 해야만 한다면, 다른 아무런 이해가 없더라도 이 동기만으로 그럭저럭 좋은 강의를 하려고 얼마쯤 애쓰는 마음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부지런함을 부추기는 이 모든 것의 날을 감쪽같이 무디게 만들 여러 가지 방편을 찾아낼 수 있다. 가르치는 이는 제가 가르치겠다고 내세운 학문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풀어 주는 대신, 그것에 관한 어떤 책을 읽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낯설고 죽은 말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제자들의 말로 옮겨 주거나, 또는 제 수고를 더욱 덜자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제게 옮기게 하고 이따금 거기에 한마디씩 얹음으로써,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뻐기게 된다. 앎과 애씀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는 참으로 어리석거나 터무니없거나 우스운 말을 하여 업신여김이나 비웃음을 사는 일 없이 이만큼은 해내고도 남는다. 동시에 칼리지의 규율 덕분에 그는 제 제자들을 죄다 그 헛강의에 더없이 어김없이 나오게 만들고, 그 공연이 이어지는 내내 더없이 얌전하고 공손한 몸가짐을 지키게 만들 수 있다.

칼리지와 대학의 규율은 대체로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승의 이해, 더 바로 말하자면 스승의 편함을 위해서 꾸며져 있다. 그 목적은 어느 경우에나 스승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며, 스승이 제 의무를 저버리든 해내든 어느 경우에나 학생으로 하여금 그가 제 의무를 더없는

부지런함과 능력으로 해내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를 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한쪽 무리에게는 온전한 슬기와 덕을, 다른 쪽 무리에게는 더없는 약함과 어리석음을 미리 놓고 들어가는 듯하다. 그러나 스승이 참으로 제 의무를 해내는 곳에서 학생의 대부분이 제 의무를 저버린 본보기는 내가 알기로 하나도 없다. 참으로 들을 만한 강의에 나오게 하려고 규율을 쓸 일은 결코 없으니, 그런 강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이나 아주 어린 소년에게 삶의 그 이른 시기에 익혀 두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배우게 하려면 힘과 얽맴이 얼마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열두세 살이 지나고 나면, 스승이 제 의무를 해내기만 한다면 교육의 어느 부분을 이어 가는 데에도 힘이나 얽맴이 필요한 일은 좀처럼 없다. 젊은이 대부분의 너그러움이 어찌나 큰지, 스승이 제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는 진지한 뜻을 얼마간 보여 주기만 하면 그들은 그 가르침을 저버리거나 업신여기기는커녕, 대개 그가 제 의무를 해내는 데에 서투른 구석이 많아도 너그러이 보아 넘기고, 더러는 꽤 심한 태만조차 세상에 감추어 주기까지 한다.

눈여겨볼 것은, 그것을 가르칠 공공 기관이 없는 교육의 부분이 대개 가장 잘 가르쳐진다는 점이다. 젊은이가 검술 학교나 춤 학교에 가면 참으로 늘 검술이나 춤을 아주 잘 배우게 되지는 않으나, 검술이나 춤을 배우지 못하고 마는 일은 드물다. 승마 학교의 좋은 효과는 대개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승마 학교의 비용이 어찌나 큰지 대부분의 곳에서 그것은 공공 기관이다. 글 배움의 세 가지 가장 요긴한 부분, 곧 읽기와 쓰기와 셈하기는 여전히 공공 학교보다 사사로운 학교에서 익히는 편이 더 흔하며, 그것을 익혀야 할 만큼 익히지 못하고 마는 일은 누구에게든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잉글랜드에서 공공 학교는 대학보다 훨씬 덜 썩었다. 학교에서 젊은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곧 스승이 가르치겠다고 내세우는 모든 것이자 가르치리라 기대되는 모든 것을 배우거나 적어도 배울 수는 있다. 대학에서 젊은이는 그 법인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학문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배울 마땅한 길을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 스승이 받는 갚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로, 더러는 거의 죄다 제 학생이 내는 수업료나 사례금에 달려 있다. 학교에는 배타적 특권이 없다. 학위의 영예를 얻는 데에 공공 학교에서 몇 해를 공부했다는 증서를 내놓아야 할 까닭은 없다. 시험을 쳐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알아듣는다고 드러나면,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대학에서 흔히 가르치는 교육의 부분이 그리 잘 가르쳐지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기관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아예 흔히 가르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도 대중도 교육의 그 중요한 부분이 없어 적잖이 해를 입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대학은 본디 그 대부분이 성직자를 기르려고 세운 교회 단체였다. 그것은 교황의 권위로 세워졌고 그의 직접 비호 아래 어찌나 깊이 놓여 있었던지, 그 구성원은 스승이든 학생이든 모두 그때 성직자 특전이라 불리던 것을 누렸으니[8], 곧 그 대학이 자리 잡은 나라의 세속 관할에서 벗어나 오직 교회 법정에만 매여 있었다. 그런 대학의 대부분에서 가르치던 것은 그 기관을 세운 목적에 걸맞은 것, 곧 신학이거나 신학으로 가는 채비에 지나지 않는 무엇이었다.

그리스도교가 법으로 처음 자리 잡았을 때에는 썩은 라틴어가 유럽 서쪽 모든 지방의 공통된 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도, 교회에서 읽던 성경의 번역도 둘 다 그 썩은 라틴어, 곧 그 나라의 공통된 말로 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을 뒤엎은 미개한 민족이 밀려든

뒤로 라틴어는 유럽 어느 곳의 말도 아니게 차츰 바뀌어 갔다. 그러나 백성의 경외는 종교의 자리 잡은 꼴과 의식을, 그것을 처음 들여오고 사리에 맞게 만들었던 사정이 사라진 뒤로도 오래 저절로 지켜 준다. 그러므로 라틴어를 백성의 큰 무리가 어디서도 더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교회의 예배는 죄다 그 말로 치러지기를 이어 갔다. 이렇게 하여 유럽에는 옛 이집트에서와 꼭 같이 두 가지 다른 말이 자리 잡았으니, 사제의 말과 백성의 말, 거룩한 말과 속된 말, 배운 말과 배우지 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사제는 제가 예배를 치를 그 거룩하고 배운 말을 얼마쯤은 알아들어야 했으므로, 라틴어 공부가 처음부터 대학 교육의 요긴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두고는 사정이 달랐다. 교회의 그르칠 수 없는 결정이 흔히 라틴어 불가타라 불리는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두고 그것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원문과 똑같이 신의 영감으로 받아쓴 것이며 따라서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고 선언해 놓았던 것이다[9]. 그러므로 그 두 말의 앎이 성직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 공부는 오랫동안 대학 교육의 여느 과정에 꼭 들어야 할 부분으로 들지 못하였다. 내가 듣기로 스페인의 어떤 대학에서는 그리스어 공부가 아직까지도 그 과정의 한 부분이 된 적이 없다고 한다. 첫 종교 개혁자들은 신약의 그리스어 본문과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까지도 불가타 번역보다 제 의견에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아냈으니, 그 번역은 저절로 그러리라 여겨지듯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받쳐 주는 쪽으로 차츰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번역의 숱한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에 나섰고, 로마 가톨릭 성직자는 그리하여 그것을 감싸거나 풀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 일은 원어를 얼마쯤 알지 않고는 제대로 해낼 수 없었으므로, 그 공부가 종교 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인 대학에서나 물리친 대학에서나 대부분의 대학에 차츰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스어는 저 고전 학문의 모든 부분과 이어져 있었는데, 그 학문은 처음에는 주로 가톨릭 신자와 이탈리아 사람이 가꾸었으나 마침 종교 개혁의 교리가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무렵에 유행을 타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말은 철학 공부에 앞서, 그리고 학생이 라틴어에서 얼마쯤 나아가자마자 가르쳐졌다. 히브리어는 고전 학문과 이어진 데가 없고 성경 말고는 이렇다 할 책이 한 권도 쓰이지 않은 말이었으므로, 그 공부는 철학 공부를 마치고 학생이 신학 공부에 들어선 뒤에야 대개 시작되었다.

본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첫걸음은 둘 다 대학에서 가르쳤고, 어떤 대학에서는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이 그 두 말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의 첫걸음만이라도 미리 익혀 오기를 바라는데, 그 공부는 어디서나 대학 교육의 아주 큰 부분을 이루기를 이어 가고 있다.

옛 그리스 철학은 세 개의 큰 갈래로 나뉘었으니, 자연학 곧 자연철학과 윤리학 곧 도덕철학과 논리학이다. 이 큰 나눔은 사물의 본성에 더없이 걸맞아 보인다.

자연의 큰 현상,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의 돎과 일식과 혜성, 천둥과 번개와 그 밖의 남다른 대기 현상, 풀과 짐승이 생겨나고 살고 자라고 스러지는 일은 사람의 놀라움을 반드시 불러일으키는 만큼 그 까닭을 캐물으려는 궁금함도 저절로 불러낸다. 미신이 먼저 이 궁금함을 채워 보려고 그 모든 놀라운 나타남을 신들이 곧바로 부린 일로 돌렸다. 그 뒤에 철학이 그것을 더 낯익은 원인에서, 또는 신들이 부린 일보다 사람이 더 잘 아는 원인에서 설명해 보려 하였다. 그 큰 현상이 사람의 궁금함이 맨 먼저 향하는 목표인 만큼,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내세우는 학문이 저절로 가장 먼저 가꾸어진 철학의 갈래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가 그 자취를 남겨 준 첫 철학자들은 자연철학자였던 듯하다.

세상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은 서로의 성품과 뜻과 행동을 눈여겨보았을 수밖에 없고, 사람 사는 길을 이끄는 여러 훌륭한 규칙과 격률이 세워지고 다 함께 받아들여졌을 수밖에 없다. 글이 유행하자마자 슬기로운 이, 또는 스스로 그렇다고 여긴 이들은 저절로 그 자리 잡고 받들어진 격률의 수를 늘리려 애쓰고, 무엇이 옳은 몸가짐이고 무엇이 그른 몸가짐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타내려 애썼을 터인데, 더러는 이솝의 우화라 불리는 것처럼 더 꾸민 우화의 꼴로, 더러는 솔로몬의 잠언이나 테오그니스와 포킬리데스의 시구나 헤시오도스가 쓴 것의 얼마처럼 더 단순한 경구나 슬기로운 말의 꼴로 그리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저 신중함과 도덕의 격률을 수만 늘려 갔을 뿐, 그것을 뚜렷하거나 짜임새 있는 차례로 벌여 놓으려 해 보지도 않았고, 자연의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듯 그 모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일반 원리로 그것을 이어 매는 일은 더더욱 해 보지 않았다. 몇 개의 공통된 원리로 이어 맨 여러 관찰을 짜임새 있게 벌여 놓는 데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자연철학의 체계를 향하여 나아간 저 옛 시대의 거친 시도에서 처음 드러났다. 그 뒤에 도덕에서도 같은 종류의 무엇이 시도되었다. 여느 삶의 격률이 짜임새 있는 차례로 벌여지고 몇 개의 공통된 원리로 이어 매어졌으니, 자연의 현상을 벌여 놓고 이어 매려 했던 것과 꼭 같은 식이었다. 그 이어 매는 원리를 캐내고 설명하겠다고 내세우는 학문이 바로 도덕철학이라 제대로 불리는 것이다.

지은이마다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의 체계를 저마다 달리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러 체계를 받쳐 주려고 든 논거는 언제나 논증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잘해야 아주 얄팍한 그럴듯함에 지나지 않는 때가 잦았으며, 더러는 여느 말의 부정확함과 애매함 말고는 다른 바탕이 없는 한낱 궤변이었다. 사변의 체계는 세상의 어느 시대에나, 돈이 아주 조금이라도 걸린 일에서라면 분별 있는 사람 누구의 판단도

움직이지 못했을 만큼 하찮은 이유로 받아들여져 왔다. 거친 궤변이 사람의 의견에 힘을 미친 적은 철학과 사변의 일에서 말고는 거의 없으나, 이 일에서는 가장 큰 힘을 미친 적이 잦았다.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의 체계마다 그 편을 드는 이들은 제 것과 맞서는 체계를 받쳐 주려고 든 논거의 약함을 들추어내려고 저절로 애썼다. 그 논거를 살피다 보니 그들은 그럴듯한 논거와 논증하는 논거 사이, 그릇된 논거와 결론을 내는 논거 사이의 차이를 헤아리게 될 수밖에 없었고, 논리학 곧 옳은 추론과 그른 추론의 일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 이런 종류의 살핌에서 나온 관찰로부터 반드시 생겨났다. 그것은 그 시작으로 보면 자연학보다도 윤리학보다도 뒤였으나, 옛 철학 학파 모두에서는 아닐지라도 그 대부분에서 그 두 학문에 앞서 가르쳐지는 것이 여느 일이었다. 학생은 그토록 중요한 주제를 놓고 추론하기에 앞서 옳은 추론과 그른 추론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듯하다.

철학을 세 부분으로 나눈 이 옛 나눔은 유럽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섯 부분으로 나누는 다른 나눔으로 바뀌었다.

옛 철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관한 것이든 신의 본성에 관한 것이든 가르치는 바가 모두 자연학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 존재들은 그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든 우주라는 큰 체계의 부분이었고, 더구나 더없이 중요한 결과를 낳는 부분이었다. 사람의 이성이 그것에 관하여 결론지을 수 있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든, 우주라는 큰 체계의 기원과 돎을 밝히겠다고 내세우는 학문의 이를테면 두 장을 이루었으니, 물론 아주 중요한 두 장이었다. 그러나 철학을 오직 신학의 시녀로만 가르치던 유럽의 대학에서는 그 학문의 다른 어느 장보다 이 두 장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것은 차츰 더욱더 늘어나고 더 작은 여러 장으로 나뉘어, 마침내 알 수 있는 것이 그토록 적은 영에 관한 교설이 알 수

있는 것이 그토록 많은 물체에 관한 교설만큼이나 철학 체계에서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두 주제에 관한 교설은 서로 다른 두 학문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른바 형이상학 곧 영혼학이 자연학과 맞세워졌고, 더 드높을 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업의 목적으로 보아 둘 가운데 더 쓸모 있는 학문으로서 가꾸어졌다. 실험과 관찰의 마땅한 주제, 곧 꼼꼼히 살피면 그토록 쓸모 있는 발견을 그토록 많이 해낼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죄다 버려졌다. 아주 적고 거의 뻔한 몇 가지 진리를 넘어서면 아무리 꼼꼼히 살펴도 어둠과 불확실함밖에 찾아낼 수 없고 따라서 자잘한 말재주와 궤변밖에 낳을 수 없는 주제가 크게 가꾸어졌다.

그 두 학문이 이렇게 서로 맞세워지자, 그 둘을 견주는 일이 저절로 셋째 학문을 낳았으니, 이른바 존재론, 곧 다른 두 학문이 다루는 주제 둘 다에 공통된 성질과 속성을 다루는 학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잘한 말재주와 궤변이 학교에서 가르치던 형이상학 곧 영혼학의 대부분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이 거미줄 같은 학문인 존재론의 전부를 이루었으니, 이것 또한 더러 형이상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사람의 행복과 완성이, 그것도 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집안의, 한 나라의, 그리고 사람이라는 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행복과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옛 도덕철학이 캐내려 한 목표다. 그 철학에서 사람 사는 길의 의무는 사람 사는 길의 행복과 완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도덕철학도 자연철학과 마찬가지로 오직 신학의 시녀로만 가르쳐지게 되자, 사람 사는 길의 의무는 주로 다가올 삶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옛 철학에서 덕의 완성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이 삶에서 더없이 온전한 행복을 반드시 낳아 주는 것으로 그려졌다. 근대 철학에서 그것은 대체로, 아니 차라리 거의 언제나 이 삶에서 누릴 어떤 행복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그려지는 일이

잦았고, 하늘은 사람다운 너그럽고 시원스럽고 기개 있는 몸가짐이 아니라 오직 고행과 극기로, 수도사의 모진 삼감과 낮춤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결의론과 금욕의 도덕이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도덕철학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철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더없이 중요한 갈래가 이런 식으로 더없이 썩은 갈래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럽 대부분의 대학에서 철학 교육이 지나온 여느 과정은 이러하였다. 논리학을 먼저 가르치고, 존재론이 둘째 자리에 오고, 사람의 영혼과 신의 본성에 관한 교설을 아우르는 영혼학이 셋째에 오며, 넷째로는 깎아내려진 도덕철학 체계가 뒤따르는데 이것은 영혼학의 교리와,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과, 신의 정의에서 나와 다가올 삶에서 바라야 할 상과 벌에 곧바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짧고 겉핥기인 자연학 체계가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사였다.

유럽의 대학이 이렇게 옛 철학 과정에 들여놓은 바뀜은 모두 성직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을 신학 공부로 들어가는 더 마땅한 길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바뀜이 그 과정에 들여놓은 자잘한 말재주와 궤변, 결의론과 금욕의 도덕이 더해진 만큼, 그 과정이 신사나 세상 사람을 기르기에 더 알맞게 되거나 깨달음을 키우거나 마음을 고치는 데에 더 이바지하게 되지 않았음은 틀림없다[10].

이 철학 과정은 유럽 대부분의 대학에서 아직도 가르쳐지기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인데, 대학마다 그 짜임새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부지런함을 얼마나 더 또는 덜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가장 가멸고 기부 재산이 가장 넉넉한 어떤 대학에서는 지도 교사들이 이 썩은 과정의 이어지지 않은 몇 조각을 가르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그것조차 대개 아주 소홀하고 겉핥기로 가르친다.

근대에 철학의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진 나아짐은 그 대부분이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물론 얼마는 거기서 이루어졌다. 대학의 대부분은 그 나아짐이 이루어진 뒤에조차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리 앞서 나서지도 않았고, 그 배운 단체 가운데 여럿은 낡아 터진 체계와 한물간 편견이 세상 다른 모든 구석에서 쫓겨난 뒤에 숨어들어 비호를 받는 성소로 오래 남아 있기를 스스로 골랐다. 대체로 가장 가멸고 기부 재산이 가장 넉넉한 대학이 그 나아짐을 받아들이는 데에 가장 더뎠고, 자리 잡은 교육 계획에 이렇다 할 바뀜이 오는 것을 가장 꺼렸다. 그 나아짐은 더 가난한 어떤 대학에 더 쉽게 들어갔으니, 거기서는 가르치는 이들이 제 생계의 대부분을 제 평판에 기대고 있어 세상의 오늘날 의견에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공공 학교와 대학이 본디 오직 한 특정한 직업, 곧 성직자를 기르기 위해서만 마련되었고, 그 직업에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던 학문에서조차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 늘 그리 부지런하지는 않았는데도, 그것은 거의 모든 다른 사람, 특히 거의 모든 신사와 재산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차츰 제게로 끌어들였다. 어린 시절과 사람이 세상의 참된 일, 곧 남은 날 동안 그를 붙들어 둘 일에 참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는 시기 사이의 긴 틈을 얼마간이라도 이롭게 보내는 데에 이보다 나은 길을 찾아낼 수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의 대부분은 그 일을 위한 가장 마땅한 채비로 보이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는 젊은이를 학교에서 내보내자마자 어느 대학에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외국으로 여행 보내는 것이 나날이 더욱더 관습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젊은이는 대체로 그 여행으로 크게 나아져 집에 돌아온다고들 한다. 열일곱이나 열여덟에 나가서 스물하나에 돌아오는 젊은이는 나갈 때보다 서너 살을 더 먹고 돌아오는데, 그 나이에 서너 해

동안 꽤 많이 나아지지 않기란 아주 어렵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대개 한두 가지 외국 말을 얼마쯤 알게 되나, 그 앎은 그 말을 제대로 하거나 쓸 수 있을 만큼인 경우가 드물다. 다른 모로 보면 그는 대개 집에 머물렀더라면 그토록 짧은 사이에 도저히 되지 못했을 만큼 더 우쭐하고 더 줏대 없고 더 방탕하고 공부에도 사업에도 진지하게 매달릴 힘이 더 없어져 돌아온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여행하면서, 부모와 친척의 살핌과 다스림에서 멀리 떨어진 채 제 삶의 가장 값진 해를 더없이 하찮은 방탕으로 보내는 탓에, 교육의 앞선 부분이 그에게 얼마쯤 길러 주었을 온갖 쓸모 있는 버릇은 단단히 박히고 굳어지기는커녕 거의 반드시 약해지거나 지워진다. 대학이 스스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 평판의 실추가 아니었더라면, 삶의 이토록 이른 시기에 여행한다는 이토록 터무니없는 관행이 이토록 평판을 얻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아들을 외국으로 보냄으로써 아버지는 적어도 얼마 동안은 제 눈앞에서 일자리도 없이 팽개쳐진 채 결딴나 가는 아들이라는 그토록 거북한 것에서 스스로를 풀어 준다.

근대의 교육 기관 가운데 얼마가 낸 결과는 이러하였다.

다른 시대와 다른 민족에서는 교육을 위한 다른 계획과 다른 기관이 자리 잡았던 듯하다.

그리스의 옛 공화국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이면 누구나 나라 행정관의 지휘 아래 체조와 음악을 배웠다. 체조로는 그의 몸을 단단하게 하고 그의 용기를 날카롭게 하며 그를 전쟁의 고단함과 위험에 채비시키려 하였는데, 그리스의 민병은 어느 이야기로 보나 세상에 있었던 가운데 가장 나은 것에 들었으므로, 그들 공공 교육의 이 부분은 그것이 노린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음이 틀림없다. 다른 부분인 음악으로는, 적어도 그 제도를 우리에게 전해 준 철학자와 역사가의 말로는 마음을 사람답게

하고 기질을 부드럽게 하며 공적인 삶과 사사로운 삶의 온갖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해내도록 마음을 다잡으려 하였다.

옛 로마에서는 마르스 들판의 훈련이 옛 그리스의 김나시온이 하던 것과 같은 목적을 이루었고, 그 목적을 똑같이 잘 이루었던 듯하다.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그리스인의 음악 교육에 맞먹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로마인의 도덕은 사사로운 삶에서나 공적인 삶에서나 그리스인의 그것과 맞먹을 뿐 아니라 대체로 꽤 나았던 듯하다. 사사로운 삶에서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민족을 잘 알던 두 지은이 폴리비오스와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의 뚜렷한 증언이 있으며, 그리스와 로마 역사의 흐름 전체가 로마인의 공적 도덕이 나았음을 증언한다. 서로 다투는 당파의 좋은 기질과 삼감이 자유로운 백성의 공적 도덕에서 가장 요긴한 사정인 듯하다. 그런데 그리스인의 당파 싸움은 거의 언제나 사납고 피비린내 났으나, 로마에서는 그라쿠스 형제의 때까지 어느 당파 싸움에서도 피가 흘려진 적이 없었고[11], 그라쿠스 형제의 때부터는 로마 공화국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오스의 아주 존경할 만한 권위에도, 그리고 몽테스키외 씨가 그 권위를 받쳐 주려고 든 아주 기발한 이유에도 아랑곳없이, 그리스인의 음악 교육이 그들의 도덕을 고치는 데에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으리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니,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는데도 로마인의 도덕이 대체로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 옛 현인들이 제 조상의 제도에 품은 존경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한낱 옛 관습에 지나지 않고 저 사회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그들이 꽤 다듬어진 데까지 이른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일 뿐인 것에서 많은 정치적 슬기를 찾아내게 만들었을 것이다. 음악과 춤은 거의 모든 미개한 민족의 큰 즐길거리이며, 누구든 제 무리를 즐겁게 해 주기에 알맞게 만들어 준다고 여겨지는 큰 재주다.

아프리카 바닷가의 흑인들 사이에서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옛 켈트인 사이에서도, 옛 스칸디나비아인 사이에서도, 그리고 호메로스에게서 배울 수 있듯이 트로이 전쟁에 앞선 시절의 옛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리스 부족들이 작은 공화국을 이루고 나자, 그 재주를 익히는 일이 오랫동안 백성의 공적이고 공통된 교육의 한 부분을 이룬 것이 자연스러웠다.

음악에서든 군사 훈련에서든 젊은이를 가르친 스승들은 로마에서나, 또는 우리가 그 법과 관습을 가장 잘 아는 그리스 공화국인 아테네에서조차 나라에서 삯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나라가 세운 것 같지도 않다. 나라는 자유로운 시민이면 누구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채비를 갖추어야 하고 그 까닭에 제 군사 훈련을 익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라는 그가 찾아낼 수 있는 스승에게서 그것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가 그것을 익히고 해 보일 공공의 벌판이나 훈련장 말고는 아무것도 대 주지 않았던 듯하다.

그리스 공화국과 로마 공화국의 이른 시대에 교육의 다른 부분은 읽기와 쓰기와 그때의 셈법에 따른 셈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듯하다. 더 가멸진 시민은 이 재주를 대개 집에서 어떤 집안 선생의 도움으로 익힌 일이 잦았던 듯한데, 그 선생은 대개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였다. 그리고 더 가난한 시민은 삯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은 스승들의 학교에서 익혔다. 그러나 교육의 그런 부분은 죄다 저마다의 부모나 보호자가 돌볼 일로 내맡겨져 있었다. 나라가 그것을 살피거나 지휘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지는 않다. 참으로 솔론의 법에 따르면, 아이에게 돈벌이가 되는 생업이나 사업을 가르치기를 저버린 부모는 그 아이가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듬어짐이 나아가 철학과 수사학이 유행하게 되자, 나은 축의 사람들은 이 유행하는 학문을 배우게 하려고 제 아이를 철학자와

수사학자의 학교로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그 학교는 공공이 떠받쳐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공공에게서 겨우 눈감아 주는 대접을 받았을 뿐이다.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수요는 오랫동안 어찌나 적었던지, 둘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것을 가르친다고 처음 내세운 이들은 어느 한 도시에서도 꾸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하였다. 엘레아의 제논과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와 히피아스를 비롯한 여럿이 이렇게 살아갔다[12]. 수요가 늘어나자 철학 학교도 수사학 학교도 한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먼저 아테네에, 그 뒤에 다른 여러 도시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나라는 그 가운데 얼마에게 가르칠 자리를 따로 내주는 것 말고는 결코 더 북돋운 것 같지 않은데, 이 일조차 더러는 사사로운 기부자가 하였다. 나라는 아카데메이아를 플라톤에게, 리케이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토아를 스토아 학파를 세운 키티온의 제논에게 내준 듯하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제 정원을 제 학파에 물려주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안토니누스의 때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가르치는 이도 공공에게서 봉급을 받았다거나 제 학생이 내는 사례금이나 수업료에서 나온 것 말고 다른 보수를 받았던 것 같지 않다'[13]. 우리가 루키아노스에게서 배우듯이 저 철학하는 황제가 철학을 가르치는 어떤 이에게 베푼 은혜도 아마 그 자신의 목숨보다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학위의 특권에 맞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떤 특정한 생업이나 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데에 그런 학교에 다녔어야 할 까닭도 없었다. 그 학교가 쓸모 있다는 의견이 학생을 그리로 끌어들일 수 없다면, 법은 누구에게도 그리로 가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고 다녀왔다고 상을 주지도 않았다. 가르치는 이들은 제자에게 아무런 관할권도 없었고, 뛰어난 덕과 능력이 제 교육의 어느 한 부분을 맡은 이들에게 젊은이에게서 반드시 얻어 내는 저 자연스러운 권위 말고는 다른 권위가 없었다.

로마에서 시민법 공부는 시민 대부분이 아니라 몇몇 특정한 집안의 교육에 드는 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을 알고자 한 젊은이에게는 갈 공공 학교가 없었고, 그것을 안다고 여겨지는 친척과 벗의 무리에 드나드는 것 말고는 그것을 공부할 다른 길이 없었다. 아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열두 표의 법 가운데 많은 것이 그리스의 어떤 옛 공화국의 법을 본떠 온 것인데도[14], 그리스의 어느 옛 공화국에서도 법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라난 적은 없었던 듯하다는 점이다. 로마에서 그것은 아주 일찍 학문이 되었고, 그것을 안다는 평판을 얻은 시민에게 적잖은 빛을 내려 주었다. 그리스의 옛 공화국에서, 특히 아테네에서 여느 법정은 수가 많고 따라서 어지러운 사람들의 무리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거의 되는대로, 또는 떠들썩한 소리와 당파와 편 가르는 마음이 정해 주는 대로 판결하는 일이 잦았다. 부당한 판결이 남기는 부끄러움이 오백 명이나 천 명이나 천오백 명에게 나뉠 때에는(그들의 법정 가운데 얼마는 그토록 수가 많았다) 어느 한 사람에게 그리 무겁게 내려앉을 수 없었다. 이와 달리 로마에서 주요 법정은 한 사람의 재판관이나 적은 수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평판은 특히 그들이 늘 공개로 의논하였으므로 섣부르거나 부당한 판결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헷갈리는 사건에서 그런 법정은 나무람을 사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같은 법정이든 다른 법정이든 앞서 앉았던 재판관의 본보기나 선례 아래로 스스로 몸을 숨기려고 저절로 애썼을 것이다. 관행과 선례에 쏟은 이 마음이 로마법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저 가지런하고 질서 있는 체계로 반드시 빚어냈고, 그와 같은 마음이 쏟아진 다른 모든 나라의 법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폴리비오스와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가 그토록 자주 짚은 저 로마인의 성품이 그리스인의 그것보다 나았다는 것은, 아마 그 지은이들이 그 까닭으로 든 어떤 사정보다도 그들 법정의 더 나은 짜임새에서 온 것이었을 터이다.

로마인은 특히 맹세를 남달리 존중한 것으로 이름났다고 한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잘 아는 법정 앞에서만 맹세하는 데에 익은 백성은 떠들썩하고 어지러운 모임 앞에서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익은 백성보다 제가 무엇을 맹세하는지에 저절로 훨씬 더 마음을 쓸 것이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시민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어느 근대 민족의 그것에 적어도 맞먹었음은 선뜻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의 선입견은 아마 그것을 지나치게 높이 매기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군사 훈련에 걸린 것 말고는 나라가 그 큰 능력을 빚어내는 데에 아무런 애도 쓰지 않았던 듯하니, 그리스인의 음악 교육이 그것을 빚어내는 데에 이렇다 할 몫을 했으리라고는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 민족들 사이에서 나은 축의 사람들을 가르칠 스승은 그들 사회의 사정이 그들에게 배워 둘 것을 꼭 있어야 하거나 편하게 만드는 온갖 기예와 학문마다 찾아낼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낳는 것, 곧 그것을 줄 재주를 낳았고, 얽매이지 않은 겨룸이 반드시 불러일으키는 서로 앞지르려는 마음이 그 재주를 아주 높은 완성의 자리까지 끌어올렸던 듯하다. 옛 철학자들이 불러일으킨 주의에서, 그들이 듣는 이들의 의견과 원리 위에 얻은 지배에서, 그리고 듣는 이들의 몸가짐과 이야기에 일정한 가락과 성품을 입히던 그들의 재능에서, 그들은 어느 근대의 가르치는 이보다 훨씬 나았던 듯하다. 근대에 와서 공공의 가르치는 이들의 부지런함은 그들을 제 특정한 직업에서 거두는 성공과 평판에 얼마쯤 기대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사정 탓에 얼마쯤 썩어 있다. 게다가 그들의 봉급은 그들과 겨루어 보겠다고 나서는 사사로운 가르치는 이를, 장려금을 받지 않고 거래하려 들면서 꽤 큰 장려금을 받고 거래하는 이들과 겨루는 상인과 같은 처지에 놓는다. 그가 제 물건을 거의 같은 값에 팔면 같은 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파산과 결딴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난과 거지 신세가 어김없이

그의 몫이 될 것이다. 그가 물건을 훨씬 비싸게 팔려 들면 손님이 어찌나 적어질 듯한지 그의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학위의 특권은 많은 나라에서 배운 직업에 든 사람 대부분에게, 곧 배운 교육을 받아야 할 이들의 훨씬 큰 몫에게 꼭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더없이 편한 것이다. 그런데 그 특권은 공공의 가르치는 이의 강의에 나가야만 얻을 수 있다. 어떤 사사로운 가르치는 이의 더없이 뛰어난 가르침에 더없이 꼼꼼히 나간다 해도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늘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학에서 흔히 가르치는 학문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것을 가르치는 사사로운 이가 근대에 와서 대체로 글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축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여러 까닭에서다. 참된 능력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쏟을 자리로 이보다 더 낯 깎이거나 더 벌이가 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내기란 어렵다. 학교와 칼리지의 기부 재산은 이런 식으로 공공의 가르치는 이들의 부지런함을 썩혔을 뿐 아니라, 좋은 사사로운 가르치는 이를 두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교육을 위한 공공 기관이 없다면, 얼마쯤 수요가 있지 않은 체계나 학문, 또는 그때의 사정이 배워 두기를 꼭 있어야 하거나 편하거나 적어도 유행하는 일로 만들지 않은 체계나 학문은 하나도 가르쳐지지 않을 것이다. 사사로운 가르치는 이는 쓸모 있다고 인정되는 학문의 낡아 터지고 케케묵은 체계를 가르치거나, 한낱 쓸모없고 현학적인 궤변과 헛소리 더미라고 다들 믿는 학문을 가르쳐서는 결코 제 셈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체계, 그런 학문은 교육을 위하여 단체로 세워진 저 무리, 곧 제 번창과 제 수입이 제 근면과 크게 상관없는 무리 말고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교육을 위한 공공 기관이 없다면, 신사가 애쓰고 능력을 기울여 그때 사정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온전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신사와 세상 사람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죄다 모른 채 세상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자를 가르치기 위한 공공 기관은 없으며, 그래서 그들이 지나는 여느 교육 과정에는 쓸모없거나 터무니없거나 허황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제 부모나 보호자가 그들이 배워 두는 것이 꼭 있어야 하거나 쓸모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배우며,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들 교육의 어느 부분이나 얼마쯤 쓸모 있는 목적으로 뚜렷이 기울어져 있으니, 그 몸의 타고난 끌림을 돋우는 것이거나, 그 마음을 삼감과 조심과 정숙함과 알뜰함 쪽으로 빚는 것이거나, 그들을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될 만하게 만들고 그리되었을 때에 제대로 처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자는 제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제 교육의 어느 부분에서든 얼마간의 편함이나 이로움을 느낀다. 남자가 제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제 교육 가운데 더없이 고되고 더없이 성가신 부분에서 얼마간의 편함이나 이로움을 얻는 일은 드물다.

그렇다면 대중은 백성의 교육에 아무런 마음도 쓰지 말아야 하는가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얼마간 마음을 써야 한다면, 백성의 여러 층에서 대중이 마음 써야 할 교육의 여러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써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사회의 형편은 대부분의 개인을, 정부가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 형편이 요구하거나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능력과 덕을 그들 안에 저절로 빚어내는 그런 자리에 반드시 놓아 준다. 다른 경우에 사회의 형편은 대부분의 개인을 그런 자리에 놓아 주지 않으며, 백성의 큰 무리가 거의 온통 썩고 못쓰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얼마쯤 마음을 써야 한다.

분업이 나아감에 따라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훨씬 큰 몫, 곧 백성의 큰 무리가 하는 일자리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움직임에, 더러는 한두 가지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사람 대부분의 깨달음은 그들이 여느 때 하는 일자리로 반드시 빚어진다. 온 삶을 몇 가지 단순한 움직임을

해내는 데에 보내고 그 결과마저 어쩌면 언제나 같거나 거의 같은 사람은, 제 깨달음을 쏟거나 제 궁리를 부려 결코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풀 방편을 찾아낼 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힘쓰는 버릇을 저절로 잃고, 대체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아둔하고 무지해진다. 그 마음의 무디어짐은 그를 사리에 맞는 어떤 이야기도 맛보거나 거들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너그럽거나 고결하거나 부드러운 어떤 마음도 품지 못하게 만들고, 따라서 사사로운 삶의 여느 의무 가운데 많은 것에 대해서조차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제 나라의 크고 널리 걸친 이해에 대해서는 그는 아주 판단할 힘이 없으며, 그러지 않게 만들려고 남다른 애를 쏟지 않는 한 전쟁에서 제 나라를 지킬 힘도 마찬가지로 없다. 한자리에 붙박인 그의 삶이 한결같다 보니 저절로 그 마음의 용기가 썩고, 군인의 들쑥날쑥하고 앞이 뻔하지 않고 모험이 따르는 삶을 몸서리치며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그 몸의 놀림마저 썩혀서, 그가 길러진 일자리 말고 다른 어떤 일자리에서도 제 힘을 기운차고 끈기 있게 쏟지 못하게 만든다. 제 특정한 생업에서 보이는 그의 솜씨는 이런 식으로 그의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무인다운 덕을 값으로 치르고 얻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개량되고 문명화된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하는 빈민, 곧 백성의 큰 무리는 정부가 그것을 막으려고 얼마간 애쓰지 않는 한 반드시 이런 처지에 빠지고 만다.

흔히 미개하다 불리는 사회, 곧 사냥하는 이들과 양 치는 이들의 사회, 그리고 제조업의 나아짐과 외국 상업의 뻗침에 앞선 저 거친 농사 상태에 있는 농사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하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여서 저마다 제 힘을 쏟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을 풀 방편을 지어내지 않을 수 없다. 궁리는 살아 있고, 마음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거의 모든 낮은 층의 깨달음을 마비시키는

듯한 저 졸린 아둔함에 빠지도록 내버려지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른바 저 미개한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전사다. 사람마다 또한 얼마쯤 정치가여서, 사회의 이해와 그것을 다스리는 이들의 몸가짐에 대하여 그럭저럭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 우두머리가 평화로울 때에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전쟁에서 얼마나 잘 이끄는지는 그들 가운데 거의 어느 한 사람의 살핌에도 뻔히 보인다. 참으로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더 문명화된 상태에서 몇몇 사람이 더러 지니는 저 나아지고 다듬어진 깨달음을 제대로 얻을 수 없다. 거친 사회에서는 개인마다 하는 일자리에 여러 가지가 꽤 있으나 사회 전체가 하는 일자리에는 그리 여러 가지가 없다. 사람마다 다른 어느 사람이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꽤 많은 앎과 재간과 궁리를 지니고 있으나 크게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흔히 지니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대체로 그 사회의 단순한 일 전체를 꾸려 가기에 넉넉하다. 이와 달리 문명화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개인이 하는 일자리에 여러 가지가 적으나 사회 전체가 하는 일자리에는 거의 끝없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여러 가지 일자리는 스스로 어느 특정한 일자리에도 매여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살필 겨를과 마음이 있는 저 몇몇 사람의 헤아림 앞에 거의 끝없이 여러 가지 것을 내놓는다. 그토록 여러 가지 것을 헤아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은 끝없는 견줌과 엮음으로 반드시 단련되고, 그들의 깨달음은 남다르게 날카로워지고 널리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몇몇 사람이 마침 아주 남다른 자리에 놓이지 않는 한, 그들의 큰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 명예롭기는 해도 그 사회의 좋은 통치나 행복에는 아주 조금밖에 이바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몇몇 사람의 큰 능력에도 아랑곳없이 사람다운 성품의 더 고결한 부분은 죄다 백성의 큰 무리에서 크게 지워지고 꺼져 버릴 수 있다.

문명화되고 상업이 도는 사회에서 여느 백성의 교육은 아마 얼마간의 신분과 재산이 있는 이들의 교육보다 대중의 마음 씀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얼마간의 신분과 재산이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려고 마음먹은 저 특정한 사업이나 직업이나 생업에 들어서기 전에 대개 열여덟이나 열아홉 살이 된다. 그 전에 그들은 저를 대중의 존경에 걸맞게 만들어 주거나 그럴 만하게 만들어 주는 온갖 재주를 익히거나, 적어도 뒷날 익히도록 채비할 넉넉한 시간이 있다.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는 대개 그들이 그런 재주를 갖추기를 넉넉히 마음 졸이며 바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들이려 한다. 그들이 언제나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육에 들인 비용이 모자라서인 경우가 드물고 그 비용을 잘못 쓴 탓이다. 그것은 스승이 모자라서인 경우가 드물고, 구할 수 있는 스승의 태만과 무능 탓이며, 지금 형편으로 더 나은 이를 찾기 어려운, 아니 차라리 찾기 불가능한 탓이다. 게다가 얼마간의 신분과 재산이 있는 이들이 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자리는 여느 백성의 일자리처럼 단순하고 한결같지 않다. 그것은 거의 다 몹시 얽혀 있어 손보다 머리를 더 쓰게 한다. 그런 일자리에 매인 이들의 깨달음은 쓰지 않아 무디어지는 일이 드물다. 게다가 얼마간의 신분과 재산이 있는 이들의 일자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을 들볶는 그런 것인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대개 꽤 많은 겨를이 있어, 그동안 쓸모 있는 앎이든 꾸미는 앎이든 삶의 이른 부분에서 그 바탕을 닦아 두었거나 얼마쯤 맛을 들여 둔 갈래마다 스스로를 갈고닦을 수 있다.

여느 백성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교육에 쓸 시간이 거의 없다. 그 부모는 어린 시절에조차 그들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차다. 일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들은 제 생계를 벌 수 있는 어떤 생업에 매달려야 한다. 게다가 그 생업은 대개 어찌나 단순하고 한결같은지 깨달음을 거의

단련시키지 않으며, 동시에 그들의 노동은 어찌나 끊임없고 어찌나 모진지 다른 무엇에 매달릴, 아니 그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거의 남겨 주지 않고 마음은 더욱 남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문명화된 어느 사회에서든 여느 백성이 얼마간의 신분과 재산이 있는 이들만큼 잘 가르쳐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의 더없이 요긴한 부분인 읽기와 쓰기와 셈하기는 삶의 아주 이른 시기에 익힐 수 있어서, 가장 낮은 일자리로 길러질 이들조차 그 대부분은 그 일자리에 매이기 전에 그것을 익힐 시간이 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중은 거의 온 백성에게 교육의 그 더없이 요긴한 부분을 익힐 일을 쉽게 해 주고 북돋우고 지울 수조차 있다.

대중은 교구나 구역마다 작은 학교를 세워 여느 날품팔이조차 낼 만한 아주 알맞은 갚음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익힘을 쉽게 해 줄 수 있으니, 스승의 삯은 얼마쯤은 대중이 내되 죄다 내지는 않아야 한다. 죄다 내거나 주로 낸다면 그는 머지않아 제 일을 저버리는 것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교구 학교를 세운 덕분에 여느 백성이 거의 다 읽기를 배웠고 그 가운데 아주 큰 몫이 쓰기와 셈하기를 배웠다. 잉글랜드에서는 자선 학교를 세운 것이 같은 종류의 효과를 냈으나 그만큼 두루 미치지는 않았으니[15], 그 설립이 그만큼 두루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작은 학교에서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데 쓰는 책이 흔히 그러한 것보다 조금 더 가르침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리고 여느 백성의 아이가 더러 거기서 배우는 라틴어 나부랭이, 그들에게 쓸모 있는 일이라고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그것 대신에 기하학과 역학의 첫걸음을 배운다면, 이 층의 백성이 받는 글 배움은 아마 될 수 있는 데까지 온전해질 것이다. 기하학과 역학의 원리를 갖다 쓸 기회를 얼마쯤 주지 않는 여느 생업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여느 백성을 그 원리에 차츰 단련시키고 나아지게 하지 않을 생업도 거의

없는데, 그 원리야말로 더없이 드높은 학문으로 가는, 또한 더없이 쓸모 있는 학문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들머리다.

대중은 교육의 그 더없이 요긴한 부분에서 뛰어난 여느 백성의 아이에게 조그마한 포상금과 남다름을 나타내는 작은 표를 줌으로써 그것을 익히도록 북돋울 수 있다.

대중은 어떤 동업조합에서든 자유민 자격을 얻거나 시골 마을에서든 특허 받은 읍에서든 어떤 생업을 차리도록 허락받기 전에 누구나 그 부분에서 시험이나 검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의 온 백성에게 교육의 더없이 요긴한 부분을 익힐 일을 지울 수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국이 저마다 제 시민의 무인다운 기개를 지켜 낸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곧 군사 훈련과 체조를 익힐 일을 쉽게 해 주고 북돋우고 온 백성에게 그 훈련을 배울 일을 지우기까지 함으로써였다. 그들은 그 훈련을 배우고 해 볼 자리를 정해 주고 일정한 스승에게 그 자리에서 가르칠 특권을 내줌으로써 그 익힘을 쉽게 해 주었다. 그 스승들은 봉급도 어떤 종류의 배타적 특권도 가졌던 것 같지 않다. 그들이 받는 갚음은 죄다 제 학생에게서 얻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공공 김나시온에서 제 훈련을 배운 시민은 사사로이 배운 시민이 그것을 똑같이 잘 배우기만 했다면 그에 견주어 아무런 법적 이로움도 누리지 못하였다. 저 공화국들은 그 훈련에서 뛰어난 이에게 조그마한 포상금과 남다름을 나타내는 표를 내려 줌으로써 그 익힘을 북돋웠다. 올림피아나 이스트미아나 네메아 경기에서 상을 탄 것은 그것을 탄 사람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겨레붙이에게 빛을 내려 주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부름을 받으면 공화국의 군대에서 몇 해 동안 복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것 없이는 그 복무에 알맞을 수 없는 그 훈련을 배울 일을 넉넉히 지웠다.

나아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 훈련의 관행이 정부가 그것을 떠받치려고 제대로 애쓰지 않으면 차츰 스러지고 그와 함께 백성의 큰 무리의 무인다운 기개도 스러진다는 것은 근대 유럽의 보기가 넉넉히 보여 준다. 그러나 어느 사회의 안전이나 언제나 백성의 큰 무리의 무인다운 기개에 얼마쯤 기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그 무인다운 기개만으로, 잘 단련된 상비군이 받쳐 주지 않는 채로는 어느 사회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에 아마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마다 군인의 기개를 지녔다면 더 작은 상비군으로도 넉넉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그 기개는 참된 것이든 지어낸 것이든 상비군에서 온다고 흔히 걱정하는 자유에 미치는 위험을 아주 크게 줄여 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그 군대가 밖에서 쳐들어오는 이를 맞아 움직이는 일을 아주 쉽게 해 주는 만큼, 불행히도 그 움직임이 나라의 국제로 향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만큼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옛 제도는 백성의 큰 무리의 무인다운 기개를 지키는 데에 이른바 근대의 민병 제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였다. 한번 자리 잡히고 나면 그것은 스스로 굴러갔고, 그것을 더없이 온전한 기운으로 지켜 가는 데에 정부가 마음 쓸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와 달리 어느 근대 민병의 얽힌 규정이든 그것을 그럭저럭 굴러가게라도 지키려면 정부가 끊임없이 괴롭게 마음을 써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노상 아주 버려지고 쓰이지 않게 된다. 게다가 옛 제도가 미치는 힘은 훨씬 더 두루 미쳤다. 그것을 거쳐 백성의 온 무리가 무기 쓰는 법을 온전히 배웠으나, 어느 근대 민병의 규정으로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이는 어쩌면 스위스의 것 말고는 그 아주 작은 몫뿐이다. 그런데 겁쟁이, 곧 스스로를 지킬 수도 스스로의 원수를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성품의 더없이 요긴한 부분 하나가 없음이 뚜렷하다. 그는 몸의 더없이 요긴한 지체 가운데

얼마를 잃었거나 그것을 쓸 수 없게 된 사람이 제 몸에서 그러한 만큼이나 제 마음에서 잘리고 일그러져 있다. 그가 둘 가운데 더 딱하고 더 가엾음이 뚜렷하니, 죄다 마음에 자리 잡은 행복과 불행은 몸이 성한지 성하지 않은지, 잘렸는지 온전한지보다 마음이 그러한지에 반드시 더 기대기 때문이다. 백성의 무인다운 기개가 사회를 지키는 데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겁 많음이 반드시 안고 있는 저 마음의 잘림과 일그러짐과 딱함이 백성의 큰 무리에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은 그래도 정부가 더없이 진지하게 마음 쓸 만한 일일 터이니, 죽을병도 위험한 병도 아니지만 문둥병이나 그 밖의 역겹고 거슬리는 병이 그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이 정부가 더없이 진지하게 마음 쓸 만한 일인 것과 꼭 같으며, 어쩌면 그토록 큰 공공의 해악을 막는 것 말고는 그 마음 씀에서 다른 공공의 이로움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러하다.

---

1. 옮긴이 — 스털링은 영국 화폐를 말한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2. 옮긴이 — 하이다르 알리(1720?~1782)는 인도 남부 마이소르의 통치자로, 1780년에 동인도회사의 영토를 쳐들어갔다.

3. 옮긴이 — 앙드레 모를레(1727~1819)는 프랑스의 성직자이자 저술가다.

4. 옮긴이 — 저본에는 이 자리가 usurers 곧 고리대금업자로 찍혀 있으나, 앞뒤 논증으로 보아 insurers 곧 보험업자다.

5. 옮긴이 — 평가는 액면에 적힌 값을 말한다. 「평가보다 아래로 팔린다」는 것은 시세가 액면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6. 옮긴이 — 1편에서는 university를 라틴어 본뜻을 살려 「우니베르시타스」로 옮겼으나, 그 대목은 대장장이 조합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던 것을 따지는 자리였다. 이 장의 university는 오늘날의 대학을 가리키므로 「대학」으로 옮긴다.

7. 옮긴이 — 장학금과 급비와 보조금은 원어가 각각 scholarship, exhibition, bursary이며, 셋 다 특정한 칼리지에 딸린 기부 재산에서 나와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 주던 것이다.

8. 옮긴이 — 성직자 특전은 성직자가 세속 법정이 아니라 교회 법정에서만 재판받던 중세의 제도로, 잉글랜드에서는 1827년에 없어졌다.

9. 옮긴이 — 불가타는 4세기 말에 히에로니무스가 옮긴 라틴어 성경이며,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6년에 그것을 공인 본문으로 선언하였다.

10. 옮긴이 — 저본에는 이 자리가 more for the education으로 찍혀 낱말이 하나 빠져 있으나, 앞뒤로 보아 more fit for the education 곧 「기르기에 더 알맞게」다.

11. 옮긴이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기원전 163?~133)와 가이우스 그라쿠스(기원전 154?~121) 형제를 말한다.

12. 옮긴이 — 앞의 제논은 엘레아의 제논(기원전 490?~430?)이고 뒤의 제논은 스토아 학파를 세운 키티온의 제논(기원전 334?~262?)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다. 저본은 키티온을 Citta로 적었다.

13. 옮긴이 — 마르쿠스 안토니누스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21~180)이며, 『명상록』을 남겼다.

14. 옮긴이 — 열두 표의 법은 기원전 451년 무렵 로마에서 청동판에 새겨 공포한 최초의 성문법이다.

15. 옮긴이 — 자선 학교는 17세기 말부터 잉글랜드에서 기부금으로 세워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읽기와 쓰기와 교리를 가르치던 학교다.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이어서)

문명한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온갖 사람의 깨달음을 그토록 자주 마비시키는 듯한 지독한 무지와 우둔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지적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면, 겁쟁이보다도 더 업신여길 만하며, 사람의 본성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한결 더 본질적인 자리에서 잘리고 일그러진 듯하다. 나라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아무 이익도 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주 못 배운 채로 있지 않게 하는 일은 그래도 나라가 마음 쓸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끌어낸다. 그들이 더 많이 배울수록 열광과 미신의 미혹에 덜 빠지는데[1], 그 미혹은 무지한 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무질서를 자주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배우고 슬기로운 백성은 무지하고 우둔한 백성보다 늘 더 점잖고 질서가 있다. 그들은 저마다 제 몸이 더 존중받을 만하다고 느끼고 제 위에 있는 합법한 윗사람들의 존중을 받기에도 더 알맞다고 느끼므로, 그런 까닭에 그 윗사람들을 존중할 마음이 더 있다. 그들은 당파와 선동이 제 이익을 노리고 늘어놓는 불평을 따져 볼 마음이 더 있고 그것을 꿰뚫어 볼 힘도 더 있으며, 그런 까닭에 정부가 하는 일에 함부로 또는 쓸데없이 맞서도록 잘못 이끌릴 일이 적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정부의 안전이 제가 하는 일을 두고 백성이 내리는 좋은 판단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백성이 그것을 두고 섣불리 또는

변덕스럽게 판단할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3항 — 모든 나이의 사람을 가르치는 기관의 비용에 대하여

모든 나이의 사람을 가르치는 기관은 주로 종교를 가르치는 기관이다. 이것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것보다 다가올 삶에서 맞을 다른 더 나은 세상에 들어갈 채비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갈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담은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다른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제 생계를 오로지 듣는 이들이 자진해 내는 기부에 기댈 수도 있고, 제 나라의 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기금, 이를테면 토지 재산이나 십일조나 토지세, 또는 정해진 봉급이나 봉록에서 끌어낼 수도 있다. 그들의 애씀과 열성과 근면은 뒤의 처지에서보다 앞의 처지에서 훨씬 클 듯하다. 이 점에서 새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은 오래되어 자리 잡은 체계를 칠 때 늘 적잖은 이점을 누려 왔으니, 그런 체계의 성직자는 제 성직록에 몸을 기대고 백성의 큰 무리 속에 믿음과 헌신의 뜨거움을 지켜 가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스스로 나태에 몸을 내맡겨 제 체제를 지키는 일에서조차 어떤 힘찬 애씀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2]. 자리 잡고 기금을 넉넉히 받는 종교의 성직자는 자주 배움과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어 신사가 지닌 온갖 덕, 또는 신사들의 존경을 받게 해 줄 온갖 덕을 갖추게 되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와 영향을 주던 성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성질, 아마도 제 종교가 성공하고 자리 잡게 된 본디 까닭이었을 그 성질을 차츰 잃기 쉽다. 그런 성직자는 인기 있고 대담하나 아마 우둔하고 무지할 열광에 빠진 무리에게 공격을 받으면, 아시아 남쪽의 나태하고 여리고 배부른 나라들이 북쪽의 날쌔고 억세고 굶주린 타타르인에게 쳐들어옴을 당하였을 때처럼 제 몸이 아주

무방비하다고 느낀다. 그런 성직자는 그런 위급한 때에 흔히 세속 행정관에게 제 맞수를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로 몰아 박해하고 없애고 내쫓아 달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로마 가톨릭 성직자가 세속 행정관에게 개신교도를 박해해 달라고 부르고 잉글랜드 교회가 비국교도를 박해해 달라고 부른 것이 이러하였으며, 무릇 어떤 종교 종파든 한 세기나 두 세기 동안 법으로 자리 잡은 안전을 누리고 나면 제 교리나 규율을 치려 드는 새 종파에 맞서 어떤 힘찬 방어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도 이러하였다. 그런 때에 배움과 좋은 글이라는 점에서는 이점이 더러 국교회 쪽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기를 얻는 기예, 개종자를 얻는 온갖 기예는 늘 그 맞수 쪽에 있다. 잉글랜드에서 그 기예는 기금을 넉넉히 받는 국교회 성직자에게서 오랫동안 버려져 왔고, 지금은 주로 비국교도와 메서디스트가 갈고닦는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비국교도 교사들을 위하여 자진해 내는 기부와 신탁 권리와 그 밖에 법을 비껴가는 길로 마련된 독립된 생계 밑천은 그 교사들의 열성과 활동을 크게 줄인 듯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몹시 학식 있고 재주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나, 대체로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이기를 그만두었다. 메서디스트는 비국교도가 지닌 배움의 절반도 지니지 않았으나 훨씬 더 널리 인기를 얻고 있다.

로마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의 성직자가 지닌 근면과 열성이 자기 이익이라는 힘센 동기로 아마 어떤 개신교 국교회에서보다 더 살아 있게 지켜진다. 교구 성직자는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제 생계의 아주 적잖은 몫을 사람들이 자진해 바치는 헌물에서 끌어내는데, 고해는 그들에게 이 수입의 원천을 늘릴 기회를 많이 준다. 탁발 수도회는 제 생계 전부를 그런 헌물에서 끌어낸다. 그들의 처지는 어떤 군대의 후사르 기병이나 경보병의 처지와 같아서, 노략이 없으면 삯도 없다. 교구 성직자는 그 삯이 얼마는 봉급에, 얼마는 제자에게서 받는 수업료나 사례금에 달린

스승과 같으며, 이 수업료와 사례금은 늘 얼마쯤은 그들의 근면과 평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탁발 수도회는 제 생계가 오로지 제 근면에 달린 스승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사 사람들의 헌신을 북돋울 수 있는 온갖 기예를 쓸 수밖에 없다. 성 도미니쿠스와 성 프란체스코의 두 큰 탁발 수도회가 세워진 일은, 마키아벨리가 살핀 바로는 13세기와 14세기에 시들어 가던 가톨릭 교회의 믿음과 헌신을 되살렸다[3]. 로마 가톨릭 나라에서 헌신의 정신은 오로지 수도사와 더 가난한 교구 성직자가 떠받친다. 교회의 높은 성직자들은 신사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갖춘 온갖 소양을, 더러는 학식 있는 사람의 소양까지 갖추고서 제 아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율을 지키게 하는 데에는 마음을 쓰나, 백성을 가르치는 일로 스스로 수고를 지는 일은 드물다.

"한 나라 안의 기예와 직업은 그 대부분이," 이 시대에 가장 빼어난 철학자이자 역사가가 말하기를[4], "사회의 이익을 북돋우면서 아울러 어떤 개인에게도 쓸모 있거나 즐거운 성질을 지녔으니, 그런 경우에 행정관이 지켜야 할 한결같은 규칙은, 어떤 기예를 처음 들여올 때는 어쩌면 다르겠으나, 그 직업을 그것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북돋우는 일은 거기서 이익을 거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수공업자는 제 이윤이 단골의 호의로 오르는 것을 보고 제 솜씨와 근면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며, 일이 어떤 사려 없는 손댐으로 어지럽혀지지 않는 한 그 상품은 어느 때에나 수요에 거의 알맞게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쓸모 있고 나아가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어떤 개인에게도 이익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않는 직분도 있으니, 최고 권력은 그런 직업에 몸담은 이들을 두고는 제 처신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최고 권력은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에게 공공의 북돋움을 주어야 하고, 그들이 저절로 빠지게 될 태만을 막을 채비를 하여야 하니,

그 직업에 남다른 명예를 붙이거나 계급의 긴 위아래와 엄한 매임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다른 방도를 쓰는 것이다. 재정과 함대와 사법을 맡은 사람들이 이 갈래에 드는 사람의 보기다.

"언뜻 보기에 성직자는 첫째 갈래에 들며, 변호사와 의사가 그러하듯 그들을 북돋우는 일도 그 교리를 따르며 그 영적 봉사와 도움에서 이익이나 위로를 얻는 개인들의 너그러움에 맡겨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 보탬이 되는 동기로 그들의 근면과 조심성이 날카로워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고, 그 직업에서 지닌 솜씨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완도 늘어 가는 실행과 연구와 주의로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제 이익을 노리는 이 성직자의 부지런함이야말로 슬기로운 입법자라면 누구나 막으려 애쓸 것임을 알게 되리니, 참된 종교를 뺀 모든 종교에서 그것은 몹시 해롭고, 진리에 미신과 어리석음과 미혹을 짙게 섞어 넣어 진리를 비틀어 놓는 본디 성향까지 지닌 까닭이다. 영혼을 맡아 다루는 이는 저마다 제게 딸린 이들의 눈에 제 몸을 더 귀하고 거룩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들에게 다른 모든 종파를 몹시 사납게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며,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제 청중의 시들한 헌신을 부추기려 끊임없이 애쓸 것이다. 가르쳐 넣는 교리에서 진리나 도덕이나 점잖음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 몸에 깃든 어지러운 애착에 가장 잘 맞는 교의라면 무엇이나 받아들여지리라. 단골은 백성의 정념과 잘 믿는 마음을 부리는 새로운 근면과 수완에 이끌려 저마다의 집회소로 모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 세속 행정관은 사제들을 위한 정해진 기금을 아끼려던 제 검약이 비싼 값을 치렀음을 알게 될 것이며, 실상 그가 영적 인도자들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점잖고 이로운 타협은 그 직업에 정해진 봉급을 매겨 그들의 나태를 매수하는 것, 그리하여 제 양 떼가 새 목자를 찾아 헤매지

않게 막는 일 말고는 더 부지런할 까닭이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교회의 기틀은 처음에는 흔히 종교적 견지에서 생겨났으되 끝에 가서는 사회의 정치적 이익에 이롭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성직자에게 독립된 생계 밑천을 마련해 준 일이 어떤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낳았든, 그것이 그런 결과를 내다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아마 몹시 드물었을 것이다. 종교 논쟁이 사납던 때는 대체로 정치 당파도 그만큼 사납던 때였다. 그런 때에 정치 당파는 저마다 다투는 종교 종파 가운데 이것이나 저것과 손을 잡는 것이 제 이익에 맞음을 알았거나 맞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그 특정한 종파의 교의를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그 편을 들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긴 당파와 손을 잡는 행운을 누린 종파는 제 동맹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고, 그 동맹의 호의와 비호로 머지않아 얼마쯤은 제 맞수를 모두 입 다물게 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맞수들은 대체로 이긴 당파의 적과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 당파의 적이기도 하였다. 이 특정한 종파의 성직자는 이리하여 싸움터의 온전한 임자가 되었고 백성의 큰 무리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과 권위가 가장 왕성하였으므로, 그들은 제 당파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를 위압하고 세속 행정관으로 하여금 제 의견과 기울기를 존중하게 만들 만큼 힘이 세었다. 그들의 첫째 요구는 대체로 그가 제 맞수를 모두 입 다물게 하고 굴복시키라는 것이었고, 둘째 요구는 그가 제 몸에 독립된 생계 밑천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대체로 승리에 적잖이 이바지하였으므로 노획물에서 얼마쯤 몫을 가지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일과 생계를 백성의 변덕에 기대는 일에 지쳐 있었다. 그러므로 이 요구를 하면서 그들은 제 편안함과 안락을 헤아렸을 뿐, 그것이 뒷날 제 집단의 영향과 권위에 미칠 결과를

두고는 스스로 마음 쓰지 않았다. 세속 행정관은 차라리 제가 가져가거나 제 것으로 두기를 훨씬 바랐을 것을 내주어야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으므로 그것을 선뜻 들어주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필요가 늘 그를 마침내 굽히게 만들었으니, 흔히 여러 차례 미루고 비껴가고 꾸며 낸 핑계를 댄 뒤에야 그리하였다.

그러나 정치가 종교의 도움을 불러들인 적이 없었더라면, 이긴 당파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어느 한 종파의 교의를 다른 종파의 것보다 더 받아들인 적이 없었더라면, 그 당파는 아마 온갖 종파를 고르고 치우침 없이 다루고 사람마다 제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제 사제와 제 종교를 고르게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종교 종파가 아주 많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거의 저마다 다른 회중이 아마 그것만으로 작은 종파를 이루었거나 저 나름의 남다른 교의를 품었을 것이다. 가르치는 이는 저마다 제 제자의 수를 지키고 늘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 온갖 기예를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가르치는 이도 모두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느꼈을 터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무리의 성공도 아주 크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이 제 이익을 노리고 부리는 활발한 열성이 위험하고 성가실 수 있는 것은, 사회 안에 오직 한 종파만 용인되는 곳이거나, 큰 사회 전체가 두세 개의 큰 종파로 나뉘어 저마다의 가르치는 이들이 짜고 움직이며 일정한 규율과 위아래에 매여 있는 곳뿐이다. 그러나 사회가 이삼백 개, 어쩌면 이삼천 개나 되는 작은 종파로 나뉘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힐 만큼 크지 못한 곳에서는 그 열성이 아주 해롭지 않을 수밖에 없다. 종파마다 가르치는 이들은 제 둘레가 사방으로 벗보다 맞수에게 더 에워싸여 있음을 보고 저 솔직함과 알맞음을 배울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은 큰 종파를 가르치는 이들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니, 그 큰 종파의

교의는 세속 행정관이 떠받쳐 주므로 널따란 왕국과 제국의 거의 모든 주민에게 떠받들리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제 둘레에서 따르는 이와 제자와 고분고분한 찬미자밖에 보지 못하는 까닭이다. 작은 종파를 가르치는 이들은 저마다 제 몸이 거의 홀로임을 알고 거의 다른 모든 종파의 가르치는 이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터이며,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편하고도 마음에 든다고 여길 양보는 때가 지나면 아마 그들 대부분의 교리를 저 맑고 이치에 맞는 종교, 곧 터무니없음과 속임수와 광신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종교로 줄여 놓을 것이니, 그런 종교야말로 세상 어느 시대에나 슬기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 것이로되, 실정법은 아마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그것을 세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종교를 두고 실정법은 늘 얼마쯤 민간의 미신과 열광에 휘둘려 왔고 아마 앞으로도 늘 그러하리라. 교회 정치의 이 구상, 더 바르게 말하면 교회 정치를 두지 않는 이 구상은 독립교회파라 불리는 종파가, 참으로 몹시 거친 열광가의 종파인 그들이 내전이 끝날 무렵 잉글랜드에 세우자고 내놓은 것이다. 그것이 세워졌더라면, 그 뿌리가 몹시 철학적이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쯤은 아마 온갖 종교 원리를 두고 가장 철학적인 너그러움과 알맞음을 낳았을 것이다. 그것은 펜실베이니아에 세워졌으니, 그곳에서는 퀘이커교도가 마침 가장 많기는 하나 법이 실상 어느 한 종파의 편도 다른 종파보다 더 들지 않으며, 그곳에서 그것이 이 철학적인 너그러움과 알맞음을 낳았다고 한다[5].

그러나 이 고른 대우가 어느 한 나라의 온갖 종교 종파 모두에게, 또는 그 대부분에게 이 너그러움과 알맞음을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종파가 넉넉히 많고 따라서 저마다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기에는 너무 작기만 하다면, 저마다 제 남다른 교의를 두고 부리는 지나친 열성이 아주 해로운 결과를 낳기는 어렵고 도리어 여러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그들을 모두 내버려 두기로, 또 그들이 모두 서로를 내버려 두도록 만들기로 아주 굳게 마음먹는다면, 그들이 제 스스로 넉넉히 빠르게 갈라져 머지않아 넉넉히 많아지지 않을 염려는 거의 없다.

문명한 사회마다, 신분의 구별이 한번 온전히 자리 잡은 사회마다 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도덕의 얼개 곧 체계가 한때에 나란히 돌아다녔으니, 하나는 엄격한 것 곧 준엄한 것이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너그러운 것, 또는 그리 부르고 싶다면 헐거운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앞의 것은 대체로 예사 사람들이 우러르고 받들며, 뒤의 것은 흔히 멋을 아는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 더 높이 치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가벼움에서 오는 악덕, 곧 큰 번영과 지나친 흥겨움과 유쾌함에서 생기기 쉬운 악덕에 얼마만큼의 못마땅함을 표해야 하느냐가 이 서로 맞선 두 얼개 곧 체계를 가르는 으뜸가는 차이인 듯하다. 너그러운 체계 곧 헐거운 체계에서는 사치와 방자함과 어지럽기까지 한 흥겨움, 얼마쯤 절제를 잃을 만큼 쾌락을 좇는 일, 적어도 두 성 가운데 한쪽에서 정절을 깨뜨리는 일 따위가, 지독한 무례함이 함께 따르지 않고 거짓과 불의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퍽 너그럽게 다루어져 쉽사리 눈감아 주거나 아주 용서받는다. 이와 달리 준엄한 체계에서는 그런 지나침을 더없이 몹시 미워하고 싫어한다. 가벼움에서 오는 악덕은 예사 사람들에게 늘 파멸을 가져오며, 단 한 주의 생각 없음과 방탕이 흔히 가난한 일꾼 하나를 영영 망치고 절망에 몰아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하기에 넉넉하다. 그러므로 예사 사람들 가운데 더 슬기롭고 더 나은 축은 그런 지나침을 늘 더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니, 그것이 제 처지의 사람에게 그토록 곧바로 목숨을 앗아 간다고 제 겪음이 일러 주는 까닭이다. 이와 달리 여러 해에 걸친 어지러움과 헤픔이 멋을 아는 사람을 늘 망치지는 않으며, 그 신분의 사람들은 얼마쯤 지나침에 빠질

수 있는 힘을 제 재산이 주는 이로움의 하나로, 나무람이나 꾸지람을 받지 않고 그리할 수 있는 자유를 제 자리에 딸린 특권의 하나로 여기기가 아주 쉽다. 그러므로 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지나침을 아주 조금만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나무라거나 아예 나무라지 않는다.

거의 모든 종교 종파는 예사 사람들 사이에서 비롯하였고, 그들에게서 가장 이른 개종자도 가장 많은 개종자도 대체로 끌어냈다. 그런 까닭에 준엄한 도덕 체계는 그 종파들이 거의 언제나 받아들였고, 예외는 아주 적었으나 더러 있기는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앞서 자리 잡은 것을 고치자는 제 구상을 처음 내놓았던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 몸을 가장 잘 내세울 수 있는 체계였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어쩌면 그 대부분이 이 준엄한 체계를 더 다듬고 그것을 얼마쯤 어리석고 지나친 데까지 밀고 가서 신망을 얻으려 애쓰기까지 하였으며, 이 지나친 엄함이 흔히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사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 앞에 내세워 주었다.

지체와 재산을 갖춘 사람은 제 자리 덕분에 큰 사회의 두드러진 구성원이 되니, 그 사회는 그의 처신을 낱낱이 지켜보고 그리하여 그 스스로도 제 처신을 낱낱이 살피게 만든다. 그의 권위와 대접은 이 사회가 그에게 품는 존경에 크게 달려 있다. 그는 그 안에서 제 몸을 욕되게 하거나 신망을 잃게 할 일은 감히 하지 못하며, 이 사회의 두루 합쳐진 뜻이 그의 지체와 재산에 걸맞은 사람에게 정해 주는 갈래의 도덕을,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든 준엄한 것이든 아주 엄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낮은 처지의 사람은 어떤 큰 사회에서도 두드러진 구성원이 되기에는 한참 멀다. 그가 시골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 처신을 남이 지켜볼 수 있고 그 스스로도 그것을 살필 수밖에 없다. 이 처지에서, 그리고 오직 이 처지에서만 그는 이른바 잃을

평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큰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름 없음과 어둠 속에 가라앉는다. 그의 처신을 지켜보고 살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런 까닭에 그 스스로도 그것을 소홀히 하고 온갖 갈래의 낮은 방탕과 악덕에 제 몸을 내맡기기가 아주 쉽다. 그가 이 이름 없음에서 가장 잘 벗어나는 길, 그의 처신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회의 눈길을 가장 크게 끄는 길은 작은 종교 종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여태 가져 본 적 없는 얼마간의 대접을 얻는다. 같은 종파의 형제들은 모두 종파의 신망을 위하여 그의 처신을 지켜보는 데에 마음을 쓰며, 그가 어떤 추문거리를 만들거나 그들이 거의 언제나 서로에게 요구하는 저 준엄한 도덕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를 벌하는 데에 마음을 쓰니, 그 벌은 나쁜 결과가 따르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늘 몹시 무거운 벌, 곧 종파에서 쫓아냄 또는 파문이다. 그런 까닭에 작은 종교 종파에서 예사 사람들의 도덕은 거의 언제나 놀랍도록 반듯하고 질서 있었으며, 대체로 국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그러하였다. 참으로 그 작은 종파의 도덕은 흔히 다소 거북하리만큼 엄하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주 쉽고 잘 듣는 처방이 둘 있으니, 그 둘이 함께 움직이면 나라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그 나라가 갈라져 이룬 온갖 작은 종파의 도덕에서 사람과 어울리지 않거나 거북하리만큼 엄한 것이 무엇이든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처방의 첫째는 학문과 철학을 익히는 것이니, 나라는 이것을 어지간하거나 그보다 나은 지체와 재산을 지닌 모든 사람 사이에 거의 두루 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이들에게 봉급을 주어 그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더 높고 더 어려운 학문에서까지 일종의 시험을 두어 누구든 어떤 자유로운 직업을 하도록 허락받기 전에, 또는 신망이나 이익이 딸린 어떤 명예로운 벼슬의

후보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것을 치르게 하는 길로 그리한다. 나라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필요를 지운다면, 그들에게 알맞은 스승을 대 주는 일로 스스로 수고를 질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나라가 대 줄 수 있는 어떤 스승보다도 나은 스승을 제 손으로 찾아낼 것이다. 학문은 열광과 미신이라는 독을 푸는 큰 해독제이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독에서 지켜진 곳에서는 낮은 자리의 사람들도 그 독에 크게 드러날 수 없다.

그 처방의 둘째는 공공의 놀이가 잦고 흥겨운 것이다. 나라가 제 이익을 좇아 추문이나 무례함 없이 그림과 시와 음악과 춤으로, 온갖 갈래의 연극 상연과 구경거리로 백성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돌려 주려 하는 모든 이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어 북돋운다면, 백성의 큰 몫에서 저 우울하고 침침한 기분을 쉽사리 흩어 버릴 것인데, 그 기분이야말로 거의 언제나 민간의 미신과 열광을 기르는 젖어미다. 공공의 놀이는 그 민간의 광기를 부추기는 온갖 광신자에게 늘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 놀이가 불어넣는 흥겨움과 유쾌함은 그들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마음결, 또는 그들이 가장 잘 부려 먹을 수 있는 마음결과는 도무지 맞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연극 상연은 그들의 속임수를 흔히 뭇사람의 비웃음 앞에, 더러는 뭇사람의 저주 앞에까지 드러냈으므로 그런 까닭에 다른 어떤 놀이보다도 그들이 유달리 미워하는 대상이었다.

법이 어느 한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의 편도 다른 종교의 이들보다 더 들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주권자나 집행 권력에 남다르게 또는 곧바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주권자가 그들을 제 자리에 앉히거나 그 자리에서 내치는 일에 관여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다른 신민들 사이에서와 똑같이 그들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일, 곧 그들이 서로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억누르지 못하게 막는 일 말고는 그들을 두고 스스로 마음 쓸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리 잡은 종교 곧 다스리는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이 경우에 주권자는 그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의 큰 몫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길을 지니지 않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국교회마다 그 성직자는 하나의 큰 단체를 이룬다. 그들은 짜고 움직일 수 있고 마치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있는 것처럼 한 구상과 한 정신으로 제 이익을 좇을 수 있으며, 참으로 그런 지휘 아래 있는 일도 잦다. 단체로 뭉친 몸으로서 그들의 이익은 주권자의 이익과 결코 같지 않고 더러는 그것과 정면으로 맞선다. 그들의 큰 이익은 백성에게 미치는 제 권위를 지키는 데에 있으며, 이 권위는 그들이 가르쳐 넣는 교리 전체가 틀림없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데에, 그리고 영원한 비참을 벗으려면 그 교리의 낱낱을 가장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지는 데에 달려 있다. 주권자가 사려 없이 그 교리의 가장 하찮은 자리라도 비웃거나 스스로 의심하는 듯이 보이거나, 사람다운 마음에서 그 둘 가운데 하나를 한 이들을 지켜 주려 든다면, 그에게 조금도 매여 있지 않은 성직자의 깐깐한 명예심이 당장 발끈하여 그를 거룩함을 더럽힌 자로 몰아내고, 백성으로 하여금 더 정통이며 고분고분한 군주에게 충성을 옮기게 하려고 종교가 지닌 온갖 두려움을 부려 먹는다. 그가 그들의 주장이나 가로챔 가운데 무엇이라도 막으려 들면 위험은 그에 못지않게 크다. 감히 이렇게 교회에 맞서 일어난 군주들은 그 반역의 죄 위에 대체로 이단이라는 죄까지 덧씌워졌으니, 제 믿음을 엄숙히 밝히고 교회가 제게 지우기로 한 온갖 교의에 고분고분 따랐는데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권위는 다른 어떤 권위보다도 위에 있다. 종교가 불어넣는 두려움은 다른 온갖 두려움을 이긴다. 종교를 가르치도록 허락받은 이들이 백성의 큰 무리에 주권자의 권위를 뒤엎는 교리를 퍼뜨릴 때, 그가 제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폭력,

곧 상비군의 힘뿐이다. 이 경우에는 상비군조차 그에게 오래 갈 안전을 주지 못하니, 병사가 외국인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드물거니와, 백성의 큰 무리에서 뽑혀 온 이들이라면, 거의 언제나 그러할 수밖에 없거니와, 그들도 머지않아 바로 그 교리에 물들기 쉬운 까닭이다. 동로마 제국이 서 있는 동안 그리스 성직자의 소란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끊임없이 일으킨 변란과, 여러 세기에 걸쳐 로마 성직자의 소란이 유럽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으킨 격동은, 제 나라에서 자리 잡아 다스리는 종교의 성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마땅한 길을 지니지 못한 주권자의 처지가 늘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를 넉넉히 보여 준다.

신앙 조항도 다른 온갖 영적 문제도 세속 주권자가 맡을 마땅한 영역이 아님은 넉넉히 뚜렷하니, 그는 백성을 지키는 데에는 아주 잘 맞을지 몰라도 백성을 가르치는 데에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를 두고 그의 권위가 국교회 성직자가 뭉친 권위와 맞설 만큼 넉넉한 일은 드물다. 그러나 공공의 평온과 그 자신의 안전은 그들이 그런 문제를 두고 퍼뜨리기로 한 교리에 걸려 있을 때가 잦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결정을 마땅한 무게와 권위로 곧바로 막을 수 있는 일은 드무니, 그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집단에 속한 사람 대부분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려움과 바람뿐이다. 그 두려움과 바람은 성직을 빼앗기거나 다른 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리라는 바람에 있다.

그리스도교 교회는 어디서나 성직자의 성직록이 일종의 자유 보유권이어서, 그들은 그것을 윗사람의 뜻이 내키는 동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또는 행실이 바른 동안 누린다[6]. 그들이 그것을 더 위태로운 조건으로 쥐고 있어 주권자나 그 대신들의 뜻을 조금만 거슬러도 쫓겨날 처지라면, 백성에게 미치는 제 권위를 지키기가 아마 불가능할 터이니,

백성은 그때 그들을 삯을 받고 궁정에 붙어사는 자로 여겨 그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더는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자가 성직자 몇 사람이 남달리 열을 올려 당파를 짓거나 난을 부추기는 교리를 퍼뜨렸다는 까닭으로 법에 어긋나게 힘을 써서 그들의 자유 보유권을 빼앗으려 든다면, 그런 박해로 그는 그들과 그들의 교리를 예전보다 열 배 더 인기 있게, 따라서 열 배 더 성가시고 위험하게 만들 뿐일 것이다. 두려움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정부의 딱한 도구이며, 특히 조금이라도 독립을 내세울 만한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도 결코 써서는 안 된다. 그들을 겁주려 드는 것은 그들의 심사를 돋우고 그 맞섬을 굳히는 데에 쓰일 뿐이니, 더 부드럽게 다루었더라면 아마 그 맞섬을 누그러뜨리거나 아주 내려놓게 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저희 파를망, 곧 최고 법원들에게 인기 없는 칙령을 등록하게 만들려고 흔히 쓰던 폭력은 성공하는 일이 몹시 드물었다[7]. 그러나 흔히 쓰던 수단, 곧 말을 듣지 않는 구성원을 모두 가두는 것은 넉넉히 강한 수단이었다고 여길 만하다. 스튜어트 가문의 군주들도 잉글랜드 의회의 구성원 몇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더러 비슷한 수단을 썼으나, 대체로 그들이 그만큼이나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잉글랜드 의회는 이제 다른 길로 다루어지며, 슈아죌 공작이 열두 해쯤 전에 파리 파를망을 두고 해 본 아주 작은 시험은 프랑스의 온 파를망도 같은 길로 한결 더 쉽게 다룰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보여 주었다. 그 시험은 이어지지 않았다. 다루는 솜씨와 설득이 늘 정부의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도구이고 힘과 폭력이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도구인데도, 사람이 타고난 오만이 그러한 듯하여 그는 나쁜 도구를 쓸 수 없거나 감히 쓰지 못할 때가 아니면 거의 언제나 좋은 도구 쓰기를 낮잡아 보는 까닭이다. 프랑스 정부는 힘을 쓸 수 있었고 감히 쓸 수도 있었으므로 다루는 솜씨와 설득 쓰기를 낮잡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어느

시대의 겪음에서나 드러나듯이, 국교회의 존경받는 성직자만큼 힘과 폭력을 쓰기에 위험한, 아니 그야말로 파멸을 부르는 부류의 사람은 없다. 제 집단과 사이가 좋은 성직자라면 누구나 그 권리와 특권과 몸의 자유가 가장 전제적인 정부에서조차 지체와 재산이 엇비슷한 다른 어떤 사람의 그것보다 더 존중받는다. 이는 부드럽고 온건한 파리 정부에서 사납고 거센 콘스탄티노플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제의 모든 단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은 힘으로 눌리는 일이 거의 없으되 다른 어떤 부류만큼이나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주권자의 안전도 공공의 평온도 그가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수단에 크게 달려 있는 듯하고, 그 수단은 오로지 그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듯하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옛 제도에서는 주교 관구마다 그 주교를 성직자와 주교좌 도시 사람들이 함께 던지는 표로 뽑았다[8]. 백성은 뽑을 권리를 오래 지니지 못하였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도 거의 언제나 성직자의 영향 아래 움직였으니, 그런 영적 문제에서 성직자가 그들의 본디 인도자로 보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성직자는 머지않아 그들을 다루는 수고에 지쳐 제 손으로 제 주교를 뽑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수도원장도 같은 길로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뽑았으니, 적어도 수도원의 큰 몫에서 그러하였다. 주교 관구 안에 든 낮은 성직록은 모두 주교가 수여하여 제가 알맞다고 여기는 성직자에게 내렸다. 교회 안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교회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주권자는 그 뽑는 일에 얼마쯤 에두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더러 뽑는 일에 그의 허락을 구하고 뽑은 결과에 그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였으나, 성직자를 다룰 곧바르거나 넉넉한 수단은 지니지 못하였다. 성직자는 누구나 제 야심에 이끌려 제 주권자보다 제 집단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으니, 오직 그 집단에서만 더 높은 자리를 바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유럽의 큰 몫에 걸쳐 교황은 차츰 제게로 끌어갔으니, 먼저 거의 모든 주교구와 수도원장 자리를 내리는 권한, 곧 이른바 콘시스토리움 성직록을 내리는 권한을 가져갔고, 그 뒤에는 온갖 술수와 구실로 주교관구마다 그 안에 든 낮은 성직록의 큰 몫까지 가져가, 주교에게는 제 성직자에게 점잖은 권위를 세울 만큼만 겨우 남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주권자의 처지는 예전보다도 더 나빴다. 유럽 여러 나라의 성직자는 이리하여 일종의 영적 군대를 이루었으니, 참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되 그 온갖 움직임과 작전을 이제 한 우두머리가 지휘하고 한결같은 한 구상에 따라 이끌 수 있었다. 나라마다 그 성직자는 그 군대의 한 분견대로 볼 수 있었고, 그 작전은 둘레의 여러 나라에 자리 잡은 다른 모든 분견대가 쉽게 떠받치고 거들 수 있었다. 분견대마다 제가 자리 잡고 제 살림을 대 주는 나라의 주권자에게서 독립해 있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주권자에게 매여 있었으니, 그 외국 주권자는 언제든 그 무기를 그 나라의 주권자에게 돌릴 수 있었고 다른 모든 분견대의 무기로 그것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처지였다.

그 무기는 어지간히 상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기예와 제조업이 자리 잡기 전 유럽의 옛 상태에서 성직자의 부는 그들에게 예사 사람들을 좌우할 힘을 주었으니, 그것은 큰 남작들의 부가 그들에게 저마다의 봉신과 차지인과 딸린 사람들을 좌우할 힘을 준 것과 같은 갈래의 힘이었다. 군주들과 사사로운 사람들의 그릇된 신심이 교회에 내린 큰 토지 재산에는 큰 남작들의 것과 같은 갈래의 재판권이, 그리고 같은 까닭으로 세워졌다. 그 큰 토지 재산에서 성직자나 그 마름은 국왕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뒷받침이나 도움 없이도 평화를 쉽게 지킬 수 있었고, 국왕도 다른 어떤 사람도 성직자의 뒷받침과 도움 없이는 그곳의 평화를 지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저마다의 남작령이나 장원에서 지닌 재판권은 큰 세속 영주의 그것과 똑같이

독립해 있었고 국왕 법정의 권위를 똑같이 물리쳤다. 성직자의 차지인은 큰 남작의 차지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임의 차지인이어서 바로 위 영주에게 온전히 매여 있었고, 그런 까닭에 성직자가 그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어떤 싸움에서든 내키는 대로 불려 나가 싸울 처지였다[9]. 그 재산에서 나오는 지대 말고도 성직자는 십일조로 유럽의 온 왕국에서 다른 모든 재산에서 나오는 지대의 아주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 두 갈래 지대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큰 몫이 현물로, 곧 곡물과 술과 소와 가금, 곧 집에서 치는 새 따위로 치러졌다. 그 양은 성직자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을 크게 넘었고, 그 남는 것을 바꿀 만한 생산물을 낼 기예도 제조업도 없었다. 성직자가 이 엄청난 남는 것에서 이익을 끌어낼 길은, 큰 남작들이 제 수입에서 남는 것을 그리하였듯이 그것을 더없이 헤픈 손님 대접과 더없이 널따란 자선에 쓰는 것 말고는 없었다. 그런 까닭에 옛 성직자의 손님 대접도 자선도 몹시 컸다고 한다. 그들은 온 왕국의 가난한 이를 거의 다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많은 기사와 신사가 흔히 신심을 핑계로 삼되 실은 성직자의 손님 대접을 누리려고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떠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다른 생계 길이 없었다. 어떤 고위 성직자에게 딸린 사람은 흔히 가장 큰 세속 영주에게 딸린 사람만큼이나 많았고, 온 성직자에게 딸린 사람을 모두 합치면 아마 온 세속 영주에게 딸린 사람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성직자 사이에는 늘 세속 영주 사이보다 훨씬 더 큰 뭉침이 있었다. 앞의 이들은 교황의 권위에 일정한 규율과 위아래로 매여 있었다. 뒤의 이들은 아무런 일정한 규율에도 위아래에도 매이지 않았고, 거의 언제나 서로를, 또 국왕을 똑같이 시샘하였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차지인과 딸린 사람을 합친 수가 큰 세속 영주의 그것보다 적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직자의 차지인은 아마 훨씬 적었을 터이나, 그 뭉침이 그들을 더 무섭게 만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성직자의 손님 대접과 자선은

그들에게 큰 세속의 힘을 부릴 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영적 무기의 무게를 크게 늘렸다. 그 덕은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온갖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존경과 우러름을 얻어 주었으니, 그 가운데 많은 이가 늘, 거의 모두가 때때로 그들에게서 얻어먹었다. 그토록 인기 있는 집단에 딸리거나 이어진 것은 무엇이나, 그 소유도 그 특권도 그 교리도 예사 사람들의 눈에 거룩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어기는 일은 참이든 꾸민 것이든 거룩함을 더럽히는 가장 높은 악행이자 불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이 이러한 판에 주권자가 큰 귀족 몇이 짠 동맹에 맞서기도 어렵다고 여기는 일이 잦았다면, 이웃한 모든 나라의 성직자가 떠받쳐 주는 제 나라 성직자의 뭉친 힘에 맞서기를 한결 더 어렵다고 여긴 것이 이상할 것 없다. 그런 형편에서 놀라운 일은 그가 더러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이라도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옛 시절에 성직자가 누린 특권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특권은, 이를테면 세속 재판권에서 아주 벗어나 있던 것이나 잉글랜드에서 성직자 특전이라 부르던 것은, 일이 이러한 데에서 저절로 나온, 아니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10]. 성직자 하나를 무슨 죄로든 벌하려 드는 일이 주권자에게 얼마나 위험하였겠는가, 그 집단이 그를 지켜 주려 들고 그토록 거룩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기에는 증거가 모자란다거나 종교가 그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 이에게 지우기에는 그 벌이 너무 무겁다고 내세우려 든다면 말이다. 그런 형편에서 주권자로서는 그를 교회 법정의 재판에 맡기는 것보다 나은 길이 없었으니, 교회 법정은 제 집단의 명예를 위하여 그 구성원 누구든 끔찍한 죄를 저지르거나 백성의 마음을 언짢게 할 만한 지독한 추문거리를 만들기까지 하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막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10세기와 11세기와 12세기와 13세기 동안, 그리고 그 앞뒤로도 얼마 동안 유럽의 큰 몫에 걸쳐 일이 그러하던 상태에서 로마 교회의 제도는 세속 정부의 권위와 안전에 맞서, 또 세속 정부가 지켜 줄 수 있는 곳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인류의 자유와 이성과 행복에 맞서 여태 짜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단합으로 볼 만하다. 그 제도에서는 미신이 낳은 가장 지독한 미혹을 그토록 많은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이 떠받치고 있었으므로, 그 미혹은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도 위태로울 것이 없었다. 사람의 이성이 미신이 낳은 미혹의 얼마쯤은 어쩌면 예사 사람들의 눈앞에까지 벗겨 보일 수 있었을지라도, 사사로운 이익의 끈은 결코 풀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사람의 이성이 벌이는 힘없는 애씀 말고 다른 적에게 공격받은 일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영영 버텼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온 슬기와 덕으로도 결코 흔들지 못하였을, 하물며 뒤엎지 못하였을 그 거대하고 잘 지어진 구조물은 일이 저절로 흘러가는 대로 먼저 허물어지고 그 뒤에 얼마쯤 무너졌으며, 이제는 아마 몇 세기가 더 지나는 사이에 아주 무너져 내릴 듯하다.

기예와 제조업과 상업이 차츰 나아진 것, 곧 큰 남작들의 힘을 무너뜨린 바로 그 원인이 유럽의 큰 몫에 걸쳐 똑같이 성직자의 온 세속 권력을 무너뜨렸다. 기예와 제조업과 상업이 낸 생산물에서 성직자는 큰 남작들과 마찬가지로 제 원생산물과 바꿀 만한 것을 찾아냈고, 그리하여 제 수입 전부를 남에게 이렇다 할 몫을 주지 않고 제 몸에 쓸 길을 알아냈다. 그들의 자선은 차츰 덜 널따래지고 그 손님 대접은 덜 너그럽고 덜 헤퍼졌다. 그 결과 그들에게 딸린 사람은 수가 줄었고 차츰 아주 스러졌다. 성직자도 큰 남작들처럼 제 토지 재산에서 더 나은 지대를 받아 그것을 똑같이 제 사사로운 허영과 어리석음을 채우는 데에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대를 늘리는 일은 제 차지인에게

정해진 기한의 임차를 내주어야만 할 수 있었고, 차지인은 그리하여 크게 그들에게서 독립하게 되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직자에게 묶어 두던 이익의 끈은 이리하여 차츰 끊어지고 풀렸다. 그것은 같은 자리의 사람들을 큰 남작들에게 묶어 두던 끈보다도 더 일찍 끊어지고 풀렸으니, 교회의 성직록은 그 큰 몫이 큰 남작들의 재산보다 훨씬 작았으므로 성직록마다 그 임자가 그 수입 전부를 제 몸에 쓸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때가 훨씬 짧았던 까닭이다. 14세기와 15세기의 큰 몫 동안 큰 남작들의 힘은 유럽의 큰 몫에 걸쳐 한창 왕성하였다. 그러나 성직자의 세속 권력, 곧 그들이 한때 백성의 큰 무리에게 휘두르던 절대의 지휘권은 몹시 쇠하였다. 그때쯤 교회의 힘은 유럽의 큰 몫에 걸쳐 거의 그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그 영적 권위조차 성직자의 자선과 손님 대접이 그것을 떠받치기를 그치자 크게 약해졌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예전처럼, 곧 제 괴로움을 달래 주는 이요 제 궁핍을 덜어 주는 이로 더는 보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더 부유한 성직자의 허영과 사치와 씀씀이에 성이 나고 넌더리를 냈으니, 그 성직자들은 예전부터 늘 가난한 이의 몫으로 여겨지던 것을 제 쾌락에 쓰는 듯이 보였던 까닭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럽 여러 나라의 주권자들은 교회의 큰 성직록을 처분하는 데에 한때 지녔던 영향을 되찾으려 애썼으니, 주교 관구마다 그 수석 사제와 참사회에게 주교를 뽑던 옛 권리를 되돌려 주고 수도원마다 그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장을 뽑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길로 그리하였다. 이 옛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14세기 동안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여러 법령, 특히 이른바 성직 수여 제한법의 목적이었고, 15세기에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국사조칙의 목적이었다[11]. 뽑는 일이 효력을 지니려면 주권자가 미리 그것에 허락을 내리고 나중에 뽑힌 사람을 승인하여야 하였으니, 뽑는 일은 여전히 자유롭다고 여겨졌으되

그는 제 자리가 반드시 안겨 주는 온갖 에두른 수단으로 제 나라 안의 성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비슷한 쪽으로 기운 다른 규정들이 유럽의 다른 곳에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교회의 큰 성직록을 내리는 데에서 교황이 지닌 힘은 종교개혁 전에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만큼 잘, 그리고 두루 묶인 곳이 없었던 듯하다. 그 뒤 16세기에 정교 협약은 프랑스 국왕들에게 갈리아 교회의 모든 큰 성직록, 곧 이른바 콘시스토리움 성직록에 사람을 추천할 절대의 권리를 주었다.

국사조칙과 정교 협약이 자리 잡은 뒤로 프랑스의 성직자는 대체로 다른 어떤 가톨릭 나라의 성직자보다 교황청의 결정에 존중을 덜 보였다. 제 주권자가 교황과 벌인 온갖 다툼에서 그들은 거의 언제나 앞의 편을 들었다. 프랑스 성직자가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독립해 있는 것은 주로 국사조칙과 정교 협약에 뿌리를 두는 듯하다. 왕정의 더 이른 시기에 프랑스의 성직자는 다른 어느 나라의 성직자만큼이나 교황에게 헌신하였던 듯하다. 카페 왕가의 두 번째 군주 로베르가 교황청에게 더없이 부당하게 파문당하였을 때, 그 자신의 하인들이 그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을 개에게 던져 주고 그런 처지의 사람이 닿아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나 스스로 맛보기를 마다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그리하도록 가르친 것은 그의 나라 안 성직자였으리라고 아주 안심하고 짐작할 수 있다.

교회의 큰 성직록을 내린다는 주장, 그것을 지키려고 교황청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큰 주권자 몇의 왕좌를 자주 흔들고 더러 뒤엎기까지 한 그 주장은 이리하여 종교개혁 때가 오기도 전에 유럽의 여러 곳에서 묶이거나 고쳐지거나 아주 내려놓아졌다. 성직자가 이제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만큼 나라가 성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늘었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나라를 어지럽힐 힘도 줄고 그럴 마음도 줄었다.

로마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기울어 가던 때에 종교개혁을 낳은 다툼이 독일에서 시작되어 머지않아 유럽 곳곳으로 퍼졌다. 새 교리는 어디서나 민간의 큰 호의를 받았다. 그것은 자리 잡은 권위를 칠 때 흔히 당파의 정신을 북돋우는 저 열광에 찬 열성을 다해 퍼졌다. 그 교리를 가르친 이들은 다른 점에서는 아마 국교회를 지킨 많은 신학자보다 더 배웠다고 할 수 없었으되, 대체로 교회사와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 바탕인 저 의견 체계의 뿌리와 걸어온 길을 더 잘 알았던 듯하고, 그리하여 거의 모든 다툼에서 이점을 지녔다. 그들의 몸가짐이 준엄한 것이 예사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었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처신이 엄하고 반듯한 것을 제 성직자 큰 몫의 어지러운 삶과 견주어 보았던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인기를 얻고 개종자를 얻는 온갖 기예를 제 맞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지녔으니, 그 기예는 드높고 위엄 있는 교회의 아들들이 제게는 크게 쓸모없다 하여 오랫동안 버려 둔 것이었다. 새 교리가 지닌 이치가 얼마쯤의 사람에게 그것을 내세워 주었고 그 새로움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하였으며, 자리 잡은 성직자를 향한 미움과 업신여김이 한결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하였다. 그러나 거의 어디서나 그 교리를 가르쳐 넣을 때 쓰인 열띠고 격정에 찬 광신적인 웅변은, 흔히 거칠고 투박하였으되 단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내세워 주었다.

새 교리가 거둔 성공은 거의 어디서나 몹시 커서, 그때 마침 교황청과 사이가 나빴던 군주들은 그 교리를 빌려 제 나라에서 교회를 쉽사리 뒤엎을 수 있었으니, 교회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잃었으므로 거의 아무런 맞섬도 할 수 없었다. 교황청은 독일 북부의 더 작은 군주 몇의 뜻을 거슬렀으니, 아마 그들을 다룰 값어치도 없을 만큼 하찮다고 여겼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같이 제 나라에 종교개혁을 세웠다. 크리스티안 2세와 웁살라 대주교 트롤의 폭정 덕분에 구스타브 바사는 그 둘을 모두 스웨덴에서 내쫓을 수

있었다[12]. 교황이 그 폭군과 대주교의 편을 들었으므로 구스타브 바사는 스웨덴에 종교개혁을 세우는 데에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크리스티안 2세는 뒤에 덴마크의 왕좌에서 쫓겨났으니, 그곳에서도 그의 처신이 스웨덴에서만큼이나 그를 밉살스럽게 만들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교황은 그래도 그의 편을 들려 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왕좌에 오른 홀슈타인의 프레데리크는 구스타브 바사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으로 앙갚음하였다. 베른과 취리히의 행정관들은 교황과 딱히 다툰 일이 없었는데도 저마다의 칸톤에 종교개혁을 아주 쉽게 세웠으니, 그곳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성직자 몇이 예사보다 다소 지독한 속임수를 써서 온 집단을 밉살스럽고 업신여길 만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까닭이다.

일이 이렇게 아슬아슬해진 판에 교황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힘센 주권자들과 벗으로 지내려고 넉넉히 공을 들였으니, 뒤의 사람은 그때 독일 황제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도움으로 교황청은 큰 어려움과 많은 피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나아가는 것을 아주 누르거나 크게 가로막을 수 있었다. 교황청은 잉글랜드 국왕에게도 비위를 맞추려는 마음이 넉넉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형편으로는 한결 더 큰 주권자, 곧 스페인 국왕이자 독일 황제인 카를 5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는 그리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헨리 8세는 스스로 종교개혁 교리의 큰 몫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되 그 교리가 두루 퍼진 덕분에 온 수도원을 없애고 제 나라에서 로마 교회의 권위를 폐할 수 있었다. 그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종교개혁을 밀어 준 이들에게 얼마쯤 흡족한 일이었으니, 그들은 그의 아들이자 뒤를 이은 군주의 치세에 정부를 손에 넣고 헨리 8세가 시작한 일을 아무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였다.

정부가 약하고 인기가 없고 그리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한 어떤 나라에서는, 이를테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려 들었다는 까닭으로 나라까지 뒤엎을 만큼 강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진 종교개혁의 따르는 이들 사이에는 로마 교황청이나 공의회처럼 그들 사이의 온갖 다툼을 가려 주고 거스를 수 없는 권위로 그들 모두에게 정통 교리의 정확한 경계를 정해 줄 두루 통하는 법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이들이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뜻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 호소할 공통의 재판관이 없었으므로 그 다툼은 결코 가려질 수 없었고, 그런 다툼이 그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다. 교회의 정치를 두고 벌어진 다툼과 성직록을 내리는 권리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 아마 세속 사회의 평화와 복리에 가장 크게 걸린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 다툼은 종교개혁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두 으뜸가는 당파 곧 종파를 낳았으니, 루터파와 칼뱅파가 그것이고, 그들 가운데 그 교리와 규율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든 법으로 자리 잡은 적이 있는 종파는 이 둘뿐이다.

루터를 따르는 이들은 이른바 잉글랜드 교회와 더불어 감독교회의 정치를 얼마쯤 지켜 성직자 사이에 위아래를 세웠고, 주권자에게 제 나라 안의 모든 주교구와 그 밖의 콘시스토리움 성직록을 처분할 권한을 주어 그를 교회의 참된 우두머리로 만들었으며, 주교에게서 제 주교관구 안의 더 작은 성직록을 내릴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도 그 성직록에까지 주권자와 다른 모든 세속 후원자가 사람을 추천할 권리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편을 들어 주었다. 이 교회 정치의 체계는 처음부터 평화와 좋은 질서에, 그리고 세속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데에 이로웠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한번 자리 잡은 나라에서 그것이 어떤 소란이나 내란의 빌미가 된 적은 없다. 특히 잉글랜드 교회는 제 원리가 나무랄 데 없이 충성스럽다는 것을 늘 크게 자랑하여 왔고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그런 정치 아래에서 성직자는 저절로 주권자와 궁정과 그 나라의 귀족과 젠트리에게 제 몸을 내세우려 애쓰니, 주로 그들의 영향으로 더 높은 자리를 얻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그들은 그 후원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러는 참으로 더없이 비열한 아첨과 맞장구로 그리하나 흔히는 지체와 재산을 갖춘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가장 마땅하고 따라서 그 존경을 얻기에 가장 알맞은 온갖 기예를 갈고닦는 것으로 그리하니, 쓸모 있고 꾸밈이 되는 온갖 갈래의 배움에서 지닌 앎으로, 몸가짐의 점잖고 너그러움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의 어울림 좋은 유쾌함으로, 그리고 광신자들이 가르쳐 넣고 몸소 지키는 체하는 저 터무니없고 위선스러운 준엄함을 드러내 놓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리하는 것인데, 광신자들이 그런 준엄함을 내세우는 것은 제 몸에는 예사 사람들의 우러름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드러내 놓고 말하는 지체와 재산을 갖춘 사람들의 큰 몫에는 예사 사람들의 미움을 끌어들이려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런 성직자는 삶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동안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제 영향과 권위를 지킬 방도는 아주 저버리기 쉽다. 그들은 제 윗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지고 높이 쳐지고 존경받으나, 제 아랫사람들 앞에서는 제 차분하고 알맞은 교리를 그것을 치려 드는 가장 무지한 열광가에게서 제대로, 그리고 그런 듣는 이들이 수긍하도록 지켜 내지 못하는 일이 잦다.

이와 달리 츠빙글리를 따르는 이들, 더 바르게 말하면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교회 자리가 빌 때마다 교구마다 그 사람들에게 제 목사를 뽑을 권리를 주었고, 아울러 성직자 사이에 더없이 온전한 고름을 세웠다. 이 제도의 앞의 몫은 그것이 살아 있는 동안 어지러움과 혼란 말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한 듯하고, 성직자의 도덕도 백성의 도덕도 똑같이

썩게 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듯하다. 뒤의 몫은 더없이 흐뭇한 것 말고 다른 결과를 낳은 적이 없는 듯하다.

교구마다 그 사람들이 제 목사를 뽑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언제나 성직자의 영향 아래, 그것도 대체로 그 집단에서 가장 당파를 짓고 가장 광신적인 이들의 영향 아래 움직였다. 성직자는 그 민간의 선거에서 제 영향을 지키려고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스스로 광신자가 되거나 그런 체하였고, 백성 사이에 광신을 북돋웠으며, 거의 언제나 가장 광신적인 후보를 앞세웠다. 교구 사제 하나를 앉히는 그토록 작은 일이 거의 언제나 사나운 다툼을 일으켰으니, 한 교구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툼에 끼어들기를 좀처럼 거르지 않던 이웃한 온 교구에서 그러하였다. 그 교구가 마침 큰 도시에 있으면 그것이 온 주민을 두 패로 갈랐고, 그 도시가 마침 스스로 작은 공화국을 이루고 있거나 작은 공화국의 우두머리이자 수도였으면,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이름난 도시 여럿이 그러하였거니와, 이런 갈래의 하찮은 다툼마다 그 밖의 온갖 당파가 품은 적의를 돋우는 것 위에 교회에는 새로운 분열을, 나라에는 새로운 당파를 남길 낌새를 보였다. 그러므로 그 작은 공화국들에서 행정관은 공공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빈 성직록마다 사람을 추천할 권리를 제 손에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음을 머지않아 알았다. 이 장로교식 교회 정치가 자리 잡은 나라 가운데 가장 넓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윌리엄 3세의 치세 첫머리에 장로제를 세운 법으로 후원권이 사실상 폐지되었다[13]. 적어도 그 법은 교구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 목사를 뽑을 권리를 아주 적은 값으로 사들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 법이 세운 제도는 스물두 해쯤 이어지도록 놓아두었으나, 이렇게 더 민간에 맡긴 뽑는 길이 거의 어디서나 일으킨 혼란과 어지러움을 까닭으로 앤 여왕 치세 10년의 법 제12장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처럼 넓은 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진

교구의 소란이 더 작은 나라에서만큼 정부를 어지럽히기가 쉽지 않았다. 앤 여왕 치세 10년의 법은 후원권을 되살렸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법은 후원자가 추천한 사람에게 아무 예외 없이 성직록을 주는데도, 교회는 더러 추천받은 이에게 이른바 영혼을 돌보는 직무, 곧 그 교구의 교회 재판권을 내리기 전에 백성이 얼마쯤 동의할 것을 요구하니, 교회가 이 점에서 내린 결정이 그리 한결같지는 않았던 까닭이다. 교회는 적어도 더러 그 교구의 평화를 걱정하는 체하며 이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미룬다. 이웃한 성직자 몇이 더러는 이 동의를 얻어 내려고, 더 흔하게는 그것을 막으려고 남몰래 손을 쓰는 일, 그리고 그런 때에 더 잘 손을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갈고닦는 민간의 기예가 아마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에게든 백성에게든 옛 광신의 정신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로 떠받치는 까닭일 것이다.

장로교식 교회 정치가 성직자 사이에 세우는 고름은 첫째로 권위 곧 교회 재판권이 고른 데에 있고, 둘째로 성직록이 고른 데에 있다. 장로교 교회는 어디서나 권위의 고름이 온전하나 성직록의 고름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한 성직록과 다른 성직록 사이의 차이는 작은 것을 쥔 이라도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아첨과 맞장구라는 비열한 기예로 제 후원자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질 만큼 큰 일이 드물다. 후원권이 온전히 자리 잡은 장로교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자리 잡은 성직자가 대체로 제 윗사람의 호의를 얻으려 애쓸 때 더 고귀하고 더 나은 기예로 그리하니, 제 배움으로,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한 제 삶으로, 제 직분을 참되고 부지런히 해내는 것으로 그리한다. 그 후원자들은 흔히 그들의 정신이 독립해 있다고 불평하며 그것을 지난날의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새기기 쉬우나, 그것은 아무리 나쁘게 보아도 아마 그런 갈래의 은혜를 더는 바랄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저절로 생기는 무심함에 지나지 않는 일이 잦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제네바와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성직자 가운데 큰 몫보다 더 학식 있고 점잖고 독립해 있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의 무리는 아마 유럽 어디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성직록이 모두 엇비슷한 곳에서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아주 클 수 없으니, 성직록이 이렇게 어지간한 것은 참으로 지나치게 밀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아주 흐뭇한 결과를 얼마쯤 낳는다. 본보기가 될 만한 도덕 말고는 무엇도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위엄을 줄 수 없다. 가벼움과 허영에서 오는 악덕은 그를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뿐 아니라 예사 사람들에게 그러한 만큼이나 그에게도 거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제 처신에서 그는 예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저 도덕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제 이익과 제 처지가 저절로 따르게 할 저 삶의 구상으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 예사 사람들은 우리 처지에 얼마쯤 가까이 다가와 있으나 마땅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기는 이를 저절로 대하게 되는 저 다정함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들의 다정함은 저절로 그의 다정함을 불러낸다. 그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에 마음을 쓰고 그들을 돕고 덜어 주는 데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그는 제게 그토록 호의를 보이려 하는 사람들의 편견조차 업신여기지 않으며, 풍요롭고 기금을 넉넉히 받는 교회의 거만한 고위 성직자에게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마주치는 저 업신여기고 오만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런 까닭에 장로교 성직자는 아마 다른 어떤 국교회의 성직자보다도 예사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까닭에 예사 사람들이 박해 없이 온전히, 그것도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교회로 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장로교 나라뿐이다.

교회의 성직록이 그 큰 몫이 몹시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우니베르시타스의 강좌 자리가 대체로 교회의 성직록보다 나은

밥자리다. 이 경우에 우니베르시타스는 제 구성원을 그 나라의 온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 뽑을 수 있으니, 교회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단연 가장 수가 많은 문인 계층을 이룬다. 이와 달리 교회의 성직록 가운데 많은 것이 아주 큰 곳에서는 교회가 저절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그 빼어난 문인의 큰 몫을 끌어가니, 그들은 대체로 어떤 후원자를 만나고 그 후원자는 그들에게 교회의 자리를 얻어 주는 것으로 제 몸을 빛낸다. 앞의 처지에서는 그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빼어난 문인들로 우니베르시타스가 채워져 있기 쉽다. 뒤의 처지에서는 그 안에 빼어난 사람이 적고, 그 적은 이들마저 그 단체에서 가장 젊은 구성원 축에 들며, 그들 또한 그 단체에 크게 쓸모 있을 만큼 겪음과 앎을 얻기도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볼테르 씨가 살핀 바로는 문인 공화국에서 크게 이름나지 않은 예수회 신부 포레가 프랑스에서 여태 있었던 교수 가운데 그 저작이 읽을 값어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토록 많은 빼어난 문인을 낸 나라에서 그 가운데 우니베르시타스의 교수였던 이가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소 남다른 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름난 가상디는 제 삶의 첫머리에 엑스의 우니베르시타스에서 교수였다[14]. 그의 재능이 처음 빛을 내자 교회로 들어가면 훨씬 조용하고 편안한 생계를, 아울러 제 연구를 이어 가기에 더 나은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곧바로 그 권유를 따랐다. 볼테르 씨의 살핌은 내가 믿기로는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모든 로마 가톨릭 나라에도 들어맞을 것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니베르시타스의 교수인 빼어난 문인을 우리는 몹시 드물게밖에 찾지 못하니, 법학과 의학의 직업에서라면 어쩌면 다르겠는데 교회가 그 직업에서 그들을 끌어갈 일은 그리 흔치 않은 까닭이다. 로마 교회 다음으로 잉글랜드 교회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단연 가장 부유하고 기금을 가장 넉넉히 받는 교회다. 그런 까닭에 잉글랜드에서 교회는

우니베르시타스에서 가장 좋고 가장 재주 있는 구성원을 끊임없이 빼내 가며, 빼어난 문인으로 유럽에 알려지고 이름난 늙은 칼리지 지도 교수는 그곳에서 어느 로마 가톨릭 나라에서만큼이나 드물게밖에 찾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제네바와 스위스의 개신교 칸톤과 독일의 개신교 나라와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그 나라들이 낸 가장 빼어난 문인이, 참으로 모두는 아니지만 그 훨씬 큰 몫이 우니베르시타스의 교수였다. 그 나라들에서는 우니베르시타스가 교회에서 가장 빼어난 문인을 끊임없이 빼내 간다.

어쩌면 짚어 둘 값어치가 있으리니, 시인과 몇몇 웅변가와 몇몇 역사가를 빼면 그리스와 로마의 다른 빼어난 문인은 그 훨씬 큰 몫이 공적으로든 사사로이든 가르치는 이였던 듯하고 대개 철학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던 듯하다. 이 말은 리시아스와 이소크라테스의 시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절부터 플루타르코스와 에픽테토스와 수에토니우스와 퀸틸리아누스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참임이 드러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한 갈래의 학문을 해마다 가르쳐야 할 필요를 지우는 것은 실상 그 스스로 그 학문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게 하는 가장 잘 듣는 길인 듯하다. 해마다 같은 땅을 다시 밟아야 하므로, 그가 조금이라도 쓸 만한 사람이라면 몇 해 안에 그 낱낱을 잘 알게 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한 점을 두고 어느 해에 너무 성급한 의견을 세웠더라도 이듬해 강의를 해 나가다 같은 주제를 다시 살피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아주 쉽다. 학문을 가르치는 이가 되는 것이 순전한 문인에게 틀림없이 어울리는 본디 일자리이듯, 그것은 아마 그를 든든한 배움과 앎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에 가장 알맞은 교육이기도 할 것이다. 교회의 성직록이 어지간한 것은 그런 일이 있는 나라에서 저절로 문인의 큰 몫을 그들이 뭇사람에게 가장 쓸모 있을 수 있는 일자리로 끌어가는 쪽으로 기울며, 아울러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아마 그들에게 주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그들의 배움을 될 수 있는 대로 든든하게, 또 될 수 있는 대로 쓸모 있게 만드는 쪽으로 기운다.

국교회마다 그 수입은, 따로 딸린 땅이나 장원에서 생기는 몫을 뺀다면, 나라의 온 세입에서 갈라져 나온 한 갈래임을 짚어 두어야 하니, 그것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과는 아주 다른 목적으로 돌려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십일조는 실질 토지세여서, 토지의 임자들이 그것이 없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만큼 나라를 지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힘을 빼앗는다. 그러나 토지의 지대는 어떤 이들에 따르면 유일한 기금이요 다른 이들에 따르면 으뜸가는 기금으로, 큰 왕국에서는 어디서나 나라의 다급한 필요를 마침내 여기서 대야 한다. 이 기금 가운데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나라에 내어 줄 수 있는 것이 적어짐은 뚜렷하다. 다른 모든 것이 같다고 할 때 교회가 부유할수록 한쪽의 주권자나 다른 쪽의 백성이 그만큼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어느 경우에나 나라가 제 몸을 지킬 힘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격률로 내세울 만하다. 여러 개신교 나라에서, 특히 스위스의 온 개신교 칸톤에서는 예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것이던 수입, 곧 십일조와 교회 땅이 자리 잡은 성직자에게 알맞은 봉급을 대 줄 뿐 아니라 보태는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도 나라의 다른 온갖 비용을 치르기에 넉넉한 기금임이 드러났다. 특히 힘센 베른 칸톤의 행정관들은 이 기금에서 아낀 것으로 아주 큰 돈을 쌓았으니 몇백만에 이른다고 하며, 그 얼마는 공공 금고에 넣어 두었고 얼마는 유럽의 빚진 여러 나라의 이른바 공채에, 주로 프랑스와 영국의 공채에 이자를 받고 넣어 두었다. 베른 교회든 다른 어느 개신교 칸톤의 교회든 그 교회가 나라에 지우는 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아주 정확한 셈으로 드러난 바로는 1755년에 스코틀랜드 교회 성직자의 온

수입은 그들의 글레브 곧 교회 땅과 그들의 목사관 곧 살림집의 집세를 알맞은 평가에 따라 셈하여 넣어도 68,514파운드 1실링 5와 12분의 1펜스에 지나지 않았다[15]. 이 몹시 어지간한 수입이 목사 944명에게 점잖은 생계를 대 준다. 교회당과 목사관을 짓고 고치는 데에 이따금 들이는 것까지 넣어 교회의 온 비용은 한 해에 8만 파운드나 8만 5천 파운드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교회라도 백성의 큰 무리 속에 믿음의 한결같음과 헌신의 뜨거움과 질서와 반듯함과 준엄한 도덕의 정신을 이 기금을 몹시 빈약하게 받는 스코틀랜드 교회보다 더 잘 지키지는 못한다. 국교회가 낳으리라고 볼 수 있는 온갖 좋은 결과는, 세속의 것이든 종교의 것이든 그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만큼이나 온전히 낳는다. 스위스의 개신교 교회 가운데 큰 몫은 대체로 스코틀랜드 교회보다 기금을 더 받지 않는데도 그 결과를 한결 더 높이 낳는다. 개신교 칸톤의 큰 몫에서는 스스로 국교회에 속한다고 밝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참으로 누가 스스로 다른 교회에 속한다고 밝히면 법이 그를 그 칸톤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러나 그토록 모진, 아니 참으로 그토록 억누르는 법은 성직자의 부지런함이 미리 백성의 온 무리를, 어쩌면 몇 사람만 빼고 국교회로 개종시켜 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결코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스위스의 어떤 곳에서는 개신교 나라와 로마 가톨릭 나라가 우연히 합쳐진 탓에 그 개종이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종교가 용인될 뿐 아니라 법으로 자리 잡아 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그 삯이나 보답이 그 일의 성질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맞추어져야 하는 듯하다. 어떤 일에 삯을 너무 적게 주면 그 일은 거기에 쓰이는 사람 큰 몫의 옹졸함과 모자람으로 해를 입기 아주 쉽다. 삯을 너무 많이 주면 그 일은 그들의 태만과 나태로 아마 한결 더 해를 입기 쉽다. 수입이 큰 사람은 그

직업이 무엇이든 제가 수입이 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제 때의 큰 몫을 잔치와 허영과 방탕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직자에게 이런 삶의 흐름은 제 직분의 의무에 써야 할 때를 삼켜 버릴 뿐 아니라, 예사 사람들의 눈에 그가 그 의무를 마땅한 무게와 권위로 해내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그 사람됨의 거룩함을 거의 아주 무너뜨린다.

---

1. 옮긴이 — 18세기 영어에서 enthusiasm 은 오늘날의 「열의」가 아니라 자신이 신의 영감을 직접 받았다고 믿는 종교적 격정을 가리켰다. 스미스는 이 장에서 그것을 늘 미신과 짝지어 쓴다. 이 번역에서는 「열광」으로 옮겼다.

2. 옮긴이 — 국교회는 나라가 법으로 정한 교회를 말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그것이었다. 비국교도는 잉글랜드 교회 밖에 있던 개신교도를 가리키던 법률 용어다. 메서디스트는 1730년대에 존 웨슬리와 조지 휫필드가 일으킨 신앙 운동으로, 스미스가 이 책을 쓸 때에는 아직 잉글랜드 교회 안에 있었다. 성직록은 교회의 한 직책에 딸려 그 직책을 맡은 이가 받는 수입을 말한다.

3. 옮긴이 — 탁발 수도회는 재산을 두지 않고 동냥으로 살림을 잇는 수도회로, 도미니쿠스회와 프란체스코회가 13세기 초에 세워졌다.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는 피렌체 사람이며 이 대목은 『로마사 논고』 제3권에 있다.

4. 옮긴이 — 데이비드 흄(1711~1776)을 말한다. 스미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인용은 흄의 『잉글랜드사』에 있다.

5. 옮긴이 — 독립교회파는 잉글랜드 내전(1642~1651) 때 교회를 나라가 하나로 묶지 말고 회중마다 스스로 다스리게 하자고 주장한 이들이다. 펜실베이니아는 1681년에 퀘이커교도 윌리엄 펜(1644~1718)이 세운 식민지로, 처음부터 어느 교파도 법으로 세우지 않았다.

6. 옮긴이 — 자유 보유권은 잉글랜드 토지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평생 또는 대물림으로 쥐는 권리를 말한다. 성직록을 이 권리에 견준 것은 성직자가 그 자리를 윗사람의 뜻만으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7. 옮긴이 — 파를망은 프랑스의 최고 법원으로, 국왕의 칙령을 등록하여야 그것이 효력을 지녔으므로 등록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 에티엔프랑수아 드 슈아죌(1719~1785)은 루이 15세 아래의 대신이다.

8. 옮긴이 — 주교 관구는 주교 한 사람이 맡는 구역이고 주교좌 도시는 그 주교가 자리 잡은 도시다. 수석 사제와 참사회는 주교좌 교회의 성직자 단체로 주교를 뽑는 일을 맡았다. 콘시스토리움 성직록은 교황이 추기경 회의에서 직접 내리던 높은 성직록을 말한다.

9. 옮긴이 — 임의 차지인은 기한을 정한 임차 없이 영주의 뜻이 있는 동안에만 땅을 부치던 사람이다. 십일조는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던 것으로, 18세기까지도 흔히 현물로 치렀다.

10. 옮긴이 — 성직자 특전은 성직자를 세속 법정이 아니라 교회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던 잉글랜드의 관행이며, 뒤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초범에게 사형을 면해 주는 제도로 굳어졌다.

11. 옮긴이 — 성직 수여 제한법은 1351년에 잉글랜드 의회가 교황이 잉글랜드의 성직록을 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다. 국사조칙은 1438년 부르주에서 프랑스 성직자 회의가 정한 것으로 교황의 성직록 수여권을 묶었고, 정교 협약은 1516년에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가 맺은 것으로 프랑스 국왕에게 높은 성직록의 추천권을 주었다.

12. 옮긴이 — 크리스티안 2세(1481~1559)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왕이었다가 1523년에 스웨덴에서, 이어 덴마크에서 쫓겨났다. 구스타브 바사(1496~1560)는 구스타브 1세로 스웨덴 왕이 되었다. 구스타브 트롤(1488~1535)은 웁살라 대주교였다. 홀슈타인의 프레데리크는 프레데리크 1세(1471~1533)로 덴마크 왕위에 올랐다. 칸톤은 스위스를 이루는 주를 말한다.

13. 옮긴이 — 후원권은 성직록이 비었을 때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추천하는 권리로, 흔히 그 교회를 세웠거나 그 땅을 지닌 이에게 딸려 있었다.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째 장인지로 가리키므로, 「앤 여왕 치세 10년의 법 제12장」은 앤 여왕이 오른 1702년부터 열 해째인 1711년 회기의 12번째 법이다. 윌리엄 3세는 1689년에 왕위에 올랐다.

14. 옮긴이 — 우니베르시타스는 라틴어로 본디 「단체」를 뜻하며, 스미스가 앞 항에서 이 말의 본뜻과 오늘날의 「대학」이 겹치는 것을 논증으로 삼았으므로 여기서도 음차한다. 볼테르(1694~1778)와 샤를 포레(1675~1741)는 프랑스 사람이며, 포레는 볼테르를 가르친 예수회 교사다. 피에르 가상디(1592~1655)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천문학자로 엑스앙프로방스에서 가르쳤다. 저본에는 이 이름이 Cassendi로 찍혀 있다.

15. 옮긴이 — 이 책의 화폐는 파운드·실링·펜스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저본이 £68,514:1:5 1/12d 꼴로 적은 것은 68,514파운드 1실링 5와 12분의 1펜스다. 오늘날 값으로는 환산하지 않는다.

스미스의 논증은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에 걸려 있다. 글레브는 교구 목사에게 딸린 땅이고 목사관은 그가 사는 집이다.

1장 — 주권자 곧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이어서)

4절 — 주권자의 위엄을 지키는 비용에 대하여

주권자가 제 여러 직무를 해낼 수 있게 하는 데에 드는 비용 말고도, 그 위엄을 지키는 데에 얼마간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개량의 시기가 다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체의 꼴이 다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집에도 가구에도 밥상에도 옷차림에도 수레와 말에도 나날이 더 많은 돈을 들이는 풍요롭고 개량된 사회에서 주권자만 홀로 그 유행을 버티고 서 있으리라고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그도 저절로, 아니 차라리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의 위엄이 그리되기를 요구하는 듯이 보이기까지 한다.

위엄으로 말하자면 군주는 어느 공화국의 최고 행정관이 제 동료 시민 위에 놓인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제 신민 위에 더 높이 놓이므로, 그 더 높은 위엄을 지키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우리는 도제나 부르고마스터의 저택에서보다 국왕의 궁정에서 더 큰 화려함을 저절로 기대한다.[1]

맺음말

사회를 지키는 비용과 최고 행정관의 위엄을 지키는 비용은 둘 다 사회 전체의 두루한 이익을 위하여 쓰인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로, 곧 모든 구성원이 저마다의 능력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비례하여 내는 몫으로 치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사법 행정의 비용도 의심할 것 없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로 치른다 하여 온당하지 않을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비용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은 이러저러하게 불의를 저질러 법정에서 바로잡음이나 보호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들이고, 또 이 비용으로 가장 곧바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법정이 제 권리를 되찾아 주거나 제 권리를 지켜 주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사법 행정의 비용은 경우에 따라 그 두 부류 가운데 한쪽이나 다른 한쪽이, 또는 양쪽이 따로 내는 몫으로, 곧 소송 수수료로 치르는 것이 아주 알맞다. 그 수수료를 치를 만한 재산이나 기금을 제 것으로 가지지 못한 죄인을 가려내어 벌하는 일 말고는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에 기댈 까닭이 없다.

그 이익이 한 고장이나 한 지방에 머무는 비용은(이를테면 어떤 도시나 지역의 행정에 들이는 것이 그러하다) 고장의 세입이나 지방의 세입으로 치러야 하고 사회의 일반 세입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익이 사회의 한 부분에만 갇혀 있는 비용에 사회 전체가 갹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길과 물길을 건사하는 비용은 의심할 것 없이 사회 전체에 이롭고,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로 치르더라도 조금도 옳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용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니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과 그런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곧바로 직접 이롭다. 잉글랜드의 유료 도로 통행세와 다른 나라에서 페아주라 부르는 통행세는 이 비용을 온통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리하여 사회의 일반 세입을 아주 무거운 짐에서 벗겨 준다.[2]

교육과 종교 가르침을 맡은 기관의 비용도 의심할 것 없이 사회 전체에 이롭고,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로 치르더라도 옳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용은 아마 그에 못지않게 온당하게, 그리고 얼마쯤 이롭기까지 하게,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에서 곧바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온통 치르거나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제게 쓸모 있다고 여기는 이들의 자발적인 갹출로 온통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에 이로운 기관이나 공공사업이 그것으로 가장 곧바로 이익을 보는 사회의 특정한 구성원들의 갹출만으로는 온전히 건사될 수 없거나 온전히 건사되지 않을 때, 그 모자라는 몫은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 전체의 두루한 갹출로 메워야 한다. 사회의 일반 세입은 사회를 지키는 비용과 최고 행정관의 위엄을 지키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아, 세입의 여러 갈래에서 모자라는 몫을 메워야 한다. 이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을 나는 다음 장에서 밝혀 보려 한다.

2장 —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사회를 지키는 비용과 최고 행정관의 위엄을 지키는 비용뿐 아니라, 나라의 헌정이 따로 세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정부의 그 밖의 온갖 필요한 비용까지 치러야 하는 세입은 두 군데에서 끌어올 수 있으니, 첫째는 주권자 곧 국가에 남달리 속하고 국민의 수입과는 상관없는 어떤 기금에서이고, 둘째는 국민의 수입에서이다.

1절 — 주권자 곧 국가에 남달리 속할 수 있는 세입의 기금 곧 원천에 대하여

주권자 곧 국가에 남달리 속할 수 있는 세입의 기금 곧 원천은 자산이 아니면 토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주권자도 자산을 가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스스로 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어 세입을 끌어낼 수 있다. 그의 세입은 앞의 경우에는 이윤이고 뒤의 경우에는 이자다.

타타르나 아라비아 족장의 세입은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주로 제 소 떼와 양 떼가 내는 젖과 불어남에서 나오는데, 그는 그 치는 일을 스스로 살피며 제 무리나 부족의 으뜸가는 양치기요 목자다. 그러나 이윤이 군주국의 공공 세입에서 으뜸가는 몫을 이룬 것은 오직 이 가장 이르고 가장 거친 시민 정부의 상태에서뿐이다.

작은 공화국은 더러 상업적 사업의 이윤에서 꽤 많은 세입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함부르크 공화국은 공영 포도주 창고와 약방의 이윤에서 그리한다고 한다(『유럽의 조세와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 제1권 73쪽을 보라. 이 책은 프랑스의 재정을 손볼 알맞은 길을 몇 해째 궁리해 온 위원회가 쓰도록 궁정의 명으로 엮은 것이다. 4절판 세 권을 차지하는 프랑스 조세에 관한 기술은 더할 나위 없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의 조세에 관한 기술은 여러 궁정에 나가 있던 프랑스 대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모아 엮은 것이어서 훨씬 짧고, 아마 프랑스 조세에 관한 기술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3] 주권자가 포도주 장수나 약방 주인 노릇을 할 겨를이 있는 나라라면 그리 큰 나라일 수 없다. 공영 은행의 이윤은 더 큰 나라들에게 세입의 원천이 되어 왔다. 함부르크에서만이 아니라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러하였다. 이런 갈래의 세입은 영국처럼 큰 제국이 눈길을 줄 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여긴 사람들까지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예사로운 배당을 5.5퍼센트로, 그 자본을 1,078만 파운드로 잡으면, 관리 비용을 치르고 남는 해마다의 순이윤은 59만 2,900파운드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 자본을 3퍼센트 이자로 빌릴 수 있을 터이고, 은행의 관리를 제 손에 넣으면 해마다 26만

9,500파운드의 순이윤을 낼 수 있으리라고들 한다.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 같은 귀족정의 질서 있고 빈틈없고 아껴 쓰는 행정이 이런 갈래의 상업적 사업을 다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다는 것은 경험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 덕이 무엇이든 좋은 살림살이로 이름난 적이 없고 평화로울 때에는 아마 군주국에 저절로 따르는 것일 게으르고 무심한 헤픔으로 처신해 왔으며 전쟁 때에는 민주정이 빠지기 쉬운 온갖 생각 없는 방탕으로 한결같이 움직여 온 잉글랜드 같은 정부에 그런 사업의 관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는 적어도 훨씬 더 미덥지 못하다.

우편은 제대로 말하자면 상업적 사업이다. 정부가 여러 우편국을 세우고 필요한 말과 수레를 사거나 빌리는 비용을 먼저 대고, 실어 나르는 것에 물리는 요금으로 큰 이윤과 함께 그것을 되돌려받는다. 그것은 아마 내가 아는 한 온갖 갈래의 정부가 다 잘 꾸려 온 하나뿐인 상업적 사업일 것이다. 먼저 대야 할 자본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에는 비법이랄 것이 없다. 회수는 확실할 뿐 아니라 곧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군주들은 자주 다른 여러 상업적 사업에 손을 대었고, 사사로운 사람처럼 흔한 갈래의 장사에 모험가로 뛰어들어 제 재산을 불리려 들었다. 그들이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 군주의 일이 언제나 헤프게 다루어지는 까닭에 그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군주의 대리인들은 제 주인의 부가 바닥나지 않는다고 여겨 얼마에 사는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에 파는지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주인의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에 얼마가 드는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대리인들은 흔히 군주처럼 헤프게 살고, 더러는 그 헤픔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알맞게 꾸미는 솜씨로 군주만 한 재산을 손에 넣기까지 한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일러 주는 바로는, 재주가 모자라지 않은 군주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대리인들이 그의 장사를 꾸려 간 것도 이와 같았다.[4] 피렌체 공화국은 그들의 방탕이 그에게 지운

빚을 여러 차례 갚아 주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제 집안이 본디 재산을 일군 밑바탕이던 상인 노릇을 그만두고, 삶의 뒷자락에는 그 재산에서 남은 것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나라의 세입을 제 신분에 더 걸맞은 사업과 비용에 쓰는 편이 편하다고 여겼다.

장사꾼의 됨됨이와 주권자의 됨됨이만큼 서로 어긋나 보이는 것도 없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장사꾼 기질이 그들을 아주 못난 주권자로 만들었다면, 주권자의 기질은 그들을 그에 못지않게 못난 장사꾼으로 만든 듯하다. 장사꾼이기만 하였을 때 그들은 제 장사를 잘 꾸려 갔고 그 이윤에서 제 자산의 임자들에게 알맞은 배당을 치를 수 있었다. 처음에는 3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었다고 하는 세입을 거느린 주권자가 된 뒤로,[5] 그들은 당장의 파산을 면하려고 정부의 예사로운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의 처지에서 인도에 있던 그들의 고용인들은 스스로를 상인의 서기로 여겼으나, 지금의 처지에서 그 고용인들은 스스로를 주권자의 대신으로 여긴다.

나라는 더러 자산의 이윤에서뿐 아니라 돈의 이자에서도 제 공공 세입의 얼마를 끌어내기도 한다. 재보를 쌓아 두었다면 그 재보의 얼마를 바깥 나라에나 제 신민에게 빌려 줄 수 있다.

베른 주는 제 재보의 얼마를 바깥 나라에 빌려 줌으로써, 곧 그것을 빚진 유럽 여러 나라의 공채, 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채에 넣어 둠으로써 꽤 많은 세입을 끌어낸다. 이 세입이 얼마나 든든한가는 첫째로 그것을 넣어 둔 공채가 얼마나 든든한가에, 곧 그것을 맡아 다루는 정부가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가에 달려 있고, 둘째로 빚진 나라와 평화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거나 그럴듯한가에 달려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빚진 나라가 맨 처음 저지를 적대 행위가 제 신용으로 얻은 자금을 몰수하는 일일 수도 있다. 바깥 나라에 돈을 빌려 주는 이 방책은 내가 아는 한 베른 주에만 있는 것이다.

함부르크시는(『조세 보고서』 제1권 73쪽을 보라) 일종의 공영 전당포를 세워 나라의 신민에게 담보를 잡고 6퍼센트 이자로 돈을 빌려 준다. 롬바르드라고도 불리는 이 전당포는 나라에 15만 크라운의 세입을 안겨 준다고들 하는데, 크라운당 4실링 6펜스로 치면 33,750파운드 스털링에 이른다.[6]

펜실베이니아 정부는 재보를 조금도 쌓아 두지 않고도 신민에게 돈이 아니라 돈과 맞먹는 것을 빌려 주는 길을 생각해 냈다. 사사로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값어치의 두 곱에 이르는 토지를 담보로 잡고, 발행한 날로부터 열다섯 해 뒤에 되갚기로 한 신용 지폐를 미리 내어 주되, 그동안에는 은행권처럼 손에서 손으로 넘길 수 있게 하고 의회의 법으로 그 지방 주민 사이의 온갖 치름에서 법정 통화가 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정부는 알맞은 세입을 거두었고, 그것은 그 검소하고 질서 있는 정부의 예사로운 비용 전부인 해마다 4,500파운드쯤의 비용을 치르는 데에 적잖이 보탬이 되었다. 이런 방편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정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금화와 은화 말고 상업의 다른 연장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는 제 금화와 은화의 큰 몫을 바깥에 내보내 사 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비할 자산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고, 둘째는 이 방편을 쓴 정부의 신용이 좋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셋째는 그것을 얼마나 삼가서 썼는가, 곧 신용 지폐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그 돌림을 이어 가는 데에 필요하였을 금화와 은화의 값어치를 신용 지폐를 죄다 합한 값어치가 결코 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같은 방편을 다른 여러 아메리카 식민지도 이런저런 때에 받아들였으나, 이렇게 삼가지 않은 탓에 그 가운데 거의 모두에서 편리함보다 어지러움을 훨씬 많이 낳았다.

그러나 자산과 신용은 그 성질이 흔들리기 쉽고 스러지기 쉬워서, 정부에 든든함과 위엄을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인 저 확실하고 한결같고

오래가는 세입의 으뜸 기금으로 믿고 맡기기에 알맞지 않다. 목축 상태를 지나 나아간 큰 나라의 정부 가운데 제 공공 세입의 큰 몫을 그런 원천에서 끌어낸 적이 있는 정부는 없는 듯하다.

토지는 성질이 더 굳건하고 더 오래가는 기금이다. 그리하여 공유지의 지대는 목축 상태를 훨씬 지나 나아간 여러 큰 나라에서 공공 세입의 으뜸 원천이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은 오랫동안 나라의 필요한 비용을 치르던 세입의 큰 몫을 공유지의 생산물이나 지대에서 끌어냈다. 왕령지의 지대는 오랫동안 옛 유럽 주권자들의 세입에서 큰 몫을 이루었다.

전쟁과 전쟁 채비는 오늘날 모든 큰 나라가 치러야 하는 필요한 비용의 큰 몫을 생기게 하는 두 가지 사정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공화국에서는 시민이 모두 군인이었고, 군무를 서는 것도 군무를 설 채비를 하는 것도 제 비용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사정 가운데 어느 것도 나라에 그리 많은 비용을 생기게 할 수 없었다. 아주 알맞은 크기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만으로도 정부의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죄다 치르기에 넉넉하였을 것이다.

옛 유럽의 군주국에서는 그때의 몸가짐과 버릇이 백성의 큰 무리를 전쟁에 넉넉히 길들여 놓았고, 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봉건적 토지 보유의 조건에 따라 제 비용으로나 제 바로 위 영주의 비용으로 건사되었으므로 주권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정부의 그 밖의 비용은 거의 모두 아주 알맞은 것이었다. 사법 행정은 앞에서 보였듯이 비용이 생기는 까닭이기는커녕 세입의 원천이었다. 시골 사람들이 추수 앞뒤로 사흘씩 바치는 노동은 그 나라의 상업이 요구한다고 여겨지던 온갖 다리와 큰길과 그 밖의 공공사업을 만들고 건사하기에 넉넉한 기금으로 여겨졌다. 그 시절 주권자의 으뜸가는 비용은 제 집안과 세간을 건사하는 데에 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

집안의 관리가 그때에는 나라의 큰 벼슬아치였다. 재무경이 그의 지대를 받았다. 가령과 시종장이 그 집안의 비용을 살폈다. 마구간을 돌보는 일은 궁내 대신과 의전관에게 맡겨졌다. 그의 집은 죄다 성채의 꼴로 지어졌고 그가 가진 으뜸가는 요새였던 듯하다. 그 집이나 성채를 지키는 이들은 일종의 군정관으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에 건사해야 하였던 하나뿐인 무관이었던 듯하다. 이런 사정에서라면 큰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가 예사로운 경우에 정부의 필요한 비용을 죄다 아주 잘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문명화된 유럽 군주국의 거의 모두가 처한 형편에서, 나라 안의 온 토지가 만일 다 한 임자에게 속해 있다면 그 토지에서 나왔음직한 지대를 죄다 모아도 아마 평화로울 때조차 그 나라들이 백성에게 거두는 예사로운 세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의 예사로운 세입은 그해에 드는 비용을 치르는 데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공채의 이자를 치르고 그 빚의 원금 얼마를 갚아 나가는 데에 필요한 것까지 넣어 해마다 1,000만 파운드를 웃돈다. 그러나 1파운드에 4실링으로 걷는 토지세는 해마다 2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토지세라 불리기는 하나 이 세금은 온 토지의 지대뿐 아니라 온 집의 지대와 영국의 온 자본에서 나오는 이자의 5분의 1로 잡혀 있고, 그 가운데 나라에 빌려 준 몫과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 농업 자산으로 쓰이는 몫만 빠진다. 이 세금에서 나오는 것의 아주 큰 몫은 집의 지대와 자본의 이자에서 나온다. 이를테면 런던시의 토지세는 1파운드에 4실링으로 쳐서 123,399파운드 6실링 7펜스에 이르고, 웨스트민스터시의 것은 63,092파운드 1실링 5펜스에, 화이트홀과 세인트제임스 궁전의 것은 30,754파운드 6실링 3펜스에 이른다. 토지세의 일정한 몫은 같은 꼴로 왕국 안의 다른 온갖 도시와 자치읍에도 매겨지는데, 그것은 거의 죄다 집의 지대에서나 장사 자본과 그

밖의 자본의 이자로 여겨지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영국이 토지세를 매기는 데에 쓰는 평가에 따르면, 온 토지의 지대와 온 집의 지대와 온 자본의 이자에서 나오는 세입을 죄다 합한 것은, 그 가운데 나라에 빌려 준 몫과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 쓰이는 몫만 빼면, 평화로울 때조차 정부가 백성에게 거두는 예사로운 세입인 해마다 1,000만 파운드 스털링을 넘지 않는다. 영국이 토지세를 매기는 데에 쓰는 평가는 왕국 전체를 고르게 놓고 보면 의심할 것 없이 참값에 훨씬 못 미치나, 몇몇 주와 지역에서는 그 값에 거의 맞먹는다고들 한다. 집의 지대와 자산의 이자를 뺀 토지만의 지대를 많은 사람이 2,000만 파운드로 잡아 왔는데, 이는 거의 어림으로 한 셈이어서 참값보다 높을 성싶기도 하고 낮을 성싶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경작된 상태의 영국 토지가 해마다 2,000만 파운드 넘는 지대를 내지 못한다면, 그 토지가 다 한 임자에게 속하여 그의 지배인과 대리인이 무심하고 돈 들고 억누르는 손길로 다루었더라면 그 지대의 절반도, 아니 십중팔구 4분의 1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국의 왕령지는 오늘날 그것이 사사로운 사람의 재산이었더라면 아마 끌어낼 수 있었을 지대의 4분의 1도 내지 못한다. 왕령지가 더 넓었더라면 아마 더 못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다.

백성의 큰 무리가 토지에서 얻는 수입은 그 토지의 지대가 아니라 생산물에 비례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토지가 해마다 내는 생산물은 씨앗으로 남겨 두는 것을 빼면 죄다 백성의 큰 무리가 해마다 소비하거나 그들이 소비하는 다른 무엇과 맞바꾸어진다. 토지의 생산물을 그러지 않았더라면 올랐을 자리보다 낮게 눌러 두는 것은 무엇이든 백성의 큰 무리의 수입을 토지 임자의 수입보다 더욱 낮게 눌러 둔다. 토지의 지대, 곧 생산물 가운데 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영국 어디서도 생산물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어떤 경작 상태에서 해마다 1,000만 파운드 스털링의 수입을 내는 토지가

다른 경작 상태에서라면 2,000만 파운드의 지대를 낼 터인데 지대가 두 경우 다 생산물의 3분의 1이라고 치면, 임자의 수입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것보다 해마다 1,000만 파운드만 적을 뿐이지만, 백성의 큰 무리의 수입은 씨앗에 드는 것만 빼고 해마다 3,000만 파운드나 적을 것이다. 그 나라의 인구는, 씨앗으로 갈 몫을 언제나 빼고 나서 해마다 3,000만 파운드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수만큼, 곧 그 나머지가 나뉘어 돌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저마다의 살림살이와 씀씀이에 따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수만큼 적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는 제 공공 세입의 큰 몫을 나라의 재산인 토지의 지대에서 끌어내는 문명화된 나라가 어떤 갈래로도 하나 없으나, 유럽의 큰 군주국에는 모두 아직도 왕실에 속한 넓은 땅뙈기가 많이 있다. 그것은 대개 숲인데, 더러는 여러 마일을 걸어도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숲이니, 생산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그저 버려지고 잃어버린 땅이다. 유럽의 큰 군주국마다 왕령지를 팔면 아주 큰돈이 생길 터이고, 그것을 공채를 갚는 데에 쓴다면 그 토지가 왕실에 여태 내어 준 어떤 세입보다도 훨씬 큰 세입을 저당에서 풀어 줄 것이다. 아주 높이 개량되고 경작되어 팔 때에 그 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지대를 내는 토지가 흔히 서른 해치 지대에 팔리는 나라라면, 개량되지도 경작되지도 않아 지대가 낮은 왕령지는 마흔 해치나 쉰 해치나 예순 해치 지대에 팔리리라고 넉넉히 내다볼 만하다. 왕실은 이 큰 값이 저당에서 풀어 줄 세입을 곧바로 누릴 수 있을 터이고, 몇 해 안에는 아마 또 다른 세입까지 누리게 된다. 왕령지가 사사로운 재산이 되고 나면 몇 해 안에 잘 개량되고 잘 경작될 것이다. 그 생산물이 늘면 백성의 수입과 소비가 불어나 나라의 인구가 늘 것이다. 그런데 왕실이

관세와 소비세에서 얻는 세입은 백성의 수입과 소비가 느는 대로 반드시 늘 것이다.

문명화된 군주국에서 왕실이 왕령지에서 끌어내는 세입은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 듯이 보이나, 실은 왕실이 누리는 그만한 크기의 다른 어떤 세입보다도 사회에 더 많은 것을 물린다. 이 세입을 그만한 크기의 다른 세입으로 왕실에 갈음해 주고 그 토지를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느 경우에나 사회의 이익에 맞을 터인데, 그리하는 데에는 아마 그것을 공매에 부치는 것보다 나은 길이 없을 것이다.

놀이와 화려함을 위한 토지, 곧 공원과 뜰과 공공 산책로 따위, 어디서나 세입의 원천이 아니라 비용이 나가는 까닭으로 여겨지는 소유물만이 크고 문명화된 군주국에서 왕실에 속해야 할 유일한 토지인 듯하다.

그러므로 주권자 곧 국가에 남달리 속할 수 있는 두 세입의 원천인 공공 자산과 공유지가 둘 다 크고 문명화된 나라의 필요한 비용을 치를 기금으로 알맞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으니, 이 비용은 그 큰 몫을 이런저런 세금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곧 백성이 제 사사로운 수입의 한 몫을 내어 주권자 곧 국가에 공공 세입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2절 — 세금에 대하여

이 탐구의 제1편에서 보였듯이 개인의 사사로운 수입은 마침내 세 가지 서로 다른 원천, 곧 지대와 이윤과 임금에서 나온다. 모든 세금은 끝내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입의 원천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치러지거나 그 셋에서 가리지 않고 치러질 수밖에 없다. 나는 첫째로 지대에 떨어지도록 매겨진 세금을, 둘째로 이윤에 떨어지도록 매겨진 세금을, 셋째로 임금에 떨어지도록 매겨진 세금을, 넷째로 사사로운 수입의 그 세 가지 원천에 가리지 않고 떨어지도록 매겨진 세금을 내 힘껏 잘 풀어

보려 한다.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금을 따로따로 살피면서 이 장의 둘째 절을 네 항으로 나누겠는데, 그 가운데 셋은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아래의 살핌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세금 가운데 많은 것은 떨어지도록 매겨진 그 기금 곧 수입의 원천에서 끝내 치러지지 않는다.

낱낱의 세금을 살피기에 앞서 세금 일반에 관하여 다음 네 가지 격률을 미리 말해 두어야겠다.

1. 어느 나라에서나 신민은 저마다의 능력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비례하여, 곧 저마다 나라의 보호 아래 누리는 수입에 비례하여 정부를 떠받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큰 나라의 개인에게 정부의 비용이란 큰 토지를 함께 가진 이들에게 그 관리 비용과 같은 것이니, 그들은 모두 그 토지에 대한 저마다의 몫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 이 격률을 지키느냐 저버리느냐에 이른바 과세의 평등과 불평등이 걸려 있다. 미리 한 번 말해 두거니와, 앞서 말한 세 가지 수입 가운데 오직 하나에만 끝내 떨어지는 세금은 나머지 둘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반드시 고르지 못하다. 아래에서 여러 세금을 살피면서 나는 이런 갈래의 불평등은 그다지 더 다루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에 어떤 세금이 그것이 건드리는 특정한 갈래의 사사로운 수입에 고르지 못하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불평등에만 살핌을 그치려 한다.

2. 개인이 저마다 치러야 하는 세금은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고 확실해야 한다. 치르는 때도, 치르는 절차도, 치러야 할 양도 죄다 내는 사람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또렷하고 뚜렷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금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얼마쯤 세리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니, 세리는 밉살스러운 납세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도 있고 그렇게 무겁게 매기겠다는 으름장으로 제 몫의 선물이나 사례를 뜯어낼 수도 있다. 과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건방지지도 썩지도 않은 곳에서조차

저절로 미움을 받는 무리의 건방짐을 북돋우고 그 썩음을 부추기게 된다. 개인이 저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확실한 것은 과세에서 몹시 중요하여, 모든 나라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듯이 아주 큰 정도의 불평등조차 아주 작은 정도의 불확실함만큼 큰 악은 아니다.

3. 모든 세금은 내는 사람이 치르기에 가장 편할 성싶은 때에, 또는 가장 편할 성싶은 절차로 걷어야 한다. 토지나 집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을 그 지대를 흔히 치르는 바로 그 기한에 내게 하면, 내는 사람이 치르기에 가장 편할 성싶은 때, 곧 치를 밑천을 지니고 있을 성싶은 때에 걷는 셈이다. 사치품 같은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은 죄다 끝내 소비자가 치르는데 대개 그에게 아주 편한 절차로 치러진다. 그는 그 물건을 살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치른다. 게다가 그는 제 마음대로 사도 되고 사지 않아도 되므로, 그런 세금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제 탓일 수밖에 없다.

4. 모든 세금은 나라의 국고에 들어오는 것 말고는 백성의 주머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꺼내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묶어 두도록 짜야 한다. 세금은 다음 네 가지 길로 국고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백성의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묶어 둘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을 걷는 데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여 그 봉급이 세금에서 나오는 것의 큰 몫을 먹어 치우고 그들이 챙기는 사례가 백성에게 또 하나의 세금을 지울 수 있다. 둘째로 그것이 백성의 근면을 가로막아 큰 무리를 먹여 살리고 부릴 수 있었을 어떤 장사의 갈래에 손대지 못하게 주눅 들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백성에게 치르라고 하면서 치르기를 더 쉽게 해 주었을 기금의 얼마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리기도 한다. 셋째로 세금을 피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불운한 사람들이 물게 되는 몰수와 그 밖의 벌로 그들을 자주 망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자본이 쓰였더라면 사회가 받았을 이익에 끝을 낼 수 있다. 분별없는 세금은 밀수에 큰 꼬임을

내민다. 그런데 밀수에 대한 벌은 그 꼬임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다. 법은 정의의 온갖 예사로운 원리에 어긋나게도 먼저 꼬임을 만들어 놓고 그 꼬임에 넘어간 이들을 벌하며, 게다가 마땅히 벌을 덜어 주어야 할 바로 그 사정, 곧 죄를 짓도록 이끈 꼬임의 크기에 비례하여 흔히 벌을 더 무겁게 한다(『인류사 소묘』 474, 그리고 그 뒤를 보라).[7] 넷째로 세리가 자주 찾아와 밉살스럽게 뒤지게 하여 백성을 쓸데없는 성가심과 괴로움과 억눌림에 내맡길 수 있으니, 괴로움이 엄밀히 말해 비용은 아니라 해도 사람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기꺼이 치를 비용과 맞먹는 것임은 틀림없다. 세금이 주권자에게 이로운 것보다 백성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까닭은 흔히 이 네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있다.

앞서 말한 격률들의 뚜렷한 올바름과 쓸모는 모든 나라의 눈길을 얼마쯤 끌어 왔다. 모든 나라는 제 판단이 닿는 데까지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고르게, 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치르는 때로 보나 치르는 절차로 보나 내는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그리고 군주에게 가져다주는 세입에 견주어 백성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만들려고 애써 왔다.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으뜸가는 세금 몇 가지를 아래에서 짧게 살피면, 그 애씀이 이 점에서 다 같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이 드러날 것이다.

제1항 — 지대에 물리는 세금 ·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은 일정한 준칙에 따라, 곧 지역마다 일정한 지대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뒤에 고치지 않기로 하고 매길 수도 있고, 토지의 실제 지대가 달라질 때마다 따라 달라지고 그 경작이 나아지거나 물러남에 따라 오르내리도록 매길 수도 있다.

영국의 토지세처럼 바뀌지 않는 일정한 준칙에 따라 지역마다 매기는 토지세는 처음 세울 때에는 고르다 하더라도, 나라의 여러 곳에서

경작이 나아지거나 버려지는 정도가 서로 다름에 따라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고르지 못하게 된다. 잉글랜드에서 윌리엄과 메리 치세 4년의 법으로 여러 주와 교구에 토지세를 매기던 그 평가는 처음 세울 때에조차 몹시 고르지 못하였다.[8] 그러므로 이 세금은 그런 한에서 앞서 말한 네 격률 가운데 첫째 것을 거스른다. 나머지 셋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들어맞는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세금을 치르는 때가 지대를 치르는 때와 같으므로 내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하다. 어느 경우에나 참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주이지만, 세금은 흔히 차지인이 먼저 치르고 지주는 지대를 받을 때에 그만큼 덜어 주어야 한다. 이 세금은 그만한 세입을 내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관리로 걷힌다. 지역마다 매긴 세금이 지대가 오른다고 따라 오르지는 않으므로, 주권자는 지주가 개량하여 얻는 이윤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 그런 개량은 참으로 더러 그 지역의 다른 지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어떤 토지에 세금이 더러 무거워진다 하여도 그 무거워짐이 언제나 아주 작아서, 그 개량을 주눅 들게 하거나 토지의 생산물을 그러지 않았더라면 올랐을 자리보다 낮게 눌러 둘 수는 결코 없다. 그것이 생산물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기울지 않으므로 그 값을 올리는 쪽으로도 기울 수 없다. 그것은 백성의 근면을 가로막지 않으며, 세금을 치른다는 피할 수 없는 불편 말고는 지주에게 다른 불편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의 온 토지에 토지세를 매기는 저 평가가 바뀌지 않고 한결같은 데에서 지주가 얻어 온 이득은 주로 그 세금의 성질과는 아주 동떨어진 몇 가지 사정 덕분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나라의 거의 모든 곳이 크게 번성한 덕분이었으니, 이 평가가 처음 세워진 때로부터 영국의 거의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끊임없이 올랐고 내린 데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지주들은 제 토지의 오늘날 지대에 따라 치렀어야 할 세금과 옛 평가에 따라 실제로 치르는

세금의 차이를 거의 다 벌어들였다. 나라의 형편이 달랐더라면, 경작이 물러나면서 지대가 차츰 내렸더라면, 지주들은 거의 다 그 차이를 잃었을 것이다. 혁명 뒤로 실제로 일어난 일의 형편에서는 평가가 한결같은 것이 지주에게 이롭고 주권자에게 해로웠다.[9] 형편이 달랐더라면 그것이 주권자에게 이롭고 지주에게 해로웠을 수도 있다.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하듯이 토지의 평가도 돈으로 적는다. 이 평가가 세워진 뒤로 은의 가치는 꽤 한결같았고 주화의 무게나 순도에서 기준이 달라진 적도 없다. 아메리카의 광산이 발견되기 앞선 두 세기 동안 그리하였던 듯이 은이 그 가치에서 크게 올랐더라면, 평가가 한결같은 것이 지주에게 몹시 무겁게 눌렸을 것이다. 그 광산이 발견된 뒤 적어도 한 세기 동안 틀림없이 그리하였듯이 은이 그 가치에서 크게 내렸더라면, 그 한결같은 평가가 주권자의 이 세입 갈래를 크게 줄여 놓았을 것이다. 돈의 기준에 큰 변화가 있었더라면, 곧 같은 양의 은을 더 낮은 이름으로 내리거나 더 높은 이름으로 올렸더라면, 이를테면 은 1온스를 5실링 2펜스로 주조하는 대신 2실링 7펜스라는 낮은 이름을 지닌 조각으로 주조하거나 10실링 4펜스라는 높은 이름을 지닌 조각으로 주조하였더라면, 앞의 경우에는 임자의 수입이 상하고 뒤의 경우에는 주권자의 세입이 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일어난 것과는 얼마쯤 다른 사정에서라면 이 한결같은 평가가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나 나라에게 아주 큰 불편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런 사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제국도 사람이 만든 다른 온갖 것과 마찬가지로 여태 다 죽고 말았지만, 그래도 제국마다 죽지 않기를 꾀한다. 그러므로 제국 자체만큼 오래가기를 바라는 모든 제도는 어떤 사정에서만이 아니라 온갖 사정에서 편해야 하고, 스쳐 가고 어쩌다 생기고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반드시 있고 그러므로 언제나 한결같은 사정에 맞아야 한다.

지대가 달라질 때마다 따라 달라지거나 경작이 나아지고 버려짐에 따라 오르내리는,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은 스스로를 에코노미스트라 부르는 프랑스의 저 문인 무리가 온갖 세금 가운데 가장 공평하다고 내세우는 것이다.[10] 그들이 우겨 말하기로는 모든 세금이 끝내 토지의 지대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세금은 그것을 끝내 치러야 하는 기금에 고르게 매겨야 한다고 한다. 모든 세금이 그것을 끝내 치러야 하는 기금에 될 수 있는 대로 고르게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옳다. 그러나 그들이 제 몹시 재치 있는 이론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형이상학적 논변을 달갑지 않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어떤 세금이 끝내 토지의 지대에 떨어지고 어떤 세금이 끝내 다른 기금에 떨어지는지는 아래의 살핌에서 넉넉히 드러날 것이다.

베네치아 땅에서는 농부에게 빌려 주는 모든 경작지가 지대의 10분의 1로 과세된다(『조세 보고서』 240, 241쪽). 그 빌려 준 계약은 주와 지역마다 세무 관리가 지키는 공공 장부에 적힌다. 임자가 제 토지를 스스로 갈고 가꿀 때에는 그 토지를 공평한 셈으로 평가하고 세금의 5분의 1을 깎아 주니, 그런 토지에 대하여 그는 매겨진 지대의 10퍼센트가 아니라 8퍼센트만 치른다.

이런 갈래의 토지세는 잉글랜드의 토지세보다 틀림없이 더 고르다. 그것은 아마 그만큼 확실하지는 못할 터이고, 세금을 매기는 일이 자주 지주에게 훨씬 많은 번거로움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또 걷는 데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함을 크게 막고 이 비용을 줄일 행정의 짜임을 아마 궁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주와 차지인이 함께 제 계약을 공공 장부에 적도록 할 수 있다. 계약의 조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알맞은 벌을 내리도록 법을 만들 수 있고, 그 벌의 얼마를 상대방의

감춤이나 거짓을 일러바쳐 밝혀낸 두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게 준다면, 그들이 한통속이 되어 공공 세입을 속이는 일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의 온갖 조건은 그런 기록으로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주들은 지대를 올리는 대신 계약을 새로 맺어 주는 값으로 목돈을 받는다. 이 버릇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낭비꾼이 쓰는 방편이니, 그는 당장의 현금을 받고 훨씬 값진 뒷날의 수입을 파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지주에게 해롭고, 자주 차지인에게 해로우며, 언제나 사회 전체에 해롭다. 그것은 자주 차지인에게서 그 자본의 아주 큰 몫을 빼앗아 토지를 갈고 가꿀 힘을 그만큼 줄이므로, 그는 적은 지대를 치르기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많은 지대를 치르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그가 갈고 가꿀 힘을 줄이는 것은 무엇이든 사회의 수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을 그러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자리보다 반드시 낮게 눌러 둔다. 그런 목돈에 물리는 세금을 예사로운 지대에 물리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한다면, 지주로 보나 차지인으로 보나 주권자로 보나 사회 전체로 보나 적잖이 이롭게도 이 해로운 버릇을 주눅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계약은 차지인에게 계약이 이어지는 내내 일정한 경작의 길과 일정한 돌려짓기를 따르도록 정해 놓는다. 대개 제 앎이 남보다 낫다는 지주의 우쭐함에서 나오는(거의 모든 경우에 근거가 아주 엷은 우쭐함이다) 이 조건은 언제나 얹혀 붙은 지대로, 곧 돈으로 내는 지대가 아니라 부역으로 내는 지대로 보아야 한다. 대개 어리석은 이 버릇을 주눅 들게 하려면 이런 갈래의 지대를 좀 높게 평가하고 따라서 예사로운 돈 지대보다 얼마쯤 무겁게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주들은 돈으로 내는 지대 대신 곡물이나 가축이나 가금이나 포도주나 기름 따위 현물로 내는 지대를 요구하고, 또 어떤 지주들은 부역으로 내는 지대를 요구한다. 그런 지대는 언제나 지주에게 이로운

것보다 차지인에게 더 해롭다. 그것은 뒤엣사람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엣사람의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묶어 둔다. 그런 지대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이 있는 정도에 거의 그대로 맞추어 차지인이 가난하고 궁색하다. 그런 지대도 같은 꼴로 좀 높게 평가하고 따라서 예사로운 돈 지대보다 얼마쯤 무겁게 과세한다면, 사회 전체에 해로운 이 버릇을 아마 넉넉히 주눅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가 제 토지의 얼마를 스스로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이웃의 농부와 지주들의 공평한 중재로 그 지대를 평가하고, 그가 부치는 토지의 지대가 일정한 액수를 넘지 않는 한 베네치아 땅에서와 같이 세금을 알맞게 깎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주가 제 토지의 얼마를 손수 갈고 가꾸도록 북돋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의 자본은 대개 차지인의 자본보다 크므로, 솜씨가 덜하더라도 자주 더 많은 생산물을 길러 낼 수 있다. 지주는 시험을 해 볼 여유가 있고 대개 해 보려는 마음도 있다. 그의 실패한 시험은 그 자신에게 알맞은 손해만 끼친다. 그의 성공한 시험은 온 나라의 개량과 더 나은 경작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 주어 그가 일정한 넓이까지만 갈고 가꾸도록 북돋우는 것 또한 중요할 터이다. 지주들이 거의 다 제 토지를 통째로 손수 부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제 자본과 솜씨가 허락하는 데까지 잘 갈고 가꾸는 것이 제 이익에 매여 있는 착실하고 부지런한 차지인 대신에, 그 나라는 게으르고 방탕한 관리인으로 가득 차 그들의 함부로 하는 손길이 머잖아 경작을 떨어뜨리고 토지가 해마다 내는 생산물을 줄여, 제 주인의 수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수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까지 줄여 놓을 것이다.

이런 행정의 짜임이라면 아마 이런 갈래의 세금에서 내는 사람에게 억눌림이나 불편을 끼칠 불확실함을 죄다 걷어 낼 수 있을 터이고, 그와

함께 토지를 두루 다루는 데에 온 나라의 개량과 좋은 경작에 적잖이 이바지할 방책을 들여놓는 데에도 보탬이 된다.

지대가 달라질 때마다 따라 달라지는 토지세를 걷는 비용은 의심할 것 없이 언제나 고정된 평가에 따라 매기는 토지세를 걷는 비용보다 얼마쯤 클 것이다. 나라의 여러 지역에 세워 두어야 할 여러 등기소에서도, 임자가 스스로 부치기로 한 토지를 이따금 다시 평가하는 데에서도 반드시 얼마간의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에 드는 비용은 아주 알맞을 터이고, 이런 갈래의 세금에서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에 견주면 아주 보잘것없는 세입밖에 내지 못하는 다른 많은 세금을 걷는 데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갈래의 달라지는 토지세가 토지의 개량을 주눅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에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론인 듯하다. 비용은 한 푼도 대지 않은 주권자가 개량으로 얻는 이윤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지주는 틀림없이 개량할 마음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조차 아마 이렇게 비켜 갈 수 있을 터이니, 지주가 개량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무 관리와 함께, 양쪽이 똑같이 고른 이웃의 지주와 농부 몇 사람의 공평한 중재에 따라 제 토지의 실제 값어치를 정해 두게 하고, 그 평가에 따라 그가 온전히 본전을 뽑기에 넉넉할 만한 햇수 동안 세금을 매기면 된다. 주권자가 제 세입이 느는 것을 헤아려 토지의 개량에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이런 갈래의 토지세가 내세우는 으뜸가는 이점의 하나다. 그러므로 지주가 본전을 뽑도록 허락하는 기한은 그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크게 길어서는 안 되니, 이익이 너무 멀어지면 그 눈길을 지나치게 주눅 들게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어느 모로든 너무 짧기보다는 차라리 얼마쯤 너무 긴 편이 낫다. 주권자의 눈길을 아무리 부추긴들 지주의 눈길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눅 들게 하는 것을 결코 메울 수 없다. 주권자의 눈길이란 기껏해야 제 영토의 큰 몫을 더 낫게

경작하는 데에 무엇이 이바지할 성싶은가를 아주 두루뭉술하고 어렴풋이 헤아리는 것이다. 지주의 눈길은 제 토지 한 치 한 치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이로울 성싶은가를 하나하나 세세히 헤아리는 것이다. 주권자의 으뜸가는 눈길은 지주와 농부 양쪽이 저마다 제 이익을 제 나름의 길로 제 판단에 따라 좇도록 내버려 두고, 양쪽에게 제 근면이 낸 보답을 온전히 누리리라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보장을 주며, 제 영토 구석구석을 잇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물길과 뭍길을 내고 또 다른 모든 군주의 영토로 더할 나위 없이 거리낌 없이 수출할 자유를 마련하여 양쪽에게 제 생산물 하나하나를 팔 가장 넓은 시장을 얻어 주는 데에, 곧 제 힘이 닿는 온갖 길로 양쪽의 눈길을 북돋우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런 행정의 짜임으로 이런 갈래의 세금을 잘 다루어 토지의 개량을 주눅 들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얼마쯤 북돋울 수 있다면, 그것이 세금을 치른다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불편 말고 다른 불편을 지주에게 끼칠 성싶지는 않다. 사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든, 농업이 나아지든 물러나든, 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든, 주화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든, 이런 갈래의 세금은 저절로, 정부가 아무 눈길도 주지 않는데도 일이 실제로 놓인 형편에 알맞게 제 몸을 맞출 터이고, 그 온갖 다른 변화 속에서 한결같이 옳고 공평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일정한 평가에 따라 걷는 어떤 세금보다도 오래가고 고칠 수 없는 규정으로, 곧 이른바 나라의 근본법으로 세우기에 훨씬 알맞다.

어떤 나라들은 계약을 등기하는 간단하고 뻔한 방편 대신에 나라 안 온 토지를 실제로 측량하고 평가하는 힘겹고 돈 드는 방편에 기대었다. 그들은 아마 빌려 주는 이와 빌리는 이가 공공 세입을 속이려고 한통속이 되어 계약의 참된 조건을 감출지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이다.

토지 대장인 『둠즈데이 북』은 이런 갈래의 아주 꼼꼼한 측량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11]

프로이센 국왕의 옛 영토에서 토지세는 실제 측량과 평가에 따라 매겨지고 그 측량과 평가는 때때로 다시 살펴 고쳐진다(『조세 보고서』 제1권 114, 115, 116, 그 밖의 여러 쪽). 그 평가에 따라 속인 임자는 제 수입의 20에서 25퍼센트를 치르고 성직자는 40에서 45퍼센트를 치른다. 실레지아의 측량과 평가는 지금 국왕의 명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평가에 따라 브레슬라우 주교에게 속한 토지는 그 지대의 25퍼센트로 과세된다. 두 종교의 성직자가 얻는 그 밖의 수입은 50퍼센트로 과세된다. 튜턴 기사단과 몰타 기사단의 관구는 40퍼센트로 과세된다. 귀족 보유지는 38과 3분의 1퍼센트로, 평민 보유지는 35와 3분의 1퍼센트로 과세된다.[12]

보헤미아의 측량과 평가는 백 년 넘게 걸린 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1748년의 평화 조약 뒤에야 지금 여제 겸 여왕의 명으로 마무리되었다(같은 책 제1권 85, 84쪽).[13] 카를 6세 때에 시작된 밀라노 공국의 측량은 1760년 뒤에야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여태 이루어진 측량 가운데 가장 꼼꼼한 것의 하나로 꼽힌다. 사부아와 피에몬테의 측량은 얼마 전 사르데냐 국왕의 명으로 이루어졌다(같은 책 280쪽 등, 또 287쪽 등에서 316쪽까지).

프로이센 국왕의 영토에서 교회의 수입은 속인 임자의 수입보다 훨씬 무겁게 과세된다. 교회의 수입은 그 큰 몫이 토지의 지대에 지우는 짐이다. 그 가운데 어느 몫이 토지의 개량에 쓰이거나 백성의 큰 무리의 수입을 늘리는 데에 어떤 모로든 이바지하도록 쓰이는 일은 드물다. 프로이센 국왕은 아마 그런 까닭에서 그것이 나라의 급한 일을 덜어 주는 데에 훨씬 많이 이바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의 토지가 온갖 세금에서 면제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다른 토지보다 가볍게 과세된다. 밀라노 공국에서 교회가 1575년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는 그 값어치의 3분의 1로만 과세된다.

실레지아에서 귀족 보유지는 평민 보유지보다 3퍼센트 무겁게 과세된다. 프로이센 국왕은 아마 앞엣것에 딸린 갖가지 명예와 특권이 세금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임자에게 넉넉히 메워 주리라 여겼을 터이고, 그와 함께 뒤엣것의 사람 깎아내리는 낮음이 조금 가볍게 과세되는 것으로 얼마쯤 덜어지리라 여겼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조세의 짜임이 이 고르지 못함을 덜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키운다. 사르데냐 국왕의 영토에서, 또 이른바 실물 타유 곧 토지 타유가 매겨지는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서, 세금은 온통 평민 보유지에 떨어진다. 귀족 보유지는 면제된다.[14]

두루 측량하고 평가하여 매긴 토지세는 처음에는 아무리 고르다 하여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고르지 못하게 된다. 그리되지 않게 막으려면 나라 안 농장 하나하나의 상태와 생산물이 달라지는 것을 정부가 끊임없이 괴롭게 살펴야 한다. 프로이센과 보헤미아와 사르데냐와 밀라노 공국의 정부는 실제로 이런 살핌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의 성질에 너무나 걸맞지 않아 오래갈 성싶지 않고, 그것이 이어진다 하여도 길게 보면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덜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낳을 것이다.

1666년에 몽토방의 제네랄리테는 아주 정확한 측량과 평가에 따라 실물 타유 곧 토지 타유가 매겨졌다고 한다(『조세 보고서』 제2권 139, 그 밖의 여러 쪽). 1727년에 이르러 이 과세는 아주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불편을 고치려고 정부가 찾아낸 것은 제네랄리테 전체에 12만 리브르의 세금을 더 물리는 것보다 나은 방편이 없었다. 이 더 물리는 세금은 옛 과세에 따라 타유가 매겨지는 모든 지역에 매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일이 실제로 놓인 형편에서 그 과세로 세금을 적게 무는 지역에서만 걷어, 같은 과세로 세금을 많이 무는 지역을 덜어 주는 데에 쓰인다. 이를테면 일이 실제로 놓인 형편에서 하나는 900리브르로, 다른 하나는 1,100리브르로 과세되어야 할 두 지역이 옛 과세로는 둘 다 1,000리브르로 과세된다고 하자. 이 두 지역은 더 물리는 세금으로 저마다 1,100리브르로 매겨진다. 그러나 이 더 물리는 세금은 적게 무는 지역에서만 걷어 많이 무는 지역을 덜어 주는 데에 온통 쓰이니, 그 지역은 따라서 900리브르만 치른다. 정부는 이 더 물리는 세금으로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고, 그것은 옛 과세에서 생긴 고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데에 온통 쓰인다. 그 쓰임은 제네랄리테 앵탕당의 재량에 거의 맡겨져 있으므로 크게 보아 제멋대로일 수밖에 없다.[15]

지대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물에 비례하는 세금

토지의 생산물에 물리는 세금은 실은 지대에 물리는 세금이니, 처음에는 농부가 먼저 치른다 하더라도 끝내는 지주가 치른다. 생산물의 일정한 몫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할 때, 농부는 이 몫의 값어치가 이 해 저 해 고르게 잡아 얼마에 이를 성싶은가를 제 힘껏 셈하고, 지주에게 치르기로 하는 지대를 그만큼 깎는다. 이런 갈래의 토지세인 교회 십일조가 이 해 저 해 고르게 잡아 얼마에 이를 성싶은가를 미리 셈해 보지 않는 농부는 없다.

십일조와 그 밖에 이런 갈래의 모든 토지세는 더할 나위 없이 고른 듯이 보이나 실은 몹시 고르지 못한 세금이니, 생산물의 일정한 몫이 형편에 따라 지대의 아주 다른 몫과 맞먹는 까닭이다. 아주 기름진 토지에서는 생산물이 어찌나 많은지 그 절반만으로도 농부가 경작에 쓴 자본을 이웃에서 농업 자산에 붙는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우기에 넉넉하다. 십일조가 없다면 그는 나머지 절반을,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나머지 절반의 값어치를 지주에게 지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빼앗긴다면 그는 지대의 5분의 1을 깎아 달라고 해야 하니, 그러지 않고서는 제 자본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되찾을 수 없다. 이 경우 지주의 지대는 온 생산물의 절반 곧 10분의 5에 이르는 대신 10분의 4에만 이를 것이다. 이와 달리 메마른 토지에서는 생산물이 더러 어찌나 적고 경작 비용이 어찌나 많이 드는지, 농부의 자본을 예사로운 이윤과 함께 메우는 데에 온 생산물의 5분의 4가 든다. 이 경우 십일조가 없다 하여도 지주의 지대는 온 생산물의 5분의 1 곧 10분의 2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농부가 생산물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치른다면 그는 지주의 지대를 그만큼 깎아 달라고 해야 하고, 그리하여 그 지대는 온 생산물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 기름진 토지의 지대에 십일조는 더러 5분의 1, 곧 1파운드에 4실링밖에 안 되는 세금일 수 있으나, 메마른 토지의 지대에 그것은 더러 절반, 곧 1파운드에 10실링이나 되는 세금일 수 있다.

십일조는 자주 지대에 몹시 고르지 못한 세금일 뿐 아니라, 언제나 지주의 개량에도 농부의 경작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비용은 한 푼도 대지 않는 교회가 그 이윤을 그토록 크게 나누어 갖는다면, 앞엣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대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개량에 감히 손대지 못하고, 뒤엣사람은 가장 값지고 대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작물을 감히 기르지 못한다. 꼭두서니라는 쓸모 있는 염료 풀의 재배는 오랫동안 십일조 탓에 네덜란드 연방에 갇혀 있었으니, 그 나라는 장로교 나라여서 이 무너뜨리는 세금에서 면제된 덕에 유럽의 나머지에 맞서 그 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누렸다. 요즈음 이 풀을 잉글랜드에서 길러 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오직 꼭두서니에 붙는 온갖 십일조를 갈음하여 1에이커에 5실링을 받도록 정한 법령이 나온 덕분이다.

유럽의 큰 몫에서 교회가 그러하듯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나라가 주로 지대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물에 비례하는 토지세로

지탱된다. 중국에서 주권자의 으뜸가는 세입은 제국 안 온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10분의 1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10분의 1은 아주 알맞게 잡혀 있어서 많은 지방에서 예사로운 생산물의 30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벵골이 영국 동인도회사의 손에 떨어지기 앞서 그곳의 이슬람 정부에 치르던 토지세 곧 토지 지대는 생산물의 5분의 1쯤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의 토지세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이런 갈래의 토지세가 주권자로 하여금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마음을 두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주권자들과 이슬람 정부 아래에 있던 벵골의 주권자들과 고대 이집트의 주권자들은 토지 생산물 하나하나에 제 영토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넓은 시장을 얻어 주어 그 양과 값어치를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려고 좋은 길과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내고 건사하는 데에 몹시 마음을 썼다고 한다. 교회의 십일조는 그토록 잘게 나뉘어 있어서 그 임자 가운데 누구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한 교구의 목사가 제 교구의 생산물이 팔릴 시장을 넓히려고 나라의 먼 곳까지 길이나 운하를 내는 일에서 셈이 맞을 리 없다. 그런 세금은 나라를 지탱하도록 매겨졌을 때에는 그 불편을 얼마쯤 맞설 만한 이점이 있다. 교회를 지탱하도록 매겨졌을 때에는 불편 말고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

토지의 생산물에 물리는 세금은 현물로 걷을 수도 있고 일정한 평가에 따라 돈으로 걷을 수도 있다.

한 교구의 목사나 제 토지에 기대어 사는 재산 적은 신사는 더러 앞엣사람은 제 십일조를, 뒤엣사람은 제 지대를 현물로 받는 데에서 얼마쯤 이로움을 볼지도 모른다. 거두어들일 양도, 거두어들일 지역도 어찌나 작은지 둘 다 제게 돌아올 것이 어떻게 거두어지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하나하나 제 눈으로 살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큰

재산가라면, 먼 지방에 있는 토지의 지대를 이렇게 받아야 할 때에 제 지배인과 대리인의 무심함으로 크게 상하고 그 속임수로는 더 크게 상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주권자가 제 세리의 함부로 함과 뜯어냄으로 입을 손해는 반드시 훨씬 클 것이다. 가장 무심한 개인의 하인도 아마 가장 꼼꼼한 군주의 하인보다 제 주인의 눈 아래 더 가까이 있을 터이니, 현물로 치러지는 공공 세입은 거두는 이들이 잘못 다루는 탓에 어찌나 많이 상하는지 백성에게서 걷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몫만이 군주의 국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공 세입 가운데 얼마는 이렇게 치러진다고 한다. 만다린과 그 밖의 세리들은 다른 어떤 돈으로 치르는 것보다 훨씬 함부로 하기 쉬운 이 치름의 버릇을 이어 가는 데에서 의심할 것 없이 제 잇속을 찾을 것이다.

토지의 생산물에 물리는 세금을 돈으로 걷을 때에는 시장 가격이 달라지는 대로 따라 달라지는 평가에 따라 걷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밀 1부셸을 시장의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나 같은 돈값으로 매기는 고정된 평가에 따라 걷을 수도 있다. 앞의 길로 걷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의 실제 생산물이 달라지는 대로, 곧 경작이 나아지거나 버려지는 대로만 달라진다. 뒤의 길로 걷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의 생산물이 달라지는 대로만이 아니라 귀금속의 가치가 달라지는 대로도, 같은 이름을 지닌 주화에 때에 따라 들어 있는 그 금속의 양이 달라지는 대로도 달라진다. 앞엣것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토지의 실제 생산물이 지닌 값어치와 같은 비를 지킨다. 뒤엣것에서 나오는 것은 때에 따라 그 값어치와 아주 다른 비를 지닐 수 있다.

토지 생산물의 일정한 몫이나 그 일정한 몫의 값 대신에 온갖 세금이나 십일조를 온전히 갈음하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치르게 되면, 그 세금은 이 경우 잉글랜드의 토지세와 꼭 같은 성질이 된다. 그것은 토지의 지대가 오른다고 오르지도 않고 내린다고 내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개량을 북돋우지도 주눅 들게 하지도 않는다. 그 밖의 온갖 십일조를 갈음하여 이른바 모두스, 곧 정해진 액수를 치르는 교구가 큰 몫인데 그곳의 십일조가 이런 갈래의 세금이다. 벵골의 이슬람 정부 때에는 생산물의 5분의 1을 현물로 치르는 대신 모두스가, 그것도 아주 알맞은 모두스가 그 나라의 지역 곧 자민다리 가운데 큰 몫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동인도회사의 고용인 가운데 몇몇은 공공 세입을 제값으로 되돌린다는 핑계로 몇몇 지방에서 이 모두스를 현물로 치르는 것과 맞바꾸었다. 그들의 손길 아래에서 이 바꿈은 경작을 주눅 들게 하기도 하고 공공 세입을 거두는 데에 함부로 할 새 기회를 주기도 할 성싶으니, 그 세입은 회사의 손에 처음 떨어졌을 때 그러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 회사의 고용인들은 아마 그 바꿈으로 잇속을 보았을 터이나, 십중팔구 제 주인과 그 나라 양쪽의 손해로 그리하였을 것이다.

집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

집의 지대는 두 몫으로 갈라 볼 수 있으니, 하나는 건물 지대라 부르는 것이 아주 알맞고 다른 하나는 흔히 터 지대라 불린다.

건물 지대는 집을 짓는 데에 들인 자본의 이자 곧 이윤이다. 집 짓는 일을 다른 일과 나란한 자리에 놓으려면 이 지대가 첫째로 그가 제 자본을 든든한 담보로 빌려 주었더라면 받았을 것과 같은 이자를 그에게 치러 주기에 넉넉해야 하고, 둘째로 그 집을 늘 고쳐 두기에,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그 집을 짓는 데에 쓴 자본을 몇 해 안에 메우기에 넉넉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 지대 곧 집 짓는 일의 예사로운 이윤은 어디서나 돈의 예사로운 이자에 따라 매겨진다. 시장 이자율이 4퍼센트인 곳에서는 터 지대를 치르고도 집 짓는 비용 전체에 대하여 6퍼센트나 6.5퍼센트를 내는 집세라면 아마 짓는 이에게 넉넉한 이윤을 줄 것이다. 시장 이자율이 5퍼센트인 곳에서는 아마 7퍼센트나

7.5퍼센트가 있어야 한다. 돈의 이자에 견주어 집 짓는 일이 어느 때든 이보다 훨씬 큰 이윤을 낸다면, 머잖아 다른 일에서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그 이윤을 제자리로 낮출 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든 이보다 훨씬 적은 이윤을 낸다면, 머잖아 다른 일이 거기서 자본을 많이 끌어가 그 이윤을 다시 올릴 것이다.

집의 온 지대 가운데 이 이치에 맞는 이윤을 내주기에 넉넉한 것을 넘는 몫은 무엇이든 저절로 터 지대로 돌아가고, 터의 임자와 건물의 임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때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앞엣사람에게 온전히 치러진다. 이 남는 지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자리의 실제 이로움이나 그렇다고 여겨지는 이로움에 치르는 값이다. 어느 큰 도시에서나 멀리 떨어져 고를 땅이 넉넉한 시골집에서 터 지대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집이 앉은 땅을 농사에 썼더라면 내었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큰 도시 가까이에 있는 시골 별장에서는 그것이 더러 훨씬 높고, 그 자리의 남다른 편리함이나 아름다움에 자주 아주 후한 값이 치러진다. 터 지대는 대개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집을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자리에서 가장 높은데, 그 바라는 마음이 장사와 볼일에서 나오든 즐거움과 사귐에서 나오든 그저 허영과 유행에서 나오든 마찬가지다.

집세에 물리는 세금을 세든 사람이 치르게 하고 집마다 온 지대에 비례하게 매긴다면, 적어도 오래도록 건물 지대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집 짓는 이가 제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할 터이고, 그러면 집을 바라는 마음이 커져 머잖아 그의 이윤이 다른 일의 이윤과 나란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세금이 온통 터 지대에 떨어지지도 않을 터이고, 얼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얼마는 터의 임자에게 떨어지도록 갈릴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집세로 해마다 60파운드까지 쓸 수 있다고 여긴다 하고, 또 1파운드에 4실링 곧 5분의 1인 세금을 사는 사람이 내도록 집세에 매긴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대가 60파운드인 집은 그에게 해마다 72파운드가 드는 셈이니, 이는 그가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12파운드 많다. 그러므로 그는 더 나쁜 집, 곧 지대가 50파운드인 집으로 만족할 터인데, 거기에 세금으로 치러야 할 10파운드를 더하면 그가 쓸 수 있다고 여기는 비용인 해마다 60파운드가 된다. 그리하여 세금을 치르려고 그는 지대가 10파운드 더 비싼 집에서 누렸을 얹힌 편리함의 얼마를 내놓는다. 내가 얼마를 내놓는다고 말한 것은, 그가 그것을 죄다 내놓아야 하는 일은 드물고 도리어 세금 덕분에 세금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것보다 해마다 50파운드로 더 나은 집을 얻게 되는 까닭이다. 이런 갈래의 세금은 이 특정한 경쟁자를 물러나게 하여 지대 60파운드짜리 집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을 줄일 수밖에 없듯이, 지대 50파운드짜리 집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도 줄일 수밖에 없고, 같은 모로 얼마 동안 경쟁이 도리어 커질 가장 낮은 지대의 집만 빼고 그 밖의 온갖 지대의 집에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쟁이 줄어든 모든 등급의 집에서 지대는 반드시 얼마쯤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내림 가운데 어느 몫도 적어도 오래도록 건물 지대를 건드릴 수 없으므로, 그것은 길게 보아 죄다 터 지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얼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떨어져 그가 제 몫을 치르려고 제 편리함의 얼마를 내놓아야 하고, 얼마는 터의 임자에게 떨어져 그가 제 몫을 치르려고 제 수입의 얼마를 내놓아야 한다. 이 끝내 치르는 짐이 그 둘 사이에 어떤 비로 갈릴지는 아마 그리 쉽게 가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 갈림은 사정에 따라 아주 다를 터이고, 이런 갈래의 세금은 그 다른 사정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터의 임자에게도 몹시 고르지 못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여러 터 지대의 임자들에게 고르지 못하게 떨어지는 것은 온통 이 갈림이 어쩌다 고르지 못한 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르지 못하게 떨어지는 것은 그것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까닭에서도 나올 것이다. 온 살림 비용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아마 가장 높은 정도에서 가장 높고 낮은 정도로 갈수록 차츰 줄어, 대체로 가장 낮은 정도에서 가장 낮을 것이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가난한 이에게 큰 비용을 낳는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렵고, 그 적은 수입의 큰 몫을 그것을 얻는 데에 쓴다. 삶의 사치와 허영이 넉넉한 이에게 으뜸가는 비용을 낳고, 으리으리한 집은 그들이 지닌 그 밖의 온갖 사치와 허영을 꾸미고 가장 좋게 돋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집세에 물리는 세금은 대체로 넉넉한 이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질 터인데, 이런 갈래의 고르지 못함에는 아마 그리 이치에 어긋날 것이 없을 것이다. 넉넉한 이가 공공의 비용에 제 수입에 비례해서만이 아니라 그 비례보다 얼마쯤 더 많이 이바지하는 것은 그리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집의 지대는 어떤 모로는 토지의 지대를 닮았으나 한 가지 모로는 그것과 뿌리부터 다르다. 토지의 지대는 생산적인 대상을 쓴 값으로 치러진다. 그것을 치르는 그 토지가 그것을 낳는다. 집의 지대는 생산적이지 않은 대상을 쓴 값으로 치러진다. 집도 그것이 앉은 땅도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지대를 치르는 사람은 그 대상과는 따로 떨어져 상관없는 다른 수입의 원천에서 그것을 끌어와야 한다. 집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한에서 그 지대와 같은 원천에서 끌어와야 하고, 노동의 임금에서 나오든 자산의 이윤에서 나오든 토지의 지대에서 나오든 그들의 수입에서 치러야 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한에서 그것은 수입의 세 가지 원천 가운데 하나에만이 아니라 셋 모두에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세금의

하나이고, 온갖 모로 다른 어떤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성질이다. 대체로 사람의 온 씀씀이가 후한지 인색한지를 집세보다 더 잘 가늠하게 해 주는 비용이나 소비의 항목은 아마 하나도 없다. 이 특정한 비용 항목에 비례하여 물리는 세금은 아마 유럽 어디서 여태 그것에서 끌어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세입을 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참으로 아주 높다면 사람들은 거의 다 더 작은 집으로 만족하고 제 씀씀이의 큰 몫을 다른 데로 돌려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피하려 들 것이다.

집의 지대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를 가려내는 데에 필요한 것과 같은 갈래의 방책으로 넉넉히 정확하게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집에 물리는 세금은 온통 임자에게 떨어질 터이니, 그는 제게 편리함도 수입도 주지 않는 대상 때문에 과세되는 셈이다. 임자가 손수 사는 집은 그것을 짓는 데에 들었을 비용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 주었더라면 받았으리라고 공평한 중재로 판단할 만한 지대에 따라 매겨야 한다. 그것을 짓는 데에 들었을 비용에 따라 매긴다면, 1파운드에 3실링이나 4실링 하는 세금이 다른 세금과 겹쳐 이 나라의,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문명화된 나라의 넉넉하고 높은 집안을 거의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넉넉하고 가장 높은 몇몇 집안의 도시 저택과 시골 저택을 눈여겨 살펴보는 사람은 누구나, 집 짓는 데에 처음 든 비용에 6.5퍼센트나 7퍼센트만 쳐도 그 집세가 그 토지의 순 지대를 죄다 합한 것과 거의 맞먹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 대에 걸쳐 쌓인 비용이 참으로 크게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것에 들여진 결과이나, 그 든 비용에 견주면 맞바꿀 수 있는 값어치는 아주 작다(이 책이 처음 나온 뒤로 위에서 말한 원리에 거의 따른 세금이 물려졌다).

1. 옮긴이 — 도제(doge)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공화국에서 뽑아 세우던 원수이고, 부르고마스터(burgo-master)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도시에서 시정을 맡던 수장이다. 둘 다 임금이 아니라 공화국의 최고 행정관이다.

2. 옮긴이 — 유료 도로 통행세는 잉글랜드에서 턴파이크라 불렸다. 길을 닦고 건사하도록 의회가 허락한 조합이 길목에 문을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과 짐수레에서 돈을 받았다. 페아주(peage)는 같은 갈래의 통행세를 프랑스와 그 이웃에서 부르던 이름이다.

3. 옮긴이 — 프랑스 왕실이 1768년 무렵에 엮게 한 『유럽의 조세와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Memoires concernant les droits et impositions en Europe)를 말한다. 저본은 이 책 이름을 Memoires와 Memoire, Droits와 Droites로 엇갈리게 적어 놓았으나 같은 책이다. 뒤에서는 줄여 적는다.

4. 옮긴이 —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의 『피렌체사』를 말한다.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는 피렌체를 다스린 메디치 집안 사람으로 「위대한 로렌초」라 불렸다.

5. 옮긴이 — 스털링은 영국 화폐를 말한다.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6. 옮긴이 — 크라운은 여기서 함부르크 등지에서 쓰이던 은화를 영국 말로 옮긴 것이며, 영국 돈으로 4실링 6펜스로 쳤다.

7. 옮긴이 — 헨리 홈, 케임스 경(1696~1782)이 1774년에 낸 『인류사 소묘』(Sketches of the History of Man)를 말한다.

8.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1689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4년은 1692년 회기다.

9. 옮긴이 — 1688년의 명예혁명을 말한다.

10. 옮긴이 — 에코노미스트는 이 학파가 당대에 불리던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중농학파라 부른다. 프랑수아 케네(1694~1774)가 그 우두머리였다.

11. 옮긴이 — 『둠즈데이 북』은 정복왕 윌리엄이 1086년에 잉글랜드의 토지와 그 임자와 값어치를 조사하여 만든 대장이다.

12. 옮긴이 — 귀족 보유지(noble tenure)는 귀족의 자격으로 가지는 토지여서 여러 명예와 특권이 따랐고, 평민 보유지(base tenure)는 그런 자격 없이 가지는 토지여서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13. 옮긴이 — 여제 겸 여왕은 마리아 테레지아(1717~1780)를 말하며,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여왕이자 신성로마 황제의 아내였다. 카를 6세(1685~1740)는 그의

아버지인 신성로마 황제다.

14. 옮긴이 — 타유는 프랑스 구체제의 직접세다. 토지에 매기는 실물 타유(taille reelle)와 사람에게 매기는 인두 타유(taille personnelle)로 갈렸고, 앞엣것은 남프랑스 여러 지방에서 쓰였다.

15. 옮긴이 — 제네랄리테는 프랑스에서 세금을 걷던 행정 구역이고, 앵탕당은 국왕이 그곳에 보내어 재정과 행정을 맡긴 지방 장관이다.

2장 —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이어서)

터 지대는 집의 지대보다 한결 더 알맞은 과세 대상이다. 터 지대에 물리는 세금은 집세를 올리지 않을 터이고 온통 터 지대의 임자에게 떨어질 터인데, 그는 언제나 독점자처럼 굴며 제 터를 쓰는 값으로 받아 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대를 뜯어낸다. 경쟁하는 이들이 어쩌다 더 넉넉한지 더 가난한지에 따라, 또 어떤 특정한 땅 한 뙈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더 큰 비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 더 작은 비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값은 더 받아 낼 수도 있고 덜 받아 낼 수도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넉넉한 경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고, 따라서 가장 높은 터 지대는 언제나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터 지대에 세금을 물린다 하여 그 경쟁자들의 부가 어느 모로도 늘어나지는 않을 터이므로, 그들이 터를 쓰는 값으로 더 치를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 세금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먼저 내든 터의 임자가 먼저 내든 대수롭지 않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으로 더 많이 치러야 할수록 터에 치를 마음은 그만큼 줄어들 터이니, 그리하여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온통 터 지대의 임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터 지대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 터 지대도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도 임자가 제 쪽에서는 아무 마음도 손길도 들이지 않고 누리는 경우가 많은 갈래의 수입이다. 나라의 비용을 치르려고 이 수입의 얼마를 그에게서 거둔다 하여도 그로써 어떤 갈래의 근면도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곧 백성 대다수의 참된 부와 수입은 그런 세금이 있고 나서도 있기 앞서와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터 지대와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는 아마 남다른 세금을 물려도 가장 잘 견뎌 낼 수 있는 갈래의 수입일 것이다.

이 점에서 터 지대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보다도 더 알맞은 남다른 과세 대상으로 보인다.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는 많은 경우에 적어도 얼마쯤은 지주의 마음 씀과 좋은 살림살이 덕이다. 아주 무거운 세금은 이 마음 씀과 좋은 살림살이를 너무 크게 주눅 들게 할지도 모른다. 터 지대는 토지의 예사로운 지대를 넘는 한에서 온통 주권자의 좋은 다스림 덕이니, 그 다스림이 온 백성의 근면이나 어떤 특정한 고장에 사는 이들의 근면을 지켜 줌으로써 그들이 제 집을 짓는 터에 그 참된 값어치보다 그만큼 더 많이 치를 수 있게 하고, 또 터의 임자가 그것을 그렇게 씀으로써 입을 수도 있는 손해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치를 수 있게 하는 까닭이다. 나라의 좋은 다스림에 제 있음을 빚진 기금이 남달리 과세되는 것, 곧 그 다스림을 떠받치는 데에 다른 기금 대다수보다 얼마쯤 더 이바지하는 것보다 이치에 맞는 일은 없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집의 지대에 세금이 물려지기는 하였으나, 터 지대를 따로 떼어 과세 대상으로 삼은 나라를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세금을 짜내는 이들은 아마 지대의 어느 몫을 터 지대로 보아야 하고 어느 몫을 건물 지대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데에 얼마쯤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대의 그 두 몫을 서로 갈라내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집의 지대는 이른바 해마다 걷는 토지세로 토지의 지대와 같은 비로 과세된다고들 여긴다. 교구와 지역마다 이 세금이 매겨지는 바탕이 되는 평가는 언제나 같다. 그것은 처음부터 몹시 고르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왕국의 큰 몫에서 이 세금은 토지의

지대보다도 집의 지대에 한결 더 가볍게 떨어진다. 처음에 높게 매겨졌다가 집의 지대가 크게 떨어진 몇몇 지역에서만 1파운드에 3실링이나 4실링 하는 토지세가 집의 실제 지대에서 그와 같은 비에 이른다고 한다. 세든 사람이 없는 집은 법으로는 이 세금을 물게 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는 이들의 봐줌으로 면제되고, 이 면제가 더러 지역의 세율은 언제나 같은데도 특정한 집의 세율에 얼마쯤 달라짐을 낳는다. 새로 짓거나 손보거나 하여 지대가 나아지는 것은 그 지역이 물 몫을 더는 데에 쓰이니, 그것이 또 특정한 집의 세율에 더 많은 달라짐을 낳는다.

네덜란드의 홀란트 주에서는(『조세 보고서』 223쪽) 집마다 그 값어치의 2.5퍼센트로 과세되는데, 그 집이 실제로 내는 지대도 세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무 수입도 끌어낼 수 없는 세든 사람 없는 집에 임자가 세금을, 그것도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치르게 하는 데에는 가혹함이 있어 보인다. 시장 이자율이 3퍼센트를 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 집의 온 값어치에 물리는 2.5퍼센트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건물 지대의 3분의 1이 넘는 데에, 어쩌면 온 지대의 3분의 1이 넘는 데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참으로 집에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평가는 몹시 고르지 못하기는 하나 언제나 참된 값어치보다 낮다고 한다. 집을 다시 짓거나 손보거나 넓히면 새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잉글랜드에서 때때로 집에 물려 온 여러 세금을 짜낸 이들은 집마다 참된 지대가 얼마인지를 웬만큼 정확하게 가려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마 거의 모든 경우에 지대와 얼마쯤 비례하리라고 여겼을 더 눈에 띄는 어떤 사정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이런 갈래의 첫 세금은 난로세, 곧 난로 하나마다 2실링씩 물리는 세금이었다. 집에 난로가 몇 개나 있는지를 가려내려면 세리가 그 집 안 방마다 들어가 보아야 하였다. 이 꼴 보기 싫은 들이닥침이 세금을 꼴 보기 싫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명예혁명 뒤 머잖아 그것은 종살이의 표로 여겨져 없어졌다.[1]

이런 갈래의 다음 세금은 사람이 사는 집마다 2실링씩 물리는 세금이었다. 창문이 열 개인 집은 4실링을 더 치르게 되어 있었다. 창문이 스무 개 넘는 집은 8실링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이 세금은 뒤에 창문이 스무 개가 넘고 서른 개가 못 되는 집은 10실링을 치르고 서른 개가 넘는 집은 20실링을 치르도록 고쳐졌다. 창문의 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바깥에서 셀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집 안 방마다 들어가지 않고 셀 수 있다. 그러므로 세리가 들이닥치는 것이 이 세금에서는 난로세에서만큼 거슬리지 않았다.

이 세금은 뒤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창문세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두 차례 고쳐지고 늘어났다. 지금(1775년 1월) 있는 그대로의 창문세는 잉글랜드에서 집마다 물리는 3실링과 스코틀랜드에서 집마다 물리는 1실링의 부과금에 더하여 창문마다 부과금을 물리니, 잉글랜드에서 그것은 창문이 일곱 개를 넘지 않는 집에 물리는 가장 낮은 세율인 2펜스에서 창문이 스물다섯 개 넘는 집에 물리는 가장 높은 세율인 2실링까지 차츰 올라간다.[2]

그런 모든 세금에 맞서는 으뜸가는 반대는 그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니, 넉넉한 이보다 가난한 이에게 훨씬 더 무겁게 떨어지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갈래의 고르지 못함이다. 시골 읍내에서 지대가 10파운드인 집이 더러 런던에서 지대가 500파운드인 집보다 창문이 많을 수 있고, 앞엣집에 사는 사람이 뒤엣집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가난할 성싶은데도 그의 갹출이 창문세로 매겨지는

한에서 그는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앞서 말한 네 격률 가운데 첫째 것을 곧바로 거스른다. 그것이 나머지 셋 가운데 어느 것을 크게 거스르는 것 같지는 않다.

창문세와 집에 물리는 그 밖의 모든 세금이 저절로 기울어지는 바는 지대를 낮추는 쪽이다. 세금으로 더 많이 치를수록 지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어듦은 뻔하다. 그러나 창문세가 물려진 뒤로 내가 아는 영국의 거의 모든 읍과 마을에서 집의 지대는 크게 보아 얼마쯤 올랐다. 거의 어디서나 집을 바라는 마음이 어찌나 커졌는지 그것이 창문세가 지대를 낮출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지대를 올려놓았으니, 이는 이 나라의 큰 번영과 그 주민들의 늘어나는 수입을 보여 주는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 세금이 없었더라면 지대는 아마 한결 더 올랐을 것이다.

제2항 — 이윤에, 곧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물리는 세금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 곧 이윤은 저절로 두 몫으로 갈린다. 하나는 이자를 치르는 몫으로 자산의 임자에게 돌아가고, 다른 하나는 이자를 치르는 데에 있어야 할 것을 넘고도 남는 몫이다.

이윤의 뒤엣몫은 곧바로 과세할 수 없는 대상임이 뻔하다. 그것은 자산을 굴리는 데에 따르는 위험과 수고를 메워 주는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아주 알맞은 메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굴리는 이는 이 메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제 잇속에 어긋나지 않고서는 그 굴림을 이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온 이윤에 비례하여 곧바로 과세된다면 그는 제 이윤율을 올리든지 그 세금을 돈의 이자에 지우든지, 곧 이자를 덜 치르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세금에 비례하여 제 이윤율을 올린다면, 그 세금은 그가 먼저 내기는 하겠으나 그가 맡아 다루는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쪽이 끝내 치르게 될 것이다. 그가 그것을 농업 자산으로 토지를 갈고 가꾸는 데에 굴린다면, 그는 토지의 생산물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더 많은 몫의 값을 제 손에 남김으로써만 제 이윤율을 올릴 수 있고, 이는 지대를 깎음으로써만 될 수 있으므로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지주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가 그것을 상업 자산이나 제조업 자산으로 굴린다면, 그는 제 물건의 값을 올림으로써만 제 이윤율을 올릴 수 있고, 그 경우 그 물건을 쓰는 이들이 온통 그 세금을 끝내 치르게 된다. 그가 제 이윤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는 그 세금을 죄다 돈의 이자로 돌려놓은 몫에 지워야 할 것이다. 그는 빌린 자산이 무엇이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덜 치를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 경우 세금의 무게는 온통 끝내 돈의 이자에 떨어지고 만다. 한쪽 길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그는 다른 쪽 길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돈의 이자는 언뜻 보기에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 토지의 지대처럼 그것도 자산을 굴리는 데에 따르는 위험과 수고를 온전히 메우고 남는 순생산물이다.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이 지대를 올릴 수 없는 것은 농부의 자산을 그의 이치에 맞는 이윤과 함께 메우고 남는 순생산물이 세금이 있고 나서 있기 앞서보다 커질 수 없는 까닭인데, 그와 같은 까닭으로 돈의 이자에 물리는 세금도 이자율을 올릴 수 없을 터이니, 나라 안 자산 곧 돈의 양이 토지의 양처럼 세금이 있고 나서도 있기 앞서와 같다고 보는 까닭이다. 예사로운 이윤율은 첫째 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디서나 굴려야 할 자산의 양이 그 굴릴 자리의 양, 곧 그것으로 해내야 할 일의 양에 견주어 어떠한가에 따라 매겨진다. 그러나 자산을 굴릴 자리의 양 곧 해내야 할 일의 양은 돈의 이자에 물리는 어떤 세금으로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굴려야 할 자산의 양이 그것으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면 예사로운 이윤율도 반드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윤 가운데 굴리는 이의 위험과 수고를 메우는 데에 있어야 할 몫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터이니, 그 위험과 수고가 어느 모로도 달라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곧 자산의 임자에게 돌아가 돈의 이자를 치르는 몫도 반드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돈의 이자는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과세하기에 알맞은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이자를 토지의 지대보다 훨씬 덜 알맞은 직접 과세 대상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가진 토지의 양과 값어치는 결코 비밀일 수 없고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본의 온 크기는 거의 언제나 비밀이고 웬만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다. 게다가 그것은 거의 끊임없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얼마쯤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는 일이 드물고 한 달이 지나가는 일도 잦지 않으며 단 하루가 지나가는 일조차 더러 없다. 사람마다의 사사로운 형편을 캐묻는 일, 그것도 세금을 그 형편에 맞추려고 그 재산이 오르내리는 것을 죄다 지켜보는 캐묻는 일은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끊임없고 끝없는 괴롭힘의 샘이 될 것이다.

둘째, 토지는 옮길 수 없는 대상이나 자산은 쉬이 옮길 수 있다. 토지의 임자는 반드시 제 땅이 놓인 그 나라의 시민이다. 자산의 임자는 제대로 말하자면 세상의 시민이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나라에 매여 있지는 않다. 그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려고 괴롭게 캐묻는 일에 제가 드러나는 나라를 버리기 쉬울 터이고, 제 자산을 다른 어떤 나라로, 곧 제 일을 꾸려 가거나 제 재산을 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옮길 것이다. 제 자산을 옮김으로써 그는 그 자산이 떠나온 나라에서 건사해 오던 온갖 근면을 끝장낼 것이다. 자산이 토지를 갈고 가꾸며 자산이 노동을 부린다.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자산을 몰아내는 쪽으로 기우는

세금은 그만큼 주권자에게도 사회에도 세입의 온갖 원천을 말려 버리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자산의 이윤뿐 아니라 토지의 지대와 노동의 임금도 그것이 옮겨 가면 반드시 얼마쯤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세금을 물리려 한 나라들은 이런 갈래의 매서운 캐물음 대신에 아주 헐겁고 그러므로 얼마쯤 제멋대로인 어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양으로 매겨진 세금의 더할 나위 없는 고르지 못함과 미덥지 못함은 오직 그 세금이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음으로써만 메워질 수 있으니, 그리하여 사람마다 제 참된 수입보다 훨씬 낮게 매겨져 있음을 알기에 제 이웃이 얼마쯤 더 낮게 매겨진다 하여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 이른바 토지세로는 자산이 토지와 같은 비로 과세되게 할 뜻이었다.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 1파운드에 4실링, 곧 그렇다고 보는 지대의 5분의 1이었을 때, 자산은 그렇다고 보는 이자의 5분의 1로 과세되게 할 뜻이었다. 지금 해마다 걷는 토지세가 처음 물려졌을 때 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6퍼센트였다. 그리하여 자산 100파운드마다 6파운드의 5분의 1인 24실링으로 과세된다고 보았다. 법으로 정한 이자율이 5퍼센트로 내려간 뒤로는 자산 100파운드마다 20실링으로만 과세된다고 본다. 이른바 토지세로 걷을 액수는 시골과 으뜸가는 읍들 사이에 나뉘었다. 그 큰 몫은 시골에 지워졌고, 읍에 지워진 것 가운데 큰 몫은 집에 매겨졌다. 읍의 자산 곧 장사에 매길 것으로 남은 것은 (토지에 든 자산은 과세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그 자산 곧 장사의 참된 값어치보다 훨씬 아래였다. 그러므로 처음 매김에 어떤 고르지 못함이 있었든 그것은 마음을 거의 어지럽히지 않았다. 교구와 지역마다 여전히 처음 매김에 따라 제 토지와 제 집과 제 자산에 세금이 매겨지고, 거의 온 나라에 걸친 번영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모두의 값어치를 크게 올려놓았으므로 그 고르지 못함은 이제 한결 더 대수롭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지역마다 물리는 세율이 언제나 같으니, 이 세금이 어떤 개인의 자산에 매겨질 수 있는 한에서 지닌 미덥지 못함은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다. 잉글랜드 토지 가운데 큰 몫이 토지세에 그 실제 값어치의 절반으로도 매겨져 있지 않다면, 잉글랜드 자산 가운데 큰 몫은 아마 그 실제 값어치의 50분의 1로도 겨우 매겨져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몇몇 읍에서는 토지세 전부가 집에 매겨지는데, 자산과 장사가 자유로운 웨스트민스터가 그러하다. 런던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사로운 사람들의 형편을 매섭게 캐묻는 일은 조심스럽게 피해 왔다.

함부르크에서는(『조세 보고서』 제1권 74쪽) 주민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4분의 1퍼센트를 나라에 치러야 하는데, 함부르크 사람들의 부가 주로 자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세금은 자산에 물리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사람마다 스스로 제 세금을 매겨 해마다 행정관 앞에서 일정한 돈을 공공 금고에 넣으면서 그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의 4분의 1퍼센트라고 맹세로 밝히되, 그것이 얼마에 이르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 일로 어떤 조사도 받지 않는다. 이 세금은 두루 아주 성실하게 치러진다고들 여긴다. 백성이 제 행정관을 온전히 믿고,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그 세금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있으며, 그것이 그 쓰임에 충실히 쓰이리라고 믿는 작은 공화국에서는 이렇듯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치름을 더러 바랄 수 있다. 그것은 함부르크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

스위스의 운터발덴 주는 폭풍과 큰물에 자주 시달리고 그리하여 뜻밖의 비용에 놓인다. 그런 때에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 그에 따라 과세되도록 제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게 밝힌다고 한다. 취리히에서는 꼭 그래야 할 때에 저마다 제 수입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얼마인지는 맹세로 밝혀야 한다. 제 동료 시민 가운데 누가 저희를 속이리라는 의심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젤에서는 나라의 으뜸가는 세입이 내보내는 물건에 물리는 작은 관세에서 나온다. 시민들은 모두 법으로 물린 온갖 세금을 석 달마다 치르겠다고 맹세한다. 모든 상인이, 심지어 모든 여관 주인까지도 제가 그 땅 안에서나 밖에서 파는 물건의 장부를 스스로 적어 두도록 믿음을 받는다. 석 달마다 그 끝에 그들은 이 장부를 아래에 셈한 세액을 적어 국고 관리인에게 보낸다. 이 믿음으로 세입이 상한다고 의심받지 않는다(『조세 보고서』 제1권 163, 167, 171쪽).

시민마다 제 재산이 얼마인지를 맹세로 드러내 놓고 밝히게 하는 것을 그 스위스 주들에서는 가혹함으로 치지 않는 듯하다. 함부르크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가혹함으로 여겨질 것이다. 위태로운 장사 기획에 뛰어든 상인들은 제 형편의 참모습을 언제든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떤다. 제 신용이 무너지고 제 기획이 어그러지는 것이 너무나 자주 그 뒤끝이 되리라고 그들은 내다본다. 그런 기획이라고는 모르는 맑고 아껴 쓰는 백성은 그런 감춤이 저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요전의 오라녜 공이 총독 자리에 오른 뒤 머잖아 시민마다 제 재산 전부에 2퍼센트, 곧 이른바 50분의 1세가 물려졌다. 시민마다 스스로 제 세금을 매겨 함부르크에서와 같은 모양으로 치렀고, 두루 아주 성실하게 치러졌다고들 여겼다. 그때 백성은 저희가 두루 일어나 갓 세운 새 정부에 더할 나위 없는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 세금은 남다른 다급함에서 나라를 건지려고 단 한 번만 치르게 되어 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너무 무거워 오래갈 수 없었다. 시장 이자율이 3퍼센트를 좀처럼 넘지 않는 나라에서 2퍼센트의 세금은 자산에서 흔히 끌어내는 가장 높은 순수입에 대하여 1파운드에 13실링 4펜스에 이른다.

그것은 제 자본을 얼마쯤 갉아먹지 않고서는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세금이다. 남다른 다급함에서라면 백성이 큰 공공심으로 큰 힘을 내어 나라를 건지려고 제 자본의 얼마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꽤 오랫동안 이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한다면 그 세금은 머잖아 그들을 아주 결딴내어 나라를 떠받칠 힘을 죄다 잃게 만들 것이다.[3]

잉글랜드에서 토지세 법안으로 물린 자산에 대한 세금은 자본에 비례하기는 하나 그 자본의 어느 몫도 줄이거나 앗아 갈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돈의 이자에 물리는 세금이 되게 하되 토지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과 비례하게 할 뜻이니, 그리하여 뒤엣것이 1파운드에 4실링일 때 앞엣것도 1파운드에 4실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세금과 그보다 한결 알맞은 운터발덴과 취리히의 세금도 같은 모양으로 자본이 아니라 자산의 이자 곧 순수입에 물리는 세금이 될 뜻이다. 네덜란드의 것은 자본에 물리는 세금이 될 뜻이었다.

특정한 일에서 나오는 이윤에 물리는 세금

어떤 나라에서는 자산의 이윤에 남다른 세금이 물려지는데, 더러는 장사의 특정한 갈래에 굴려질 때에 그러하고 더러는 농업에 굴려질 때에 그러하다.

앞엣갈래에 드는 것으로 잉글랜드에는 행상과 봇짐장수에 물리는 세금, 삯마차와 삯가마에 물리는 세금, 그리고 맥줏집 주인이 맥주와 독한 술을 소매로 팔 허가를 얻으려고 치르는 세금이 있다. 지난 전쟁 동안에 같은 갈래의 또 다른 세금을 가게에 물리자는 말이 나왔다. 그 전쟁이 이 나라의 장사를 지키려고 벌어졌으니 그로써 이익을 볼 상인들이 그것을 떠받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

그러나 장사의 어떤 특정한 갈래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은 끝내 장수들에게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고(그들은 예사로운

경우에는 모두 제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어야 하고, 경쟁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그 이윤보다 많이 얻는 일이 좀처럼 없다) 언제나 물건을 쓰는 이들에게 떨어지니, 그들은 장수가 먼저 낸 세금을 물건값으로 치러야 하고 대개 얼마쯤 웃돈까지 얹어 치러야 한다.

이런 갈래의 세금은 장수의 장사 크기에 비례할 때에는 끝내 물건을 쓰는 이가 치르고 장수에게 억누름을 낳지 않는다. 그렇게 비례하지 않고 모든 장수에게 똑같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끝내 물건을 쓰는 이가 치르기는 하나 큰 장수를 도와주고 작은 장수에게는 얼마쯤 억누름을 낳는다. 삯마차 한 대마다 한 주에 5실링씩 물리는 세금과 삯가마 하나마다 한 해에 10실링씩 물리는 세금은 그런 마차와 가마를 지닌 여러 사람이 먼저 내는 한에서 저마다의 장사 크기에 꼭 알맞게 비례한다. 그것은 큰 장수를 도와주지도 않고 작은 장수를 억누르지도 않는다. 맥주를 팔 허가를 얻는 데에 한 해 20실링, 독한 술을 팔 허가를 얻는 데에 40실링, 포도주를 팔 허가를 얻는 데에 다시 40실링씩 물리는 세금은 모든 소매 장수에게 똑같으므로 반드시 큰 장수에게 얼마쯤 이로움을 주고 작은 장수에게 얼마쯤 억누름을 낳는다. 앞엣사람은 뒤엣사람보다 세금을 물건값으로 되찾기가 더 쉬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금이 알맞은 덕분에 이 고르지 못함은 덜 대수로워지고, 작은 맥줏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얼마쯤 주눅 들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마땅찮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게에 물리는 세금은 모든 가게에 똑같게 할 뜻이었다. 달리 될 수도 없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캐물음 없이는 한 가게에 물리는 세금을 그 가게에서 꾸려 가는 장사 크기에 웬만큼 정확하게 비례시키기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 세금이 꽤 컸더라면 그것은 작은 장수를 억눌러 소매 장사를 거의 죄다 큰 장수의 손에 몰아넣었으리라. 앞엣사람의 경쟁이 사라지면 뒤엣사람은 그 장사를 독점하여 누렸을

터이고, 다른 모든 독점자와 마찬가지로 머잖아 단합하여 제 이윤을 그 세금을 치르는 데에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높이 올렸을 것이다. 끝내 치르는 짐은 가게 주인에게 떨어지는 대신 물건을 쓰는 이에게 떨어졌을 터이고, 가게 주인의 이윤에는 꽤 많은 웃돈이 얹혔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가게에 세금을 물리자는 구상은 접혔고, 그 자리에 1759년의 보조세가 들어섰다.

프랑스에서 이른바 인두 타유는 아마 유럽 어느 곳에서 걷는 것이든 농업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 터이다.

봉건 정부가 판치던 동안 유럽이 어수선하던 때에 주권자는 세금 내기를 마다할 만큼 힘 있지 못한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큰 영주들은 남다른 다급함에 그를 돕기는 기꺼이 하면서도 어떤 한결같은 세금에도 제 몸을 매려 하지 않았고, 그는 그들을 억누를 만큼 힘이 세지 못하였다. 온 유럽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부치던 이들은 큰 몫이 본디 예속민이었다. 유럽의 큰 몫에서 그들은 차츰 풀려났다. 그 가운데 얼마는 토지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잉글랜드의 옛 등본 보유농처럼 더러는 국왕 아래에서 더러는 다른 어떤 큰 영주 아래에서 평민의 낮은 보유로 지녔다.[5] 다른 이들은 재산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제 영주 아래에서 차지하고 부치던 토지를 몇 해씩 빌리는 계약을 얻어 그만큼 그에게 덜 매이게 되었다. 큰 영주들은 이 낮은 자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게 된 번영과 홀로 섬을 심술궂고 깔보는 분함으로 바라보았던 듯하고, 주권자가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데에 기꺼이 뜻을 같이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세금이 평민의 낮은 보유로 재산으로서 지닌 토지에만 매겨졌고, 이 경우 그 타유를 실물 타유라 하였다. 지난 사르데냐 국왕이 세운 토지세와 랑그도크, 프로방스, 도피네, 브르타뉴 여러 지방의 타유, 몽토방의 제네랄리테와

아쟁 및 콩동의 엘렉시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몇몇 다른 지역의 타유는 평민의 낮은 보유로 재산으로서 지닌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자가 어떤 보유로 지녔든 남의 토지를 빌려 부치는 모든 이의 이윤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세금이 매겨졌고, 이 경우 그 타유를 인두 타유라 하였다. 이른바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리는 프랑스 여러 지방의 큰 몫에서 타유는 이런 갈래다.[6] 실물 타유는 그 나라 토지의 한 몫에만 물려지므로 반드시 고르지 못하기는 하나, 더러 그러할 때가 있기는 하여도 언제나 제멋대로인 세금은 아니다. 인두 타유는 짐작으로밖에 알 수 없는 일정한 부류 사람들의 이윤에 비례하게 할 뜻이므로 반드시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고르지 못하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지금(1775년)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리는 스무 개 제네랄리테에 해마다 물리는 인두 타유는 4,010만 7,239리브르 16수에 이른다(『 조세 보고서 』 제2권 17쪽). 이 액수가 그 여러 지방에 매겨지는 비는 작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하여, 또 그들이 치를 힘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에 관하여 국왕의 자문 회의에 올라오는 보고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제네랄리테마다 일정한 수의 엘렉시옹으로 갈리고, 제네랄리테 전체에 물린 액수가 그 여러 엘렉시옹에 나뉘는 비도 저마다 치를 힘에 관하여 자문 회의에 올라오는 보고에 따라 마찬가지로 해마다 달라진다. 자문 회의가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다 하여도 이 두 매김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이 저마다 지워지는 지방이나 지역의 참된 힘에 웬만큼 정확하게 비례시킬 수는 없는 노릇으로 보인다. 모름과 그릇된 알림은 아무리 올곧은 자문 회의라도 반드시 얼마쯤 그르치기 마련이다. 엘렉시옹 전체에 매겨진 것 가운데 교구마다 떠맡아야 할 몫과 제 교구에 매겨진 것 가운데 개인마다 떠맡아야 할 몫도 같은 모양으로 사정이 그러기를 바란다고 여겨지는 대로 해마다 달라진다. 이 사정은 앞의 경우에는 엘렉시옹의

관리들이, 뒤의 경우에는 교구의 관리들이 헤아리는데, 이쪽도 저쪽도 얼마쯤 앵탕당의 지시와 입김 아래에 있다. 모름과 그릇된 알림뿐 아니라 친분과 당파의 미움과 사사로운 앙심까지도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이들을 자주 그르친다고 한다. 그런 세금에 놓인 사람은 누구도 제게 매겨지기 앞서 제가 얼마를 치를지 결코 알 수 없음이 뻔하다. 매겨진 뒤에도 그는 알 수 없다. 면제되어야 할 사람이 과세되었거나 어떤 사람이 제 몫을 넘어 과세되었다면, 둘 다 그동안에는 치러야 하기는 하나 그들이 하소연하여 그 하소연이 받아들여지면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듬해에 온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을 내는 이들 가운데 누가 파산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징수원이 그 세금을 먼저 내야 하고, 징수원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듬해에 온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징수원이 스스로 파산하면 그를 뽑은 교구가 그의 처신을 엘렉시옹의 총수납관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수납관이 온 교구를 걸어 송사를 벌이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그는 세금을 내는 이들 가운데 가장 넉넉한 다섯이나 여섯을 제 마음대로 골라 징수원이 갚지 못하여 잃은 것을 메우게 한다. 그 뒤에 그 다섯이나 여섯에게 되돌려 주려고 교구에 다시 세금이 매겨진다. 그렇게 다시 매기는 세금은 언제나 그것이 지워지는 해의 타유에 더하여 물리는 것이다.

장사의 특정한 갈래에서 자산의 이윤에 세금이 물려지면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을 먼저 낸 것을 되찾기에 넉넉한 값으로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 가운데 얼마는 제 자산의 얼마를 그 장사에서 빼내고, 시장에 물건이 전보다 덜 대어진다. 물건값이 오르고,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물건을 쓰는 이에게 떨어진다. 그러나 농업에 굴려진 자산의 이윤에 세금이 물려지면 농부들이 제 자산의 얼마를 그 굴림에서 빼내는 것은 그들의 잇속에

맞지 않는다. 농부는 저마다 일정한 양의 토지를 차지하고 부치며 그에 대하여 지대를 치른다. 이 토지를 제대로 갈고 가꾸려면 일정한 양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있어야 할 양에서 얼마를 빼낸다 하여 농부가 지대든 세금이든 더 잘 치를 수 있게 될 성싶지 않다. 세금을 치르려고 제 생산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따라서 시장에 전보다 덜 대는 것도 결코 그의 잇속에 맞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세금은 그가 제 생산물 값을 올려 끝내 치르는 짐을 물건을 쓰는 이에게 넘김으로써 스스로 되찾게 해 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도 다른 모든 장수와 마찬가지로 제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물려진 뒤에 그는 지주에게 지대를 덜 치름으로써만 이 이치에 맞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세금으로 치러야 할 것이 많을수록 지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빌린 기간 가운데에 물려지면 의심할 것 없이 농부를 괴롭히거나 결딴낼 수 있다. 그 계약을 새로 맺을 때에 그것은 언제나 지주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두 타유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농부는 흔히 그가 갈고 가꾸는 데에 굴린다고 보이는 자산에 비례하여 과세된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자주 좋은 말이나 소를 한 벌 갖추기를 두려워하고,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하찮고 가장 초라한 농사 연장으로 갈고 가꾸려 애쓴다. 제게 세금을 매기는 이들의 공정함을 어찌나 믿지 못하는지 그는 너무 많이 치르게 될까 두려워 가난을 꾸며 보이고 아무것도 치를 힘이 거의 없어 보이기를 바란다. 이 딱한 꾀로 그는 아마 제 잇속을 언제나 가장 야무지게 챙기지는 못할 터이고, 십중팔구 세금이 줄어 아끼는 것보다 제 생산물이 줄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 한심한 경작 탓에 시장에 물건이 얼마쯤 덜 대어지는 것은 의심할 것 없으나, 그로써 생길 만한 작은 값 오름은 농부가 제 생산물이 줄어 입은 손해를 메워 주지도

못할 성싶으니 하물며 그가 지주에게 지대를 더 치를 수 있게 해 줄 성싶지는 더욱 않다. 백성도 농부도 지주도 이 떨어진 경작으로 얼마쯤 다 손해를 본다. 인두 타유가 여러 다른 길로 경작을 주눅 들게 하고 그리하여 큰 나라마다 지닌 부의 으뜸가는 샘을 말려 버리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내가 이 연구의 셋째 편에서 이미 말할 기회가 있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 지방들과 서인도 섬들에서 이른바 인두세라 불리는 것, 곧 흑인 한 사람마다 해마다 얼마씩 물리는 세금은 제대로 말하자면 농업에 굴려진 일정한 갈래의 자산이 내는 이윤에 물리는 세금이다. 농장주들은 큰 몫이 농부이면서 지주이므로 그 세금을 끝내 치르는 짐은 지주라는 그들의 자격에 아무 되돌려 받음 없이 떨어진다.

갈고 가꾸는 데에 부리는 예속민 한 사람마다 얼마씩 물리는 세금은 옛날에 온 유럽에 두루 흔하였던 듯하다. 지금도 러시아 제국에 이런 갈래의 세금이 있다. 아마 그런 까닭으로 온갖 갈래의 인두세가 자주 종살이의 표로 그려져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그것을 치르는 사람에게 종살이의 표가 아니라 자유의 표다. 그것은 참으로 그가 정부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되, 그가 얼마간 재산을 가졌으므로 스스로 어떤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음을 나타낸다. 노예에게 물리는 인두세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물리는 인두세와 온통 다르다. 뒤엣것은 그것이 물려진 바로 그 사람이 치르고, 앞엣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치른다. 뒤엣것은 온통 제멋대로이거나 온통 고르지 못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둘 다이나, 앞엣것은 노예마다 값어치가 다르므로 어떤 모로는 고르지 못하여도 어느 모로도 제멋대로이지 않다. 제 노예가 몇인지 아는 주인은 누구나 제가 얼마를 치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세금들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탓에 같은 성질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네덜란드에서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에게 물리는 세금은 자산이 아니라 씀씀이에 물리는 세금이고, 그러한 한에서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을 닮았다. 얼마 전 영국에서 남자 하인 한 사람마다 1기니씩 물리게 된 세금도 같은 갈래다. 그것은 중간 자리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진다. 한 해에 200파운드를 가진 사람은 남자 하인 하나를 둘 수 있다. 한 해에 1만 파운드를 가진 사람도 쉰을 두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난한 이에게는 미치지 않는다.[7]

특정한 일에서 자산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은 돈의 이자에 결코 미칠 수 없다. 과세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과세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들보다 낮은 이자로 제 돈을 빌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갖 일에서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가 그것을 얼마쯤이라도 정확하게 걷으려 하는 곳에서는 많은 경우에 돈의 이자에 떨어질 것이다. 프랑스의 뱅티엠 곧 20분의 1세는 잉글랜드에서 이른바 토지세와 같은 갈래의 세금이고, 같은 모양으로 토지와 집과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매겨진다. 그것은 자산에 미치는 한에서 그리 매섭게는 아니어도 잉글랜드 토지세 가운데 같은 기금에 물리는 몫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매겨진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온통 돈의 이자에 떨어진다. 프랑스에서는 돈이 자주 이른바 지대 설정 계약에 묻히는데, 그것은 언제든 빚진 이가 처음 받은 액수를 치르고 되살 수 있으나 빚 준 이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되삼을 요구할 수 없는 영구 연금이다. 뱅티엠은 그 모든 연금에 빠짐없이 걷히는데도 그 연금의 이자율을 올려놓지는 않은 듯하다.[8]

제1·2항 부록 — 토지·집·자산의 자본 가치에 물리는 세금

재산이 같은 사람의 손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에 어떤 한결같은 세금이 물려졌든 그 자본 가치의 어느 몫도 줄이거나 앗아 갈 뜻이

아니었고, 오직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의 얼마를 거둘 뜻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재산이 손을 바꿀 때, 곧 그것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거나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질 때에는 그 자본 가치의 얼마를 반드시 앗아 가는 세금이 자주 물려졌다.

온갖 갈래의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과 토지와 집이라는 부동산이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그 성질로 보아 드러나 있고 널리 알려지거나 오래 감출 수 없는 거래다. 그러므로 그런 거래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자산 곧 동산이 돈을 빌려 줌으로써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자주 은밀한 거래이고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다. 그것에는 두 가지 다른 길로 에둘러 세금이 물려져 왔으니, 첫째는 갚겠다는 의무를 담은 증서를 일정한 인지세를 치른 종이나 양피지에 적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벌 아래 그것을 공공 장부나 은밀한 장부에 적게 하고 그 등록에 일정한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인지세와 등록세는 온갖 갈래의 재산을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기는 증서와 부동산을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기는 증서에도 자주 물려져 왔는데, 이런 거래에는 곧바로 세금을 물리기가 쉬웠을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옛 로마인에게 물린 비케시마 헤레디타툼 곧 상속의 20분의 1세는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물리는 세금이었다. 그것에 관하여 가장 덜 흐릿하게 쓴 지은이인 디오 카시우스는(제55권. 부르만의 『로마 인민의 조세에 대하여』 제11장과 부쇼의 『상속에 물리는 20분의 1세에 대하여』도 보라) 그것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는 것과 가난한 이에게 가는 것만 빼고 죽음에 따른 온갖 상속과 유증과 증여에 물려졌다고 말한다.[9]

네덜란드의 상속세도 같은 갈래다(『조세 보고서』 제1권 225쪽을 보라). 방계 상속은 친족의 촌수에 따라 상속 전체의 값어치에 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과세된다. 유언으로 하는 증여 곧 방계에게 주는 유증도 같은 부과금을 문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은 50분의 1세를 문다. 룩투오사 헤레디타스, 곧 존속이 비속에게서 받는 슬픈 상속은 20분의 1세만 문다. 직계 상속, 곧 비속이 존속에게서 받는 것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와 한집에 사는 자식들에게 수입이 늘어나는 일을 거의 낳지 않고 자주 꽤 많이 줄어드는 일을 낳으니, 그의 근면과 그의 벼슬과 그가 지니고 있었을 어떤 종신 지대 재산을 잃는 까닭이다. 그들의 상속 가운데 얼마를 앗아 그 손해를 더 무겁게 하는 세금이라면 모질고 억누르는 세금일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의 말로는 해방되었다 하고 스코틀랜드법의 말로는 분가하였다 하는 자식들, 곧 제 몫을 이미 받고 제 집안을 이루어 아버지의 것과 따로 떨어져 상관없는 기금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는 더러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의 상속 가운데 무엇이든 그런 자식들에게 가는 몫은 그들의 재산에 참으로 더해지는 것일 터이고, 그러므로 어쩌면 이런 갈래의 온갖 부과금에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불편 없이 얼마간의 세금을 물 수도 있을 것이다.[10] 봉건법의 우발 부담금은 토지가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과 산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물리던 세금이었다. 옛날에 그것은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왕실 세입의 으뜸가는 갈래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다.

왕실의 직속 봉신은 누구나 제 땅의 봉토 수여를 받을 때에 일정한 부담금을, 대개 한 해 치 지대를 치렀다.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그 미성년이 이어지는 동안 그 땅의 온 지대가 상급 영주에게 돌아갔고, 그 미성년을 건사하는 것과 그 땅에 과부로 남은 이가 있을 때에 그 과부

몫을 치르는 것 말고는 다른 짐이 없었다. 미성년이 나이가 차면 렐리프라 부르는 또 다른 세금이 여전히 상급 영주에게 치러져야 하였는데, 그것도 대개 한 해 치 지대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긴 미성년 기간이 큰 땅을 온갖 빚에서 벗겨 주고 그 집안을 옛 빛남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그토록 잦으나, 그때에는 그런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긴 미성년 기간이 흔히 낳은 것은 땅의 빚을 더는 것이 아니라 땅이 거덜 나는 것이었다.[11]

봉건법에 따라 봉신은 제 상급 영주의 뜻을 얻지 않고서는 땅을 남에게 넘길 수 없었고, 상급 영주는 그것을 허락하면서 대개 승낙료 곧 합의금을 뜯어내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였던 이 승낙료는 많은 나라에서 땅값의 일정한 몫으로 매겨지게 되었다. 다른 봉건 관습의 큰 몫이 쓰이지 않게 된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를 남에게 넘기는 데에 물리는 이 세금이 여전히 주권자의 세입 가운데 꽤 큰 갈래를 이룬다. 베른 주에서 그것은 모든 귀족 봉토 값의 6분의 1, 모든 평민 봉토 값의 10분의 1에 이를 만큼 높다(『조세 보고서』 제1권 154쪽). 루체른 주에서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두루 쓰이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서만 행해진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나려고 제 토지를 파는 사람은 누구나 판 값 전체의 10퍼센트를 치른다(같은 책 157쪽). 모든 토지를 파는 것에, 또는 일정한 보유로 지닌 토지를 파는 것에 물리는 같은 갈래의 세금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주권자의 세입 가운데 얼마쯤 큰 갈래를 이룬다.

그런 거래에는 인지세로든 등록세로든 에둘러 세금을 물릴 수 있고, 그 부과금은 옮겨지는 대상의 값어치에 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인지세는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따르기보다는(아무리 큰 액수의 채무 증서에도 18펜스짜리나 반 크라운짜리 인지로 넉넉하다)

증서의 성질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가장 높은 것도 종이 한 장이나 양피지 한 장에 6파운드를 넘지 않으며, 이 높은 부과금은 주로 왕실이 주는 허가장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떨어지고 대상의 값어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증서나 문서를 등록하는 데에 물리는 부과금이 없고 다만 장부를 맡은 관리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그들의 수고에 알맞은 갚음을 넘는 일이 좀처럼 없다. 왕실은 거기서 아무 세입도 끌어내지 않는다.

네덜란드에는(『조세 보고서』 제1권 223, 224, 225쪽) 인지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비례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례하지 않는다. 모든 유언장은 인지 찍힌 종이에 적어야 하고 그 값은 처분되는 재산에 비례하니, 그리하여 한 장에 3펜스 곧 3스타이버 하는 것에서 우리 돈으로 27파운드 10실링쯤 되는 300플로린 하는 것까지 인지가 있다. 인지가 유언하는 이가 썼어야 할 것보다 값이 낮은 것이면 그의 상속은 몰수된다. 이것은 그들의 다른 온갖 상속세에 더하여 물리는 것이다. 환어음과 그 밖의 몇몇 상거래 어음만 빼고 다른 모든 증서와 채무 증서와 계약서는 인지세를 문다. 그러나 이 부과금은 대상의 값어치에 비례하여 오르지는 않는다. 토지와 집을 파는 것과 그 어느 것에 저당을 잡히는 것은 모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할 때에 그 값이나 저당 액수의 2.5퍼센트를 나라에 부과금으로 치러야 한다. 이 부과금은 갑판이 있든 없든 2톤이 넘는 모든 배를 파는 데까지 미친다. 그런 것은 물 위에 뜬 일종의 집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동산을 파는 것도 법정의 명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부과금을 문다.[12]

프랑스에도 인지세와 등록세가 둘 다 있다. 앞엣것은 소비세 부과금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그 부과금이 행해지는 지방에서는 소비세 관리들이

걷는다. 뒤엣것은 왕령에서 나오는 수입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다른 부류의 관리들이 걷는다.

인지세와 등록세로 세금을 매기는 이런 길은 아주 요즈음에 생각해 낸 것이다. 그러나 백 년 남짓한 동안에 인지세는 유럽에서 거의 두루 쓰이게 되었고 등록세도 몹시 흔해졌다.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서 백성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재주보다 더 빨리 배우는 재주는 없다.

재산이 죽은 이에게서 산 이에게로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당장에도 끝내도 그 재산이 옮겨 가는 사람에게 떨어진다.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온통 파는 이에게 떨어진다. 파는 이는 거의 언제나 팔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값을 받아야 한다. 사는 이는 사야 할 처지에 놓이는 일이 좀처럼 없고,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드는 값만 줄 것이다. 그는 그 토지가 세금과 값을 합하여 제게 얼마나 들지를 헤아린다. 세금으로 치러야 할 것이 많을수록 값으로 내줄 마음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거의 언제나 쪼들리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그러므로 자주 몹시 모질고 억누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새로 지은 집을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터 없이 건물만 팔릴 때에는 대개 사는 이에게 떨어지니, 짓는 이는 대개 제 이윤을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가 세금을 먼저 낸다면 사는 이가 대개 그에게 되갚아야 한다. 헌 집을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까닭으로 대개 파는 이에게 떨어지는데,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편의로든 절박함으로든 팔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시장에 나오는 새로 지은 집의 수는 얼마쯤 바라는 마음에 따라 매겨진다. 온갖 비용을 치르고 짓는 이에게 이윤을 남겨 줄 만큼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그는 집을 더 짓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든 어쩌다 시장에 나오는 헌 집의 수는 우연에 따라 매겨지고, 그 우연의 큰 몫은 바라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장사하는 읍에서 큰 파산이 두셋만 일어나도 많은 집이 팔려 나올 터이고, 그 집들은 받을 수 있는 값이 무엇이든 그 값에 팔려야 한다. 터 지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은 토지를 파는 데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까닭으로 온통 파는 이에게 떨어진다. 빌린 돈에 대한 채무 증서와 계약서를 등록하는 데에 물리는 인지세와 부과금은 온통 빌리는 이에게 떨어지고, 실제로 언제나 그가 치른다. 소송 절차에 물리는 같은 갈래의 부과금은 소송하는 이들에게 떨어진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다투는 대상의 자본 가치를 줄인다. 어떤 재산을 얻는 데에 드는 것이 많을수록 얻고 난 뒤 그 순 값어치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온갖 갈래의 재산이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모든 세금은 그 재산의 자본 가치를 줄이는 한에서 생산적 노동을 건사하도록 마련된 기금을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것은 모두 얼마쯤 살림을 축내는 세금이어서, 비생산적인 일꾼 말고는 좀처럼 건사하지 않는 주권자의 세입을 생산적인 일꾼 말고는 건사하지 않는 백성의 자본을 축내어 늘린다.

그런 세금은 옮겨지는 재산의 값어치에 비례할 때조차 여전히 고르지 못하니, 값어치가 같은 재산이라 하여 옮겨지는 잦기까지 언제나 같지는 않은 까닭이다. 인지세와 등록세의 큰 몫이 그러하듯 이 값어치에 비례하지 않을 때에는 한결 더 고르지 못하다. 그것은 어느 모로도 제멋대로이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더할 나위 없이 또렷하고 미더우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더러 치를 힘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 떨어지기는 하나, 치를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에게 넉넉히 알맞다. 치름이 닥칠 때에 그는 거의 모든 경우에 치를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걷히고, 두루 보아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세금을 치른다는 피할 수 없는 불편 말고는 다른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인지세는 그리 많은 하소연을 사지 않는다. 그들이 콩트롤이라 부르는 등록세는 하소연을 산다. 그것이

세금을 걷는 총괄 징세 청부인의 관리들에게 많은 뜯어냄의 빌미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세금이 크게 보아 제멋대로이고 미덥지 못한 까닭이다. 프랑스의 지금 재정 제도를 걸어 쓰인 비방하는 글의 큰 몫에서 콩트롤의 폐단이 으뜸가는 항목을 이룬다. 그러나 미덥지 못함이 그런 세금의 성질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백성의 하소연에 근거가 있다면 그 폐단은 세금의 성질에서라기보다 그것을 물리는 칙령이나 법의 말이 또렷하고 분명하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 틀림없다.[13]

저당을, 그리고 두루 보아 부동산에 걸린 온갖 권리를 등록하는 것은 빚 준 이에게도 사는 이에게도 큰 안전을 주므로 백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롭다. 그 밖의 갈래에 드는 증서의 큰 몫을 등록하는 것은 자주 개인에게 불편하고 위태롭기까지 하면서 백성에게 아무 이로움도 없다.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인정되는 장부라면 무엇이든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신용이 세무 관리 아랫사람들의 정직함과 신앙심처럼 그토록 얄팍한 보장에 매달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러나 등록 수수료가 주권자에게 세입의 원천이 된 곳에서는 등기소가 등록해야 할 증서를 위해서도 등록하지 말아야 할 증서를 위해서도 끝없이 늘어나기 마련이었다. 프랑스에는 여러 갈래의 비밀 장부가 있다. 이 폐단은 그런 세금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저절로 따르는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잉글랜드에서 카드와 주사위에 물리는 것, 신문과 정기 간행 소책자에 물리는 것 따위의 인지세는 제대로 말하자면 소비에 물리는 세금이니, 끝내 치르는 짐은 그런 상품을 쓰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맥주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소매로 팔 허가에 물리는 인지세는 아마 소매하는 이들의 이윤에 떨어지게 할 뜻이었겠으나 마찬가지로 끝내는 그 술을 소비하는 이들이 치른다. 그런 세금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관리들이 같은 모양으로 걷기는 하나, 앞서 말한 재산이 옮겨지는 데에 물리는 인지세와는 온통 다른 성질의 것이고 온통 다른 기금에 떨어진다.

---

1. 옮긴이 — 난로세(hearth-money)는 1662년에 도입되어 난로 하나마다 한 해 2실링씩 물리던 세금이다. 명예혁명 이듬해인 1689년에 없어졌다.

2. 옮긴이 — 창문세(window tax)는 난로세를 대신하여 1696년에 도입되었다. 창문을 막아 세금을 줄이는 일이 흔하였고, 1851년에야 없어졌다.

3. 옮긴이 — 요전의 오라녜 공은 빌럼 4세(1711~1751)를 말한다. 1747년에 네덜란드 연방 일곱 주 전체의 스타트하우더르 곧 총독으로 추대되었고, 이듬해에 50분의 1세가 한 차례 걷혔다.

4. 옮긴이 — 지난 전쟁은 7년 전쟁(1756~1763)을 말한다. 가게세 구상이 접힌 뒤 1759년에 그 자리에 들어선 보조세는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다.

5. 옮긴이 — 등본 보유농(copy-holder)은 장원 법정의 장부에 적힌 등본을 증서 삼아 토지를 지니던 잉글랜드의 보유 형태다. 자유 보유와 달리 장원의 관습에 매여 있었다.

6. 옮긴이 — 엘렉시옹은 프랑스에서 제네랄리테 아래에 놓여 타유를 나누어 매기던 세금 구역이며,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프랑스의 지방은 엘렉시옹이 놓인 곳과 신분회가 세금을 나누던 곳으로 갈렸고, 앞엣것을 엘렉시옹 지방이라 불렀다. 제네랄리테는 그 위의 더 큰 구역이고 앵탕당은 국왕이 그곳에 보낸 지방 장관이다.

7. 옮긴이 — 기니는 1663년부터 찍던 금화로, 1717년 뒤로 21실링 곧 1파운드 1실링으로 값이 고정되었다.

8. 옮긴이 — 뱅티엠(vingtieme)은 1749년에 프랑스가 도입한 20분의 1세로, 토지와 집과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5퍼센트를 물렸다. 지대 설정 계약(contrat de constitution de rente)은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 없이 해마다 일정한 지대를 받는 대차 계약으로, 이자를 금하던 교회법을 피해 가는 길로 쓰였다.

9. 옮긴이 — 아우구스투스(기원전 63~기원후 14)는 기원후 6년에 이 상속세를 세웠다. 디오 카시우스(155년쯤~235년쯤)는 그리스 말로 『로마사』를 쓴 로마의 정치가다.

10. 옮긴이 — 로마법의 해방(emancipatio)은 아버지가 자식을 제 권한 아래에서 풀어 주어 따로 세우는 절차이고, 스코틀랜드법의 분가(foris-familiation)는 자식이 제 몫을 미리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것을 말한다.

11. 옮긴이 — 봉건법의 우발 부담금은 봉토를 물려받거나 넘길 때마다 상급 영주에게 물던 여러 부담을 아울러 이른다. 렐리프(relief)는 상속인이 봉토를 잇는 값으로 치르던 것이고,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수입을 상급 영주가 거두던 것은 후견이라 하였다.

12. 옮긴이 — 스타이버와 플로린은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다. 1플로린 곧 1길더는 20스타이버였다.

13. 옮긴이 — 총괄 징세 청부인은 프랑스에서 간접세를 걷을 권리를 나라에서 돈 주고 사들여 대신 걷던 이들이다. 콩트롤(controle)은 증서를 관청에 등록하게 하고 물리던 부과금이다.

2장 —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이어서)

제3항 — 노동 임금에 물리는 세금

나는 제1편에서 낮은 계층 일꾼들의 임금이 어디서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정, 곧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보통 값 곧 평균 값으로 반드시 매겨진다는 것을 보이려 힘썼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것이 늘어나는 중이냐 멈추어 있느냐 줄어드는 중이냐에 따라, 또는 늘어나는 인구를 요구하느냐 멈추어 있는 인구를 요구하느냐 줄어드는 인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를 매기고, 그 생계가 넉넉할지 어지간할지 빠듯할지를 정한다. 식료품의 보통 평균 값은 노동자가 이해저해 걸러 그 넉넉하거나 어지간하거나 빠듯한 생계를 사들일 수 있으려면 그에게 얼마의 돈을 치러야 하는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가 그 임금을 세금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말고 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를테면 어떤 고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한 주에 10실링을 노동의 보통 임금이 되게 할 만하였는데 임금에 5분의 1, 곧 1파운드에 4실링의 세금이 물렸다고 해 보자.[1]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값이 그대로라면 그 고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한 주에 10실링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만큼의 생계를 벌어야 할 터이므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에도 한 주에 10실링의

자유로운 임금이 그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세금을 치르고도 그에게 그만한 자유로운 임금을 남겨 주려면 그 고장의 노동 값은 머지않아 한 주에 12실링이 아니라 12실링 6펜스로 오를 수밖에 없다. 곧 그가 5분의 1의 세금을 치를 수 있게 하려면 그의 임금은 머지않아 반드시 5분의 1만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올라야 한다. 세금의 비율이 얼마이든 노동 임금은 어느 경우에나 그 비율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이 10분의 1이면 노동 임금은 머지않아 반드시 10분의 1만이 아니라 8분의 1만큼 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는 비록 노동자가 제 손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그가 먼저 대어 주는 것이라고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적어도 노동에 대한 수요와 식료품의 평균 값이 세금이 매겨진 뒤에도 그 앞과 같이 그대로라면 그러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그 세금뿐 아니라 그 세금보다 얼마쯤 더 되는 것까지 참으로는 그를 곧바로 부리는 사람이 먼저 대어 주는 셈이다. 마지막 치름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다. 그런 세금이 제조업 노동의 임금에 일으키는 오름은 제조업 고용주가 먼저 대어 주는데, 그는 그것을 이윤과 함께 제 물건 값에 얹을 자격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임금 오름의 마지막 치름은 제조업 고용주가 덧붙인 이윤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떨어진다. 그런 세금이 시골 노동의 임금에 일으키는 오름은 농부가 먼저 대어 주는데, 그는 앞서와 같은 수의 노동자를 거느리려면 더 많은 자본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더 많은 자본을 자산의 보통 이윤과 함께 되찾으려면 그는 땅의 생산물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또는 같은 말이 되겠으나 더 많은 몫의 값을 제 손에 남겨야 하고, 그리하여 지주에게 지대를 덜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이 임금 오름의 마지막 치름은 그것을 먼저 대어 준 농부가 덧붙인 이윤과 더불어 지주에게 떨어진다. 어느 경우에나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는, 그 세금에서 나오는 액수와 같은 액수를 얼마는 토지의 지대에 얼마는 소비재에 제대로 나누어 매겼을 때보다, 길게 보아 토지의 지대를 더 크게 줄이고 제조품의 값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가 늘 그 임금을 그만한 비율로 올려놓지는 않았다면, 그것은 그런 세금이 대개 노동에 대한 수요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근면의 쇠퇴, 빈민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줄어듦,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의 줄어듦이 대개 그런 세금이 낳은 효과였다. 그러나 그런 세금 탓에 노동 값은 수요가 실제로 놓인 자리에서 세금이 없었더라면 되었을 값보다 늘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아진 값은 그것을 먼저 대어 준 이들의 이윤과 더불어 끝내 지주와 소비자가 치를 수밖에 없다.

시골 노동의 임금에 물리는 세금은 땅의 원생산물 값을 그 세금만 한 비율로 올리지 않는데, 이는 농부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이 그 값을 그만한 비율로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까닭에서다.

그런 세금은 터무니없고 해롭기 짝이 없는데도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쓰인다. 프랑스에서는 시골 마을의 일꾼과 날품팔이의 근면에 매겨지는 타유의 한 갈래가 바로 이런 갈래의 세금이다.[2] 그들의 임금은 그들이 사는 지구의 보통 삯을 따라 셈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매겨지는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도록 그들이 한 해에 버는 것을 한 해 200일 일한 것으로만 어림한다(『조세 보고서』 제2권 108쪽).[3] 개인마다 물리는 세금은 해마다 여러 사정을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정을 판단하는 것은 징수원이거나 앵탕당이 저를 돕도록 세운 위원이다.[4] 보헤미아에서는 1748년에 시작된 재정 제도의 손질에 따라 수공업자의 근면에 아주 무거운 세금이 물려졌다. 그들은 네 계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계급은 한 해에 100플로린을 내는데, 1플로린을 22펜스 반으로 치면 9파운드 7실링 6펜스가 된다.[5] 둘째 계급은 70플로린, 셋째 계급은 50플로린,

그리고 마을의 수공업자와 도시의 가장 낮은 계급 수공업자를 아우르는 넷째 계급은 25플로린을 매겨 받는다(『조세 보고서』 제3권 87쪽).

재주 있는 기예가와 자유 직업에 몸담은 이들이 받는 보수는, 내가 제1편에서 보이려 힘썼듯이 반드시 낮은 직업의 벌이와 일정한 비율을 지킨다. 그러므로 이 보수에 물리는 세금은 그 보수를 세금에 비례하는 것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말고 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 보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면 재주 있는 기예와 자유 직업은 더는 다른 직업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버리고 떠날 터이고, 그리하여 머지않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관직의 벌이는 여느 직업이나 전문 직업의 벌이와 달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매겨지지 않으므로 그 일자리의 성질이 요구하는 것과 늘 알맞은 비율을 지키지는 않는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벌이는 요구되는 것보다 높을 터인데, 정부의 행정을 맡은 이들이 저 자신과 저에게 바로 딸린 이들을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돌보려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직의 벌이는 대개 세금을 물어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게다가 관직을, 그 가운데서도 더 짭짤한 관직을 누리는 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뭇사람이 시샘하는 과녁이어서, 그 벌이에 물리는 세금은 다른 어떤 갈래의 수입에 물리는 것보다 얼마쯤 높다 하더라도 늘 인기가 아주 좋은 세금이다. 이를테면 잉글랜드에서 토지세로 다른 온갖 갈래의 수입이 1파운드에 4실링씩 매겨진다고 보았을 때, 한 해에 100파운드를 넘는 관직의 봉급에 1파운드에 5실링 6펜스의 실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다만 왕실 방계의 연금과 육해군 장교의 급료, 그리고 시샘을 덜 사는 몇몇은 여기서 빠졌다. 잉글랜드에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다른 직접세가 없다.

제4항 — 모든 종류의 수입에 두루 물리려는 세금

모든 종류의 수입에 두루 떨어지도록 매기려는 세금은 인두세와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이다. 그런 세금은 내는 사람이 어떤 수입을 가졌든 가리지 않고 치러야 하니, 제 땅의 지대에서 치르든 제 자산의 이윤에서 치르든 제 노동의 임금에서 치르든 마찬가지다.

인두세

인두세를 내는 사람마다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례하게 하려 들면 그것은 아주 제멋대로가 된다.[6] 사람의 재산 형편은 날마다 달라지고, 어떤 세금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조사를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씩 되풀이하지 않고서는 어림으로 짚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매김은 대개 매기는 이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아주 제멋대로이고 확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두세를 내는 사람마다의 짐작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신분에 비례하게 하면 그것은 아주 고르지 못하게 되니, 같은 신분 안에서도 재산의 정도가 자주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고르게 하려 들면 아주 제멋대로이고 확실하지 않게 되고, 확실하고 제멋대로가 아니게 하려 들면 아주 고르지 못하게 된다. 세금이 가볍든 무겁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늘 큰 괴로움이다. 가벼운 세금에서는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도 견딜 만하지만, 무거운 세금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윌리엄 3세 치세 동안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여러 인두세에서 내는 사람들은 그 태반이 신분의 높낮이를 따라 매겨졌으니, 공작이며 후작이며 백작이며 자작이며 남작이며 에스콰이어며 젠틀맨이며 귀족의 맏아들과 막내아들 따위가 그러하였다.[7] 300파운드 넘는 재산을 가진 가게 주인과 장사치는 모두, 곧 그 가운데 나은 축은 모두 그 재산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이 매겨졌다. 그들의 재산보다 그들의 신분을 더 살핀 것이다. 첫 번째 인두세에서 짐작되는 재산을 따라 매겨졌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뒤에는 신분을 따라 매겨졌다.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와 교회 법정의 대리인은 첫 번째 인두세에서 짐작되는 소득의 1파운드에 3실링씩 매겨졌으나 뒤에는 젠틀맨으로 매겨졌다.[8] 그다지 무겁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데에서는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이 어떤 정도의 확실하지 않음보다 오히려 견딜 만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번 세기가 시작된 뒤로 프랑스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걷힌 인두세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세율표를 따라 그 신분에 맞추어 매겨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 재산이라고 짐작되는 것을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매김으로 매겨진다. 국왕의 궁정에 딸린 관원과 판관과 상급 법정의 다른 관원과 군대의 장교 따위는 앞의 길로 매겨진다. 지방의 낮은 신분 사람들은 뒤의 길로 매겨진다. 프랑스에서 높은 이들은 저희에게 미치는 한에서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세금이라면 꽤 큰 정도의 고르지 못함에도 쉽게 따르지만, 앵탕당이 제멋대로 매기는 것은 참지 못하였다.

그 나라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높은 이들이 저에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접을 참을성 있게 견딜 수밖에 없다.

잉글랜드에서 여러 인두세는 거기서 바라던 액수를, 또는 빈틈없이 걷었더라면 냈으리라고 여겨지던 액수를 한 번도 내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인두세가 언제나 거기서 바라던 액수를 낸다. 잉글랜드의 부드러운 정부는 여러 신분의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길 때에 그 매김에서 어쩌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치를 수 없는 이들이나 치르려 하지 않는 이들(그런 이가 많았다) 때문에 나라가 입을 손실에 대하여 아무 메움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법을 너그럽게 집행하여 그들에게 억지로

치르게 하지도 않았다. 더 모진 프랑스 정부는 제네랄리테마다 일정한 액수를 매겨 놓고 앵탕당이 어떻게든 그 액수를 채우게 한다. 어느 지방이 너무 무겁게 매겨졌다고 하소연하면 이듬해의 매김에서 지난해에 더 물린 만큼에 걸맞은 덜어 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동안에는 치러야 한다. 앵탕당은 제 제네랄리테에 매겨진 액수를 틀림없이 채우려고 그것을 더 큰 액수로 매길 권한을 받았으니, 내는 이들 가운데 얼마가 치르지 못하거나 치를 힘이 없어 생기는 구멍을 나머지에게 더 물려 메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1765년까지는 이 덧매김을 얼마로 할지가 온통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해에 이르러 참사회가 이 권한을 제 것으로 거두어들였다. 프랑스의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를 쓴, 더할 나위 없이 훤히 아는 지은이의 살핌에 따르면 지방의 인두세에서 귀족과 특권 덕에 타유를 면한 이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가장 적다. 가장 많은 몫은 타유를 내는 이들에게 떨어지는데, 그들은 그 다른 세금으로 치르는 액수 1파운드마다 얼마씩을 인두세로 매겨 받는다. 인두세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걷히는 한에서는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이고, 그런 세금의 온갖 불편을 그대로 지닌다.

인두세는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엄하게 거두어들이는 곳에서는 나라에 아주 든든한 세입을 준다. 낮은 신분 사람들의 형편과 편안함과 안전을 거의 돌보지 않는 나라에서 인두세가 아주 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큰 제국에서 그런 세금으로 끌어낸 것은 공공 세입 가운데 대체로 작은 몫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이 여태까지 낸 가장 큰 액수라 하더라도 늘 백성에게 훨씬 편한 다른 길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

어떤 인두세로도 사람들에게 그 수입에 비례하여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사실이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을 생각해 내게 만든 듯하다.

나라는 신민의 수입에 곧바로 비례하여 세금을 물릴 길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지출에 세금을 물려 에둘러 그리하려 애쓰는데, 그 지출이 대개 그들의 수입과 거의 비례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출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 지출이 쓰이는 소비재에 세금을 물려 이룬다.

소비재는 꼭 있어야 할 것이거나 사치품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나는 목숨을 이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상품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관습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조차 그것 없이 지내는 것을 낯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아울러 뜻한다. 이를테면 아마포 셔츠는 엄밀히 말하면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아마포가 없었어도 아주 편안하게 살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태반에서는 낯이 서는 날품팔이라면 아마포 셔츠 없이 남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할 터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여간 못된 행실 없이는 아무도 빠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저 창피한 정도의 가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습은 같은 모양으로 잉글랜드에서 가죽신을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낯이 서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가난해도 가죽신 없이 남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관습은 가죽신을 가장 낮은 신분의 남자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같은 신분의 여자에게는 그리하지 않았으니, 여자는 아무 흠 없이 맨발로 걸어 다녀도 된다. 프랑스에서는 가죽신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어서, 두 성의 가장 낮은 신분은 때로는 나막신을 신고 때로는 맨발로 아무 흠 없이 남 앞에 나선다. 그러므로 꼭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 아래 나는 자연이 그리 만든 것만이 아니라 굳어진 예절의 규칙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 아울러 넣는다.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는 사치품이라 부르거니와, 이 이름으로 그것을 알맞게 쓰는 일에

털끝만 한 나무람도 던지려는 뜻은 없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맥주와 에일은,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가 나는 나라에서조차 나는 사치품이라 부른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아주 끊어도 아무 나무람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그것을 목숨을 이어 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지 않았고, 관습은 어디서도 그것 없이 사는 것을 낯부끄러운 일로 만들지 않았다.

노동의 임금은 어디서나 얼마는 노동에 대한 수요로, 얼마는 생계에 꼭 있어야 할 물건의 평균 값으로 매겨지므로, 이 평균 값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그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든 멈추어 있든 줄어드는 중이든 그 수요의 형편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만큼의 그 꼭 있어야 할 물건을 여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제1편 8장을 보라). 그런 물건에 물리는 세금은 반드시 그 값을 세금의 액수보다 얼마쯤 더 높이 올리는데, 세금을 먼저 대어 준 장수가 그것을 대개 이윤과 함께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은 값이 오른 만큼에 비례하여 노동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 임금에 물리는 직접세와 똑같이 움직인다. 노동자는 그것을 제 손으로 치르더라도, 적어도 웬만큼 긴 동안을 두고 보면 그것을 먼저 대어 준다고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다. 길게 보면 그를 곧바로 부리는 사람이 임금을 올려 주는 꼴로 그에게 늘 먼저 대어 줄 수밖에 없다. 그를 부리는 이가 제조업자라면 오른 임금을 이윤과 함께 제 물건 값에 얹을 터이므로, 세금의 마지막 치름은 그 덧붙은 값과 함께 소비자에게 떨어진다. 그를 부리는 이가 농부라면 마지막 치름은 비슷하게 덧붙은 값과 함께 지주의 지대에 떨어진다.

내가 사치품이라 부르는 것에 물리는 세금은, 그것이 가난한 이들의 사치품일 때조차 사정이 다르다. 세금이 물린 상품의 값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 임금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담배에 물리는 세금은 담배가 부자의 사치품이자 가난한 이의 사치품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담배는 잉글랜드에서 본래 값의 세 곱절, 프랑스에서는 열다섯 곱절로 세금이 물려 있으나 그 높은 관세가 노동 임금에는 아무 효과도 내지 않는 듯하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가장 낮은 신분 사람들의 사치품이 된 차와 설탕에 물리는 세금,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초콜릿에 물리는 세금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이번 세기에 걸쳐 독한 술에 물려 온 여러 세금은 노동 임금에 아무 효과도 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독한 맥주 한 배럴에 3실링의 세금이 더 붙어 포터 값이 오른 일도 런던의 보통 노동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9] 그 임금은 세금이 붙기 전에 하루 18펜스나 20펜스쯤이었는데 지금도 그보다 많지 않다.

그런 상품의 값이 높다고 해서 낮은 신분 사람들이 식구를 길러 낼 힘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에게 그런 상품에 물리는 세금은 사치 금지법처럼 작용하여, 이제는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된 군더더기를 덜 쓰거나 아주 끊게 만든다. 이렇게 떠밀린 검약 덕에 그들이 식구를 길러 낼 힘은 줄어들기는커녕 세금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일이 아마 잦을 것이다. 대체로 가장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고 쓸모 있는 노동의 수요를 주로 채우는 것은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이다. 물론 빈민이 다 술을 삼가고 부지런하지는 않으며, 방탕하고 헤픈 이들은 값이 이렇게 오른 뒤에도 그런 상품을 전과 다름없이 즐기면서 그 즐김이 제 식구에게 가져올 곤경을 아랑곳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헤픈 이들은 좀처럼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지

못하니, 그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고 살림을 잘못 꾸린 탓에, 또 먹을 것이 모자라거나 몸에 해로운 탓에 대개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타고난 몸이 튼튼하여 어버이의 못된 행실이 안겨 준 고생을 견디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못된 행실의 본보기가 흔히 그들의 품행을 망치니, 근면으로 사회에 쓸모 있게 되기는커녕 악덕과 난행으로 공중의 골칫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의 사치품 값이 오르면 그런 헤픈 집안의 곤경이 얼마쯤 더해지고 그리하여 아이를 길러 낼 힘이 얼마쯤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나라의 쓸모 있는 인구를 그다지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의 평균 값이 오르면, 그만한 비율로 노동 임금이 올라 이를 메워 주지 않는 한, 빈민이 식구 많은 집안을 길러 내고 그리하여 쓸모 있는 노동의 수요를 채울 힘이 반드시 얼마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든 멈추어 있든 줄어드는 중이든, 또 늘어나는 인구를 요구하든 멈추어 있는 인구를 요구하든 줄어드는 인구를 요구하든 마찬가지다.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세금이 물린 그 상품의 값 말고는 다른 어떤 상품의 값도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 임금을 올려 반드시 온갖 제조품의 값을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하여 그 팔림과 쓰임의 넓이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다.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끝내 세금이 물린 그 상품을 쓰는 이들이 아무 되받음 없이 치른다. 그것은 노동의 임금에든 자산의 이윤에든 토지의 지대에든 모든 갈래의 수입에 두루 떨어진다.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노동하는 빈민에게 미치는 한에서는 얼마는 지주가 그 땅의 줄어든 지대로, 얼마는 지주든 다른 사람이든 넉넉한 소비자가 제조품의 오른 값으로 끝내 치르며, 언제나 적지 않은 덧값이 붙는다.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면서 빈민이 쓰도록 마련된 제조품, 이를테면

거친 모직물의 값이 오르면 그것은 임금을 더 올려 빈민에게 메워 주어야 한다. 중간 신분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제 이익을 제대로 안다면 노동 임금에 물리는 온갖 세금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온갖 세금에 언제나 맞서야 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지막 치름은 온통 저희에게 떨어지고, 그것도 언제나 적지 않은 덧값이 붙기 때문이다. 그런 세금은 지주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지니, 지주는 늘 두 겹의 자격으로 치르는 셈이다. 지주로서는 제 지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치르고, 넉넉한 소비자로서는 제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치른다. 어떤 세금은 어떤 물건의 값 속에서 때로 네 번 다섯 번 거듭 쌓인다는 매슈 데커 경의 살핌은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을 두고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옳다.[10] 이를테면 가죽 값에서 그대는 제 신발의 가죽에 물린 세금만이 아니라 신 짓는 이와 무두장이의 신발 가죽에 물린 세금의 얼마까지 치러야 한다. 게다가 그 일꾼들이 그대를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쓰는 소금과 비누와 양초에 물린 세금도, 또 소금 굽는 이와 비누 만드는 이와 양초 만드는 이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쓰는 가죽에 물린 세금도 치러야 한다.

영국에서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주된 세금은 방금 말한 네 가지 상품, 곧 소금과 가죽과 비누와 양초에 물리는 세금이다.

소금은 아주 오래되고 아주 널리 퍼진 과세의 대상이다.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소금에 세금이 물렸고, 지금도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그러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한 사람이 한 해에 쓰는 양이 몹시 적고 조금씩 나누어 살 수 있으므로 소금에 꽤 무거운 세금이 물리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리라고 여겨 온 듯하다. 잉글랜드에서 소금에는 1부셸에 3실링 4펜스가 물려 있으니 그 상품 본래 값의 세 곱절쯤이다.[11] 다른 몇 나라에서는 세금이 그보다도 높다. 가죽은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포를 쓰다 보니 비누도

그런 것이 되었다. 겨울밤이 긴 나라에서 양초는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연장이다. 영국에서 가죽과 비누에는 1파운드(무게)에 1펜스 반, 양초에는 1펜스가 물려 있다. 이 세금은 가죽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8이나 10쯤, 비누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나 25쯤, 양초의 본래 값에 대하여 100분의 14나 15쯤이 될 터이니, 소금에 물린 것보다 가볍기는 하여도 여전히 아주 무겁다. 이 네 가지 상품이 다 살아가는 데 참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술 삼가고 부지런한 빈민의 지출이 얼마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 임금도 얼마쯤 오를 수밖에 없다.

영국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 땔감은 그 철 동안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이니, 먹을 것을 익히는 데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갈래 일꾼이 편안히 살아가는 데에도 그러하다. 그리고 온갖 땔감 가운데 석탄이 가장 싸다. 땔감 값은 노동 값에 몹시 큰 영향을 미쳐서, 영국 어디서나 제조업은 주로 석탄이 나는 주에 몰려 있고, 나라의 다른 고장은 이 꼭 있어야 할 물건의 값이 높은 탓에 그만큼 싸게 일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제조업에서는 석탄이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연장이니, 유리와 무쇠를 비롯한 온갖 쇠붙이를 다루는 제조업이 그러하다. 장려금이 어느 경우에든 이치에 맞을 수 있다면, 석탄이 흔한 고장에서 석탄이 아쉬운 고장으로 그것을 실어 나르는 일에 주는 장려금이 아마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부는 장려금을 주기는커녕 바닷길로 실어 나르는 석탄에 1톤마다 3실링 3펜스의 세금을 물렸으니, 이는 거의 모든 갈래의 석탄에서 탄광 어귀의 본래 값의 100분의 60이 넘는다. 뭍길로나 나라 안의 물길로 실어 나르는 석탄은 아무 관세도 내지 않는다. 본디 석탄이 싼 곳에서는 관세 없이 쓰이고, 본디 석탄이 비싼 곳에서는 무거운 관세가 얹힌다.

그런 세금은 생계의 값을, 그리하여 노동 임금을 올리기는 하지만 정부에 적지 않은 세입을 주며, 다른 길로는 그만한 세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두는 데에 좋은 까닭이 있을 수 있다. 곡물 수출에 주는 장려금은 오늘날의 갈이 형편에서 그 꼭 있어야 할 물건의 값을 올리는 한에서 그와 똑같이 나쁜 효과를 다 내며, 세입을 주기는커녕 정부에 아주 큰 비용을 지우는 일이 잦다. 남의 나라 곡물을 들여오는 데 물리는 높은 관세는 그럭저럭 넉넉한 해에는 금지나 다름없고, 또 법이 보통으로 있는 자리에서는 살아 있는 짐승이나 소금에 절인 식료품을 들여오는 것을 아주 금지하되 지금은 모자람 때문에 아일랜드와 영국 식민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금지를 멈추어 두었거니와, 이 모두가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의 나쁜 효과를 죄다 내면서도 정부에는 아무 세입도 주지 않는다. 그런 규제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그것이 세워진 바탕인 저 체계가 부질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일뿐인 듯하다.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에 물리는 세금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영국에서보다 훨씬 높다. 방앗간에서 빻은 밀가루와 거친 가루에, 또 가마에서 구운 빵에 물리는 관세가 많은 나라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세금 때문에 도시에서 쓰이는 빵의 돈 값이 곱절이 된다고 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의 얼마를 대신하여 저희가 쓰리라고 보이는 빵의 갈래를 따라 해마다 머릿수마다 얼마씩을 낸다. 밀빵을 먹는 이들은 3훨던 15스타위버, 곧 6실링 9펜스 반쯤을 낸다.[12] 그런 세금과 그와 같은 갈래의 다른 세금이 노동 값을 올려 네덜란드 제조업의 태반을 망쳐 놓았다고 한다(『조세 보고서』 210, 211쪽). 그만큼 무겁지는 않으나 비슷한 세금이 밀라노의 여러 고장과 제노바 국가와 모데나 공국과 파르마와 피아첸차와 과스탈라 공국과 교황령에 있다. 이름이 꽤 알려진 어느 프랑스 저자(『르 레포르마퇴르』)는 다른

세금의 태반을 대신하여 온갖 세금 가운데 가장 해로운 이 세금을 놓음으로써 제 나라의 재정을 손보자고 내놓았다. 어떤 철학자가 언젠가 주장하지 않은, 그만큼 터무니없는 것은 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푸줏간 고기에 물리는 세금은 빵에 물리는 세금보다도 흔하다. 푸줏간 고기가 어디에서든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낟알과 그 밖의 남새는 우유와 치즈와 버터의, 또는 버터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는 기름의 도움을 받으면 푸줏간 고기 없이도 가장 넉넉하고 가장 몸에 좋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힘이 붙는 먹을거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경험으로 알려져 있다. 예절은 대개의 곳에서 사람이 아마포 셔츠나 가죽신을 걸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달리 어디서도 사람이 푸줏간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재는 꼭 있어야 할 것이든 사치품이든 두 가지 서로 다른 길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떤 갈래의 물건을 쓰거나 없애는 값으로 해마다 얼마씩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물건이 아직 장수의 손에 있어 소비자에게 건네지기 전에 거기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다 없어지기까지 꽤 오래 가는 소비재는 앞의 길로, 쓰이자마자 없어지거나 더 빨리 없어지는 소비재는 뒤의 길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가장 알맞다. 마차세와 은그릇세는 앞의 길로 세금을 매긴 본보기이고, 소비세와 관세의 다른 관세 태반은 뒤의 길로 세금을 매긴 본보기다.

마차는 잘 건사하면 열 해나 열두 해를 갈 수 있다. 마차가 마차 만드는 이의 손을 떠나기 전에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차 만드는 이에게 한꺼번에 40파운드나 48파운드를, 곧 같은 마차를 쓰는 동안에 세금으로 치르게 될 것과 맞먹는 액수를 값에 더 얹어 주는 것보다는 마차를 지닐 권리의 값으로 한 해에 4파운드를 치르는 편이 사는 이에게 틀림없이 더 편하다. 은그릇 한 벌도 마찬가지로 한 세기가 넘게 갈 수 있다. 100온스마다 한 해에 5실링, 곧

그 값어치의 100분의 1에 가까운 액수를 치르는 편이, 이 긴 연금을 스물다섯 해 치나 서른 해 치 값으로 한꺼번에 물어 값을 적어도 100분의 25나 30만큼 올려놓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틀림없이 더 수월하다. 집에 걸리는 여러 세금도 집을 처음 지을 때나 팔 때에 그와 같은 액수를 한꺼번에 무겁게 물리는 것보다 해마다 어지간한 액수로 나누어 치르는 편이 틀림없이 더 편하다.

소비가 곧바로 이루어지거나 빨리 이루어지는 상품까지 온갖 상품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리자는 것, 곧 장수는 아무것도 먼저 대어 주지 않고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쓸 수 있는 면허 값으로 해마다 일정한 액수를 치르게 하자는 것이 매슈 데커 경의 잘 알려진 제안이었다. 그 계획의 목적은 들여오고 내보내는 데 물리는 관세를 죄다 없애 상인이 제 자본과 신용을 온통 물건을 사들이고 배를 세내는 데 쓸 수 있게 하고 그 어느 쪽도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데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의 온갖 갈래를, 그 가운데서도 중계 무역을 북돋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없어지거나 빨리 없어지는 물건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리려는 이 기획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반론 네 가지를 댈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그런 세금은 흔히 매기는 길로 매길 때보다 더 고르지 못할 터이니, 곧 내는 사람마다의 지출과 소비에 그만큼 잘 비례하지 못할 것이다. 에일과 포도주와 독한 술에 물리는 세금은 장수가 먼저 대어 주지만 끝내는 소비자마다 제가 마신 만큼에 꼭 비례하여 치른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실 면허를 사는 꼴로 세금을 치르게 한다면 술을 삼가는 이는 제가 마신 양에 견주어 술꾼보다 훨씬 무겁게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손님을 후하게 치르는 집안은 손님을 덜 치르는 집안보다 훨씬 가볍게 세금을 물게 된다. 둘째로 어떤 물건을 쓸 면허를 한 해마다, 반년마다, 또는 한 철마다 사서 치르는 이런 과세의 길은 빨리 없어지는 물건에 물리는 세금의 주된 편리함 가운데 하나인

조금씩 나누어 치름을 크게 줄일 것이다. 오늘날 포터 한 단지에 치르는 3펜스 반이라는 값 속에는 맥아와 홉과 맥주에 물린 여러 세금이, 또 그것을 먼저 대어 준 값으로 술도가가 얹는 남다른 이윤이 아마 1펜스 반쯤 들어 있을 것이다. 일꾼이 그 1펜스 반을 넉넉히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는 포터 한 단지를 산다. 그럴 수 없으면 한 파인트로 만족하며, 한 푼 아낀 것이 한 푼 번 것이니 그는 제 절제로 한 파딩 곧 4분의 1펜스를 버는 셈이다. 그는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치를 힘이 있는 만큼 또 치를 힘이 있을 때에 치르며, 치르는 하나하나가 온전히 제 뜻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다. 셋째로 그런 세금은 사치 금지법으로서 힘을 덜 낼 것이다. 면허를 한 번 사고 나면 산 사람이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그의 세금은 같기 때문이다. 넷째로 일꾼이 오늘날 그만한 기간에 마시는 여러 단지와 여러 파인트의 포터에 거의 아무 불편 없이 치르는 세금과 같은 액수를 한 해마다, 반년마다, 또는 한 철마다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면 그 액수가 그를 몹시 쪼들리게 하는 일이 잦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과세의 길로는 오늘날의 길이 아무 억누름 없이 끌어내는 것과 엇비슷한 세입조차 더없이 모진 억누름 없이는 결코 낼 수 없으리라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곧바로 없어지거나 아주 빨리 없어지는 상품에 이 길로 세금을 물린다.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은 차를 마실 면허 값으로 머릿수마다 얼마씩을 낸다. 빵에 물리는 세금은 앞서 말한 바 있거니와, 그것이 농가와 시골 마을에서 쓰이는 한에서는 거기서 같은 길로 걷힌다.

소비세는 주로 나라 안에서 나서 나라 안에서 쓰이도록 마련된 물건에 물린다. 그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에만 물린다. 어떤 물건이 그 관세에 걸리는지, 또 물건의 갈래마다 어떤 관세가 걸리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일이 결코 없다. 그것은 앞서 말한

소금과 비누와 가죽과 양초에 물리는 네 가지 관세를, 또 아마 푸른 유리에 물리는 관세를 늘 빼고 나면 거의 온통 내가 사치품이라 부르는 것에 떨어진다.

관세는 소비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관세는 아득한 옛날부터 관례로 치러 오던 것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얻은 듯하다. 그것은 본디 상인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봉건의 무질서가 판치던 저 미개한 시절에 상인은 도시의 다른 모든 주민과 마찬가지로 예속을 벗은 농노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자로 여겨져 그 몸은 업신여김을 받고 그 벌이는 시샘을 받았다. 국왕이 제 차지인의 이윤에 부담금을 물리는 데 동의하였던 대귀족들은 저희가 지켜 줄 까닭이 훨씬 적은 무리의 이윤에도 국왕이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지한 시절에는 상인의 이윤이 곧바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세금의 마지막 치름이 적지 않은 덧값과 함께 소비자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남의 나라 상인의 벌이는 잉글랜드 상인의 벌이보다 곱지 않게 보였다. 그러므로 앞엣것에 뒤엣것보다 무겁게 세금을 물린 것은 저절로 그리된 일이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남의 나라 상인에게 물리는 관세와 잉글랜드 상인에게 물리는 관세 사이의 이 가름은 독점의 정신에서, 곧 우리 상인에게 나라 안의 시장에서도 남의 나라 시장에서도 앞선 자리를 주려는 뜻에서 이어져 왔다.

이 가름을 빼고 나면 옛 관세는 꼭 있어야 할 것이든 사치품이든, 내보내는 물건이든 들여오는 물건이든 온갖 갈래의 물건에 똑같이 물렸다. 한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장수가 왜 다른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장수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또는 내보내는 상인이 왜 들여오는 상인보다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때의 생각이었던 듯하다.

옛 관세는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첫째이자 아마 그 모든 관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양모와 가죽에 물리는 관세였다. 그것은 주로, 또는 온전히 내보내는 데 물리는 관세였던 듯하다. 잉글랜드에 모직 제조업이 자리 잡자 모직물을 내보내는 바람에 국왕이 양모에 걸린 제 관세의 얼마를 잃는 일이 없도록 모직물에도 그와 같은 관세를 물렸다. 나머지 두 갈래는 첫째로 포도주에 물리는 관세였으니 1톤마다 얼마씩 물렸으므로 톤세라 불렀고, 둘째로 그 밖의 모든 물건에 물리는 관세였으니 그 값이라고 보는 것의 1파운드마다 얼마씩 물렸으므로 파운드세라 불렀다.[13] 에드워드 3세 치세 47년에는 따로 관세가 걸려 있던 양모와 양털 펠트와 가죽과 포도주를 빼고 내보내고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1파운드에 6펜스의 관세를 물렸다.[14] 리처드 2세 치세 14년에는 이 관세가 1파운드에 1실링으로 올랐으나 세 해 뒤에 다시 6펜스로 내려갔다. 헨리 4세 치세 2년에는 8펜스로 올랐고 같은 국왕의 치세 4년에는 1실링이 되었다. 이때부터 윌리엄 3세 치세 9년까지 이 관세는 1파운드에 1실링으로 이어졌다. 톤세와 파운드세는 대개 하나의 같은 의회 법령으로 국왕에게 허락되었고 톤세와 파운드세의 보조세라 불렸다. 파운드세의 보조세가 1파운드에 1실링, 곧 100분의 5로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졌으므로 관세를 다루는 말에서 보조세란 이런 갈래의 100분의 5짜리 일반 관세를 가리키게 되었다. 지금 구보조세라 부르는 이 보조세는 찰스 2세 치세 12년에 세워진 관세 평가표를 따라 여전히 걷히고 있다. 관세 평가표로 이 관세가 걸린 물건의 값어치를 정하는 길은 제임스 1세 때보다 오래되었다고 한다. 윌리엄 3세 치세 9년과 10년에 매긴 신보조세는 물건의 태반에 100분의 5를 더 얹은 것이었다. 3분의 1 보조세와 3분의 2 보조세는 둘이 합하여 또 100분의 5를 이루었으니 저마다 그 비례하는 몫을 이룬다. 1747년의 보조세는 물건의 태반에 네 번째 100분의 5를 얹었고, 1759년의 보조세는 몇몇 갈래의

물건에 다섯 번째 100분의 5를 얹었다. 이 다섯 가지 보조세 말고도 갖가지 다른 관세가 때때로 특정한 갈래의 물건에 매겨졌는데, 때로는 나라의 급한 사정을 덜려고, 때로는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를 따라 나라의 거래를 다스리려고 그리한 것이었다.

그 체계는 차츰차츰 더욱더 널리 받아들여졌다. 구보조세는 내보내는 데에나 들여오는 데에나 가리지 않고 물렸다. 그 뒤의 네 보조세는, 또 그 뒤로 특정한 갈래의 물건에 때때로 매겨진 다른 관세도 몇몇을 빼고는 죄다 들여오는 데에만 걸렸다. 나라 안에서 나고 나라 안에서 만든 물건을 내보내는 데 물리던 옛 관세는 태반이 가벼워지거나 아주 없어졌다. 대개는 아주 없어졌다. 그 가운데 몇몇은 내보내는 데에 장려금까지 붙었다. 남의 나라 물건을 들여올 때 치른 관세도 때로는 그 전부가, 대개는 그 얼마가 다시 내보낼 때 환급되었다. 구보조세로 들여오는 데 물린 관세는 내보낼 때 그 절반만 되돌려 주지만, 뒤의 보조세와 다른 부과금으로 물린 관세는 물건의 태반에서 그 전부를 같은 길로 되돌려 준다. 내보내는 것을 점점 더 도와주고 들여오는 것을 막는 이 흐름에는 몇 안 되는 예외만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로 몇몇 제조업의 원료에 걸린 것이다.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는 그 원료가 저희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오고 다른 나라의 맞잡이와 겨룸꾼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가기를 바란다. 남의 나라 원료가 이 때문에 관세 없이 들어오도록 허락되는 일이 있으니 스페인 양모와 아마와 다듬지 않은 아마실이 그러하다. 나라 안에서 나는 원료와 우리 식민지에서 남달리 나는 원료를 내보내는 것은 때로는 금지되고 때로는 더 높은 관세가 걸렸다. 잉글랜드 양모를 내보내는 것은 금지되었다. 비버 가죽과 비버 털과 세네갈 고무를 내보내는 데에는 더 높은 관세가 걸렸으니, 영국이 캐나다와 세네갈을 차지하여 그 상품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체계가 사람들 전체의 수입에, 곧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에 그다지 이롭지 않았다는 것은 이 탐구의 제4편에서 내가 보이려 힘쓴 바다. 그것은 주권자의 세입에도 더 이롭지 않았던 듯하니, 적어도 그 세입이 관세에 기대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그 체계 탓에 몇몇 갈래의 물건은 들여오는 것이 아주 금지되었다. 이 금지는 들여오려는 이들을 밀수 말고는 길이 없게 몰아붙여, 어떤 경우에는 그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았고 어떤 경우에는 크게 줄여 놓았다. 그것은 남의 나라 모직물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았고, 남의 나라 비단과 우단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줄였다. 두 경우 다 그런 들여오기에 걸렸을 관세의 세입을 아주 없애 버렸다.

여러 갈래의 남의 나라 물건이 영국에서 쓰이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들여오는 데 매긴 높은 관세는 여러 경우에 밀수를 북돋우는 데에만 이바지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관세 세입을 어지간한 관세가 냈을 것보다 낮추어 놓았다. 관세의 산수에서는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되기는커녕 때로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스위프트 박사의 말은 그런 무거운 관세를 두고는 더할 나위 없이 들어맞는다. 중상주의 체계가 여러 경우에 세금을 세입의 연장이 아니라 독점의 연장으로 쓰도록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관세는 결코 매겨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라 안에서 나고 나라 안에서 만든 것을 내보낼 때 때때로 주는 장려금과 남의 나라 물건의 태반을 다시 내보낼 때 치러 주는 관세 환급은 숱한 사기를,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공 세입을 갉아먹는 한 갈래의 밀수를 불러왔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을 받아 내려고 물건을 배에 실어 바다로 내보냈다가 얼마 뒤에 나라의 다른 곳에 몰래 도로 부려 놓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장려금과 관세 환급이 축내는 관세 세입은, 그 태반이 속임수로 받아 낸 것이거니와, 아주 크다. 1755년 1월 5일에 끝난 해의 관세 총수입은 5,068,000파운드에

이르렀다. 이 세입에서 치러 준 장려금은, 그해에는 곡물 장려금이 없었는데도 167,806파운드에 이르렀다. 채무 증서와 증명서에 따라 치러 준 관세 환급은 2,156,800파운드에 이르렀다. 장려금과 관세 환급을 합하면 2,324,600파운드에 이르렀다. 이것을 덜어 내고 나니 관세 세입은 2,743,40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서 봉급과 그 밖의 잡비로 나가는 관리 비용 287,900파운드를 덜어 내니 그해 관세의 순세입은 2,455,500파운드가 되었다. 관리 비용은 이렇게 하여 관세 총세입의 100분의 5와 6 사이에 이르고, 장려금과 관세 환급으로 나간 것을 덜어 낸 뒤에 남는 세입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웃돈다.

들여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무거운 관세가 걸려 있으므로 우리 수입 상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밀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신고한다. 이와 달리 우리 수출 상인은 제가 내보내는 것보다 많이 신고하는데, 때로는 허영에서 관세가 걸리지 않는 물건을 크게 다루는 장수로 행세하려고, 때로는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을 받아 내려고 그리한다. 이런 갖가지 속임수 탓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세관 장부에서는 우리가 들여오는 것을 크게 웃도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른바 무역 차액으로 재는 저 정치가들은 이를 보고 말할 수 없이 흐뭇해한다.

들여오는 모든 물건은 따로 면제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면제는 그리 많지 않거니와, 얼마간의 관세에 걸린다. 관세 평가표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 들어오면 들여오는 이의 선서를 따라 값어치 20실링마다 4실링 9¾펜스씩, 곧 거의 다섯 보조세, 곧 다섯 파운드세가 물린다. 관세 평가표는 매우 방대하여 갖가지 품목을 늘어놓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은 거의 쓰이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어떤 갈래의 물건을 어느 품목 아래 넣어야 하는지, 그리하여 어떤 관세를 물려야 하는지가 흐릿한 일이 잦다. 이에 관한 잘못이 때로는 세관 관원을 망치고, 들여오는 이에게는 숱한 수고와 비용과 괴로움을 자주 안긴다.

그러므로 환함과 정확함과 뚜렷함이라는 점에서 관세는 소비세보다 훨씬 못하다.

어느 사회에서든 그 구성원의 태반이 저마다의 지출에 비례하여 공공 세입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그 지출의 낱낱 품목에까지 세금을 물릴 필요는 없는 듯하다. 소비세로 걷는 세입은 관세로 걷는 세입만큼이나 내는 이들에게 고르게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소비세는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품목에만 물린다. 알맞게 다스린다면 관세도 공공 세입에 아무 손실을 주지 않고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에는 큰 이로움을 주면서 몇 가지 품목에만 걸리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었다.

영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남의 나라 품목은 오늘날 주로 남의 나라 포도주와 브랜디,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 나는 설탕과 럼과 담배와 코코넛 따위, 그리고 동인도에서 나는 차와 커피와 도자기와 온갖 갈래의 향신료와 여러 갈래의 필목 따위인 듯하다. 오늘날 관세에서 끌어내는 세입의 태반은 아마 이 여러 품목이 낼 것이다. 오늘날 남의 나라 제조품에 걸려 있는 세금은 방금 늘어놓은 몇 가지를 빼고 나면 태반이 세입을 얻으려는 뜻이 아니라 독점을 위하여, 곧 우리 상인에게 나라 안의 시장에서 앞선 자리를 주려고 매긴 것이다. 온갖 금지를 걷어 내고 남의 나라 제조품에 죄다 어지간한 세금을, 곧 품목마다 공중에게 가장 많은 세입을 낸다고 경험으로 드러난 만큼의 세금을 물린다면 우리 일꾼은 나라 안의 시장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앞선 자리를 지킬 터이고, 오늘날 정부에 아무 세입도 내지 못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세입만 내는 여러 품목이 아주 많은 세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세금은 때로는 세금이 걸린 상품의 소비를 줄여서, 때로는 밀수를 부추겨서 어지간한 세금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보다 적은 세입을

정부에 내는 일이 잦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소비가 줄어든 탓일 때에는 고칠 길이 하나뿐이니 곧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밀수를 부추긴 탓일 때에는 아마 두 가지 길로 고칠 수 있을 터인데, 밀수의 꾐을 줄이거나 밀수의 어려움을 늘리는 것이다. 밀수의 꾐은 세금을 낮추어야만 줄일 수 있고, 밀수의 어려움은 그것을 막기에 가장 알맞은 행정의 체계를 세워야만 늘릴 수 있다.

소비세법이 관세법보다 밀수꾼의 움직임을 훨씬 더 잘 가로막고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경험에서 드러난다. 두 갈래 관세의 성질이 허락하는 만큼 소비세와 닮은 행정의 체계를 관세에 들여온다면 밀수의 어려움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치는 일은 아주 쉽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많은 이들이 여겨 왔다.

관세에 걸리는 상품을 들여오는 이에게 그것을 제 사사로운 창고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제 비용으로든 공중의 비용으로든 마련하되 세관 관원이 열쇠를 쥐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만 열리는 창고에 넣어 두든지 제 뜻대로 고르게 하면 된다고들 말하였다. 상인이 그것을 제 사사로운 창고로 가져가면 관세를 곧바로 치르고 뒤에 결코 돌려받지 못하게 하며, 그 창고는 언제든지 세관 관원이 찾아와 살펴보아 거기 들어 있는 양이 관세를 치른 양과 얼마나 맞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을 공중의 창고로 가져가면 나라 안에서 쓰려고 꺼낼 때까지 아무 관세도 치르지 않게 하면 된다. 내보내려고 꺼내면 관세를 면하되 틀림없이 내보내겠다는 알맞은 담보를 늘 걸게 한다. 그 특정한 상품을 도매로든 소매로든 다루는 장수는 언제든지 세관 관원이 찾아와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제 가게나 창고에 들어 있는 양 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치렀음을 알맞은 증명서로 밝히게 한다. 들여오는 럼에 걸린 이른바 소비세는 오늘날 이 길로 걷히거니와, 같은 행정의 체계를 들여오는 물건에 걸린

모든 관세로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관세가 소비세처럼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에만 걸려 있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갈래의 물건으로 넓힌다면 넉넉히 큰 공중의 창고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고, 성질이 몹시 여린 물건이나 건사하는 데 많은 손질과 살핌이 필요한 물건은 상인이 제 창고 말고 다른 창고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행정의 체계로 꽤 높은 관세 아래서도 이렇다 할 밀수를 막을 수 있다면, 또 관세마다 올리든 내리든 나라에 가장 많은 세입을 낼 성싶은 쪽으로 때때로 손질하여 세금을 언제나 세입의 연장으로만 쓰고 결코 독점의 연장으로 쓰지 않는다면,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 갈래의 물건을 들여오는 데 물리는 관세만으로도 적어도 오늘날 관세의 순세입과 맞먹는 세입을 끌어낼 수 있을 듯하고, 그리하여 관세도 소비세만큼 단순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질 수 있을 듯하다. 남의 나라 물건을 다시 내보냈다가 도로 부려 나라 안에서 써 버리는 바람에 관세 환급으로 오늘날 세입이 잃는 것은 이 체계 아래서라면 온통 아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을 이 아낌에다, 나라 안에서 난 것을 내보낼 때 주는 온갖 장려금을 없애는 것까지 더한다면, 곧 그 장려금이 참으로는 앞서 먼저 대어 준 소비세의 환급이 아닌 모든 경우에 그리한다면, 이런 손질 뒤에 관세의 순세입이 지난날 어느 때와도 넉넉히 맞먹으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다.

체계를 이렇게 바꾸어도 공공 세입이 아무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나라의 거래와 제조업은 틀림없이 적지 않은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세금이 걸리지 않는 상품, 곧 그 수가 훨씬 많은 상품의 거래는 온전히 자유로울 터이고 온 세계의 모든 곳을 오가며 얻을 수 있는 온갖 이로움을 누리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품 가운데에는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것 전부와 제조업의 원료 전부가 들어간다. 꼭

있어야 할 것을 자유로이 들여옴으로써 나라 안의 시장에서 그 평균 돈 값이 내려가는 한에서 그것은 노동의 돈 값도 내리겠으나 노동의 실질 보수는 조금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돈의 값어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꼭 있어야 할 것의 양에 비례한다. 꼭 있어야 할 것의 값어치는 그것을 주고 얻을 수 있는 돈의 양과 아무 상관이 없다. 노동의 돈 값이 내리면 나라 안 모든 제조품의 돈 값도 반드시 그만한 비율로 내릴 터이고, 그리하여 그 제조품은 남의 나라 시장마다 얼마쯤 앞선 자리를 얻을 것이다. 어떤 제조품의 값은 다듬지 않은 원료를 자유로이 들여옴으로써 그보다도 더 큰 비율로 내려간다. 생사를 중국과 힌두스탄에서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면 잉글랜드의 비단 제조업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비단 제조업자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비단과 우단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까닭도 없어진다. 물건이 싼 덕에 우리 일꾼은 나라 안의 시장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의 나라 시장까지 크게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 걸린 상품의 거래조차 오늘날보다 훨씬 이롭게 이루어진다. 그 상품을 남의 나라로 내보내려고 공중의 창고에서 꺼낸다면 이 경우에는 온갖 세금을 면할 터이므로 그 거래는 온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온갖 갈래의 물건을 나르는 중계 무역은 이 체계 아래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이로움을 누린다. 그 상품을 나라 안에서 쓰려고 꺼낸다면 들여온 이가 물건을 어느 장수나 어느 소비자에게 팔 기회를 얻기 전에는 세금을 먼저 대어 줄 까닭이 없으므로, 들여오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할 때보다 늘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세금 아래서도 소비를 위하여 남의 나라와 하는 거래는 세금이 걸린 상품에서조차 이렇게 하여 오늘날보다 훨씬 이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월폴 경의 저 이름난 소비세 안은 포도주와 담배에 관하여 여기서 내놓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때

의회에 들어온 법안은 그 두 상품만을 다루었으나 같은 갈래의 더 넓은 기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널리 여겨졌다. 당파심이 밀수 상인의 이해와 얽혀 그 법안에 그토록 사납고도 그토록 억울한 아우성을 일으키니, 대신은 그것을 거두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고, 그 뒤로는 같은 갈래의 아우성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의 뒤를 이은 누구도 그 기획을 다시 꺼내지 못하였다.

나라 안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남의 나라 사치품에 물리는 관세는 때로 가난한 이들에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중간쯤이거나 그보다 나은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이를테면 남의 나라 포도주와 커피와 초콜릿과 차와 설탕 따위에 물리는 관세가 그러하다.

나라 안에서 나서 나라 안에서 쓰이도록 마련된 값싼 사치품에 물리는 관세는 온갖 신분의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지출에 비례하여 꽤 고르게 떨어진다. 가난한 이들은 맥아와 홉과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를 제가 쓰는 만큼 치르고, 넉넉한 이들은 제가 쓰는 만큼에 더하여 제 하인이 쓰는 만큼까지 치른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낮은 신분 사람들, 곧 중간 신분보다 아래에 있는 이들이 쓰는 전부가 어느 나라에서나 양으로만이 아니라 값어치로도 중간 신분과 그보다 위에 있는 이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낮은 신분의 지출 전부는 높은 신분의 지출보다 훨씬 많다. 첫째로 어느 나라에서나 거의 모든 자본이 해마다 생산적 노동의 임금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둘째로 토지의 지대와 자산의 이윤에서 나오는 수입의 큰 몫이 해마다 집안 하인과 그 밖의 비생산적 노동자의 임금과 부양으로 같은 신분에게 나누어진다. 셋째로 자산의 이윤 가운데 얼마는 같은 신분의 것이니, 그들이 제 작은 자본을 굴려 얻는 수입이 그것이다. 작은 가게 주인과 장사치와 온갖 갈래의 소매상이 해마다 얻는 이윤의 액수는 어디서나 적지 않고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적지 않은 몫을 이룬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대 가운데 얼마까지도 같은 신분의 것이니, 중간 신분보다 얼마쯤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몫이, 가장 낮은 신분에게조차 작은 몫이 돌아간다. 보통 노동자가 한두 에이커의 땅을 제 것으로 가지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낮은 신분 사람들의 지출은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아주 적지만 그것을 다 아울러 보면 그 덩어리 전부가 언제나 사회 전체 지출의 훨씬 가장 큰 몫에 이르고,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가운데 높은 신분이 쓰라고 남는 것은 양으로만이 아니라 값어치로도 언제나 훨씬 적다. 그러므로 주로 높은 신분 사람들의 지출에,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더 작은 몫에 떨어지는 지출세는 온갖 신분의 지출에 두루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또 주로 낮은 신분의 지출에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낼 성싶으니,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 전부에 두루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그 더 큰 몫에 주로 떨어지는 세금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낼 성싶다. 나라 안에서 담근 술과 고아 낸 술의 원료와 제조에 물리는 소비세가 그에 걸맞게 온갖 지출세 가운데 단연 가장 많은 것을 내거니와, 이 갈래의 소비세는 아주 많은 몫이, 어쩌면 주된 몫이 보통 사람들의 지출에 떨어진다. 1775년 7월 5일에 끝난 해에 이 갈래 소비세의 총수입은 3,341,837파운드 9실링 9펜스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 낮은 신분 사람들의 사치이지 그들이 꼭 써야 하는 지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꼭 써야 하는 지출에 물리는 어떤 세금이든 그 마지막 치름은 온통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더 큰 몫이 아니라 더 작은 몫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세금은 어느 경우에나 노동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금의 마지막 치름을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고서는 노동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 또 그것은 그 나라의 토지와 노동이 해마다 내는 생산물, 곧 모든 세금이 끝내 거기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 기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어떤 자리로 끌어내리든,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금이 없었더라면 되었을 것보다 임금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아진 임금의 마지막 치름은 어느 경우에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팔려고가 아니라 저희가 쓰려고 담근 술과 고아 낸 술은 영국에서 아무 소비세에도 걸리지 않는다. 사사로운 집안이 세리의 얄미운 방문과 살핌을 겪지 않게 하려는 이 면제 탓에 그 관세의 짐이 넉넉한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에게보다 훨씬 가볍게 떨어지는 일이 잦다. 저희가 쓰려고 술을 고아 내는 일은 참으로 그리 흔하지 않으나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중간쯤 되는 집안의 많은 수가, 또 넉넉하고 큰 집안의 거의 모두가 제 맥주를 제 손으로 담근다. 그러므로 그들의 독한 맥주는 여느 술도가에 드는 것보다 한 배럴에 8실링이 덜 드니, 술도가는 저가 먼저 대어 주는 다른 온갖 비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이윤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집안은 제 맥주를 술도가나 술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이 어디서나 더 편한 보통 사람들이 같은 품질의 술을 마실 수 있는 값보다 적어도 한 배럴에 9실링이나 10실링은 싸게 마실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집안이 쓰려고 만드는 맥아도 마찬가지로 세리의 방문이나 살핌에 걸리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그 집안이 세금 대신에 머릿수마다 7실링 6펜스를 물어야 한다. 7실링 6펜스는 맥아 10부셸에 걸리는 소비세와 같으니, 이는 술을 삼가는 집안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 모두가 평균으로 쓸 성싶은 양에 넉넉히 맞먹는다. 그러나 시골의 후한 대접이 많이 베풀어지는 넉넉하고 큰 집안에서는 집안 식구가 마시는 맥아 술이 그

집에서 쓰이는 것의 작은 몫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납 때문인지 다른 까닭 때문인지 저희가 쓰려고 맥아를 만드는 일은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는 일만큼 흔하지 않다.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거나 고아 내는 이들이 왜 같은 갈래의 대납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지 공평한 까닭을 생각해 내기는 어렵다.

오늘날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온갖 무거운 세금에서 끌어내는 것보다 많은 세입을 맥아에 훨씬 가벼운 세금을 물려 올릴 수 있으리라는 말이 자주 있었으니, 세입을 속일 기회가 맥아 만드는 집보다 술도가에서 훨씬 크고, 또 저희가 쓰려고 술을 담그는 이들은 온갖 관세와 관세 대납을 죄다 면하지만 저희가 쓰려고 맥아를 만드는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런던의 포터 술도가에서는 맥아 한 쿼터를 두 배럴 반이 넘는, 더러는 세 배럴이나 되는 포터로 담그는 것이 보통이다.[15] 맥아에 걸린 여러 세금은 한 쿼터에 6실링에 이르고, 독한 에일과 맥주에 걸린 세금은 한 배럴에 8실링에 이른다. 그러므로 포터 술도가에서는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세금이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6실링과 30실링 사이에 이른다. 시골에서 여느 시골 팔이를 위하여 담그는 술도가에서는 맥아 한 쿼터를 독한 맥주 두 배럴과 약한 맥주 한 배럴보다 적게 담그는 일이 드물고, 독한 맥주 두 배럴 반으로 담그는 일이 잦다. 약한 맥주에 걸린 여러 세금은 한 배럴에 1실링 4펜스에 이른다. 그러므로 시골 술도가에서는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세금이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3실링 4펜스보다 적은 일이 드물고 26실링에 이르는 일이 잦다. 그러므로 온 왕국을 평균으로 잡으면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를 다 합한 액수는 맥아 한 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하여 24실링이나 25실링보다 적게 잡을 수 없다. 그런데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관세를 다 걷어 내고

맥아세를 세 곱절로 하여 맥아 한 쿼터에 6실링에서 18실링으로 올린다면, 이 한 가지 세금으로 오늘날 그 무거운 세금을 다 합하여 끌어내는 것보다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한다.

1772년에 옛 맥아세가 낸 것..... 722,023파운드 11실링 11펜스

덧붙인 세금... 356,776파운드 7실링 9¾펜스

1773년에 옛 세금이 낸 것..... 561,627파운드 3실링 7½펜스

덧붙인 세금... 278,650파운드 15실링 3¾펜스

1774년에 옛 세금이 낸 것 624,614파운드 17실링 5¾펜스

덧붙인 세금....310,745파운드 2실링 8½펜스

1775년에 옛 세금이 낸 것 657,357파운드 0실링 8¼펜스

덧붙인 세금....323,785파운드 12실링 6¼펜스

4)3,835,580파운드 12실링 0¾펜스

이 네 해의 평균 958,895파운드 3실링 0펜스

1772년에 시골 소비세가 낸 것.....1,243,120파운드 5실링 3펜스

런던 술도가 408,260파운드 7실링 2¾펜스

1773년에 시골 소비세.....1,245,808파운드 3실링 3펜스

런던 술도가 405,406파운드 17실링 10½펜스

1774년에 시골 소비세.....1,246,373파운드 14실링 5½펜스

런던 술도가 320,601파운드 18실링 0¼펜스

1775년에 시골 소비세.....1,214,583파운드 6실링 1¼펜스

런던 술도가 463,670파운드 7실링 0¼펜스

4)6,547,832파운드 19실링 2¼펜스

이 네 해의 평균 1,636,958파운드 4실링 9½펜스

여기에 맥아세의 평균을 더하면..... 958,895파운드 3실링 0¼펜스

그 여러 세금을 다 합한

액수는……2,595,835파운드 7실링 10펜스가 된다

그런데 맥아세를 세 곱절로 하여

곧 맥아 한 쿼터에 6실링에서

18실링으로 올린다면

그 한 가지 세금이 낼 액수는……2,876,685파운드 9실링 0펜스

이 액수가 앞엣것을

웃도는 만큼…. 280,832파운드 1실링 3펜스

참으로 옛 맥아세 아래에는 사과술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4실링의 세금과 몸이라는 밀맥주 한 배럴에 물리는 10실링의 세금이 들어 있다. 1774년에 사과술에 물린 세금은 3,083파운드 6실링 8펜스밖에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 여느 해의 액수에 얼마쯤 못 미쳤을 터이니, 그해에는 사과술에 걸린 여러 세금이 죄다 여느 해보다 적게 났기 때문이다. 몸에 물리는 세금은 훨씬 무거우면서도 내는 것은 그보다도 적으니, 그 술을 마시는 이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세금의 여느 해 액수가 얼마이든 그것과 맞물리도록 이른바 시골 소비세 아래에는 첫째로 사과술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6실링 8펜스의 옛 소비세가, 둘째로 베르쥐 곧 덜 익은 과일을 짠 신 즙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6실링 8펜스의 같은 세금이, 셋째로 식초 한 호그스헤드에 물리는 8실링 9펜스의 또 다른 세금이, 마지막으로 미드 곧 벌꿀술 한 갤런에 물리는 11펜스의 네 번째 세금이 들어 있다. 이 여러 세금이 내는 것은 아마 이른바 해마다 걷는 맥아세로 사과술과 몸에 매긴 관세가 내는 것을 훨씬 웃돌 것이다.

맥아는 맥주와 에일을 담그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급주와 독한 술을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 맥아세를 한 쿼터에 18실링으로 올린다면 맥아가 그 원료의 얼마를 이루는 그런 갈래의 저급주와 독한 술에 걸린 여러 소비세를 얼마쯤 덜어 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른바

맥아 독주에서 맥아는 보통 원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듬지 않은 보리이거나 3분의 1은 보리 3분의 1은 밀이다. 맥아 독주를 고아 내는 일에서는 밀수의 기회도 꾐도 술도가에서보다도 맥아 만드는 집에서보다도 훨씬 크니, 기회가 큰 것은 그 상품의 부피가 작고 값어치가 큰 까닭이고 꾐이 큰 것은 관세가 유난히 높아 독주 한 갤런에 3실링 10⅔펜스에 이르는 까닭이다(정품 독주에 곧바로 매긴 관세는 한 갤런에 2실링 6펜스밖에 되지 않으나, 여기에 그것을 고아 내는 밑술인 저급주에 매긴 관세를 더하면 3실링 10⅔펜스에 이른다. 저급주와 정품 독주는 둘 다 속임수를 막으려고 이제 발효조에서 검척한 양을 따라 매긴다).

맥아에 걸린 관세를 올리고 술 고아 내는 일에 걸린 관세를 내리면 밀수의 기회도 꾐도 줄어들 터이고, 그리하여 세입이 한층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독한 술이 보통 사람들의 몸을 망치고 품행을 썩힌다고 여겨지는 까닭에 그 소비를 막는 것이 얼마 전부터 영국의 방침이었다. 이 방침을 따른다면 술 고아 내는 일에 걸린 세금을 덜어 주되 그것이 그 술의 값을 조금이라도 내릴 만큼 커서는 안 된다. 독한 술은 예전과 다름없이 비싼 채로 두면서 몸에 좋고 힘을 붙여 주는 맥주와 에일의 값은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날 가장 크게 하소연하는 짐 가운데 하나를 얼마쯤 벗을 터이고, 그와 함께 세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소비세 제도를 이렇게 고치는 데 대한 데버넌트 박사의 반론은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 반론이란 이러하다. 세금이 오늘날처럼 맥아 만드는 이의 이윤과 술도가의 이윤과 소매상의 이윤에 꽤 고르게 나뉘지 않고 이윤에 미치는 한에서는 온통 맥아 만드는 이의 이윤에 떨어지리라는 것, 맥아 만드는 이가 오른 맥아 값으로 세금의

액수를 되찾기가 술도가와 소매상이 오른 술값으로 되찾기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맥아에 그토록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는 것, 이 세 가지다.

어떤 세금도 어느 특정한 생업의 이윤율을 이렇다 할 동안 내릴 수는 없으니, 그 이윤율은 이웃한 다른 생업의 이윤율과 늘 같은 높이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걸린 관세는 그 상품을 다루는 장수의 이윤을 건드리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오른 물건값으로 세금을 이윤까지 얹어 되찾는다. 참으로 세금은 그것이 걸린 물건을 아주 비싸게 만들어 그 소비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맥아는 맥아 술로 소비되는 것이고, 맥아 한 쿼터에 18실링의 세금을 물린다 하여 오늘날 24실링이나 25실링에 이르는 여러 세금이 그리하는 것보다 그 술을 비싸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술은 아마 더 싸질 터이고, 그 소비도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성싶다.

맥아 만드는 이가 오른 맥아 값으로 18실링을 되찾는 일이 오늘날 술도가가 오른 술값으로 24실링이나 25실링을, 더러는 30실링을 되찾는 일보다 왜 더 어려워야 하는지는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참으로 맥아 만드는 이는 맥아 한 쿼터마다 6실링의 세금 대신 18실링의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술도가는 오늘날 제가 담그는 맥아 한 쿼터마다 24실링이나 25실링, 더러는 30실링의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한다. 맥아 만드는 이가 더 가벼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것이 오늘날 술도가가 더 무거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는 것보다 더 불편할 수는 없다. 맥아 만드는 이가 제 곳간에 늘 쟁여 두는 맥아가 술도가가 제 움에 자주 쟁여 두는 맥주와 에일보다 팔아 치우는 데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앞엣사람이 뒤엣사람만큼 빨리 제 돈의 회수를 얻는 일이 잦을 것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세금을 먼저 대어 주어야 하는 데서 맥아 만드는 이에게 어떤 불편이 생기든, 그것은 오늘날

술도가에게 흔히 주는 것보다 몇 달 더 긴 외상을 그에게 줌으로써 쉽게 고칠 수 있다.

보리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을 줄일 수 없다. 그런데 맥주와 에일로 담그는 맥아 한 쿼터에 걸린 관세를 24실링과 25실링에서 18실링으로 내리는 제도의 바꿈은 그 수요를 줄이기보다 늘릴 성싶다. 게다가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은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지대와 이윤과 늘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적다면 보리밭의 얼마가 머지않아 다른 쓰임으로 돌려질 터이고, 그보다 크다면 더 많은 땅이 머지않아 보리 기르기로 돌려질 것이다. 땅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생산물의 보통 값이 이른바 독점 값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물리는 세금이 반드시 그것을 기르는 땅의 지대와 이윤을 줄인다. 저 값진 포도밭, 곧 거기서 나는 포도주가 유효 수요에 크게 모자라 그 값이 늘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생산물 값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례를 웃도는 그런 포도밭의 생산물에 세금을 물리면 반드시 그 포도밭의 지대와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그 포도주 값은 시장에 보통 내놓는 양에 대하여 이미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므로 그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더 높일 수 없고, 또 그 양을 줄이면 더욱 큰 손실을 볼 터이니 그 땅을 똑같이 값진 다른 생산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의 무게 전부가 지대와 이윤에, 곧 본디 그 포도밭의 지대에 떨어진다. 설탕에 새 세금을 물리자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설탕 농장주들은 그런 세금의 무게 전부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떨어진다고 자주 하소연하였으니, 그들은 세금이 붙은 뒤에도 제 설탕 값을 그 전보다 높이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값은 세금이 붙기 전에 이미 독점 값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설탕이 세금을 물리기에 알맞지 않은 대상임을 보이려고 댄 논거는 아마 그것이 알맞은 대상임을 드러냈을 터이니, 독점하는 이들의 벌이란 손이 닿기만

한다면 온갖 대상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리의 보통 값은 한 번도 독점 값이었던 적이 없고,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도 똑같이 걸고 똑같이 잘 갈아 놓은 다른 땅의 지대와 이윤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례를 한 번도 웃돈 적이 없다.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매겨 온 여러 세금은 한 번도 보리 값을 낮춘 적이 없고 보리밭의 지대와 이윤을 줄인 적도 없다. 술도가에게 매겨지는 맥아 값은 거기에 물린 세금에 비례하여 늘 올랐고, 그 세금은 맥주와 에일에 걸린 여러 관세와 함께 언제나 소비자에게 그 값을 올리거나, 같은 말이 되겠으나 그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렸다. 그 세금의 마지막 치름은 언제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떨어졌다.

---

1.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1파운드에 4실링」은 1파운드마다 4실링을 물린다는 뜻이니 곧 5분의 1의 세율이다.

2. 옮긴이 — 타유는 프랑스 구체제의 직접세다. 토지에 매기는 실물 타유와 사람의 벌이에 매기는 인두 타유로 갈렸고, 뒤엣것이 여기서 말하는 갈래다.

3. 옮긴이 — 프랑스 왕실이 1768년 무렵에 엮게 한 『유럽의 조세와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Memoires concernant les droits et impositions en Europe)를 말한다. 여기서는 줄여 『조세 보고서』로 적는다.

4. 옮긴이 — 앵탕당은 국왕이 지방에 보내어 재정과 행정을 맡긴 지방 장관이고, 뒤에 나오는 제네랄리테는 그가 맡은 징세 구역이다.

5. 옮긴이 — 플로린은 보헤미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서 쓰이던 은화이며, 스미스는 이를 영국 돈 22펜스 반으로 쳤다.

6. 옮긴이 — 인두세는 사람의 머릿수에 매기는 세금이다. 잉글랜드에서는 폴 택스(poll-tax), 프랑스에서는 카피타시옹(capitation)이라 불렀는데 둘 다 같은 갈래여서 인두세로 옮긴다.

7. 옮긴이 —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은 잉글랜드 귀족의 작위 차례이고, 에스콰이어와 젠틀맨은 작위 없는 지주층을 이르던 호칭이다. 윌리엄 3세의 치세는 1689년부터 1702년까지다.

8. 옮긴이 — 서전트는 상급 보통법 법정에 설 수 있던 상급 변호사, 어토니는 보통법 법정의 사무 변호사, 프록터는 교회 법정과 해사 법정의 대리인이다.

9. 옮긴이 — 포터는 런던에서 짐꾼들이 즐겨 마셔 그 이름이 붙은 검은 맥주다. 배럴은 통 하나를 단위로 삼은 것으로 맥주 1배럴은 36갤런, 곧 약 164리터였다.

10. 옮긴이 — 매슈 데커(1679~1749)는 네덜란드에서 건너와 영국에서 활동한 상인이자 동인도회사 이사였고, 무역과 조세를 다룬 글을 남겼다.

11. 옮긴이 — 부셸은 마른 것을 되는 부피 단위로 8갤런, 곧 약 36리터에 해당한다.

12. 옮긴이 — 휠던은 네덜란드의 은화이고 스타위버는 그 20분의 1에 해당하는 잔돈이다.

13. 옮긴이 — 톤세는 포도주를 담는 큰 통 한 톤마다, 파운드세는 물건 값어치 1파운드마다 물린 관세다. 보조세는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관세를 말한다.

14. 옮긴이 — 영국의 법령과 관세는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에드워드 3세는 1327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47년은 1373년 회기다.

15. 옮긴이 — 쿼터는 곡물을 되는 부피 단위로 약 291리터, 밀로는 약 8부셸에 해당한다. 「4분의 1」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2장 — 사회의 일반 세입 곧 공공 세입의 원천에 대하여 (이어서)

여기서 내놓은 제도 바꿈으로 손해를 볼 성싶은 사람은 제집에서 쓰려고 술을 빚는 이들뿐이다. 그러나 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난한 일꾼과 수공업자가 내는 아주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나 있는 면제는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옳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니, 이런 바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없애야 한다. 그러나 세입을 늘리면서 동시에 백성의 짐을 덜어 주기 마련인 제도 바꿈을 여태 막아 온 것은 아마 이 높은 계층의 이해였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관세와 소비세 같은 세금 말고도 물건값에 더 고르지 못하게 그리고 더 에둘러 미치는 세금이 몇 가지 더 있다. 프랑스 말로 페아주라 부르고 옛 색슨 시대에는 통행세라 부르던 세금이 이 갈래에 드는데, 그것은 본디 우리의 유료 도로 통행세나 운하와 배가 다니는 강에 물리는 통행세와 같은 뜻으로, 곧 길이나 물길을 건사하려고 세워진 듯하다. 이런 세금은 그런 데에 쓰일 때에는 물건의 부피나 무게에 따라 물리는 것이 가장 알맞다. 그것은 본디 고장과 지방의 세금으로서 고장과 지방의 일에 쓰이는 것이었으므로, 그 관리는 대개 그것을 걷는 특정한 도시나 교구나 영지에 맡겨졌고, 그런 공동체는 이러저러한 모로 그 쓰임에 책임을 진다고 여겨졌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주권자가 여러 나라에서 이런 세금의 관리를 제 손에 넣었는데, 그는 대개 그 세금을 아주 크게 올리면서도 여러 곳에서 그

쓰임은 통째로 내버려 두었다. 영국의 유료 도로 통행세가 언젠가 정부의 재원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다른 여러 나라의 본보기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런 통행세를 끝내 치르는 이가 소비하는 사람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소비하는 사람이 제가 소비하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나 무게에 따라 치른다면, 그는 제 씀씀이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금을 부피나 무게가 아니라 물건의 값어치를 어림잡아 그에 따라 물리면, 그것은 제대로 말해 내륙 관세 곧 소비세의 한 갈래가 되어 온갖 갈래의 상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곧 나라 안의 상업을 몹시 가로막는다.

어떤 작은 나라에서는 이런 통행세와 비슷한 세금을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뭍길이나 물길로 제 땅을 가로질러 실어 가는 물건에 물린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통과세라 부른다. 포강과 그리로 흘러드는 강가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 몇몇은 이런 갈래의 세금에서 얼마간의 세입을 끌어내는데, 그것은 온통 외국 사람이 내는 것이며, 아마 한 나라가 제 나라의 근면이나 상업을 어느 모로도 가로막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민에게 물릴 수 있는 하나뿐인 세금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세는 덴마크 국왕이 외레순해협[1]을 지나는 모든 상선에서 걷는 것이다.

관세와 소비세의 큰 몫이 그러하듯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온갖 갈래의 수입에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그것이 물려진 상품을 소비하는 이가 누구든 그가 끝내, 곧 아무 보상 없이 치른다. 그러나 그것이 늘 사람마다의 수입에 고르게 또는 비례하여 떨어지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제 기분이 제 소비의 정도를 다스리므로, 사람은 제 수입에 비례해서라기보다 제 기분에 따라 갹출하는 셈이다. 헤픈 이는 제 마땅한 몫보다 많이, 아끼는 이는 그보다 적게 낸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미성년일 동안 그는 그 보호에서 큰 수입을 끌어내는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제 소비로 으레 아주 조금밖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은 제 수입의 원천이 놓여 있는 나라의 정부를 떠받치는 데에 제 소비로 아무것도 이바지하지 않는다. 아일랜드가 그러하듯 이 뒤엣것의 나라에 토지세도 없고 움직이는 재산이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든 그 넘김에 물리는 이렇다 할 세금도 없다면, 그렇게 나가 사는 이들은 한 실링도 이바지하지 않는 정부의 보호에서 큰 수입을 끌어낼 수 있다. 이 고르지 못함은 그 정부가 어떤 모로 다른 나라의 정부에 딸려 있고 매여 있는 나라에서 가장 클 법하다. 이럴 때에 딸린 나라에서 가장 넓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으레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를 고른다. 아일랜드가 바로 이 자리에 놓여 있으니, 나가 사는 이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이 그 나라에서 그토록 인기를 얻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어떤 갈래의, 또 어느 만큼의 떠나 있음이 한 사람을 나가 사는 이로 과세받게 만드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세금을 물려야 하는지를 가려내기란 아마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아주 남다른 자리를 빼고 나면, 그런 세금에서 생길 수 있는 사람마다의 갹출의 고르지 못함은 바로 그 고르지 못함을 낳는 사정으로 넘치도록 메워진다. 곧 사람마다의 갹출이 온통 제 뜻에 달려 있다는 사정, 과세된 상품을 소비하든 소비하지 않든 온전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정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금이 알맞게 매겨지고 알맞은 상품에 물려지면 다른 어떤 세금보다 투덜거림 없이 치러진다. 그것을 상인이나 제조업자가 먼저 치러 두면, 끝내 그것을 치르는 소비하는 사람은 머잖아 그것을 상품값과 뒤섞어 여기게 되어 제가 세금을 치른다는 것을 거의 잊는다. 그런 세금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거나 확실할 수 있으며, 얼마를 치러야 하는지 언제 치러야 하는지, 곧 치르는 양에도 치르는 때에도 의심이 남지 않도록 매길 수 있다. 영국의 관세나 다른 나라의 같은 갈래의 세금에 이따금 어떤 아리송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세금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는 법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서투르게 적힌 데에서 나온다.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은 으레 조각조각 치러지며 늘 그럴 수 있으니, 곧 내는 이들이 그것이 물려진 물건을 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 비례하여 치른다. 치르는 때와 치르는 길로 보면 그것은 온갖 세금 가운데 가장 편하거나 가장 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그런 세금은 과세에 관한 네 가지 두루한 격률 가운데 앞의 세 가지에는 아마 다른 어떤 세금 못지않게 들어맞는다. 그러나 네 번째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어긴다.

그런 세금은 나라의 국고에 들여보내는 것에 견주어 거의 다른 어느 세금보다도 백성의 주머니에서 많은 것을 빼내거나 빼내지 못하게 막아 둔다. 그것은 그리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모두 밟는 듯하다.

첫째, 그런 세금을 걷으려면 더할 나위 없이 슬기롭게 물린다 하더라도 수많은 세관 관리와 소비세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봉급과 부수입은 백성에게 물리는 실제 세금이면서 나라의 국고에는 아무것도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용이 영국에서는 다른 웬만한 나라에서보다 덜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1775년 7월 5일에 끝난 해에 잉글랜드의 소비세 위원이 관리하는 여러 세금의 총생산은 550만 7,308파운드 18실링 8과 4분의 1펜스에 이르렀고, 이는 5.5퍼센트가 조금 넘는 비용으로 걷힌 것이다. 그러나 이 총생산에서는 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내보낼 때 장려금과 관세 환급으로 치러 준 것을 빼야 하니, 그러면 순생산은 500만 파운드 아래로 내려간다(그해의 순생산은 온갖 비용과 공제를 뺀 뒤에 497만 5,652파운드 19실링 6펜스에 이르렀다). 소금세를 걷는 일은 그것이 소비세이면서도 다른 관리 밑에 있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2] 관세의 순 세입은 250만 파운드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것은 관리의 봉급과 그 밖의 잡비로 10퍼센트가 넘는 비용을 들여

걷힌다. 그런데 세관 관리의 부수입은 어디서나 그 봉급보다 훨씬 크고, 어떤 항구에서는 봉급의 두세 곱절이 넘는다. 그러므로 관리의 봉급과 그 밖의 잡비가 관세의 순 세입의 10퍼센트를 넘는다면, 그 세입을 걷는 온 비용은 봉급과 부수입을 합하여 20퍼센트나 30퍼센트를 넘을 수도 있다. 소비세 관리는 부수입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으며, 세입의 이 갈래를 관리하는 일은 더 나중에 자리 잡은 것이어서 오랜 세월이 여러 폐단을 끌어들이고 굳혀 놓은 관세 관리보다 대체로 덜 썩었다. 지금 엿기름과 엿기름 술에 물리는 여러 세금으로 걷는 세입을 죄다 엿기름에만 물린다면 소비세의 해마다 드는 비용에서 5만 파운드가 넘게 아껴지리라고들 본다. 관세를 몇 가지 물건에만 가두고 그 세금을 소비세 법에 따라 걷는다면, 아마 관세의 해마다 드는 비용에서 훨씬 큰 절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그런 세금은 어떤 산업 부문을 가로막거나 주저앉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늘 과세된 상품의 값을 올리므로 그만큼 그 소비를 주저앉히고 따라서 그 생산도 주저앉힌다. 그것이 나라 안에서 나거나 만들어진 상품이라면 그것을 기르고 만드는 데에 쓰이는 노동이 줄어든다. 세금이 이런 모로 값을 올리는 것이 외국 상품이라면, 참으로 같은 갈래의 나라 안 물건이 그 덕에 나라 안 시장에서 얼마간 이득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국내 산업이 그것을 마련하는 쪽으로 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이런 값 오름이 국내 산업의 한 부문을 북돋울 수는 있어도, 그것은 거의 다른 모든 부문의 산업을 주저앉힐 수밖에 없다. 버밍엄의 제조업자가 제 외국 포도주를 비싸게 살수록, 그것을 사는 데에 쓰는,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으로 사는 제 철물의 그 몫을 그만큼 싸게 파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의 철물의 그 몫은 그에게 값어치가 덜해지고, 그것을 만드는 데에 힘쓸 마음도 줄어든다. 한 나라의 소비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남는 생산물에 비싸게 치를수록,

그것을 사는 데에 쓰는,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값으로 사는 제 남는 생산물의 그 몫을 그만큼 싸게 파는 셈이다. 제 남는 생산물의 그 몫은 그들에게 값어치가 덜해지고, 그 양을 늘릴 마음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소비재에 물리는 온갖 세금은 과세된 상품이 나라 안 물건이면 그것을 마련하는 데에 쓰이는 생산적 노동의 양을, 외국 물건이면 그것을 사들이는 데에 쓰이는 물건을 마련하는 생산적 노동의 양을, 세금이 없었더라면 되었을 것보다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그런 세금은 또 나라의 산업이 저절로 잡을 방향을 얼마쯤 늘 바꾸어, 그 산업이 제 힘으로 흘러갔을 물길과는 언제나 다르고 대개 덜 이로운 물길로 돌려놓는다.

셋째, 밀수로 그런 세금을 벗어나 보려는 바람은 자주 몰수와 그 밖의 벌을 불러 밀수꾼을 아주 망하게 만든다. 그는 제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의심할 것 없이 크게 나무랄 만하지만, 자연의 정의가 정한 법은 어길 줄 모르는 사람인 일이 잦으며, 자연이 결코 죄로 삼으려 하지 않은 것을 제 나라의 법이 죄로 만들어 놓지만 않았더라면 어느 모로 보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시민이었을 사람이다. 쓸데없는 비용이 많고 공공 세입을 크게 잘못 쓴다는 의심이 적어도 두루 퍼져 있는 저 썩은 정부 아래에서는 그 세입을 지키는 법이 거의 존중받지 못한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도 쉽고 안전하게 밀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밀수한 물건을 사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체하는 일은 세입법을 어기는 짓과 거의 늘 거기에 따르는 거짓 맹세를 드러내 놓고 북돋우는 짓임에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기는커녕 그런 체하는 사람을 제 이웃 대다수보다 더 큰 악당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내놓을 뿐인 저 고지식한 위선의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는 통에 밀수꾼은 제 장사를 이어 갈 마음을 자주 얻고 그것을 어느 만큼 죄 없는 일로

여기도록 배우게 된다. 그러다가 세입법의 가혹함이 제게 떨어지려 할 때 그는 제 정당한 재산으로 여기는 데에 익은 것을 힘으로 지키려 드는 일이 잦다. 처음에는 아마 죄를 지었다기보다 조심성이 없었을 뿐인 사람이 끝내는 사회의 법을 어기는 가장 억세고 가장 다부진 무리의 하나가 되고 마는 일이 너무나 잦다. 밀수꾼이 망하면서 앞서 생산적 노동을 떠받치는 데에 쓰이던 그의 자본은 나라의 세입으로 아니면 세무 관리의 수입으로 빨려 들어가 비생산적 노동을 떠받치는 데에 쓰이며, 그만큼 사회의 일반 자본과 그것이 떠받칠 수 있었을 쓸모 있는 산업이 줄어든다.

넷째, 그런 세금은 적어도 과세된 상품을 다루는 장사치들을 세리의 잦은 방문과 밉살스러운 조사에 내놓음으로써 그들을 이따금 얼마쯤 억누르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고 언제나 큰 성가심과 괴로움에 빠뜨린다. 괴로움이 엄밀히 말해 비용은 아니나 사람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기꺼이 치를 만한 비용과 맞먹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다. 소비세법은 그것이 세워진 목적에는 더 잘 들어맞으나 이 모로는 관세법보다 더 성가시다. 어떤 상인이 얼마간의 관세가 붙는 물건을 들여와 그 세금을 치르고 물건을 제 창고에 들여놓았다면, 그는 웬만하면 세관 관리에게 더는 성가심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소비세가 붙는 물건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다루는 이들은 소비세 관리의 끊임없는 방문과 조사에서 숨 돌릴 겨를이 없다. 소비세가 그런 까닭에 관세보다 미움을 더 받고, 그것을 걷는 관리도 그러하다. 그 관리들이 대체로는 아마 관세 관리 못지않게 제 직무를 다하면서도, 그 직무가 저희를 이웃 몇몇에게 자주 몹시 성가신 사람이 되게 만드는 터라 관세 관리에게는 흔히 없는 어떤 모진 성품을 으레 몸에 붙이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마 그들의 부지런함에 밀수를 막히거나 들킨 속임수 장사치들이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에서 아마 얼마쯤은 떼어 낼 수 없을 이 불편함은 영국 사람에게 다른 어느 나라, 곧 정부의 씀씀이가 그만한 나라의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만큼 가볍게 떨어진다.[3]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가 흠 없지는 않고 고칠 데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 이웃 대다수의 것과 같거나 그보다 낫다.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이 상인의 이윤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생각 탓에, 어떤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물건이 팔릴 때마다 되풀이해 물렸다. 들여오는 상인이나 만들어 파는 상인의 이윤에 세금을 물린다면, 그들과 소비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온갖 중간 사는 이들의 이윤에도 똑같이 물려야 고르다고 여겨진 것이다. 스페인의 이름난 알카발라[4]는 이 원리 위에 세워진 듯하다. 그것은 처음에는 10퍼센트였다가 나중에 14퍼센트가 되었고 지금은 움직이는 재산이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든 온갖 갈래의 재산을 팔 때마다 6퍼센트만 물리며, 그 재산이 팔릴 때마다 되풀이된다(『유럽의 조세와 부과금에 관한 보고서』 제1권 15쪽). 이 세금을 걷으려면 물건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 다니는 것뿐 아니라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옮겨 다니는 것까지 지킬 만큼 수많은 세무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몇몇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이들만이 아니라 온갖 갈래의 물건을 다루는 이들, 곧 농부 하나하나, 제조업자 하나하나, 상인과 가게 주인 하나하나를 세리의 끊임없는 방문과 조사에 내놓는다. 이런 갈래의 세금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그 땅의 큰 몫에서 멀리 내다 팔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나라 구석구석의 생산물은 그 이웃의 소비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우스타리스가 스페인 제조업이 망한 것을 이 알카발라 탓으로 돌린 것도 그래서다. 그는 농업이 기운 것도 그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 터이니, 그것이 제조품에만이 아니라 땅의 원생산물에도 물렸기 때문이다.

나폴리 왕국에는 온갖 계약의 값어치에, 따라서 온갖 매매 계약의 값어치에 3퍼센트를 물리는 비슷한 세금이 있다. 그것은 스페인의 세금보다 가볍고, 게다가 도시와 교구의 큰 몫은 그 대신 한데 묶은 액수를 내도록 허락받는다. 그들은 이 묶음돈을 제 마음에 드는 길로, 대개 그 고장 안의 상업을 조금도 끊지 않는 길로 걷는다. 그러므로 나폴리의 세금은 스페인의 것만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크게 대수롭지 않은 몇 가지 예외만 빼고 영국 연합 왕국의 여러 지역에 한결같이 놓여 있는 과세 제도는 나라 안의 상업, 곧 내륙 거래와 연안 거래를 거의 온전히 자유로이 놓아둔다. 내륙 거래는 거의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워서, 물건의 큰 몫이 아무 허가증이나 통행증도 요구받지 않고 세무 관리의 심문이나 방문이나 조사도 받지 않고 왕국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실려 갈 수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으나 그것은 나라 안 상업의 중요한 부문을 끊을 만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연안으로 실어 가는 물건에는 증명서 곧 연안 통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석탄만 빼면 나머지는 거의 다 세금이 없다. 과세 제도가 한결같은 데에서 비롯한 나라 안 상업의 이 자유야말로 아마 영국이 번영하는 으뜸가는 까닭의 하나일 터이니, 큰 나라는 모두 제 산업이 낸 생산물의 큰 몫에 가장 좋고 가장 넓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한결같음에 따라 같은 자유가 아일랜드와 식민지에까지 뻗칠 수 있다면, 나라의 위엄도 제국 구석구석의 번영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마다 다른 세입법이 놓여 있어,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거기에 얼마간의 세금을 물리려고 왕국의 국경뿐 아니라 거의 지방 하나하나의 경계까지 에워쌀 수많은 세무 관리가 있어야 하며, 그 탓에 나라 안의 상업이 적잖이 끊긴다. 어떤 지방은 가벨 곧 소금세를 묶음돈으로 갈음하도록 허락받고, 어떤 지방은 아예

면제받는다.[5] 어떤 지방은 총괄 징세 청부인이 왕국의 큰 몫에서 누리는 담배 독점 판매에서 벗어나 있다. 잉글랜드의 소비세에 맞먹는 에드는 지방마다 아주 다르다. 어떤 지방은 그것을 면제받고 묶음돈 곧 그에 맞먹는 것을 낸다. 그것이 놓여 있고 청부로 내준 지방에는 어떤 도시나 지역 너머로는 미치지 않는 고장 세금이 많다. 우리의 관세에 맞먹는 트레트는 왕국을 세 큰 부분으로 가른다. 첫째는 1664년 관세율표에 매인 지방으로 다섯 큰 청부의 지방이라 불리며 피카르디와 노르망디와 왕국 안쪽 지방의 큰 몫이 여기에 든다. 둘째는 1667년 관세율표에 매인 지방으로 외국으로 치는 지방이라 불리며 국경 지방의 큰 몫이 여기에 든다. 셋째는 외국처럼 다룬다고 하는 지방으로, 외국과 자유로이 상업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까닭에 프랑스의 다른 지방과 상업할 때에는 다른 외국과 똑같은 세금에 매인다. 알자스와 마인츠·툴·베르됭의 세 주교구와 됭케르크·바욘·마르세유의 세 도시가 그러하다. 다섯 큰 청부의 지방에서도(관세를 다섯 큰 갈래로 나누던 옛 구분에서 그 이름이 왔는데, 그 하나하나가 본디 따로 청부에 부쳐졌으나 지금은 죄다 하나로 합쳐졌다) 외국으로 친다고 하는 지방에서도, 어떤 도시나 지역 너머로는 미치지 않는 고장 세금이 많다. 외국처럼 다룬다고 하는 지방에도, 특히 마르세유 시에 그런 것이 얼마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과세 제도에 매인 여러 지방과 지역의 경계를 지키려면 나라 안의 상업에 놓이는 굴레도 세무 관리의 수도 얼마나 불어날 수밖에 없는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이 뒤얽힌 세입법 제도에서 나오는 두루한 굴레 말고도, 포도주 거래는(아마 곡물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다) 지방의 큰 몫에서 어떤 지방과 지역의 포도밭을 다른 곳의 것보다 두둔해 온 데에서 나오는 남다른 굴레에 매여 있다. 포도주로 가장 이름난 지방은 내가 믿기로 바로 그 물건의 거래가 이런 갈래의 굴레를 가장 적게 받는

곳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지방이 누리는 넓은 시장이 포도밭을 가꾸는 데에도 그 뒤에 포도주를 빚는 데에도 좋은 살림살이를 북돋운다.

이렇게 갖가지로 뒤얽힌 세입법은 프랑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밀라노 공국은 여섯 지방으로 갈리는데, 그 하나하나에 여러 갈래의 소비재를 두고 서로 다른 과세 제도가 놓여 있다. 파르마 공작의 더 작은 영지는 서넛으로 갈리고, 그 하나하나가 같은 모로 제 나름의 제도를 지닌다. 이런 터무니없는 살림살이 아래에서 그런 나라를 머잖아 가장 낮은 가난과 야만으로 되떨어지지 않게 지켜 준 것은 오직 땅의 큰 걸기와 기후의 복뿐이다.

소비재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에 곧바로 책임을 지는 관리를 둔 행정으로 걷을 수도 있으니, 이럴 때에는 세금의 생산이 그때그때 달라짐에 따라 세입도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정한 세를 받기로 하고 청부를 내줄 수도 있으니, 이럴 때에 청부인은 제 관리를 제가 임명하도록 허락받고, 그 관리는 법이 시킨 길로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그의 곧바른 감독 아래 있으며 그에게 곧바로 책임을 진다. 세금을 걷는 가장 좋고 가장 아껴 쓰는 길이 청부일 수는 결코 없다. 정해진 세를 내고 관리의 봉급을 주고 온 행정 비용을 치르는 데에 드는 것 말고도, 청부인은 그가 대는 먼돈과 그가 무릅쓰는 위험과 그가 겪는 수고와 그토록 뒤얽힌 일을 꾸리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솜씨에 적어도 걸맞은 얼마간의 이윤을 반드시 세금의 생산에서 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청부인이 세우는 것과 같은 갈래의 행정을 제 곧바른 감독 아래 세운다면, 적어도 거의 늘 터무니없이 큰 이 이윤만은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세입의 이렇다 할 갈래를 청부 맡으려면 큰 자본이나 큰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정만으로도 그런 사업을 겨루는 이가 아주 적은 수로 좁혀진다. 이 자본이나 신용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까지 갖춘 이는 더욱 적으니, 이것이 겨룸을 한층 더 좁히는 또 하나의 사정이다. 겨룰 만한 자리에 있는 그 아주 적은 사람들은 서로 손잡는 것이, 곧 겨루는 이가 아니라 동업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청부가 경매에 부쳐지면 참값에 훨씬 못 미치는 세만 부르는 것이 제 이익에 더 맞는다고 본다. 공공 세입을 청부로 내주는 나라에서는 대개 그 청부인이 가장 넉넉한 사람이다. 그 부만으로도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터인데,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이에게 거의 늘 따라붙는 허영과 그들이 으레 그 부를 드러내 보이는 어리석은 겉치레가 그 분노를 한층 더 부추긴다.

공공 세입의 청부인은 세금 내기를 벗어나려는 짓을 벌하는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은 제 신민도 아니고 청부가 끝난 이튿날에 죄다 거덜이 난다 한들 제 이익에 그리 큰 일이 아닐 내는 이들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 나라가 가장 다급하여 주권자가 제 세입이 꼭꼭 들어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실제로 놓인 법보다 더 모진 법이 없이는 늘 내던 세조차 낼 수 없으리라고 하소연하기를 거의 거르지 않는다. 나라가 그렇게 괴로운 때에는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그리하여 세입법은 차츰 더 가혹해진다. 가장 피비린내 나는 법은 늘 공공 세입의 큰 몫을 청부로 내주는 나라에서 볼 수 있고, 가장 너그러운 법은 주권자의 곧바른 감독 아래 그것을 걷는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나쁜 주권자조차 제 세입의 청부인에게서는 결코 바랄 수 없는 연민을 제 백성에게 더 느낀다. 그는 제 집안의 오래갈 위엄이 제 백성의 번영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제 한때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번영을 알면서 망쳐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 세입의 청부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의 위세는 백성의 번영이 아니라 백성이 망하는 데에서 나오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세금은 더러 일정한 세를 받고 청부로 내주어질 뿐 아니라, 청부인이 그 위에 과세된 상품의 독점까지 쥐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담배와 소금에 물리는 세금이 이런 모로 걷힌다. 이럴 때에 청부인은 백성에게서 터무니없는 이윤을 하나가 아니라 둘, 곧 청부인의 이윤과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독점하는 이의 이윤을 걷는다. 담배는 사치품이므로 사람마다 사든 사지 않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사람마다 얼마씩을 반드시 청부인에게서 사야 하니, 그 양을 청부인에게서 사지 않으면 어느 밀수꾼에게서 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두 물건에 물리는 세금은 터무니없이 높다. 그리하여 밀수의 꾐은 많은 사람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법의 모짐과 청부인이 둔 관리의 매서운 눈길은 그 꾐에 넘어가는 것을 거의 틀림없이 망하는 길로 만들어 놓는다. 소금과 담배의 밀수는 해마다 수백 사람을 갤리선으로 보내고, 그 위에 아주 많은 수를 교수대로 보낸다. 이런 모로 걷힌 그 세금은 정부에 아주 많은 세입을 낸다. 1767년에 담배 청부는 해마다 2,254만 1,278리브르에, 소금 청부는 3,649만 2,404리브르에 내주어졌다.[6] 청부는 두 경우 다 1768년에 시작하여 여섯 해 동안 이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의 피를 군주의 세입에 견주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이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세금을 걷는 길을 좋다 할 것이다. 소금과 담배에 물리는 비슷한 세금과 독점이 다른 여러 나라에도, 특히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영지와 이탈리아 여러 나라의 큰 몫에 세워져 있다.

프랑스에서 왕실이 실제로 얻는 세입의 큰 몫은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나온다. 타유, 카피타시옹, 두 가지 뱅티엠, 가벨, 에드, 트레트, 도멘, 그리고 담배 청부가 그것이다. 뒤의 다섯은 지방의 큰 몫에서 청부로 내주어져 있다. 앞의 셋은 어디서나 정부의 곧바른

감독과 지휘 아래 있는 행정이 걷으며, 백성의 주머니에서 빼내는 것에 견주어 군주의 국고에 더 많이 들여보내는 것이 이 셋이고 나머지 다섯은 그 행정이 훨씬 헤프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두루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은 지금 놓인 자리로 보아 아주 뻔한 세 가지 손질을 받아들일 만하다. 첫째, 타유와 카피타시옹을 없애고 뱅티엠의 수를 늘려 그 두 세금의 액수만큼 세입을 더 내게 한다면, 왕실의 세입은 지켜지고 걷는 비용은 크게 줄고 타유와 카피타시옹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안기는 괴로움은 온통 막히며, 높은 계층도 그들 대다수가 지금 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뱅티엠은 잉글랜드에서 토지세라 부르는 것과 거의 같은 갈래의 세금임을 나는 이미 밝혔다. 타유의 짐은 끝내 토지의 임자에게 떨어짐이 인정되고 있으며, 카피타시옹의 큰 몫이 타유를 내는 이들에게 그 다른 세금 1파운드마다 얼마씩으로 매겨지므로 그 큰 몫을 끝내 치르는 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뱅티엠의 수를 늘려 그 두 세금의 액수만큼 세입을 더 내게 하더라도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더 무거워지는 이도 적지 않을 터이니, 타유가 사람마다의 땅과 차지인에게 으레 몹시 고르지 못하게 매겨지는 까닭이다. 이런 두둔을 받는 신민의 이해와 반대야말로 이 손질이나 같은 갈래의 다른 손질을 막을 성싶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둘째, 가벨과 에드와 트레트와 담배에 물리는 세금과 온갖 관세와 소비세를 왕국의 여러 지역에서 한결같게 만든다면, 그 세금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걷을 수 있고 왕국 안의 상업을 잉글랜드의 것만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세금을 정부의 곧바른 감독과 지휘 아래 있는 행정에 맡긴다면, 총괄 징세 청부인의

터무니없는 이윤이 나라의 세입에 보태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의 사사로운 이해에서 나오는 반대는 먼저 말한 손질에서와 마찬가지로 뒤의 두 가지를 막는 데에도 힘을 쓸 성싶다.

프랑스의 과세 제도는 어느 모로 보나 영국의 것보다 못해 보인다. 영국에서는 해마다 1,000만 파운드 스털링이 800만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걷히는데, 어느 특정한 계층이 억눌린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엑스피이 신부의 『모음집』과 『곡물의 입법과 거래에 관한 논고』를 쓴 이의 살핌으로 미루어 보면, 프랑스는 로렌과 바르 지방까지 넣어 2,300만이나 2,400만쯤의 사람을 지녔으리라고 보이니, 아마 영국의 세 곱절일 것이다. 프랑스의 땅과 기후는 영국의 것보다 낫다. 그 나라는 훨씬 오래 개량되고 경작되어 온 터라 그런 까닭에 기르고 쌓는 데에 오랜 세월이 드는 온갖 것을, 이를테면 큰 도시와 도시에도 시골에도 있는 편하고 잘 지은 집을 더 잘 갖추고 있다. 이런 이로움을 지녔으니, 프랑스에서는 나라를 떠받치는 데에 3,000만의 세입을 영국에서 1,000만의 세입을 걷는 것만큼이나 적은 불편으로 걷을 수 있으리라고 바랄 만하다. 1765년과 1766년에 프랑스의 국고로 들어간 온 세입은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나도 인정하거니와 아주 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가장 나은 셈에 따르면 으레 3억 800만에서 3억 2,500만 리브르 사이를 오갔다. 곧 1,500만 파운드 스털링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과 같은 비로 그 수에 맞추어 갹출하였더라면 바랄 수 있었을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보다 세금에 훨씬 더 시달린다는 것은 두루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너그럽고 가장 관대한 정부를 누리는 큰 제국임에 틀림없다.

네덜란드에서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물리는 무거운 세금이 으뜸가는 제조업을 망쳐 놓았다고 하며, 어업과 배 짓는 일까지도 차츰

주저앉힐 성싶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물리는 세금이 대수롭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망한 제조업은 여태 하나도 없다. 영국의 세금 가운데 제조업을 가장 모질게 누르는 것은 원료를 들여오는 데에, 특히 생사를 들여오는 데에 물리는 몇 가지 세금이다. 그런데 연방의회[7]와 여러 도시의 세입은 525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다고 하며, 네덜란드 연방의 주민은 영국의 3분의 1보다 많다고 보기 어려우니, 그들은 그 수에 견주어 훨씬 무겁게 과세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과세하기에 알맞은 대상이 죄다 바닥나고도 나라의 다급함이 여전히 새 세금을 요구한다면, 알맞지 않은 대상에 물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물리는 세금이라 하여, 제 독립을 얻고 지키려고 그 큰 검약에도 큰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든 값비싼 전쟁에 휘말려 온 저 공화국의 슬기를 탓할 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네덜란드와 제일란트라는 남다른 땅은 제 있음을 지키는 데에도, 곧 바다에 삼켜지지 않으려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드니, 그것이 그 두 지방의 세금 짐을 크게 무겁게 하는 데에 한몫하였음에 틀림없다. 지금 네덜란드가 누리는 위세를 떠받치는 으뜸가는 기둥은 공화정이라는 정체로 보인다. 큰 자본을 가진 이들, 곧 큰 상인 집안은 대개 그 정부의 행정에 얼마쯤 곧바로 끼거나 얼마쯤 에둘러 입김을 넣는다. 그 자리에서 얻는 존경과 권위를 위하여 그들은 제 자본을 손수 굴리면 이윤이 덜하고 남에게 빌려 주면 이자가 덜하며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어지간한 수입으로 유럽 어디에서보다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과 편하게 해 주는 것을 적게 살 수 있는 나라에 기꺼이 산다. 이렇게 넉넉한 이들이 머물러 사는 것이 온갖 불리함에도 그 나라에 어느 만큼의 산업을 살려 두는 것임에 틀림없다. 공화정이라는 정체를 무너뜨리고 온 행정을 귀족과 군인의 손에 넘기며 그 넉넉한 상인들의 무게를 아주 없애 버릴 어떤 나라의 재앙이 닥친다면, 그들은 머잖아

제가 더는 크게 존경받을 성싶지 않은 나라에 사는 것이 싫어질 것이다. 그들은 제 사는 곳도 제 자본도 다른 나라로 옮길 터이고, 네덜란드의 산업과 상업은 머잖아 그것을 떠받치던 자본을 따라갈 것이다.

3장 — 공채에 대하여

상업이 뻗어 나가고 제조업이 나아지기에 앞선 저 거친 사회 상태에서는, 상업과 제조업만이 들여올 수 있는 저 값비싼 사치품이 아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큰 수입을 가진 사람은 그 수입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길 말고는 그것을 쓰거나 누릴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 『탐구』의 3편에서 밝혀 보려 하였다. 큰 수입이란 언제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많이 부릴 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거친 상태에서 그것은 으레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많이 받는 꼴로, 곧 수수한 먹을거리와 거친 옷감의 재료로, 곡물과 가축으로, 양모와 날가죽으로 치러진다. 상업도 제조업도 제 소비를 넘고 남는 그 재료의 큰 몫을 임자가 맞바꿀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때, 그는 그 남는 것으로 그것이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치가 없는 손님 대접과 겉치레가 없는 너그러움이 이런 사정에서 넉넉하고 높은 이들의 으뜸가는 비용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이 그것으로 제 몸을 망치기 쉬운 비용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같은 편에서 밝혀 보려 하였다. 아무리 하찮은 제 잇속의 즐거움이라도 그것을 좇다가 슬기로운 사람조차 망한 일이 없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닭싸움에 빠져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갈래의 손님 대접이나 너그러움 때문에 망한 사람의 보기는 내가 믿기로 그리 많지 않다. 사치의 손님 대접과 겉치레의 너그러움이 망하게 한 사람은 많지만 말이다. 우리의 봉건

조상들 사이에서 땅이 한 집안에 머물러 있던 긴 세월은 사람들이 제 수입 안에서 살려는 마음을 두루 지녔음을 넉넉히 보여 준다. 큰 지주가 늘 베풀던 시골식 손님 대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좋은 살림살이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여기기 쉬운 저 질서와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적어도 제 수입을 죄다 써 버리는 일이 예사롭지 않았던 만큼은 그들이 검약하였다고 우리는 틀림없이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대개 제 양모와 날가죽의 얼마를 돈을 받고 팔 기회를 지녔다. 이 돈의 얼마는 아마 그때의 사정이 마련해 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허영과 사치의 물건을 사는 데에 썼을 터이나, 얼마는 으레 쟁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그들은 제가 아낀 돈이 무엇이든 그것을 쟁여 두는 일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다. 장사는 신사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때에 고리대로 여겨져 법으로 금지되었던 돈놀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저 사나움과 어지러움의 시대에는 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길 때 값어치가 알려진 무엇인가를 안전한 곳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돈을 쟁여 두는 것이 편하였다. 쟁여 두는 것을 편하게 만든 그 사나움이 쟁여 둔 것을 숨기는 일도 똑같이 편하게 만들었다. 땅에 묻힌 보물, 곧 임자를 알 수 없이 발견되는 보물이 잦았다는 것은 그때에 쟁여 두는 일도 쟁여 둔 것을 숨기는 일도 잦았음을 넉넉히 보여 준다. 그때에 땅에 묻힌 보물은 주권자의 세입에서 중요한 갈래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왕국 안의 땅에 묻힌 보물을 죄다 모아도 좋은 땅을 지닌 여느 신사의 수입에서조차 중요한 갈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끼고 쟁여 두려는 같은 마음이 신민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자에게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상업과 제조업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주권자는 쌓기에 필요한 절약으로 저절로 기울게 하는 자리에 놓여 있음을 나는 4편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 자리에서는 주권자의 씀씀이조차 궁정의 번쩍이는 화려함을 즐기는 저 허영이 이끌 수 없다.

그 시대의 무지는 그 화려함을 이루는 노리개를 거의 마련해 주지 못한다. 그때에는 상비군도 필요하지 않으니, 주권자의 씀씀이조차 다른 어느 큰 영주의 것과 마찬가지로 제 차지인에게 베푸는 은혜와 제 딸린 이들에게 베푸는 손님 대접 말고는 거의 어디에도 쓰일 데가 없다. 그런데 은혜와 손님 대접은 헤픔으로 이어지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허영은 거의 늘 그리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유럽의 옛 주권자는 모두 재물을 쌓아 두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타타르의 족장은 저마다 하나씩 지녔다고들 한다.

온갖 갈래의 값비싼 사치가 넘쳐나는 상업 나라에서 주권자는 제 영지 안의 거의 모든 큰 임자와 마찬가지로 제 세입의 큰 몫을 저절로 그런 사치품을 사는 데에 쓴다. 제 나라와 이웃 나라가 궁정의 번쩍이되 하찮은 겉치레를 이루는 온갖 값비싼 노리개를 그에게 넉넉히 대 준다. 그의 귀족들은 같은 갈래의 더 낮은 겉치레를 위하여 제 딸린 이들을 내보내고 제 차지인을 제 힘으로 서게 만들며, 그리하여 차츰 제 영지 안 넉넉한 시민의 큰 몫만큼이나 하찮은 존재가 된다. 그들의 몸가짐을 움직이는 그 하찮은 욕망이 그의 몸가짐도 움직인다. 그가 제 영지 안에서 이런 갈래의 즐거움에 무딘 하나뿐인 넉넉한 사람이리라고 어찌 여길 수 있겠는가? 그가 나라의 지킬 힘을 몹시 허물어뜨릴 만큼 제 세입의 큰 몫을 그런 즐거움에 쓰지 않는다면, 그러기도 아주 쉬운 일이지만, 그 지킬 힘을 떠받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넘고 남는 몫을 죄다 거기에 쓰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예사로운 씀씀이는 그의 예사로운 세입과 맞먹게 되고, 그것을 자주 넘어서지 않으면 다행이다. 재물을 쌓는 일은 더는 바랄 수 없게 되고, 남다른 다급함이 남다른 비용을 요구할 때 그는 제 신민에게 남다른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1610년에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죽은 뒤로 이렇다 할 재물을 쌓았다고 여겨지는 유럽의 큰 군주는 지금의 프로이센 국왕과 그 앞의

국왕뿐이다. 쌓기로 이어지는 절약은 군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화정에서도 거의 드문 일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공화국도 네덜란드 연방도 죄다 빚을 지고 있다. 유럽에서 이렇다 할 재물을 쌓은 하나뿐인 공화국은 베른 주다. 다른 스위스 공화국은 그러지 못하였다. 어떤 갈래의 겉치레, 적어도 으리으리한 건물과 그 밖의 공공 장식을 즐기는 취향은 작은 공화국의 겉보기에 점잖은 의사당에서도 가장 큰 국왕의 흥청거리는 궁정에서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는 일이 잦다.

평화로울 때에 절약하지 않으면 전쟁 때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닥쳐도 국고에는 평시 살림의 예사로운 비용을 치를 만한 돈밖에 없다. 전쟁 때에는 나라를 지키려면 그 비용의 서너 곱절이 되는 살림이 필요해지고, 따라서 평시 세입의 서너 곱절이 되는 세입이 필요해진다. 주권자가 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제 세입을 늘릴 길을 당장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 세입의 늘어남을 끌어낼 세금의 생산은 그것을 물린 뒤 아마 열 달이나 열두 달이 지나서야 국고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 아니 차라리 터질 성싶어 보이는 그 순간에 군대를 늘리고 함대를 꾸리고 수비대를 둔 도시를 지킬 태세로 만들어야 하며, 그 군대와 그 함대와 그 도시에 무기와 탄약과 식료품을 대 주어야 한다. 눈앞의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 당장 큰 비용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새 세금이 더디고 느리게 회수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다급할 때에 정부에는 빌리는 것 말고는 달리 손쓸 길이 없다.

도덕적인 까닭이 움직여 정부를 이런 모로 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업 사회 상태가 신민에게는 빌려 줄 힘과 빌려 줄 마음을 함께 낳는다. 그것이 으레 빌릴 수밖에 없음을 함께 가져온다면, 빌리기 쉬움도 함께 가져오는 것이다.

상인과 제조업자가 넘치는 나라에는 제 자본만이 아니라 제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을 맡기는 모든 이의 자본까지 제 손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 잦기는 장사도 사업도 없이 제 수입으로 사는 여느 사람의 수입이 그의 손을 거쳐 가는 것과 같거나 그보다 잦다. 그런 사람의 수입은 한 해에 한 번밖에 규칙적으로 그의 손을 거쳐 갈 수 없다. 그러나 회수가 아주 빠른 장사를 하는 상인의 자본과 신용을 합한 액수는 더러 한 해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 그의 손을 거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인과 제조업자가 넘치는 나라에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많은 돈을 언제든 정부에 먼저 대 줄 힘을 지닌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다. 상업 나라의 신민이 빌려 줄 힘은 여기서 나온다.

상업과 제조업은 사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제 재산을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 계약의 신의가 법으로 떠받쳐지지 않는 나라, 치를 힘이 있는 모든 이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데에 나라의 권위가 규칙적으로 쓰인다고 여겨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오래 번성하는 일이 드물다. 한마디로 상업과 제조업은 정부의 정의에 어느 만큼의 믿음이 없는 나라에서 오래 번성하는 일이 드물다. 큰 상인과 제조업자가 예사로운 때에 제 재산을 어떤 정부의 보호에 맡기게 만드는 그 믿음이, 남다른 때에는 그 정부에 제 재산을 쓰라고 맡기게 만든다. 정부에 돈을 빌려 준다고 하여 그들은 제 장사와 제조업을 해 나갈 힘을 한순간도 줄이지 않으며, 도리어 으레 그 힘을 키운다. 나라의 다급함은 대개 정부로 하여금 빌려 주는 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로운 조건으로 기꺼이 빌리게 만든다. 정부가 처음 빌려 준 이에게 내주는 증서는 다른 어떤 빚쟁이에게든 넘길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라의 정의에 대한 두루한 믿음 덕분에 대개 처음 치른 값보다 비싸게 시장에서 팔린다. 상인이나 돈을 굴리는 이는 정부에 돈을 빌려 주어

돈을 벌고 제 장사 자본을 줄이기는커녕 늘린다. 그러므로 그는 정부가 새로 빌리는 돈의 첫 응모에 한몫 끼워 주면 으레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상업 나라의 신민이 빌려 줄 마음 곧 뜻은 여기서 나온다.

그런 나라의 정부는 남다른 때에 제게 돈을 빌려 줄 신민의 이 힘과 뜻에 기대어 눌러앉기 아주 쉽다. 그것은 빌리기 쉬움을 내다보고 그리하여 아끼는 의무에서 스스로를 놓아 준다.

거친 사회 상태에는 큰 상업 자본도 제조업 자본도 없다. 아낄 수 있는 돈이면 무엇이든 쟁여 두고 그 쟁여 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그러는 까닭은 정부의 정의를 믿지 못하는 데에, 곧 제게 쟁여 둔 것이 있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가 알려지면 이내 털리리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런 사정에서는 남다르게 다급할 때 정부에 돈을 빌려 줄 힘이 있는 사람도 적을 터이고 빌려 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권자는 빌리기가 아주 불가능함을 내다보기에 아껴서 그런 다급함에 대비해야 함을 느낀다. 이 내다봄이 아끼려는 그의 타고난 마음을 한층 더 키운다.

오늘날 유럽의 모든 큰 나라를 짓누르고 길게 보아 아마 망하게 할 저 어마어마한 빚이 불어난 길은 어디서나 꽤 한결같았다. 나라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개 이른바 개인 신용으로, 곧 빚을 갚을 어떤 기금도 떼어 주거나 저당 잡히지 않고 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길이 막히면 특정한 기금을 떼어 주거나 저당 잡히고 빌리는 데로 나아갔다.

영국에서 공채로 발행되지 않은 빚이라 부르는 것은 그 두 길 가운데 앞엣것으로 진 것이다. 그것은 얼마는 이자가 붙지 않거나 붙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빚, 곧 여느 사람이 외상으로 지는 빚을 닮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얼마는 이자가 붙는 빚, 곧 여느 사람이 제 어음이나 약속 어음으로 지는 빚을 닮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남다른 일을 시키고 치러야 할 빚이나,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았거나 일을 시킨 그때에 치르지

않아 생긴 빚, 곧 육군과 해군과 병기창의 임시 비용의 얼마, 외국 군주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의 밀린 몫, 선원의 밀린 임금 따위가 으레 첫째 갈래의 빚을 이룬다. 그런 빚의 얼마를 치르느라 더러 발행하고 더러 다른 일로도 발행하는 해군 증권과 재무부 증권[8]이 둘째 갈래의 빚을 이루는데, 재무부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이자가 붙고 해군 증권은 발행하고 여섯 달 뒤부터 이자가 붙는다. 잉글랜드 은행은 그런 증권을 그때그때의 값으로 제 뜻에 따라 할인해 주거나, 얼마간의 대가를 받고 재무부 증권을 돌리기로 곧 그것을 평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붙은 이자를 치러 주기로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그 값을 떠받치고 그 돌림을 쉽게 하며, 그리하여 자주 정부가 이런 갈래의 아주 큰 빚을 질 수 있게 만든다. 은행이 없는 프랑스에서는 국가 증권 곧 빌레 데타(『재정에 관한 정치적 고찰의 검토』를 보라)가 더러 60퍼센트나 70퍼센트 할인된 값에 팔렸다. 윌리엄 국왕 때의 큰 개주 동안 잉글랜드 은행이 여느 거래를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을 때, 재무부 증권과 탤리 막대는 25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할인된 값에 팔렸다고 한다. 그것은 의심할 것 없이 얼마는 명예혁명으로 세워진 새 정부가 흔들린다고 여겨진 탓이지만, 얼마는 또 잉글랜드 은행이 떠받쳐 주지 않은 탓이기도 하였다.

이 길이 바닥나고 돈을 마련하려면 빚을 갚을 공공 세입의 어떤 특정한 갈래를 떼어 주거나 저당 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정부는 때에 따라 이것을 두 가지 다른 길로 해 왔다. 더러는 이 떼어 줌이나 저당 잡힘을 짧은 동안만, 이를테면 한 해나 몇 해 동안만 하였고, 더러는 영구히 하였다. 앞의 경우에 그 기금은 정해진 동안 안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다 치르기에 넉넉하다고 여겨졌다. 뒤의 경우에 그것은 이자만, 곧 이자에 맞먹는 영구 연금만 치르기에 넉넉하다고 여겨졌고, 정부는 빌린 원금을 되갚으면 언제든 이 연금을 되살 수 있었다. 앞의

길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앞당겨 쓰기로 마련한다 하였고, 뒤의 길로 마련하는 것을 영구 공채 발행으로, 더 줄여서 공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하였다.[9]

영국에서는 해마다 걷는 토지세와 엿기름세를 그것을 물리는 법에 늘 끼워 넣는 차입 조항 덕분에 해마다 꼬박꼬박 앞당겨 쓴다. 잉글랜드 은행은 명예혁명 뒤로 8퍼센트에서 3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이자를 받고 그 세금으로 걷기로 한 액수를 대개 먼저 대 주며, 그 생산이 차츰 들어오는 대로 갚음을 받는다.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늘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이듬해의 공급으로 메운다. 아직 저당 잡히지 않고 남은 하나뿐인 이렇다 할 공공 세입의 갈래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전에 꼬박꼬박 써 버려진다. 앞뒤 가리지 않는 헤픈 사람이 제 급한 사정 때문에 제 수입이 제때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나라는 제 대리인과 심부름꾼에게서 빌리고 제 돈을 쓴 값으로 이자를 치르는 짓을 늘 되풀이한다.

윌리엄 국왕의 치세와 앤 여왕 치세의 큰 몫 동안, 곧 우리가 오늘날처럼 영구 공채 발행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새 세금의 큰 몫이 짧은 동안만(네 해나 다섯 해나 여섯 해나 일곱 해만) 물려졌고, 해마다 걷는 돈의 큰 몫은 그 세금의 생산을 앞당겨 쓰는 차입으로 이루어졌다. 그 생산이 정해진 기한 안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치르기에 모자라는 일이 잦아 모자람이 생겼고, 그것을 메우려면 기한을 늘일 수밖에 없었다.

1697년에 「윌리엄 3세 치세 8년의 법 제20장」[10]으로 여러 세금의 모자람이 그때 첫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부르던 것에 얹혔다. 그것은 더 짧은 기한 안에 끝났을 여러 가지 세금을 1706년 8월 1일까지 늘여 잡고 그 생산을 하나의 일반 기금으로 모은 것이었다. 이렇게 늘인

기한에 얹힌 모자람은 516만 459파운드 14실링 9와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1701년에 그 세금은 몇 가지를 더하여 같은 일로 1710년 8월 1일까지 한층 더 늘여 잡혔고 둘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불렸다. 거기에 얹힌 모자람은 205만 5,999파운드 7실링 11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1707년에 그 세금은 새로 빌리는 돈의 기금으로 1712년 8월 1일까지 한층 더 늘여 잡혔고 셋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불렸다.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액수는 98만 3,254파운드 11실링 9와 4분의 1펜스였다.

1708년에 그 세금은 죄다(톤세와 파운드세라는 구보조세[11]는 그 절반만 이 기금의 한몫이 되었고, 합병 조약으로 없어진 스코틀랜드 아마포 수입에 물리던 관세는 빠졌다) 새로 빌리는 돈의 기금으로 1714년 8월 1일까지 한층 더 이어졌고 넷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불렸다.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액수는 92만 5,176파운드 9실링 2와 4분의 1펜스였다.

1709년에 그 세금은 죄다(톤세와 파운드세라는 구보조세는 이제 이 기금에서 아예 빠졌다) 같은 일로 1716년 8월 1일까지 한층 더 이어졌고 다섯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불렸다.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액수는 92만 2,029파운드 6실링이었다.

1710년에 그 세금은 1720년 8월 1일까지 다시 늘여 잡혔고 여섯째 일반 저당 곧 기금이라 불렸다.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액수는 129만 6,552파운드 9실링 11과 4분의 3펜스였다.

1711년에 그 같은 세금은(이때 이미 네 번이나 앞당겨 쓰이고 있었다) 몇 가지를 더하여 영구히 이어졌고, 남해 회사[12]가 그해에 빚을 갚고 모자람을 메우라고 정부에 먼저 대 준 917만 7,967파운드 15실링 4펜스, 곧 그때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차입의 자본에 붙는 이자를 치를 기금이 되었다.

이때보다 앞서 빚의 이자를 치르려고 영구히 물린 세금은 내가 살필 수 있었던 한 주로, 아니 오직 잉글랜드 은행과 동인도회사가 정부에 먼저 대 준 돈과 어떤 토지 은행을 세워 대 주기로 기대하였으나 끝내 대 주지 못한 돈의 이자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이때 은행 기금은 337만 5,027파운드 17실링 10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고 그에 대하여 20만 6,501파운드 15실링 5펜스의 연금 곧 이자가 치러졌다. 동인도 기금은 320만 파운드에 이르렀고 그에 대하여 16만 파운드의 연금 곧 이자가 치러졌다. 은행 기금은 6퍼센트, 동인도 기금은 5퍼센트 이자였다.

1715년에 「조지 1세 치세 1년의 법 제12장」으로 은행 연금을 치르려고 저당 잡혔던 여러 세금이, 이 법으로 마찬가지로 영구하게 된 몇 가지 다른 세금과 함께 총괄 기금이라 부르는 하나의 공동 기금으로 모였는데, 그 기금은 은행 연금을 치르는 일뿐 아니라 여러 다른 연금과 갖가지 짐도 떠맡았다. 이 기금은 그 뒤에 「조지 1세 치세 3년의 법 제8장」과 「조지 1세 치세 5년의 법 제3장」으로 불어났고, 그때 거기에 더해진 여러 세금도 마찬가지로 영구하게 되었다.

1717년에 「조지 1세 치세 3년의 법 제7장」으로 다른 몇 가지 세금이 영구하게 되어 일반 기금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공동 기금으로 모였고, 모두 합하여 72만 4,849파운드 6실링 10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는 얼마간의 연금을 치르는 데에 쓰였다.

이 여러 법의 결과로, 앞서 짧은 햇수 동안만 앞당겨 쓰이던 세금의 큰 몫이 영구하게 되어, 잇따라 여러 번 앞당겨 쓰며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돈의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을 치르는 기금이 되었다.

앞당겨 쓰기 말고는 결코 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부가 기금에 정해진 기한 안에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빚을 얹어 그것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는 것과 첫 번째 앞당겨 쓰기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로 앞당겨 쓰지 않는 것 말고는 달리 마음 쓸 것 없이 몇 해 안에 공공

세입이 풀려났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정부의 큰 몫은 그만큼도 마음 쓸 줄 몰랐다. 그들은 첫 번째 앞당겨 쓰기에서부터 기금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일이 잦았고, 어쩌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대개 첫 번째 앞당겨 쓰기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앞당겨 써서 기어이 그것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다. 이런 모로 기금이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다 치르기에 아주 모자라게 되자, 그 기금에 이자만을, 곧 이자에 맞먹는 영구 연금만을 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앞당겨 쓴 일이 영구 공채 발행이라는 더 망하게 하는 짓을 낳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짓은 공공 세입이 풀려날 때를 정해진 시점에서 언제 올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아마 영영 오지 않을 성싶은 시점으로 미루어 놓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나 옛 앞당겨 쓰기보다 더 많은 돈을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번 그것에 익숙해지자 나라가 크게 다급할 때마다 어디서나 옛 길보다 이 새 길을 더 좋아하였다. 눈앞의 다급함을 더는 것이야말로 늘 나라 살림을 곧바로 맡은 이들이 무엇보다 마음을 쓰는 일이다. 공공 세입이 앞으로 풀려나는 일은 그들이 뒷사람의 몫으로 남겨 둔다.

앤 여왕의 치세 동안 시장 이자율은 6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내렸고, 그 치세 12년에 5퍼센트가 사사로운 담보로 빌린 돈에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율로 선포되었다. 영국의 한때뿐인 세금의 큰 몫이 영구하게 되어 총괄 기금과 남해 기금과 일반 기금으로 나뉘어 들어간 얼마 뒤, 나라의 빚쟁이들은 여느 사람의 빚쟁이들과 마찬가지로 제 돈의 이자로 5퍼센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영구 공채로 발행된 빚의 큰 몫의 자본에서 1퍼센트가, 곧 앞에서 말한 세 큰 기금에서 치르던 연금의 큰 몫에서 6분의 1이 아껴졌다. 이 절약으로 그 기금에 모아 두었던 여러 세금의 생산에서, 이제 거기에 얹힌 연금을 치르는 데에 필요한 것을 넘고 남는 것이 적잖이 생겼고, 그것이 그 뒤로

감채 기금이라 불려 온 것의 바탕을 놓았다. 1717년에 그것은 52만 3,454파운드 7실링 7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1727년에 공채의 큰 몫에 붙는 이자가 4퍼센트로 한층 더 내렸고, 1753년과 1757년에 3.5퍼센트와 3퍼센트로 내려, 이 내림이 감채 기금을 한층 더 키웠다.

감채 기금은 옛 빚을 갚으려고 세워진 것이건만 새 빚을 지는 일을 몹시 쉽게 만든다. 그것은 나라가 다급할 때 돈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미덥지 못한 다른 어떤 기금을 거들도록 저당 잡히려고 늘 옆에 놓여 있는 딸림 기금이다. 영국의 감채 기금이 그 두 가지 쓰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자주 쓰였는지는 곧 넉넉히 드러날 것이다.

앞당겨 쓰기와 영구 공채 발행이라는 이 두 가지 빌리는 길 말고도 그 사이 어디쯤에 놓이는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으니, 곧 정해진 햇수 동안의 연금을 밑천으로 빌리는 길과 종신 연금을 밑천으로 빌리는 길이다.

윌리엄 국왕과 앤 여왕의 치세 동안 더러는 길고 더러는 짧은 정해진 햇수 동안의 연금을 밑천으로 큰돈을 빌리는 일이 잦았다. 1695년에 14퍼센트의 연금, 곧 해마다 14만 파운드를 열여섯 해 동안 치르기로 하고 100만 파운드를 빌리는 법이 통과되었다. 1691년에는 오늘날 보면 아주 이로워 보일 조건으로 종신 연금을 밑천으로 100만 파운드를 빌리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응모가 다 차지 않았다. 이듬해에 그 모자람은 14퍼센트, 곧 일곱 해 값이 조금 넘는 값으로 종신 연금을 밑천으로 빌려 메웠다. 1695년에 그 연금을 샀던 이들은 재무부에 100에 63파운드를 치르면 그것을 아흔여섯 해짜리 연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곧 종신 14퍼센트와 아흔여섯 해 동안의 14퍼센트의 차이가 63파운드, 곧 네 해 반 값에 팔린 것이다. 정부가 그만큼 흔들린다고 여겨진 터라 이런 조건으로도 사는 이가 얼마 없었다. 앤 여왕의 치세에는 때에 따라 종신 연금을 밑천으로도, 서른두 해와 여든아홉 해와 아흔여덟 해와 아흔아홉 해 동안의 연금을 밑천으로도 돈을

빌렸다. 1719년에 서른두 해짜리 연금의 임자들은 그 대신 그 연금의 열한 해 반 값에 이르는 남해 회사 자산과, 그때 그 연금에 밀려 있던 몫에 맞먹는 자산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 1720년에 길든 짧든 정해진 햇수 동안의 다른 연금의 큰 몫이 같은 기금으로 응모되어 들어갔다. 그때 긴 연금은 해마다 66만 6,821파운드 8실링 3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1775년 1월 5일에 그 나머지, 곧 그때 응모되지 않은 것은 13만 6,453파운드 12실링 8펜스밖에 되지 않았다.

1739년과 1755년에 시작된 두 전쟁 동안에는 정해진 햇수 동안의 연금을 밑천으로도 종신 연금을 밑천으로도 돈을 거의 빌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흔여덟 해나 아흔아홉 해짜리 연금은 영구 연금과 거의 맞먹는 값어치가 있으니, 그렇다면 거의 그만큼을 빌릴 기금이 될 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집안의 재산을 물려줄 자리를 잡고 먼 뒷날을 대비하려고 공채 자산을 사들이는 이들은 그 값어치가 끊임없이 줄어드는 것을 사려 들지 않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산을 가진 이와 사는 이 가운데 아주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오랜 햇수 동안의 연금은 그 속값어치가 영구 연금의 것과 거의 같다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사는 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대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 응모분을 팔려고 하는, 새로 빌리는 돈의 응모자들은 같은 액수라면 오랜 햇수 동안의 되살 수 없는 연금보다 의회가 되살 수 있는 영구 연금을 훨씬 좋아한다. 앞엣것의 값어치는 늘 같거나 거의 같다고 여길 수 있으므로, 그것이 뒤엣것보다 넘기기 편한 자산이 된다.

앞에서 말한 두 전쟁 동안 정해진 햇수 동안의 연금이든 종신 연금이든 그것을 내준 일은 드물었고, 내주더라도 그것을 밑천으로 빌렸다고 여겨지는 되살 수 있는 연금 곧 이자 위에 새로 빌리는 돈의 응모자들에게 얹어 주는 포상금으로만 내주었다. 그것은 돈을 빌리는

본디 기금으로 내준 것이 아니라 빌려 주는 이를 북돋우려고 덧붙인 것이었다.

종신 연금은 때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길로 내주어졌으니, 하나하나의 목숨을 밑천으로 삼거나 프랑스 말로 그것을 지어낸 이의 이름을 따 톤틴[13]이라 부르는 목숨의 묶음을 밑천으로 삼았다. 하나하나의 목숨을 밑천으로 연금을 내주면 연금 받는 이가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그의 연금이 지우던 만큼 공공 세입의 짐이 벗겨진다. 톤틴으로 연금을 내주면 한 묶음에 든 연금 받는 이가 모두 죽기 전에는 공공 세입이 풀려나기 시작하지 않는데, 그 묶음은 더러 스무 사람이나 서른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살아남은 이들이 저보다 먼저 죽은 이들의 연금을 이어받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가 온 묶음의 연금을 이어받는다. 같은 세입으로 언제나 하나하나의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보다 톤틴으로 더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죽은 이의 몫을 이어받을 권리가 딸린 연금은 참으로 같은 액수의 하나뿐인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보다 값어치가 크며, 온갖 복권의 성공이 걸려 있는 저 원리, 곧 사람마다 제 운이 좋으리라고 저절로 믿는 마음 덕분에 그런 연금은 대개 제 값어치보다 얼마쯤 비싸게 팔린다. 정부가 연금을 내주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예사인 나라에서는 그래서 대개 하나하나의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보다 톤틴을 더 좋아한다. 가장 많은 돈을 마련해 줄 방편이 거의 언제나 공공 세입을 가장 빨리 풀려나게 해 줄 성싶은 방편보다 더 사랑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잉글랜드에서보다 공채 가운데 종신 연금이 차지하는 몫이 훨씬 크다. 1764년에 보르도 고등법원[14]이 국왕에게 올린 건의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온 공채는 24억 리브르로 어림되며, 그 가운데 종신 연금을 내주고 받은 자본은 3억 리브르, 곧 온 공채의 8분의 1에 이른다고 한다. 그 연금 자체는 해마다 3,000만 리브르, 곧 그 온 빚의

이자로 어림되는 1억 2,000만 리브르의 4분의 1에 이른다고 셈한다. 이 어림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을 올린 것이 그토록 존경할 만한 단체이고 참에 가까운 어림으로 내놓은 것이니, 내 생각에는 그런 것으로 여겨도 좋을 듯하다. 빌리는 길이 이렇게 서로 다른 까닭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두 정부가 공공 세입을 풀려나게 하려고 애쓰는 정도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온통 빌려 주는 이들의 보는 눈과 이해가 다른 데에서 나온다.

잉글랜드에서는 정부가 앉은 곳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인 까닭에 정부에 돈을 먼저 대 주는 사람은 대개 상인이다. 그것을 대 줌으로써 그들은 제 상업 자본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리려는 것이며, 새로 빌리는 돈에 응모한 제 몫을 얼마간의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으리라고 바라지 않는다면 결코 응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 돈을 대 주고 영구 연금이 아니라 제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종신 연금을 산다면, 그들이 그것을 늘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을 성싶지는 않다. 제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은 늘 손해를 보고 팔 터이니, 제 나이와 건강 상태가 저와 거의 같은 남의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에 제 목숨을 밑천으로 한 것과 같은 값을 치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제삼자의 목숨을 밑천으로 한 연금은 의심할 것 없이 사는 이에게도 파는 이에게도 값어치가 같다. 그러나 그 참값어치는 그것을 내준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동안 내내 더욱더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값어치가 늘 같거나 거의 같다고 여길 수 있는 영구 연금만큼 넘기기 편한 자산이 결코 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앉은 곳이 큰 상업 도시가 아닌 까닭에 정부에 돈을 먼저 대 주는 사람 가운데 상인이 차지하는 몫이 그리 크지 않다. 재정에 관여하는 이들, 곧 총괄 징세 청부인과 청부로 내주지 않은 세금을 거두는 이들과 궁정 은행가 따위가 나라가 다급할 때마다 제

돈을 대 주는 이들의 큰 몫을 이룬다. 그런 사람들은 으레 미천한 집안에서 났으나 큰 부를 지녔고 더러 큰 자만도 지녔다. 그들은 너무 도도하여 제 또래와 혼인하려 하지 않고, 지체 있는 집안의 여자는 그들과 혼인하기를 업신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 살기로 마음먹는 일이 잦으며, 제 집안도 없고 그리 기꺼이 아는 체하지도 않는 제 친척의 집안도 그리 마음에 두지 않는 터라, 그저 제 한세상 동안 으리으리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제 재산이 제 몸과 함께 끝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혼인하기를 꺼리거나 그 사는 처지가 혼인을 마땅치 않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넉넉한 사람의 수가 잉글랜드에서보다 프랑스에 훨씬 많다. 뒷사람을 거의 또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 자본을 저희가 바라는 동안 꼭 그만큼만 이어지고 더는 이어지지 않는 수입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편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정부의 큰 몫은 평화로울 때의 예사로운 씀씀이가 그 예사로운 세입과 맞먹거나 거의 맞먹으므로, 전쟁이 닥치면 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제 세입을 늘리려 하지도 않고 늘릴 수도 없다. 그러려 하지 않는 것은 세금이 그토록 크게 또 그토록 갑자기 오르면 머잖아 백성이 전쟁에 정나미가 떨어질 터라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서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어떤 세금이 바라는 세입을 낼 만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빌리기가 쉬운 덕분에 그들은 이 두려움과 이 못함이 없었더라면 겪었을 난처함에서 벗어난다. 빌림 덕분에 그들은 세금을 아주 어지간히 올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해 나가기에 넉넉한 돈을 해마다 마련할 수 있고, 영구 공채 발행이라는 짓 덕분에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적게 올리면서 해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큰 제국에서 수도에 사는 사람과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전쟁에서 오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고, 제 함대와 군대의 공훈을 신문에서 읽는 재미를 느긋이

누린다. 그들에게는 이 재미가 전쟁 때문에 내는 세금과 평화로울 때에 내던 세금 사이의 작은 차이를 메워 준다. 그들은 평화가 돌아와 제 재미와 전쟁이 더 이어지면 이루어지리라던 천 가지 헛된 정복과 나라의 영광의 꿈이 끝나 버리는 것을 으레 마뜩잖아한다.

참으로 평화가 돌아온다고 하여 전쟁 동안 물린 세금의 큰 몫이 벗겨지는 일은 드물다. 그 세금은 전쟁을 해 나가려고 진 빚의 이자를 치르도록 저당 잡혀 있다. 이 빚의 이자를 치르고 정부의 예사로운 씀씀이를 대고도 옛 세입에 새 세금을 더한 것이 얼마간의 세입을 남긴다면, 그것은 아마 빚을 갚을 감채 기금으로 돌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이 감채 기금은 설령 다른 데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가 이어지리라고 이치에 맞게 바랄 만한 어느 기간 안에 전쟁 동안 진 온 빚을 갚기에는 대개 아주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둘째로 이 기금은 거의 늘 다른 데에 쓰인다.

새 세금은 오로지 그것을 밑천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치르려고 물린 것이다. 그것이 더 많이 난다면 그것은 대개 뜻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것이고, 따라서 그리 많은 일이 드물다. 감채 기금은 대개 세금이 본디 거기에 얹힌 이자나 연금을 치르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 남아서라기보다 그 뒤에 그 이자를 내린 데에서 생겼다. 1655년 네덜란드의 감채 기금과 1685년 교황령의 감채 기금이 둘 다 이런 모로 만들어졌다. 그런 기금이 으레 모자라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더할 나위 없이 깊은 평화 속에서도 남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온갖 일이 생기는데, 정부는 늘 새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감채 기금을 딴 데에 돌려 쓰는 것이 이 비용을 대기에 더 편하다고 여긴다. 새 세금은 무엇이든 백성이 곧바로 얼마쯤 느낀다. 그것은 늘 얼마간의 투덜거림을 낳고 얼마간의 반대를 만난다. 세금이 여러 가지로 불어나 있을수록, 과세할 대상 하나하나에 세금이 높이 매겨져 있을수록, 백성은 새

세금마다 더 크게 하소연하고, 새로 과세할 대상을 찾아내기도 이미 옛 대상에 물린 세금을 훨씬 더 올리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빚 갚기를 잠깐 멈추는 것은 백성이 곧바로 느끼지 못하며 투덜거림도 하소연도 낳지 않는다. 감채 기금에서 빌리는 것은 눈앞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늘 뻔하고 손쉬운 방편이다. 공채가 쌓여 있을수록, 그것을 줄일 길을 궁리하는 일이 그만큼 더 절실해질수록, 감채 기금의 어느 몫이라도 딴 데에 돌려 쓰는 것이 그만큼 더 위험하고 그만큼 더 망하게 하는 짓이 될수록, 공채가 이렇다 하게 줄어들 성싶음은 그만큼 적어지고 감채 기금이 평화로울 때에 생기는 온갖 남다른 비용을 대는 데로 돌려 쓰일 성싶음은, 아니 돌려 쓰이고야 말 것임은 그만큼 커진다. 한 나라가 이미 세금에 짓눌려 있을 때, 오직 새 전쟁의 다급함만이, 오직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는 앙심이나 나라의 안전을 바라는 애탐만이 백성으로 하여금 새 세금을 그런대로 참고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감채 기금이 으레 딴 데에 돌려 쓰이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

1. 옮긴이 — 외레순(the Sound)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좁은 물길로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다. 덴마크 국왕은 15세기부터 1857년까지 이곳을 지나는 배에 해협 통행세를 물렸다.

2. 옮긴이 — 저본은 「소금세와 소비세」(the salt duty, and excise duty)라 적었으나, 소금세 자체가 소비세이면서 다른 관리 밑에 있다는 뜻이므로 「an excise duty」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다.

3. 옮긴이 — 저본은 이 자리에 「소비되는 공동체」(consumable communities)라 적었으나 앞뒤 문단이 모두 소비재(consumable commodities)를 말하므로 그렇게 옮겼다.

4. 옮긴이 — 알카발라는 카스티야에서 걷던 매매세로 14세기에 자리 잡아 19세기까지 이어졌다. 헤로니모 데 우스타리스(1670~1732)는 스페인의 관료이자 저술가로 『상업과 항해론』(1724)을 썼다.

5. 옮긴이 — 타유는 직접세, 카피타시옹은 사람마다 매기던 인두세, 뱅티엠은 수입의 20분의 1을 매기던 세금, 가벨은 소금세, 에드는 술 따위에 물리던 소비세, 트레트는

관세, 도멘은 왕실 영지에서 나오던 수입이다. 총괄 징세 청부인(fermiers generaux)은 이 가운데 여러 세금을 청부로 걷던 금융가 집단이다. 다섯 큰 청부의 지방은 1664년에 콜베르가 만든 관세율표가 미치는 곳이고, 외국으로 치는 지방은 1667년 관세율표가 미치는 곳이다.

6. 옮긴이 — 리브르는 프랑스 혁명 전의 화폐 단위로 20수 곧 240드니에에 해당한다. 스미스 무렵에 1파운드 스털링은 대략 23리브르였다.

7. 옮긴이 — 연방 의회(States-General)는 네덜란드 연방을 이루던 일곱 주의 대표가 모이던 의회로 연방 전체의 일을 맡았다.

8. 옮긴이 — 재무부 증권(exchequer bills)과 해군 증권(navy bills)은 영국 정부가 돈이 모자랄 때 발행하던 단기 채무 증서다. 탤리 막대(tally)는 재무부가 금액만큼 눈금을 새겨 둘로 쪼갠 나무 막대로, 그 반쪽이 채권 증서 노릇을 하였다. 큰 개주는 1696년에 닳고 깎인 은화를 죄다 거두어 다시 찍은 일을 말한다.

9. 옮긴이 — 앞당겨 쓰기(anticipation)는 앞으로 들어올 세금의 생산을 담보로 미리 빌려 쓰는 것이고, 공채 발행(funding)은 세금을 영구히 매어 두고 그 이자만 치르기로 하고 빌리는 것이다. 앞엣것은 갚을 기한이 정해져 있고 뒤엣것은 없다.

10.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와 그 회기의 몇 번째 법인지로 가리킨다. 윌리엄 3세는 1689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8년은 1696~1697년 회기다.

11. 옮긴이 — 톤세와 파운드세(tonnage and poundage)는 배에 실린 포도주에 톤마다, 그 밖의 물건에 값 1파운드마다 물리던 관세로, 의회가 국왕에게 걷도록 허락한 가장 오래된 보조세다.

12. 옮긴이 — 남해 회사(South Sea Company)는 1711년에 세워져 정부의 빚을 떠안는 대신 스페인령 아메리카와의 무역 독점을 받기로 한 회사다. 1720년에 그 자산값이 부풀었다가 무너진 일을 남해 거품이라 부른다.

13. 옮긴이 — 톤틴은 나폴리 사람 로렌초 톤티(1602~1684)가 1653년에 프랑스 정부에 내놓은 방식이다. 여럿을 한 묶음으로 묶어 연금을 내주고 살아남은 이가 먼저 죽은 이의 몫을 이어받게 한다.

14. 옮긴이 — 프랑스의 파를망(parlement)은 오늘날의 의회가 아니라 국왕의 법령을 등록하고 재판을 맡던 최고 법원이다. 보르도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다.

3장 — 공채에 대하여 (이어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끝없이 공채를 발행하는 저 파멸을 부르는 방편에 처음 기댄 때로부터, 평화 때에 공채를 줄인 몫이 전쟁 때에 그것이 쌓인 몫과 견줄 만한 비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영국이 진 저 어마어마한 빚의 주춧돌이 처음 놓인 것은 1688년에 일어나 1697년 리스베이크 조약으로 매듭지어진 전쟁에서였다.[1]

1697년 12월 31일에 영국의 공채는 기금이 매겨진 것과 매겨지지 않은 것을 합쳐 21,515,742파운드 13실링 8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2] 그 빚의 큰 몫은 가까운 앞날의 세입을 미리 당겨 쓰는 꼴로 졌고 얼마는 종신 연금의 꼴로 졌으므로, 17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곧 네 해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는 갚아지고 얼마는 나라로 되돌아와 그 합이 5,121,041파운드 12실링 0과 4분의 3펜스가 되었으니, 이는 그 뒤로 그렇게 짧은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공채 줄임보다도 큰 것이었다. 그러므로 남은 빚은 16,394,701파운드 1실링 7과 4분의 1펜스밖에 되지 않았다.

1702년에 일어나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매듭지어진 전쟁에서 공채는 더욱더 쌓였다. 1714년 12월 31일에 그것은 53,681,076파운드 5실링 6과 2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단기 연금과 장기 연금을 남해 기금에 응모하게 한 일이 공채의 원금을 늘려서,[3] 1722년 12월 31일에 그것은 55,282,978파운드 1실링 3과 6분의 5펜스에 이르렀다. 빚을 줄이는 일은 1723년에 시작되었으나 어찌나 더디게 나아갔던지, 1739년 12월

31일까지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이어진 열일곱 해 동안 갚은 돈을 죄다 합쳐도 8,328,354파운드 17실링 11과 12분의 3펜스에 지나지 않았고,[4] 그때 공채의 원금은 46,954,623파운드 3실링 4와 12분의 7펜스에 이르렀다.

1739년에 일어난 스페인와의 전쟁과 머잖아 뒤따른 프랑스와의 전쟁이 빚을 더 늘려, 아헨 조약으로 그 전쟁이 매듭지어진 뒤인 1748년 12월 31일에 그것은 78,293,313파운드 1실링 10과 4분의 3펜스에 이르렀다. 열일곱 해 동안 이어진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거기서 덜어 낸 것은 8,328,354파운드 17실링 11과 4분의 1펜스뿐이었다. 아홉 해도 안 되게 이어진 전쟁이 거기에 31,338,689파운드 18실링 6과 6분의 1펜스를 보탰다. (제임스 포슬스웨이트의 『공공 세입의 역사』를 보라)

펠럼 씨가 정사를 맡고 있는 동안 공채의 이자가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내려갔고, 적어도 그것을 내리려는 조치가 취해졌다.[5] 감채기금이 늘어났고 공채의 얼마가 갚아졌다. 1755년, 곧 지난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영국에서 기금이 매겨진 빚은 72,289,675파운드에 이르렀다. 평화가 맺어진 1763년 1월 5일에 기금이 매겨진 빚은 122,603,336파운드 8실링 2와 4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기금이 매겨지지 않은 빚은 13,927,589파운드 2실링 2펜스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전쟁이 낳은 비용은 평화가 맺어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서, 1764년 1월 5일에 기금이 매겨진 빚이 얼마는 새로 꾸어서 얼마는 기금이 매겨지지 않은 빚의 얼마에 기금을 매겨서 129,586,789파운드 10실링 1과 4분의 3펜스로 늘어났는데도, 『영국의 무역과 재정에 관한 고찰』을 쓴 몹시 밝은 글쓴이에 따르면 그해와 그 이듬해에 회계에 올려진 기금이 매겨지지 않은 빚이 9,975,017파운드 12실링 2와 44분의 15펜스 더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쓴이에 따르면 1764년에 영국의 공채는 기금이 매겨진 것과 매겨지지 않은 것을 합쳐 139,561,807파운드 2실링

4펜스에 이르렀다. 게다가 1757년에 새로 꾸는 돈에 응모한 이들에게 포상으로 준 종신 연금은 열네 해 치 값으로 쳐서 472,500파운드로 매겨졌고, 마찬가지로 포상으로 1761년과 1762년에 준 여러 해에 걸친 장기 연금은 스물일곱 해 반 치 값으로 쳐서 6,826,875파운드로 매겨졌다. 일곱 해쯤 이어진 평화 동안 펠럼 씨의 신중하고 참으로 나라를 아끼는 정사도 600만 파운드의 묵은 빚을 갚아 내지 못했다. 거의 같은 길이로 이어진 전쟁 동안 7,500만 파운드가 넘는 새 빚을 졌다.

1775년 1월 5일에 영국에서 기금이 매겨진 빚은 124,996,086파운드 1실링 6과 4분의 1펜스에 이르렀다. 기금이 매겨지지 않은 빚은 큰 액수의 왕실비 빚을 빼고 4,150,236파운드 3실링 11과 8분의 7펜스였다.[6] 둘을 합치면 129,146,322파운드 5실링 6펜스다. 이 셈에 따르면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이어진 열한 해 동안 갚은 빚을 죄다 합쳐도 10,415,476파운드 16실링 9와 8분의 7펜스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적은 빚 줄임조차 죄다 나라의 예사로운 세입에서 아낀 것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그 예사로운 세입과는 아주 상관없는 몇 가지 바깥돈이 거기에 보태졌다. 그 가운데 세 해 동안 토지세를 1파운드에 1실링 더 매긴 것, 동인도회사가 제가 얻은 땅에 대한 값으로 내놓은 200만 파운드, 은행이 그 특허장을 다시 받으면서 내놓은 11만 파운드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다른 돈을 더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지난번 전쟁에서 생긴 것이므로 아마 그 전쟁 비용에서 빼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된 것은 이러하다.

프랑스에서 나포한 배를 판 돈..... 690,449파운드 18실링 9펜스

프랑스 포로를 두고 셈 맞춘 돈..... 670,000파운드 0실링 0펜스

넘겨받은 섬들을 팔아

들어온 돈..... 95,500파운드 0실링 0펜스

합계, ...1,455,949파운드 18실링 9펜스

이 액수에 채텀 백작과 콜크래프트 씨의 회계에 남은 돈과 그와 같은 갈래로 군대에서 아낀 다른 돈을 더하고,[7] 거기에 은행과 동인도회사에서 받은 것과 토지세를 1파운드에 1실링 더 매겨 얻은 것을 함께 더하면, 그 죄다는 500만 파운드를 훨씬 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평화가 맺어진 뒤로 나라의 예사로운 세입에서 아껴 갚은 빚은 해마다 고르게 쳐서 50만 파운드에도 이르지 못한다. 평화가 맺어진 뒤로 감채 기금이 자못 늘어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으니, 갚은 빚과, 되사들일 수 있는 4퍼센트 채권을 3퍼센트로 내린 것과, 받을 사람이 죽어 떨어져 나온 종신 연금이 그리 만든 것이다. 평화가 이어진다면 아마 이제 거기서 해마다 100만 파운드쯤을 빚을 없애는 데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도 100만 파운드를 치렀다. 그러나 그와 함께 큰 액수의 왕실비 빚이 갚아지지 않은 채 남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쟁에 휘말려 있으니 그 전쟁은 나아가면서 우리가 여태 치른 어느 전쟁 못지않게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여태 치른 어느 전쟁보다도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에게 1억 파운드가 넘는 빚을 더 지웠다.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이어진 열한 해 동안 갚은 빚은 1,000만 파운드 남짓이었는데, 일곱 해 동안 이어진 전쟁 동안 1억 파운드가 넘는 빚을 졌다) 다음 싸움철이 끝나기 전에 아마 지게 될 새 빚은 나라의 예사로운 세입에서 아껴 갚은 묵은 빚을 죄다 합친 것과 거의 맞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예사로운 세입에서 아낄 만한 어떤 것으로든 공채가 언젠가 온통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헛된 꿈이다.

유럽의 빚진 여러 나라의 공채 기금, 그 가운데서도 잉글랜드의 것을 두고 어떤 글쓴이는 그 나라의 다른 자본에 덧보태져 쌓인 큰 자본이며,

그 덕분에 무역이 넓어지고 제조업이 불어나고 토지가 그 다른 자본만으로 이루었을 것보다 훨씬 더 갈아지고 개량된다고 그려 왔다. 그는 나라에 돈을 꾸어 준 첫 채권자들이 정부에 내준 자본이, 그것을 내준 바로 그 순간부터,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얼마가 자본 노릇에서 돌려져 수입 노릇으로 넘어간 것이고, 생산적인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데에서 돌려져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데로 넘어가, 앞으로 다시 낳을 것이라는 바람조차 없이 대개 그해 안에 쓰이고 없어져 버린 것임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제가 내준 자본에 갈음하여 공채 기금에서 나오는 연금을 얻었고, 대개는 그 값어치가 내준 것보다 더 컸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연금은 그들에게 그 자본을 채워 주었고, 그들이 저의 장사와 일을 예전과 같은 만큼, 아니 어쩌면 더 큰 만큼 이어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곧 그들은 이 연금을 믿고 남에게서 새 자본을 꾸거나, 그것을 팔아 남에게서 제 것이 되는 새 자본을 정부에 내준 것과 맞먹거나 그보다 큰 만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남에게서 사거나 꾼 이 새 자본은 그 전에도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온갖 자본이 그러하듯 생산적인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쓰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정부에 돈을 내준 이들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쯤 새 자본이었을지라도 나라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다만 어떤 쓰임에서 빼내어 다른 쓰임으로 돌려진 자본일 뿐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부에 내준 것을 채워 주었으나 나라에는 채워 주지 않았다. 그들이 이 자본을 정부에 내주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쓰이는 자본이, 곧 해마다 나는 생산물의 몫이 하나가 아니라 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비용을 치르려고 저당 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해 안에 세입을 거둘 때에는, 개인의 수입 가운데 얼마가 한

갈래의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에서 다른 갈래의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로 돌려질 뿐이다. 그들이 그 세금으로 치르는 것의 얼마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본으로 쌓여 생산적인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쓰였을 수도 있으나, 그 큰 몫은 아마 쓰여 없어져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을 먹여 살리는 데에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치러진 공공 비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새 자본이 더 쌓이는 것을 얼마간 막기는 하나, 이미 있는 자본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다.

공공 비용을 공채 발행으로 치를 때에는, 그 전에 이 나라에 있던 어떤 자본을 해마다 무너뜨려서 치르는 것이고, 해마다 나는 생산물 가운데 그 전에 생산적인 노동을 먹여 살리기로 되어 있던 얼마를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비틀어서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세금은 같은 비용을 치르기에 넉넉한 세입을 그해 안에 거두었을 때보다 가벼우므로, 개인이 저마다 지닌 수입이 짐을 덜 지고, 따라서 그 수입의 얼마를 아껴 자본으로 쌓을 힘이 훨씬 덜 깎인다. 공채 발행이라는 길이 묵은 자본을 더 많이 무너뜨린다면, 그와 함께 그것은 그해 안에 거둔 세입으로 공공 비용을 치르는 길보다 새 자본을 쌓거나 얻는 것을 덜 막는다. 공채 발행이라는 체계 아래에서는 정부의 헤픔과 흥청거림이 이따금 사회의 온 자본에 내는 구멍을 개인의 검약과 근면이 더 쉽게 메울 수 있다.

그러나 공채 발행이라는 체계가 다른 체계보다 이렇게 나은 것은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뿐이다. 전쟁 비용을 늘 그해 안에 거둔 세입으로 치른다면, 그 남다른 세입을 끌어내는 세금은 전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쌓을 힘은 전쟁 동안에는 덜할지라도 평화 동안에는 공채 발행이라는 체계 아래에서보다 더 컸을 것이다. 전쟁이 반드시 묵은 자본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을 터이고, 평화가 훨씬 더 많은 새

자본을 쌓게 하였으리라. 전쟁은 대체로 더 빨리 매듭지어지고 더 함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그 짐을 고스란히 느낀다면 머잖아 그것에 싫증을 낼 터이고, 정부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꼭 해야 할 것보다 더 오래 전쟁을 끌고 갈 까닭이 없을 것이다. 전쟁의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짐을 미리 내다본다면 백성은 싸워서 얻을 참되고 단단한 이해가 없을 때 함부로 전쟁을 불러 대지 않으리라. 개인이 쌓을 힘이 얼마쯤 깎이는 철은 더 드물게 오고 더 짧게 이어질 것이다. 그와 달리 그 힘이 가장 왕성한 철은 공채 발행이라는 체계 아래에서 그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공채 발행이 어느 만큼 나아가고 나면, 그것이 데려오는 세금의 불어남이 때로는 평화 때에조차 다른 체계가 전쟁 때에 그리하였을 만큼이나 개인이 쌓을 힘을 깎는다. 영국의 평시 세입은 이제 해마다 1,000만 파운드를 넘는다. 그것이 저당 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것이라면, 제대로 꾸려 가기만 하면 새 빚을 1실링도 지지 않고 가장 힘찬 전쟁을 치르기에 넉넉할 것이다. 영국에 사는 사람이 저마다 지닌 수입은 이제 평화 때에도, 저 해로운 공채 발행 체계를 아예 들이지 않았더라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전쟁 때에 그러하였을 만큼이나 짐을 지고 있고, 그들이 쌓을 힘도 그만큼 깎여 있다.

공채의 이자를 치르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 왼손에게 치르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무리 사람들이 지닌 수입의 얼마가 다른 무리에게 옮겨 가는 것일 뿐이고, 나라는 1파딩만큼도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명은 온통 중상주의 체계의 궤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내가 이미 그 체계를 길게 살펴본 마당에 그것을 두고 무엇을 더 말할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공채가 죄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진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네덜란드 사람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공채 기금에서 자못 큰 몫을 쥐고 있다. 그러나 그 빚이 죄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것이 덜 해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와 자본은 개인의 것이든 나라의 것이든 온갖 수입의 두 본디 원천이다. 자본은 농사에 쓰이든 제조업에 쓰이든 장사에 쓰이든 생산적인 노동의 임금을 치른다. 이 두 본디 수입의 원천을 꾸리는 일은 서로 다른 두 무리, 곧 토지의 임자와 자본의 임자 또는 그것을 굴리는 이에게 맡겨져 있다.

토지의 임자는 제 수입을 위해서라도 제 땅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꼴로 지키는 데에 이해가 걸려 있어서, 차지인의 집을 짓고 고치고, 있어야 할 물길과 울타리를 내고 건사하며, 지주가 마땅히 내고 건사해야 할 그 밖의 온갖 돈 드는 개량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토지세로 지주의 수입이 몹시 줄어들 수 있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과 편리한 것에 물리는 여러 가지 부과금으로 그 줄어든 수입의 참된 값어치가 몹시 작아져서, 그는 그 돈 드는 개량을 내거나 건사하기가 아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주가 제 몫을 하기를 그만두면, 차지인이 제 몫을 이어서 하기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주의 쪼들림이 커질수록 이 나라의 농사는 반드시 기운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과 편리한 것에 물리는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자본의 임자와 그것을 굴리는 이가 제가 거기서 끌어내는 수입이 무엇이든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거의 어느 나라에서 같은 수입으로 살 수 있는 만큼의 없어서는 안 될 것과 편리한 것을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다른 데로 옮겨 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느라 상인과 제조업자가 죄다, 또는 그 큰 몫이, 곧 큰 자본을 굴리는 이가 죄다, 또는 그 큰 몫이 세리의 낯 뜨겁고 성가신 드나듦에 늘 내맡겨지게 되면, 옮겨 가고 싶은 이 마음은 머잖아 참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이 나라의 산업은 그것을 떠받치던 자본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무너질 터이고, 농사가 기운 뒤에는 장사와 제조업이 망하는 일이 뒤따를 것이다.

수입의 저 두 큰 원천인 토지와 자본의 임자에게서, 곧 낱낱의 토지가 좋은 꼴로 있는 데에, 그리고 낱낱의 자본이 잘 꾸려지는 데에 바로 이해가 걸린 이들에게서, 그런 남다른 이해가 없는 다른 무리, 곧 나라에 돈을 꾸어 준 채권자에게로 그 어느 쪽에서 나오는 수입의 큰 몫을 옮기는 것은, 길게 보아 토지를 내버려 두게 하고 자본을 헤프게 하거나 빠져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채권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나라의 농사와 제조업과 장사가 잘되는 데에, 따라서 그 토지가 좋은 꼴로 있고 그 자본이 잘 꾸려지는 데에 두루 이해가 걸려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든 두루 못 되거나 기운다면, 여러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그에게 치러야 할 연금이나 이자를 대기에 더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채권자로만 보는 한, 나라의 채권자는 어느 낱낱의 토지가 좋은 꼴로 있는 데에도, 어느 낱낱의 자본이 잘 꾸려지는 데에도 이해가 걸려 있지 않다. 나라의 채권자로서 그는 그런 낱낱의 몫을 알지 못한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돌볼 수 없다. 더러는 그것이 망해도 그가 모를 수 있고, 그것이 그를 바로 건드릴 수도 없다.

공채 발행이라는 관행은 그것을 들인 나라를 하나하나 차츰 힘 빠지게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이 그것을 처음 시작한 듯하다.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아직도 홀로 선 나라라 내세울 수 있는 오직 둘인데, 둘 다 그것 때문에 힘이 빠졌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에게서 그 관행을 배운 듯하고, 그 세금이 아마 그들의 것보다 덜 슬기로웠으므로 제 타고난 힘에 견주어 더욱더 힘이 빠졌다. 스페인의 빚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 나라는 16세기가 끝나기 전에 깊이 빚에 빠져 있었으니,

잉글랜드가 1실링을 빚지기 백 해쯤 앞선 일이다. 프랑스는 타고난 온갖 밑천에도 아랑곳없이 같은 갈래의 짓누르는 짐 아래 시들고 있다.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은 제 빚 때문에 제노바나 베네치아 못지않게 힘이 빠져 있다. 다른 온갖 나라에 약함이나 무너짐을 가져다준 관행이 유독 영국에서만 아주 해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성싶은가?

그 여러 나라에 자리 잡은 조세 체계가 잉글랜드의 것보다 못하다고들 말할지 모른다. 나도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장 슬기로운 정부라도 세금을 매길 마땅한 대상을 죄다 바닥냈다면, 급히 어쩔 수 없는 때에는 마땅하지 않은 대상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슬기로운 네덜란드 공화국도 더러는 스페인의 세금 가운데 큰 몫만큼이나 불편한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공공 세입이 얼마만큼이라도 풀려나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 나아가면서 지난번 전쟁만큼 큰 비용이 드는 것이 된다면, 어찌할 수 없는 급함에 떠밀려 영국의 조세 체계도 네덜란드의 것만큼, 아니 스페인의 것만큼이나 짓누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참으로 우리의 지금 조세 체계의 명예를 위해 말하자면, 그것은 여태 산업을 거의 거치적거리게 하지 않아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조차 사람마다의 검약과 바른 몸가짐이 아끼고 쌓아서 정부의 헤픔과 흥청거림이 사회의 온 자본에 낸 구멍을 죄다 메울 수 있었던 듯하다. 영국이 여태 치른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이 든 지난번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의 농사는 예전 못지않게 번창했고, 제조업자는 예전 못지않게 많았고 예전 못지않게 넉넉히 일거리를 얻었으며, 장사는 예전 못지않게 넓었다. 그러므로 산업의 그 여러 갈래를 죄다 떠받친 자본은 예전에 있던 것과 맞먹었던 것이 틀림없다. 평화가 맺어진 뒤로 농사는 더욱 개량되었고, 이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나 어느 마을에서나 집의 지대가 올랐으니 이는 백성의 부와 수입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며, 묵은 세금의 큰 몫, 그 가운데서도

소비세와 관세의 으뜸가는 갈래에서 해마다 나오는 액수가 끊임없이 늘어 왔으니 이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따라서 그 소비를 떠받칠 수 있는 오직 하나인 생산물이 늘고 있다는 똑같이 또렷한 증거다. 영국은 반백 년 전에는 아무도 그가 떠받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던 짐을 쉽게 떠받치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영국이 어떤 짐이든 다 떠받칠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지는 말자. 이미 그에게 지워진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크게 쪼들리지 않고 떠받칠 수 있으리라고 너무 자신하지도 말자.

국채가 일단 어느 만큼 쌓이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온전히 갚아진 사례는 내가 믿기로 하나도 없다시피 하다. 공공 세입이 풀려난 일이 있기라도 했다면 그것은 늘 파산으로 이루어졌으니, 더러는 드러내 놓고 하는 파산이었고 흔히는 치르는 척하는 파산이었다.

주화의 이름값을 올리는 것은 참된 나라의 파산을 치르는 척하는 겉모습 아래 감추는 데에 가장 흔히 쓰이던 방편이었다. 이를테면 여섯 펜스짜리 은화가 의회의 법으로든 국왕의 선포로든 1실링이라는 이름값으로 올라가고, 여섯 펜스짜리 스무 닢이 1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이름값으로 올라간다면, 옛 이름값 아래 20실링, 곧 은 4온스쯤을 꾸었던 사람은 새 이름값 아래에서는 여섯 펜스짜리 스무 닢, 곧 2온스에 못 미치는 것으로 갚게 된다. 영국에서 기금이 매겨진 빚과 매겨지지 않은 빚의 원금에 가까운 1억 2,800만 파운드쯤의 국채를 이렇게 하여 지금 우리 돈 6,400만 파운드쯤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치르는 척하는 것일 뿐이고, 나라의 채권자는 저에게 받을 것에서 1파운드에 10실링씩을 참으로 빼앗기는 셈이다. 게다가 그 재앙은 나라의 채권자에게서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 낱낱의 사람에게 딸린 채권자도 죄다 그에 맞먹는 손해를 입을 터이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고 대개는 도리어 큰 손해가 더

얹히리라. 참으로 나라의 채권자가 두루 남에게 많이 빚지고 있다면, 그들은 나라가 저에게 치른 것과 같은 주화로 제 채권자에게 치름으로써 제 손해를 얼마쯤 메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어느 나라에서나 나라의 채권자는 그 큰 몫이 넉넉한 사람이어서, 다른 동료 시민에 대해 빚진 이보다는 빌려준 이의 자리에 더 많이 서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갈래의 치르는 척하기는 나라의 채권자의 손해를 덜어 주기는커녕 거의 어느 경우에나 더 무겁게 하고, 나라에 아무런 이로움도 없이 그 재앙을 아무 죄 없는 숱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힌다.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두루, 그리고 더없이 해롭게 뒤엎어서, 거의 어느 경우에나 게으르고 헤픈 빚진 이를 부지런하고 검약한 빌려준 이의 손해로 넉넉하게 만들고, 나라의 자본 가운데 큰 몫을 그것을 불리고 나아지게 할 만한 손에서 그것을 흩뜨리고 무너뜨릴 만한 손으로 옮긴다. 나라가 스스로 파산했다고 밝혀야 할 때가 오면, 한 사람이 그리해야 할 때가 오는 것과 똑같이, 떳떳하고 드러내 놓고 밝히는 파산이 언제나 빚진 이에게 가장 덜 부끄럽고 빌려준 이에게 가장 덜 해로운 길이다. 참된 파산이라는 망신을 덮으려고 이렇게 쉽게 속이 들여다보이면서도 이렇게 몹시 해로운 요술 같은 수작에 기댄다면, 나라의 명예는 참으로 몹시 하찮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거의 온갖 나라가 이런 급함에 몰렸을 때 더러 바로 이 요술 같은 수작을 부렸다. 로마인은 첫 포에니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제 다른 온갖 주화의 값어치를 셈하는 데에 쓰던 주화 곧 이름값인 아스를 구리 12온스가 들어가던 것에서 겨우 2온스만 들어가게 줄였으니,[8] 곧 그들은 구리 2온스를 언제나 그 전에는 12온스의 값어치를 나타내던 이름값으로 올린 것이다. 공화국은 이렇게 하여 저가 진 큰 빚을 참으로 빚진 것의 여섯 분의 일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큰 파산이라면 오늘날에는 몹시

사나운 백성의 아우성을 일으켰으리라고 우리는 으레 여기겠지만, 그런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그것을 정한 법은 주화에 관한 다른 온갖 법과 마찬가지로 호민관이 내놓아 민회를 거쳐 통과시킨 것이며, 아마 몹시 인기 있는 법이었을 것이다. 로마에서도 옛날의 다른 온갖 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는 늘 넉넉하고 높은 이에게 빚지고 있었으니, 넉넉한 이는 해마다 치르는 선거에서 제 표를 붙잡아 두려고 터무니없는 이자로 그들에게 돈을 꾸어 주곤 하였고, 그 돈은 갚아지는 일이 없어 머잖아 빚진 이가 갚을 수도, 다른 누가 그를 대신해 갚을 수도 없이 큰 액수로 쌓였다. 빚진 이는 몹시 모진 집행이 두려워 더 받는 것 없이도 빌려준 이가 밀어 주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뇌물과 부패를 막는 온갖 법에도 아랑곳없이 후보들이 뿌리는 돈은 원로원이 이따금 명하던 주화 나눔과 함께, 로마 공화국의 끝무렵에 더 가난한 시민이 제 생계를 끌어내던 으뜸가는 밑천이었다. 제 채권자에게 매인 이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더 가난한 시민은 빚을 죄다 없애 달라고, 아니면 그들이 새 장부라 부르던 것을, 곧 쌓인 빚의 어느 몫만 치르면 죄다 벗을 수 있게 해 주는 법을 끊임없이 외쳐 댔다. 온갖 이름값의 주화를 그 전 값어치의 여섯 분의 일로 줄인 저 법은 그들이 참으로 빚진 것의 여섯 분의 일로 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더없이 이로운 새 장부와 다름없었다. 백성을 달래려고 넉넉하고 높은 이는 여러 차례 빚을 없애는 법에도 새 장부를 들이는 법에도 마지못해 따라야 했다. 그들이 이 법에 따르기로 한 것도 아마 얼마는 같은 까닭에서였고, 얼마는 공공 세입을 풀어 줌으로써 저희가 그 으뜸가는 키를 쥐고 있던 그 정부에 기운을 되찾아 주려는 것에서였다. 이런 갈래의 손질은 1억 2,800만 파운드의 빚을 단숨에 21,333,333파운드 6실링 8펜스로 줄일 것이다. 두 번째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스는 더욱 줄어, 처음에는 구리 2온스에서 1온스로, 그 뒤에는

1온스에서 반 온스로, 곧 그 본디 값어치의 스물넷 분의 일이 되었다. 로마인의 이 세 가지 손질을 하나로 묶으면,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2,800만 파운드의 빚을 이렇게 하여 단숨에 5,333,333파운드 6실링 8펜스의 빚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저 어마어마한 빚조차 이런 식이라면 머잖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편으로 내가 믿기로 온갖 나라의 주화는 차츰차츰 그 본디 값어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고, 같은 이름의 액수에 차츰차츰 더 적고 더 적은 은이 들어가게 되었다.

나라들은 더러 같은 속셈으로 제 주화의 법정 품위를 흐려 놓기도 하였으니, 곧 거기에 섞임쇠를 더 많이 섞은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은화 1파운드(무게)에 지금의 법정 품위대로 18페니웨이트를 섞는 대신에 섞임쇠 8온스를 섞는다면,[9] 그런 주화로 1파운드 스털링 곧 20실링은 지금 우리 돈으로 6실링 8펜스보다 조금 더한 값어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돈으로 6실링 8펜스에 들어 있는 은의 양이 이리하여 1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이름값에 거의 다다르도록 올라가는 셈이다. 법정 품위를 흐리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오그망타시옹이라 부르는 것, 곧 주화의 이름값을 곧바로 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오그망타시옹, 곧 주화의 이름값을 곧바로 올리는 것은 언제나 드러내 놓고 밝히는 손질이고, 그 성질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무게도 부피도 더 작은 조각이 그 전에 무게도 부피도 더 큰 조각에 주어지던 것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그와 달리 법정 품위를 흐리는 것은 대체로 몰래 하는 손질이었다. 그것으로 조폐국에서는 그 전에 돌던 훨씬 값어치 큰 조각과 같은 이름값을 달고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무게와 부피와 겉모습을 갖춘 조각이 나온다. 프랑스의 국왕 장이 (뒤캉주의 『용어 사전』 「모네타」 항목, 베네딕트회 판을 보라) 제 빚을 갚으려고 주화의 품위를 흐렸을 때, 그 조폐국의 벼슬아치는 죄다 입을

다물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다.[10] 두 손질 다 옳지 않다. 그러나 그저 이름값을 올리는 것은 드러내 놓고 저지르는 힘의 옳지 않음이고, 품위를 흐리는 것은 남을 저버리는 속임의 옳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뒤엣것은 들키고 나면,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 숨겨질 수가 없었는데, 언제나 앞엣것보다 훨씬 큰 노여움을 일으켰다. 주화는 이름값을 어지간히 올린 뒤에 그 전 무게로 되돌려진 일이 거의 없었으나, 품위를 크게 흐린 뒤에는 거의 언제나 그 전 품위로 되돌려졌다. 그러지 않고서는 백성의 노여움과 분함을 가라앉힐 길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헨리 8세의 치세가 끝날 무렵과 에드워드 6세의 치세가 시작될 무렵에 잉글랜드의 주화는 이름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법정 품위도 흐려졌다. 제임스 6세가 어렸던 동안 스코틀랜드에서도 그와 같은 속임이 저질러졌다. 다른 거의 온갖 나라에서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

영국의 공공 세입이 온통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아니 그 풀려남을 향해 어느 만큼이라도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조차, 그 세입 가운데 남는 몫, 곧 평시 설비를 해마다 건사하는 비용을 치르고 남는 것이 이렇게 몹시 적은 동안에는 아예 바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그 풀려남은 공공 세입을 자못 크게 늘리거나 공공 비용을 그만큼 크게 줄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이 뚜렷하다.

토지세를 더 고르게 하고, 집의 지대에 물리는 세금을 더 고르게 하며, 지금의 관세와 소비세 체계를 앞 장에서 말한 대로 손질한다면, 아마 백성의 큰 몫이 지는 짐을 더 무겁게 하지 않고 그 무게를 온 나라에 더 고르게 나누기만 하고서도 세입을 자못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낙관하는 사업 기획자라도 이런 갈래의 늘림이 공공 세입을 온통 풀어 줄 만하다거나, 평화 때에 그 풀려남을 향해 나아가

다음 전쟁에서 공채가 더 쌓이는 것을 막거나 메울 만하다고 저를 달랠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영국의 조세 체계를 영국이나 유럽에 뿌리를 둔 사람이 사는 제국의 여러 속주에 죄다 넓힌다면 세입이 훨씬 더 크게 늘 것으로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영국 헌정의 원리에 맞게 하자면, 영국 의회에, 아니 굳이 달리 부르자면 영국 제국의 전체 신분회에 그 여러 속주를 고르고 떳떳하게 대표하는 이들을 들이지 않고서는 아마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다. 속주마다 그 대표가 그 세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지니는 비는 영국의 대표가 영국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지니는 비와 같아야 한다. 참으로 지금으로서는 힘 있는 숱한 사람의 사사로운 이해와 큰 무리의 굳어진 치우친 생각이 이렇게 큰 바뀜에 맞서, 넘기가 몹시 어려운, 아니 아예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걸림돌을 놓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합침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가리려 들지 않더라도, 이런 갈래의 생각을 펼쳐 보는 글에서 영국의 조세 체계가 제국의 여러 속주에 죄다 얼마만큼 들어맞을 수 있을지, 그렇게 쓴다면 거기서 어떤 세입을 바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갈래의 두루 합침이 그 안에 든 여러 속주의 행복과 번영을 어떻게 건드릴 성싶은지를 헤아려 보는 것은 아마 마땅치 않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헤아림은 나쁘게 보아야 새로운 유토피아로 여겨질 뿐이겠으나, 옛 유토피아보다 덜 재미있을지언정 더 쓸모없거나 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세와 인지세와 여러 가지 관세와 소비세가 영국 세금의 네 가지 으뜸가는 갈래를 이룬다.

아일랜드는 영국 못지않게, 우리의 아메리카와 서인도 개척지는 영국보다 더 토지세를 치를 힘이 있음이 틀림없다. 지주가 십일조도 구빈세도 물지 않는 곳에서는 그 두 짐을 다 지는 곳에서보다 그런 세금을 치를 힘이 더 있음이 틀림없다. 모두스가 없고 실물로 걷는

곳에서 십일조는,[11] 1파운드에 5실링에 참으로 이르는 토지세보다도 지주의 지대가 되었을 것을 더 많이 깎는다. 그런 십일조는 거의 어느 경우에나 토지의 참된 지대, 곧 농부의 자본을 온통 채워 주고 그의 이치에 맞는 이윤까지 치른 뒤에 남는 것의 네 분의 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온갖 모두스와 온갖 속인 귀속을 없앤다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온전한 교회 십일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만이나 700만 파운드로 매길 수 있으리라. 영국에도 아일랜드에도 십일조가 없다면, 지주들은 지금 그 큰 몫이 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도 600만이나 700만 파운드의 토지세를 더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카는 십일조를 물지 않으니 토지세를 아주 넉넉히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토지는 대체로 차지인에게 맡겨지지도 농부에게 빌려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지대 대장에 따라서도 매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토지도 윌리엄과 메리 치세 4년에는 어떤 지대 대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몹시 헐겁고 어림잡은 셈에 따라 매겨졌다.[12] 아메리카의 토지도 그와 같이 매기거나, 아니면 요즘 밀라노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사르데냐의 영지에서 한 것과 같은 꼼꼼한 조사에 따라 공평하게 값을 매겨 그에 따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인지세는 법을 다루는 절차의 꼴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을 넘기는 증서가 같거나 거의 같은 온갖 나라에서 아무런 다름 없이 거둘 수 있음이 뚜렷하다.

영국의 세관법을 아일랜드와 개척지에 넓히되 마땅히 그래야 하듯 무역의 자유를 넓히는 일이 함께 따른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더없이 이로울 것이다. 지금 아일랜드의 무역을 짓누르는 온갖 얄미운 굴레와 아메리카의 열거 상품과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가르는 일이 아주 끝날 것이다.[13] 피니스테레곶 북쪽 나라들도 지금 그 곶 남쪽 나라들이

아메리카 생산물의 얼마에 열려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생산물 죄다에 열릴 것이다. 세관법이 이렇게 하나같아진 결과로 영국 제국의 여러 갈래 사이의 무역은 지금 영국의 연안 무역이 그러한 것만큼 자유로우리라. 그리하여 영국 제국은 그 안에 그 여러 속주의 온갖 생산물을 위한 어마어마한 안쪽 시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넓어지면 아일랜드도 개척지도 관세가 는 데에서 입을 수 있는 것을 머잖아 죄다 메우리라.

소비세는 영국 조세 체계 가운데 제국의 여러 속주에 쓰이는 데에 따라 얼마쯤이라도 달리해야 할 오직 하나인 부분이다. 그것은 아일랜드에는 아무런 다름 없이 쓸 수 있을 터이니, 그 왕국의 생산물과 소비가 영국의 것과 꼭 같은 성질이기 때문이다. 생산물과 소비가 영국의 것과 몹시 다른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쓸 때에는, 잉글랜드의 사과술 고장과 맥주 고장에 쓸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쯤 손질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맥주라 불리나 당밀로 빚으므로 우리 맥주와는 거의 닮은 데가 없는 띄운 술이 아메리카 백성이 늘 마시는 것의 큰 몫을 차지한다. 이 술은 며칠밖에 두고 쓸 수 없으므로 우리 맥주처럼 큰 술도가에서 빚어 쟁여 두고 팔 수가 없고, 집집이 제가 먹을 것을 제 손으로 빚어야 하니 밥을 지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집집이 죄다 세리의 밉살스러운 드나듦과 살핌에 내맡기기를 우리가 선술집 주인과 내다 팔려고 술을 빚는 이에게 하듯 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아주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고르게 하자는 뜻에서 이 술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빚는 데에 쓰는 감에 세금을 물리되 만드는 자리에서 물리거나, 장사의 사정이 그런 소비세를 마땅치 않게 만든다면 그것이 소비될 식민지로 들여올 때에 부과금을 물려서 물릴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로 당밀을 들여오는 데에 1갤런에 1펜스씩 물린

부과금 말고도, 다른 어느 식민지에 딸린 배로 매사추세츠 베이에 들여오는 데에 1호그즈헤드에 8펜스를 물리는 이런 갈래의 지방세가 있고,[14] 북쪽 식민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들여오는 데에 1갤런에 5펜스를 물리는 또 하나가 있다. 아니면 이 길 가운데 어느 것도 편리하지 않다면, 집집이 제가 이 술을 마시는 몫을 두고 셈을 맞춰 낼 수도 있을 터인데, 잉글랜드에서 개인의 집안이 맥아세를 셈 맞춰 내듯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듯 그 사람들의 나이와 남녀에 따라 할 수도 있으며, 매슈 데커 경이 잉글랜드에서 소비재에 물리는 온갖 세금을 그렇게 걷어야 한다고 내놓은 것과 거의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갈래의 과세는 이미 말하였듯이 빨리 소비되는 것에 쓰면 그리 편리하지 않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이 없는 데에서는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설탕과 럼과 담배는 어디서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면서 거의 누구나 쓰는 것이 되었으니,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에 더없이 알맞은 대상이다. 식민지와 합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품에 제조업자나 기르는 이의 손을 떠나기 전에 세금을 물리거나, 이런 갈래의 과세가 그 사람들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만드는 자리에도 뒤에 그것이 실려 갈 제국의 여러 항구에도 공공 창고를 두어 거기에 쟁여 놓고, 임자와 세무 관원이 함께 지키는 가운데 그것이 소비하는 이에게든 국내 소비를 위해 사들이는 소매 상인에게든 내다 팔 상인에게든 넘겨질 때까지 두었다가, 그렇게 넘겨질 때에야 세금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 내다 팔려고 넘겨질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제국 밖으로 나가리라는 알맞은 보증을 받고 부과금 없이 내보내게 할 것이다. 식민지와 합치는 일이 지금의 영국 조세 체계에 얼마쯤 큰 바뀜을 요구할 만한 상품은 아마 이것이 으뜸일 것이다.

이 조세 체계를 제국의 여러 속주에 죄다 넓혔을 때 어느 만큼의 세입이 나올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어지간히 정확하게 헤아리기란 아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 체계로 영국에서는 800만이 안 되는 사람에게서 해마다 1,000만 파운드가 넘는 세입을 거둔다. 아일랜드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있고, 대륙 회의에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아메리카에서 함께 뭉친 열두 속주에는 300만이 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아마 제 백성에게 힘을 북돋우려는 것이든 이 나라 백성을 겁주려는 것이든 부풀려졌을 수 있으니, 우리는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식민지를 죄다 합쳐도 3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곧 유럽과 아메리카에 걸친 영국 제국 전체에 사는 사람이 1,3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쳐 두자. 800만이 안 되는 사람에게서 이 조세 체계가 1,0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 세입을 거둔다면, 1,300만 사람에게서는 1,625만 파운드 스털링이 넘는 세입을 거두어야 마땅하다. 이 체계가 그만큼을 낼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세입에서 아일랜드와 개척지가 저마다의 민간 정부 비용을 치르려고 으레 거두는 세입을 빼야 한다. 아일랜드의 민간과 군사 설비에 드는 비용은 공채의 이자와 함께 1775년 3월에 끝난 두 해를 고르게 쳐서 해마다 75만 파운드에 조금 못 미치는 데에 이른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으뜸가는 식민지의 세입을 몹시 꼼꼼하게 셈한 것에 따르면, 그것은 지금의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 14만 1,800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셈에는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와 우리가 요즘 얻은 것의 세입이 대륙에서든 섬에서든 죄다 빠져 있으니, 아마 3만이나 4만 파운드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림수로 맞추기 위해 아일랜드와 개척지의 민간 정부를 떠받치는 데에 드는 세입을 100만 파운드로 쳐 두자. 그러면 제국의 두루 쓰이는 비용을 치르고 공채를 갚는 데에 돌릴 세입이 1,525만 파운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세입에서 평화로운 때에 그 빚을 갚는 데에 100만 파운드를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나아진 세입에서는 625만 파운드를 아주 넉넉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큰 감채 기금은 해마다 그 앞 해에 없앤 빚의 이자만큼 늘어날 터이니, 이렇게 몹시 빠르게 불어나 몇 해 안에 그 빚을 죄다 없애기에 넉넉해질 터이고, 그리하여 지금 힘이 빠지고 시들어 있는 제국의 기운을 온통 되찾아 주리라. 그러는 사이에 백성은 가장 짐스러운 세금의 얼마에서, 곧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나 제조업의 감에 물리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하는 빈민은 더 잘 살고 더 싸게 일하고 제 물건을 더 싸게 저자에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물건이 싸지면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이의 노동을 바라는 마음이 커지리라. 노동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커지면 노동하는 빈민의 수도 늘고 그 처지도 나아질 것이다. 그들의 소비가 늘 터이고, 그와 함께 그 소비의 온갖 항목 가운데 세금을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에서 나오는 세입도 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세 체계에서 나오는 세입이 거기에 매인 사람의 수에 바로 비례해서 곧바로 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여태 지지 않던 짐을 이렇게 지게 된 제국의 속주에는 얼마 동안 크게 너그러워야 마땅할 터이고, 어디서나 같은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꼼꼼하게 걷게 되었을 때조차 그것이 어디서나 사람의 수에 비례하는 세입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관세와 소비세가 물려지는 으뜸가는 상품의 소비가 몹시 적고,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나라에서는 밀수할 틈이 몹시 크다. 스코틀랜드에서 낮은 계층이 맥아로 빚은 술을 마시는 양은 몹시 적고, 맥아와 맥주와 에일에 물리는 소비세는 사람의 수와 부과금의 율에 견주어 잉글랜드에서보다 덜 나오는데, 맥아에 물리는 율은 품질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까닭에 서로 다르다. 소비세의 이 갈래에서는 내가 보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밀수가 그리 많지 않다. 증류에 물리는 부과금과 관세의 큰 몫은 두 나라의 사람 수에 견주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서보다 덜 나오는데, 이는 세금 물린 상품의 소비가 적기 때문만이 아니라 밀수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일랜드에서는 낮은 계층이 스코틀랜드에서보다 더 가난하고, 이 나라의 숱한 데에 사람이 거의 그만큼 드문드문 산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에서는 세금 물린 상품의 소비가 사람의 수에 견주어 스코틀랜드에서보다 더 적을 수 있고, 밀수하기 쉬운 것은 거의 같을 것이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는 백인이 가장 낮은 계층조차 잉글랜드의 같은 계층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고, 그들이 으레 누리는 온갖 사치품의 소비는 아마 훨씬 더 클 것이다. 참으로 대륙의 남쪽 식민지에서도 서인도의 섬에서도 사는 이의 큰 몫을 이루는 흑인은 노예 상태에 있으므로 두말할 나위 없이 스코틀랜드에서든 아일랜드에서든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이 더 나쁘게 먹는다거나, 알맞은 부과금을 물릴 만한 물건을 그들이 쓰는 것이 잉글랜드의 낮은 계층이 쓰는 것보다도 적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그들을 잘 먹이고 기운을 돋우어 두는 것이 그 주인의 이해에 맞으니, 제가 부리는 소를 그리해 두는 것이 그의 이해에 맞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흑인은 거의 어디서나 백인 하인과 마찬가지로 럼과 당밀이나 가문비 맥주를 제 몫으로 받고, 그 물건에 알맞은 부과금이 물린다 하여도 이 몫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 물린 상품의 소비는 사는 이의 수에 견주어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도 영국 제국의 어느 곳 못지않게 클 것이다. 참으로 밀수할 틈은 훨씬 클 터이니, 아메리카는 땅의 넓이에 견주어 스코틀랜드보다도 아일랜드보다도 사람이 훨씬 드문드문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맥아와 맥아로 빚은 술에 물리는 여러 가지 부과금으로 거두는 세입을 맥아 하나에 물리는 부과금으로 거둔다면, 소비세의 가장 큰 갈래에서 밀수할 틈은 거의 아주 없어지리라. 그리고

관세를 들여오는 거의 온갖 물건에 물리는 대신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몇 가지에만 매기고, 그 부과금을 걷는 일을 소비세법에 매어 둔다면, 밀수할 틈은 그렇게 아주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몹시 줄어들 것이다. 이 두 가지 겉보기에 몹시 손쉽고 간단한 손질의 결과로, 관세와 소비세는 아마 사람이 가장 드문드문 사는 속주의 소비에 견주어, 지금 사람이 가장 빽빽한 데의 소비에 견주어 내는 만큼 큰 세입을 낼 것이다.

참으로 아메리카인들에게는 금화도 은화도 없으니, 이 나라 안의 장사는 지폐로 이루어지고, 더러 그들에게 들어오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서 받는 상품의 값으로 죄다 영국에 보내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금과 은이 없이는 세금을 치를 길이 없다고 그들은 덧붙인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지닌 금과 은을 죄다 얻고 있다. 그들이 지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끌어낸다는 말인가?

아메리카에 금화와 은화가 지금 모자란 것은 그 나라가 가난해서도,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쇠붙이를 살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노동의 임금이 잉글랜드에서보다 훨씬 높고 식료품의 값이 훨씬 낮은 나라에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일이거나 편리한 일이기만 하다면 백성의 큰 몫이 더 많은 양을 살 밑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쇠붙이가 모자란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골라서 그리된 것이 틀림없다.

금화든 은화든 꼭 있어야 하거나 편리한 것은 나라 안의 일을 치르거나 나라 밖의 일을 치르기 위해서다.

어느 나라에서나 나라 안의 일은, 이 『탐구』의 2편에서 보인 대로, 적어도 평화로운 때에는 금화와 은화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만큼 편리하게 지폐로 치를 수 있다. 아메리카인들은 제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언제든 이윤을 남기며 쓸 수 있으므로, 금과 은처럼 값비싼 장사 연장에 드는 비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그 쇠붙이를 사는 데에 들여야 할 남는 생산물의 몫을 차라리 장사 연장과 옷감과 살림살이의 여러 가지와 제 정착지와 개척지를 짓고 넓히는 데에 드는 쇠붙이 물건을 사는 데에, 곧 죽은 자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생산하는 자산을 사는 데에 쓰는 것이 편리하다. 식민지 정부는 백성에게 나라 안의 일을 치르기에 넉넉한, 대개는 넘치도록 넉넉한 만큼의 지폐를 대 주는 것이 제 이해에 맞음을 안다. 그 정부 가운데 얼마는, 그 가운데서도 펜실베이니아는 이 지폐를 제 신민에게 얼마씩의 이자로 꾸어 주어 세입을 끌어낸다. 매사추세츠 베이의 정부 같은 다른 얼마는 남다르게 급한 때에 공공 비용을 치르려고 이런 갈래의 지폐를 내주고, 뒤에 식민지에 편리한 때가 되면 그것이 차츰 떨어진 값으로 되사들인다. 1747년에 (허친슨의 『매사추세츠 베이의 역사』 제2권 436쪽 이하를 보라) 그 식민지는 이렇게 하여 제 공채의 큰 몫을 그 증서를 내주고 받았던 돈의 열 분의 일로 갚았다. 개척지를 꾸리는 이에게는 나라 안의 거래에 금화와 은화를 쓰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편리하고, 식민지 정부에게는 몹시 큰 안 좋은 점이 따르기는 하나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 주는 매개를 그들에게 대 주는 것이 편리하다. 지폐가 넘치면 반드시 식민지의 나라 안 거래에서 금과 은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나라 안 거래의 큰 몫에서 그 쇠붙이를 몰아낸 것과 같은 까닭에서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에서 이렇게 지폐가 넘치게 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일을 벌이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기질, 곧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죄다 살아 움직이며 생산하는 자산으로 쓰려는 바람 때문이다.

여러 식민지가 영국과 하는 바깥 장사에서 금과 은은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만큼에 바로 비례하여 많이도 적게도 쓰인다. 그 쇠붙이가 꼭 있어야 하지 않은 데에서는 그것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데에서는 대체로 찾아진다.

영국과 담배 식민지 사이의 장사에서 영국 물건은 대체로 꽤 오랜 외상으로 식민지 사람에게 건네지고, 뒤에 얼마의 값으로 매긴 담배로 치러진다. 식민지 사람에게는 금과 은으로 치르는 것보다 담배로 치르는 것이 더 편리하다. 어느 상인에게나 제 거래처가 저에게 판 물건의 값을 돈으로 치르는 것보다 저가 마침 다루는 다른 갈래의 물건으로 치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런 상인은 이따금 들어오는 요구에 맞추려고 제 자산의 얼마를 놀리며 현금으로 손에 쥐고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제 가게나 창고에 더 많은 물건을 둘 수 있고 더 크게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상인의 거래처가 죄다 저에게 판 물건의 값을 그가 마침 다루는 다른 갈래의 물건으로 받는 것이 편리한 일은 좀처럼 없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장사하는 영국 상인은 그 식민지에 판 물건의 값을 금과 은보다 담배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한 유별난 거래처인 셈이다. 그들은 담배를 팔아 이윤을 낼 것으로 여기나 금과 은을 팔아서는 아무 이윤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영국과 담배 식민지 사이의 장사에서 금과 은은 몹시 드물게 나타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나라 안의 장사에서 못지않게 나라 밖의 장사에서도 그 쇠붙이가 쓰일 일이 거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아메리카의 다른 어느 식민지보다도 금화와 은화가 적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웃 못지않게 번창하는, 따라서 넉넉한 곳으로 여겨진다.

북쪽 식민지, 곧 펜실베이니아와 뉴욕과 뉴저지와 뉴잉글랜드의 네 정부 따위에서는 저희 생산물 가운데 영국으로 내보내는 것의 값어치가 저희가 쓰려고, 또 저희가 실어다 주는 다른 얼마의 식민지가 쓰려고 들여오는 제조품의 값어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차액을 본국에 금과 은으로 치러야 하는데, 그들은 대체로 그것을 마련한다.

설탕 식민지에서는 해마다 영국으로 내보내는 생산물의 값어치가 거기서 들여오는 온갖 물건의 값어치보다 훨씬 크다. 해마다 본국으로

보내는 설탕과 럼의 값을 그 식민지에서 치른다면 영국은 해마다 몹시 큰 차액을 돈으로 내보내야 할 터이고, 어떤 갈래의 정치를 논하는 이들은 서인도와 하는 장사를 더없이 이롭지 못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마침 사탕수수 개척지의 으뜸가는 임자 가운데 숱한 이가 영국에 산다. 그들의 지대는 제 땅에서 나는 생산물인 설탕과 럼으로 그들에게 부쳐진다. 서인도 상인이 제 셈으로 그 식민지에서 사들이는 설탕과 럼은 그들이 거기서 해마다 파는 물건의 값어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차액은 반드시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치러져야 하는데, 이 차액도 대체로 마련된다.

여러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치르는 것이 어렵고 고르지 못한 것은 저마다 치러야 할 차액이 크고 작은 것과는 조금도 비례하지 않았다. 대체로 북쪽 식민지에서 치르는 것이 담배 식민지에서보다 더 고르게 이루어졌으니, 앞엣것은 대체로 꽤 큰 차액을 돈으로 치렀고 뒤엣것은 차액을 아예 치르지 않았거나 훨씬 적게 치렀는데도 그러하였다. 우리의 여러 설탕 식민지에서 치르는 것을 받아 내기 어려운 정도는 저마다 치러야 할 차액의 크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갈지 않은 땅의 넓이에, 곧 개척지를 꾸리는 이가 거래를 지나치게 벌이거나 제 자본의 크기에 맞지 않게 넓은 묵정밭에 정착하고 개척하는 일을 떠맡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작은 데에 비례하였다. 아직도 갈지 않은 땅이 많은 큰 섬 자메이카에서 회수되는 것은 그 때문에 대체로 바베이도스와 앤티가와 세인트크리스토퍼 같은 더 작은 섬에서 회수되는 것보다 고르지 못하고 미덥지 못하였으니, 그 섬들은 여러 해 동안 온통 갈려 왔고 그 때문에 개척지를 꾸리는 이가 투기할 마당을 덜 내주었다. 새로 얻은 그레나다와 토바고와 세인트빈센트와 도미니카는 이런 갈래의 투기에 새 마당을 열어 주었고, 그 섬들에서 회수되는 것은 요즘 큰 섬 자메이카에서 회수되는 것만큼이나 고르지 못하고 미덥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큰 몫에서 금화와 은화가 지금 모자란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다. 살아 움직이며 생산하는 자산을 크게 바라는 마음이 죽은 자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두는 것을 그들에게 편리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그들은 금과 은보다 더 싸고 덜 편리한 장사 매개로 만족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금과 은의 값어치를 장사 연장과 옷감과 살림살이와 제 정착지와 개척지를 짓고 넓히는 데에 드는 쇠붙이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금화와 은화 없이는 치를 수 없는 갈래의 일에서는 그들이 늘 그 쇠붙이를 있어야 할 만큼 마련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흔히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어긋남은 대체로 어쩔 수 없는 가난 탓이 아니라 그럴 것 없이 지나친 일 벌임 탓이다. 그들이 치르는 것이 고르지 못하고 미덥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치도록 넉넉해지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저희 민간과 군사 설비의 비용을 치르는 데에 드는 것을 넘는 몫을 죄다 금과 은으로 영국에 부친다 하더라도, 식민지에는 그만큼의 쇠붙이를 살 밑천이 넘치도록 있다. 참으로 이 경우에 그들은 지금 살아 움직이며 생산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데에 쓰는 남는 생산물의 얼마를 죽은 자산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 안의 일을 치르는 데에 그들은 싼 장사 매개 대신 값비싼 것을 쓸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 값비싼 매개를 사는 비용이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 지나치게 일을 벌이는 그들의 활기와 열의를 얼마쯤 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세입의 어느 몫도 금과 은으로 부칠 것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메리카의 남는 생산물의 얼마가 맡겨진 영국의 특정한 상인이나 회사 앞으로 떼어 그들이 받아들인 어음으로 부칠 수 있을 터이고, 그들은 그 값어치를 물건으로 받은 뒤에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세입을 국고에 돈으로 치를 것이며, 그 일 전체가 아메리카에서 금이나 은을 1온스도 내보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잦을 것이다.

아일랜드도 아메리카도 영국의 공채를 없애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빚은 명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를 떠받치느라 진 것이다.[15] 아일랜드의 신교도는 그 정부에 제 나라에서 지금 누리는 온갖 권세만이 아니라 제 자유와 재산과 믿음을 지켜 주는 온갖 방패를 빚지고 있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얼마는 그 정부에 지금의 특허장을, 따라서 지금의 헌정을 빚지고 있으며, 아메리카의 온갖 식민지가 그 뒤로 여태 누려 온 자유와 안전과 재산을 그 정부에 빚지고 있다. 그 공채는 영국만이 아니라 제국의 여러 속주를 죄다 지키느라 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번 전쟁에서 진 어마어마한 빚과 그 앞 전쟁에서 진 빚의 큰 몫은 둘 다 마땅히 아메리카를 지키느라 진 것이다.

영국과 합친다면 아일랜드는 무역의 자유 말고도 훨씬 더 큰 다른 이로움을 얻을 터이고, 그것은 그 합침에 따를 세금의 늘어남을 넉넉히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 잉글랜드와 합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가운데 계층과 낮은 계층은 그 전에 늘 저희를 짓누르던 귀족의 권세에서 온통 벗어났다. 영국과 합친다면 아일랜드의 온갖 계층 사람 가운데 큰 몫이 훨씬 더 짓누르는 귀족에게서 그와 똑같이 온통 벗어날 것이다. 그 귀족은 스코틀랜드의 것처럼 태생과 재산이라는 자연스럽고 볼 만한 가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온갖 가름 가운데 가장 밉살스러운 것, 곧 믿음과 정치에서 치우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이런 가름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짓누르는 이의 오만함과 짓눌리는 이의 미움과 분함을 부추기고, 같은 나라에 사는 이들을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이 여태 그러한 것보다도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예사다. 영국과 합치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에 사는 이들이 앞으로 여러 대가 지나도 저희를 한 백성으로 여길 성싶지 않다.

식민지에서는 짓누르는 귀족이 여태 판을 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조차 행복과 고요함이라는 점에서는 영국과 합침으로써 자못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작은 민주국에 떼어 놓을 수 없이 따라붙는 저 모질고 독한 파벌 싸움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 줄 터인데, 그 싸움은 그 꼴이 몹시 민주적인 그들의 정부에서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고 고요함을 흐려 놓은 일이 잦았다. 이런 갈래의 합침으로 막지 않는다면 일어날 성싶어 보이는 영국과의 아주 갈라섬이 일어난다면, 그 파벌 싸움은 여태보다 열 곱절 더 독해질 것이다. 지금의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본국이 지닌 억누르는 힘이 언제나 그 파벌 싸움이 거친 우악스러움과 모욕보다 더 나쁜 것으로 터지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 그 억누르는 힘이 아주 걷힌다면 그것은 아마 머잖아 드러내 놓은 사나움과 피흘림으로 터질 것이다. 하나같은 정부 아래 합쳐 있는 큰 나라에서는 대체로 파벌의 기운이 제국의 한복판에서보다 먼 속주에서 덜 판을 친다. 그 속주가 서울에서, 곧 파벌과 야심이 크게 다투는 으뜸가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다투는 어느 편의 속셈에도 덜 끼어들게 되고, 모두의 몸가짐을 더 무덤덤하고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는 구경꾼이 된다. 파벌의 기운은 잉글랜드에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덜 판을 친다. 합친다면 그것은 아마 스코틀랜드에서보다 아일랜드에서 덜 판을 칠 터이고, 식민지는 아마 머잖아 지금 영국 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만큼의 화합과 한마음을 누릴 것이다. 참으로 아일랜드도 식민지도 지금 치르는 어떤 것보다 무거운 세금을 지게 되리라. 그러나 공공 세입을 부지런하고 미쁘게 국채를 없애는 데에 쓴 결과로 그 세금의 큰 몫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고, 영국의 공공 세입은 머잖아 웬만한 평시 설비를 건사하는 데에 드는 만큼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동인도회사가 얻은 땅은 왕관의, 곧 영국의 나라와 백성의 의심할 나위 없는 권리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세입 원천이 될 수 있을 터이고 아마 이미 말한 온갖 것보다 더 넉넉할 것이다. 그 나라들은 영국보다 더 기름지고 더 넓으며, 그 넓이에 견주어 훨씬 넉넉하고 사람도 훨씬 많다고들 한다. 거기서 큰 세입을 끌어내려면, 이미 넉넉히, 아니 넘치도록 세금이 물려 있는 나라에 새 조세 체계를 들일 것 없을 것이다. 저 가엾은 나라들의 짐은 더 무겁게 하기보다 덜어 주는 것이 아마 더 마땅할 터이고, 거기서 세입을 끌어내려 애쓰되 새 세금을 물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치르는 것의 큰 몫을 가로채고 엉뚱하게 쓰는 일을 막아서 그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영국이 위에서 말한 밑천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세입을 자못 크게 늘릴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게 남는 오직 하나의 밑천은 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공공 세입을 걷는 길에서도 쓰는 길에서도 아직 나아질 데가 있기는 하겠으나, 영국은 적어도 그 이웃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알뜰한 듯하다. 그가 평화 때에 제 나라를 지키려고 건사하는 군사 설비는 부로든 힘으로든 그와 겨룬다고 내세울 만한 어느 유럽 나라의 것보다도 알맞다. 그러므로 이 항목 가운데 어느 것도 비용을 자못 줄일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식민지의 평시 설비에 드는 비용은 지금의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못 컸고, 그것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아무 세입도 끌어낼 수 없다면 마땅히 아주 없애야 할 비용이다. 평화 때에 늘 드는 이 비용은 몹시 크기는 하나 전쟁 때에 식민지를 지키는 데에 우리가 들인 것에 견주면 대수롭지 않다. 온통 식민지 때문에 벌인 지난번 전쟁은 이미 말한 대로 영국에 9,000만 파운드가 넘는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 1739년의 스페인와의 전쟁은 주로 그들 때문에 벌인 것이며, 그 전쟁과 그 결과로 일어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은 4,000만 파운드가 넘게 썼으니, 그 큰 몫은 마땅히

식민지 앞으로 달아야 한다. 그 두 전쟁에서 식민지는 영국에 그 앞엣것이 일어나기 전의 국채를 죄다 합친 것의 두 곱절이 넘는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 그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 빚은 이때쯤 온통 갚아질 수 있었을 터이고 아마 갚아졌을 것이며, 식민지가 없었더라면 그 가운데 앞엣것은 벌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뒤엣것은 반드시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가 영국 제국의 속주로 여겨졌기에 이 비용이 그들에게 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제국을 떠받치는 데에 세입도 군사력도 내놓지 않는 나라는 속주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아마 덧붙은 것으로, 곧 제국의 으리으리하고 보란 듯한 겉치레 일습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이 이 겉치레 일습을 건사하는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제 비용에 비례하도록 세입을 늘릴 수 없다면 적어도 제 세입에 제 비용을 맞추어야 한다. 식민지가 영국의 세금에 따르기를 마다하는데도 여전히 영국 제국의 속주로 여겨진다면, 앞으로 어느 전쟁에서 그들을 지키는 데에 영국이 여태 어느 전쟁에서 치른 것만큼이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영국을 다스리는 이들은 백 해가 넘도록 대서양 서쪽에 큰 제국을 지녔다는 상상으로 백성을 달래 왔다. 그러나 이 제국은 여태 상상 속에만 있었다. 그것은 여태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계획이었고, 금광이 아니라 금광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게 하였고 지금도 들게 하고 있으며, 여태 해 온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성싶은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이윤도 가져다줄 성싶지 않다. 이미 보였듯이 식민지 무역의 독점이 낳는 것은 백성의 큰 무리에게 이윤이 아니라 그저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이 저희가, 그리고 아마 백성도 함께 빠져 있던 이 금빛 꿈을 이루어 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먼저 거기서 깨어나 백성도 깨우려고 애쓰든지 해야 할 때임이 틀림없다. 그 계획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마땅히

그만두어야 한다. 영국 제국의 어느 속주든 제국 전체를 떠받치는 데에 이바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이제야말로 영국이 전쟁 때에 그 속주들을 지키는 비용에서도, 평화 때에 그 민간 설비나 군사 설비를 얼마쯤이라도 떠받치는 비용에서도 스스로를 풀어 놓고, 앞날을 두고 바라보는 바와 꾀하는 바를 제 형편이 참으로 대단치 않다는 데에 맞추도록 애써야 할 때임이 틀림없다.

---

1. 옮긴이 — 저본은 이 전쟁이 1668년에 일어났다고 적었으나, 리스베이크 조약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1688년에 일어난 9년 전쟁이다. 뜻이 통하도록 1688년으로 옮겼다. 스미스가 여기서 꼽는 세 전쟁은 저마다 리스베이크 조약(1697), 위트레흐트 조약(1713), 아헨 조약(1748)으로 매듭지어졌다.

2. 옮긴이 —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이므로 1파운드는 240펜스다. 1펜스는 다시 4파딩으로 갈린다. 스털링은 영국 화폐를 말한다.

3. 옮긴이 — 남해 기금은 1711년에 세워진 남해회사가 떠맡은 공채를 말한다. 나라가 진 빚을 회사의 자산으로 바꾸어 준 것인데, 1720년의 이른바 남해 거품으로 그 값이 치솟았다가 무너졌다.

4. 옮긴이 — 저본은 이 액수를 8,328,554파운드로 적었다. 그러나 스미스가 바로 앞뒤에 적은 55,282,978파운드 1실링 3과 6분의 5펜스에서 46,954,623파운드 3실링 4와 12분의 7펜스를 뺀 값은 8,328,354파운드 17실링 11과 12분의 3펜스이고, 다음 문단에서도 같은 액수를 8,328,354파운드로 적었다. 뜻이 통하도록 8,328,354파운드로 옮겼다.

5. 옮긴이 — 헨리 펠럼(1694~1754)은 1743년부터 죽을 때까지 영국의 재무부 제1위원 곧 총리를 지냈다.

6. 옮긴이 — 왕실비(civil list)는 왕실의 씀씀이와 문관의 봉급에 쓰라고 의회가 국왕에게 해마다 내주던 돈이다. 그 씀씀이가 정해진 액수를 넘으면 빚이 쌓였고 의회가 따로 갚아 주곤 하였다.

7. 옮긴이 — 채텀 백작은 윌리엄 피트(1708~1778)를 말하며, 7년 전쟁을 이끈 국무대신이다. 존 콜크래프트(1726~1772)는 군대에 봉급과 물자를 대는 일을 맡아 큰돈을 모은 사람이다.

8. 옮긴이 — 아스(As)는 로마의 구리 주화이며 값어치를 셈하는 기준이 되었다. 「새 장부」는 라틴어 노바이 타불라이(novae tabulae)를 옮긴 것으로, 빚을 적어 둔

장부를 새로 쓴다는 뜻이며 빚을 깎아 주거나 없애 주는 법을 가리켰다.

9. 옮긴이 — 페니웨이트는 무게 단위로 1온스의 20분의 1이다. 품위는 주화에 든 은이나 금의 순도를 말하며, 영국 은화의 법정 품위는 1파운드(무게)인 12온스에 은 11온스 2페니웨이트와 섞임쇠 18페니웨이트였다.

10. 옮긴이 — 프랑스의 국왕 장은 장 2세(1319~1364)를 말하며, 잉글랜드와의 싸움에서 진 빚을 갚느라 주화를 여러 차례 손보았다. 뒤 캉주(1610~1688)가 엮은 중세 라틴어 용어 사전은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18세기에 다시 펴냈다.

11. 옮긴이 — 모두스(modus)는 십일조를 실물 대신 정해진 돈으로 갈음하기로 오래전에 맺어 둔 약정이다. 속인 귀속(impropriation)은 교회에 속하던 십일조 받을 권리가 종교개혁 뒤에 평신도의 손에 넘어간 것을 말한다.

12. 옮긴이 — 영국의 법령은 국왕이 왕위에 오른 뒤 몇 해째 회기에 만들어졌는지로 가리킨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1689년에 올랐으므로 그 치세 4년은 1692년 회기다.

13. 옮긴이 — 항해법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생산물 가운데 얼마를 「열거 상품」으로 정하여 영국이나 영국의 다른 식민지로만 내보낼 수 있게 하였다. 담배와 설탕과 쪽이 그러하였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피니스테레곶 남쪽의 유럽 항구로 곧바로 실어 갈 수 있었다.

14. 옮긴이 — 호그즈헤드는 술이나 당밀을 담는 큰 통이며, 그 부피는 담는 것에 따라 달랐으나 흔히 63갤런쯤으로 쳤다.

15. 옮긴이 — 1688년의 명예혁명을 말한다.

판권면

국부론

원제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지은이 ·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 (원저 1776년 초간)

분량 · 원문 379,794단어 · 5편 · 본문 2,193문단 · 한글 717,078자

각주 · 옮긴이 주 470개. 이 저본에는 번호 붙은 원저 각주가 없고, 스미스 자신의 주가 중괄호로 본문에 끼워져 67군데 있다(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표 · 1편 11장의 밀 가격표 둘, 4편 부록의 청어잡이 통계표 하나. 저본의 줄 정렬을 그대로 살렸다.

함께 읽을 것 · 같은 저자의 《도덕감정론》(에테르 라이브러리 5번).

개정 · 1.1판(2026년 10월).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다(예: 에스파냐 → 스페인, 합자 회사 → 합본 회사, 튀르키예 → 튀르크). 본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